

국역 류성룡 시 Ⅲ

이 책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재, 복제, 기타 이용하려면 반드시 사단
법인 서애선생기념사업회와 역주·감수자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국역 서애전서
國譯西厓全書

Ⅲ - 3

국역 류성룡 시 Ⅲ

西厓 柳成龍 지음

류명희 역주·감수
안유호

사단
법인 서애선생기념사업회



우리 민족정신과 문화의 근간에는 유구한 역사 속에 매 시대마다 끊임 없이 발생하는 시련을 딛고서, 이를 계승발전 시키고자했던 위대한 선조들의 각고刻苦의 노력들이 스며있습니다. 그 중에도 선조先祖들의 정신이 담긴 각계의 수많은 유저遺著는 바로 문화의 기층基層을 헤아릴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부분임을 누구나 부인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서애西厓 류성룡(柳成龍 : 1542~1607) 선생은 우리 역사상 가장 참혹했던 임진왜란의 중심에 서서 밖으로는 보국안민輔國安民을 위해, 불철주야군략軍略과 시정施政의 방책을 짜내기에 고심苦心하셨고, 안으로는 육친에 대한 효제孝悌 정신의 실천을 삶의 근간으로 하였던 대유大儒이셨습니다. 이와 같이 정덕正德으로 일관했던 서애 선생의 생애는 바로 부친 입암立巖 류중영柳仲郢 선생의 유학적儒學的 경륜에 의거한 훈도訓導와 퇴계의 문화에서 심화시킨 정·주이학程朱理學의 도학道學 사상이 선생의 생애를 마름하는 기준이 되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하여서 30년간의 입조入朝에서 거의 유례없는 승진陞進을 거듭할 때마다, 한결같이 직위는 초개草芥같이 여기시나 직분職分에는 오로지 ‘충忠’으로 일관하셨던 위대한 지도자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천성이 진리를 궁구窮究하시는 학자적 면모를 지니셨던 터라, 국난國難의 중심에서 겪었던 크고 작은 범국가적 고초와 개인의 애환을 문文과 시詩로 하나하나 남기시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귀감이 되게 하시니 사후에도 그 음덕蔭德이 하늘에 닿습니다.

별세하신 선친先親(휘諱 찬우繼佑)께서는 1976년 12월 21에 사단법인社
團法人 ‘서애선생기념사업회西厓先生紀念事業會’를 발족시켜, 15년이 넘는
각고刻苦 끝에 1991년, 서애선생의 저술을 집대성하여, 『서애전서西厓全書』
4책冊을 세상에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이는 모두 한문漢文으로 되어 있어,
본회에서는 서둘러서 국역작업을 시작했으나, 역시 『서애전서西厓全書』 간
행으로부터 다시 10년이 지난, 2001년에서야 전서全書의 일부를 간행하게
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선친은 이의 완성단계에서 별세하셨습니다. 그때,
간행된 것은 ‘문부文部’를 중심으로 한 것으로, 크게 두 종류로 분류하여,
모두 7책이었습니다. 즉, 제Ⅰ부는 『서애전서西厓全書·별저편別著篇』을
중심으로 총 5책—『징비록懲毖錄』·『근폭집芹曝集』·『진사록辰巳錄Ⅰ』·
『진사록辰巳錄Ⅱ』·『군문등록軍門騰錄』—이고, 제Ⅱ부는 문집편文集篇의
본집本集·별집別集·속집續集을 대상으로 총 2책—『잡저雜著』와 『서書』
—을 국역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서애전서 일부가 국역으로 간행된 지 1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야 ‘시부詩部’의 국역을 착수하게 되니, 미리 번역했던 국역본 간행사
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학계와 사림士林의 인사들에게 죄송한 마음 그지
없습니다. 역자譯者의 선정 및 기타 여러 사정으로 인하여, 본의 아니게 늦
어졌으니 너그러우신 양해를 바랍니다.

이번에 출간하는 시집詩集은 앞의 Ⅰ·Ⅱ부의 후속편으로 출간하게
되는 것입니다. Ⅰ·Ⅱ부의 ‘문文’을 통해서 보았던, 정치가 혹은 군략가
軍略家로서의 서애선생의 지극한 뜻과 의지가, 이번에 제Ⅲ부의 ‘시詩’에서
는 서애선생 인생의 면면에 대한 개인적인 감회와 처세處世 및 철학과 사
상 등을 엿 볼 수 있어, 서애선생을 연구하거나 이해하고자하는 독자들에
게는 보다 직접적인 느낌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서애전서西厓全書』에 수록된 시의 총수는 총 725제題 886수首입니다. 이의 구체적인 수량을 보면, 서애전서西厓全書 권1의 본집本集 권1에, 120제題, 168수首; 서애전서西厓全書 권1의 본집本集 권2에 102제題 147수首; 서애전서西厓全書 권1의 별집別集 권1에, 152제題 165수首; 서애전서西厓全書 권2의 속집續集篇에, 301제題 355수首; 서애전서西厓全書 권3의 관화록觀化錄에, 38제題 39수首; 기타 서간문에 포함된 시에, 12제題 12수首가 실려 있습니다.

이들 시를 국역함으로써 서애선생 친필親筆의 전문집全文集의 국역이 완료되며 앞으로도 경향각지京鄕各地에 흩어져있는 선생의 옥고玉稿가 발견되는 즉시 추가하여 수록토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국역된 서애전서西厓全書 권1의 별집別集 권1은 152제 165수입니다.

국역본 제2권이 출간된 지 2년이 훌쩍 지나서야 제3권을 세상에 내놓게 되었지만, 제Ⅲ부에서 제3권이 출간된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벅차옵니다. 선친의 서애선생에 대한 숭모崇慕의 정신이 새삼 뇌리에 뚜렷하게 떠오르고, 아울러 선생의 아름다운 홍익정신을 세상 사람들과 함께 누릴 수 있다는 생각에 기쁘기 한량없습니다.

끝으로 권3의 국역 역시 독자의 편의를 위해 특별히 주석注釋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서애 선생의 시의詩意가 제대로 전달되도록 하는데 각별한 정성을 쏟은 역자譯者 두 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 두 분 선생께서는 본회에서 서애시집의 국역 및 감수監修의 중책을 맡았으며, 류명희 교수는 서애선생의 12대 후손으로 대학에서 한시漢詩 전공에서만 30년 경력을 지닌 분이고, 또한 류교수의 부군夫君인 안유호安維鎬 선생 역시 유년시절부터 한학漢學을 익혔고 중화민국中華民國에서 역사학을 전공한 재원으

로, 본시집의 국역과 감수에 공동으로 참여하신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서애시집의 국역을 염두에 두고 번역자의 물색에서부터 본시의 국역에 대한 제작과 실무를 모두 맡아 그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서애선생 기념사업회의 류영한柳永漢 이사에게도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2017년 3월

(사단법인) 서애선생기념사업회西厓先生紀念事業會 이사장理事長

서애西厓 13대 후손 류진柳津 삼가 씀



『국역 류성룡 시 II』가 간행된 지 어언 2년 반이나 지났다. 역자 내외가 부지런히 번역한다고 했지만 이래저래 세월은 이렇게 빨리 흘렀다. 여북했으면 옛 사람도 이르기를, “세월은 쏜살같이 흐른다”고 했을까! 『국역 류성룡 시 III』은 유독 우리 내외에게 세월이란 화두話頭를 되뇌이게 했다.

시작도 종말도 없다는 세월이 그야말로 쏜살같이 흘러가는 동안 사람은 겨우 한 순간을 살 뿐인데, 무슨 사연이 이리 많고 무슨 곡절이 이리도 복잡한가! 쉬지도 않고 되돌아가는 법도 없는 그 세월에 한이 맺혀 예로부터 사람들은 탄식만 거듭하며 마음을 다독일 뿐이었다. 모양도 없고 소리도 없는 세월은 늘 자연과 인생에 머물면서 심원한 의미와 감흥을 던져 준다. 세월은 말이 없지만 사람의 생과 사의 기간으로 표현되고 만물의 생성하고 소멸하는 동안으로 그 자취를 알 수 있다. 반복하면서 바뀌는 절후의 변화에서 세월의 색상이 보이고, 노화되어 병을 앓는 상태에서 세월의 뒷모습을 볼 수 있다. 천지만물은 세월을 떠나서 존재할 수 없다. 하물며 인생이라! 세월을 떠난 것은 죽음이요, 소멸이다. 하여, 사람들은 세월을 자주 시문으로 읊는가 보다. 이 세월 속에서 서애선생도 자주 이별을 하면서 슬퍼했다.

선생은 시 속에서 오래 전에 벗과 거닐었던 오솔길, 저 먼 곳의 고향, 청결한 품행을 남기고 세상을 떠난 벗, … 세월 속에 그 간절한 그리움은 시로 맺혀 꽃을 피웠다. 지는 달이 나뭇가지에 걸리고 청풍이 술술 부는

정자에서 벗들과 인생을 논하고, 뜬 구름과 벗하며 맑은 바람을 쐬며 명리(名利)와 이해가 판을 치는 세속을 잠재우며 은거(隱居)의 소망을 시 속에 열매로 맺었다. 서애는 그러면서도 과분한 명예를 누렸다는 자성(自省)을 잊지 않았고 산천을 관망하면서 자족(自足)하는 순수함을 잊지 않았다. 서애선생이 읊은 세월과 자연은 그대로 선생의 인생이었다. 선생은 그 세월 속에서 마음을 바로 잡는 심원하고 고상한 심지(心志)를 끊임없이 추구하였다. 세월 속의 자연과 인생은 서애선생의 마음이었고 시였다. 그 과정에서 유독 명월과 청풍강물, 송(松)·죽(竹)·매(梅)·국(菊)·연(蓮) 등은 선생의 마음을 자정(自淨) 주는 영적(靈的)인 대상이었으며 본성(本性)으로 회귀하게 하는 분신(分身) 같은 존재들이었다.

역자 내외도 서애시를 번역하면서 젊었을 때 미처 인식하지 못했던 ‘세월’이란 말을 백발이 성성해지고서야 절실하게 느끼며 인생이란 맛을 조금은 느끼게 되었다. 봄에 핀 꽃송이에, 운우(雲雨)에, 단풍에, 백설(白雪)에, 한서(寒暑)에, 인생살이에, … 세월이 있고 시가 있다. 사람마다 마음속으로 는 다 시를 쓰고 있지만 일일이 표현하지 않았을 따름인 것 같다. 매일 겪는 세사(世事)에 가끔씩은 주루룩 눈물이 흐르지만, 썩 닦고 나서 아름답게 살자고 다짐해보는 것이 시가 아니겠는가! 서애시를 번역하면서 배우게 되었다. 다만 걱정스러운 것은 역자내외의 학식이 얕아 번역 상 오류가 발생할까 두렵고 약간의 주의를 기울이지 못해 좀 더 고상한 표현을 못할까 걱정했다. 본 번역에 부족한 부분은 독자 제위(諸位)의 기탄없는 질책을 바란다.

끝으로 본 시집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도움을 주신 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리고자 한다. 먼저 화암(和巖) 류동주(柳東柱) 선생께서는 특히 번역 전반에 걸쳐 기록에 없는 서애선생의 친인척(親姻戚)과 지명(地名)에 관련되는 다양한 자료를 제공해 주시어 본 ‘시집(詩集)’의 완성도를 높이는데

많은 도움을 주셨다. 또한 「시53」인 구학정龜鶴亭을 시제詩題로 쓴 시 세수를 번역할 때, 구학정龜鶴亭과 서구대西龜臺에 관련된 자료를 제공해 주신 영주문화원榮州文化院의 김상아 선생께 감사드린다. 그리고 「시13」의 시제詩題에 용궁현龍宮縣 이미수李眉叟 공의 집에 묵으면서 뜰 안에 매화나무 한 그루를 읊은 시가 보이는데, 여기에서, ‘이미수李眉叟’ 공은 서애선생 매부인 이윤수李潤壽 공의 자字인 ‘이인수李仁叟’의 오자誤字임을 밝혀 주신 이윤수 공의 후대 종손 이용옥李鏞玉 선생께도 심심한 사의謝意를 표한다. 이어서 「시144」의 월천月川 조목趙穆 공의 별세를 애도한 시에서, 부용산芙蓉山의 소재지를 확실하게 적시해주신 예안향교禮安鄕校의 전교典敎 권오진權五璣 선생께도 깊이 감사드리며, 마지막으로 국역 영가지永嘉誌·선성지宣城誌를 제공해주신 안동문화원의 금승호琴昇鎬 선생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또한 본 시집 번역과정에서 크고 작은 편의를 제공해 주신 풍산류씨豊山柳氏 충효당忠孝堂 종손 류창해柳昌海 선생과 병산서원屏山書院 유사有司 류한옥柳漢郁 선생에게도 감사를 드린다.

한국인의 긍지와 참다운 용기를 드높이고자 국역완간을 기획하신 풍산회장 류진柳津 선생의 신념에 다시 한 번 경의를 표한다. 동시에 언제나 여일하게 역자 내외에게 격려와 신뢰를 아낌없이 보내주신 서애선생기념사업회 류영한柳永漢 이사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또한 교정과정에서 권2집에 이어 이번에도 여전히 세심한 배려를 아낌없이 보내주신 한스북스 사장 류한경 선생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2017년 3월

서애西厓 12대 후손 류명희柳明熙 삼가 씀

후학後學 안유호安維鎬 삼가 씀



『국역 류성룡 시 III』은 하회본河回本 『서애전서西厓全書』 권1 간본편刊本篇 별집別集 권1의 시부詩部를 저본底本으로 한 것이다. 저자는 조선 중기 임란壬亂 시기에 영의정領議政을 지낸 문무文武를 겸비했던 서애西厓 류성룡柳成龍(1542~1607)으로, 그의 생애 66년은 ‘충효’라는 두 글자로 일관했다고 볼 수 있다. 타계하던 날(1607년 5월 6일)로부터, 약 3개월 전인 2월 12일에 자손들에게 써준 7언고시 유계遺戒(「관화록觀化錄」에 보임)의 결구結句에서, “권하노니 자손들이 반드시 삼가하여라, 충효밖에 달리 해야 할 일이 없는 것임을!(勉爾子孫須慎旃, 忠孝之外無事業)”이라는 유시遺詩를 남겼는데, 이는 선생의 평생의 뜻을 표명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실제로 서애 선생은 임란·정유 7년 전쟁(1592~1598) 동안 군정軍政의 최고 책임자로서 보국안민輔國安民을 위해 탁월한 능력을 보여주었다. 서애 선생은 부친인 입암立巖 류중영柳仲郢(1515~1573)의 훈도아래, 유학의 길로 입문하여, 일찍부터 퇴계退溪의 문하에서 도학道學을 전수받았던 관계로, 성리학性理學이 선생의 정치 생애에서 사상적 기틀이 되었다. 그리하여 크고 작은 국사國事에서 언제나 내적으로는 몸가짐이나 언행을 경건히 하였고, 외적으로는 널리 사물의 이치를 파고들어 이른바 ‘주경궁리主敬窮理’하는 자세로 현실의 제반문제를 극진하게 실천하는 구도자求道者의 자세를 보여 주었다.

이번에 출간하는 『국역 류성룡 시 III』은 앞의 『국역 류성룡 시 II』의 후속작이다. 본 번역집은 이미 출간된 ‘권 I · II’와 비교하면,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보인다. 즉, ‘권Ⅰ’의 작품 대부분은 선생이 관직에 있을 때, 특히 임진壬辰·정유丁酉 양난兩亂을 진두지휘할 때의 작품이 많이 보이며, 연작시連作詩¹⁾도 3제題나 보인다. 그리고 ‘권Ⅱ’는 ‘권Ⅰ’처럼, 연작시連作詩²⁾는 물론이고, 임난 시기에 어가御駕를 호종할 때 목도했던 참혹한 역사적 현장을 서사敍事한 고체시(90구)와 영사시류詠史詩類 및 인심人心에서 도심道心으로 이르는 구도求道·논도論道와 논학류論學類의 설리시說理詩들이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그러나 ‘권Ⅲ’은 중량감 있는 연작시連作詩나 논도·논학류 등은 전혀 보이지 않고, 영사류詠史類도 1제題³⁾만 보일 뿐이다. ‘권Ⅲ’에는 작시作詩의 연대를 별도로 표기한 소서小序는 보이지 않으나 시제詩題나 시의 내용을 통해 볼 때, 시작詩作의 배열이 역시 대체로 편년별로 배열되어 청년시절에서 노년까지의 작품을 모두 볼 수 있다. 그러나 시작詩作의 내용이 역시 앞의 두 시집처럼 유학자의 효·제·충·신孝悌忠信에 대한 사상이 맥맥히 흐르면서도 인생에 대한 개별적 정서가 생명의 유한성有限性을 벗어나지 못하는 애뜻함을 도처에서 풍기게 하고 있다. 이러한 권별卷別 특징의 편집은 아마도 편집자의 의도가 작용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아래에서 이번에 출간하는 『국역 류성룡 시 Ⅲ』의 전모를 편집체제와 시체별(詩體別)로 내용을 개괄하고자 한다.

-
- 1) 시40의 「인동서현십절(仁同西軒十絶)」, 시52의 「남계정사십이절(南溪精舍十二絶)」·시98의 「의고십수(擬古十首)」.
 - 2) 시8의 「독대학유감십수(讀大學有感十首)」, 시54의 「옥연십영효이백고숙십영(玉淵十詠效李白姑熟十詠)」, 시59의 「금계재사잡영6수(金溪齋寺雜詠六首)」.
 - 3) 시109의 「영우경(詠虞卿)」.

1. 『국역 류성룡 시 III』의 편집체제와 사용한 시체詩體

이번에 간행하게 된 『국역 류성룡 시 III』은 하회본河回本 『서애전서西厓全書』 권1, 간본刊本篇 별집別集 권1을 저본으로 하였으며, 사용된 작품은 모두 152제 165수이다. 이의 편집체제는 시제詩題와 내용으로 볼 때 역시 최대한 작시 년대 순서로 배열한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의 ‘권 I’과 ‘권 II’에서 다루고 있는 시제詩題와는 그 내용이나 풍격을 상당히 달리하고 있는데, 이는 편집자의 기준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아마도, ‘권 I’의 경우는 비교적 실제 관직생활과 관련한 제재題材를 중심으로 편집한 것이라고 한다면, ‘권 II’에서는 대체로 추상적인 ‘도道’나 역사적인 제재를 중심으로 편집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번 ‘권 III’의 경우는 이 양자兩者와는 다소간 거리를 둔 것으로 경물景物 혹은 정자류亭子類와 같은 대상을 영물詠物하거나 죽친이나 비교적 이름 없는 선비들과의 송별의 석정措情 및 은일적 취향 등을 중심으로 편집한 것이 두드러졌다.

본 시집에 사용한 시제詩題는 총 152제題이다. 이를 시체別詩體別로 보면, 7언절구(42제48수) · 5언절구(10제10수), 7언율시(29제31수) · 5언율시(34제37수), 5언12구 배율(1제1수), 7언고시(14제14수) · 5언고시(15제15수), 3 · 7언, 5 · 7언 잡언체 고시(2제2수), 7언 악부시(4제4수) · 5언 악부시(1제1수), 5 · 7언 잡언체 악부시(1제1수) 등을 사용했다.

일반적으로 한시漢詩에서는 5언구(2/2/1)는 3음보音步⁴⁾의 리듬으로 3박자의 절주를 지닌다 하고, 7언구(2/2/2/1)는 4음보의 리듬으로 4박자의 절주를 지닌다고 한다. 여기서 3박자 리듬은 서민계층의 리듬을 대변하는 것

4) 음보(音步)는 어절(語節)로 표상된 시간적 단위인데, 한시(漢詩)에서는 2음절(音節)을 1음보로 단위화(單位化)하여, 이것의 반복이 곧 리듬[절주]을 형성하여 시체(詩體)를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겠끔 하고 있다. 이는 바로 생체(生體)의 들숨과 날숨을 본뜬 것으로, 이의 반복적인 순환이 이 지구를 존재하게 하는 것이다.

으로, 이의 특징은 자연적·서정적 절주로, 동적인 변화감을 부각시키는 것이고, 후자의 4박자 리듬은 사대부 계층의 리듬으로, 이를 인위적·교술적 절주라고 하는데 이는 장중하면서도 음송吟誦에 적합하여, 안정과 질서를 대변하는 특징이 있다. 권3에 사용된 시체를 음보률에 의거하여, 이들 시체에 나타난 정서情緒를 개괄한다면, 위에서 언급했듯이 절구류絶句類에서는 안정과 질서를 대변하는 사대부의 장엄한 정서가 압도적으로 많이 나타났고, 율시류(律詩類)에서는 서민계층의 동적인 정서와 사대부의 안정과 질서를 추구하는 장엄한 정서가 거의 균형을 이루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고시체에서 부각된 정서도 율시류의 것과 거의 동일한 상태로 나타났다. 그러나 악부시에서는 7언악부(4제)가 5언악부(1제)보다 빈도수가 높다.

2. 『국역 류성룡 시 III』의 주요 내용

본 시집에 사용된 주요 내용을 율시·절구시·고시·악부시로 나누어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1) 율시律詩

본 시집에서 사용빈도수가 가장 높은 시체詩體가 이 율시律詩[41%]이며, 총 64제 69수가 보인다. 율시는 5언 율시와 7언 율시 및 5언 12구 배율 3종이 보이며, 전자는 34제 37수이고, 다음은 29제 31수이며, 마지막은 1제 1수이다. 아래에서 이들 시체의 주요 내용을 제재별로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본 시체詩體는 율시律詩인 만큼 대구對句를 중심으로 한 정제미감整齊美感이나 수사修辭의 세련미가 관심의 초점이 되는 시체로, 앞에서 언급했듯이 동적 변화감을 특징으로 하는 경쾌하고 자연스러운 서민적 정서의 5언

율시와 안정과 절서를 추구하는 장엄한 사대부적 정서를 표출하는 7언 율시를 위주로 한다. 이의 주요 내용을 제재별題材別로 보면, 총 9개 항목으로 분류가 된다. 이를테면, ① 송별送別 ② 정사精舍 · 정자亭子 ③ 자성自省 · 자족自足 ④ 차운시次韻詩 ⑤ 망자亡者에 대한 애도와 그리움 ⑥ 구도심求道心 · 은일적 삶의 지향 ⑦ 애국심과 선조宣祖에 대한 그리움 ⑧ 절후節候 ⑨ 기타 등이다.

① 송별送別

5언율시에는 송별당시의 아쉬움이나 송별 이후의 그리움, 또는 송별당시 객체에게 전하는 애국보민愛國保民의 정신 등이 보인다. 전자와 관련한 시에는 「시139」 · 「시35-2수」 · 「시57」 · 「시66」 · 「시124」 등이 있고, 후자와 관련한 시로는 「시10」 · 「시83-2수」 · 「시140」 등이 있다. 그러나 7언율시에는 오로지 1수만 보이는데, 이는 이여송李如松 제독提督을 송별하면서 증정한 시 「시64-2수」이다

② 정사精舍 · 정자亭子

정사精舍 · 정자류亭子類는 5언율시에만 보인다. 여기에는 주로 구도자求道者의 자세 혹은 은거자의 내심을 나타내고 있다. 관련 시로는 「시28」 · 「시29」 · 「시30」 · 「시58」 · 「시48」 · 「시59」 · 「시131-1」 등이 있다.

③ 자성自省 · 자족自足

이는 5언율시에만 보인다. 여기에는 과분한 명예의 삶, 하늘의 기밀과 세속의 실정관계를 깨우치지 못한 짐, 퇴계선생 문집의 편집을 통해 도학정신을 계승하는 자부심, 호종훈扈從勳에 등록되는 것을 사양하는 마음, 고향에서 은일隱逸하는 자족감 등과 관련되는 시가 보인다. 관련 시로는 「시14」 · 「시67」 · 「시123」 · 「시129」 · 「시131-2」 · 「시132」 등이 있다.

④ 차운시次韻詩

5언율시의 차운시에는 자성自省과 수심修心, 애국심, 염원 등의 내용이 나타나 있다. 관련 시로는 「시31」·「시38」·「시120」·「시65」·「시87」 등이 있다.

7언율시의 차운시에는 생명의 유한성, 인간의 생명에 대한 애착과 처세에 대한 과시욕을 지적한 것, 은거의 흥취와 인생은 한바탕의 꿈임을 외치는 것, 전래傳來하는 습속에 대한 관심, 구도적求道的 삶과 관련한 것, 사람마다 결격사유를 인정하고 안분수기安分守己할 것을 일깨우면서, 화자 스스로 발 같고 독서하는 일상에 자족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 등이 보인다. 관련 시로는 「시24」·「시36」·「시54」·「시81」·「시115」·「시137」 등이 있다.

⑤ 망자亡者에 대한 애도와 그리움

5언율시에는 부친과 아들을 잃은 이픔을 읊은 것과 부친의 삼년상을 치르고 난 후, 원지정사遠志精舍에 나와서 아버지 여윈 서러움을 드러낸 것이 보인다. 관련 시로는 「시11」·「시43」이 있다.

7언율시에는 사성司成 김복일金復一, 청련靑蓮 이후백李後白, 서원부원군西原府院君 정탁鄭琢, 월천月川 조목趙穆 등의 타계를 애도한 것과 입춘立春과 한식寒食에 선친의 선영에 들러 선친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낸 시 등이 보인다. 관련 시로는 「시21」·「시22」·「시143」·「시144」·「시92」·「시127」 등이 있다.

⑥ 구도심求道心·은일적 삶의 지향

7언율시에 적지 않게 보인다. 이를테면, 구도심求道心 관련에서는 안심법安心法 깨우치기를 열망하는 것, 구도求道에 대한 회의를 읊은 것, 술개와 물고기가 하늘과 연못에서 안거安居하는 이치를 알고 싶다는 것, 강

물과 세상사의 흐름이 다 같이 그 끝이 없다는 것, 가을날의 쓸쓸한 냉감이나 세상사의 분란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도학道學에 대한 공력이 부족한 탓이라는 것, 사물에 대한 이치를 깨달은바가 역력해도 새로운 수심으로 살쩍이 희끗해진다는 격물궁리적格物窮理的 수심愁心 등에 보인다. 관련 시로는 「시69」·「시78」·「시96」·「시102」·「시105」·「시151」 등이 있다. 은일적 삶의 지향에는 석장錫杖을 짚고 은거지 곳곳을 유유자적 왕래하는 것, 김득金功의 구학정龜鶴亭에 가서 은일자가 즐기는 일상의 면면을 보여주는 것, 화자의 생애가 전란으로 너무 분망하였기에 이제는 세사世事에서 벗어나 은일의 삶을 살고자한다는 것 등이다. 관련 시로는 「시32」·「시53-2·3」·「시56」 등이 있다.

⑦ 애국심과 선조宣祖에 대한 그리움

7언율시에 보인다. 애국심 관련은 정주목사定州牧使인 부친 류중영柳仲郢을 모시고 정주에 있는 백상루百祥樓에 올라가 변경邊境의 저물녘 산세山勢와 강물을 보며 국사國事를 걱정하는 것, 종계진주사宗系陳奏使로 나가는 이후백판서李後白判書에게 오만국烏蠻國의 주체성을 기억하여 진주사陳奏使로서의 책무를 완수하고 돌아오길 부탁하는 것, 임진왜란 발생 2년 뒤 왕명으로 효릉孝陵 참배 길에 주변의 황량한 정경을 보면서 “초楚에 세 인가人家만 남아 있어도 진秦을 멸할 나라는 초楚나라이다”라고 말하는 ‘애국심의 간절함’을 드러낸 것 등이다. 관련 시에는 「시7」·「시17」·「시60」 등이 있다. 선조宣祖에 대한 그리움과 관련된 시에는 2제題가 보인다. 관련 시는 「시118」과 「시130」이다.

⑧ 절후節候

5언율시에 보인다. 이는 선생 만년晩年에 읊은 것으로, 초춘初春의 순환을 보여주는 면면面을 통해, 생명의 유한성을 읊은 것과 선생의 젊은

시절에 부친의 임지任地인 정주定州에서 만춘晩春을 맞이하여 경성京城의
벗을 그리워하는 것 등이다. 관련 시로는 「시4」·「시6」이다.

⑨ 기타

기타 항목에는 5언율시로 된 1제와 5언 12구 배률排律로 된 1제 및 7
언율시의 2제가 있다. 여기에는 조물주가 만든 천지생물은 모두 각자 합당
한 처소에 놓여있다는 것, 만년의 일상을 서술하면서 희·비·애·락(喜
悲哀樂)의 심사心思를 담담하게 읊은 것, 30년 전 서장관書狀官으로 연경燕
京에 갔던 일을 회고한 것, 만사萬事가 불여의不如意함을 읊은 것 등이다.
관련 시로는 「시117」·「시148」·「시74」·「시26」 등이다.

2) 절구시絶句詩

본 시체詩體는 율시 다음으로 사용빈도수가 높으며, 총52제 58수가 보
인다. 이 절구시는 5언절구와 7언절구 2종이 있으며, 전자는 10제 10수에
불과하나, 후자는 42제 48수나 보인다. 아래에서 이들 시체의 주요 내용
을 제재별로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본 시체詩體는 절구시絶句詩인 만큼 주제를 응집하는 재치와 기지를 특
징적으로 보여 준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정서적인 측면은 5언의 동적 변화
감의 경쾌한 정서와 7언의 유장悠長한 중후함의 정서를 특징으로 한다. 본
시체의 주요 내용을 제재別題材別로 보면, 총 9개 항목으로 분류가 된다. 이
를테면, ① 송별送別·유별시留別詩 ② 차운시次韻詩 ③ 절후節候 ④ 은일
隱逸의 일상·구도심求道心 ⑤ 세상인심·생명의 유한성 ⑥ 고인故人·
금인今人에 대한 그리움 ⑦ 국화·매화 ⑧ 큰물의 재해災害 ⑨ 기타 등
이다.

① 송별(送別) · 유별시(留別詩)

5언 절구에 보이는 송별시는 오직 1제題로 하회마을에서 와병 중인 화자(話者)를 김희중(金晦仲) 형제가 문병을 왔는데 그들이 떠날 때 써준 시이고, 유별시로는 2제로 전자는 한강(漢江)에서 여인(汝仁) 정곤수(鄭崑壽)를 유별하면서, 세상이 되어가는 형편이 기대와 어긋남을 걱정하는 것이고, 후자에서는 사람이 아닌 정자(亭子)의 담 밖으로 뻗어 나온 수많은 꽃가지를 두고 떠나가는 애절한 심정을 읊은 시이다. 관련 시는 「시119」·「시15」·「시25」이다.

7언절구에는 송별·유별시가 5언절구에 비해 많이 보인다. 여기에는 극진한 친교(親交)의 정감이 넘친다. 이를테면, 병산서원(屏山書院)에서 학봉(鶴峯) 김성일(金誠一)이 조정으로 되돌아가는 것을 보내는 속이 깊은 우정, 송정(松亭)에서 송운대사(松雲大師: 사명대사) 유정(惟政)을 송별할 때 드러낸 석별(惜別)의 정감, 선생의 사위 조서방(趙穰)과의 살뜰한 작별, 명명(明明) 황제가 파견한 특사를 따라 온 등계달(滕季達)이라는 사신에게 보내는 석별의 정 등이다. 관련 시는 「시34 - 3수」·「시80」·「시90 - 2수」·「시9 - 2수」이다.

유별시는 7언절구에 한 수가 보이는데, 이는 선생이 사간원헌납(司諫院獻納)에 임명되어 경성으로 가는 길에 비가 와서 풍기군수 여우(汝友) 배삼익(裴三益)의 권유로 객사에 머물렀다가 떠날 때 써 준 시이다. 관련 시는 「시12」이다.

② 차운시(次韻詩)

5언절구에는 오직 1제題가 보인다. 이는 회암(晦庵) 주희 선생의 시 「매미소리를 듣고서(聞蟬)」를 차운한 시에서, 매미소리로써 선생이 은거하는 곳이 외지라는 것을 부각시킨 것이다.(「시150」).

7언절구에는 다수가 보인다. 즉, 정표(情表)로 부친 탄주(彈奏) 솜씨를 읊은 것, 승려 태운(太雲)이 19년 전에 선생이 써준 시를 지금까지 보존하고

있어 그때의 운자韻字를 빌어 다시 한 수首 써준 것, 어은정漁隱亭에서 함께 놀았던 사람들에게 산수풍경에 대한 흥취를 써 준 것, 생사(生死)에 대한 문제를 새삼 생각하게 된 것을 읊은 것, 이여송李如松 제독提督의 전공을 쓴 송별시, 고인故人에 대한 그리움 및 문하생門下生과 문인門人을 향한 마음 등을 읊은 것 등이다. 관련 시로는 「시33」·「시70」·「시40」·「시55」·「시62」·「시82」·「시116-3수」·「시142」이 있다.

③ 절후節候

5언절구에 보이는 절후시는 춘절春節과 추절秋節을 읊고 있다. 춘절 관련 시에는 봄날의 풍광과 춘풍의 의취意趣에 감동되어 말[馬]이 가는대로 몸을 맡긴 채 귀가하는 순수성, 강변마을에서 새벽에 일어나 간밤에 내린 비로 만물의 생명의 의지를 감지하는 것을 읊은 것이 보인다. 추절 관련 시에서는 은사隱士를 깨우는 귀뚜라미 소리, 찬비가 내리는 누각에서 느끼는 나그네의 심정, 가을벌레의 울음소리는 그 자체의 말일 뿐, 사람을 감동시키기 위한 소리가 아니라는 것, 세찬 가을바람 앞에 쓰러져서 뜰 쉼에 낀 이끼를 덮친 국화 등의 시가 보인다. 관련 시는 「시77」·「시89」·「시76」·「시99」·「시107」·「시108」 등이다.

7언절구에는 봄·가을·겨울날의 정서 혹은 경물景物에 대한 물성物性を 읊고 있다. 즉 봄날의 정서에서는 정주定州 공관에서 머물 때, 느꼈던 봄날의 화사한 정경과 평온한 기분을 묘사하여, 그 운취韻趣가 언외言外에 풍기게 하는 시이다. 가을날의 정서는 3제題가 보인다. 즉, 의주義州 연춘당延春堂에서 밤에 비오는 것을 내다보면서, 낙엽을 지게 하는 바람소리에 마음을 안정시키지 못하는 불안한 정서를 드러낸 것, 빈 뜰에 내리는 심야의 찬비·끊임없이 불어대는 추풍秋風·어디선가 들려오는 옥피리 소리 등에서 가을의 고적孤寂한 정취를 느낀 것, 옥연정사의 추월담秋月潭에 드리워진 완연한 추색秋色을 묘사한 것 등이다. 겨울날의 경물을 묘사한 것

은 오직 1제로, 운암객관巖客館에서 소나무에 눈이 내리는 소리·바람이 불자 기러기가 울고 구름이 걷히는 장면·밭 밖에서 저가는 달이 먼동이 터도 밝은 것 등에서 만물의 진상眞相에 접근하는 언외지감(言外之感)을 시사였다. 관련 시는 「시1」·「시2」·「시126」·「시146」·「시68」 등이다.

④ 은일隱逸의 일상日常·구도심求道心

이는 7언절구에만 보인다. 전자에서는 ‘흘러가는 구름’과 ‘매미 우는 소리’를 보고 듣는 일상과 고적한 촌락에 인적은 드물지만 옛날 다니던 길에 추풍이 불고 벼와 기장이 무르익는 것을 관상하는 것, 고산孤山에서 달밤에 산보하며 선화仙花를 감상하고 노를 저어 귀가하는 것, 남쪽으로 내려 온지 두 해 동안, 누각 난간에 기대어서 경물을 감상하고, 앞마을에서 보리타작하는 소리를 듣는 것, 옥연정사玉淵精舍에서 산골짜기의 샘물을 끌어와 연못에 흘러들게 하고, 물방울 먹음은 연꽃의 향기를 감상하거나, 저녁이면 대청을 가득히 채우는 청풍淸風과 함께 하는 생활, 서재西齋에서 뜰 안에 가득한 솔바람 소리, 대나무 서걱이는 사이로 트락을 비추는 차가운 달빛, 밤새껏 향을 피워놓고 창 앞에 누워서 사색에 잠기는 일상 등을 읊은 것, 극부克夫 서인원徐仁元の 은일隱逸을 농 삼아 “송국노인松菊老人은 원학猿鶴을 곁에 두고 싶어 춘풍의 도래를 원망 하겠다”는 말을 건네는 것 등이다. 관련 시는 「시19」·「시23」·「시41」·「시114」·「시121」·「시104」 등이다.

후자에는 수마睡魔를 물리치고자 누각을 거닐고 나서, 『주역周易』을 읽다보면 석양이 모래톱에 내리는 것도 의식하지 못한다는 것, 종일을 『주역周易』의 이해에 몰두하다보니, 복희씨伏羲氏와 주문왕周文王이 전하는 ‘절후와 더불어 만물이 성쇠한다(與時消息)’는 심오한 이치를, 바로 ‘창밖에 지저귀는 봄철의 새소리에서 깨우치는 것’이 가장 적확(的確)하다고 말하는 것, 자연의 실상實相을 깨우치자면, 눈앞에 실재하는 진실법[究竟法] 곧 현

상세계의 각종 사물을 접할 때, 마음의 잡도리(잘못되지 않도록 엄격하게 단속하는 수심(修心)하는 노력)를 그 속에서 실천한다면 궁극의 진리를 깨우칠 수 있다고 하는 것 등이다. 관련 시는 「시37」·「시39」·「시75」 등이다.

⑤ 세상인심·생명의 유한성

이 역시 7언절구에만 보인다. 전자는 4제, 후자는 2제이다. 전자를 보면, 집 밖의 세상에는 어디에도 머물 곳이 없다는 낙망(落望)함을 표현한 것, 세상에는 화자의 마음을 알아주는 지기(知己)友가 없음을 안타까워하는 것, 현자(賢者)가 살기에는 세상인심이 각박하다는 것, 현상세계에 대한 명암, 즉 대자연과 집안은 나를 감싸주는 데, 세상과 백발은 나를 위협한다는 것 등이다. 관련 시는 「시16」·「시110」·「시86」·「시97」이다. 후자를 보면, 가을을 맞이하여, 더욱 생명의 유한성을 느끼고 있다는 것, 마당정(馬塘井) 고사(故事)에 얹힌 주인공은 간 곳이 없고 그 주변에는 초목만 무성하다는 것 등이다. 관련 시는 「시16」와 「시128」이다.

⑥ 고인(故人)·금인(今人)에 대한 그리움

이 역시 7언절구에만 보인다. 전자는 2제, 후자는 1제이다. 전자를 보면, 울곡정(栗谷亭)이라고도 부르는 화석정(花石亭)에서 유명(幽明)을 달리한 울곡(栗谷) 이이(李珣) 선생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한 것, 백씨 류운룡(柳雲龍) 선생과 어락정(魚樂亭)에 올라가서, 이미 이승을 떠나고 없는 본 정자의 주인 김세상(金世商)을 그리워하는 것 등이다. 관련 시는 「시61」과 「시101」이다. 후자는 날은 저물고 강변에 비가 내리는데도 불러올 배 한척이 없어, 강북(江北)과 강남(江南)으로 흩어져 살고 있는 그리운 이들을 만날 수 없다는 것을 읊었다. 관련 시는 「시147」이다.

⑦ 국화·매화

이 두 꽃은 모두 7언절구에 보인다. 이들은 서리와 북풍 설한을 극복한 고절高節의 향초로, 두 수가 보인다. 한 수는 선생의 매부妹夫 이윤수李潤壽 공의 집에 묵을 때, 밤인데도 뜰 안에 서 있는 매화나무가 홀로 향기를 풍기는 것을 포착한 것이고, 다른 한 수는 개화開花시기를 넘긴 국화가 정사精舍의 뜰에 피어 서리를 견디지 못하고 몇 줄기는 영락하였는데도 여전히 꽃을 피우는 게 있어 온 뜰이 향기롭다는 것을 읊은 것이다. 관련 시는 「시13」와 「시95」이다.

⑧ 큰물의 재해災害

이 역시 7언절구에만 보인다. 관련 시는 2제이다. 하나는 고양군高陽郡을 지나가던 도중에 갑자기 산천山川에 비가 쏟아지면서 직면하게 된 불상사를 묘사한 것이다. 다른 하나는 하회마을에 큰물이 지는 광경을 강변 누각에서 관상할 때의 초조하고 두려운 심정을 읊었다. 관련 시는 「시5」와 「시27」이다.

⑨ 기타

역시 모두 7언절구에만 보이는 것으로 각 1제씩 보인다. 하나는 애민愛民의 정감이고 다른 하나는 퇴계의 문하생임을 자부하는 것이다. 관련 시는 「시85」와 「시49」이다.

3) 고시古詩

고시古詩는 위의 율시律詩나 절구絶句와는 달리 구수句數와 매구每句의 자수字數에 제한이 없으며 시인이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의 필요에 따라 임의로 이들을 안배할 수 있다. 본 시체詩體는 총 31제 31수가 보인다. 여기서 5언 고시는 15제15수이고 7언 고시는 14제 14수가 보인다. 또한 3·

7언, 5·7언 잡언체 고시도 2제2수가 보인다. 주요 내용을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1) 5언 고시

5언 고시에는 또한 구수句數가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는데, 이를테면, 5언4구·5언8구·5언10구·5언14구·5언16구·5언18구·5언22구·5언26구·3·7언, 5·7언 잡언체 고시 등이 보인다. 이를 구수별로 주요 내용을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① 5언4구

총 4제 4수가 보인다. 여기에서는 부용대芙蓉臺·매화·연꽃·대나무를 제제題材로 하여 읊었다. 즉, 제1시는 옥연정사玉淵精舍의 배경이 되고 있는 부용대의 장엄한 기상을, 제2시는 세계와 타협하지 않는 매화의 고고성孤高性을, 제3시는 연꽃의 아름다움에 취하여 그와 말을 걸어보고자 귀가하는 것도 잊은 화자의 정신 경계를, 제4시는 간밤에 내린 비로 부쩍 푸른빛을 띄운 대나무의 모습을 읊었다. 관련 시는 「시84」·「시98」·「시100」·「시133」이다.

② 5언8구

4제4수가 보인다. 여기에서는 차운시次韻詩·증시贈詩·성묘시省墓詩가 보인다. 먼저 차운시를 보면, 이는 두 수가 보이는데, 제1시는 천년을 살아있는 책속의 벗, 주희朱熹 선생을 사귀고자 향을 피워놓고 그가 남긴 말씀을 정독하겠다는 것이고, 제2시는 강릉부사로 떠나는 질서(姪壻: 백씨겸암 류운룡 선생의 사위) 창원昌遠 김홍미金弘微를 송별할 때 지은 시로, 노인이 되어서 이별 하는 것은 다시 만나기 어렵다는 것이라면서 애뜻한 정서를 드러낸 것이다. 다음으로 증시에서는 불도수행에 능력이 있는 어느 승

려가 노병으로 문밖출입도 못하고 있는 선생을 방문한 것이 고마워서 그가 가져온 두루마리에 선뜻 시 한 수를 써 준 것이다. 마지막으로 성묘시는 한식寒食 전날 선영先塋에 성묘하러 가기 위해 길을 나섰는데 날씨는 매섭고 사람은 노쇠하여 성묘가 순조롭지 못하게 되자 고독한 정회(情懷)를 읊은 것이다. 관련 시는 「시20」·「시141」·「시145」·「시91」이다.

③ 5언10구

영물시詠物詩와 차운시次韻詩가 각각 1제씩 보인다. 전자는 모란牧丹의 풍만한 모습과 비와 이슬의 은택과 청명하고 화창한 절후까지 한 몸에 받고 있는 그의 양호한 입지조건을 설한雪寒 속에 꽃 피워야 하는 매화의 물성物性에 비교해 보임으로써 언외지의言外之意를 던지고 있다. 후자는 오봉五峯 이호민李好閔의 시운詩韻을 차운하여, 봄철 가을철 연이어서 문병 온 독락당獨樂堂 주인 전 경산현령前慶山縣令 이준李濬의 후덕한 마음을 고마워하며 송별送別에 앞서 청풍·명월이 함께 하는 시절이니 눈물 흘리며 이별하지 않겠다는 도학적 정신경계를 보여준다. 관련 시는 「시134」과 「시135」이다.

④ 5언14구

1제만 보이며, 여기서는 백운白雲의 물성物性을 읊고 있다.

⑤ 5언16구

1제만 보이며, 정월 초하룻날의 다짐, 곧 올 한 해는 더 이상 헛되이 보내지 말고 추위를 견디며 피어난 매화의 기대를 저버리지 말자고 다짐한다. 관련 시는 「시3」이다.

⑥ 5언18구

1제만 보이며, 본 시에서는 환상의 미혹을 벗어나지 못하는 자성自省을 읊었다. 이 시는 당唐나라 시인 위소주韋蘇州의 시를 읽고 나서, ‘만물은 스스로 소리를 내지만 하늘은 언제나 고요하다’라는 비결을 깨닫고 나면 처세處世에 사사로움을 두지 않을 텐데, 이제는 늙고 병들어서인지 마음이 자유자재하지 못하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 관련 시는 「시73」이다.

⑦ 5언22구

1제만 보이며, 본 시는 성인聖人이 팔배개하고 잠을 자도 도道를 즐긴다 한 것이나 『시경詩經』에서 농사짓는 소중함을 노래한 것들을 되새기면서 자신의 생애도 이만하면 족하다 여겨 현재의 궁핍한 생활 따위는 너털웃음으로 희롱하겠다는 호쾌한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관련 시는 「시125」이다.

⑧ 5언26구

1제만 보이며, 본시는 선생이 군위현軍威縣의 송현산松峴山에서 조부 간성공杆城公 류공작柳公綽의 묘소에 성묘하고 있는데, 현감 류몽정柳夢井이 관료 몇 사람과 함께 선생을 방문하여, 함께 남계정사南溪精舍로 가는 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곳에서 택지를 마련하고 싶다하자, 선생은 그에게 『초사楚辭· 초은사편招隱士篇』과 『시경詩經· 위풍魏風』의 「벌단伐檀」을 읊으며, “벌초는 지금 당장 해야 하지만, 농사나 독서는 시기에 맞추어 해야 한다”는 일침一針을 가하고 있다. 관련 시는 「시44」이다.

(2) 7언 고시

7언 고시에도 구수句數가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는데, 여기에는 총 14제 14수가 보인다. 이를테면, 7언4구 · 7언8구 · 7언10구 · 7언12구 · 7

언40구 등이다. 이를 구수별로 주요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① 7언4구

본 시체는 총 3제 3수가 쓰였으며, 주요 내용은 봄날의 시름·분향焚香·회고回顧이다. 제1시는 남방의 하늘과 강물 및 왕손초王孫草 등이 모두 양춘陽春의 기운을 발산하고 있는데, 제비의 귀환만은 보이지 않는다고 하여, 언외지의言外之意를 풍기게 한다. 제2시는 밤마다 분향을 하다보면, 새벽종소리가 들린다 하여, 이 역시 언외지의의를 시사한다. 제3시는 와병중에 구담九潭에 사는 주부主簿 김협金協의 문명을 받고 화자의 생애를 회고하며 쓸쓸해하다가 그의 귀가 길에 온 강이 달빛으로 환한 것을 기꺼워하며 송별한다. 관련 시는 「시72」·「시136」·「시152」이다.

② 7언6구

본 시체는 2제 2수이며, 주요 내용을 보면, 제1시는 음력 칠월 보름날[백종百種], 촌민들이 강변에 나와서 부모의 혼을 불러 제사를 지내는 것을 읊은 시이다. 여기서 시인은 초혼제招魂祭를 올리는 사람들의 유정有情함과 촌민들의 눈물에는 아랑곳 하지 않고 흘러만 가는 강물의 무정無情함을 대비시켜 언외지의言外之意를 기탁하였다. 제2제는 산 높고 물 깊은 천만리 먼 길을 마다 앓고 찾아온 봄의 도래를 읊은 것이다. 관련 시는 「시42」과 「시106」이다.

③ 7언8구

본 시체는 3제 3수로, 제1·2시는 다사다난한 국사國事를 읊었고, 제3시는 차운사次韻詩로 서천군西川君 정여인鄭汝仁을 맞이하여 손님맞이와 이별, 이별후의 그리움을 읊었다. 관련 시는 「시51」·「시63」·「시79」이다.

④ 7언10구

2제 2수가 모두 차운시次韻詩로, 제1시는 10년 만에 탄홍誕弘 승려의 주관으로 완공한 북애정사(北厓精舍: 옥연정사)를 은거처로 하여, 『역경(易經)』 공부에 흥취하는 즐거움을 읊었다. 제2시는 만사萬事를 호기豪氣 있게 전력투구로 대처하다가 보니 ‘귀밑털이 누렇게 뿔다’고 읊었다. 관련 시는 「시47」과 「시50」이다.

⑤ 7언12구

3제 3수로 차운시次韻詩가 2제이고, 영사시詠史詩가 1제이다. 전자에서는 인욕人欲을 벗어나면 인생의 번잡한 명분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것과 매화나무에 심취하면 만사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것을 읊었다. 후자에서는 의리義理·지략智略을 중시한 영사시詠史詩로, 이는 중국 전국시대戰國時代 협객으로 조趙나라의 재상이 된 우경虞卿의 의리·위魏나라 공자 신릉군信陵君의 후덕함·제齊나라 맹상군孟嘗君 문중의 식객食客인 풍환馮驩의 지략智略 등이 당시의 역사를 바꾸는 계기가 된 것을 읊었다. 관련 시는 「시88」·「시93」·「시109」이다.

⑥ 7언40구

차운시次韻詩 한 수만 보인다. 본 시는 소동파의 「삼진날에 외출하여 유람하다(上巳出遊)」는 시를 차운하여 쓴 것이다. 이 시는 권3의 시집 중에서 길이가 가장 긴 시이다. 시제詩題에서 밝히고 있듯이 본 시는 선생이 퇴직 이후 칠월 초닷새날, 아들과 조카 및 그 또래 아이들 몇 명을 데리고 아침에 앞마을 산촌에 갔다가 북림北林과 불탑佛塔 둘러보는 과정에서 만나는 면면을 한편으로는 감상하고 한편으로는 선생의 자성과 자각을 읊은 것이다(「시94」).

(3) 잡언雜言 고시

본시의 구수句數는 3·7언, 5·7언 2종이다. 전자와 후자가 모두 현자불우賢者不遇의 비감悲感을 읊었다. 관련 시는 「시52」와 「시113」이다.

4) 악부시樂府詩

악부시는 제목에 가歌·행行·음吟·농弄·곡曲·조調·요謠 등의 글자를 써서 고시古詩와 구분되게 하고 있다.

본 시체詩體는 총 6제 6수이다. 5언은 1제 1수이고, 7언은 4제 4수이며, 5·7언 잡언체는 1제 1수이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5언 악부시

이는 5언10구로 구성되어 있으며, 1제 1수가 보인다. 본 시에서는 학鶴을 읊어 공중 높이 비행하는 그의 시야 아래에는 황하黃河나 태산泰山같은 거대한 자연도 미세하게 보이듯이 우리도 마음을 넓게 가지면 소아적小我的인 행태는 범하지 않을 것임을 우의寓意하고 있다. 관련 시는 「시149」이다.

(2) 7언 악부시

본 시체詩體는 4구와 10구의 유형이 보인다. 전자는 3제 3수이고, 후자는 1제 1수이다.

① 7언4구

본 시체는 악부절樂府絶이라고도 칭하는데 총 3제가 보인다. 제1악부는 가을비·가을바람으로 가슴 속에 일어나는 격동하는 정서를 읊었고, 제2악부시는 남부의 강 굽이도는 곳에 살고 있는 은자어부의 수심을 읊은 것이고, 제3악부시는 봄비를 맞은 뜰에 남은 꽃잎마저 지고 미는 만춘晩春

의 정경을 읊었다. 관련 시는 「시46」·「시111」·「시112」 등이다.

② 7언10구

본 시체는 오직 1제만 보인다. 이 악부시 「시103」은 의연한 청산靑山과 천변만화하는 백운白雲을 바라보는 은사의 심정과 날이 저물면서 어두워지는 산색과 푸른 숲을 덮는 구름으로 인해 슬피 우는 두견새의 정경을 묘사한 것이다.

(3) 5·7언 집언체 악부시(14구)

본 시체 역시 1제만 보인다. 이 악부시 「시138」은 추련秋蓮을 읊은 것으로, 중심내용은 가을 냉기에 연꽃은 시들어도 연근蓮根 속의 천 가닥 가는 실들은 뿌리를 잘라도 끊어지지 않는다 하여, 시적화자詩的話者是 바로 자신의 품덕에 대한 보존도 이 ‘우중사藕中絲’의 물성物性を 닮기를 바란다는 것을 피력하고 있다. 또한 별리別離에 처한 사람들의 경우도 서로 그리워하는 마음만 있다면 ‘우단사련藕斷絲連’ 같은 정을 이어갈 수 있음을 부각시켰다.

이상을 총괄하면, 권3에 보이는 시에는 권1에서 보였던 다양한 시제詩題를 읊은 연작시連作詩들의 시경詩境이나 임난壬亂 7년 전쟁과 관련된 비장하고 처연한 시의詩意 등은 보이지 않는다. 또한 권2의 논도論道와 논학류論學類 및 다수의 영사시詠史詩 등에서 보이는 사상적 역사적 깊이를 요구하는 내용도 거의 없다. 그래서 권3은 비교적 평담하게 감상할 수 있는 시적경계들로 편집되었다고 할 수 있겠다.

권1·2에서 보이는 침중한 애국정서나 심도 있는 사상성은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도학자로서의 풍격을 느끼게 하는 애국보민愛國保民의 정감, 선친先親과 요절한 이들에 대한 애절한 그리움, 족친族親·문우文友에 대한

진지한 정감, 경물景物을 중심으로 읊은 고답高踏한 정서와 흥취, 구도求道와 은일隱逸에 대한 유연함과 인사人事와 생명의 유한성에 대한 애뜻한 정서가 어우러져서 고매한 영혼의 의식 수준을 도처에서 만날 수 있게 한다.

2017년 3월

서애 12대 후손 류명희柳明熙

후학後學 안유호安維鎬



1. 이 책의 국역 대본은 서애선생기념사업회의 간행본인 『서애전서西厓全書』 권1 간본刊本篇, 별집別集 권1의 시부詩部를 대상으로 하였다.
2. 본 시집에서 시의 배열은 『서애전서西厓全書』 권1 간본刊本篇, 별집別集的 권1, 시부詩部の 목차에 준하였다. 이 목차의 순번에 따라 찾아보기 쉽게 하기 위하여, 번역시 제목 앞에는 ‘시1, 시2·……’ 식으로 표기하였고, 원시 제목 앞에는 ‘詩1, 詩2·……’ 식으로 번호를 덧붙여 독자의 편의를 도모하였다. 동시에 이 번호의 색을 열게 표기하여, 한편으로는 시제詩題의 순서를 나타내고, 다른 한편으로는 시의 제목이 아님을 시각적으로 드러나게 하였다.
3. 원시 제목에서는 방점을 찍지 아니하고 띄어쓰기만 했으며, 원시의 서문에서는 방점 처리를 하였다. 동시에, 원시와 이에 부속된 서문의 한문은 모두 한글 음을 달았다.
4. 시의 목차에서 ‘번역시 제목’은 왼쪽 페이지에, ‘원시제목’은 오른쪽 페이지에 두었으며, 동시에 양자兩者를 동일 행行에 나란히 안배하여, 역시와 원시의 시제를 대조해서 즉각 해당 시제의 쪽수를 찾을 수 있도록 하였다.
5. 목차에서는 시제詩題를 단순 명확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부속된 서문을 생략하였다.
6. 같은 시제 아래, 2수 이상의 작품이 있는 경우에는 원시의 목차에 준하여 [1], [2] 등으로 표기하였다.

7. 시의 1구는 1행으로 적었으며, 1구가 끝나면서 압운押韻하는 곳은 ‘ 〃 ’로, 압운하지 않는 곳은 ‘ , ’로 표기했다.
8. 연대는 공동연대Common Era로 표시하되, 필요시엔 괄호를 열어 당시 제왕의 재임연수와 서애西厓 선생의 당시 나이를 모두 표기하였다.
9. 주석注釋에서 인물과 지명에 대한 소개는 되도록 구체적으로 밝혔다. 특히 인물을 소개할 때는 원문에 기록된 성씨, 직함, 자字, 이름의 순으로 번역하고, 그 아래 ① 성명, ② 직함을 별도로 주석注釋하였다. 번역문에서는 현대식으로 자字나 직함을 앞에 쓰고, 성명을 뒤에 썼다.
10. 주석注釋에서 특히 지명地名의 경우,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를 열고 오늘날의 위치로써 간주間註하였다.
인명·지명·서명書名 등에서, 중국관련 고유명사는 중국어 발음으로 표현해야 하나, 서애 선생이 작시作詩하던 시대적 상황과 한국의 한자문화권의 정서를 고려하여, 한국어 음으로 표기하였다. 또한 인명과 지명 및 관직명에 관해서 각종 사전을 인용한 것은 일일이 그 출처를 밝히지 않았다.
11. 주석달기에서 단위별 항목의 표기는 1), ①, ☆, a 등의 순서로 표기하였다.
12. 주석은 가능하면 사전 없이 본시를 감상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달았으며, 매 작품의 끝에 미주로 처리하였다. 서애西厓 선생이 단 주석과 역자譯者의 주석 및 해설은 “*”라는 부호로 표기하였고, 주석 속에 다시 주석이 필요한 경우는 “*”로 표기하였다.
13. 역시譯詩의 제목과 시문은 모두 고등학교 졸업 정도의 학력이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평이한 현대어를 사용하고자 노력하였다.
14. 부호의 사용은 다음과 같이 하였다.
 - 1) () : 해당 단어에 대한 참고사항 및 연도 혹은 연도성 성격에 준하는 의미 및 시문詩文이나 소서小序의 역문譯文 등에서 생략된 의

미를 역자가 부각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도 이 부호를 사용했다.

2) 「 」 : 작품의 편명을 표기하였다.

3) 『 』 : 책명을 표기하였다.

4) “ ” : 대화 등의 인용문을 묶었다.

5) ‘ ’ : 재인용이나 강조 부분을 묶었다.

6) [] : 같은 시제詩題 아래 2수 이상의 작품이 있는 경우에는 원시
原詩의 목차에 준하여 이 부호로써 해당 번호를 묶었다. 또한 내용
설명에 대한 약식略式 표현이 필요한 경우에도 본 부호를 사용하
였다.

15. 권말卷末 부록으로 ① 색인索引, ② 「서애연보西厓年譜」 초록抄錄을
수록하였다.



목 차

간행사刊行辭_ 5

역자 서설序說_ 9

해제解題_ 13

일러두기_ 35

시1. 봄날 정주定州 공관에서 한거閑居 중에 우연히 읊다 1

시2. 의주義州 연춘당延春堂에서 밤에 앉아 비오는 것을 내다보며 ... 4

시3. 정월 초하룻날 느낀 바 있어서 7

시4. 초봄에 서재에 머물면서 사물에 감동하여 다시 한 수 짓다 .. 13

시5. 고양군高陽郡을 지나가던 도중에 17

시6. 정주定州의 남쪽 정자에서 달을 감상하다가 경성京城에 있는
벗이 생각나서 지은 이 시를 이튿날 경문 류중엄 당숙堂叔편에
부친다 21

시7. 사신使臣을 따라 가는 길에 백상루百祥樓에 올라가 잠시
쉬었다가 가산군嘉山郡을 향해 출발하면서 26

詩1.	春日 定州公廨 閒居偶題	1
	춘 일 정 주 공 해 한 거 우 제	
詩2.	義州延春堂 夜坐遇雨	4
	의 주 연 춘 당 야 좌 우 우	
詩3.	元日有感	7
	원 일 유 감	
詩4.	初春齋居 感事有作	13
	초 춘 재 기 감 사 유 작	
詩5.	高陽道中	17
	고 양 도 중	
詩6.	定州南臺玩月懷京友 明日寄柳景文叔(戊辰春)	21
	정 주 남 대 환 월 회 경 우 명 일 기 류 경 문 숙 무 인 춘	
詩7.	陪使相 登百祥樓 少憇發向嘉山	26
	배 사 상 등 백 상 루 소 계 발 향 가 산	

시8. 전문령箭門嶺에 올라서서 압록강을 바라보면, 바로 삼국의 국경선이 있다. 그 서쪽은 대해大海가 연접해 있어서, 눈에 보이는 것이라고는 모두 질푸른 모습뿐이다. 그러나 등주登州와 내주萊州의 맞은편에 있는 산언덕, 그 북쪽은 고산高山으로 하늘에 잇닿아 있어서, 먹구름이 끼어 한기寒氣가 돌면서, 사람으로 하여금 을씨년스레 서글픔에 젖게 하였다. 소년시절에 이곳을 지나갔던 기억이 나기에, 지난 세월을 곰곰이 생각해보니, 감개무량 하였다.	33
시9. 등계달滕季達에게 증정하는 시 두 수	40
시10. 퇴계 이황 선생께 고별인사를 드리면서	46
시11. 탈상脫喪 후에 처음으로 원지정사遠志精舍에 나가보고 느낀 바 있어서	51
시12. 풍기豊基의 객사에서 여우汝友 배삼익裴三益 공공을 유별留別하면서	55
시13. 용궁현龍宮縣 이미수李眉叟의 집에 묵는데, 뜰 안에 관상할만한 매화나무 한 그루가 있어서	60
시14. 조령鳥嶺의 객점에 숙박하면서	63
시15. 한강에서 여인汝仁 정곤수鄭崑壽 공공을 유별留別하면서	67
시16. 강촌江村에서 와병臥病 중에 피리소리가 들려서	71
시17. 이후백李後白 판서判書께서 종계 진주사宗系陳奏使로 북경에 가시기에 삼가 드리다	73
시18. 서장관書狀官 김해金海 공공이 북경에 가는 것을 송별하면서 ..	84
시19. 가을 날 향촌에서 당면當面한 몇 가지	88
시20. 회암晦庵 주희朱熹 선생의 시를 차운次韻하여	90
시21. 사성司成 김복일金復一공의 별세를 애도하면서	95

詩8.	登箭門嶺 望鴨綠江 正是三國邊界 其西則接連大海 등천문령 망압록강 정시삼국변계 기서즉접연대해 極目蒼然 意是登萊對岸 其北則高山接天 陰雲殺氣 극목창연 의시등대대안 기북즉고산접천 음운살기 令人愁慘 因憶少年過此 俯仰今古 有感慨之懷 33 령인수참 인억소년과차 부양금고 유감개지회
詩9.	贈滕季達二首 40 증등계달이수
詩10.	奉別退溪先生 46 봉별퇴계선생
詩11.	免喪後 始出遠志精舍 有感 51 면상후 시출원지정사 유감
詩12.	豐基客舍 留別裴汝友 55 풍기객사 유별배여우
詩13.	宿龍宮李眉叟家 庭有梅花一株可玩 60 숙룡궁이미수가 정유매화일수가완
詩14.	宿烏嶺村店 63 숙조영촌점
詩15.	漢江留別鄭汝仁 67 한강유별정여인
詩16.	卧病江村聞笛 71 와병강촌문적
詩17.	奉贈李判書後白 以宗系陳奏使赴京 73 봉증이판서후백 이종계진주사부경
詩18.	送金書狀濟 赴京 84 송김서장해부경
詩19.	秋日村居卽事 88 수일촌거즉사
詩20.	次晦庵韻 90 차회암운
詩21.	輓金司成復一 95 만김사성복일

시22. 청련靑蓮 이후백李後白 판서의 타계를 애도하면서	100
시23. 갈림길을 거닐다보니 연못에 달이 비치기에 고산孤山에 올라서	108
시24. 함창咸昌 객관에서 호음湖陰 정사룡鄭士龍 공공의 시를 차운次韻하여	111
시25. 기정岐亭을 떠나면서	116
시26. 휴가를 청하여 남쪽으로 귀향하다가 양재촌良才村에 숙박하면서	118
시27. 강변 누각에서 큰물이 지는 모습을 관상觀賞하면서	123
시28. 북담정사北潭精舍가 신축되고 나서 얼핏 떠오른 생각을 읊다	125
시29. 달밤에 벗 여옥汝沃 이은신李殷臣 공공의 정원庭園에 지은 정자에서 노닐며	131
시30. 장중章仲 권호문權好文 공공의 송암초당松巖草堂을 쓰다	135
시31. 비가 오는데 연좌루燕坐樓에 앉아서 반산半山 왕안석王安石 선생의 시를 차운하여	139
시32. 승려 성진性眞의 시축詩軸에 쓰다	144
시33. 계헌季獻 이우李瑀 공공의 시 「학금學琴」을 차운次韻하여 ...	148
시34. 병산서원屏山書院에서 학봉鶴峯 김성일金誠一 공공이 조정으로 되돌아가는 것을 송별하면서 지은 시 세 수	151
시35. 중수仲綬 남연록南延祿 선비에게 드리는 시 두 수	166
시36. 갑신년(甲申年: 1584: 서애 43세)에 경상도 관찰사로써 비안현比安縣에 도착하여, 벽에 적힌 시의 운韻을 차운次韻하여 지은 시를 바로 교관敎官 형에게 부치다	171

詩22.	輓李青蓮	100
	만 이 청 연	
詩23.	遊歧湖泛月登孤山	108
	유 기 호 범 월 등 고 산	
詩24.	咸昌客舍次湖陰韻	111
	함 창 객 사 차 호 음 운	
詩25.	歧亭留別	116
	기 정 유 별	
詩26.	乞暇南歸宿良才村	118
	걸 가 남 귀 숙 양 재 촌	
詩27.	江樓觀漲	123
	강 루 관 장	
詩28.	北潭精舍新成偶吟	125
	북 담 정 사 신 성 우 음	
詩29.	月夜遊友人李汝沃園亭	131
	월 야 유 우 인 이 여 욱 원 정	
詩30.	書權章仲松巖草堂	135
	서 권 장 중 송 암 초 당	
詩31.	雨中坐燕坐樓次半山韻	139
	우 중 좌 연 좌 루 차 반 산 운	
詩32.	題性眞詩軸	144
	제 성 진 시 축	
詩33.	次李季獻瑀學琴韻	148
	차 이 계 현 우 학 금 운	
詩34.	屏山書院奉別金鶴峯還朝三首	151
	병 산 서 원 봉 별 금 학 봉 환 조 삼 수	
詩35.	奉寄南仲綏延祿二首	166
	봉 기 남 중 수 연 륙 이 수	
詩36.	甲申以觀察使到比安次壁上韻仍寄教官年兄	171
	갑 신 이 관 찰 사 도 비 안 차 벽 상 운 잉 기 교 관 년 형	

- 시37. 재사齋舍에 머물며 『주역』을 읽는데, 온 뜰에 낙화가 깔리더니
바람 따라 창안으로 날려 온 꽃잎이 사랑스러워서 177
- 시38. 정해년丁亥年 정월 초하룻날 대설大雪이 내리는데,
시詩 「망호현望湖軒」의 운자韻字를 차운次韻하여 181
- 시39. 정해년丁亥年 늦봄에 『주역』을 읽고 느낀 바 있어
벽에 쓰다 184
- 시40. 차운次韻하여 지은 시를 어은정漁隱亭에서 함께 놀았던
분들에게 부치다 187
- 시41. 서루西樓에서 여름 날 보리타작하는 소리를 들으며 189
- 시42. 음력 칠월 보름날, 속칭 ‘백종百種’이라 하여, 촌민들이
부모를 위하여 초혼招魂을 해서 제사를 지내기에 191
- 시43. (요절한 아들) 경남經男이가 그림고 애통해서 195
- 시44. 군위현軍威縣의 송현산松峴山에서 조부의 묘소에 성묘하고
있는데, 현감 류몽정柳夢井 공公이 방문하였기에, 함께
남계정사南溪精舍로 가는데, 이곳에 택지宅地를 마련하여
거주하려고 하는 관료 중의 몇 몇 사람이 현감을 수행해서
온 까닭에 시 한 수를 지어서 그 일을 기록한다. 198
- 시45. 선몽대仙夢臺에서 퇴계선생의 시 「선몽대」의 시운詩韻을
차운次韻하여 212
- 시46. 우영偶詠 216
- 시47. 북애정사北厓精舍를 창건한지 10년, 그 동안 재력財力이
급격히 위축되어, 자칫 공사를 완공하지 못할 뻔 했었다.
승려 탄홍誕弘도 분발하여 일을 도맡아 처리해서, 마루와
방이며 창과 문 등 모든 것을 갖추었다가, 내가 사직 하고
귀향하는 날에 적절하게 맞추어서, 내 집이 마침내
완공되었으니, 하늘에도 당연히 재앙을 물리쳐 달라는
제사를 올렸다. 너무 기뻐서 다시 이전의 시운詩韻을
차운次韻하여 읊는다 219

詩37.	齋居讀易 落花滿庭 隨風入窓可愛	177
	齋 거 독 역 낙 화 만 정 수 풍 입 창 가 애	
詩38.	丁亥元日大雪 次望湖軒韻	181
	정 해 원 일 대 설 차 망 호 현 운	
詩39.	丁亥暮春 讀易有感 書壁上	184
	정 해 모 춘 독 역 유 감 서 벽 상	
詩40.	次韻寄漁隱亭同遊諸君子	187
	차 운 기 이 은 정 동 유 제 군 자	
詩41.	西樓夏日 聞打麥聲	189
	서 루 하 일 문 타 맥 성	
詩42.	七月十五日 俗號百種 村民爲父母招魂以祭之	191
	칠 월 십 오 일 속 호 백 종 촌 민 위 부모 초 혼 이 제 지	
詩43.	悼經男	195
	도 경 남	
詩44.	軍威松峴 省先祖墓 縣監柳君夢井來訪	
	군 위 송 현 성 선 조 묘 현 감 류 군 동 정 대 방	
	因與同至南溪 欲卜居 士友數人隨之	
	인 여 동 지 남 계 욕 복 거 사 우 수 인 수 지	
	因以一詩記其事	198
	인 이 일 시 기 기 사	
詩45.	仙夢臺 次退溪先生韻	212
	선 몽 대 차 퇴 계 선 생 운	
詩46.	偶詠	216
	우 영	
詩47.	北厓精舍草創十年 中間財力遽屈 幾不能成	
	북 애 정 사 초 창 십 년 중 간 재 력 기 굴 기 불 능 성	
	弘也發憤營辦 堂齋窓戶皆具 適會余退歸之日	
	홍 야 발 분 영 판 당 재 창 호 개 구 적 회 여 퇴 귀 지 일	
	而吾舍有成 天公固解事也 喜甚更次前韻	219
	이 오 사 유 성 천 공 고 해 사 야 희 심 경 차 전 운	

시48. 원지정사遠志精舍를 시제詩題로 쓰다	228
시49. 병산서원에서 여러 군자들과 함께 타계하신 스승님의 문집을 교정校正하고 느낀 바를 학봉鶴峯 김성일金誠一 형의 사환에게 전해주면서	233
시50. 문산文山문천상文天祥이 애산愛山 사백화謝伯華가 지은 「석양은 아름답지만 오래 머물지 아니 하네」라는 시제詩題의 시를 차운하여 지은 시를 (다시) 차운하여	237
시51. 소환령을 받들어 곧 관서지방關西地方으로 떠나려 하면서 강변누각에 올라보니 느낀 바 있어	245
시52. 산승山僧 사경思瓊의 시집詩集에 쓰다	249
시53. 구학정龜鶴亭을 시제詩題로 쓴 시 세 수	256
시54. 왕양명王陽明 시詩의 운韻을 차운次韻하여 지은 시를 옥연정사玉淵精舍 벽에 써 붙이다	272
시55. 용추龍湫 폭포에 들렀다가 자침子瞻 김첨金瞻 공공의 시를 차운次韻하여	280
시56. 월천月川 조목趙穆 공公께서 서신을 보내왔기에 답서를 부친다. 아울러 칠언율시 한 수를 지어서, 못 다한 생각을 표한다	283
시57. 한덕재韓德載 선생을 작별하고 나서	291
시58. 송암松巖 마을을 지나가다가 장중章仲 권호문權好文 공공을 그리워하며	294
시59. 자부子孚 정사신鄭士信의 도미동 정사道味洞精舍를 읊다	299
시60. 효릉孝陵으로 가는 도중에 느낀 바 있어서	305
시61. 화석정花石亭을 시제詩題로 하여 쓰다	311

詩48.	題遠志亭	228
	제원지정	
詩49.	屏山與諸君校先師文集有感呈鶴峯兄侍者	233
	병산여제군교선사문집유감정학봉형시자	
詩50.	次文山次謝愛山賦「夕陽雖好不多時」韻	237
	차문산차사애산부석양수호부다시운	
詩51.	將赴召西行登江樓有感	245
	장부소서행등강루유감	
詩52.	書山人思瓊詩卷	249
	서산인사경시권	
詩53.	題龜鶴亭三首	256
	제구학정삼수	
詩54.	次陽明韻題玉淵壁上	272
	차양명운제옥연벽상	
詩55.	龍湫次金子瞻韻	280
	룡주차김자첨운	
詩56.	趙月川寄書答去又書一律以道未盡之意	283
	조월천기서답거우서일률이도미견지의	
詩57.	奉別韓德載	291
	봉별한덕재	
詩58.	過松巖懷權章仲	294
	과송암회권장중	
詩59.	題鄭子孚道味洞	299
	제정자부도미동	
詩60.	孝陵道中有感	305
	효릉도중유감	
詩61.	題花石亭	311
	제화석정	

시62. 명명나라 장수의 시를 차운次韻하여	315
시63. 파사성婆娑城에 묵으며 금강루襟江樓에 올라서	319
시64. 이여송李如松 제독提督을 송별하면서 증정한 두 수	324
시65. 차운次韻하여 지은 시를 송운대사松雲大師 유정惟政에게 증정하다	333
시66. 옥산玉山에서 밤에 음주하면서 극기克己 정호인鄭好仁에게 써서 주다	338
시67. 황강역黃江驛 역전에 도착하여, 잠시 쉬려고 개천가의 바위에 앉아 있는데, (그때) 얼음장 아래서 계곡물 흘러가는 소리가 꿀꿀 들리면서, 혼연히 마음속에 깨우침이 일어, 홀연히 노정路程의 어려움도 잊고, 우연히 시 한 수 읊는다.	342
시68. 운암객관雲巖客館에 숙박하면서	348
시69. 선달 그믐날 밤에 각화사覺華寺 동암東庵에서 우연히 쓰다 ...	350
시70. 승려 태운에게 써주다	356
시71. (기해년己亥年: 1599년) 2월에, 나는 도심촌道心村을 떠나 하회리河回里 집으로 왔다. 전前 경산현령慶山縣令 이준李浚은 회재晦齋 이언적李彦迪 선생의 손자인데, 경주에서 나를 보러 오셨기에, (공공이) 떠날 즈음에 시 한 수를 써서 증정한다. ...	360
시72. 봄날의 수심	368
시73. 위소주韋蘇州의 시를 읽고 나서	370
시74. 비온 뒤, 앞산에 진달래가 만발하여, 홀연 (지난) 경오년(庚午年: 1570년) 봄이 상기想起되었다. 서장관書狀官으로 연경에 갔다가, 3월에 (요동遼東의) 봉황산 기슭에 돌아 왔었는데, (그때) 온 산에 모두 이 꽃이 활짝 피었었다. 요동 사람들은 이 꽃을 만산홍滿山紅이라고 했는데, 지금에 이르기까지 이미 30년이란 세월이 흘렀다. (지금 앞산의) 경물景物을 바라보니 지난날의 정취에 감응되어 여기에 시 한 수를 읊는다.	379

詩62.	次天將韻伏蒙辱示盛什 謹次奉呈 荒拙可笑	315
	차 천 장 운 복 몽 육 시 성 집 근 차 봉 정 황 졸 가 소	
詩63.	宿娑娑城 登襟江樓	319
	숙 파 사 성 등 금 강 누	
詩64.	贈別李提督如松 二首	324
	증 별 이 제 독 여 송 이 수	
詩65.	次贈松雲師	333
	차 증 송 운 사	
詩66.	玉山夜飲 贈鄭克己好仁	338
	옥 산 야 음 증 정 극 기 호 인	
詩67.	到黃江驛前 少憇 坐溪邊石上 聽水泉咽咽 欣然意會 忽忘道途之艱 偶作 時戊戌冬 罷官南還	342
	도 황 강 역 전 소 계 좌 개 변 석 상 청 빙 천 열 열 혼 연 의 회 홀 망 도 도 지 간 우 작 시 무 슬 등 파 관 남 환	
詩68.	宿雲巖	348
	숙 운 암	
詩69.	除夕 在覺華寺東庵偶題	350
	제 석 재 각 화 사 동 암 우 제	
詩70.	贈太雲	356
	증 태 운	
詩71.	二月 余自道心出河庄 前慶山縣令李浚 晦齋先生之孫也 從慶州來訪 臨去以詩爲贈	360
	이 월 여 자 도 심 출 하 장 전 경 산 현 령 이 준 회 재 선 생 지 손 야 종 경 주 태 방 임 거 이 시 위 증	
詩72.	春愁	368
	춘 수	
詩73.	讀韋蘇州詩	370
	독 위 소 주 시	
詩74.	雨後前山杜鵑盛開 忽憶庚午春 以書狀赴燕 三月還到鳳凰山下 滿山皆此花遼人謂之滿山紅 今已三十年矣 覽物不能無感舊之意 賦此云	379
	우 후 전 산 두 견 성 개 홀憶 경 오 춘 이 서 장 부 연 삼 월 환 도 봉 황 산 하 만 산 개 차 화 요 인 위 지 만 산 홍 금 이 삼 십 년 의 략 물 불 능 무 감 구 지 의 부 자 운	

- 시75. 삼월 그믐날, 홀로 옥연서당玉淵書堂에 나왔다가, 잠시
능파대凌波臺에 앉아서, 벽도화碧桃花가 때마침 피고 있는 것을
보고, 너무 사랑스러워서 완상玩賞하다가 홀연 ‘이 경물景物이
나와 어떤 일로 연관이 되고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었다.
반드시 산천山川이며 바람과 꽃 등 자연의 실상實相에
순응해야하는데, 여태까지 (이 실상에) 전념하지 못했다.
이제 겨우 자연의 궁극적 진상眞相을 깨우쳐, 한 수의
절구시絶句詩로 써서 남창에 붙여놓고, 스스로를
경계警戒하며 조심하는 마음으로 읊어 본다. 386
- 시76. 귀뚜라미를 읊다 392
- 시77. 명옥대鳴玉臺 394
- 시78. 독좌獨坐 396
- 시79. 서천군西川君으로 봉해진 여인汝仁 정곤수鄭崑壽 공공이
성주군星州郡에서 경성京城으로 돌아가다가 하회에 있는
나를 방문하셨기에, 술술 우거진 정자에서 간소한 주연酒宴을
배운 후에, 다시 배를 타고 북담北潭을 건너가 능파대凌波臺에
올라갔다가, 날이 저물 무렵이 돼서야 이별하였다.
여인汝仁 공공은 평소에 소갈증消渴症을 앓고 있는 지라,
이날 홍시 여러 접시를 드시고 가셨다. 이미 작별은
했지만, 소동파蘇東坡의 시詩 「석전역石田驛」을 차운次韻하여
여인汝仁 공공에게 부치려 한다. 405
- 시80. 송정松亭에서 송운대사松雲大師 유정惟政을 송별하면서 412
- 시81. 두보杜甫의 시 「구일九日」을 차운次韻하여 415
- 시82. 희지希之 김대현金大賢의 시 「유의암留衣庵」을 차운次韻하여 · 421
- 시81. 두보杜甫의 시 「구일九日」을 차운次韻하여 398
- 시83. 구월 열이렛 날 조카 기禱가 낭천현狼川縣 임지로 가는데,
송별하면서 증여한 두 수 426

- 詩75. 三月晦獨來玉淵書堂少坐凌波臺見碧桃正開
 삼 월 회 독 래 옥 연 서 당 소 좌 롱 파 태 건 벽 도 정 개
 殊可愛玩忽念此物關我何事要須從山水風花
 수 가 애 환 놀 님 자 물 관 아 하 사 요 수 종 산 수 풍 화
 都不着心方是究竟法因書一絕于南窓以自警云 .. 386
 도 불 착 심 방 시 구 경 법 인 서 일 절 우 남 창 이 자 경 운
- 詩76. 吟蟋蟀 392
 음 싯蟀
- 詩77. 鳴玉臺 394
 명 옥 대
- 詩78. 獨坐 396
 독 좌
- 詩79. 西川君鄭汝仁自星州還京訪余河上小酌松亭
 서 천 군 정 여 인 자 성 주 환 경 방 여 하 상 소 작 송 정
 又舟渡北潭登凌波臺日暮相別汝仁素患消渴
 우 주 도 북 탐 등 롱 파 대 일 모 상 별 여 인 소 환 소 갈
 是日多食红柿數櫟而去旣別次東坡「石田驛」韻
 시 일 다 식 홍 시 수 접 이 기 기 별 차 동 파 석 전 역 운
 欲寄汝仁 405
 욕 기 여 인
- 詩80. 松亭別松雲 412
 송 정 별 송 운
- 詩81. 次老杜九日韻 415
 차 노 두 구 일 운
- 詩82. 次金希之大賢留衣庵韻 421
 차 김 희 지 대 현 유 의 암 운
- 詩83. 九月十七日猶子椅赴狼川任所贈別二首 426
 구 월 십 칠 일 유 자 기 부 낭 천 임 소 증 별 이 수

시84. 옥연정玉淵亭 옆의 절벽을 읊다	432
시85. 삼월에 서리가 내려서	434
시86. 칠현금七絃琴을 시제詩題로 하여 쓰다	438
시87. 경자년庚子年(1600년) 정월 초하룻날 밤에, 방옹放翁육유陸游가 지은 시 「갑자년(1204년) 정월 초하룻날(甲子元日)」을 차운하여	441
시88. 경자년庚子年(1600년) 정월 초이렛날 고적高適의 시를 차운次韻하여	445
시89. 강변 마을에서 새벽에 일어나 눈앞의 풍경을 읊다	452
시90. 조趙서방 직稷이 연안延安으로 돌아가는 것을 전송하면서 지은 시 두 수	454
시91. 한식 전날, 선영先塋에 가서 성묘省墓하려고 출발했으나, 진눈개비가 내려서 (작업을) 중지하면서	459
시92. 한식이 되자 비가 그치고 날씨가 맑아졌기에, 금계재사金溪齋에서 출발하여, 풍산현豊山縣으로 오는 도중에 마상馬上에서 읊다	463
시93. 달밤에 아들과 조카를 데리고 매화나무 아래를 거닐다가, 소동파蘇東坡의 시 「살구꽃 나무 아래서 술을 마시다(飲酒杏花下)」를 차운하여	467
시94. 칠월 초닷셋날, 바람기가 좀 잠잠해 지기에, 아들과 조카 그리고 그 또래 아이들 몇 명을 데리고, 북림北林과 불탑佛塔에 놀러간 김에, 종으로 하여금 잡초를 베게 해서, 그것을 태워버리도록 했는데, 때마침 바람이 불어와서 불길이 세어져 잠깐 사이에 그 잡초들을 남김없이 태워버렸다. (그렇게 하고 나니) 나무숲의 그림자가 어른어른 거리고 거닐 수 있게 되었다. 이튿날 소동파의 시 「삼진날에 외출하여 유람하다(上巳出遊)」를 차운하여 이 시를 짓는다.	472

詩84.	詠玉淵石壁	432
	영 옥 연 석 벽	
詩85.	三月下霜	434
	삼 월 하 상	
詩86.	題七絃琴	438
	제 칠 현 금	
詩87.	庚子元日夜 次陸放翁甲子元日韻	441
	경 자 원 일 야 차 육 방 웅 갑 자 원 일 운	
詩88.	庚子人日 次高適韻	445
	경 자 인 일 차 고 적 운	
詩89.	江村曉起卽事	452
	강 촌 효 기 즉 사	
詩90.	送趙甥稷 還延安二首	454
	송 조 생 직 환 연 안 이 수	
詩91.	寒食前一日 將出掃先塋 以雨雪止	459
	한 식 전 일 일 장 출 소 선 영 이 우 질 지	
詩92.	寒食雨晴 始出金溪 在豐山道中 馬上口占	463
	한 식 우 청 시 출 금 계 재 풍 산 도 중 마 상 구 점	
詩93.	月夜 與子姪步梅花下 次東坡飲酒杏花下韻	467
	월 야 여 자 질 보 매 화 하 차 동 파 음 주 행 화 하 운	
詩94.	七月五日 風氣颯然 與子姪數輩 遊北林佛塔	
	칠 월 오 일 풍 기 샅 연 여 자 질 수 배 유 북 름 불 탑	
	令奴芟去荒穢 以火焚之 時風急火盛 須臾淨盡	
	영 노 삼 거 황 예 이 화 분 지 시 풍 급 화 성 수 유 정 진	
	林影婆娑 可以逍遙 明日次東坡上已出遊韻	472
	림 영 파 사 가 이 소 요 명 일 차 동 파 상 이 출 유 운	

시95. 금년에는 정사精舍의 국화가 늦게 피었다. 시월 초순初旬이 되자 바야흐로 국화가 만개滿開하면서, 창려昌黎 한유韓愈의 시에서, “곱디곱더니만 서리 맞은 국화여鮮鮮霜中菊, 이미 철이 늦었으니 어찌하면 좋을꼬既晚何用好?”라고 읊은 구절이 회상되기에, 느낀 바 있어서	492
시96. 누각에 올라보니 느끼는 바 있어서	496
시97. 쾌청한 날 새벽에 뜰을 거닐다가 우연히 지은 시를 벽에 써 붙이다.	500
시98. 간죽문看竹門을 시제詩題로 쓰다	502
시99. 누각에서 느낀 가을철의 처량한 정서	504
시100. 형님 댁 문 밖의 작은 연못에 연꽃을 심었는데, 금년에 활짝 피었기에	506
시101. 어락정魚樂亭을 시제詩題로 하여	509
시102. (어락정魚樂亭에서 돌아오던) 도중에 읊시 한 수를 또 읊다	513
시103. 청산 백운가	517
시104. 서극부徐克夫의 『명암록(鳴巖錄)』을 읽고 농 삼아 쓰다	520
시106. 초봄에	528
시107. 가을벌레가 모여드는 것을 시제詩題로 하여 쓰다	530
시108. 가을바람 앞의 국화	532
시109. (세객說客) 우경虞卿을 읊다	534
시110. 무제無題	545
시111. 정사잡영精舍雜詠	547
시112. 우음偶吟	549

詩95.	今年書舍 菊花晚開 至十月旬方盛 금년 서서 국화 만개 지시 월순방성 因憶昌黎詩“鮮鮮霜中菊，既晚何用好”有感 인억창려시 신선상중국 기만하용호 유감	492
詩96.	登樓有感 등루유감	496
詩97.	晴曉獨行庭中 偶書壁上 청효독행정중 우서벽상	500
詩98.	題看竹門 제간죽문	502
詩99.	樓中秋思 루중추사	504
詩100.	伯氏宅門外小池種蓮 今年盛開 백씨택문외소지종연 금년성개	506
詩101.	題魚樂亭 八月十四日與伯氏同登 제이락정 팔월십사일여백씨등등	509
詩102.	道中又吟一律 도중우음일률	513
詩103.	青山白雲歌 청산백운가	517
詩104.	讀徐克夫鳴巖錄 戲書 독서극부명암록 희서	520
詩105.	秋日步庭中 추일보정중	523
詩106.	早春 조춘	528
詩107.	題秋蟲集 제추중집	530
詩108.	風菊 풍국	532
詩109.	詠虞卿 영우경	534
詩110.	無題 무제	545
詩111.	精舍雜詠 정사잡영	547
詩112.	偶吟 우음	549

시113.	호수에 비친 달	552
시114.	비를 무릅쓰고 홀로 옥연정사玉淵精舍에 와서, 승려로 하여금 대나무를 쪼개서 (죽관竹管을 만들어) 산골짜기의 웅달샘 물을 끌어와 돌 위에 떨어지게 하니 돌 위에 떨어지는 소리가 '줄줄'하는 게 사람들이 좋아 할만 했다. 한 잠 자고 일어나서 절구絶句 한 수 짓는다.	557
시115.	영중추부사領中樞府事 심결沈決 공공의 시를 차운次韻하여 ..	560
시116.	문하생 제군諸君이 올린 시를 읽고 차운次韻하여	565
시117.	천지생물의 기상氣象을 관조하면서	572
시118.	경자년庚子年 초가을에 생각나는 네 가지	575
시119.	김회중金晦仲 형제에게 써 주다	580
시120.	두보杜甫의 시를 차운하여 (지은 시를) 승려가 가져 온 두루마리에 써 주다	582
시121.	서재西齋에서 밤에 즉흥卽興으로 읊다	585
시122.	백운白雲	589
시123.	무자년戊子年 여름에, 시순士純 김성일金誠一 형을 비롯한 벗들이 병산屏山에서 모였다. 퇴계선생문집退溪先生文集의 편집을 시작한지 지금 13년이란 세월이 흘렀는지라, 여러분이 다시 서원에 모여, 연보의 편집을 시작한 지난날을 회상하며 감동에 젖어서, 율시律詩 한 수를 읊어 필사筆寫해 드리니, 다행히도 각자가 시로 화답和答을 하여서 당시의 정황情況을 기록한다.	597
시124.	군서君瑞 홍이상洪履祥 부사府使가 경성京城으로 돌아가는 것을 송별하며	602
시125.	달빛 아래서 홀로 뜰 안을 거닐다가 감흥이 일어 우연히 읊다	607

詩113.	湖月	호 월	552
詩114.	冒雨獨來玉淵 令僧剖竹引山泉墮石上 其聲琮琤可愛 睡起成一絕	모 우 독 대 옥 연 영 승 부 죽 인 산 천 타 석 상 기 성 종 쟁 가 애 수 기 성 일 절	557
詩115.	次沈領府事韻	차 심 영 부 사 운	560
詩116.	次韻奉諸君	차 운 봉 제 군	565
詩117.	觀天地生物氣象	관 천 지 생 물 기 상	572
詩118.	庚子初秋念四	경 자 초 추 념 사	575
詩119.	贈金晦仲兄弟	증 김 회 중 형 제	580
詩120.	次老杜韻題僧軸	차 노 두 운 제 승 축	582
詩121.	齋夜卽事	재 야 즉 사	585
詩122.	白雲	백 운	589
詩123.	戊子夏 與士純諸友 會屏山編退溪先生文集 今十三年 而諸君復會院中 輯年譜 感舊興懷 吟一律錄呈 幸各和之 以記一時之事	무 자 하 여 사 순 제 우 회 병 산 편 퇴 계 선 생 문 집 금 십 삼 년 이 제 군 부 회 원 중 집 년 보 감 구 흥 회 음 일 율 록 정 행 각 화 지 이 기 일 시 지 사	597
詩124.	送洪府使君瑞還京	송 홍 부 사 군 서 환 경	602
詩125.	月下獨步庭中 偶吟遣懷	월 하 독 보 정 중 우 음 건 회	607

시126. 고적孤寂한 심정	615
시127. 입춘이 지나 금계재사金溪齋寺에 갔다가, 멀리 풍산豐山 역마을을 바라보자니, 버들잎이 연녹색을 띄고 있는지라, 시절의 변화에 감회感懷가 일어, 처량하고 슬픈 마음에 눈물을 흘리며	617
시128. 마당정馬塘井을 지나가면서	621
시129. 호종훈扈從勳에 등록된다고 소환하는 교지敎旨가 있어, 8월에 상소하여 (훈적勳籍에서 삭제해달라고) 사양한 후에 (이 시를) 짓다	624
시130. 다시 오라고 하는 소환성지召喚聖旨가 있었으나 와병臥病중이라 가지 못하면서	628
시131. 이득而得 김윤사金允思가 최근에 강변에 택지宅地를 선택하여 거처를 마련하고 나서, 그 집을 송음松陰이라고 이름을 지었다가, 다시 추월당秋月堂이라 부르기로 했다기에, 두 수의 율시律詩를 지어 부친다	633
시132. 류종직柳宗直 훈도訓導에게 써서 보여주다	640
시133. 오월 열 다섯날 밤에 비가 내렸는데, 이른 아침에 일어나 벽에 쓰다	644
시134. 섬돌 옆의 모란을 시제詩題로 쓰다	646
시135. 오봉五峯 이호민李好閔의 시를 차운次韻하여 이별하는 독락당獨樂堂 주인 경산현령慶山縣令 이준李浚 공公에게 증정하다	650
시136. 산승山僧에게 증정하다	656
시137. 어떤 사람의 시운詩韻을 차운하여	659
시138. 추련곡秋蓮曲	665

詩126.	閒情 한 정	615
詩127.	立春後出金溪 望見豐山驛里 柳色微黃 感時興懷 입춘 후출 금계 망견 풍산역 리 유색 미황 감시 흥회 悽然泣下 치연 읍하	617
詩128.	過馬塘 과 마 당	621
詩129.	八月 錄扈從功 有旨召 上疏辭後作 팔월 록호종공 유지소 상소사후작	624
詩130.	再蒙召旨 又以病不赴 재몽소지 우이병불부	628
詩131.	金而得新卜江舍 名以松陰 又號秋月堂 금이득신복강사 명이송음 우로추월당 寄二律韻 기이율운	633
詩132.	書示柳訓導宗直 서시유훈도종직	640
詩133.	五月十五日夜雨 曉起書壁 오월십오일야우 효기서벽	644
詩134.	題階上牡丹 제계상목단	646
詩135.	次李五峯好閑 贈別獨樂堂主人李慶山浚韻 차이오봉호민 증별독락당주인이경산준운	650
詩136.	贈山人 증산인	656
詩137.	次人韻 차인운	659
詩138.	秋蓮曲 추련곡	665

시139. 창원昌遠 김홍미金弘微가 강릉부江陵府로 가는 것을 송별하면서	670
시140. 앞의 시에서 정감情感을 다 표현하지 못하여 다시 지어 주다	683
시141. 이백李白의 시를 차운次韻하여, (창원昌遠 김홍미金弘微가) 강릉부江陵府로 가는 것을 거듭 송별하면서	687
시142. 창원昌遠 김홍미金弘微의 시를 차운하여 지은 시를 또 주다	690
시143. 서원부원군西原府院君 정탁鄭琢 공공의 타계를 애도하면서 ..	692
시144. 월천月川 조목趙穆 공공의 별세를 애도하면서	699
시145. 불도佛道 수행에 능력 있는 어느 승려의 두루마리[軸]에 써주다	704
시146. 추월담秋月潭	707
시147. 우중雨中에 홀로 앉아있으니 감회가 일어	710
시148. 자탄自嘆하면서	712
시149. 정회情懷에 기탁하여 읊다	715
시150. 회암晦庵 주희朱熹선생의 시 「매미소리를 듣고서(聞蟬)」를 차운次韻하여	721
시151. 이정而靜 김윤안金允安에게 알리다	723
시152. 와병 중에 주부主簿 김협金協이 구담九潭으로 돌아가는 것을 송별하면서	729
서애연보西厓年譜 초록抄錄	733
찾아보기	767

詩139.	送金昌遠赴江陵 송금창원부강릉	670
詩140.	前言情不盡再贈 전인정부원재贈	683
詩141.	次李白韻 重別江陵之行 차이백운중별강릉지행	687
詩142.	次昌遠韻又贈 차창원운우贈	690
詩143.	輓西原府院君鄭琢 만서원부원군정탁	692
詩144.	輓趙月川 만조월천	699
詩145.	書法器軸 서법기축	704
詩146.	秋月潭 추월담	707
詩147.	雨中獨坐有懷 우중독좌유회	710
詩148.	自嘆 자탄	712
詩149.	寓懷吟 우회음	715
詩150.	次晦庵聞蟬 차회암문선	721
詩151.	示金而靜 시금이정	723
詩152.	病中送金主簿協 還九潭 丁未二月 병중송김주부협 환구담 정미이월	729

시1. 봄날 정주^{定州} 공관에서 한거^{閑居} 중에 우연히 읊다

詩1. 春日 定州公廨¹⁾ 閑居偶題²⁾
춘 일 정 주 공 해 한 거 우 제



半簾疎雨³⁾燕飛忙。
반 름 소 우 연 비 망

반쯤 내린 주름 밖 실비 속에
제비 날렵하게 나는데,

永日閑齋一炷香⁴⁾。
영 일 한 재 일 주 향

긴 봄날 한적한 서재에서 향을 사르네.

花落滿庭慵⁵⁾不掃。
화 락 만 정 용 불 소

온 뜰에 널린 낙화
심드렁해서 쓸지 않았는데,

清風時趁⁶⁾北窓涼。
청 풍 시趁 북 창 량

마침 청풍 일어 북창으로
서늘하게 불어오네.

1) 정주공해(定州公廨 : 봄날 정주 공관에서) :

- ① 정주(定州) : 56년(고구려 태조 4)에 고구려의 영토로 편입되었다. 발해시대에는 서경 압록부에 속해 있었다. 고려초에는 만년군(萬年郡) 장리현(長利縣)이라 칭했다. 그 후에 구주(龜州)·곽주(郭州)로 고쳐졌다. 993년(고려 성종 12)에 흥화진(興化鎭)·용주(龍州)·구주·곽주 등 강동6주를 수복하였다. 1018년(고려 현종 9)에 거란(契丹)의 9만 여명의 대군이 남침한 것을 무찌르고 구주와 곽주에 방어사를 설치하였다. 1221년(고려 고종 8)에 곽주에서 반역사건이 일어나서 이곳이 정리(定襄)란 지명으로 강등되었다. 1231년(고려 고종 18)에 제1차 여몽전쟁(麗蒙戰爭)이 일어나고, 이곳은 정원 대도호부(定遠大都護府)로 승격되었다

가, 후에 정주목(定州牧)으로 개편되었다. 1371년(고려 공민왕 20)에 정리(定襄)를 곽주로 회복 개칭하였다. 1413년(조선 태종 13)에 곽주를 곽산군(郭山郡)으로 개편하고, 1455년(세조 1)에 고구주(古龜州) 땅에 따로 구성군(龜城郡)을 설치했다. 1466년(세조 12)에 수천군(隨川郡)을 정주에 병합하였다. 1592년(선조 12), 임진왜란 때 선조가 몽진 길에 정주에서 3일간 유숙하였다. 1812년(순조 12)에 홍경래(洪景來)의 난이 일어난 까닭에 정주가 정원현(定遠縣)으로 강등되었다. 1895년에 의주부(義州府) 정주군이 되고 1896년에 평안북도 정주군이 되었다. 1913년에 동부면, 서부면을 합하여 정주면으로 개칭했는데, 1931년에 정주면이 읍으로 승격되었다.

- ② 공해(公廨): 공청(空廳)이라고도 하며, 공무를 처리하는 공관(公館)을 말한다.
****역자주석:** 『서애연보(西厓年譜)』에 의거하면, 1568(선조宣祖 1, 무진戊辰)년 27세, 2월에 휴가를 얻어 정주(定州)에 가서 부친 관찰공을 문안하였으며, 이때 정관재(靜觀齋)에서 7언절구의 「춘일유감(春日有感)」이란 시를 지었다는 기록(『국역 류성룡 시 Ⅰ』의 「시4」)이 보이는 데, 위의 시도 시제(詩題)와 시의 내용으로 보아, 이 시기에 지은 것이 아닌가 추정이 된다. 또한 『국역 류성룡 시 Ⅰ』의 「시2」의 시제(詩題)는 이번에 출간하는 『국역 류성룡 시 Ⅲ』의 「시1」의 시제(詩題)와 동일함.

2) 한거우제(閑居偶題: 한거 중에 우연히 쓰다):

- ① 한거(閑居): 한가하게 있다.
 ② 우제(偶題): ‘우연히 쓰다(짓다, 읊다)’는 뜻이다. 작시(作詩)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시제(詩題)를 정하고 나서 시를 짓는 것이 아니라, 우연히 순간적으로 떠오르는 사상(詩想)을 시제(詩題)없이 읊는 것으로 옛 시제에 많이 보인다.

3) 반림소우(半簾疎雨): 반쯤 내린 주림 밖에 살비가 내린다.

- ① 반림(半簾): 반쯤 내린 주림.
 ② 소우(疎雨): 소우(疏雨)라고도 쓰며, 경우(輕雨), 소우(小雨)와 비슷한 말이다.
 ☆가늘게 내리는 비. 살비.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뚝뚝 성가게 내리는 비.

4) 영일한재 일주향(永日閑齋一炷香: 긴 봄날 한적한 서재에서 향을 사르네):

- ① 영일(永日):
 ☆(봄이나 여름처럼) 하루해가 긴 날. 전(轉)하여 화창한 봄날의 뜻으로도 쓰는데,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온종일.
 ☆여러 날. 오랫동안.
 ☆시일(時日)을 헛되이 보내다(소모하다).
 ② 일주향(一炷香): 한 개비 향(을 피우다).
 ☆한 대(뚝)의 향. 피우고 있는(사르고 있는) 향 한 대(뚝). 본 시에서는 한 대의 향을 사르고(피우고) 있음을 표현한 말로 쓰였다.
 ☆주향(炷香): 향을 피우다.
 ☆주(炷): 명사로 쓰면 심지·등심의 뜻이고, 동사로 쓰이면 태우다(피우다)의 뜻이며, 양사로 쓰이면 향같이 가늘고 긴 것을 세는 단위(대·개)를 뜻한다.

5) 웅(慵):

- ① 마음에 내키지 않다. 심드령하다(마음에 탐탁지 아니하여서 관심이 거의 없다).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 ② 게으르다.
- ③ 용(庸)의 의미와 같이 쓰여, 평범하다. 예스럽다. 저속하다는 것을 뜻한다.
- 6) 청풍시진(淸風時趁): 때마침 청풍이 불어오다.
 - ① 청풍(淸風): 부드럽고 맑은 바람.
 - ② 시진(時趁): 때마침 불어오다.
 - ☆진(趁): 급히 달려가다, 서둘러 이르다, 당면하다, 직면하다. 전(轉)하여 본 시에서는 (바람이) 불어옴을 뜻하는 말로 쓰였다.



시2. 의주義州 연춘당延春堂에서 밤에 앉아 비오는 것을 내다보며

詩2. 義州延春堂¹⁾ 夜坐遇雨²⁾
의 주 연 춘 당 야 좌 우 우

幽懷悄悄夜堂空³⁾,
유 회 조 조 야 당 공

속마음은 답답하고 어두운 방안
적막한데,

旅枕偏驚落木風⁴⁾。
여 침 편 경 낙 목 풍

나그네는 잠자리서 낙엽 지는
바람소리에 심히 놀라네.

坐到五更凝不寐⁵⁾,
좌 도 오 경 응 불 메

밤새도록 앉아서 마음 안정하려고
잠 못 이루는데,

濕雲寒雨滿城中⁶⁾。
습 운 한 우 만 성 중

온 성안에 습한 구름 끼더니 차가운 비
내리네.

1) 의주연춘당(義州延春堂 : 의주 연춘당에서) :

① 의주(義州) : 의주부(義州府) : 의주군(義州郡) : 지금의 평안북도 서북단에 위치
한 군(郡)으로, 조선시대에는 최고 지방 행정 구역이었던 평안도 의주부였다. 고
조선, 낙랑군의 관하에 있다가 고구려의 영토가 되었으나, 후에 당(唐), 발해(渤
海), 거란(契丹)의 영토로 변천하다가, 993년(성종 12)에 거란의 제1차 입구(入
寇)때 서희(徐熙 : 942~998)의 외교로 고려영토로 수복되고, 군 동부에 강동6주
(江東六州)의 하나인 홍화진(興化鎭)이 설치되었으며, 용만현(龍灣縣) 또는 화
의(和議)라고 불렀다. 또한 문종 때 궁구문(弓口門)을 세우고 포주(抱州)라고 칭

하였다. 1117년(예종 12) 금(金)나라가 일어나 요(遼: 거란)를 정벌하자, 고려는 내원성(來遠城) 및 포주까지 수복하여 압록강 이남의 지역은 완전히 우리나라의 영토가 되어, 의주방어사(義州防禦使)를 두고 관방(關防)을 두게 되었다. 1221년(고종 8)에는 이 지방에 반역자가 있어 함신(咸新)이라 강칭(降稱)하였으며, 1269년(원종 10) 서북면(西北面) 병마사영기관(兵馬使營記官) 최탄(崔坦) 등이 60여 성(城)을 가지고 원(元)나라에 항복한 까닭에 원나라의 동녕부(東寧府)에 속하게 되었다가, 1290년(충렬왕 16)에 복구되었고, 1366년(공민왕 15) 목(牧)으로 승격되었으며, 1369년(공민왕 18)에 만호부(萬戶府)를 두어 좌정(左精), 우정(右精), 충신(忠臣), 의용(義勇)에 4군(四軍)을 설치하고 각각 상천호(上千戶)와 부천호(副千戶)를 두어 관장하게 하였다. 1402년(태종 2)에 비로소 판관(判官)을 두고 정주(靜州) 및 위원성(威遠城)을 합하였으며, 세조때 진(鎭)을 두고 항상 북면수비의 제1요건을 삼았으며, 또 중국에 대한 제일의 문호(門戶)가 되어 왔다. 1592년(선조 25) 임진왜란 때 선조가 의주에 피난함으로써 환도 후 의주부윤(義州府尹)으로 승격되었다. 병자호란(丙子胡亂: 1636~1637: 청나라가 침입한 난) 때에는 불과 400여명의 병력으로 백마산성(白馬山城)을 지킨 임경업(林慶業: 1594~1646)의 활약이 있었다.

- ② 연춘당(延春堂): 의주부(義州府) 관할 구역 내의 객사(客舍)이다. 「서애연보(西厓年譜)」의 26세 조항에 보면, “1567년(명종 22. 정묘丁卯: 선조 宣祖 즉위 해임) 8월에 자문점마(咨文點馬)로 의주(義州)에 가던 중에 정주(定州)에 들러 관찰공을 문안하다.”라는 기록이 보인다. 아마도 위의 시는 바로 이 시기에 작시(作詩)된 것이 아닌가 추정된다. 「연보」에 의하면, 선생은 10월에 조정에 돌아온다.

2) 야좌우우(夜坐遇雨): 밤에 앉아 비오는 것을 내다보며):

- ① 야좌(夜坐): 밤중에 일어나 앉다.
② 우우(遇雨): 비 오는 것을 내다보다.

☆우(遇):

- a. (우연히) 만나다. 본 시에서는 의미상 전(轉)하여 ‘내다 보다’의 뜻으로 쓰였다.
b. 조우(遭遇)하다.

3) 유희초초 야당공(幽懷悄悄夜堂空: 속마음은 근심으로 답답하고 어두운 방안 적막한데):

- ① 유희(幽懷):

☆내심에 간직한 정감. 속마음.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남모르는 깊은 생각. 조용한 마음.

- ② 초초(悄悄):

☆근심스럽다, 또는 그런 모양.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으며, ‘답답하다’로 표현한다.

☆조용(고요)하다, 은밀하다.

☆고요하고 적막한 모양.

☆소리(음성)가 아주 낮은 것을 형용한 말.

☆요초(料峭: 봄바람이 찬 모양)한 것을 형용한 말.

- ③ 당공(堂空): 연춘당(延春堂) 방안은 적막하다.

☆당(堂): ‘당(堂)’은 ‘집·방·대청·상호’ 뒤에 쓰는 상점 명칭·서재·관부(官

府)의 안건심리장소·타인의 모친에 대한 존칭·조부가 같은 친족관계' 등에 쓰이나, 본 시에서는 '연춘당의 방안'을 가리키는 뜻으로 쓰였다.

☆공(空): 형용사로서, '그윽하고 고요하다. 적막하다. 고요하다' 등의 뜻으로 쓰였다.

4) 여침편경 낙목풍(旅枕偏驚落木風: 나그네는 잠자리서 낙엽 지는 바람소리에 심히 놀라네):

① 여침편경(旅枕偏驚): 나그네는 잠자리에 누워서 심히 놀라다.

☆여침(旅枕): 나그네는 잠자리에 눕다.

a. 여(旅): 나그네.

b. 침(枕): 명사로는 '베개'이나 본 시에서는 동사로 쓰여, '잠자리에 눕다'의 뜻으로 쓰였다.

☆편경(偏驚): 심히 놀라다.

a. 편(偏): 정도를 나타내는 부사로 쓰여, '심히. 아주. 몹시. 매우' 등의 뜻으로 쓰였다.

② 낙목풍(落木風): 바람에 낙엽이 지다. 바람에 낙엽 지는 소리.

☆낙목(落木): 낙엽. 당나라 시인 두보(杜甫: 712~770)의 시, 「높은 곳에 올라서(登高)」에서, “아득히 멀리 바라보니 낙엽이 우수수 떨어지고, 끊임없는 장강長江 도도히 굽이쳐 흐르네(無邊落木蕭蕭下, 不盡長江滾滾來).”라고 읊은 구절에 보인다.

5) 좌도오경 응불매(坐到五更凝不寐: 새벽까지 앉아서 마음 안정하려고 잠 못 이루는데):

① 좌도오경(坐到五更): 새벽 오경까지 앉아 있다.

☆오경(五更): 해가 지고 나서 이튿날 날이 밝을 때까지의 하룻밤을 '일경(一更)·이경(二更)·삼경(三更)·사경(四更)·오경(五更)' 등의 다섯 부분으로 나누었을 때의 마지막 부분으로, 새벽 세시에서 다섯 시 사이를 가리킨다. '오야(五夜)'라고도 한다. 오야는 '갑야(甲夜)·을야(乙夜)·병야(丙夜)·정야(丁夜)·무야(戊夜)'라고 하는데, 오경(五更)은 무야에 속한다.

② 응(凝):

☆안정(安定: 마음을 가라앉힘)하다.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으며, 이때의 안정은 안정(安靜)의 뜻이다.

6) 성중(城中): 성안.

① 중(中): 명사로 '내, 안, 중, 속' 어법상에서 보면, 명사 뒤에 붙는 형태로 문어(文語)의 방위사로 쓰인다. 구어(口語)의 리(裏)와 같으며, 장소와 시간을 나타낸다. 본 시에서는 장소를 나타낸 뜻으로 쓰였다.

시3. 정월 초하룻날 느낀 바 있어서

詩3. 元日有感¹⁾
원 일 유 감



舊年逐夜²⁾盡,
구 년 죽 야 진

묵은 해 선달그믐날 밤이 지나가더니,

新年隨日³⁾出。
신 년 수 일 출

새해가 초하룻날 아침 일출 따라
(다시) 밝아오네.

如何⁴⁾一笑中,
여 하 일 소 중

어찌 한바탕 웃어넘기는 가운데,

更失三百六⁵⁾。
갱 실 삼 백 육

또 다시 일 년을 잃어버리겠는가?

流光感苦心⁶⁾,
유 광 감 고 심

너무 빠른 세월 탓에 괴로워하다가도,

遠思驚芳節⁷⁾。
원 사 경 방 절

먼 앞날 생각하니 꽃다운 봄철에
심금心琴 울리네.

岸柳嫩輕枝⁸⁾,
안 류 눈 경 지

언덕의 버드나무는 실가지에
연두색으로 물들고,

簷絲颺初旭⁹⁾。
첨 사 양 초 욱

처마 밑 거미줄은 아침햇살 속에
하늘거리네.

雪霜豈不深,
설 상 기 불 심

눈서리가 어찌 혹심하지 않았겠나만,

萬物已春色。
만 물 이 춘 색

만물에는 이미 춘색이 감돌고 있네.

抱病正杜門¹⁰⁾,
포 병 정 두 문

지병持病이 있어 지금 문밖출입도
못하지만,

端居媚幽獨¹¹⁾。
단 거 미 유 독

평소에도 조용히 홀로 있는 걸
좋아했다네.

有懷誰見告¹²⁾,
유 회 수 견 고

감회가 솟는데 누구에게 알려줄꼬!

得意還自悅¹³⁾。
득 의 환 자 열

마음이 흐뭇하니 여전히 혼자서도
즐겁네.

寒梅不可負¹⁴⁾,
한 매 불 가 부

추위 견디고 피어난 매화
(기래) 저버리지 않고,

有信江南約¹⁵⁾。
유 신 강 남 약

때 맞춰 강남의 봄소식이 약속한 듯
전해오네.

1) 원일유감(元日有感) : 정월 초하룻날 느낀 바 있어서) :

① 원일(元日) : 정월 초하룻날.

② 유감(有感) : 느낀 바(체득한 바. 감명 받은 바. 체험한 바) 있어서.

2) 축야(逐夜) :

① 축(逐) :

☆뒤따르다. 뒤쫓아 가다.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차례로. 순서에 따라.

☆쫓아내다.

② 야(夜) : 제야(除夜). 설날 그믐날 밤.

③ 진(盡) : ‘전부 다 쓰다. 모두 사용하다’의 뜻인데, 본 시에서는 ‘다 지나가다’는
것을 가리키는 뜻으로 쓰였다.

3) 수일(隨日) : 정월 초하룻날 아침 해를 따르다.

① 수(隨) : …을 따르다. 따라가다.

- ② 일(日): 정월 초하룻날 아침 해.
- 4) 여하(如何):
- ① 어떻게.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 ② 어떠냐? 어떠한가?
- ③ 왜. 어째서.
- 5) 삼백육(三百六): 본 시에서는 삼백육십일(三百六十日)의 약어(略語)로 쓰였으며, 이는 일 년을 이르는 말이다. 당나라 시인 시견오(施肩吾: 생몰년 미상)는 그의 시 「춘유락에서(春遊樂)」, “일년삼백육십일 내내(一年三百六十日), 마음 즐겁기가 어찌 봄날의 만물 같겠는가(賞心那似春中物)?”라고 읊었다.
- 6) 유광 감고심(流光感苦心: 너무 빠른 세월 탓에 괴로워하다가도):
- ① 유광(流光):
- ☆빠른 세월이 흐르는 물과 같이 빨리 지나가는 세월을 가리키는 말. 유수광음(流水光陰)과 같은 말로서,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북송의 문인 송기(宋祁: 998~1061)의 사(詞), 「낭도사(浪淘沙): 유원보劉原父에게 이별을 고하며(別劉元父)」에, “소년이 상관하지 않는 것은(少年不管), 세월은 쏜살같이 흘러간다는 것이니(流光如箭), 성찰해도 좋은 시절[연령]이 바뀌어 진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일세(因循*不覺韶華*換).”라고 읊은 구절이 있다.
- *순(循): 성찰하다. 관찰하다. 살피다.
- *소화(韶華): 좋은 시절(세월. 연령).
- ☆복록(福祿: 은택恩澤)이 후세까지 전해지는 것을 이르는 말.
- ☆유동(流動)하면서 반짝이는 광채.
- ☆강이나 호수 같은 물에 비치는 월광(月光).
- ② 고심(苦心):
- ☆몹시 애타우며 마음 쓰다.
- ☆고심(苦心)하다.
- 7) 원사 경방절(遠思驚芳節: 먼 앞날 생각하니 꽃다운 봄철에 심금心琴 울리네):
- ① 원사(遠思):
- ☆앞날(다가오는 봄날) 내다보며 깊이 생각하다.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 ☆깊이 생각하다.
- ☆먼 앞날을 고려하다.
- ☆장기적인 고려를 하다.
- ☆심원(深遠)한 사려.
- ② 경(驚):
- ☆본 시에서는 경심(驚心: 놀라워하는 심경 또는 외부의 자극에 따라 미묘하게 움직여 지는 마음, 즉 심금이 울리는 감동을 하다)의 뜻으로 쓰였다.
- ☆놀랍고도 이상하다.
- ☆놀라다, 의아하다.
- ☆분란한 모양. 혼란스러운 모양.
- ③ 방절(芳節):
- ☆양춘시절(陽春時節: 봄철: 꽃다워 아름다운 철).
- ☆기절(佳節): 좋은 계절, 양시(良時: 좋은 때).

8) 안류 눈경지(岸柳嫩輕枝 : 언덕의 버드나무는 실가지에 연두색으로 물들고) :

① 눈(嫩) :

☆색깔이 신선하고 연한 것을 형용한 말. 본 시에서는 연두색을 가리키는 말로 쓰였다.

☆(색깔이) 연하다.

☆부드럽다.

② 경지(輕枝) : 가는 가지. 가느다란 실가지.

☆경(輕) : 본 시에서는 ‘가늘다’는 뜻으로 쓰였다.

9) 첨사 양초옥(簷絲陽初旭 : 처마밑 거미줄은 아침 햇살이 하늘거리네) :

① 첨사(簷絲) : 처마 밑에 드리워진 거미줄.

☆첨(簷) : 처마.

☆사(絲) : 지극히 가늘거나 작거나 적은 것을 비유한 말. 본 시에서는 거미줄을 가리킨다.

② 양초옥(陽初旭) : 아침햇살 속에 하늘거리다.

☆양(陽) :

a. 공중에 떠서 흔들거리다. 날리다.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b. 과시하다. 자랑하다.

☆초옥(初旭) : 일출(日出) 때의 양광(陽光).

10) 포병 정두문(抱病正杜門 : 지병持病 있어 지금 문밖출입도 못하고 있지만) :

① 포병(抱病) : 신병(身病)이 있다. 지병(持病)이 있다. 병마(病魔)에 시달리다. 장기간 병에 시달리다. 병을 앓다. 병을 지나다. 병에 걸리다.

☆포(抱) : 품다. 껴안다. 가지다. 갖추다. 둘러싸다. 달라붙다.

② 정(正) : 부사로서, ‘마침(한창. 바야흐로. 막) ~하고 있다’는 뜻으로, 동사 앞에 쓰여 동작이 진행 중이거나 상태가 지속 중임을 나타낸다.

③ 두문(杜門) : 문을 닫아걸다(집 안에 틀어박혀 밖에 나가지 않다). ‘두문불출(杜門不出 : 문 닫아 걸고 집에만 있으면서 외출하거나 사람들과의 교류접촉을 하지 않음)’ 또는 ‘두문각소(杜門却掃 : 문을 닫아걸고 다시는 정원 오솔길을 청소하지 않는다는 말인데, 은거하면서 손님 방문을 사절하고 청정자적淸靜自適하다는 뜻임)’와 같은 뜻으로 쓰이는 말이다.

11) 단거 미유독(端居媚幽獨 : 평소에도 조용히 홀로 있는 걸 좋아했다네) :

① 단거(端居) :

☆평소. 평상시.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a. 단(端) : (품행이나 태도가) 단정하다. 바르다.

☆평소에 살면서.

② 미(媚) :

☆사랑하다. 애호(愛好)하다.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으며, ‘좋아하다’로 번역하였다.

☆매혹적이다.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음.

☆요염하다. 아름답다. 사랑스럽다.

☆아침(아부)하다.

③ 유독(幽獨) :

☆한적하여 고독함(외로움). 또는 그러한 사람을 가리키기도 한다.

☆혼자 거처하다.

12) 유회(有懷誰見告 : 감회가 솟는데 누구에게 알려줄꼬) :

① 유회(有懷) : 유감(有感)과 같은 말로, 본 시에서는 ‘감회가 솟아나다’로 번역하였다.

② 견고(見告) : 알리다. 알려주다. 통지하다. 고지(告知)하다.

13) 득의 환자열(得意還自悅 : 마음이 흐뭇하니 여전히 혼자서도 즐겁네) :

① 득의(得意) :

☆(주로 공명심을 충족시키려는) 뜻을 이루다. 희망이 실현되다. 뜻대로 되어 만족하다. 바라던 일이 성취되다. 본 시에서는 ‘마음이 흐뭇하다’는 뜻으로 번역하였다.

☆취지를 깨닫다.

☆마음에 들다. 뜻에 맞다. 흡족하다.

☆(과거科擧에) 급제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

② 환(還) :

☆부사로 쓰이는 경우 :

- a. 아직. 아직도. 여전히. 거듭 반복하여.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 b. 더욱. 더(비교문에서 정도가 심함을 나타냄).
- c. 또. 더(항목이나 수량이 증가하거나 범위가 확대됨을 나타냄).
- d. 그만하면. 그런대로. 꽤. 비교적.
- e. ~뿐만 아니라 ~도.

☆동사로 쓰이는 경우 :

- a. 반환(반납)하다. 돌려주다.
- b. 돌아가다. 돌아오다.
- c. 도래(到來)하다. 오다.
- d. 갚다. 보답(보복)하다.
- e. 건네주다. 교부하다.

③ 자열(自悅) : 내가 즐기다. 혼자서도 즐겁다.

☆열(悅) :

- a. 기쁘다. 즐겁다. 본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 b. 좋다. 기쁘게 하다.
- c. 즐겁게 하다.

14) 한매 불가부(寒梅不可負 : 추위 견디고 피어난 매화 <기대> 저버리지 않고) :

① 한매(寒梅) : 매화(梅花). 추위를 견디내고 꽃을 피우는 까닭에 일컬어진 명칭이다.

② 불가(不可) : 조동사로서, ‘...할 수 없다. ...해서는 안 된다. 불가능하다. 불가(不可)하다. 부합하지 않다’는 뜻으로 쓰인다.

③ 부(負) :

☆어기다. 위반하다. 저버리다.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아께에) 짊어지다.

☆입무(를 맡다). 책임(을 지다).

☆맡다. 의지하다.

☆(좋지 않은 일을) 받다. 만나다.

☆(빛을) 지다.

☆패배(하다). 실패(하다).

☆유지(보유)하다.

☆연루되다. 말려들다.

☆죄과. 잘못. 과실(過失).

15) 유신 강남약(有信江南約 : 때 맞춰 강남의 봄소식이 약속한 듯 전해오네.):

① 유신(有信):

☆규율이 있음을 이르는 말로서, ‘때맞추다. 제시간. 제때를 가리키는 말이다.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북송(北宋)의 문인 소식(蘇軾 : 1036~1101)의 시, 「장서(張恕)*의 시를 차운하여 지은 이 시를 초야호랫날 동생 소철(蘇轍 : 1039~1112)에게 주다(次韻張十七, 九日贈子由)」에, “관청의 공무公務 한 없나니 언제라야 완결 짓나, 국화는 때 맞춰 피는데 나는 기한 약속 할 수 없네(官事無窮何日了? 菊花有信不吾期).”라고 읊은 구절이 있다.

*장서(張恕 : 생몰년 미상) : ‘장씨 덕 열일곱째 아들’이라고도 하고, ‘시승(寺丞)’을 역임했다고도 해서, ‘장시승(張寺丞)’이라고도 한다. 북송의 문인이다.

☆고대 중국철학 개념의 하나로, ‘진실을 감지(感知)할 수 있는 경계(境界)를 이르는 말’이다.

☆신용이 있다.

☆소식(기별)이 있다.

② 강남약(江南約) : 강남(江南)의 약속인 봄소식. ‘강남’은 본 시에서는 남쪽을 이르는 말로 쓰였다. ‘약(約)’은 ‘약속’이란 뜻인데, ‘강남의 약속이란 말’은 ‘때 맞춰서 먼 남쪽 강남으로부터 봄이 돌아왔음을 느끼게 하는 여러 가지 자연현상이 반드시 오는 것을 이르는 말’인데, 이것은 곧 ‘봄소식’이란 말로 표현되기에, ‘강남약(江南約)’을 ‘강남의 약속인 봄소식’으로 번역하였다.

시4. 초봄에 서재에 머물면서 사물에 감동하여 다시 한 수 짓다

詩4. 初春齋居¹⁾ 感事有作²⁾
초 춘 재 거 감 사 유 작



春來連雨雪³⁾,
춘 레 연 우 설

봄이 왔는데도 연이어 비 오고 눈 내리니,

寒氣未全衰。
한 기 미 전 쇠

한기가 아직 다 가시지 않는구나.

柳色迎時急⁴⁾,
유 색 영 시 급

버들잎 잎망울은 때맞추기에 급급한데,

梅花見事遲⁵⁾。
매 화 견 사 지

매화는 절후節侯의 식별이 더디구나.

跡兼心共遠⁶⁾,
적 겸 심 공 원

행동이 마음에 부합되기는 매우
요원하지만,

靜與病相宜⁷⁾。
정 여 병 상 의

정적靜寂이 병마病魔와 함께 하기는
아주 적절하네.

寥落柴門迥⁸⁾,
요 락 시 문 형

가난한 내 집 외진 곳에 있어
적막하지만,

閒居⁹⁾草滿池。
한 거 초 만 지

한거하는 이 집 주변 연못에는
봄풀이 무성하네.

1) 재거(齋居) : 재소(齋所) 또는 서재(書齋)에 기거하다. 본시에서는 서재(書齋)로 번역하였다.

① 재(齋) :

☆서재(書齋).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집에서 거처하는 방.

☆학사(學舍).

2) 감사유작(感事有作) : 사물에 감동하여 다시 한 수 짓다.

① 감사(感事) :

☆사물에 감동되다.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어떤 일에 흥취(감흥)를 느끼다.

② 유작(有作) : 또 (한 수의 시를) 짓다.

☆유(有) : ‘우(又 : 다시. 또 거듭)’와 통하며, ‘부(復 : 다시. 또)’의 뜻으로 쓰였음.

☆작(作) :

a. (글을) 짓다. 쓰다.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b. 창작하다.

c. 찬술(撰述)하다.

3) 연우설(連雨雪) : 연이어 비오고 눈 내리다.

① 연(連) : 부사로 쓰여, ‘연속적으로, 연이어’의 뜻으로 쓰였다.

② 우설(雨雪) :

☆비가 오고 눈이 내리다.

☆진눈개비.

4) 유색 영시급(柳色迎時急 : 버들잎 잎망울은 때 맞추기에 급급한데) :

① 유색(柳色) :

☆버들잎의 비취색(청록색). 이 용어는 춘일(春日)의 경치를 부각시키는 용어로 많이 쓰며,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녹색을 가리킨다.

② 영시(迎時) :

☆칠을 맞다. 본 시에서는 ‘때를 맞추다’로 번역하였다.

☆유행을 따르다. 전(轉)하여, 본 시에서는 ‘때를 맞추다(시기에 알맞도록 하다)’는 뜻으로 쓰였다.

☆시세(時勢)에 영합하다.

☆시세에 순응하다(시대의 흐름을 따르다).

5) 매화 견사지(梅花見事遲 : 매화는 절후의 식별이 더디구나) :

****시애주석** : 시매미발 이류이황(時梅未發而柳已黃) : 서애는 이 구절에 대하여, “이 때 매화는 아직 피지 않았는데 버들잎 잎망울은 이미 노르스름하였다”고 하였다.

① 견사(見事) : 사세(事勢 : 일의 추세 · 형세 · 사태)를 식별하다. 전(轉)하여, 본 시에서는 ‘절기(節氣 : 절후 : 시령時令)를 식별하다’는 뜻으로 쓰였다.

6) 적겸심 공원(跡兼心共遠 : 행동이 마음에 부합되기는 매우 요원하지만) :

① 적겸심(跡兼心) : ‘행동이 마음에 부합되다’와 ‘행동과 마음’, 이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다. 본 시에서는 전자(前者)로 번역하였다.

- ☆행동이 마음에 부합되다: 이 경우에는 ‘겸(兼)’자를 동사로 보아, ‘…에 부합되다. …에 일치하다’의 뜻으로 보았다.
- ☆행동과 마음: 이 경우에는 ‘겸(兼)’자를 접속사로 보아, ‘…와(과). 및. 그리고’ 등의 뜻으로 쓰인 것이다.
- ② 공원(共遠): 양자(兩者: 足跡·심心)의 경자가 (일반적으로) 모두 서로 격차가 크다.
- ☆공(共): ‘함께. 모두. 전부’의 뜻인데, 본 시에서는 ‘행동과 마음’을 아울러 가리키는 말로 쓰였다.
- ☆원(遠): 거리상으로 멀다. 곧 격차가 크다(多).
- 7) 정여병 상의(靜與病相宜): 정적靜寂이 병마病魔와 함께 하기는 아주 적절하네):
- ① 정여병(靜與病): ‘정적이 병마와 함께 하다’와 ‘정적과 병마’, 이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다. 본 시에서는 전자의 뜻으로 번역했다.
- ☆정적(靜寂)이 병마(病魔)와 함께 하다: 이 경우에는 ‘여(與)’자를 동사로 보아, ‘함께 하다’로 해석된다.
- ☆정적(靜寂)과 병마(病魔): 이 경우에는 ‘여(與)’자를 접속사, ‘…와(과). …와 더 붙어’의 뜻으로 쓰였다.
- ② 상의(相宜):
- a. 알맞다. 적당하다. 적합하다.
 - b. 서로 친화력이 강하다.
- 8) 요락 시문형(寥落柴門迥): 가난한 내 집 외진 곳에 있어 적막하지만):
- ① 요락(寥落):
- ☆쓸쓸(조용·설령·적막·적적)하다.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 ☆희소(稀少)하다, 드물다, 작아지다.
- ☆희소(稀疏)하다, 뜸하다, 성기다.
- ☆쇠탍하다, 쇠판(衰敗)하다,
- ② 시문형(柴門迥): 내 집이 외진 곳에 있다.
- ☆시문(柴門): 시적화자의 처소(處所)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시어(詩語)이다.
- a. 빈한(빈곤·곤궁·가난)한 집을 대칭(代稱)하는 말. 누실(陋室)과 같은 말이다.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 b. 사립작(나뭇가지를 엮어서 만든 문짝)을 달아서 만든 문. 즉 사립문을 사용하다. (집이) 초라(빈약·누추)함을 뜻하는 말로 쓰는 것임.
 - c. 사립문. 시비(柴扉)와 같은 말임.
- ☆형(迥): ‘형(迥)’의 속자(俗字)이다.
- a. 외지고 궁벽한 곳을 가리킴.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 b. 요원하다. 외지고(후미지고 궁벽하고) 요원하다.
- 9) 한거 초만지(閑居草滿池): 한거間居하는 이 집 주변 연못에는 봄풀이 무성하네):
- ① 한거(閑居): 한거(閑居)로도 쓴다.
- ☆한가하고 고요하게 사는 집. 외지고 조용한 집. 유거(幽居)와 같은 말. 본 시에 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 ☆사람들과의 접촉(눈)을 피하여 독거(獨居)하다.
- ☆집에서 하는 일 없이 한가하게 기거(起居)하다.
- ② 초만지(草滿池): 봄풀이 못 주변에 무성하다.

☆초(草): 풀. 본 시에서는 ‘봄풀’로 번역하였다.

☆만지(滿池): 연못 주변에 무성하다.

시5. 고양군^{高陽郡}을 지나가던 도중에

詩5. 高陽道中¹⁾ 고 양 도 중



山溪一雨水生波²⁾,
산 계 일 우 수 생 파

산천에 한바탕 비 내리고
강에 물결 일면서,

傾側危橋擁亂槎³⁾.
경 측 위 교 웅 란 사

나무다리 기울어지고
도강^{渡江}할 뗏목은 두절됐네.

江燕自⁴⁾飛人不見,
강 연 자 비 인 불 견

강위로 제비는 자유로이 나는데
사람은 보이지 않고,

晚風吹盡野棠花⁵⁾.
만 풍 취 진 야 당 화

해질 무렵 바람 불더니
야당화^{野棠花}가 다 졌네.

1) 고양도중(高陽道中):

- ① 고양(高陽): 고양군(高陽郡): 고양군은 경기도의 중앙으로부터 약간 서북쪽에 위치하는 군이다. 동북쪽은 양주군(楊州郡), 북쪽은 파주군(坡州郡), 동남쪽은 서울과 접하며 서남쪽으로는 한강을 경계로 김포군(金浦郡)과 마주보고 있다. 고양(高陽)이 전라남도 흥양(興陽)의 옛 이름이기도 하고, 경상북도 고령(高靈)의 옛 이름이기도 하지만, 역자가 본 시의 시제(詩題)에 쓰인 고양(高陽)을 경기도의 고양군으로 보는 까닭은 「서애연보」 무진년(戊辰年: 1568년: 서애 27세) 조항을 보면, 그 해 2월에 휴가를 얻어 정주(定州: 평안북도 서남 해안에 위치한 군)에 가서 관찰공(觀察公: 서애의 부친인 입암^{立巖} 류중영^{柳仲郢}: 1515~1573)을 뵈었다는 기록이 있고, 경오년(庚午年: 1570년: 서애 29세)에는 연경(燕京: 명나라

라의 도성)에 다녀왔다는 기록도 있는데, 한양(漢陽)을 떠나 평양(平壤), 정주(定州)를 거쳐 의주(義州: 평안북도 서북단에 위치한 군으로 조·명·국경관문이 설치된 곳)까지의 1,050리 거리에 필연적으로 거쳐 가야 하는 곳이 유명한 벽재관(碧蹄館)이 있는 고양군이기에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고양은 도성(都城)인 한양(漢陽)과는 불과 40리 거리 밖에 안 되는 곳에 위치하며, 도성에 거주하면 십사리 오갈 수 있는 곳이기 때문이다. 고양군은 고려 때에 고봉현(高烽縣), 덕양현(德陽縣), 부원현(富原縣), 황조현(荒調縣)을 합친 것으로, 조선시대에 와서 1394년(태조 3)에 처음으로 감무(監務: 현령縣令을 둘 수 없는 작은 현에 설치한 감독관)를 고봉(高峰)에 두어 3현을 다스렸다. 1413년(태종 13)에 고봉과 덕양을 병합하여, 고양으로 고치고 현감을 두었다. 1471년(성종 2)에 군으로 승격하였는데, 1504년(연산군 10)에 연산군(燕山君)이 군을 폐하고 유행(遊幸)하는 곳으로 만들었다. 1506년(중종 1)에 복구되고 1914년 3월 부·군 폐합(府郡廢合)의 결과, 경성부(京城府)로부터 8개면, 양주군으로부터 1개 면을 편입하였다. 1936년 4월 행정구역의 변경에 의하여 용강면(龍江面)·연희면(延禧面)·한지면(漢芝面) 등 3개면이 경성부에 편입됨에 따라, 9개면으로 구획되었으며, 1949년 8월 15일 또 다시 은평면(恩平面)·송인면(崇仁面)·현도면(縣島面) 등 3개면이 서울특별시 관할로 이관되었다. 그 후 1961년 8월 7일 서울특별시에 있던 군청사가 원당을 주교리로 옮겨졌다. 이 군은 서울특별시와 접경한 지리적 여건으로 도시와 농촌이 병존된 수도권 위성지역으로 발전과 변전을 거듭하고 있다.

- ② 도중(道中): 노중(路中): 도중(途中): 노상(路上)에서.
- 2) 산계일우수생파(山溪一雨水生波: 산천에 한바탕 비 내리고 강에 물결일면서):
 - ① 산계(山溪): 산계(山谿)로도 쓴다.
 ☆산천, 산하(山河).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맹자(孟子)·공손추(公孫丑)·하(下)』에, “백성을 한정하되 국가의 경계선을 가지고 하지는 말아야 하고, 국가를 공히 하되 산천의 험준함을 가지고 하지는 말아야 하며, 천하에 위세를 떨치되 병장기의 예리함을 가지고 떨치지는 말아야 한다(域民, 不以封疆之界, 固國, 不以山谿之險, 威天下, 不以兵革之利).”고 한 구절이 있다.
 ☆산중의 계수(溪水: 계류溪流: 산골짜기에 흐르는 시냇물).
 - ② 일우(一雨):
 ☆한 차례의 비.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일승우(一乘雨)라고도 한다. 불교경전에서 ‘일승(一乘: ‘일’은 유일무이唯一無二의 뜻이고, ‘승’은 탈 것으로, 중생을 실어 깨달음으로 향하게 하는 교리를 비유한 말임)’의 가르침을 ‘비[雨]’에 비유하여 말한 것이다. 같은 비를 맞아도 그 비를 맞는 갯가지 초목에 따라서 생장의 모습이 다르듯이, 부처님의 가르침은 동일 하더라도 듣는 사람들의 각기 다른 자질과 능력 및 기연(機緣: 시기와 인연)과 성격에 따라 그 이익을 얻는 모양에 차별이 있음을 비유한 말이다. 『금강삼매경(金剛三昧經)·서품(序品)』에 그 가르침이 나온다.
- 3) 경측위교옹란사(傾側危橋擁亂槎: 나무다리 기울어지고 도강渡江 할 뗏목은 두절됐네):
 - ① 경측(傾側): 경측(傾仄)으로도 씀. 본 시에서는 ‘경사(傾斜)지다. 기울다.’의 뜻

으로 쓰였다.

☆경사(傾斜)(자다). 기울다.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② 위교(危橋) :

☆본 시에서는 강바닥에 일정한 간격으로 나무기둥을 박아놓고 그 위에 판자나 서까래 모양의 원목을 깔아서 설치한 ‘목교(木橋)’를 가리킨다.

☆높게 설치해놓은 다리.

☆우뚝 솟아 있는 다리.

③ 응난사(擁亂槎) : 도강할 뗏목이 두절되다.

☆응(擁) : 두절되다.

후한(後漢) 말기의 학자 순열(荀悅 : 148~209)의 저서 『한기(漢紀) · 성제기(成帝紀) · 사(四)』편에, “촉군에 위치한 민산이 붕괴되자, 장강이 두절되면서 수류[물의 흐름]가 고갈되었는데, 삼일 동안 강물이 역류하다가 마침내 유통流通되었다(蜀郡岷山崩, 擁江水竭, 逆流三日乃通).”고 한 대목이 있다.

☆란(亂) : 도강(渡江)하다. 강을 건너다.

『시경(詩經) · 대아(大雅) · 공류(公劉)』편에, “위수를 가로질러 건너가 석재石材를 마련해서, 솥돌과 다듬잇돌을 모두 갖추었네(涉渭*爲*亂*, 取厲*取鍛*).”라고 읊은 구절이 있다.

*위(渭) : 위수(渭水)를 가리킴. 감숙성(甘肅省)에서 발원하여 섬서성(陝西省)의 경수(涇水)와 합류한 다음 황하(黃河)로 흘러들어가는 강이다.

*위(爲) : 접속사. ‘이(而 : ~하고서, 그러하고)’와 같은 뜻으로 쓰였다.

*란(亂) : 강을 가로 질러 건너다. 도강(渡江)하다.

*려(厲) : 려(礪)와 같으며, ‘솥돌’의 뜻이다.

*단(鍛) : 단(礱)과 통하며, ‘다듬잇돌’이란 뜻이다.

☆사(槎) : 뗏목. ‘사(查 : 뗏목)’와 동자(同字)이며, ‘사(查)’는 ‘사(楂 : 뗏목)’와 ‘사(槎 : 뗏목)’의 원자(原字)이다.

4) 자(自) :

① 자유롭게.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② 자연히. 당연히.

③ 본래.

5) 만풍취진 야당화(晚風吹盡野棠花 : 해질 무렵 바람 불더니 야당화가 다 졌네) :

① 만풍(晚風) : 저녁나절에 부는 바람, 저녁때 부는 바람, 해거름에 부는 바람.

☆만(晚) :

a. 황혼. 해질 무렵. 땅거미.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b. 저녁.

② 취진(吹盡) : 바람이 불어서 죄다 떨어지다.

☆진(盡) :

a. 죄다 없어지다.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b. 다하다.

c. 죽다.

③ 야당화(野棠花) : 야당(野棠 : 괘배나무) : 당리(棠梨) : 감당(甘棠) : 속칭 야리(野梨 : 들 배나무)라고 한다. 장미과의 낙엽활엽교목으로, 높이는 10m 정도이며 잎은 어

긱나고 달걀 모양 타원형이다. 4~5월에 흰 꽃이 방상(房狀) 꽃차례로 피고 열매는 타원형의 이과(梨果)로 작으며, 갈색반점이 있고 10월에 익는다. 목재는 가구재나 땔나무로 쓰고 열매는 식용한다. 한국, 일본, 만주 등지에 분포한다.



시6. 정주^{定州}의 남쪽 정자에서 달을
 감상하다가 경성^{京城}에 있는 벗이
 생각나서 지은 이 시를 이튿날 경문
 류중엄^{柳中嚴} 당숙^{堂叔}편에 부친다

(무진춘^{戊辰春}: 1568년: 선조 1: 서애 27세 봄)

詩6. 定州南臺玩月¹⁾懷京友 明日寄柳景文叔²⁾(戊辰春)
 정 주 남 대 완 월 회 경 우 명 일 기 류 경 문 숙 무 진 춘

昨夜南臺望,
 작 야 남 대 망

지난 밤 남쪽 누대樓臺에서
 멀리 바라보니,

蒼茫俯晚峒³⁾。
 창 망 부 만 경

산릉선 굴곡진 야밤의 교외풍광
 아득했네.

宿雲依暗渚⁴⁾,
 숙 운 의 암 저

야간의 운기雲氣가 어두운 모래섬에
 깔렸는데,

良月⁵⁾滿虛亭。
 양 월 만 허 정

밝은 달빛은 텅 빈 정자에 가득했네.

一病三春暮⁶⁾,
 일 병 삼 춘 모

한 번 앓고 난후 만춘晩春이 되어서야,

孤樽兩眼青⁷⁾。
 고 준 양 안 청

한 두루미 술을 마주하고
 기꺼운 마음으로 바라보네.

忽思京洛伴⁸⁾,
홀 사 경 낙 반

千里尙同聲。
천 리 상 동 형

홀연 경성京城에 있는 친구 생각이
나는데,

천리 밖에서도 여전히 함께
(이) 주향酒香 맡을 수 있었으면.

-
- 1) 정주남대완월(定州南臺玩月 : 정주의 남쪽 정자에서 달을 감상하다가) :
① 정주(定州) : 앞의 「시1」의 주석1)의 ①을 참조바람.
② 남대(南臺) : 경치 좋은 곳에 조망(眺望)을 하거나 쉬기 위해 지은 남쪽 누대(樓臺 : 누각 : 정자).
③ 완월(玩月) : 달을 감상하다. 달을 구경하며 즐기다.
- 2) 명일 기 류경문숙(明日寄柳景文叔 : 이튿날 경문景文 류중엄柳仲淹 당숙堂叔편에 부치다) :
① 명일(明日) : 이튿날.
② 기(寄) : 부치다.
③ 류경문숙(柳景文叔) : 경문(景文) 류중엄(柳仲淹) 당숙(堂叔).
☆류경문(柳景文) : 류중엄(柳仲淹 : 1538~1571) : 자는 경문(景文) · 학범(希範), 호는 파산(巴山). 안동 출신. 아버지는 참봉 공계(公季)이며, 생부는 참봉 공석(公奭)이다. 어머니는 안동 권씨 응삼(應參)의 딸이며, 부인 영천 이씨는 이현보(李賢輔 : 1467~1555)의 증손녀이다. 약관의 나이에 이황의 문하에 나아가 종질 류운룡(柳雲龍 : 1539~1601) · 류성룡(柳成龍 : 1542~1607)과 함께 동문 수학하였다. 이황(李滉 : 1501~1570)에게서 성인의 말씀 가운데 일생토록 행할 만한 치심(治心) · 행기(行己)의 요점을 질문하여 스승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다. 이황은 황준량(黃俊良 : 1517~1563)에게 편지를 보내 그의 지취(志趣)와 견식을 크게 칭찬하고 후일 큰 학자가 될 것으로 기대하였다. 이후 성주목사로 부임한 황준량은 그를 특별히 초청하여 오건(吳健 : 1521~1574) · 정구(鄭逵 : 1543~1620)와 함께 주자서(朱子書)를 강론하기도 하였다. 정구는 그를 일생의 외우(畏友)로 대우하였으며, 안동부사로 부임해서는 산소를 성묘하고 제문을 지어 그의 고매한 인품과 호학의 기질을 칭송하였다. 이후 그는 비지(賁趾) 남치리(南致利 : 1543~1580)와 더불어 이황 문하의 안자(顔子 : 안회顔回를 높혀 이른 말 : BC 521~BC 490)로 평가되었으며, 풍산류씨 류운룡 · 성룡 가문의 가학연원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인물로 인식되었다. 안동의 타양서원(陀陽書院)과 예안의 분강서원(汾江書院)에 위패가 봉안되었다. 저서로는 『파산유고(巴山遺稿)』가 있다.
☆숙(叔) : 부친 류중영(柳仲郢 : 1515~1573)의 사촌(四寸) 동생으로 서에 류성룡의 당숙(堂叔)이 됨.
- 3) 청망 부만경(蒼茫俯晩垌 : 산릉선 굴곡진 야밤의 교외풍광 아득했네) :
① 청망(蒼茫) : 아득하다.

② 부(俯) :

☆굴곡진 모습이 가지런하지 않다. 『예기(禮記)·악기(樂記)』에, “무릇 신악(新樂: 신포조 음악: 음악(淫樂: 내용이나 분위기가 음란하고 방탕한 음악)을 가리킴)이 연주되면, 무희(舞姬)들은 앞으로 나아가도 몸을 구부리고 울동하고 뒤로 물러서도 몸을 구부리고 울동하여 무용단 대열의 동작이 가지런하지 않는데다가 연주하는 음악이 간사하고 <관능적이고> 부정(<不正: 음란한 음이 들어가 있고>)하여, 사람들이 탐닉해서 그치지 않는다 <문무의 행사에 연주하기 부적합한 음악을 가리킴> (今夫新樂, 進俯退俯, 姦聲以濫, 溺而不止).”고 한 대목이 있다. 후한(後漢)의 학자 정현(鄭玄: 127~200)은 주석하기를, “‘부(俯)’는 굴곡과 같은 뜻으로, 가지런하지 않다는 말이다(俯猶曲也, 言不齊也).”고 하였다.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으며, ‘굴곡진 산줄기가 고르지 못하게 이어진 모습’을 표현하였다. 본 시에서는 이 ‘부(俯)’자(字)로써, 야밤의 교외 풍광의 ‘들쭉날쭉 굴곡진 모습’을 형용하였다.

☆앞드러다. 구부리다(굽히다).

☆고개를 숙이다.

③ 만(晩) : ☆일모(日暮: 해 질 무렵). 황혼.

☆밤.

④ 경(塋) : 성 밖의 들. 교외. 야외. 원교(遠郊: 원야 <遠野: 인가가 없는 벌판과 들>). 본 시에서는 ‘교외풍광’을 가리키는 뜻으로 쓰였다.

4) 숙운 의암저(宿雲依暗渚: 야간의 운기雲氣가 어두운 모래섬에 깔렸는데) :

① 숙운(宿雲) : 야간의 운기(雲氣: 구름이 움직이는 모양).

② 의(依) :

☆기대다. 의지하다.

☆의부(依附)하다. (빌)붙다. 의지하다. 기대다.

☆의탁하다.

③ 암저(暗渚) : 어두운 사주(沙洲: 모래톱: 모래섬).

5) 양월(良月) :

① 월광. 월색. 달빛. 밝은 달빛.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양(良) : 양호하다. 아름답다. 상서롭다는 뜻에서 전(轉)하여 ‘밝다’는 뜻으로 쓰였다.

☆월(月) : 월광. 월색. 달빛. 밝은 달빛.

② 상서로운(경사스러운) 달(모 1개월). 좋은 달. 길상(吉祥)의 월분(月份: 모 1개월). 『좌전(左傳)·장공 16년(莊公十六年)』 조항에, “공보정숙(公父定叔은 위衛나라로 도망을 갔었는데, 정정(鄭)나라 군주가 3년 뒤에 그를 불러들여서 말하기를, ‘공숙단(共叔段) 지손의 대를 정나라 땅에서 끊어지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고는, 사람을 보내서 10월에 정나라로 들어오라고 하면서, 말하기를, ‘이 달은 상서로운 달이다, 바로 숫자 10에 가득 채워진 달이다’(公父定叔*出奔衛, 三年而復之, 曰: ‘不可使共叔無後於鄭’ 使以十月入, 曰: ‘良月也, 就盈數焉’).”고 한 대목이 있다.

*공보정숙(公父定叔: 생물년 미상) : 성은 희(姬), 씨(氏)는 태숙씨(太叔氏), 이름은 고증할 수 없다. 시호(諡號)는 정(定), 춘추시대 정(鄭)나라 군주 장공(莊公:

BC 757~BC 701)의 동생인 공숙단(共叔段: 화숙단姬叔段: 화단姬段)의 손자이고 공손활(公孫滑: 화활姬滑)의 아들로서 정나라 대부(大夫)이다. 정장공(鄭莊公: 성명은 화오생姬寤生)은 그의 동생 화단(姬段: 이름 '단段'을 당시 사람들이 '숙단叔段'이라 칭하였기에 성명을 '화숙단'이라고도 함)을 경읍(京邑), 지금의 하남성(河南省) 형양시(滎陽市)에 봉하자, 화단을 세칭 경성태숙(京城太叔)이라고 하였다. 공보정숙(公父定叔)은 조부의 '태숙씨(太叔氏)'라는 이름을 가지고 그 중의 한 자(字)를 따와서 자신의 씨(氏)로 삼았던 것이다.

BC 678년에 정(鄭)나라의 군주 정여공(鄭厲公: ?~BC 673: 이름은 돌窻)이 옹규(雍糾: ?~BC 697)의 난에 참여했던 사람들을 징벌하면서, 공자알(公子闕)을 죽이고 강서(强鉏)의 양쪽 다리를 잘랐다. 이때 공보정숙(公父定叔)은 위(衛)나라로 도망했었다. 자세한 내용은 『사기(史記)·정세가(鄭世家)』를 참조바람.

- ③ 양월(良月): 고대 중국 사람들은 '영수(盈數: 만수滿數: 십十, 백百, 천千, 만萬과 같이 수가 가득 채워진 정수整數)'를 길하다고 여겼는데, 수(數)가 십(十)에 이르면, '소영(小盈: 작게 가득 채워진 수)'이라고 하여, 길한 것이라고 여긴 까닭에 '시월[十月]'을 '양월(良月: 상서로운 달: 길한 달)'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후세에 와서 '양월(良月)'을 '시월[十月]'의 대칭(代稱)으로 쓰기도 한다. 위에서 인용한 『좌전(左傳)·민공원년(閔公元年: BC 661년: 노민공魯閔公 원년)』 조항에서 말하기를: “‘일만은 가득 채워진 수이다’고 하였는데, 수가 십에 이르면 작게 가득 채워진 것이고, 일만에 이르면 크게 가득 채워진 것이다.’(閔公元年傳)曰: ‘萬, 盈數也. 數至則小盈, 至萬則大盈.’”고 하였다.

6) 일병 삼춘모(一病三春暮: 한 번 앓고 난후 만춘晩春이 되어서야):

- ① 삼춘(三春): '춘계(春季) 3개월*'을 이르는 말이다. 음력 정월을 맹춘(孟春)이라 하고, 2월을 중춘(仲春)이라 하며, 3월을 계춘(季春)이라 한다.
*춘계의 제3개월: 춘계의 제3개월. 곧 음력 3월을 이른다. 모춘(暮春: 음력 3월의 별칭) 혹은 만춘(晩春: 늦봄)의 뜻이기도 하다.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3개년의 봄: '3개년 동안 봄이 세 번 돌아오므로 이르는 말'이란 뜻으로도 쓴다.

② 모(暮):

☆밤.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해질 무렵.

7) 고준 양안청(孤樽兩眼靑: 한 두루미 술 마주하고 기꺼운 마음으로 바라보네):

- ① 양안청(兩眼靑): 기꺼운 마음으로 바라보다.

☆양(兩): 양쪽.

☆안청(眼靑):

- a. 청안(靑眼)과 같은 말로서, '사람을 대함에 좋은 마음으로 바라보아 호감을 가지거나 중시(重視)하는 것'을 가리킨다.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백안(白眼: 백안시(白眼視)함: 냉대나 모멸적인 눈초리로 흘려 봄)과 상반되는 말이다. 중국 진(晉)나라의 죽림칠현(竹林七賢)의 한 사람인 완적(阮籍: 210~263)이 찬한 사람은 청안(靑眼)으로 거만한 사람은 백안(白眼)으로 대하였다는 고사에서 유래한다.(『진서(晉書)·완적전(阮籍傳)』에 보임)
북송의 문인 소식(蘇軾: 1036~1101)의 시, 「계상(季常)*진조(陳慥)*가 내

방하여 읊은 시 3수(陳季常見過*三首)』(기일其一)에, “그러나 자네를 만나 좋은 마음으로 바라보니, 내가 드리는 음식이며 은자銀子를 사양하진 말게 나(乃得*君眼青, 不辭奴*飯白*).”라고 읊은 구절이 있다.

*계상(季常): 진조(陳慥: 생몰년 미상: 소식의 호우好友임)의 자(字).

*견과(見過): 겸사(謙詞)로서, 내방(來訪)하다, 방문하다의 뜻임.

*득(得): 만나다, 대우하다, 대접하다.

*노(奴): 자기의 겸칭.

*백(白): 은자(銀子)의 대칭.

- b. 눈을 번쩍 뚜렷이 뜨다. 정신이 감동한 것(감격한 것, 흥분한 것)을 형용한 말이다. 명나라의 사상가 이지(李贄: 1527~1602)의 저서 『분서(焚書) 권3 · 삼반기(三叛記)』에, “양반楊胖이 평일에는 매우 잘 졸았는데, 이날 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홀연히 두 눈을 뚜렷이 뜨고, 뜻밖에도 조정에 상소를 올릴 일은 없으면서, 혼연스럽게 웃었다(楊胖平日好瞌睡, 不知此夜忽眼青, 乃無上事, 欣然而笑).”고 한 대목이 있다.

8) 경락반(京洛伴): 경성(京城)에 있는 친구.

- ① 경락(京洛): 경락(京雒)이라고도 쓴다. 원래는 낙양(洛陽)의 별칭(別稱)이다. 동주(東周)와 동한(東漢)의 건국 도읍지가 모두 이곳인 까닭에 얻어진 명칭이다. 그러나 후세에 와서 범칭(泛稱) ‘국도(國都)’를 가리키는 말로 썼다. 본 시에서는 경성(京城)인 한양(漢陽)을 가리키는 뜻으로 쓰였다.



시7. 사신使臣을 따라 가는 길에 백상루百祥樓에
올라가 잠시 쉬었다가 가산군嘉山郡을
향해 출발하면서

詩7. 陪使相 登百祥樓¹⁾ 少憊發向嘉山²⁾
배 사 상 등 백 상 루 소 게 발 향 가 산

高樓縹緲上雲梯³⁾,
고 루 표 묘 상 운 계

백상루百祥樓는 아득히 높아
구름계단 오르는 듯 하고,

倚遍危欄日欲低⁴⁾。
의 편 위 란 일 욕 저

높은 난간 여기저기 기대보는데
해가 지려 하네.

山勢直窮遼塞外⁵⁾,
산 세 직 궁 요 세 외

산세는 곧장 요동遼東 변경邊境 너머로
뻗어가고,

江流不斷海門西⁶⁾。
강 유 부 단 해 문 서

강물은 부단히 서해西海 해구海口 쪽으로
흘러가네.

晴川芳草詩情動⁷⁾,
청 천 방 초 시 정 동

비 갠 날 맑은 하천이며 방초는
시정詩情을 돋구는데,

孤鶩殘霞客思迷⁸⁾。
고 목 잔 하 객 사 미

짜 잃은 물오리며 저녁놀은
나그네 마음 애처롭게 하네.

關路正長王事急⁹⁾
관 로 정 장 왕 사 급

변방 길은 실로 멀고 수행할 국사國事는

다급한데,

驛亭疎柳馬頻嘶¹⁰⁾。
역정소류마빈시

역참정자 옆 늘어선 버드나무 아래
역마驛馬가 누차 울어대네.

1) 배사상등백상루(陪使相登百祥樓 : 사신을 따라 가는 길에 백상루에 오르다) :

① 사상(使相) : 당(唐)나라 시대에는 국가대사를 삼성(三省)의 장관이 정사당(政事堂)에서 모여 회의를 거쳐 결정하는 합의제(合議制)를 시행하였다. 삼성(三省)의 관계는 원칙적으로 중서성(中書省)에서는 법령을 제정하고, 문하성(門下省)에서는 법령을 심사하며, 상서성(尙書省)에서는 법령을 집행하였다. 이렇게 정사당(政事堂)에서 회의를 개최하는 장관은 중서성의 중서령(中書令)과 문하성의 시중(侍中) 및 상서성의 상서복야(尙書僕射)였다. 이들은 명실상부한 진재상(眞宰相)이었다. 그러나 당나라 중기에 이르러 정사(政事)가 복잡해지면서, 정사당에 모여 국사를 논의하는 장관이 위의 삼성(三省)의 수장(首長)에 제한되지 않고 확대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위의 '삼성(三省)'의 재상은 직위가 높고 권한이 막중한 까닭에 상설(常設)할 수 없어 기타 관원들이 재상의 직무를 대행(代行)하여 정사당(政事堂)에서 상의한 후에 삼성(三省)의 업무를 처리한다는 뜻에서 생긴 직함 명칭이 동중서문하평장사(同中書門下平章事)라는 칭호이다. 약칭 평장사(平章事) 또는 평장정사(平章政事)라고 한다. 당대(唐代) 중기에는 재상이라고 하면 필히 동중문하평장사라고 불렀던 까닭에 동서문하평장사라는 직함이 추가된 절도사(節度使)를 '사상(使相)'이라고 칭하였다. 송초(宋初)에도 이 제도가 연습(沿襲)되어 친왕(親王 : 황제나 국왕근친이 왕에 봉해진 자)이나 유수(留守 : 궁궐과 경성에 수비, 경기지역의 전곡錢穀, 황제 경호 및 군민軍民의 정부政務를 관장함) 그리고 절도사라는 호칭이 추가된 시중(侍中)이나 중서령(中書令) 및 동평장사(同平章事) 등을 모두 '사상(使相)'이라 불렀다. 그러나 이 직함으로 실제 정사(政事)에 관여하지는 않았다. 본 시에 쓰인 '사상(使相)'이란, 칭호는 재상급(宰相級)의 사신(使臣)을 뜻한다. 1569년(을사년乙巳年 : 선조 2)에 성절사(聖節使) 이후백(李後白)*의 사행(使行)의 일원(一員 : 당시 서에는 서장관書狀官의 신분으로 수행하였음)으로 연경(燕京)에 가는 길이었으므로 '배사상(陪使相)'이라고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이후백(李後白 : 1520~1578) : 서애선생 조모(祖母)의 종조부(從祖父)인 이숙함(李淑臧)의 증손으로 본관은 연안(延安), 자는 계진(季眞), 호는 청련(靑蓮)이다. 청백리(淸白吏)에 선발 기록되었고, 앞서 종계면무(宗系辨誣)의 공으로 1590년 광국공신(光國功臣) 2등으로 연양군(延陽君)에 추봉되었다. 문장이 뛰어나고 덕망이 높아 사림(士林 : 유림儒林)의 추앙을 받았다. 함안의 문회서원(文會書院)에 제향(祭享)되었고, 저서로는 『청련집(靑蓮集)』이 있다. 시호는 문청(文淸)이다. 자세한 것은 뒤의 「시17」 주석1)의 ② '이후백(李後白)' 조항을 참조바람.

- ② 백상루(百祥樓) : 평안북도 안주읍(安州邑)의 북성(北城) 성내에 위치한 누각으로 관서팔경(關西八景) 중의 하나이다. 이 누각은 청천강(淸川江 : 고구려시대에는 살수薩水라고 불렀음) 강변에 위치하여 강물이 흐르고 넓은 들을 바라보는 조망(眺望)이 아름답다. 여름의 백로·두루미, 가을달밤의 기러기 등이 특별히 풍치(風致)가 있다. 진주(晉州)의 축석루(矗石樓)와 더불어 우리나라 누각의 대표적 건물이기도 한 이곳은 611년 을지문덕(乙支文德 : 생물년 미상) 장군이 살수대첩(薩水大捷)을 치른 곳이기도 하다.
- 2) 소계발향가산(少憩發向嘉山 : 잠시 쉬었다가 가산군嘉山郡을 향해 출발하다) :
- ① 가산(嘉山) : 평안북도 박천군(博川郡)에 있던 옛 지명으로, 당시의 행정구역의 명칭은 가산군(嘉山郡)이었다. 본 지명의 역대변천을 개괄하면 아래와 같다. 본래 고구려 땅이었는데 후에 발해(渤海)의 영토로 편입되었다가 여진(女眞)의 거주지가 되었다. 고려 초기에 신도군(信都郡 : 고덕현古德縣)이라 하였으며, 960년(고려 광종 11)에는 습홀(濕忽)에 성(城)을 쌓고 승격시켜 가주(嘉州)라고 칭하였다. 995년(성종 14)에는 방어사(防禦使)를 두었는데, 1221년(고종 8)에 모반사건이 있었다 하여 강등(降等)시켜 무령(撫寧)이라 칭하였다. 1231년(고종 18)에는 몽병(蒙兵)을 피하여 바다의 섬으로 관청을 옮겼다가, 1261년(원종 2) 육지로 나와 태(泰), 박(博), 무(撫), 위(渭) 등의 주(州)를 모두 가산에 병합하여 5성겸관(五城兼官)이 되었다. 후에 태, 무, 위 등 3개주를 따로 분리하고, 1371년(공민왕 20)에 박주까지 완전히 분리하였다. 1413년(조선 태종 13)에 가산(嘉山)으로 지명을 바꾸고 군(郡)이 되었는데, 1802년(순조 2)에 강등하여 현(縣)이 되었다가 1822년에 다시 군으로 승격하였다. 1895년(고종 32)에 의주부(義州府)에 속한 가산군(嘉山郡)이 되었는데 1896년에 평안북도에 편입된 가산군이 되었으며, 1914년에 행정구역 개편으로 박천군(博川郡)에 병합되어 가산면(嘉山面)이 되었다. 본 시의 작시연대가 가산현(嘉山縣)으로 강등되기 이전이므로 본 시의 번역에서는 ‘가산군(嘉山郡)’이란 지명으로 쓴다.
- 3) 고루표묘 상운제(高樓縹緲上雲梯 : 백상루는 아득히 높아 구름계단 오르는 듯 하고) :
- ① 표묘(縹緲) : 표묘(縹渺)로도 쓰고 표묘(縹渺)로도 쓴다.
 ☆멀어서 분명하지 않는 모양. 멀어서 은은한(희미한, 어렴풋한, 애스푸레한, 아득한) 모양.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바람에 펄럭이다(휘날리다). 물결 따라 떠다니다. 물결 따라 떠서 흘러가다.
 ☆소리가 맑고 가락이 높은 것을 형용한 말. 소리가 은은한 것을 형용한 말.
 ☆(바람이) 산들산들 불다(팔랑팔랑 나부끼다). ‘표표(飄飄)’와 같은 말로서 가벼운 모양을 표현한 말이다.
- ② 운제(雲梯) :
- ☆고산(高山)의 돌계단이나 잔도(棧道 : 산골짜기에 높이 건너질러 놓은 다리)를 가리킴. 본 시에서는 ‘고산(高山)의 돌계단’이란 뜻으로 쓰였다.
 ☆고대에 적의 성(城)을 공격할 때 성곽에 걸쳐놓고 올라가는 공성용(攻城用)의 긴 사다리.
 ☆전설상의 선인(仙人)이 등천(登天)하는 길.

☆벼슬길을 비유한 말.

- 4) 의편위란 일욕저(倚遍危欄日欲低 : 높은 난간 여기저기 기대보는데 해가 지려하네) :

- ① 의편(倚遍) : ...에 기대다. 두루 기대다.

☆의(倚) : 기대다. 짚다.

☆편(遍) : 동사 뒤에 보어로 쓰여 ‘두루...하다. 널리...하다’의 뜻으로 쓰이는데, 본 시에서는 누각의 여기저기를 거닐며 난간에 기대는 동작 전부를 이르는 뜻으로 쓰였다.

- ② 위란(危欄) : 고란(高欄) : 높은 곳에 있는 누각의 난간. 높은 난간.

☆란(欄) : 난간(欄干). 층계나 다리 또는 마루 따위의 가장자리에 일정한 높이로 막아 세우는 구조물.

- ③ 저(低) :

☆아래로 향하다(떨어지다)는 뜻인데, 본 시에서는 ‘(해가) 지다’는 것을 가리키는 의미로 쓰였다.

☆(사기가) 떨어지다.

☆(신분이) 낮다.

☆(사람이) 나쁘다, 악질이다.

☆(소리가) 낮다.

☆(물건 값이) 저렴하다.

- 5) 산세직궁 요새외(山勢直窮遼塞外 : 산세는 곧장 요동遼東 변경邊境 너머로 뻗어가고) :

- ① 산세(山勢) :

☆산의 생긴 모양.

☆산의 기복(起伏)하고 굴절(屈折)한 형세.

- ② 직궁(直窮) : 곧장 뻗어간다.

☆직(直) : 부사로 쓰여, ‘줄곧. 계속하여’의 뜻으로 쓰였다.

☆궁(窮) : ‘궁(窮)’의 본자(本字)로서, ‘다하다. (극에) 달하다. 극한점까지 이르다’의 뜻으로 쓰였다.

- ③ 요새외(遼塞外) : 요원한 변경지역의 요새(要塞).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으며, 백상루(百祥樓)가 위치한 안주읍(安州邑)의 북성(北城)을 가리킨다.

- 6) 해문서(海門西) : 서쪽 해구(海口 : 바다가 육지 쪽으로 후미져 들어간 입구). 곧 서해(西海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말> : 황해 <국제통용어로 서해와 같은 말임>)의 입구를 칭한다.

- ① 해문(海門) : 해구(海口) : 바다가 물의 후미진 곳으로 들어간 어귀. 바로 이 해문(海門)은 두 육지 사이에 끼어 있는 바다의 통로로서, 백상루(百祥樓)가 위치한 지점이다. 이곳은 고구려의 을지문덕 장군이 살수대첩(薩水大捷)을 이룬 곳으로, 이 살수(薩水)는 바로 서해안으로 흘러드는데, 오늘날에는 청천강(淸川江 : 평안북도 서남부를 흐르는 강으로 낭림산맥狼林山脈에서 시작하여 회천熙川, 영변寧邊, 정주定州, 안주安州 등지를 남서쪽으로 흘러 황해黃海로 들어간다. 길이는 199km임)이라고 칭한다.

- ② 서(西) : 서쪽에 위치한 해구(海口)를 칭하는 것으로 청천강의 물줄기가 바로 이

서쪽 해구 쪽, 즉 서해(西海: 황해黃海)쪽으로 흘러드는 것을 표현한 말이다.
 7) 청천방초 시정동(晴川芳草詩情動: 비 갠 날 맑은 하천이며 방초는 시정詩情을 동구는데):

① 청천(晴川): 비 갠 날의 맑은 내(하천河川).

② 방초(芳草):

☆꽃다운 풀. 향기가 좋은 풀. 향기롭고 꽃다운 풀.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충정(忠情)이나 현덕(賢德)을 갖춘 사람을 비유한 말. 전국시대(戰國時代) 초(楚)나라 정치가이자 문인인 굴원(屈原: BC 339?~BC 278?)의 『초사(楚辭)·구장(九章)·사미인(思美人)』에, “향화香花와 야초野草가 한데 섞여 있지만, 방화芳花는 악초惡草 밖으로 드러나기 마련이네(芳與澤其雜糅兮, 羌芳華自中出). 향기가 길으면 멀리 퍼져나가듯, 내심이 충실하면 밖으로 드러난다네(紛鬱鬱其遠承兮, 滿內而外揚). 외표와 본질이 확실히 훌륭하다면, 처해있는 환경이 열악해도 명성은 사해四海에 퍼질 것이네(情與質信可保兮, 羌居蔽而聞章). 벽려로써 매개를 삼고 싶어도, 나무에 올라가서 채취하기 두렵다네(令薛荔以爲理兮, 憚舉趾而緣木). 부용으로 매파를 삼고 싶어도, 옷을 건어 올려 발을 물에 적시기가 (또한) 두렵다네(因芙蓉而爲媒兮, 憚褰裳而濡足).”라는 구절이 보인다.

☆현자를 비유한 말. 굴원의 『초사(楚辭)·이소(離騷)』에, “어찌하여 지난날의 ‘향기롭던 풀이’(何昔日之芳草兮), 지금은 이렇게 ‘천한 쑥 풀’로 변했다 말인가(今直爲此蕭艾*)?”라고 읊은 구절이 있다. 이 문장에 대해서 후한(後漢)의 문인 왕일(王逸: 89?~158)이 주석하기를, “지난날의 현명하고 지혜로웠던 선비가, 지금은 모두 어리석은 체 하거나, <명리名利>에 미쳐서 현혹된 사람이 된 모습을 비유하여 읊은 말이다(以言往日明智之士, 今皆佯愚, 狂惑不顧).”고 하였다.

*소애(蕭艾): ‘쑥풀·천한풀·천초(賤草)’의 뜻인데, ‘소인배(小人輩)’ 또는 ‘불초(不肖)한 사람’을 비유한 말로 쓰였다.

③ 시정(詩情): 시적인 정취.

8) 고목잔하 객사미(孤鶩殘霞客思迷: 짝 잃은 물오리며 저녁놀은 나그네 마음 애처롭게 하네):

① 고목(孤鶩):

☆외톨이 물오리. 『한어대사전(漢語大詞典)』에서는 이 ‘고목(孤鶩)’을 “외톨이 <외로운. 쓸쓸한. 짝 잃은> 물오리 <야생의 오리>(孤單的野鴨)”라고 해석하였다. ‘목(鶩)’에는 물오리, 곧 수목(水鶩: 야압野鴨)과 집오리인 가압(家鴨)이 있다.

☆목(鶩):

a. 물오리[수목水鶩: 야압野鴨]: 춘추시대 사광(師曠)이 쓴 『금경(禽經)』에, “물오리가 못에서 무리를 이루어서, 시끌시끌 뒤 따라가고 있다(水鶩澤則群, 援則逐)”라는 내용이 보인다. 장화(張華)는 이를 “오리는 들오리다(鶩, 野鴨也).”라고 주석을 달고 있다. 당초(唐初)의 시인 왕발(王勃: 650~676)의 『등왕각서(滕王閣序)』에는 “저녁놀 붉게 물드는데 물오리가 날아 오르니, 가을철 강물과 하늘이 한 가지 빛깔일세(落霞與孤鶩齊飛, 秋水共

長天一色).”라고 읊은 구절이 있다. 여기서의 ‘목(鶻)’은 모두 ‘물오리(들오리:야생의 오리)’란 뜻으로 쓰인 것이다. 본 시에는 이 뜻으로 쓰였다.

b. 집오리(鶻:가암家鴨)라는 뜻으로 쓴다.

☆잔하(殘霞): 남아있는 저녁노을.

② 객사미(客思迷): 나그네 마음[심사心思]을 애처롭게 하다.

☆객사(客思): 나그네 심사(心思).

☆미(迷):

a. 애처롭다. 애처롭게 하다.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b. 미혹하다. 혼들다.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c. 혼미하다.

9) 관로정장 왕사급(關路正長王事急: 변방 길은 실로 멀고 수행할 국사國事는 다급한데):

① 관로(關路): 관문(關門)으로 가는 길. 관문은 변경(邊境) 지역에 설치되어 있으므로 ‘변방’으로 번역하였다.

☆관(關):

a. 국경관문(검문소 초소). 본 시에서 본다면, 여기의 ‘관(關)’은 의주(義州)에 있는 조·명(朝明) 국경관문을 가리키는 것이 된다. 작시연대가 없어 단언할 수는 없다. 본 시제(詩題)에서 보듯이, 당시 서에는 정주목사(定州牧使)로 재직 중인 부친 류중영(柳仲郢)을 모시고 가산군(嘉山郡), 지금의 평안북도 박천군(博川郡)으로 향하는 길이었기에 이르는 말이다.

b. 세관(稅關).

② 정장(正長): 실제로(확실히, 실로) 멀다.

☆정(正): 부사로 쓰여, 확실히, 실로, 실제로의 뜻이다.

☆장(長): ‘원(遠: 멀다)’의 뜻으로 쓰였다. 『시경(詩經)·노송(魯頌)·반수(泮水)』에, “끝없이 이어진 원정로를 따라가서, 역적들을 정복하여 재난을 막아주소서(順彼長道*, 屈此羣醜*).”라고 읊은 구절이 있다.

*장도(長道): 원로(遠路).

③ 왕사(王事): 왕명으로 파견되어 처리하는 공사(公事: 공무公務). 『시경(詩經)·소아(小雅)·북산(北山)』에, “네 필의 말이 끄는 수레로 쉬지 않고 길을 재촉하지만, 왕명이 하달된 공무처리에 분주하기 그지없네(四牡彭彭, 王事傍傍).”라고 읊은 구절이 있다.

10) 역정소류 마빈사(驛亭疎柳馬頻嘶: 역참정자 옆 늘어선 버드나무 아래 역마驛馬가 누차 울어대네):

① 역정(驛亭): 예전에 역참(驛站)*에 설치된 것으로 거쳐가면서 쉬어갈 수 있게 제공된 처소. 예전 역사(驛舍)에는 정자가 마련되어 있었던 까닭에 이르는 말이다.

*역참(驛站: 관역館驛): 조정에서 파견하는 관원들이 공무로 왕래하거나 공문을 송달할 때 뿐 만 아니라, 변방의 중요 군사정보, 사신의 왕래에 따른 영송(迎送)과 접대 등을 위하여 마련된 교통 통신기관의 하나였다. 각 주(州), 부(府), 군(郡), 현(縣)의 적정거리마다 설치되었다.

② 소(疎): 분포하다. 진열하다. 늘어서다.

- ③ 빈시(頻嘶) : 누차 울다.
☆빈(頻) : 자주. 누차. 잇달아.
☆시(嘶) : (말이) 울다.



시8. 전문령^{箭門嶺}에 올라서서 압록강을
 바라보면, 바로 (조선·명·여진女眞) 삼국의
 국경선이 있다. 그 서쪽은 대해^{大海}가
 연접해 있어서, 눈에 보이는 것이라고는
 모두 질퍽른 모습뿐이다. 그러나
 등주^{登州}와 내주^{萊州}의 맞은편에 있는
 산언덕, 그 북쪽은 고산^{高山}으로 하늘에
 잇달아 있어서, 먹구름이 끼어
 한기^{寒氣}가 돌면서, 사람으로 하여금
 을씨년스레 서글픔에 젖게 하였다.
 소년시절에 이곳을 지나갔던 기억이
 나기에, 지난 세월을 곰곰이 생각해 보니,
 감개무량 하였다.

詩8. 登箭門嶺¹⁾ 望鴨綠江 正是三國邊界²⁾
 등 천 문 령 망 압 록 강 정 시 삼 국 변 계
 其西則接連大海³⁾ 極目蒼然⁴⁾ 意是登萊對岸⁵⁾
 기 서 즉 접 연 대 해 극 목 창 연 의 시 등 래 대 안
 其北則高山⁶⁾ 接天 陰雲殺氣⁷⁾ 令人愁慘⁸⁾
 기 북 즉 고 산 접 천 음 운 살 기 영 인 수 참
 因憶少年過此 俯仰今古⁹⁾ 有感慨¹⁰⁾ 之懷
 인 억 소 년 과 차 부 앙 금 고 유 감 개 지 회

岧嶢¹¹⁾ 箭門嶺,
 조 요 전 문 령

우뚝 솟아 험준한 전문령^{箭門嶺}

산마루를,

登眺意何如¹²⁾。
등 조 의 하 여

올라와서 바라보는 이 심정 어떨겠는고?

日落青徐界¹³⁾，
일 락 청 서 계

해는 청주靑州와 서주徐州의
경계境界 쪽으로 지고 있는데,

山圍靺鞨墟¹⁴⁾。
산 위 말 갈 허

산은 말갈족 살던 옛터를 둘러싸고 있네.

大江流浩渺¹⁵⁾，
대 강 류 호 묘

큰 강줄기는 광대하게 아득히 흘러가고,

平野遠紆餘¹⁶⁾。
평 야 원 우 여

넓은 들은 한없이 멀리 구불구불
드넓게 펼쳐졌네.

十載¹⁷⁾重來過，
십 재 중 래 과

십년 만에 다시 와서 지나가는데,

秋風鬢髮疎¹⁸⁾。
추 풍 빈 발 소

추풍에 살짝이며 머리술이
(한결) 싱글어지네.

- 1) 전문령(箭門嶺) : 전문령은 지금의 평안북도 의주읍(義州邑) 동남쪽에 위치한 송장면(松長面)의 동남부에 위치한다. 북동쪽에 송산동(松山洞)과 대문동(大門洞)이 있다. 장송면은 의주읍의 바로 이웃에 있는 면이다. 장송면의 서북면 면경계가 의주읍 경계에 연결되어 있다. 전문령은 의주읍의 20리 지점에 위치한다고 한다. 「대동여지도(大東輿地圖)」에도, ‘전문령(箭門嶺)’이 표기되어 있지만, 역자는 전문령에 관한 기타 상세한 자료를 찾지 못했다. 옛날에는 교통이 원활했던 구릉성 산지였던 모양이나 그 높이도 알 수 없다. 서에 류성룡(1542~1607)의 저서 『징비록(懲毖錄)』 제5장에, “내의원(內醫院)의 하인, 용운(龍雲)이란 사람은 성문 밖 5리까지 나와 나를 전송하면서 통곡하니, 내가 전문령 고개를 오를 때까지 곡성이 여전히 들렸다(內醫院僕龍雲者, 送余于城門外五里痛哭, 余登箭門嶺, 哭聲猶聞).”고 한 대목이 있다. 또한 조선시대 문신이자 소설가인 허균(許筠: 1569~1618)이 지은 「전문령에 올라서(登箭門嶺)」라는 시에도 “걸어서 전문령에 올라와보니, 석양이 제왕 의장대의 선봉 깃발 인양 떠서 빛나네(行登箭門嶺, 斜日照前旌)”라고 읊은 구절이 보인다.

- 2) 정시삼국변계(正是三國邊界 : 바로 삼국의 국경선이 있다) :

① 정시(正是) :

☆바로 ...이다. 바로 ...이 있다.

☆확실히 꼭 ...이다. 마침 ...이다.

② 삼국(三國): 조선(朝鮮), 여진(女眞: 훗날의 청(淸)), 명(明) 삼국을 이룸.

3) 대해(大海): 황해(黃海)로, 곧 서해(西海)를 가리킨다.

4) 극목창연(極目蒼然: 눈에 보이는 것이라고는 질푸른 모습뿐이다):

① 극목(極目):

☆만목(滿目): 눈에 보이는 것 모두.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시력이 미치는 데까지 멀리 바라보다.

② 창연(蒼然): 질푸른 모습.

5) 의시 등래대안(意是登萊對岸: 그러나 등주와 내주의 맞은 편 산언덕은...):

① 의시(意是): 역접(逆接)으로, ‘그러나’의 뜻으로 쓰였다. 여기서 ‘의(意)’ 뒤의 ‘시(是)’는 접마사로 쓰인 것이다.

② 등·래(登萊): (지금의 산둥성山東省에 속하는) 등주登州와 내주萊州를 가리킨다.

☆등주(登州): 지금의 산둥성(山東省) 봉래현(蓬萊縣)을 중심으로 한 주(州).
당시에는 등주에 소속된 현(縣)이 4개가 있었다.

☆내주(萊州): 지금의 산둥성 내주시(萊州市)를 중심으로 한 주(州)로 당시에
소속된 현은 4개였다.

③ 대안(對岸): 맞은 편 산언덕, 즉 건너편 산언덕을 말한다.

6) 고산(高山): 이 산은 등주(登州)와 내주(萊州)의 북방에 있는 산으로, 요령성(遼寧省) 북진현(北鎭縣) 광녕(廣寧)의 지경(地境)에 있는 대흑산(大黑山)과 소흑산(小黑山)을 가리키는 듯하다. 선생의 부친 입암(立巖) 류중영(柳仲郢) 공의 「연경행록(燕京行錄)」에 보면, 탁영(濯纓) 김일손(金駟孫: 1464~1498)의 「감구유부 송이중웅(感舊遊賦 送李仲雍)」시에서 이를 짐작하게 하는 내용을 질취하여 소개하고 있다. 즉, “고평(高平) <沙嶺에서 60리 거리에 있음>의 언덕위에서 눈이 모자라도록 서쪽을 바라보니(高平岸上 極目而西望兮), 하늘에 빛긴 검푸른 산이 갈기 세우고 달리는 말과 같네(黛色橫天 如振鬣之驪), 이것이 이른바 의무여산<중국의 산 이름으로 요령성 북진현 서쪽에 있음>이라네(是謂醫無閭之山兮).”라는 것인데, 여기서 입암은 현지인(現地人)들이 ‘대흑산과 소흑산’이라고 칭하는 그 산이 바로 이 ‘의무여산(醫無閭山)’을 두고 말하는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이 ‘의무여산(醫無閭山)’은 『서경집전(書經集傳)·우서(虞書)·순전(舜典)』에 보이는 “12주를 처음으로 설치하고(肇<始也>十有二州), 12주의 산을 봉표(封表: 흙을 모아 쌓고 경계를 나타내는 표기表記를 만들어 세움)하며(封十有二山), 내를 깊이 파셨다(濬川).”에 대한 문구를 주희(朱熹)가 주석한 것에서 보인다. “우禹가 치수하던 시기의 땅은 다만 9주였으니(中古之地但為九州), 기·연·청·서·형·양·예·양·옹이다(曰冀, 兗, 青, 徐, 荆, 揚, 豫, 梁, 雍), 우禹가 홍수를 다스리고 공貢을 만들 때에도(禹治水作貢), 옛 것을 그대로 따랐었다(亦因其舊). 순이 즉위하고 나서(及舜即位), 기주冀州와 청주靑州의 땅이 넓다하여(以冀, 靑地廣), 비로소 기주의 동쪽인 항산恒山의 땅을 나누어 병주并州를 만들고(始分冀東恒山之地為并州), 그 동북쪽인 의무여산醫無閭의 땅을 유주幽州로 만들었으며(其東北醫無閭之地為幽州), 또 청주靑州의 동북쪽인 요동遼東 등지를 나누어 영주營州를 만들어서(又分靑之東北, 遼東等處為營州), 기주冀州는 단지 하내河內의 땅을 소유하였으니(而冀州止有河內之地), 지금의 하동로

河東路 한 곳이 이곳이다(今河東一路是也).”(류중영 著 柳龍佑·李迎春 譯, 『立巖逸稿·雜著·燕京行錄』(豐山府院君紀念事業會 刊, 2006.) 참조 「서애연보」 28세 조항에 보면, 선조(宣祖) 2년(기사년己巳年: 1569) 10월에 사헌부 감찰이 되어 성절사(聖節使)의 서장관(書狀官: 정사正使는 이후백李後白)으로 명나라 연경(燕京)에 갔었는데, 아마도 그때 이곳을 경유하면서 보았던 것을 회상하고 있는 듯하다.

7) 음운살기(陰雲殺氣: 먹구름이 한기寒氣를 느끼게 하다):

① 음운(陰雲):

☆검은 구름, 먹구름.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흐린 날의 구름.

② 살기(殺氣):

☆음기(陰氣). 쌀쌀한 기운. 한기(寒氣).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예기(禮記)·월령(月令)』에, “〈중추의 달中秋之月에〉 한기가 차츰 왕성해지고, 양기陽氣가 날로 쇠약해져, 물이 마침내 고갈하기 시작한다(殺氣浸盛, 陽氣日衰, 水始涸).”는 대목이 있다.

☆살벌한 기분. ‘전쟁이나 전투’를 가리키는 뜻으로 차용(借用)하는 말.

☆흉악한 표정(기분·기색·안색·상태)을 가리킨다. 독살스러운 기운을 이르는 말이다.

☆화풀이를 하다. 분노를 삭이다.

☆남을 해치거나 죽이려는 무시무시한 기운.

8) 영인수참(令人愁慘: 사람으로 하여금 을씨년스레 서글픔에 젖게 하다):

① 령(令): 동사로서, ‘…로 하여금 …하게 하다’는 뜻으로 쓰였다.

② 수참(愁慘):

☆비참하다. ☆처참하다. ☆매우 슬프다. ☆을씨년스럽고 구슬프다.

9) 부잉금고(俯仰今古: 지난 세월을 곱곰이 생각해보니):

① 부양(俯仰):

☆심사숙고하는 모양.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고개를 숙임과 쳐들. 쳐다보고 굽어보다, 즉 천지사방을 두루두루 살피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일거일동(一舉一動): 사소한 동작: 일거수일투족(一舉手一投足): 크고 작은 동작 하나하나를 이르는 말이다.

☆거동(舉動).

☆심사숙고하는 모양.

☆시간이 아주 짧은 것을 비유한 말(고개를 쳐들었다가 숙이는 동안을 이르는 말).

☆『맹자(孟子)·양혜왕장구(梁惠王章句)·상(上)』에, “그런 까닭에 현명한 군주는 백성들의 산업을 규정하되, 반드시 위로는 족히 부모를 잘 봉양할 수 있게 하고, 아래로는 족히 처자를 부양할 수 있게 했습니다(是故明君制民之產, 必使仰足以事父母, 俯足以畜妻子).”고 하는 구절이 있다. 후세의 사람들은 이 문장에 나오는 ‘부양(俯仰)’이란 말을 전(轉)하여, ‘가족을 부양(扶養)하다’는 뜻으로 썼다.

☆‘부양무괴(俯仰無愧)’의 약어(略語)로도 쓴다. 이 말의 뜻은 ‘입신(立身)하는

과정의 처신이 단정하여, 자문(自問)해 봐도 위로는 하늘에, 아래로는 사람들
에게 한 점 부끄러움도 없는 것 을 가리킨다.

☆‘부양수인(俯仰隨人)’의 약어로도 쓴다. 일거수일투족(一舉手一投足)을 남이
원하는 대로 수긍하고 따라하면서 남에게 좌지우지되는 사람을 가리킨다.

☆부양유인(俯仰由人) : 일거일동을 고개를 끄덕이며 타인이 하는 대로 따라 하여
남에게 좌지우지됨

② 금고(今古) :

☆‘과거, 예전’의 뜻으로만 쓰기도 한다. 전(轉)하여, ‘자나간 인간사’와 ‘흘러간
세월(시간)’을 가리키는 뜻으로 쓰기도 하는데,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고금과 같은 말로 예전과 지금을 아울러 이르는 말.

10) 감개(感慨) :

① 감탄하다, 감개(감동, 감명, 감축)하다.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② 감정이 격분함을 이른다.

11) 초요(岵嶠) : 초요(岵嶠)로도 쓴다.

① 매우 높다. 높고 험준하다.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높고 험한 곳.

② 산이 높은 모양.

③ 높이 솟아 있다(우뚛 솟다).

12) 하여(何如) :

① 여하(如何)와 같은 말로서, ‘어떠냐. 어떠한가’의 뜻으로, 문의(질문)나 진술(陳
述), 설문(設問) 등에 쓴다. 본 시에서는 질문하는 뜻으로 쓰였다.

② …에 비해서 어떠한가?

③ 반어(反語)의 어기로서, …보다 낮거나, …보다 못한 것을 표시한다. ‘어찌 …만
하겠는가’, ‘…만 못하다’는 뜻이다.

④ ‘왜. 무슨 까닭’의 뜻이다.

13) 청서계(靑徐界) : 청주(靑州)와 서주(徐州)와의 땅의 경계, 곧 지계(地界)를 말하는
것이다.

① 청서(靑徐) :

☆청주(靑州) : 고대 중국의 구주(九州) 중의 하나이다. 『서경(書經)·우공(禹貢)』
편에, “바다[황해黃海]와 대산(岱山 : 태산泰山) 사이의 지역이 청주이다(海岱
惟靑州).”라고 한 구절이 있다. 지금의 산둥성(山東省)과 요령성(遼寧省) 요하
(遼河) 이동(以東)의 지역을 가리킨다.

☆서주(徐州) : 고대 중국의 구주(九州) 중의 하나이다. 『서경(書經)·우공(禹
貢)』편에, “동해(東海 : 황해黃海)에서 〈서쪽으로〉 대산(岱山 : 태산) 및 〈남쪽
으로〉 회수淮水까지의 지역이 서주이다(海岱及淮惟徐州).”라고 한 구절이 있
다. 지금의 강소성(江蘇省) 북부와 산둥성(山東省) 그리고 안휘성(安徽省) 일
부지역을 가리킨다. 한(漢)나라 이후 그 할지(轄地)는 자주 변하였으나 대략
화하(淮河) 북부일대였다. 청주와 서주의 관할지역을 아주 간략하게 압축해서
표현하면, 이 두 지역은 ‘지금의 산둥성과 강소성 북부일대의 지역’이다. 이 두
지역은 명(明)나라의 영토인 동시에 조선의 서쪽에 위치하기에, 서애(西厓)는
‘해가 진 쪽을 삼국이 접경한 지역에서 시적으로 표현한 말’이 ‘청·서(靑徐)
인 것으로 보인다.

② 계(界):

☆지계(地界: 땅의 경계). 본 시에서는 청주(靑州)와 서주(徐州)의 주경(州境), 곧 청주와 서주의 지계(地界) 쪽으로 해가 지고 있는 것을 표현하였다.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지방.

14) 말갈허(靺鞨墟): 말갈족의 촌락. 말갈족의 옛터.

- ① 말갈(靺鞨): 중국 동북부의 고대 소수민족. 퉁구스 족(Tungus 족: 동부 시베리아, 중국 만주 등 지역에 분포하는 몽골계의 종족)의 여러 갈래를 통틀어 이르는 말로서, 주(周)나라 시대에는 ‘숙신(肅慎)’으로 불렸고, 한위(漢魏) 시대에는 ‘읍루(挹婁)’로 불렸으며, 수당(隋唐) 시대에는 ‘말갈(靺鞨)’로 불리다가, 오대(五代: 당나라가 망한 뒤부터 송(宋)나라가 건국되기 이전까지의 과도기에 중원에 흥망한 5개 왕조. 후량(後梁)·후당(後唐)·후진(後晉)·후한(後漢)·후주(後周)를 이름)시대에는 ‘여진(女眞)’으로 불렸다. 송화강(松花江)과 모란강(牡丹江) 유역 및 흑룡강 하류와 한반도의 북부에 분포하였다. 말갈족은 두 왕조*를 건립했었다.

*말갈족이 세운 두 왕조:

- 발해(渤海): 699년에 고구려의 장수였던 대조영(大祚榮: ?~719)은 고구려의 유민과 속말갈갈족(粟末靺鞨族)을 거느리고 발해를 건국했다. 발해는 926년 요(遼: 거란)에 의해 멸망했다. 『신당서(新唐書)·북狄전(北狄傳)·발해(渤海)』편에, “발해는 본래 속말갈갈족으로서 고구려에 부속된 자가 건국한 나라로, 성은 대씨이다(渤海, 本粟末靺鞨附高麗者, 姓大氏).”라고 한 대목이 있다.
- 금(金): 1115년 여진족(女眞族) 완안부(完顔部)의 영수(領袖) 아골타(阿骨打)는 회령(會寧: 지금의 흑룡강성黑龍江省 아성阿城 남쪽)에 도읍을 정하고 왕조를 건립하였다. 태종(太宗) 완안성(完顔晟) 천회(天會) 3년(1125)에 요(遼)를 멸한 다음, 선후에 걸쳐 중도(中都: 지금의 북경)·개봉(開封: 지금의 하남성河南省 개봉시開封市) 등 지역으로 천도하였다. 영토가 광활하여 남송과 대치하면서 당시 중국의 북부를 통치한 왕조이다. 말제(末帝) 완안승린(完顔承麟) 천흥(天興) 3년(1234)에 몽고와 송의 연합군의 공격으로 멸망했다. 9제(九帝)를 거치면서 120년을 통치했다.

② 허(墟): 옛터.

☆고성(故城). 고적(古跡). 유지(遺址: 예전에 건물 따위가 있었거나 사건이 일어나 역사적 자취가 남아있는 자리). 폐지(廢址). 옛터. 『사기(史記)·위공자열전(魏公子列傳)』에, “태사공太史公이 말하기를, 내가 대량大梁의 옛터를 지나가면서, 이른바 그 이문(夷門: 대량성大梁城의东门東門이라고 하는 곳)을 탐방했다(太史公曰: 吾過大梁之墟, 求問其所謂夷門).”고 한 대목이 있다.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촌락.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으나, 세월이 많이 흘렀으므로, ‘옛터’라고 번역한다.

☆향촌의 시장. 당(唐) 나라의 시인이자 화가인 왕유(王維: 701~761)가 개원(開元) 27년(738)에 읊은 시에, (정월) 그믐날 대리시(大理寺: 형옥刑獄을 관장하는 관서의 장관) 위허심(韋虛心: 672~741)의 장안성(長安城) 남쪽 두릉(杜陵)에

있는 별장에 놀러가서(晦日游大理韋卿城南別業)」의 시3(其三)에서, “겨울의 잔설이 아직 남아 있는데, 춘락의 춘강은 유속流速이 빠르네(冬中餘雪在, 壚上春江駛).”라고 읊은 구절이 있다.

☆안덕. 산.

☆황폐한 구렁.

15) 대강 류호묘(大江流浩渺 : 큰 강줄기는 광대하게 아득히 흘러가고) :

① 대강(大江) : 큰 강. 본 시에서는 압록강을 가리킨다.

② 류(流) : 강하(江河)의 유수(流水).

③ 호묘(浩渺) :

☆수면이 넓고 요원하다(멀다).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호양(浩洋)과 같은 뜻으로, 수면이 광대한 모양.

☆(면적, 공간이) 넓어 아득하다.

☆웅대하다, 거대하다, 방대하다.

16) 우여(紆餘) :

☆우회곡절(迂回曲折 : 길이 꾸불꾸불함). 본 시에서는 산지락의 아래쪽이 꾸불꾸불 이어지는 형상에 따라 너른 들판의 변두리가 꾸불꾸불한 것을 형용한 말이다.

☆사람이 재기(才氣)가 있어 태연자약(여유만만, 유유자적)한 것을 형용한 말이다.

☆가곡(歌曲)이나 문장이 변화가 많고 생동감이 있어 정취가 있다.

17) 십재(十載) : 십년.

☆재(載) : 년(年). 세(歲).

18) 빈발소(鬢髮疎) : 〈가을바람에 의해〉 살쩍이며 머리털이 빠져서 머리술이 성글어지는 것을 표현한 것이다.

① 빈발(鬢髮) : 빈발(鬢), 빈발(鬢髮), 빈발(鬢髮)로도 쓴다. 살쩍(귀밑털 : 귀밑머리)과 머리털, 또는 머리털.

② 소(疎) :

☆성글어지다. 감소하다. 드물어지다. 본 시에서는 머리털이 빠져서 성글어지다는 뜻으로 쓰였다.

☆이때의 ‘소(疎)’자를 ‘분산하다’의 뜻으로 보아, ‘흐트러지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



시9. 등계달¹⁾滕季達에게 증정하는 시 두 수

詩9. 贈滕季達¹⁾ 二首

계달¹⁾滕季達 공公은 오주吳州 사람이다. 조사²⁾詔使를 따라 왔는데, 시작詩
작에 능하였다. 스스로 평생 유람하기를 좋아했다고 하면서, 이번에
돌아가면 천태산³⁾天台山과 안탕산⁴⁾鴈蕩山 등 여러 산을 가보고 싶다고
하였다.

季達吳州人²⁾。從詔使³⁾來，能詩。自言平生好遊，
此去欲遊天台、鴈蕩諸山⁴⁾。
계달 오주인。종조사래 능시 자언 평생 호유
차거 욕유 천태 안탕제산

其一 기 일

[1]

愁心不定似驚湍⁵⁾，
수심부정사경단

수심愁心이 진정鎮靜되지 않아
여울물처럼 세차게 밀려드는데,

一壁青燈五夜寒⁶⁾。
일벽청등오야한

벽에 걸린 희미한 등불 오경五更되자
차가워 뵈는구려.

忽憶西江相別後⁷⁾，
홀억서강상별후

홀연 (그대 고향의) 서강西江을
떠올려보는데 피차 이별 후엔,

此生⁸⁾無路得重看。
차생무로득중간

이승에서 다시는 만날 길이 없겠구려!

採藥尋眞⁹去不歸,
채 약 섭 진 거 불 귀

약초 캐러 갔다 신선 만나
못 돌아왔다는데,

白雲紅樹思依依¹⁰.
백 운 홍 수 사 의 의

흰 구름이며 단풍이 그리워서
섭섭했겠소.

天台處處迷仙躅¹¹,
천 태 처 처 미 선 탁

천태산天台山 곳곳에서
선인仙人的 종적에 미혹했으나,

從此人應識面稀¹².
종 차 인 응 식 면 희

이들이 신선을 추종해도 만난 사람은
드물었겠소.

1) 등계달(滕季達 : 생몰년 미상) : 자는 진생(晉生), 자칭 호는 북해(北海)이다. 계유년(癸酉年 : 1573년, 선조 6, 서애 32세)에 명(明)나라의 조사(詔使) 한세능(韓世能 : 1528~1598 : 자는 존량存良, 호는 경당敬堂)이 조선에 왔을 때 따라 왔는데, 그 때 조선의 종사관(從事官 : 외교관으로서 정사正使와 부사副使 다음의 관직으로 삼사신三使臣이라고 함을 수행하는 관직)은 습재(習齋) 권벽(權壁 : 1520~1593년)과 문봉(文峯) 정유일(鄭惟一 : 1533~1576년) 그리고 서애(西厓) 류성룡(柳成龍 : 1542~1607년)이었다. 석봉(石峯) 한호(韓濩 : 1543~1605년)가 수행했다. 등계달은 이때 조선의 종사관들과 시문(詩文)을 주고받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고 한다.

2) 계달 오주인(季達吳洲人 : 계달은 오주 사람이다) :

① 계달(季達) : 등계달(滕季達)의 이름.

② 오주(吳洲) : 역사가 보기에는 등계달이 자기의 선대(先代)의 출신지역을 자신의 출신지로 서애에게 말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인은 이러한 관습이 있다. 다만 ‘오주인(吳州人)’의 ‘오(吳)’자가 들어가면 중국 동남부 출신임은 분명하다. ‘오주(吳州)’는 남조시대(南朝時代 : 동진東晉이 망한 후 420년부터 589년까지 강남(江南 : 양자강 남쪽)에 한족(漢族)이 세운 송·제·양·진(宋齊梁陳)을 통틀어 이르는 말)의 양(梁)나라 태청(太淸) 3년(549)에 ‘오군(吳郡)’을 개칭하여 처음으로 설치했으며, 관서(官署)의 소재지는 지금의 강소성(江蘇省) 소주시(蘇州市)였다. 이후 수차 관할구역과 명칭이 바뀌어 오다가 당(唐)나라 무덕(武德) 3년(620)에 다시 설치되었는데 관서의 소재지는 오릉현(吳陵縣), 지금의 강소성 태주시(泰州市)였고, 무덕 7년(624)에 이마저 폐지되었다. 이후 ‘오주(吳州)’란 행정구획 명칭을 쓴 왕조는 없었다. 본 시제(詩題)에서 ‘오주(吳洲)’라고 명칭 함은 옛 오(吳)나라 경

역(境域)이 물이 많은 곳이어서 ‘오주(吳洲)’라고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 3) 조사(詔使) : 황제가 파견한 특사. 중국에서 오던 사신(使臣). 중국전자의 조칙(詔勅)을 가져온다 하여 이르던 말이다.

- 4) 천태·안탕제산(天台, 鴈蕩諸山 : 천태산과 안탕산 등 여러 산) :

- ① 천태(天台) : 천태산(天台山) : 산 이름으로 절강성(浙江省) 천태현(天台縣) 북쪽에 위치하며, 산세가 동북쪽에서 서남쪽으로 이어졌는데, 적성산(赤城山), 폭포산(瀑布山), 불룡산(佛隴山), 향로산(香爐山), 화정산(華頂山), 동백산(桐柏山) 등 여러 산으로 조성되었다. 주봉(主峰)인 화정산(華頂山)은 해발 1133m이고, 산에는 깎아지른 듯한 절벽과 폭포 등 명승지가 많다. 용강(甬江)과 조아강(曹娥江) 및 영강(靈江)의 분수령(分水嶺)이다. 도교에서는 이 산을 남악(南嶽) 형산(衡山) 다음의 명산으로 여겼고, 불교의 천태종(天台宗) 역시 이 산에서 발원하였다. 전하는 바에 의하면, 후한(後漢)의 도사(道士) 유신(劉晨 : 생몰년 미상)*과 완조(阮肇 : 생몰년 미상)*는 약초를 캐러 이 산에 들어갔다가 신선을 만났다고 한다.

*유신(劉晨 : 생몰년 미상) : 동한(東漢) 회계군(會稽郡) 섬현(剡縣) 사람이다. 전하는 바에 의하면, 명제(明帝) 영평(永平) 15년(72)에 유신(劉晨)과 완조(阮肇)를 자기들 집에 초대하고, 함께 밥을 대접했다. 유신과 완조는 그녀들 집에 기숙하며 지내다가 결혼하여 부부가 되었다. 산중에서 반년을 머물다가 귀가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떠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자, 두 여인은 귀로(歸路)를 가리켜 주었다. 출타(出他)한 이후 돌아와 본 고향에는 친척, 친구 등 알고 지내던 모든 사람들은 이미 다 저 세상으로 가고 모르는 사람들뿐이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당시 자기들 연배 되는 사람들의 7세손(七世孫)되는 사람들이었다. 어쩔 수 없어, 천태산 산중의 그 여인들에게 돌아가고 싶었으나, 길을 찾을 수 없었다.([太平廣記] 권6) 「신선전(神仙傳)」을 참조

*완조(阮肇 : 생몰년 미상) : 후한(後漢) 때 사람. 유신(劉晨)과 더불어 약을 캐러 산에 들어갔다가 길을 잃었다. 몇 리를 더 가니 계호(溪谿)에 도착했는데, 두 여인이 나타나 그들을 데리고 동굴 속으로 들어가 깨밥을 먹었다. 나중에 돌아가기를 간청하자 여인들이 원래의 길을 가르쳐 줌에 집에 돌아왔는데, 그 동안 세월이 7대(代)나 흘러갔다고 한다.

- ② 안탕산(鴈蕩山) : 산 이름으로 절강성(浙江省) 동남부에 위치한다. 남북 두 개의 산군(山群)으로 나눌 수 있는데, 남안탕산(南鴈蕩山)은 평양현(平陽縣) 서쪽에 위치하고, 북안탕산은 낙청현(樂淸縣) 동북쪽에 위치한다. 산에는 절벽과 기봉(奇峰) 및 폭포가 많아 경관이 매우 수려하다.

- 5) 수심부정 사경단(愁心不定似驚湍 : 수심愁心이 진정鎮靜되지 않아 여울물처럼 세차게 밀려드는데) :

- ① 부정(不定) : 진정(鎮靜)하지 못하다.

☆정(定) :

- a. 진정(鎮靜) : 흥분되거나 격앙된 마음을 조용하게 가라앉히는 것)하다.
b. 안온(安穩)하고 편안(便安)하다.

- ② 경단(驚湍) : ‘급류(急流)’와 같은 물로 물결이 대단히 센 여울.

☆경(驚) :

a. 빠르다. 세차다.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b. 위험하고 다급하다.

☆단(湍) : 여울(물이 빨리 흐르는 곳). 급류가 소용돌이치는 물. 소용돌이(회류回流).

- 6) 일벽청등 오야한(一壁靑燈五夜寒 : 벽에 걸린 희미한 등불 오경五更되자 차가워 보이는구려) :

① 일벽청등(一壁靑燈) : 한 쪽 벽면에 걸린 희미한 불빛의 등잔불.

☆일벽(一壁) : 한쪽 벽면.

☆청등(靑燈) : ‘청등(靑燈)’이라고도 쓰며, ‘희미한 불빛의 등잔불’이란 뜻이다.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a. 청(靑) : 희미하게 깜박이는(반짝반짝 이는. 깜빡깜빡 거리는) 불빛을 가리킨다.

② 오야(五夜) :

☆오경(五更). 하룻밤을 다섯으로 나눈 이름으로, 갑야(甲夜) · 을야(乙夜) · 병야(丙夜) · 정야(丁夜) · 무야(戊夜)를 이른다.

☆무야(戊夜)를 가리킨다. 즉 오경(五更), 이를테면, 하룻밤을 다섯 부분으로 나누었을 때의 마지막 부분으로,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를 말함.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 7) 홀역서강 상별후(忽憶西江相別後 : 홀연 <그대 고향의> 서강西江을 떠올리는데 피차 이별 후엔) :

① 홀역서강(忽憶西江) : 문득 서강이 머릿속에 떠오른다.

☆홀역(忽憶) : 문득 떠올리다(생각이 나다.)

☆서강(西江) :

a. 당(唐)나라 사람들은 장강(長江 : 양자강揚子江)의 중 · 하류(中下流)를 ‘서강(西江)’이라고 많이 칭했다.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장강 하류 남쪽에 소주시(蘇州市)가 있고, 이곳은 바로 등계달(滕季達)의 고향이 있는 곳이다. 뿐만 아니라, 서애(西厓)와 대화중에 등계달이 명나라로 귀국한 후에 가보고 싶다고 한 천태산(天台山)과 안탕산(雁蕩山)도 절강성(浙江省)에 있어 등계달의 고향과는 그다지 멀지 않는 곳에 위치한다. 서애는 등계달의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서강(西江)을 읊은 것으로 보인다.

b. 당(唐)나라 시인 이백(李白 : 701~762)의 시, 「우저기(牛渚磯)에서 밤에 배에서 숙박한 것을 회고하며(夜泊牛渚*懷古)」에, “우저기가 위치한 서강에 밤이 이슬한데, 푸른 하늘에는 한조각 구름 없이 맑으네(牛渚西江夜, 靑天無片雲).”라고 읊은 구절이 있다.

*우저(牛渚) : 우저기(牛渚磯) : 지금의 안휘성(安徽省) 마안산시(馬鞍山市) 서남 장강(長江) 강변에 있는데, 우저산(牛渚山) 북부가 장강 중앙에 돌출한 부분으로 채석기(采石磯)라고도 하며, 대강(大江 : 장강長江) 남북을 소통하는 중요 나룻터이다. 동진(東晉)의 무장 온교(溫嶠 : 288~329)가 무소뿔을 태워서 괴물을 비취보았다고 하는 곳도 이곳이고, 역시 동진의 무장 사상(謝尚 : 308~357)이 이곳에 잔을 치고 있을 때 문인 원굉(袁宏 : 328~376)이 큰 소리로 시를 읊은 곳도 이곳이며, 당나라 시인 이백이 강물에 비친 달을 잡으려 하다가 물에 빠졌다고 전해지는 곳도 이곳이다.

② 상별(相別) :

☆피차 이별하다.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a. 별(別): 이별하다. 헤어지다.

☆의견이 맞지 않다. 사이가 틀어지다. 알력이 생기다.

a. 별(別): 다르다. 차이가 있다. 구별하다.

8) 차생(此生): 이 한평생을 뜻하는 것으로, 본 시에서는 ‘이승’으로 번역하였다.

9) 심진(尋眞):

① 선도(仙道)를 탐구하다. 본 시에서는 전(轉)하여, ‘신선을 만나다’는 뜻으로 쓰였다.

☆진(眞): 『설문해자(說文解字)·비수비 부[匕部]』에, “진(眞)은 선인(仙人)으로 형체[신체. 얼굴 모양]를 바꿀 수 있고 하늘로 올라간다(眞, 僊人變形登天也).”고 하였다. 북송의 문인 위야(魏野: 960~1020)의 시, 「은자(隱者)를 찾았으나 만나지 못하면서(尋隱者不遇)」에, “선도(仙道) 탐구하러 나섰다가 봉래도(蓬萊島)에 잘못 들어갔는데, 향화(香花)는 피지 않고 송화(松花) 색깔만 진해졌네(尋眞誤入蓬萊島, 香花不動松花老).”라고 읊은 구절이 있다.

② 사물의 본원과 진리를 탐구하는 것을 가리키기도 한다.

10) 백운홍수 사의의(白雲紅樹思依依: 흰 구름이며 단풍이 그리워서 섭섭했겠소):

① 홍수(紅樹):

☆서리를 맞고 나서 잎이 붉어진 나무. ‘단풍나무’ 같은 것.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봄에 붉은 꽃이 피는 나무.

☆홍수과에 속하는 상록관목(常綠灌木)으로, 열대 및 아열대에서 나는데, 수피(樹皮)에서 홍색염료를 채취한다.

☆홍화(紅花)가 피는 나무.

② 사의의(思依依): 생각을 떨 굴 수 없다. 차마 잊지 못하다.

☆사(思): 생각. 그리는 마음.

☆의의(依依): 못내 아쉬워하는 모양. 섭섭해 하는 모양.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11) 미선촉(迷仙躅): 선인(仙人)의 종적에 미혹되다.

① 미(迷): 미혹(심취. 도취)하다. 혹은 미혹되다.

② 탁(躅):

☆족적(足跡). 종적(蹤迹).

☆사람의 행적이나 업적을 비유한 말임.

12) 종차인응 식면희(從此人應識面稀: 이들이 신성을 추종해도 만난 사람은 드물었겠소):

① 종(從):

☆순종하다, 따르다. 전(轉)하여, 본 시에서는 ‘추종하다’는 뜻으로 쓰였다.

☆추구하다.

② 차인(此人): 이 사람(들). 본 시에서는 바로 윗 구의 “선인(仙人)의 종적에 미혹된 사람들(迷仙躅), 곧 ‘선도(仙道)를 추구하는 사람들’을 가리킨다.

③ 응(應): 찾아가다. 방문하다. ‘고(顧)’의 뜻이다.

④ 식면희(識面稀): 만난 사람은 드물다.

☆식면(識面) : 상견(相見)하다. 만나다, 대면(對面)하다.

☆희(稀) : 적다(少). 많지 않다(不多). 당(堂)나라 시인 두보(杜甫 : 712~770)의 시, 「곡강(曲江 : 곡강지(曲江池) : 섬서성(陝西省) 서안시(西安市) 동남쪽에 있는 경치 수려한 강)에서 읊은 두 수(曲江二首)」에, “술빛이야 예삿일 가는 곳마다 있게 마련이고 인생은 칠십까지 산 사람 예로부터 적었다네(酒債尋常行處有, 人生七十古來稀).”라고 읊은 구절이 있다.



시10. 퇴계 이황 선생께 고별인사를 드리면서

詩10. 奉別退溪先生¹⁾
봉 별 퇴 계 선 생

乞退新承命²⁾,
걸 퇴 신 승 명

사직을 청했다가 새로운 명을 받고나서,

春江暮帆輕³⁾。
춘 강 모 범 경

봄날 강의 저물녘에 돛단배 타니
경쾌했습니다.

聖恩憐白髮⁴⁾,
성 은 련 백 발

전하께선 은총 베푸셔
이 백발白髮 가없게 여기셨고,

朝議軫蒼生⁵⁾。
조 의 진 창 생

조정의 논의는 백성을 걱정하는
것이었습니다.

濟世非無術⁶⁾,
제 세 비 무 술

세상을 구제하는데
계책 없는 것이 아닌데,

耕雲⁷⁾奈有盟。
경 운 내 유 맹

어찌 은거하겠다고 맹약할 수 있으리까?

今朝無限意⁸⁾,
금 조 무 한 의

지금 조정에서 끊임없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不獨抱離情⁹⁾.
부 독 포 리 정

사직辭職의 정서만 품고 있는 게
아니옵니다.

1) 봉별퇴계선생(奉別退溪先生 : 퇴계 이황 선생께 고별인사를 드리면서) :

- ① 봉별(奉別) : 경사(敬詞)로서, ‘고별(告別)’과 같은 말이다. 본 시는 서애가 노년에 스승인 퇴계의 영전(靈前)에 예를 갖추어 참배하고 떠나면서 지은 시이다.
- ② 퇴계선생(退溪先生) : 퇴계(退溪) 이황(李滉) 선생.

☆이황(李滉 : 1501~1570) : 조선 중기의 대학자. 자는 경호(景浩), 호는 퇴계(退溪) · 도수(陶叟) · 퇴도(退陶), 시호는 문순(文純), 본관은 진보(眞寶), 진사(進士) 식(埴)의 7남1녀 중 막내아들로 경상도 예안현(禮安縣) 온계리(溫溪里), 지금의 경북 안동군 도산면 온계리에서 태어났다. 생후 7개월 만에 부친을 여의고, 후실(後室)이었던 자모(慈母)요 현처(賢妻)인 생모 박씨의 훈도 밑에서 총명한 자질을 키워나갔다. 12세부터는 숙부 우(塢)로부터 『논어(論語)』를 배우면서 양육되었다. 1528년 진사에 합격하고, 1533년 성균관에 들어가, 이듬해 문과에 급제, 정자(正字 : 홍문관弘文館 · 승문원(承文院) · 교서관 <校書館> : 뒤에 규장각에 소속)의 정9품 관직, 박사(博士 : 성균관 · 홍문관 · 교서관 등에 두었던 정7품 관직) · 전직(田籍 : 성균관의 정6품 관직. 도서의 수장과 출판, 관리를 담당함) · 호조좌랑(戶曹佐郎 : 호조의 정6품 관직. 행정실무를 총괄함)을 거쳐 1539년 홍문관 수찬(修撰 : 홍문관의 정5품 관직. 문헌편수文翰編修의 임무를 지냈음)이 되었다. 그 후 승진을 거듭하여 성균관 사성(司成 : 성균관의 종3품 관직. 유학교육을 담당함)이 되었으나, 사직하고 고향에 돌아가 학문을 연마하였다. 그러나 조정에서 불러, 다시 홍문관 교리(校理 : 홍문관의 정5품 관직)를 건너 뛰어 1545년 전한(典翰 : 홍문관의 종3품의 관직. 문헌文翰의 수장 · 관리의 임무를 맡음)이 되었다. 을사사화(乙巳士禍 : 조선 명종 원년 <1545>에 일어난 사화로, 인종이 타계하자 새로 즉위한 명종의 외숙인 소윤小尹의 거두 윤원형 <尹元衡 : ?~1565>이 인종의 외숙인 대윤大尹의 거두 윤임 <尹任 : 1487~1545> 일파를 몰아내는 과정에서 대윤파에 가담했던 사람土林이 크게 화를 입었음)가 일어나면서 퇴계 이황도 화를 입어 한 때 파직되었다가 곧 복직하였으나, 이미 벼슬에 뜻을 두지 않았을 때이므로 사직하고 고향에 내려가 양진암(養眞庵)을 짓고 학문에 몰두하였다. 일찍이 그가 한양에 있을 때 『주자전서(朱子全書)』를 읽고, 여기에 몰두하여 성리학을 연구하였는데, 마침내 대성하여, ‘동방의 주자(朱子)’라는 칭호를 받게 되었으며, 이때부터 사방에서 학자들이 모여 들어 학문을 배웠다. 비록 조정의 부름이 있어도 오래 머물지 않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외직(外職)을 사정하였다. 명종 초에 단양(丹陽) · 풍기(豊基) 등 군수를 역임한 것도 이러한 사유에서였다. 1552년(명종 7)에 다시 소환되어 홍문관 교리(校理) · 대사성(大司成 : 성균관의 장관으로 정3품 관직. 유학에 관한 일을 담당하였음) · 부제학(副提學 : 정3품 관직. 제학提學의 부관이며 직제학直提學의 상관임) · 공조참판(工曹參判 : 공조의 종2품 관직으로 산림山林 · 소택沼澤 · 공장工匠 · 건축 · 야금冶金 · 도요공陶窯工 등의 일을 관리하였음) 등에 임명되었으나 모두 사양하고 1555년(명종 10)에 고향으로 돌아갔

다. 앞서 풍기군수의 직을 버리고 고향에 내려왔을 때, 그는 한서암(寒棲庵)을 짓고 1555년에는 사액서원(賜額書院)인 도산서원(陶山書院)을 지어 학문연구와 사색의 생활을 계속했다. 율곡(栗谷) 이이(李珣: 1536~1584)가 그를 방문한 것도 이 때의 일이며, 명종이 그가 관직에 나오지 않음을 애석하게 여겨 화공(畵工)에게 명하여 도산의 경치를 그려 오게 하여 완상(玩賞)한 것도 이때의 미담이다.

그의 사상은 50~60세에 걸쳐 완성되었는데, 변론·저술·편저 등 중요한 것은 모두 이 기간에 마무리 된 것으로 『계몽전의(啓蒙傳疑)』·『주자서절요(朱子書節要)』·『송계원명이학통록(松季元明理學通錄)』·『인심경석의(人心經釋疑)』 및 고봉(高峯) 기대승(奇大升: 1527~1572)과 문답한 『사단칠정본이기사(四端七情分理氣書)』와 같은 것은 그 중 대표적인 명저이다. 명종 말에 예조판서(禮曹判書)가 되고 1568년(선조 1)에 대제학(大提學)·판증추검지경연(判中樞兼知經筵) 등이 되어, 유명한 「무진육조소(戊辰六條疏)」와 「성학십도(聖學十圖)」를 지었으니, 이는 국은(國恩)에 보답하고 학문을 제발하기 위한 만년의 대표작이다. 그가 타계하자 선조는 시호를 내리고 영의정에 추증하였으며 1610년(광해군 2) 문묘(文廟)에 모셨다. 퇴계 이황은 율곡 이이와 함께 우리나라 유학사상 가장 대표적인 학자로 남송의 대유학자인 주자(朱子: 주희(朱熹: 1130~1200))의 이기이원론(理氣二元論)의 사상을 계승하여 그의 사상을 발전시켰다. 퇴계는 철저한 철학적 사색을 학문의 출발점으로 하여 연역적(演繹的) 방법을 채택하면서, 겸손하고 신중한 태도로 학문에 임하여 어디까지나 독단과 경술을 배격하였다. 퇴계 이황은 우주만물은 ‘이(理)’와 ‘기(氣)’의 이원적(二元的) 요소로 구성되어 그 중에 하나라도 결핍되면 우주의 만상(萬象: 온갖 만물의 형상)을 표현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理)’와 ‘기(氣)’의 도덕적 가치를 말함에 있어서는 ‘이(理)’는 순선무악(純善無惡)한 것이고, 기(氣)는 가선가악(可善可惡: 선해질 수도 있고 악해질 수도 있음)한 것인즉, 이(理)는 절대적 가치를 지녔고 기(氣)는 상대적 가치를 가진 것이라 하였다. 그러므로 그는 심성(心性) 문제를 해석함에도 역시 이러한 절대와 상대의 가치를 가진 이기이원(理氣二元)으로 분석하였다. 이것이 훗날 기대승(奇大升)과의 논쟁이 벌어진 유명한 ‘사단칠정론(四端七情論)’으로, 이후 우리나라 유학자로서 이 문제에 언급하지 아니한 사람이 없을 만큼 중요한 주제를 던진 것이다. 임진왜란 후 이황의 문집이 일본으로 반출되어 일본의 에도막부[江戸幕府: 에도[江戸]에 수립한 무가정권(武家政權)의 초대 쇼군(將軍: 막부의 우두머리)인 도쿠가와 이에야스[덕천가강(德川家康: 1543~1616)] 이래로 일본유학의 기몬학과[기문학과(崎門學派)] 및 구마모토학과[웅본학과(熊本學派)]에게 결정적인 영향을 끼쳐왔다. 그리하여, 그의 학설은 일본에 큰 영향을 끼쳐 메이지 시대[명치시대(明治時代: 일본의 메이지[명치] 천왕이 통치하던 시대의 19세기 후반을 이룸)]의 교육이념의 기본 정신을 형성하였다. 뿐만 아니라, 개화기 중국의 지도자들도 정신적으로 이황을 크게 존숭하였다. 그러나 이황의 학문적 근본입장은 진리를 이론에서 찾는 데 있지 않았다. 오히려 진리는 평범한 일상생활 속에 있다는 것이 그의 신념으로 ‘지(知)와 행(行)의 일치’를 주장하면서, 그 기본이 되는 것이 ‘성(誠)’이요, 그에 대한 노력으로서의 ‘경(敬)’이 있을 뿐이라 하였

다. 실로, 그의 학문과 인생관에 대한 최후의 결정은 이 ‘경(敬)’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으로, 이 ‘경(敬)’을 70세 생애를 통하여 실천한 인물이 이황이었다. 그는 문학과 고증학(考證學)에도 조예가 깊었으며, 그의 사상과 학풍이 후세에 계승되어 영향을 끼쳤다.

이황의 문인을 비롯해서 그의 학풍을 따른 자는 당대의 서애(西厓) 류성룡(柳成龍: 1542~1607) · 한강(寒岡) 정구(鄭逋: 1543~1620) · 학봉(鶴峰) 김성일(金誠一: 1538~1593) · 월천(月川) 조목(趙穆: 1524~1606) · 간재(艮齋) 이덕홍(李德弘: 1541~1596) · 고봉(高峯) 기대승(奇大升: 1527~1572) · 일휴당(日休堂) 금응협(琴應夾: 1526~1596) · 아계(鵝溪) 이산해(李山海: 1539~1609) · 백곡(柏谷) 정탁(鄭琢: 1526~1605) · 경서(景瑞) 구봉령(具鳳齡: 1526~1586) · 지산(芝山) 조호익(曹好益: 1545~1609) · 금계(錦溪) 황준량(黃俊良: 1517~1563) · 여우(汝友) 배삼익(裴三益: 1534~1588) · 강이(剛而) 이정(李楨: 1512~1571) 등을 위시한 260여명에 이르렀고, 나아가서 호원(浩原) 성혼(成渾: 1535~1598) · 우담(愚潭) 정시한(丁時翰: 1625~1707) · 갈암(葛庵) 이현일(李玄逸: 1627~1704) · 밀암(密庵) 이재(李裁: 1657~1730) · 성호(星湖) 이익(李穡: 1681~1763) · 대산(大山) 이상정(李象靖: 1711~1781) · 정재(定齋) 류치명(柳致明: 1777~1861) · 한주(寒洲) 이진상(李震相: 1818~1886) · 면우(旼宇) 곽종석(郭鍾錫: 1846~1919) · 화서(華西) 이항로(李恒老: 1792~1868) 등을 잇는 영남학과 및 친영남학과를 포괄한 주리파(主理派) 철학을 형성하여 한국유학사상을 크게 발전시켰다.

2) 결퇴(乞退) 신승명(乞退新承命): 사직을 청했다가 새로운 명을 받고나서):

- ① 결퇴(乞退): 사직(辭職)을 청하다. 사직을 요구하다.

☆갈(乞): 청하다. 요구하다.

☆퇴(退): 물러가다. 퇴각(후퇴)하다.

- ② 승명(承命): 명령을(임무를) 받다.

3) 춘강 모범경(春江暮帆輕: 봄날 강의 저물녘에 돛단배 타니 경쾌했습니다):

- ① 춘강(春江): 봄철의 강(물). 봄날의 강(물)

- ② 범경(帆輕): 돛단배 타니 경쾌하다.

☆범(帆): ‘돛’이란 뜻이나, 본 시에서는 전(轉)하여 ‘범선(帆船: 돛단배)’을 가리키는 의미로 쓰였다.

☆경(輕): ‘홀가분하다. 가볍하다. 경쾌하다’의 뜻으로 쓰였다.

4) 성은 연백발(聖恩憐白髮: 전하께선 은총 베푸셔 이 백발白髮 가엾게 여기셨고):

- ① 성은(聖恩): 제왕의 은총.

- ② 백발(白髮): 하얗게 센 머리털. 노년(老年: 늙은이. 늙은 나이)을 가리킨다.

5) 조의 진장생(朝議軫蒼生: 조정의 논의는 백성을 걱정하는 것이었습니다):

- ① 조의(朝議):

☆조정에서 의정(議政)함을 이르며,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조정의 결의.

- ② 진(軫):

☆마음 아파하다.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남에게 말 못할 괴로움.

- ③ 창생(蒼生): 백성을 가리킨다.
- 6) 제세 비무술(濟世非無術: 세상 구제하는데 계책 없는 것이 아닌데):
- ① 제세(濟世):
- ☆구세(救世)하다.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 ☆세인(世人)을 구조(救助)하다(돕다).
- ☆세상을 잘 다스려 백성을 구제하다.
- ② 술(術): 방법. 수단. 본 시에서는 ‘계책’의 뜻으로 쓰였다.
- 7) 경운 내유맹(耕雲奈有盟):
- ① 경운(耕雲): 경운조월(耕雲釣月: 구름을 일구고 달을 낚다): 속세에서 벗어나 강호에 숨어사는 은자의 생활을 묘사한 표현이다. 본 시에서는 은거를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 ② 내유맹(奈有盟): 어찌 맹약할 수 있으리까?
- ☆내(奈): 어찌. 어떻게.
- 8) 금조 무한의(今朝無限意: 지금 조정에서 끊임없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 ① 금조(今朝):
- ☆본조(本朝):
- a. 아조(我朝): 말하는 사람이 자기나라의 조정을 이르던 말. 본 시에서는 지금의 조정(朝廷)이란 뜻으로 쓰였다.
- b. 현존하는 왕조
- ☆오늘 새벽(아침).
- ☆금일(今日: 오늘).
- ② 무한(無限):
- ☆끝이 없다, 다함이 없다, 정도가 아주 심하거나 범위가 아주 넓음을 이르며,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 ☆제한이 없다. 절제(節制)를 더하지 않다.
- ☆‘무수(無數)’와 같은 말로서, 수량이 극히 많음을 이른다.
- ☆철학 용어로서, 시간이나 공간의 내부 부분이 ‘유한(有限)’함에 대하여 선천적인 공간이나 시간 그 자체를 이르는 말이다.
- 9) 부독 포리정(不獨抱離情: 사직辭職의 정서만 품고 있는 게 아니옵나):
- ① 부독(不獨): …뿐만 아니라. 단지 …뿐만 아니다.
- ② 포(抱): (생각, 의견을) 마음에 품다.
- ③ 이정(離情): 별리(別離: 이별)의 정서. 본 시에서는 ‘사직(辭職)하려는 의사’를 가리키는 말로 쓰였다.

시11. 탈상^{脫喪} 후에 처음으로 원지정사^{遠志精舍}에 나가보고 느낀 바 있어서

詩11. 免喪¹⁾後¹⁾ 始出²⁾遠志精舍²⁾ 有感³⁾
면상^{면 상 후} 후 시 출 원 지 정 사 유 감



來上⁴⁾林亭晚,
래 상 림 정 만

숲속 정자에 당도하자 날 저무는데,

秋深錦樹酣⁵⁾。
추 심 금 수 감

가을 깊어 비단 같은 숲은 추색^{秋色}이
절정일세.

清霜⁶⁾凋日夜,
청 상 조 일 야

찬 서리에 밤낮으로 시들고 지더니,

落葉滿西南。
낙 엽 만 서 남

낙엽이 온통 서남쪽 뜰에 널리 깔렸네.

碧水明丹壁⁷⁾,
벽 수 명 단 벽

푸른 강물에는 붉은 절벽이 뚜렷이 비치고,

歸雲間暮嵐⁸⁾。
귀 운 간 모 랴

구름은 떠가는데 날 저무니
남기^{嵐氣}가 깔리네.

江山非不好⁹⁾,
강 산 미 불 호

강산을 좋아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愁思自難堪¹⁰⁾。
수 사 자 난 감

근심 때문에 내 자신이 감내할 수 없네.

1) 면상후(免喪後 : 탈상 후에) :

- ① 면상(免喪) : 탈상(脫喪) : 상중(喪中)에 지키는 예절에서 상복(喪服)을 입는 기간이 끝나 상복을 벗다는 뜻으로 곧 삼년상을 마침을 이른다. 「서애연보(西厓年譜)」에 의하면, 1573년(계유년癸酉年 : 서애 32세) 7월에 부친의 상(喪)을 당했고 1575년(기해년己亥年 : 서애 34세 때)에 상복을 벗었다는 기록이 보인다. 또한 1576년(병자년丙子年 : 서애 35세) 1월에 ‘원지정사(遠志精舍)’가 완공되었다고 했다. 본 시의 시제(詩題)와 내용으로 보아, 작시 년대는 원지정사가 완성될 즈음인 늦은 가을쯤이 아닌가 추정된다.

2) 시출원지정사(始出遠志精舍 : 처음으로 원지정사에 나가보고) :

- ① 원지정사(遠志精舍) : 하회(河回) 원지정사(遠志精舍). 중요민속자료 85호 「서애연보(西厓年譜)」에 의하면, 이 정사(精舍)는 서애(西厓)가 32세 때(선조 6, 1573년)에 부친상을 당하여, 낙향해서, 은거할 때에 지은 건축물이다. 소재지는 경북 안동시 풍천면 하회리 712-1번지이다. 안동 하회마을은 풍산류씨(豊山柳氏)의 동족마을로 빼어난 자연경관과 민속·유교 전통을 잘 유지하고 있는 조선 시대 양반촌이다. 조선 선조 6년(1573)에 지었다고 하며, 북촌(北村)의 북쪽에 강을 향해 정사(精舍)와 누정(樓亭)인 연좌루(燕坐樓)가 자리 잡고 있다. 누(樓)마루 사방에는 난간을 둘렀으며 강가의 소나무 숲과 강 건너편 부용대(芙蓉臺), 옥연정사(玉淵精舍, 중요민속자료 제88호) 일대가 바라다 보인다. ‘원지(遠志)’라는 말은 송(宋)나라의 유학자(儒學者) 유의경(劉義慶 : 403~444)이 찬(撰)한 『세설신어(世說新語)』 하(下), 제25 배조(排調)에 나오는 말로서, “땅 속에 묻혀 있으면 원지(遠志 : 약초藥草 이름으로 예기풀의 뿌리)가 되고, 땅 위로 나오면 소초(小草 : 약초 ‘원지’의 싹)가 된다(處則爲遠志, 出則爲小草)”라고 한 대목에서 따온 것인데, 이 말의 표면적인 의미는 ‘땅속에 있는 뿌리는 원지(遠志)라 하고, 땅위로 나온 싹은 소초(小草)라고 한다’는 뜻이나, 심층적인 뜻은 원지(遠志)를 ‘은거(隱居)’에 비유하고 소초(小草)는 때가 아님에도 출사(出仕 : 벼슬하여 관청에 출근함)해서 ‘평범해 짐’에 비유한다. 즉 ‘은거하면 뜻이 고원(高遠)하지만, 출사(出仕)하면, 보잘 것 없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

3) 유감(有感) : 감명(인상·느낌) 등을 받다. 감수(感受)하다.

4) 래상 임정만(來上林亭晚 : 숲속 정자에 당도하자 날 저무는데 :

- ① 내상(來上) : ‘래(來)’의 결과보어로 쓰여, ‘래(來 : 오다)의 동작이 달성되거나 어떤 지점[林亭]에 도달하였음’을 나타낸다.
- ② 임정만(林亭晚) : 숲속 정자에 당도하자 날이 저물다.
 ☆임정(林亭) : 숲속의 정자. 곧 숲에 둘러싸인 원지정사(遠志精舍)를 말하는 것이다.
 ☆만(晚) :
 a. (해가) 저물다. 해질 무렵.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b. 늦은 밤. 깊은 밤.
 c. 노년(老年). 만년(晩年).

5) 추심 금수감(秋深錦樹酣 : 가을이 깊어 비단 같은 숲은 추색이 절정일제) :

- ① 추심(秋深) : 가을이 깊다.

② 금수(錦樹) : 비단에 수놓은 듯한 아름다운 수림(樹林).

☆금(錦) : ‘색채와 무늬가 아름다운 비단’이란 뜻이나, 본 시에서는 ‘색채가 선명하고 화려하다’는 뜻으로 쓰였으며, ‘추색(秋色)’이 짙은 수림의 모습을 비유한 말로 쓰였다.

③ 감(酣) :

☆한창(절정)이다. 사물발전의 격렬한 정도를 형용한 말로 쓰는데, 본 시에서는 추색이 짙은 것을 형용한 말이다.

☆시원하다. 맑고 상쾌하다. 후련하다.

6) 청상(淸霜) : 한상(寒霜) : 서리.

7) 벽수 명단벽(碧水明丹壁) : 푸른 강물에는 붉은 절벽이 뚜렷이 비치고 :

① 벽수(碧水) : 녹수(綠水). 질푸른 빛의 맑고 깊은 물.

② 단벽(丹壁) : 붉은 벼랑. 암벽(巖壁)을 형용한 말이다.

8) 귀운 간모람(歸雲間暮嵐) : 구름은 떠가는데 날 저무니 남기(嵐氣)가 깔리네) :

① 귀운(歸雲) : 행운(行雲) : 떠가는 구름. 지나가는 구름.

② 간모(間暮) : 저물녘. 해질 무렵. 황혼 무렵.

③ 람(嵐) : 남기(嵐氣 : 아내). 남기(아내)가 끼다(서리다).

9) 불호(不好) :

① 좋아하지 않다.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사기(史記) · 원앙조조열전(袁盎 *晁錯 *列傳)』에, “원앙(袁盎)은 원래부터 조조(晁錯)를 좋아하지 않았다(袁盎素不好晁錯). 그래서 조조가 있는 자리에서는 원앙이 자리를 뜨고, 원앙이 있는 자리에서는 조조도 마찬가지로 자리를 떴다(晁錯所居坐, 盎去, 盎坐, 錯亦去).”
고 한 구절이 있다.

*원앙(袁盎 : ?~BC 148) : 서한(西漢) 초(楚)나라 사람. 직간(直諫)을 잘해 이름이 조정에 알려졌다. 제상(齊相)과 오상(吳相)을 역임했다. 오왕(吳王 : 한고조漢高祖 유방劉邦의 조카)이 특히 그를 후대했다. 평소에도 조조(晁錯)와 사이가 좋지 않았다. 경제(景帝 : BC 188~BC 141년 성명은 유계劉啓이며, 문제文帝의 세 아들 중 둘째 아들. 중앙집권을 공고히 하였음)가 즉위하고 나서 조조가 어사대부(御史大夫 : 진한秦漢 시대에는 승상 다음의 중앙장관. 검찰과 법 집행을 관장하였음)로 등용되자, 원앙은 관리들을 시켜 조조가 오왕의 뇌물을 받아먹었다고 참소하여, 그를 서인(庶人)으로 만들었다. 조조의 이러한 삭번정책(削藩政策)으로 오·초(吳楚)가 반란을 일으키자, 황제에게 조조를 죽여 오나라에 사과하라는 건의를 하였다. 오초의 반란이 진압된 뒤에 초상(楚相)이 되고 싶어했으나 등용되지 못하다가 칭병(稱病)하고 사직했다. 훗날 양효왕(梁孝王 : 성명은 유무劉武. 한경제漢景帝의 동생)를 황제의 후사로 결정하는 일을 중지하라고 간언을 올렸다가 안릉(安陵 : 지금의 섬서성陝西省 함양시咸陽市 동북쪽)의 관문(郭門 : 외성外城의 문) 밖에서 양효왕이 보낸 자객의 손에 피살되었다.

*조조(晁錯 : BC 200~BC 154) : 서한(西漢) 영천(潁川), 지금의 하남성(河南省) 우현(禹縣) 사람. 신불해(申不害 : BC 385?~BC 337 : 전국시대 한韓 나라의 학자, 정치가, 사상가로 도가道家 사상을 바탕으로 한 형명학刑名學을 주장하였음)와 상앙(商鞅 : BC 390~BC 338 : 진秦나라의 정치가. 효공孝公 밑에서 법제 *전제田制 *세제稅制 등을 개혁하여 진秦의 제국帝國 성립의 기틀을 마련하였음)의 형명학

(刑名學)을 익혔다. 문제(文帝)때 문학으로 태상장고(太常掌故)에 임명되었다. 황명으로 진(秦)나라의 박사 복생(伏生 : BC 264~BC 170)에게 사사(師事)하여 『상서(尙書)』를 배웠다. 태자가령(太子家令)에 올라 태자(즉 경제景帝)의 신임을 받고 자낭(智囊)으로 불렸다. 훗날 중대부(中大夫)로 옮겼다. 흉노(匈奴)에 대한 대책으로 상소를 올렸는데, 백성을 변방으로 이주시켜 변방 수비를 강화하여 흉노의 침략을 억제하고, 제후의 왕권을 삭감하여 중앙조정을 공고히 할 것을 주장하였다. 경제가 즉위하고 내사(內史)에 임명되었다가 어사대부로 천직(遷職)되었다. 경제는 그의 의견을 받아들여 법령을 개정하고, 제후들의 지군(枝郡 : 군국郡國의 속군屬郡 : 여기서 말하는 ‘군국’은 ‘군郡’과 ‘국國’을 아울러 이르는 말임. 한초漢初에 봉건제도와 군현제郡縣制를 채택하여 천하를 군郡과 국國으로 분리했음. 군郡은 중앙에 직속하고 국國은 왕과 제후에게 분봉分封했는데, 왕에게 봉한 나라를 ‘제후국’이라 칭하였음)을 삭감하였다. 3년 전에 ‘오조7국(吳楚七國)’이 조조(晁錯)를 주살(誅殺)하여 “군주의 측근을 청경하게 한다(淸君側)”는 명분을 가지고 군대를 동원하여 반란을 일으켰었다. 그러다가 원앙(袁盎)에게 참소(讒訴)되어 조복(朝服)을 입은 채 시정(市井)에서 참수 당하였다.

- ② 편안하지(상쾌하지) 못하다. 병이 난 것을 가리키는 말임.
 - ③ 불편하다.
 - ④ …할 수 없다(불능不能의 뜻임).
- 10) 수사 자난감(愁思自難堪 : 근심 때문에 내 자신이 감내할 수 없네) :
- ① 수사(愁思) :
 - ☆우려(憂慮). 근심하거나 걱정함.
 - ☆우려하는 정서(情緒 : 생각. 기분).
 - ② 난감(難堪) :
 - ☆참기 어렵다. 감내할 수 없다.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 ☆웅색하다. 궁핍하다. 난처(곤란)하다. 곤혹스럽다.

시12. 풍기豐基의 객사에서 여우汝友 배삼익裴三益 공공을 유별留別하면서



詩12. 豐基客舍¹⁾ 留別裴汝友²⁾

병자년(丙子年: 1576년: 서애 35세) 여름에, 나는 사간원 헌납司諫院獻納에 임명되어 경성京城에 돌아가는 중이었다. 이 때 여우汝友 배삼익裴三益이 풍기군수였는데, 아침에 비가 오자 여우는 나를 객사에 머물게 했다. 오래지 않아 비가 그치고 날이 맑아졌다. 이에 출발하면서 농땡 삼아 시 한 수를 써서 여우 배삼익 군수께 드린다.

丙子夏, 余以獻納³⁾ 召還京。時汝友爲郡守, 朝雨, 汝友留余。
병자하 여이헌납 소환경 시여우위군수 조우 여우유여
既而⁴⁾ 雨晴, 乃發戲書⁵⁾。
기미우청 내발희서

臨分不厭酒杯深⁶⁾,
임분불엄주배심

작별할 때 싫지 않은 게
술잔 채운 술이오나,

脉脉都傷去住心⁷⁾。
맥맥도상거주심

묵묵히 바라보며 슬퍼하다
마음은 두고 갑니다.

山日向晴官道直⁸⁾,
산일향청관도직

산위에 해 떠서 날 맑고 큰 길엔
꽃말도 설치됐는데,

莫愁天際有輕陰⁹⁾。
막수천제유경음

하늘엔 얇은 구름 끼었으니
걱정하지 마소서.

1) 풍기객사(豊基客舍 : 풍기의 객사에서) :

- ① 풍기(豊基) : 경북 영주군(榮州郡)에 있는 지명. 신라때의 기복진(基木鎭)인데, 고려 초에 기주(基州)라 개칭하였다. 1018년(고려 현종 9)에 길주(吉州 : 안동)에 예속되었다가 1172년(고려 명종 2)에 감무(監務 : 고려 초기부터 조선 초기까지 군·郡·縣에 파견했던 지방관. 1413년 즉 조선 태종 13년에 현감縣監으로 개칭됨)를 두었는데, 후에 다시 안동으로 예속시켰다. 1390년(고려 공양왕 2)에 다시 감무를 두고 안동부(安東府)의 속현으로 삼았다가, 1413년(조선 태종 13)에는 기천(基川)으로 개칭하고 현감을 두었다. 문종(文宗)때 은풍현(殷豐縣)을 병합하여 풍기(豊基)라 하고 군(郡)으로 승격하였다가, 1914년 영주군에 병합하였다.

2) 유별배여우(留別裴汝友 : 여우汝友 배삼익裴三益 공공을 유별留別하면서) :

- ① 유별(留別) : 떠나는 사람이 남아 있는 사람에게 작별하다. 이 말의 반의어(反義語)는 ‘송별(送別)’로서, 이는 떠나는 사람을 이별하여 보내는 것을 말한다.
- ② 배여우(裴汝友) : 여우(汝友) 배삼익(裴三益) :

☆배삼익(裴三益 : 1534~1588) : 조선 중기의 문신. 본관은 흥해(興海), 자는 여우(汝友), 호는 임연재(臨淵齋)이다. 충좌위부사과(忠佐衛副司果) 천석(天錫)의 아들이다. 안동에서 세거(世居)하였으며 퇴계(退溪) 이황(李滉 : 1501~1570)의 문인이다. 1558년 생원(生員)이 되고, 1564년 식년문과(式年文科 : 자자, 오午, 묘卯, 유酉 등의 간지干支가 들어있는 해, 예를 들면, 갑자甲子, 병오丙午, 정묘丁卯, 계유癸酉년 등이며, 이 식년式年마다 보던 과거 중의 문과를 말함)에 병과(丙科 : 전시殿試에 합격한 사람을 그 성적에 따라 나눈 등급의 하나. 복시覆試에서 선발된 33인을 전사에서 다시 성적순으로 갑, 을, 병으로 나누는데 갑과甲科는 3명, 을과乙科는 7명, 병과丙科는 23명이었음. 병과에 합격한 자는 정9품의 품계를 줌)로 급제, 성균관의 학유(學諭 : 종9품관), 학록(學錄 : 성균관의 정9품 관직), 박사(博士 : 교수의 명칭. 정7품의 품계에 해당하는 직위였음)를 거쳐 호조좌랑(戶曹佐郎 : 육조六曹에 예속되어 있던 정5품 벼슬)이 되었다. 1575년(선조 8)에 성균관전적(成均館典籍 : 정6품 관직), 형조정랑(刑曹正郎 : 6조六曹에 속했던 정5품관직)이 제수(除授 : 천거에 의하지 않고 임금이 직접 벼슬을 내리던 일)되었으나 나아가지 않았고, 그 뒤 외직인 풍기군수(豊基郡守 : 종4품 벼슬)와 양양부사(襄陽副使 : 종4품 벼슬)를 지내고, 1583년 사헌부장령(司憲府掌令 : 감찰행정을 맡은 관청의 종4품 관직), 성균관사예(成均館司藝 : 음악을 지도하던 벼슬로 정9품 관직)를 지냈다. 뒤에 여러 번 자리를 옮겨 사간원정언(司諫院正言 : 간쟁諫爭, 논박論駁을 맡은 관청의 정6품 관직), 헌납 겸 춘추관 기주관(獻納兼春秋館記注官 : 사간원司諫院의 정5품 관직과 춘추관의 정5품 관직을 겸임했던 관직) 등을 역임하였다. 1585년 겨울, 승정원 동부승지 겸 경연참찬관(承政院同副承旨兼經筵參贊官 : 승정원의 정3품 관직 겸 임금에게 경적經籍과 사서史書를 강연하던 관직인 경연經筵의 정3품관을 겸직하던 관직)을 역임한 뒤 상호군(上護軍 : 5위五衛에 속해있던 정3품 무관. 이는 명예직으로 주는 경우가 많았음)이 되었다. 1587년 진사시(陳謝禮 : 사제謝禮의 임무를 띠고 파견하는 특사)로 명나라에 다녀왔고, 다음해 황해도에 흉년이 들자, 병이 났는데도 황해도 관찰사로 나아가 구황(救荒)에 힘쓰다가 병이 깊어져 사직하고 돌아오는 길에 타계했다. 저서에 시문집인 『임연재선생문집』

(臨淵齋先生文集)』 6권이 있다. 배삼익 공의 묘갈비명(墓碣碑銘)을 서애공이 찬(撰)했다.

- 3) 헌납(獻納): 시간원(司諫院)의 정5품 벼슬이다. 선생은 간관(諫官)으로서 각종 언론 활동을 전개하였다. 「서애연보(西厓年譜)」에 의하면, 병자년(丙子年: 1576년: 서애 35세)조항에, “4월에, 시간원 헌납(司諫院獻納)에 임명되어 조정에 소환되었다(四月, 拜司諫院獻納, 被召還朝).”고 하였다.

- 4) 기이(既而): 시간부사로서, ‘불구(不久)’와 같은 말이다.

- ① 시간적 간격이 많이 떨어져 있지 않은 시간을 가리킨다. 즉, (몇 시간, 몇 주, 몇 달 등 시간의 경과가) 얼마 밖에 되지 않다.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 ② 현재로부터 멀지 않은 장래를 가리킨다. ‘머지않아 곧’의 뜻이다.
- ③ 오래 ...할 수 없다.

- 5) 내발희서(乃發戲書): 이에 출발하면서 유홍삼아 쓰다.

- ① 내(乃): 접속사로 쓰여, ‘이에, 그래서’의 뜻이다.
- ② 희서(戲書):
☆농(弄)삼아 쓰다.
☆유홍삼아 쓰다.

- 6) 임분불염 주배심(臨分不厭酒杯深: 작별할 때 싫지 않은 게 술잔 채운 술이오나):

- ① 임분불염(臨分不厭): 작별할 때 싫지 않은 것

☆임분(臨分): 임별(臨別)과 같은 말로서, ‘이별에 임하다. 막 헤어지려 하다. 헤어지다’의 뜻이다.

☆불염(不厭):

- a. 싫어하지 않다. 꺼리지 않다. 혐오하지 않다.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 b. 부합하지 않다, 서로 맞지 않다.
- c. 불만족하다, 만족하지 못하다.

전국시대(戰國時代) 초(楚)나라의 정치가이자 시인인 굴원(屈原: BC 339~약 BC 278년)의 『초사(楚辭)·이소(離騷)』에, “모두 다 앞 다투어 나아갈 욕심을 내면서, 충만해도 여전히 만족하지 못하고 추구하네(衆皆競進以貪婪兮, 憑*不厭乎求索).”라고 읊은 구절이 있다.

*빙(憑): ‘만(滿: 충만하다)’의 뜻이다.

- d. 불복(不服)하다. 『한서(漢書)·경제기(景帝記)』에, “범죄사실이 의심스러운 옥사(獄事)가 많아지면, 설령 법률을 남용하여 사람을 엄벌에 처한다 할지라도 인심(人心)을 복종시킬 수는 없는 것이며, 사람들은 그 옥사를 대수롭지 않게 여길 것이다(諸疑獄*, 若雖文致*於法而於人心不厭者, 輒*獄之).”고 한 대목이 있다. 당(唐)나라의 학자 안사고(顏師古: 581~645)는 위 인 용문을 주석하면서 말하기를, “‘염(厭)’은 ‘복종하다’는 뜻이다(厭, 服也).”고 하였다.

*의옥(疑獄): 범죄사실이 의심스러운 옥사(獄事).

*문치(文致): 법률을 남용하여 처벌하다.

*첩(輒): 대수롭지 않게 여기다.

- ② 주배심(酒杯深): 술잔에 술을 가득 따르다. 술잔을 채운다는 것을 표현한 말이다.

☆주배(酒杯): 술잔.

☆심(深): 술잔에 술을 가득 따른 것을 표현한 말이다.

7) 맥맥도상 거주심(脉脉都傷去住心): 묵묵히 바라보며 슬퍼하다 떠나지만 마음은 두고 갑니다):

① 맥맥도상(脉脉都傷): 은근히 바라보는데 마음속엔 이미 이별로 인한 수심(愁心)이 솟구친다는 것을 표현한 말이다.

☆맥맥(脉脉): ‘맥맥(脈脈)’으로도 쓴다.

a. 정을 품고 서로 바라보다(含情相視貌). 중국 남조(南朝) 양(梁)나라의 소명태자(昭明太子) 소통(蕭統: 501~531)이 편집한 시문집인 『문선(文選)』 제29권의 「고시19수(古詩十九首)·견우성이 아득히 먼 하늘가에 떠 있는데(迢迢*牽牛星)」에, “맑고 앞은 은하수가 그 중간에 가로 흐르는데, 은근한 애정 품고 서로 바라볼 뿐 말 한마디 나눌 수 없네(盈盈*一水間, 脈脈*不得語).”라고 읊은 구절이 있다.(위의 인용시는 작자 미상임)

*초초(迢迢): 아주 먼 모양. 본 주석 이외의 자세한 뜻은 「시71」 주석7)의

① ‘초초(迢迢)’항목을 참조바람.

*영영(盈盈): 물이 맑고 맑은 모양(은하수를 가리킴).

b. 응시하는 모양, 서로 바라보는 모양.

c. 묵묵히 정을 나타내다, 은근히 정을 표시하다.

d. 묵묵(默默)히.

e. 끊임없이 이어진 모양.

☆도상(都傷): 이미 벌써 슬픔이 서리다.

a. 도(都): ④ 이미. 벌써.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⑥ 온통. 모두. 다.

b. 상(傷): 슬프다. 근심하다. 여기서는 이별로 인한 수심(愁心)을 말하는 것이다.

② 거주심(去住心): 몸은 떠나도 마음은 남겨두다. 즉 마음은 남겨두고 떠나다.

☆거(去): 몸은 떠나다.

☆주심(住心): 마음은 떠나지 않다, 남겨두다.

a. 주(住): ‘유(留: 머물다)’의 뜻이다.

8) 산일향청 관도직(山日向晴官道直): 산 위에 해 떠서 날 맑고 큰 길에 꽃말도 설치 된데다):

① 산일향청(山日向晴): 산위에 해가 뜨고 날이 맑다.

☆산일(山日): 산위에 해 뜨다. 본 시의 작시(作詩) 시점이 오전 중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본 시의 서문에서 보듯이 “아침에 비가 왔다(朝雨)”고 하였다.

☆향청(向晴): (날씨가) 방금 개다.

a. 향(向): 부사로서, ‘방금’의 뜻으로 쓰였다.

② 관도직(官道直): 관도에는 꽃말이 설치되어 있다.

*꽃말: 조선의 우역제도(郵驛制度: 郵驛은 길에서 전하는 것이고, 역驛은 말을 타고 전하는 것으로 고대부터 간급을 요하는 진명傳命에 한해 역마驛馬(각 역참驛站에 대기시켜 둔 말)를 이용하도록 했음)에 의하면, 1415년부터 6척(尺)을 1보(步)로, 360보를 1리(里)로, 30리를 1식(息)으로 하는 거리규정을 채택하여 각 도 및 각 역 간 거리를 확정했다. 이에 따라 돈화문(敦化門)을 기점으로 각 도정(道程)에 10리마다 작은 꽃말을, 30리마다 큰 꽃말을 세워 우역(郵驛) 착발기한의 기

준으로 삼았다.

(<http://tip.daum.net/question/59020661>)

☆관도(官道): 대로(大路). 큰 길. 즉, 관청에서 댄 큰 길로 국도(國道)를 칭하는 말이다.

☆직(直): ‘치(置)’와 통하며, ‘설치되다(하다)’의 뜻이다. 『묵자(墨子)·비제문(備梯門: 사다리 공격을 대비함)』 제56편에, “성벽 위에서 거문(裾門: 성 공격에 대비한 성 밖의 뜻말)이 보이도록 박은 표지를 설치해야한다(城希裾門而直桀).”고 하였다. 이 말에 대하여 청(淸)나라 학자 손이양(孫詒讓: 1848~1908년)은 그의 저서 『묵자문고(墨子問詁)』에서, 역시 청나라 학자 왕인지(王引之: 1766~1834년)의 말을 인용하여 말하기를, “‘직(直: 설치하다)’과 ‘치(置: 설치하다)’는 발음과 뜻이 같고(直與置同), ‘겉(桀: 말뚝을 박아 표시한 표지)’과 ‘갈(楊: 말뚝을 박아 표시한 표지)’은 발음과 뜻이 같다(桀與楊同). 그래서 위의 말은 ‘성벽 위의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성 밖에 거문(裾門)을 세워 말뚝을 박아 표시한 표지를 설치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 것이다(言城上之人望裾門而置楊也).’”고 하였다.

9) 막수천제 유경음(莫愁天際有經陰: 하늘엔 얇은 구름 끼었으니 걱정하지 마소서):

① 천제(天際): 천변(天邊): 하늘의 가장자리. 곧 ‘하늘’을 이르는 말로 쓰였다.

② 경음(輕陰): 담운(淡雲): 박운(薄雲): 얇게 낀 구름.



시13. 용궁현 龍宮縣 이미수 李眉叟의 집에 묵는데,
뜰 안에 관상할만한 매화나무 한 그루가
있어서

詩13. 宿龍宮李眉叟家¹⁾ 庭有梅花一株可玩
숙 룡 궁 이 미 수가 정 유 매 화 일 주 가 완

獨抱閒愁坐夜長²⁾,
독 포 한 수 좌 야 장

홀로 까닭모를 시름 안고
밤이 깊도록 앉아있는데,

悄無相問掩脩廊³⁾.
조 무 상 문 엄 수 낭

(집 주인은) 말없이 조용히
복도 쪽의 문을 닫아주네.

春風不斷簾旌動⁴⁾,
춘 풍 부 단 립 정 동

춘풍이 부단히 불자
발이 일렁대며 흔들리는데,

一樹寒梅晚自香⁵⁾.
일 수 한 매 만 자 향

한 그루 매화는 밤인데도
홀로 향기 풍기네.

1) 숙용궁이미수가(宿龍宮李眉叟家 : 용궁현龍宮縣 이미수李眉叟의 집에 묵는데) :

① 용궁(龍宮) : 경북 예천군(醴泉郡) 관내의 한 지명. 본래 신라의 축산현(竺山縣 : 원산현圓山縣)인데, 995년(고려 성종 14)에 용주(龍州)가 되면서, 자사(刺史)를 두었다가, 1005년(목종 8)에 군(郡)으로 강등되었다. 1012년(현종 3)에 용궁으로 고쳐 상주(尙州)에 속하였고, 1172년(명종 2)에 감무(監務)를 두었다. 1413년(조선 태종 13)에 현(縣)이 되었으며, 1895년(고종 32)에는 승격하여 군(郡)이 되었다가 1914년에 군을 폐하고 신하면(新下面)은 의성군(義城郡)에, 그 나머지는

예천군에 합하여 용궁면이 되었다.

- ② 이미수(李眉叟) : 본 시의 작가 서애(西厓) 류성룡(柳成龍 : 1542~1607)의 바로 밑의 누이동생이 여주(驪州) 이씨(李氏)로 시집을 가서, 그의 시가(嫗家)가 경북 예천군 관내인 용궁(龍宮)에 있다. 선생의 매부(妹夫)가 되는 이윤수(李潤壽) 공(公)의 자가 인수(仁叟)이고 호는 창암(滄菴)이다. 본 시의 시제(詩題)에 나오는 이미수(李眉叟)는 아마도 이윤수 공의 자인 인수(仁叟)의 오자(誤字)로 보인다. 이윤수 공은 여주(驪州) 이씨(李氏)로 용궁(龍宮) 무이리(武夷里) 입향조인 참의공파(參議公派)의 시조이다. 참의공파의 후대 종손인 이용옥(李鏞玉) 선생의 전언(傳言)에 의하면, 본인도 위의 시를 보았는데, 아무래도 시문 속의 이미수(李眉叟)는 이윤수(李潤壽) 공(公)의 자인 인수(仁叟)의 오자(誤字)인 것으로 생각된다고 하면서, 참의공파 족보에는 이미수(李眉叟)라는 인물이 없다고 하였다.

- 2) 독포한수 좌야장(獨抱閒愁坐夜長 : 홀로 까닭모를 시름 안고 밤이 길도록 앉아있는데) :

① 포(抱) : (생각, 의견을) 마음에 품다. (마음속에) 지니고 있다.

② 한수(閒愁) : 한수(閑愁)로도 씀.

☆이유 없이(까닭 없이) 젖어드는 의미 없는 근심과 걱정. 까닭모를 시름. 본 시에 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무단(無端)히 의미 없이 젖어드는 우수(憂愁).

③ 야장(夜長) : 밤이 길다. 삼야(深夜)가 됐음을 이른다.

☆장(長) : 시간이 오래 됐음을 가리키는 말로 쓰였다.

- 3) 초무상문 엄수랑(悄無相問掩脩廊 : <집 주인은> 조용히 복도 쪽의 문을 닫아주네) :

① 초무상문(悄無相問) : 남모르게 살짝기 기척도 없이 어떤 동작을 하는 것을 표현한 말이다.

☆초(悄) : 초연(悄然) : 남모르게. 살그머니.

a. 부사로 쓰여, ‘고요하고 소리가 없는 모양’을 형용하였다.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b. 부사로 쓰여, ‘근심걱정으로 괴로워하는 모양’을 형용하였다.

☆무상문(無相問) : 말이 없이. 묻지 않고.

a. 상문(相問) : 일정한 대상을 향해 질의(質疑)하다.

④ 상(相) : 한쪽에서 일정한 대상이 있는 쪽을 향해 동작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② 엄수랑(掩脩廊) : 복도 쪽 문을 닫다.

☆엄(掩) : (문을) 닫다.

☆수랑(脩廊) : 긴 복도.

a. 수(脩) : ‘장(長 : 길이가 같다)’의 뜻으로 쓰였다.

- 4) 염정동(簾旌動) : ‘발이 깃발처럼 펄럭이네’라는 뜻인데, ‘일렁대며 흔들거리다’로 번역한다.

① 렴(簾) : 발 : 가늘고 긴 대를 줄로 엮거나, 줄 따위를 여러 개 나란히 늘어뜨려 만든 물건으로, 주로 창문을 비롯한 무엇을 가리는데 쓴다.

② 정(旌) : 깃대위에 이우(犂牛 : 검정소)의 꼬리를 달고 이것을 새털로 장식한 기

(旗)이다. 범칭(泛稱) ‘깃발(즉, 기치旗幟)’의 뜻으로 쓰이는데, 본 시에서도 이 뜻으로 쓰였다.

5) 만자향(晩自香) : 밤인데도 홀로 향기 풍기다.

① 자(自) : 자기 혼자.

② 자향(自香) : 홀로 향기 풍기다.

시14. 조령^{鳥嶺}의 객점에 숙박하면서

詩14. 宿^숙鳥^조嶺^령村^촌店^점¹⁾



悄悄²⁾林風起,
조 조 림 풍 기

좌좌 수림 속에 쌀쌀한 바람 부는데,

泠泠³⁾溪響生。
영 영 계 향 생

졸졸 계곡에선 물소리 은은하게 들리네.

幽懷正迢遞⁴⁾,
유 회 정 조 제

가슴에 품은 생각은 참으로 곡절^{曲折}
많지만,

山月自分明⁵⁾.
산 월 자 분 명

산위에 뜬 달은 본래부터 뚜렷하게 밝으네.

浮世身如寄⁶⁾,
부 세 신 여 기

인생은 여행객이 잠시 머물렀다
가는 것 같은데,

殘年病轉嬰⁷⁾.
잔 년 병 전 영

늘그막에는 병치레 하느라 오히려
갓난애가 되어가네.

南來還北去,
남 래 환 북 거

남쪽에 왔다가 다시 북쪽으로 가는데,

簪笏愧虛名⁸⁾.
잠 홀 괴 허 명

관직이라니 과분한 명예가 부끄럽네.

1) 숙조령촌점(宿鳥嶺村店 : 조령의 객점에 숙박하면서) :

① 조령(鳥嶺) : 경북 문경군(聞慶郡) 문경읍과 충북 괴산군(槐山郡) 연풍면(延豊面)과의 경계에 있는 고개로, 높이 642m, ‘문경새재’라고도 한다. 소백산맥(小白山脈)의 조령산(940m)과 그 북쪽의 마폐봉(馬閉峯 : 940m)과의 안부(鞍部 : 산의 능선이 말안장 모양으로 움푹 들어간 부분)에 위치한다. 동쪽 사면(斜面)은 남쪽으로 흐르는 조령천(鳥嶺川)의 상류하곡(上流河谷 : 하천이 흐르기 시작하는 골짜기)으로 통하고, 서쪽사면은 남한강의 지류인 팔봉강(八峯江)의 하곡(河谷)으로 이어진다. 철도가 없던 옛날에 서울~부산 간의 주요도로는 대개 이 고개를 통하였고 동서 양편이 화강암의 절벽으로 되어 천연의 요새지를 이루었다. 따라서 조령에는 조선시대에 축성한 제1, 2, 3관문과 부속성벽으로 된 사적 제147호의 문경관문이 있다. 이 관문들은 임진왜란 이후 이곳에 중국의 산해관(山海關)과 같은 방위시설을 축조하기 위해 현지 실지측량이 시행되고, 1594년(선조 27) 영의정 류성룡(柳成龍 : 1542~1607)이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한 적도 있다. 그러나 충주 사람으로 수문장 출신인 신충원(辛忠元 : 생몰년 미상)이 조정의 결전에 앞서 조령에 머무르면서 단독으로 설관(設關)에 착수하여 이루어놓은 첫 번째 시설이 지금의 중성(中城)이다. 중성은 1708년(숙종 34)에 크게 증축되어 비로소 오늘날의 모습이 되었는데, 이것이 곧 제2관문이다. 숙종 때 제2관문에서 3km 떨어진 곳에 남적(南賊)을 방비할 제1관문을 세우고 초곡성(草谷城 : 주흥관主屹關)이라 하였다. 이것은 1890년대에 다시 증수하여 오늘에 이르렀다. 또 숙종 때 북적(北賊)을 막기 위해 고개 위에 조령산성을 쌓았다. 이것이 곧 제3관문으로 현재 경북과 충북의 경계를 이루는 조령고개에 위치한다. 제3관문은 육축(陸築)만 남겨놓은 채 불타버려, 1977년에 복원하였다. 이들 제1, 2, 3 관문은 양쪽 산의 골짜기, 즉 서편의 마폐산, 조령산을 연결하는 산릉(山陵)과 동편의 부봉(釜峯), 주흥산(主屹山)을 연결하는 능선 사이의 조령천 계곡에 위치하여, 관문 좌우의 성벽은 능선을 따라 우회한다. 동화원(桐華院)을 비롯하여 진(鎭)과 군창(軍倉) 터가 지금도 남아있고, 경성감사의 신임자·후임자가 서로 교인(交印)하였다는 교구정(交龜亭)의 터도 남아 있다. 옛날에는 우거진 송림과 특히 박달나무로 유명하였다. 조령에서 남쪽 약 7km 지점에 있는 이화령(梨花嶺)이 개통됨에 따라 새재는 사적지로 남게 되어 1981년 이 일대가 문경새재 도립공원으로 지정되었다.

② 촌점(村店) :

☆향촌(鄉村)의 객점(客店 : 예전에, 길손이 음식을 사 먹거나 쉬던 집. 여점旅店과 같은 말임).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향촌의 주점(酒店).

2) 초초(悄悄) :

- ① 쌀쌀한 바람이 ‘쇠쇄’ 부는 것을 형용한 말.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 ② 미한(微寒 : 약간 추운 추위)을 형용한 말.
- ③ 근심스러운 모양. 근심스럽다.
- ④ 조용(高요)하다. 적정(寂靜)한 모양.
- ⑤ 소리가 아주 가벼운 것을 형용한 말.

- ☆바람이 ‘술술’ 불다.
- ☆‘소곤소곤’ 이야기하다.
- ☆‘나작나작’ 말하다.
- ☆군사들이 ‘가만가만’ 적진을 향해 출전하다.

3) 영령(冷冷):

- ① 물소리, 바람소리, 거문고 소리, 목소리 따위가 맑고 은은한(시원한) 것을 형용한 말.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 ② 청량(淸涼: 상쾌함. 시원함.)한 모양, 쓸쓸(썰렁·적막·적적)한 모양.
- ③ 청렴결백한 모양.

4) 유희 정초체(幽懷正迢遞: 가슴 속 정감은 참으로 곡절 많지만):

- ① 유희(幽懷):
 - ☆내심에 간직된 정감.
 - ☆마음에 품은 생각.
- ② 정(正): 부사로 쓰여, ‘확실히. 실로. 참으로’ 등의 뜻이다.
- ③ 초체(迢遞):
 - ☆(심정이) 복잡한 곡절(曲折: 사연事緣)이 있는 모양.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 ☆고준(高峻)한 모양. 높고 험준한 모양. 까마득히 높은 모양.
 - ☆요원(遙遠)한 모양. 아득히 먼 모양.
 - ☆꼬불꼬불(구불구불)한 모양.
 - ☆(글의 문맥 따위가) 단조롭지 않은 모양.
 - ☆(노랫소리 등이) 구성진 모양. (말의 표현이) 은근한 모양. 완곡(婉曲)한 모양.
 - ☆시간이 장구(長久)한 모양.
 - ☆끊임없이 이어진 모양.

5) 산월 자분명(山月自分明: 산위에 뜬 달은 본래부터 뚜렷하게 밝으네):

- ① 산월(山月):
 - ☆산 위에 떠오른 달.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 ☆산과 달.
- ② 자(自): 부사로, ‘당연히. 자연히. 본래(원래). 처음부터’의 뜻으로 쓰이는데, 본 시에서는 ‘본래. 처음부터’의 뜻으로 쓰였다.
- ③ 분명(分明):
 - ☆(빛이) 밝다. 환하다.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 ☆명확하다. 분명하다.
 - ☆관명되다.

6) 부세 신여기(浮世身如寄: 인생은 여행객이 잠시 머물렀다 가는 것 같은데):

- ① 부세(浮世): 인간. 인세(人世: 인간세상). 덧없는 세상. 옛사람들은 인간세상이란 부침(浮沈: 흥망성쇠와 득실을 비유한 말)을 거듭하고, 이합집산(離合集散: 헤어졌다 모였다 하는 일)이 일정하지 않다고 생각했던 까닭에 일컬어진 말이다.
- ② 신여기(身如寄): 여행객이 잠시 머물렀다 가는 것과 같다.
 - ☆신(身): ‘육신’이라는 말인데, 본 시에서는 ‘여행객’을 가리키는 뜻으로 쓰였다.
 - ☆여기(如寄):

- a. 흡사 잠시 기거(寄居 : 남의 집에 얹혀 살. 타향에 임시로 살)하는 것 같다(시간이 매우 짧음을 비유한 말임).
- b. 『문선(文選) 제29권 · 고시 19수(古詩十九首) · 수레를 몰고 상동성문(上東城門)을 나서면서(驅車上東門)』에, “인생의 생존은 여행객이 홀연 머물렀다 가는 것 같아서(人生忽如寄), 수명이 금석처럼 견고하지 못하다네(壽無金石固)”라고 읊은 구절이 있다.
위 인용시에서 ‘상동문(上東門)’이란 말은 한 대(漢代)의 낙양성(洛陽城)에는 모두 12개의 성문이 있었는데, 동성(東城 : 동쪽 성)의 3문(三門 : 세 성문) 중에 가장 북쪽에 있는 성문을 “상동문(上東門)”이라고 하였다.
- c. 삼국시대 위(魏)나라 초대 황제인 문제(文帝 : 187~226년 : 성명은 조비曹丕 : 재위기간은 220~226년)의 시, 「선재행(善哉行)」에, “사람의 삶이 남의 집에 잠시 얹혀사는 것과 같을진대, 아무리 근심한들 무슨 소용 있으랴(人生如寄, 多憂何爲)!”라고 읊은 구절이 있다.

7) 잔년 병전영(殘年病轉嬰 : 늘그막에는 병치레 하느라 오히려 갓난애가 되어가네) :

① 잔년(殘年) :

☆여생(餘生) : 만년(晩年). 늘그막.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세모(歲暮 : 세밑). 한 해가 끝나갈 무렵.

② 전영(轉嬰) : 오히려 갓난아가 되다.

☆전(轉) : 부사로 쓰여, ‘오히려, 역으로, 점점, 더욱 더, 한층’의 뜻이다

☆영(嬰) : 영아(嬰兒). 갓 난 아기. 젖먹이.

8) 잠홀 과허명(簪笏愧虛名 : 관직이라니 과분한 명예가 부끄럽네) :

① 잠홀(簪笏) : 관잠(冠簪 : 관이 벗겨지지 않도록 관의 끈을 꿰어 머리에 꽂는 물건)과 수판(手版 : 手板 : 홀 : 天子이하 공경사대부公卿士大夫가 조복朝服을 입었을 때, 띠에 끼고 다니는 것. 옥, 상아象牙, 대나무 등으로 만들었음). 고대에 사환(仕宦 : 벼슬살이 함)이 쓰던 것인데, 관원(官員)이나 관직을 비유하는 말로 쓴다.

② 허명(虛名) :

☆실제와 부합되지 않는 명예, 헛된 명예. 본 시에서는 ‘과분한 명예’란 뜻으로 쓰였다.

☆실제적 내용이 없거나 실제적 내용에 부합되지 않는 명칭이나 명의(名義) 등.

☆공언(空言) : 허언(虛言). 거짓말. 쓸데없는 말.

시15. 한강에서 여인 汝仁 정곤수 鄭崑壽 공공을 유별 留別 하면서

詩15. 漢江留別鄭汝仁¹⁾
한 강 유 별 정 여 인



風雨歸時急²⁾,
풍 우 귀 시 급

비바람 몰아쳐도 귀향하는 때라
(마음) 절박하지만,

鶯花去後多³⁾.
앵 화 거 후 다

찌꺼리 울고 꽃 피는 봄 풍경은 제가
떠난 후 훨씬 고와지겠지요.

春江一相送⁴⁾,
춘 강 일 상 송

봄철의 강물은 한결같이
심사心事를 풀어주는데,

世道復如何⁵⁾.
세 도 부 여 하

세상을 살아가는 길은 또 어떨는지요?

1) 한강유별정여인(漢江留別鄭汝仁 : 한강에서 여인 汝仁 정곤수 鄭崑壽 공공을 유별 留別하면서) :

① 유별(留別) : 떠나는 사람이 남아있는 사람에게 작별함. 떠나는 사람을 이별하여 보내는 ‘송별(送別)’과 상반되는 용어임.

② 정여인(鄭汝仁) : 여인(汝仁) 정곤수(鄭崑壽) :

☆정곤수(鄭崑壽 : 1538~1602) : 조선 중기의 문신. 본관은 청주(淸州). 초명은 규(逵), 자는 여인(汝仁), 호는 백곡(栢谷) · 경음(慶陰) · 조은(朝隱)이며, ‘곤수(崑壽)’는 선조의 하사명(下賜名)이다. 성주(星州)에 향촌적 기반을 두고 있었다. 아버지는 부사맹(副司猛 : 조선시대 오위五衛 〈조선시대 중앙군사조직〉의 종8

품 무관직) 사중(思中)이며, 어머니는 부사과(副司果 : 조선시대 오위의 종6품 무관직) 정희수(鄭希壽)의 딸이다. 큰아버지인 대호군(大護軍 : 조선시대 오위五衛에 속했던 종3품의 무관직) 승문(承門)에게 양자로 들어갔다. 1565년(명종 20) 예안도산정사(陶山精舍)로 이황(李滉 : 1501~1570)을 찾아가 『심경(心經)』을 전수(傳受) 받았다. 그 이후로도 관계를 지속하여 1566년에는 김광필(金宏弼 : 1454~1501)의 사적(史跡)·시문(詩文)과 그에 관한 다른 선비들의 글을 모아 이황에게 보내기도 하였으며, 이황은 주로 그것들을 바탕으로 『경현록(景賢錄)』을 편찬하였다. 1555년 별거초시(別舉初試)를 거쳐 1567년(선조 즉위년)에 진사시(進士試)에 합격하였다. 1572년 성균관의 천거를 받아 의금부 도사(義禁府都事 : 국왕의 명에 따라 중죄인을 심문하던 특별 사법기관의 종5품 관직)가 됨으로써 관로(官路)에 들어섰다. 그 이후 경력(經歷 : 조선시대 각 부부에서 실제적 사무를 맡아보던 종4품 벼슬)은, 전생서 직장(典牲署直長 : 궁중의 제향祭享·빈례賓禮·사여賜典에 쓸 가축을 기르는 일을 맡아보던 관청의 종7품 관직), 주부(主簿 : 각 아문(衙門 : 관아의 출입문)의 문서와 부적符籍을 주관하던 종6품 관직), 장례원 사평(掌隸院司評 : 조선시대 공·사노비 소송을 담당하던 관청의 정6품 관직)을 역임하였다. 1576년 중시문과(重試文科 : 당하관 이하의 문무관에게 10년마다 한 번씩 보이던 시험)에 갑과(甲科 : 과거 합격자를 성적에 따라 나누던 세 등급 가운데 첫째 등급)로 급제하였고, 부사과(副司果)를 거쳐 1577년에 공주목사(公州牧使)로 승진하였다가 곧 상주목사(尙州牧使)로 옮겼다. 1581년 사과(司果 : 오위五衛에 속한 정6품 관직), 파주목사(坡州牧使), 1583년 부호군 겸 오위장(副護軍兼五衛長 : 오위五衛를 총괄하던 최고 군령기관인 오위도총부五衛都摠府의 종4품 무관직 겸 오위장(五衛長 : 오위의 최고관직. 종2품))을 거쳐 강원도관찰사(江原道觀察使 : 강원도 지방장관. 종2품)가 되었으며, 이 때 단종(端宗)의 능인 영월의 노릉(魯陵)에 사묘(祠廟)를 세우고 위판(位版)을 봉안하였다. 1585년 첨지 중추부사(僉知中樞府事 : 조선시대 중추부(中樞府 : 현직이 없는 당상관들을 속하게 하여 대우하던 관아)의 정3품 관직), 동부승지(同副承旨 : 승정원承政院의 여섯 승지의 하나. 공방工房의 일을 맡아보던 승지), 우부승지(右副承旨 : 승정원(承政院 : 왕명의 출납을 관장하던 관청)의 정3품 관직), 1586년 상호군(上護軍 : 오위五衛의 정3품 관직), 호조참의(戶曹參議 : 호조의 정3품 당상관 관직), 좌부승지(左副承旨 : 중추부中樞府의 정3품 관직), 우승지(右承旨 : 승정원의 정3품 관직)를 역임하고, 1587년에는 여러 해 흉년을 겪은 황해도의 관찰사로 특별히 임명되어 진휼사업에 큰 성과를 거두었다. 그리고 돌아와서 세습으로 서천군(西川君)에 봉해지고, 병·형조참판(兵刑曹參判)을 지냈다. 1592년 임진왜란 때 선조를 모시고 서행(西行)하고 청병진주사(請丙陳奏使)로 명나라에 들어가 청병에 성공하고 귀국하여 판돈녕부사(判敦寧府事 : 돈녕부敦寧府의 종1품 관직)에 올랐다. 명나라의 경략(經略 : 경략사(經略使 : 어느 한 지역의 군사적 업무를 총괄하여 관장하던 중신重臣으로 직위는 총독總督의 위였음)) 송응창(宋應昌 : 1536~1606 : 자는 시상時祥, 호는 동강桐岡))이 오게 되자 영위사(迎慰使)로 그를 맞았으며, 평양에 가서 제독(提督) 이여송(李如松 : ?~1598 : 자는 자무子茂)을 만나 빨리 서울을 수복하도록 청하는 등 많은 공로를 세우고 예조판서(禮曹判書 : 예조의 최고 관직, 정2품)가 되었다. 1596년(선조 29) 의정부 좌찬성(議政府左贊成 : 백관百官의 통솔과

서정庶政을 총괄하던 최고의 행정정부 기관의 중1품 관직)으로 있다가 타계하였다. 뒤에 훈(勳) 1등 호성공신(扈聖功臣) 영의정(領議政)이 추증되었다. 시호는 충익(忠翼)이다. 성주(星州)의 유계서원(柳溪書院)에 제향(祭享)되었다. 저서로 『백곡집(栢谷集)』 4권 4책이 규장각도서에 전한다.

- 2) 풍우 귀시급(風雨歸時急): 비바람 몰아쳐도 귀향하는 때다 <마음> 절박하지만):
 - ① 풍우(風雨):
 - ☆바람 불고 비오다.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열악한 처지를 비유한 뜻도 내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 ☆바람과 비.
 - ☆위태롭고 열악한 처지를 비유한 말.
 - ② 귀(歸): 귀환하다. 돌아오다. 본 시에서는 서애가 귀향하는 것을 가리키는 뜻으로 쓰였다.
 - ③ 급(急): 절박하다. 급박하다. 다급하다. 급히 필요하다.
- 3) 앵화 거후다(鶯花去後多: 피꼬리 울고 꽃 피는 봄 풍경도 제가 떠난 후 훨씬 고와지겠지요.):
 - ① 앵화(鶯花): 앵화(鶯花)로도 쓴다.
 - ☆피꼬리 울고 꽃이 피다. 일반적으로 춘일경색(春日景色)을 가리키는 말로 많이 쓴다. 본 시에는 이 뜻으로 쓰였다.
 - ☆전(轉)하여 기녀(妓女)를 비유한 말로도 쓴다.
 - ② 거후(去後): 이후(以後). 본 시에서는 서애가 ‘한양(漢陽)을 떠난 이후’를 가리키는 말로 쓰였다.
 - ③ 다(多): 낫다, 우수하다. 빼어나다, 걸출하다. 『예기(禮記)·단궁(檀弓) 상(上)』에, “증자가 듣고 말하기를(曾子聞之曰), 내가 말한 출조 <出祖: 조상의 장례를 치르면서, 상주喪主가 외출시에 노신路神에게 지내는 노제路祭를 이름>의 설보다 훨씬 낫구나(多矣乎, 予出祖者).”라고 한 대목이 있다. 본 시에서는 ‘훨씬 곱다’는 것을 가리키는 뜻으로 쓰였다.
- 4) 일상송(一相松): 한결같이 심사를 풀어주다.
 - ① 일(一): 부사로서 ‘똑같이. 한결같이. 언제나’의 뜻으로 쓰였다.
 - ② 상송(相送): 심사(心思)를 풀어주다.
 - ☆상(相):
 - a. 부사로 쓰여, 동사 앞에서 한쪽이 다른 한쪽에 대하여, 행하는 동작을 표시한다(이 때는 ‘서로’란 뜻으로 해석하지 않음).
 - b. 현대중국어에는 ‘좋은 말로 권하다(好言相勸)’는 말이 있다.
 - c. 『사기(史記)·노중연·추양열전(魯仲連鄒陽列傳)』에도, “신은 ‘명월주와 야광벽을 들고 있다가(臣聞明月之珠, 夜光之璧)’,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던지면, 사람들 중에는 칼을 잡고 노려보지 않을 사람이 없다(以闇投人於道路, 人無不按劍相眄者).”고 한 대목이 있다.
 - ☆송(送):
 - a. 심사(心思)를 풀어주다. 배견(排遣: 소견消遣)하다. 걱정을 없애다.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청(靑)나라 문인 주량공(周亮工: 1612~1672)의 시, 「청장수 <淸漳水: 漳河江의 상류>에서, 세밀에 술 한 말을 마시면서

왕승시 <王勝時 : 생몰년미상>의 생일을 축하하다(淸漳歲暮王勝時誕日酌大斗.)에, “매화가 조그마한 누각 뜰에 아름답게 피었는데(寒梅撐*小閣), 탁주 한 사발 마시며 만년의 심사心思 해소하네(濁酒送殘年)”라고 읊은 구절이 있다.

*탱(撐) : 아름답다. 보기 좋다. 미려(美麗)하다.

b. 보내다. 지나가다.

c. 송별하다.

5) 세도 부여하(世道復如何 : 세상을 살아가는 길은 또 어떨런고?) :

① 세도(世道) :

☆세상을 살아가는 길, 인간세상(이 세상)의 길. 혼란스럽고 변화 많은 사회상황을 가리키는 말이다(이 뜻으로 쓸 때는 ‘세로世路’와 같은 뜻임).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세간(世間). 사회.

☆사회도덕 풍조.

② 부(復) : 부사로, ‘다시. 또’의 뜻이다.

③ 여하(如何) : 의문대명사로 ‘어떠한가, 어떠한’의 뜻으로 쓰였다.

시16. 강촌江村에서 와병臥病 중에 피리소리가 들려서

詩16. 卧病江村¹⁾聞笛
와 병 강 촌 문 직



西風昨夜動林臯,²⁾
서 풍 작 야 동 림 고

간밤에는 추풍 불어
강변 수림樹林 흔들더니,

病裏光陰屬二毛³⁾。
병 리 광 음 속 이 모

와병 중에도 세월 흘러
머리가 반백 됐네.

鐵笛聲中有秋思,⁴⁾
철 직 성 중 유 추 사

피리소리에 가을의 처량한 정서 묻어나고,

楚天寥沍月輪高⁵⁾。
조 천 요 월 륜 고

남쪽 하늘 광활한데 둥근 달이 높이 떴네.

1) 와병강촌(臥病江村 : 강촌에서 와병 중에) :

① 와병(臥病) : 병으로 자리에 누움. 또는 병을 앓고 있음.

② 강촌(江村) : 강가에 있는 마을. 본 시에서는 ‘하화마을’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2) 서풍작야 동림고(西風昨夜動林臯 : 간밤에는 추풍 불어 강변수림 흔들더니) :

① 서풍작야(西風昨夜) : 간밤에 추풍이 불다.

☆서풍(西風) : 가을바람.

☆작야(昨夜) : 어젯밤. 지난 밤. 간밤.

② 임고(林臯) : ‘임고(林臯)’로도 쓴다. 이 말의 출전(出典)은 『장자(莊子)·지북유(知北遊)』의 “산림이여! 원야原野여! 나를 기쁘고 즐겁게 하는구나(山林與, 臯壤與*, 使我欣欣然而樂與)!”라고 한 구절에 있다. 훗날 사람들은 이 문장에 나

오는 “임고(林臯)”란 말을 답습하여, ‘산림이 우거진 호수가의 토지(山林臯壤)’ 또는 ‘수림이 우거진 강변(樹林水岸)’을 가리키는 말로 썼다. 본 시에서는 ‘수림 우거진 강기슭’이란 말로 번역한다.

*고양여(臯壤與): 물가[수변水邊]의 토지여!

a. 고양(臯壤): 강이나 호수가의 토지. ‘소택(沼澤: 늪. 못.)’ 또는 ‘안(岸: 바다 나 강가의 둔덕 진 곳. 기슭)’의 뜻으로 쓴다.

b. 여(與): 감탄어기사로 쓰였다.

3) 병리광음 속이모(病裏光陰屬二毛: 와병 중에도 세월 흘러 머리가 반백 됐네):

① 병리(病裏): 와병 중에.

② 광음(光陰):

☆시간, 세월.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동사로 쓰여, ‘세월이 흐르다’는 뜻이다.

☆경치, 광경, 모습.

☆광택, 빛깔, 윤기.

③ 속(屬): 본 시에서는 동사로서, ‘…이다’는 뜻으로 쓰였다. 시구(詩句)의 의미상, ‘…이 되다’는 말로 해석한다.

④ 이모(二毛):

☆반백(斑白: 흰색과 검은색이 반반 정도)의 두발. 나이가 비교적 많은 늙은 사람을 가리키는 말로 상용한다.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서진(西晉)의 문인 반약(潘岳: 247~300)의 「추흥부서(秋興賦序)」에, “내 나 이 서른두 살에, 흰머리카락이 보이기 시작했다(余春秋三十有二, 始見二毛).”고 한 대목이 있다. 그래서 후세 사람들은 이 “이모(二毛)”라는 말을 가지고 ‘30여 세의 나이’를 가리키는 말로 쓰기도 했다.

4) 철적성중 유추사(鐵笛聲中有秋思: 피리소리에 가을의 처량한 정서 묻어나는데):

① 철적(鐵笛): 쇠로 만든 피리. 전하는 바에 의하면, 은자(隱者)나 고사(高士: 산 속에 숨어 살며 세속에 물들지 않는 덕망 있는 선비)가 이 피리를 잘 부는데, 그 음향이 매우 비범하다고 한다.

② 추사(秋思): 가을철의 적막하고 처량한 생각(정서. 기분).

5) 초천요혈 월륜고(楚天寥泬月輪高: 남쪽 하늘 광활한데 둥근 달이 높이 떴네):

① 초천(楚天): 남방 초(楚)나라의 하늘[창공]. 남쪽 하늘을 가리키는 말로 쓰였다.

② 요혈(寥泬):

☆광활하고 청명하다.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적적하고 쓸쓸하다. 외롭고 쓸쓸하다.

☆하늘. 창공을 가리킨다.

③ 월륜(月輪):

☆둥근 달. 일반적으로 ‘달’을 가리킨다.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보름 달 같이 둥근 형태의 물건을 비유한 말로 쓴다.

시17. 이 후백 李後白 판서 判書께서 종계
진주사 宗系陳奏使로 북경에 가시기에
삼가 드리다

詩17. 奉贈李判書後白¹⁾ 以宗系陳奏使赴京²⁾
봉 증 이 판 서 후 백 이 종 계 진 주 사 부 경



謁帝申冤事不輕,³⁾
알 제 신 원 사 불 경

명명 황제 알현하여 하소연하는 일 쉽지
않을 터인데,

三年公復向西行⁴⁾。
삼 년 공 부 향 서 행

삼년 만에 공께서 또 서행西行 하시네요.

王尊爲國寧辭險⁵⁾，
왕 준 위 국 영 사 험

(한·漢나라 충신) 왕준王尊 같이 나라 위한
일에 어찌 위험을 피하리이까?

季札觀周舊著名⁶⁾。
계 찰 관 주 구 저 명

(오랫나라 공자公子) 계찰季札이 주악周樂
감상으로 열국列國의 흥망을 간파해서
명성 누렸듯이 저명해 지리이다.

高義半生傾海域⁷⁾，
고 의 반 생 경 해 역

고상한 정의로 반평생 조선에서 최선을
다하셨으니,

丹忠一日動天庭⁸⁾。
단 충 일 일 동 천 경

참된 충성으로 일시에 명나라 조정을
감동시키소서.

相思最是烏蠻夜⁹⁾,
상 사 최 시 오 만 야

가장 그리운 것은 오만烏蠻이 세운
왕국이실 텐데,

繞館烟花月正明¹⁰⁾.
요 관 연 화 월 정 명

(존공이 머물) 빈관賓館 주변에도
아름다운 봄꽃 피고 달도 밝으리이다.

1) 봉증이판서후백(奉贈李判書後白 : 이후백 판사께 삼가 드리다) :

① 봉증(奉贈) : 드리다. 증여하다. 진헌(進獻)하다. 봉헌(奉獻)하다.

☆봉(奉) : 공경의 뜻이 내포된 의미로서의 ‘주다’는 뜻이다. 이후백(李後白) 판서가 서애(西厓)보다 스물두 살 연장자일 뿐만 아니라, 당시에 서애보다 직급도 높았기에 쓴 어투이다. 1573년 이후백 판서가 변무사(辨誣使)로 명나라에 갈 때 서애는 32세의 나이였다.

② 이판서 후백(李判書後白) : 이후백(李後白) 판서(判書). 이(李)는 성씨이고, 판서(判書)는 직함이며, 후백(後白)은 이름이다. 이렇게 성씨 다음에 직함을 쓰고 그 뒤에 이름을 쓴 것은 경칭(敬稱)의 한 예(例)이다.

☆이후백(李後白 : 1520~1578년) : 조선 중기의 문신. 본관은 연안(延安), 자는 계진(季眞), 호는 청련(靑蓮)이다. 관찰사 숙환(淑環)의 증손으로, 현감 원례(元禮)의 손자이며 국형(國衡)의 아들이다. 또한 서애선생 조모(祖母)의 종질(從姪)이기도 하다. 1535년(중종 30) 향시(鄕試)에 장원(壯元)하고 곧 상경하여 의중(宜中) 이의건(李義健 : 1533~1621) · 고죽(孤竹) 최경창(崔慶昌 : 1539~1583) · 옥봉(玉峯) 백광훈(白光勳 : 1537~1582) 등에게서 배웠다. 1546년(명종 1) 사마시(司馬試 : 일명 생진과生進科 : 진사進士와 생원生員을 뽑는 소과小科를 말함)에 합격하고, 1555년 식년문과(式年文科 : 자자 · 오午 · 묘卯 · 유酉 등의 간지干支가 들어가는 해에 치르던 문과과거를 말함)에 병과(兵科 : 전시殿試에 합격한 사람을 그 성적에 따라 나눈 등급의 하나. 복시覆試에서 선발된 33인을 전시에서 다시 성적순으로 갑甲 · 을乙 · 병丙으로 나누는데, 병과에 합격된 자는 정9품의 품계를 주며, 성균관 · 승문원의 관지權知[임시직]에 임명함)로 급제하여 승문원 주서(承文院 注書 : 사대교린事大交隣에 관한 문서를 맡아보던 기관의 정7품관)를 거쳐, 1558년 승문원 박사博士(교수의 임무를 맡게 하였으며 정7품 관직)로 사가독서(賜暇讀書 : 학자 양성의 방법으로 군신 중에 나이가 적고 충민한 자를 뽑아 교대로 휴가를 주어 산사山寺에 들어가 연구에 전심하도록 하는 독서제도) 하였다. 그 뒤 전한(典翰 : 홍문관弘文館에 소속된 종3품관)이 되고, 이어 시강원 설서(侍講院說書 : 세자世子에게 경사經史와 도의를 가르치는 정7품관직) · 사서(司書 : 세자 시강원世子侍講院의 정6품 관직) · 정언(正言 : 간쟁諫爭, 논박論駁을 주관하던 관청인 사간원司諫院에 소속된 정6품 관직) · 사간(司諫 : 임금의 잘못을 간諫하고 논박하는 직무를 수행한 종3품 관직) · 병조좌랑(兵曹佐郎 : 병조의 정5품 벼슬) · 이조정랑(吏曹正郎 : 이조吏曹의 정5품 벼슬) 등을 역임했다. 1567년(선조 즉위년) 원접사(遠接使)의 종사관(從事官 : 임시 벼슬로 당하堂下문관이며, 직권은 서장관 書狀官 : 본직本職

은 대간臺諫으로 정부사正副使의 사명使命 수행을 감찰하는 대관臺官이기도 함)과 같음)이 되어 명나라 사신을 맞았고, 그 해에 동부승지(同副承旨 : 승정원承政院에 소속된 정3품 관직. 공방工房의 일을 맡아 보았음)에 발탁되었으며, 이어 대사간(大司諫 : 사간원司諫院의 최고직으로 정3품 벼슬임)·병조참의(兵曹參議 : 병조의 정3품 벼슬임)를 거쳐 도승지(都承旨 : 왕명의 출납을 맡아보는 승정원의 으뜸벼슬로 정3품관임)를 역임하였다. 1569(선조 2년)년에는 이후백이 정사(正使)가 되어 연경(燕京)에 가다. 이때 서애선생이 28세의 나이로 성절사 서장관 겸 사헌부 감찰(聖節使書狀官兼司憲府監察)로 따라갔다.(서애연보에 의한 역자 주석 추가) 1571년 예조참의(禮曹參議)·이조참판(吏曹參判 : 이조吏曹 소속의 당상관으로 판서 다음이며 종2품 벼슬임)을 역임했으며, 1573년 변무사(辨誣使 : 중국에 보내던 사신으로 조선을 곡해曲解하는 일이 생길 때, 이를 변호, 해명하기 위해 보내던 외교관)로 명나라에 다녀왔다. 1574년 형조판서(刑曹判書 : 형조의 으뜸벼슬로 정2품관직임)가 되고 다음 해 평안도관찰사(平安道觀察使)가 되어 선정을 베풀었다. 그 뒤 이조판서(吏曹判書)와 양관(兩館 : 홍문관弘文館과 예문관藝文館을 아울러 이르는 말)의 제학(提學 : 종2품 벼슬)을 지내고, 호조판서(戶曹判書)로 있을 때에 휴가를 얻어 함안(咸安 : 경남 중남부에 위치함)에 성묘를 갔다가 그곳에서 타계하였다. 청백리(清白吏)에 선발 기록되었고, 앞서 종계변무(宗系辨誣)의 공으로 1590년 광국공신(光國功臣) 2등으로 연양군(延陽君)에 추봉되었다. 문장이 뛰어나고 덕망이 높아 사림(士林 : 유림儒林)의 추앙을 받았다. 함안의 문회서원(文會書院)에 제향(祭享)되었고, 저서로는 『청련집(靑蓮集)』이 있다. 시호는 문청(文淸)이다. 앞의 「시7」 주석1)의 ① ‘이후백(李後白)’ 조항 참조 바람.

2) 이종계진주사부경(以宗系陳奏使赴京 : 종계진주사로 북경에 가시다) :

- ① 증계(宗系) : 종계변무(宗系辨誣) : 조선건국 초기부터 선조 때까지 200여년 간 명나라에 잘못 기록된 태조 이성계(李成桂 : 1335~1408 : 조선 태조)의 세계(世系 :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계통)를 시정해 달라고 주청하였던 사건. 고려말 1390년(공양왕 2) 이성계의 정적이던 윤이(尹穉 : 생물년 미상)와 이초(李初 : 생물년 미상)가 명나라로 도망가서 이성계를 타도하려는 목적으로, 공양왕이 고려왕실의 후손이 아니고 이성계의 인척이며 같이 공모하여 명나라를 치려고 한다면서, 이성계의 가계(家系)에 관하여 고려의 권신(權臣) 이인임(李仁任 : ?~1388)의 후손이라고 한 일이 있었다. 그 뒤 명나라는 이 이야기를 믿고, 그 내용을 명나라의 『태조실록』과 『대명회전(大明會典 : 명대의 전장제도典章制度和 행정법규의 기재)를 위주로 조정에서 편집·수정한 사서史書이자 법전法典』에 그대로 기록하였다. 조선측에서 이러한 종계(宗系 : 종가의 혈통)의 기록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은 1394년(태조 3) 4월 명나라 사신이 와서 조선의 연해민이 해구활동을 하고 있다고 항의하며 그들의 압송을 요구하는 항의문에 “고려의 중신重臣(高麗陪臣) 이인임李仁任의 후계자(李仁任之嗣)인 성계(成桂 : 등국이전의 이름)의 현재 이름은 ‘단(旦 : 등국 이후의 이름)’이란 자로서 운운……(成桂今名旦者云云……)”이라고 한 것으로부터였다. 조선 태조에 관한 종계오기(宗系誤記)는 표면적으로 명나라와는 무관한 일이었지만 건국 직후의 조선으로서는 왕통의 합법성이나 왕권 확립에 매우 중요한 문제였다. 그러나 명나라에서는 종계문제를 계기로 이성계를

무시하고 의심하였을 뿐 아니라, 종계오기를 빌미로 조선을 복속시키려고까지 하였다. 더구나 이인임은 우왕(禇王: 1365~1389: 고려 제32대 왕) 때의 권신(權臣)으로 이성계의 정적이었는데, 이성계가 그의 후사라는 것은 가장 모욕적인 말로서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사항이었다. 그리하여 이 문제는 이후 양국 간에 매우 심각한 외교문제가 되었다. 그래서 조선 측에서는 그 해 6월 명나라의 사신 황영기(黃永奇: 생몰년 미상)의 귀국편에 변명주문(辨明奏文)을 지어 사실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여 보냈다. 그 내용은 태조 이성계의 가계 22대를 간략하게 기록하고, 태조 즉위의 정당한 이유에 대하여 밝히면서, 이인임의 불법적인 행위를 상세히 알렸다. 그러나 명나라에서는 별다른 반응이 없었고, 1402년(태종 2) 1월 성절사 장온(張溫: 생몰년 미상)의 귀국복명 속에 명태조의 유훈 가운데 조선왕의 가계는 이인임의 후손이라고 기록되어 있다고 하여 지난번의 변명이 헛되었음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조선에서는 곧 사신을 파견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당시 명나라는 2대 건문제(建文帝: 명혜제明惠帝: 1377~1402)와 3대 성조(成祖: 1360~1424) 사이에 황제위의 계승문제로 내란 중에 있었으므로 변무(辨誣)의 시기가 적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던 중 이듬해 4월 고명(誥命)과 인신(印信)의 문제가 해결되고, 이어 10월에 면복(冕服) 등을 받아와 명나라와의 관계가 안정되자 조선은 11월에 사은사 임빈(林彬: 생몰년 미상)을 파견하였는데, 그때에 종계변무의 임무를 겸하도록 하였다. 주청문(奏請文)에는 그동안 명나라와의 사이에 내왕한 문서와 태조의 가계를 자세히 기록하고, 태조가 이인임과 같은 이씨가 아님을 밝히기 위하여 이인임의 가계까지 상세하게 기록하여 추가로 보냈다. 그러나 명나라로부터는 명태조의 유훈(遺訓)이 『대명회전(大明會典)』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하면서, 『만력회전(萬曆會典: 만력년간: 1573~1619년)』에 편찬된 『대명회전』 중 수본에서 변명사실을 부기하는 데 그치고 말았다. 그리하여 종계변무는 이 후 근 200년간이나 양국관계에서 외교문제가 되었고, 중종 때 반정의 합법성을 강조할 때에도, 다시 심각하게 대두되었다. 즉 1518년(중종 13) 주청사(奏請使) 이계맹(李繼孟: 1458~1523)이 돌아와 『대명회전』 조선국조(朝鮮國條)의 주(註)에 이인임과 그의 아들 단(旦: 이성계의 이름)이 홍무 6년부터 28년까지 무릇 네 왕을 시해(弑害)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음을 보고하자, 중종(中宗: 1488~1544: 조선 제11대 왕)은 곧 남곤(南袞: 1471~1527)·이지(李紆: 1480~1533) 등을 보내어, “태조의 세계가 이인임과 아무런 관련이 없고 또 선세(先世)에 시역(弑逆)한 일이 없다.”고 밝히고 그 개정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명나라의 무종(武宗: 1491~1521)은 이 사실을 수궁하면서도 개정하여주지 않았다. 그 뒤 1529년에 성절사(聖節使: 황제나 황후의 생일날에 축하하러 가던 사신使臣) 유박(柳溥: ?~1544)이 명나라에서 『대명회전』이 중찬(重纂)되리라는 것을 듣고 곧 예부(禮部)에 주청(奏請)하여 이 기회에 개정할 것을 요구하였다. 또, 1539년에도 주청사(奏請使) 권벌(權撥: 1478~1548), 1557년(명종 12)에는 호조판서 조사수(趙士秀: 1502~1558), 1563년에는 주청사 김주(金澍: 1512~1563), 1573년(선조 6)에는 주청사 이후백(李後白: 1520~1578)·윤근수(尹根壽: 1537~1616), 1575년에는 사은사(謝恩使: 중국에서 우리나라에 은혜를 베풀었을 때, 이를 보답하기 위해서 파견한 사신) 홍성민(洪聖民: 1536~1594) 등을 보내어 기회 있을 때마다 개정의 주장을 거듭하였으나, 이때까지도 『대명회전』은 반포되지 않았고,

또한 증찬의 내용도 알 수 없었다. 왜냐하면, 명나라는 『대명회전』을 증찬할 때 조선 측의 주장을 부록하겠다고 언약하는 데 그쳤기 때문이었다. 이어 대사간 이이(李珣 : 1536~1584)는 국군(國君)이 수무(受誣)를 한 지 200여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이를 고치지 못하여서는 안 되겠다고 하여 인재를 주청사로 보내어 강력하게 주장하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1581년에는 김계휘(金繼輝 : 1526~1582)를 주청사로 보내고 다시 1584년에는 황정욱(黃廷彧 : 1532~1607)을 보냈는데, 황정욱이 증찬된 『대명회전』의 수정된 조선관계 기록의 등본을 가지고 돌아옴으로써 증계변무의 목적이 달성되게 되었다. 이어 1587년에는 주청사 윤희(俞泓 : 1524~1594)를 명나라에 보내어 이번에는 『대명회전』의 반사(頒賜)를 요청하였다. 명나라의 예부에서는 황제의 친람을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하다가, 예부상서 심리(沈鯉 : 1531~1615)의 상주에 의하여 명제의 칙사와 함께 증수된 『대명회전』 중에서 조선관계 부분 한질을 보냈다. 선조는 이것을 종묘·사직·문묘에 친고(親告)하였으며, 그 뒤 1589년에 성절사 윤근수가 『대명회전』 전부를 받아옴으로써 200년간의 증계변무의 외교상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게 되었다.

- ② 진주사(陳奏使) : 주청사(奏請使) : 주문사(奏聞使) : 중국에 주청(奏請)할 일이 있을 때 보내던 사절(使節).
- ③ 부경(赴京) : 북경에 가다. 명나라는 1368년에 건국하여, 1644년에 멸망했으며, 주원장(朱元璋 : 1328~1398)이 건국했다. 건국 당시 남경(南京)에 도읍을 정했다가 1420년에 북경으로 천도(遷都)하였다.

☆부(赴) : 동사로서, ‘(…로) 가다. 향하다’의 뜻이다.

☆경(京) : 명나라의 경성(京城)인 ‘북경’을 가리킨다. 1363년에 주원장(朱元璋 : 1328~1398 : 명태조 : 재위기간은 1368~1398년임)이 명(明)을 개국하면서 도읍지를 남경(南京 : 당시 명칭은 응천應天이었음)으로 정했었는데, 1420년에 성조(成祖)가 지금의 북경(北京 : 당시 명칭은 순천부順天府였음)으로 천도하였다. ‘북경’을 과거에는 ‘연경(燕京)’이라 불렀으며, 북경의 별칭이다. 북경시의 구역이 춘추·전국시대(春秋戰國時代)의 연(燕)나라 국도(國都)였기에 얻어진 명칭이다. 조선에서는 습관상 ‘연경’이라고도 칭했다. 중국 역사상 ‘북경’이란 명칭을 썼던 때가 여러 왕조에 걸쳐 몇 번이나 있었으나, 지금의 북경시를 두고 ‘북경’이라고 칭한 것이 아니었다. 지금의 ‘북경시’를 가리켜, ‘북경’이라고 칭한 것은 명나라 영락원년(永樂元年 : 1403년)에 성조(成祖 : 성명은 주체朱棣 : 1360~1424 : 재위기간은 1403~1424)가 연왕(燕王)이었을 때, 봉지(封地)인 북평부(北平府 : 지금의 북경시)를 순천부(順天府)로 명칭을 바꾸면서 북경을 건립한 것이 지금의 북경시이다. 영락 19년(永樂十九年 : 1421년)에 응천(應天 : 지금의 강소省江蘇省 남경시南京市)에서 순천부(順天府 : 지금의 북경시)로 천도하면서부터 북경을 ‘경사(京師)’라고 불렀다가 습관상 후에 다시 ‘북경’으로 불렀다.

****역지주석 :** 앞의 주석2)의 ①항목에 의거하면, 주청사(奏請使) 이후백(李後白)이 종계진주사(宗系陳奏使)로 연경(燕京)에 갔다는 기록이 보인다. 선생이 기사년(己巳年 : 1569년, 선조 2) 28세 10월에 사헌부 감찰이 되어 성절사(聖節使)의 서장관(書狀官)으로 명나라 연경(燕京)에 갈 때, 이후백이 정사(正使)였었는데, 아마도 본시는 이러한 인연으로 인해, 이번의(계유년癸酉年 :

1573년, 선조 6, 서에 32세) 이관서의 사행 길에, 본 시를 써서 준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위의 시제(詩題)와 내용으로 미루어보아, 이와 같이 추정한다.

3) 알제신원 사불경(謁帝申冤事不輕 : 明明 황제 알현하여 하소연하는 일 쉽지 않을
터인데) :

① 알제(謁帝) : 황제를 알현하다.

☆알(謁) : 알현(謁見)하다. 지체가 높고 귀한 사람을 찾아가 뵈다.

☆제(帝) : 본 시에서는 명황제(明皇帝)를 가리킨다.

② 신원(申冤) :

☆자기의 억울함을 호소하다(하소연하다).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억울함을 쟀다(풀다).

③ 불경(不輕) : 용이하지 않다.

☆경(輕) : 용이하다. 수월하다. 간단하다.

4) 삼년공부 향서행(三年公復向西行 : 삼년 만에 공에게선 또 서행西行하시네요) :

① 삼년(三年) : 삼년 만에.

1567년에 이후백(李後白)은 원접사(遠接使)의 종사관(從事官)으로 명나라 사신
을 영접하기 위하여 서행(西行 : 의주義州行을 가리킴)했고, 1573년에는 변무사
(辨誣使)로 명나라에 갔었다. 실제로는 7년이지만 본 시에서는 명나라 고관과
대면하여 조선의 가장 큰 관심사인 ‘종계변무(宗系辨誣)’에 관한 대화를 나누는
기회를 갖는 두 차례의 ‘서행(西行)’을 시적으로 읊은 것이 아닌가 한다.

‘원접사(遠接使)’는 조선시대에 명(明)·청(淸)의 사신을 맞이들이던 관직명이다.
2품관 중에서 문명(文名)과 덕망이 있는 자를 조정에서 선발하여 원접사로 삼고
의주(義州)까지 가서 중국사신을 마중하여 잔치를 베풀고 선위사(宣慰使 : 선무사
宣撫使 : 외국사신을 영접하는 일을 맡아 보던 임시벼슬)를 도중 다섯 군데에 보내 잔
치를 베풀고, 위로했었다.

② 공(公) : 존장(尊長)에 대한 경칭(敬稱)으로 쓰였다.

③ 서행(西行) : 서쪽으로 가다.

명나라 사신을 영접하는 장소로서 조선의 관문도 경도상(經度上) 한양(漢陽)보
다 서쪽에 위치하고, 명나라도 조선의 서쪽에 위치하므로, 조선시대에는 의주에
가는 것도 명나라에 가는 것도 서행(西行)으로 표현하였다.

5) 왕준위국 영사험(王尊爲國寧辭險 : (한·漢나라 충신) 왕준王尊 같이 나라 위한 일
에 어찌 위험을 피하겠소이까?) :

① 왕준(王尊 : 생몰년 미상) : 서한(西漢) 탁군(涿郡) 고양읍(高陽邑), 지금의 하남성
(河南省) 기현(杞縣) 고양진(高陽鎭) 사람이다. 자는 자공(子贛)이다. 소년시절
고아로서 남의 집에 양을 길러주며 자랐으나, 사서(史書)에 능하였다. 나이 13세
에 군(郡)의 하급관리가 되었다가, 시험성적이 매우 우수하고 근무평가도 좋아서
안정태수(安定太守)로 발탁되었다. 원제(元帝 : BC 75~BC 33)와 성제(成帝 : BC
52~BC 7)가 재위하고 있을 때, 현령(縣令)·군(郡)의 태수(太守)·부(部)의 자
사(刺史)·왕국(王國)의 재상·경조윤(京兆尹 : 도성都城의 장관) 등을 역임했는
데, 한결같이 청렴하고 봉공(奉公)을 우선시했으며, 죄인을 징벌함에 관세 있는
사람들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까닭에, 누차 무고(誣告)를 당하여 면관(免
官)이 되기도 했었다. 건시 3년(建始三年 : BC 30)에, 봉종(奉宗 : 생몰년 미상)

등 수 백명이 남산(南山: 지금의 섬서성陝西省, 서안시西安市 서부에 위치함)을 점거하고 무장봉기하면서 관리를 살해하고 교통을 차단시켜 도성인 장안(長安)이 큰 충격을 받았다. 왕준은 이들을 진압했다. 당시 사람들은 경조윤(京兆尹)을 역임했던 왕장(王章: ?~BC 24)과 왕준(王駿: ?~BC 15)을 아울러 일컬어서 ‘삼왕(三王)’이라고 칭송했다.

『한서(漢書)·왕준전(王尊傳)』에, “황제가 왕준을 미현(郿縣)의 현령(縣令)으로 삼았다가(上以尊爲郿令), 익주자사로 천직(遷職)시켰다(遷益州刺史). 이에 앞서 랑야군(琅邪郡: 지금의 산둥성山東省 동남 연해지역沿海地域) 사람 왕양(王陽: 생몰년 미상)이 익주자사를 역임했었는데(先是琅邪王陽爲益州刺史), 그가 순행구역인 공궤관(邛郫關: 지금의 사천성四川省 형경현榮經縣 서남 55리에 위치한 대상령大相嶺 산상에 있는 관문)의 구절판(九折阪: 위의 공궤관이 있는 대상령의 남쪽 산비탈에는 꾸불꾸불한 산길이 나있는데, 그 길이 험준하여 74군데나 기어 올라가야 함)에 와 보고는(行部至邛郫九折阪), 탄식하여 말하기를(歎曰): ‘선친의 유체(遺體)를 모시고 왔는데, 어떻게 여러 번이나 이 험준한 산길을 오를 수 있겠는가(奉先人遺體, 奈何數乘此險)!’라고 하면서, 장례를 치른 후에 그는 병이 나서 떠나갔다(後以病去). 왕준이 자사가 되어, 〈순시하던 중에〉 그 구절판에 와서, 관리에게 물기를(及尊爲刺史, 至其阪, 問吏曰): ‘이곳이 왕양이 두려워했다던 그 산길이 아니냐(此非王陽所畏道邪)?’라고 하니, 관리가 대답하기를(吏對曰): ‘예, 그 길입니다(是)’라고 하였다. 왕준은 마부를 질책하면서 명하기를(尊叱其馭曰): ‘말을 몰아라, 왕양은 효자이고, 왕준은 충신이다(驅之, 王陽爲孝子, 王尊爲忠臣).’고 하였다.” 훗날 사람들은 “왕준이 마부를 질책하다(王尊叱馭)”는 이 말을 가지고, ‘관리는 충성심을 가지고 직무를 수행해야 하며, 곤란하고 위험함을 피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비유한 말로 썼다.

② 영사험(寧辭險): 어찌 위험을 피했겠습니까?

☆녕(寧): 의문부사로 ‘어찌 …하겠는가’의 뜻이다.

☆사(辭): 피하다. 그만두다. 거절하다.

6) 계찰관주 구저명(季札觀周舊著名: ‘오롯나라 공자’ 계찰季札처럼 주악周樂 평가로 오래도록 명성 누렸듯이 저명해지리이다):

- ① 계찰(季札: 생몰년 미상): 공자 찰(公子札): 춘추시대(春秋時代) 오(吳)나라 사람. 오왕(吳王) 수몽(壽夢: 재위기간: BC 585~BC 561)의 막내아들. 연릉(延陵: 지금의 강소성江蘇省 상주시常州市)에 봉해져서 연릉계자(延陵季子)라고도 칭한다. 후에 또 주래(州來: 지금의 안휘성安徽省 봉대현鳳臺縣)에 봉해져서 연주래계자(延州來季子)라고도 칭한다. 부친 수몽(壽夢)이 왕으로 옹립하려고 했으나 그는 사양했다. 형 제번(諸樊: 재위기간: BC 560~BC 548)이 왕위를 양보하려고 하자 또 사양했다. 제번이 죽자 그의 형 여제(餘祭: 재위기간: BC 547~BC 531)가 왕위에 올랐다. 여제가 죽고 동생 여매(餘昧)가 왕위에 올랐다. 여매가 죽고 나서 나라를 물려주려고 하니 회피하면서 받지 않았다. 그래서 여매의 아들 요(僚)가 즉위했다. 이때 공자 광(公子光: 제번의 장자)이 전제(專諸)를 시켜 요(僚)를 살해하고 스스로 왕위에 오르니, 이 사람이 곧 함려(閭閻: 재위기간: BC 514~BC 496)이다. 계찰은 비록 함려에게 복종했지만 요(僚)의 무덤에 가서 통곡했다. 계찰은 현명하고 해박했으며, 누차 중원(中原)의 제후들을 찾아가서 질문을 했는데, 제

(齊)나라의 정치가 안영(晏嬰 : ?~BC 500) · 정(鄭)나라의 정치가 자산(子產 : 대략 BC 580~BC 522) · 진(晉)나라의 현인 숙향(叔向 : 생몰년 미상) 등과 회견했다. 노(魯)나라에 가서 주악(周樂 : 주왕실의 악무樂舞). 노나라는 주실周室이 이어 받은 우(虞 : 순임금 천하의 호) · 하(夏 : 즉 하후씨夏后氏 : 중국 역사상 첫 왕조) · 상(商 : BC 16세기경에 상탕商湯이 하 나라를 멸하고 세운 나라) · 주(周 : BC 11세기경에 무왕武王이 상나라를 멸하고 세운 나라) 4대四代의 악무를 이어 받았음을 관람하기를 청했다. 서(徐)나라를 지나가면서 서나라 군주를 알현했는데, 그때 서나라 임금은 그가 차고 있던 보검을 좋아 했었지만 감히 입 밖으로 드러낼 수는 없었다. 계찰은 그의 뜻을 알았으나, 각국에 출사(出使)해야 했던 까닭에 검을 증명하지 못했었다. 돌아오는 길에 서나라에 도착해보니 서나라 군주는 이미 사망했는지라 계찰은 그 무덤가의 나무에 칼을 걸어놓고 떠났다. 후세 사람들은 그의 고상한 풍도를 칭송했다.([사기(史記) · 오태백세가(吳太伯世家)])를 참조바람)

② 관주(觀周) :

☆계찰 관주악(季札觀周樂 : 계찰이 주악周樂을 감상평가한 것을 말하는 것임) : 『좌전左傳』 양공(襄公) 29년의 기록에 보면 춘추시대(春秋時代) 오(吳)나라 공자(公子) 계찰(季札)이 노魯나라에 사신으로 가서 주(周)나라의 음악을 살펴 보고 열국(列國)의 치란(治亂)과 흥망(興亡)을 알았다고 한다. 그의 주악周樂을 감상하고 평가하는 대목은 곧 『시경詩經』의 시를 노래하고 연주한 것으로서, 주악에 대한 평가는 바로 시에 대한 평가인 것이다. 계찰의 시에 대한 인식은 시의 교화적 기능에 관심을 두고 있는 것으로, 이는 『서경(書經)』에서 공자(孔子)로 이어지는 유학의 시에 대한 인식을 이어주는 것이며, 중국 최초의 음악에 대한 평론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본 시에서는 계찰이 주악(周樂) 및 각국의 음악에 대한 평가로 저명해진 것처럼 이후백(李後白) 또한 종계(宗系) 진주사(陳奏使)의 소임을 완만하게 수행해서 계찰과 같은 명성을 얻게 되기를 바란다는 것을 시사한 것이다. 원문을 보면, “〈계찰이〉 주나라 음악, 곧 천자의 음악을 들려달라고 하자, 악공들에게 「주남」과 「소남」을 연주하게 하였다(請觀于周樂, 使工爲之歌周南召南). 감상하고 나서 말하기를(曰), ‘아름답도다! 주나라의 국기國基가 비릇된 것을 알겠다. 아직 흠족하지 못한 점이 있으나, 문왕의 근면함을 알기에 원망함이 일어나지 않소(美哉! 始基之矣, 猶未也, 然勤而不怨矣).’라고 말했다. 계찰을 위하여 「패풍」 「용풍」 「위풍」을 노래하니(爲之歌「邶」「鄘」「衛」), 계찰은 듣고 말하기를(曰), 아름답도다! 깊도다(美哉淵乎)! 근심은 하면서도 괴로워 하지 않으니(憂而不困者也), 내가 들은 위衛나라의 강숙康叔과 무공武公의 덕이 이와 같구나. 그러니 이는 위풍衛風이 로다(吾聞衛康叔武公之德如是. 是其衛風乎!)”라고 하였다.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③ 구저명(舊著名) : 오래도록 이름이 세상에 높히 드러나다.

☆구(舊) : 부사로 쓰여, ‘오래도록’이라는 의미로 표현되었다.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저명(著名) : 이름이 세상에 높히 드러나다.

7) 고의반생 경해역(高義半生傾海域 : 고상한 정의로 반평생 조선에서 최선을 다 하

셨으니) :

① 고의(高義) :

☆행위가 고상하여 정의에 부합되다,正大(正大)한 도리.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정의(情誼)가 두텁다(심후深厚하다).

☆높은 도덕과 의리.

② 경(傾) :

☆(있는 힘을) 다하다.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토로하다.

☆압도하다. 능가하다.

☆탄복하다. 호모하다. 공경하다. 순종하게 하다.

③ 해역(海域) : 해상구역(海上區域)의 약칭이다. 그러나 본 시에서는 ‘명나라 해역 밖’이자 ‘조선의 해역 안’이라는 뜻으로 쓰여 ‘조선’을 대칭(代稱)한 말로 쓰였다.

8) 단충일일 동천정(丹忠一日動天庭 : 참된 충성으로 일시에 명나라 조정을 감동시키소서) :

① 단충(丹忠) :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참된 충성.

☆단심(丹心 : 적심赤心)에서 우러나는 충성.

② 일일(一日) :

☆역시 부사로, ‘단시간(短時間)’에, ‘일시(一時)’에의 뜻으로 쓰는데,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하루(일주야一晝夜).

☆온종일(일주간一晝間).

☆‘작일(昨日 : 어제)’과 같은 말.

☆모일(某日). 과거의 어느 날을 가리킨다.

☆타일(他日 : 다른 날) : 장래의 어느 날을 가리킨다.

☆부사로, ‘일단(一旦 : 하루아침에)’, ‘만약 어느 날 …한다면’의 뜻으로 쓴다.

③ 천정(天庭) : ‘천정(天廷)’으로도 씀.

☆제왕의 궁정. 조정.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으며, ‘명나라 조정을 가리키는 뜻으로 쓰였다.

☆천제(天帝)의 궁정(宮廷). 천제의 조정(朝廷).

☆하늘을 가리킨다.

☆태미원(太微垣 : 사자자리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별자리)을 가리킨다.

☆곤륜산(崑崙山)의 최고층을 천정(天庭)이라 한다.

☆관상학(觀相學)에서 양미간(兩眉間 : 두 눈썹의 사이)이나, 앞이마의 중앙을 가리킨다.

9) 상사최시 오만야(相思最是烏蠻夜 : 가장 그리운 것은 오만족烏蠻族이 세운 왕국이 실 텐데) :

① 상사(相思) : 서로(피차) 그리워하다.

② 최시(最是) : 으뜸은 …이다.

③ 오만야(五蠻夜) : 오만국(烏蠻國) : 수당(隋唐) 시대에 지금의 운남성(雲南省) 지

역에서 소수민족 중의 오만족(烏蠻族)이 주체가 되어 건국한 육조(六詔)의 왕국인데, 본 시에서는 조선(朝鮮)을 대칭(代稱)한 말로 쓰였다.

『신당서(新唐書)·남만전 상(南蠻傳上)·남조상(南詔上)』편에, “남조(南詔: 당대(唐代)에 지금의 운남성(雲南省) 대리현(大理縣) 이해(洱海: 모양이 사람의 귀처럼 생긴 호수 이름) 지역에 건립되었던 육조(六詔: 여섯 왕조) 중의 하나)는 학척(鶴拓이라고도 하고, 용미(龍尾라고도 하고, 저미(苴咩라고도 하며, 양검(陽劍이라고도 한다(南詔, 或曰鶴拓, 曰龍尾, 曰苴咩, 曰陽劍). 본래는 애뢰이족(哀牢夷族: 종족계통은 명확하지 않음)의 후예로서, 오만족(烏蠻族)의 별종(別種)이다(本哀牢夷後, 烏蠻別種也). 오랑개는 왕이란 말을 ‘조(詔)’라고 한다(夷語王爲詔). 처음에는 수령(蠻王) 6명이 6개 지역으로 분할하여 통치하면서, 자칭 ‘六詔’라고 하였는데, 몽휴조(蒙嶠詔)·월석조(月析詔)·낭궁조(浪穹詔)·등섬조(遼談詔)·시랑조(施浪詔)·몽사조(蒙舍詔)가 그들이었다(其先渠帥有六, 自號六詔, 曰蒙嶠詔, 月析詔, 浪穹詔, 遼談詔, 施浪詔, 蒙舍詔). 병력[군사력]이 대등해지면, 주군을 보조할 수 없다고 여겨, 측한의 제갈량은 그들을 도벌 평정했었다(兵埒, 不能相君, 蜀諸葛亮討定之). 몽사조는 앞서 소개했던 여러 부족(즉 육조(六詔)) 중에 가장 남방에 있었기에, 남조(南詔)라고 칭한다(蒙舍詔在諸部南, 故稱南詔).”고 한 대목이 있다.

☆오만(烏蠻): 수당(隋唐) 시대에 지금의 운남성(雲南省) 지역에는 복잡하게 섞여 사는 많은 종족들이 있었으며, 그 명칭도 많았는데, 그 대표적인 종족은 백만(白蠻: 당시에 그 수령이 남조(南詔)에 참여 했으며, 937년에는 수령 단씨(段氏)가 운남성에 대리국(大理國)을 건립했음)과 오만이었다. 당초(唐初)에 이해(洱海: 지금의 운남성(雲南省) 대리현(大理縣)에 위치한 모양이 사람의 귀처럼 생긴 호수 이름) 주변에는 하만(河蠻)으로 부르던 백만 계통 부락이 1백여 개가 넘게 있었으며, 이해(洱海)에서 다소 떨어진 사방 지역에는 오만(烏蠻) 계통의 부락들이 산재하여 있었다. 백만(白蠻)이 분포하던 지역은 서찬(西爨: 서쪽 지역에 사는 만족(蠻族))이라 불렀고, 오만(烏蠻)이 거주하던 지역은 동찬(東爨: 동쪽 지역에 사는 만족(蠻族))이라 불렀다. 7세기 전반기에 오만은 지속적으로 이해(洱海) 지역으로 이주하여 그 지역의 백만(白蠻)을 정복했으며 마침내 오만족(烏蠻族)이 주체가 되어 6개의 왕국으로 이루어진 육조(六詔)를 세웠다. 이 가운데 몽사조(蒙舍詔)는 오늘 날의巍山縣(巍山縣)에 있었는데 가장 남쪽에 있다고 하여 남조(南詔)라고도 불렀다. 730년대에 남조(南詔)의 왕 피라각(皮邏閣)이 육조(六詔)를 통일하고 남조국(南詔國)을 건국하였다. 그 후 748년에 피라각(皮邏閣)이 죽고, 그 아들 각라봉(閣羅鳳)이 세습하여 운남왕(雲南王)에 봉해졌다. 당시 운남태수 장건타(張虔陀)가 지방 관습상 인사차 찾아온 추장(酋長) 부인들을 강간하였다. 이것이 원인이 되어 각라봉은 태수 장건타를 살해하고 반란을 일으켰다. 이때가 천보 9년(天寶九年: 750년)이었다. 이때부터 시작하여 전후 100년 동안 반란이 거듭되면서 백성들의 인명과 재산의 피해가 엄청났다. 당시 당나라는 ‘안사의 난(安史亂: 당현종(唐玄宗) 말엽인 755년에 안록산(安祿山: ?~757)과 사사명(史思明: ?~761)이 일으킨 반란)’을 수습하느라 미처 남방을 돌볼 여유가 없었는데, 이렇게 외환(外患)을 맞았던 것이다. 902년에 남조(南詔)의 대신(大臣) 정매사(鄭買嗣)가 남조국(南詔國)의 정권을 찬탈하여 국명(國

名)을 대장화(大長和)로 바꾸면서 남조국은 멸망했다.
 ☆야(夜): 국명(國名)으로 쓰였다. 그 예로, ‘서야(西夜: 서야국西夜國)’가 있다.
 이 서야국(西夜國)은 한(漢)나라 시대의 서방 제후국 중의 하나인데, 지금의 신강성(新疆省) 위그르자치구(維吾爾自治區) 염성현(葉城縣)에 있었다.
 **역지주석: 수당(隋唐) 시대에 소수민족인 오만족(烏蠻族)은 남조(南詔)를 건국하는 기초가 되었는데, 조선은 명(明)나라로부터 왕통(王統)마저 올바른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조선의 입장에서 수치스럽고도 분노스러운 국사(國事)가 되었던 것이다. 본 시의 작가 서애(西厓)는 그래서 수당시대의 그 오만족이 부러웠고 그리웠던 것이다. 오만족은 당시에 대국(大國)에 대항하여 당당하게 건국하였기 때문이다.

10) 요관연화 월정명(繞館煙花月正明): 〈존공이 머물〉 빈관賓館 주변에도 아름다운 봄꽃 피고 달도 밝으리이다):

- ① 요관(繞館): 객관(客館): 여관·객사·숙사: 임시로 머무는 집)의 주변.
 ☆요(繞): 일반적으로 ‘둘러싸다, 에워싸다, 휘감다’ 등의 뜻인데, 본 시에서는 전(轉)하여, ‘주변, 주위, 둘레’ 등의 뜻으로 쓰였다.
 ☆관(館): 관(館)의 속자(俗字)로, 객관(客館)의 뜻이다. 본 시에서는 이공(李公)이 머물 ‘빈관(賓館: 영빈관迎賓館)’을 뜻한다.
- ② 연화(煙花): 연화(煙花)로도 쓴다. 이는 ‘안개 속의 꽃’으로, 일반적으로 아름다운 봄 풍경을 가리킨다.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 ③ 정명(正明): 때마침, (달이) 밝다.
 ☆정(正): 부사로서, ‘때마침’의 뜻이다.



시18. 서장관書狀官 김해金海 공公이 북경에 가는
것을 송별하면서

詩18. 送金書狀海 赴京¹⁾
송 김 서 장 해 부 경

蒼茫臨歲暮²⁾,
창 망 임 세 모

총망중에 세밀이 다가왔는데,

雨雪集晨朝³⁾.
우 설 집 신 조

새벽녘에는 진눈깨비가 내리네요.

海城人⁴⁾初發,
해 역 인 초 발

조선인으로서 초행길 출발하는데,

燕山路正遙⁵⁾.
연 산 로 정 요

북경 가는 길은 확실히 멀 것어요.

朔雲迷遠樹⁶⁾,
삭 운 미 원 수

북방의 운무는 먼 곳의 수림에
심취하게 하고,

邊月共殘宵⁷⁾.
변 월 공 잔 소

변방邊方의 달은
새벽까지 함께 해 준답니다.

珍重朝天節⁸⁾,
진 중 조 천 절

황제 알현하는 조천절朝天節은
엄숙한 날인데,

春風好度遼⁹⁾.
춘 풍 호 도 료

춘풍이 때마침 멀리서 불어오네요.

- 1) 김서장 해 부경(金書狀海赴京 : 서장관書狀官 김해金海 공공이 북경에 가다) :
 - ① 서장(書狀) : 서장관(書狀官) : 조선시대 부경사행(赴京使行)의 한 사행직(使行職). 중국에 보내던 부경사행의 일행인 정사(正使) · 부사(副使) · 기록관 등의 3 사신(三使臣) 중 기록관은 외교문서에 관한 직무를 분담하였다. 서장관은 사행 중 매일 매일의 사건을 기록하고 돌아온 뒤에는 왕에게 건문한 바를 보고할 의무를 가지고 있었다. 한편 일행을 감찰하고 도강할 때에 일행의 인마(人馬) · 복태(卜駟 : 짐바리, 말이나 소로 실어 나르는 짐)를 점검하기도 하는 행대어사(行臺御使)를 겸하였다. 정사(正使)와 부사(副使)의 차위직(次位職)이다.
 - ② 김해(金海 : 1534~1593) : 조선 중기의 문신. 본관은 예안(禮安), 자는 사회(士晦), 호는 운송(雲松). 아버지는 반천(半千)이다. 1564년 식년문과(式年文科 : 자·오·유·묘 등의 간지干支가 들어 있는 해에 치르던 문과과거를 말함. 예를 들면, 갑자甲子 · 병오丙午 · 정묘丁卯 · 계유癸酉년 등이며, 이 식년式年에 호적을 정리하고 과거를 실시했음)에 을과(乙科 : 조선시대 문과복시文科覆試의 합격자를 예조禮曹에서 전시殿試를 보며 성적에 따라 분류하는 둘째 등급. 제술製述로 시험하여 7명을 뽑았으며 이들은 정8품의 품계를 주었고 기성 관리로서 승진을 위해 응시한 자는 2품을 올려주었음)로 급제하였다. 1571년 형조좌랑(刑曹佐郎 : 형조의 정6품 관직), 1573년 지평(持平 : 사헌부司憲府의 정5품 관직)을 거쳐, 이듬해 장령(掌令 : 사헌부의 정4품 관직)이 되었으며, 1576년 사간(司諫 : 사간원司諫院의 종3품 관직)으로 승진하였다. 1592년 상주목사(尙州牧使)로 재임 중 임진왜란을 당하여 당황한 나머지 순변사(巡邊使 : 군무軍務를 띠고 변경을 순검하던 특사) 이일(李鎰 : 1538~1601)을 맞이한다는 핑계로 성을 떠나 피신하였다. 그러나 뒤에 판관(判官 : 조선 초기에는 특수 지역에 지방장관의 속관으로 판관을 두었으나, 후에는 중앙관직으로서의 종5품 관직이었음) 정기룡(鄭起龍 : 1562~1622 : 당시에는 상주판관이었음)과 함께 향병(鄉兵)을 규합하여 개령(開寧 : 경북 김천金泉 지방에 있었으며 1413년에는 상주에 속했던 현縣이었음. 1914년에 김천군에 병합되었음)에서 왜군을 격파하고 상주성(尙州城)을 일시 탈환하기도 했다. 이듬해 왜적에게 포위되어 항전하다가 전사하였다. 도승지(都承旨 : 승정원承政院의 정3품관)에 추증되고 인조 때에는 참판(參判 : 6조六曹의 종2품 관직)을 가증(加贈)하고 향리에 정문(旌門 : 충신·효자·열녀 등을 표창하기 위해 붉은 색으로 단장하고 그 액額에다 충·효·열忠孝烈과 직함·성명을 새겨 마을입구나 집문 앞에 세우는 문 : 홍문紅門이라고도 함)을 세워 표창하였다.
 - ③ 부경(赴京) : 북경(北京 : 연경燕京)에 가다. 자세한 것은 앞의 「시17」의 주석2)의 ③ 부경(赴京) 조항을 참조바람.
- 2) 창망 임세모(蒼茫臨歲暮 : 창망중에 세밑이 다가왔는데) :
 - ① 창망(蒼茫) :
 - ☆창망(惘忙 : 창망匆忙 : 매우 급하고 바쁨)과 같은 말.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 ☆끝없이 광활한 모양. 아득하다. 망망하다.
 - ☆모호불명(模糊不清 : 모호하여 분명하지 않음)한 모양.
 - ② 임(臨) : (시간이나 장소에) 근접하다. 도달하다. 이르다. 다가오다.
 - ③ 세모(歲暮) : 세밑. 연말. 세말. 한 해가 끝날 무렵. 선달그믐께.
- 3) 우설 집신조(雨雪集晨朝 : 새벽녘에는 진눈깨비가 내리네요) :

- ① 우설(雨雪):
 ☆눈비. 진눈개비.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눈이 내리다(이 때의 ‘우雨’는 ‘비가 오듯이 내리다 <떨어지다: 강락降落하다>’)는 뜻이다.
- ② 집(集): 내리다. 떨어지다. 추락하다. 『한비자(韓非子)·해로(解老)』편에, “때마침 비가 세차게 내려서, 텅 빈 광야는 정적에 휩싸였는데, 사람들은 오히려 황혼이 질 때와 새벽에 산 넘고 물 건너 먼 길 가면, 냉풍과 한로의 발톱과 뿔이 그들을 해칠 것이다(時雨降集, 曠野間靜, 而以昏晨犯山川, 則風露之爪角害之).”고 한 대목이 있다.
- ③ 신조(晨朝): 새벽녘. 이른 아침. 동 틀 무렵.
- 4) 해역인(海域人): ‘조선 사람’의 대칭(代稱)으로 쓰였다. ‘해역(海域)’에 대한 뜻은 앞의 「시17」의 주석7) 조항을 참조바람.
- 5) 연산 로정요(燕山路正遙: 북경 가는 길은 확실히 멀 것ियो):
 ① 연산(燕山):
 ☆송(宋) 선화 4년(宣和四年: 1122년)에 연경(燕京)을 연산부(燕山府)로 명칭을 바꾸었다. 후에 사람들은 ‘연산(燕山)’이란 지명을 ‘연경(燕京)’ 즉 북경을 가리키는 말로 썼다.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하북성(河北省) 천진시(天津市) 계현(薊縣)에서 동남쪽으로 이어져 내려오다가 동쪽으로 곧 바로 해변에 이르는 연산산맥(燕山山脈)을 가리킨다.
- ② 정요(正遙): 실제로 멀다(요원하다).
 ☆정(正): 부사로서, ‘실제로, 확실히’의 뜻으로 쓰였다.
- 6) 삭운 미원수(朔雲迷遠樹: 북방의 운무雲霧는 먼 곳의 수림樹林에 침취하게 하고): ‘북방의 운무 끼어 먼 곳의 수림이 어렴풋한데’라고도 해석할 수 있다.
 ① 삭운(朔雲): 북방의 운기(雲氣: 운무雲霧: 얹게 떠오르는 구름).
 ☆삭(朔): 북방. 북쪽.
- ② 미(迷):
 ☆심취(心醉)하게 하다.
 ☆분명히 구별할 수 없다. 분명하지 않다. 흐릿하다. 어렴풋하다.
- 7) 변월 공잔소(邊月共殘宵: 변방의 달은 새벽까지 함께 해준답니다): ‘변방의 달이 뜨면서 새벽이 되었네요’라고도 해석할 수 있다.
 ① 변월(邊月): 변방(邊方)의 달.
 ② 공잔소(共殘宵): (북방의 달은 김공과) 함께 새벽을 맞이하다.
 ☆공(共): 함께하다. 같이하다. 본시에서는 동사로 쓰여, ‘함께 하다’로 번역하였다.
 ☆잔소(殘宵): 잔야(殘夜): 새벽: 미명(未明): 날이 채 밝지 않은 때. 날이 셀 무렵.
- 8) 진중 조천절(珍重朝天節: 황제 알현하는 조천절朝天節은 엄숙한 날인데):
 ① 진중(珍重):
 ☆엄숙하다.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정중(鄭重)하다. 신중하다.
 ☆소중하게 여기다. 아끼고 사랑하다.

② 조천절(朝天節) : 조천사(朝天使)*가 천자를 알현하는 경축일.

☆조(朝) : 사신(使臣)이나 신하 또는 제후가 와서 군왕(君王)을 알현(謁見)하다.
방문하다.

☆천(天) : 군왕(君王)을 가리키는 말.

☆절(節) : 축제일. 기념일.

*조천사(朝天使) : 조선시대에 명나라에 보내는 사신(使臣)의 총칭이다. ‘조천사’란, 천자(天子 : 군권君權은 하늘[天], 곧 천신天神으로부터 부여받았다고 여겼던 까닭에, 제왕帝王을 존칭하여 천자天子라고 한 것임)를 조현(朝見 : 알현謁見하는 사신)하는 사신이란 뜻이다. 이러한 칭호는 약소국이 사대사상(事大思想)에 젖은 상태에서 주종관계를 유지해온 결과이다. 이에 반하여, 비교적 대등한 인식 아래 대외관계를 형성한 청(淸)나라에 대한 사신행차는 연경사(燕京使)라 하였고, 일본과의 관계는 교린(交隣)이라 하였다. 이러한 조천사는 해마다 정기적으로 보내는 정례사행(定例使行 : 정기적인 사신행차)과 임시사행으로 나누어 파견하였다. 정례사행으로는 네 번 있었는데, 대부분 동지를 전후하여 보내던 동지사(同至使), 정월 초하룻날 새해를 축하하러 간 정조사(正朝使), 명 황제나 명황후의 생일을 축하하러 간 성절사(聖節使), 황태자의 생일을 축하하러 간 천추사(千秋使) 등이었다. 또한 임시사행으로는 일이 있을 때마다 수시로 보냈던 사신행차였는데, 사은사(謝恩使) · 주청사(奏請使) · 진하사(進賀使) · 진위사(陳慰使) · 진향사(進香使) 등이 파견되었다. 이러한 사신행차는 대부분 명나라의 고마운 처사에 대한 인사, 임의로 통보해야 할 일이 있을 때, 경사(慶事)나 황실의 상고(喪故)에 보냈던 사신행차였다. 이 밖에도 원(元)나라 때부터 시작하여 사냥에 쓸 매를 바치는 진응사(進鷹使), 역서(曆書)를 받으러 간 역행사(曆行使) 등의 사신행차도 있었다. 사신행차의 구성은 정사(正使) 1명, 부사(副使) 1명, 서장관(書狀官 : 기록관 혹은 행대어사) 1명, 통사(通事 : 통역) 3명, 의원(醫院) · 서자관(書字官 : 서신과 문서 관리관) · 화원(畫員) · 압마관(押馬官 : 말을 관리하던 역관으로 공마시貢馬時에 한함) · 수행원과 노자(奴子 : 사내종) 등 대략 40여명으로 되어 있었으나 의종 이후에는 30여명 내외로 되기도 했다. 왕복노정(往復路程)은 육로가 2,049리로 28일 일정(日程)이었다. 주요통과지점은 한양 → 평양(平壤) → 의주(義州) → 압록강(鴨綠江) → 구련성(九連城 : 진강성鎭江城) → 봉황성(鳳凰城) → 성경(盛京 <요령성遼寧省의 심양시瀋陽市에 대한 청淸나라 때의 도시명칭> : 심양瀋陽은 청나라 때부터 추가됨) → 산해관(山海關) → 북경(北京)이었다. 수로(水路)는 5,660리였는데, 그 중 육로 1,900리, 수로 3,760리로 통과지점은 한양 → 선천(宣川) → 선사포(宣沙浦) 또는 안주(安州) → 노강진(老江鎭) → 철산(鐵山) → 가도(假島) → 등주(登州) → 북경(北京)으로 되어 있다. 그 기간은 일정하지 않았으나 대략 40일 정도였다.

9) 호도로(好度遼) : 때마침 멀리서 (춘풍이) 불어오다.

① 호(好) : 때마침.

② 도(度) : ‘도(渡)’와 통하며, ‘통과하다. 건너가다. 지나치다’의 뜻임.

③ 료(遼) : (아득히) 멀다.



시19. 가을 날 향촌에서 당면^{當面}한 몇 가지

詩19. 秋日村居卽事¹⁾

추 일 촌 거 즉 사

看盡行雲度遠岑²⁾,
간 진 행 운 도 원 잠

지나가는 구름이 산 넘어가는 것을 다
보고나서,

臥聽高樹一蟬吟³⁾.
와 청 고 수 일 선 음

누웠자니 고목^{高木}에서
매미 우는 소리 들리네.

孤村⁴⁾日暮無來客,
고 촌 일 모 무 래 객

고적한 촌락에 날 저물고
오는 사람 없지만,

古道秋風禾黍深⁵⁾.
고 도 추 풍 화 서 심

옛길에는 추풍 불고
벼와 기장이 무르익네.

1) 추일촌거즉사(秋日村居卽事 : 가을철 향촌에서 당면^{當面}한 몇 가지) :

① 촌거(村居) :

☆향촌에 살다(거주하다).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향촌의 주택.

☆향촌, 촌락을 가리킨다.

② 즉사(卽事) :

☆당면한 사물을 제재(題材)로 삼은 시, 다시 말하면, 면전의 어떤 사물에 대하여 보고·듣고·느낀 것을 시제(詩題)를 삼고 읊은 시가를 말한다.(시사詩詞의 제목으로 많이 쓰는 말임) 본 시에서도 이 뜻으로 쓰였다. 그 예로, 당나라의 시인 두보(杜甫 : 712~770)의 시, 「초당즉사(草堂卽事)」가 있다. 두보는 761년

11월에 성도(成都 : 지금의 사천성四川省 성도시成都市)의 초당(草堂)에 머문 적이 있는데, 그는 이 시에서 초당 부근의 겨울의 스산한 경상(景象)과 곤궁한 생활을 묘사하였다.

☆사무를 맡다. 일을 하다(처리하다). 용무를 보다. 근무하다.

☆면전에서 어떤 사물을 대하다. 현재(목전에) 어떤 감정(슬픔·정취 등)을 느끼다 (맛보다).

2) 간진행운 도원잠(看盡行雲度遠峯 : 지나가는 구름이 산 넘어가는 것을 다 보고나서) :

① 진(盡) : 모두. 전부. 다. 본 시에서는 ‘끝까지’의 뜻으로 쓰였다.

② 행운(行雲) : 흘러가는 구름. 지나가는 구름[열구름]

③ 도(度) : 도(渡)와 통하며, ‘통과하다. 지나가다’의 뜻이다.

④ 원잠(遠峯) : 먼 곳의 산. 먼 산.

☆잠(峯) : 작으면서 높은 산.

3) 일선음(一蟬吟) : 줄곧 매미가 울다.

① 일(一) : 줄곧, 시종(始終).

② 선(蟬) : 매미.

③ 음(吟) : (동물·곤충 등이) 울다.

4) 고촌(孤村) :

① 고적한(외로운. 적적한) 촌락.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② 외따로 떨어진 촌락.

5) 고도추풍 화서심(古道秋風禾黍深 : 옛길에는 추풍 불고 벼와 기장이 무르익네) :

① 고도(古道) :

☆고대의 도(道). 일반적으로 옛적의 제도·학술·사상·도의·풍습(풍조·기풍) 등을 가리킨다.

☆옛길. 옛날에 다니던 길.

② 화서심(禾黍深) : 벼와 기장이 무르익다.

☆화서(禾黍) : 벼와 기장. 일반적으로 양곡(糧穀)의 작물을 가리키는 말로 쓴다.

☆심(深) : (초목이) 무성하다. 본 시에서는 ‘(오곡이) 무럭무럭 자라다.’는 뜻으로 쓰였다.



시20. 회암晦庵 주희朱熹 선생의 시를
차운次韻하여

詩20. 次晦庵韻¹⁾
차 회 암 운

夜聞山雨下,
야 문 산 우 하

간밤에 산에서 비오는 소리 들리더니,

宿雲朝在麓²⁾.
숙 운 조 재 록

지난밤 운무雲霧가 아침에는 산기슭에
걸쳐있네.

十日斷往還³⁾,
십 일 단 왕 환

열흘 동안이나 사람들 내왕이 단절된 채,

柴扉映茅屋⁴⁾.
시 비 영 모 옥

누추한 초가는 사립문이 닫혀 있네.

亦有千載人⁵⁾,
역 유 천 재 인

만약 천 년을 산 (책속의) 벗이 있어서,

心期詎幽獨⁶⁾.
심 기 거 유 독

그와 깊이 사귄다면
어찌 남모를 고독이 있으리오!

紫陽有妙語⁷⁾,
자 양 유 묘 어

자양紫陽 주희朱熹선생은 오묘한 말씀
많이 남겼으니,

焚香時展讀⁸⁾.
분 향 시 전 독

향 피워놓고 수시로 책 펼쳐 읽어 보리라.

1) 차회암운(次晦庵韻) : 회암晦庵 주희朱熹의 시를 차운하여) :

① 회암(晦庵) : 송(宋)나라 유학자 주희(朱熹)의 호(號).

☆주희(朱熹 : 1130~1200) : 주희의 자는 원회(元晦) · 중희(仲晦), 호는 회암(晦庵) · 회옹(晦翁) · 운곡산인(雲谷山人) · 창주병수(滄洲病叟) · 둔옹(澣翁) 등이 있다. 복건성(福建省) 우계(尤溪)에서 출생했다. 선조는 대대로 안휘성(安徽省)의 휘주무원(徽州婺源)의 호족으로 아버지 주송(朱松)은 관직에 있다가 당시의 재상(宰相) 진회(秦檜)와의 의견충돌로 퇴직하고 우계에 우거(寓居)하였다. 주희는 이곳에서 14세 때 아버지가 죽자, 그의 유언에 따라 호적계(胡籍溪) · 유백수(劉白水) · 유병산(劉屏山)에게 사사하면서 불교와 노자의 학문에 흥미를 가졌었다. 그러나 주희는 24세 때 연평(延平) 이통(李侗 : 1093~1163)을 만나 사숙(私淑)하면서 유학에 복귀하게 된다. 다시 1158년에 주희는 이통을 찾아갔고, 1160년에는 수 개월 동안 그와 함께 지내면서 가르침을 받았다. 당시 송대의 성리학자들 가운데 불교와 도교의 철학에 대항하여 새로운 철학 이론을 제창하면서 거의 1000년 동안 사상의 주도적 위치를 상실하였던 유학의 학문적 · 사상적인 위상을 회복하려는 운동이 일었는데, 주희는 이통의 영향을 받은 이후 그 방면의 일에 전념할 결심을 하게 된다. 주희의 학문 토론 친구로는 장식(張栻 : 1133~1180) · 여조겸(呂祖謙 : 1137~1181)이 있고, 또 논적(論敵)으로는 육구연(陸九淵 : 1139~1192)이 있었는데, 이들과 상호 절차탁마(切磋琢磨)하면서 학문을 비약적으로 발전 심화시켰다. 그는 19세에 진사시에 급제하여 71세에 생애를 마칠 때까지 여러 관직을 거쳤으나, 약 9년 정도만 현직에 근무하였을 뿐, 그 밖의 관직은 학자에 대한 일종의 예우로서만 드시 현지에 부임할 필요가 없는 명목상의 관직이었기 때문에 학문에 전념할 수 있었다. 1179~1181년 사이 강서성(江西省) 남강(南康)의 관리로 근무할 때 주희는 그 기회를 이용, 9세기에 건립되어 10세기에 번성했으나 그 뒤 폐허가 된 백록동서원(白鹿洞書院 : 남당南唐의 이발李渤이 그의 은거지인 여산廬山의 백록동白鹿洞에 창립한 중국 4대 서원 중의 하나임)을 재건했다. 주희에 의해 원래의 모습을 회복하게 된 이 서원은 그 후 오랫동안 명성을 유지했다. 그런 서원들이 성리학이 발전하는 데 제도적 기반이 되었다. 1188년 주희는 황제의 도덕수양이 국가 안정의 기반이라는 주장을 담은 상소문을 올리기도 하였다. 주희는 철학뿐 아니라, 역사에도 깊은 관심을 가져 사마광(司馬光 : 1019~1086)이 편찬한 역사서인 『자치통감(資治通鑑)』이 무원칙하다고 여겨 그것을 다시 재편집하여, 1172년에 『자치통감강목(資治通鑑綱目)』을 완성하였다. 이 책은 동아시아 전역에서 널리 읽혔다. 또한 유럽에서 최초로 간행된 중국역사서인 『중국통사』(1777~1785)의 토대가 되었다고 한다.

주희는 만년에 조정의 초청을 받아 고위직에 오를 수 있는 기회가 몇 번 있었다. 그러나 그는 과감하게 직언을 하고, 늘 소신 있는 의견을 펼쳤으며, 부패와 사육이 지배하는 정치판을 비타협적으로 공격하다가 파면되거나 외진 지방의 관직으로 쫓겨났다. 만년에 이르러서 정적(政敵)인 한탁주(韓侂胄 : 1152~1207)가 주희의 학설과 행실에 대해 중상모략을 하여 주희의 학문은 위학(僞學)이 되어, 저서의 간행과 유포가 금지되었고 정치활동을 비롯한 모든 공적인

활동이 금지되었다. 그가 죽을 때까지도 정치적인 명예는 여전히 회복되지 않다가 죽은 뒤에 곧 회복되었다. 1209년과 1230년에 그에게 시호가 내려졌고 1241년에는 그의 위패가 정식으로 공자사당에 모셔졌다. 주희의 성리학은 오랫동안 중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지식인 사회를 지배해왔고, 사서(四書)에 대한 그의 주석서(注釋書)는 과거에 합격하려는 사람들의 필독서가 되었다. 왜냐하면 아예 그 책이 과거 교재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의 사상은 특히 조선의 지식인 사회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는데 예컨대, 송시열(宋時烈)은 “세상의 모든 이치는 주자가 이미 완벽하게 밝혀 놓았다. 우리에게 남은 일은 다만 그의 이치를 실천하는 것일 뿐이다. 그러므로 주자의 말씀에서 조금이라도 어긋나는 주장을 하거나 주자와 다른 경전의 주석을 다는 자는 사문난적(斯文亂賊)일 뿐이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기도 하였다. 또 주희의 철학은 일본의 도쿠가와 막부 시대에도 널리 받아들여져 공적인 인정을 받았다.

주요저서로는 『사서집주(四書集注)』·『근시록(近思錄)』·『주역본의(周易本義)』·『시집전(詩集傳)』·『자치통감강목(資治通鑑綱目)』·『태극도설해(太極圖說解)』를 비롯한 수많은 저서가 있으며, 후인이 편찬한 『주문공문집(朱文公文集)』과 『주자어류(朱子語類)』 등이 있다.

- ② 차운(次韻) : 차운은 바로 시를 지어 화답하는 방식의 일종으로, 보운(步韻)이라고도 칭한다. 이는 화답(和答詩) 형식 가운데 가장 엄격한 경우로서, 화운하려는 작품의 원운(原韻)과 원자(原字)가 모두 동일해야 할뿐만 아니라 순차(順次)까지도 일치해야 한다. 차운의 종류에는 이외에도 대체로 3가지 방식이 더 있다. 첫째, 화시(和詩)로, 이는 시를 지어 화답함에, 오로지 시(詩)나 사(詞)로 응답한다. 시의 원운(原韻)을 차운(次韻)할 필요가 없다. 둘째, 의운(依韻)으로, 이는 동운(同韻)이라고도 칭한다. 타인의 시가(詩歌)의 운부(韻部)에 의거하여 시를 짓는다. 운각(韻脚) : 시구詩句의 끝 부분에 다는 운자韻字)의 용자(用字)는 원시(原詩)와 동일한 운부(韻部)의 자(字)만 쓰면 되지 굳이 동자(同字)를 쓸 필요까지는 없다. 셋째, 용운(用韻), 원시(原詩)의 운각(韻脚)을 해당시의 운각으로 삼을 뿐, 그 순서까지는 따르지 않아도 된다.
- 2) 숙운 조재록(宿雲朝在麓 : 지난 밤 운무雲霧가 아침에는 산기슭에 걸쳐있네) :
 - ① 숙운(宿雲) : 지난밤의 운기(雲氣 : 운무雲霧).
 - ② 록(麓) : 산기슭.
- 3) 단왕환(斷往還) : 사람들의 내왕이 끊어지다 단절되다.
 - ① 단(斷) : 단절되다. (관계 등을) 끊다. 끊어지다.
 - ② 왕환(往還) : 내왕(來往)하다. 교유(交遊 : 서로 사귀어 놀거나 왕래함)하다. 왕복하다. 오가다.
- 4) 시비 영모옥(柴扉映茅屋 : 누추한 초가에 사립문이 닫혀 있네) : ‘사립문에 잡초 우거져 모옥임구 가로 막았네’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
 - ① 시비(柴扉) : 사립짝. 사립문.
 - ② 영(映) : ☆(사립문이) 닫혀 있다.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가리다. 가로막다.
 - ③ 모옥(茅屋) : 모옥(茆屋)으로도 쓴다.

☆따나 이영 따위로 지붕을 인 초라한 집.

☆자기 집의 겸칭(謙稱).

5) 역유 천재인(亦有千載人: 만약 천 년을 산 <책속의> 벗이 있어):

① 역(亦): 접속사로 쓰여, ‘가령 …한다 할지라도’, ‘만약 …한다면’의 뜻으로 쓰였다. 『맹자(孟子)·만장 하(萬章下)』에, “이 다섯 분들이 만약 헌자(獻子: 맹헌자(盟獻子): 생물년 미상. 춘추시대 노나라 대부를 역임한 사람으로, 벗과 사귀에 세력 있는 가문을 염두에 두지 않았을 뿐 아니라, 세력에 아부하는 속인도 멀리했음)의 가문을 의식하는 관념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와 더불어 사귀지 않았을 것이다(此五人者, 亦有獻子之家, 則不與之友矣).”고 한 대목이 있다.

② 천재인(千載人): 천년을 산 사람.

☆천재(千載): 천년(千年). 천세(千歲).

6) 심기 거유독(心期詎幽獨: 그와 깊이 사귀다면 <죽 독서를 많이 한다면 그 사람은> 어찌 남모를 고독이 있으리오!):

① 심기(心期):

☆심중(心中: 마음속)으로 허락(칭찬·찬동·지지)하다. 깊이 사귀다. 교분을 두텁게 쌓다.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정서(情緒). 심경(心境).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우정이 아주 깊다, 우의(友誼)가 아주 깊은 벗.

☆염원(소원). 생각(마음. 의향). 기대하다. 희망. 소망.

☆마음속(생각. 포부. 도량). 마음속으로 생각하다. 가슴에 품다. 포부.

② 거(詎):

☆반문의 뜻을 나타내는 경우. 부사로서, ‘어찌(어떻게. 설마) …하겠는가?’의 뜻으로 쓰인다.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부정(否定)의 뜻을 나타내는 경우. ‘무(無), 비(非), 불(不)’에 상당한 뜻으로 쓰인다.

☆접속사로 쓰여, ‘가령(만약) …한다면’의 뜻으로 쓰인다.

☆어찌 예상(예측. 추측) 했겠는가?

☆‘거(巨)’자와 통하며, ‘대(大: 크다)’의 뜻을 지닌다.

③ 유독(幽獨):

☆한적하고 고독함. 또는 그런 사람.

☆혼자 거처하다.

7) 지양 묘유어(紫陽有妙語: 자양紫陽 주희朱熹는 의미 깊고 정취 있는 글 많이 남겼으니):

① 자양(紫陽):

☆송대(宋代) 이학가(理學家) 주희(朱熹: 1130~1200)의 별칭. 주희의 부친 주송(朱松: 1097~1143)이 자양산(紫陽山: 안휘성安徽省 홍현縣에 있음)에서 공부를 했었다. 주희가 훗날 복건성(福建省) 숭안현(崇安縣)에 거주하면서 독서실의 명칭을 ‘자양서실(紫陽書室)’로 정하고 현관을 달아 게시하면서 부친의 독서에 대한 뜻을 잊지 않았음을 보여 주었다. 그래서 후세 사람들은 이 ‘자양(紫陽)’이란 말을 주희의 별칭으로 사용하였다.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전설 중에 고대 중국 신선들은 자주 이 ‘자양(紫陽)’이란 말로 칭호를 삼았다.

주목왕(周穆王) 때의 도인(道人) 이팔백(李八百)은 호를 자양진군(紫陽眞君)이라 하였고, 한(漢)나라 도인 주의산(周義山)과 송(宋)나라 도인 장백단(張伯端)은 똑 같이 호를 자양진인(紫陽眞人)이라 하였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이 ‘자양(紫陽)’이란 말을 ‘도사(道士)’를 가리키는 말로 많이 썼다.

- ② 묘어(妙語): 낱말이 아름답고 의미가 깊으며 정취가 풍부한 언어. 풍취 있는 말.
- 8) 분향 시전독(焚香時展讀): 향 피워 놓고 수시로 책 펼쳐 읽어보리라):
 - ① 분향(焚香): 향로에 향을 피우다. 향불을 피우다.
 - ② 시(時): 부사로, ‘자주. 늘. 항상. 적시에. 때맞추어. 제때에. 수시로. 틈나는 대로’ 등의 뜻으로 쓰며, 본 시에서는 ‘때맞추어’란 뜻으로 쓰였다. 본 시에서는 ‘틈나는 대로’라고 번역하였다.
 - ③ 전독(展讀): 열독(閱讀)과 같은 말. 책을 펴서 읽다. 독서하다. 공부하다.

시21. 사성司成 김복일金復一공의 별세를
애도하면서

詩21. 輓金司成復一¹⁾
만 김 사 성 복 일



五十光陰一夢驚²⁾,
오 십 광 음 일 몽 경

오십년 세월 한바탕 꿈결같이
흘러갔는데,

桐鄉遺愛在蒼生³⁾.
동 향 유 애 재 창 생

동향桐鄉의 관료 주읍朱邑 같은
덕풍德風을 백성에게 남겼구려.

沈綿二豎無良藥⁴⁾,
침 변 이 수 무 양 약

치유할 수 없는 병마病魔에
양약良藥도 소용없었는지,

風雨三秋隔老兄⁵⁾.
풍 우 삼 추 격 노 형

투병생활 삼년 만에 김형과
영결永訣하는구려.

直氣正非今世士⁶⁾,
직 기 정 비 금 세 사

곧은 기상으로 시비 가리니
금세今世의 선비였고,

清修不愧古人情⁷⁾.
청 수 불 괴 고 인 정

청렴清廉한品行은 옛사람에 비추어도
부끄럽지 않았소.

哀詞題寄南雲黑⁸⁾,
애 사 제 기 남 운 흑

만사輓詞를 지어 부치는데
남쪽 하늘에는 먹구름 일고,

漢水西來鳥道⁹⁾橫。
한 수 서 래 조 도 횡

한강수는 서류西流하는데 험준한 산길이
비껴 있네요.

1) 만김사성복일(萬金司成復一: 사성司成 김복일金復一 공공의 타계를 애도하면서):

① 만(輓): 사자(死者)를 애도하다.

☆죽은 사람을 애도하는 언사를 만사(輓詞: 만사輓辭) 또는 만장(輓章)이라 하고
죽은 사람을 애도하는 상가(喪歌)를 만가(輓歌)라고 한다. 본 시는 죽은 사람
을 애도하는 시이므로 만시(輓詩)라고도 한다.

② 김사성복일(金司成復一): 사성(司成) 김복일(金復一). 이렇게 성씨 다음에 직
함을 쓰고 그 뒤에 이름을 쓴 것은 경칭(敬稱)의 한 예이다.

☆사성(司成): 조선시대 성균관(成均館)의 종3품 관직. 1401년(태종 1)에 재주
(祭酒)를 개칭한 것으로 성균관의 유학교육을 담당하였다.

☆김복일(金復一: 1541~1591): 조선 중기의 문신. 본관은 의성(義城), 자는 계
순(季純), 호는 남악(南嶽)이다. 부친은 생원(生員) 진(璉)이며, 병마절도사(兵
馬節度使: 속칭 병사兵使. 각 지방의 군대를 통솔하고 경비를 담당하던 종2품
벼슬) 성일(誠一: 1538~1593)의 아우이며 이황(李滉: 1501~1570)의 문인(門
人)이다. 1564년(명종 19)에 사마시(司馬試: 일명 생진과生進科, 진사進士와 생원
生員을 뽑는 소과小科를 말함. 조시初試와 복시覆試의 2단계가 있음)에 합격하고,
1570(선조 3) 식년문과(式年文科: 자자·오누·묘묘·유酉 등의 간지干支가 들어
있는 해에 실시한 문과과거文科科擧)에 병과(丙科: 전시殿試에 합격한 사람을 그 성
적에 따라 나눈 등급의 하나. 복시覆試에서 선발된 33인을 전시에서 다시 성적순으로
갑·을·병으로 나누는데, 갑과甲科는 3명, 을과乙科는 7명, 병과丙科는 23명이었음.
병과에 합격된 자는 종9품의 품계를 줌)로 급제하여, 학유(學諭: 성균관의 종9품관),
전적(典籍: 성균관의 정6품관)을 역임하고, 형조(刑曹)·호조(戶曹)·공조(工曹)
의 낭관(郎官: 6품관)을 지냈다. 그 뒤 전라도 어사(御使)로 나가 탐학(貪虐)한
관리들을 숙청하였으며, 1587년 울산군수(蔚山郡守: 종4품관)에 이어 창원부
사(昌原府使: 종3품관)가 되어 폐단이 심한 그곳을 잘 다스렸다. 이어 그 해
가을 경주교수(慶州教授)가 되어 학생들을 경학(經學)으로써 인도하여 도의를
크게 일으켰으며, 1589년 단양군수로 배명(拜命: 명령이나 임명을 받음)받았으
나 신병으로 부임하지 못했고, 성균관의 사예(司藝: 성균관에서 음악을 지도하던
정4품 관직), 사성(司成: 성균관의 종3품 관직)에 올라, 선조로부터 『문헌비고(文
獻備考)』·『대명일통지(大明一統誌)』·『성리대전(性理大全)』 등 귀중한 서
적을 내사(內賜) 받았고, 그 뒤 3개월간 풍기군수(豐基郡守)를 역임했으나, 신
병으로 물러났다. 학식이 깊고 문장이 능하여 사림에서 여강서원(廬江書院: 뒤
에 호계서원으로 개칭)의 사액(賜額)을 청함에 그 정문(程文)이 『연방세고』에 실
려 있다. 안동의 사빈서원(泗濱書院: 경북 안동시 임하면臨河面 천전리川前里에
있는 조선 후기의 서원)에 제향(祭享)되었다.

****역자주석:** 위의 만사輓詞는 사성(司成) 김복일(金復一)의 별세년도인 1591년에 쓴 것이니, 서애 50세에 작시(作詩)한 것이 되겠다.

2) 오십광음 일몽경(五十光陰一夢驚 : 오십년 세월 한바탕 꿈결같이 흘러갔는데) :

① 광음(光陰) :

☆시간, 세월.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경상(景象) : 경치, 모습.

☆밝다. 환하다. 빛.

② 일몽경(一夢驚) : 한 바탕 꿈결같이 빠르게 흘러가다.

☆경(驚) : 신속하다. 본 시에서는 전(轉)하여, ‘순식간에 흘러가는 짧은 동안’을 가리키는 뜻으로 쓰였다.

3) 동향유애 재창생(桐鄉遺愛在蒼生 : 동향桐鄉의 관료 주읍朱邑같은 덕행을 백성에게 남겼구려) :

① 동향(桐鄉) : 고지명(古地名). 지금의 안휘성(安徽省) 동성현(桐城縣) 북방에 있었다. 춘추시대(春秋時代)에는 동국(桐國)이었는데, 한(漢)나라 시대에 와서 동향(桐鄉)으로 개편(改編)되었다. 『한서(漢書) · 순리전(循吏傳) · 주읍(朱邑)』편에, “주읍(朱邑 : ?~BC 61)은 젊었을 때, 서현舒縣 동향桐鄉의 색부(胥夫 : 관명으로 현縣 및 현에 속한 각 분과分課마다의 장관을 이르는데, 전지田地나 창고 · 비단 · 피혁皮革 · 공기구器 · 우마牛馬 · 도량형度量衡 등 각 분과마다 색부胥夫를 두고 관리하며 중앙 및 지방행정의 각 부분의 행정사무를 맡아 보았음. 또한 향정鄉政을 관장하면서 민정(民情)을 살피고 노역의 선후를 결정하고 부세(賦稅)의 양을 결정하기도 했음)가 되어서(朱邑少時, 爲舒桐鄉胥夫), 청렴 · 공평하면서 가혹하지 않았고(廉平不苛), 향민을 애호하고 혜택을 베푸는 행동을 하였으며(以愛利爲行), 결코 향민을 매질하거나 나무라는 일이 없었으며(未嘗笞辱人), 의지할 곳 없는 노인이나 고아 · 과부 같은 사람들의 안부를 물었으며(存問耆老孤寡), 그 사람들을 만나며 은덕을 베풀어서(遇之有恩), 소속 관리들이나 향민들은 모두 그를 좋아하고 존경하였다(所部吏民愛敬焉). 주읍이 병이 들면서 죽음에 이르는 동안(初邑病且死), 그의 아들을 만나 말하기를(屬其子曰) : ‘나는 본래 동향의 관리이고(我故爲桐鄉吏), 이곳 향민들이 나를 좋아하니(其民愛我), 반드시 나를 동향에 장례 지내거라(必葬我桐鄉). 후세에 자손들이 나에게 제사를 지낸다 하더라도(後世子孫奉嘗我), 동향민桐鄉民만 못하리라(不如桐鄉民).’고 하였다. 주읍이 죽자, 그의 아들은 아버지를 동향의 서쪽 성곽밖에 매장하였는데(其子葬之桐鄉西郭外), 향민들이 과연 함께 모여 주읍을 위하여 무덤의 봉분을 돋우고 사당을 세웠으며(民果共爲邑起冢立祠), 해마다 제사를 지냈다(歲時祠祭).”고 하였다. 훗날 사람들은 주읍의 사례를 가지고, ‘관리들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덕정(德政)을 펼치고 후세의 사람들에게는 인애(仁愛)를 남긴 전고(典故)’로 삼았다.

4) 침면이수 무양약(沈綿暨無良藥) : 치유할 수 없는 병마에는 양약도 소용없는지) :

① 침면(沈綿) : 침면(沉綿) 혹은 침면(沈綿)으로도 쓴다. 말하자면, 질병에 걸려 낫지 않고 오래 끄는 것을 이른다.

☆침(沈) : 가라앉다. 잠기다. 빠지다. 함몰하다.

☆면(綿) : 연속되다. 끊임없다. 면면하다.

- ② 이수(二豎) : 이수(二豎)로도 쓴다. 이 말은 『좌전(左傳)·성공 10년(成公十年)』 조항에 나오는데, “공(公: 진후晉侯: 진나라 군주)이 꿈을 꾸니 질병이 두 사람의 더벅머리 총각으로 변신해서 그 중 한 총각이 말하기를(公夢, 疾爲二豎子曰): ‘그 사람은 의술이 뛰어난 의원이니, 우리를 다치게 할까 두려운데, 우리는 어디로 도망가야 하지(彼良醫也, 懼傷我, 焉逃之)?’라고 하니, 또 다른 더벅머리 총각이 대답하기를, ‘〈우리가 명치 부위인〉 횡격막橫膈膜 위면이자, 심장 밑에 머문다면, 우리를 어찌하겠는가(其一日: 居肓之上, 膏之下, 若我何?)’라고 하였다. 〈옛날의 한의漢醫는 이곳에 병마가 침입하면 고칠 방법이 없다고 한 곳임〉 진秦나라에서 보낸 의원이 당도하여 〈진료한 뒤〉 말하기를, 이 병은 치유할 수 없습니다(醫至曰: 疾不可爲也).”고 한 대목이 있다. 후에 사람들은 위 인용문에 나오는 “이수(二豎)란 말을 “병마(病魔)”란 뜻으로 사용하였다.
- ③ 양약(良藥) : 효험이 있는 좋은 약.
- 5) 풍우삼추 격노형(風雨三秋隔老兄 : 투병 생활 삼년 만에 김형과 영결하는구려) :
- ① 풍우(風雨) :
- ☆위난(危難)과 열악한 처지를 비유한 말. 본 시에서는 투병생활의 고통스러운 기간을 비유한 말로 쓰인 것으로 보인다.
- ☆비바람. 바람 불고 비오다.
- ② 삼추(三秋) :
- ☆‘삼년(三年)’을 가리키는 말이다.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그 근거로 김복일은 1589년에 단양군수에 임명되었으나 신병(身病)으로 부임하지 못하다가 1591년에 타계했으니 3년 만에 세상을 뜬 것이 된다. 진(晉)나라 육기(陸機: 260~303)의 「만가(挽歌)」에, “삼년만 지나도 〈옛 시절의 생각은〉 죽히 사라 지거늘, 만 세대 세월이야 어찌 생각이나 하겠는가(三秋猶足收, 萬世安可思!)”라고 읊은 구절이 있다.
- ☆아홉 달을 말한다. 한 해의 가을이 석 달이니, 세 해의 가을은 아홉 달인 것이다. 단정할 수는 없지만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인 것으로 보여, 역지는 이 뜻으로 해석한다. 그 근거로 김복일은 1589년 단양군수에 임명되었으나 신병으로 부임하지 못하고, 그 뒤 풍기군수를 역임했으나 신병으로 물러났다. 그의 타계 연도는 1591년이니 삼년동안 가끔씩 병을 앓았던 것으로 보인다. 『시경(詩經)·왕풍(王風)·채갈(采葛)』에, “그 아가씨가 줍을 채취하러 가버려서, 하루를 못 봤을 뿐인데도, 마치 석 달을 떨어져 있는 것과 같았네(彼采葛兮, 一日不見, 如三月兮).”라는 구절이 있다. 당나라 학자 공영달(孔穎達: 574~648)은 소(疏)에서, “일년은 4계절이니, 계절마다 석 달이라, 세 해의 가을은 아홉 달을 이르는 것이다(年有四時, 時皆三月, 三秋謂九月也)”고 하였다.
- ☆추계(秋季: 가을의 계절)를 이르는 말로도 쓴다. 음력 7월을 맹추(孟秋: 초가을)라 하고, 음력 8월을 중추(仲秋: 가을의 두 번째 달)라 하며, 음력 9월을 계추(季秋: 늦가을)라고 하는데, 함칭하여 삼추(三秋)라고 한다. 동진(東晉)의 문인 도잠(陶潛: 도연명(陶淵明: 약 365~427))의 「한정부(閑情賦)」에, “〈나는〉 그 녀가 앓을 왕골 돗자리가 되어서, 허약한 그녀가 가을을 편히 지내게 하고 싶네(願在莞而爲席, 安弱體於三秋).”라는 구절이 있다.
- ☆추계(秋季: 가을의 계절)의 세 번째 달, 곧 ‘음력 9월’을 가리킨다. 북주(北周)의

문인 유신(庾信 : 513~581)의 명문(銘文)인 「인산(仁山)에 가서 새겨 놓은 글(至仁山銘)」에, “9월 되자 얇은 구름 끼더니, 9일에는 첫추위가 찾아드네(三秋雲薄, 九日寒新).”라고 한 구절이 있다.

- ③ 격노형(隔老兄) : 김형과 영별(永別)하다.

☆격(隔) : 이별하다. 헤어지다. 본 시에서는 영결(永訣)을 가리키는 뜻으로 쓰였다.

☆노형(老兄) : 남성 상호간의 존칭.

- 6) 직기정비 금세사(直氣正非今世士 : 곧은 기상으로 시비 가리니 금세(金世)의 선비였
고) :

- ① 직기(直氣) : 정기(正氣). 바른 기풍(氣風). 공명정대한 태도(풍조)와 순정 양호(純正良好)한 품격.

- ② 정비(正非) : 시비(是非)를 가리다.

☆정(正) : 시비를 가리다, 분별하다. 정오(正誤)를 판정하다..

☆비(非) : 그릇된 것, 잘못.

- ③ 금세(今世) :

☆현대. 당대.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금생(今生 : 이 한평생, 이 일생).

- 7) 청수불괴 고인정(淸修不愧古人情 : 청렴淸廉한 품행은 옛사람에 비추어도 부끄럼
지 않았소) :

- ① 청수(淸修) : 청수(淸脩)로도 씀.

☆담박(淡泊 : 욕심이 없고 깨끗함)하고 반성수신(反省修身)함을 이르는 말. 본 시
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음.

☆품행이 방정(方正)하고 훌륭함을 이르는 말.

☆청렴결백하고 지위가 높은 가문을 이르는 말.

☆불교에서 재가수행(在家修行)하는 것을 가리킴.

- ② 고인정(古人情) : 옛사람의 실정(實情). 옛사람의 경우.

- 8) 애사제기 남운흑(哀詞題寄南雲黑 : 만사(萬事)를 지어 부치는데 남쪽하늘에는 먹구
름 일고) :

- ① 애사(哀詞) : 애사(哀辭)로도 씀. 애도사(哀悼詞)로서, 문체명이다. 고대에는 천
수를 누리지 못하고 요절한 사람을 애도하는 뜻에서 이 글을 썼다. 그러나 후세
에 와서는 천수를 누린 사람을 위해서도 이 애도사를 썼다. 대체로 운어(韻語)를
써서 운(韻)을 맞추어 썼다.

- ② 제기(題寄) : 써서 부치다.

☆제(題) : 적다. 쓰다. 서명하다.

- 9) 조도(鳥道) : 좁고 험준한 산길. 나는 새도 넘기 어려울 만큼 험한 길. 조경(鳥
逕)이라고도 한다.



시22. 청련^{靑蓮} 이 후백^{李後白} 판서의 타계를
애도하면서

詩22. 輓^만李^이靑^靑蓮^蓮¹⁾

天柱峯摧南極傾²⁾,
천 주 봉 최 남 극 경

하늘 괴고 있던 산봉^{山峯}이
남극으로 기울자,

蒼生望絕士林驚³⁾.
창 생 망 절 사 림 경

창생^{蒼生}은 희망을 잃고
사림^{士林}은 경악했소이다.

靑年志槩凌霜雪⁴⁾,
청 년 지 개 능 상 설

청년들의 의지와 기개는 눈서리를 맞았고

白首忠勤動廟庭⁵⁾.
백 수 충 근 통 묘 정

연로해도 충근^{忠勤}하셨기에 조정에서는
모두 비통해 했소이다.

楊綰佇看扶大業⁶⁾,
양 관 저 간 부 대 업

(당나라 충신) 양관^{楊綰}은 대업^{大業}을
보좌한 것이 금방 보였지만,

魏公寧復倚長城⁷⁾.
위 공 영 복 의 장 성

(송나라 간신) 위공^{魏公}이야
어찌 다시 국방을 장성^{長城}에
의지하려 했으리까?

如今萬事關時運⁸⁾,
여 금 만 사 관 시 운

이제 만사에 시운^{時運}이
다 하여선지,

雲暗寒山日欲暝⁹⁾.
운 암 한 산 일 욕 명

적막한 산에 구름 끼고
해가 지려 하네요.

- 1) 만이청련(輓李靑蓮): 청련(靑蓮) 이후백(李後白). ‘청련’은 이후백의 호이다.
 ☆이후백(李後白: 1520~1578): 자세한 내용은 「시17」 주석1)의 ①을 참조바람.
 ① 만(輓): 사자(死者)를 애도하다. 자세한 내용은 「시21」 주석1) ‘만(輓)’ 조항을 참조바람.
 ② 이청련(李靑蓮): 청련(靑蓮) 이후백(李後白). ‘청련’은 이후백의 호이다.
 ☆이후백(李後白: 1520~1578): 자세한 내용은 「시17」 주석1)의 ①을 참조바람.
- 2) 천주봉최 남극경(天柱峯摧南極傾: 하늘 꺾고 있던 산봉山峯이 남극으로 기울자)
 : 본 시구는 중대한 임무를 맡고 있는 사람의 타계를 비유하여 애도한 말이다. 천주봉(天柱峯)은 이후백을 가리키는 말로 쓰였으며, “최(摧: 꺾이다. 파괴되다)”와 “경(傾: 기울다. 무너지다)”은 모두 ‘죽음’을 비유한 말로 쓰였다.
 ① 천주(天柱: 하늘을 꺾고 있다는 기둥): ‘하늘이 무너지지 않도록 꺾어서 지탱하고 있다는 기둥’을 말하는데, 이 ‘천주(天柱)’라는 말은 중국 고대 신화에 나온다. 『회남자(淮南子)·천문(天文)』편에, “옛날에 공공(共工: 전설상의 천신天神으로 인면사신人面蛇身이었다고 함)과 전옥(顓頊: 상고시대 제왕으로 황제黃帝의 손자였다고 하며, 호는 고양씨高陽氏임)이 서로 제위帝位에 오르려고 쟁탈하다가(昔者共工與顓頊爭爲帝), 분노에 차서 머리로 부주산(不周山: 전설상의 산 이름)을 들이 받자(怒而觸不周之山), 천주가 부러지고(天柱折) 대지에 묶여났던 밧줄이 절단되었다(地維絶)”고 한 대목이 있다.
- 3) 사람(士林):
 ① 문인사대부 계층과 지식계를 가리킨다.
 ② 유교를 닦는 선비들, 즉 유학을 신봉하는 무리, 곧 유림(儒林)과 같은 말이다. 본 시에서는 ①, ②의 뜻을 다 내포하고 있다.
- 4) 청년지개 능상설(靑年志槩凌霜雪: 청년들의 의지와 기개는 눈서리를 맞았고):
 ① 지개(志槩): 지개(志概)로도 쓴다.
 ☆절조(節操: 절개와 지조). 지기(志氣: 의지와 기개氣概).
 ② 릉(凌): (서리를) 맞다. (…에) 덮이다.
 ③ 상설(霜雪):
 ☆음산(陰散)한 환경이나 냉혹(잔혹·가혹)한 처지를 비유한 말.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고결한 정조(情操)를 비유한 말.
 ☆백발을 비유하여 가리키는 말.
 ☆냉담(준엄·냉혹)한 얼굴표정을 비유한 말.
 ☆서리와 눈. 눈서리.
 ☆마음이 결백하고 엄함을 비유한 말.
- 5) 백수충근 동묘정(白首忠勤動廟庭: 연로해도 충근하셨기에 조정에서는 모두 비통

해 했소이다) :

① 백수(白首) : 백발(白髮)과 같은 말로서 연로(年老)함을 의미한다.

② 충근(忠勤) : 충근(忠勤)으로도 쓴다.

☆충심(忠心)으로 근로(勤勞 : 근무)하다.

☆충성스럽고 근실(勤實)하다.

③ 동(動) : 통(働)과 통하는 뜻으로 쓰였다. ‘대단히 슬퍼하다’는 뜻이다.

④ 묘정(廟庭) : 묘정(廟廷)과 같은 말임.

☆묘당(廟堂 : 조정朝廷). 조정(朝廷) : 임금이 신하를 접견하고 정사政事를 논의하는 전당. 군주를 수반으로 하는 중앙정부의 뜻이다.

6) 양관 저간부대업(楊綰佇看扶大業) : <당唐나라 충신> 양관楊綰은 대업大業을 보좌한 것이 금방 보였지만 : 본 시에서는 이후백(李後白)을 양관(楊綰)에 비유하여 읊은 것이다.

① 양관(楊綰 : ?~777) : 자는 공권(公權), 당대(唐代)의 화주(華州) 화음(華陰), 지금의 섬서성(陝西省) 화양시(華陽市) 출신이다. 당나라 중엽의 문신. 유년시절에 아버지를 여의고 빈한(貧寒)한 가정에서 자랐다. 안사의 난(安史之亂 : 당나라 현종 말엽인 755년에 안록산安祿山과 사사명史思明이 일으킨 반란)이 발발한 직후, 기거사인(起居舍人 : 관명. 문하성門下省의 종6품 관직. 황제의 언행을 기록하여 역사기록에 대비하는 업무를 관장하였음)에 임명되고, 지제고(知制誥 : 관명. 중서사인中書舍人이 황제의 조칙을 초안 작성하는 업무를 관장함)를 역임하였다. 또한 사훈원의랑(司勳員外郎 : 공훈功勳의 등급을 결정하는 정령政令의 업무를 관장하는 이부吏部 소속의 차관)을 역임하고, 직방랑중(直方郎中 : 종5품 이상의 관직으로 상서상문書省 병부장방사兵部職方司의 장관임. 군사적 지도·성곽과 성곽을 둘러싼 방어용 하천·군영軍營·봉수대烽燧臺 등의 업무를 관장하였음)을 역임하였다. 당숙종(唐肅宗 : 711~762. 재위기간은 756~762 : 성명은 이형李亨 현종의 셋째 아들임) 때, 중서사인(中書舍人 : 중서성中書省의 요직으로, 정5품의 관직이며 조회朝會 때 황제를 시종하고, 상주문上奏文을 수납하며, 정부에 참여 논의하였음)이 되어 국사편찬의 업무를 수행하다가 예부시랑(禮部侍郎 : 예부 소속의 종3품관 또는 정4품관임)으로 전근되었다가 태상경(太常卿 : 3품관으로, 종묘제사의 예악에 관한 업무와 예의지사禮儀之事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였음. 정치적 실권은 삭탈된 명예직임)이 되었다. 당시의 간신 원재(元載 : ?~777년)가 권력을 잡고 불법을 자행하면서 충신을 배척하고 악행을 저지르다가 자살을 명받고 죽은 후에, 중서시랑(中書侍郎 : 중서성中書省의 차관으로 정4품 관직임)을 역임하고, 동중서 문하평장사(同中書門下平章事 : 약칭 동평장사同平章事. 상서령尙書令·복야僕射·중서령中書令·사중侍中 등 재상들과 동등한 자격으로 정부政務를 논한다는 뜻에서 얻어진 관명임)를 역임하였으며, 집현전 승문관 대학사(集賢殿崇文館大學士 : 집현전과 승문관 <동궁(東宮)에 세워진 장서각(藏書閣)이면서도 생도들을 가르치던 곳>에서 황제의 고문顧問에 대비하고 태자를 보도輔導하던 재상들이 겸직하던 관직)로서 국사편찬을 겸했다. 양관(楊綰)이 저명해지고 후세 사람들로부터 가장 칭송을 받은 것은 그의 ‘절검(節儉)’하는 정신이었다. 숙종(肅宗) 때, 그는 중서사인으로 승진했는데, 관례에 따라 그는 연령이 가장 높아 사인(舍人) 중에서 “각로(閣老 : 당대唐代에 중서성과 문하성에 속한 관료 중에서 연령과 근속 경력이 오래된 자에 대한 존칭)”가 되었다. 게다가 소속된 관서 사무실의 관원들이 수령하는 녹봉배분의 금액에 있

어서, 그는 6명이 정원인 동료의 녹봉액을 모두 합친 금액의 4/5나 되는 금액을 수령할 수 있었다. 그렇지만 양관(楊綰)은 오히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가 생각하기에 동일한 등급의 관원들은 마땅히 같은 대우를 받아야지, 연령을 가지고 등급을 재차 정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이렇게 하면 젊은 사람이 재능을 발휘하기에 불리하고, 나라에도 이롭지 못하다고 생각했다. 이러한 까닭으로, 그는 곧 그의 사무실과 기타 모든 중서사인의 봉록을 평균하여 지급할 것을 신청하여 공인받았다. 이렇게 되자 중서성의 모든 관원들이 그를 극히 존중했고, 모두가 한마음으로 협력하자, 기타 관서보다 효율이 명백히 높아지면서, 양관의 위인됨은 조정의 모든 관원들로부터 예찬을 받았다. 대종(代宗 : 727~779. 재위기간은 762~779. 성명은 이예李豫, 숙종의 장자임) 년간에 이르러, 양관은 정치적 업적에 따라 이부시랑(吏部侍郎 : 이부의 차관으로 정4품 벼슬임)으로 승진했는데, 지금의 행정자치부(行政自治部) 차관에 상당하는 관직이었고, 전문적으로 관리들의 심사를 책임졌으며, 관직의 승진과 좌천을 결정하는 등 그 실권이 막대하였다. 그러나 양관은 조금도 오만하게 처신하지 않았으며, 모든 관원들의 인사고과(人事考課)를 공평하게 처리하여, 인재를 엄정하게 선발하였던 까닭에 중인(衆人)의 칭송을 받았다. 당시에 원재(元載 : ?~777)가 조정대권을 장악하고 있어, 조정 문무관원들은 모두 그에게 영합하고 아첨하였지만, 오직 양관만이 그의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았고, 고립되는 것을 무서워하지 않았으며 의연하게 그의 배제(排擠)를 받아들였다. 여태껏 한 번도 사적으로 원재를 방문한 적이 없었다. 원재가 그에게 경계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비록 표면적으로는 양관을 존경했지만, 내심으로 아주 소원하게 여겼다. 훗날 기회를 잡아 길으로는 승진을 시켜주는 것 같이 하면서 암암리에 좌천시켜, 양관으로 하여금 국자감 주(國子監祭酒)가 되게 했는데, 이것은 실권이 없는 관직이었다. 이는 국립대학의 총장에 상당하는 관직이었지만, 사회적 여론은 오히려 양관에게 집중되었다. 그 후 원재가 저지른 죄악으로 주살된 후, 양관은 다시 중서시랑(中書侍郎)이 되었고, 동 중서 문하평장사(同中書門下平章事)가 되어 재상 중의 한 사람이 되었다. 조령(詔令)이 공포된 날, 조야(朝野)의 상하 모든 사람들의 경축하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 양관은 평소에도 검소하고 소박하였다. 마차의 장식 또한 아주 간단했다. 재상으로 임명된지 며칠되지 않아서 조정에는 검소한 기풍이 형성되었다. 어사중승(御史中丞 : 감찰·백관을 규찰 감독 탄핵하고, 법령을 집행하여, 범죄인을 나포하고 형옥刑獄의 업무를 관장하는 어사대御史臺 소속의 정3품 또는 종4품의 관직) 최관(崔寬 : 생몰년 미상)은 당시 검남 서천절도사(劍南西川節度使)의 동생으로 가산(家産)이 막대한 장자여서 호화사치가 극에 달한 생활을 하였다. 그는 황성(皇城) 남쪽에 호화별장을 한 채 소유하고 있었는데, 양관이 재상에 취임한 며칠 뒤에 묵묵히 이 별장을 스스로 허물어 버렸다. 또한 중서령(中書令 : 중서성中書省의 장관으로 정3품 관직임) 곽자의(郭子儀 : 697~781)는 양관이 재상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군영(軍營) 안에 악단(樂團)과 기생의 숫자를 대부분 줄여 버렸다. 그런가 하면, 경조윤(京兆尹 : 경기지방 행정장관. 종3품) 여간(黎幹 : 생몰년 미상)은 당시 황제의 총신(寵臣)이라, 매번 외출할 때마다 마부(馬夫)는 한 사람이었지만 수행원이 100명에 달했다. 그 역시 양관이 재상에 봉해졌다는 조서(詔書)를 받고 나서는 수행원을 10명으로 줄였다. 양관은 재직 중에 줄곧 덕으로 대중을 승복시켰으며, 법 집행에 엄정

하였으며, 공평무사한 원칙을 유지했기에 그가 보인 절검(節儉)의 시범이 위에서 예를 든 효과를 거두었다. 양관은 연결(廉潔)을 숭상한 방정(方正)한 재상이었다. 그는 녹봉 전액을 친척과 벗에게 나누어 주었다. 사후(死後)에 사도(司徒: 명에 재상. 1품 관직)에 봉해졌다. 『신당서(新唐書)·열전제67(列傳第六十七)』편과 『구당서(舊唐書)·열전 제69(列傳第六十九)』편에 그의 전기가 있다.

- ② 저간(佇看): 어떤 행동을 머지않아 (곧. 금방) 보이다.

☆저(佇): 우두커니(오래) 서 있다.

☆바라다. 기대하다.

- ③ 부(扶):

☆지원하다. 돕다. 보좌하다.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부축하다. 보살피다. 보호하고 유지하다.

☆지탱하다. 떠받치다. 꺾다.

- ④ 대업(大業):

☆제업(帝業): 왕조를 건립하려는 사업, 즉 제왕의 사업)을 이룬다. 본 시에서는 전(轉)하여, ‘왕조의 유지, 곧 ‘나라의 큰 사업, 즉 ‘국정(國政)’을 가리키는 뜻으로 쓰였다.

☆큰 공훈과 업적.

- 7) 위공 영부의장성(魏公寧復倚長城: <송나라 간신> 위공魏公이야 어찌 다시 국방을 장성長城에 의지하러 했으리까?):

- ① 위공(魏公): 위국공(魏國公) 진회(秦檜: 1090~1155)를 가리킨다. 본 시에서 쓰인 위공은 ‘위국공의 약칭’으로 쓰였다. ‘국공’은 작위의 명칭이다. 『송사(宋史)·직관지 3(職官志 三)』에, “작위 9등급을 열거하면, 1등급이 왕(王)이고, 2등급이 군왕(郡王)이며, 3등급은 국공(國公)이고, 4등급은 군공(郡公)이고, 5등급은 현공(縣公)이며, 6등급은 후작(侯爵)이며, 7등급은 백작(伯爵)이고, 8등급은 자작(子爵)이며, 9등급은 남작(男爵)이다(列爵九等, 曰王, 曰郡王, 曰國公, 曰郡公, 曰縣公, 曰侯, 曰伯, 曰子, 曰男).”고 하였다.

당시 송나라에 위협적 압박을 가하던 금(金)나라와 “소흥강화조약(紹興講和條約*: 중국 역사에서는 ‘소흥화의紹興和議’라고도 함. 소흥紹興은 고종 재위시의 연호임)”을 체결한 후, 진회(秦檜)를 표창하여, 송·고종이 ‘위국공’이란 작위를 내린 것이다.

☆진회(秦檜: 1090~1155): 송나라 강녕(江寧), 지금의 강소성(江蘇省) 남경시(南京市) 출신. 자는 회지(會之). 휘종(徽宗) 정화 5년(政和五年: 1115) 진사(進士)가 되었다. 흠종(欽宗) 때 좌사간(左司諫: 종5품의 간관諫官)과 어사중승(御史中丞)을 역임하였다. 정강 2년(靖康二年: 1127) 금나라가 북송신하들을 협박하여 장방창(張邦昌)을 꼭두각시 황제로 등극시키는 조치를 취하자 진회는 이 조치를 반대한다는 서신을 올렸다는 이유로, 휘종과 흠종이 납치되어 금나라로 갈 때, 함께 북송(北送)되었다가 금나라 황족인 달라(撻懶: ?~1139)와 암암리에 밀약을 맺고 돌아왔음에도, 진회는 ‘금나라 간수와 사병을 척살하고 배를 탈취하여 귀국했다’고 하면서 귀환하였다. 소흥원년(1131)에 고종은 그를 참지정사(參知政事)에 발탁하는 동시에 재상에 봉했다. 이듬해 탄핵을 받아 퇴직했다가, 소흥 8년(1138)에 다시 복직하여 재상이 되었다. 전후에 걸쳐 집정 19년, 그는 장준(張浚: 1094~1164)과 조경(趙鼎: 1085~1147)을 좌천시켜 축

출하고, 한세충(韓世忠 : 1089~1151), 악비(岳飛 : 1103~1142, 자는 봉거鵬舉. 농민 출신. 금나라와의 강화를 반대함. 금과의 항전에서 가장 혁혁한 전공을 세웠음. 추증된 작위는 악왕鄂王임), 장준(張浚 : 1086~1154) 등 세 대장의 병권을 박탈하는 동시에, 악비에게는 ‘용병두류(擁兵逗留 : 군대를 장악하고도 적을 향해 전진하지 않고, 본진에 체류하기만 함)’ 등의 죄명을 날조하여 처형하였다. 사당(私黨)을 결성하고, 자신의 견해에 동조하지 않는 자를 배척 축출하면서, 누차 대규모 옥사(獄事)를 일으켜 일시에 당시의 충신양장(忠臣良將)을 거의 살육하였다. 고종은 황위(皇位)를 공고히 하고(인질로 금나라에 잡혀간 휘종과 흠종이 귀국하면 자신의 황제 직위가 위태해지므로), 진회는 자신의 정치적 세력을 견고히 하려는 이해가 일치되어, 고종과 진회는 금나라와의 강화조약을 한마음으로 지지하고, 복벽(復辟 : 물러났던 임금이 다시 황위에 오름)을 저지하였다. 금나라에 칭신(稱臣)하고 막대한 금품을 상납한 굴욕적인 소흥강화조약(紹興講和條約)을 체결하고 난 뒤, 고종은 진회를 몹시 총애하여 그에게 위국공이란 작위를 내렸다(그 후 진국공秦國公이란 작위도 내려주었음). ‘신왕(申王)’이라고 추증하였으며, 시호는 충헌(忠獻)이다. 영종(寧宗) 개희 2년(開禧二年 : 1206)에 이르러서는 추증된 왕작(王爵)을 삭탈하고, 시호를 유추(謬醜)라고 개칭하였다.

*소흥강화조약(紹興講和條約) : 소흥화의(紹興和議) : 소흥 11년(紹興十一年 : 1141)에 송 · 고종과 금 · 회종(金熙宗 : 1119~1149, 금나라 황제. 이름은 단寬, 태조 아골타(阿骨打 : Akuta)의 적장손嫡長孫)이 주재한 두 왕조 사이의 불평등 강화조약의 대략은 다음과 같다. “첫째, 송나라는 칭신(稱臣)하여, 금나라에 상주문(上奏文)을 올리고, 금나라 황제는 송나라 군주를 황제로 책봉한다. 둘째, 송나라는 매년 금은(金銀) 25만 냥과 비단 25만 필을 금나라에 조공(朝貢)으로 바친다. 셋째, 매년 금나라의 황제 생신일과 정월 초하룻날에 송나라는 사신을 보내 치하한다. 넷째, 금나라는 송 · 회종(宋徽宗 : 고종의 부친)의 관(棺)과 위태후(韋太后 : 고종의 생모)를 귀환시킨다. 다섯째, 송과 금의 국경 경계선을 동쪽으로는 회수(淮水), 서쪽으로는 대산관(大散關 : 섬서성陝西省 보계현寶雞縣 서남)을 경계로 한다(宋稱臣奉表於金, 金主冊封宋主爲皇帝. 宋歲貢金銀二十五萬兩, 絹二十五萬匹. 每年金主生辰及正旦, 宋遣使致賀. 金歸還宋徽宗梓宮與太后. 東以淮水, 西以大散關爲兩國疆界).”고 하였다. 남송(南宋) 고종(高宗) 소흥 7년(1137)에 금(金) 나라에서는 황족인 달라(撻懶 : ?~1139)를 대표로 하는 주화파(主和派)가 정권을 잡고, 남송에서는 진회(秦檜 : 1090~1155)가 주도하여 금(金) · 송(宋) 사이에 화친조약이 체결되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금나라가 조정에서는 ‘송국(宋國)’이란, 국호를 ‘강남(江南 : 양자강 남쪽의 조정)’이라고 낮추어 불렀으며, ‘국서(國書)’라 하지 않고 ‘조서(詔書 : 임금의 명령을 적은 문서)’라고 하면서 송나라를 속국(屬國)으로 대했다. 위의 ‘소흥강화조약’ 조항에서 열거했듯이, 송나라는 금나라에 칭신(稱臣)하고, 국도를 할양하고, 조공(朝貢)을 갖다 바쳐야 하는 등 참으로 굴욕적인 화친조약을 맺었다. 이렇게 조약이 체결된 해가 소흥 11년(1141) 11월이었다. 이 과정에서 조정의 문무대신과 백성들은 금(金)과의 화친을 극력 반대했다. 심지어 거리에는 진회(秦檜)를 가리켜, ‘세작(細作 : 간첩)’이란 망문(榜文)까지 나붙었다. 진회는 강화조약을 반대하는 충신 양장(良將)을 대량 살상

했다. 소흥 12년(1142) 봄에 금나라에서는 사신을 보내어 송나라의 ‘조구(趙構: 송 고종의 성명)’를 송나라의 황제로 책봉하고, 금·송 양국의 국경선을 조약의 조항과 같이 확정했다. 소흥 12년은 임술년(壬戌年)이라, 이 조약을 ‘임술지맹(壬戌之盟: 임술년에 맺은 동맹)’이라고도 한다. 송 고종은 진희의 공(功)을 표창하여 좌상(左相)에다 태사(太師)를 겸하게 하고 위국공(魏國公)에 봉했다. 조정의 문무대신과 사대부 및 시중의 백성들이 다 반대해도, 태평세월을 유지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주전파(主戰派)의 현신(賢臣)과 양장(良將)을 대량 살상하면서 일신의 부귀를 위해 권력을 전횡하기만 하던 그가, 어찌 다시 국력을 모아 실지(失地)를 회복하고, 만리장성을 방어벽으로 삼아 북방 유목민족의 방어벽으로 삼아 북방 유목민족의 침략을 막는데 전력을 기울일 리가 있겠는가? 본 시에서는 진희는 그럴 위인이 아니었다는 것을 읊으면서 이 후백(李後白)과 대비되는 사람으로 묘사하였다.

- ② 영부(寧復): 어찌 다시 ……하랴. 설마 다시 ……하랴.
- ③ 의장성(倚長城): 만리장성을 방어벽으로 의지하다. 이는 당시 송나라 사람들의 중원회복을 위한 ‘주전론자(主戰論者)들의 방책’이었다. 이들 주전론자들은 중원 수복을 위해서는 반드시 만리장성을 방어벽으로 하여, 금(金)과 전투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였다. 자세한 설명은 위의 위공(魏公) 조항을 참조바람.

☆의(依): 기대다. 의지하다.

☆장성(長城): 만리장성(萬里長城): 춘추전국(春秋戰國) 시대부터 고대 중국의 각국이 방어용 목적으로 자국(自國)의 북방 변경 요새지(要塞地)에 장성(長城)을 수축하였다. 전국시대에 와서는 제(齊)·초(楚)·위(魏)·연(燕)·조(趙)·진(秦)·중산(中山) 등 각국이 상계(相繼)하여 건축하였다. 특히 진시황(秦始皇)이 6국을 멸하고 통일을 완성한 후에는 북방의 흉노족의 남침을 방어하기 위해서 진(秦)·조(趙)·연(燕) 3국의 북변(北邊) 장성(長城)을 보수(補修)하여 하나의 긴 성벽으로 이었다. 그래서 성(城)의 서쪽 임조(臨洮: 지금의 감숙 성甘肅省 민현岷縣)에서 시작하여, 지금의 내몽고자치구(內蒙古自治區)에 위치한 음산(陰山)을 거쳐 요동(遼東)에 까지 이르러 속칭 “만리장성(萬里長城)”이라고 한다. 그 이후 한(漢)·북위(北魏)·북제(北齊)·북주(北周)·수(隋) 등 각국이 북방과 유목민 접경지대에 장성(長城)을 축성 보수하였고, 명대(明代)에도 여러 번 축성 보수하여, 그 길이가 6700리에 이른다.

- 8) 여금만사 관시운(如今萬事關時運: 이제 만사에 시운이 다하셨는가):

- ① 여금(如今): (비교적 먼 과거에 대비하여) 지금, 이제, 오늘날, 현재.
- ② 관(關): (문을) 닫다. (시운이) 다함을 이르는 말로 쓰였다.
- ③ 시운(時運):

☆시대의 운수. 시대나 운수. 옛사람들의 미신에서 나온 말로, 사람 인생의 길흉을 만나는 경우는 운명이 결정하는 동시에, 시간의 운행을 통해서 표현된다고 생각했는데, 이것을 시운이라 한다.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세월이 흘러가고 시절이 변함을 이른다.

- 9) 운암한산 일욕명(雲暗寒山日欲暝: 적막한 산에 구름 끼고 해가 지려 하네요):

- ① 운암(雲暗): 구름이 하늘을 덮다. 하늘에 구름이 끼다.
- ☆암(暗): 덮다. 본 시에서는 ‘구름이 끼다’는 뜻으로 쓰였다.

② 한산(寒山):

☆쓸쓸하고 적막한 산.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겨울의 산.

③ 일명(日暝): 해가 지다. 날이 저물다.



시23. 갈림길을 거닐다보니 연못에 달이 비치기에 고산孤山에 올라서

詩23. 遊岐 湖泛月 登孤山¹⁾
유 기 호 범 월 등 고 산

孤山踏月弄仙花²⁾,
고 산 답 월 농 선 화

고산孤山에서 달밤에 산보하며
선화仙花를 감상했는데,

桂棹³⁾歸時月未斜。
계 도 귀 시 월 미 사

노를 저어 돌아올 때도
달은 아직 기울지 않았네.

南浦採菱⁴⁾人欲盡,
남 포 채 령 인 욕 진

남쪽 포구에 마름 뜯는 사람들
다 귀가하려 할 무렵,

隔林松火⁵⁾認漁家。
격 립 송 화 인 어 가

숲 건너편에 관솔불 보이니
어부집인 걸 알겠네.

1) 유기 호범월 등고산(遊岐湖泛月登孤山 : 갈림길을 거닐다 보니 연못에 달이 비치기에 고산에 올라서)

① 유기(遊岐) : 갈림길을 거닐다.

☆유(遊) : 걷다. 거닐다.

☆기(岐) : 갈림길.

② 호범월(湖泛月) : 연못에 달이 비치다.

☆호(湖) : ‘호수’라는 뜻이나, 본 시의 시제(詩題)에 나오는 산 이름 ‘고산(孤山)’ 아래 형성된 ‘소담(小潭 : 연못 규모의 작은 못)’을 칭하는 것이므로, 역지는 ‘호

(湖)’를 ‘연못’이라 번역한다.

☆범(泛): ‘범(汎)’과 같은 자(字)로서 ‘(물에) 뜨다. 퍼우다’는 뜻인데, 본 시에서는 ‘물에 반사되어 비치다’는 것을 가리키는 뜻으로 쓰였다.

- ③ 고산(孤山): 안동 지방의 향토지(鄉土誌)인 『영가지(永嘉誌)권2(卷二)·산천(山川)』*편에 의하면, “고산은 풍산현(豊山縣) 북쪽 2리 남짓 되는 곳에 있는데(孤山在豊山縣北二里許), 위부분은 평평하고 넓어서 100여 명이 앉을 수 있다(上頭平衡可坐百餘人). 석천(石川) <바위 틈새로 물이 흘러내리는 아주 작은 개울>이 있으며(有石川), 그 원류는 학가산에서 시작하여 그 아래로 흘러내려 소담(小潭: 연못 규모가 작은 못)이 형성되었는데(源出鶴駕山至其下而成小潭), 청초하고 아름답하여 사랑스럽다(淸勝可愛).”고 하였다.

*『영가지(永嘉誌)·각리(各里: 각 촌락의 명칭과 위치를 기록한 부류)』편: 여기서, 「부서(府西: 안동대도호부의 서부)·회곡촌(檜谷村)」조항을 보면, “회곡촌은 하계곡촌(下桂谷村: 속칭 하조곡(下槽谷)의 서쪽 수리(數里: 몇 리. 10리가 안 되는 곳을 이르는 말)쯤 되는 곳에 있는데(檜谷村在下桂谷西數里許), 마을 가운데로 작은 골짜기의 시냇물이 서쪽으로 흘러 낙동강에 유입된다(中有小澗西流入于洛). 고산은 강과 산골짜기가 합쳐지는 곳에 있다(孤山在江石間合處).”고 한 대목이 있다. 또한 「장가동촌(長嘉洞村)」조항을 보면, “장가동촌은 상계곡(上桂谷: 속칭 상조곡(上槽谷) 서쪽 수리(數里)쯤 되는 곳에 있는데(長嘉洞村在上桂谷而數里許), 일명 엄곡촌(嚴谷村)이라고 그 마을을 통칭한다(一名嚴谷通謂之). 하계곡 맞은편의 세 봉우리의 산은 낙동강 및 안동부(安東府)의 남부와 잇닿아 있는데(下桂谷對三峯臨洛水與府南), 모든 곡촌(谷村)이 강물을 사이에 두고 마주 보면서 위치하고 나뉘어져 있다(皆谷村 隔水相望有船津).”고 하였다.

- 2) 고산달월 농선화(孤山踏月弄仙花: 고산(孤山)에서 달밤에 산보하며 선화(仙花)를 감상했는데):

- ① 달월(踏月):

☆달밤에 산보하다.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달빛을 본다.

- ② 농선화(弄仙花): 선계의 꽃을 감상하다.

☆농(弄): 감상하다.

☆선화(仙花): ‘신선세계의 꽃’이란 뜻으로 상상의 꽃이며, 달을 비유하여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 3) 계도(桂棹): 계도(桂櫂)로도 쓴다.

- ① 박달나무로 만든 노, 박달나무라는 목재에 국한하지 않고 만들어진 일반적인 노를 가리키기도 한다.

- ② 배[船]를 가리킨다.

- 4) 채릉(採菱): 마름을 따다.

- ① 령(菱): 마름. 말뚝: 마름과의 한 해살이 풀. 진흙 속에 뿌리를 박고, 줄기는 물 속에서 가늘고 길게 자라 물위로 나오며 깃털 모양의 물 속 뿌리가 있다. 잎은 줄기 꼭대기에 뭉쳐나고 삼각형이며, 잎자루에 공기가 들어 있는 불룩한 부낭(浮囊)이 있어서 물위에 뜬다. 여름에 흰 꽃이 피고 열매는 딱딱하고 도삼각형(倒三角形)이며 양 끝에 꽃받침 조각이 변한 가시가 있고 중앙부가 두드러진 핵과(核

果)로 식용한다. 경상도와 강원도 및 충북의 사투리로는 ‘말밥’이라고 칭한다. 경상도에서는 이 말 밤을 가지고 주로 목을 해먹었고, 찌서 떡도 해먹었다. 어린이들은 이 말밥의 껍질을 까서 생으로 먹기도 하고, 찌서 먹기도 했다. 그러나 이 마름의 잎과 줄기는 먹지 않는다.

- 5) 송화(松火) : 송명(松明) : 관솔불 : 솔불. 송진(松津 : 송지松脂)이 많이 함유된 소나무 가지를 가늘게 쪼개서 불을 붙여 등불처럼 조명용(照明用)으로 쓰던 불을 말한다.

시24. 함창咸昌 객관에서 호음湖陰 정사룡鄭士龍
공공의 시를 차운次韻하여

詩24. 咸昌客舍 次湖陰韻¹⁾
함창咸昌 객사客舍 차호음韻



龍宮館裏午聞雞²⁾,
용궁관리오문계

용궁龍宮의 객관에서
한낮에 닭 우는 소리 들었는데,

走馬咸寧日掩西³⁾.
주마함영일엄서

말을 타고 함영咸寧에 이르니 날이 저무네.

啼鳥落花隨處⁴⁾在,
제조낙화수처제

새 지저귀고 꽃잎 지는 풍경이야
어디서나 있다지만,

暖風芳草客魂迷⁵⁾.
난풍방초객혼미

온화한 바람과 향긋한 방초는
나그네 넋을 미혹시키네.

流年冉冉空傷老⁶⁾,
유년염염공상로

세월은 휙휙 흘러 늙는 게 괜히
안타까운데

別思茫茫剩入題⁷⁾.
별사망망잉입제

이별하던 생각에 맘 뒤숭숭해서
한껏 집중하여 글을 쓰네.

小閣臨觴忽惆悵⁸⁾,
소각임상홀추창

소루小樓에서 술잔을 마주 하니
홀연 서글픈 생각 들어서,

起看天際片雲低。
기 간 천 제 편 운 저

일어나 먼 하늘 바라보니
조각구름 낮게 떠 있네.

1) 함창객사 차호음운(咸昌客舍次湖陰韻 : 함창객관에서 호음湖陰 정사룡鄭士龍 공
공의 시를 차운하여) :

① 함창(咸昌) : 경북 상주군(尙州郡) 함창읍(咸昌邑) 지역에 있었던 조선시대의 현
(縣). 본래 고려가야국(古寧伽耶國)이었는데, 신라가 이를 취하여 고동람군(古冬
攬郡 : 또는 고릉군古陵郡)을 설치하였다. 경덕왕 때 고령군(古寧郡)으로 고쳤고
관산(冠山) · 가선(嘉善) · 호계(虎溪) 등을 임내(任內)로 하였다. 고려 때에는
961년(광종 12) 함녕군(咸寧郡)으로 고쳤고, 현종 때 상주에 귀속시키고 함창으
로 바꾸었으며, 명종 때에 감무(監務)를 설치하였다. 조선시대에는 1414년에 상
주군에 병합되었다. 함창의 옛 이름인 고동람은 대읍(大邑) 또는 장읍(長邑)의
뜻을 가지므로 부족국 시대의 족장이 살았던 지역으로 추측된다. 이 지역은 소백
산맥 남쪽 사면의 낙동강 상류를 차지하는 분지의 지형이었다. 조선시대에는 경
상도 북부의 교통요지로 문경과 상주를 잇는 남북의 도로와 보은(報恩)과 용궁을
잇는 동서의 도로가 발달하였고, 부근에 덕통역(德通驛)이 있었다. 남산(南山)
봉수(烽燧)는 남쪽의 소산(所山)과 북쪽의 선암산(禪巖山) 봉수를 이어주었다.

② 객사(客舍) : 객관(客館).

③ 호음(湖陰) : 정사룡(鄭士龍)의 호.

☆정사룡(鄭士龍 : 1491~1570) : 조선 중기의 문신(文臣). 본관은 동래(東萊),
자는 운경(雲卿), 호는 호음(湖陰)이다. 부사 광보(光輔)의 아들이며, 영의정
광필(光弼)의 조카이다. 1509년에 생원이 되고, 이해 별시문과(別試文科 : 별
시는 나라에 경사가 있으며 임시로 보이던 과거임)에 병과(兵科)로 장원하였다.
1514년 사가독서(賜暇讀書)하였고, 1516년 황해도 도사(都事 : 처음에는 사무
를 보았으나 뒤에는 감찰·규탄을 맡아 보았다. 종5품 벼슬임)로서 문과 중시(重試 :
과거에 급제한 사람을 계속하여 격려하는 뜻으로 실시한 특별시험)에 장원하였으며,
사간(司諫 : 사간원에서 임금의 잘못을 간하고 논박하는 일을 맡아 보았음. 종3품관임)
을 거쳐 1523년 부제학(副提學 : 홍문관弘文館의 정3품관임)이 되었다. 1534년
동지사(同至使)로서 명나라에 다녀왔으며, 1542년 예조판서(禮曹判書 : 정2품
관임)로 승진이 되고, 1544년 공조판서(工曹判書 : 정2품관임)로 다시 동지사가
되어 명나라에 다녀왔다. 1554년 과거(科擧)의 시험문제를 응시자 신사헌(愼
思獻 : 1520~?)에게 누설하여 파직되었다. 이 해 판중추부사(判中樞府事)로
복직되고 이어 공조판서가 되었다가 1562년에 다시 판중추부사에 전임되었다.
이듬해 사회(士禍)를 일으켜 사림(士林)을 제거하려던 이량(李穡 : 1519~
1582)의 일당이라 하여 사직 당했다. 그는 일찍이 중국에 사신으로 가서 문명
(文名)을 떨쳤을 뿐 아니라 여러 번 중국 사신을 접대하는 동안 중국인과 주고
받은 시가 많았다. 중국에 다녀와서 『조천록(朝天錄)』을 남겼으며, 말을 치밀
하게 다듬어 웅결 차고 기이한 문구의 시풍을 장기로 삼았다. 특히, 7언율시에

능하였으며, 당시 문단에서 그와 신광한(申光漢: 1484~1555)을 쌍벽으로 꼽기도 하였다. 관료적인 시인으로 시문·음률에 뛰어났고 글씨에도 능했으나 탐학하다는 비난을 받았다. 저서로는 『호음잡고(湖陰雜稿)』·『조천록(朝天錄)』 등이 있고, 글씨로는 광주(廣州)에 있는 이둔촌집비(李遁村集碑)가 있다.

- ④ 차운(次韻): 화답(和答)하는 시에서 남의 시운(詩韻)에 맞추어 시를 짓는 것을 말한다. 혹은 남이 지은 시의 운자(韻字)를 따라 시를 짓는 것을 말하기도 하며, 보운(步韻)이라고도 한다. 기타 자세한 것은 앞의 「시20」의 주석1)의 ②를 참조 바람.

- 2) 용궁관리 오문계(龍宮館裏午聞鷄: 용궁龍宮의 객관에서 한낮에 닭 우는 소리 들었는데):

① 용궁관(龍宮館): 용궁에 있는 객관.

② 리(裏):

☆명사 뒤에 붙어서 ‘장소·시간·범위’ 등을 나타내며,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외복·이불 등의) 속·안의 뜻으로 씀. (어떤 기구器具의) 안쪽.

☆(종이·가죽·천 등의) 안쪽의 면.

☆저(這)·나(那)·나(哪) 등의 뒤에 붙어서 방위사로 쓰인다. 저리(這裏: 여기)·나리(那裏: 저기)·나리(哪裏: 어디) 등이다.

☆‘이면(裏面)·내부·안’의 뜻이며, 외(外: 밖·외부)와 상반되는 뜻으로 쓴다.

- ③ 오(午): 12시진(十二時辰) 중의 하나로, 11시부터 13시까지를 오시(午時)라고 한다. 오시는 정오(正午)의 시각이므로 정오를 ‘오(午)’라고도 한다. 본 시에서는 ‘낮의 한가운데’라는 정오의 뜻으로 쓰였으므로 ‘한낮’이라고 번역한다.

- 3) 주마함영 일엄서(走馬咸寧日掩西: 말을 타고 함영咸寧에 이르니 날이 저무네):

① 주마함영(走馬咸寧): 말을 타고 함영(咸寧)에 이른다.

☆주마(走馬):

a. 말을 타고 질주하다(달리다). 본 시에서는 용궁과 함창 간의 거리를 생각해 볼 때, 말을 천천히 몰고 간 것으로 보인다.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b. 양마(良馬). 잘 달리는 말.

c. 말을 타고 달려가서 군정(軍情)을 보고하거나 문서를 전달하는 사람을 가리킨다.

☆함영(咸寧): 함영군(咸寧郡): 상주군(尙州郡)의 옛 지명. 자세한 것은 본 시의 주석1)의 ① ‘함창(咸昌)’ 조항을 참조바람.

- ② 엄(掩): 가리다. 덮어썬다. 숨기다. 묻다[매장하다]. 본 시에서는 전(轉)하여 ‘(해가) 지다. (해가 서산에) 넘어가다’는 뜻으로 쓰였다.

- 4) 수처(隨處): 어디서나. 가는 곳마다. 도처에.

- 5) 난풍방초 객혼미(暖風芳草客魂迷: 온화한 바람과 향긋한 방초는 나그네 님을 미혹시키네):

① 난풍(暖風): 따뜻한 (온화한) 바람. 온풍(溫風).

② 방초(芳草):

☆향기롭고 꽃다운 풀, 향초.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기타 자세한 뜻은 앞의 「시7」 주석7)의 ② ‘방초(芳草)’ 조항을 참조바람.

- ☆충정(忠貞)이나 현덕(賢德: 어진 덕행)을 갖춘 사람을 비유한 말.
- ③ 객혼(客魂): 나그네의 정신. 혹은 나그네의 닢.
- ④ 미(迷): 심취하다. 매혹되다. 도취시키다. (...에 몰입하여. 정신이 ...에) 빠지다. 미혹시키다.
- 6) 유년염염 공상로(流年冉冉空傷老: 세월은 확확 흘러 늙는 게 괜히 안타까운데):
- ① 유년(流年):
- ☆유수 같은 세월[光陰]. 흘러가는 세월.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 ☆역술가나 점쟁이들이 말하는 한 사람의 일 년간의 운명. 일 년의 신수(身數). 소운(小運).
- ② 염염(冉冉):
- ☆점진(漸進)하는 모양을 형용한 말인데, 세월이 점점 흘러가는 모양을 형용하기도 하고 (구름이 흘러가며 모양이 변하듯이) 사물이 서서히 변하거나 이동하는 것을 형용하기도 한다. 본 시에서는 세월이 흘러가는 모양을 형용하였다. 본 시에서는 ‘확확’으로 번역한다.
- ☆유약하게(가늘게) 아래로 드리워진(늘어진) 모양. 부드러우면서 아름다운 모양을 형용하기도 한다.
- ☆분명하지 아니한 모양. 흐릿한 모양.
- ☆총망한 모양.
- ☆섬광(閃光)이 번뜩이는 모양.
- ③ 공상로(空傷老): 헛되이 늙음이 가엾게 여겨지다. 공연히 늙어가는 모습을 안타까워하다.
- ☆공(空): 공연히. 헛되이. 부질없이.
- ☆상(傷): 불쌍히 여기다. 가엾게 여기다.
- ☆로(老): 늙다. 노인.
- 7) 별사망망 잉입제(別思茫茫剩入題: 이별하던 생각에 맘 뒤숭숭해서 한껏 집중하여 글을 쓰네):
- ① 별사(別思): 이별한 사념(思念). 별리(別離)의 심정.
- ② 망망(茫茫):
- ☆번잡하다. 매우 많다. 복잡하고 많다. 분잡(紛雜)하다. 본 시에서는 ‘뒤숭숭하다 (느낌이나 마음이 어수선하고 불안한 모양)’는 것을 가리키는 뜻으로 쓰였다.
- 역자가 보기에 “망망(茫茫)하다”고 표현한 ‘이별의 복잡다단한 심사(心思)’는 용궁(龍宮)에서의 이별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 ☆모호하여 분명하지 않다. 희미하다. 까마득하다. 막연하고 아득하다. 예를 들면 가물가물하다 로 번역된다.
- ☆넓고 넓어 아득하다. 광대하여 요원하다.
- ☆무성하다.
- ③ 잉입제(剩入題): 한층 더 몰입하여 글을 쓰다.
- ☆잉(剩): 부사로 쓰여, ‘더욱. 한층 더’의 뜻으로 쓰였다.
- ☆입(入): 몰입하다. 집중하다.
- ☆제(題): (글을) 쓰다. 본 시에서는 (시를) 짓다는 뜻으로 쓰였다.
- 8) 소각임상 홀추창(小閣臨觴忽惆悵: 소루小樓에서 술잔을 마주하니 홀연 서글픈 생

각 들어서) :

① 소각(小閣) : 조그만 한 집(누각).

② 임상(臨觴) : 술잔을 마주하다(앞에 놓다).

☆상(觴) : 술잔. 주배(酒杯). 주잔(酒盞).

③ 추창(惆愴) :

☆실망하다. 낙담하다. 슬퍼하다.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경솔하다.

☆창졸(倉卒 : 창졸倉猝) : 황급하다. 황망하다. 급작스럽다.



시25. 기정²⁾을 떠나면서

詩25. 岐亭留別¹⁾ 기정유별

草色連湖遠²⁾,
초 색 연 호 원

녹색 풀빛은 호숫가 멀리까지 이어졌고,

花枝出屋多³⁾.
화 지 출 옥 다

정자 담 밖으로 뻗어나간
꽃가지 많기도 하네.

岐亭一回首⁴⁾,
기 정 일 회 수

잠시 고개 돌려 기정²⁾을 바라보나니,

奈此別離何⁵⁾.
내 차 별 리 하

그냥 이렇게 떠나서 어찌할꼬?

1) 기정유별(岐亭留別 : 기정을 떠나면서) :

① 기정(岐亭) : 『신동국여지승람(新東國輿地勝覽)』 권29. 함창현(咸昌縣) 누정(樓亭) 조항에 보면, “기정은 공검지 북쪽에 있는데, 권민수 <權敏手 : 1466~1517 : 조선 연산군·중종 때의 문신으로 충청도 관찰사를 역임함>가 지었다(岐亭在恭檢池*北, 權敏手所構).”고 하였다. 기정에 관한 상세한 기록은 보이지 않는다.

*공검지(恭檢池) : 같은 책 산천(山川) 조항을 보면, “공검지는 현의 남쪽 13리에 있는데, 자세한 것은 상주 조항에 보라(恭檢池在縣南十三里, 詳見尙州).”고 하였다. 역시 같은 책 상주목(尙州牧)의 산천 조항에 보면, “공검지는 주(州 : 상주尙州)의 북쪽 27리에 있다(恭檢池在州北二十七里). 고려 명종 때의 사록 <司祿 : 조선시대 행정부 최고기관인 의정부議政府의 정8품 관직>인 최정빈(崔正份 : 생몰년 미상)이 옛터를 따라서 쌓았는데(高麗明宗時, 司祿崔正份因舊址築之), 독의 길이가 8백 60보이고(堤長八百六十步), 둘레가 1만6천6백47척이다(周一萬六千六百四十七尺). 그 못이 실제로는 함창에 있는데 상주 백성들

이 관개의 이익을 독차지 하고 있다(其池實在咸昌而尙民專灌溉之利).”고 하였다. 그러나 현재는 그 넓은 못의 주변이 모두 논밭으로 개답되고 만수(滿水)시에 약 1천 평 정도의 작은 규모로만 남아있다고 한다.

- ② 유별(留別): 떠나는 사람이 남아 있는 사람에게 작별하는 것을 말한다. (본 시에서는 사물인 정자亭子에 대해서 작별을 고했음) 송별(送別: 떠나는 사람을 이별하여 보냄)과 구별된다. 또한 유별(留別)을 유별(流別)로도 쓰는데, 이는 유(流)가 유(留)와 통하기 때문인데 역시 유별(留別)의 뜻이다.

- 2) 초색 연호원(草色連湖遠: 녹색 풀빛은 호숫가 멀리까지 이어졌고):

- ① 초색(草色): 풀빛. 초록색 풀빛.
 ② 호(湖): 호수. 본 시에서는 공검지(恭檢池)를 가리킴. 본 시의 주석1)의 기정(歧亭)의 *공검지(恭檢池) 조항을 참조바람.

- 3) 화지 출옥다(花枝出屋多: 정자 담 밖으로 뻗어나간 꽃가지 많기도 하네):

- ① 화지(花枝): 꽃나무 가지.
 ② 출옥(出屋): (꽃나무 가지가) 정자 밖으로 뻗어 나오다.
 ☆출(出): 안에서 밖으로 나오다.
 ☆옥(屋): ‘집’이란 뜻이나 본 시에서는 정자(亭子)를 가리킨다.

- 4) 일회수(一回首: 잠시 고개를 돌려 바라보다.

- ① 일(一): 잠시, 약간, 좀, 한 번.
 ② 회수(回首):
 ☆고개를 돌리다. 고개를 돌려 바라보다.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귀순(歸順)함을 이룸.
 ☆회상(回想)하다.
 ☆사망함을 이룸.

- 5) 내차 별리하(奈此別離何: 그냥 이렇게 떠나서 어찌할꼬):

- ① 내하(奈…何): 어찌하나. 어찌 …할 수 있겠는가!
 ② 차(此):
 ☆이렇게.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이. 이것.
 ☆이때. 이곳.
 ③ 별리(別離):
 ☆떠나다. 본시에서는 시적화자가 기정(歧亭)을 떠나는 것을 의미한다.
 ☆이별(하다).



시26. 휴가를 청하여 남쪽으로 귀향하다가
양재촌^{良才村}에 숙박하면서

詩26. 乞暇南歸 宿良才村¹⁾
걸 가 남 귀 숙 양 재 촌

客程愁晚滯南郊²⁾,
객 정 수 만 체 남 교

여로^{旅路}에 날 저물자 걱정되어 남쪽
교외에 머무는데

落日寒風動柳梢³⁾.
낙 일 한 풍 동 류 소

해 지면서 찬바람이 버들가지 흔들네.

山勢北連嵩岳⁴⁾近,
산 세 북 연 숭 악 근

산세^{山勢}가 북으로 이어지면서
고산^{高山}이 가깝고,

江流西下海門交⁵⁾.
강 류 서 하 해 문 교

강물은 서쪽으로 흘러서
해구^{海口}와 통하네.

羈遊節序空驚晏⁶⁾,
기 유 절 서 공 경 안

기약 없는 타향살이에도 절기마다
편안함에 괜히 놀라면서

到老軒裳未易拋⁷⁾.
도 로 현 상 미 이 포

늙었기에 관작^{官爵} 포기 원했지만
쉽지 않네.

望盡川原懷渺渺⁸⁾,
망 진 천 원 회 묘 묘

강과 들판 끝없이 바라보다
아득아득하단 생각 드는데,

危途咫尺當函嶠⁹⁾.
위도지척당함효

험로險路가 지척에 나타나서

함효函嶠 관문을 마주 대하는 듯하네.

- 1) 걸가남귀 숙양재촌(乞暇南歸宿良才村 : 휴가를 청하여 남쪽으로 귀향하다가 양재촌에 숙박하면서) :

① 걸가(乞暇) : 휴가를 받다(신청하다).

☆걸(乞) : 청구하다. 신청하다.

② 남귀(南歸) : 남쪽으로 귀향하다.

☆귀(歸) : 귀환하다는 뜻이나, 본 시에서는 귀향(歸鄉)의 의미로 쓰였다.

③ 양재촌(良才村) : 양재역(良才驛)*이 있는 촌락. 곧 지금의 서울특별시 서초구(瑞草區) 경내에 있던 촌락명칭이다.

*양재역(良才驛) : 조선시대 경기도의 도로망인 양재도(良才道)에 속한 역으로, 오늘날의 서울특별시 서초구(瑞草區) 양재동(良才洞)에 위치하였다. 『고려사(高麗史)』 ‘참역(站驛)’ 조에 따르면 양재역은 고려시대부터 경기도 과주(果州) 지역에 설치되어 있었으며, 광주도(廣州道)에 속한 15개소의 역 가운데 하나였다. 정확한 설치시기는 알 수 없지만, 고려의 역제(驛制)*가 ‘22역도(驛道)-525속역(屬驛)’ 체제로 정비된 995년(성종 14)에서 1067년(문종 21) 사이에 광주도에 소속된 것으로 보인다. 조선시대에는 세종 대에 전국적으로 ‘역도(驛道)-역로(驛路)’ 조직을 갖추는 과정에서 양재역(良才驛)으로 개칭되어 좌도충청도(左道忠淸道) 정역찰방(程驛察訪)에 소속되었다. 양재역은 하삼도(下三道 : 충청·경상·전라의 세 도)로 향하는 경기도의 주요 길목에 위치하고 있을 뿐 아니라, 양재역에서 충주 단월역(丹月驛)까지는 하삼도의 요로(要路)였으므로 사객(使客 : 연로沿路의 수령守令이 봉명奉命 사신使臣을 일꾼던 말)의 왕래가 잦았다. 그 때문에 역무(驛務)가 매우 힘들어, 역리(驛吏)들이 도망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세종 때에는 양재역에서 안부역(安富驛)까지 다시 찰방을 두어 역을 정상화하게 하였다[『세종실록』 30년 4월 4일]. 그뿐 아니라 하삼도의 백성 269명을 양재역으로 이주시켜 역호(驛戶)를 조성하기도 하였다[『세조실록』 7년 2월 23일]. 이처럼 역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1530년(중종 25)에는 양재역과 낙생역(樂生驛)의 경우, 식량과 여물이 떨어져 역마를 사육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기기도 했다[『중종실록』 25년 2월 7일]. 이후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1594년(선조 27)에는 양재역 근처에 목책을 설치하고, 흩어진 마을 주민과 역졸들을 소집하여 역로를 회복하도록 조치하였다[『선조실록』 27년 10월 17일]. (조선왕조실록사전 이승민 집필 참조)

위의 시제(詩題)에서 언급된 ‘양재촌역’은 바로 서애가 당시 휴가를 청하여 귀향할 때, 안동으로 오자면, 한양에서 청주 또는 문경으로 내려가는데 거쳐야 하는 역(驛)이었던 것이다.

- 2) 객정수만 체남교(客程愁晩滯南郊 : 여로旅路에 날 저물자 걱정되어 남쪽 교외에 머무는데) :

- ① 객정(客程) : 여정(旅程 : 여행의 노정路程). 나그네가 가는 길. 여행의 과정이나 일정. 여로(旅路 : 여행하는 길. 나그네가 가는 길).형광색 자호 줄였음.
- ② 만(晩) :
 ☆(날이) 저물다.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황혼.
 ☆일몰(日沒).
 ☆밤. 야간.
 ☆만년(晩年).
 ☆늦게.
- ③ 체남교(滯南郊) : 남쪽 교외에 머물다.
 ☆체(滯) : 체류하다, 머물다.
 ☆남교(南郊) : 남쪽 교외.
- 3) 유소(柳梢) : 버드나무 가지.
 ① 소(梢) :
 ☆수목(樹木)의 가지. 곧 나무의 가지가 없는 줄기.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초(梢) : 나뭇가지의 끝부분.
- 4) 숭악(崇岳) : 높은 산. 고산(高山). 관악산(冠岳山)을 가리키는 듯 함.
- 5) 해문교(海門交) : 해구(海丘)로 이어지다(통하다).
 ① 해문(海門) : 해구(海口 : 하천이 바다로 통하는 곳).
 ② 교(交) :
 ☆만나다.
 ☆양자(兩者)가 상호 접촉하다. 본 시에서는 ‘통하다’는 뜻으로 쓰였다.
- 6) 기유절서 공경안(羈遊節序空驚晏) : 기약 없는 타향살이에도 절기마다 편안함에 괜히 놀라면서) :
 ① 기유절서(羈遊節序) : 기약 없는 타향살이에도 절기마다
 ☆기유(羈遊) : 기유(羈遊)로도 쓴다. 정한 기일 없이 타향에 머물거나 또는 그런 사람을 가리킨다.
 a. 기(羈) : 타향에 기거하거나, 기거하는 사람을 가리키기도 한다.
 b. 유(遊) : 표류하다. 이리저리 떠돌다.
 ☆절서(節序) : 절기(節氣 : 한 해를 스물넷으로 나눈 하나)의 차례. 절기(節氣). 절령(節令 : 절기의 시령時令 : 매절기의 기후와 물후〈物候 : 만물의 상태〉).
 ② 공경안(空驚晏) : (생활이) 편안함에 괜히 놀라다.
 a. 공(空) : 공연히. 단지. 부질없이. 괜히.
 b. 안(晏) : (생활·상황·환경 등이) 평정(平靜)하다. 안일(安逸)하다.
- 7) 도로헌상 미이포(到老軒裳未易拋) : 늙었기에 관작官爵 포기 원했지만 쉽지않네) :
 ① 헌상(軒裳) :
 ☆관위(官位)와 작록(爵祿 : 작위爵位와 봉록俸祿)을 가리킴.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수레와 예복.
 ☆지위가 높은 사람에 대한 대칭(代稱). 고관(高官)의 대칭(代稱).
 ② 미이포(未易拋) : (관작을) 포기하려 해도 쉽지 않다. 본 시의 작가 서예(西厓)는

1597년(선조 30, 정유년 서애 56세)에 이순신(李舜臣 : 1545~1598) 장군이 무함(誣陷)으로 파면될 때 그 부당함을 극력 진언했으나 윤휴 받지 못하자, 그를 천거한 책임을 지고 여러 차례 사직상소를 올렸다. 재직 중에는 국난을 극복하기 위해 시종일관 진실로 충정(忠正)을 다했지만, 이이첨(李爾瞻 : 1560~1623) 등 대북파(大北派)의 정략적 의도의 참언(讒言)도 있자, 서애는 아주 여러 번 사직을 요청했으나 윤휴 받지 못했다. 그래서 사직도 쉽지 않다고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선생의 사직(辭職)에 관한 차자(筴子 : 신하가 임금에게 올린 간단한 서신형식의 상소문)의 회수는 대략, 1595년(서애 54세)에 7회, 1596년(서애 55세)에 8회, 1597년(서애 56세)에 5회, 1598년(서애 57세)에는 12회가 넘어, 이 해 11월에 마침내 파직되었다.

8) 망진천원 회묘묘(望盡川原懷渺渺 : 강과 들판 끝없이 바라보다 아득아득하던 생각 드는데) :

① 망진천원(望盡川原) : 하류(河流)와 들판을 시선이 모자라도록 끝없이 바라보다.
☆망진(望盡) : 시선이 닿는 데까지 최대한 바라보다.

☆천원(川原) :

- 하류(河流)와 원야(原野).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 강하(江河)의 발원지.
- 강하(江河)를 가리킴.
- 하천가의 물이 말라 사석(沙石)이 드러난 곳.
- 원야(原野)를 가리킴.

② 회묘묘(懷渺渺) : 아득아득하다는 생각이 들다.

☆회(懷) : 마음속에 품은 생각, 또는 회포

☆묘묘(渺渺) :

- 유원(悠遠 : 아득하게 멀. 대단히 오래)한 모양.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 유원(幽遠 : 심오함)한 모양,
- 미약한 모양,
- 미소(微小)한 모양,
- 수면이 한없이 넓은 모양.

9) 위도지척당함호(危途咫尺當函嶠 : 험로險路가 지척에 나타나서 함호函嶠 관문을 마주 대하는 듯 하네) :

① 위도(危途) : ‘위도(危塗)’로도 쓴다. 위험하여 가기 어려운 도로. 위험한 도정(途程 : 거리. 과정)을 가리키기도 한다. 본 시에서는 왜군이 아직 물러가지 않은 때라 주변에 왜군진지가 있어 위험하다는 것을 가리키는 뜻으로 쓰였다고 본다.

② 지척(咫尺) :

☆거리가 가깝다는 것을 형용한 말.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회남자(淮南子)·도응(道應)』편에, “〈내가〉 온종일을 〈쉬지 않고〉 걸었지만, 가까운 거리를 벗어나지 못했으면서도, 내 자신은 아주 멀다고 〈멀리 왔다고〉 여겼으니, 어찌 슬프지 않겠습니까(終日行, 不離咫尺, 而自以爲遠, 豈不悲哉!)”라고 한 대목이 있다.

☆주대(周代)의 도제(度制 : 길이 단위의 제도)로, ‘여덟 치[八寸]’를 ‘지(咫)’라고 하고, ‘열 치[十寸]’를 ‘자[尺]’라고 하였다. 이 당시의 ‘한 치[一寸]’는 지금의

2.31cm였고, ‘한 자[一尺]’는 지금의 23.1cm였다. 그래서 ‘지(咫)’와 ‘척(尺)’의 차이가 크지 않았으므로, ‘지척(咫尺)’을 붙여서 말하면, ‘한 자[一尺]에 접근한다(한 자가 다 되어 간다)’ 혹은 ‘겨우 한 자를 채우다(간신히 한 자에 이른다)’는 것을 이르는 말로 사용하였다.

☆지방(地方)이 협소한 것을 형용한 말.

☆미소(微小)한 것을 형용한 말. 즉, 말할 가치가 없다 <말할 만하지 못하다>(不足道)는 것을 형용한 말.

☆시간이 짧다는 것을 형용한 말.

③ 당함호(當函嶠) : 함곡관(函谷關)과 효관(嶠關)을 마주 대하다.

☆당(當) :

a. 얼굴을 마주 보고 대하다.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b. 엇비슷하다. 대등하다.

☆함호(函嶠) : 함곡관(函谷關)*과 효관(嶠關)*의 병칭(並稱)으로 예부터 험준한 요충지에 설치된 관문을 이르는 말로 썼다.

*함곡관(函谷關) : 관문 명칭. 원래의 함곡관은 전국시대(戰國時代)에 진(秦) 나라가 설치한 것으로, 지금의 하남성(河南省) 영보현(靈寶縣)의 경계에 위치하였다. 그 곳의 길[路]이 계곡 안에 있어서 깊고 험난하여, 그 지형이 흡사 함(函 : 상자 모양의 통)과 같았던 까닭에 붙여진 이름이다. 한(漢)나라 원정 3년(元鼎三年 : BC 114)에 지금의 하남성 신안현(新安縣) 경계로 옮겨 설치했는데, 옛 관문과의 거리가 3백리나 떨어진 곳이다.

*효관(嶠關) : 효산(嶠山)의 관문. 효산은 효산(叡山)이라고도 쓴다. 이 산을 또한 금음산(鎭岑山)이라고도 하고 금잠산(鎭岑山)이라고도 한다. 하남성 낙영현(洛寧縣) 북쪽에 위치한다. 산이 동서(東西) 양쪽으로 분리된 두 효산 줄기를 이루고 있으며, 그 가운데로 곡도(谷道 : 계곡 사이의 산비탈에 난 길)가 있는데, 산비탈의 길이 높고 험준하고 가팔라서, 예로부터 군사요충지로 사용해 왔다.

시27. 강변 누각에서 큰물이 지는 모습을 관상^{觀賞}하면서

詩27. 江樓觀漲¹⁾
강 루 관 창



臨江那得見清波²⁾,
임 강 나 득 견 청 파

어찌해야 강변에 와서
푸른 물결 볼 수 있겠는가?

黃濁滔滔日復加³⁾.
황 탁 도 도 일 부 가

누런 탁류 도도히 흐르며
날마다 더 불어나네.

欲向西樓待明月⁴⁾,
욕 향 서 루 대 명 월

서루에 가서 달뜨기를 기다리고 싶은데,

只愁風雨夜深多。
지 수 풍 우 야 심 다

걱정스런 짙은 밤 되면 비바람 한결
거세지는 것일세.

1) 관창(觀漲): 큰물(비가 많이 와서 강이나 개천에 갑자기 불어난 물)이 지는 모습을 관상(觀賞)하다.

① 관(觀):

☆관상(觀賞: 취미에 맞는 것을 보면서 즐길)하다.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보다. 감상하다. 관찰하다.

② 창(漲):

☆큰물이 지는 모양.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물이 분다. 수위(水位)가 높아지다.

2) 임강니득 견청파(臨江那得見清波: 어찌해야 강변에 와서 푸른 물결 볼 수 있겠는

가?):

① 임강(臨江): 강변에 오다.

☆임(臨):

- a. (어떤 장소에) 도달하다. 이르다.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 b. 마주하다(대면하다).
- c. 가까이 있다.
- d. 높은 곳에서 내려다 보다.

② 나득(那得):

☆어찌할 것인가?

☆어찌 ...할 수 있으랴.

☆어떻게 해야 (어디서) ...을 얻을 수 있겠는가?

☆어떻게 하면(해야)

3) 황탁도도 일부가(黃濁滔滔日復加: 누런 탁류 도도히 흐르며 날마다 더 불어나네):

① 황탁(黃濁): 황색 탁류, 누렇게 혼탁한 물.

② 도도(滔滔):

☆큰물이 세차게 흐르는 모양(즉, 큰물의 흐름이 막힘이 없고 기운찬 모양. 환언하면 대수大水가 분류奔流하는 모양이란 뜻임).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언행이나 기타 사물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것을 비유한 말.(즉 언행이 거침없거나, 유행이나 사조 <思潮: 한 시대 사상의 흐름>가 성행하여 견잡을 수 없거나, 벽간 감정이나 주흥酒興 따위를 막을 길이 없음을 이르는 말임)

☆성대(盛大)하다, 보편적이다.

☆(날씨가) 따뜻하다.

☆화목하고 즐겁다.

4) 옥향서루 대명월(欲向西樓待明月: 서루에 가서 달뜨기를 기다리고 싶은데):

① 향(向): 가다. ...를 향하여 가다.

② 서루(西樓): 서쪽에 있는 누각. 본 시에서는 원지정사(遠志精舍)의 경내에 지은 연좌루(燕坐樓)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류명희·안유호 역, 『국역 류성룡 시 II』에서, 「시35」의 주석1)의 ② 서재(書齋) 조항을 참조바람.

시28. 북담정사北潭精舍가 신축되고 나서 열핏
떠오른 생각을 읊다

詩28. 北潭精舍新成偶吟¹⁾
북담정사신성우음



小築經年合²⁾,
소축경년합

소옥小屋 짓는데
여러 해 경과하여 완성했으니,

幽期與日長³⁾.
유기여일장

은일의 기약도 때 맞춰서
늦추어야겠네.

病餘身遠近⁴⁾,
병여신원근

병마病魔가 몸에 달라붙었다 떨어졌다
하는데,

春後水蒼茫⁵⁾.
춘후수창망

봄이 지난 후 강물 불어나서 망망하게
흐르는구나.

曉壁歸雲黑⁶⁾,
효벽귀운흑

동틀 무렵 암벽에 구름 몰려와
어두컴컴하더니,

晴沙細草香⁷⁾.
청사세초향

햇살 퍼지자 백사장 여울 가에 애기 풀
향기롭네.

北窓閒睡罷⁸⁾,
북창간수파

북창北窓 아래서 잠시 한눈 붙이는 것은
어떨꼬?

邂逅得虞唐⁹⁾.
해 후 득 우 당

요행이면 요·순堯舜임금을 만날 수도
있잖을까?

1) 북담정사(北潭精舍)신성우음(北潭精舍新成偶吟 : 북담정사가 신축되고 나서 얼핏 떠오른 생각을 읊다.)

① 북담정사(北潭精舍) : 옥연정사(玉淵精舍)*. 풍산류씨(豊山柳氏) 후손이 전하는 바에 의하면, 하회마을의 강 건너편 북쪽에 위치하는 부용대(芙蓉臺) 앞을 흐르는 낙동강은 바로 부용대 앞에서 수심이 깊어지면서 소(沼)를 형성하는데, 이곳을 하회마을 사람들은 ‘북담(北潭)’ 혹은 ‘옥연소(玉淵沼)’라 칭했다고 한다. 또한 「서애연보·만력 14년(西厓年譜 萬曆十四年 : 병술년丙戌年, 서애 45세)」 조항을 보면, “옥연사당이 완성되었다(玉淵書堂成). 선생은 원지정사를 지은 뒤에, 오히려 〈그 정사가〉 마을과 너무 가까운 것을 한탄하고는, 북담 근처에 조그마한 집을 짓고 싶어 하면서, 〈그곳에서〉 만년을 보내는 곳으로 사용하려는 계획을 하였다(先生既作遠志精舍, 猶恨迫近村閭, 就北潭欲作小宇, 爲終老計). 승려 탄홍(誕弘)이란 자가 있었는데, 그 일을 하겠다고 자청하였기에, 지금으로 곡식과 비단을 내놓았다(有僧誕弘者, 自請幹其役, 資以粟帛). 〈그 뒤〉 10년이 지나서야 근근이 완성되고 나서, 명칭을 ‘옥연’이라 정하였다(越十年乃成, 名曰玉淵).”는 구절이 있다. 이장에서 보듯이 ‘북담’은 옛날부터 하회마을 사람들이 ‘부용대 앞의 소(沼)를 이룬 강물’을 가리키는 말이라는 것과, “북담 근처에 조그마한 집을 짓고 싶어했다(就北潭欲作小宇)”는 「서애연보」의 기록을 종합해볼 때, 본 시제(詩題)에 쓰인 “북담정사”는 ‘북담 근처의 정사’라는 뜻이고 ‘옥연정사의 이명(異名)’으로 쓰였음을 알 수 있다.

*옥연정사(玉淵精舍) : 옥연(玉淵) : 옥연정사(玉淵精舍 : 중요민속자료 제88호) : 옥연서당(玉淵書堂) : 경북 안동시 광덕동(廣德洞)에 위치한 정사(精舍)로 하회동(河回洞)에서 부용대(芙蓉臺)를 바라보았을 때, 오른쪽에는 옥연정사가 있고, 왼쪽에는 겸암정사(謙巖精舍 : 중요민속자료 제89호)가 있다. 옥연정사는 서애(西厓)가 후진양성과 함께 『징비록(懲毖錄)』 등 많은 역사적 저술을 한 곳이며, 겸암정사는 서애의 백형(伯兄)인 겸암 류운룡(柳雲龍 : 1539~1601) 선생이 도학(道學)의 이치를 궁구하기 위해 29세 되던 해인 1567년(명종 22)에 건립했다고 한다. 하회마을에는 서애가 생전에 지은 건물이 두 채가 있는데, 하나는 마을 안에 있는 원지정사(遠志精舍)이고, 다른 하나는 낙동강 건너 부용대 동쪽(오른쪽)에 있는 옥연정사다. 옥연정사는 선생이 35세 되던 해(1576)에 짓기 시작하여, 10년이 지난 45세 되던 해(1586)에 완성했다. 선생은 이곳에 작은 집을 지어 늙도록 조용히 거처하고자 했으나, 집 지을 재력이 부족해서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있었는데, 마침 탄홍(誕弘)이란 승려가 곡식과 베를 내놓고 건축을 주관하게 되어 겨우 지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 지을 당시 이름은 ‘옥연서당’이었다. 서애는 그의 「옥연서당기(玉淵書堂記)」(『서애선생문집(西厓先生文集) 권17·기(記)』)에서 옥연정사의 구조를 다음과 같이 기술(記述)하고 있다 :

“집 구조에 있어서, 대청[堂]으로 쓰는 마루는 두 칸의 넓이로, 감록헌(瞰綠軒 : 푸른 산천을 조망하는 마루: 지금의 ‘사랑채라고 하는 곳의 대청’)이라고 불렸으니, 왕희지(王羲之)의 “고개 들어 하늘가를 우러러 보다가, 고개 숙여 과란 물굽이를 내려다 본다네”라는 말에서 취한 것이다(其制, 爲堂者二間, 名曰瞰綠, 取王羲之“仰眺碧天際, 俯瞰綠水隈”之語也). 이 대청[堂]의 동쪽으로, 연거(燕居: 은퇴하여 한거閑居함)하는 두 칸 넓이의 방이 있는데, 이름하여 세심재(洗心齋: 마음을 씻는 집이라는 뜻으로 지금의 사랑채에 있는 방)라고 하였으니, 『주역(周易)』의 계사(繫辭) 가운데의 말을 취한 것으로, 그 의미는 누구든 여기서 일을 하는 사람이면, 만에 하나라도 그렇게 마음을 씻기를 바라서였다(堂之東, 爲燕居之室二間, 名曰洗心, 取易繫辭中語, 意或從事於斯以庶幾萬一爾). 또 북쪽에 있는 재(齋: 집)는 세 칸 넓이의 집인데, 이곳을 지킬 승려를 위해, 선가(禪家)의 말을 취하여, 완적재(玩寂齋: 적멸寂滅 곧 열반의 경지를 관상하는 집이란 뜻으로 지금의 ‘안채라고 부르는 집)라 이름을 지었다(又齋在北者三間, 以舍守僧取禪家說, 名曰玩寂). 또 동쪽에는 두 칸 넓이의 집인데, 벗이 방문하면 접대하는 곳으로, 원락재(遠樂齋: 지금의 ‘별당채라고 부르는 집)라고 이름 하였으니, 『논어(論語)·학이편(學而篇)』에 나오는 “벗이 먼 곳에서 찾아오니 즐겁지 아니한가(有朋自遠方來不亦樂乎)”라는 뜻에서 취한 것이다(東爲齋二間, 以待朋友之來訪者, 名遠樂, 取自遠樂乎之語). (동쪽에 있는) 원락재에서 서쪽으로 나가면, 두 칸 넓이의 작은 뒷마루가 있는데, 세심재와 나란히 있는 것으로, 애오軒(愛吾軒)이라고 이름 하였으니, 도연명(陶淵明)의 「산해경을 읽고 나서(讀山海經)」라는 시에 “나 역시 내 초가집을 사랑한다네”라는 시구詩句에서 취한 것이니, 이것들을 종합해서 ‘옥연서당’이라는 편액을 내걸었다(由齋西出, 爲小軒二間, 與洗心齋相比, 名曰愛吾, 取淵明吾亦愛吾廬之語, 合而扁之曰玉淵書堂). (역자는 ‘소현小軒’을 세심재에 있는 뒷마루로 보고 해석하였음). 뿐만 아니라, 서에는 「옥연서당기(玉淵書堂記)」 첫머리에서 서당을 지은 동기와 주변 풍광에 대해서도 기술하고 있다: “내가 이미 원지정사(遠志精舍)를 지어 놓고도 여전히 한스러웠던 것은 촌락이 너무 가까이 그윽한 맛을 누리지 못해서였다(余既作遠志精舍, 猶恨基村墟近, 未堪幽期). 북담(北潭: 북쪽 소沼: 하회마을 북쪽에 위치한 부용대 앞의 낙동강은 못처럼 깊다하여 지어진 명칭. 옥연소玉淵沼라고도 함)을 건너서 절벽 동쪽에 특이한 터를 잡았는데, 앞에는 호수의 풍광을 지니고 뒤로는 높은 언덕을 등지고 있으며, 오른쪽에는 붉은 벼랑이 치솟아 있고, 왼쪽은 백사장이 떠를 두른 듯한 곳이다(渡北潭於石崖, 東得異處焉. 前挹湖光 後負高阜, 丹壁峙其右, 白沙縈其左). 남쪽으로 바라보면 멀리 못 산봉우리들이 들쭉날쭉 겹겹이 둘러싸고 호위하는 듯한 모습이 마치 한 폭의 그림이요, 어촌의 집 몇 채가 안개 낀 나무 사이로 은은하게 보인다. 화산(花山)은 북쪽에서 남쪽으로 이어져 오다가, 강을 사이에 두고 옥연정사와 마주하고 있는데, 달이 동쪽 산봉우리에서 떠오를 때 마다, 청량한 산 그림자가 거꾸로 드리워져서, 북담 호수에 반쯤 잠기는데도, 잔잔한 물결하나 일어나지 않으면서, 금빛 달과 푸른 산의 그림자가 비치는 풍경이야말로, 유달리 관상(觀賞)할만한 것이었다(南望則群峰錯立, 拱揖如畫, 漁村數點隱映烟樹間. 花山自北而南, 隔江相對, 每月出東峰, 寒影倒垂, 半寢湖水, 纖波不起, 金璧相涵, 殊可玩也). 그 터가 인가와 그리 멀지 않으나, 앞에

는 깊은 소(沼: 북담北潭)가 막고 있어, 사람이 오고자 해도, 배가 아니면 건널 수가 없었다. 그래서 배를 북쪽 강기슭에 매어 두면, 방문객이 와서 백사장에 앉아서, 이쪽을 향해 소리쳐 부르다가 응답이 없으면, (대개) 한참을 기다리다가 (스스로) 돌아가게 되니, 이것 또한 세상을 피해 조용하게 은둔하고 사는 일에 한 가지 도움이 된다(地去人烟不甚遠, 而前阻深潭, 人欲至者, 非舟莫通. 舟繫北岸, 則客來坐沙中, 招呼無應者, 良久乃去, 亦遁世幽棲之一助也)”고 하였다.

- ② 우음(偶吟):
 - ☆얼핏 떠오르는 생각을 읊은 시가(詩歌).
 - ☆우연히 지은 시가(詩歌).
- 2) 소축 경년합(小築經年合: 소옥小屋 짓는데 여러 해 경과하여 완성했으니):
 - ① 소축(小築): 규모가 작으면서도 야치(雅致)가 있는 주택을 가리키는데, 유정(幽靜)한 곳에 많이 짓는다. 소옥(小屋: 규모가 작은 집)을 가리킨다.
 - ② 경년합(經年合): 여러 해 경과하여 완성하다.
 - ☆경년(經年): 경년누월(經年累月)의 약어로서, 경과한 시간이 매우 장구(長久)함을 형용한 말이다.
 - ☆합(合): ‘성(成)’의 의미로, 이루다, 완성하다는 뜻이다.
- 3) 유기 여일장(幽期與日長: 은일隱逸의 기약도 때 맞춰서 늦추어야겠네):
 - ① 유기(幽期):
 - ☆은일(隱逸: 세상을 피하여 숨어 살거나 그런 사람, 은사隱士)의 기약.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 ☆은밀하거나 유아(幽雅: 그윽하고 품위 있음)한 약속.
 - ② 여일장(與日長): 시기에 부합하여(맞추어서) 늦추다.
 - ☆여(與): 동사로 쓰여, ‘...에 부합하다. ...에 맞추다’의 뜻으로 쓰였다.
 - ☆일장(日長): 시기(時期)를 늦추다.
 - a. 일(日): 세월. 시간. 시기(時期).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 b. 장(長): 연장(延長)하다. 늦추다.
- 4) 병여 신원근(病餘身遠近: 병마가 몸에 달라붙었다 떨어졌다 하는데):
 - ① 병여(病餘): 병이 아직 다 낫지 않거나, 혹은 병이 오랫동안 지속되다.
 - ☆여(餘):
 - a. 미진(未盡)하다. 남아있다.
 - b. 오래 가다. 장구(長久)하다.
 - ② 원근(遠近):
 - ☆원방(遠方)과 근처. 먼 곳과 가까운 곳. 친소(親疎: 멀고 가까움). 본 시에서는 ‘떨어졌다 근접했다’, 곧 ‘(몸에서) 붙었다 떨어졌다 하다는 뜻으로 쓰였다.
 - ☆원방(遠方)과 근처의 사람을 가리킨다.
 - ☆노정(路程)의 거리.
 - ☆부근(附近). 근처.
 - ☆재지(才智) 정도의 고저(高低)를 가리킨다.
- 5) 수침망(水蒼茫): 강물이 불어나 망망하게 흐른다.
 - ① 수(水): 강물. 본 시에서는 하회마을과 맞은편의 부용대 사이를 흐르는 강물을

가리키며, 하화마를 사람들은 이곳의 ‘강’을 화천(花川)이라고 부른다.

② 창망(蒼茫):

☆광활무변(廣闊無邊)한 모양. 넓고 멀다(아득하다). 망망하다. 본 시에서는 ‘넓게 퍼진 모양’을 형용한 뜻으로 쓰였다.

☆모호하여 분명하지 아니한 모양.

☆‘총망(匆忙)’과 같은 말.

6) 효벽(曉壁): 새벽녘의 암벽. 혹은 이른 아침(동틀 녘)의 암벽.

7) 청사(晴沙): 햇빛에 비친 백사장(모래톱)가의 사탄(沙灘: 바닥이 모래로 이뤄진 여울). 햇빛에 비친 모래톱 가의 여울.

8) 간수파(閒睡罷): 잠시 한눈 붙여볼까.

① 간(閒): ‘간(間)’자의 본자(本字)로서, 잠시, 경각(頃刻: 순식간에, 잠깐 사이)의 뜻으로 쓰였다.

② 파(罷): 문구(文句)의 끝에 쓰여, 상의(相議), 제의(提議), 청구(請求), 명령 등의 어기(語氣)를 나타내는 자로 쓰이는데, 본 시에서는 스스로에게 묻고 스스로에게 제의하는 어기를 뜻하는 용도로 쓰였다.

9) 해후 득우당(邂逅得虞唐: 요행이면 요·순堯舜임금을 만날 수도 있잖을까?):

① 해후(邂逅):

☆우연히, 요행히. 우연이다, 요행이다.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후한(後漢)의 사상가 왕충(王充: 27~대략 97)의 저서 『논衡(論衡)·봉우편(逢遇篇)』에, “게다가 우연이란 것이니(且夫遇也), 재능은 사전에 잘 연습해서 갖춰지는 것이 아니고(能不預設), 주장은 평사상시에 다 준비되어서 하는 것이 아닌데도(說不宿具), 우연히(요행히) 군주를 만족스럽게 하고(邂逅逢喜), 때마침 그의 뜻에 부합되게 한 까닭에(遭觸上意), 그것을 일컬어 우연이라고 하는 것이다(故謂之遇).”고 한 구절이 있다.

☆기약 없이(우연히) 만나다. 해후하다.

☆기쁜(즐거운) 모양.

② 득(得): 우연히 만나다. 마주치다. 북송(北宋)의 정치가이자 학자인 왕안석(王安石: 1021~1086)의 시, 「장명보가 와서 숙박하고 이튿날 수행하다(張明甫至宿明日遂行)」에, “내가 돌아왔으나 공께서 이미 세상을 떠나셨으니, 다시 만날 수 없음에 실망하여 탄식하네요(我歸公既逝, 惆悵難再得).”라고 읊은 구절이 있다. (본 인용시의 시제詩題에 ‘장명보張明甫’가 중명보仲明甫로 된 기록도 보임)

③ 우당(虞唐): 유우씨(有虞氏*: 순임금을 가리킴. 요임금에게 양위 받기 전에 우虞 땅의 영수였으므로 이르는 말임)와 도당씨(陶唐氏*: 요임금의 호)의 병칭이다. 즉, 순임금과 요임금을 가리키는 말로 쓴다. ‘우당(虞唐)’은 고대 전설상의 성군(聖君)이 었기에, 후세에 와서 ‘현명한 제왕’을 가리키는 말로 쓰기도 했다.

*유우씨(有虞氏): 전설상의 중국 상고시대의 부락 명칭이다. 전하는 바에 의하면, 이 부락의 수령인 순(舜)은 요(堯)에게 선양(禪讓: 양위讓位) 받았다고 하며, 도읍지는 포판(蒲阪)으로, 지금의 산서성(山西省) 영제현(永濟縣) 동남북이다. 유우씨의 ‘유(有)’자는 집두사로서 의미가 없다.

*도당씨(陶唐氏): 원래는 상고시대 부락명칭이다.(도당陶唐 부족이 다스리던 땅이란 뜻임) 상고시대 부족 ‘당요(唐堯: 고대부족의 명칭)’가 다스리던 땅은 평양(平陽)

에 위치했는데, 지금의 산서성(山西省) 임분현(臨汾縣) 서남에 위치했으며, 요(堯)가 그곳의 수령이었다. 그래서 ‘당요(唐堯)’를 요(堯)를 가리키는 이름으로도 쓴다. 당요(唐堯 : 요堯)는 황제(黃帝)의 증손자인 제곡(帝嚳)의 아들이고 성은 이기(伊祁 : 이기伊耆)이고 이름은 방훈(放勛)이었다. 처음에 ‘도(陶)’땅에 봉해졌다가 훗날 ‘당(唐)’땅에 봉해졌기로, 호를 ‘도당씨(陶唐氏)’라고 하였다. 그의 아들 단주(丹朱)가 불초(不肖)하여 제위를 순(舜)에게 양위(讓位)하였다.

시29. 달밤에 벗 여옥汝沃 이은신李殷臣 공公의
정원庭園에 지은 정자에서 노닐며

詩29. 月夜遊友人李汝沃園亭¹⁾
월 야 유 우 인 이 여 옥 원 정



君家池館勝²⁾,
군 가 지 관 승

귀택歸宅³⁾의 연못과 동산이며 집이 참 멋진데,

獨出寫幽襟⁴⁾.
독 출 사 유 금

유독 내심의 정감을 묘사한 듯
특출하군요.

落月低宮樹⁵⁾,
낙 월 저 궁 수

지는 달은 정원수 나뭇가지에 걸렸고,

清風⁶⁾滿竹林。
청 풍 만 죽 립

맑은 바람은 대숲 가득 솔솔 불어오네요

團圓成小會⁷⁾,
단 원 성 소 회

한 자리에 모여 작은 모임을 이루고 보니,

邂逅卽知音⁸⁾.
해 후 즉 지 음

우연히 만나도 곧바로 서로를
알아주네요.

散策閒吟處⁹⁾,
산 책 한 음 처

지팡이 짚고 산책하며 시가를 읊을 때면,

塵紛不許侵¹⁰⁾.
진 분 불 허 침

약간의 속된 관념도 스며들 수 없지요.

1) 월야 유우인이여옥원정(月夜遊友人李汝沃園亭: 달밤에 벗 여옥汝沃 이은신李殷臣 공공의 정원(庭園)에 지은 정자에서 노닐며):

① 유(遊): 노닐다. 한가롭게 노닐다.

② 이여옥(李汝沃: 1539~1594): 여옥(汝沃) 이은신(李殷臣): 이렇게 성씨 다음에 자(字)나 호(號) 또는 직함을 쓰고 이름을 뒤에 쓰는 것(이름을 쓰지 않을 수도 있음)은 경칭(敬稱)의 한 예이다.

☆이은신(李殷臣: 1539~1594): 충무공의 종조부(從祖父)인 이백복(李百福)의 손자인 이은신(李殷臣)을 말한다. 그의 자(字)가 여옥(汝沃)이다. 그는 1579년에 생원시에 합격하고 익위사(翊衛司) 부술(副率)을 지냈다. 『재조변방지초(再造邊邦志抄: 이순신 관련 내용을 적은 전사년傳寫年 전사자傳寫者 미상의 책)』의 ‘을미년乙未年 11월 4일’ 조항에 보면, “4일, 직장(直長) 이여옥(李汝沃) 형 집에서 이보(李蒲)의 편지가 오니 비통함을 참지 못했다. 곧 바로 답서(答書)를 작성하여 보(蒲)에게 보냈다. 쌀 2곡(斛: 10말)과 6장(丈)의 유둔(油屯), 4장의 유둔과 잡물(雜物) 등의 삼단(三端: 양사)을 또한 찾아서 보내도록 하였다.…… 우리나라의 병사들이 쇠잔하고 피폐한데 이를 어찌하랴(李直長汝沃兄家蒲簡來 則不勝悲慟 卽修答書 送于蒲處 白粒二斛 六丈油屯 四丈油屯與雜物等三端 亦覓送事教之 … 我國兵殘力疲 奈如之何!)”라고 기록되어 있다.(이상은 ‘김태식 블로그 역사문화라이브러리’ <http://blog.yonhapnews.co.kr/ts1406/>를 참조함)

③ 원정(園亭): 정원(庭園)에 지은 정자.

2) 군가 지관승(君家池館勝: 귀택貴宅의 연못과 동산이며 집이 참 멋진데):

① 군가(君家):

☆경어(敬語)로서 귀택(貴宅), 귀가(貴家), 존택(尊宅)의 뜻이다.

☆상대방에 대한 존칭으로 귀하(貴下), 당신, 존하(尊下)란 뜻으로도 쓴다.

② 지관(池館): 자관(池館)으로도 씀. 지원(池苑: 연못과 동산)이 있는 가옥(또는 관사館舍).

③ 승(勝): 아름답다. 훌륭하다. 뛰어나다. 멋지다.

3) 귀택(貴宅): 여기서 ‘택(宅)’은 상대방의 집안을 높혀 이르는 ‘택[宅]’의 뜻이 아닌 집이나 주거지를 나타내는 ‘택[宅]’의 뜻이므로 ‘택’으로 표기하였다.

4) 독출 사유금(獨出寫幽襟: 유독 내심의 정감을 묘사한 듯 특출하군요):

① 독출(獨出): 유독 특출하다.

☆독(獨): 부사로 쓰였다.

a. 유독. 특별나게.

b. 오직. 다만.

② 사유금(寫幽襟): 마음속의 정감 혹은 회포를 묘사하다.

☆사(寫):

a. 묘사하다.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b. (그림을) 그리다. (글씨를) 쓰다. (글을) 짓다.

c. 조영하다. 비추다.

d. 토로하다.

e. (의견·감정 등을) 나타내다, 발표하다.

☆유금(幽襟) : 유희(幽懷)와 같은 말로서, 내심에 간직된 정감을 이른다. 환연하면, 조용한 마음, 깊은 생각, 가슴 속 깊이 품은 생각, 남모르는 깊은 생각을 이른다.

5) 낙월 저궁수(落月低宮樹 : 자는 달은 정원수 나뭇가지에 걸렸고) :

① 낙월(落月) : 자는 달.

② 저(低) :

☆낮다.

☆아래로 떨어지다(처지다). 본 시에서는 달이 지면서 나뭇가지 아래로 내려가서, 흡사 달이 나뭇가지에 걸린 모습처럼 보이는 것을 형용한 말이다. 나뭇가지 사이로 스며들다.

③ 궁수(宮樹) : 제왕 정원(宮苑 : 궁중의 정원)에 있는 수목(樹木). 본 시에서는 정원수(庭園樹)를 미화(美化)하고 격을 높여 표현한 것임.

6) 청풍(淸風) : 부드럽고 맑은 바람. 시원한 바람. 솔솔 부는 바람.

7) 단란 성소회(團圓成小會 : 한 자리에 모여 작은 모임을 이루고 보니) :

① 단란(團圓) :

☆‘단(團)’은 ‘한자리에 모이다. 결집시키다’는 뜻이 있다. 이때의 ‘단란(團圓)하다’는 뜻은 ‘한 자리에 모이다’는 뜻이 된다.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한 가족이(또는 여럿이) 원만하고 즐겁다’는 뜻으로도 쓴다.

☆‘단(團)’은 ‘원(圓 : 둥글다)’의 뜻이고, ‘란(圓)’도 ‘원(圓)’의 뜻이다. 따라서 ‘단란(團圓)하다’고 하면, ‘둥근 모습[圓貌]’이란 뜻이 된다. 이것을 전(轉)하여, ‘달’ 또는 ‘달이 둥글다’는 것을 가리키기도 한다.

☆둘레를 도는 모양.

② 성(成) : 이루다. 실현하다. 완성하다. 성공하다.

③ 소회(小會) :

☆소규모의 집회, 소인수(小人數)의 모임.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고대 군주가 삼공(三公)을 책봉하거나 외국사절(外國使節)을 접견하거나 백관(百官)이 하례(賀禮)를 드릴 때의 의식.

☆일반적인 연회를 가리킨다.

☆작은 사당(祠堂)에서의 의식을 치르는 모임.

☆민간에서의 소규모의 상호협조회.

☆소규모 회의.

8) 해후 즉지음(邂逅卽知音 : 우연히 만나도 곧바로 서로를 알아주네요) :

① 해후(邂逅) : 기약 없이 (우연히) 만나다, 만나다, 해후하다. 『시경(詩經) · 정풍(鄭風) · 들관에 야생초가 만연하네(야유만초(野有蔓草))』에, “어떤 미녀가 홀로 배회하는데, 미목이 수려하여 아름답네(有美一人, 淸揚婉兮). 우연히 서로 만났지만, 뜻이 통해 원대로 내 맘에 들어하네(邂逅相遇, 適我願兮).”라고 읊은 구절이 있다.(해후邂逅에 대한 기타 자세한 뜻은 「시28」 주석9)의 ① 해후(邂逅) 조항을 참조 바람)

② 지음(知音) :

☆음률에 통달하다. 『예기(禮記) · 악기(樂記)』편에, “이러한 까닭으로, 성음의 이치를 모르는 자와는, 함께 음률의 이야기를 할 수 없으며, 음률의 이치를 모르는 자와는, 함께 음악의 이야기를 할 수 없다(是故, 不知聲者, 不可與言音,

不知音者，不可與言樂). 함께 음악의 이치를 통달하면, 예(禮)를 달성할 수 있다(知樂，則幾於禮矣).”고 한 대목이 있다.

☆지기(知己: 피차가 서로를 알아줘서 우정이 깊은 사람. 자기를 알아 줌)를 비유한 말. 『열자(列子)·탕문편(湯問篇)』에 기재된 우화(寓話) 중의 하나에 의하면, ‘백아(伯牙: 생물년 미상. 춘추시대 초나라의 악사)는 거문고를 잘 뜯었고, 종자기(鍾子期: 생물년 미상. 춘추시대 초나라의 사람으로 음률을 잘 구별한 사람)는 그 음을 잘 들었다고 하였다. 백아가 뜯는 거문고 음의 뜻이 고산(高山)에 있으면, 종자기는 “드넓고 웅장함이어! 태산과 같구나(峩峩兮若泰山)”라고 말하고, 거문고의 음의 의도가 유수(流水)에 있으면, “드넓고 망망함이어! 장강長江과 황하黃河 같구나(洋洋兮若江河)”라고 말하였다. 백아가 거문고 소리에 기탁한 것을 종자기는 틀림없이 알았던 것이다. 후세의 사람들은 위 내용에서 나오는 ‘지음(知音: 음률에 통달함)’을 가지고 ‘지기(知己) 또는 동지(同志)’에 비유하는 말로도 썼다. 본 시에서는 이지기(知己)의 뜻으로 쓰였다.

☆작품에 대하여 깊이 이해하고,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을 가리킨다.

중국의 남조시대(南朝時代) 양(梁)나라의 문학자 유협(劉勰: 465~521)의 저서 『문심조룡(文心雕龍)·지음편(知音篇)』에, “음악은 실제로 이해하기 어려워서(音實難知), 음악을 이해하는 사람을 만나기란 사실 어렵다(知實難逢). 그런 음악에 대한 진정한 이해력을 갖춘 사람을 만나는 것은(逢其知音), 천 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한 일이다(千載其一乎)”라고 하였다.

9) 산책 한음처(散策閑吟處: 지팡이 짚고 산책하며 시가를 읊을 때면):

① 산책(散策): 지팡이를 짚고 산책하다.

☆산(散): 소요(逍遙)하다. 산보(散步)하다.

☆책(策): 지팡이.

② 한음처(閑吟處): 시가(詩歌)를 읊을 때면.

☆한음(閑吟):

a. 한음(閑吟)으로도 쓰며, ‘생각나는 대로(마음가는 대로) 시가를 읊조리다’는 뜻이다.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b. 한가로이 시가를 읊다.

☆처(處): 동사 뒤에 위치하여, ‘...할 때’라는 뜻으로 쓰였다.

10) 진분 불허침(塵紛不許侵: 약간의 속된 관념도 스며들 수 없지요):

① 진분(塵紛):

☆진려(塵慮)와 같은 말로서, 속념(俗念: 세속에 얽매인 생각)의 뜻이다.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흙먼지가 날리다, 분란(紛亂)스러운 진세(塵世: 속세)를 가리키기도 한다.

② 불허(不許):

☆불허하다, 허가(허락)하지 않다.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찬동하지 않다, 감탄(탄복)하지 않다.

☆...해서는 안 되느냐? 반어문에 쓰이며, 그 부정성을 강조한다.

③ 침(侵):

☆침습하다.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본 시에서는 ‘속된 관념’이 심중에 젖어드는 것(스며드는 것)을 가리키는 말로 쓰였다.

시30. 장중^{章仲} 권호문^{權好文} 공^公의
송암초당^{松巖草堂}을 쓰다

詩30. 書^{權章仲松巖草堂¹⁾}
서 권 장 중 송 암 초 당



谷口三年卜²⁾,
곡 구 삼 년 북

골짜기 어귀에 터 잡고 삼년을 사시면서,

巖腰一逕通³⁾.
암 요 일 경 통

산허리의 한 갈래 오솔길로
통행하시네요.

小窓霜竹響⁴⁾,
소 창 상 죽 향

작은 창밖에는 상죽^{霜竹} 서걱대는 소리
들리는데,

微月暮江空⁵⁾.
미 월 모 강 공

초승달은 저물녘 강위에서 쓸쓸하네요.

老去⁶⁾惟須隱,
노 거 유 수 은

늙어 가면 반드시 은거해야 하거늘,

愁來未易窮⁷⁾.
수 래 미 역 궁

아직은 열악한 처지 바꿀 수 없는 게
걱정입니다.

臨流一長嘆,
임 류 일 장 탄

강가에 와서 긴 한숨 내쉬는데,

兩岸起秋風。
양 안 기 추 풍

양쪽 강기슭에서 가을바람이 불어오네요.

1) 서권장중 송암초당(書權章仲松巖草堂 : 장중章仲 권호문權好文 공공의 송암초당 松巖草堂을 쓰다) :

① 권장중(權章仲) : 장중(章仲) 권호문(權好文).

☆권호문(權好文 : 1532~1587) : 조선 중기의 문인, 학자. 본관은 안동(安東), 이름은 호문(好文), 자는 장중(章仲), 호는 송암(松巖). 안주교수(安州教授) 권륙(權陸)의 아들이다. 1549년 부친을 여의고, 1561년 30세에 진사에 합격했으나 1564년 모친상을 당하자, 벼슬을 단념하고 청성산(靑城山) 아래에 무민재(無悶齋)를 짓고 그 곳에 은거하였다. 이황(李滉 : 1501~1570)의 문인(門人)이며 류성룡(柳成龍 : 1542~1607), 김성일(金誠一 : 1538~1593) 등과 교분이 두터웠고 이들로부터 학행(學行)을 높이 평가 받았으며, 말년에는 덕망이 높아 찾아오는 문인이 많았다. 집경전 참봉(集慶殿 參奉), 내시교관(內侍敎官) 등에 재수되었으나 나가지 않았으며, 56세로 일생을 마쳤으며, 묘지는 안동부 서쪽 마감산(麻甘山)에 있다. 안동(安東) 송암서원(松巖書院 : 청성서원靑城書院)에 제향 되었다. 이황(李滉)은 그를 기운이 맑고 깨끗한 산림(山林)의 풍격(瀟灑山林之風)이 있다 하였고, 벗 류성룡(柳成龍)도 그를 강호지사(江湖之士)라 하였다. 시가로는 경기체가를 본뜬 「독락팔곡(獨樂八曲)과 연시조인 「한거십팔곡(閑居十八曲) 등이 있고, 저서로는 『송암집(松巖集)』이 전한다.

② 송암초당(松巖草堂) : 한서정사(寒棲精舍) : 송암정사(松巖精舍). 『영가지(永嘉誌) · 서당편(書堂篇)』의 한서정사(寒棲精舍) 조항에 보면, “한서정사는 일명 송암정사라고도 하는데(寒棲精舍一名松巖精舍), 권호문이 이렇게 정사의 호를 지은 것은 이 정사가 안동부安東府의 서쪽 송파리松坡里 발리봉發理峯 북쪽에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서였다(權好文因以爲號在府西松坡里發理峯北).”고 하였다. 또한 같은 책 청성정사(靑城精舍) 조항을 보면, “청성정사는 안동부 서쪽의 청성산靑城山 아래에 있는데(靑城精舍在府西靑城山下), 송암松巖 권호문이 은거하던 곳으로(權松巖好文所隱居處), 공이 이 정사의 명칭을 구상하였으니(公構此名), 그 강당의 명칭은 인지당仁智堂이라 하고(其堂曰仁智), 그 재사 <齋舍 : 유생들의 기숙사로 쓰던 건물>는 무민재 <無悶齋 : 無悶齋>라 하였다(齋曰無悶).”고 하였다. 이 청성정사에 보내는 서에 류성룡의 시가 있다.

산승이 소매자락에 시축詩軸 넣고 멀리서 날 찾아와,	山僧袖軸*遠過余,
청성산靑城山의 은사隱士 있는 곳에서 왔다고 하네요.	云自靑城*隱者居.
작별 후 이미도 백발이 더욱 늘었을 것이고,	別後想*應添白髮,
손님 오면 한담閑談도 하시고 신선한 야채도 대접하신다면서요.	客來聊且*供新蔬.
(존공께서) 만사에 유유자적한 것은 제가 일찍이 알았고,	悠悠*萬事吾曾了,
엮히고설킨 여러 인연 선생께선 역시 공허하다 하시겠지요.	擾擾*諸緣*子亦虛.
지금부터 행운유수行雲流水처럼 자유로이 노닌다는 약속 더욱 굳게 하고,	從此更堅雲水*約,
강물처럼 순류順流하며 소원해지지 않도록 하리다.	一江沿派*莫相疎.

「권호문 연보」에 의거하면, 청성정사(靑城精舍)는 그의 나이 42(1573년)세 정월(正月)에 지은 것으로 선생은 여기에서 은거하며 구도(求道)를 하였다. 고로, 훗날 권호문이 세상을 떠난 뒤, 그의 학덕을 추모하기 위해 1608년(무신년戊申年) 선조 41; 선생은 1587년 56세에 졸했음)에 창건한 ‘청성정사’와는 명칭은 동일하나, 그 성격은 달리한다고 봐야할 것이다.

서에는 1607년 5월에 별세하였으므로 청성정사에 보내는 서에 시는 그 이전에 지어진 것으로 봐야할 것이다.

*수축(袖軸) : 승려의 장삼(長衫)의 소매 자락에 넣은 시축(詩軸 : 시를 적는 두루마리). ‘수(袖)’는 소매자락이란 뜻이고, ‘축(軸)’은 시축(詩軸)의 뜻이다.

*청성(靑城) : 청성산(靑城山)을 가리킨다. 『영가지·산천편』에 보면, “청성산은 안동부의 서쪽 15리 되는 곳에 있는데(靑城山在府西十五里), 일명 성산星山이라고도 하고 청산靑山이라고도 하며 성산城山이라고도 한다(一名星山, 又名靑山, 又一名城山). … 용산龍山の 남쪽에 있는 ‘청여성靑與城’이란 단어를 두 자로 합쳐서 이름 지은 것이 청성산이다(在龍山之南靑與城二字合而名之曰靑城山). 학봉鶴峰 김성일〈金誠一 : 1538~1593〉의 석문정사石門精舍와 송암松巖 권호문權好文의 연어헌〈鳶魚軒 : 서당의 명칭〉이 이곳에 있다(金鶴峯石門精舍, 權松巖鳶魚軒在焉).”고 하였다. 곧 지금의 안동시 서후면(西後面) 교리(校里)에 있는 산 이름이다.

*상(想) : 짐작하다(되다).

*응(應) : 아마도 …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다. …이다.

*차(且) : 연사(連詞 : 접속사)로서, ‘또한, 더욱이, 그 위에’의 뜻이다.

*유유(悠悠) : 침착하고 여유가 있는 모양. 본 시에서는 유유자적(悠悠自適 : 속세를 떠나 아무 속박 없이 조용하고 편안하게 삶)의 의미로 쓰였다.

*요요(擾擾) : 복잡하고 어지러운 모양, 얼키설키 얽힌 모양.

*제연(諸緣) : 불교용어이다.

a. 모든 인간적인 유대관계.

b. 모든 인연의 연분.

c. 색향(色香)이 갖가지인 세상정황(변모)을 가리킨다. 참으로 다양한 세상사의 모습은 모두 내 마음이 원인을 도와서 결과를 맺게 하는 작용을 일으킨다. 즉 심식반연(心識攀緣)이므로, ‘제연(諸緣)’이라 칭한다.

*운수약(雲水約) : ‘구름과 하천수를 벗어나 자연에 귀의한다는 약속’의 뜻이다.

*연소(沿沂) :

a. 물길을 따라 물이 흘러 내려가다(沿流而下).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b. 물길을 따라 내려감(順水下行), 물길을 거슬러 올라감(與逆水上行).

c. 전(轉)하여, 배를 타고 노닐다.

d. 본받아 좇으며 근원을 탐구하다.

2) 곡구 삼년복(谷口三年卜 : 골짜기 어귀에 터 잡고 삼년을 사시면서) :

① 곡구(谷口) : 산곡(山谷)의 출입구. 골짜기의 어귀.

② 삼년복(三年卜) : 삼년을 터 잡고 거주하다.

☆삼년(三年) : 본 시에서는 ‘삼년을 거주하다’는 뜻으로 쓰였다. 여기서 ‘삼(三)’

은 ‘여러 해’를 뜻하는 것으로 쓰였다. 「권호문 연보」에 의하면, 청성정사(靑城精舍) 곧 송암초당은 권호문의 나이 42세 때 지었고, 48세에 류성룡이 선생과 함께 가르치기를 청하여 병산서당(屏山書堂)에서 강회를 하였다는 것으로 보아, 꼭 3년이러는 숫자에 구애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본시의 주석1)을 참조 바람.

☆복(卜): ‘복거(卜居: 거주지를 선택한 뒤 거주함)’, 곧 ‘복거(卜居)하는 곳’을 가리키는 뜻으로 쓰였다. ‘터 잡다’는 말로 번역한다.

a. 복(卜): 택지선택을 위해 점치다. 선택하다.

3) 암요 일경통(巖腰一逕通: 산허리의 한 갈래 오솔길로 통행하시네요):

① 암요(巖腰): 산요(山腰: 산허리), 산복(山腹: 산의 중턱).

② 일경(一逕): 일경(一徑)으로도 쓴다.

☆곧장, 곧바로

☆한 가닥 오솔길.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③ 통(通): 도달하다, 실행하다. 본 시에서는 ‘내왕하다’는 뜻으로 쓰였다.

4) 소창상죽향(小窓霜竹響: 작은 창 밖에는 상죽霜竹이 바람에 서걱대는 소리 들리는 데):

① 상죽향(霜竹響): 바람에 상죽(霜竹)의 댓잎이 부딪쳐 서걱대는 소리.

☆상죽(霜竹):

a. 대나무. 대나무 표면에 백색분말이 있는 까닭에 ‘상(霜: 서리. 백색을 비유한 말)’자를 붙여 ‘상죽(霜竹)’이라고 한 것이다.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b. ‘근죽(簞竹)’을 가리킨다. ‘근(簞)’자의 뜻이 ‘껍질이 흰 대나무’이듯이 근죽은 껍질이 서리와 같이 희며, 대나무 통이 굵은 것은 ‘장대’를 만드는데 쓰고, 가는 것은 ‘피리’를 만드는데 쓴다. 전(轉)하여, ‘피리[적필]’를 가리키는 뜻으로도 쓴다.

5) 미월 모강공(微月暮江空: 초승달은 저물녘 강위에서 쓸쓸하네요):

① 미월(微月): 가늘게 빛나는 달. 미월(眉月: 눈썹 모양의 달). 초승달(초승에 뜨는 달).

② 모강(暮江): 저물녘의 강.

③ 공(空): 쓸쓸하다.

6) 노거(老去):

① 사람이 점차 늙어감을 이른다.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② 늙어서 죽다.

7) 궁(窮): 열악한 처지.

시31. 비가 오는데 연좌루^{燕坐樓}에 앉아서
반산^{半山} 왕안석^{王安石} 선생의 시를
차운하여



詩31. 雨中坐^{燕坐樓}¹⁾ 次^{半山韻}²⁾
우 중 좌 연 좌 루 차 반 산 운

晚雨³⁾疎還密,
만 우 소 환 밀

저물녘의 빗줄기 성글었다 퍼붓다 하더니,

歸雲⁴⁾止復行。
귀 운 지 부 행

지나가는 구름도 머물렀다 흘러가다 하네.

三春酬卧病⁵⁾,
삼 춘 주 와 병

삼년이나 와병 중에 방문객과
교제하다 보니,

十載誤虛名⁶⁾。
십 제 오 허 명

지난 십년 헛된 명성으로 남에게 폐 끼쳤네.

樓對屏巖矗⁷⁾,
루 대 병 암 축

누각 맞은편은 병풍 친듯한 암벽 솟았고,

門臨洛水清⁸⁾。
문 림 낙 수 청

문 앞 다가서면 낙동강 강물
청명하게 보이네.

長安定何處⁹⁾,
장 안 정 하 처

경성^{京城}이라면 (내가) 어디서
안정할 수 있을까?

迷路夢難成¹⁰⁾。
미 로 몽 난 성

(그 생각) 잘못된 길인지라
꿈도 꾸지 못하겠네.

1) 우중좌연좌루(雨中坐燕坐樓 : 비가 오는데 연좌루에 앉아서) :

- ① 우중(雨中) : 비가 내리는 가운데. 또는 비가 올 때.
- ② 연좌루(燕坐樓) : 「연보」에 의거하면, 서에 선생은 32세에 부친상을 당하여, 낙향한 이후 3년 동안 시묘(侍墓)하고나서도, 바로 조정에 복귀하지 않고, 노도 봉양을 거듭 주정하며 고향에 머물렀다. 선생은 이즈음에 하회리(河回里) 북촌(北村)의 북쪽에 위치한 부용대(芙蓉臺)와 낙동강[花川]을 향해 원지정사(遠志精舍)를 짓고, 이 정사의 서쪽에 누각[燕坐樓]을 지었다. 이 누각은 원지정사에 있는 정자(亭子)라는 뜻에서 ‘원지정(遠志亭)’이라고도 불렀다.

☆연좌(燕坐) : 연좌(燕坐)의 ‘연(燕)’자(字)가 지닌 의미는 안정하다, 안일(安逸)하다, 편안하게 쉬다, 휴식하다. 고로 안좌(安坐 : 편안하게 앉음, 또는 그렇게 앉아 있다)하다, 혹은 한좌(閑坐 : 한가롭게 앉음, 또는 그렇게 앉아 있음)하다. 『의례(儀禮)·연례(燕禮) : 고대 중국의 천자나 제후가 정무政務를 돌본 뒤 한가한 시간에 국외에 출사(出使)했던 신료臣僚가 돌아 왔거나 새로이 공훈을 세운 관료가 있거나 귀빈이 방문한 것 등을 원인으로 하여 군신群臣을 불러 정감을 풀면서 연음宴飲하던 예를 갖춘 의식』 편에, “빈(賓 : 고대 한족漢族은 연음宴飲의 예의에 있어서, 반드시 주인과 손님이 설정되어야 했는데, 이 때 주인은 마땅히 군주君主이고, 손님 즉 ‘빈賓’은 조정 대신 중에 지위가 가장 높은 ‘경卿’이 역할을 담당하여 군주와 함께 연음의 예를 진행했음. 또한 군주가 직접 군신群臣들에게 주인의 예를 행할 수 없었던 까닭에, 작위爵位는 ‘사士’이지만 선식膳食을 관장하는 ‘제부宰夫’가 주인의 입장이 되고, 군주가 지명하는 ‘대부大夫’가 빈賓의 대표가 되어 주주와 빈賓의 형식이 갖춰진 상태에서 연음宴飲의 의식을 거행했음)이 다시 들어와(賓反入), 경(卿 : 조정에서 지위가 가장 높은 관명으로, 서주西周와 춘추시대에는 상·중·하 등급으로 나눈 삼경三卿이 있었고, 시대에 따라 관직등급에 차이가 있지만 진한秦漢시대에는 삼공三公 아래에 구경九卿이 있었음)과 대부(大夫 : 고대 관직 명칭. 주대에는 군주 아래에 경卿·대부大夫·사士 등 3등급으로 분류했음. 시대에 따라 명칭과 존폐가 달랐음)와 함께 모두 신발을 벗고(及卿大夫皆說屨)(본 예문에서의 ‘탈說’자는 ‘탈脫’과 통하며, ‘신발을 벗다’는 뜻임), 전당殿堂으로 올라가서 착석한다(升就席).”고 한 대목이 있다. 이 글에 후한(後漢)의 학자 정현(鄭玄 : 127~200)이 주(注)를 달기를, “무릇 편안하게 앉아 있으려면, 반드시 신발을 벗어야 하며(凡燕坐必說屨), 신발은 더러워서 천한 것이기에(屨賤), 신고 전당에 있을 수 없다(不在堂也).”고 하였다. 당(唐)나라 학자 가공언(賈公彥 : 생몰년 미상)은 『의례소(儀禮疏)』에서 이 문장에 소(疏)를 달기를, “무릇 전당(殿堂)에 서서 예를 행할 때는 신발을 벗지 않지만(凡在堂立行禮不說屨), 편안하게 앉아 있으려면 신발을 벗어야 한다(安坐則說屨). …… 그 신발은 발에 신고 있어 더럽고 비천한 까닭에(以其屨在足, 賤), 마땅히 전당에 신발이 있어서는 아니 되니(不宜在堂), 존귀한 분의 신발 옆에 배열해 두어야 한다(陳於尊者之側也).”고 하였다.

2) 차반산운(次半山韻 : 반산半山 왕안석의 시를 차운하여) :

- ① 차…운(次…韻) : 남이 지은 시의 운자(韻字)를 따서 시를 짓는 것을 말한다. 또는 화답(和答)하는 시에서 남의 시운(詩韻)에 맞추어 짓는 것을 말한다. 보운(步韻)이라고도 한다. 자세한 것은 앞의 「시20」 주석1)의 ②를 참조 바란다.
- ② 반산(半山) :

☆북송(北宋)의 정치가이자 학자인 왕안석(王安石: 1021~1086)의 별호(別號)이며,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왕안석의 종산(鍾山)에 있는 고택(古宅: 옛집). 남송의 문인 육유(陸游: 1125~1210)의 저서 『입촉기(入蜀記)』 권2에, “귀로에 반산을 지나오면서, 조금 머물렀다(歸途過半山, 少留). ‘반산’이란 것은 왕문공(王文公: 왕안석의 시호가 문(文)임)의 고택이 있는 곳으로, 이른바 보영선원이다(半山者, 王文公舊宅, 所謂報營禪院也). 성안에서 종산에 이르기까지의 거리에서, 이곳(반산이 있는 곳)이 절반의 노정路程이 되는 까닭에, 반산이라고 한다(自城中上鍾山, 此爲中途, 故曰半山).”고 하였다. ‘반산(半山)’은 지금의 강소성(江蘇省) 강녕현(江寧縣)에 위치한다. 왕안석은 신법(新法)의 실패 후, 만년에 강녕현에 퇴거하여 반산사(半山寺)를 짓고 살면서, 자호(自號)를 반산(半山)이라고 하였다.

☆왕안석(王安石: 1021~1086): 북송(北宋)의 무주(撫州), 임천(臨川), 지금의 강서성(江西省) 임천시(臨川市) 사람이다. 신법당(新法黨)의 영수로 지는 개보(介甫)이고, 소자(小字)는 환랑(獮郎)이며, 호는 반산(半山)이다. 왕익(王益)의 아들이다. 인종(仁宗) 경력(慶曆) 2년(1042) 진사(進士)가 되어 첨서회남관(簽書淮南判官)이 되었다. 7년(1047) 은현지현(鄆縣知縣)이 되어 수리시설을 개선하고 주민들에게 양곡을 대여하면서 행정제도를 엄수하여 빛나는 치적을 쌓았다. 서주통판(徐州通判)과 상주지주(常州知州)를 역임했다. 그렇게 강남지역의 지방관으로 근무하면서 이재(理財)의 능력을 인정받았다. 가유(嘉祐) 3년(1058)에 임조하여 삼사탁지판관이 되었는데, 1만 언(言)에 이르는 글을 올려 변법개혁(變法改革)과 인재의 양성을 주장했지만 채택되는 못했다. 지제고(知制誥)로 옮겼다가 어머니 상을 당해 사직했다. 신종(神宗)이 즉위하자 강녕부(江寧府)를 맡았다가 얼마 뒤 불려 한림학사겸시강(翰林學士兼侍講)이 되었다. 희녕(熙寧) 2년(1069) 참지정사(參知政事)가 되어 변법을 강력하게 주장한 것이 신종의 뜻과 일치해 역사적으로 유명한 과격적인 개혁정책을 실시하게 되었다. 삼사조례사(三司條例司)를 설치해 재정과 군사제도를 정비하면서 부국강병의 방안을 모색했었다. 청묘법(靑苗法)과 시역법(市易法), 모역법(募役法), 보갑법(保甲法), 보마법(保馬法)을 실시했다. 다음 해 동중서문하평장사(同中書門下平章事)가 되었다. 과거(科擧)와 학교제도를 개혁했다. 7년(1074)년 사마광(司馬光)과 문언박(文彦博), 한기(韓琦) 등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쳐 재상 자리를 사직하고 강녕부로 옮겼다. 다음 해 다시 복직했지만, 다음 해 다시 파직되어 강녕부로 나갔다. 원풍(元豐) 3년(1080) 형국공(荊國公)에 봉해지고, 시호(諡號)는 문(文)이다. 그의 신법은 국가재정의 확보와 국가행정의 효율성 증대 등에서 일정한 실적을 거두었지만 원래취지인 농민과 상인의 구제라는 면에서는 결과적으로 세역(稅役)의 증대, 화폐경제의 강요 등으로 영세농민층의 몰락을 가속화시킨 문제점도 있었다. 저서에 『왕림천선생집(王臨川先生集)』·『주관신의(周官新義)』·『상서신의(尙書新義)』·『시경신의(詩經新義)』·『시의구침(詩義鉤沈)』·『도덕경주(道德經注)』 등이 있다.

3) 만우(晩雨):

- ① 저녁 무렵 내리는 비. 저물녘 빗줄기.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 ② 야우(夜雨): 밤에 내리는 비. 밤비.

- 4) 귀운(歸雲): 행운(行雲): 흘러가는 구름. 지나가는 구름.
- 5) 삼춘 수와병(三春酬臥病: 삼년이나 와병 중에 방문객과 교제하다 보니):
- ① 삼춘(三春):
- ☆3개년의 봄(3개년 동안 봄이 3번 돌아오므로 이르는 말)’이란 뜻으로도 쓴다. 즉 세 해의 봄, 곧 ‘3년’이란 뜻이다.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본 시에서의 ‘3년’이란 말은 10년 동안 앓아 누운 기간이 도합 3년이란 뜻이다.
- ☆춘계(春季) 3개월’을 이르는 말. 음력 정월을 맹춘(孟春), 2월을 중춘(仲春), 3월을 계춘(季春)이라 한다.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인 것으로 보인다.
- ☆춘계의 제3개월, 곧 음력 3월을 이른다. 모춘(暮春: 음력 3월의 별칭) 또는 ‘만춘(晩春: 늦봄)’의 뜻이기도 하다.
- ② 수와병(酬臥病): 와병(臥病) 중에 교제하다.
- ☆수(酬): 접대하다. 교제하다.
- ☆와병(臥病): 병으로 자리에 눕다. 병을 앓고 있다.
- 6) 십재 오허명(十載誤虛名: 지난 십년 헛된 명성으로 남에게 꽤 끼쳤네)
- ① 십재(十載): 십년. 장기간을 가리키는 말로 쓴다.
- ☆재(載): 년(年). 세(歲).
- ② 오(誤):
- ☆해를 끼치다. 방해하다.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 ☆미혹되다.
- ☆부주의하다. 조심하지 않다.
- ☆틀리다. 잘못되다. 그르치다.
- ③ 허명(虛名):
- ☆실제와 부합되지 않는 명성과 명예.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기타 내용은 「시14」 주석8)의 ② ‘허명(虛名)’ 조항을 참조바람.
- 7) 누대 병암축(樓對屏巖矗: 누각 맞은편은 병풍 친 듯 암벽이 솟았고)
- ① 누대(樓對): 누대의 맞은편. 여기서의 ‘누(樓)’는 연좌루(燕坐樓)를 가리킨다.
- ② 병암축(屏巖矗): 병풍을 친 듯한 암벽이 우뚝 솟다.
- ☆병암(屏巖): 병풍을 친 듯한 암벽. 여기서 ‘병암’은 부용대를 가리킨다.
- ☆축(矗): 우뚝 솟다.
- 8) 문림 낙수청(門臨洛水淸: 문 앞에 다가서면 낙동강 강물 청명하게 보이네):
- ① 문림(門臨): 문 앞에 다가서다.
- ☆림(臨): 근접하다. 가까이 가다.
- ② 낙수청(洛水淸): 낙동강 강물이 맑다.
- ☆낙수(洛水): 낙동강. 본 시에서는 하회마을의 부용대 앞을 흐르는 강을 가리킨다.
- 9) 장안 정하처(長安定何處: 경성京城이라면 〈경성에서라면〉 〈내가〉 어디서 〈내 마음〉 안정할 수 있을까?):
- ① 장안(長安): 중국의 옛도시 이름. 한고조(漢高祖) 7년(BC 200년)에 이곳을 도읍으로 정했다. 지금의 섬서성(陝西省) 서안시(西安市) 서북 13리 일대의 지역이다. 이후 몇 10리 거리의 차이가 있기도 했으나, 모두 이 일대의 지역이며, 동한(東漢) 헌제(獻帝) 초엽·서진(西晉) 민제(愍帝) 시대·전조(前趙)·전진(前

秦) · 후진(後秦) · 서위(西魏) · 북주(北周) · 수(隋) · 당(唐) 등이 모두 이곳에 도읍을 정했다. 당 말엽에 구성(舊城) 북부에 신성(新城)을 건축했는데, 이것이 지금의 서안성(西安城)이다. 당 이후의 시문에서 도성(都城)의 통칭으로 상용하였다.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으며, 한양(漢陽)의 대칭으로 쓰였다.

② 정(定): 안정하다.

③ 하처(何處): 어느 곳(어디서).

10) 미로 몽난성(迷路夢難成: 〈그 생각〉 잘못된 길인지라 꿈도 꾸지 못하겠네):

① 미로(迷路): 길을 잃다. 정도(正道)에서 벗어나다. 이 말은 ‘잘못된 길로 들어서다’ 또는 ‘잘못된 길’, 또는 ‘정확한 방향을 잃다’는 것을 비유한 말로 쓰는 데,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② 몽난성(夢難成): 꿈도 꾸지 못하다. 꿈에도 이루어질 수 없다. 올바른 생각이 아니라서 전혀 생각할 수 없다는 말이다.



시32. 승려 성진^{性眞}의 시축^{詩軸}에 쓰다

詩32. 題性眞詩軸¹⁾ 제 성진 시 축

下山尙帶烟霞容²⁾,
하 산 상 대 연 하 용

하산해서도 연무 깬 산수山水 모습
그대로 지니고,

閒日聳音洛水東³⁾.
한 일 공 음 낙 수 동

한가한 날 저벅저벅 낙수洛水 동쪽에서
찾아왔네.

叩以玄譚差可喜⁴⁾,
고 이 현 담 차 가 희

현담玄談을 질문하면
조금은 기꺼이 대하지만,

問之塵事摠如聾⁵⁾.
문 지 진 사 총 여 룡

세속의 일 문의 하면 늘 귀머거리 행세하네.

三生歲月悠悠過⁶⁾,
삼 생 세 월 유 유 과

삼생三生の 세월은 유유히 흘러가는데,

一錫雲山處處通⁷⁾.
일 석 운 산 처 처 통

한 자루 석장錫杖 짚고
은거지 곳곳을 왕래하네.

見汝師生⁸⁾俱不俗,
견 여 사 생 구 불 속

자네들 사제師弟를 보면
모두가 속되지 않는데,

爲題詩句寂寥中⁹⁾.
위 제 시 구 적 요 중

(나도) 시 한 수 짓고자 사색 중에 있다네.

- 1) 제성진시축(題性眞詩軸 : 승려 성진의 시축詩軸에 쓰다):
 - ① 제(題): (글을) 쓰다. 적다. 기록(기재)하다.
 - ② 성진(性眞): 어떤 승려의 법명(法名).
 - ③ 시축(詩軸): 시를 적는 두루마리.
- 2) 하산상대 연하용(下山尙帶烟霞容: 하산해서도 연무 낀 산수 모습 그대로 지니고):
 - ① 상대(尙帶): 아직 ...한 모양을 띠고 있다.
 ☆상(尙): 부사로서, ‘아직. 여전히. 그대로’의 뜻이다.
 ☆대(帶): 동사로서, (...한 모양을) 띠다. 나타내다. 가지다.
 - ② 연하(烟霞): 연하(煙霞)로도 쓴다.
 ☆일반적으로 ‘산수(山水). 산림(山林)’ 또는 그 경치를 가리킨다.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연무(烟霧): 연기와 안개). 운하(雲霞: 구름과 노을).
 ☆홍진속세(紅塵俗世: 시끄럽고 번잡한 속세)를 가리킨다. (홍진은 ‘거마車馬가 달려서 날리는 먼지’라는 뜻이나, 불교와 도교에서는 ‘인세(人世: 인간세상)’를 ‘홍진’이라 칭함)
 - ③ 용(容):
 ☆용모. 자태. 모습.
 ☆표정. 기색.
- 3) 한일공음 낙수동(聞日聒音洛水東: 한가한 날 저벅저벅 낙수洛水 동쪽에서 찾아왔네):
 - ① 한일(閑日): 한일(閑日)이라고도 쓴다.
 ☆한가한 날. 가일(暇日).
 - ② 공음(聒音):
 ☆발자국 소리, 또는 그 모양.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인기척이 나는 모양, ‘두런두런’으로 표현할 수 있다.
 - ③ 낙수(洛水): 낙동강. 본 시에서는 하회마을 앞 낙동강을 가리킨다.
- 4) 고이현담 차가희(叩以玄譚差可喜: 현담玄談을 질문하면 조금은 기꺼이 대하지만):
 - ① 고(叩): 탐문(探問)하다. 문의하다. 질문하다.
 - ② 현담(玄譚): 현담(玄談).
 ☆도가(道家)나 도교(道教)를 내용으로 하는 담론을 가리킨다.
 ☆한·위(漢魏)이래의 노장지도(老莊之道: 노자老子和 장자莊子の 철학)와 『주역(周易)』에 의거해서 명리(名理: 명칭과 이치)를 분석하는 담론(談論)을 가리킨다.
 - ③ 차(差): 부사로 쓰여, ‘다소. 조금’의 뜻이다.
 - ④ 가희(可喜):
 ☆즐겁다. 기쁘다. 본 시에는 이 뜻으로 쓰였다.
 ☆귀엽다. 사랑스럽다.
- 5) 문지진사 총여릉(問之塵事摠如龕: 세속의 일 문의하면 늘 귀머거리 행세하네):
 - ① 진사(塵事): 세속(世俗)의 일.

- ② 총(摠) : 총(總)과 동자(同字).
 ☆부사로 쓰여, ‘늘. 언제나’ 혹은 ‘반드시. 예외 없이’ 혹은 ‘필경. 결국’은 등의 뜻으로 쓴다.
- ③ 여릉(如簾) : 귀머거리 같다.(못들은 척하고 귀머거리 행세하는 것을 가리킨다)
- 6) 삼생세월 유유과(三生歲月悠悠過 : 삼생三生の 세월은 유유히 흘러가는데) :
- ① 삼생(三生) : 불교용어로서, 전생(前生 : 과거세過去世), 금생(今生 : 현세現世), 내생(來生 : 미래세未來世)의 총칭이다.
- ② 유유(悠悠) :
 ☆세월이 흘러가는 모양.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그리워하는 모양. 근심하는 모양.
 ☆끝없이 요원한 모양. 아득하게 먼 모양.
 ☆장구(長久)한 모양, 구원(久遠)한 모양.
 ☆매우 많은 모양.
 ☆끝없이 이어지는 모양.
 ☆펼쳐지는 모양(나풀거리는 모양. 흔들거리는 모양).
 ☆(강물이) 흘러가는 모양, 가는 모양(움직임이 한가하고 여유 있으며 느린 모양임).
 ☆(상황 · 정세 등이) 흔들리다, 불안정하다.
 ☆빈둥거리는 모양.(정신 · 태도 · 생활 등이) 산만하여(나태하여) 마음을 다하지 않는 모양.
 ☆한적한 모양. 침착하고 여유가 있는 모양.
 ☆소리나 호흡이 완만하여 가늘고 길게 이어지는 것을 형용한 말.
 ☆까무잡잡(거무스레)하거나 어두침침한 모양.
- 7) 일석운산 처처통(一錫雲山處處通 : 한 자루 석장錫杖 짚고 은거지 곳곳을 왕래하네) :
- ① 일석(一錫) : 한 자루의 석장(錫杖).
 ☆석(錫) : 불교용어로 석장(錫杖)*의 약어(略語)로 쓰였다.
 *석장(錫杖) : 승려나 수행자(修行者)가 갖는 고리가 달린 지팡이. 원래, 인도의 승려가 산야(山野)를 편력할 때, 흔들어 울려서 독사나 해충을 쫓았던 것을 말한다. 머리 부분은 석제(錫製)의 탑파형(塔婆形 : 탑모양)으로 여러 개의 금속 고리를 붙인다. 가운데 부분은 나무, 아랫부분은 어금니 뿔로 되어있다. 비구십팔물(比丘十八物 : 승려가 몸에 지니는 열여덟 가지의 물건) 중의 하나이다.
- ② 운산(雲山) :
 ☆진세(塵世)와 멀리 떨어진 곳. 은자(銀子)나 출가자(出家者)의 거처.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구름 속에 산봉우리가 들어가도록 높이 솟은 산. 고산(高山).
 ☆구름과 산.
- ③ 처처(處處) :
 ☆곳곳. 각처(各處). 여러 곳 또는 이곳저곳.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도처에. 어디서나. 모든 것에.
- 8) 여사생(汝師生) : 자네들 스승과 제자.
- ① 여(汝) : 너(들). 자네(들). 본 시에서는 2인칭 대명사로 쓰였으며, 동년매나 후배

를 칭하는데 주로 쓰인다.

② 사생(師生): 사제(師弟). 스승과 제자를 아울러 이르는 말.

9) 위제시구 적요중(爲題詩句寂寥中: 〈나도〉 시 한 수 짓고자 사색 중에 있다네):

① 위제시구(爲題詩句): 시구를 짓기 위해서.

☆위(爲): ...하기 위해, ... 때문에.

☆제(題): 동사로서, 쓰다. 짓다. 적다의 뜻으로 쓰였다.

② 적요(寂寥):

☆적적하고 고요하다.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으며, 정신적으로 깊이 사색하고 있음을 가리키는 말로 쓰였다.

☆형체가 없음을 이르는 말. 공허무형(空虛無形)하다.

☆정적무성(靜寂無聲), 침적(沉寂), 아주 고요하여 소리가 나지 않음.

☆광활하다. 고원(高遠)하다. 요원(遙遠)하다.

☆담박(淡泊): 욕심이 없음)하다. 염정(恬靜): 평안하고 차분함)하다.

☆쓸쓸하고 적막하다.

☆희소(稀疏): 매우 드물고 적음)하다. 희소(稀少)하다.



시33. 계헌季獻 이우李瑀 공公의 시 「학금學琴」을 차운次韻하여

詩33. 次李季獻瑀學琴韻¹⁾
차 이 계 헌 우 학 금 운

手生絃澁不成音²⁾, 숨씨 서툴러 선을 거칠고 음를 곱지 못하나,
수 생 현 삼 불 성 음

強自摩挲寄遠襟³⁾. 애써 음조音調 다듬어
강 자 마 사 기 원 금 먼 곳에 내 마음을 부치네.

鼓罷虛堂江月白⁴⁾, 고당高堂에서 탄주彈奏 마쳤는데
고 파 허 당 강 월 백 강변에 달 밝으니,

一般山水古猶今⁵⁾. 한결같은 산수풍경 고금이 다름없으리.
일 반 산 수 고 유 금

1) 차이계헌우 학금운(次李季獻瑀學琴韻 : 계헌季獻 이우李瑀 공公의 시 「학금學琴」을 차운次韻하여:

① 이계 헌우(李季獻瑀) : 계헌(季獻) 이우(李瑀). 이렇게 성씨 다음에 자(字)를 쓰고 이름을 그 뒤에 쓴 것은 경칭(敬稱)의 한 예이다.

☆이우(李瑀 : 1542~1609) : 조선 중기의 서화가(書畫家). 본관은 덕수(德水), 자는 계헌(季獻), 호는 옥산(玉山) · 죽와(竹窩) · 기와(寄窩) 등이며, 이름은 위(瑋) 또는 후(瑀)이다. 원수(元秀)의 아들이며, 이(瑋 : 1536~1584 : 율곡栗谷)의 동생으로 어머니는 사임당 신씨(師任堂申氏)이다. 1567년 진사시(進士試)에 합격 하였고, 비안현감(比安縣監 : 비안比安은 지금의 경북 의성군 비안면比安面 지방의 옛 이름임)과 괴산(槐山 : 충북 동남부 만곡부彎曲部에 위치한 군) 및 고부군수

(古阜郡守 : 고부古阜는 지금의 전북 정읍군 고부면古阜面 지방임)를 고쳐 군자감정(軍資監正 : 조선시대 군량미 등 군수품의 저장·관리·출납을 맡아본 군자감에 두었던 정3품의 관직)에 이르렀다. 시(詩)·서(書)·화(畵)·금(琴)을 다 잘하여 4절(四絶)이라 불렸다. 그림은 초충(草蟲)·사군자(四君子)·포도(葡萄) 등을 다 잘 그렸는데, 어머니의 화풍을 따랐다. 아들 경절(景節)도 가법(家法)을 이어, 서·화·금에 능하여 3절(三絶)이란 말을 들었다. 그가 초충(草蟲)을 그려 길에 던지면 닭이 와서 쪼았다는 일화가 있을 만큼 화훼초충(花卉草蟲)을 잘 그렸다고 한다. 묵매화(墨梅花)는 주로 횡관식구도(橫貫式構圖)로 힘차게 묘사하였다. 유작(遺作)으로는 설중매죽도(雪中梅竹圖)(개인 소장)·노매도(老梅圖)·수과초충도(水瓜草蟲圖)(서울대학교 박물관 소장)·포도도(葡萄圖) 등이 전하고 있다.

② 학금(學琴) : 이우(李瑀)가 지은 시제(詩題).

③ 차운(次韻) : 자세한 것은 앞의 「시20」 주석1)의 ② ‘차운(次韻)’ 조항을 참조 바람.

2) 수생현삽 불성음(手生絃濫不成音 : 솜씨 서툴러 선을 거칠고 음을 곱지 못하나) :

① 수생(手生) : 일을 하는 것이 (연주하는 것이) 숙련되지 못함을 이르는 말. 수숙(手熟 : 손에 익숙함)의 반대말임.

☆생(生) : 익숙하지 않다. 단련되지 않다. 생소(生疎)하다. 미숙하다. 서투르다.

② 현삽(絃濫) : 현악기 탄주하면서 탄법(彈法)에 어긋나다.

☆현(絃) : 현악기를 탄주하다.

☆삽(濫) : 본 시에서는 현악기를 탄주하는데 탄법(彈法)에 어긋나서 음이 고르지 못하고 거칠게 타는 것을 가리킨다.

③ 불성음(不成音) : 음률을 완성하지 못하다.(음률이 아름답지 못하다는 뜻임)

☆불성(不成) : 성취(실현)할 수 없다, 성공하지 못하다. 이 말은 전(轉)하여 미숙하게 현악기를 다루면, 음률이 고르지 못하고 정음(正音)을 낼 수 없음을 이르는 말로 쓰였다. ‘금(琴)’의 정현법(定絃法)을 놓고 볼 때, 왼손으로 짚고 오른손으로 현(絃)을 뜯고[句] 치는[挑] 탄법(彈法 : 연주법)에 어긋나면 바른 음을 낼 수 없음을 이른다, 또한 ‘거문고’에 있어서도 연주 자세가 바르지 못하거나, 술대법[匙法 : 술대를 잡는 법]에 어긋나거나 구음법(口音法 : 거문고 소리를 입으로 흉내 낸 것)에 그 연주곡이 아름답게 연주될 수 없음을 이르는 말이다.

☆음(音) : 음률(音律). 음조(音調).

3) 강자미사 기원금(強自摩娑寄遠襟 : 애써 음조音調 다듬어 먼 곳에 내 마음을 부치네) :

① 마사(摩娑) : 마사(摩莎)로도 쓰고, 마사(摩娑)로도 쓴다.

☆옥(玉)을 갈다(다듬다), (글이나 말을) 다듬다.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으며, ‘(음조를) 다듬다’는 의미를 가리킨다.

② 기원(寄遠) : 먼 곳에 보내다(부치다).

③ 금(襟) : 심회(心懷)·심중·생각·심정·흉금 : 마음 속 깊이 품은 생각. 본 시에 서는 내 마음이라고 번역하였다.

4) 고파허당 강월백(鼓罷虛堂江月白 : 고당高堂에서 탄주彈奏 마쳤는데 강변에 달 밝으니) :

- ① 고파(鼓罷) : 현악기 (본 시에서는 ‘거문고’를 가리킴) 타기를 끝내다(마치다, 그만두다).
 ☆고(鼓) : 타악기를 치거나 현악기를 뜯거나 타다. 『시경(詩經)·소아(小雅)·고중(鼓鐘 : 편종編鐘을 치다)』에, “편종〈編鐘 : 아악기의 하나로, 두 층의 길이 있는 틀에 12률의 종을 한 단에 여덟 개씩 달아 망치로 치는 타악기〉을 치는 소리 땡그렁 땡그렁, 비파도 뜯고 거문고도 타는데(鼓鐘欽欽, 鼓瑟鼓琴).”라고 읊은 구절이 있다.
 ☆파(罷) : 끝내다. 마치다. 그만두다.
- ② 허당(虛堂) : 고당(高堂), 높직한 대청.
- ③ 강월(江月) :
 ☆강 상공의 달.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강물에 비치는 달의 그림자.
- ④ 백(白) : 밝다, 환하다.
- 5) 일반산수 고유금(一般山水古猶今 : 한결같은 산수풍경 고금이 다름없으리) :
 ① 일반(一般) :
 ☆한결같다.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한 가지. 일종.
 ☆보편적인. 보통의. 통상적인.
- ② 산수(山水) :
 ☆산과 물. 산수(山水)의 풍경.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산수화(山水畵)의 약칭.

시34. 병산서원^{屏山書院}에서 학봉^{鶴峯} 김성일^{金誠一}
공공이 조정으로 되돌아가는 것을
송별하면서 지은 시 세 수

詩34. 屏山書院¹⁾ 奉別金鶴峯還朝²⁾ 三首
병 산 서 원 봉 별 금 학 봉 환 조 삼 수



其一

[1]

何事危欄悵望頻³⁾,
하 사 위 란 창 망 빈

무슨 일로 난간에서 실의에 젖어
자주 하늘 보셨을꼬!

爲君終日獨傷神⁴⁾.
위 군 종 일 독 상 신

마치 김형은 종일토록 홀로 상심하는
것 같았소.

滿天風雨江雲黑⁵⁾,
만 천 풍 우 강 운 흑

온 하늘에 비바람 몰아치며
강변에 먹구름 끼는데,

誰向孤舟欲問津⁶⁾.
수 향 고 주 욕 문 진

설마 일엽편주 향해
나루터 물으려 하셨겠소?

其二

[2]

凌波不見美人遊⁷⁾,
능 파 불 견 미 인 유

파도가 거세어서 현자賢者가

清洛⁸⁾無情獨自流。
청 낙 부 정 독 자 류

從此江離與芳杜⁹⁾，
중 차 강 리 여 방 두

露香風葉共殘秋¹⁰⁾。
노 향 풍 엽 공 잔 추

노니는 게 보이지 않건만,

맑은 낙동강 강물은 무정하게
홀로 흘러가네요.

이 향기로운 궁궁이 싹과
족두리 풀은 채취採取하고,

낙엽은 모두 늦가을에 노천露天에서
분향하지요.

其三

[3]

漢水終南入夢思¹¹⁾，
한 수 종 남 입 몽 사

亂蟬秋樹別魂悲¹²⁾。
난 선 추 수 별 혼 비

男兒自有平生志¹³⁾，
남 아 자 유 평 생 지

莫使楊朱泣路歧¹⁴⁾。
막 사 양 주 읊 로 기

한수漢水와 종남산終南山이 꿈에서도
(은거지로) 생각나더니,

가을 숲의 매미소리에
이별의 정서 일어 슬퍼지네요.

남아라면 당연히
한평생 지향한 목표가 있거늘,

양주楊朱가 갈림길에서 울었던
표정은 짓지 마시구려.

1) 병산서원(屏山書院) : 경북 안동시(安東市) 풍천면(豐川面) 병산리(屏山里)에 있는 서원이다. 병산서원의 역사는 고려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풍산(豐山) 류씨(柳氏) 자제들의 교육기관인 풍악서당(豐岳書堂)이 고려 때부터 안동부(安東府) 풍산현(豐山縣)에 있었다. 풍산 류씨 후손들의 구전(口傳)에 의하면, 공민왕이 홍건적의 난을 피해 안동에 왔을 때, 면학하는 유생들을 가상히 여겨 하사한 학전(學田) 800 두락을 받기도 했다고 한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가면서 인구가 증가되고 서당 주변에 집들이 많이 들어서면서 소란스러워지자, 서당을 옮기게 되었는데 그 기록은 아래와

같다. 안동의 향토지인 『영가지(永嘉誌)·서당(書堂)』권에 의하면, “풍악서당은 풍산현 북쪽 1리(지금의 풍산고등학교 부근임)에 있었다(豐岳書堂在豐山縣北一里). 가정〈嘉靖: 명나라 세종시대의 연호로 1522~1566년임〉계해년(癸亥年: 1563년: 서에 22세)에 창립했는데(嘉靖癸亥創立), 생원 권경전(權景綬: 이력미상) 등이 상소를 올려 학전學田을 하사받았다(生員權景綬等上疏, 仍賜學田). 그 후 서에 류성룡이(其後西厓柳成龍), 서원이 길옆에 위치한 까닭에(以院在路傍), 면학하는 장소로 적합하지 않다고 하면서(不合於藏修之所), 생원들에게 병산屏山으로 옮겨 서당을 건립할 것을 권하였다(勸諸生移卜于屏山).” 그리하면서, 시 한 수를 남겼는데, 본 시는 「풍악서원豐嶽書院 유사有司에게 고시告示하다(示豐嶽書院有司)」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다. 류명희·안유호 역(譯), 『국역 류성룡시 I』의 「시16」을 참조 바란다.

병산서원은 1572년(선조 5, 서에 31세)에, 서에(西厓) 류성룡(柳成龍: 1542~1607)이 지금의 풍천면 병산리로 옮겨오면서 병산서원의 역사가 시작된다. 본 서원은 화산(花山)을 주산(主山)으로 하여 화산 동남 산자락에 남향으로 자리 잡고 있다. 서원 앞으로는 낙동강이 흐르고 강 건너편에는 병산이 있다. 이 산이 ‘병풍을 처놓은 듯 절벽으로 이어진 산’이라는 뜻에서 ‘병산(屏山)’이라 칭해진 것인데, 당시에 풍악서당(豐岳書堂)을 병산 앞 화산(花山) 산자락에 옮겨놓고 그 명칭도 ‘병산’의 형상을 본 따, ‘병산서당’이라 개칭한 것이다. 그 후 임진왜란으로 인하여 불타버린 병산서당을 1607년(선조 40)에 중건하였다. 그해에 서에 선생(1542~1607)이 타계하자, 문하생인 정경세(鄭經世: 1563~1633)와 이준(李袞: 1560~1635) 등 문인들과 지방 유림의 공론으로 서에 학문과 덕행을 추모하기 위해 존덕사(尊德祠: 신위神位를 모신 집)를 창건하고 위패(位牌: 신주神主의 이름을 적은 나무패)를 봉안한 후에 서원으로서의 위상이 섰다. 1614년 병산서원으로 개칭하였다. 1620년(광해 12)에 유림의 공론에 따라 퇴계(退溪) 이황(李滉: 1501~1570) 선생을 모신 여강서원(廬江書院)으로 위패를 옮기게 되면서 한동안 병산서원에서는 제향을 올리지 못하였다. 그 뒤 한 사람이 같은 고을의 두 개 서원에 모셔진 전례가 있었던 것이 밝혀지고, 서애가 직접 제자들을 가르쳤던 곳에 위패를 모셔야 한다는 유림의 논의가 크게 일어나, 1629년(인조 9)에 별도의 위패를 마련하여 다시 병산서원의 존덕사에 모셨으며, 그의 셋째 아들 수암(修巖) 류진(柳珍: 1582~1635)을 추가 배향(配享: 학덕이 있는 사람의 신주를 사당이나 서원에 모시는 일)하였다. 1863년(철종 14)에 ‘병산서원’이라는 사액(賜額)을 받아 정식 서원으로 승격되었으며, 서원으로서의 격식이 완전히 갖춰졌다. 이 후 선현배향(先賢配享)과 지방교육의 일익을 담당하여 많은 학자를 배출하였으며, 1868년(고종 5) 대원군(大院君: 흥선대원군〈興宣大院君: 1820~1898〉: 철종이 후사가 없어 대를 이은 고종 때의 섭정 대원군임. ‘대원군’은 임금의 대를 이을 자손이 없어, 방계傍系로서 왕위를 이은 임금의 부친에게 주던 벼슬명칭임)의 서원철폐 시에도 철폐(毀撤)되지 않고 존속한 47개 서원중의 하나이다. 1978년 사적 제260호로 지정되었으며, 서애선생의 문집을 비롯하여 각종 문헌 1000여 종과 3000여 책이 소장되어 있다. 경내(境內)의 건물로는 존덕사(尊德祠)·입교당(立教堂)·동재(東齋)·서재(西齋)·복례문(復禮門)·만대루(晩對樓)·내삼문(內三門)·정요대(庭燎臺)·관세대(盥洗臺)·전사청(典祀廳)·장판각(藏板閣)·일각문(一脚門)·고직사(庫直舍) 등이 있다. 서원의 전경(全景)을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본 주석에서는 병산서원의 경내 건물을 정문부터 해설한다.

☆복례문(復禮門): 이것은 서원의 정문이다. 본래 만대루 동쪽에 있던 대문을 1921년에 이전하여 중간한 정면 세 칸 측면 한 칸 규모의 솜을 대문이다. ‘복례(復禮)’란 말은 『논어·언연(顏淵)』편에 나오는 “극기복례위인(克己復禮爲仁: 자신을 단속하여 언행을 예에 부합되게 하는 것이 인仁이다)”이라는 말에서 따 온 것이라고 한다. 자신의 이기적 욕심을 극복하고 예(禮)에 돌아가야 인(仁)을 실천하는 것이라는 뜻이다.

☆광영지(光影池: 연못 이름): 정문을 들어서면서 왼쪽[서쪽]에 위치한다. 정문인 복례문과 누각인 만대루 사이에 조성된 방형(方形)의 이 연당 속에는 작은 섬이 조성되어 있다. 방지원도(方池圓島)의 이 연당 주변에는 봄부터 봄게 피는 배롱나무와 사철 푸른 대나무가 심겨져 있다. 이렇게 정문을 들어서면 정면에 이층 누각 만대루가 가파른 계단 위에 웅건한 모습을 하고 옆으로 길게 자리 잡고 서 있다.

☆만대루(晩對樓): 이는 정면 일곱 칸 측면 두 칸의 팔작 기와집에 처마는 홀처마로 건축된 건물로서, 휴식과 강학의 복합공간으로 20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누각이다. 서원은 이 누각 밑을 지나 강당인 입교당으로 들어서게 되어있다. 만대루(晩對樓)의 “만대(晩對)”라는 말은 당나라 시인 두보(杜甫: 712~770)의 시 ‘백제성루(白帝城樓)」라는 시제(詩題)로 “비취색 병풍을 친 듯한 산봉우리는 황혼녘에 관상하기 아주 적합하고(翠屏宜晩對), 백제산白帝山 깊은 계곡은 마음껏 유람하기에 으뜸일세(白谷會深游)”라고 읊은 시구에서 따왔다고 한다. 누각의 명칭처럼 만대루의 전경은 가히 시적이다. 지는 해가 병산 저 너머에서 붉게 탈 때 마주 바라보면 산봉우리의 아름다움은 극치를 이룬다. 석양이 저녁놀을 드리우면 누각에 앉아 병산을 바라보는 유생들의 마음은 시를 읊는다. 그 뿐이던가, 이튿날 해가 다시 뜨면 눈앞의 전경으로 서원 앞쪽 강변은 모래사장이 펼쳐져 공간적인 여유를 보이는데다가 안쪽은 푸른 낙동강물이 감돌며 흐른다. 그리고 강 건너 편에는 비취색 병산(屏山)의 절벽이 처져 있다. 여기에 신선의 옷자락 같은 구름이라도 열게 걸쳐지면 맑은 하늘아래 공간이 온통 시가 되어 바람결과 새소리에 섞여 들린다. 평소에는 이곳에서 학습한 것을 복습도 하고 휴식도 취했다. ‘도리[道]’를 논하고, ‘이치[理]’를 따지면서 병산의 공간에서 보이는 풍광에 생도들의 ‘마음[心]’은 모두 ‘인자함[仁]’을 지니고 정화수가 되어 시를 짓고 글씨를 쓰고 그림을 그린다. 여기에 무슨 명리(名利)가 있고 득실(得失)이 있었겠는가! 행사가 있는 날이면 이곳에서 당회(堂會)가 열렸다. 풍산 류씨 문중에서 유사(有司)가 두 사람이 선발되고 유림에서 유사(유사)가 4명이 선발되어 제례(祭禮)가 경건하고 엄숙하게 진행되도록 행사 절차를 주재한다. 유사 이외에도 많은 제관(祭官)들이 모인다. 이때 제관 각자의 수입 사항을 확인하고 집사분정(執事分定: 수입 사항을 분담하여 정함)을 하면서 제관들이 회의 장소인 이곳에 모이는 것을 ‘개좌(開坐: 개회의 뜻임)’라고 하는데, 유림의 대표인 유사들의 지시에 따라 개좌할 때가 되면, ‘고자(庫子: 창고지기)’가 나서서 “개좌 아뢰오!”라고 외치면 제관들이 모여 회의가 진행됐다. 그리고 나서 회의가 끝나면 유사의 지시에 따라 ‘고자(庫子)’가 “과좌(罷坐: 산회散會의 뜻임) 아뢰오!”라고 외친다. 그러면 제관들은 각자의 임무를 맡은 자리로 돌아갔다.

☆입교당(立敎堂): 이는 만대루 아래를 지나 마당에 들어서면 정면에 보이는 강당이다. 이 집은 ‘입교(立敎: 교화敎化를 수립하다, 교도敎導를 진행하다)’라는 명칭에 부합하는 강당으로 서원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건물이다. 교육을 통해서 인성(人

性)을 감화시킴으로서 사악(邪惡)함을 막고 선(善)을 가까이 하게 된다. 그래서 사회가 정화되고 나라가 바로 선다. 입교의 목표는 바로 여기에 있다. 내가 선현(先賢)의 가르침에 감화됐으면 옆 사람을 감화시키고 사회를 감화시키고, 그 사회가 나라를 감화시키고, ……., 바르게 배우고 바르게 실천하고, ……., 그래서 바르게 사는 사람의 세상이 된다. 유생들의 삶은 참으로 아름다운 인생을 추구하며 살았던 것 같다. 그것을 연마하는 장소가 바로 입교당이 아닌단가! 입교당은 중앙에 마루가 있고, 양쪽에는 온돌방인 협실(夾室: 곁방)로 구성되어었는데, 동쪽의 방 명성재(明誠齋)는 원장이 기거하던 곳이고, 서쪽의 방 경의재(敬義齋)는 교무실과 같은 곳으로 교수 및 여러 행사를 거행함에 유림의 회합 및 학문 강론 장소로 사용되기도 했다. 입교당은 정면 5칸, 측면 2칸의 단층 팔작 기와집에 겹처마로 되어 있으며, 가구(架構: 목조건축 구조부재構造部材의 짜임새 전체를 총칭하는 말. 좁은 의미로 기둥이나 공포(栱包: 처마 끝의 무게를 받치기 위해서 기둥머리에 짜 맞추어 댄 나무쪽) 위에 얹혀 지붕의 무게를 고루 분산시키면서 내부 공간을 형성하는 보·도리·대공(臺工: 대들보 위에 얹어 중중보와 종보 및 도리 등을 받치는 부재部材를 말함)·서까래 등 구조물의 조합을 총칭하는 말임)는 오량(五樑: 오량집[五樑架]: 지붕을 받치고 있는 도리가 다섯 겹으로 걸린 집)이다.

☆동재(東齋)와 서재(西齋): 이는 입교당 앞마당 좌우에 배치되어 있다. 이곳은 생도들이 수학하면서 기거하던 곳으로, 정면 4칸, 측면 2칸의 맞배지붕을 한 건물로 전면에는 뒷간을 조성했다. 동재(東齋: 입교당을 정면으로 보고 있을 때의 오른쪽, 즉 동쪽에 위치한 재사齋舍임)는 중앙의 한 칸은 마루이고, 좌우로 한 칸짜리 방과 두 칸짜리 방이 있는데, 강당 쪽의 한 칸짜리 방은 유사(儒士)라고 부르던 생도회장이 쓰던 방이고, 두 칸짜리 큰 방은 동직재(東直齋)라 한다. 서재(西齋: 입교당을 정면으로 보고 있을 때의 왼쪽, 즉 서쪽에 위치한 재사齋舍) 역시 중간에 있는 작은 방은 마룻방으로서 장서실(藏書室)이고, 좌우로 한 칸짜리 방과 두 칸짜리 방이 있다. 이 동·서재는 남향하지 않고 있으니, 동재는 서향으로 서재는 동향으로 서로 마주 보고 있다. 후학(後學)들이 선현의 학덕을 계승하려고 강당 아래서 기숙하며 수학하는 엄격함이 고려된 건물배치가 읽혀진다. 강당 대청에서 앞을 내다보면 또 다른 한 폭의 그림 같은 경관이 눈에 들어온다. 강과 산이 수려하고, 서원의 구도가 고상함과 절조를 모두 드러내어, 그 기품이 자연스럽고 고고(高古)하여 세속을 훌쩍 벗어나 있는 듯하다.

☆존덕사(尊德祠: 신위를 모신 사당): 존덕사의 북벽에 류성룡을 주벽(主壁: 사당이나 사원에 모신 여러 위패 중에서 주장되는 위패로, 출입문에서 정면으로 보이는 벽의 중간에 모셔짐)으로 모셔지고, 동벽에 그 셋째 아들 류진(柳軫)의 위패가 배향되었다. 존덕사는 입교당 동쪽 옆을 돌아 뒤로 들어가면, 언덕 위에 있는 사당으로 오르는 계단이 나오는데, 그 계단을 올라 내삼문(內三門: 신문神門)을 들어서면 보이는 사당이다. 이 사당은 정면 3칸 측면 2칸의 단층 맞배 기와집에 처마는 겹처마이다. 전면 좌우(동·서쪽)에 계단을 두고 있다. 존덕사를 들어서면 서예선생의 우국충정과 학문업적을 되새기게 되어 경건한 마음으로 예를 표할 마음이 절로 들게 된다.

☆내삼문(內三門): 이는 신문(神門)이라고도 하고, 내신문(內神門)이라고도 하는데, 이 문은 제향공간인 존덕사의 정문으로 그 안쪽은 성역(聖域)이 되므로 사람과 신이 만나는 문이라는 뜻에서 붙여진 명칭이다. 이 문은 향사(享祀) 시에 제관(祭

官)의 출입문으로 사용된다. 이 문은 평소에는 닫혀 있다가 음력 3월과 9월의 초정일(初丁日)의 향사(享祀)때와 음력 정월 초정일(初丁日)의 정알(正謁: 정월에 지체가 높고 귀한 분을 찾아가 뵈는 의식) 때와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나 서원 건물의 보수 및 수리를 하면서 고유제(告由祭)를 드릴 때 이 문이 열린다. 보통 때 참배하는 것은 알묘(謁廟: 사당에 배알함) 또는 분향(焚香)이라 하는데, 이때도 이 문이 열린다.

☆정요대(庭燎臺): 기단(基壇: 건축물의 터를 반듯하게 다듬은 다음에 터보다 한 층 높게 쌓은 단) 앞 양측에는 『주역(周易)』에 나오는 팔괘(八卦)를 상징하는 팔각석주(八角石柱)가 있다. 이것을 정요대(庭燎臺)라고 하며, 이는 자정(子正)에 제사를 지낼 때 야간 조명을 위한 관솔불을 켜놓는 자리라고 한다.

☆관세대(盥洗臺): 그리고 동쪽 계단 옆에는 제향 할 때 손 씻는 대야를 올려놓은 석조물(石造物)인 관세대(盥洗臺)가 있다.

☆전사청(典祀廳): 이곳은 향사(享祀) 전날, 제수(祭需)를 장만하여 보관하고 평상 시에는 제기(祭器)와 제구(祭具)를 보관한다. 이 건물은 정면 3칸 측면 1칸의 단출한 집으로 존덕사 동쪽에 위치한다. 존덕사와 전사청 사이에는 담이 가려져 있다. 존덕사 입구의 계단 동쪽에 전사청으로 들어가는 문이 있는데, 이 문을 일각문(一脚門: 대문간이 따로 없이 양쪽에 기둥을 하나씩 세워서 문짝을 단 대문)이라고 한다.

☆장판각(藏板閣): 이곳은 각종 서책과 목판과 유물을 보관하는 곳으로 습기를 막기 위하여 정면 3칸에 모두 판문을 달았으며, 화마(火魔)를 막기 위하여 다른 건물과 거리를 두어 독립적인 공간을 형성하였다. 입교당 뒤쪽 존덕사 서쪽에 위치하며, 정면 3칸 측면 1칸의 단출한 집이다. 존덕사와의 사이에 담이 쳐져 있으며, 이곳의 정문은 역시 일각문이며 남쪽으로 나 있다.

☆고직사(庫直舍): 이곳은 서원의 관리인[창고지기]이 살았던 곳이다. 동재의 동쪽 뒤편에 있는데, 동재와 고직사 사이에도 담으로 가려져 있고, 여기에도 고직사로 들어가는 일각문이 있다.

(위의 주석은 권기(權紀)가 편찬한 안동의 지방지인 『영가지(永嘉誌)』와 이상해李相海 글·안장헌安章憲 사진의 『서원(書院)』 및 이호일李浩一이 편집한 『조선의 서원』 등을 참조하였음)

2) 봉별김학봉한조(奉別金鶴峯還朝: 학봉鶴峯 김성일金誠一 공公에게 작별을 고하고 조정으로 되돌아가며):

① 봉별(奉別): ‘고별(告別)’이란 말의 경사(敬詞). 위사람과 헤어짐.

② 김학봉(金鶴峯): 학봉(鶴峯) 김성일(金誠一). 김(金)은 성씨이고 학봉은 호(號)이다. 이렇게 성씨 다음에 이름 대신 호를 쓴 것은 경칭(敬稱)의 한 예이다.

☆김성일(金誠一: 1538~1593):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의성, 자는 사순(士純), 호는 학봉, 안동 출신이다. 아버지는 진(璡)이다. 이황(李滉: 1501~1570)의 문인이다. 1556년(명종 11) 아우 복일(復一: 1541~1591)과 함께 도산(陶山)의 이황을 찾아 『서경(書經)』·『역학계몽(易學啓蒙)』·『심경(心經)』·『대학의의(大學疑義)』 등을 익혔으며, 1564년 진사가 되어 성균관에서 수학하였다. 그 후 다시 도산에 돌아와 이황에게서 수학하고, 그로부터 요순(堯舜) 이래 성현이 전한 심법을 적은 병명(屏銘)을 받았다. 1568년 증광문과(增廣文

科 : 나라에 경사가 있을 때 실시하던 과거의 문과시험)에 병과(丙科 : 과거 합격자를 성격에 나누는 세 등급 가운데 셋째 등급)고 급제, 승문원 권자부장자(承文院 權知副正字 : 외교에 대한 문서를 맡아보던 관아인 승문원에서 문서의 교정을 맡아보던 임시 벼슬)가 되고, 이듬해 정자(正字 : 승문원의 정9품 벼슬)가 되었다. 이어서 검열(檢閱 : 예문관의 하위 관직) · 대교(待敎 : 예문관의 정8품직) 등을 거쳐 1572년 봉교(奉敎 : 예문관의 정7품 관직)가 되어 노산묘(魯山墓)를 노릉(魯陵 : 단종端宗의 능)으로 봉축하고 사육신(死六臣)의 관작을 회복시켜 그들의 후손을 녹용(錄用 : 채용採用)하도록 진언하였으며, 군덕(君德)과 시폐(時弊)를 논하였다. 이듬해 전직(典籍 : 성균관에 속하여 학생을 지도하던 정6품 벼슬)과 형조 · 예조의 좌랑(佐郎 : 육조六曹의 정6품 벼슬)을 거쳐 정언(正言 : 사간원司諫院에 속한 정6품 벼슬)이 되었고, 이어서 홍문관 수찬(弘文館修撰 : 홍문관의 정6품 벼슬)으로 지제교(知製敎 : 왕에게 교서敎書 따위의 글을 기초하여 바치던 일을 맡아보던 벼슬) · 경연검토관(經筵檢討官 : 경연청에서 강독講讀과 논사論思에 관한 일을 맡아보던 정6품 벼슬) · 춘추관 기사관(春秋館記事官 : 춘추관에서 실록을 편찬할 때 기초자료인 시정기時政記를 기록하던 정6품 벼슬)를 겸하였다. 1574년 부수찬을 거쳐 다시 정언이 되어 변장(邊將)으로부터 초파딛저고리[貂裘]를 뇌물로 받은 우의정 노수신(盧守愼 : 1515~1590)을 탄핵했다. 이듬해 이조 · 병조의 좌랑을 역임하고 사가독서(賜暇讀書)하였다. 1577년 사은사 서장관(謝恩使書狀官 : 사신使臣 가운데 기록을 맡아보던 임시 벼슬)으로 명나라에 파견되어 종계변무(宗系辨誣 : 조선 건국 초기부터 선조 때까지 200여 년간 명나라에 잘못 기록된 이성계의 세계世系를 고쳐 말하고 주청하던 일)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돌아와 이듬해 홍문관 교리(弘文館校理 : 홍문관에서 문한文翰의 일을 맡아보던 정5품 또는 종5품 벼슬)가 되고, 이어서 장령(掌令 : 사헌부에 속한 정4품 벼슬) · 검상(檢詳 : 의정부에서 죄인을 심리하여 사실을 검사하던 정5품 벼슬) · 사인(舍人 : 의정부의 정4품 관리) 등을 역임하였다. 1580년 함경도 순무어사(巡撫御史)로 함흥 · 삼수 · 길주 · 종성 등을 살피고 돌아와, 변장으로서 직무에 충실한 해산첨사 김수(金燧 : 1547~1615)를 당상관에 승품하고, 영건만호(永建萬戶) 우응장(禹應長)과 정현룡(鄭見龍) · 김광옥(金光玉) 등을 선전관(宣傳官)에 기용할 것을 건의하였다. 1583년 사간(司諫)이 되고, 이어서 황해도 순무어사로 다녀와 군기(軍器) 관리를 소홀히 하고 창곡(倉穀)을 부실하게 한 황주목사 윤인함(尹仁涵 : 1531~1597)의 파직을 건의하였다. 이듬해 나주목사로 부임하여 민원(民冤)의 처리에 노력하고 오랫동안 끌어온 이 고을 임씨(林氏) · 나씨(羅氏)간의 송사(訟事)를 해결하는 등 선정을 베풀었다. 또한 이곳 금성산(錦城山) 기슭에 대곡서원(大谷書院)을 세우고 김광필(金安弼 : 1454~1504) · 정여창(鄭汝昌 : 1450~1504) · 조광조(趙光祖 : 1482~1519) · 이언적(李彦迪 : 1491~1553) · 이황(李滉 : 1501~1570) 등을 제향하는 한편 선비들을 학문에 전념하게 하였다. 1586년 나주 사직단(社稷壇)의 화재에 책임을 지고 사직하고 고향에 돌아와 『주자서절요(朱子書節要)』, 이황의 『자성록(自省錄)』 · 『퇴계집(退溪集)』 등을 편집, 간행하였다. 1588년 종부시첨정(宗簿寺僉正 : 왕실의 계보를 찬록하고 왕족의 허물을 맡아보던 관아인 종부시의 종4품 벼슬)이 되고 이어서 봉상시정(奉常寺正 : 국가의 제사 및 시호를 관장하던 관직의 정3품 관직) · 경기추쇄경차관(京畿推刷敬差官) · 예빈시정(禮賓寺

正 : 빈객의 연향宴饗과 종재(宗宰 : 종친과 제상급 신하)의 공례(供饌 : 윗사람에게 음식을 드림)를 맡아보던 관아인 예빈시의 정3품 관직) · 사성(司成 : 성균관의 종3품 관직) 등을 역임하였다. 1590년 통신부사(通信副使)로 일본에 파견되었는데, 이듬해 돌아와 일본의 국정을 복명할 때, “왜가 반드시 침입할 것”이라는 정사(正使) 황윤길(黃允吉 : 1536~?)과는 달리 민심이 흉흉할 것을 우려하여 왜가 군사를 일으킬 기색은 보이지 않는다고 상반된 견해를 밝혔다. 그해 부호군(副護軍 : 오위도총부五衛都總府에 속한 종4품 벼슬)에 이어, 대사성(大司成 : 성균관의 으뜸 벼슬로 정3품 관직임)이 되어 승문원부제조(承文院副提調 : 승문원 정3품 벼슬)를 겸하였고, 홍문관 부제학(弘文館副提學 : 홍문관의 정3품 벼슬)을 역임하였다. 1592년 형조참의를 거쳐 경상우도 병마절도사(慶尙右道兵馬節度使 : 경상우도(지금의 경상도의 서쪽)의 병마를 지휘하던 종2품 벼슬)로 재직 중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전일의 복명에 대한 책임으로 파직, 서울로 소환 중, 허물을 씻고 공을 세울 수 있는 기회를 줄 것을 간청하는 류성룡(柳成龍 : 1542~1607) 등의 변호로 직산(稷山)에서 경상우도 초유사(慶尙右道招諭使 : 난리가 난 지역의 경상우도의 백성을 타일러 정계하는 일을 맡아 보던 임시 벼슬)로 임명되어 다시 경상도로 향하였다. 의병장 곽재우(郭再祐 : 1552~1617)를 도와 의병활동을 고무하는 한편, 함양 · 산음(山陰) · 단성 · 삼가(三嘉) · 거창 · 함천 등지를 돌며, 의병을 규합하는 동시에 각 고을에 소모관(召募官)을 보내 의병을 모았다. 또한 관군과 의병사이를 조화시켜 전투력을 강화하는데 노력하였다. 그해 8월 경상좌도관찰사에 임명되었다가 곧 우도관찰사로 다시 돌아와 의병규합 · 군량미확보에 전념하였다. 또한 진주목사 김시민(金時敏 : 1544~1592)으로 하여금 의병장들과 협력, 왜군의 침입으로부터 진주성을 보전하게 하였다. 1593년 경상우도순찰사를 겸하여 도내 각 고을의 항왜전(抗倭戰)을 감독하다가 병으로 죽었다. 정치적으로 동인(東人)에 가담, 1590년 정여립(鄭汝立 : 1546~1589)의 모반사건에 연루되어 옥사한 최영경(崔永慶)의 신원(伸寃)을 위해 서인(西人)의 영수 정철(鄭澈 : 1536~1593)을 규탄하였으며, 그 후 동인이 남인 · 북인으로 갈릴 때 류성룡 · 김우옹(金宇顙 : 1540~1603) 등과 입장을 같이하여 남인을 이루었다. 또 학문적으로는 이황의 고제(高弟)로서 성리학에 조예가 깊어 주리론(主理論)을 계승하여 영남학파의 중추 구실을 하였으며, 학통은 장흥효(張興孝 : 1564~1633) · 이현일(李玄逸 : 1627~1704) · 이재(李裁 : 1657~1730) · 이상정(李象靖 : 1711~1781)으로 이어 전해졌다. 또한 예학(禮學)에도 밝아 아버지의 상을 당하여서는 모든 예절을 『가례(家禮)』에 따라 행하였으며, 『두씨통전(杜氏通典)』 · 『구씨의절(丘氏儀節)』 · 『향교예집(鄕校禮輯)』 등을 참고하여, 『상례고증(喪禮考證)』을 지었다. 1664년(현종 5)에 신도비가 세워지고, 안동의 호계서원(虎溪書院) · 사빈서원(泗濱書院), 영양의 영산서원(英山書院), 의성의 빙계서원(氷溪書院), 하동의 영계서원(永溪書院), 청송의 송학서원(松鶴書院), 나주의 경현서원(景賢書院) 등에 제향되었다. 저서로는 『해사록(海槎錄)』 · 『상례고증(喪禮考證)』 등이 있으며, 1649년(인조 27)에 문집으로 『학봉집(鶴峯集)』이 만들어졌다. 이조판서에 추증되었으며, 시호는 문충(文忠)이다.

③ 환조(還朝) : 조정으로 되돌아가다.

- 3) 하사위란 창망빈(何事危欄悵望頻 : 무슨 일로 난간에서 실의에 젖어 자주 하늘 보셨을까!) :
- ① 하사(何事) :
 ☆무슨 일.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어째서. 왜.
- ② 위란(危欄) : 고란(高欄). 높은 난간. 뒷칸(뒷마루).
 ☆위(危) : 높다. 높이 솟다.
- ③ 창망(悵望) :
 ☆실망하여, 혹은 실의에 젖어 바라보다.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슬퍼하며(실망하며. 낙담하며) 희망하다(기대하다).
 ☆슬퍼하며 불평을 품고 원망하다.
- ④ 빈(頻) :
 ☆누차. 자주. 연이어.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빈(頻)'과 동자(同字)로 쓰기도 한다. 이 경우에는, '눈살을 찌푸리다. 쩡그리다. 찌푸리다.'의 뜻으로 쓰인다.
- 4) 위군중일 독상신(爲君終日獨傷神 : 마치 김형은 종일토록 홀로 상심하는 것 같았소.) :
- ① 위(爲) : 동사로 '마치 ~와 같다. 비슷하다'는 뜻으로 쓰였다.
- ② 군(君) : 상대방에 대한 존칭. '당산'의 뜻으로 성명이나 성씨 뒤에 존경을 표한다. 역지는 '형(兄)'으로 번역한다. 본 시에서는 학봉(鶴峯) 김성일(金誠一)을 가리킨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 '군(君)'자를 성이나 이름 뒤에 써서 친구나 아랫사람을 친근하게 부르거나 이르는 말로 쓰는데, 이는 본 시에서 쓰인 뜻과는 별개의 것이다.
- ③ 상신(傷神) :
 ☆상심하다.
 ☆신경을 쓰다.
- 5) 만천풍우 강운흑(滿天風雨江雲黑 : 온 하늘에 비바람 몰아치며 강변에 먹구름 끼는데) :
- ① 만천(滿天) : 온 하늘.
- ② 강운흑(江雲黑) : 강에는 먹구름이 드리워지다.
 ☆강(江) : 강. 강변.
 ☆운흑(雲黑) : 먹구름이 드리워지다.
- 6) 수향고주 육문진(誰向孤舟欲問津 : 설마 일엽편주 향해 나루터 물으려 하겠소?) :
- ① 수(誰) : 설마 ...하겠는가? 의문부사로서 반문을 나타낸다.
- ② 향(向) : ...을 향하여.
- ③ 고주(孤舟) : 외로이 떠 있는 배. 고독한 배. 일엽편주(一葉片舟).
- ④ 문진(問津) :
 ☆나룻터를 못다. 전(轉)하여, 학문에 입문하는 길을 알려 줄 것을 요청하다는 뜻으로도 쓴다. 본 시에서는 전(轉)하여, '난관을 극복할 방법'을 묻는 뜻으로 쓰인 것으로 보인다.

a. 진(津): 나룻터.

☆가격이나 정황을 탐문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말.

7) 능파불견 미인유(凌波不見美人遊: 파도가 거세어서 현자賢者가 노니는 게 보이지 않건만):

① 능파(凌波): 능보(凌步)

☆파도(波濤). 파도가 일다. 파도가 세차게 일다.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얇은 하천을 걸어서 건너다.

☆미인의 가볍고 아름다운 걸음걸이. 미인의 걸음걸이가 가볍고 우아하여 푸른 파도를 타고 가는 것과 같음을 비유한 말.

② 불견(不見): 보이지 않다. 없어지다. 본 시에서는 ‘(파도가) 일지 않다’는 것을 가리키는 뜻으로 쓰였다.

③ 미인(美人):

☆품덕(品德)이 훌륭한 사람. 재덕(才德)이 있는 사람.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군주를 비유한 말.

8) 청락(淸洛): 물 맑은 낙동강.

① 락(洛): 낙동강의 약어로 쓰였다.

9) 종차강리 여방두(從此江蘿與芳杜: 이 향기로운 궁궁이 싹과 족두리 풀은 채취採取하고):

① 종(從): 동사로서 ‘채취(採取)하다’의 뜻으로 쓰였다.

② 차(此): 이곳. 지시 형용사로서, ‘아...’의 뜻으로 쓰였다.

③ 강리(江蘿): 강리(江離)로도 쓴다. 이는 향초(香草)의 명칭이다. 이 향초는 미무(蘼蕪)라고도 한다. 미무는 ‘궁궁이 싹’을 한방에서 이르는 말이다. 본 시에서는 재덕(才德)있는 선비를 비유한 말로 쓰였다.(앞의 「시7」의 주석7)② ‘방초(芳草)’ 조항을 참조바람. 뿌리와 잎은 혈청제(血清劑)로 쓴다. 서진(西晉)의 무장(武將) 이자 문인인 장화(張華: 232~300)는 그의 저서 『박물지(博物志)』 권7에서, “궁궁이[芎藭]* 싹을 강리江蘿라 하고(芎藭, 苗曰江離), 그 뿌리는 ‘궁궁이’라고 한다(根曰芎藭).”고 하였다.

*궁궁이[芎藭]: 산형과(繖形科: 쌍떡잎식물갈래 꽃류의 한 과)의 여러해살이 풀이다. 높이는 1.5~2m이며 잎은 깃 모양으로 길게 자란다. 가을에 회고 작은 꽃이 우산 모양으로 피고, 날개가 달린 납작한 타원형의 열매를 맺는다. 어린잎은 식용하고, 뿌리는 한약재로 쓴다. 산이나 골짜기에 자란다.

④ 방두(芳杜): 향초(香草)로 족두리풀. 향초 두형(杜衡). 본 시에서는 재덕(才德)있는 선비를 비유한 말로 쓰였다. 앞의 「시7」의 주석7) ② ‘방초(芳草)’ 조항을 참조바람.

☆방(芳): 향초. 초향(草香: 풀잎의 향기). 일반적으로 ‘향(香)’이나 ‘향기’를 가리키기도 한다. 본 시에서는 두형초[杜]를 수식하는 형용사로 쓰였다.

☆두(杜): 향초의 명칭. 두형(杜衡: 족두리풀)이라 하기도 하고, 두약(杜若: 양파과薔荷科에 속하는 다년초로서, 여름에 황색의 꽃이 필)이라고도 하며, 토로(土鹵)라고도 한다. 2세기경 주공(周公: 성은 희姬 이름은 단母으로 주문왕周文王 희왕姬昌의 제4자이며, 주무왕周武王 희발姬發의 아우임. 그는 일찍이 두 차례 주무왕의 동별

東伐을 보좌했고, 아울러 예악禮樂을 제작했음. 그의 채읍采邑이 주周(지금의 섬서성陝西省 기산岐山 북쪽)에 있었고, 작위爵位는 상공上公이었던 관계로 주공周公이라고 칭했음. 주공은 서주西周의 초기에 걸출했던 정치가·군사가軍事家·사상가·교육가로 주족周族 800년의 통치에 기초를 마련했고, 특히 유학의 기반을 다진 원성元聖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또한 공자가 가장 존경했던 성인聖人の 한 사람임이 지었다고 전하는 중국에서 가장 오래된 자서(字書)인 『이아(爾雅)·석초(釋草)』편에 보면, “두杜는 토로土鹵이다(杜, 土鹵).”라고 하였다. 그리고 주(註)에 “두는 두형으로(杜衡也), 동규(冬葵: 아욱: 아욱과의 두 해 살이 풀)와 흡사한 향기가 난다(似葵而香).”고 하였다.

☆두형(杜衡): 세신(細辛: 족두리풀의 뿌리를 한방에서 이르는 말: Asarum)식물이다. 다년생 초본(草本)으로 높이는 10~20cm이며, 지하에 마디가 많은 뿌리 줄기가 옆으로 뻗어나가는데 가늘고 길다. 잎은 엽각(葉脚: 잎 밑: 잎의 밑 등)에 1~3 잎이 나 있으며, 엽편(葉片: 잎 몸)의 중심 모양은 신장(腎臟) 모양으로, 각 잎의 길이와 너비가 대략 3~8cm 정도이고, 잎의 꼬트머리 부분은 약간 돌출되었으나 날카롭지 않게 잎의 표면에 백반(白斑)이 있다. 잎자루의 길이는 7~15cm 정도이다. 4~5월에 피는 이 꽃은 단생화(單生花: 모란이나 작약처럼 엽액葉腋이나 가지의 끝부분에 꽃 하나만 피는 식물)이며, 화관(花瓣: 꽃잎)이 없다. 꽃잎처럼 보이는 꽃받침은 종 모양이거나 병 모양이고, 자흑색(紫黑色)이며, 꼬트머리 부분에 가서 세 조각으로 갈라져 있는데다가 꽃받침의 열편(裂片: 찢어진 낱날의 조각)은 직립한 모양이다. 후부(喉部: 꽃받침이 종 모양처럼 직립하다가 윗부분에 가서 세 조각으로 찢어지기 시작하는 부분의 안 쪽)가 좁으며 내벽에 사각 그물 모양의 문양이 있다. 삭과(蒴果: 씨가 여물면 과피果皮가 쪼개지면서 씨를 퍼뜨리는 씨방으로 된 열매)의 육질(肉質: 꽃의 품질)로서, 여러 개의 흑갈색 씨가 들어 있다. 이는 한의(韓醫)에서 ‘족두리 풀이나 민족두리 풀의 뿌리’를 이르는 말이다. 그 뿌리를 말려서 두통이나 발한(發汗)·거담(祛痰: 가래를 없앴) 그리고 코 막힘 따위의 증세에 대한 약재로 쓰인다. 본 식물은 향기가 있고 신맛을 지니며, 몸에 지니고 다니면서 향료로 쓰기도 한다. 고대에 도가(道家)에서는 항상 이것을 복용했으며, 전하는 바에 의하면, ‘몸에 지니고 다니면 몸과 의복에 향기가 나게 한다(令人身衣香).’고 하였다. 시문(詩文)에서 또한 이 식물은 시인의 감정을 기탁하는 향초의 일종으로 쓰여, 군자나 현인을 비유하는 말로 상용하였다.

10) 노향풍엽 공잔추(露香風葉共殘秋: 낙엽은 모두 늦가을에 노천에서 분향焚香하지요):

① 노향(露香): 노천(露天: 옥외. 한테)에서 불사르다.

☆노(露): 로(路: 길, 도로)와 통함.

☆향(香): ‘향(香)’의 본래 의미는 불에 태워서 냄새를 내는 물건인데, 동사로 쓸 경우, ‘분향하다’는 뜻이며, 본시에서는 ‘불사르다’는 뜻으로 번역하였다. 「시 121」의 주석5)의 ② ‘향반(香槃)’ 조항을 참조바람.

② 풍엽(風葉): 바람에 날리는 낙엽.

③ 공잔추(共殘秋): 늦가을에 모두, 모두 늦가을에.

☆공(共): 부사로, ‘…와 함께’라는 뜻으로 쓰였다.

☆잔추(殘秋): 늦가을.

- 11) 한수종남 입몽사(漢水終南入夢思: 한수漢水와 종남산終南山이 꿈속에서도 〈은거지로〉 생각나더니):

① 한수(漢水):

☆한수(漢水): 한강(漢江)이라고도 칭한다. 장강(長江: 양자강揚子江) 최대의 지류(支流)이다. 섬서성(陝西省) 서남부에 위치한 영강현(寧強縣) 북쪽의 파총산(嶓冢山: 정현沔縣)에서 발원한다. 동한수(東漢水)라고도 한다. 처음 이름은 양수(漾水)였다. 『상서(尙書)·우공(禹貢)』편에, “파총산에서 양수漾水가 발원하여(嶓冢導漾), 동쪽으로 흐르는 것이 한수(漢水)이다(東流爲漢).”고 한 것이 바로 이것이다. 또한 『산해경(山海經)·서산경(西山經)』편에, “또 서쪽으로 320리를 가면, 파총산이라 하는데(又西三百二十里, 曰嶓冢之山), 한수漢水가 이곳에서 시작하여, 동남쪽으로 흘러 먼수沔水에 흘러든다(漢水出焉, 而東南流注于沔).”고 하였다. 동남쪽으로 흘러 섬서성(陝西省) 남부를 거쳐, 호북성(湖北省) 북부와 중부를 지나, 무한시(武漢市)에서 장강(長江)으로 유입되며, 길이가 1532km이다.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으며, 은거처의 의 하나로 제시되었고, 한양(漢陽)의 한강을 대칭(代稱)한 말로 쓰였다.

☆한강(漢江): 태백산맥에서 발원하여 강원도·충청북도·경기도·서울특별시 등을 동서로 흘러 황해로 유입하는 강이다. 본류의 길이는 514km로 우리나라에서 압록강·두만강·낙동강 다음의 네 번째이고, 유역면적은 2만 6,219km²로 압록강 다음이다. 강원도 금강산 부근에서 발원한 북한강은 남류하면서 금강천(金剛川)·수입천(水入川)·화천천(華川川)과 합류하고, 춘천에서 소양강(昭陽江)을 합류한 뒤 남서로 흘러 가평천(加平川)·홍천강(洪川江)·조종천(朝宗川)을 합친 다음,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양수리에서 남한강과 합류한다. 강원도 삼척군 대덕산(大德山)에서 발원한 남한강은 남류하면서 평창강(平昌江)·주천강(酒川江)을 합류하고 단양을 지나면서 북서로 흘러 달천(達川)·섬강(蟾江)·청미천(淸湊川)·흑천(黑川)을 합친 뒤 양수리에서 북한강과 합류한다. 양수리에서 북한강과 남한강을 합류한 한강은 계속 북서방향으로 흐르면서 왕숙천(王宿川)·한천(漢川)·안양천(安養川) 등의 소지류를 합하여 김포평야를 지난 뒤 황해로 흘러들어간다. 『한서(漢書)·지리지(地理誌)』에서는 ‘대수(帶水)로 표기되어 있으며, 광개토왕비(廣開土王碑)에는 아리수(阿利水), 『삼국사기(三國史記)』의 백제건국설화에는 한수(漢水)로 되어 있다. 한강의 명칭에 ‘한(漢)’이라는 글자를 쓴 것은 중국문화를 도입한 이후의 일이다. ‘아리’, 즉 ‘알’은 고대의 크다거나 신성하다는 의미로 쓰였으며 ‘한’도 이와 비슷한 뜻이다.

- ② 종남(終南): 종남산(終南山): 남산(南山)이라고 하고 중남산(中南山)이라고도 하며 태일산(太一山)이라고도 한다. 또한 주남산(周南山)이라고도 하고 지폐산(地肺山)이라고도 한다. 즉 지금의 섬서성(陝西省) 서안시(西安市) 남쪽에 있으며, 진령산맥(秦嶺山脈)의 주봉(主峯) 중의 하나이다. 동서(東西)로 뻗어나가며 해발 2000~3000m이다. 『상서(尙書)·우공(禹貢)』편에, “종남산終南山과 돈물산惲物山을 거쳐 조서산(鳥鼠山)에 까지 이르렀다(終南, 惲物, 至于鳥鼠).”라고 한 구절이나, 『시경(詩經)·진풍(秦風)·종남산(終南山)』에, “종남산에 무

있어 있을꼬(終南何有)? 산추(山楸) 나무도 있고 매화나무도 있지(有條有梅).”
라고 한 구절은 모두 이 중남산을 읊은 것이다. 본 시에서는 한양의 남산을 은
거지로 시사한 대유어(代喻語)로 쓰였다.

- ③ 입몽(入夢): 꿈속에 들다. 몽중(夢中), 몽경(夢境)에 진입하다. 모두 ‘잡드는 것’
을 가리키는 말이다.

- 12) 난선추수 별흔비(亂蟬秋樹別魂悲: 가을 숲의 매미소리에 이별의 정서 일어 슬퍼
지네요):

- ① 난선(亂蟬): 여기저기서 요란하게 우는 매미.
② 추수(秋樹): 가을철의 수림(樹林: 나무숲).
③ 별흔(別魂): 이별의 심사(心思: 생각). 이별의 정서(情緒).
☆별(別): 이별(하다).
☆흔(魂): 정신 · 정서 · 의념 · 생각.

- 13) 남아자유 평생지(男兒自有平生志: 남아라면 당연히 한평생 지향한 목표가 있거
늘):

- ① 자유(自有): 당연히 있다.
☆자(自): 부사로서, ‘당연히’의 뜻이다.
② 평생(平生): 일생(一生) · 금생(今生) · 현세(現世) · 살고 있는 동안. 본 시에서
는 이 뜻으로 쓰였다.
③ 지(志):
☆덕행. 목표.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의지. 감정.
☆뜻. …에 뜻을 두다. 뜻한 바(있다).
☆정신. 의식.

- 14) 막사양주 읍로기(莫使楊朱泣路歧: 양주楊朱가 갈림길에서 울었던 표정은 짓지 마
사구려):

- ① 막사(莫使):
☆…한 표정은 짓지 말라.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한 행동은 하지 말라.
a. 사(使): 상대방의 주의력을 끌기위한 행동을 하거나 표정을 짓다. 명대(明
代)의 장희소설(章回小說) 『금병매사화(金瓶梅詞話) · 제4회(第四回)』에서,
“부인에게 손짓을 한 까닭에, 부인은 곧 서문경(西門慶: 금병매에 나오는 남
자주인공)이 왔음을 알았다(因向婦人使手勢, 婦人就知西門慶來了).” 고
한 대목이 있다.
② 양주(楊朱: BC 440? ~ BC 360?): 전국시대(戰國時代) 초기 위(魏)나라 사람.
자는 자거(子居)이다. 양생(楊生)으로도 불리고, 양자(楊子)로도 불리며 양자거
(楊子居)로도 불린다. 묵자(墨子)보다는 이후 세대이고 맹자(孟子)보다는 이전
세대이다. 생애는 명확하지 않으며 별도의 저술은 전해지지 않고, 『맹자』 · 『장자』 ·
『순자(荀子)』 · 『한비자(韓非子)』 · 『열자(列子)』 · 『여씨춘추(呂氏春秋)』 등의
서적에서 겨우 일부의 내용이 남아 있을 따름이다. 『맹자(孟子) · 등문공장구(滕
文公章句) · 하(下)』편에, “성왕(聖王)도 다시는 출현하지 않고, 제후마저 방자해
지자, 일반 선비들이 의론(議論)을 난발하면서, 양주와 묵자의 학설이 천하에 충만

해진 까닭에, 모든 주장이 양주파에 속하지 않으면 목적파에게 귀속되었다(聖王不作, 諸侯放恣, 處士橫議, 楊朱墨翟之言, 盈天下, 不歸楊則歸墨). 양주는 개인이 제일이라고 자기 자신만을 위하는 것을 주장하였으니, <이는 군주에 대한 충성을 부정하는 것으로> 군왕을 안중에 두지 않는 것이고, 목적파에서는 천하 사람들을 동일하게 사랑할 것을 주장했으니, <이는 친소親疏가 없어 부친에 대한 효를 부정하는 것이니> 바로 안중에 부모가 없는 것이다(楊氏爲我, 是無君也, 墨氏兼愛, 是無父也).”고 한 대목이 있다. 또한 『한비자(韓非子)·현학(顯學)』편에 의하면, 양주가 “물질적 이익을 가볍게 보고 생존가치를 더욱 중시하는 사람(輕物重生之士)”이란, 말을 기재하고 있다. 또한 『여씨춘추(呂氏春秋)·심분람(審分覽)·불이(不二)』편에서는, “양주는 자기 자신을 가장 귀중하게 여겼다(楊生貴己).”고 하였다. 또한 『맹자(孟子)·진심장구(盡心章句)·상(上)』편에는, “양자(陽子: 양주楊朱에 대한 존칭)가 ‘자기 자신을 위함’에 있어서 주장한 것은(楊子取爲我), 머리카락 한 올 뽑아서 천하를 이롭게 한다 할지라도(拔一毛而利天下),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不爲也).”고 한 대목이 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극단적인 개인주의 경향이 있는 학설인 ‘위아(爲我)’·‘중생(重生)’·‘귀기(貴己)’ 등을 주장하면서, 남을 위하거나 해침이 없이 오직 자기 자신만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기에, 맹자는 그의 이단성(異端性)을 비판한 것이다.

- ③ 양주읍로기(楊朱泣路歧): 양주楊朱가 갈림길에서 울다. 이 말은 『순자(荀子)·왕패(王霸: 왕도와 패도)』편에 나오는 말로서, “양주가 갈림길에서 울면서 말하기를(楊朱哭衢塗曰), ‘여기서 반걸음이라도 잘못 걸으면 천리나 차질이 생긴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구나(此夫過舉足頃步而覺跌千里者夫)!’라고 하면서, 애달프게 통곡하였다(哀哭之).”고 하는 대목이다. 양주가 생각하는 이 사회를 통치하는 사람이 갖추어야 할 덕목은 ‘어질어야 하고(賢)’, ‘겸허한 미덕을 갖추고 행하되, 스스로 어진 미덕을 갖춘 사람이라 여기지 않는 마음(行賢而去自賢之心)’을 지녀야 한다는 것이다. 양주가 생각하기에, 이 사회의 구성원 모두는 마땅히 ‘소심하리만큼 신중해야 한다(謹小慎微).’는 것이다. 위의 인용구는 바로 이 뜻을 표현한 것이라 하겠다. 양주가 보고 통곡한 ‘갈림길(기로歧路: 구도衢塗)’은 바로 ‘인생의 길’이다. 신중하지 못해서 잘못된 길을 선택한다면,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엄청나다는 것이다. 양주의 이상사회에서의 구성원은 그래서 ‘나 자신만을 위해야 하되(爲我), 다른 사람이나 사물을 침범하지 않아야 한다(不侵物)’는 것이다. 양주의 정치적 주장은 『열자(列子)·양주편(楊朱篇)』에 나오는 “사람마다 한 가닥의 티력도 손해를 보지 않고, 사람마다 천하를 이롭게 하려고 추구하지 않아도 천하는 다스려진다(人人不損一毫, 人人不利天下, 天下治矣).”는 사회의 수렴이었다. 앞에서도 인용했지만, ‘머리카락 한 올 뽑아서 천하를 이롭게 한다 할지라도(拔一毛而利天下), 하려고 하지 않는다(不爲也).’는 말에서 파생된 말이 ‘사람마다 한 가닥의 티력도 손해 보지 않고(人人不損一毫), 사람마다 천하를 이롭게 하려고 추구하지 않아도(人人不利天下), 천하는 다스려진다(天下治矣).’는 말이다. 이러한 정치적 주장은 모두 ‘위아설(爲我說)’과 ‘불침물(不侵物)’의 학설에서 파생된 것이다. 환언하면, 사람마다 모두 각자 자기 자신만을 위하면서 다른 사람을 침범하지 않으면, 이 천하는 곧 태평무사해진다는 것이다. 본 시에서 서예(西厓)가

동문선배인 학봉(鶴峯)에게 ‘양주가 갈림 길을 보고 울었던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한 것은 동문으로써 당시 정치적 상황에 따른 위안과 더불어 지나치게 소심하게 상심하지 말라는 충고를 한 것으로 보인다.

④ 노기(路歧) : 노기(路岐)로도 쓴다.

☆갈림길. 기로(歧路). 어느 한 쪽을 선택해야 할 상황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노기인(路歧人)을 가리킴. 노기인은 송·원시대에 기예를 팔고 다니는 민간 연예인, 곧 이동극단의 단원을 속칭 ‘노기인’이라 칭하였다.



시35. 증수^{仲綏} 남연록^{南延祿} 선비에게 드리는
시 두 수

詩35. 奉寄南仲綏延祿¹⁾ 二首
봉 기 남 중 수 연 록 이 수

其一

[1]

不見意中人²⁾,
불 견 의 중 인

마음속에 그리운 사람 보이지 않으니,

難堪歲暮心³⁾.
난 감 세 모 심

세밑을 맞이한 마음 참으로 난감하네.

黃花將爛熳⁴⁾,
황 화 장 란 만

유채꽃이 이제 곧 만발해지겠거늘,

白髮已侵尋⁵⁾.
백 발 이 침尋

백발은 벌써 성성해지기 시작하네.

綠酒時孤引⁶⁾,
녹 주 시 고 인

수시로 홀로 녹주綠酒 잔 기울이면서,

淸詩坐獨吟⁷⁾.
청 시 좌 독 음

청신淸新한 시를 잠깐씩 혼자 읊는다네.

誰能乘小艇⁸⁾,
수 능 승 소 정

누가 친하다고 거룻배까지 타고 오면서,

牽輿過山陰⁹⁾.
견 융 과 산 음

흥이 나서 벼을 방문할 수 있을런가?

其二

[2]

白日孤村靜¹⁰⁾,
백 일 고 촌 정

대낮에도 외딴 촌락이라 정적이 감도는데,

丹楓古逕斜¹¹⁾.
단 풍 고 경 사

옛 오솔길 길옆에 단풍이 곱게 물들었네.

野烟生晚壑¹²⁾,
야 연 생 만 학

들판에 피던 안개 황혼녘 골짜기에 깔리면서,

江鷺下晴沙¹³⁾.
강 로 하 청 사

강변의 백로는 햇살 퍼지는
백사장에 내려앉네.

尚阻連宵話¹⁴⁾,
상 조 연 소 화

여전히 흥미위주 야담夜談은
사양하신다던 데,

其如遠別何¹⁵⁾.
기 여 원 별 하

멀리 떠나신다니 무슨 말씀인가요?

愁來江浦¹⁶⁾望,
수 래 강 포 망

수심이 밀려와서 강변 포구浦口 쪽을
바라보는데,

十里樹陰賒¹⁷⁾.
십 리 수 음 사

십리 밖 저 멀리 우거진 숲이 이득하네요

1) 봉기남중수언록(奉寄南仲綬延祿 : 중수仲綬 남연록南延祿 선비에게 보내드리다) :

① 봉기(奉寄) : 보내주다, 보내드리다, 증여하다. 우편으로 보내드리다.

☆봉(奉) :

a. 두 손으로 공손히 받들어 올리다.

b. 아래 위치에 있는 자가 자신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 물건을 보내다.

② 남중수언록(南仲綬延祿) : 중수(仲綬)는 남연록(南延祿)의 ‘호(號)’ 아니면 ‘자(字)’이다. 이렇게 성씨 다음에 호 또는 자를 쓰고 이름을 뒤에 쓰는 것은 경칭(敬稱)의 한 예이다.

③ 남연록(南延祿 : 생물년 미상) : 이 분의 이력에 관한 상세한 자료는 찾지 못했다. 다만 규장각 한국 연구원이 편집한 『국조문과방목(國朝文科榜目)』에 의하면, 남연록은 본관이 영양(英陽)이고 예조좌랑(禮曹佐郎 : 예조의 정5품 벼슬)을 지낸 남지망(南之望 : 생물년 미상)의 조부라고 하였다. 또한 서애(西厓)의 문인(門人)인

숙평(叔平) 이준(李埈: 1560~1635)이 쓴 「병산존덕사복향기(屏山尊德祠復享記)」에, “풍악서원豐嶽書院은 대로大路 옆에 위치하고 있어서 마차 소리가 시끄럽게 들리는 곳이라, 유생들이 공부하기에 부적합한 곳이었다(且以豐嶽書院在官道傍車馬喧囂, 不合於藏修). 그래서 선생께서는 시를 지어 여러 유생들에게 보이시면서, 이곳 병산마을로 이전하라고 하셨다(以詩諭諸生, 移卜于此). 그 때 선비 남연록을 비롯한 여러분이 이전移轉 사업을 주관하였다(舍人南延祿諸公實幹其事).”고 한 대목이 있다. 이렇게 볼 때, 남연록은 벼슬길로 나아가지 않았지만 지방의 유력한 선비였던 것으로 보인다.

2) 의중인(意中人):

- ① 심중에 그리워하거나(생각하거나) 기대하는 사람. 마음속에 잇을 수 없는 사람.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 ② 마음속으로 사모하는 이성(異性)을 가리키기도 한다.
- ③ 마음속으로 지목한 사람.

3) 난감 세모심(難堪歲暮心: 세밀을 맞이한 마음 참으로 난감하네):

- ① 난감(難堪): 난감하다. 난처하다. 거북하다.
- ② 세모(歲暮): 세밀. 선달그믐께. 한 해가 끝날 무렵. 세말(歲末).

4) 황화 징된만(黃花將爛漫: 유채꽃이 이제 곧 만발해지겠거늘):

- ① 황화(黃花): 황화(皇華)로도 쓴다.
 ☆채화(菜花: 유채꽃·채소의 꽃)를 가리키며,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황색의 꽃.
 ☆국화(菊花), 즉 황국(黃菊)을 가리킨다.
 ☆원추리꽃[金針菜]을 가리킨다.
- ② 징된만(將爛漫): 머지않아 곧 활짝 필 것이다.
 ☆징(將): 머지않아 ...이 되려하다. 장차 ...하려하다.
 ☆난만(爛漫):
 a. 꽃이 만발한 모양.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b. 광채가 찬란하다. 눈부시다.
 c. 물건이 충만하여 넘치는 모양.
 d. 흩어져 사라지다 또는 그 모양.

5) 침심(侵尋): 침심(侵尋)으로도 쓴다. 점진(漸進)하다. 점차 전진 발전하다. 본 시에 서는 ‘백발이 성성(星星)해지다’는 뜻으로 쓰였다.

6) 녹주 시고인(綠酒時孤引: 수시로 홀로 녹주 잔을 기울이면서):

- ① 녹주(綠酒):
 ☆미주(美酒). 빛깔 곱고 맛도 좋은 술.
 ☆녹색의 술.
- ② 시고인(時孤引): 수시로 홀로 (술잔을) 잡다.
 ☆시(時): 수시로. 늘. 자주. 때때로.
 ☆고인(孤引): 홀로 (술잔을) 잡다.

7) 청시 좌독음(淸詩坐獨吟: 청신淸新한 시를 잠깐씩 홀로 읊는다네):

- ① 청시(淸詩): 청신한 시편(詩篇). 혹은 청신한 시.
- ② 좌독음(坐獨吟): 잠깐씩 홀로 읊다.

☆좌(坐): 부사로 쓰여, ‘잠시. 잠깐씩’의 뜻으로 표현된다.

8) 수능 승소정(誰能乘小艇: 누가 친하다고 거룻배까지 타고 오면서):

① 능(能): 사이가 좋다. 친선(親善)하다. 화목하다.

② 소정(小艇): 거룻배(뜻이 없는 작은 배). 작은 배.

9) 견흥 과산음(牽興過山陰: 흥이 나서 벼를 방문할 수 있을런가):

① 견흥(牽興): 흥을 이끌다. 즉 ‘흥이 나다’. ‘흥을 돋우다’는 뜻이다.

☆견(牽): 이끌다. 인도(引導)하다. 인솔하다.

② 과산음(過山陰): 벼를 방문하다.

☆과(過): 방문하다. 내방(來訪)하다.

☆산음(山陰): 조선시대의 지명으로 ‘산음현(山陰縣: 지금의 경남 산청군山淸郡 일대의 옛이름)’이 있었고, ‘산의 북쪽’이란 뜻으로 쓰는 용어로 ‘산음(山陰)’이란 말이 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뜻 모두가 본 시구(詩句)에서 쓴 ‘흥이 나다’는 뜻의 ‘견흥(牽興)’이란 말과 연관성이 없다고 역자는 보았다. 따라서 본 시에서의 ‘산음(山陰)’이란 말은 중국의 고사(故事)에서 찾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산음(山陰)’이란, 원래의 뜻은 ‘산음현(山陰縣)’을 가리킨다. 즉 동진(東晉)의 회계군(會稽郡) 산음현, 지금의 절강성(浙江省) 소흥시(紹興市)이다. ‘산음(山陰)’은 또한 동진(東晉)의 대서예가 왕희지(王羲之: 303~361년 혹은 321~379년)를 대칭(代稱)하는 말로도 쓰인다. 왕희지가 산음현에 은거했었기 때문이다. 본 시에서의 ‘산음’은 ‘서애 자신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하고, ‘벼를 대칭하는 말’이기도 하며, ‘서애의 은거지를 대칭하는 말’이기도 하다.

☆본 시를 감상하면서 유의해야할 점은 본 시에 쓰인 “견흥산음(牽興山陰: 흥이 나서 산음(山陰: 벼를 가리킴)을 방문하다)”이란 말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산음 승흥(山陰乘興: 산음현에서 흥이 나서<벼를 방문하다>)”이란 말이 생긴 고사(故事)를 반드시 참조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 역자는 아래의 글을 소개한다. 남조(南朝) 송나라의 문인 유의경(劉義慶: 403~444)이 편찬한 『세설신어(世說新語: 후한後漢부터 동진東晉까지의 사족명인士族名인들의 언행일화를 모은 책)·임탄(任誕: 임성(任性: 마음 내키는 대로 함. 이 편에서는 명사名士들의 탈예교적인 고사를 수록했음)』편에, “왕자유(王子猷: 338~386: 왕희지王徽之의 자字이며, 왕희지는 서예가 왕희지王羲之의 아들임)가 산음현에서 거주하고 있을 때(王子猷居山陰), 밤에 큰 눈이 내렸다(夜大雪). 잠이 달아나 창문을 열고(眼覺開室), 술을 가져오라 명하고 나서(命酌酒), 사방을 바라보니 온통 은빛이었다(四望皎然). 그래서 자리에서 일어나 배회하면서(因起彷徨), 좌사 <左思: 250?~305: 서진西晉의 문인>의 「초은시(招隱詩)」를 읊다가(詠左思「招隱詩」), 홀연 대안도(戴安道: 326~396: 동진東晉의 문인 대규戴逵의 자가 안도安道였음)가 생각이 났다(忽憶戴安道). 당시 대안도는 섬현(剡縣: 당시 회계군會稽郡에 속해 있었으며, 지금의 절강성浙江省 승현嵊縣에 있었음)에 있었기에(時戴在剡), <왕자유는> 즉시 그날 밤에 거룻배를 타고 그를 찾아 나섰다(即便夜乘小船就之). 하룻밤이 지나서야 마침내 도착했지만(經宿方至), 대문 앞까지 갔다가 들어가지 않은 채 돌아왔다(造門不前而返). 사람들이 그 까닭을 물었더니(人間其故), 왕자유가 대답하기를(王曰): ‘나는 본래 흥이 나서 갔다가(吾本乘興而行), 흥이 다해서 돌아온 것인데(興盡而返), 어찌 반드시 대안도를 만나야 한

다는 것이요(何必見戴)!”라고 하였다. 후세의 사람들은 이 글에서 쓰인 “산음 승흥(山陰乘興: 산음현에서 흥이 나서)”이라는 말을 ‘방우(訪友: 벗을 방문하다)’를 가리키는 뜻으로 사용하였다. 그래서 본 시에 쓰인 “과산음(過山陰: 직역을 하면, ‘산음山陰을 방문하다’)”의 뜻을 ‘벗을 방문하다’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 10) 백일 고촌정(白日孤村靜: 대낮에도 외딴 촌락이라 정적이 감도는데):
 - ① 백일(白日): 대낮. 주간. 종일.
 - ② 고촌(孤村): 외딴 촌락.
- 11) 고경사(古逕斜: 옛 오솔길.
 - ① 경사(逕斜): 사경(斜徑)으로도 씀. 경사진(비탈진) 오솔길.
- 12) 야연 생만학(野煙生晚壑: 들판에 피던 안개 황혼녘 골짜기에 깔리면서):
 - ① 야연(野煙): 야연(野煙)으로도 쓴다.
☆황량하고 외진(궁벽한) 곳에서 피어오르는 구름이나 안개를 가리킨다.
☆들판에서 피어오르는 연기나 안개.
 - ② 생만학(生晚壑): 황혼녘의 골짜기에서 (안개가) 피어나다.
☆생(生): ...에서 나오다. 생기다. 시동(始動)하다. 본 시에서는 ‘(안개가) 피어나다’로 해석이 된다.
☆만학(晩壑): 황혼녘(해질녘)의 골짜기(구렁).
- 13) 청사(晴沙: 햇빛이 비추고 있는 백사장(모래톱).
- 14) 상조 연소화(尙阻連宵話: 여전히 흥미위주 야담夜談은 사양하신다던 데):
 - ① 상조(尙阻): 아직도 사양하다. 여전히 사양하다.
☆상(尙): 아직도. 여전히.
☆조(阻): 사양하다. 거부하다. 저지하다. 억제하다.
 - ② 연(連): 연속하다.
 - ③ 소화(宵話): 야담(夜談: 야사野史를 바탕으로 흥미 있게 꾸민 이야기).
☆소(宵): 밤.
- 15) 기여 원별하(其如遠別何: 멀리 떠나신다니 무슨 말씀인가요):
 - ① 기여(其如):
☆그렇지만. 그러나. 그런데.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어찌하랴.
☆어찌할 도리가 없다.
☆공교롭게도. 유감스럽게도.
 - ② 원별(遠別): 이별하여 먼 곳으로 가다.
- 16) 강포(江浦): 강변. 강빈(江濱).
 - ① 강빈(江濱: 강가, 하천가, 강변). 이렇게 해석할 때의 ‘포(浦)’는 ‘빈(濱: 물가)’의 뜻이다. 본 시에서는 강변 포구(浦口)의 뜻으로 쓰였다.
 - ② 일반적으로 강하(江河: 강. 하천)를 가리킨다.
- 17) 수음사(樹陰賒: 나무 그늘이 아득하다.
 - ① 수음(樹陰): 수음(樹蔭)으로도 쓴다.
☆나무가 우거지다.
 - ② 사(賒): 아득하다.

시36. 갑신년(甲申年: 1584: 서애 43세)에 경상도
관찰사로서 비안현(比安縣)에 도착하여,
벽에 적힌 시의 운(韻)을 차운(次韻)하여
지은 시를 바로 교관(敎官) 형에게 부치다



詩36. 甲申以觀察使到比安¹⁾ 次壁上韻²⁾ 仍寄敎官年兄³⁾
갑 신 이 관 찰 사 도 비 안 차 벽 상 운 임 기 교 관 년 형

山有扶蘇隰有龍⁴⁾, 산에는 산앵두 습지에는 말여뀌가 있는데,
산 유 부 소 습 유 용

美人相憶倚高墉⁵⁾. (나는) 현자(賢者)가 그리워서
미 인 상 억 의 고 용 높은 담장에 기대셨네.

寒雲暗黑迷歸鴈⁶⁾, 구름 낀 저울 하늘에
한 운 암 흑 미 귀 안 기러기 떼 정처 없이 날아가고,

落日蒼涼下遠松⁷⁾. 석양은 처량하게 멀리
낙 일 창 량 하 원 소나무 아래로 지고 있네.

老去都無浮世戀⁸⁾, 늙으면 모두 죽거늘
노 거 도 무 부 세 련 인간세상을 아쉬워하고,

談來尙露舊時鋒⁹⁾. 담론만 하면 여전히
담 래 상 로 구 시 봉 지난날 위세 과시한다네.

還慚按節虛宣化¹⁰⁾,
환 참 안 절 허 환 화

백성 교화敎化 헛되이 한데 장단
맞춘 게 아직 부끄러운데

薄俗寧論比屋封¹¹⁾.
박 속 영 논 비 옥 봉

경박한 습속習俗으로 어찌
순미淳美한 풍속을 논하겠는가!

1) 갑신이관찰사도비안(甲申以觀察使到比安 : 갑신년<1584 : 서에 43세>에 경상도 관찰사로서 비안현에 도착하다) :

① 갑신(甲申) : 갑신년(甲申年 : 선조 17 : 1584년 : 서에 43세) : 서에가 경상도 관찰사에 제수된 때는 계미년(癸未年 : 1583년 서에 42세) 10월이었다.

② 이관찰사(以觀察使) : 관찰사로서.

☆이(以) : 개사(介詞)로 쓰여, ‘…(으)로(서)’의 뜻을 지니며 자격이나 신분을 나타낸다.

☆관찰사(觀察使) : 조선시대의 지방장관. 각 도마다 1명씩 두었다. 처음 이름은 관찰출척사(觀察黜陟使 : 종2품)였다. 고려말기에 둔 일도 있었으나, 제도로써 확정되기는 조선시대에 들어와서였다. 감사(監司)라고도 하였다. 문관직으로서 절도사(節度使) · 수군절도사(水軍節度使) 등의 무관직을 거의 겸하고 있었다. 중요한 정사(政事)에 대해서는 중앙의 명령을 따라 행하였지만, 자기가 관할하고 있는 도(道)에 대해서 경찰권 · 사법권 · 징세권(徵稅權) 등을 행사하며 지방 행정상 절대적인 권력을 가졌다. 관찰사의 관청을 감영(監營)이라 한다. 관원은 도사(都事) · 판관(判官) · 중군(中軍) 등 중앙에서 임명한 보좌관이 있고, 일반 민정은 감영에 속한 이(吏) · 호(戶) · 예(禮) · 병(兵) · 공(工) · 형(刑)의 6방(六方)에서 행하고, 이를 지방민에서 선출된 향리(鄉吏)로서 담당케 하였다. 경기관찰사는 서울 또는 수원예, 충청관찰사는 충주 또는 공주에, 경상관찰사는 경주(慶州) · 상주(尙州) · 성주(星州) · 달성(達城 : 대구) · 안동에, 전라관찰사는 전주에, 함경관찰사는 함흥 · 영흥에, 평안관찰사는 평양에, 황해관찰사는 해주에, 강원관찰사는 원주 등 지역에 각각 두었다.

③ 비안(比安) : 비안현(比安縣) : 지금의 경북 의성군(義城郡) 비안면(比安面) 지역에 있었던 조선시대의 현(縣). 본래 신라의 아화옥현(阿火屋縣 : 병옥현并屋縣이라고도 함)이었는데, 757년(경덕왕 16) 비옥(比屋)이라 고쳐 상주(尙州) 소관의 문소군(聞韶郡 : 지금의 의성군義城郡)의 영현(領縣 : 귀속된 현)으로 삼았다. 1018년(현종 9) 상주목(尙州牧)에 귀속시켰고, 1390년(공양왕 3) 안정현(安貞縣)에 감무(監務)를 둘 때, 비옥현을 겸임하게 하였다. 1421년(세종 3) 안정 · 비옥의 두 현을 병합하여 안비현(安比縣)으로 하였다가 2년 후 비안으로 고쳐 치소(治所)를 비옥현 지역으로 옮겼다. 그 뒤 1895년(고종 32) 대구부 소관(大邱府小管)의 비안군이 되었다가 다음해 경상북도 소속의郡이 되었으며, 1914년에 의성군에 병합되어 비안면이 되었다. 조선시대에는 진산(鎭山)인 성황산(城隍山) 남쪽 기슭

에 자리 잡고 있었으며 위천(渭川)과 쌍계천(雙溪川)이 합류하는 지점에 비옥한 평야가 전개 되어 있었다. 교통상으로는 동쪽은 쌍계역(雙溪驛)을 통하여 의성과 서쪽은 낙동강의 여차리진(餘次里津)을 건너 선산(善山)과 연결되어 있다. 북쪽은 관어대(觀魚臺)를 지나 안계역(安溪驛)을 거쳐 다인(多仁)과 용궁(龍宮)에 이르고, 남쪽은 위천을 건너서 군위(軍威)와 연결하는 도로가 발달하였다.

2) 차벽상운(次壁上韻) : 벽에 적힌 시의 운을 차운하다) :

① 차·운(次·韻) : 남이 지은 시의 운자(韻字)를 따서 시를 짓다. 자세한 내용은 앞의 「시20」의 주석1)의 ② ‘차운(次韻)’ 조항을 참조바람.

3) 잉기교관년형(仍寄敎官年兄 : 바로 교관敎官 형에게 부치다) :

① 잉(仍) : 부사로, ‘즉시, 바로 곧’의 뜻으로 쓰였다.
 ② 교관(敎官) :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의 각급 교육기관의 교수요원.
 ③ 연형(年兄) : 과거(科擧)에 응시하면서 같은 때에 급제하여 방목(榜目)에 함께 적힌 사람을 ‘동년(同年)’이라 하고, 호칭(互稱)을 ‘연형(年兄)’이라 하였다. 과거 시험을 주제하던 사람[主試人]이 합격한 문하생에 대해서도 때로는 이 칭호를 사용했다.

4) 산유부소 습유웅(山有扶蘇隰有龍 : 산에는 산앵두 습지에는 말여뀌가 있는데) : 본 구절은 시경(詩經) 시대의 표현작법(賦·比·興) 중의 하나인 ‘흥(興)’의 수법에 속하는 것으로, 『시경(詩經)·정풍(鄭風)·산유부소(山有扶蘇)』에 보이는 시구(詩句)이다. 본 시는 바로 『시경(詩經)·정풍(鄭風)·산유부소(山有扶蘇)』에 나오는 제2수의 첫 구절을 차용하여, 흥을 일으키는 사[起興之詞]의 기능으로 사용하였다. 『시경』에 보이는 ‘흥興의 수법’은 그 종류도 다양하지만, 후세 학자들의 이에 대한 정의(定意) 또한 다양하다. 여기서는 주희의 정의로써 언급하면, “흥이란, 〈정서〉를 일으킨다는 의미로서, 먼 저 현장에 있는 경물(景物)로서, 주문(主文)에서 노래하고자 하는 정서를 불러일으키는 것을 흥이라고 한다(興者, 興起也. 先引他物, 以興起歌詠情緒之謂也).”고 하였다.

① 부소(扶蘇) : 나무이름으로 산앵두 나무(즉 ‘당채棠棣’·당채唐棣)를 칭하며, 백양(白楊)과 같은 종류인데, 두 종류가 있다. 청나라의 학자 호승공(胡承琰 : 1776~1832)은 그의 저서 『모시후전(毛詩後箋)』에서 말하기를, “『패휴(佩觿·복송의 학자 곽충서(郭忠恕 : ?~977)가 편집한 자학서字學書)』에서는 『시경(詩經)·정풍(鄭風)·산유부소(山有扶蘇) : 산에는 부소扶蘇나무가 있다』를 인용하여 풀이했는데(『佩觿』引「山有扶蘇」), 『시경』에서 쓴 ‘부扶’자와 구별하자면(興扶別), 이 자字는 정상적인 글자로는 본래 ‘부(扶 : 나무 이름)’자로 써야 하는 것이다(是經字本亦作‘扶’). …… 『관자(管子)·지원(地員 : 토양의 등급과 그곳에서 생산되는 산물)』편에, ‘다섯 종류의 비옥한 토지는, 언덕에도 있고 산에도 있으며, 구릉에도 있고 산등성이에도 있으며, 산골짜기에도 있고 산 구릉 남쪽에도 있으며, 그 좌우 측면에도 있다(五沃之土, 若在丘在山, 在陵在岡, 若在隄·陵之陽, 其左其右). 오동나무·갈참나무·부목扶木·참죽나무 및 가내나무가 있다(宜彼群木, 桐柞扶櫨, 及彼白梓).’고 하였는데, 여기서 말하는 ‘부扶’는 그 자체로 나무이름이다(扶自爲木名). 본딴말로 하면, ‘부소扶蘇’라고 말하고, 줄임말로 하면, ‘부扶’라고 말한다(緩言之曰‘扶蘇’, 急言之曰‘扶’).”고 하였다. ‘명나라 학자 이시진(李時珍 : 1518~1593)은 『본초강목(本草綱目)』에서 말하기를, 이 ‘부扶’는 즉 ‘당채(唐棣 : 산앵두나무)’이며(李時珍『綱目』說, 卽唐棣), ‘채양移楊’이라고도 한

대(又名移楊). 백양白楊과는 같은 부류의 두 종류이다(與白楊同類二種).”고 하였다.(이 주석은 중국 성도成都에 위치한 파촉서사바蜀書社에서 출판한 현대의 학자 당막 요唐莫堯의 저서, 『시경신주전역詩經新注全譯』을 근간으로 하였음)

- ② 룡(龍): 유룡(游龍). 『시경(詩經)·정풍(鄭風)·산유무소(山有扶蘇)』에서는 유룡(游龍)으로 언급되었다. 주희의 주석에 의하면, ‘유(游)’는 잎 새가 하늘거리는 모양을 형용한 것이고, ‘룡(龍)’은 식물 명칭으로 오늘 날의 수홍(水荳)이라고 하며, 한국에서는 ‘말여뀌’로 번역되어 있다.

- 5) 미인상억 의고옹(美人相憶倚高壙: 〈나는〉 현자가 그리워서 높은 담장에 기대섰네):

- ① 미인(美人):

☆품덕(品德: 인품과 덕성)이 훌륭한 사람.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군주(君主)를 비유적으로 가리킨다.

☆비빈(妃嬪)의 칭호.

- ② 상억(相憶): 상사(相思): 상념(想念): 그리워하다.

- ③ 용(壙):

☆담장. 장벽.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성벽.

- 6) 한운암흑 미귀안(寒雲暗黑迷歸鴈: 구름 낀 겨울 하늘에 기러기 떼 정처 없이 날아가고):

- ① 한운(寒雲): 겨울 날씨에 (추운 날에) 낀 구름. 겨울하늘에 낀 구름.

- ② 암흑(暗黑): 캄갑하다. 본 시에서는 좀 더 순한 의미의 ‘침침하다’는 뜻으로 쓰였다.

- ③ 미귀안(迷歸鴈): 기러기 떼 정처 없이 날아가다.

☆미(迷): ‘길을 잃다. 방향을 분별하지 못하다’는 뜻인데, 본 시에서는 전(轉)하여 ‘정처 없이 (날아가다)’는 뜻으로 쓰였다.

☆귀안(歸鴈): ‘귀안(歸雁)’이라고도 씀. 기러기. 기러기는 봄에 시베리아, 사할린, 알라스카 등 지역의 북쪽으로 날아갔다가 가을에 다시 남쪽으로 내려오는 겨울철새인 까닭에 ‘귀안(歸雁: 돌아갔다가 돌아오는 기러기라는 뜻임)’이라고 표현한 것이다.

- 7) 낙일창량 하원송(落日蒼涼下遠松: 석양은 처량하게 멀리 소나무 아래로 지고 있네):

- ① 낙일(落日): 석양(夕陽). 지는 해.

- ② 창량(蒼涼): 창량(蒼涼)으로도 쓴다.

☆차갑다, 서늘하다.

☆심경이나 생각이 처량하다(쓸쓸하다).

☆차갑하다, 처량하고 비참하다, 참혹하다.

☆시문(詩文)이나 서화(書畫)가 늙은 티가 나고 소박한 것을 형용한 말이다.

- 8) 무부세련(無浮世戀: 늙으면 모두 죽거늘 인간세상을 아쉬워하고):

- ① 무(無): ‘사(死)’의 완사(婉辭). ‘사망’을 완곡하게 이르는 말이다. 『북제서(北齊書)·신무제기(神武帝紀)*·하(下)』에, “왕이 생존해 있으면 내가 감히 배반할 수 없지만, 왕이 사망하면, 나는 선비족 놈들과는 함께 일을 할 수 없다(王在,

吾不敢有異，王無，吾不能與鮮卑小兒共事)."고 한 대목이 있다.

*신무제(神武帝) : 중국 남북조시대(南北朝時代) 북제(北齊)의 고조(高祖). 성명은 고환(高歡 : 496~547)이다.

- ② 부세(浮世) : 인간 혹은 인세(人世 : 인간세상). 옛 사람들은 인간세상을 부침(浮沈 : 성쇠盛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과 취산(聚散 : 모임과 흩어짐 : 집합과 분산)이 일정하지 않다고 생각한 까닭에 일컬어진 말이다.

- ③ 런(戀) : 아쉬워하다.

- 9) 담래상로 구시봉(談來尙露舊時鋒) : 담론하면 여전히 지난날 위세 과시한다네) :

- ① 담래상로(談來尙露) : 이야기를 꺼내면 여전히 과시한다.

☆담래(談來) : '담론만 하면'이란 뜻으로, 여기서 '담(談)' 뒤에 오는 '래(來)'는 어떤 일에 착안하거나 계산함을 나타낸다. 이때의 '래(來)'는 '기래(起來)'로 바꾸어 쓸 수 있다. 삽입어의 기능을 한다.

☆상로(尙露) : 여전히 드러내다(과시하다).

a. 상(尙) : 부사로 쓰여, '여전히. 역시'의 뜻을 나타낸다.

b. 로(露) : 밖으로 드러내다. 밖으로 드러나다. 본 시에서는 '과시하다'로 번역하였다.

- ② 구시봉(舊時鋒) : 이전의 위세. 혹은 옛날의 기세.

☆구시(舊時) : 과거. 석일(昔日). 본 시에서는 '과거의 이력'을 가리키는 말로 쓰였다.

☆봉(鋒) : 서슬(강하고 날카로운 기세), 위세, 기세를 비유한 말.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으며, '과거 자신의 이력이 대단했음'을 가리키는 말로 쓰였다. 『사기(史記)·고조본기(高祖本記)』에, 원년(元年 : BC 206년) 4월 조항을 보면, "한신(韓信 : ?~BC 206년)이 한왕(漢王 : 패공沛公 유방劉邦 : BC 256년 혹은 BC 195)을 설득하여 말하기를(韓信說漢王曰) : 우리 군대의 군리軍吏와 사졸들은 모두가 산둥(山東 : 함곡관函谷關 이동 지역을 말함. 즉, 효산殷山의 동쪽에 있는 위魏·제齊·조趙·한韓·초楚·연燕 등 6국을 가리킴) 사람이라(軍吏士卒皆山東之人也), 밤낮으로 발 돌음을 하고서 고향으로 돌아갈 것을 바라고 있으니(日夜跂而望歸), 그들이 〈동쪽으로 돌아가고 싶은〉 기세(의기)가 드높을 때를 틈타서 그들을 이용하신다면(及其鋒而用之), 큰 공적을 이룰 수가 있을 것입니다(可以有大功)."고 한 대목이 있다.

☆도(刀), 검(劍) 등 칼날이 있는 병장기의 끝부분이나 예리한 부분.

☆예리하다.

☆(끝이) 뾰족하고 날카롭다.

- 10) 환참안절 허선화(還慚按節虛宣化 : 백성 교화教化 헛되이 한테 장단 맞춘 게 아직 부끄러운데) :

- ① 안절(按節) :

☆(두들겨) 박자를 맞추다. 장단을 맞추다.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a. 안(按) : 치다. 두드리다. 탄주(彈奏)하다.

b. 절(節) : 박자나 장단. 율동적(규칙적)이다.(박자나 장단을 비유한 말임).

☆말채찍을 휘두르지 않다. 서행하거나 정류(停留)하는 것을 표시하는 말.

a. 안(按) : 멈추다. 억제하다.

b. 절(節) : 원래 죽절(竹節 : 대나무 마디)의 뜻이나, 전(轉)하여 ‘채[채찍]’의 뜻으로 쓰인 것이다.

② 허선화(虛宣化) : 백성교화를 헛되게 하다.

☆선화(宣化) : 군명(君命)을 전파하고, 백성을 교화하다.

a. 선(宣) : 제왕의 조서(詔書 : 조칙詔勅 : 임금의 명령을 일반에게 알릴 목적으로 적은 문서나 명령 또는 지의〈旨意 : 생각이나 의향〉)를 가리킨다.

b. 화(化) : 교화 : 인심이나 풍속을 바꿈. 교육.

11) 박속영론(薄俗寧論) : 경박한 습속(習俗)으로 어찌 순미(淳美)한 풍속을 논하겠는가! :

① 박속영론(薄俗寧論) : 경박한 습속(習俗)으로 어찌 ~을 논하겠는가?

☆박속(薄俗) : 경박한 습속. 나쁜 풍조.

☆영론(寧論) : 어찌 거론하겠는가?

a. 녕(寧) :

③ 어찌 ... 이겠는가?

④ 부사로서, 차라리 ... 하는 것이 낫다. 오히려 ... 할지언정.

⑤ 설마 ... 하겠는가?

② 비옥봉(比屋封) :

☆본시에서는 ‘비옥가봉(比屋可封)’의 약어(略語)로 쓰였다. 상고시대(上古時代)에 교화(教化)가 사해(四海)에 미쳐 집집마다 덕행을 갖추 표창할만하다는 뜻인데, 후세에 와서 범칭으로 ‘풍속이 순미(淳美)하다’는 뜻으로 썼다. 본 시에 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a. 비옥(比屋) : ‘거주하는 집이 이웃하다’는 뜻으로 이 때의 ‘비(比)’는 ‘서로 연결하다. 서로 잇닿다’는 뜻이다. ‘비옥’은 또한 ‘가가호호(家家戶戶)’라는 뜻으로 써서 ‘많다. 보편적이다’는 뜻으로 쓰는데, 전(轉)하여, ‘백성’이란 뜻으로도 쓴다.

b. 봉(封) : (제왕이 신하에게) 작위를 주다(봉하다). 본 시에서는 전(轉)하여, ‘표창하다’는 뜻으로 쓰였다.

☆‘많다’는 것을 형용하는 말로서, ‘도처에 있다’는 뜻으로 쓴다.

시37. 재사齋舍에 머물며 『주역』을 읽는데,
온 뜰에 낙화가 깔리더니 바람 따라
창안으로 날려 온 꽃잎이 사랑스러워서

詩37. 齋居讀易¹⁾ 落花滿庭 隨風入窓可愛²⁾
재거독역 낙화만정 수풍입창가애



相伴寒窓唯睡魔³⁾, 한랭한 창을 벗 삼아 앉았는데
상반한창유수마 수마睡魔가 밀려와서,

獨行虛閣數飛花⁴⁾ 홀로 빈 누각을 거니는데
독행허각삭비화 꽃잎이 자꾸 날려 오네

靜中更把義經讀⁵⁾, 조용한 가운데 거듭 『주역』을 읽다보니,
정중갱파희경독

不覺斜陽不遠沙⁶⁾ 석양이 기울어 모래톱에
불각사양불원사 가까워진 줄도 몰랐네.

1) 제거독역(齋居讀易) : 재사에 머물며 『주역(周易)』을 읽다 :

① 재거(齋居) : 재사(齋舍)에 머물다.

☆재(齋) : 재사(齋舍). 서재(書齋).

② 독역(讀易) : 주역을 읽다.

☆『역(易)』 : 『주역(周易)』 : 유교경전의 하나. 동양에서 가장 오래된 경전인 동시에 가장 난해한 글로 일컬어진다. 공자가 극히 진중하게 여겨 받들고 주희(朱熹)가 ‘『역경(易經)』’이라 이름 하여 숭상한 이래로, 『주역(周易)』은 오경(五經)의 으뜸으로 손꼽히게 되었다. 『주역』은 상경(上經)·하경(下經) 및 십익

(十翼)으로 구성되어 있다. 십익은 단전(象傳)상·하, 상전(象傳)상·하, 계사전(繫辭傳)상·하, 문언전(文言傳)·설괘전(說卦傳)·서괘전(序卦傳)·잡괘전(雜卦傳) 등 10편을 말한다. 동한(東漢)의 학자 정현(鄭玄: 127~200)은 “역에는 세 가지 뜻이 포함되어 있으니, 이간(易簡)이 첫째요, 변역(變易)이 둘째요, 불역(不易)이 셋째이다.”라 하였고, 송대의 주희도 “교역(交易)·변역(變易)의 뜻이 있으므로 역이라 이른다.”고 하였다. 이간(易簡)이란, 하늘과 땅이 서로 영향하여 만물을 생성하는 이법(理法)은 실로 단순하며 그래서 알기 쉽고 따르기 쉽다는 뜻이다. 변역(變易)이란, 천지간의 현상, 인간사회의 모든 사행(事行)은 끊임없이 변화한다는 뜻이고, 불역(不易)이란, 이런 중에도 결코 변하지 않는 줄기가 있으니, 예컨대 하늘은 높고 땅은 낮으며 해와 달이 갈라들어 밝히고 부모는 자애를 베풀고 자식은 그를 받들어 모시는 것과 같다. 주희의 교역(交易)이란 천지와 상하사방이 대대(對待: 부침浮沈·지삭運數·허실虛實·대소大小 등과 같이 진맥할 때 형상·성질이 상대적인 두 가지의 맥상脈象을 병열하여 대비시키는 방법)함을 이르는 것이고, 변역(變易)은 음양과 주야(晝夜)의 유행(流行)을 뜻하는 것이라 하였다. 『설문(說文)』에는 역(易)이라는 글자를 도마뱀[蜥蜴·守宮]이라 풀이하고 있는데 역자(易字)는 그 상형으로 일(日)은 머리 부분이 아래쪽의 물(勿)은 발과 꼬리를 나타내고 있다. 도마뱀은 하루에도 12번이나 몸의 빛깔을 변하기 때문에 역(易)이라 한다고 하였다. 또 역은 일월(日月)을 가리키는 것이고 음양을 말하는 것이라고도 하였다. 이상 여러 설을 종합하여 보면, 역이란 도마뱀의 상형으로 천변만화(千變萬化)하는 자연(自然)·인사(人事)의 사상(事象)을 뜻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주례(周禮)·춘관편(春官篇)』에 대복(大卜)의 직(職)을 논하는 글에 “삼역법(三易法)을 장악하나니, 첫째는 연산(連山)이요, 둘째는 귀장(歸葬), 셋째는 주역(周易)인데 그 폐가 모두 여덟이고 그 나누임이 64이다.”라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한 대(漢代)의 두자춘(杜子春)은 연산(連山)은 복희(伏羲), 귀장(歸葬)은 황제(皇帝)의 역이라 하였고, 정현(鄭玄)은 역을 하(夏)나라에서는 연산이라 하고, 은(殷)나라에서는 귀장, 주(周)나라에서는 주역이라 한다고 했다. 아무튼 연산·귀장은 일찍이 없어지고 지금 남아있는 것은 주대(周代)의 역(易)인 『주역』뿐이다. 『역(易)』의 작자에 대해서는 『주역·계사전(繫辭傳)』에 몇 군데 암시가 있다. 그 중 뚜렷한 것은 “옛날 포희씨(包犧氏)가 천하를 다스릴 때에 위로 상(象)을 하늘에서 우러르고 아래로 법을 땅에서 살폈으며 새와 짐승의 모양, 초목의 상태를 관찰하여 가까이하는 몸에서 취하고 멀리하는 사물에서 취하여 이에 비로소 팔괘(八卦)를 만들어神明(神明)의 덕에 통하고 만물의 정에 비기었다.”고 하였다. 이로 미루어 복희씨가 팔괘를 만들고 신농씨(神農氏, 혹은 伏羲氏, 夏禹氏, 文王)가 64괘로 나누었으며, 문왕이 괘(卦)에 사(辭)를 붙여 『주역』이 이루어진 뒤에 그 아들 주공(周公)이 효사(爻辭)를 지어 완성되었고 이에 공자가 십익(十翼)을 붙였다고 한다. 이것이 대개의 통설이다. 역(易)을 점서(占書)와 연결시키고, 역(易)의 원시적 의의를 점서에 두는 것은 모든 학자의 공통된 견해이다. 어느 민족도 그러하지만 고대 중국에서는 대사(大事)에 부딪치면 그 해결을 복서(卜筮)로 신의(神意)를 묻는 방법을 썼다. 하여튼 처음 점서를 위하여 만들어진 역(易)이 시대를 거치면서 성인(聖人) 학

자에 의하여 고도의 철학적 사색과 심오한 사상적 의미가 부여되어 인간학의 대경대법(大經大法)으로 정착된 것이다.

2) 가애(可愛): 사랑스럽다. 귀엽다.

3) 상반한창 유수마(相伴寒窓唯睡魔: 한랭한 창을 벗 삼아 앉았는데 수마睡魔가 밀려와서):

① 상반한창(相伴寒窓): 한랭한 창을 벗 삼아 앉아있다.

☆상반(相伴): 벗 삼다. 본 시에서는 ‘벗 삼아 앉아있다’로 번역하였다.

☆한창(寒窓): 한창(寒窗)으로도 쓰고, 한창(寒窓)으로도 쓴다.

a. 한랭한 창가. 창문. 이 용어는 적막하고 고생스러운 독서생활을 형용할 때 상용하는 말이다.

② 유수마(唯睡魔): 그런데 수마(睡魔)가 밀려온다.

☆유(唯): 접속사로 쓰여, ‘그러나. 그런데’의 뜻이다.

☆수마(睡魔):

a. 졸리게 하는 마력(魔力)을 이른다.

b. 견딜 수 없이 오는 졸음을 악마에 비유하여 이르는 말이다.

4) 식비화(數飛花): 낙화가 떨어져 자꾸 날려가다(날려 오다).

① 식(數): 자주 ‘식(數: 자주, 누차, 여러 번)’의 뜻으로 쓰이고 있다.

② 비화(飛花):

☆낙화가 날려가다.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날려가는 낙화.

☆날려가는 설화(雪花: 눈송이)를 비유한 말로도 쓴다.

5) 정중갱파 회경독(靜中更把義經讀: 조용한 가운데 거듭 『주역』을 읽다보니):

① 갱(更): 부사로 쓰여, ‘다시, 재차, 거듭’ 등의 의미로 쓰였다.

② 파(把): 동사로 쓰여, ‘(손에) 잡다. (손에) 들다.’의 뜻으로 번역된다.

③ 회경(義經): 『주역』의 별칭. 전하는 바에 의하면, 복희씨가 8괘(八卦)*를 지었다고 하여, 일컬어진 명칭이다.

*팔괘(八卦): 『주역』에서 여덟 종류의 상징하는 뜻을 갖춘 기본 도형(圖形)으로, 매 도형마다 3개의 양(陽)을 대표하는 부호 ‘—’과 음(陰)을 대표하는 부호 ‘--’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음양을 대표하는 가장 기본적인 부호를 ‘괘(卦)’라고 하고, 이 괘를 구성하고 있는 것을 ‘효(爻)’라고 하는데, ‘양(陽)’을 대표하는 부호 ‘—’을 ‘양효(陽爻)’라 하고, ‘음’을 대표하는 부호 ‘--’을 ‘음효(陰爻)’라고 한다. 하나의 ‘괘(卦)’는 3개의 ‘효(爻)’로 구성되어 있다. 모든 괘는 양효[—]와 음효[--]가 엮여 성립되는데, 3개의 효(爻)로 구성된 것을 소성괘(小成卦)라 하고, 소성괘가 상·하 두 개씩, 즉 육효(六爻)로 결합된 것을 대성괘(大成卦)라고 한다. 소성괘는 그 수가 8개이기 때문에 8괘(八卦)라고 하는 바, 그 명칭은 건(乾: ☰) · 곤(坤: ☷) · 진(震: ☳) · 손(巽: ☴) · 감(坎: ☵) · 리(離: ☲) · 간(艮: ☶) · 태(兌: ☱) 등이다. 전하는 바에 의하면, 복희씨(伏羲氏)가 이 8괘를 지었다고 한다. 『역전(易傳: 주역을 구성하고 있는 부분으로, 경서(經書)를 해설한 저작이기에 『전(傳)』이라고 함. 「십익(十翼)」이라고도 함. 유학자들이 고대 점서용(占筮用) 서적으로서의 『주역』에 대해 지은 각종 해석임. 공자가 지었다고 하나, 신뢰성이 부족하고, 대체로 전국말기(戰國末期)나 진한시대(秦漢時代)의 작품으로 보여짐』의 저자는 8괘

에서 아래와 같이 상징하였다. 즉 건(乾)은 하늘[天]을 상징하고, 곤(坤)은 땅[地]을 상징하며, 진(震)은 우레[雷]를 상징하며, 손(巽)은 바람[風]을 상징하며, 감(坎)은 물[水]을 상징하며, 리(離)는 불[火]을 상징하며, 간(艮)은 산[山]을 상징하며, 태(兌)는 연못[澤]을 상징한 것이다. 앞에서 말한 대성괘는 그 수가 64 개에 이르는 까닭에 이를 64괘라고 하는데, 건(乾 : ☰), 미제(未濟 : ☵) 등이며, 본 주석에서 그 이하의 설명은 생략한다. 위에서 보듯이 8괘가 상징하는 ‘하늘 · 땅 · 우뢰 · 바람 · 물 · 불 · 산 · 연못’ 등 8가지를 모두 자연현상이라고 생각한 동시에, 그 중에서도 ‘건(乾)’ · ‘곤(坤)’ 2괘(兩卦)는 8괘 가운데서도 특별히 중요한 지위를 점유하고 있다고 생각했으니, 이 2괘는 자연계와 인류사회의 모든 현상에 대한 최초의 근원이라고 생각하였다. 8괘 중에서, 건(乾)과 곤(坤), 진(震)과 손(巽), 감(坎)과 리(離), 간(艮)과 태(兌)는 4개의 모순 대립하는 형태이다. 전하는 바에 의하면, 주문왕(周文王)이 이 8괘를 서로 조합하여, 다시 64괘(六十四卦)로 만들어서, 자연현상과 사회현상의 변화와 발전을 상징하는데 사용하였다고 한다. 8괘는 본래 고대 사람들의 현실세계에 대한 인식을 반영한 것으로, 소박한 상징적 요소를 지니고 있었는데, 이것을 복서(卜筮 : 점을 짐) 하는 부호로 사용하면서부터 점차 신비한 색채를 띠게 되었다.

- 6) 불각사양 불원사(不覺斜陽不遠沙 : 석양이 기울어 모래톱에 가까워진 줄도 몰랐네) :
- ① 불각(不覺) : 깨닫지 못하다. 느끼지 못하다.
 - ② 사양(斜陽) : 석양. 지는 해.
 - ③ 불원사(不遠沙) : 석양이 지면서 평원의 모래사장에 잇닿을 듯 가까워졌음을 표현한 말이다.

시38. 정해년 丁亥年 정월 초하룻날 대설 大雪이
내리는데, 시詩 「망호헌 望湖軒」의
운자 韻字를 차운 次韻 하여

詩38. 丁亥元日¹⁾大雪 次望湖軒韻²⁾
정 해 원 일 대 설 차 망 호 헌 윤



大雪羣峯暗³⁾,
대 설 군 봉 암

대설이 내리면서 못 산봉우리 가려지고,

濃雲四野同⁴⁾。
농 운 사 야 동

질은 구름 끼어서 사방의 모습이 똑 같으네.

長林隱見裏⁵⁾,
장 립 은 현 리

우거진 수림이 보일락 말락 하는 곳에서,

蒼壁有無中⁶⁾。
창 벽 유 무 중

푸른 장벽이 나타났다 사라졌다 하네.

病或閒來減⁷⁾,
병 혹 한 래 감

병이 나서 평소만은 본래 못하지만,

詩從靜後工⁸⁾。
시 종 정 후 공

시심詩心으로 평정平靜을 찾은 후에
정교精巧해졌네.

室空香縷細⁹⁾,
실 공 향 루 세

방안은 횡한데 향로에서
실 같은 향 연기 피어오르니,

幽思正神通¹⁰⁾。
유 사 정 신 통

장고長考 하던 난제 신기하게도
환해지네.

- 1) 정해원일대설(丁亥元日大雪 : 정해년 정월 초하룻날 대설이 내리다) :
- ① 정해(丁亥) : 정해년(丁亥年 : 선조 20 : 1587년, 서애 46세).
 - ② 원일(元日) :
 - ☆정월(正月) 초하룻날.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 ☆길일(吉日).
 - ③ 대설(大雪) :
 - ☆아주 많이 오는 눈.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 ☆24절기(節氣)의 하나로 12월 8일경이다.
- 2) 차망호현운(次望湖軒韻 : 시詩 「망호현望湖軒」의 운자韻字를 차운次韻하여) : 이 「망호현」 시가 누구의 것인가는 자료를 찾지 못하였다.
- ① 차운(次韻) : 차운은 바로 시를 지어 화답하는 방식의 일종으로, 보운(步韻)이라 고도 칭한다. 자세한 내용은 앞의 「시20」 주석1)의 ② ‘차운(次韻)’ 조항을 참조 바람.
 - ② 망호현(望湖軒) : 인동현(仁同縣 : 지금의 경북 구미시 동부일대의 지역) 서부의 낙동강 강변에 있었던 누정(樓亭)이다. 조선 중종 때의 문신(文臣), 강훈(姜渾 : 1461 ~ 1519)이 쓴 망호현 건축의 기문(記文)이 있다. 「서애연보」에 기재된 병술년(丙戌年 : 1586년 : 서애 45세) 조항에 보면, “(서애는) 남계정사(南溪精舍 : 지금의 경북 군위읍 대북2리에 위치함)에서 인동으로 가서 모친을 찾아뵈었다. 이때 겸암공(謙菴公 : 1539 ~ 1601 : 서애의 백씨 류운룡柳雲龍)이 대부인(大夫人)을 모시고 임지(任地)인 인동에 있었다. 선생은 하회에서 인동까지는 거리가 조금 먼 관계로, 가까운 남계정사(南溪精舍)에 거처하면서, 날마다 시중들을 시켜 문안을 드리게 하고, 자신은 열흘마다 한 번씩 가서 뵈었다(自南溪往觀仁同, 時謙菴公奉大夫人仁洞任所. 先生以河隈距仁洞稍遠, 遂近就南溪, 日使僮僕問安, 每旬親往定省.)”라는 대목이 보인다.
- 3) 암(暗) : (안개나 구름 또는 눈비가) 하늘을 덮다. (시선을) 가리다.
- 4) 농운 사야동(濃雲四野同 : 짙은 구름 끼어서 사방의 모습이 똑 같으네) :
- ① 농운(濃雲) : 짙은 구름.
 - ② 사야(四野) : 사방의 들판. 일반적으로 사방을 가리킨다.
- 5) 장림 은현리(長林隱見裏 : 우거진 수림이 보일라 말라 하는 곳에서) :
- ① 장림(長林) :
 - ☆길게 뻗어 있는 숲. 우거진 수풀.
 - ☆은자(隱者)의 거처를 비유하는 말.
 - ② 은현(隱現) :
 - ☆보일 듯 말듯하다. 보일라 말라하다.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 ☆은퇴했다 출사(出仕)했다 하다.
 - ☆숨었다 나타났다 하다.
- 6) 창벽 유무중(蒼壁有無中 : 푸른 장벽이 나타났다 사라졌다 하네) :
- ① 창벽(蒼壁) : 푸른 장벽. 산봉우리가 구름에 가려진 산을 형용한 말.
 - ② 유무중(有無中) : 시야에서 나타났다 사라졌다 하다.
 - ☆유무(有無) : 존재여부를 표현한 것이다.

- ☆중(中): 안중(眼中). 즉, 본 시에서는 ‘사야(視野) 앞’을 가리키는 뜻으로 쓰였다.
- 7) 병혹 한래감(病或閑來減: 병이 나서 평소만은 본래 못하지만):
- ① 병혹(病或): 병이 나서.
 ☆혹(或): ‘유(有)’와 같은 뜻으로, ‘나다. 생기다’는 의미이다.
- ② 한래(閑來): 한래(閑來)로도 쓰며, ‘평시(平時)(에)’라는 의미로 쓰인다.
- ③ 감(減): …만 못하다. 쇠약해지다.
- 8) 시증 정후공(詩從靜後工: 시심이 평정平靜을 찾은 후에 정교精巧해졌네): 이는 서예의 논시(論詩)에 대한 견해를 성리학적(性理學的) 관점에서 피력한 것이다.
- ① 시증정(詩從靜): 시심(詩心)으로 안정(安靜)을 되찾다.
 ☆시(詩): 시심(詩心).
 ☆증정(從靜): 안정(安靜)을 되찾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외물(外物)에 좌우되는 욕심을 버리고 상생(相生)의 순리(順理)를 좇아 마음이 평정(平靜) 혹은 안정(安靜)의 상태를 유지 보존하고자 하는 것을 말한다.
- a. 증(從): 따르다. 순종하다.
- b. 정(靜): 외물(外物)에 감응하기 전의 본연(本然)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본 시에서는 ‘안정(安靜: 외물과 접촉이 없는 평온의 상태)을 되찾다’라고 번역하였다.
- ② 후공(後工): …후에야 비로소 정교(精巧)해지다.
- 9) 실공 향세루(室空香縷細: 방안은 행한데 향로에서 실 같은 향 연기 피어오르니):
- ① 실공(室空): 방안이 텅 비다.
 ☆실(室): 방. 거실.
 ☆공(空): 텅 비다.
- ② 향루세(香縷細): 향로에 한 가닥의 연기가 실처럼 가늘게 피어오르다.
 ☆향(香): 향로(香爐).
 ☆루(縷): 양사(量詞)로, ‘실 또는 연기 같은 가늘고 긴 물건’을 헤아리는 데 쓰인다.
 ☆세(細): 가늘게 피어오르다. 즉, 향로에서 피어오르는 연기의 상태를 묘사한 시어(詩語)이다.
- 10) 유사 정신통(幽思正神通: 장고長考 하던 난제 신기하게도 뚫히네):
- ① 유사(幽思): 숙고(熟考). 심사(深思). 장고(長考).
- ② 정(正):
 ☆확실히. 진정. 참으로. 정말.
 ☆바로. 막. 때마침.
- ③ 신통(神通): 신기할 정도로 묘하다(‘신통하다’로 표현함).



시39. 정해년 丁亥年 늦봄에 『주역』을 읽고 느낀 바 있어 벽에 쓰다

詩39. 丁亥暮春 讀易有感 書壁上¹⁾
정 해 모 춘 독 역 유 감 서 벽 상

窮簷讀易嘆吾迷²⁾,
궁 천 독 역 탄 오 미

집에서 『주역』 읽다 나는
심취하여 감탄하면서,

晨起研磨³⁾至日西。
신 기 연 마 지 일 서

새벽부터 해질녘까지 줄곧 연구하며 익혔네.

莫道犧文消息遠⁴⁾,
막 도 희 문 소 식 원

복희씨伏羲氏와 주문왕周文王이 전하는
‘절후와 더불어 만물이 성쇠한다[與時消息]’는
이치’를 심오하다고 말로 하지 말게나.

隔窓春鳥數聲啼⁵⁾.
격 창 춘 조 수 성 제

창밖에 봄철 새 누차 지저귀는 소리가
바로 그 이치일세.

1) 정해모춘 독역유감 서벽상(丁亥暮春讀易有感書壁上 : 정해년 늦봄에 주역을 읽고 느낀 바 있어 벽에 쓰다):

① 정해(丁亥): 정해년(丁亥年 : 선조 20 : 1587년 : 서애 46세).

② 독역(讀易): 『주역』을 읽다.

☆역(易): 주역(周易). 앞의 「시37」의 주석1)의 ②의 ‘역(易)’ 조항을 참조바람.

③ 서벽상(書壁上): 벽 위에 쓰다.

☆서(書): 쓰다.

☆벽상(壁上): 벽에.

- a. 상(上):
- ㉔ 일정한 장소나 범위를 나타낸다.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 ㉕ 강하(江河)의 측면(側邊), 곧 강변을 나타낸다.
 - ㉖ 물체의 표면을 나타낸다.
 - ㉗ 사물의 어느 한 방면을 나타낸다.
 - ㉘ 모종(某種)의 연고(緣故)를 나타낸다.
- 2) 궁침독역 탄오미(窮簷讀易嘆吾迷: 집에서 『주역』을 읽다 나는 심취하여 감탄하면서):
- ① 궁침(窮簷): 궁침(窮簷)이라고도 쓰며, 초가집. 모사(茅舍). 모옥(茅屋). 파옥(破屋: 허물어진 집)이란 뜻이다.
☆궁(窮): 궁(窮)과 같은 자(字)로서, ‘낡고 오래된. 곤궁한’의 뜻이다.
☆침(簷): 침(檐): 처마.
 - ② 미(迷):
☆심취하다. 매혹되다. 빠지다.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미혹(迷惑)하다. 길을 잃고 헤매다. 헛갈리다.
- 3) 연마(研磨):
- ① 연마(研磨)하다. 학문 기술 따위를 연구하며 힘써 배우고 익히다.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마(磨): ‘마(磨: 같다. 문지르다)’의 뜻이다.
 - ② 돌이나 보석, 쇠붙이 또는 유리 따위의 고체를 갈고 닦아서 표면을 반질반질하게 하다.
- 4) 막도희문 소식원(莫道義文消息遠: 복희씨伏羲氏와 주문왕周文王이 전하는 ‘절후와 더불어 만물이 성쇠한다[與時消息]는 이치를 심오하다고 말로 하지 말게나.):
- ① 막도희문(莫道義文): 복희씨(伏羲氏)와 주문왕(周文王)이 ~했다고 말하지 말라.
☆막도(莫道): 말하지 말라.
a. 막(莫): 부정부사로 ‘…하지 말라’.
b. 도(道): 말하다.
☆희문(羲文): 복희씨(伏羲氏)와 주문왕(周文王)을 병칭(並稱)하는 말. 『주역』의 작자에 대한 통설에 의하면, 팔괘(八卦)는 중국 상고시대 전설상의 황제인 복희씨가 그렸고, 괘사(卦辭: 점괘를 쉽게 풀어서 설명해 놓은 글)는 주(周)나라의 문왕(文王)이 지었다고 한다. 본 시에서 서애가 『주역』을 독서한 감상을 읊는 과정에서 복희씨와 주문왕이 언급되는 까닭은 바로 그래서이다. 팔괘와 괘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앞의 「시37」 주석1)의 ② ‘역(易)’조항과 주석5)의 ③ ‘희경(羲經)’조항을 참조바람.
 - ② 소식원(消息遠): (절후와 더불어) 만물이 성쇠(盛衰)하는 이치가 심오하다.
☆소식(消息): 이의 사전적인 의미는 천지의 시운(時運)이 들고 돌아 자꾸 변화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를테면, 일월(日月)의 내왕(來往), 때의 변천, 영고(榮枯)와 성쇠(盛衰) 등을 말한다. 『역경(易經)·풍괘(豐卦)』에 보면, “하늘과 땅에 존재하는 만물이 가득 찼다가 다시 공허해지는 것은(天地盈虛), 때와 더불어 증감·성쇠하는 것이다(與時消息).”라고 하였다. 이는 곧 자연계를 지배하고 있는 원리와 법칙이 이와 같이 때[시간의 흐름]와 더불어서 충만했다가

공허해지고, 갔다가 오며, 사라지면 다시 자란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람의 인생사에서 나타나는 ‘영고성쇠(榮枯盛衰)’의 순환도 바로 자연계의 ‘충만했다가 공허해지는 원리’와 상통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것이 곧 천지가 발전하고 변화하는 것이다.

☆원(遠): 심오하다. 심원하다.

- 5) 격창춘조 수성제(隔窓春鳥數聲啼: 창밖에 봄철의 새 누차 지저귀는 소리가 바로 그 이치일세):

① 격창춘조(隔窓春鳥): 창밖의 봄새.

☆격창(隔窓): 창을 사이에 두고 창안·창밖을 뜻하는 것이다.

② 수(數): 누차(屢次). 여러 차례. 여러 번. 자주.

③ 수성제(數聲啼): 몇 마디로 지저귀다.

☆수성(數聲): 몇 차례의 소리.

☆제(啼): 지저귀다. 울다.

시40. 차운^{次韻}하여 지은 시를 어은정^{漁隱亭}에서
함께 놀았던 분들에게 부치다

詩40. 次韻寄漁隱亭同遊諸君子¹⁾
차운기어은정동유제군자



漁隱亭邊²⁾望遠川,
어은정변 망원천

어은정^{漁隱亭} 근처에서 멀리 하천을
바라보다가,

竹淵移棹³⁾水如天。
죽연이도 수여천

대숲 주변 호수에서 노 저으니 수면이
하늘같았네.

相逢各說溪山興⁴⁾,
상봉각설계산흥

서로 만나 각자 산수풍경의 흥취 돋우다가,

日暮歸來雨滿船⁵⁾.
일모귀래우만선

날 저물자 돌아오는데 배에
빗들이 가득 탔네.

1) 차운기어은정동유제군자(次韻寄漁隱亭同遊諸君子 : 차운^{次韻}하여 지은 시를 어은정^{漁隱亭}에서 함께 놀았던 분들에게 부치다) :

① 차운(次韻) : 「시20」 주석1)의 ② ‘차운(次韻)’ 조항을 참조바람.

② 어은정(漁隱亭) : 경상북도 안동시 정상동(亭上洞)에 있는 조선시대의 누정(樓亭).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42호. 본래 월곡면(月谷面) 도곡리(道谷里)에 세워졌으나 1974년 안동댐으로 인한 수몰을 피하여 현위치로 옮겼다. 1570년(선조 3)에 후릉(厚陵 : 조선시대 2대 정종定宗과 정종비 정안왕후定安王后의 능. 경기도 개풍군 홍교면 홍교리 소재) 참봉(參奉) 어은(漁隱) 이용(李容 : 1505~1554 : 서예의 백형伯兄 겸암謙菴의 장인丈人)이 건축한 것으로 이 정자는 모서리를 튼 □자형

의 채사와 별당인 어은정, 그리고 부속건물 3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토담으로 둘러싸여 있다. 그 중 어은정은 정면 3칸, 측면 2칸의 팔작지붕 건물로서 각주(角柱)를 사용한 홀처마집이다. 옆에 있는 채사는 남도리의 4량(樑)집으로 정면 5칸, 측면 6칸의 □자형 건물이다. 안방·대청·건넌방을 하나로 구성하고, 부엌·헛간과 맞은편 아래채에 온돌방·마루·대청·외양간·대문·서고를 갖추고 있다. 현재 고성이씨 문중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보존 상태는 좋으나 자리가 옮겨진 탓으로 경관적으로는 의미를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③ 군자(君子):

☆사람들에 대한(남에 대한) 존칭. ‘선생(先生)’과 같은 말.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재덕(才德)이 출중한 사람.

☆귀족 남성들에 대한 통칭.

2) 변(邊): 부근. 근처. 측면. 옆.

3) 이도(移棹): 배를 타다. 노를 젓다.

① 이(移): 옮기다. 이동하다.

② 도(棹): ‘장(槳: 작은 노: 물을 헤쳐 배를 나아가게 하는 기구. 큰 노는 ‘노櫓’)’의 뜻이나, 전(轉)하여 ‘선(船: 배)’을 가리키기도 한다.

4) 계산흥(溪山興): 시냇물과 산에 대한 흥취, 곧 산수풍경의 정취를 이르는 말.

5) 우만선(雨滿船): 배에 빗들이 가득 타다. 당나라의 시인 두보(杜甫: 712~770)의 시 「가을의 회포를 서술하며(秋述)」에, “늘 수레타고 오던 손님으로서, 과거에는 〈옛부터 사귀던 손님은〉 비가와도 왔는데(常時車馬之客, 舊, 雨來), 지금은 〈요즈음 사귀는 사람은〉 비가 오면 오지 않네(今, 雨不來).”라고 읊은 구절이 있다. 훗날 사람들은 이 인용시의 ‘우(雨: 비)’를 ‘우인(友人: 벗)’으로 비유하였다. 본 시에서의 ‘우(雨)’도 ‘벗’을 비유한 말로 썼기에 ‘벗’이라고 번역한다.

시41. 서루西樓에서 여름 날 보리타작하는 소리를 들으며

詩41. 西樓夏日 聞打麥聲¹⁾
서 루 하 일 문 타 맥 성



快閣來憑霽景清²⁾,
쾌 각 래 빙 제 경 청

상쾌한 누각 난간에 기대보니
비 갠 후 경물이 산뜻하고,

丹崖縈帶碧波明³⁾.
단 애 영 대 벽 과 명

붉은 절벽 둘러 쳐지고
푸른 물결 맑으네.

南來二載身無事⁴⁾,
남 래 이 재 신 무 사

남쪽으로 내려온 지
두 해 동안 몸도 무고한데,

卧聽前村打麥聲。
와 청 전 촌 타 맥 성

누워서 들으니 앞마을에
보리타작하는 소리 들리네.

1) 서루하일 문타맥성(西樓夏日聞打麥聲 : 서루에서 여름 날 보리타작하는 소리를 들으며) :

① 서루(西樓) : 서쪽에 있는 누각. 본 시에서는 원지정사(遠志精舍) 정내에 지은 연좌루(燕坐樓)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이 누각은 건물의 곡선이 제비를 닮았다 하여 ‘연좌루’라고 하며, 이는 원지정사(遠志精舍)의 서쪽 누각으로 중요민속자료 85호이다. 서애가 고향에 내려오면 고요히 머물면서 학문과 국정(國政)을 사색했던 특별한 곳이다. 서애는 서재로 사용하기 위한 정사와 자연과 벗하기 위한 누각(연좌루)을 지었는데, 두 건물은 모두 부용대를 마주 보며 북향(北向)하고 있는 ‘一’자형 건물이다. 이 정사 건물은 정면 세 칸, 측면 한 칸 반 규모로 소박

하게 지은 건물이다. ‘一’자형 건물의 동쪽으로 대청 한 칸, 서쪽으로는 서재를 사용한 방 두 칸을 두고 대청과 방 앞인 북쪽으로는 반 칸 뒷간을 두었다. 두 방 사이, 그리고 방과 대청 사이는 장지문을 설치하여 필요에 따라 방과 대청을 한 공간으로 쓸 수 있게 했다.

② 타맥성(打麥聲) : 보리타작하는 소리.

☆타맥(打麥) : 보리타작. 옛날에 보리타작은 도리깨로 타작(打作 : 곡식의 이삭을 떨어서 낱알을 거두는 일)을 하거나, 태질(돌이나 나무토막에 보릿단을 세게 메어쳐서 타작하는 짓)을 하여 타작을 하기 때문에 도리깨 소리나 보릿단을 메어치는 소리가 난다.

2) 쾌각래빙 재경청(快閣來憑齋景淸 : 상쾌한 누각 난간에 기대보니 비 갠 후 경물이 산뜻하고) :

① 쾌각래빙(快閣來憑) : 상쾌한 기분이 드는 누각 난간에 기대다.

☆쾌각(快閣) : 상쾌한 기분이 드는 누각.

a. 쾌(快) : 상쾌하다, 기쁘(게 하)다. 즐겁(게 하)다.

b. 각(閣) : 누각(樓閣). 본 시에서는 서루(西樓), 곧 연좌루(燕坐樓)를 가리키는 뜻으로 쓰였다.

☆내빙(來憑) : 서루[쾌각 : 연좌루燕坐樓]에 올라와서 난간에 기대다.

a. 빙(憑) : …에 기대다(의지하다).

② 제경청(霽景淸) : 날이 개인 후의 산천의 경관이 산뜻함을 표현한 것이다.

☆제경(霽景) : 날이 갠 후의 경관.

a. 제(霽) : 날이 개다.

☆청(淸) : 청신하다. 산뜻하다.

3) 단애영대 벽파명(丹崖榮帶碧波明 : 붉은 절벽 둘러쳐지고 푸른 물결 맑으니) :

① 단애영대(丹崖榮帶) : 붉은 암벽[부용대]이 떠를 두른 듯이 낙동강 강물을 둘러치고 있음을 형용한 것이다.

☆단애(丹崖) : 붉은 벼랑. 아름다운 암벽.

a. 단(丹) : 붉은 색, 혹은 화려한(아름다운) 색채를 형용한 말.

☆영대(榮帶) :

a. 둘러치다. 둘러싸다.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b. 허리띠(또는 끈 등을)를 두르다(매다).

② 벽파명(碧波明) : 푸른 물결이 청명하다(맑다).

4) 남래이재 신무사(南來二載身無事 : 남쪽으로 내려온 지 두 해 동안 몸도 무고한 데) :

① 남래(南來) : 남쪽(고향인 하회를 가리킴)으로 내려오다.

② 재(載) : 년(年). 세(歲).

③ 무사(無事) :

☆아무 탈 없이 편안함. 무고(無故 : 사고 없이 평안함)와 비슷한 말로서, 본 시에 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변고(變故)가 없다. 대체로 전사(戰事)나 재난이 없음을 가리킨다.

시42. 음력 칠월 보름날, 속칭 ‘백종百種’이라
하여, 촌민들이 부모를 위하여
초혼招魂을 해서 제사를 지내기에

詩42. 七月十五日 俗號百種¹⁾ 村民爲父母招魂²⁾以祭之
칠 월 십 오 일 속 호 백 종 촌 민 위 부 모 초 혼 이 제 지



麥飯一盂蔬一盤³⁾, 보리밥 한 사발과 채소 한 접시 마련해서,
맥 반 일 우 소 일 반

招魂江上陳祭祠⁴⁾. 강변에서 혼령 불러 모시고 제사 지내네.
초 혼 강 상 진 제 사

秋天漠漠秋日黑⁵⁾, 가을 하늘 막막하고
추 천 막 막 추 일 흑
대낮에도 어둡살 끼는데,

魂歸不歸未可知。 혼령은 오시는지 못 오시는지
혼 귀 불 귀 미 가 지
알 수가 없네.

人生到此淚沾臆⁶⁾, 사람은 살다 여기 와서
인 생 도 차 루 접 억
눈물로 가슴 적시지만,

江水東流無歇時⁷⁾. 강물은 동으로 흐르며 멎을 때가 없구나!
강 수 동 류 무 휴 시

1) 속호백종(俗號百種) : 속칭 백종이라 하여) :

① 속호(俗號) : ‘속칭(俗稱)’과 같은 뜻으로, 통속적이거나 비정식적인 칭호를 이른다.

② 백중(百種): 백중(百中): 백중 날: 이는 음력 7월 15일을 말한다. 백중(百種)·중원(中元), 또는 망혼일(亡魂日)이라고도 한다. 백중(百種)은 ‘백곡(百穀)의 종자란 뜻인데, 백중날 무렵에는 제사를 지낼 때 과일과 소채(蔬菜)가 많이 나와 옛날에는 백가지 곡식의 씨앗[種子]을 갖추어 놓았다 하여 유래된 명칭이다. 중원(中元)은 도가(道家)의 말이다. 도교에서는 천상(天上)의 선관(仙官)이 일 년에 세 번 인간의 선악을 살핀다고 하는데 그때를 ‘원(元)’이라 한다. 1월 15일을 상원(上元), 10월 15일을 하원(下元)이라고 하며 7월 15일의 중원(中元)과 함께 삼원(三元)이라 해서 초제(醮祭)를 지내는 세시풍속이 있었다. 망혼일이라 하는 까닭은 이날 망친(亡親)의 혼을 위로하기 위해서 술·음식·과일을 차려놓고 친신(薦新)을 한 데 있다. 『우란분경(盂蘭盆經)』에 의하면, 불가(佛家)에서는 불제자 목련(木蓮: 부처님의 십대 제자 가운데 신통제일인 사람: 원명은 마하목건련摩訶目犍連)이 그 어머니의 영혼을 구하기 위해 7월 15일에 오미백과(五味百果)를 공양했다는 고사에 따라 우란분회(盂蘭盆會)를 열어 공양을 하는 풍속이 있다. ‘우란분회’란 말은 ‘우란분(盂蘭盆)’을 가리키는 말이며, ‘우란분’이란 말은 산스크리트어[Sanskrit語: 고대인도의 표준 문장어]로 ‘우람바나[ullambana]’의 음역(音譯)인데, 원래는 산스크리트어 ‘아바람바나[aralambana]’란 말이 전와(轉訛)된 것으로, ‘거꾸로 매달려 있다(倒懸)’는 뜻이다. 죽은 사람이 사후에 거꾸로 매달리는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을 구하기 위해, 제사의식을 만들어 삼보(三寶)에게 공양하는 것을 말한다. 삼보라고 하면, 세 가지 보배를 뜻하는 것으로, 부처님(부다: buddha)과 법(法: 달마: dharma: 부처님의 가르침)과 승려(僧侶: saṅgha: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는 집단)를 말한다. 후에는 특히 조상의 영혼을 공양(供養)하는 법회를 말하게 되었다. 불교에서는 백중날에 절이나 부처를 모신 집에서 죽은 사람의 명복을 빌기 위해서 드리는 불공을 ‘백중맞이’라고 한다. 이렇게 공양(供養) 드리는 의식이 융성했던 신라나 고려 때에는 일반인까지 참여했으나 조선시대 이후로 사찰에서만 행해지고 민간에서는 소멸되었다. 백중이 되면 여러 행사가 있어왔다. 우선 각 가정에서 익은 과일을 따서 조상의 사당에 친신(薦新: 철따라 새로 난 농산물을 먼저 신위神位에 올리는 일)을 올린 다음에 먹는 친신차례(薦新茶禮)를 지냈으며, 옛날에는 종묘에 이른 벼를 베어 친신을 드리는 일도 있었다. 농가에서는 백중날이 되면 머슴을 하루 쉬게 하고 돈을 준다. 머슴들은 그 돈으로 장에 가서 술도 마시고 음식을 사먹고 물건도 산다. 그래서 백중장(百中場)이라는 말이 생기게 되었다. 백중장은 장꾼들이 많고 구매가 많은 장이다. 취흥에 젖은 농군들은 농악을 치면서 하루를 즐기기도 하고 때로는 씨름판이 벌어지며 장터에는 흥행단이 들어와서 활기를 띠기도 한다. 이러한 백중명절은 중부 이남 지방이 성대하다. 또한 이날은 그해에 농사가 가장 잘된 집의 머슴을 뽑아 소에 태워 마을을 돌며 위로하면서 논다. 이것은 바쁜 농사를 끝내고 하는 농군의 잔치로서 이것을 ‘호미씻이’라 한다. 제주도에서는 일손을 쉬지 않고 바다에 나가 일을 더 많이 한다. 백중날에 살찐 해산물들이 많이 잡힌다고 하며 밤에는 횃불을 들고 늦도록 해산물을 따기도 한다. 한라산에는 ‘백중와살’이라는 산신이 있어 백중을 고비로 익은 오곡과 산과(山果)를 사람들이 따 가면 허전하여 샘을 내고 바람을 일으킨다고 해서 산신제를 지내는 일도 있다. 신라 때에는 백중을 기해서 삼삼가가 시작되었다. 도성 안의 부녀자를 두 파로 나누고 궁주로 하여금 각 파

를 이끌어 한 달 동안 삼을 삼아 8월 한가윗날에 그 성적을 심사해서 진편이 이긴 편에 한 톱 내도록 하는 것이다. 백중 무렵이 되면 삼이 자라서 그 껍질을 베끼기에 알맞게 익은 때이므로 직조작업을 권장하는 뜻에서 왕녀를 주축으로 하여 집단작업인 두레 삼 삼기를 시작하게 된 것이다.(참고문헌: 京都雜誌・東國歲時記・洊陽歲時記・韓國歲時風俗(任東權, 瑞文堂, 1976), 韓國民俗大觀(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82). 任東權.

2) 초혼(招魂):

① 죽은 사람의 혼을 불러 돌아오게 하다. 전(轉)하여, 죽은 사람의 혼을 제사 지내어서 위로하다는 뜻으로 쓴다.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으며, ‘혼령을 모시다’는 말로 해석된다. 『의례(儀禮)·사상례(士喪禮: 사수가 행하는 상례喪禮)』편에, “복자일인(復者一人)”이란, 말이 있는데, 후한(後漢)의 학자 정현(鄭玄: 127~200)이 이 말에 주(注)를 달기를, “복자復者’란 유사(有司: 고대의 관리로서 또는 어떤 조직의 사무를 맡아보는 사람. 또는 고대에 일을 주관하는 자에게 청하던 호칭으로 직 무내용은 지체가 낮고 천한 것이었음)로서, 초혼招魂하고 복백(復魄: 고대 상례의 하나로, 죽은 사람의 옷을 들고 지붕위로 올라가서 북면北面하고 ‘아무개는 돌아오시오’라고 세 번 외쳐 혼백을 돌아오게 하는 의식)하는 사람이다(復者, 有司招魂復魄也).”라고 하였다.

② 산 사람의 혼을 불러 돌아오게 하다. 중국 전국시대(戰國時代) 초(楚)나라 정치가이자 시인인 굴원(屈原: 약 BC 339~약BC 278)의 『초사(楚辭)·초혼편(招魂篇)』을 후한(後漢)의 문인 왕逸(王逸: 897~158)이 해제(解題)에서 말하기를, “「초혼(招魂)」은 송옥(宋玉: BC 290?~BC 222?: 전국시대 초나라 사람으로 자는 자연子淵이고 굴원의 제자라고 함)의 작품이다(「招魂」者, 宋玉之所作也)…… 송옥은 굴원을 가엾게 여겨 애처롭게 생각했으니(宋玉憐哀屈原), 〈굴원이〉 충성했지만 배척당하고 추방되어(忠而斥棄), 수심과 먼지가 온 산하에 가득하고(愁懣山澤), 혼백이 산실散失되어(魂魄放佚), 장차 단명할 처지에 빠졌기에(厥命將落), 「招魂」을 지어서(故作「招魂」), 그의 정신을 돌아오게 하고(欲以復其精神), 수명을 연장시키려 하였다(延其年壽).”고 한 대목이 있다.

3) 맥반일우 소일반(麥飯一盂蔬一盤: 보리밥 한 사발과 채소 한 접시 마련해서):

① 맥반일우(麥飯一盂): 보리밥 한 사발.

☆일우(一盂): 한 그릇.

a. 우(盂): 그릇. 사발.

② 소일반(蔬一盤): 채소 한 접시.

☆소(蔬): 채소.

☆반(盤): 접시. 쟁반.

4) 초혼강상 진제사(招魂江上陳祭祠: 강변에서 혼령 불러 모시고 제사 지내네):

① 강상(江上): 강변. 강가.

☆상(上): ‘강하(江河)’라는 명사 뒤에 써서 측면(側邊), 곧 ‘강변’이란 뜻을 나타낸다. ‘상(上)’이 명사 뒤에 쓰여 여러 가지 의미를 나타내는데 자세한 내용은 「시39」의 주석1)의 ③ ‘상(上)’ 조항을 참조바람.

② 진제사(陳祭祠): 제상에 제물(祭物)을 진설(陳設)해놓고 제사를 지낸다.

☆진(陳): (제물을) 진설(陳設)하다. 진열(陳列)하다.

☆제사(祭祠) : 제사(祭祀)로 해석함. 제물을 차려놓고 죽은 사람의 님에게 음식을 바치어 정성을 표하거나, 또는 그러한 의식(儀式).

a. 사(祠) : 여기서는 사당(祠堂)의 의미가 아니고, 제사지낸다는 ‘사(祀)’자의 뜻으로 쓰였다.

5) 추천막막 추일흑(秋天漠漠秋日黑 : 가을 하늘 막막하고 대낮에도 어둡살 끼는데) :

① 추천막막(秋天漠漠) : 가을 하늘이 막막하다.

☆추천(秋天) :

a. 가을날[秋日]의 하늘. 가을 하늘.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b. 가을철[秋季].

☆막막(漠漠) :

a. (안개·구름·연기 등이) 짙게 덮힌 모양으로, 본 시에서는 ‘막막하다’로 표현하였다.

b. 아주 넓거나 멀어 아득하다.

c. 정적(靜寂)하여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모양.

d. (어떤 사물이) 뻘뻘하게 배치(배열·산포·진열)된 모양.

e. 광활한 모양.

f. 냉담하다. 관심을 갖지 않다.

g. (산림이) 무성한 모양. 밝지 않은 모양.(어둑어둑한, 컴컴한, 어두침침한 등으로 표현함)

② 추일흑(秋日黑) : 가을철의 대낮에 어둡살이 끼다.

☆추일(秋日) :

a. 가을철의 대낮.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b. 가을(철).

c. 가을의 태양.

☆흑(黑) : 어두워지다. 어둡다. 어둑하다(제법 어둡다). 어둡살(어두운 기미)이 끼다.

6) 인생도차 루점역(人生到此淚沾臆 : 사람은 살다 여기 와서 눈물로 가슴 적시지만) :

① 인생(人生) :

☆사람의 생존과 생활.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사람이 출생하다(태어나다).

☆사람의 일생.

② 점역(沾臆) : 눈물로 앞가슴을 적심을 이른다.

☆점(沾) : 적시다.

☆臆(臆) : 가슴. 흉부.

7) 강수동류 무혈시(江水東流無歇時 : 강물은 동으로 흐르며 멎을 때가 없구나!) :

① 동류(東流) : 강물이 동쪽으로 흐르다. 이는 낙동강이 동에서 흘러 서쪽에서 다시 북쪽으로 굽이쳐 하회마을 안고 돌기 때문에 본 시에서는 ‘서쪽에서 동쪽으로 흐르는 부분’을 가리켜서 이와 같이 표현한 말이다.

② 시(時) : 때.

시43. (요절한 아들) 경남經男이가 그림고 애통해서

詩43. 悼經男¹⁾
도경남



萬里憐吾獨²⁾,
만 리 려 오 독

만리 밖에서 나 혼자 남게 된 걸 탄식하면서,

三年望汝³⁾歸。
삼 년 망 여 귀

삼년동안 너의 귀환을 몹시도 기다렸다.

形容長在念⁴⁾,
형 용 장 재 념

네 모습은 내 가슴에 늘 또렷이 살아있는데,

節序更如飛⁵⁾。
절 서 경 여 비

절후는 나는 듯이 빨리도 바뀌는구나.

湖晚雲生壁⁶⁾,
호 만 운 생 벽

호수에 날 저물자 절벽에 구름 끼는데,

鵲愁⁷⁾月隱扉。
견 수 월 은 비

두견새 수심에 잠겨 울고
달빛만 은은히 사립문 비춘다.

遺魂招不得⁸⁾,
유 혼 조 부 득

혼령은 불러도 불러올 수 없는 것이니,

老去自無依⁹⁾。
로 기 자 무 의

늙어 죽으면 나는 의탁할 곳도 없겠구나.

1) 도경남(悼經男 : 〈요절한 아들〉 경남이가 그림고 애통해서) :

① 도(悼) :

☆사자(死者)에 대한 그리움과 애통함을 가리킨다.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애도(哀悼)하다. 추모(追慕: 죽은 사람을 그리며 생각함)하다.

☆추념(追念)하다. 회상하다. 후회하다.

- ② 경남(經男): 서애의 장남 류위(柳緯: 1573~1585)의 아명(兒名)이다. 나이 13세에 요절하였다. 그래서 세보(世譜)에 기록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서애전서(西厓全書)·본집(本集)·권20·경남광기(經南壙記)』를 보면, “경남이란 자는 예조판서 류성룡의 장남이다(經男者, 禮曹判書柳成龍長男也). 나중에 ‘위樟’로 개명하였으며, ‘경남’은 그의 아명(兒名)이다(後改名樟, 經男其小字也).”라고 한 대목이 있다.

- 2) 만리 연오독(萬里憐吾獨: 만리 밖에서 나 혼자 남게 된 걸 탄식하면서):

- ① 만리(萬里): 요절한 아들과의 생사(生死)의 거리에 대한 표현이다.

- ② 연오독(憐吾獨): 나 혼자 남게 된 것을 탄식하다.

☆련(憐): 몹시 탄식하다.

☆오독(吾獨): 나 혼자 되다, 혹은 나 혼자 남게 되다.

- 3) 여(汝): 대명사로 쓰여, ‘나’의 뜻이다. 동년배나 후배 또는 아랫사람에게 쓴다.

- 4) 형용 장재념(形容長在念: 네 모습은 내 가슴 늘 또렷이 살아있는데):

- ① 형용(形容):

☆사람의 생김새나 모습.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외모 모양.

☆형상(形狀).

☆묘술(描述)하다. 묘사하다. 말이나 글 또는 몸짓으로 사물이나 사람의 모양을 나타내다.

- ② 장재념(長在念): 항상 내 가슴 속에 생전의 모습 그대로 남아있다.

☆장(長): 부사로 쓰여, ‘늘. 항상. 언제나’의 뜻으로 쓰였다.

☆재념(在念): 마음속에 있다, 곧 마음속에 살아있다.

- 5) 절서 경여비(節序更如飛: 절후는 나는 듯이 빨리도 바뀌는구나):

- ① 절서(節序): 한 해를 스물넷으로 나눈 계절의 표준이 되는 것. 시령(時令)·절후(節候)와 같은 말이다. 24절기 가운데 양력 매월 상순(上旬)에 드는 것으로 입춘(立春)·경칩(驚蟄)·청명(淸明)···따위이다. 비슷한 말로 ‘찰’이라고도 한다.

- ② 경여비(更如飛): (절후가) 바뀌는 것이 나는 듯이 빠르다.

☆경(更): 바뀌다.

- 6) 호만 운생벽(湖晩雲生壁: 호수에 날 저물자 절벽에 구름 끼는데):

- ① 호(湖): 호수. 풍산류씨(豊山柳氏) 후손이 전하는 바에 의하면, 하회마을 북쪽에 위치한 강 건너편의 부용대(芙蓉臺) 앞을 흐르는 낙동강은 바로 이곳에서 수심이 깊어지면서 소(沼)를 형성하여, 이전에는 이곳을 ‘북담(北潭)’ 혹은 ‘옥연소(玉淵沼)’라고 칭했다고 한다. 본 시에서 쓰인 이 ‘호(湖: 호수)’는 곧 ‘북담(北潭)’을 가리키는 말로 쓰였다고 본다.

- ② 벽(壁): 절벽. 본 시에서는 하회마을 앞의 부용대(芙蓉臺)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 7) 견수(鵲愁): 두견새의 지저귀이 수심에 차 있다. ‘두견새가 울다’라고 하면, 한문으로는 ‘견제(鵲啼)’로 표현된다. 두견새[杜鵑]의 지저귀는 소리는 비참하고 고통스러

움에 차 있다고 전해지는 까닭에, 사람의 생각이 고통스럽거나 비애(悲哀)에 젖어 있는 것을 형용할 때, 이 ‘견제(鵲啼)’라는 말을 써서 옛사람들은 자신의 심정을 많이 표현하였다. 본 시에 쓰인 이 ‘견수(鵲愁)’라는 말도 ‘견제(鵲啼)’의 뜻과 비슷한 심정을 표현한 말이다. 시인은 두견새[견(鵲)]와 달[월(月)]을 의인화 하여 시적화자의 정서와 사상을 이 양물(兩物)의 물성(物性), 즉 두견새의 피 울음과 달빛의 적요(寂寥)함에서 발견하여 드러내고 있다. 두견새의 울음소리를 나타내는 ‘뿌루 꾸이취(不如歸去)’라는 의성어(擬聲語)를 중국인들은 ‘돌아가고 싶다’는 의미로 해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설화(說話)는 동한(東漢) 말기 양웅(楊雄)이 지은 『촉왕본기(蜀王本紀)』와 동진(東晉)의 상거(常璩)가 지은 『화양국지(華陽國志)』 「촉지(蜀志)」 권3에 보인다.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지금의 사천성(四川省)에 속하는 촉(蜀)이라는 나라에 두우(杜宇)라는 이름의 망제(望帝)라고 불리는 왕이 있었다. 그는 어느 날 문산(汶山)이라는 산 밑을 지나가다가 산 밑을 흐르는 강물에 떠 내려 온 자라의 정령(驚靈)에게 홀려 딸까지 내어 주는 등 지나친 충애를 베풀었다. 그는 그로 인해 하루아침에 별령에게 제위(帝位)를 빼앗기고 타국(他國)으로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다. 망제는 신세를 한탄하며 울부짖다가 끝내 타국에서 죽게 되었는 데, 그의 한 맺힌 영혼은 두견(杜鵑)이라는 새가 되어 밤마다 ‘불여귀(不如歸)’를 부르짖으며, 목구멍에서 피가 나도록 울었다고 한다. 훗날 사람들은 이 두견새를 망제의 죽은 님이 화(化)해서 된 ‘새’라고 하여, 촉혼(蜀魂)이라고 불렀으며, 원조(怨鳥)·두우(杜宇)·귀촉두(歸蜀途)·망제혼(望帝魂) 등으로도 불렀다. 숙부인 수양 대군에 의해 강원도 영월로 쫓겨났다가 살해당한 단종(端宗)도 망제의 원통한 님을 생각하며 「자규시(子規詩)」를 읊은 것이 『열성어제(列聖御製)』에 전해오고 있다.

8) 유혼 초부득(遺魂招不得: 혼령은 불러도 불러올 수 없는 것이니):

- ① 유혼(遺魂): 망혼(亡魂: 망자亡者의 님). 망령(亡靈: 망자의 영). 영혼. 죽은 사람의 님.

☆유(遺): 죽다.

☆혼(魂): 님. 님에 대한 일반적인 개념은 ‘사람의 몸에 있으면서 몸을 거느리고 정신을 다스리는 비물질적인 것. 몸이 죽어도 영원히 남아 있다고 생각하는 초자연적인 것이다’.

- ② 초부득(招不得): 불러올 수 없다. 이는 결과보어 구문의 부정형이다. 즉 ‘초부득(招不得)’은 부른 결과 만나게 되었다는 결과보어의 긍정형인 ‘조득(招得)’의 부정형인 것이다.

9) 노거 자무의(老去自無依)

- ① 노거(老去):

☆늙어간다. 사람이 점차 노쇠해 감을 이르는 말.

☆늙어 죽다.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 ② 자무의(自無依): 나는 의탁할 곳이 없다.

☆자(自): ‘자기, 자기 자신’의 뜻이 있으므로, 본 시에서 ‘나’로 번역하였다.

☆무의(無依): 의탁 혹은 의지할 데가 없다.



시44. 군위현^{軍威縣}의 송현산^{松峴山}에서 조부의 묘소에 성묘하고 있는데, 현감 류몽정^{柳夢井} 공^公이 방문하였기에, 함께 남계정사^{南溪精舍}로 가는데, 이곳에 택지^{宅地}를 마련하여 거주하려고 하는 관료 중의 벗 몇 사람이 현감을 수행해서 온 까닭에 시 한 수를 지어서 그 일을 기록한다.

詩44. 軍威松峴¹⁾ 省先祖墓 縣監柳君夢井來訪²⁾
군 위 송 현 성 선 조 묘 현 감 류 군 몽 정 래 방
 因與同至南溪³⁾ 欲卜居⁴⁾ 士友⁵⁾ 數人隨之
인 여 동 지 남 계 욕 복 거 사 우 수 인 수 지
 因以一詩記其事
인 이 일 시 기 기 사

連宵風雨急⁶⁾,
연 소 풍 우 급

밤새도록 비바람이 그리도 거셌는데,

遠村⁷⁾花盡落。
원 촌 화 진 낙

먼 마을에도 꽃잎이 모조리 졌겠네.

前溪漲新綠⁸⁾,
전 계 창 신 록

앞산 골짜기에 푸른 물이 부쩍 불어나서,

玉玦瀉寒石⁹⁾。
옥 결 사 한 석

옥빛 제곡물이 찬 바위 사이를 세차게 흐르네.

同心忽見招¹⁰⁾,
동 심 홀 현 초

마음 통하는 벗이 홀연 나타나서 부르기에

幽賞夙所愜¹¹⁾。
유 상 숙 소 협

평소 맘에 들었던 곳에 가서 조용히 감상했네.

聯翩二三子¹²⁾，
연 편 이 삼 자

(잠시 후) 군자 몇 사람이 연이어서,

騎馬出林薄¹³⁾。
기 마 출 립 박

말 타고 우거진 숲속에서 나오네.

尋溪始崎嶇¹⁴⁾，
심 계 시 기 구

계곡을 찾아오면 지세地勢
험준하기 마련이나,

俯巖旋爽豁¹⁵⁾。
부 암 선 상 활

암반을 굽어보니 금방 마음이 상쾌해지네.

郊平麥苗齊¹⁶⁾，
교 평 맥 묘 제

들판에는 보리 싹이 가지런한데,

天遠峯巒列¹⁷⁾。
천 원 봉 단 열

하늘 저 먼 곳에는 산등성이 연이어졌네.

微雨遞來灑¹⁸⁾，
미 우 체 래 쏜

보슬비가 내리다 그쳤다 하는데,

清風滌煩俗¹⁹⁾。
청 풍 적 번 속

청풍이 불어와서 속세의 번거로움 씻어주네.

主人喜客至，
주 인 희 객 지

주인은 손님이 오신 것을 기뻐하며,

班荆坐日夕²⁰⁾。
반 형 좌 일 석

형초荊草를 깔고 앉아
해질녘까지 정회情懷를 풀었네.

道想已云高²¹⁾，
도 상 이 운 고

심지心志를 표현함이 심히 고상한지라,

情談更無斁²²⁾。
정 담 갱 무 엇

정겨운 이야기 더욱 끝없이 이어졌네.

敬問節婦里²³⁾，
경 문 절 부 리

절부節婦가 사는 마을을 삼가 물다거,

嘉嘆仁賢績²⁴⁾。
가 탄 인 현 적

인자仁者와 현자賢者가 이어졌다는

사실에 찬탄하네.

欲求一廛居²⁵⁾,
욕 구 일 천 거

읍내에 살 집 한 채 구하고 싶다면서,

息此萍蓬跡²⁶⁾.
식 차 평 봉 적

이곳에서 정처 없는 행적行迹 멈추고
싶다하네.

沈吟招隱篇²⁷⁾,
침 음 초 은 편

『초사楚辭·초은사편招隱士篇』을
낮은 목소리로 음미하다가,

珍重伐檀曲²⁸⁾.
진 중 벌 단 곡

『시경詩經·위풍魏風』의 「벌단伐檀」을
읽으며 정중히 훈계했네.

誅茅²⁹⁾從此始,
주 모 종 차 시

벌초伐草는 지금 당장 해야 하지만,

耕讀隨年³⁰⁾足。
경 독 수 년 족

농사나 독서는 시기에 맞춰서 해야
한다고!

1) 군위송현(軍威松峴: 군위현의 송현산):

- ① 군위(軍威): 군위현(軍威縣): 군위군(軍威郡): 경상북도 중앙부에 위치한 군이다. 동쪽은 영천군(永川郡), 서쪽은 선산군(善山郡), 남쪽은 대구광역시와 칠곡군(漆谷郡), 북쪽은 의성군(義城郡)과 접하고 있다. 다른 군에 비하여 자원이 부족하고 교통이 다소 불편하여 산업과 경제활동이 활발하지 못하여 개발이 필요한 규모가 작은 군이다. 동서길이 약 36km, 남북길이 약 27km, 면적 613.28km², 인구 24,172명(2013년 현재)이다. 1읍 7면 177동으로 되어 있으며, 군청소재지는 군위읍 서부동이다. 군위는 본래 신라시대의 노동역현(奴同覓縣: 군위읍)으로 경덕왕 때에 군위로 고치고, 송선군(嵩善郡: 선산군)의 영현(領縣: 속현屬縣)이 되었다가, 1018년(고려 현종 9)에 상주(尙州)에 속하였으며, 1143년(고려 인종 21)에 일선현(一善縣: 선산군)에 환속(還屬)시켰다. 공양왕 때에 감무(監務)를 두고 1413년(조선 태종 13)에 현감(縣監)을 두었다. 1895년(고종 32)에 군(郡)으로 되었고, 1914년에 행정구역을 변경하여 군(郡)으로 되었고, 1914년에 행정구역을 변경할 때 의흥군(義興郡: 군위군 의흥면의 옛 행정구역)을 합하였다. 본래 고려의 의흥군으로 1018년(현종 9)에 안동부(安東府)에 속하였고, 1390년(공양왕 2)에 감무를 두었으며, 1413년(태종 13)에 현감을 두었다. 1895년에 군(郡)으로 되고 1914년의 부(府)·군(郡)의 통합에 의하여 군위군에 통합되었다. 1973

년에 선산군 및 의성군과의 행정관할 구역의 조정이 있었고, 1979년에 군위면이 읍으로 승격되었다.

- ② **송현(松峴)** : 송현산(松峴山 : 속칭 ‘솔타’) : 서애(西厓)의 조부 류공작(柳公緯)*의 묘소가 있는 곳으로, 위치는 경북 군위군 군위를 외랑리(外良里) 송현산이다.

***류공작(柳公緯)** : 1481~1559) : 풍산류씨(豐山柳氏) 11세손으로, 자는 유재(裕哉)이며, 자온(子溫 : 1453~1502 : 자는 직이直而)의 아들이다. 통훈대부(通訓大夫 : 조선시대 문관의 정3품)로서 간성군수(杆城郡守 : 간성군杆城郡은 지금의 강원도 고성군高城郡임)를 역임했으며, 승록대부 의정부 좌찬성 겸 판의금부사(崇祿大夫 議政府左贊成 兼 判義禁府事)에 추증되었다.

- 2) **현감류군몽정래방(縣監柳君夢井來訪** : 현감 류몽정 공이 방문하다) :

- ① **현감(縣監)** : 조선시대 현(縣)의 우두머리 관직으로 종5품이다.

- ② **유군몽정(柳君夢井)** : 유몽정(柳夢井) 공(公).

☆**류몽정(柳夢井)** : 1529~1590) : 본관은 문화(文化)이며, 자는 경서(景瑞), 호는 청계(淸溪)로, 용곡(用恭)의 넷째 아들이다. 지금의 전라남도 영암군(靈巖郡) 신북면(新北面) 모산리(茅山里)에서 출생했다. 어려서부터 용모가 단정하고 품행에 법도가 있었다고 한다. 장성하여 혼인 말이 오가는데, 어떤 부자(富者)의 청혼을 거절하고, 같은 고을에서 안빈낙도(安貧樂道)하는 나세적(羅世績)의 사위가 되기를 자원했고, 장인인 나선생에게 사사(師事)하였다고 한다. 생원(生員) 진사(進士) 시험의 소과(小科)에서는 장원(壯元)으로 합격했으나, 대과(大科 : 과거科擧의 문·무과를 아울러 이르던 말)에는 합격하지 못하고, 학행(學行)으로 천발(薦拔)되었다. 능침랑(陵寢郎 : 왕능을 수호·경비하는 관리)을 시작으로 하여 공조좌랑(工曹佐郎 : 공조의 정5품 벼슬)을 역임했으며, 경상도 도사(慶尙道都事 : 경상도 관리들의 불법을 규찰하던 종5품 벼슬)와 전라도 점마(全羅道點馬 : 전라도에 파견되어 관마官馬를 점고하던 임시 관리)를 역임했다. 내직(內職)으로는 공조(工曹)와 호조(戶曹)의 정랑(正郎 : 정5품 벼슬)을 역임하고, 사헌부 지평(司憲府持平 : 감찰행정을 맡아보던 사헌부의 정5품벼슬)을 역임하였으며, 1581년(선조 14)에는 충청도 경차관(忠淸道敬差官 : 조선시대 중앙정부의 필요에 따라 특수 임무를 띠고 지방에 파견된 관직. 경차관이 파견된 것은 1396년(태조 8) 8월 辛有定을 전라·경상·충청 지방의 왜구 소탕을 목적으로 파견한 것이 처음임)을 겸임하다가 광흥창수(廣興倉守 : 광흥창廣興倉은 조선시대 관리들의 봉급을 관리하던 관청이었으며, 관원이 ‘수(守)’는 정4품 벼슬이었음)에 전임(轉任)되고, 그 후 고부군수(古阜郡守 : 고부군古阜郡은 지금의 전라북도 정읍군井邑郡 고부면古阜面임)에 부임했다가 남원부사(南原府使 : 남원南原은 지금의 전라북도 동남단에 위치한 남원市南原市 일대이며, 부사府使는 종3품 벼슬임)로 승진했다가, 광주목사(光州牧使)로 임명되었으나, 사직상소를 올리고 부임하지 않았다. 1589년(선조 22), 기축옥사(己丑獄死)* 때, 유생 정암수(丁巖壽 : 1534~1594) · 오희길(吳希吉 : 1556~1623) 등이 무고(誣告)하여 장살(杖殺)되었다. 그 뒤, 이산해(李山海 : 1538~1609) · 이항복(李恒福 : 1556~1618), 류성룡(柳成龍 : 1542~1607) 등이 신원(伸冤)을 청하였으나 선조(宣祖)는 윤허하지 않았다. 그 후, 인조(仁祖) 2년(1624)에 몽정(夢井)의 아들 류형(柳炯)이 신원(伸冤)을 청했으나 윤허 받지 못하다가, 이원익(李元翼 : 1547~1634) · 윤방(尹昉 : 1563~1640) · 신희(申欽 :

1566~1628) 등의 주청에 의해 몽정(夢井)은 마침내 신원(伸寃)되고 복관(復官)되었다. 그의 묘는 서당동(書堂洞) 선고(先考)의 묘 아래에 있다.

*기축옥사(己丑獄事) : 1589년(선조 22) 10월, 정여립(鄭汝立 : ?~1589)의 모반에 의해 일어난 옥사이다. 정여립은 자(字)가 인백(仁伯)이고 관향은 동래(東萊)이다. 아버지는 군수·첩정(僉正 : 종4품) 등을 지낸 정희중(鄭希曾)이다. 전주에서 태어났고 대동계(大同契)의 거점이자 피난했다가 죽음을 맞이한 곳도 진안(鎭安) 죽도(竹島)로, 정여립의 지역적 기반은 전라도였다. 그는 원래 율곡(栗谷) 이이(李珥)의 문인이었다. 그러나 율곡 사후(死後), 당색을 바꾸어 동인(東人)으로 전향하면서 이이(李珥)를 비롯하여 서인의 영수인 박순(朴淳)·성혼(成渾) 등을 비판하면서, 선조의 마음을 사게 되어 관직에서 물러나 낙향하였다. 그러나, 낙향한 이후, 그는 진안 죽도에서 서재(書齋)를 열고 수많은 사람과 교류하면서 이른바 대동계(大同契)란 걸 만들어, ‘천하는 일정한 주인이 따로 없다’는 천하공물설(天下公物說)과 ‘누구라도 임금으로 삼길 수 있다’는 하사비군론(何事非君論) 등을 내세웠고, 심지어는 목자(木子 : ‘이李’자를 파자破字하여 ‘이씨李氏’를 가리킨 말)는 망하고 전읍(奠邑 : ‘정鄭’자를 파자破字하여 ‘정씨鄭氏’를 가리킨 말. 한자의 부수에서 ‘우부방 ㄹ’은 ‘읍’자와 동일함)은 흥한다는 참언을 이용하여 전읍은 자기를 가리킨다는 낭설을 퍼뜨려 그것을 믿게 했다고도 한다.

1589년(己丑年) 10월에 정여립이 피한 역모는 3년여에 걸쳐 그와 관련된 1,000여 명의 동인계(東人系)가 피해를 입은 사건이다. 이의 구체적인 발단은 1589년 10월 황해도 관찰사 한준(韓準 : 1542~1601)과 재령군수 박충간(朴忠侃 : ?~1601), 안악군수 이축(李軸 : 1538~1614), 신천군수 한응寅(韓應寅 : 1554~1614) 등이 전홍문관수찬이었던 전주사람 정여립이 역모를 꾀하고 있다고 고변함으로써 시작되었다. 이때 제시된 정여립의 역모죄상은 그가 벼슬에서 물러난 뒤, 전주와 진안·금구(金溝) 등지를 내왕하면서 무뢰배와 공사천례(公私賤隸)들을 모아 ‘대동계(大同契)’라는 단체를 만들어 매월 활쏘기를 익혔으며, 또 당시 민간에 유포되어 있던 도참설(圖讖說)을 이용하여 민심을 현혹시킨 뒤, 기축년말에 서울에 쳐들어갈 계획을 세우고, 그 책임부서가지 정하여 놓았다는 것이다. 이 보고를 받은 조정에서는 선전관과 의금부도사를 황해도와 전라도에 파견하여 사실을 확인하도록 하였다. 정여립은 안악(安岳)에 사는 변승복(邊崇福 : ?~1589)으로부터 그의 제자였던 안악교생(安岳敎生) 조구(趙球 : 생몰년 미상)가 자복했다는 말을 전해 듣고, 아들 옥남(玉南 : 생몰년 미상)과 함께 도망하여 진안에 숨어 있다가 자결하였다. 그리고 옥남은 잡혀 문초를 받은 끝에 길삼봉(吉三峯 : 생몰년 미상)이 모주(謀主)이고, 해서(海西) 사람 김세겸(金世謙 : 생몰년 미상)·박연령(朴延齡 : 생몰년 미상)·이기(李箕 : 생몰년 미상)·이광수(李光秀 : 생몰년 미상)·변승복(邊崇福) 등이 공모했다고 자백함으로써 다시 이들이 잡혀가 일부는 조구와 같은 내용을 자백하고, 일부는 불복하다가 장살(杖殺) 당했다. 정여립의 자결과 일부 연루자의 자백에 의해 그가 역모를 꾀했다는 것은 사실로 단정되었다. 이 사건이 일어나자 동인(東人)에 대한 박해가 더욱 심해지고 서인(西人)인 정철(鄭澈 :

1536~1593)이 옥사를 엄하게 다스려서 이발(李潑: 1544~1589)·이길(李洁: 생몰년 미상)·김우옹(金宇顙: 1540~1603)·백유양(白惟讓: 1530~1589)·정언신(鄭彦信: 1527~1591)·홍종록(洪宗祿: 생몰년 미상)·정언지(鄭彦智: 생몰년 미상)·정창연(鄭昌衍: 1552~1636) 등 당시 동인의 지도자급 인물들이 연루되어 처형 또는 유배당하였다. 그 가운데 이발은 정여립의 집에서 자신이 보낸 편지가 발견되어 다시 불러가 고문을 받다가 죽었으며, 그의 형제·노모·자식까지도 모두 죽음을 당하였다. 같은 해 12월에는 호남의 유생 정암수(丁巖壽: 생몰년 미상)를 비롯한 50여인의 상소로써 이산해(李山海: 1538~1609)·나사침(羅士忱: 생몰년 미상)·나덕명(羅德明: 생몰년 미상)·나덕준(羅德峻: 생몰년 미상)·정인홍(鄭仁弘: 1535~1623)·한효순(韓孝純: 1543~1621)·정개청(鄭介淸: 1529~1590)·류종지(柳宗智: 1546~1589)·김우평(金宇宏: 1524~1590)·윤의중(尹毅中: 1524~?)·김응남(金應男: 생몰년 미상)·류성룡(柳成龍: 1542~1607)·류몽정(柳夢井: 1529~1590)·조대중(曹大中: 1549~1590)·우성전(禹性傳: 1542~1593)·남언경(南彦經: 생몰년 미상) 등 30여인이 연루되어 혹은 처형되고 혹은 유배되었다. 이때의 상소로 말미암아 조정의 동인계 고관과 함께 호남지방 사류(士類)가 다수 연좌되었으며, 이런 연유로 그 뒤부터 전라도는 반역향(反逆鄉)으로 불리게 되었고, 호남지역의 사류간에는 후대에까지 서로 반목대립하여 여러 가지 여러 가지 문제를 낳게 되었다. 또, 진주에 거주하던 처사(處士) 최영경(崔永慶)은 모주(謀主)인 길삼봉으로 지목되어 옥사당하였는데, 그의 연좌 또한 지극히 모호한 내용이었어서 많은 말썽을 불러일으켰다. 그 뒤 약 3년여에 걸쳐서 정여립과 친교가 있었거나, 또는 동인이기 때문에 관련되어 처형된 자가 무려 1천여인에 이르는 대옥사로 발전하였으며, 이 문제는 그 뒤 당쟁전개에 있어 주요한 현안으로 제기되었다. 이 옥사의 발생원인에 대해서는 학설이 일치하지 않는다. 첫째, 노비출신인 송익필(宋翼弼: 1534~1599)이 당시 서인의 참모격으로 활약했는데, 자신과 그의 친족 70여인을 환천(還賤)시키고자 한 동인(東人)의 이발(李潑)·백유양(白惟讓) 등에게 복수하기 위해 이 사건을 조직했다는 설. 둘째, 당시 위관(委官)으로 있던 정철에 의해 조작되었다는 설. 셋째, 이이(李珣)가 죽은 뒤 열세에 몰린 서인이 이를 만회하기 위해 날조한 사건이라는 설. 넷째, 일부 조작된 바도 있으나, 당시 정여립이 전제군주정치 아래에서는 용납되기 어려운 선양(禪讓)에 의한 왕위계승방식을 주장하는 등 혁명성을 가진 주장이 옥사를 발생시킨 요인이 되었다는 설. 즉 정여립의 모역상도 어느 정도는 인정된다고 보는 설 등으로 아직 정설은 없다.(이상은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사전 참조)

☆군(君): 상대방에 대한 존칭으로 ‘당신, 선생, 또는 공(公)’의 뜻이다. 성씨나 성명 뒤에 써서 존경을 표시한다.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본 시제에서의 류군몽정(柳君夢井)처럼 성씨 뒤에 ‘군(君)’자를 쓰고 이름을 그 뒤에 쓴 것도 경칭(敬稱)의 한 예이다. 옛날에는 ‘군(君)’자를 대부(大夫) 이상의 직책을 지닌 통치자나 제왕·제후를 칭할 때 썼고, 선조(先祖)나 부모에 대한 존칭으로도 썼으며, 시호(諡號)나 봉호(封號)에도 썼다. 오늘 날 우리나라

에서 이 ‘군(君)’자를 성씨나 성명 또는 이름 뒤에 써서 ‘친구나 아랫사람을 친근하게 부르거나 이르는 말’과는 크게 다르다. 『사기(史記)·장의열전(張儀列傳)』에, “장 의(張儀 : ?~BC 310 : 전국시대 위魏나라의 정치가. 귀곡鬼谷 선생에게 종횡縱橫의 술책을 배우고, 뒤에 진秦 나라의 재상이 되어 연횡策連橫策을 6국에 유세遊說하여 열국으로 하여금 진秦나라에 복종하도록 힘썼음)가 말하기를: ‘아! 이 방법은 본래 내가 연습했던 권모술수에 속하는 것인데 내가 깨닫지 못했구나!’(張儀曰: ‘嗟乎, 此在吾術中而不悟!’) 내가 소(蘇 : 소진蘇秦 : ?~BC 284 : 전국시대 동주東周 낙양사람으로, 유세가遊說家임. 진秦에 대항하여 산둥山東의 6국인 연燕·조趙·한韓·위魏·제齊·초楚의 합종合縱을 설득하여 성공했으나 훗날 연횡策에 밀려 실패했음) 선생보다 못한 것이 분명하구나(吾不及蘇君明矣!)”라고 한 대목이 보인다.

- ③ 내방(來訪) : (만나기 위해서) 찾아오다. 방문하다.
- 3) 남계(南溪) : 남계정사(南溪精舍) : 「서애연보(西厓年譜)」에 의하면, 이 정사(精舍 : 학문 연구와 정신 수양을 하던 곳으로, 곧 서당임)는 서애의 부친 관찰공(觀察公 : 입암立巖 류중영柳仲郢)이 재실(齋室)을 지으려다 짓지 못하고 있다가 1581년(병술년, 선조 14, 서애 45세) 3월에 서애가 비로소 완성하였다. 서당의 위치는 경북 군위읍 대북2리(서원리라고도 함)에 있는 산기슭(솔티)에 있다. 서애도 영의정 재직시에 여러 번 이곳에 와서 성묘도 하고 강학(講學)도 하였다. 당(堂)은 상로당(霜露堂), 재(齋)는 영모재(永慕齋)라 하여 재실로 삼고 동쪽에는 완심재(玩心齋), 연어현(鳶魚軒)을 만들어 학생들을 거처하게 하고, 북쪽에는 삼정재(三靜齋)를 만들어 도사(道士)를 데려다가 거처케 하였다. 상로당 앞에는 애련당(愛蓮堂), 양어지(養魚池)가 있으며, 서쪽 산기슭 아래에는 바위 초은대(招隱臺)가 있고, 동쪽 산기슭에는 바위 영귀대(詠歸臺)가 있다. 그 아래로 단서천(歎逝川)과 의궁계(倚筇溪)라 불리는 두 줄기의 냇물이 흐르는데, 이 두 줄기의 냇물을 합쳐 남계(南溪)라 하는 까닭에 남계정사(南溪精舍)라고 명명하였다고 한다. 서애 사후에 1621년 후진들이 이 서당을 중수(重修)하여, 서애의 위패를 모시고 서원(書院)으로 승격시켰다. 그러나 훗날 흥선 대원군의 서원철폐령에 따라 서당으로 격하되었다. 그 후 6·25때 소실되었으나 후손들이 복원하였다. 현재 남계정사는 외삼문(外三門)과 중정당(中正堂)인 존성당(尊性堂), 내삼문(內三門)과 원사(院祠)인 경덕사(景德祠)가 있어서 밖에서 보면 높은 기와집 네 채가 한 줄로 서 있는 형국이다. 중정당 양쪽 방에는 수약재(守約齋)와 지지재(知止齋)라는 편액이 달려 있다. 원생들의 기숙사로 쓰이던 동서재(東西齋)는 소실(消失)되었다.
- 4) 복거(卜居) : 살만한 곳을 가려 정하다. 택지(擇地)하여 거주하다. 복지(卜地)·복택(卜宅)과 같은 말이다.
- 5) 사우(士友) : 옛날에 관료라고 칭하는 지식계층이나 보통 선비들 중의 벗을 이르는 말.
- 6) 연소 풍우급(連宵風雨急 : 밤새도록 비바람이 그리도 거셌는데) :
 ① 연소(連宵) :
 ☆통소(通宵) : 밤새도록.
 ☆연야(連夜 : 여러 날 밤을 계속하여).
 ② 급(急) : 거세다. 맹렬하다. 몰아치다. 세차다.

- 7) 원촌(遠村): 먼 마을. 멀리 떨어져 있는 마을.
- 8) 전계 창신록(前溪漲新綠): 앞산 골짜기에 푸른 물이 부쩍 불어나서):
- ① 전계(前溪): 전면(前面)에 있는 산골짜기를 흐르는 시냇물.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 ② 창(漲):
 - ☆물이 불다. 물이 불어나다.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 ☆큰물이 진 모양.
 - ③ 신록(新綠): ‘청신한 푸른 물’을 가리킨다.
 - ☆신(新): 청신한. 청결한.
 - ☆녹(綠): 녹수(綠水). 푸른 물.
- 9) 옥결 사한석(玉玦瀉寒石: 옥빛 계곡물이 찬 바위 사이를 세차게 흐르네):
- ① 옥결(玉玦): 패옥(佩玉: 허리에 차는 옥)의 일종. 고리 모양에 결구(缺口: 한쪽이 트이도록 틈을 낸 것)를 내어 허리에 차기 쉽게 만든 것이다. ‘결(玦: 패옥)’은 ‘결(決: 결단. 판단)’과 음이 같아서, 옛사람들은 옥결을 찰 때마다 결단(決斷)이나 결절(決絶: 결연함. 단호히 끊음. 결별함)의 뜻을 표시하였다. 본 시에서는 녹수(綠水)의 색깔을 형용한 말로 쓰였다.
 - ② 사(瀉):
 - ☆매우 빠르게 흐르다.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 ☆쏟다. 쏟아지다.
 - ③ 한석(寒石): 한랭한 암석.
- 10) 동심 홀현초(同心忽見招: 마음이 통하는 벗이 홀연 나타나서 부르기에):
- ① 동심(同心): 본 시에서의 동심(同心)은 서애가 선조(先祖) 묘소에서 성묘하고 있는데, 류몽정 현감 일행이 방문하여, 멀리서 서로를 알아보고 느낀 심리적 상태를 표현한 것이다. 이 때의 ‘동심(同心)’은 ‘심심상인(心心相印: 말없이 마음과 마음으로 뜻을 통함)’의 상태이자, ‘이심전심(以心傳心: 마음과 마음으로 서로의 뜻이 통함)’의 상태였던 것이다.
 - ☆공동의 염원(소원). 생각(심정)이 같음.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 ☆마음을 같이 하다. 뜻을 합치다. 제심(齊心).
 - ☆서로 뜻이 같고 신념이 일치하다(志同道合). 의기투합(意氣投合)하다.
 - ☆동심결(同心結: 두 고를 내고 맞 죄어 매는 매듭)을 가리킨다, 이 매듭은 지조가 굳은 애정을 상징한다.
 - ② 홀현초(忽見招): 홀연히 나타나서 손짓하며 부른다.
 - ☆현(見): 나타나다.
 - ☆초(招): 손짓으로(손짓하며) 사람을 부른다.
- 11) 유상 숙소협(幽賞夙所愜: 평소 맘에 들었던 곳에 가서 조용히 감상했네):
- ① 유상(幽賞): ‘유(幽)’는 조용하고 여유가 있는 모양을 표현한 것이고, ‘상(賞)’은 감상하다. 마음에 들어 하다는 뜻이다.
 - ② 숙소협(夙所愜): 평소 마음에 들었던 곳.
 - ☆숙(夙):
 - a. 평소예.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 b. 일찍이. 여러해 전. 이전. 왕년.

c. 공경(恭敬)(하다).

☆소협(所愜): 마음 맞았던 사람. 마음에 들었던 것(것). 본 시에서는 평소에 마음에 들었던(이끌렸던) 장소를 표현하는 말이다.

a. 소(所): 조사(助詞)로서 어떤 사어(詞語) 앞에 놓이고 조성된 ‘소(所)’자 구조는 일반적인 상황 하에서는 그 성질이 명사와 비슷하며, 이 때의 해석은 ‘…하는 사람, …하는 것(것)’이라고 해석한다.

b. 협(愜):

㉔ 만족하다. 호뭇하다. 마음에 들다(맞다)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㉕ 적합하다. 타당하다. 알맞다.

㉖ 마음으로(진심으로) 감복하다.

㉗ 협(陜)과 통하는 글자이다.

12) 연편 이삼자(聯翩二三子: <잠시 후> 군자 몇 사람이 연이어서):

① 연편(聯翩): 연이어서.

☆연속부단(連屬不斷): 잇대어 끊어지지 않는 모양을 형용한 말.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으며, ‘연이어서’라고 표현한다.

☆새가 나는 모양.

② 이삼자(二三子): 제군(諸君). 여러분. 그대들. 몇 사람.

☆이삼(二三): 비교적 적은 숫자(수량, 금액)를 나타내는 개략적인 수(數).

☆자(子): 군자(君子).

13) 임박(林薄): 서로 뒤섞여 우거진 초목. 초목이 뒤섞여 무성하게 우거진 곳. 『초사(楚辭)·구장(九章)·섬강(涉江)』편에, “노신(露申: 향초 이름으로 일명 목란木蘭이라고 함)과 신이(辛夷: 향초이름으로 일명 서향화瑞香花)가 초목이 우거진 숲속에서 고사枯死하네(露申 辛夷, 死林薄兮).”라고 읊은 구절이 있다. 후한(後漢)의 학자 왕일(王逸: 89?~158)이 『초사장구(楚辭章句)』에서, 이 글에 주(注)를 달기를, “수목이 우거진 것을 ‘림林’이라 하고, 초목이 뒤섞여 무성한 것을 ‘박薄’이라 한다(叢木曰林, 草木交錯曰薄).”고 하였다.

14) 심계 시기구(尋溪始崎嶇: 계곡을 찾아오면 지세가 험준하기 마련이나):

① 심계(尋溪): 연이어진 계곡, 또는 계곡을 탐방하다.

☆심(尋):

a. 찾다. 탐방하다.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b. 연속하다. 계속하다. 이어지다.

② 시기구(始崎嶇): 지세(地勢)가 험준하다.

☆시(始): 부사로 쓰여, ‘…하는 바로 그 순간에’의 뜻으로 쓰였다.

☆기구(崎嶇):

a. 지세나 도로가 험준함을 형용한 말.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b. 곤란하다. 험난한 (고생스런) 경험을 하다.

c. 산 넘고 물 건너다. 여러 곳을 돌아다니다.

15) 부암 선상활(俯巖旋桑豁: 암반을 굽어보니 금방 마음이 상쾌해지네):

① 부암(俯巖): 암반(암석)을 굽어보다.

② 선(旋): 부사로 쓰여, ‘곧. 금방. 이내.’의 뜻으로 쓰였다.

③ 상활(爽豁):

☆상랑(爽朗: 상쾌하고 명랑함)하다.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분명하다(현저하다. 명백하다. 뚜렷하다).

16) 교평 맥묘제(郊平麥苗齊: 들판에는 보리 싹이 가지런한데):

① 교평(郊平): 들판. 평야. 교외의 들판. 본 시에서는 ‘들판’으로 번역하였다.

② 맥묘제(麥苗齊): 보리 싹이 가지런하다.

☆맥묘(麥苗): 보리 싹.

☆제(齊): 가지런하다(가지런하게 자라다).

17) 봉만열(峯巒列): 산등성이 연이어지다.

① 봉만(峯巒): 끊임없이 이어진 산등성이.

☆만(巒): 본음은 ‘란’이며, ‘연산(連山: 능선이 서로 연결된 산)’의 뜻이다.

② 열(列):

☆벌이다. 늘어놓다. 나란히 하다.

☆줄을 짓다. 행렬을 이루다.

18) 미우 체래쇄(微雨遞來灑: 보슬비가 내리다 그쳤다 하는데):

① 미우(微雨): 이슬비. 가랑비. 보슬비.

② 체래쇄(遞來灑): 내리다 그쳤다 하며 보슬비가 오다.

☆체래(遞來): 보슬비가 내리다 그쳤다 하다.

a. 체(遞): ‘교체하다. 서로 번갈아들다’의 뜻으로 본 시에서는 (보슬비가) ‘내리다 그쳤다’하는 반복적인 상황을 묘사한 것이다. 또한 이 ‘체(遞)’자는 발음을 ‘서(逝)’로 읽으면, 뜻이 ‘서(逝: 가다)’와 통하며, 왕(往) 또는 거(去)의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여, ‘(비가) 그치다’의 뜻으로도 볼 수 있다

b. 래(來): 조사(助詞)로서, 시가(詩歌)나 속어(熟語) 등에 의미 없이 쓰여 어조를 고르게 하는데,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쇄(灑): 물을 뿌리다. 본 시에서는 ‘(보슬비가) 내리다’는 뜻으로 쓰였다.

19) 척번속(滌煩俗): 속세의 번거로움을 씻어준다.

① 척(滌): 씻다. 빨다. 제거하다. 쓸어버리다.

② 번속(煩俗): 속번(俗煩)이 도치된 말로서, ‘속세의 번거로움’이란 뜻이다. 속루(俗累: 세상살이에 얽매인 너저분한 일)와 같은 말이다.

20) 반형 좌일석(班荊坐日夕: 형초荊草를 깔고 앉아 해질녘까지 정회情懷를 풀었네):

① 반형(班荊): 반형도구(班荊道舊: 반형도고班荊道故): 직역하면, ‘형초(荊草)를 깔고 앉다’는 뜻인데, 이 말은 ‘친구와 우연히 길거리에서 만나 함께 거친 풀[荊草]이 있는 땅바닥에 앉아 정회(情懷)를 나누다.’는 말이다. 이 말은 ‘반형도구(班荊道舊)’라는 말과 같다. 이 말의 출전은 『좌전(左傳)·양공 26년(襄公二十六年)』 조항에 “이전에 초나라의 오참伍參은 채蔡나라의 태사太師인 공자 조朝와 교분이 있었고 (初, 楚伍參與蔡太師子朝友), 그의 아들 오거伍舉는 공자 조朝의 아들 공손公孫 성자聲자와 친하게 지냈다(其子伍舉與聲子相善也)……그래서 오거는 정鄭나라로 도망하였다가(伍舉奔鄭), 장차 곧 진짚나라로 도망가려 했다(將遂奔晉). 이때 채蔡나라의 성자聲자가 진짚나라에 가다가(聲子將如晉), 오거를 정나라 도읍의 교외에서 만나고는(遇之於鄭郊), 형초荊草를 깔고 앉아 식사를 하면서(班荊, 相與食), 오거의 복귀에 대해서 상의를 했다(而言復故).”고 한 대목이 있다. 서진(西晉)의 정치가이자 군사가이며 학자인 두예(杜預: 222~285)가 이

글에 주석하기를, “반반은 갈다(班, 布也)’는 뜻이다. 형초荊草를 깔고 땅바닥에 앉아(布荊坐地), 함께 초楚나라에 돌아갈 것을 논의하였으니(共議歸楚), 이는 벗을 사람이 대를 이어 친했음을 이른다(事朋友世親).”고 하였다. 후에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친구와 우연히 길거리에서 만나 이야기하다가 이별의 정회를 나눈다’는 뜻으로 이 말을 썼다.

☆반(班): 갈다.

☆형(荊): 좀목형: 마편초과에 속하는 낙엽관목(落葉灌木). 조선시대에 이두명칭은 완형(頑荊)·백형(柏荊)이었으며, 이명(異名)은 소형실(小荊實) 또는 모형실(牡荊實) 등이었다. 경기도 및 경상도에서 자라는 식물로 잎은 3~5개의 소엽(小葉)으로 구성된 장상복엽(掌狀複葉)이며 마주 난다. 소엽은 길이가 2~8cm로 피침형 또는 타원상 피침형이며, 뒷면에 잔털과 선점(腺點)이 있고 가장자리에 큰 톱니가 있거나 결각상(缺刻狀)이다. 거담·진해·진통 작용이 있어서 해소와 천식, 복통의 약으로 이용된다. 또한 어린이의 천식해소에도 긴요하게 이용된다. 이 형초의 길이는 10~30cm이다. 이는 길쭉에 나는 식물로 본 시에서는 거친 잡초의 뜻으로 쓰였다.

② 일석(日夕):

☆해질 무렵. 해질녘.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조석(朝夕). 밤낮.

21) 도상 이운고(道想已云高: 심지心志를 표현함어 심히 고상한지라):

① 도상(道想): 심지(心志)를 표현하며, ‘도사(道思)’와 같은 뜻으로 봐야 한다.

② 이운고(已云高): 고상한 것이 있다.

☆이(已): 심히. 아주. 매우. 몹시.

☆운(云): 동사로써, ‘유(有: 가자다)’와 같은 뜻으로 쓰였다. 『시경(詩經)·대아(大雅)·상유(桑柔)』에, “백성에게 불리한 일을 하는 것이, 마치 못다 한 일이 있는 것처럼 하니(爲民不利, 如云不克).”라고 읊은 구절이 있다. 청(淸)나라 학자 왕념손(王念孫: 1744~1832)은 『광아소증(廣雅疏證)·석고편(釋詁篇)1』에서 이 시경 구절을 해석하면서, ‘여운불극(如云不克)’이란 낱구는 “못 다한 일이 있는 것처럼 말하다’는 말이다(言如有不克也).”고 하였다.

☆고(高): 고상하다.

22) 무역(無數): 끝이 없다. 무진(無盡)하다.

① 역(數):

☆끝나다. 종료하다.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힘오하지 않다. 싫증나지 않다[釋].

23) 경문 절부리(敬問節婦里: 절부節婦가 사는 마을을 삼가 묻다):

① 경문(敬問): 삼가 묻다.

☆경(敬): 몸가짐이나 언행을 조심하다(삼가다).

② 절부리(節婦里): 절부(節婦)가 사는 마을.

☆절부(節婦): 정절(貞節)이 곧은 부인. 절개를 지키는 부인. 옛날에 수절(守節)하면 절부(節婦)라 하고, 순절(殉節): 정절(貞節)을 지키기 위해 죽음을 하면 열녀(烈女) 또는 열부(烈婦)라 하였다.

24) 가탄 인현적(嘉嘆仁賢績: 인자仁者와 현자賢者가 이어졌다는 사실에 찬탄하네):

- ① 가탄(嘉嘆) : 가탄(嘉歎)이라고도 쓴다. 찬탄(讚嘆 : 찬탄讚歎)하다. 칭찬하며 감탄하다.
- ② 인현(仁賢) :
 ☆어진 사람과 현명한 사람을 아울러 이르는 말.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마음이 어질고 현명하다.
- 25) 전거(廛居) : 전택(廛宅) : 성읍(城邑)에 사는 백성들의 주택. 평민들의 읍내 주택.
- ① 전(廛) :
 ☆고대 평민이 성읍(城邑)내에 점유하고 있던 택지. 후세에 와서는 일반적으로 ‘민가(民家)’ 또는 ‘집포’를 이르는 말로 썼다.
 ☆고대 국가기관에서 건축하여 상인에게 제공하여 화물을 보관하던 저사(邸舍 : 상점).
- 26) 식차 평봉적(息此萍蓬跡 : 이곳에서 정처 없는 행적을 멈추고 싶다하네) :
 ① 식차(息此) : 이곳에서 멈추다.
 ☆식(息) :
 a. 그치다. 그만두다. 중지하다.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b. 살다. 생활하다.
 c. 생존하다.
 d. 자라다. 키우다.
 ☆차(此) : 이곳, 남계정사(南溪精舍) 일대를 가리킨다.
- ② 평봉적(萍蓬跡) : 평초(萍草)와 봉(蓬)의 행적처럼 일정한 거처가 없는 이 양물(兩物)의 물성(物性)에서 시인은 당시 객체의 유랑하는 상황을 빗대어 표현한 말이다.
 ☆평봉(萍蓬) : 평(萍 : 부평초) · 봉(蓬 : 쑥(국화과의 여러해살이 풀)) 모두 다년생 초본식물이다.
 부평초(浮萍草)가 떠다니고 (가을이 되면) 말라빠진 쑥 줄기가 바람에 날린다는 뜻으로 각처로 떠돌아다니며 거처가 일정하지 않는 것을 비유한 말이다. 비슷한 말로서 ‘평적(萍跡 : 평적萍迹)’이란, 말이 있다. 이는 ‘부평초가 떠난다’는 뜻으로, 역시 ‘사람이 사방으로 떠돌아다니며 정처(定處)가 없음을 비유한 말’이다.
 ☆적(跡) : 명사로는 행적(行迹). 동사로는 따르다. 뒤쫓다.
- 27) 침음 초은편(沈吟招隱篇 : 『초사楚辭 · 초은사편招隱士篇』을 낮은 목소리로 음미하다가) :
 ① 침음(沈吟) : 침음(沈吟)으로도 쓴다.
 ☆입속으로(낮은 소리로) 웅얼거리다. 저성(低聲)으로 음미(吟味)하다.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병, 죄 따위가) 심각하다.
 ☆심사(深思)하다. 깊이 생각하다.
 ☆주저하다. 망설이다.
- ② 초은편(招隱篇) : 전국시대(戰國時代) 초(楚)나라의 정치가이자 시인인 굴원(屈原 : 약 BC 339~BC 278)을 애도해서 한초(漢初) 회남왕(淮南王) 유안(劉安 : BC 179~BC 122)의 빈객(賓客) 회남소산(淮南小山)이 지은 『초사(楚辭) · 초은사편

『招隱士篇』을 가리킨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언급하면, 당시 한초(漢初)를 살았던 유안은 문학애호가로 많은 문사를 초빙하여 사부(辭賦)를 저작하였다고 전해진다. 이때에 이들의 작품들은 종류별로 어떤 것은 「소산(小山)」이라 칭하고 어떤 것은 「대산(大山)」이라 칭하였다고 『초사장구(楚辭章句)』의 편찬자인 왕일(王逸: 약 89~158)은 말했다. 그 뜻은 『시경(詩經)』의 「소아(小雅)·대아(大雅)」와 같다. 이렇게 볼 때, 본편의 편찬자로 전해지는 회남소산이 반드시 작가의 명호(名號)라고 할 수는 없다. 말하자면 문예작품의 명칭일 수도 있고 문예단체의 칭호일 수도 있다. 왕일은 본편이 “굴원을 가엾게 여겨 마음 아파하면서 지은 작품이다(閔傷屈原之作).”라고 하였다. 『초사』 중에서도 본편은 특징이 있으니, 그것은 편중(篇中)에 직접적인 서정을 극히 적게 쓰면서 형상(形象)을 정교하게 묘사하는 동시에 기분을 극력 과장해서 표현하였다. 그렇게 해서 복잡하게 얽힌 깊은 정서와 정감을 표출했기에 본편은 심원한 마음의 경지가 담긴 서정시이다. 이러한 까닭으로 명말청초(明末清初)의 학자 왕부지(王夫之: 1619~1692)는 『초사통석(楚辭通釋)』에서, “그 「초은사편(招隱士篇)」은 「이소(離騷)」 뒤에 첨부해도 좋을 듯한 작품으로(其可以類附「離騷」之後者), 음절의 구성이 명랑하고 격양되어 있는데다가(以音節局度, 瀏亮昂激), ‘초사’의 여운을 계승했는지라, 다른 사부(詞賦)와 비할 바 아니다(紹「楚辭」之餘韻, 比他詞賦之比).”고 하였다. (본 주석은 귀주인민출판사貴州人民出版社, 황수기黃壽祺·매동생梅桐生 역주譯注의 『초사전역(楚辭全譯)·초은사(楚隱士)』의 해제解題를 참조한 것임)

28) 진중 벌단곡(珍重伐檀曲): 『시경詩經·위풍魏風』의 「벌단伐檀」을 읊으며 정중히 훈계했네):

- ① 진중(珍重): 정중하게(신중하게, 엄숙하게, 진지하게) 훈계하다.
- ② 벌단곡(伐檀曲): 『시경(詩經)·위풍(魏風)』 중의 편명인 「벌단(伐檀)」을 가리킨다.

☆벌단(伐檀: 박달나무를 베다): 본편의 「모시소서(毛詩小序)」에 의하면, “탐욕을 풍자한 것이다(刺貪也). 관직에 있으면서 탐욕스럽고 비열하며(在位貪鄙), 공로가 없으면서도 녹봉을 받기에(無功而受祿), 참된 군자는 출사出仕할 수 없을 따름이었다(君子不得進仕爾).”고 하였다. 이는 당시 위(魏)나라 노동자들이 착취계층인 관리들의 불노소득(不勞所得)하는 무도한 현실을 풍자한 시이다. 한 무리의 노동자들이 강변에서 벌목하여 착취자들에게 수레를 만들어 주어야 했다. 이때 노동자들이 즉흥적으로 부른 시가(詩歌)가 바로 이 시이다. 어떤 사람들은 댓가 없이 남을 위해 노역(勞役)을 해야 하고, 어떤 사람들은 일하지 않고도 수확을 거두는 이 불합리한 수탈제도를 폭로하고 있다. 그래서 착취에 대한 증오와 반항정신을 격양된 감정으로 표현함으로써 시형식 역시 소박한 전통시구인 4언시가 아닌 감정의 기복(起伏)에 부합되는 잡언의 시체(詩體)로 표현하였다. 후세 사람들은 이 ‘벌단(伐檀)’이란 말로서, ‘탐욕스럽고, 비열한 벼슬아치가 하는 일 없이 자리만 차지하고 국물을 받아먹는 까닭에, 정작 현자(賢者)는 벼슬길로 나아갈 수 없는 현실을 풍자한 전고(典故)’로 삼았다.

29) 주모(誅茅): 주모(誅茆)로도 쓰며, ‘벌초(伐草)하다’는 뜻이다.

- ① 주(誅): 제거하다. 베다.
- ② 모(茅): 모초(茅草: 락풀: 벼과의 다년초. 근경根莖은 약용, 잎은 지붕을 임. 줄기는 30~

60cm이고, 앞은 뿌리에서 모여 남). 본 시에서는 무덤 주변의 잡초를 가리키는 말로 쓰였다.

30) 수년(隨年): 시기(時期)에 따라. 틈이 나는 대로. 본 시에서는 시기에 맞추다는 뜻으로 쓰였다.

① 수(隨): ...에 따라. ...를 따라. ...를 따르다. ...에 맡기다.

② 년(年): 날자. 시기(時期). 일기(日期: 특정한 날짜. 기간). 기간. 연령. 본 시에서는 ‘시기’로 번역하였다.



시45. 선몽대仙夢臺에서 퇴계선생의 시 「선몽대」의 시운詩韻을 차운次韻하여

詩45. 仙夢臺 次退溪先生韻¹⁾
선 몽 대 차 퇴 계 선 생 운

高臺登眺若憑虛²⁾,
고 대 등 조 약 빙 허

높은 누대樓臺에 올라 조망하니
하늘에 떠 있는 것 같았고,

漁釣生涯我不如³⁾.
어 조 생 애 아 불 여

물고기 잡고 낚시질 하는 삶도 있는데
나는 그렇지 못했네.

花落半庭春事晚⁴⁾,
화 락 반 정 춘 사 만

떨 절반이나 낙화 깔려 봄 풍경도
이미 끝나가니,

碧簷松影更蕭疎⁵⁾.
벽 첨 송 영 쟁 소 소

처마 푸르도록 드리워진 소나무 그늘
더욱 적막하네.

1) 선몽대 차퇴계선생운(仙夢臺 次退溪先生韻 : 선몽대仙夢臺에서 퇴계선생의 선몽대의 시운을 차운하여) :

① 선몽대(仙夢臺) : 경북 예천군(醴泉郡) 호명면(虎鳴面) 백송리(白松里) 내성천(乃城川) 남쪽 우암산(遇巖山) 기슭에 있는 정자(亭子)이다. 선몽대는 1563년(명종 19)에 퇴계(退溪) 이황(李滉 : 1501~1570)의 종손자(從孫子 : 형이나 아우의 손자)이자 문하생인 우암(遇巖) 이열도(李閱道 : 1538~1591)*가 창건하였다. 누대에 오르면 선경에 비길 만큼 경치가 아름답다. 동서로 흐르는 내성천의 모래밭이 한 눈에 들어오고, 누대 아래에는 가늘고 긴 냇물이 굽이쳐 흐르고 뒷산에는

바위가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으며 산 중턱에는 약수터가 있다. 정자주변에는 노승이 올장하다. 이열도의 유고(遺稿)와 유물(遺物)을 장서각에 보관하였으나, 1924년 화재로 소실되고 퇴계 이황의 친필 편액(扁額)과 약포(藥圃) 정탁(鄭琢: 1526~1605) · 서애(西厓) 류성룡(柳成龍: 1542~1607) · 청음(淸陰) 김상헌(金尙憲: 1570~1652) · 한음(漢陰) 이덕형(李德馨: 1561~1613) · 학봉(鶴峯) 김성일(金誠一: 1538~1593) 등의 시문(詩文)을 당시의 명인들이 기록한 제영록(題詠錄)과 심유록(尋遊錄)만이 보관되어 있다. 매년 정월 보름에 이곳에서 동제(洞祭)가 열리며, 2006년 명승 제19호로 지정되었다. 예천군 및 진성이씨(眞城李氏) 백송파(白松派) 종중(宗中)에서 관리하고 있다.

*이열도(李閱道: 1538~1591): 본관은 진성(眞城), 호는 우암(遇巖)이며, 황해도 웅진현(熊津縣: 지금의 웅진군)의 기린도(麒麟島: 당시 현縣의 남쪽 30리에 위치한 섬) 찰방(察訪: 각 도의 역참驛站을 관리하던 종6품의 외직外職으로 공문서 전달과 공무수행으로 방문한 관리들의 편리를 도모하였음)을 역임한 이평(李宏: 1515~1573: 퇴계 이황의 둘째 형인 이하(李河: 1482~1544)의 둘째 아들로 퇴계의 조카이며, 진성이씨 백송파 입향조임. 백송리 난산卵山에는 백송마을 진성이씨 입향조인 이평과 그의 아들 우암 이열도의 묘소가 조성되어 있음)의 아들이다. 1576년(선조 9)에 과거에 급제하여 정자(正字: 조선시대 교서관校書館 · 홍문관弘文館 · 승문원承文院의 정9품 관직)를 시작으로 벼슬길에 올라 박사(博士: 조선시대 성균관 · 홍문관 · 승문원 · 교서관 등에 두었던 정7품 관직) · 사헌부감찰(司憲府監察: 사헌부 소속의 종6품 관직) · 예조정랑(禮曹正郎: 조선시대 예조소속의 정5품 관직) 등의 관직을 역임하였다. 1585년(선조 18)에 외직인 고령현감(高靈縣監)으로 부임하여 선정(善政)을 베풀었으며, 평안도사(平安都事: 평안도 관찰사를 보좌하는 종5품 관직)로 승진하였다. 1587년(선조 20)에 다시 내직(內職)인 형조정랑(刑曹正郎: 형조 소속의 정5품 관직)이 되었다. 이때 경상도 경산군(慶山郡)에 흉년이 들어 민심이 피폐해지자 고을을 다스릴 책임자로 대신들이 우암을 천거하였다. 우암은 군수로 부임한 후에 사비를 들여 굶주린 군민(郡民)을 구휼하고 향교를 설립하는 동시에 농업을 장려하였다. 또한 공정한 과세(課稅)를 부과하면서 1년 만에 경산군은 안정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감사(監司)가 만나자는 연락이 와서 가보니 책의 표지를 써달라는 것이었다. 글씨를 잘 써서 특별히 그런 주문을 했을 것이나, 우암의 생각은 달랐다. 사적(私的)인 일로 바쁜 공직자를 오라 가라 하는 것은 직위가 높은 감사라도 부당한 처사라며 그 길로 사직하고 더 이상 관직에 머물지 않았다고 한다. 귀향한 우암은 선몽대를 짓고 후학을 가르치며 자연을 벗 삼으며 생애를 마감했다.(내이버 지식백과 참조)

- ② 차퇴계선생운(次退溪先生韻: 퇴계선생의 선몽대仙夢臺의 시운詩韻을 차운하여): 선몽대 안으로 들어가면 동쪽으로 퇴계 선생이 직접 쓴 ‘선몽대’라는 현판이 걸려있고 그 건너편에는 선생이 ‘선몽대’라는 시제(詩題)로 지어 부친(寄題仙夢臺) 7언절구시의 시판(詩板)이 걸려있다. 서애선생은 퇴계의 본 시에서 ‘허(虛) · 여(如) · 소(疎)’의 운자(韻字)를 차운하여 위의 시를 작성하였다. 퇴계의 원시(元詩)를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노승과 누대는 푸른 하늘로 솟아있고,
 백사장과 청산풍경 이같이 그리려도 어렵겠네.
 나 이제 밤마다 선몽대 난간에 기대는 꿈꿀지니
 전에 자주 와서 감상 못한 걸 한탄하지 않으리.

松老高臺插翠虛，
 白沙青壁畫難如。
 吾今夜夜凭仙夢，
 莫恨前時趁賞疎。

그리고 시의 말미에는 “우암의 명승지를 마(魔 : 마귀魔鬼)가 많이 끼여 가보지 못하게 된 관계로, 지금까지 꿈속에서만 그리다가, 절구 시 한 수를 지어 뜻을 전하며 위안했던 까닭에, 그것을 누대樓臺의 이름으로 쓰게 한다(遇巖之勝多魔不遇，至今夢想不已，聊以一絕寄意，因以名臺云).”는 연유를 밝히고 있다. 또한 시판(詩板)에는 가정 계해년(嘉靖 癸亥年 : 1563)으로 기록되어 있어, 작시(作詩) 시기를 선몽대라는 현판을 쓰시고 본 시를 지은 것이 아닌가 짐작이 갈 뿐이다. 왜냐하면, 후학들로부터 작시시기에 대한 주장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다.

- 2) 고대등조 역빙허(高臺登眺若憑虛 : 높은 누대 올라 조망하니 하늘에 떠 있는 것 같았고) :

① 고대(高臺) :

☆높이 건축한 누사(樓榭 : 다락집으로 된 정자亭子). 높은 곳에 지은 정자. 본 시에 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높은 지대. 높고 평평한 지면

② 등조(登眺) : 높이 올라가서 조망(眺望)하다.

③ 빙허(憑虛) : 능공(凌空 : 하늘 높이 솟아오르거나 공중에 우뚝 솟음). ‘빙허’는 ‘하늘밖에 기댈 곳이 없을 만큼 높이 솟아오르다’라는 말로서, ‘허공에 떠 있는 것 같음’을 표현한 말이다.

☆빙(憑) : 기대다.

☆허(虛) : 하늘. 허공.

- 3) 어조생애 이불여(漁釣生涯我不如 : 물고기 잡고 낚시질 하는 삶도 있는데 나는 그러지 못했네) :

① 어조(漁釣) : 물고기 잡고 낚시질 하다.

② 생애(生涯) : 살아있는 한평생의 기간. 일생동안. 일평생.

③ 불여(不如) :

☆부합되지 않다. 서로 일치하지 않다.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으며, 서에 자신의 환경과는 많이 달랐음을 가리키는 말로 쓰였다.

☆...만 못하다. ...하는 편이 낫다.

☆...와 같지 않다.

- 4) 춘사만(春事晩) : 봄 풍경이 끝나간다.

① 춘사(春事) :

☆춘색(春色 : 봄 경치) 혹은 춘의(春意 : 봄기운. 봄 빛).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춘경(春耕 : 봄에 하는 논밭갈이).

② 만(晩) :

☆때가 늦다. 끝나간다.

☆저물다.

5) 소소(蕭疎) : 소소(蕭疏)로도 쓴다.

① 적막하다. 쓸쓸하다.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② 청려(淸麗)하다. 맑고 산뜻하다.

③ 의성어로서 말 울음소리, 비바람 소리, 물 흐르는 소리, 초목이 바람에 흔들리거나 낙엽이 떨어지는 소리, 약기 소리 등을 형용한 말. 본 시에서는 가을바람소리를 형용한 말로 쓰여서, ‘좌좌’로 번역하였다.

④ 희소(稀疏)하다. 드물다. 성기다.

⑤ 초라하다. 누추하다.

⑥ 소탈하다. 산뜻하다. (모습·행동 등이) 시원스럽다.



시46. 우영 偶詠

詩46. 偶詠¹⁾

茅簷細雨晚丁東²⁾,
모 윽 세 우 만 정 동

보슬비 내리면서 날 저물자
초가집에 처마물이 똑똑 떨어지고

古木蕭蕭八月風³⁾.
고 목 소 소 팔 월 풍

고목나무에는 쇠쇠 가을바람이
불어오네.

終日小軒⁴⁾愁獨坐,
종 일 소 현 수 독 좌

종일 작은 방에서 수심에 겨워
홀로 앉았는데,

一江青壁有無中⁵⁾.
일 강 청 벽 유 무 중

즐근 강이며 푸른 절벽이
심중에 머물렀다 사라졌다 하네.

- 1) 우영(偶詠 : 우연히 읊다) : 본 시는 근체(近體) 악부절구(樂府絕句)이다. ‘영(詠)’은 악부(樂府)의 편명(篇名)의 하나이다. ‘악부(樂府)’란, 말은 한무제(漢武帝)가 설치한 음악관서의 명칭에서 시작된 것으로, 당초에는 이 악부에서 각 지방의 민가를 채집하였고, 또한 작곡도 하여 조정의 행사 때 노래로 부르게 하였다. 이때 불러진 노래의 곡조는 알 길이 없으나, 가사(歌辭)가 전해지면서 악부라는 관서명칭이 시체(詩體)의 명칭으로 불리게 되었다. 그리하여 후인들은 이를 악부시(樂府詩)라고 칭한다. 악부시의 내용은, 주로 인생의 애환과 풍속 등을 사실에 의거하여 읊었다. 악부시는 5언, 혹은 7언 및 기타 잡언(雜言)으로 이루어진 장단구(長短句)의 형식이나, 한대(漢代) 후기로 오면, 5언구 중심으로 형식화 되는 경향을 보였다.

악부(樂府)의 편명(篇名)은 사구(辭句)에서 따낸 것, 뜻으로 붙인 것, 악조(樂調)를 따온 것을 비롯하여 그 종류가 다양하다. 이를테면, 위의 ‘영(詠: 말을 늘인 것을 ‘영’이라 칭함)’ 외에도, 가(歌)·행(行)·요(謠)·음(吟)·곡(曲)…, 등이 있다. 주로 서사적(敘事的)인 장편의 시로 가창(歌唱)이 되는 것은 ‘가(歌)’라 하고, 겉다가 달리듯이 성기면서도 막히지 않는 노래는 ‘행(行)’이라고 하며, 또한 가(歌)와 행(行)을 합친 것은 ‘가행(歌行)’이라고 한다. 그리고 고저장단을 따라 미세한 마음의 정을 노래한 것은 ‘곡(曲)’이라 하고, 아! 하고 탄식하고 슬픔과 걱정으로 깊이 생각하여 얹힌 것을 노래하는 것은 ‘음(吟)’이라 한다. 또 악기의 반주 없이 노래만 하는 민가(民歌) 등은 도가(徒歌)로서, 이를 보통 ‘요(謠)’라고 한다.(『명대明代 오눌(吳訥: 1372~1457)의 『문장변체(文章辨體)』에 보임) 이와 같이 악부시는 제목에 이러한 글자를 써서 고시(古詩)와 구분되게 하였다.

- 2) 모침세우 만정동(茅簷細雨晚丁東: 보슬비 내리면서 날 저물자 초가집 처마에 똑 똑 떨어지고):

- ① 모침(茅簷): 모침(茅檐)으로도 씀. 초가지붕의 처마를 칭한다.
- ② 세우(細雨): 가랑비. 이슬비, 보슬비.
- ③ 정동(丁東): 의성어(擬聲語)로서, 옥 따위가 서로 부딪쳐 나는 소리이다. 이를테면, 풍경(風磬) 따위가 울리는 소리, 방울소리, 공후(箜篌: 하프와 비슷한 동양의 옛 현악기)가 울리는 소리, 말방울이 울리는 소리, 물방울이 떨어지는 소리 등을 형용하는 말인데, 본 시에서는 보슬비가 처마 끝에서 낙수물이 되어 떨어지는 소리를 형용한 것이니 ‘똑똑’으로 해석한다.

- 3) 고목소소 팔월풍(古木蕭蕭八月風: 고목나무에는 쇠쇠 가을바람이 불어오네):

- ① 소소(蕭蕭): ☆의성어로서 말 울음소리, 비바람 소리, 물 흐르는 소리, 초목이 바람에 흔들리거나 낙엽이 떨어지는 소리, 악기 소리 등을 형용한 말. 본 시에서는 가을바람 소리를 형용한 말로 쓰여서, ‘쇠쇠’로 번역하였다. 기타 자세한 뜻은 앞의 「시 45」의 주석5)를 참조바람.
- ② 팔월풍(八月風): 음력 팔월에 부는 바람. 24절기의 하나인 입추(立秋)가 음력으로는 초가을, 즉 맹추월(孟秋月)인 7월이 되며, 양력으로는 8월 8일이나 9일경이 된다. 음력 8월은 ‘가을이 한창인 달’이란 의미의 ‘중추월(仲秋月)’이라 중추절(仲秋節: 추석秋夕)이 들어 있는 달이다. 따라서 본 시에서는 ‘음력 8월에 부는 바람’이란 의미에서 쓴 ‘8월풍’은 곧 ‘가을바람’을 가리키는 뜻으로 쓰였다고 봐야 한다. 앞의 「시43」의 주석5)의 ① ‘절서(節序)’ 조항을 참조바람.

- 4) 소헌(小軒): 작은 방.

- ① 헌(軒): ☆방(房). 방.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후한서(後漢書)·연독전(延篤傳*)』에, “저녁이 되면 안채 섬돌계단에서 소요하다가, 남쪽 방에서 『시경(詩經)』을 읊었다(夕則逍遙內階, 詠『詩』南軒).”고 한 대목이 있다.
*연독(延篤: ?~167): 자는 숙견(叔堅), 후한의 경조윤(京兆尹: 경기지방의 행정장관 중의 하나)을 역임한 문인이다.
☆사방이 탁 트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건축물. 예를 들면, 정자(亭子). 누각(樓閣) 등이 있다.

☆수레.

☆차마.

☆난간.

- 5) 일강청벽 유무중(一江靑壁有無中 : 줄곧 강이며 푸른 절벽이 심중에 머물렀다 사라졌다 하네) :

① 일강청벽(一江靑壁) : 줄곧 강과 푸른 절벽이.

☆일(一) : 시종(始終). 줄곧.

☆강(江) : 본 시에서는 부용대(芙蓉臺) 앞을 흐르는 화천(花川), 곧 낙동강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청벽(靑壁) : 푸른 절벽으로, 이는 부용대(芙蓉臺)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② 유무중(有無中) : 심중에 머물렀다 사라졌다 하다.

☆유무(有無) : 머물렀다 사라졌다. 나타났다 사라졌다.

☆중(中) : 이때의 ‘중(中)’은 ‘내심(內心), 심중(心中)’의 뜻이다.



시47. 북애정사北厓精舍를 창건한지 10년, 그
 동안 재력財力이 급격히 위축되어, 자칫
 공사를 완공하지 못할 뻔 했었다. 승려
 탄홍誕弘도 분발하여 일을 도맡아
 처리해서, 마루와 방이며 창과 문 등
 모든 것을 갖추었다가, 내가 사직 하고
 귀향하는 날에 적절하게 맞추어서, 내
 집이 마침내 완공되었으니, 하늘에도
 당연히 재앙을 물리쳐 달라는 제사를
 올렸다. 너무 기뻐서 다시 이전의 시운詩韻을
 차운次韻하여 읊는다

詩47. 北厓精舍草創十年¹⁾ 中間財力遽屈²⁾ 幾不能成³⁾
 북 애 정 사 초 창 십 년 중 간 재 력 거 굴 기 불 능 성
 弘也發憤營辦⁴⁾ 堂齋窓戶皆具⁵⁾ 適會余退歸之日⁶⁾
 홍 야 발 분 영 판 당 재 창 호 개 구 적 회 여 퇴 귀 지 일
 而吾舍有成 天公固解事也⁷⁾ 喜甚更次前韻⁸⁾
 이 오 사 유 성 천 공 고 해 사 야 희 심 갱 차 전 운

靑山數疊如拱揖⁹⁾, 청산이 겹겹이 둘러싸서 호위하는 듯한데,
 청 산 수 겹 여 공 읊

碧玉一片秋江虛¹⁰⁾。 옥같이 푸른 가을 강에 하늘이 잠겨있네.
 벽 옥 일 편 추 강 허

孤亭¹¹⁾十年僅有成, 외딴 곳의 정자 한 채 십년 만에
 고 정 십 년 근 유 성

저우 완공했으니,

從今辦作幽人居¹²⁾。
중금관작유인거

이제부터 은자隱者의 거처로
쓸 수 있게 되었네.

幽人遠赴蓴鱸¹³⁾約,
유인원부순로약

선비가 멀리서 찾아오면
순채蓴菜와 농어 대접하고,

江風細拂紅塵裾¹⁴⁾。
강풍세불홍진거

강바람은 옷자락에 묻은
세속의 먼지 털어 내네.

山僧有志事竟諧¹⁵⁾，
산승유지사경해

산승山僧은 뜻한 바 있어
이 공사 마침내 완공했고,

小園脩竹依江墟¹⁶⁾。
소원수죽의강허

뜰 안에 자란 맛있는 대나무
강 언덕에도 무성하네.

研朱點易碧窓寒¹⁷⁾，
연주점이벽창한

방집 짚어가며 역경易經 공부하는데
벽창碧窓으로 한기 들지만,

歲晚相從吾與渠¹⁸⁾。
세만상종오여거

만년에 이르러 나와 그는
서로 친하게 지낸다네.

1) 북애정사 초창십년(北厓精舍草創十年 : 북애정사를 창건한지 10년) :

- ① 북애정사(北厓精舍) : 옥연정사(玉淵精舍) : 경북 안동시 풍천면(豐川面) 하회리(河回里)의 서북쪽 강 건너 광덕리(廣德里) 솔숲 옆에 있는 해발 64m인 절벽이 ‘부용대(芙蓉臺)’이다. 이 부용대를 처음에는 ‘북애(北厓 : 하회마을 북쪽에 있는 절벽)’라고 하였다. 본 시제(詩題)에 쓰인 ‘북애정사(北厓精舍)’는 ‘북애(北厓 : 부용대)에 있는 정사(精舍)’란 뜻으로, ‘옥연정사(玉淵精舍)’를 대칭(代稱)하는 말로 쓰인 것이다. 옥연정사는 부용대 동쪽 강가에 자리 잡고 있다. 부용대에 있는 정사(精舍)로는 겸암정사(謙庵精舍 : 부용대 서쪽 강가에 있음)도 있으나, 이는 서에(西厓) 류성룡(柳成龍 : 1542~1607)의 만형인 겸암(謙巖) 류운룡(柳雲龍 : 1539~1601)이 지은 정사이다. 본 시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서애가 쓴 「옥연서당기(玉淵書堂記)」* 전문(全文)을 여기 주석(註釋) 자료로 번역하여 실는다.

*옥연서당기(玉淵書堂記) : 내가 이미 원지정사(遠志精舍)를 지어 놓고도 여전히

한스러웠던 것은 촌락이 너무 가까워 그윽한 맛을 누리지 못해서였다(余既作遠志精舍, 猶恨基村墟近, 未燁幽期). 북담(北潭 : 북쪽 소(沼) : 하화마을 북쪽에 위치한 부용대 앞의 낙동강은 못처럼 깊다하여 지어진 명칭. 옥연소玉淵沼라고도 함)을 건너서 절벽 동쪽에 특이한 터를 잡았는데, 앞에는 호수의 풍광을 지니고 뒤로는 높은 언덕을 등지고 있으며, 오른쪽에는 붉은 벼랑이 치솟아 있고, 왼쪽은 백사장이 떠를 두른 듯한 곳이다(渡北潭於石崖, 東得異處焉. 前挹湖光 後負高阜, 丹壁峙其右, 白沙縈其左). 남쪽으로 바라보면 멀리 못 산봉우리들이 들쭉날쭉 겹겹이 늘어서서, 둘러싸고 호위하는 듯한 모습이 마치 한 폭의 그림이요, 어촌의 집 몇 채가 안개 낀 나무 사이로 은은하게 보인다. 화산花山은 북쪽에서 남쪽으로 이어져 오다가, 강을 사이에 두고 옥연정사와 마주하고 있는데, 달이 동쪽 산봉우리에서 떠오를 때 마다, 청량한 산 그림자가 거꾸로 드리워져서, 북담 호수에 반쯤 잠기는데도, 잔잔한 물결하나 일어나지 않으면서, 금빛 달과 푸른 산의 그림자가 비치는 풍경이야말로, 유달리 관상觀賞할만한 것이었다(南望則群峰錯立, 拱揖如畫, 漁村數點隱暎烟樹間. 花山自北而南, 隔江相對, 每月出東峰, 寒影倒垂, 半寢湖水, 纖波不起, 金壁相涵, 殊可玩也). 그 터가 인가와 그리 멀지 않으나, 앞에는 깊은 소(沼 : 북담北潭)가 막고 있어, 사람이 오고자 해도, 배가 아니면 건널 수가 없었다. 그래서 배를 북쪽 강기슭에 매어 두면, 방문객이 와서 백사장에 앉아서, 이쪽을 향해 소리쳐 부르다가 응답이 없으면, <대개> 한참을 기다리다가 <스스로> 돌아가게 되니, 이것 또한 세상을 피해 조용하게 은둔하고 사는 일에 한 가지 도움이 된다(地去人烟不甚遠, 而前阻深潭, 人欲至者, 非舟莫通. 舟艤北岸, 則客來坐沙中, 招呼無應者, 良久乃去, 亦遁世幽棲之一助也). 그래서 내가 마음속으로 이런 것을 즐겨워하여, 조그만 집을 지어서, 만년에 조용히 거처하는 곳으로 삼고자 했으나, 집안이 궁색한 것을 돌아보니 도무지 계획을 세울 수 없었다(於是余心樂之, 欲作小宇, 爲靜居終老之所, 顧家貧無計). 그때 마침 승려 단홍誕弘이란 자가, 그 건축을 주관하고, 곡식과 피륙으로 물자를 대겠다고 자원自願하였다(有山僧誕弘者, 自薦幹其役, 資以粟帛). 건축을 시작한 병자년(丙子年 : 1576년, 선조 9, 서에 35세)으로부터 10년이 지난 병술년(丙戌年 : 1586년, 선조 19, 서에 45세)에야 겨우 거주할 만하게 되었다(自丙子始, 越十年丙戌租成可棲息). 집 구조에 있어서, 대청[堂]으로 쓰는 마루는 두 칸의 넓이로, 감록헌(瞰綠軒 : 푸른 산천을 조망하는 마루 : 지금의 '사랑채'라고 하는 곳의 대청)이라고 불렀으니, 왕희지王羲之의 “고개 들어 하늘가를 우러러 보다가, 고개 숙여 파란 물굽이를 내려다 본다네”라는 말에서 취한 것이다(其制, 爲堂者二間, 名曰瞰綠, 取王羲之“仰眺碧天際, 俯瞻綠水隈”之語也). 이 대청[堂]의 동쪽으로, 연거(燕居 : 은퇴하여 한가閑居함)하는 두 칸 넓이의 방이 있는데, 이름하여 세심재(洗心齋 : 마음을 씻는 집이라는 뜻으로 지금의 사랑채에 있는 방)라고 하였으니, 『주역(周易)』의 계사繫辭 가운데의 말을 취한 것으로, 그 의미는 누구든 여기서 일을 하는 사람이면, 만에 하나라도 그렇게 마음을 씻기를 바라서였다(堂之東, 爲燕居之室二間, 名曰洗心, 取易繫辭中語, 意或從事於斯以庶幾萬一爾). 또 북쪽에 있는 재(齋 : 집)는 세 칸 넓이의 집인데, 이곳을 지킬 승려를 위해, 선가禪家의 말을 취하여, 완적재(玩寂齋 : 적멸寂滅 곧 열반의 경지를 관상하는 집이란 뜻

로 지금의 ‘안채라고 부르는 집’라 이름을 지었다(又齋在北者三間, 以舍守僧取禪家說, 名曰玩寂). 또 동쪽에는 두 칸 넓이의 집인데, 벗이 방문하면 접대하는 곳으로, 원락재(遠樂齋 : 지금의 ‘별당채라고 부르는 집’)라고 이름 하였으니, 『논어(論語)·학이편(學而篇)』에 나오는 “벗이 먼 곳에서 찾아오니 즐겁지 아니한가(有朋自遠方來不亦樂乎)!”라는 뜻에서 취한 것이다(東爲齋二間, 以待朋友之來訪者, 名遠樂, 取自遠樂乎之語). <동쪽에 있는> 원락재에서 서쪽으로 나가면, 두 칸 넓이의 작은 뒷마루가 있는데, 세심재와 나란히 있는 것으로, 애오헌愛吾軒이라고 이름 하였으니, 도연명陶淵明의 「산해경을 읽고 나서(讀山海經)」라는 시에 “나 역시 내 초가집을 사랑한다네”라는 시구詩句에서 취한 것이니, 이것들을 종합해서 ‘옥연서당’이라는 편액을 내걸었다(由齋西出, 爲小軒二間, 與洗心齋相比, 名曰愛吾, 取淵明吾亦愛吾廬之語, 合而扁之曰玉淵書堂). (역자는 ‘소헌小軒’을 세심재에 있는 뒷마루로 보고 해석하였음.) 대체로 강물이 흐르다가 이곳에 이르러서, 깊은 소(沼)가 되었고, 그 물빛이 깨끗하고 맑아, 옥과 같은 까닭에 그렇게 이름 지었다(蓋江水至此, 匯爲深潭, 其色潔淨, 如玉故名). 사람이 진실로 그 뜻을 본받고자 한다면, 옥구슬의 깨끗함과 소沼의 맑음은, 모두 군자가 귀하게 여겨야 할 도道인 것이다(人苟體其意, 則玉之潔, 淵之澄, 皆君子之所貴乎道者也). 내가 일찍이 옛사람들의 말쑥을 살펴보건대, “인생은 스스로 마음에 들게 사는 <마음이 편안하게 사는> 것이 귀한 것이지, 부귀가 무슨 귀함이 되리요” 라고 하였거니와, 내가 조속粗俗하고 웅졸하여서, 평소에 행세하기를 원하지 않은 것이, 예컨대, ‘고라니와 사슴의 성품은, 산야山野에 적합하지, 읍내에 적합한 동물이 아니다’라는 말과 같은 것이다(余嘗觀古人之言曰, 人生貴適意, 富貴何爲. 余以鄙拙, 素無行世之願, 譬如麋鹿之性, 山野其適, 非城市間物). 중년에 망령되어 벼슬길에 나아가, 명성과 이욕을 다투는 마당에서 골몰하기를 20년이었다. 거동할 때 마다, 걸핏하면 방해를 받아왔을 뿐이었으니, 그 당시에 크게 고민하면서도 어찌 할 도리가 없으면, 아난게 아니라 실의失意에 젖어 있다가도, 이곳의 무성하게 우거진 초목이 즐거움이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而中年妄出宦途, 汨沒聲利之場二十餘年矣. 舉足搖手, 動成駭觸, 當其時, 大悶無聊, 未嘗不悵然, 思茂林豐草之爲樂也). 지금 임금의 은혜를 입고, 관직에서 물러나 남쪽으로 돌아와 있으니, 벼슬살이의 영화는 지나갔을 따름이다. 새소리를 귓가에 들으면서 한 언덕 한 골짜기, 찾아가는 즐거움이 바야흐로 깊어지는 이 때, 나의 집이 때마침 완공되었다. 장차 문을 닫아걸고 방문객을 사절하면서, 조용히 은둔할 것인즉, 방 안에서 몸을 굴신屈伸하다가, 산과 계곡사이를 이리저리 거닐기도 하고, 서적으로 사색하는 즐거움을 제공하기에도 충분할 것이며, 거친 채식菜食으로도 기름진 육식肉食을 잇기에 충분하리니, 호시절 풍광 좋은 이곳에, 정겨운 벗들이 가끔 모이면, 그들과 굶이진 계곡을 찾아가기도 하고, 바위에 앉아, 푸른 하늘을 바라보고, 흰 구름을 읊기도 하며 호탕하게 노닐면, 물고기와 새들까지 모두 절로 즐거워하며 시름을 잊기에 족하리라(今幸蒙恩, 解綬南歸, 軒冕之榮過耳. 鳥音而一丘一壑, 樂意方深是時, 而吾堂適成. 將杜門却掃, 潛深伏奧, 俛仰乎一室之內, 放浪乎山谿之間, 圖書足以供玩索之樂, 疏糲足以忘芻蕘之美, 佳辰美景, 情朋偶集, 則與之窮回溪, 坐巖石, 望青天, 歌白雲蕩狎, 魚鳥皆足以自樂

而忘憂). 이! 이것 또한 인생이 스스로의 뜻에 맞게 사는 것이 훌륭한 것이니, 밖으로 달리 그 무엇을 바랄 것인가? 내 이 말이 확고해지지 못할까 두려워서, 굳이 벽에 써서 붙여 스스로를 경계하고자 한다(嗚呼! 斯亦人生適意之大者, 外慕何爲. 懼斯言之不固, 聊書壁而自警). 1586년(丙戌年) 늦여름, 주인 서에 거사가 적다(丙戌季夏, 主人西厓居士記).

- ② 초창십년(草創十年): 창건한 지 10년. 「옥연서당기」에 의하면, 옥연정사의 건축은 1576년(병자년丙子年: 선조 9, 서애 35세)에 착공하여 10년이 지난 1586년(병술년丙戌年: 선조 19, 서애 45세)에 완공되었다.

- 2) 중간재력거굴(中間財力遽屈: 그동안 재력이 급격히 위축되어):

- ① 중간(中間): ‘동안’을 뜻하는 말로 쓰였다.

- ② 거굴(遽屈): 갑자기 위축되다.

☆거(遽): 갑자기. 급히.

☆굴(屈): 구부리다. 굴복하다. 본 시에서는 전(轉)하여 ‘궁해지다. 위축되다. 오트라들다’는 뜻으로 쓰였다.

- 3) 기불능성(幾不能成: 자칫 공사를 완공하지 못할 뻔 했다):

- ① 기(幾): ‘기호(幾乎: 거의, 대체로)’ 혹은 ‘차불다(差不多: 별차 없다, 비슷하다)’에 상당하는 부사이다. 이는 동사 앞에 쓰여 수량·시간·정도가 거의 되었음을 나타낸다. 이를테면, ‘거의. 하마터면. 자칫’의 뜻으로 쓰인다.

- 4) 홍아발분영판(弘也發憤營辦: 탄홍도 분발하여 일을 도맡아 처리하다):

- ① 홍아(弘也):

☆홍(弘): 승려 탄홍(誕弘: 생몰년 미상). 옥연정사(玉淵精舍) 건축당시에 곡식과 피륙을 내어 놓고 정사 건축을 주관하겠다고 자원(自願)하여 마침내 그 공사를 완공한 사람이다.

☆아(也): 두 가지 일이 서로 같음을 나타내는 부사로, ‘…도, (그리고) 또’ 등의 의미로 쓰인다. 보다 구체적으로 보면, 주어는 다르지만, 술어[謂語]는 같거나 같은 의미임을 나타낸다.

- ② 발분영판(發憤營辦): 분발하여 일[공사]을 맡아 처리하다.

☆발분(發憤): 분발하다: 마음과 힘을 다하여 떨쳐 일어나다.

☆영판(營辦): 일을 도맡아 처리하다. 계획하고 실시하다. 자금과 자재를 조달하다.

- 5) 당재창호개구(堂齋窓戶皆具: 마루와 방이며 창과 문 등 모든 것을 갖추었다):

- ① 당재창호(堂齋窓戶): 마루와 방이며 창과 문.

☆당재(堂齋): 당(堂: 마루)과 재(齋: 방).

☆창호(窓戶): 온갖 창과 문을 통틀어 이르는 말.

- 6) 적회여퇴귀지일(適會余退歸之日: 내가 사직하고 귀향하는 날에 적절하게 맞추었다):

- ① 적회(適會): 마침 일체[부합]시키다.

☆적(適): 부사로 쓰여, ‘마침. 바로’ 등의 뜻으로 쓰였다.

☆회(會): 동사로 쓰여, ‘…로 하여금 협조하여 일치하게 하다’라는 뜻으로 쓰였다.

- ② 퇴귀(退歸): 관직을 사직(辭職)하다. 귀향하다.

7) 천공고해사야(天公固解事也 : 하늘에도 당연히 재앙을 물리쳐 달라는 제사를 올리다) :

① 천공(天公) : 하늘. 하늘을 의인화(擬人化)하여 존칭인 ‘공(公)’자를 붙여 이르는 말.

② 고해사야(固解事也) : 당연히 재앙을 물리쳐 달라는 제사를 올렸다.

☆고(固) : 부사로서 ‘물론, 당연히, 이미’ 등의 뜻이다.

☆해사(解事) : 재앙을 물리쳐 달라는 제사를 올리다.

a. 재앙을 물리쳐 달라는 제사를 올리다.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이때의 ‘해(解)’는 ‘재앙을 물리치다’ 곧 ‘양제(禳除 : 신에게 제사 지내어 재앙을 물리쳐 달라고 빌다)’의 뜻이고, ‘사(事)’는 ‘섬기다. 받들어 모시다’는 뜻이다.

b. 면직(免職)되다. 이때의 ‘해(解)’는 ‘면제(免除)’되다. 해제(解除)되다’는 뜻으로 쓴 것이다.

8) 희심갱차전운(喜甚更次前韻 : 대단히 기뻐서 이전의 시운을 차운하여 한 수 짓다) :

① 희심(喜甚) : 대단히(너무, 매우) 기쁘다.

② 갱차전운(更次前韻) : 다시 이전의 운(韻)을 차운(次韻)하다. 시제(詩題)를 적시(摘示)하지 않아서 이전의 운(前韻)이 어떤 시(詩)의 운자(韻字)인지 알 수 없다.

9) 공읍(拱揖) : 공읍(拱揖)이라고도 쓴다.

① 둘러싸고 호위하다(環繞衛護) :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으며, “둘러싸고 호위하는 것 같다(如拱揖)”고 형용한 모습은 강물에 비친 청산을 비유적으로 묘사한 것이다. 「옥연서당기(玉淵書堂記)」에서는 “남산을 바라보면 멀리 못 산봉우리들이 들쭉날쭉 겹겹이 늘어서(南望則群峰錯立), 둘러싸고 호위하는 듯한 모습이 한 폭의 그림이다(拱揖如畫).”고 하였다.

☆공(拱) : 둘러싸다. 호위하다.

☆읍(揖) : 숭배하다. 추앙하다.

② 두 손을 포개어 가슴까지 올려 읊하며 경의(敬意)를 표하다 :

☆공(拱) : 두 손을 포개어 가슴까지 올리다.

☆읍(揖) : 공수(拱手 : 두 손을 포개어 가슴까지 올려서)하여 허리를 앞으로 구부렸다가 몸을 펴면서 손을 내리는 예(禮)를 행하다.

10) 추강허(秋江虛) : 이 구절은 은유적으로 ‘가을 강은 하늘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말이 가리키는 뜻은 ‘가을 강에 하늘이 잠겨있다’라는 것이다.

① 추강(秋江) : 가을 강.

② 허(虛) : 이것은 ‘하늘’이라는 뜻이나, 본 시에서는 ‘하늘이 강물에 투영된 것을 표현한 말’로 쓰였다.

11) 고정(孤亭) : 외딴 곳의 정자(亭子). 본 시에서는 외딴 곳에 위치한 한 채의 정사(精舍), 곧 옥연정사를 가리키는 말로 쓰였다.

12) 종금판작 유인거(從今辦作幽人居 : 이제부터 은자隱者의 거처로 쓸 수 있게 되었네) :

① 판작(辦作) : …을 하다. 처리하다.

② 유인(幽人) : 은사(隱士). 어지러운 세상을 피하여 조용한 곳에 숨어 사는 사람. 본 시에서는 서애(西厓) 자신을 자칭하는 말로 쓰인 것으로 보인다.

13) 유인원부 순로약(幽人遠赴蓴鱸約 : 선비가 멀리서 찾아오면 순채蓴菜와 농어 대접

하고) :

① 유인원부(幽人遠赴) : 선비가 멀리서 찾아오다.

☆원부(遠赴) : 멀리에서 이르다.

② 순로약(蓴鱸約) : 순채와 농어를 마련하여 대접하다.

☆순(蓴) : 순채(蓴菜). 수련과(睡蓮科) : 쌍떡잎식물 갈래 꽃류의 한 과)의 여러 해살이 수초(水草). 줄기는 원뿔모양이고 물에 잠겨 있으며 잎은 어긋나고 물 위에 떠 있다. 7~8월에 어두운 붉은 자주색 꽃이 긴 꽃대 끝에 하나씩 피고 열매는 달걀 모양으로 물속에서 익는다. 어린잎은 식용한다. 한국, 일본, 중국, 인도, 서아프리카, 북아메리카 등지에 분포한다. 본 시에서는 동사로 쓰였다.

☆로(鱸) : 농어 : 노어(鱸魚). 농어과의 바닷물고기. 몸의 길이는 50~90cm이고, 등은 검푸르고 배는 회색이며, 어릴 때는 등과 등지느러미에 검은 갈색의 작은 점이 많다. 몸은 옆으로 납작하며 주둥이가 크고, 아래턱이 위턱보다 길며, 온몸에 잔 비늘이 많다. 가을과 겨울에 강어귀에 산란하며 어릴 때에는 민물에서 살다가 첫겨울에 바다로 나간다. 한국, 일본, 중국 등지에 분포한다. 본 시에서는 동사로 쓰였다.

☆약(約) :

a. 마련하다. 전(轉)하여, 대접하다.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b. 요청하다.

14) 강풍세불 홍진거(江風細拂紅塵裾) : 강바람은 옷자락에 묻은 세속의 먼지 털어 내네) :

① 강풍세불(江風細拂) : 강바람은 ...을 털어내다.

☆세불(細拂) : 소리 없이 살살 털어내다.

a. 세(細) : 소리가 경미함을 형용한 말.

b. 불(拂) : 털다. 털어내다.

② 홍진거(紅塵裾) : 옷자락에 묻은 세상의 속된 먼지.

☆홍진(紅塵) :

a. 번거롭고 속된 세상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로도 쓴다. 본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b. 공중에 떠올라 햇빛에 비치어 별경게 보이는 티끌. ‘흙먼지’라는 뜻이다.

c. 거마(車馬)가 가는데 일어나는 먼지.

☆거(裾) : 옷자락.

15) 산승유지 사경해(山僧有志事竟諧) : 산승은 뜻한 바 있어 이 공사 마침내 완공했고) :

① 산승(山僧) : 산사(山寺)에 거주하는 승려. 본 시에서는 승려 탄홍(誕弘)을 가리킨다.

② 유지(有志) :

☆지향(志向)하는 바 있다. 지기(志氣 : 의지와 기개)가 있다.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어떤 일에 뜻이 있거나 관심이 있는 사람.

☆마을이나 지역에서 명망이 있고 영향력을 가진 사람.

☆남달리 세상일을 근심함. 또는 그런 사람.

③ 해(諧) : (일, 교섭 등을) 잘 처리하다. 완수하다. 본 시에서는 ‘공사를 완공하다’는

뜻으로 쓰였다.

- 16) 소원수죽 의강허(小園脩竹依江墟: 뜰 안에 자란 맛있는 대나무 강 언덕에도 무성하네):

① 수죽(脩竹): 긴 대. 높이 자란 대나무. 맛있게 자란 가늘고 긴 대나무.

☆수(脩): 길다.

② 의(依): 무성한 모양. 『시경(詩經)·소아(小雅)·거할(車輦·수레굴대 빗장)』에, “무성한 저 평지 나무숲에는, 쫓지 긴 꿩들이 모여드네(依彼平林, 有集維鷗).”라고 읊은 구절이 보인다. 『모전(毛傳)』에서, “의(依)는 나무가 무성한 모양(茂木貌).”이라고 하였다.

③ 강허(江墟): 강변의 언덕.

- 17) 연주점역 벽창한(研朱點易碧窓寒: 방집 짙어가며 역경易經 공부하는데 벽창碧窓으로 한기 들지만):

① 연주점역(研朱點易): 붉은 색 방점을 짙어가며 역경을 공부(연구)하다.

☆연(研): 공부하다. 연구하다.

☆주점(朱點): 옛날의 한문고서(漢文古書)는 띄어쓰기도 없었고 쉼표[,]나 마침표[,] 등의 문장부호를 쓰는 일도 없이 한 제목 하에 모든 문장을 이어 붙여서 썼다. 그래서 한문에 통달한 사람이 아니면 독해(讀解)하기가 몹시 불편하였다. 그 결과 옛사람들은 교열·정정하거나 난해한 서적을 정독(精讀)할 때, 문장 이해를 확인하면서 쉼표 또는 마침표 등을 찍을 자리에 주필(朱筆: 붉은 색을 써서 쓰는 붓)로 모점[,]형태의 방점(傍點: 곁점: 글 가운데 보는 사람의 이해를 돕거나 중점을 표시하기 위해서 글자 옆이나 뒤에 찍는 점)을 찍었던 까닭에 ‘주점(朱點)’이라고 하였다.

☆역(易): 『역경(易經)』 혹은 『주역(周易)』을 칭하는 것으로, 전자는 점(占)의 말이나 점법(占法)의 정신을 해설한 것을 칭하는 것이고 후자는 주대(周代)의 점서(占書)라는 데서 붙인 호칭이다.

② 벽창한(碧窓寒): 녹색 창안에 한기가 들다.

☆벽창(碧窓): 벽창(碧窗)이라고도 쓴다. 벽사창(碧紗窓)의 약칭으로, ‘녹색 사창(紗窓: 사불이<紗-->나 김으로 바른 창)’을 말한다.

☆한(寒):

a. 차가운 날씨를 형용한 말이다.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b. 겸사(謙詞)로서 ‘공군하다. 천하다’는 뜻인데, ‘한사(寒舍: 한가寒家: 가난하거나 문벌과 지체가 변변치 못한 집)’를 가리키며, ‘자기 집’에 대한 겸칭으로 쓰인다.

- 18) 세만상종 오여거(歲晩相從吾與渠: 만년에 이르러 나와 그는 서로 친하게 지낸다네):

① 세만상종(歲晩相從): 만년에 이르러 서로 친하게 지낸다.

☆세만(歲晩):

a. 본 시에서는 ‘세모(歲暮)와 같은 뜻으로 쓰였으며, ‘만년(晩年)을 비유한 말로 쓰였다.

b. 세말(歲末). 설달그믐께. 세밑.

☆상종(相從): 서로 친하게 지낸다. 상호 왕래하다.

② 오여거(吾與渠): 나와 그 사람.

☆거(渠): 3인칭대명사, ‘그 사람’을 지칭한다. 본 시에서의 ‘그’는 시제(詩題)에서 언급된 승려 ‘탄홍(誕弘)’일 수도 있고, 송나라의 유학자 주희(朱熹)를 가리키는 것일 수도 있겠다.



시48. 원지정사^{遠志精舍}를 시제^{詩題}로 쓰다

詩48. 題^題遠志亭^{遠志亭}¹⁾ 제 원지정

洛水西流急²⁾,
낙 수 서 류 급

낙동강은 서쪽으로 흘러가며 물결 거센데,

嵩高北望頻³⁾.
송 고 북 망 빈

화산^{花山}은 북쪽을 바라보며 늘어섰네.

那堪千里別⁴⁾,
나 감 천 리 별

강과 산은 천리 먼 이별을 어찌 견디랴만,

又度⁵⁾一年春。
우 도 일 년 춘

다시 또 한 해의 봄은 가고 있구나.

天地容高枕⁶⁾,
천 지 용 고 침

하늘과 땅은 은거하는 나를 용인하는데,

江湖送此身⁷⁾.
강 호 송 차 신

세상 사람들은 내 은거를 만류하려 하네.

浮雲終日在,
부 운 종 일 재

뜬구름은 종일토록 하늘을 떠다니는데,

回首獨傷神⁸⁾.
회 수 독 상 신

지난날 회고하며 홀로 상심하고 있네.

1) 제원지정(題遠志亭 : 원지정사를 읊다) : 본 시는 원지정사에서 바라보는 하회마을의 산하(山河), 곧 낙동강과 마을의 진산(鎭山)인 화산(花山)의 관계를 작가의 생애와 연계하여 비유적으로 읊고 있다. 민족문화추진회편 『국역 서애집①』 「원지정사기(遠

志精舍記)」를 참조바람.

① 제(題): 시를 쓰다(올다).

② 원지정(遠志亭): 연좌루(燕坐樓): 서애(西厓) 류성룡(柳成龍: 1542~1607)이 34세 때(1573년: 선조 6)에 벼슬자리에서 물러나 은거할 때에, 하회리(河回里) 북촌(北村)의 북쪽에 위치한 강을 향해 원지정사(遠志精舍)를 지었다(병자년丙子年: 1576년: 서애 35세에 완공되었음). 이 정사의 서쪽에는 누각이 있는데, 이 정자는 ‘원지정사에 있는 정자’라고 하여 ‘원지정(遠志亭)’이라 불렀으며 ‘연좌루(燕坐樓)’라 부르기도 한다. ‘원지(遠志)’와 ‘연좌(燕坐)’라는 명칭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전해온다.

☆‘원지(遠志)’에 대한 두 가지 뜻

1578년(무인년戊寅年: 서애 37세)에 서애가 쓴 「원지정사기(遠志精舍記)」에 의하면, “집을 다 짓고 나서, 편액을 ‘원지遠志’라고 내거니, …… 어떤 손님이 그 뜻을 이상하게 여기길래, 내가 그에게 말하기를: ‘원지遠志’는 본래 약초 명칭으로서, 일명 ‘소초小草’라고도 한다(既成, 扁其額曰遠志, …… 客疑其義, 余告之曰: ‘遠志本藥名, 一名小草’). 옛날에 진짚나라 사람〈환온桓溫: 312~393: 동진東晉의 정치가이자 장군으로 자는 子元, 시호는 선무후宣武侯〉이 〈동진의 정치가인〉 사안謝安(320~385: 자는 안석安石, 시호는 문정文靖)에게 묻기를, ‘원지와 소초는 동일한 종류인데, 어찌 두 가지의 명칭을 쓰는고?’라고 하니,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은거할 때는 원지遠志〈원대한 포부를 가지고 있음〉라 하고, 출사出仕하면 소초小草라 한다’고 하자, 사안은 안면에 부끄러워하는 기색을 띠었다고 하였다. 내가 산속에 은거할 때는 근본적으로 원대한 포부(즉, 원지遠志)가 없었으니, 출사해서 약소弱小한 초목(즉 소초를 가리킴: 미관말직을 비유한 말로 자신의 관직에 대한 겸칭으로 쓰였음)이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이런 면에서 비슷한 점이 있다(昔晉人問謝安曰, ‘遠志小草一物, 而何爲二名’, 或曰, ‘處爲遠志, 出爲小草’, 安有愧色. 余在山, 固無遠志, 出而爲小草則固也. 是有相類者).”고 하였다. “또한 의술가는 ‘원지’로써 심기心氣를 집중치료하여, 능히 정신의 혼탁과 번민을 풀어줄 수 있다. 내가 여러 해 전부터, 심기가 맑지 못함을 우려하여, 매번 약을 쓸 때마다, 이 ‘원지’를 복용하니, 그 효력을 감히 잊을 수가 없다. 이러한 까닭으로 유추해서 그 원뜻을 확대해보면, 마음을 다스린다는 설說은 유학자들 역시 늘 하는 말이다. 이와 같은 두 가지 뜻만 하더라도, 모두 서재의 명칭으로 쓸 만하다(又醫家, 以遠志, 專治心氣, 能撥昏鑷煩. 余年來, 患心氣, 每餌藥, 輒用遠志, 其功不敢忘. 因推類而引其義, 治心之說, 亦儒者, 常談. 如此數義, 皆可爲齋號).”고 하였다. 이상의 내용에서 볼 때, ‘원지’에 두 가지 뜻이 있다고 정리할 수 있으니, 첫째는 ‘원대한 포부’란 뜻이고, 둘째는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라는 뜻이 있다는 말로 요약할 수 있다.

☆‘연좌(燕坐)’에 대한 뜻

안좌(安坐: 편안하게 앉음, 또는 그렇게 앉아 쉼)하다, 환좌(閑坐: 한가롭게 앉음, 또는 그렇게 앉아 쉼)하다. 연좌루(燕坐樓)의 ‘연좌(燕坐)’는 이 뜻으로 쓰였다.

a. 연(燕): 안녕하다. 안일(安逸)하다. 편안하게 쉬다. 휴식하다. 연좌루(燕坐樓)의 ‘연(燕)’자는 이 뜻으로 쓰였다. 『의례(儀禮)·연례(燕禮): 고대 중국의

천자나 제후가 정무政務를 돌본 뒤 한가한 시간에, 국외에 출사出使했던 신료臣僚가 돌아왔거나 새로이 공훈을 세운 관료가 있거나 귀빈이 방문한 것 등을 원인으로 하여 군신群臣을 불러 정감을 풀면서 연음宴飲하던 예를 갖춘 의식)』편에, “빈(賓: 고대 한족漢族은 연음宴飲의 예의에 있어서, 반드시 주인과 손님이 설정되어야 했는데, 이때 주인은 마땅히 군주(君主)이고 손님 즉 ‘빈賓’은 조정대신 중에 지위가 가장 높은 ‘경卿’이 역할을 담당하여 군주와 함께 연음宴飲의 예를 진행했음. 또한 군주가 직접 군신群臣들에게 주인의 예를 행할 수 없었던 까닭에, 작위爵位는 ‘사士’이지만 선식膳食을 관장하는 ‘재부宰夫’가 주인의 입장이 되고, 군주가 지명하는 ‘대부’가 빈賓의 대표가 되어 주主와 빈賓의 형식이 갖추진 상태에서 연음宴飲의 의식을 거행했음)이 다시 들어와(賓反入), 경(卿: 조정에서 지위가 가장 높은 신하의 관명官名으로 서주西周와 춘추시대에는 상·중·하 등급으로 나눈 삼경三卿이 있었고, 시대에 따라 관직등급에 차이가 있지만 진한秦漢 시대에는 삼공三公 아래에 구경九卿이 있었음)과 대부(大夫: 고대관직 명칭. 주대周代에는 군주 아래에 경·대부·사 등 3등급의 고위 관직이 있었고, 각 등급마다 상·중·하의 3등급으로 분류했음. 시대에 따라 명칭과 존폐가 달랐음)와 함께 모두 신발을 벗고(及卿大夫皆說屨)〈본 예문에서의 ‘탈說’자는 ‘탈脫’과 통하며 ‘신발을 벗다’는 뜻임〉, 전당殿堂으로 올라가서 착석한다(升就席).”고 한 대목이 있다. 이 글에 후한(後漢)의 학자 장현(鄭玄: 127~200)이 주(注)를 달기를, “무릇 편안하게 앉아 있으려면 반드시 신발을 벗어야 하며, 신발은 더러워서 천한 것이기에, 신고 전당에 있을 수 없다(凡燕坐必說屨, 屨賤, 不在堂也).”고 하였다. 당(唐)나라 학자 가공언(賈公彥: 생몰년 미상)은 『의례소(儀禮疏)』에서 이 문장에 소(疏)를 달기를, “무릇 전당(殿堂)에서 서서 예를 행할 때는 신발을 벗지 않지만, 편안하게 앉아 있으려면 신발을 벗어야 한다(凡在堂立行禮不說屨, 安坐則說屨). ……그 신발은 발에 신고 있어 더럽고 비천한 까닭에, 마땅히 전당에 신발이 있어서는 아니 되나니, 존귀한 분의 신발 옆에 배열해 두어야 한다(……以其屨在足, 賤, 不宜在堂, 陳於尊者之側也).”고 하였다.

b. 좌선(坐禪)하는 것을 가리킨다.

c. 시식(施食: 음식물을 나누어 줌) 하는 것을 가리킨다.

2) 낙수 서류급(洛水西流急: 낙동강은 서쪽으로 흘러가며 물결 거센데):

- ① 낙수(洛水): 여기서의 ‘낙수(洛水)’는 하회마을을 감아 도는 낙동강을 대칭하였다. 이는 중국 고대 문명의 발원지인 황하의 지류(支流)이다. 아래의 주석을 참조바람.

☆중국에 있는 강명(江名)이다. 이는 중국의 섬서성(陝西省)에서 발원하여 낙양(洛陽)을 거쳐 하남성(河南省)에서 황하(黃河)로 주입(注入)된다. 이 낙수(洛水)는 황하(黃河)와 더불어 중국 고대, 하·은·주(夏殷周)의 도읍(都邑)이 모두 이 두 개의 강물사이에 있었기 때문에 문명의 발상지와 관계가 되는 주요 지역이다. 하(夏)나라 우왕(禹王)이 홍수를 다스릴 때, 이 낙수에서 영묘한 거북[산구神龜]이 나왔다고 전해진다. 거북의 등에는 낙서(洛書)가 써여 있는데 나중에 『서경(書經)』과 홍범구주(洪範九疇)의 원본이 되었다고 한다.

☆낙동강을 칭한다. 낙동강의 물굽이는 하회마을을 S자형으로 감아 돈다. 낙동강

은 안동지역에서는 북동쪽에서 남서쪽으로 흐르는 것이 큰 흐름인데, 하회에 이르면 동쪽에서 서쪽으로 흐름이 바뀌기 시작하여, 충효당(忠孝堂) 앞에서 만송정(萬松亭)까지는 남쪽에서 북쪽으로 방향을 크게 바꾸어 흐르다가 만송정을 지나면 마침내 서쪽에서 동쪽으로 거슬러 흐르기 시작한다. 그러다가 서서히 북동쪽으로 굽이를 틀어 광덕동(廣德洞)을 지나면서 다시 본디 큰 흐름대로 남서쪽으로 계속 흘러간다. 낙동강의 원래명칭은 삼국시대에 황산강(黃山江) 또는 황산진(黃山津)이었다. 고려·조선시대에 와서 ‘낙수(洛水)·가야진(伽倻津)·낙동강(洛東江)’이라 하였다. ‘황산’이란 이름은 ‘황산나루’ 때문에 나온 것인데, 이 나루는 지금의 양산군 물금면 물금리에 있던 나루로, 삼국시대에 신라의 수도 경주와 가락의 중심지 김해 사이에 교류가 성했던 곳이다. ‘낙동’이라는 이름은 가락의 동쪽이란 뜻인데, ‘가락’은 삼국시대에 가락국의 땅이었던 지금의 경상도 상주 땅을 가리킨다. 즉, 상주[가락] 동쪽으로 흐르는 강이란 뜻으로 ‘낙동’이란 이름이 나왔다. 조선시대 이극익(李奎翊: 1736~1806)이 지은 『연려실기술(燃藜室記述)·지리전고(地理典故)』편에도 이와 같이 기록되어 있다. 말하자면, ‘낙동’은 상주의 동쪽을 말함이다.

- ② 급(急): 맹렬하다. 급격하다. 빠르다. 본 시에서는 ‘격(激)’과 동자(同字)로서 ‘물살이 세찬 것’을 형용하였다.

3) 송고 북망빈(嵩高北望頻: 화산花山은 북쪽을 바라보며 늘어섰네):

이 ‘송고(嵩高)’는 하회마을의 주산(主山)인 화산(花山)을 대칭하였다. 아래의 주석을 참조바람.

- ① 송고(嵩高): 중국 오악(五岳)의 하나인 중악(中岳), 곧 숭산(嵩山)을 칭한 것으로, 이는 중국 문명의 발원지로 중원지역의 중심에 우뚝 솟아 있는 산이다. 이 산의 위치는 하남성(河南省) 서부에 위치한다. 고대에는 ‘외방(外方)’이라 칭했고, 하·상(夏商) 시대에는 송고(嵩高)·숭산(嵩山)이라 칭했으며, 서주(西周) 시대에는 악산(岳山)으로 칭했고, 기원전 770년에 평왕(平王)이 낙양으로 천도한 이후로는 숭산(嵩山: 하남성河南省 서부에 위치하며, 태실산太室山과 소실산少室山으로 조성組成 되어 있고, 장소는 등봉시登封市 서북쪽이며, 서쪽으로는 고도古都 낙양洛陽이 이웃하고 있고, 북쪽으로는 황하黃河·낙수洛水가 흐른다)를 중앙으로 하여, 좌측으로는 대산(岱山: 산둥성山東省에 있는 태산泰山으로 동악東岳이라 불림), 우측으로는 화산(華山: 섬서성陝西省 동부에 위치하며 오악五岳 중에 가장 험한 산으로 서악西岳으로도 불림)이 위치한다고 하여, 중악숭산(中岳嵩山)이라고 칭했다

☆하회마을의 진산(鎭山: 옛날에 온 나라를 또는 서울과 각 고을을 각각 진호鎭護한다고 생각한 산)인 화산은 태백산맥의 줄기를 타고 있는 영양 일월산의 한 지맥이 남서쪽으로 뻗어 내리다가 낙동강과 만나면서 머물러 버린 해발 271m의 나지막한 산이다. 그리하여, 화산은 낙동강의 물굽이가 남쪽에서 북쪽으로 방향을 바꾸게 한 북애(北崖: 하회마을에서는 하회마을의 북쪽 절벽인 부용대와 이를 휘어 감고 북쪽으로 흘러가는 강 건너 쪽의 가파른 기슭을 북애라고 칭함)쪽을 마주하고 있다. 아마도 본 시에서는 이 형상을 두고 읊은 것으로 보인다.

- ② 빈(頻): 병렬하다. 나란히 늘어서다. 본 시에서는 ‘늘어서다’로 번역하였다.

4) 니감 천리별(那堪千里別: 강과 산은 천리 먼 이별을 어찌 견디랴만):

- ① 나감(那堪) :
 ☆어찌 건딜 수 있으랴.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하물며. 게다가. 더군다나. 이때의 ‘나감(那堪)’은 접속사로 쓰인 것이며,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 ② 천리별(千里別) : 원별(遠別)하다. 서로 멀리 헤어지다.
- 5) 도(度) : 도(渡)와 통하며 본 시에서는 ‘(시간이) 지나가다’는 뜻으로 쓰였으며, ‘(강을) 건너다, (어떤 지역이나, 난관을) 통과하다’의 뜻으로도 쓰인다.
- 6) 천지 용고침(天地容高枕 : 하늘과 땅은 은거하는 나를 용인하는데) :
 ① 천지(天地) :
 ☆하늘과 땅. ‘자연계’ 혹은 ‘사회(곧, 이 세상)’를 가리키는 말로 쓰이는데,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천하와 같은 말.
 ☆천지신령을 가리키기도 함.
- ② 고침(高枕) :
 ☆고와(高臥 : 베개를 높이하고 한가롭게 누워 있음)의 뜻으로, ‘벼슬을 하지 않고 은거하여 세속에서 벗어나 생활함’을 이르는 말로서,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베개를 높이 베다. ‘고침안면(高枕安眠 : 베개를 높이 하여 편안히 잠을 잠)’의 뜻으로, ‘무우무려(無憂無慮 : 아무 근심 없이 자냄)’함을 가리키는 말로도 쓴다.
- 7) 강호 송차신(江湖送此身 : 세상 사람들은 내 은거를 만류하러 하네) :
 ① 강호(江湖) :
 ☆세상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사방 각지를 가리키는 말이다.
 ☆은사(隱士)의 거처.
 ☆강과 호수.
- ② 송(送) : 제거하다. 퇴치하다. 해소하다. 전(轉)하여, 본 시에서는 ‘만류하다. 막다’는 뜻으로 쓰였다.
- 8) 회수 독상신(回首獨傷神 : 지난날 회고하며 홀로 상심하고 있네) :
 ① 회수(回首) :
 ☆회상(回想)하다. 회고(回顧)하다.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고개를 돌리다. 돌아보다.
- ② 상신(傷神) : 상심(傷心)하다.



시49. 병산서원에서 여러 군자들과 함께
타계하신 스승님의 문집을 교정^{校正}
하고 느낀 바를 학봉^{鶴峯} 김성일^{金誠一}
형의 사환에게 전해주면서

詩49. 屏山 與諸君校先師文集¹⁾ 有感呈鶴峯兄侍者²⁾
병산 여제군교선사문집 유감정학봉형시자

江樓日夕恣徜徉³⁾,
강루일석자상양

해질녘 강변의 누각 주위
자유로이 배회하고 나서,

濟濟羣賢更滿堂⁴⁾.
제제군현갱만당

북적북적 위의^{威儀} 갖춘 군자들
다시 강당 가득 모였소이다.

共撥遺編重理緒⁵⁾,
공발유편중리서

선사^{先師}의 유저^{遺著} 교정하고
업적을 정리하고 나니,

此生寧復望門牆⁶⁾.
차생영부망문장

이 한평생 새삼 사문^{師門}을
앙모하게 됐소이다.

1) 병산 여제군교선사문집(屏山 與諸君校先師文集 : 병산 서원에서 여러 군자들과 함께 타계하신 스승님의 문집을 교정하고) :

① 병산(屏山) : 경북 안동시 풍천면 병산리에 있는 ‘병산서원(屏山書院)’의 약어(略語)로 쓰였다. 자세한 것은 「시34」의 주석1)의 ‘병산서원’ 조항을 참조바람.

② 제군(諸君) :

☆경사(敬詞)로서, ‘여러분[諸位]’의 뜻.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으며, ‘여러 군자를 가리킨다.

☆연로한 사람을 가리키는 말.

☆통솔자나 지도자가 여러 명의 아랫사람을 문어적으로 조금 높여 이르는 2인칭 대명사.

③ 교(校):

☆고정(考訂): 옛 서적의 진위와 이동異同을 조사하여 밝힘하다. 고찰·수정하다.

☆교감(校勘): 같은 종류의 여러 책을 비교하여 차이 나는 것들을 바로 잡음하다.

④ 선사문집(先師文集): 돌아가신 스승님(퇴계 이항을 가리킴)의 문집(文集: 시문詩文을 모아 엮은 책).

2) 유감정학봉형시자(有感呈鶴峯兄侍者): 느낀 바를 학봉 김성일형의 사환에게 전해 주다):

① 유감(有感): 느낀 바 있다. 감동(감명·체험·체득·감수)하다.

② 정(呈): 증정(贈呈)하다. 드리다. 봉정(奉呈: 문서나 문집 따위를 받들어 올림)하다. 주다. 본 시에서는 ‘전해주다’는 뜻으로 쓰였다.

③ 학봉형(鶴峯兄): 본 시의 작자인 서애(西厓) 류성룡(柳成龍: 1542~1607)이 학봉 김성일(金誠一: 1538~1593)을 ‘형(兄)’이라고 칭한 것이다.

☆학봉(鶴峯): 조선 중기의 문신이자 학자인 김성일(金誠一)의 호이다. 자세한 내용은 「시34」의 주석2)의 ② ‘김학봉(金鶴峯)’ 조항을 참조바람.

☆형(兄): ‘형(兄)’이란 말은 동년배 남자 사이의 존칭으로, 서애와 학봉은 퇴계 문하의 동문이나, 학봉이 서애보다 4년 연장자인 동시에 퇴계문하의 선배이다. 즉 학봉은 1556년(丙辰年: 학봉 18세)에 퇴계 문하에 입문했고, 서애는 1562년(壬戌年: 서애 21세)에 퇴계문하에 입문했다. 고로 본 시에서 서애는 학봉을 ‘형’이라고 칭한 것이다.

④ 시자(侍者): 귀한 사람을 모시고 시종드는 사람. 사환(使喚). 수시로 윗사람의 좌우에서 간섭부름을 명받도록 대기하고 있는 사람.

3) 강루일석 자상양(江樓日夕恣徜徉: 해질녘 강변누각 주위 자유로이 배회하고 나서):

① 강루일석(江樓日夕): 해질녘 강변누각에서.

☆강루(江樓): 강변의 누각. 본 시에서는 시의(詩意)로 보아, 강변누각 주변, 곧 만대루 주변을 칭한 것으로 보인다. 앞의 「시34」의 주석1)의 ‘만대루(晩對樓)’ 항목을 참조바람.

☆일석(日夕):

- a. 해질 무렵. 저물녘.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 b. 낮과 밤. 조석(朝夕). 일야(日夜).
- c. 저녁.

② 자상양(恣徜徉): 자유로이 배회하다.

☆자(恣):

- a. 방종하다. 마음대로(자유로이) 하게 하다.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 b. 만족하다. 마음껏 하다(한껏 하다).

☆상양(徜徉):

- a. ‘배회’와 같은 말. 이리저리 선회하며 왕복하다.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 b. ‘방황’과 같은 말.
 - c. 안한자득(安閑自得: 안한자적安閑自適: 평화롭고 한가하여 마음 내키는 대로 즐깁)하는 모양.
- 4) 제제군현 갱만당(濟濟羣賢更滿堂: 제제히 위의威儀 갖춘 군자들 다시 강당 가득 모였소이다):
- ① 제제(濟濟):
 - ☆많고 성(盛)한 모양. 와글거리는 모양. 붐비는 모양. 본 시에는 이 뜻으로도 쓰였으며, ‘복적복적’으로 해석한다.
 - ☆장엄하게 공경하는 모양(사대부의 위의威儀를 갖춘 모양, 성실엄숙신중하고 삼가는 모양).
 - ☆질서정연한 (단정한. 가지런한) 모양.
 - ☆아름답고 훌륭한 모양.
 - ② 갱(更): 부사로 쓰여, ‘다시. 또’의 뜻으로 쓰였다.
 - ③ 만당(滿堂):
 - ☆(대청, 강당 등에) 사람들이 가득 차다, 당상(堂上)에 충만하다.
 - ☆사람들로 꽉 찬 방(대청. 강당).
- 5) 공발유편 중리서(共撥遺編重理緒: 선사先師의 유저遺著 교정하고 업적을 정리하고 나니):
- ① 공발유편(共撥遺編): 선사(先師)의 유저(遺著)를 교정하다.
 - ☆발(撥): 정돈하다, 수리하다. 전(轉)하여, 본 시에서는 ‘수정(修訂)하다’는 뜻으로 쓰였다.
 - ☆유편(遺編):
 - a. 선인(先人)이 남긴 사문(詩文).
 - b. 유저(遺著): 죽은 뒤에 남긴 저술.
 - ② 중리서(重理緒): 업적을 신중하게 정리하다.
 - ☆중리(重理): 신중하게 (중시하여) 정리하다.
 - ☆서(緒):
 - a. 전인(前人)의 미완(未完)의 공훈과 업적.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 b. 두서(頭緒). 발단. 실마리.
 - c. 나머지. 잔여(殘餘).
- 6) 차생영부 망문장(此生寧復望門牆: 이 한평생 새삼 사문師門을 앙모하게 됐소이다):
- ① 차생영부(此生寧復): 이 한평생 새삼 ~하다.
 - ☆차생(此生): 이 한평생. 금생(今生). 이승.
 - ☆영부(寧復): 새삼. 새삼스레. 비로소. 다시.
 - a. 녕(寧): 부사로서 ‘내(乃: 비로소)’의 뜻이다.
 - b. 부(復): 부사로서 ‘다시’의 뜻이다.
 - ② 망문장(望門牆): 사문(師門)을 앙모하다.
 - ☆망(望): 사문(師門)을 앙모하다. 우러러 보다.

☆문장(門牆) : 문장(門牆)으로도 쓰며, 본 시에서는 ‘사문(師門)’의 뜻으로 쓰였다. 『논어(論語)·자장편(子張篇)』에, “숙손무숙이 조정에서 다른 대부에게 말하기를, ‘자공이 공자보다 더 현명하다’고 하자, ……자공이 말하기를: ……공자 선생님의 담장은 여러 길이라, 그 문을 찾아 들어가지 못하면, 종묘의 웅장한 광경과 모든 건물의 화려한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叔孫武叔*語大夫於朝曰: ‘子貢賢於仲尼.’ … 子貢曰: …… ‘夫子*之牆數仞, 不得其門而入, 不見宗廟之美、百官*之富.’ 그러나 그 문을 찾아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어찌면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공자의 높은 경지를 모르는> 숙손무숙의 견해는 역시 자연스러운 게 아닙니까(得其門者, 或寡矣. 夫子*之云, 不亦宜乎)?”라고 한 구절이 있다. 논어의 이 문장을 읽고 영향을 받은 후세 사람들은 ‘사문(師門: 스승의 문하)’을 칭하여, “문장(門牆)”이라고 하였다.

*숙손무숙(叔孫武叔: 생몰년 미상): 춘추시대 노(魯)나라 대부(大夫). 숙손(叔孫)은 복성(複姓)이고, 무(武)는 시호, 숙(叔)은 자이며, 이름은 주구(州仇)이다.

*백관(百官): 여기서 ‘백관(百官)’의 ‘관(官)’은 벼슬을 나타내는 ‘관’자가 아니고, ‘가옥, 건물’을 나타내는 ‘관’자이다.



시50. 문산文山 문천상文天祥이 애산愛山
사백화謝伯華가 지은 「석양은
아름답지만 오래 머물지 아니
하네」라는 시제詩題의 시를 차운하여
지은 시를 (다시) 차운하여

詩50. 次文山次謝愛山賦「夕陽雖好不多時」韻¹⁾
차 문 산 차 사 애 산 부 석 양 수 호 부 다 시 운

樹杪風來生晚涼²⁾,
수 초 풍 래 생 만 량

나뭇가지 끝에 바람 불더니
날 저물자 서늘한데,

江波橫曳殘霞光³⁾.
강 파 횡 예 잔 하 광

강 물결 횡렬지어 출렁이는데
노을빛은 스러져가네.

西天無數亂峯⁴⁾出,
서 천 무 수 란 봉 출

서쪽 하늘에 무수한 산봉이
불쑥불쑥 솟았는데,

紫氣縹緲⁵⁾連天長。
자 기 표 표 연 천 장

자색紫色 운기雲氣 어렴풋이
하늘 길게 이어졌네.

我今振衣千仞岡⁶⁾,
아 금 진 의 천 인 강

나는 지금 천 길 높은 산마루에서
옷매무새 바로 잡고

風雲壯懷同飛揚⁷⁾.
풍 운 장 회 동 비 양

원대한 의지와 호방한 포부를 함께 북돋우네.

已看月照東山上,
이 간 월 조 동 산 상

동산 위에 달떠서 빛나는 것이
이미 보이기에,

不愁落景虞淵藏⁸⁾。
불 수 낙 경 우 연 장

해가 저서 우연虞淵에 머무는 것은
걱정도 안 된다네.

與君樽前⁹⁾歌一曲,
여 군 준 전 가 일 곡

그대와 더불어 술잔 앞에 두고
노래도 부르지만,

萬事相看雙鬢黃¹⁰⁾。
만 사 상 간 쌍 빈 황

만사에 대처하다 보니
양쪽 귀밑털이 누렇게 났네.

- 1) 차문산 차사애산부 석양수호불다시운(次文山次謝愛山賦夕陽雖好不多時韻 : 문산文山 문천상文天祥이 애산(愛山) 사백화(謝伯華)가 지은 「석양은 아름답지만 오래 머물지 않네」라는 시를 차운하여 지은 시를 다시 차운하여) :

① 차운(次韻) : 앞의 「시20」의 주석1)의 ② ‘차운(次韻)’ 조항을 참조바람.

② 문산(文山) : 남송(南宋)의 충신 문천상(文天祥)의 호

☆문천상(文天祥 : 1236~1283) : 남송 길주로(吉州路 : 吉安路) 여릉현(廬陵縣 : 吉水縣 북부) 사람. 자는 송서(宋瑞) 또는 이선(履善)이고, 호는 문산(文山)이다. 이종(理宗) 보우(寶祐) 4년(1256) 진사고시(進士考試)에서 수석으로 급제했다. 개경(開慶) 1년(1259) 원나라 군대가 사천성(四川省)을 침입해 합주(合州)가 포위되자 환관 동송신(董送臣 : ?~1264)이 천도(遷都)를 주장했는데, 지방관으로 있으면서 천도를 강경히 반대하여 동신의 참형을 조장함과 동시에 적을 막을 계책을 올렸지만 채택되지 않았다. 함순 6년(咸淳六年 : 1270), 군기감 겸권직학사원(軍器監兼權直學士院)을 맡아 직무를 수행하던 중 간신인 재상(宰相) 가사도(賈似道 : 1213~1275)를 비방하는 글을 썼다가 탄핵을 받아 파직되었다. 도종(度宗) 함순(咸淳) 9년(1273) 호남제형(湖南提刑)을 맡아 복귀하고, 공주지주(贛州知州)로 옮겨졌다. 공제(恭帝) 덕우(德祐) 초(初 : 1275)에 원나라 군대가 동쪽에서 남하하자 가산(家產)을 털어 군비로 삼으면서 병사만 여 명을 이끌고 임안(臨安)을 지켰다. 다음해 우상상 겸 추밀사(樞密使)로 공종(恭宗)의 명령을 받아 원나라에 가서 강화를 청했다. 원나라의 원수(元帥) 백안(伯顔 : 1236~1295)과 회견, 항론(抗論)하다가 체포되어 진강(鎮江)까지 끌려갔다가 탈출하여 돌아왔다. 단종(端宗)이 즉위하자 우상겸추밀사(右相兼樞密使)가 되어 좌상 진의중(陳宜中 : 생몰년 미상)과 사태를 논의하다 일치하지 않아 병사를 이끌고 복건(福建)과 광둥(廣東)에 머물면서 원나라에 대항하여 주현(州縣) 여러 군데를 수복했다. 그러나 임안은 함락되고, 송나라는 멸망

했다. 상흥(祥興) 원년(1278) 오파령(五坡嶺)에서 포로가 되어 북송(北送)되던 중 탈주하여 복건성(福建省) 복주(福州)에서 제왕을 칭하고 있던 도종(度宗)의 장자 익왕(益王)을 받들었다. 다음 해 항원(抗元) 장군 장홍범(張弘範)이 투항하자고 유혹하자 「과령정양(過零丁洋)」을 지어 의지를 분명히 밝혔다. 결국 포로로 잡혀 독약을 먹고 자살을 기도했지만 실패하고, 대도(大都: 북경北京)로 송치되어 3년간 감옥에 갇혔다. 원나라의 세조가 벼슬을 간절히 권했지만 끝내 거절하고 사형되었다. 시에도 처형되기 직전 옥중(獄中)에서 「정기가(正氣歌)」를 지었다. 시호는 충렬(忠烈)이고 저서에 『문산집(文山集)』이 있다.

- ③ 사애산(謝愛山): 애산(愛山) 사백화(謝伯華). ‘사(謝)’는 성씨이고, 애산(愛山)은 사백화의 호이다. 이렇게 성씨 다음에 호(號)나, 자(字) 또는 직함을 쓰거나 직함 다음에 자를 이어서 쓰는 것은 경칭(敬稱)의 한 예이다.

☆사백화(謝伯華: 1226~1277): 남송(南宋) 길안로(吉安路) 길수현(吉水縣) 팔도(八都) 은촌(銀村), 지금의 강서성(江西省) 길안시(吉安市) 사람으로, 남송 말엽의 문인이며, 문산(文山) 문천상(文天祥)의 절친한 벗이다. 사백화는 유년 시절부터 매우 총명했다. 7세 때, 향리의 많은 손님들 앞에서 시를 읊어 모두들 경이롭게 여겼다. 성년이 된 이후에도 그는 많은 서적을 박람(博覽)하면서 성현의 학문을 익혔을 뿐만 아니라, 허다한 사장(辭章: 시문詩文)의 암송에도 명성이 높아서, 당시 사람들은 그의 별명을 “양각서주(兩脚書櫥: 두 발로 걸어다니는 책장冊櫥)이란 뜻으로 광범위한 서적을 기송記誦함에 특별히 능한 사람이지만, 그 응용면에서는 암송에 못 미치는 사람을 가리켜서 하는 말”라고 불렀다. 문천상과 사백화가 서로 알게 된 것은 보우(寶祐) 을묘년(乙卯年: 1255년)이었다. 그 해 문천상은 백로서원(白鷺書院: 지금의 강서성江西省 길안시吉安市 공강贛江 강변에 위치함)에 입학하여 공부를 했는데, 그때 사백화를 비롯한 방계안(龐季安: 이력미상)·방계용(龐季容: 이력미상) 등 길수현(吉水縣) 인수촌(仁壽村)의 자제들이 온사 구양수도(歐陽守道: 1209~?: 구양은 복성複姓이고 수도守道는 이름임. 처음 이름은 손巽, 자는 우보迂父, 개명한 후의 자는 공권公權, 노년에 호를 손재巽齋라고 하였으며 저서에 『손재문집(巽齋文集)』이 있음)의 문하에서 수학하였다. 당시에 문천상과 문벽(文璧: 이력 미상)·사백화 등 동년배 청년들이 ‘해시(解試: 당송시대에 주州·부府에서 거행한 시험. 명정시대의 향시鄕試임)’에 응시하여, ‘길주공사(吉州貢士: 길주지방에서 시험에 합격한 청년들을 조정에 천거하는 인제)’에 합격하였다. 이때부터 그들은 깊은 우정을 맺게 되었다. 함순 2년(1266)의 기록을 보면, 황만석(黃萬石: 이력미상)이란 사람이 ‘문천상은 예제(禮制)를 위배한 불효자라고 무고(誣告)하여, 이로 인해 문천상은 파직 당해서 귀향했다. 그러자, 문천상은 문산(文山: 지금의 강서성江西省 길안시吉安市 동남쪽에 있는 산)을 개척해서 그 산속에 집을 짓고 은거하였다. 그는 이때 지기(知己)들을 청하여 저물 녀리면 이들과 함께 산보하며 석양을 관상(觀賞)하며 시로써 창화(唱和)하였다. 사백화 역시 이들 중의 주요인물로 당시에 그가 시를 읊으면 문천상 역시 시로 화답하는 것이 당시 한동안의 그들의 즐거움이였다. 함순 6년(1270)에는 문천상이 간상(奸相: 간신 재상) 가사도(賈似道)의 분노를 촉발하여 파면되고 나서 귀향한 뒤에도 사백화는 멀리서 문천상을 찾아와 시를 읊어 그의 생일을 축하해주고 격려하기도 했다. 함순 8년(1272)에는 문천상이 죽보를 기록하는데

사백화는 그 서문을 써서 가져다주는 등 변함없는 우정을 주고받았다. 그 후, 사백화가 양주(揚州: 지금의 강소성江蘇省 양주시揚州市)의 상사(上舍: 태학太學의 분외사分外舍, 곧 오늘날의 국립교육기관의 지방분교에 상당함)에서 교수를 역임하고 있을 때, 젊은 황제 도종(度宗: 1240~1274)은 사백화가 학문적으로 명성이 높다는 것을 알고 나서, 그를 경성 임안(臨安: 지금의 절강성浙江省 항주시杭州市)에 불러 한림원(翰林院: 관서명칭. 제고制誥, 즉 조서詔書를 작성하고 강독하며, 수사修史와 도서圖書를 관장하는 곳)의 편수관(編修官: 직령을 받들고 그와 관련된 서적 편찬을 관장하던 관원으로 정8품직이었음)으로 명하였다. 그 후 얼마 되지 않아 도종(度宗)이 죽고 원군(元軍)이 임안(臨安)을 공격하여 함락하자 태황태후(太皇太后: 황제의 조모: 이종理宗의 가귀비賈貴妃이며 가사도賈似道的 누님)는 어린 황제(송공제宋恭帝 1271~1323)를 가리킨. 나이 4세에 즉위하였음. 원군元軍에게 납북된 뒤, 영국공羈國公으로 강등되었으며, 나중에 출가하여 승려가 되었음. 재위는 2년이었음)를 데리고 도주하려 했으나 포로로 잡혀 항복조서에 서명하였다.(당시에 문천상은 우승상右丞相이었음) 이에 앞서 어린 황제를 모시고 도주하는 과정에서 사백화는 육수부(陸秀夫: 1238~1279)와 등천(鄧薦: 생몰년 미상) 등 수행원들과 원군(元軍)의 추격을 피해 지금의 복건성(福建省)과 광둥성(廣東省) 일대를 횡망하게 돌아다니다가 충격과 과로로 사백화는 노상에서 객사하였다. 문천상은 이 소식을 듣고 비통해 하면서 황제가 하사한 수의(壽衣)를 입혀 그의 고향에 안장시켰다.(이상은 위의 이종장李宗江의 자료를 참조하였음).

- ④ 부(賦): 시가(詩歌)를 창작하거나 음송(吟誦)하다.
- ⑤ 석양수호 불다시(夕陽雖好不多時: 석양은 아름답지만 오래 머물지 아니하네): 이 시구(詩句)에는 아래의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첫째, 문산(文山: 산 이름을 호로 삼은 문천상의 호) 문천상이 문산(文山: 산 이름. 지금의 강서성江西省 길안시吉安市 동남쪽에 위치한 산)에 은둔하고 있을 때 벼슬길로 나아가지 않은 그의 벗들이 모여 석양을 관상(觀賞)하면서 암송한 중국 선인(先人)들의 일모(日暮)와 석양에 관련된 시를 가리킨다. 그 일레가 당나라의 시인 이상은(李商隱: 812~858)이 「등낙유원(登樂遊原: 낙유원은 당나라 도읍지 장안성長安城 동남쪽, 지금의 섬서성陝西省 서안시西安市 남쪽 교외에 있었던 당나라 시대의 유람 명승지임. 원래 진秦나라 때 금수를 기르던 동산인 의춘원宜春院이었는데, 한선제漢宣帝 시대에 낙유원樂遊苑으로 개건改建하였음. 낙유원樂遊園이라고도 하고 홍고원鴻固原이라고도 함)」이란 시제(詩題)에 읊은 시구(詩句) 중에, “석양은 한없이 아름답지만, 아쉬운 것은 황혼이 가깝다는 것일세(夕陽無限好, 只是黃昏近).”라고 읊은 시구가 들어있는 시이다. 둘째, 문천상이 읊은 시의 시제(詩題)를 줄여서 표현한 구절로서, 서에는 이 시를 차운하여 본 시를 지은 것이다. 본 시의 시제에서 쓴 ‘석양은 아름답지만 오래 머물지 아니하네(夕陽雖好不多時)’라는 구절은 원래 애산(愛山) 사백화(謝伯華)가 선인(先人)의 시를 음송한 시의 시구이다. 문천상이 읊은 시의 원제(原題)는 “「애산愛山 사백화謝伯華와 황혼이 깃들 때 해 질 무렵이 아름답다고 읊은 선인先人들의 시를 음영吟詠하고, 손님들과 산보하면서 ‘석양은 아름답지만 오래 머물지 아니하네’라고 읊은 선인先人들의 시구를 음송한데 이어서 애산 사백화가 흔쾌히 시 한 수를 창작하여 율기에 나도 경쾌하게 <깊은 생각 없이> 입에서 나오는 대로 한 수 읊어 화답하니, 이 또한 얻기 어려운 즐거움이었네(和謝

愛山晚吟韻日晚，與客散步因誦‘夕陽雖好不多時’之句，謝愛山欣然賦之，余亦率然口占以和，亦一時之樂也。」이다. 이 싯구의 연원은 위의 사백화의 소개에서 밝혔듯이 만당(晩唐)의 시인, 이상온(李商隱: 812~858)의 「등낙유원(登樂遊原)」에 보이는 “석양무한호(夕陽無限好), 지시황혼근(只是黃昏近).”이라는 싯구에서 유래한 것이다.

- 2) 수초풍래 생만량(樹杪風來生晩涼: 나뭇가지 끝에 바람 불더니 날 저물자 서늘한데):

- ① 수초(樹杪): 나뭇가지 끝.
- ② 생만량(生晩凉): 날 저물자 서늘하다.
☆생(生): 생기다. 발생하다.
☆만량(晩凉): 저녁때의 서늘한 기운.

- 3) 강파횡예 잔하광(江波橫曳殘霞光: 강 물결 횡렬지어 출렁이는데 노을빛은 스러져가네):

- ① 강파횡예(江波橫曳): 강물결 횡렬지어 줄줄이 출렁이다.
☆강파(江波): 강물 물결. 강에서 일어나는 물결.
☆횡예(橫曳): 횡렬(橫列)을 지어 출렁이다.
a. 예(曳): 흔들거리다. 출렁이는 것을 가리킴.
- ② 잔하광(殘霞光): 저녁노을이 점차로 얼어지다.
☆잔(殘): 스러지다. 없어지다. 얼어지다.
☆하광(霞光): 저녁노을.

- 4) 난봉(亂峯): 여기저기 불쑥불쑥 솟은 고저(高低)가 고르지 않은 산봉우리. 높이나 모양새가 고르지 아니하게 여기저기 솟은 산봉우리.

- 5) 자기표묘(紫氣縹緲): 자색(紫色) 운기(雲氣) 어렵듯하다.

- ① 자기(紫氣):
☆자색운기(紫色雲氣): 고대 사람들은 상서로운 기운으로 여겼다. 또한 이것을 제왕이나 성현이 출현하는 조짐에 부회(附會)하기도 하였다. 본 시에서는 고대 사람들의 생각과는 상관없이 ‘자색운기’ 그 자체의 뜻만으로 사용되었다.
☆자주 빛의 서기(瑞氣).
☆보랏빛의 기운.
☆옛 사람들은 이 자기(紫氣)를 보물의 광기(光氣)로 여겼다.
- ② 표묘(縹緲): 표묘(縹渺) 혹은 표묘(縹渺)라고 쓰기도 한다.
☆어렵듯하다. 가물가물하다. 또한 그런 모양.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사용되었다.
☆소리가 청월(淸越: 맑고 가락이 높음)하고 유양(悠揚: 멀리서 은은하게 들려옴)한 것을 형용한 말.
☆바람에 나부끼다. 물에 떠다니다.

- 6) 이금진의 천인강(我今振衣千仞岡: 나는 지금 천길 높은 산마루에서 옷매무새 바로 잡고): 이는 진(晉)나라 좌사(左思: 250?~305)의 「영사(詠史)」시 8수 가운데, 제5수에 “천 길 높은 산등성이에서 옷을 털고 만 리를 흐르는 강물에서 발을 씻다(振衣千仞岡, 濯足萬里流).”라는 구절에 보이는 싯구이나, 시적경계가 좌사(左思)의 시에서는 탈속적(脫俗的)인 것을 표현했다면, 서애는 오히려 이를 입세적(入世的) 경계로 전환시켜서 표현하고 있다.

① 진의(振衣):

☆옷매무새를 바로 잡다. 옷차림을 단정히 하다.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옷을 벗어 먼지를 털다.

a. 진(振): (먼지를) 털다.

- ② 천인(仞): 매우 높거나 매우 깊은 것을 비유적으로 형용한 말. ‘천길만길’할때의 ‘천길’로 번역하다. 『장자(莊子)·외편(外篇)·추수(秋水)』에, “무릇 천리 먼 노정路程으로도, 바다의 광대함을 형용할 수 없고, 천길되는 높이로도 바다의 깊이를 헤아릴 수 없네(夫千里之遠, 不足以舉其大, 仞仞之高, 不足以極其深).”라고 한 대목이 있다. 서진(西晉)의 학자 사마표(司馬彪: ?~306?)의 시, 「山濤 <205~283: 학자, 정치가. 죽림칠현竹林七賢 중의 한 사람>에게 증정하다(贈山濤)」에, “위로는 드높은 창공에 오를 수도 있고, 아래로는 천길 깊은 계곡에 이를 수도 있네(上凌青雲霓*, 下臨千仞谷).”이라고 읊은 구절이 있다.

*운예(雲霓): 이 말은 원래 ‘무지개’란 뜻이나, 전(轉)하여, ‘고공(高空)’이란 뜻으로도 씀. 따라서 ‘창운예(靑雲霓)’는 곧 ‘창천(蒼天)’, ‘푸른 하늘’의 뜻으로 쓰임.

☆인(仞): ‘인(仞)’은 원래 ‘고대의 길이 단위’로서, 7척(七尺: 일곱 자)이다. 일설에 의하면, 8척(八尺: 여덟 자)을 ‘1인(一仞)’이라고도 한다.(1척<一尺: 한 자>은 1m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길이단위임)

- ③ 강(岡): 산등성마루(산마루). 산봉(山峯). 언덕(구릉).

- 7) 풍운장회 동비양(風雲壯懷同飛揚: 원대한 의지와 호방한 포부 함께 북돋우네):

① 풍운(風雲):

☆걸출한 비결을 지닌 책략이나 고상한 정취와 원대한 뜻을 지니고 있는 것에 비유 한다.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금(金)나라의 문인 원호문(元好問: 1190~1257)이 쓴 「해검행(解劍行)」에, “장엄한 회포와 원대한 의지를 품고도 수심에 깊이 잠겨서, 빨래하는 노부인에게 송구했으나 건네 줄 천금이 없었다네(壯懷風雲鬱沈沈, 慚媿漂母無千金).”라고 읊은 구절이 있다. 본 인용문에서는 “표모(漂母: 빨래하는 노부인. ‘모母’는 고대에 연세 높은 여인에 대한 존칭임)”라는 말에 전고(典故)가 있다. 이 말은 중국 전한(前漢)의 무장(武將) 한신(韓信: ?~BC 196)과 관계가 되는 말이다. 『사기(史記) 제92권·회음후열전(淮陰侯列傳)』에, “한신이 성 아래서 낚시를 하고 있었는데, 그곳에 노부인 몇 사람이 빨래를 하고 있었다(信釣於城下, 諸母漂). 그 중에 한 사람은 한신이 굶는 것을 보고, 자기 밥을 그에게 나누어 주어 먹게 했는데, 빨래를 마칠 때까지 수십일 동안을 이렇게 하였다(有一母見信飢, 飯信, 竟漂數十日). 한신은 기뻐서, 빨래하는 노부인에게 말하기를: ‘제가 반드시 할머니 은혜에 크게 보답하겠습니다(信喜, 謂漂母曰: ‘吾必有以重報母’).’라고 하였다. (이 말을 들은) 노부인은 화를 내면서 말하기를: ‘대장부가 스스로를 부양할 수 없기에, 나는 공자(公子: 본 인용문에서의 ‘왕손王孫’은 고대 귀족 자손의 통칭이며, 젊은이에 대한 경칭이기도 함)가 가련해서 밥을 주었을 뿐인데, 어찌 보답을 바라겠소(母怒曰: 大丈夫不能自食, 吾哀王孫而進食, 豈望報乎)’라고 하였다. ……한漢 5년 정월에, 제왕齊王 한신韓信을 초왕(楚王)으로 변경해서 봉하고, 하비(下邳: 지금의 강소성江蘇省 하비현下邳縣 서남쪽)를 도읍으로 정했다(漢五年正月, 徙齊王

信爲楚王，都下邳). 한신은 초나라 도성都城에 도착해서, 자신에게 밥을 나누어 주었던 그 노부인을 불러서 만나보고, 그녀에게 천금을 하사했다(信至國，召所從食漂母，賜千金).”고 한 대목이 있다.

☆천문(天文)·천상(天象)을 가리키는 말로 쓴다.

☆고대 군진(軍陣)의 명칭 중에 ‘풍(風)’과 ‘운(雲)’ 등의 용어가 있었던 까닭에 후세에 와서 ‘풍운(風雲)’이란 말을 ‘군진(軍陣)’이란 뜻으로 총칭하였다.

☆시세(時勢)를 비유하는 말로 쓴다.

☆의기투합하거나, 상종(相從)한다는 의미에 비유하거나 탁월한 재능과 식견에 비유하기도 한다. 『역경(易經)·건괘(乾卦)』편에, “구름은 용을 따르고, 바람은 범을 따르며, 성인이 출현하면 만물이 바라본다(雲從龍，風從虎，聖人作而萬物覩).”라고 한 대목이 있는데, 이것은 ‘같은 부류는 서로 감응함’을 이르는 말이다. 훗날 사람들은 이 글귀중의 ‘풍운(風雲)’이란 말을 가지고 ‘의기투합(意氣投合)함’ 또는 ‘상종(相從)함’을 비유하는 말로 썼다. 『문선(文選)』에서는 탁월한 재능과 식견을 비유한 말로 주석(注釋)하였다. 즉 『문선(文選)』 제59권에 남조(南朝) 시대 학자 심약(沈約 : 441~513)이 쓴 「제齊나라 종실 고故 안륙소왕安陸昭王 소면蕭繹 : 455~491의 비문碑文」(『文選·第五十九卷·齊故安陸昭王碑文』)에, “진기(真氣)가 탁월한 재능과 식견으로 가득차서, 공명정대함이 일월을 등에 짊어지고 있는 것 같았네(氣蘊風雲，身負日月).”라고 쓴 구절이 있다. 당(唐)나라 학자 이선(李善 : 630?~690)이 『문선(文選)』에서 이 글귀에 주(注)를 달기를, “현자는 탁월한 재능과 식견의 지혜를 지니고 있는 까닭에, 수많은 서적을 집필할 수 있다(賢者有風雲之智，故吐文萬牒).”고 하였다.

☆풍류(風流) : 재학才學이 출중하고, 행동거지가 소탈하며 풍도風度가 있음)가 남보다 뛰어난을 이르는 말.

☆지세(地勢)가 높고 먼 것을 비유한 말.

☆지위가 높은 것을 비유한 말.

② 장회(壯懷) : 장엄한 회포나 생각, 혹은 호방하고 웅장한 포부.

☆장(壯) : 장엄하다. 웅장하다. 장쾌하다. 호탕하다.

☆회(懷) : 생각·포부·도량.

③ 비양(飛揚) :

☆양양(昂揚)되다(하다).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분기(奮起)하다. 분발하다. 진작(振作)하다. 때로는 득의(得意)를 형용하는 뜻으로도 쓴다.

☆방縱(放縱)하다.

☆(바람에) 필력이다. 휘날리다. 나부끼다.

8) 불수낙경 우연장(不愁落景虞淵藏 : 해가 저서 우연虞淵에 머무는 것은 걱정도 안 된다네) :

① 불수낙경(不愁落景) : 석양이 갈려도 걱정하지 않다.

☆불수(不愁) : 걱정하지 않다. 아무렇지 않게 여가다.

☆낙경(落景) : 석양.

② 우연장(虞淵藏) : 우연(虞淵)에 머물다.

☆우연(虞淵) : ‘우천(虞泉)’이라고도 칭함.

- a. 전설에 의하면, ‘해 지는 곳’이라고 한다.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 b. 황혼(黃昏)이라고도 한다. 『회남자(淮南子)·천문훈(天文訓)』편에, “해가 우연(虞淵)에 지는데, 이것을 황혼이라고 한다(日至於虞淵, 是謂黃昏).”라는 구절이 있다.

☆징(藏) : 저장(儲藏)의 뜻이나, 본 시에서는 전(轉)하여, ‘체류(滯留)’의 뜻으로 쓰였다.

9) 준전(樽前) : 술잔 앞.

10) 만사상간 쌍빈황(萬事相看雙鬢黃) : 만사에 대처하다 보니 양쪽 귀밑털이 누렇게 뿔네) :

① 상간(相看) :

☆(사람이나 사물을) 대하다. 대처하다. 취급하다.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마주보다. 상호주시하다.

☆(같이 있지 않은 친자나 친구를) 문안하다. 방문하다.

☆자세히 보다. 관찰하다.

② 쌍빈황(雙鬢黃) : 양쪽 귀밑털이 누렇게 변하다.

☆쌍빈(雙鬢) : 양쪽의 귀밑 털. 좌우의 구레나룻.

a. 빈(鬢) : 살짝: 귀 앞에 난 머리 털.

☆황(黃) : 황색, 또는 황색으로(누렇게) 변하다.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오래 앓거나 굶주리거나 난감한 일을 당했을 때, 사람은 얼굴빛이 누렇게 변한다. 본 시에서 귀밑털이 ‘누렇게 변하다’는 뜻의 ‘황(黃)’자를 쓴 것은 만사에 ‘머리를 많이 써서 머릿속이 누렇게 떠 있는 것’을 형용한 말을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나이가 많아서 백발이 되었을 때는 ‘눈설(雪)’자나 ‘서리상(霜)’자를 써서 머리털의 변색을 형용한다.

시51. 소환령을 받들어 곧
관서지방_{關西地方}으로 떠나려 하면서
강변누각에 올라보니 느낀 바 있어

詩51. 將赴召西行¹⁾ 登江樓有感
장 부 소 서 행 등 강 투 유 감



白雲一片生丈人²⁾, 흰 구름 한 조각 노인같이 생겼더니,
백 운 일 편 생 장 인

晚來飛作西江雨³⁾. 저물녘에는 서강西江으로 날아가
만 래 비 작 서 강 우
비 되어 내리네.

雲消雨霽⁴⁾水鏡澄, 구름 걷히고 비 개면
운 소 우 제 수 경 정
강물은 편경같이 맑은데,

江南江北多烟樹⁵⁾. 강남강북의 수림은
강 남 강 북 다 연 수
거의 뿌연 운무에 싸여있네.

人生快意一登樓⁶⁾, 사람 살다 (마음) 상쾌해지면
인 생 쾌 의 일 등 투
한 번씩은 누각에 오르건만,

萬事悠悠⁷⁾吾已老. 만사가 뒤죽박죽인데
만 사 유 유 오 이 로
나는 이미 늙어버렸네.

萬事悠悠吾已老, 만사가 뒤죽박죽이고
만 사 유 유 오 이 로
나는 이미 늙었지만,

明朝又向關西道⁸⁾。 내일 아침이면 또 관서지방으로 가야하네.
 명 조 우 향 관 서 도

1) 장부소서행(將赴召西行) : 막 소환령을 받들어 관서지방關西地方으로 떠나려 하다 :

① 장부소(將赴召) : 막 소환령에 응하다.

☆장(將) : 부사로, ‘막(장차. 곧) …하러 하다’의 뜻으로 쓰였다.

☆부소(赴召) : 소환령에 응하다.

a. 부(赴) : 순응하다.

b. 소(召) : 소환령(召還令).

☆서행(西行) : 도성(都城) 서쪽으로 가다. 여기서의 서쪽은 관서지방(關西地方)을 이른다. 관서지방은 마천령(摩天嶺) 서쪽을 가리키는 말로, 곧 평안도와 황해도 북부지역을 가리킨다.

2) 생장인(生丈人) : 노인 모양으로 생기다.

① 생(生) : (…모양으로) 생기다. (…모양을) 만들다.

② 장인(丈人) :

☆고대에 노인에 대한 존칭으로 쓴 말.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가장(家長). 주인.

☆빙장(聘丈) : 빙부(聘父) : 악공(岳公) : 악옹(岳翁) : 아내의 아버지.

☆친척 연장자에 대한 통칭.

☆장부(丈夫) : 성년남자. 사나이. 대장부.

3) 만래비작 서강우(晩來飛作西江雨) : 저물녘에는 서강西江으로 날아가 비 되어 내리네) :

① 만래비작(晩來飛作) : 저물녘에 날아가 ~로 변하다.

☆만래(晩來) : 해질녘. 저녁 무렵.

☆비작(飛作) : 날아가며 변하다.

a. 작(作) : …로 변하다.

② 서강(西江) : 마포강(麻浦江) : 지금의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동 앞에 있는 강)의 하류를 서강(西江)이라고 한다. ‘도성(都城) 서쪽의 강’이라는 뜻이다. 이곳에는 많은 조운선(漕運船)이 모여 뚫혔다.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 권3에서는 “서강西江은 도성의 서쪽 15리에 있는데, 황해 · 전라 · 충청 · 경기도 하류의 조세 곡租稅穀이 모두 여기에 모인다(西江在都城十五里, 黃海全羅忠淸京畿丁流漕轉皆集于此).”고 하였다.

4) 운소우제(雲消雨霽) : 구름 걷히고 비 개다.

① 운소(雲消) : 구름이 걷히다.

☆소(消) : 소실되다. 해소되다. 사라지다.

② 우제(雨霽) : 비가 그치다. 비가 개다.

☆제(霽) : (비나 눈이 온 후에) 날이 개다.

5) 강남강북 다연수(江南江北多烟樹) : 강남강북의 수림은 거의 뿌연 운무에 싸여있네)

① 강남강북(江南江北) :

- ☆강남(江南): 강의 남쪽 지역. 본 시에서는 한강의 남쪽 지역을 가리킨다.
 ☆강북(江北): 강의 북쪽 지역. 본 시에서는 한강의 북쪽 지역을 가리킨다.
- ② 다연수(多烟樹): 뿌연 운무(雲霧)에 싸여있다.
 ☆다(多): 많다. 태반이다. 거의 대부분이다. 본 시에서는 수림(樹林)에 연무(烟霧)가 많이 끼인 상태를 형용하고 있다.
 ☆연수(烟樹): 연수(煙樹)라고도 쓴다. 운연(雲烟: 구름과 연기)이나 운무(雲霧: 구름과 안개) 등에 싸여 뿌연게 흐릿하고 멀리 보이는 수목이나 수림(樹林)의 뜻이다.
- 6) 인생쾌의 일등루(人生快意一登樓: 사람은 살다 <마음> 상쾌해지면 한 번씩은 누각에 오르건만):
 ① 인생쾌의(人生快意): 사람은 살다 (마음) 상쾌해지면.
 ☆인생(人生):
 a. 사람의 생존과 생활.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b. 사람이 출생하다.
 c. 사람의 일생.
 ☆쾌의(快意):
 a. 상쾌하다. 쾌적하다.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b. 뜻대로 되다. 마음에 들다.
 c. 하고 싶은 대로 뜻대로 하는 것을 이룸.
- ② 일등루(一登樓): 한 번씩은 누각에 오르다.
 ☆일(一): ‘한 번’의 뜻으로 쓰였다.
 ☆등루(登樓): 누각에 오른다.
- 7) 유유(悠悠): ‘흔들거리는 모양. (정세, 상황 등이) 불안한 모양’이란 뜻인데, 역자는 당시 조선의 상황을 고려하여 ‘뒤죽박죽’으로 번역한다. 이외의 기타 자세한 뜻은 「시32」의 주석(6)의 ② ‘유유(悠悠)’ 조항을 참조바람.
- 8) 명조우향 관서도(明朝又向關西道: 내일 아침이면 또 관서지방으로 가야하네):
 ① 명조우향(明朝又向): 내일 아침이면 또 ~가다.
 ☆명조(明朝):
 a. 내일. 내일 아침.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b. 새벽녘. 동 틀 무렵. 이른 아침.
 c. 이후. 금후. 장래.
 ☆우향(又向): 또 ...로 향하여 가다. 앞의 ‘우(又)’자는 부사로, 뒤의 ‘향(向)’자는 동사로 쓰였다.
- ② 관서도(關西道): 평안남도과 평안북도를 합쳐 부르는 지명으로, 흔히 ‘관서지방’이라고도 한다. 평안도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일찍 개발된 곳이다. 본 지명의 유래를 개괄하면 다음과 같다. 이곳에서 고조선(古朝鮮)·위만조선(衛滿朝鮮)이 건국되었으며, 이 시기에 평양은 북쪽에 부여(扶餘), 동쪽에 예(穢)와 옥저(沃沮), 남쪽에 마한(馬韓)과 접하고 있다. 한(漢)나라의 무제(武帝) 때 이곳은 낙랑(樂浪)·임둔(臨屯)·진번(眞番)·현도(玄菟)의 사군(四郡)이 설치되었고, 고구려 광개토대왕에 의해 낙랑군이 멸망할 때까지 400여 년 동안 중국의 통치를 받기도 하였다. 통일신라시대에 와서는 대동강 이북은 발해(渤海), 대동강 이남은

통일신라의 영토가 되었다. 발해가 멸망하자 북여진(北女眞)과 거란(契丹)의 영토가 되었으나 고려 태조가 잃었던 땅을 되찾았다. 995년(고려 성종 14)에 관서도(關西道)라 하였고, 정종 때 북계(北界)로 이름을 바꾸고 1102년(숙종 7)에 서북면(西北面)으로 개칭하였다. 조선시대인 1413년(태종 13)에 와서 평안도로 바뀌었다. 본 시에서 서애(西厓)가 사용한 ‘관서도(關西道)’라는 명칭은 고려시대 때 개칭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시52. 산승^{山僧} 사경^{思瓊}의 시집^{詩集}에 쓰다

詩52. 書¹⁾山人思瓊詩卷¹⁾ 서 산 인 사 경 시 권



秋山清,
추 산 청

가을 산이 청량^{淸凉} 하니,

秋水寒。
추 수 한

가을 강물도 차갑네.

落葉一片下西林²⁾,
낙엽 일 편 하 서 림

낙엽이 우수수 서쪽 수림산^{水林山}에
떨어지고,

鴈陣無數飛空潭³⁾。
안 진 무 수 비 공 담

무수한 기러기 떼 인적 없는
북담^{北潭}에 날아드네.

湘岸青楓天雨霜⁴⁾,
상 안 청 풍 천 우 상

상강^{湘江} 기슭엔 아직 물들지 않는
청록색 단풍 있다는데
하늘에선 (별써) 서리가 내리네.

孤舟蕩槳君山陰⁵⁾,
고 주 탕 장 군 산 음

일엽편주^{一葉片舟} 타고 노 저어
군산^{君山} 북쪽으로 가 봐도,

美人不見愁人心⁶⁾。
미 인 불 견 수 인 심

현인^{賢人}은 볼 수 없으니
사람 마음 시름겹네.

1) 서산인사경시권(書山人思瓊詩卷 : 산승(山僧 : 산중의 사찰에서 수도修道하는 승려) 사경思瓊의 시집詩集에 쓰다) :

① 산인사경(山人思瓊) : 산승(山僧) 사경(思瓊)

☆산인(山人) :

- 선가(仙家) · 도사(道士) 같은 사람을 이르는 말인데, 본 시에서는 ‘승려(僧侶)’를 가리키는 말로 쓰였다.
- 산중에서 거주하는 사람.
- 산중에서 은거하는 은사(隱士).
- 점을 치는 술사(術士)들에 대한 통칭.
- 산우(山虞 : 우관虞官)와 같은 말로서 고대 중국의 산림을 관리하던 벼슬 명칭.

☆사경(思瓊) : 승려 사경. 조선 명종(明宗 : 1534~1567)때의 문관 백담(柏潭) 구봉령(具鳳齡 : 1526~1586)의 시, 「소백산 승려 사경思瓊의 시축詩軸에 차운次韻하여 쓰다(次書小白山*僧思瓊軸)」에 ‘사경(思瓊)’이란 승려의 법호(法號)가 보인다. 그 시를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

계선溪仙과 신재愼齋가 올라갔던 머리타래 같이 검푸른 산

溪仙*愼老*踏蒼鬢*,

또 한 번 풍취 있는 자극궁紫極宮을 유람하고 돌아왔네. 紫極*淸遊又一還.
지팡이 짚고 어찌 나는 듯이 백악栢岳을 오를 수 있으랴만

那得*飛筇凌栢岳*,

마흔 아홉 해나 무위도식한 몸으로 (현자賢者의 발자취) 따라 올라갔네

追攀四十九*年閑.

라고 읊고 있다. 이 시는 풍기군수로 재임(在任)할 때, 이 소백산을 유람했던 그러나 당시에는 이미 고인이 된 퇴계 이황(1501~1570 : 계선溪仙)과 주세붕(1495~1554 : 호가 愼齋임)을 떠올리며 지은 것이다. 백담은 이러한 현자들의 요산(樂山) 풍취를 통해, 자신이 살아온 생애를 돌아보고 있는 것이다.

*소백산(小白山) : 충북 단양군(丹陽郡) 가곡면(佳谷面)과 경북 영주시(榮州市) 순흥면(順興面) 사이에 위치한 산이다. 본 산의 주봉(主峰)은 비로봉(毘盧峰)으로 높이는 1440m이다. 태백산(太白山 : 1568m) 부근에서 남서쪽으로 뻗어 있는 소백산맥 중의 산으로 북동쪽에 국망봉(國望峰 : 1421m), 남서쪽에 민배기재와 연화봉(蓮花峰 : 1394m)이 있어 험준한 연봉을 이룬다. 북서쪽으로는 경사가 비교적 완만하여 이른바 고위평단면을 이루고 있으며 그 위를 국망천(國望川)이 흘러 남한강으로 유입한다. 동남쪽으로는 비교적 경사가 급하며 낙동강 상류의 지류인 죽계천(竹溪川)이 발원한다. 소백산 일대에는 웅장한 산악경관과 천연의 삼림, 사찰, 암자, 폭포가 많아서 경관이 매우 아름답다. 이 지역은 1987년에 소백산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다.

*계선(溪仙) : 퇴계선선, 곧 퇴계 이황을 가리킴.

*신로(愼老) : 신옹(愼翁), 곧 신재(愼齋) 주세붕(周世鵬)을 칭함.

*창환(蒼鬘): 검푸른 머리타래로, 본 시에서는 검푸른 머리타래 같은 소백산(小白山)을 표현한 것임.

*자극(紫極): 자극궁(紫極宮). 당대(唐代)에는 도교(道教)를 중히 여겨, 노자(老子)를 현원황제(玄元皇帝)로 받들고 각처에 사당을 세웠는데, 서울의 사당은 현원궁(玄元宮)이라 하고, 각 지방의 사당은 자극궁이라고 칭했다. 혹은 산동성(山東省) 제남(濟南)에 있는 도관(道觀)을 가리키기도 한다.

*나득(那得): 어찌, 어떻게.

*백악(栢岳): 소백산을 칭한 것으로 보인다. 원래 소백산맥 중에는 ‘화다·높다·거룩하다’ 등을 뜻하는 ‘불’에서 유래된 백산(白山)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중 작은 백산이라는 의미로 붙여진 이름이 소백산이다. ‘백악(栢岳)’의 ‘백(栢)’ 자에는 측백나무와 잣나무를 대표적인 뜻으로 하나, ‘크다’는 의미도 있으니, 소백산 명칭의 유래에 부합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비공(飛筇): 날듯이 빠르게 지팡이를 짚고 가다.

*사십구(四十九): 서한(西漢)의 회남왕(淮南王) 유안(劉安: ?~BC 122)이 쓴 『회남자(淮南子)』에, “거백옥(蘧伯玉: ?~?: 춘추시대 위衛나라 사람으로 자가 백옥임. 영공靈公때 대부大夫를 지냈음. 길은 관대하지만 속은 강직한 성품으로 자신은 바르게 했지만 남을 바르게 하지는 못했음. 그리하여 그는 나이 오십이 되어서야 49년 동안의 잘못을 알았다고 함)은 오십이 되어서 49년 동안의 잘못을 깨달았다(蘧伯玉年五十而知四十九年非).”라고 하는 내용이 보인다.

**역주석: 역자가 보기에는 소백산 어느 절에서 수도하는 사경(思瓊)이라는 승려가 자신의 시권(詩卷)을 들고 하회에 있는 서애(西厓)를 찾아 온 것으로 보인다. 그리하여, 서애는 백담 구봉령이 사경(思瓊)의 시축(詩軸)에 차운하여 쓴 시를 되새기면서 위의 시를 쓴 것으로 생각된다.

② 시권(詩卷):

☆여러 편의 시를 모아 편집한 책으로, 시집(詩集)을 말한다.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과거(科擧)를 볼 때, 시를 짓던 글장.

2) 낙엽 일편하서림(落葉一片下西林: 낙엽이 우수수 서쪽 수림산水林山에 떨어지고):

① 일편(一片): 수량사(數量詞)로서, 아래의 몇 가지 용도로 쓰인다.

☆함께 모여든 소리를 형용하는 경우: 시끌벅적 떠들썩하다[喧闐一片]. 본 시에서는 낙엽이 많이 모여 떨어지는 모습을 형용한 말이다.

☆평평하고 얇은 사물에 쓰는 경우. 이때는 대체로 ‘조각’이라고 해석하면 된다. ‘한 조각의 얼음’·‘고기 한 조각’ 등이 그 예이다.

☆일대(一帶)의 지면(地面)이나 수면(水面) 등 범위가 비교적 넓은 사물에 쓰는 경우:

- a. 북송의 정치가이자 학자인 왕안석(王安石: 1021~1086)의 시 「교외에 나가 서(出郊)」에, “별관 일대가 무성한 녹색으로 뒤엉켰거늘(川原一片綠交加), 온통 수목만 뻗뻗하지 꽃이 보이지 않네(深樹冥冥不見花).”라고 읊은 구절이 있다.

☆조각 모양이나 조각 모양이 연이어진 경물(景物)에 쓰는 경우. 구름이나 성벽 같은 것을 수량할 때 쓴다. ‘상서로운 구름 한 조각(瑞雲一片), 한 채의 외판

성(一片孤城)’ 등이 그 예이다.

☆연기나 안개가 자욱하거나, 비가 내리는 풍경이나 기상(氣象)을 수량(數量)할 때 쓴다. ‘한줄기의 비(一片雨), 한줄기의 붉은 빛(一片紅光), 한조각의 밝은 달(一片月), 한줄기의 달빛(一片月光), 한줄기의 맑은 빛(一片晴)’ 등이 그 예이다.

☆함께 모여서 내는 소리에 쓰는 경우: ‘한바탕의 웃음소리(一片笑聲), 한바탕의 목소리(一片聲)’ 등이 그 예이다.

☆사람의 심정, 생각, 마음 등에 쓰는 경우: ‘한 조각 정화情懷(一片情懷), 한 조각 염원(一片心願),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변치 아니하는 마음(一片丹心)’ 등이 그 예이다.

☆문장이나 언어에 쓰이는 경우: ‘한 단락의 글(一片文字), 한바탕의 허튼소리(一片胡言), 한마디 말(一片談)’ 등이 그 예이다.

② 하서림(下西林): 낙엽이 서쪽 수림산(西林山)에 떨어지다.

☆하(下): 떨어지다. 하강(下降)하다. 강락(降落)하다.

☆서림(西林): 서예(西厓)의 만손자인 졸재(拙齋) 류원지(柳元之: 1598~1674)의 작품으로 전해지는 「하회십육경(河回十六景)」 중의 제15경인 「수림낙하(水林落霞)」에서의 수림(水林)을 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졸재집(拙齋集)』 권 10에서 ‘수림(水林)은 산 이름’이라고 주석을 달아 놓았다. 이 수림산(西林山)은 겸암정(謙菴亭) 서쪽에 위치한다.

3) 안진 무수비공담(鴈陣無數飛空潭: 무수한 기러기 떼 인적 없는 북담北潭에 날아드네):

① 안진(鴈陣):雁陣: 줄지어 날아가는 기러기의 행렬[隊伍]. 본 시에서는 기러기가 하늘을 나는 것이 아니고, 지상의 북담(北潭)으로 날아드는 정황을 묘사한 것이기 때문에, ‘대오(隊伍)’라는 용어 대신 ‘기러기 떼’라고 번역하였다.

② 공담(空潭): 물이 아주 맑은 심연(深淵). 본 시에서는 ‘고요한 북담(北潭)’의 뜻으로 쓰였다.

☆공(空): 유정(幽靜)하다. 고요하다. 그윽하다. 인적이 없다.

☆담(潭): ‘심연(深淵)’의 뜻인데, 본 시에서는 북담(北潭: 화회마을의 북쪽에 위치하는 부용대 앞을 흐르는 강물인데, 수심水深이 깊어 소沼를 형성하였기에 화회 사람들은 이곳을 ‘북담’이라 칭하였음)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4) 상안청풍 천우상(湘岸靑楓天雨霜: 상강湘江 기슭엔 아직 물들지 않은 청록색 단풍 있다는 데 하늘에선 <벌써> 서리가 내리네):

① 상안청풍(湘岸靑楓): 상강(湘江) 기슭에는 아직 물들지 않은 청록색 단풍나무가 있다.

☆상안(湘岸): 상강(湘江)의 기슭. 본 시에서는 ‘낙동강 상류 쪽으로 흘러들어가는 소백산(小白山) 계곡의 물갈이 있는 강 기슭을 대칭(代稱)하는 뜻으로 쓰였다.

**역자해설: 상안(湘岸)은 상강(湘江)의 기슭인데, ‘상강’이란, 중국 호남성(湖南省) 소재의 동정호(洞庭湖)로 흘러드는 강을 말한다. 이 강에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전해온다. 즉, 순(舜) 임금의 이비(二妃)인 아황(娥皇)과 여영(女英)이 순 임금의 남방쪽에 있는 묘인(苗人)의 평정을 따라 나섰다가, 이비는 상수(湘水)에 남고 순 임금은 계속 남하(南下) 하여, 창오(蒼梧)에서 병사(病死)했

다. 이미는 이 비보를 듣고 상수(湘水)에 몸을 던져 절명했다.([사기(史記)·오제 본기(五帝本紀)·우순(虞舜)·순임금]·『열녀전(列女傳)』 참조) 고대 중국의 전국시대(戰國時代) 초(楚)나라의 정치가이며 초사(楚辭)의 작가인 굴원(屈原: BC 343?~BC 277?)은 그의 「구가(九歌)」에서 이를 모티프로 하여, 「상군(湘君)」과 「상부인(湘夫人)」을 인·신(人神) 간의 비애적 사랑으로 구성하여, 하나의 제신(祭神)의 조곡(組曲)을 만들었다. 학계에서는 일반적으로 상군은 순임금의 정비(正妃)인 아황을, 여영은 한 단계 낮추어 상부인이라 칭하고 있다. 이 조곡은 상강과 동정호 안에 있는 군산(君山)을 시적배경으로 하고 있다. 이 시에서 주무(主巫)는 상군과 상부인의 현신(顯身)을 간절히 기원하는 제사를 드리지만 결국은 인·신우합(人神遇合: 주무와 신령의 만남을 말하는 것인데, 본 제신곡은 시의詩意 상에서는 군신(君臣)간의 만남을 갈구하는 것으로 은유하고 있다. 본고의 텍스트에서는 이미 고인이 된 퇴계 이황이나 신재(愼齋) 주세붕 같은 현자에 대한 그리움을 은유한 것으로 보임)이 이루어지지 못함을 골자(骨子)로 하고 있다. 서에는 바로 그의 시에서 이러한 간절한 시의(詩意)를 함축하여 현자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아래의 주석5)의 ② 군산(君山) 항목과 주석6)의 ① 미인(美人) 항목을 참조바람.

☆청풍(靑楓): 청록색의 단풍나무로, 이는 단풍나무의 일종이다. 단풍나무는 세계적으로 110종이 있고, 우리나라에는 약 20여 종류가 있다. 단풍나무 중에는 처음부터 붉은 단풍나무가 있는가 하면, 가을에 노랗다가 붉게 변하는 것도 있고, 붉어지지 않는 종류도 있다. 본 시의 흐름으로 볼 때, 이 청풍(靑楓)은 아직 붉게 물들지 않은 단풍나무로 보인다.

② 천우상(天雨霜): 하늘에서 서리가 내리다.

☆우(雨):

- a. 동사로 쓰여, ‘(서리가) 내리다’의 뜻이다.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 b. 비가 내리다.

5) 고주탕장 군산음(孤舟蕩槳君山陰: 일엽편주一葉片舟 타고 노 저어 君山 북쪽으로 가보건만):

① 고주탕장(孤舟蕩槳): 일엽편주(一葉片舟)로 노를 저어 가다. 시(詩) 속의 화자(話者)가 일엽편주를 타고 심중(心中)의 그리운 이가 있는 곳으로 찾아 나선 것이다.

☆고주(孤舟): 외로이 떠 있는 배. 고독하게 보이는 한 척의 배. 본 시에서는 ‘일엽편주(一葉片舟)’로 번역한다.

☆탕장(蕩槳): 노를 젓다.

- a. 탕(蕩): 흔들다. 젓다.
- b. 장(槳): 작은 노.

④ ‘노’는 물을 헤쳐 나아가게 하는 기구로, 옛날에는 다 나무로 만들었으며, 물속에 들어가는 부분은 납작하고 손잡이 부분은 가늘다. 큰 것은 ‘노(槽)’라 하고, 중간크기의 것은 ‘도(櫂)’ 또는 ‘도(棹)’라고 하며, 작은 것은 ‘좁(楫)’ 또는 ‘장國譯西厓全書 卷一 刊本篇, 別集 卷一(槳)’이라고 한다.

⑤ 삿대: ‘삿대’의 준말이다. 배질할 때 쓰는 긴 장대이다. 이것은 배를

넬 때나 띄울 때 또는 물이 얇은 곳에서 배를 밀어나갈 때나 비교적 큰 배가 강을 건널 때 깊은 곳에서 배를 밀어나갈 때 쓴다. ‘노나’ ‘삿네’는 모두 배를 나아가게 하는 용도로 쓰이지만 그 생김새나 쓰는 방법은 완전히 다르다.

- ② **군산음(君山陰)**: 군산(君山)의 북쪽. 본 시에서는 ‘소백산(小白山) 북쪽’을 대칭(代稱)한 것으로 보인다.

☆**군산(君山)**: 지금의 호남성(湖南省) 악양현(岳陽縣) 서남쪽 동정호(洞庭湖) 가운데에 위치하는 산이다. 이전에는 이 산을 상산(湘山) 또는 동정산(洞庭山)이라고 칭했다. 후에 순제(舜帝)의 두 비를 이곳에 매장하였고, 굴원(屈原)도 「구가(九歌)」에서, 이들을 각각 상군(湘君)과 상부인(湘夫人)으로 칭하게 되면서 후인들은 이 산을 군산(君山)이라고 칭하게 되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진(秦)의 시황제始皇帝도 남쪽을 순수할 때 이곳에 머물렀다고 하여, 또한 ‘군산(君山)’이라고 칭한다는 말이 전해지고 있다.

****역자해설**: 앞의 주석1)의 ①에서 예를 든 백담 구봉령이 읊은 시 「소백산 승려 사경思瓊의 시축詩軸에 차운하여 쓰다(次書小白山僧思瓊軸)」에서 읊은 ‘소백산’을 서애가 쓴 시에서는 ‘군산(君山)’으로 대칭하여 읊은 것으로 보인다. 서애 역시 구봉령처럼 ‘소백산을 유람했던 퇴계(退溪) 이황(李滉)과 신재(愼齋) 주세붕(周世鵬) 등의 현자(賢者)에 대한 그리움을 그는 구봉령과는 달리 굴원의 시가에 기탁하여 은유한 것으로 보인다. 고로, 서애의 시에서 읊은 ‘상안(湘岸)’과 ‘군산(君山)’의 지명은 ‘낙동강변’과 ‘소백산’을 대칭하여, 그리워도 만날 수 없는 서애의 현인(賢人)을 향한 사모의 심정이 곡진(曲盡)하게 여운을 풍긴다.

☆**음(陰)**: 북쪽을 칭한다.

- 6) **미인불견 수인심(美人不見愁人心)**: 현인賢人은 볼 수 없으니 사람 마음 시름겹네):

- ① **미인(美人)**:

☆**현자(賢者)**. 본 시에서는 ‘현자’ 뜻으로 쓰였으며, 자세한 것은 주석5)의 역자해설을 참조바람.

☆**군주(君主)**.

****역자해설**: 본 시어 ‘미인(美人)’은 『고문진보 전집(古文眞寶·前集)』 제7권에 수록된 노동(盧仝: 795~835)이 쓴 악부시(樂府詩) 「유소사(有所思)」에 보인다. 뿐만 아니라, 이 시는 『시림광기(詩林廣記)』 전집(前集) 8권과 『당시유향(唐詩遺響)』 5권에도 보인다. 여기에서 말하는 ‘미인(美人)’은 은둔하여 세상에 나오지 않는 현인·군자를 사모하는 내용을 가리킨다. 본 시구(詩句)의 연원은 『시경(詩經)·패풍(邶風)·간혜(簡兮)』에, “누가 내 마음 사로잡고 있을까? 서쪽에 있는 미인美人일세. 그 아름다운님은, 서쪽에 있는 사람이라네(云誰之思, 西方美人. 彼美人兮, 西方之人兮).”라고 읊은 데서 찾을 수 있다. 『모시서(毛詩小序)』에 의하면, 본 시의 내용은 나라가 어지러워져 현명한 사람이 뜻을 얻지 못하고 춤이나 추는 천한 지위에 있음을 탄식한 것이라고 해설하고 있다. 그리고 주희의 『시집전(詩集傳)』에서는 본 시에 보이는 ‘서방미인(西方美人)’을 서주(西周)의 훌륭한 왕(西周之盛王)을 가리킨 것이라 주해(註解)하고 있다. 또 ‘서방지인(西方之人)’이라고 말한 것은 ‘그 멀어서 볼 수 없음을 탄식한

말이다(歎其遠而不得見之辭也).’ 라고 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시적표현을 굴 원(屈原)의 「이소(離騷)」나 「구가(句歌)」의 편명인 「상군(湘君)」과 「상부인(湘夫人)」 등에서는 군신(君臣)간의 우합(遇合)을 남녀상련(男女相戀)이라는 애정시에 기탁하여 은유(隱喻)하는 ‘정치시(政治詩)’라는 또 하나의 갈래로 나타난다.

② 불견(不見) : 만나지 못하다. 보이지 않다. 본 시에서는 서애가 만나보고 싶지만 이미 별세한 것을 표현한 말로 보인다.

③ 수인심(愁人心) : 사람의 마음이 시름겹다.

☆수(愁) : 근심하다. 걱정하다.

☆인심(人心) :

a. 사람의 심지(心地 : 마음). 본 시에서는 서애 자신의 마음을 가리키는 말로 쓰였다.

b. 사람들의 염원 · 소망 · 감정 등을 가리키는 말.



시53. 구학정 龜鶴亭을 시제 詩題로 쓴 시 세 수

詩53. 題龜鶴亭¹⁾ 三首
제 구 학 정 삼 수

其一

[1]

繞郭沿溪細逕賒²⁾,
요 곡 연 계 세 경 사

외성外城 돌아서 냇물 따라
오솔길 나 있는데,

官橋村樹巧藏遮³⁾.
관 교 촌 수 교 장 차

(구학정은) 관교촌官橋村 수림에
교묘하게 가려졌네.

苔侵古石玄衣濕⁴⁾,
태 침 고 석 현 의 습

오래된 바위에 이끼 끼었고
관복도 축축해지는데,

岫列晴霄彩翼斜⁵⁾.
수 열 청 소 채 익 사

갠 하늘 아래 늘어선 산봉山峯은 채색
날개 펼친 듯하네.

異地逢場眞不偶⁶⁾,
이 지 봉 장 진 불 우

타지에서 만남은 진실로 우연이 아닌데다,

幽居占勝儘堪誇⁷⁾.
유 거 점 승 진 감 과

은거지에 승지勝地까지 갖췄으니
찬미하기에 족하네.

主人高節如清獻⁸⁾,
주 인 고 절 여 청 현

주인의 고상한 절의節義는
(북송北宋 관료) 청헌淸獻과 같아서,

龜鶴相隨老一涯⁹⁾。
구 학 상 수 로 일 애

거북과 학도 서로 따르며 같은
물가에서 머문다네.

其二

[2]

龜鶴亭中龜鶴姿，
구 학 정 중 구 학 자

구학정에서 바라 본 거북과 학 닮은 풍경은

幽情物態共相宜¹⁰⁾。
유 정 물 태 공 상 의

심원한 마음과 경물이 함께 잘 어울리네.

身辭魯榘寧希錫¹¹⁾，
신 사 노 탈 영 회 석

내가 나무 지팡이 사양하고
어찌 석장錫杖을 바라겠는가만,

夢入楊州更可騎¹²⁾。
몽 입 양 주 갱 가 기

꿈에 한양 가는 데는 놀랍게도
말까지 타고 갔다네.

孤艇乍回烟雨裏¹³⁾，
고 정 사 회 연 우 리

작은 배 한 척 홀연 안개비 속에서 돌아오고

小橋吟過夕陽時。
소 교 읊 과 석 양 시

시 읊으며 다리 건너는데 해질 무렵 되었네.

閒將二玩供眞樂¹⁴⁾，
한 장 이 완 공 진 락

한적하게 학과 거북 감상하면
참된 즐거움 느끼는데,

不許尋常俗子知¹⁵⁾。
불 허尋 상 속 자 지

보통 속인에게는
이런 감상 기대할 수 없다네.

其三

[3]

過臯曾揖羽衣仙¹⁶⁾，
과 고 증 읊 우 의 선

늪을 건너와 도복 입은 분에게 읊揖했는데,

祀骨何如曳尾賢¹⁷⁾。
사 골 하 여 예 미 현

제사 받는 거북유골이
어찌 빈천한 현자 보다 낫겠는가?

軒對晚峯看立立¹⁸⁾，
현 대 만 봉 간 립 립

정자에서 저물녘 산봉 마주하고
우뚱우뚱 솟은 모습 바라보다가,

臺臨綠水弄淵淵¹⁹⁾。
대 립 녹 수 농 연 연

계심대溪心臺 아래 녹수綠水 굽어보며
깊디깊은 소沼도 감상하네.

雲天有路聲聞九²⁰⁾，
운 천 유 로 성 문 구

창공에 길 있으니 구로회九老會에
소식 전하고,

蓮葉成巢壽滿千²¹⁾。
연 엽 성 소 수 만 천

연잎으로 지붕 덮은 은거지에서
천년 장수 빌어 보네.

麋鹿鳬鷺猶可友²²⁾，
미 록 부 예 유 가 우

순록馴鹿과 물새와도 벗으로 사귄 수 있나니,

一區相伴共蹢躅²³⁾。
일 구 상 반 공 편 선

한자리에 모여서 다 함께
덤실덤실 춤 추세나.

-
- 1) 구학정(龜鶴亭): 조선 중기의 문신 김복(金玢: 1540~1616)*이 영주(榮州) 가흥리(可興里), 지금의 경북 영주시 가흥동(可興洞)에 건립했었던 정자인데, 1988년 후손들이 봉화군(奉化郡) 봉화읍(奉化邑) 문단리(文丹里) 사암(巳巖) 마을로 이전(移建)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지 않은 정자이다. 이건하기 이전의 구학정은 영주시 영주동 한복판에 마치 거북모양을 한 나지막한 동산인 구성산(龜城山) 자락의 나지막한 암산(巖山)인 서구대(西龜臺)* 아래에 위치했었다. 이 당시 정자의 사방풍경은 매우 아름다웠다. 정자의 동쪽으로는 구성산의 나지막한 암산인 동구대(東龜臺)*를 바라볼 수 있고, 남쪽으로는 학가산(鶴駕山: 영주 남쪽 40리 되는 곳에 위치함)을 조망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으며, 그 이름과 같이 건물이 아담하고 풍치가 있었다. 동구대와 서구대 위는 널찍했으며, 동·서 양대(兩臺) 사이를 서천(西川)이 흐르고 있어 절승(絶勝)의 명소였는데, 1961년 서천의 물길을 돌렸고 지금은 그곳이 택지(宅地)로 바뀌어 옛 풍경을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정자는 정면 4칸, 측면 1칸의 팔작지붕이었으며, 정면에 낮 배 지붕을 한 일주문(一柱門)이 있었다. 이 정자에는 당시 김복과 교분이 두터웠던 서애(西厓) 류성룡(柳成龍: 1542~1607)과 지봉(芝峯) 이수광(李睟光: 1563~1628) 및택당(澤堂) 이직(李直: 생몰년 미상)

등 당대(當代) 명현(名賢)들의 찬시편액(讚詩扁額)이 있으며, 현관은 석봉(石峯) 한호(韓濩: 1543~1605)의 친필이다. 구학정의 명칭과 당시 정자의 모습에 대해서 1625년(인조 3)에 취사(炊沙) 이여빈(李汝濱: 1556~1631)이 발간한 『영주지(榮州誌)·산천서당(山泉書堂)』에서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구학정은 군[영주군] 서쪽 4리에 있는데(龜鶴亭在郡西四里), 서구대(西龜臺: 구성산龜城山 자락에 있는 나지막한 암산巖山) 아래에 참판 김복(金玢: 1540~1616)이 건립했다(西龜臺下, 金參判玢之建也). 공은 처음에 백암(柏巖: 조선 초기에 파문단破文丹으로 불리던 곳으로, 지금의 봉화읍 문단리文丹里임)에 거주했는데(公初居柏巖中), 동포(東浦: 지금의 영풍군榮豐郡 이산면伊山面 빈계樊溪)로 이사 가서 정자(亭子: 천운정天雲亭)를 짓고 연못을 파서(자연과 벗하며) 살았다(移東浦, 構亭鑿池以居之). 그러다가 다시 서구대西龜臺 아래의 산수 풍광이 뛰어난 것을 사랑해서, 만년에 그곳에 터를 잡아 집을 짓고 이사하여 정착했다(又愛西龜臺下, 山水之勝, 晚年卜築移寓焉). 남쪽으로 학가산이 마주 보이는데, 정자 명칭을 ‘구학정龜鶴亭’이라 이름 지어 붙인 까닭은, 아마도 구대(龜臺: 동구대東龜臺)와 학가산을 서로 마주 향하고 있다는 뜻에서인 것 같다(南對鶴駕山, 因名亭以龜鶴, 蓋以龜臺鶴駕相對之意也). 금니(金泥: 아교에 갠 금박가루)로 쓴 편액扁額은 선원仙源 김상용(金尙容: 1561~1637)이 전자체篆字體로써 쓴 것으로 정자에 걸려 있다(金書其額金尙容篆字掛于亭上). 건축양식이 세밀하고, 규모가 높고 큰데다 오묘하며, 방이 따뜻하고 격자창으로 바람이 잘 통하여, 겨울이나 여름철 모두 생활하기에 적합하다(制度確密, 輪焉輿焉, 愜室風櫺, 冬夏俱宜). 노래하는 아이 피리 부는 젊은이 등(笙歌聲樂과 관악管樂의) 음악이 모두 갖추어져 있으며, 굽어보면 계심대(溪心臺: 동구대東龜臺 남쪽 모퉁이에 위치한 암벽의 명칭) 아래에는 물이 맑은 소沼가 있다(歌兒 笛奴 肉竹皆備, 俯臨溪心臺下澄潭). 또한 거룻배(뜻이 없는 작은 배)를 만들어 띄워놓고, 길일이나 좋은 계절에, 때맞추어 친척이나 손님들과 함께 놀기도 했다(又造小舡泛之, 佳辰令節, 時與親賓共遊). <때로는> 격식을 바꾸어 대술 아래의 굽이도는 물가에 모여 상류에서 술잔을 띄워놓고 그 잔이 자기 앞에 오면 마시는 방법으로, 향리의 선비 중의 벗들과 자리를 함께 하고 술을 마시기도 했다(更制流觴曲水於臺下, 與鄉之士友列坐而飲).”고 한 대목이 있다.

*김복(金玢: 1540~1616): 조선 중기의 문신. 본관은 예안(禮安). 자는 희옥(希玉), 호는 백암(柏巖). 아버지는 진사 사명(士明)인데, 백부 형조원의랑 사문(士文)에게 입양되었다. 이황(李滉: 1501~1570)의 문인으로, 1576년(선조 9) 식년문과(式年文科: 자자·묘묘·오우·유酉 따위의 간지干支가 들어 있는 해는 3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데, 예를 들면, 갑자甲子·병오丙午·정묘丁卯·계유癸酉년 등이며, 이 식년式年에 호적을 조사하여 과거를 실시했음. 이때 시행한 문과 과거를 ‘식년문과’라고 함)에 병과(兵科: 고려 이후 전시殿試에 합격한 사람을 그 성정에 따라 나눈 등급의 하나. 정9품의 품계를 줌)로 급제하고, 1578년 검열(檢閱: 예문관의 정9품 벼슬. 사조史草을 꾸미는 일을 맡아 보았음) 전적(典籍: 성균관에 속한 정6품 벼슬)을 거쳐서 예조원의랑(禮曹員外郎)·정언(正言: 사간원司諫院의 정6품 벼슬)이 되었다. 1580년 전적(典籍) 겸 서학교수(書學教授)가 되고 홍문록(弘文錄)에 등록되었다. 이듬해 부수찬(副修撰: 홍문관의 종6품 벼슬)·지평(持平: 사헌부의 정5품 벼슬)·직강(直講: 성균관의 정5품 벼슬) 등이 되었다. 1584년 영월군수로 갔을 때 노산군(魯山君: 단종: 조선 단종이 세조에게 왕위를 빼앗기고 격하되었을 때의 칭호)의 묘를 배알하고 제청(祭廳)·재실(齋室)·찬청(饌廳)을

묘 옆에 짓고 처음으로 ‘노산군’이라는 호칭을 신주(神主)에 써서 부인 송씨(宋氏)의 신위와 함께 모셔 신임군수마다 죽던 변을 막았다. 3년 후에 돌아와 선조로부터 많은 처하를 받고, 교리에 서용되고, 1590년 집의(執義: 사헌부 종3품 관직)·사간(司諫: 조선시대 사간원의 종3품 관직)·검열·사인(舍人: 의정부의 정4품 관직)·사성(司成: 성균관의 종3품 관직)·사복시정(司僕寺正: 사복시의 정3품 벼슬)이 되었다. 임진왜란 때에는 형조참의(刑曹參議)를 거쳐 안동부사(安東府使)가 되었다가 경상도 안집사(安集使)로 영남에 가서, 충성스럽고 의기 있는 선비들에게 국가의 뜻을 알리고, 왜적을 토벌하도록 장려하고 백성들을 잘 다스렸다. 이듬해 경상우도관찰사(慶尙右道觀察使)가 되어 전라 좌·우도(全羅左右道)의 곡식을 운반하여 기근이 든 백성들을 구제하고자 하였다. 이어 도승지(都承旨: 승정원의 정3품 관직)·대사간(大司諫: 사간원의 정3품 벼슬)·한성부우윤(漢城府右尹: 한성부의 종2품 관직)·대사성(大司成: 성균관의 정3품 당상관직)을 거쳐, 1594년 동지의금부사(同知義禁府事: 의금부의 종2품 관직)·이조참판(吏曹參判)·부제학(副提學: 집현전에 두었던 정3품 관직) 등을 역임하였다. 이듬해 대사헌(大司憲: 사헌부의 종2품 관직)이 되어 「시무십육조(時務十六條)」를 상소하였는데, 모두 치안에 좋은 대책이라는 평을 들었다. 1599년 명나라 장수를 접반하고 형조참판에서 충청도관찰사로 나갔다. 1612년 하절사(夏節使)로 명나라에 가서 명나라 군사가 조선에 남아 있는 것처럼 꾸며 일본의 재침략을 막아 달라는 청을 올려, 명나라로부터 일본에게 재침을 허락하지 않겠다는 칙서를 보내게 하고 돌아왔다. 곧 대사성이 되고 안동부사로 나아가 범람하는 낙동강의 재해를 막기 위해 제방을 수축하여 후세에까지 칭송을 들었다. 그러나 김직재(金直哉: ?~1612)의 무옥(誣獄)에 연루되고 또 앞서 광해군의 생모인 공빈김씨(恭嬪金氏) 별묘(別廟)의 의물(儀物)을 종묘의 의물과 똑같이 하는 것에 반대한 것과 관련되어 강릉으로 유배가게 되었는데, 여러 대신들의 변호로 풀려났다. 영천의 구산서원(龜山書院)에 제향 되었고 저서로는 『백암문집(柏巖文集)』이 있다. 이조판서(吏曹判書)가 추증되었고 시호는 민절(敏節)이다.

*서구대(西龜臺): 동구대(東龜臺)와 마주보는 서쪽에 있는 암산(巖山)인데 대(臺)위가 넓다. 옛날에는 동서(東西) 양대(兩臺) 사이를 서천(西川)이 흐르고 있어서 절승(絶勝)의 명소였는데 1961년 서천물길을 돌려 황량해졌다. 서구대 아래에 구학정(龜鶴亭)이 있었고 남쪽의 평탄지에 제민루와 심판서 고택을 이곳에 옮겨 놓아, 하류하는 서천의 물길과 어울려 절승의 명소가 됐다. 영주시에서 이곳을 구학공원(龜鶴公園)으로 명명하여 조성하였다. 이 서구대 위에는 무신탑(無信塔)이 있었다고 한다. 신라 21대 소지왕이 구성산에 있는 나울(蘿井) 신궁에 참배하러 다니면서 아름다운 16세의 벽화(碧花) 아가씨를 알게 되었고, 미복(微服)을 하며 다녔는데 안동의 한 노파 집에서 노파로부터 부끄러운 이야기를 듣고 다시는 오지 않아서 벽화는 서구대에 믿을 수 없다는 뜻이라는 무신탑을 세웠다는 것인데 그 후에 왕은 벽화를 신라별궁으로 데려가 아들을 낳게 되었다는 ‘벽화이야기’가 전해진다(『삼국유사』 및 강우창 편집 『영주군지』 1968. p.59) 김득이 여기에서 읊은 시가 보인다.

「서대(西臺)」

서쪽 담벽의 해묵은 살구나무,
울창한 가지로 서대西臺를 뒤덮었네.

古杏西牆畔,
繁陰落小臺.

작은 거문고소리 달밤을 비껴가고,
때 맞춰 시원한 바람 불어오네.

短桐橫夜月,
時有好風來.

***동구대(東龜臺)**: 동구대의 남쪽 모퉁이에는 암벽이 깊은 담(潭: 못) 가운데 돌기(突起)하였는데, 마치 거북이가 엮드린 모습이다. 백 척(尺) 정도의 깎아지른 듯한 바위의 하단부가 물속에 잠겨있고 그 부분에는 집과 같이 생긴 동굴이 있는데, 예로부터 이를 용궁(龍宮)이라 했다고 전해진다. 이 절벽 위에는 계심대(溪心臺)라는 글자가 크게 새겨져 있고, 그 옆에는 ‘정덕(正德) 원년(1506년, 중종 1) 월 일(正德元年月日)’이라 새겨져 있으니, 이항(李沆: ?~1637)이 군수로 있을 때 박예(朴訥: 생몰년 미상)로 하여금 쓰게 한 것이다. 그 아래에 배가 정박해 있는 듯한 모습의 반석이 있는데, 십여 인이 앉을 만하여 낚시를 할 만한 곳이다. 대(臺)의 서쪽에는 또 하나의 대(臺)가 있는데 모양이 서로 비슷하여 ‘서귀대(西龜臺)’라고 칭한다. 동쪽과 서쪽에서 마치 석문(石門)처럼 대치(對峙)하여 그 사이로 하나의 시내를 포용하니 바로 서대천(西大川: 구대龜臺의 하류로 예천醴泉·감천甘泉 방면으로 가는 큰 길의 나루터임. 겨울에는 고을에서 다리를 만들어 사람들이 건너게 하고, 여름이면 도로 절거하고, 냇가에 시장이 선다)이다. 두 대 간의 거리는 거의 100여 보(步) 쯤 되는데 물을 사이에 두고 활터(射場)가 있다. 서쪽으로는 죽령(竹嶺)이 바라다 보이고, 남쪽으로는 학가산(鶴駕山)이 읊(搥)을 하는듯하여 대에 올라 유람하면서 감상하자면 기상(氣象: 경치)이 천만 가지라 이른바 산성이나 시가에서 제일仙境(仙境)이라는 곳이다. 향현(鄉賢) 집의(執義: 사헌집의司憲執義: 조선 초기 사헌부에 속한 정3품 벼슬)를 역임했던 세종조의 문신으로 향리의 賢人인 송인창(宋仁昌: 1403~?)이 생존시에 항상 와서 유람하면서 이곳의 경관을 완상하였다. 그러므로 속칭 집의대(集義臺)라고도 한다. 그 뒤에 참판 김득(金玜)이 또 서귀대 아래에 구학정(龜鶴亭)을 짓고 부윤(府尹) 오운(吳濬: 1540~1617), 통례(通禮) 권두문(權斗文: 1543~1617), 도사(都事) 박록(朴漉: 1542~1632) 등과 함께 구로회(九老會)를 결성하고 작은 배를 띄워 선유(船遊)하기도 하였다.

2) **요곽연계 세경사(繞郭沿溪細逕賒)**: 외성(外城)을 돌아서 냇물 따라 오솔길 나 있는 데):

① **요곽연계(繞郭沿溪)**: 외성(外城)을 돌아서 냇물 따라.

☆요곽(繞郭): 외성을 둘다.

a. 요(繞): (멀리) 돌아가다. 우회하다.

b. 곽(郭): 외성(外城). 구산성(龜山城)을 가리킨다.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영천군(榮川郡)』편에 의하면, “둘레가 1281척이요, 높이가 9척이며, 그 안에 우물이 있고, 또 군창(軍倉)이 있다.”고 하였다. 지금은 성지(城址)만 남아 있다.

☆연계(沿溪): 하천주변에. 하천을 따라서.

a. 연(沿): 본 시에서는 개사(介詞)로 쓰여, ‘...을 따라’의 의미로 쓰였다. (길, 물체의 가장자리 등을) 따라 이어지다. 끼다.

② **세경사(細逕賒)**: 오솔길이 나왔다.

☆세경(細逕): 세경(細徑): 오솔길. 좁은 길. 소로(小路).

☆사(賒): (거라) 멀다.

3) 관교촌수 교장차(官橋村樹巧藏遮 : <구학정은> 관교촌官橋村 수림에 교묘하게 가려졌네) :

① 관교촌수(官橋村樹) : 관교촌(官橋村)의 수림.

☆관교촌(官橋村) : 당시 영천군(榮川郡 : 지금의 영주시榮州市)에 있었던 촌락의 명칭이었는지, 관교(官橋 : 관로官路에 설치된 교량)가 있는 촌락이란 말인지 명확하지 않다. 다만 『영주지(榮州志)』의 「지명편」에 ‘관교촌(官橋村)’이란 지명이 없는 것으로 보아, ‘관교(官橋)가 있는 마을’이란 뜻으로 보는 게 타당할 것 같다.

② 장차(藏遮) : (앞을) 가리다. 차단하여 보이지 않게 하다.

4) 태침고석 현의습(苔侵古石玄衣濕 : 오래된 바위에 이끼 끼었고 관복도 축축해지는 데) :

① 태침고석(苔侵古石) : 오래된 바위에 이끼가 끼었다.

☆태침(苔侵) : 이끼가 끼다.

a. 태(苔) : 이끼.

b. 침(侵) : 침습하다. 어떤 물질에 다른 물질이 들어가거나 다른 사물표면에 엉겨 붙는 것을 이르는 말로서, 본 시에서는 ‘(이끼가) 끼다’는 뜻으로 쓰였다.

☆고석(古石) : 오래된 바위.

② 현의습(玄衣濕) : 관복이 축축해지다.

☆현의(玄衣) : ‘현의(玄衣)’의 원래 뜻은 고대 중국의 천자가 제사 때 입는 일종의 적흑색(赤黑色) 예복을 이르기도 하고, ‘경대부(卿大夫)의 명복(命服 : 천자가 하사한 관원들의 작위등급에 따라 다른 복색의 제복)’을 이르기도 한다. 본 시에서는 ‘관복(官服)’ 중의 ‘상복(常服 : 평상 집무시에 입는 관복)’의 뜻으로 쓰인 것으로 보인다. 우리 선조들의 관복은 편복(便服 : 평상시에 입는 간편한 옷)을 제외한 조복(朝服 : 관원이 조정에 나아가 하례할 때 입던 예복), 제복(祭服 : 제향祭후 때 즉, 나라에서 지내는 제사 때 입던 예복), 상복(常服), 공복(公服 : 관원이 평상시 조정에 나아갈 때 입던 제복), 용복(戎服 : 옛 군복. 무신武臣이 입었으며 문신文臣도 전쟁이 일어났을 때나 임금을 호종扈從할 때 입던 제복), 군복(軍服) 등을 모두 일컫는다. 그러나 좁은 뜻으로는 공복(公服)과 상복(常服)을 뜻하는 것으로 단령(團領 : 조선시대에 깃을 둥글게 만든 관복)의 포(袍 : 도포)만을 지칭하는 경우가 많다. 관복의 역사는 삼국시대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으며, 관식(冠飾)이나 옷의 색으로 품계를 구별하였다. 그러나 중국식 제도가 습용된 것은 648년(진덕여왕 2) 신라 김춘추(金春秋 : 602~661)가 당나라 태종으로부터 의대(衣帶 : 옷과 허리띠라는 뜻으로, 갖추어 입는 옷차림을 가리키는 말)를 받아오면서부터이다. 고려시대에는 관복제도가 제복 · 조복 · 공복으로 나뉘게 되었고, 조선시대에 와서는 더욱 세분화되어 제복 · 조복 · 공복 · 상복 · 용복 등으로 구별되었다. 관복에는 관모(冠帽)와 대(帶) 및 화(靴)를 비롯한 각종 부속품을 갖추어야 하며, 각 품급에 따라 포의 색이나 부속품의 재료 · 문양 등을 달리 하였다.

5) 수열청소 채익사(峩列晴霄彩翼斜 : 갠 하늘 아래 늘어선 산봉山峯은 채색 날개 펼친 듯하네) :

① 수열청소(峩列晴霄) : 갠 하늘 아래 늘어선 산봉(山峰).

☆수열(峩列) : 산봉우리가 늘어선 있다.

- a. 수(岫): 산봉우리. 산정(山頂), 산봉(山峯), 바위굴.
 ☆청소(晴霄): 개인 날 하늘에 뜬 구름장(넓게 퍼진 두꺼운 구름 덩어리). 하늘이 개다(맑아지다)
 a. 청(晴): (날씨가) 맑다. 개(이)다. 쾌청하다.
 b. 소(霄): 하늘. 고공(高空).
- ② 채익사(彩翼斜): 채색된 날개가 펼쳐진 듯 하다.
 ☆채익(彩翼): 채색을 띤 날개.
 a. 채(彩): 햇빛에 비친 산에 있는 수목의 색채를 가리키는 말.
 b. 익(翼): (날개처럼) 좌우로 갈라지는 것을 이르는 말.
 ☆사(斜): 기울다. 비스듬하다. 사선(斜線): 빗금.
- 6) 이지봉장 진불우(異地逢場眞不偶): 타지他地에서 만남은 진실로 우연이 아닌데다):
 ① 이지봉장(異地逢場): 타지에서 어찌다가 만나게 되다.
 ☆이지(異地): 타지(他地). 타향.
 ☆봉장(逢場): 어떤 장소(경우·상황)에서 만나다. 어떤 장소에 도착하다.
 ② 진불우(眞不偶): 사실 한 번도 만나지 못했다. 진실로 우연이 아니다.
 ☆진(眞): 진실로.
 ☆불우(不偶): 만나지 못하다. 우연이 아니다.
- 7) 유거점승 진감파(幽居占勝儘堪誇): 은거지에 승지勝地까지 갖췄으니 찬미하기에 족하네):
 ① 유거점승(幽居占勝): 은거지에 승지(勝地)를 갖추다.
 ☆유거(幽居):
 a. 한적하고 궁벽한 거주지. 본시에서는 은거지(隱居地)를 가리키는 뜻으로 쓰였다.
 b. 은거(하다). 은거하면서 벼슬길로 나아가지 않다.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c. 집안에만 머물면서 외부와 접촉하지 않다. 한거(閑居)하다.
 ☆점승(占勝): 승지(勝地)를 갖추다.
 a. 점(占): 갖추다. 점유하다.
 b. 승(勝): 승지(勝地): 경승지(景勝地): 경치가 좋은 곳.
- ② 진감파(儘堪誇): 극찬하기에 족하다. 참으로 찬미하기에 족하다.
 ☆진(儘): 부사로 쓰였으며, 줄곧·늘·몹시·이주·참으로·몹시 등의 뜻이다.
 ☆감파(堪誇): 과장 혹은 찬미하기에 족하다.
 a. 감(堪):
 ㉠ ...하기에 족하다.
 ㉡ ...할만하다.
- 8) 주인고절 여청헌(主人高節如淸獻: 주인의 고상한 절의節義는 <북송北宋 관료> 청헌淸獻과 같아서):
 ① 고절(高節): 고상한 절개. 고상한 절개를 굳게 지키다.
 ② 여청헌(如淸獻): 북송의 관료인 청헌(淸獻) 조변(趙抃) 선비와 같다.
 ☆청헌(淸獻): 북송의 태자소보(太子少保)를 지낸 조변(趙抃)의 시호(諡號)이다.
 a. 조변(趙抃: 1008~1084): 조변은 송나라의 명신(名臣)으로, 구주부衢州

府 서안현西安縣(지금의 절강성浙江省 구주시衢州市 가성구柯城區 신안가도信安街道 사만촌沙灣村) 사람이다. 자는 열도(閔道)이고, 호는 지비(知非)이다. 인종·경우(仁宗景祐) 원년(1034년)에 진사(進士)에 급제하고 무안군절도 추관(武安軍節度推官)을 지냈다. 숭안(崇安)·해릉(海陵)·강원(江原) 등 3개 현(縣)의 지현(知縣)을 역임(歷任)했고, 사주통판(泗州通判)을 지냈다. 인종·지화(仁宗至和) 원년(1054년)에는 전중시어사(殿中侍御史)로 승진되었다. 인종·가우(仁宗嘉祐) 원년(1056년)에는 경성에서 멀리 떨어진 목주(睦州)로 나가서 태수(太守)에 임직하고, 제주로전운사(梓州路轉運使)로 이임(移任)하였으며, 다시 얼마 후 익주태수(益州太守)로 자리를 옮겼다. 익주는 송나라의 변방지역으로 이른바 하늘은 높고 황제는 멀다는 ‘천고황제원(天高皇帝遠)’이라 불리는 곳으로 조정의 영향력이 미치지 못하는 곳이었다. 관리들은 법을 마음대로 왜곡하고 서로 향응을 제공하고 있었으며, 백성들의 생활은 궁핍하였고 민심은 안정되지 못한 상태였다. 조변은 직접 자신이 본보기가 되어 잘못된 기풍을 바로 잡으며, 백성들을 위로하였다. 이에 백성들은 매우 기뻐하였고 간소한 관리들은 놀라서 순종하였다. 영종·치평(英宗治平) 원년(1064년)에는 용도각직학사(龍圖閣直學士)가 되었다가, 다시 성도지부(成都知府)가 되었다. 신종(神宗)이 즉위 후, 지간원(知諫院)에 부름을 받았다가 곧 우간의대부(右諫議大夫)·참지정사(參知政事)에 발탁(拔擢)되었다. 그 후 신법(新法)에 반대했다가 지방관(地方官)이 되어 항주(杭州)·청주(青州)·성도(成都)·월주(越州)·지주(知州)를 역임하다가 다시 항주지주로 옮겨갔다. 신종·원풍(神宗元豐) 2년(1079년)에 태자소보(太子少保)를 거쳐 사직(辭職)했다. 원풍 7년(1084년)에 77세의 나이로 세상을 떴다. 태자소사(太子少師)로 추증되고, 청헌(淸獻)이라는 시호(諡號)를 받았다. 조변은 재직당시 권귀(權貴)를 두려워하지 않고 권신들의 잘못을 탄핵하여 세칭(世稱) ‘철면어사(鐵面御史)’라는 칭찬을 받았고, 신종이 즉위하면서 경성(京城)으로 다시 부름을 받아 감찰업무를 맡게 되었다. 신종은 일찍이 조변에 대하여, “듣건대 경이 촉주(蜀州)에 부임할 때 단기필마(單騎匹馬)로, 오직 거문고 하나와 학(鶴) 한 마리만을 싣고 갔는데, 위정(爲政)의 간이(簡易)함이 칭찬받을만하다(聞卿匹馬人蜀, 以一琴一鶴自隨, 爲政簡易, 亦稱是乎)!”라고 평가한 적이 있다.(이상은 『송사(宋史)·조변전(趙抃傳)』을 참조함)

9) 구학상수 노일애(龜鶴相隨老一涯 : 거북과 학도 서로 따르며 같은 물가에서 머문다네) :

- ① 구학상수(龜鶴相隨) : 거북과 학이 서로 따르는 게 아니라, 거북과 학도 서로 현자를 따르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거북과 학. 구학(龜鶴 : 거북과 고니)과 같은 뜻이며, 옛 사람들은 장수(長壽)를 상징하는 동물로 생각했으며, ‘장수(長壽)’를 비유한 뜻으로도 쓴다. 본 시에서는 구학정(龜鶴亭)을 은유한 말로 쓰였다.

☆상수(相隨) : 서로 따르다. 서로 상종하다.

- ② 노일애(老一涯) : 같은 물가에서 머물다.

☆로(老) : 부사로 쓰였으며, ‘줄곧. 언제나’의 뜻이다.

☆일애(一涯) : 동일한 수변(水邊 : 물가). 같은 안변(岸邊 : 물가).

a. 일(一) : 상동(相同)의 뜻으로 쓰였다.

b. 애(涯) : 수변(水邊 : 물가 : 하천의 가장자리).

10) 유정물태 공상의(幽情物態共相宜 : 심원한 마음과 경물이 함께 잘 어울리네) :

① 유정물태(幽情物態) : 심원한 마음과景物(景物).

☆유정(幽情) :

a. 심원(深遠)하거나 고아(高雅)한 심사(心思). 고상한 마음.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b. 울적하거나 은밀한 감정. 조용한 마음. 깊은 마음.

☆물태(物態) :

a. 사물의 형태. 형상.

b.景物. 풍경. 풍물.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c. 세태(世態).

② 상의(相宜) : 적당하다. 적당하다. 알맞다. 잘 어울린다.

11) 신사로탈 녕희석(身辭魯稅寧希錫 : 내가 나무지팡이 사랑하고 어찌 석장錫杖을 바라겠는가만)

① 신사노탈(身辭魯稅) : 자기 자신이 나무 막대기와 같은 둔탁한 목재(木材)로 지팡이를 만들어서 잡고 다니는 것을 사랑하다.

☆신사(身辭) : 내가 사랑하다.

a. 신(身) : 명사로 쓰이는 경우, ‘자기. 자신’. 부사로 쓰이는 경우, ‘몸소 친히, 스스로’의 뜻으로 쓰인다. 본 시에서는 양쪽을 다 사용해도 무방하다.

b. 사(辭) : 사랑하다. 취하지 않다.

☆노탈(魯稅) : 거칠고 둔탁한 나무지팡이.

a. 노(魯) : 거칠고 조잡하다. 둔하다.

b. 탈(稅) : 지팡이.

② 영희석(寧希錫) : 어찌 석장(錫杖)을 바라겠는가?

☆녕(寧) : 반어(反語)의 의미를 지닌 ‘어찌 …하지 않겠는가(豈不) · 설마 …하지 않겠는가(難道不)’의 뜻으로 쓰였다.

☆희(希) : 희망하다. 바라다. 경(憧憬)하다.

☆석(錫) : 석장(錫杖) : 승려나 수행자가 가지는 고리가 달린 지팡이를 말한다. 원래 인도의 승려가 산야를 편력(遍歷)할 때, 흔들어 울려서 독사나 해충을 쫓을 때 쓰던 것이었다. 머리 부분은 석제(錫製 : 주석 제품) 탑파형(塔婆形 : 탑 모양)으로 여러 개의 금속 고리를 붙였다. 밑 부분은 상이나 뿔로 가운데 부분은 나무로 만든다. 비구십팔물(比丘十八物 : 출가하여 구족계具足戒를 받은 남자 승려의 열여덟 가지 물건) 중의 하나이며, 성장(聲杖) 또는 명장(鳴杖)이라고도 한다. 또한 승려가 유행(遊行)할 때 반드시 가지고 가기 때문에 비석(飛錫)이라고도 하고 순석(巡錫)이라고도 한다. 일정한 곳에 머무는 때는 유석(留錫) 또는 괘석(掛錫)이라고도 부른다. 본 시에서는 은총이나 재물을 비유한 말로 쓰였다.

12) 몽입양주 갱가기(夢入楊州更可騎 : 꿈에 한양(漢陽) 가는 데는 놀랍게도 말까지 타고 갔다네) :

① 몽입양주(夢入楊州) : 꿈속에서 한양에 가다.

☆양주(楊州) : 고려 때의 지명으로, 지금의 ‘서울특별시’의 옛 이름이다. 서울은 BC 18년(백제 온조왕 1) 백제시대의 위례성(慰禮城 : 백제의 서울)이었고, 371년 (근초고왕 26) 이후의 북한성(北漢城 : 백제의 서울)이었으며, 고구려시대인 475년(고구려 장수왕 63)에는 남평양성(南平壤城 : 北漢山郡)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신라 때에 한양군(漢陽郡)으로 고쳤고, 고려 때에는 양주(楊州)로 고쳤으며, 1308년(고려 충렬왕 34)에는 양주를 한양부(漢陽府)로 개칭하였다. 조선 왕조가 한양부에 도읍을 정하면서 한성부(漢城府)로 고쳤으며, 그 후 1910년 일본이 침략하면서 경성부(京城府)로 개칭하였다. 1945년에 서울로 명명되었고, 1946년에 특별시로 승격되었다. 서울은 수도(首都)란 말에서 비롯되었고 서울의 별칭으로 경성(京城) · 한양(漢陽) · 도성(都城) · 황성(皇城) 등이 있다.

② 갱가기(更可騎) : 놀랍게도 말까지 타다. 오히려 말까지 타고 가다.

☆갱(更) : 부사로 쓰여, ‘뜻밖에도. 의외로. 상상외로. 놀랍게도’의 뜻을 지닌다.

☆가(可) :

a. 일반진술문에 쓰여, 어기(語氣)를 강조함.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b. 조동사로서, ‘…할 수 있다. …할만하다.’

13) 고정 사회연우리(孤艇乍回烟雨裏) : 작은 배 한 척 홀연 안개비 속에서 돌아오고 :

① 고정(孤艇) : 외로이 물에 떠 있는 한 척의 작은 배.

② 사회 연우리(乍回烟雨裏) : 홀연 안개비 속에서 돌아오다.

☆사회(乍回) : 본시에서는 나갔던 배가 포구(浦口)로 들어오는 것을 뜻한다.

a. 사(乍) : 언뜻. 갑자기. 돌연히.

b. 회(回) : 회래(回來) : 본 시에서는 나갔던 배가 돌아오는 것을 의미한다.

☆연우리(烟雨裏) : 보슬비 속에. 여기서 ‘리(裏)’는 장소를 나타내는 접미사로 쓰였다.

14) 한장이완 공진락(閒將二玩供眞樂) : 한적하게 학과 거북 감상하면 참된 즐거움 느끼는데) :

① 한장이완(閒將二玩) : 한적하게 학과 거북을 감상하다.

☆한(閒) : 한가하다. 한적하다.

☆장(將) : 개사(介詞)로서, ‘…을’의 뜻으로 쓰였다.

☆이완(二玩) : 거북과 학을 감상하다.

a. 이(二) : 二物 : 거북[구龜]과 학(鶴)을 가리킨다.

b. 완(玩) : 감상하다.

② 공진락(供眞樂) : 참된 즐거움을 느끼다.

☆공(供) : 제공하다. 주다. 바치다.

☆진락(眞樂) : 참된 즐거움. 인위적이 아닌 무위(無爲)의 즐거움.

15) 불허심상 속자지(不許尋常俗子知) : 보통 속인(俗人)에게는 이런 감상 기대할 수 없다네) :

① 불허(不許) : 기대할 수 없다.

② 심상(尋常) : 평상적인. 보통의.

③ 속자(俗子) : 속인(俗人). 성인(聖人)의 도(道)를 깨닫지 못한 사람.

④ 지(知) : 감상(感賞). 자각(自覺). 의식.

16) 과고증읍 우의선(過臯曾揖羽衣仙) : 늙은 건녀와 도복 입은 분에게 읊揖했는데) :

① 과고(過皁) : 늪을 건너다(건너오다. 건너가다).

☆과(過)

a.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가다. 건너다.

b. (어떤 지점이나 시점을) 지나다. 경과하다.

☆고(皁) :

a. 늪. 소택(沼澤). 본 시에서는 계심대(溪心臺) 아래에 위치한 소(沼)를 가리킨다.

b. 안(岸). 수변(水邊). 물가.

② 증읍(曾揖) : 이미 읍(揖)을 했다(올렸다).

☆증(曾) : 부사로서, ‘이미. 이전에. 일찍이’의 뜻이다.

☆읍(揖) : 인사하는 예(禮)의 하나이다. 두 손을 포개어 얼굴 앞으로 들어 올리고 허리를 앞으로 공손히 구부렸다가 몸을 펴면서 손을 내린다.

③ 우의선(羽衣仙) :

☆도복(道服)을 입은 비범한 인물.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으며, 구학정(龜鶴亭)의 주인인 김복(金功)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a. 우의(羽衣) : 우모(羽毛 : 새의 깃과 짐승의 털)로 짠 의복이란 뜻이다. 또한 우의(羽衣)를 ‘도사(道士)를 대칭하는 말’로도 쓴다. 여기서의 ‘우모(羽毛)’는 ‘조수(鳥獸)의 털’이란 뜻이다. 또한 ‘우모(羽毛)’를 ‘조수(鳥獸)의 대칭’으로도 쓴다. 따라서 우의(羽衣)가 실제로는 ‘모직의(毛織衣)’를 이르는 것이다. ‘우의(羽衣)’를 도복으로 쓴 사례는 아래의 예문을 참조 바란다. 『한서(漢書)·교사지(郊祀志 : 고대 제왕이 도서 밖에서 천지신(天地神)에게 올린 제사 내용을 기록해놓은 책)』에, “오리장군(五利將軍 : 한(漢)나라 방사(方士)란대(樂大)도 우의(羽衣)를 입었다(五利將軍亦衣羽衣).”라는 구절이 있다. 이 글에 당나라 학자 안사고(顏師古 : 581~645)가 주석(注釋)하기를, “‘우의’는 새의 깃으로 만든 옷으로서, 신선이 공중을 날아간다는 뜻을 취한 것이다(羽衣, 以鳥羽爲衣, 取其神僊飛翔之意也).”고 하였다. 오리장군 난대(樂大 : ?~BC 112)는 한무제(漢武帝 : BC 154~BC 870)때의 방사(方士 : 신선술(神仙術)을 연마하는 사람으로, 자칭 신선이 될 수 있다면서 연단(煉丹)을 제조해서 먹고 불로장생을 추구하는 사람)였다. 훗날 사람들은 ‘우의(羽衣)’를 도사나 신선이 입는 옷으로 간주하였다.

b. 선(仙) : 평범한 품격을 초월한 사람이나 사물을 가리킨다.

☆우모(羽毛)로 짠 옷을 입은 신선(神仙).

17) 사골하여 예미현(祀骨何如曳尾賢 : 제사 받는 거북유골이 어찌 빈천한 현자보다 낫겠는가) :

① 사골(祀骨) : 유골을 제사지낸다.

☆골(骨) : 유골을 가리킨다. 본 시에서는 명성이 높은 존귀한 사람의 유골을 가리킨다. 아래의 주석 ‘예미도중(曳尾塗中)’을 참조 바란다.

② 하여(何如) : 어찌 ...와 같겠는가? ...와 비교하여 어떠한가? 이는 반문에 쓰이며, ‘...보다 낫거나, ...만 못하다’는 것을 가리킨다.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시8」의 주석12)의 ‘하여(何如)’ 조항을 참조바람.

③ 예미현(曳尾賢) : ‘빈천한 은거생활을 하는 현자(賢者)’를 비유한 말이다. 본 시

에서는 구학정(龜鶴亭)의 주인인 김복(金功)을 가리키는 말로 쓰였다.

☆예미(曳尾): ‘빈천한 은거생활’을 비유한 말이다. 아래의 ‘예미도중(曳尾塗中)*’을 참조하기 바란다.

*예미도중(曳尾塗中): 『장자(莊子)·추수편(秋水篇)』에, “장자(莊子: BC 369? ~ BC 286?: 성명은 장주莊周, 전국시대戰國時代 송나라 사람으로, 도가道家의 대표적 인물)가 복수(濮水: 일명 복거수濮渠水라고도 하며 고대 황하黃河의 지류인 제수濟水의 분류分流임. 그 원류는 두 갈래인데, 그 중 한 갈래는 지금의 하남성河南省 봉구현封丘縣현 경계의 옛 제수濟水이고, 나머지 한 갈래는 원양현原陽縣 경계선 부근의 옛 황하임. 이 두 강물이 산둥성山東省 경계선에서 합류하여 거야택巨野澤으로 흘러들. 이후 황하의 물결이 바뀌면서 이 강은 고갈되었음. 본 예문에서의 복수濮水는 제수濟水의 지류를 가리킴) 강변에서 낚시질을 하고 있었다(莊子釣於濮水). 초위왕(楚威王: ? ~ BC 329: 성명은 웡상熊商임)은 대부 두 사람을 파견하여 장자의 의향을 타진하면서(楚王使大夫二人往先焉), 말하기를(曰): ‘선생께서 수고스럽지만 국정대사國政大事를 관장해주시기 바랍니다(願以竟內累矣).’라고 하였다. 장자는 낚시대를 권 채 돌아보지도 않고, 말하기를(莊子持竿不顧, 曰): ‘내가 듣기에 초나라에 신성한 거북이 있는데, 죽은 지 이미 3천 년이 지났음에도, 초왕은 그것을 천으로 싸고 대나무 상자에 넣어서 종묘의 상좌에 모셔두고 있다 했소(吾聞楚有神龜, 死已三千歲矣, 王巾筭而藏之廟堂之上). (하지만) 이 거북이란 것이 차라리 죽어서 등딱지를 남겨두고 사람에게 모셔지기를 바라겠소? 아니면 오히려 살아서 진창에 꼬리를 끌며 마음대로 기어 다니기를 원했겠소(寧其死爲留骨而貴乎? 寧其生而曳尾於塗中乎?)’라고 물으니, 대부 두 사람은 말하기를(二大夫曰): ‘(그야 물론) 오히려 살아서 진창에 꼬리를 끌며 자유로이 기어 다니기를 원했겠지요(寧生而曳尾塗中).’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장자가 말하기를(莊子曰): ‘그렇다면 두 분은 그만 돌아들 가시지요(往矣)! 나도 진창에서 꼬리를 끌며 자유로이 돌아다니고 싶소(吾將曳尾於塗中).’”라고 하였다. 위의 예문에서의 ‘도(塗)’는 ‘진흙 땅: 진창’이란 뜻이다. ‘고향’이자 ‘은거지(隱居地)’를 비유한 말이다. 거북이는 자신의 등딱지가 찢치는데 이용되면서 존귀하게 되어 종묘의 상좌에 모셔졌지만, 그 몸통은 훼손되고 자연에 순응하며 사는 천성(天性)을 상실하게 되었다. ‘예미도중(曳尾塗中)’이란, 말의 의미인즉, 거북이가 죽어서 그렇게 귀하게 되기보다는 살아서 진창에 꼬리를 끌고 자유로이 기어 다니기를 원하듯이, 벼슬하여 명성은 떨치지만 심신의 속박을 받는 것보다는 빈천한 은거생활을 하면서 유유자적하는 것을 원한다는 것을 비유한 말이다.

18) 현대만봉 간립립(軒對晚峯看立立): 정자에서 저물녘 산봉 마주하고 우뚝우뚝 솟은 모습 바라보다가):

① 현대만봉(軒對晚峯): 정자에서 저물녘의 산봉우리를 마주하고 있다.

☆현(軒): 앞이 탁 트이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건물을 가리키는데, 예를 들면, 정자[亭]·누각[閣] 등이 있다. 본 시에서는 ‘정자’를 가리키는 뜻으로 쓰였다.

☆대(對): 마주하다.

☆만봉(晚峯): 저물녘의 산봉우리.

② 입립(立立): 못 산봉우리들이 우뚝우뚝 솟아있는 모양.

19) 대림녹수 농연연(臺臨綠水弄淵淵: 계심대溪心臺 아래 녹수綠水 굽어보며 깊디깊은 소沼도 감상하네):

① 대림(臺臨): 계심대(溪心臺)에서 내려다보다.

☆대(臺): 평지에서 사방을 조망하기 위해 쌓아올린 건축물이나 평지보다 우뚝 솟아 오른 물체를 ‘대(臺)’라고 하는데, 본 시에서는 서구대(西龜臺) 맞은편에 위치한 동구대(東龜臺)의 남쪽 모퉁이에 있는 암벽을 말한다. 그 암벽이 바로 계심대이며, 깊은 못 가운데 우뚝하게 솟아있는데 그 모습이 마치 거북이가 엮드린 모습이라고들 한다. 앞의 주석1)의 동구대(東龜臺) 조항을 참조바람.

☆림(臨): 높은 곳에서 낮은 곳을 내려다보다.

② 농연연(弄淵淵): 깊디깊은 소(沼)를 감상하다.

☆농(弄): 감상하다. 보고 즐기다.

☆연연(淵淵):

a. 깊고 넓다. 깊다. 조용하고 깊은 모양.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b. 복소리.

20) 운천유로 성문구(雲天有路聲聞九: 창공에 길 있으니 구로회九老會에 소식 전하고):

① 운천(雲天):

☆고공(高空).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으며, ‘창천(蒼天: 창공蒼空)’의 의미로 쓰였다.

☆조정(朝廷)을 비유한 말.

☆仙境(仙境)을 비유한 말.

☆구름이 떠 있는 하늘.

② 성문(聲聞): 성문(聲門)으로도 쓴다:

☆음신(音信)·편지·소식·기별.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명성(名聲).

☆범어(梵語: 산스크리트어[Sanskrit語]: 고대 인도의 표준어)로 사라바카[Śrāvaka]의 음역(音譯)이며, 불교의 설법을 듣고 사제(四諦*: 고·집·멸·도苦集滅道: ‘사제四諦’에서 ‘諦’의 현대 한자음은 [체]이나 불교에서는 단어에 따라 ‘제’로 발음하는 관습적 용법이 있다. ‘사제(四諦)’는 그러한 단어의 하나인데, 우리 사전에는 관용적으로 ‘사제(四諦)’로 쓰는 것을 인정하여 ‘사제’와 ‘사제’를 유의어(類義語)로 처리하고 있다)의 이치를 깨달아 아라한(阿羅漢: 나한羅漢: arhan)이 되고자 하는 불제자를 성문(聲聞)이라고 한다.

*사제(四諦): 사제란, ‘영원히 변하지 않는 네 가지의 성스러운 진리라는 뜻이다.’ 이룰데면, 첫째는 ‘고제(苦諦)’로 인생의 생존은 모두 괴로움이라는 진리이다. 둘째는 ‘집제(集諦)’로 인생의 고통이 미혹에 의한 업(業)이 쌓여서 원인이 된다고 하는 진리이다. 셋째는 ‘멸제(滅諦)’로 괴로움이 소멸된 상태가 이상경(理想境)이라고 하는 진리이다. 넷째는 ‘도제(道諦)’로 번뇌를 끊고 열반(涅槃)에 이르기 위한 진리로서의 도(道)이다. 이것을 정확하게 관조하면서 수련하는 것이다.

③ 구(九): 구로회(九老會)의 약칭으로 쓰였다. 구로회는 참관 김복(金玢: 1540~1616)이 서구대(西龜臺) 아래 구학정(龜鶴亭)을 짓고 나서, 당시 친분이 두터웠

던 경주부윤(慶州府尹)을 역임한 오운(吳濔 : 1540~1617)과 통례원정(通禮院正 : 조선시대 조회朝會와 의례儀禮를 맡아보던 통례원의 정3품 관직)을 역임한 권두문(權斗文 : 1543~1617) 및 도사(都事 : 지방관찰사의 보좌관이나 의금부義禁府를 비롯한 여러 관청에서 서무를 맡아보던 종5품 관직)를 역임한 박록(朴瀲 : 1542~1632) 등 아홉 사람이 산수자연을 소요음영(逍遙吟咏)하며 결성한 친목회이다. 본 시의 주석1)의 동구대(東龜臺) 조항도 참조바람.

21) 연엽성소 수만천(蓮葉成巢壽滿千 : 연잎으로 지붕 덮은 은거지에서 천년 장수 빌어 보네) :

- ① 연엽성소(蓮葉成巢) : ‘빗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연잎으로 지붕을 덮은 은거처를 짓다’는 뜻이다. 본 시에서의 ‘소(巢)’는 새둥지[조소鳥巢]가 아니라, ‘구학정(龜鶴亭)’을 은유한 말로 쓰였다. 또한 본 시에서의 ‘소(巢)’는 ‘소혈(巢穴 : 은거처를 은유한 말로 쓰였다)’의 약어로 봐야한다. 따라서 역자는 ‘은거처’로 번역한다.
- ② 수만천(壽滿千) : 천년 장수를 빌다.
 ☆수(壽) : 축수(祝壽)하다. 장수(長壽)를 빌다. 오래 살기를 빌다.
 ☆만천(滿千) : ‘천년(千年)을 채우도록, 천년이 되도록’의 뜻으로 ‘천년의 세월’을 가리키는 말이다.

22) 미록부예 유가우(麋鹿麋鷺猶可友 : 순록馴鹿과 물새와도 벗으로 사귄 수 있나니) :

- ① 미록(麋鹿) :
 ☆순록(馴鹿)을 이르는 말.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순록은 사슴과의 동물로서 포유동물이며, 털은 담갈색(淡褐色)이다. 수컷은 뿔이 있는데, 사슴뿔을 닮았고, 꼬리는 당나귀 꼬리를 닮았으며, 발굽은 소의 발굽을 닮았고 목은 낙타의 목을 닮았지만, 몸통 전체를 놓고 볼 때, 그 어느 동물도 닮지 않았다. 몸통의 길이는 1.8m이고 어깨의 높이는 1m 정도이며, 성질이 온순하고 초식(草食)을 하며, 원산지는 중국이며 희귀한 짐승이다.
 ☆순록(馴鹿)과 사슴을 아울러 이르는 말이다.
- ② 부예(鷺鷥) : 부구(鳬鷗) : 물오리와 갈매기. 총괄하여 ‘물새[水鳥]’를 가리킨다.
- ③ 유가우(猶可友) : 또한 벗으로 삼을 수 있다.
 ☆유가(猶可) :
 a. ...까지도(조차도) ...할 수 있다.
 b. ...도 ...할 수 있다.
 c. ...할 수 있다.
 ☆우(友) : 동사로 쓰여, ‘벗으로 삼다’.

23) 일구상반 공편선(一區相伴共蹁躚 : 한 자리에 모여서 다함께 덩실덩실 춤 추세나) :

- ① 일구(一區) :
 ☆한 구역. 전(轉)하여 본 시에서는 ‘한자리’의 뜻으로 쓰였다.
 ☆한 구획의 땅을 가리킨다.
 ☆한 채의 뜰이 있는 저택.
 ☆한 종류. 한 무리(덩어리, 떼).
- ② 상반(相伴) :
 ☆서로 함께 하다. 함께 모이다.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수행하다. 동행하다.

③ 편선(蹁蹣) : 편선(蹁蹣) :

☆빙빙 돌며 너울너울(윙윙 혹은 덩실덩실) 춤을 추다.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으며 그렇게 춤추는 모양을 가리키기도 한다.

☆비틀거리다. 비틀거리는 모양.

- a. 편(蹁) : 명사로써는 '무릎'이나, 동사인 경우에는 비틀거리다. 다리를 굽히다. 형용사인 경우에는 다리를 율동적으로 움직이는 동작[모양]을 가리킨다.
- b. 선(蹣) : 춤추는 모양.



시54. 왕양명 王陽明 시詩의 운韻을 차운 次韻하여
지은 시를 옥연정사 玉淵精舍 벽에 써
붙이다

詩54. 次陽明韻¹⁾ 題玉淵²⁾壁上
차 양 명 운 제 옥 연 벽 상

幽居興味與時深³⁾, 은거의 흥취가 세월과 더불어 깊어졌나니,
유 거 흥 미 여 시 심

塵事寧容一點侵⁴⁾, 어찌 조금인들 세상사에
진 사 념 용 일 점 침 간여할 필요 있으리.

竹塢秋聲聞戛玉⁵⁾, 대숲에 싸인 강기슭에
죽 오 추 성 문 알 옥 가을소리가 옥성 玉聲 같이 들리고

江臺月色見鎔金⁶⁾, 강변석벽의 달빛은 황금색으로 밝아 보이네.
강 대 월 색 견 용 금

行藏淚滴登樓眼⁷⁾, 가다섰다하며 눈물 머금고
행 장 루 적 등 루 안 (저우) 누각에 올라 와서,

精一功慚望道心⁸⁾, 마음 닦은 공功 부족해 부끄러우나
정 일 공 참 망 도 심 도심 道心의 경지 살피보네.

浮世已知眞夢幻⁹⁾, 세상살이가 실로 한바탕
부 세 이 지 진 몽 환 꿈이란 것을 이미 알기에,

晚來長嘯白雲岑¹⁰⁾。
만 레 장 소 백 운 첨

해질녘 백운 걸친 산봉山峯에서
큰 소리로 외쳐보네.

1) 차양명운(次陽明韻): 왕양명 시의 운韻을 차운(次韻)하다.

① 양명(陽明): 명(明)나라 유학자 왕수인(王守仁)의 호

☆왕수인(王守仁: 1472~1528): 왕양명(王陽明): 명나라 중엽의 유학자로 절강성(浙江省) 여요현(餘姚縣), 지금의 절강성 여요시(餘姚市) 요강(姚江) 북안(北岸) 출신이며, 성씨는 왕(王), 이름은 수인(守仁), 자는 백안(伯安), 별호는 양명자(陽明子)이다. 그가 태어난 시기는 명 왕조가 창건된 지 대략 100년이 지난 때로서, 밖으로는 위라트(衛拉特: 몽골 서쪽에 있던 부족으로 오이라트[瓦剌][Oirat] 부족에 대한 청대의 호칭)·타타르(韃靼[Tatar]: 말갈족靺鞨族의 또 다른 부족)·토번(吐蕃: 지금의 서장西藏지역: 티베트[Tibet]에 거주했던 부족명칭)·묘족(苗族: 지금의 귀주성貴州省을 중심으로 광범하게 분포한 부족 명칭)과 같은 변방의 외민족의 침입이 있었고, 안으로는 각지에서 도적들이 봉기했으며, 조정에서는 환관에 의한 부정부패가 횡행하던 때였다. 학문과 사상도 남송이후 지배적 위치를 차지했던 주자학(朱子學)이 훈고(訓詁)와 사장(詞章)에 빠져 공허한 지식에 머물면서, 그 근본인 자기 수양을 돌보지 않았던 시기였다. 양명은 어렸을 때 가정에서 조부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는데, 그는 5세 때까지 말을 하지 못했다고 한다. 11세 때 부친을 따라 북경에 갔던 무렵에 금산사(金山寺)를 지나가면서 달을 읊은 시가 있는데, 그 시는 “산은 가깝고 달은 멀어서 달이 작다 여겨지는 것인데, 편한대로 이 산이 달보다 크다 하네(山近月遠覺月小, 便道此山大於月). 만약 하늘처럼 큰 눈 가진 사람 있다면, 역시 산이 작고 달이 더 크다는 걸 볼 수 있을 터인데(若人有眼大如天, 還見山小月更圓)”라고 읊었다. 시구를 받아든 그의 부친 역시 놀랐다고 한다. 그 후 그는 주로 속사(塾師: 글방 스승)에게서 배웠다고 한다. 그는 소년시대부터 자기의 눈으로 사물을 보는 비판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고 한다. 그 일례로, 12세 때, 어느 날 속사가 독서하는 목적의 첫째가 과거에 급제하는 것이라고 하자, 왕양명은 성인(聖人)이 되는 것이라고 대답했다고 한다. 15세 때, 거용관(居庸關: 지금의 북경시 昌平縣 서북 30리에 위치함)과 산해관(山海關: 지금의 허북성河北省 황도시 皇島市 동북 30리에 위치함) 사이의 먼 노정을 나그네로서 방문하여 명산대천의 형세를 관람했다. 그는 17세 때 부인 제씨(諸氏)를 남창(南昌)에서 맞이했는데, 결혼하던 당일 집을 나가서 우연히 근처의 산중에서 도사와 양생설(養生說)을 논하다가 귀가하는 것도 잊은 채로 밤을 새우는 등 상규(常規)를 벗어난 행동을 하였다. 다음 날 새벽에 사람들이 그를 찾아서 귀가했다. 귀향해서는 독서에 힘썼다고 한다. 변경문제가 떠들썩한 시기인지라, 26세를 전후로 해서, 그는 병법(兵法) 논하기를 좋아했으며, 활쏘기에 열중하기도 했다. 그는 한때 불교와 노장사상에 빠지기도 했으나, 28세 때 회시(會試)에 응시하여 급제하여 관리가 되었다. 홍치 12년(弘治十二年: 1500)에 진사(進士)가 되어 형

부주사(刑部主事)를 역임했다. 왕양명이 독자적인 사상을 갖기에 이른 것은 용장(龍場: 지금의 귀주성貴州省 수문현修文縣)에 유배된 것이 그 계기가 된 것이다. 이곳에서의 귀양살이는 당시 부패정치에 대한 왕양명의 정의감을 불러일으킨 사건이었다. 그것은 왕양명이 35세 때에 새로 즉위한 무종(武宗)에 대하여 간관(諫官)인 대선(戴銑: ?~1507)과 어사(御史) 박언휘(薄彦徽: ?~?)가 표(表)를 올려, 당시 8당(八黨) 혹은 8호(八虎)라 일컬어지던 8명의 권력을 맘대로 전횡하던 환관 중의 대표적 인물 유근(劉瑾: 1451~1510)을 경계하는 것이 좋다는 간언(諫言)을 올렸던 사건이었다. 그러나 이는 황명(皇命)을 거역했다는 죄명으로 두 사람은 하옥된다. 이러한 부당한 처사를 왕양명은 좌시할 수 없어 두 사람의 석방을 요청했다. 그러나 충직한 견해를 담은 상소문을 올렸던 양명을 비롯한 53명이 간당(奸黨)으로 간주되어 더러는 장살(杖殺)되고, 더러는 귀양 갔는데, 양명은 장형(杖刑) 40대를 받고 용장(龍場)의 역승(驛丞: 지방의 부주현府州縣에서 우송과 상관들의 영접전송을 관장하던 역관譯官)으로 유배되었다. 그 후 약 1년간 망설이다가 용장(龍場)에 도착해서 보니 그곳은 거주환경이 극히 열악한 변방으로 거주민 거의가 만족(蠻族)이었으며, 유배되어 왔거나 도망쳐온 한족(漢族)이 대부분이었다. 역승(驛丞)이란 관직은 이름뿐, 살집도 없고 대화를 나눌 친구도 없었으며, 읽을 책도 없는 귀양살이 그 자체였다. 양명은 고독하고 고달픈 절체절명(絕體絕命)의 변두리에 부조 되어 사색을 거듭한 결과 홀연히 깨달은 것은 ‘참으로 의지할 만한 것은 한 몸의 주체인 마음[心]이라는 것’이었다. 『왕양명전집(王陽明全集) 권1 전습록(傳習錄) 상(上)』의 3조목에 기록된 바와 같이 “마음[心]이 곧 이치[理]이다(心即理也), 이 세상에 마음 밖의 일이 있겠으며, 마음 밖의 이치가 있겠는가(天下又有心外之事, 心外之理乎)?”라고 하면서, 성인(聖人)의 도는 하늘이 부여한 본성(本性)이자 마음의 본체인 양지(良知)를 넓히는데 있지, 그 도의 이치를 옛적의 사물에서 추구하는 것은 잘못이었음을 깨달았다. 『왕양명전집(王陽明全集) 권1 전습록(傳習錄) 중(中)』, 135조목에서, “주자가 말한 격물(格物)이라는 것은 ‘물물’에 나아가 이치를 궁구한다는 즉물궁리(卽物窮理)에 있는데, ‘즉물궁리’란 만사만물을 취하여 그 이치, 이른바 ‘정해진 이치[定理]’를 구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은 내 마음을 가지고 만사만물 가운데에서 이치를 찾는 것이므로, 마음[心]과 이치[理]를 쪼개서 둘로 만드는 일이다(朱子所謂格物云者, 在卽物而窮其理也, 卽物窮理, 是就事事物物上, 求其所謂定理者. 是以吾心而求理於事事物物之中, 析心與理而爲二矣).”고 하였다. 그러면서 양명은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치지격물(致知格物)이라는 것은 내 마음의 양지를 각각의 사물에 실현하는 것이다. 내 마음의 양지가 이른바 천리(天理)이다. 내 마음의 양지(良知)인 천리(天理)를 각각의 사물에 실현하면, 곧 만사만물은 모두 그 이치[理]를 획득하게 된다. 내 마음의 양지를 실현하는 것이 ‘치지(致知)’이고, 만사만물이 모두 그 이치[理]를 획득하는 것이 ‘격물(格物)’이다. 이것은 마음[心]과 이치[理]가 합하여 하나로 되는 것이다(若鄙人所謂致知格物者, 致吾心之良知於事事物物也. 吾心之良知, 卽所謂天理也. 致吾心良知之天理於事事物物, 則事事物物皆得其理矣. 致吾心之良知者, 致知也, 事事物物皆得其理者, 格物也. 是合心與理而爲一者也).”고 하였다. 따라서 앎과 실천(知行)도 분리될 수 없는 것이므

로, 지행합일(知行合一)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후일 유근(劉瑾 : 1451~1510)이 주살(誅殺)되고 나서, 영전(榮轉)하여 여루현(廬陵縣 : 지금의 강서성江西省 태화현泰和縣 서북 3리)의 지현(知縣 : 현의 장관)이 되었다. 정덕 11년(正德十一年 : 1517) 누차 우첨도어사(右僉都御史 : 황제의 이목과耳目을 위한 풍기지신風紀之臣으로 정5품 또는 정4품의 관직명임)와 남공순무(南贛巡撫 : 지금의 강서성江西省 남부와 광둥성廣東省 북부, 그리고 호남성湖南省 남부와 복건성福建省 서부 접경지역의 군사업무를 제독提督하는 관리)에 발탁되었다. 그 후, 대모산(大帽山)과 이두산(剌頭山) 및 횡수에(橫水隘) 등 산寨(山寨)에서 84곳의 민변(民變)이 일어난 것을 진압하고, 송의현(崇義縣)과 화평현(和平縣) 등 두 현을 설치하였다. 정덕 14년(1520)에 영왕(寧王) 주신훈(朱宸濠 : ?~1521)의 난을 평정하였다. 그리하여, 세종(世宗) 때 신건백(新建伯)에 봉해졌다. 가정 6년(嘉靖六年 : 1528)에 총독양광 겸 순무(總督兩廣 巡撫 : 광둥성과 광서성의 총독 겸 순무사 라는 뜻임)로서, 대등협(大藤峽 : 지금의 광서성 개평현桂平縣 서북에 위치하며, 지형이 험악하고 계곡의 물살이 거센 지역임)의 요민(瑶民 : 소수민족 요족瑤族)이 봉기한 민란을 진압하였다. 그는 여러 해 군사 활동을 하면서 토적이 봉기한 원인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았다. 그것은 시책의 실패에 있음을 알았다. 따라서 무력의 사용보다는 은혜를 베푸는 시책을 써서 드디어 그것을 진정시키고 학교를 건립하여 교화사업을 시작했다. 이렇게 그는 선후에 걸쳐 용병(用兵)하면서, 모두 신속하게 대응하여 성공리에 업무를 완수했으나, 병이 들어 사직하고 귀환하다가 남안부(南安府 : 지금의 강서성 대여현大餘縣)에 이르렀을 때 별세하였다(57세). 그 때는 명(明)나라 세종 가정 7년(世宗嘉靖七年 : 1528)이었다. 시호는 문성(文成)이다. 임종할 때 그의 유언은 “이 마음이 광명한데, 다시 무엇을 더 말하겠는가(此心光明, 亦復何言)?”라는 여덟 글자였다. 그의 학문은 ‘치양지(致良知 : 양지 : 천부적인 본성[天命之性 : intuitive knowledge : 직관적인 인식]을 넓히는 것)’를 위주로 한 것이며, 이것을 공부하는 것이 ‘격물치지 : 사물의 원리를 탐구하여 바르지 못한 것을 바로 잡으며 지식을 획득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래서 만사만물의 이치[理]는 마땅히 마음[心]에서 구해야지 만사만물에서 추구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말했다. 왕양명에게 있어서 마음[心]과 이치[理]의 분리는 자아와 세계의 분열을 의미했으며 이는 곧 현실의 혼란을 의미했다. 이치를 마음 밖에 설정하고 다시 그와의 합일을 도모하는 주자의 방법으로는 분열되어 가는 당시 현실을 재통합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본 것이다. 자타(自他)로 분열되어 가는 현실을 재통합하기 위해서는 사람마다 자율적으로 지킬 수 있는 만사만물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내재규율이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제자들이 아주 많았으며, 세칭(世稱) 요강학과(姚江學派)라고 한다. 양명동(陽明洞 : 지금의 절강성浙江省 소흥현紹興縣 동남 회계산會稽山 산중에 위치함)에 살았기에 학자들은 그를 양명선생이라 칭했다. 그는 사상과 학식이 통달한 문장을 썼는데, 초기에는 고심하여 사장(詞章)을 썼으나, 후에는 공굴(工拙)에 유의하지 않아도 그의 붓끝에서는 뛰어난 기상이 자연스럽게 형성되었다. 저서에는 『왕문성공전서(王文成公全書)』가 있다.

② 차운(次韻) : 앞의 「시20」의 주석1)의 ② ‘차운(次韻)’ 조항을 참조바람.

2) 옥연(玉淵) : 앞의 「시47」의 주석1)의 ① ‘북에정사(北厓精舍)’ 조항을 참조바람.

- 3) 유거흥미 여시심(幽居興味與時深 : 은거의 흥취가 세월과 더불어 깊어졌나니) :
 ① 유거(幽居) : 「시53」 주석7)의 ① ‘유거(幽居)’ 조항을 참조바람.
 ② 여시(與時) :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서(세월이 흘러 갈 수록의 뜻임). 세월과 더불어.
 ☆여(與) : …에 따라. …와 더불어.
 ☆시(時) : 세월.
- 4) 진사녕용 일점침(塵事寧容一點侵 : 어찌 조금인들 세상사에 간여할 필요 있으리) :
 ① 진사(塵事) : 속세(俗世)의 일. 세상사.
 ② 영용(寧容) : 어찌 …할 필요 있겠는가?
 ☆녕(寧) : 부사로서, ‘어찌 …하겠는가(…이겠는가)?’의 뜻이다.
 ☆용(容) : 요구(하다). 필요(하다).
 ③ 일점(一點) : 조금(이라도). 약간(인들).
 ④ 침(侵) : 범(犯)하다. 본시에서는 ‘간여하다’는 뜻으로 쓰였다.
- 5) 죽오추성 문알옥(竹塢秋聲聞戛玉 : 대숲에 싸인 강기슭에 가을소리가 옥성玉聲 같
 이 들리고) :
 ① 죽오(竹塢) : 죽사(竹舍 : 대나무로 지은 집) : 죽루(竹樓).
 ☆오(塢) : 사면이 높고 가운데가 평평한 곳. 본 시에서는 ‘하회 부용대 산기슭의
 강변 언덕의 평지’를 가리킨다. ‘산오(山塢)’는 ‘산간의 평지’이다.
 ② 추성(秋聲) : 가을철에 나는 자연계의 소리를 가리킨다. 예를 들면, 바람소리·낙
 엽소리·벌레소리 등이다.
 ③ 알옥(戛玉) : 알옥(戛玉)으로도 쓴다. 옥 조각을 가볍게 두드리는 소리. 소리가
 낭랑(朗朗 : 맑고 깨끗함)하여 듣기 좋은 것을 형용한 말이다.
 ☆알(戛) : 가볍게 두드린다. 또는 그 소리.
- 6) 강대월색 건용금(江臺月色見鎔金 : 강변 석벽의 달빛은 황금색으로 밝아 보아네) :
 ① 강대(江臺) : 강변 석벽.
 ☆대(臺) : (먼 곳을 전망하는) 높고 평평한 건축물이나 평지보다 높게 우뚝 솟아오
 른 석벽이나 언덕을 가리킨다. 본 시에서는 ‘석벽’으로 번역하였다.
 ② 용금(鎔金) : 금속을 용화(鎔化 : 녹임)하다. 시문에서는 황금을 녹이는 것을 형용
 한 말로 자주 쓴다.
- 7) 행장루적 등루안(行藏淚滴登樓眼 : 가다섰다하며 눈물 머금고 <거우> 누각에 올라
 와서) :
 ① 행장(行藏) :
 ☆행보(行步)와 지식(止息 : 머물러 쉬) : 행진(行進)과 정지(靜止 : 정지停止), 가
 다가 섰다가 등으로 표현할 수 있는 동작을 가리킨다.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당(唐)나라 시인 잠삼(岑參 : 715~770)의 시 「무위현(武威縣 : 감숙성甘
 肅省 관내의 현명縣名)에서 유선(劉單)* 판관(判官)이 안서행영(安西行營)*에 부임하는
 것을 전송하는 기회의 인편에 고선지(高仙芝 : ?~755)* 개부(開府)*께 드려다(武威, 送
 劉單判官, 赴安西行營使, 呈高開府)」에, “공훈과 업적은 반드시 제때에 세워오셨
 고, 세상은 처세에는 나아감과 멈춤이 있으셨소(功業須及時, 立身有行藏)”
 라고 읊은 구절이 있다.
 *유선(劉單 : ?~771) 판관(判官 : 절도사·관찰사 등 지방장관에 소속된 정무政務를
 보좌하던 사람의 관명官名) : 고선지(高仙芝)가 안서행영절도사(安西行營節度使)

를 역임할 때, 그의 휘하(麾下)에 있던 막료(幕僚)였다.

*안서행영(安西行營): 당현종(唐玄宗) 때 당나라의 서북변경에 석국(石國: 지금의 우즈베키스탄의 수도 타슈켄트에 있었던 나라)의 태자가 대식국(大食國: 사라센 제국: 고구 이람제국)의 여러 부족을 이끌고 당나라 국경을 침범하였다. 이때 당나라는 서역(西域)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지금의 신장성(新疆省) 고차현(庫車縣)에 군대를 출정시켰는데, 그때의 당나라 군대의 임시 주둔지를 말한다.

*고선지(高仙芝: ?~755): 고구려 출신의 명장.

*개부(開府): 개부의동삼사(開府儀同三司)의 약칭. 태위(太尉)·사도(司徒)·사공(司空) 등 삼공(三公)과 동등한 예우를 받는 관직이란 뜻을 지닌 관명. 품계는 일품(一品)이었다.

☆출사(出仕: 벼슬길로 나아감)와 은퇴를 가리킨다.

☆행적(行迹)·내막·속사정·내력 등의 뜻으로도 쓴다.

- ② 누적(淚滴): 눈물방울. 눈물을 흘린다. 눈물을 머금다.

☆루(淚): 눈물.

☆적(滴):

a. 물방울. 눈물방울.

b. (물방울·눈물방울이) 떨어지다. (눈물이) 맺히다.

- ③ 등루안(登樓眼): 누각에 오르다.

☆안(眼): 중심·핵심이라는 뜻이나, 본 시에서는 누각의 안쪽을 가리킨다.

- 8) 정일공참 망도심(精一功慚望道心: 마음 닦은 공功 부족해 부끄러우나 도심道心の 경지 살펴보네):

- ① 정일공참(精一功慚): 마음 닦은 공(功)이 부족해 부끄럽다.

☆정일(精一): (도덕적 수양이) 순수하여 조금도 잡것이 섞이지 아니함을 가리킨다. 또는 세밀하고 한결같다거나, 순수하고 한결같다는 등의 의미를 지닌다. 이 말은 『서경(書經)·대우모(大禹謨)』편에 보인다: “인심은 위태롭기만 하고, 도심은 은미하기만 하니, 오직 순수하고 오직 한결같아야, 진실로 그 중도中道를 잡으리라(人心惟危, 道心惟微, 惟精惟一, 允執厥中).”고 한 대목에 나온다. 당(唐)나라 학자 공영달(孔穎達: 574~648)은 주석(注釋)에서, “위태로우면 편안하기 어렵고, 은미하면(내면 깊숙이 존재하는데 기질과 욕심에 가려지면) 분명히 드러나기 어려운 까닭에, 순수하고 한결같음으로 방지하여, 확실히 그 중도中道를 잡아야 한다(危則難安, 微則難明, 故戒精一, 信執其中).”는 뜻이라고 하였다. 또한 남송(南宋)의 유학자 채심(蔡沈: 1167~1230)은 그의 『집전(集傳)』에서 말하기를, “마음이란 것은 사람의 지각인데, 심중에서 외부사물에 반응을 주재한다(心者, 人之知覺, 主於中而應於外者也). 표정과 여기에 드러나는 것을 가리켜 말한다면, 이것을 인심이라 하고, 의리(義理: 윤리에 부합하는 도덕적 준칙)에 드러나는 것을 가리켜 말한다면, 이것을 도심이라 한다(指其發於形氣者而言, 則謂之人心, 指其發於義理者而言, 則謂之道心).”고 하였다. 또한 북송(北宋)의 염몽득(葉夢得: 1077~1148)은 『피서록화(避暑錄話)』 상권에서 말하기를, “도심이란, 희로애락이 드러나지 않는 것이다(道心者, 喜怒哀樂之未發者也).”고 하였다. 또한 명말청초(明末清初)의 학자 왕부지(王夫之: 1619~1692)의 저서인 『장재(張載: 1020~1077: 북송의 유학자) 선생의 「정몽

(正蒙)』주석 장자 정몽주(張子正蒙注)·대심편(大心篇)』에서 말하기를, “인심을 직관할 수 있어야 자기의 본성을 깨달을 수 있다(其直指人心見性). 천성을 망녕되어 생각하면, 도심을 알지 못한다(妄意天性, 不知道心). 그러나 위태롭기만 한 인심을 본성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而以惟危之人心爲性也).”고 하였다. 현대 중국의 철학자 풍우란(馮友蘭: 1895~1990) 등은 이 말에 주석하기를, “송대의 유학자들은 도심은 바로 천리(天理: 윤리: 도의道義: 항구적인 도덕 법칙)이고, 인심은 바로 인욕(人欲이라고 생각했다(宋儒認爲道心就是天理, 人心就是人欲). 천리는 정미(精微: 정수精粹)한 것이고, 인욕은 위태로운 것이다(天理是精微的, 人欲是危險的).”고 하였다.

☆공참(功慚): 공부라고 하기에는 부끄럽다.

a. 공(功): 공부. 공들이다.

b. 참(慚): 부끄럽다. 부끄러워하다. 수치스럽게 생각하다.

② 망도심(望道心): 도심(道心)의 경지를 살피다.

☆망(望):

a. 먼 곳을 향해 살피다. 전(轉)하여, 경지(境地)를 살피보다. 근원을 관찰하다. 본 시에서는 ‘망(望)’의 대상어가 ‘도심(道心)’이기 때문에, ‘도심의 경지를 살피다’로 번역하였다.

b. 높은 곳을 향해 바라보다.

☆도심(道心): 천리(天理)를 도심(道心)이라고 풀이한다. 여기서 말하는 천리(天理)는 일반적으로 도의(道義)를 가리킨다. 송(宋)의 이학가(理學家)들은 윤리(倫理)를 항구적인 도덕법칙으로 간주하여, 이것을 천리(天理)라고 칭했다. 주희(朱熹: 1130~1200)의 「하숙경에게 답하다(答何叔京)」는 글 28번째 글에, “천리란 단지 인·의·예·지仁義禮智의 총괄적 명칭일 뿐이고, 인·의·예·지는 곧 천리의 가짓수[件數]일 따름이다(天理只是仁義禮智之總名, 仁義禮智便是天理之件數).”고 한 대목이 있다. 또한 도심을 의리(義理)라고도 풀이한다. 여기서 말하는 ‘의리’란, ‘일정한 윤리에 부합하는 도덕적 행사준칙(行事準則)’을 말한다. 도심(道心)에 대한 예(例)는 위의 주석8)의 ① ‘정일(精一)’ 조항을 참조바람.

9) 부세이지 진몽환(浮世已知眞夢幻: 세상살이가 실로 한바탕 꿈이란 것을 이미 알기에):

① 부세이지(浮世已知): 세상살이가 ~한 것을 이미 알아.

☆부세(浮世): 세상살이. 세상. 인세(人世). 인간세상. 옛사람들은 인간세상은 부침취산(浮沉聚散)이 일정하지 않다고 생각했던 까닭에 일컬어진 말이다.

☆이지(已知): 이미 알아.

a. 이(已): 이미. 벌써.

② 몽환(夢幻): 몽환의 경지. 꿈 세계.

10) 만래장소 백운잠(晩來長嘯白雲岑: 해질녘 백운 걸친 산봉山峯에서 큰소리로 외쳐 보네):

① 장소(長嘯):

☆큰 소리로 외치다.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시가(詩歌) 따위를 소리를 길게 빼어 읊다.

☆휘파람 소리.

② 백운잡(白雲岑) : 흰 구름이 겹쳐있는 산봉우리.

☆잡(岑) : 산봉우리. 산봉(山峯).



시55. 용추^{龍湫} 폭포에 들렀다가 자침^{子瞻}
 김침^{金瞻} 공공의 시를 차운^{次韻}하여

詩55. 龍湫 次金子瞻韻¹⁾
 용 추 차 김 자 침 윤

萬事悠悠獨倚樓²⁾,
 만 사 유 유 독 의 루

만사가 답답하여
 홀로 누각 난간에 기대앉았는데,

夕陽芳草使人愁³⁾.
 석 양 방 초 사 인 수

석양아래 방초芳草가 사람을
 수심에 젖게 하네.

留題冷落⁴⁾塵生壁,
 유 제 냉 낙 진 생 벽

감상 몇 자 남기려니 쓸렁하고
 절벽에는 먼지 이는데,

忽忽存亡問幾秋⁵⁾.
 홀 홀 존 망 문 기 추

생사쯤은 훌훌히 여겼으나 묻건대
 그 시기 언제일꼬?

1) 용추 차김자침운(龍湫次金子瞻韻 : 용추폭포에 들렀다가 자침^{子瞻} 김침^{金瞻} 공공의 시를 차운^{次韻}하여) :

① 용추(龍湫) : 용소(龍沼) : 위로는 폭포가 있고 바로 아래에는 심담(深潭)이 있는 것을 ‘용추(龍湫 : 폭포)’라고 한다. 흔히들 ‘용주폭포’라고도 부른다. 단지 본 시에서는 어느 곳의 ‘용추(龍湫 : 폭포)’인지를 명시하지는 않았으나, 역자가 판단하기로 이 ‘용추(龍湫)’는 ‘문경(聞慶)’에 있는 폭포’가 분명하다고 본다. 줄역(拙譯)의 『국역 류성룡시 · 1권 시35』의 시제(詩題)에서도 이 ‘용추’라는 폭포명칭이 쓰인 바 있다. 역자가 이 ‘용추’를 ‘문경에 있는 폭포’라고 보는 이유는 안동에서

한양(漢陽: 서울)으로 가자면 문경은 반드시 거쳐 가야 하는 길목이기 때문이다. 문경은 영남과 서울을 잇는 통로였다. 『신동국여지승람(新東國輿地勝覽)·제29권 문경현(聞慶縣)·산천장(山川章)』에, “용추는 새재(조점草岾: 조재라고도 읽으며, 조령鳥嶺의 다른 이름: 새재는 문경현의 서쪽 27리, 연풍현延豐縣의 경계에 있음) 아래 동화원(桐華院: 문경현 서북쪽 15리에 위치했던 곳으로 김손들에게 숙식을 제공했던 곳임) 서북쪽 1리에 있는데 사면과 바닥이 모두 돌이고 그 깊이를 헤아릴 수 없으며, 용이 승천한 곳이라고 전한다”는 대목이 있다.

- ② 차운(次韻): 앞의 「시20」의 주석1)의 ② ‘차운(次韻)’ 조항을 참조바람.
- ③ 김자첨(金子瞻): 자첨(子瞻) 김첨(金瞻). 이렇게 성씨 다음에 자나 호 또는 직함을 쓰는 것은 경칭(敬稱)의 한 예이다.

☆김첨(金瞻: 1542~?): 조선 중기의 문신. 본관은 안동. 자는 자첨(子瞻), 호는 하당(荷塘)·남강(南岡)·동강(東岡). 부친은 전한(典翰: 조선시대 홍문관弘文館의 종3품 관직)을 역임한 선비화가 홍도(弘度: 1524~1557)이다. 1576년(선조 9)에 별시문과(別試文科: 조선시대 천간干干으로 ‘병丙’자가 든 해, 또는 나라에 경사가 있을 때 보이던 임시 과거 시험. 이 시험은 임금이 친림親臨하여 보이던 전시殿試까지 보는 것으로 서울에만 한했음) 병과(兵科: 과거 시험 성적에 따라 나눈 등급의 하나. 과거 최종 시험을 ‘감시監試’라 하는데, 이 감시에 합격한 자들을 모아 임금이 다시 시詩·부賦·논論으로 친히 시험을 보았는데 이것을 복시覆試라고 함. 이 복사에서 선발된 33인을 다시 성적순으로 갑·을·병으로 나누는데 병과에 합격한 자는 정9품의 품계를 주며, 성균관·승문원, 교서관의 임시직에 임명함)로 급제하고, 1579년 사가독서(賜暇讀書: 유능한 문신들을 뽑아 휴가를 주어 독서당에서 공부하게 하던 일) 하 였다. 그 해에 서애(西厓) 류성룡(柳成龍: 1542~1607) 등과 함께 울곡(栗谷) 이이(李珥: 1536~1584)가 올린 상소에 대해 옳지 않다고 탄핵했으며, 1581년 이조좌랑(吏曹佐郎: 이조에 예속된 정5품 벼슬)으로서 박근원(朴謹元: 1525~1585)을 이조참판(吏曹參判: 이조의 종2품 관직)에 등용할 것을 주청(奏請)하였다. 1582년 교리(校理: 승문원承文院·교서관校書館의 정5품 벼슬)를 거쳐 고경명(高敬命: 1533~1592)의 대신에 경상도재상경차관(慶尙道災傷敬差官: 조선 시대에 자연재해에 따른 농작물의 피해를 조사하기 위하여 지방에 임시로 파견하던 벼슬)으로 나아갔다. 이듬해 종사관(從事官: 조선시대 통신사通信使를 수행하던 임시벼슬. 서장관書狀官을 임진왜란 후에 고친 것으로 당하堂下의 문신이었음)이 되어 중국에 다녀온 뒤 이이(李珥)를 탄핵했다. 지례현감(知禮縣監: 지례知禮는 지금의 경북 금릉군金陵郡 지례면知禮面 지방임)으로 좌천되고, 1584년 파직되었다가 임진왜란 때 사망했다.

- 2) 만사유유 독의루(萬事悠悠獨倚樓: 만사가 답답하여 홀로 누각 난간에 기대 앉았는데):
 - ① 유유(悠悠): ‘근심하는 모양을 가리키는 뜻인데, 본 시에 담긴 작자의 정서를 고려하여, ‘답답하다’로 번역한다. 이외의 기타 자세한 뜻은 앞의 「시32」의 주석6) ‘유유(悠悠)’조항을 참조바람.
 - ② 의루(倚樓): 누각의 창이나 난간에 기대어 앉아 있다(서 있다).
- 3) 석양초조 사인수(夕陽芳草使人愁: 석양아래 방초芳草가 사람을 수심에 젖게 하네):

- ① 방초(芳草): 향기롭고 꽃다운 풀. 향기가 좋은 풀. 향초. 본 시에서는 충정(忠貞)하거나 현덕(賢德)한 사람에 비유한 것으로 보인다.
- ② 사(使): ...로 하여금 ...하게 하다.
- 4) 유제냉락(留題冷落): 감상(感想) 몇 자 남기려 하니 마음이 쓸려하다.
- ① 유제(留題):
- ☆고적(古蹟)이나 명승지 등을 유람하며 감상(感想)을 남긴 시가(詩歌). 본 시에서 이 뜻으로 쓰였다.
 - ☆참관이나 유람을 통해 얻은 의견·감상을 써놓다. 기념으로 남긴 시가. 기념으로 몇 자 적은 글(몇 자 적다).
- ② 냉락(冷落):
- ☆쓸쓸(쓸렁, 적막, 적적)하다.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 ☆냉대하다. 푸대접하다.
- 5) 훌훌존망 문기추(忽忽存亡間幾秋: 생사쯤은 훌훌히 여겼으나 문건대 그 시기 언제일꼬?):
- ① 훌훌(忽忽):
- ☆사물을 돌아보지 아니하는 모양.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모양.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음.
 - ☆급속한 모양으로, '별안간. 돌연. 느닷없이. 갑자기. 어느덧' 등으로 표현한다.
 - ☆모호하다. 명확하지 않다.
 - ☆뜻대로 되지 않는 모양. 실의(失意)한 모양.
 - ☆실신(失神)한 모양. (기억, 청각, 시각 등이) 희미하다. 어렴풋하다.
 - ☆경솔하다. 조심성이 없다.
 - ☆의성어로 숨(필릭필릭, 활활 등).
- ② 존망(存亡): 존속과 멸망. 생존과 사망.
- ③ 기추(幾秋): 어느 해 가을이 될까? 즉 언제쯤이 될까?
- ☆기(幾): 의문부사 중 시간부사로 쓰여, '언제, 어느 시기'의 뜻으로 쓰였다.
- ☆추(秋):
- a. 어떤 시기, 시간을 가리킴.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 b. 적막(쓸쓸, 스산)하다. 무너지다. 퇴락하다. 실패하다.
 - c. 가을. 추계(秋季).
 - d. 가을에 수확한 농작물을 가리킨다.
 - e. 일년(의 시간. 세월).
 - f. 비상(飛翔)하는 모양.
 - g. 오방(五方)에서는 서방(西方)을 가리키고, 오색(五色)에서는 백색(白色)을 가리키며, 오음(五音)에서는 상성(商聲)을 가리킨다.
 - h. 가을이 깊어지면 기후가 냉후하고 쓸쓸해지는 까닭에, 고대에는 율령(律令)과 형옥(刑獄)에 관계되는 일을 '추(秋)'라고 칭했다. 그래서 생간 용어가 '추조(秋曹: 형부刑部의 별칭)', '추헌(秋憲: 형법刑法)' 등이 있다.



시56. 월천¹⁾月川 조목²⁾趙穆 공公께서 서신을
보내왔기에 답서를 부친다. 아울러
칠언을 시 한 수를 지어서, 못 다한
생각을 표한다

詩56. 趙月川寄書答去¹⁾ 又書一律²⁾ 以道未盡之意³⁾
조 월 천 기 서 답 거 우 서 일 른 이 도 미 진 지 의

衰病侵尋雪滿頭⁴⁾,
쇠 병 침尋 설 만 두

노쇠하여 생긴 병 심해지고
백발이 다 됐는데,

洛城風雨更淹留⁵⁾.
낙 성 풍 우 경 엄 유

낙동강 성벽에 풍우마져 더 오래
물어치네요.

驅馳湖海終何補⁶⁾,
구 치 호 해 종 하 보

(전란으로) 사방각지 질주하며 애썼으나
무슨 덕이 됐겠소만,

整頓乾坤不自由⁷⁾.
정 돈 건 곤 부 자 유

강산이 정돈 되도 육신은
자유롭지 못하네요.

萬事一心還皎皎⁸⁾,
만 사 일 심 환 교 교

만사를 일심으로 대처했기에
맘은 아직 맑고 밝지만,

百年多累儘悠悠⁹⁾.
백 년 다 루 진 유 유

평생 세사¹⁰⁾世事에 얽매었으니
이젠 유유자적 하고 싶소이다.

山中遠寄當歸信¹⁰⁾,
산 중 원 기 당 귀 신

산중 은사께 부치는 답서
확신에 찬 뜻 드려야 하는데

晚歲行藏¹¹⁾亦可差。
만 세 행 장 역 가 수

만년이 되니 지나온 행적
또한 참으로 부끄럽네요.

1) 조월천 기서답거(趙月川寄書答去) : 월천月川 조목趙穆 공께서 서신을 보내왔기에 답서를 부친다) :

① 조월천(趙月川) : 월천(月川)은 조목(趙穆)의 호이다. 이렇게 성씨 다음에 자나 호 또는 직함을 쓰는 것은 경칭(敬稱)의 한 예이다.

☆조목(趙穆) : 1524~1606) : 조선 중기의 문신이자 학자이다. 자는 사경(士敬), 호는 월천(月川), 본관은 횡성(橫城), 부친은 참판(參判) : 조선시대 육조六曹에 소속된 종2품 관직) 대춘(大椿)이다. 1552년(명종 7), 생원시(生員試)에 합격했으며, 처음에 동몽교관(童蒙敎官) : 조선 초기 어린이를 교육시키기 위해 각 군·현에 두었던 관직)으로 추천되었으나 부임하지 않았고, 또 공릉참봉(恭陵參奉 : 조선의 제8대 왕 예종睿宗의 계비繼妃 장순왕후章順王后 한씨韓氏의 능을 관리하던 종9품 관직)에 보직되었으나 역시 취임을 거절하였다가 집현전 참봉으로 취임하였으나 곧 사퇴하고 돌아갔다. 다시 이조낭청(吏曹郞廳) : 이조에서 실무를 맡아보던 당하관堂下官 벼슬)의 6품직을 거쳐 봉화(奉化) 현감이 되어 향교를 중수(重修)하였고, 1594년(선조 27) 군자감 주부(軍資監主簿 : 군사상 필요한 물자공급을 담당하던 군자감의 종6품 관직)로 일본과의 강화론을 적극 반대하였다. 장악원정(掌樂院正 : 궁중에서 연주되는 음악 및 무용에 관한 일을 맡아 보던 관청인 장악원의 정3품 관직), 사제감정(司宰監正 : 궁궐에서 쓰는 각종 어물, 육류, 식염, 쌀나무, 숯 등을 관장하던 관청인 사제감의 정3품 관직)을 거쳐 공조참의(工曹參議 : 공조의 정3품 관직. 지금의 차관보에 해당함)에 이르러 사퇴하고 82세에 사망하였다. 퇴계(退溪) 이황(李滉 : 1501~1570)의 제자로서 문장이 당세에 뛰어났다. 그는 이황과 동향인 예안에서 성장하여 일찍이 이황의 문하생이 된 이후로 일생동안 가장 가까이 스승을 모신 팔고제(八高弟) 중의 한 사람이다. 저서에 성현의 훈화(訓話)를 기록한 소책자인 『곤지잡록(困知雜錄)』과 문집으로 『월천집(月川集)』이 있다.

② 기서답거(寄書答去) : 서신을 보내왔기에 답서를 부친다.

☆기서(寄書) : 일반적으로 '기서(寄書)'라고 하면, 술어와 목적어의 구문으로 '편지를 부치다'는 의미로 쓰이고 있으나, 여기서는 서예선생이 월천선생으로부터 서신을 받은 것으로 표현되고 있다.

☆답거(答去) : 답서(答書)를 써서 보내다. 여기서 '답(答)'은 목적어를 겸한 동사로 회신을 써서 부치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 '거(去)'는 동사인 '답하다(答)'의 방향보어의 기능으로 쓰이고 있다.

2) 우서일률(又書一律 : 아울러 룰시 한 수를 짓다) :

- ① 우서(又書): 아울러(또한) (율시 한 수를) 쓰다.
 ② 일률(一律): 율시 한 수. 여기서는 본 시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는 7언률시(七言律詩)로 되어 있다.
- 3) 이도미진지의(以道未盡之意): 못 다한 생각을 표현하다.
- ① 이도(以道): ‘이(以)’는 순접의 접속사로, ‘…하여’의 뜻으로 쓰였고, ‘도(道)’는 ‘나타나다. 표현하다’는 동사로 쓰였다.
- ② 미진지의(未盡之意): 아직 다 표현하지 못한 생각:

☆역사적 배경: 본 시의 시제(詩題)와 시의 내용을 통해 볼 때, ‘다 표현하지 못한 생각(未盡之意)’이라는 이 시의(詩意)는 다음과 같은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듯하다. 즉 임난 7년 전쟁이 거의 끝날 무렵인 신조 31년(1598)에 군문(軍門)의 ‘찬획주사(贊畫主事: 군사 관리자)’라는 직분으로 조선에 온 정응태(丁應泰)가 군사 총책임자격인 경리(經理)를 맡고 있던 양호(楊鎬)의 도산전투(島山戰鬪)에 대한 허위보고(1597년 12월 22일부터 1598년 1월 4일까지 이어졌던 도산전투에서 양호 등은 명군 4만 명을 거느리고 울산성(蔚山城) 공격전을 전격하여 왜군을 참획斬獲했음에도 불구하고 왜군이 울산성을 함락시키지 못하였음. 게다가 일본 원군이 곧 도착한다는 소식을 듣고 명군의 주력부대가 경주로 후퇴하였음. 이 전투에서 명군의 전사자는 1천명이었으며, 부상자는 3천명에 달하였는데, 양호는 서울에 귀환하여 총독 형개邢玠와 같이 명 조정에 1백여 명의 전사자가 발생한 승전으로 보고했음)에 선조(宣祖)가 양호를 두둔하자 이에 반발한 정응태는 본 전투에서 패배한 지 6개월 후에 양호와 명장(明將)인 마귀(麻貴)·이여매(李如梅) 등을 탄핵할 때, 조선정부를 싸잡아서 ‘결당양호(結黨楊鎬: 양호무리와 결탁하여), 봉기천자(朋欺天子: 때를 지어 천자를 기만함)했을 뿐 아니라, ‘초왜복지(招倭復地: 일본을 불러들여 옛고구려의 땅을 회복하고자함)·‘교통왜적(交通倭賊: 일본과 동모通謀함)’했다고 탄핵을 하였다.(이상은 유보전(산동대), 「壬辰倭亂時 丁應泰의 朝鮮誣告事件에 관하여」, 한중언문학회 국제학술대회 참조) 이로 인해, 선조는 정사(政事)를 한 달 동안 돌보지 않았을 뿐 아니라, 서애로 하여금 정응태의 무주(誣奏) 사건에 대한 진주사(陳奏使)로 명(明)에 다녀올 것을 희망하였다. 이에 선생의 반대파인 북인(北人)들은 선조의 내심(울산 전투의 패배에 대한 책임전가를 암시함)을 눈치 채고 일제히 선생에게 그 책임을 물어 공격하였다. 바로 이러한 때에 같은 남인(南人)이면서 퇴계의 동문인 조목(趙穆: 1524~1606)이 “선생이 평소 배운 것이 단지 화친을 주장하여 국사를 그르치는 네 글자뿐입니까? 나는 그대가 성현의 글을 알면서 이런데 이를 줄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先生平生所學, 只此主和誤國四字而已乎? 我不料子讀聖賢書而至此極也)”라고 하여, 선생이 “이를 깊이 유감(有感)으로 품었다(成龍深銜之)”라는 기록이 『선조실록』 93권, 앞의 「선조 30년(정유년 丁酉年: 1597년) 10월 16일 계유술 3번째 기사」에 보인다. 또한 앞의 「서애연보」 무술(戊戌: 1598: 57세)년, 9·10·11·12월 조항도 참조바람.

☆앞의 「조사경에게 회답하다(答趙士敬) (丁酉: 선조 30, 1597)」: 이는 서애가 정유년(선조 30, 1597)에 월천(月川) 조목(趙穆)에게 보낸 답서(答書)이다. 이 편지에 보면, 위에 선조실록에 기록된 조목의 발언과 연관 지어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라 생각하여 여기에 실는다. …… “주화오국(主和誤國: 왜국과 강화하

는 의론을 주장하여 나라 일을 그르치게 하였다)의 네 글자에 대해서는 제가 스스로 반성해 보아도 그러한 일은 없습니다. 계사년(癸巳年 : 1593년)과 갑오년(甲午年 : 1594년) 무렵에 백성들은 <굶어서> 서로를 잡아먹게 되고, 나라의 형세가 위태로워져서 아침에 저녁 일을 보장하기 어렵게 되었으며, 힘으로 왜적을 도모할 수가 없게 되었는데, 저는 밖으로는 명나라 조정이 <왜국을>을 견제하는 계책에 따라 왜적의 기세를 조금 누그러지게 해놓고, 안으로는 나아가 적군을 공격하고, 물러나서 국토를 방비하는 준비를 닦음으로써, 서서히 훗날을 도모하고자 하였었는데, 오늘 날 국사國事를 도모하는 일을 스스로 헤아려 보아도 이와 같이 하는 수밖에는 <도리가> 없었던 것입니다. 저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은 서적 속에서 이것과 적합한 명칭을 찾아내어 서로 욕설을 하고 있는데, 이 일은 마땅히 웃으며 받아 넘겨야 할 따름입니다. 훗날에 다행히 죽지 않고 있다면 왜변倭變이 일어난 뒤에 국사國事를 의론議論한 일을 죄다 들어서, 그 옳고 그름을 존장尊丈에게 묻고자 하는데, 그 속에는 당초부터 화의和議의 ‘화和’지는 반점半點도 없습니다(至於主和誤國四字 生亦自省無是 當癸甲之間 人民相食 國勢危甚 朝夕難保 而力未能圖敵 生以爲外循天朝羈縻之計 少緩賊勢 而內修戰守之備 徐爲後圖 自計今日謀國 不過如此 不悅者 於書冊間 尋出好題目 以相汚衊 此則當笑而受之耳 他日幸未死 當悉以生變後論事 求正於左右 此中初無半點和字矣).”(이재호가 번역한 『국역 서애전서(國譯西厓全書)』 II-2의 「서간문[書]」에 보이는 ‘정유년에 사경(士敬) 조목(趙穆) 공개 답한 서신(書答趙士敬<丁酉>’에서 참조함)

☆「**조사경에게 의논하려고(擬與趙士敬)(戊戌 : 선조 31, 1598)**」: 이 편지는 서애의 백씨 겸암이 무술년에 조목趙穆에게 쓴 편지로, 그 내용을 보면, 조목이 서애에게 “주화오국主和誤國”이라는 말로 공격한 것에 대해, 동생의 입장을 진지하게 해명 해보이고 있다. 즉 서애의 ‘주화(主和)’는 조금이라도 ‘화친을 추구하고 주체를 굽힐 의사(求和自屈之理)’가 있어서 그랬던 것이 아니라, ‘조선의 세가 꺾이고 그 힘이 다했기 때문에(勢屈力窮)’ 하는 수 없이 명나라의 정책에 따를 수 밖에 없었던 것이라고 말하면서, 조목의 문하에서 류성룡을 비난하는 소문이 나오는 것을 경계하는 마음을 간절하게 표현하고 있다.(류운룡(柳雲龍)의 저서로 류상봉(柳相鵬)이 발행하고 류시벽(柳時碧)이 편집한 『국역(國譯) 겸암선생문집(謙菴先生文集)』 중의 서간문 「사경 조목선생께 의논하려고 드린 서신(書·擬與趙士敬)」을 참조함.

이상의 사례(事例) 등을 통해 볼 때, 본 시에서의 서애의 “미진지의(未盡之意)”란, 바로 이 두 형제가 위의 편지에서 언급한 내용이 아닌가 생각이 된다. 실제로 서애는 조·명연합군의 울산성 전투의 패배로 인해, 북인(北人)들로부터 주화(主和)의 책임을 지고 물러나라는 망극한 말을 들어야 했고, 심지어는 같은 퇴계의 동문선배인 조목에게까지 힐책을 받았었다. 선조 역시 당시의 정국을 통해, 바로 이 주화의 책임을 서애에게 물어 사탈관직 시켰으니 어찌, 서애의 내심에 할 말이 없었겠는가?

4) 쇠병침심 설만두(衰病侵尋雪滿頭 : 노쇠하여 생긴 병 삼해지고 백발이 다 났는데) :

① 쇠병침심(衰病侵尋) : 노쇠하여 생긴 병이 삼해지다.

☆쇠병(衰病) : 늙고 쇠약해져서 생긴 병.

☆침심(侵尋) : 침심(侵尋)이라고도 쓴다.

- a. 점차.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b. 점점 앞으로 나아가다.
- ② 설만두(雪滿頭): 눈 같이 하얀 백발이 온 머리에 가득하다. 여기서 ‘눈(雪)’은 백발을 대칭하는 형상으로 쓰였다.
- 5) 낙성풍우 갱염류(洛城風雨更淹留: 낙동강 성벽에 풍우마져 더 오래 몰아치네요):
- ① 낙성(洛城):
- ☆낙동강 강변에 위치한 성(城). 본 시에서는 하회 부용대(河回芙蓉臺)를 은유(隱喻)한 것으로 보인다.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 ☆흔히들 ‘낙성(洛城)’을 ‘낙양성(洛陽城)’이라고 번역하여 고대 중국의 도읍지 중의 하나인 ‘낙양(洛陽)’을 가리키는 말로 쓰는데, 이는 한국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번역일 따름이지 ‘낙양성(洛陽城)’ 그 자체가 고유명사는 아니다. 『중국역대지명사전(中國歷代地名辭典)』을 보면, ‘낙성(洛城)’은 ‘지금의 강서성(江西省) 금계현(金溪縣) 서부’를 가리키는 지명으로 나와 있지 고대 도읍지 ‘낙양(洛陽)’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낙양을 가리키는 말로는 중국인들은 습관상 ‘낙경(洛京)’이란 말을 썼다. ‘낙양(洛陽)’은 중국 고대 도읍지 중의 하나로 원래 명칭은 ‘성주(成周)’였는데, 전국시대(戰國時代)에 ‘낙양(洛陽)’으로 바뀌었다. 낙수(洛水)의 북쪽에 위치한다고 해서 얻어진 명칭이다. 산의 남쪽 혹은 강물의 북쪽을 ‘양(陽)’이라고 하기 때문이다. 동한(東漢) 건무원년(建武元年: 25년)에 이곳에 도읍하였다. 그 옛터는 지금의 하남성(河南省) 낙양시(洛陽市) 동북부이다. 그 이후 몇 리 또는 십여 리의 거리에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삼국시대(三國時代) 위(魏)·서진(西晉)·북위(北魏)도 이곳에 도읍하였다. 그 후 역시 거리상 몇 리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수(隋: 양제(楊帝)시대)나라와 당(唐)나라 측천무후(則天武后)가 창제하고 나서 국호를 주(周)라고 했을 때, 또한 오대(五代)시기에 괭위(郭威)가 후한(後漢)을 계승하여 국호를 주(周: 사칭(史稱, 후주(後周)라고 함)라고 했을 때에도 전후에 걸쳐 이곳에 도읍을 정했었다.
- ② 염류(淹留): (외지에서) 머무르다. 기거하다. 체류하다.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는데, 비바람이 머무는 것이기에 ‘몰아치다’로 표현한다.
- 6) 구치호해(驅馳湖海終何補: <전란으로> 사방각지 질주하며 애썼으나 무슨 덕이 됐겠소만):
- ① 구치호해(驅馳湖海): 전란으로 사방각지를 질주하며 애쓰다.
- ☆구치(驅馳):
- a. 분주히 뛰어나다(바쁘게 활동하며) 애쓰다.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b. 말을 몰아 달린다.
c. 고생함(수고함)을 가리키는 말. 근로(勤勞)함을 가리키는 말.
- ☆호해(湖海):
- a. 사방각지, 세상, 세간(世間), 강호(江湖: 세상. 속세) 등을 가리키는 말.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b. 호수와 바다. 호박(湖泊: 호수. 늪)과 해양(海洋).
- ② 종하보(終何補): 무슨 덕이 됐겠소
- ☆증(終): 부사로서, 도대체·대체의 뜻이다.
☆하보(何補):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7) 정돈건곤 부자유(整頓乾坤不自由 : 강산이 정돈 되도 육신은 자유롭지 못하네요) :

① 정돈건곤(整頓乾坤) : 조선의 강산이 정리되다(조선이 안정되다).

☆정돈(整頓) : 정리되다(정돈되다). 여기서는 당시 왜란 이후의 조선사회의 기풍이 어느 정도 정리되었음을 표현한 말로 쓰였다.

☆건곤(乾坤) : 『역경(易經)』의 건괘(乾卦)와 곤괘(坤卦). 건곤에 대한 활용어는 종류가 다양하다.

a. 국가, 강산(江山), 천하 등을 칭하는 말.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b. 천지(天地). 일월(日月).

c. 음양(陰陽). 남녀. 부부.

d. 제(帝 : 황제)나 후(后 : 황후)를 가리킨다.

e. 교활한 수단. 잔 꾀. 속임수. 계책. 술책.

④ 건(乾) : 건괘(乾卦). 팔괘(八卦)*의 하나로 상형(象形)은 ‘☰’으로 ‘하늘’을 상징한다.

⑤ 곤(坤) : 곤괘(坤卦). 팔괘의 하나로 상형은 ‘☷’으로 땅을 상징한다.

*팔괘(八卦) : 『역경(易經)』에서의 ‘역(易)’은 ‘바뀌다’ 또는 ‘바뀌다’의 뜻을 지닌 글자이다. 어떤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변하는 것을 ‘변역(變易)’이라 하는데, 천지자연의 현상이나 인간의 운명은 일정불변한 것이 아니라 항상 바뀌는데, 이 바뀌는 원리를 설명한 경전(經典)이 『역경』이란 책이다. 이 『역경』의 저자에 대해서는 확실한 해답을 얻을 길이 없다. 그 내용면에서도 팔괘(八卦)와 64사괘(六十四卦)를 모두 복희씨(伏羲氏)*가 창안했다는 설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설이 있으나 정설(定說)은 없다. 본 주석에서는 ‘역(易)’의 조작을 통해서 팔괘의 뜻을 간략히 설명하는데 중점을 두고 ‘복희씨’의 이력을 정리한다. 고대 철학자들은 우주만물의 생성원리를 ‘태극(太極)’이라고 하였다. 다시 말하면, 이 ‘태극’은 각종 자연현상이 출현하는 가장 원시적인 혼돈상태의 ‘기(氣)’라고 생각하였다. 이 ‘태극’이 운동하고 분화(分化)하여 음양(陰陽)의 이기(二氣)가 생성되고, 음양은 사시(四時)의 변화를 발생하며, 이어서 각종 자연현상이 출현하게 되니, ‘태극’은 우주만물의 근원이다. ‘태극’은 볼 수도 없고 감지(感知)할 수도 없지만 ‘음양’은 볼 수 있고 감지할 수 있다. ‘역(易)’은 근본적으로 음(陰 : --)과 양(陽 : -)으로 이루어져 있다. ‘음양’은 천지(天地) · 일월(日月) · 주야(晝夜) · 한서(寒暑) · 춘하 · 추동(秋冬) · 뇌전(雷電) · 우설(雨雪) · 군신(君臣) · 부부(夫婦) · 남녀(男女) · 기우(奇偶 : 홀수와 짝수) · 동정(動靜) · 개합(開合) · 생사(生死) 등등의 현상으로 표현된다. ‘음’과 ‘양’은 또 ‘사상(四象 : 춘 · 하 · 추 · 동의 4계절 현상)’으로 나뉜다. 즉 ‘양(陽)’은 노양(老陽 : 하 · 여름)과 소음(少陰 : 추 · 가을)으로, ‘음(陰)’은 소양(少陽 : 춘 · 봄)과 노음(老陰 : 동 · 겨울)으로 나뉜다. 이것은 양의(兩儀 : 음 · 양)가 고정불변 하는 것이 아니라, 음이 양으로, 양이 음으로 유전화변(流轉化變)하는 원리를 나타낸 것이라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음양은 순수질 대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상대적인 성질을 포함하고 있어, 양이 음을 낳기도 하고, 음이 양을 낳기도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생긴 사상(四

象)은 또 팔괘(八卦)를 낳았다. 그 구체적인 자연현상이 바로 ‘팔괘’라고 이르는 것인데, 그것은 건(乾: ☰: 하늘) · 태(兌: ☱: 못) · 이(離: ☲: 불) · 진(震: ☳: 바람) · 손(巽: ☴: 바람) · 감(坎: ☵: 물) · 간(艮: ☶: 산) · 곤(坤: ☷: 땅)이다. 이 팔괘를 사물의 성정(性情)이나 가족구성원에 대입(代入)해서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복잡하기 이룰데 없는 자연 현상이나 인간사를 이 소성괘(小成卦)로써 다 표현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팔괘를 거듭해서 64개의 괘(卦)를 만들게 된 것이다. 그 64 괘에 각각의 괘사(卦辭: 점괘를 쉽게 풀어서 써 놓은 글)와 효사(爻辭: 음양을 나타낸 최소단위의 부호를 ‘효’라고 함. 즉 ‘양’은 ‘—’로, ‘음’은 ‘--’로 나타낸다. ‘효’가 거듭되면, ‘☰, ☳, ☲, ☱’ 등의 소성괘가 성립되고, 소성괘가 거듭되면, ‘☰☳, ☳☳, ☲☳, ☳☲, ☲☲, ☲☱, ☱☲, ☱☱’ 등의 대성괘(大成卦)가 성립된다. 이렇게 괘를 구성하는 각 ‘효’를 풀이한 말을 ‘효사·괘사’라고 함)를 붙여 괘의 상(象)을 설명하고 길흉을 논하였으니, 이것이 바로 역(易)의 경문(經文)이다.

*복희씨(伏羲氏): 복희(宓戲) · 포희(包牺) · 포희(庖犧) · 복희(伏羲) · 러희(慮犧) · 희황(犧皇) · 황희(皇犧)라고도 쓴다. 중국 삼황오제(三皇五帝) 중의 한 사람이다. 수인씨(燧人氏: 고대 전설상의 황제. 삼황三皇 중의 한 사람으로 불을 쓰는 법과 음식물 조리법을 전하였다고 전해짐)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성은 풍(風)씨이다. 일설에는 태호(太昊: 즉 복희씨)라고도 한다. 도상(圖像)으로는 뱀의 몸뚱이에 사람의 머리 형상을 지니고 있다. 처음으로 팔괘(八卦)를 그리고 서계(書契: 문자가 만들어지기 이전에 나무에 새겨 사물을 표시하던 부호)를 만들었으며, 그물 엮는 방법을 사람들에게 가르쳐 어업과 수렵, 목축에 종사하도록 했다. 신화(神話) 속에서 인류의 시조로 여궤씨(女媧氏: 전설상의 인류의 시조. 사람의 얼굴과 뱀의 몸을 한 여신女神으로 알려졌으며, 생황笙簧을 만들어 음률을 펼쳤다고 함. 또 전하는 바에 의하면, 그녀는 황토로 사람을 만들었으며, 오색의 돌을 단련해서 무너지는 하늘을 떠받치고, 큰 자라의 발을 잘라 사극四極에 세워 무너지는 하늘을 지탱하도록 했으며, 홍수를 막고, 맹수를 쫓고 죽여 사람들이 안거安居할 수 있게 했다고 함)가 누이인데, 혼인하여 결혼제도를 만들었다. 도교에서는 동방의 천제(天帝)라 일컫는다.

- ② 부자유(不自由): ‘무엇에 얽매어서 심신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음’을 이르는 말인데, 본 시에서의 ‘부자유(不自由)’한 원인은 서에 자신의 ‘신병(身病)’에 있다고 봐야 한다.

8) 만사일심 환교교(萬事一心還皎皎: 만사를 일심으로 대처했기에 맘은 아직 맑고 밝지만):

① 일심(一心):

☆충심(忠心) · 성심성의(誠心誠意) · 전심전의(專心專意).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일심일의(一心一意: 동심동의同心同意: 전심전의專心專意: 한마음 한 뜻 한결같은 마음: 일편단심) · 전심(專心: 몰두함: 열중함: 주의력을 집중함) 하다.

☆편애(偏愛)없는 동일한 마음.

☆한 사람의 마음이나 생각.

- ② 교교(皎皎) :
 ☆맑고 밝다, 또는 그런 모양. 본 시에서는 마음이 맑고 밝은 것을 가리키는 뜻으로 쓰였다.
 ☆명백한 모양. 분명한 모양. 명명백백하다.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달이 밝은 모양.
 ☆결백(潔白 : 새하얗다)한 모양. 청백(淸白 : 깨끗하다)한 모양.
- 9) 진유유(儋悠悠) : 이제는 유유자적하고 싶다.
 ① 진(儋) :
 ☆부사로 쓰여, ‘이제는. 되도록. 가능한 한’의 뜻이다.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부사로 쓰여, ‘줄곧. 내내. 언제까지나’의 뜻이다.
- ② 유유(悠悠) : 한적한 모양. 침착하고 여유 있는 모양. 전(轉)하여 본 시에서는 ‘유유자적(悠悠自適 : 속세를 떠나 아무 속박 없이 조용하고 편안하게 삶)’의 뜻으로 쓰였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시32」의 주석6)의 ② ‘유유(悠悠)’ 조항을 참조바람.
- 10) 산중원기 당귀신(山中遠寄當歸信 : 산중 은사에게 부치는 답서 확신에 찬 뜻 드러나 하는데) :
 ① 산중원기(山中遠寄) : 산속 먼 곳에 있는 은자에게 답서를 부치다.
 ☆산중(山中) : 조목(趙穆)이 은거하고 있는 산중을 가리키는 말이다.
 ☆원기(遠寄) : 멀리 부치다.
- ② 당귀신(當歸信) : 마땅히 (보내는 편지내용이) 각별히 신뢰를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당(當) : 마땅히 …해야 한다.
 ☆귀신(歸信) : 오로지 신뢰하다. 특별히(각별히) 신임하다.
- 11) 만세행장(晩歲行藏) : 만년晩年이 되니 지나온 행적임.
 ① 만세(晩歲) : 만년(晩年).
 ② 행장(行藏) :
 ☆내막. 내력. 행적.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출사(出仕 : 벼슬길로 나아감)와 은퇴를 가리킨다. 즉, 진로(進路) 혹은 진퇴(進退)를 말한다. 이 말은 『논어(論語) · 술이편(述而篇)』에, “등용되면 나아가서 도를 행하고, 버리면 물러나 은퇴한다(用之則行, 舍之則藏).”고 한 대목이 보인다. 기타의 상세한 내용은 「시54」 주석7)의 행장(行藏) 조항을 참조바람.

시57. 한덕재韓德載 선생을 작별하고 나서

詩57. 奉別韓德載¹⁾
 봉 별 한 덕 재



自識荊州面²⁾,
 자 식 형 주 면

강릉江陵에서 (그분과) 처음
 상면하면서부터,

眞輕萬戶侯³⁾.
 진 경 만 호 후

(그분은) 참으로 고관대작高官大爵을
 경시하셨었네.

塵埃一分手⁴⁾,
 진 에 일 분 수

(선생은) 속세[官界]를 떠나자마자 곧

江海獨登樓⁵⁾.
 강 해 독 등 루

사방각지 돌아다니며 홀로 누각에 올랐다네.

北去風霜苦⁶⁾,
 북 거 풍 상 고

북방[朝廷]에 가서는
 풍상風霜의 고초도 겪어봤고,

南遊歲月迺⁷⁾.
 남 유 세 월 주

남방을 다니면서는
 (산천유람으로) 세월을 보낸다 하셨지.

題詩欲寄遠,
 제 시 욕 기 원

시를 지어 멀리 계신
 그 은자隱者께 부치고 싶지만,

千里意悠悠⁸⁾.
 천 리 의 유 유

천리 요원한 길 마음으로만 절절히 그립네.

- 1) 봉별한덕재(奉別韓德載 : 한덕재 선생을 작별하고 나서) :
 - ① 봉별(奉別) : 경사(敬詞)로서, ‘고별(告別 : 작별을 고함)’의 높임말이다.
 - ② 한덕재(韓德載) : 이력미상. 조선 중기의 은사로 추정된다.
- 2) 자식형주면(自識荊州面 : 강릉江陵에서 〈그분과〉 처음 상면하면서부터) :
 - ① 자식…면(自識…면面) : 처음으로 ~에서 상면하다.
 ☆자(自) : ‘본시. 본래. 처음에’, ‘…부터’ 등의 의미를 지닌다.
 ☆식…면(식識…면面) : 상면(相面)하다. 상견(相見)하다.
 - ② 형주면(荊州面) : 형주[강릉]에서 면식(面識)(을 가지게 되다.)
 ☆형주(荊州) : 형주는 원래 중국의 지명으로, 형주 지주(知州 : 주州의 장관)의 관서(官署)는 강릉현(江陵縣)에 있었는데, 지금의 호북성(湖北省) 형사시(荊沙市) 형주구(荊州區)이고 강릉현성(江陵縣城)이다. 바로 그러한 까닭으로 본 시에서 쓴 ‘형주는 조선의 ‘강릉도호부(江陵都護府)’ 대신에 쓴 대칭용어이다.
 ☆면(面) : 만나다. 대면하다.
- 3) 진경 만호후(眞輕萬戶侯 : 〈그분은〉 참으로 고관대작을 경시하셨었네) :
 - ① 진경(眞輕) : 참으로 경시하다.
 ☆진(眞) : 부사로 쓰여, ‘참으로. 정말로’의 뜻이다.
 - ② 만호후(萬戶侯) : 식읍(食邑 : 군주가 신하에게 세록世祿삼아 주던 봉지封地) 일만호(一萬戶)의 후작(侯爵 : 작위爵位의 명칭으로 공公·후侯·백伯·자子·남男 중의 하나임). 후세에 와서는 일반적으로 ‘고관대작(高官大爵)’을 가리키는 말로 썼다.
- 4) 진애 일분수(塵埃一分手 : 〈선생은〉 속세[官界]를 떠나고 나서는 곧) :
 - ① 진애(塵埃) :
 ☆‘티끌세상, 속세’를 뜻하는 말로 본 시에서는 관계(官界)를 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티끌. 먼지.
 ☆사회의 하류(下流)를 가리키는 말.
 - ② 일분수(一分手) : 이별하자 곧. 관계(官界)를 떠나자 곧.
 ☆일(一) : 한 번 …하자 곧. …하더니. …하자 (…하다). 어법상에서 보면, 동사 앞에 놓여 어떤 짧은 동작을 거쳐 곧 모종의 결과나 결론이 나타남을 표시한다.
 ☆분수(分手) :
 a. 이별하다.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b. 일을 나누어 하다. 전(轉)하여, ‘각자, 각각, 따로따로, 분담하여’의 뜻으로 쓴다.
 c. 인간세상과 이별하다. 속세를 떠남을 이르는 말이다.
- 5) 강해 독등루(江海獨登樓 : 사방각지 돌아다니며 홀로 누각에 올랐네) :
 - ① 강해(江海) :
 ☆사방각지를 가리키다.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강과 바다.
 ☆은사(隱士)의 거처.
 - ② 독등루(獨登樓) : ‘홀로 누각에 오른다’는 것은 왕사(往事)에 대하여 감회에 젖어드는 심리를 형상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 6) 북거 풍상고(北去風霜苦) : 북방에 가서는 풍상風霜의 고초도 겪어봤고) :
- ① 북거(北去) : 여기서 ‘북(北)’에 대한 함의(含意)는 속세 곧 ‘관계(官界)’를 시사(示唆)하는 것으로 보인다.
 - ② 풍상고(風霜苦) : 관계(官界)에서 겪었던 간난(艱難)과 곤고로움[困苦]을 형상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 7) 남유 세월주(南遊歲月迤) : 남방을 다니면서는 〈산천 유람으로〉 세월을 보낸다 하셨지) :
- ① 세월(歲月) : 세월. 시대. 시간.
 - ② 주(迤) : 다하다. 없어지다. 끝나다.
- 8) 유유(悠悠) : 본 시에서는 그리워하는 모양을 형상어로 표현한 것이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앞의 「시32」의 주석6)의 ② ‘유유(悠悠)’ 조항을 참조바람.



시58. 송암^{松巖} 마을을 지나가다가 장중^{章仲}
권호문^{權好文} 공^公을 그리워하며

詩58. 過松巖¹⁾ 懷權章仲²⁾
과 송암 회 권장중

詩老乘雲久³⁾,
시로승운구

시인께서 승천한지 이미 오래 됐는데,

孤村過客悲⁴⁾。
고촌과객비

적절한 촌락을 지나가는 나그네 슬퍼지네.

平論⁵⁾一生事,
평론일생사

(공은) 평생 사적^{事跡} 평범한
시문^{詩文}으로 논했지만,

堪作百世師⁶⁾。
감작백세사

백대^{百代} 후에도 사표^{師表}로 존경받을
분일세.

迢遞寒雲色⁷⁾,
조제한운색

쌀쌀한 날 먼 하늘에는 구름이 펼쳐졌는데,

悲涼老樹枝⁸⁾。
비량로수지

고목의 나뭇가지 처량하기만 하네.

唯餘舊三逕⁹⁾,
유여구삼경

남은 것이라고는 은자^{隱者}의 옛 정원뿐인데,

秋草正離離¹⁰⁾。
추초정리리

가을 풀만 이렇게 수북수북 우거졌네.

1) 과송암(過松巖): 송암 마을을 지나가다.

① 송암(松巖): 본 시제(詩題)에서 ‘송암’은 시의 내용과 연결시켜 볼 때, 이는 지명이라기보다는 권장중(權章仲)의 호(號)를 지명처럼 대칭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송암 관련 자료는 아래와 같다.

☆장중(章仲) 권호문(權好文)의 호(號)로서의 ‘송암’: 권호문, 『송암집속집(松巖集續集)권6·송암 한서재기(松巖寒栖齋記)』에 보면, “마침 금년 가을 삭적되어 여가를 얻었다. 집 앞의 시내를 이리저리 거닐다 우연히 소나무 아래 높직한 바위 모서리에 앉았다. 눈을 들어 멀리 조망하니 휴식할 만하였다. 장인匠人에게 명하여 나무를 베게 하고 이에 초가집을 지었다. 한 칸은 온돌방을 만들고 두 칸은 서늘한 마루로 만들었다. 시내의 위쪽에 산이 있고, 산의 정상에 바위가 있으며, 바위 부근에 집이 있다. 집 앞에 드문드문 소나무 몇 그루가 있는데, 푸르른 것이 마치 깃발을 세워 놓은 것 같다. 소나무 아래로는 **삐죽삐죽** 높이 솟은 돌이 **충충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 작은 대(臺)를 이루었다. 이곳에서 가장 기이한 것이 소나무이고 바위이기에 이를 ‘송암松巖’이라 이름을 붙였다(適今秋, 黃墨有暇. 逍遙前溪, 偶坐松下危巖之角, 舉目遠眺, 則可以棲息. 於是, 命匠工, 斲翠微, 乃營草屋. 一間則煨房, 二間則涼軒, 溪之上是山, 山之頂是巖), 巖之頭是堂. 堂前有疏松數株, 蒼蒼然如建幢, 松之下, 有矗石層層而作小臺. 此地最奇者, 松也巖也, 故名之曰松巖.”라는 기록이 보인다. 그리하여, 권호문은 마침내 이를 자호(自號)로 삼았던 것이다.

☆송암이 있는 마을의 지리적 위치: 지금의 안동시 서후면(西後面) 교리(校里)*: 솫밤*)이다.

*교리(校里): 교리는 안동 권씨 북야공파(僕射公派)인 권인(權軫: 송암 권호문의 6대조)이 고려가 망하자 벼슬을 버리고 입향(入鄕)하여 은거하며 지낸 것이 계기가 되어 교리가 안동 권씨의 집성촌으로 형성되었다. 송암 권호문은 북야공의 11세손이다. 교리의 지리(地理)는 송야천(松夜川: 안동시 서후면西後面과 북후면北後面을 흐르는 하천의 이름)을 경계로 하여 안동시 노하동과 마주하고 있다. 시내에서 솫밤 다리를 건너 봉정사(鳳亭寺)로 향하는 지방도로와 연결한 마을로 남쪽으로는 풍산읍 막곡리와 경계하고 있다. 교리라는 지명은 안동의 옛 지명인 복주(福州)때에 이 지역에 향교가 있었다고 해서 향교골 또는 행갯골이라 하였는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평촌리와 대석동을 병합하여 교리라 하였다.

*솫밤: 이 명칭은 송암의 7대조인 권인(權軫: 시조 권행權幸의 15세손. 호는 고려의 수도인 송도松都를 잊지 못하여 송파松坡라고 지었다 함)이 고려말에 예의판서(禮儀判書)로 역성혁명(易姓革命) 후 한성판윤(漢城判尹)을 권유받았으나 사절하고 낙향하여 안동의 서후면 교리 송야(松夜)에 복거(卜居)하였는데, 그 지명이 원래 ‘솫밤’으로서 소야(所夜)로 표기하던 것이, 공이 고려의 송도(松都)를 생각하여 송야(松夜)로 고쳐 부르며 유래가 되었다고 한다. 권인의 호를 따서 ‘송파松坡’라고도 하는 이곳은 안동·예천 간 국도 송야(松夜) 사거리에서 안동 권씨 시조 태사공(太師公) 권행(權幸) 묘소로 들어가는 입구가 된다.

2) 회권장중(懷權章仲) : 장중(章仲) 권호문(權好文) 공(公)을 그리워하다) :

① 권장중(權章仲) : 장중(章仲) 권호문(權好文). 장중은 권호문의 호이다. 이렇게 성씨 다음에 자나 호 또는 직함을 쓰는 것은 경칭(敬稱)의 한 예이다.

☆권호문(權好文 : 1532~1587) : 조선 중기의 문인·학자이다. 본관은 안동. 자는 장중. 호는 송암(松巖). 안주교수(安州敎授) 권륙(權陸)의 아들이다. 1549년(명종 4) 아버지를 여의고 1561년 30세에 진사시(進士試)에 합격했으나, 1564년에 모친상을 당하자 벼슬을 단념하고 청성산(靑城山 : 경북 안동시 풍산읍 소재) 아래에 무민재(無憫齋)를 짓고 그곳에 은거하였다. 이황을 스승으로 모셨으며, 같은 문하생인 류성룡(柳成龍 : 1542~1607) · 김성일(金誠一 : 1538~1593) 등과 교분이 두터웠고 이들로부터 학행을 높이 평가받았으며, 말년에 덕망이 높아져 찾아오는 문인들이 많았다. 집경전참봉(集慶殿參奉) · 내시교관(內侍敎官) 등에 제수되었으나 나가지 않았다. 56세로 일생을 마쳤으며, 묘지는 안동부(安東府) 서쪽 마감산(麻甘山 : 경북 안동시 풍산읍 노리릉리에 위치함)에 있다. 안동의 송암서원(松巖書院)에 제향되었다. 그는 평생을 자연에 묻혀 살았는데, 이황은 그를 소쇄산림지풍(瀟灑山林之風)이 있다 하였고, 벗 류성룡도 강호고사(江湖高士)라 하였다. 작품으로는 경기체가(景幾體歌)의 변형형식인 「독락팔곡(獨樂八曲)」과 연시조(聯詩調)인 「한거십팔곡(閑居十八曲)」이 『송암집(松巖集)』에 전한다.

3) 시로 승운구(詩老乘雲久) : 시인께서 승천한지 이미 오래됐네) :

① 시로(詩老) : 시인에 대한 경칭(敬稱). 그 뜻은 ‘시를 짓는데 능한 자’를 이르는 말로서, ‘작시노수(作詩老手 : 작시에 능숙한 사람)’, 곧 ‘시인(詩人)’을 가리킨다.

② 승운(乘雲) :

☆승천(升天)하다. 신선이 되어서 가다(仙去). 전(轉)하여 별세(別世)의 뜻으로 쓰며, ‘사망’의 완곡한 표현이다.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구름을 타다(駕雲). 구름 위에 오르다. 전(轉)하여 고위(高位)에 오름을 가리키는 말로도 쓴다.

4) 고촌 과객비(孤村過客悲) : 적정한 촌락을 지나가는 나그네 슬퍼지네) :

① 고촌(孤村) : 적정한 촌락.

② 과객(過客) : 지나가는 나그네.

5) 평론(平論) :

① 평범하여 별로 논할 것이 없는 언론(본 시에서는 시문詩文을 가리키는 뜻으로 쓰였음).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평(平) : 사심 없이 공평하다.

☆논(論) : 논하다. 언급하다. 따지다.

② 평론(評論).

6) 감작 백세사(堪作百世師) : 백대百代 후에도 사표師表로 존경받을 분일세) :

① 감작(堪作) : ...라고 할 만하다. ...로 삼을 만하다.

☆감(堪) : 조동사로 쓰여, ‘...할 수 있다. ...에 효과가 있다. ...할 만하다.’

☆작(作) : 동사로서, ‘...로 하다...로 삼다.’

② 백세사(百世師) : 사람의 품덕과 학문이 영원히 후대의 모범이 됨을 이르는 말. 백대(百代) 이후에도 사람들의 사표(師表 : 모범)로서 존경을 받을 사람. 이 말의

출처는 『맹자(孟子)·진심장구(盡心章句) 하(下)』에, “성인은 백대의 스승이다 (聖人, 百世之師也).”라고 한 구절에 보인다.

7) 초제 한운색(迢遞寒雲色: 쌀쌀한 날 먼 하늘에는 구름이 펼쳐졌는데):

- ① 초제(迢遞): 요원(遙遠)한 모양. 아득히 먼 모양. 기타 자세한 뜻은 앞의 「시14」 주석4)의 ③ ‘초제(迢遞)’ 항목을 참조바람.
- ② 한운색(寒雲色): 쌀쌀한 날에 낀 구름의 풍광.
 ☆한운(寒雲): 쌀쌀한(추운) 날의 구름.
 ☆색(色): 풍광(風光). 경물(景物).

8) 비랑 노수지(悲涼老樹枝: 고목의 나뭇가지 처량하기만 하네):

- ① 비랑(悲涼): 비랑(悲涼)으로도 쓴다. 구슬프고 쓸쓸하다. 처량하다.
- ② 노수지(老樹枝): 고목(古木)의 나뭇가지. 노목(老木)의 나뭇가지. 오래된 나무의 나뭇가지.

9) 유여 구삼경(唯餘舊三逕: 남은 것이라고는 은자의 옛 정원뿐인데):

- ① 유여(唯餘): 오로지 남아있다.
- ② 구삼경(舊三逕): 오래된 세 갈래 오솔길.
 ☆삼경(三逕): 삼경(三徑)으로도 씀. 동한(東漢)의 문관(文官)이자 문인(文人)인 조기(趙岐: 약 108~201: 자는 빈경郿卿, 처음 이름은 가嘉隱)의 사서(史書) 『삼보결록(三輔決錄)·도명편(逃名篇)』에, “장후(蔣詡: 생몰년 미상. 예제哀帝 때 연주사兖州刺史를 역임한 뒤 은둔하였음)는 향리로 돌아와서, 가시나무로 사립문을 만들어 닫아걸었다(蔣詡歸鄉里, 荊棘塞門). 집안에 세 갈래 오솔길이 있는데도 나와서 걷지 않다가, 오직 (벗이자 은사인) 구중(求仲: 생몰년 미상. 수레를 고쳐주는 것을 직업으로 삼았음)과 양중(羊仲: 생몰년 미상)이 올 때만 그들을 따라 (오솔길을 거닐며) 놀았다(舍中有三逕, 不出, 有求仲羊仲從之遊).”고 한 구절이 있다. 후에 사람들은 이 문장에 나오는 “삼경(三逕)”이라는 말을 ‘귀은자(歸隱者)의 정원’을 가리키는 뜻으로 썼다.

10) 추초 정리리(秋草正離離: 가을 풀만 이렇게 수북수북 우거졌네):

- ① 추초(秋草): 가을철의 풀.
- ② 정리리(正離離): 이렇게 (풀이) 수북수북 우거지다.
 ☆정(正):
 a. 대사(代詞)로 쓰여, ‘이렇게[這樣]’의 뜻임.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b. 일반적으로 부사(副詞)로 많이 쓰이는데, 그러한 경우에는 ‘마침, 때마침, 바야흐로, 한창 (...하고 있다)’는 뜻으로 쓰인다.

☆이리(離離):

- a. 아주 많은 모양. 본 시에서는 ‘수북수북’으로 번역하였다.
- b. (나뭇잎·안개·두발·수염·연잎·소나무 따위가) 농밀(濃密)한 모양.
- c. 조밀한 모양. 뻘뻘한 모양.
- d. 질서정연한 모양.
- e. 넓고 요원한 모양. 텅 빈 모양.
- f. 맑은 모양. 환한 모양.
- g. 분명한 모양. 또렷한 모양.
- h. 은은한(어렴풋한, 희미한) 모양.

- i. (구름가닥이 길게 뻗은 것처럼) 끊어진 것 같기도 하고 이어진 것 같기도 한 모양.
- j. 산만하고(해이하고) 나태한 모양.
- k. 필력이는 모양. 나폴거리는 모양. 흔들거리는 모양.
- l. 미세(微細)한 모양.
- m. 비통한 모양. 근심하고 슬퍼하는 모양.
- n. 고독한 모양. 독특한 모양.
- o. 의성어(기러기 소리·비 내리는 소리·‘중얼중얼’거리는 것처럼 남이 알아듣지 못할 정도의 낮은 목소리로 혼잣말을 하거나 글을 외우는 소리 등).

시59. 자부子孚 정사신鄭士信의 도미동 정사道味洞精舍를 읊다

詩59. 題鄭子孚道味洞¹⁾
제 정 자 부 도 미 동



地認召文舊²⁾,
지 인 소 문 구

이곳은 (신라초기) 소문국召文國의
옛 땅이라 알고 있는데,

居從道味新³⁾.
거 종 도 미 신

(정공鄭公이) 정사精舍를 짓고 나니
(추구하는) 도道의 경지 새롭겠네.

纔成數椽屋⁴⁾,
재 성 수 연 옥

마침내 몇 칸의 정사精舍가 완공되고 나니,

已占⁵⁾萬山春.
이 점 만 산 춘

온 산에는 벌써 춘색이 완연하네.

野曠宜多黍⁶⁾,
야 광 의 다 서

들판 넓으니 응당 기장수확 풍성하겠고,

民淳可卜隣⁷⁾.
민 순 가 복 린

민풍民風 순박하여 이웃도 선택할 만
했겠네

去來眞自得⁸⁾,
거 래 진 자 득

떠나갔다 다시 와도 정말로 상쾌하여,

時復岸綸巾⁹⁾.
시 부 안 윤 건

자주 윤건綸巾을 뒤로 젖혀 쓰고 다니겠네.

1) 제정자부도미동(題鄭子孚道味洞 : 자부子孚 정사신鄭士信의 도미동 정사道味洞 精舍를 읊다) :

① 정자부(鄭子孚) : 정사신(鄭士信). 자부(子孚)는 정사신의 자이다. 이렇게 성씨 다음에 자나 호, 또는 직함을 쓰는 것은 경칭(敬稱)의 한 예이다.

☆정사신(鄭士信 : 1558~1619) : 조선 중기의 문신. 본관은 청주(淸州), 자는 자부(子孚), 호는 매창(梅窓)으로도 썼고 신곡(神谷)으로도 썼다. 그는 현재의 경북 안동시 와룡면(臥龍面) 태리(台里)에서 태어났다. 사첨시 첨정(司瞻寺僉正 : '사첨시'는 조선시대 관청으로 태종때 설치한 사첨서시瞻署를 1460년 즉 세조 6년에 개칭한 것으로, 국가의 저화楮貨 즉 종이돈을 만들며, 지방에 있는 노비의 공포貢布를 맡아보던 관청이고, 첨정僉正은 '사첨사'의 종4품의 벼슬임) 두(料 : 1508~1576)의 둘째 아들로 양구현감(楊口縣監 : 양구는 강원도 중앙부에 위치한 현이었음)을 역임한 사성(士誠 : 1545~1607 : 백담柏潭 구봉령具鳳齡과 퇴계 이황의 문하생)의 동생이다. 또한 그는 서애(西厓)의 둘째 아들 단(端)의 장인(丈人)이다. 1582년(선조 15) 식년문과(式年文科 : 갑자甲子 · 병오丙午 · 정묘丁卯 · 계유癸酉처럼 간지干支가 자子 · 오午 · 묘卯 · 유酉 등이 들어 있는 해에 치른 문과 과거)에 을과(乙科 : 조선시대 문과복시文科覆試의 합격자를 예조禮曹에서 시험하여 7명을 뽑았으며 이들을 정8품의 품계를 주었고, 기성관리로서 승진을 위해 응시한 자는 2품을 올려 주었음)로 급제하였다. 이후, 저작(著作 : 조선시대 관직으로 문관 정8품이었음), 박사(博士 : 교수의 명칭으로, 홍문관弘文館 · 성균관成均館 · 규장각奎章閣 등에 두었던 정7품의 관직), 감찰(監察 : 사헌부司憲府의 정6품 관직), 정언(正言 : 사간원司諫院에 소속된 정6품 관직), 예안현감(禮安縣監), 병조정랑(兵曹正郎 : 병조에 소속된 정5품 관직) 부수찬 겸 경연검토관(副修撰 兼 經筵檢討官 : 홍문관에서 내외의 경적經籍과 문한文翰에 관한 업무와 경연정經筵에서 강독講讀에 관한 일을 맡아보던 정6품 관직), 춘추관 기사관(春秋館記事官 : 논의論議 · 교명敎命 · 국사國史에 관한 일을 맡아보던 관청인 춘추관에 소속된 정6품 관직), 전적(典籍 : 성균관에 소속된 정6품 관직), 예조정랑(禮曹正郎 : 예조에 소속된 정5품 관직), 수찬(修撰 : 홍문관의 정6품 벼슬) 등을 역임하였다. 1592년 임진왜란 때 지평(持平 : 사헌부에 소속된 정5품 관직)으로 왕을 따라 평양으로 피란하던 중에 반송정(盤松亭 : 조선시대 명나라와 청나라의 사신을 영접하던 곳인 서대문 밖에 위치한 모화관慕華館의 북쪽에 있던 정자)에서 이탈하였다 하여 사직당하였다. 그 뒤 강원도 지방에서 의병을 모아 많은 왜적을 무찌른 공로로, 1594년 경상도 도사(慶尙道都事 : 지방 관리의 불법을 규찰하고 과시科試를 맡아보던 종5품 관직)로 복직하고, 1595년에는 선산군수(善山郡守)가 되었다. 1603년(선조 36, 46세)에는 도미동 정사(道味洞 精舍)를 수축하였다. 1609년(광해군 1)에는 문과중시(文科重試 : 문과 과거에 급제한 사람을 계속하여 격려하는 뜻으로 실시한 특별 시험)에 을과(乙科)로 급제하였다. 이듬해 동지사(冬至使 : 조선시대 동지冬至에 명나라와 청나라에 보내던 사절 또는 파견된 사신)로 명나라에 다녀온 뒤 선계변무(璿系辨誣 : 종계변무宗系辨誣 : 조선건국 이래 1584년(선조 17년)까지 말쟁이 되었던 조선왕조의 조상이 명나라의 사적史籍에 잘못 기재된 것을 고치고자 주청奏請하던 일. 명나라 『태조실록太祖實錄』과 『대명회전大明會典』에는 조선왕조의 태조가 고려의 권신權臣인 이인임李仁任의 아들로 기록되어 있어, 그동안 누차 정정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해 오다가, 1584년 5월에 종계변무 주청사奏請使 황정국

黃廷瓚 등을 보내어 그것을 고쳤음의 공으로 광국원종(光國原從)의 훈(勳)에 책록(冊錄)되고, 장례원 판결사(掌隸院判決使 : 노예의 문서와 소송에 관한 사무를 맡아보던 관청인 장례원의 우두머리 관직으로 정3품 당상관堂上官임), 밀양부사 겸 경상도 중도방어사(密陽府使 兼 慶尙道 中道防禦使 : 밀양부사 겸 경상도 중도中道の 병권을 가진 종2품의 벼슬)에 이르렀다. 예조참판(禮曹參判)에 추증되었으며, 저서로는 『매창집(梅窓集)』이 있다.

- ② 도미동(道味洞) : 정사신(鄭士信)이 지은 도미동 정사(道味洞精舍)를 가리킨다. 「정사신 연보」에 의하면, 1603년(계묘년癸卯年 : 선조 36, 정사신 46세)에 도미동 정사(道味洞精舍)를 지었다. 이 정사는 의성현(義城縣) 남쪽에 있다. 이때 운천(雲川) 김용(金涌 : 1557~1620)*이 서애(西厓)가 쓴 위의 시에 차운하여 「정자부 사신 도미별업 차서애운(鄭子孚士信道味別業 次西厓韻)」라는 시를 지었다. 그 시는 아래와 같다 :

계곡입구는 정공鄭公이 몸소 경작하던 곳인데,	谷口躬耕*處,
고아한 서재를 지으시니 청신하네.	高齋*結構新.
솔바람 차가운 은거처에 날 저물지만,	松寒陶逕*夕,
꽃 피고 훈풍 불어 산에 봄인 온 걸 감사하네.	花暖謝山*春.
도道の 경지 통찰하여 속된 생각 불사르려,	道味鑒*塵念*,
선인仙人이 거주하며 세속 이웃과 단절했다네.	仙居絕俗鄰.
만약 한 조각 정的情誼라도 나눌 수 있다면,	倘*能分*一半*,
내가 잠시 흑두건 쓰는 것을 용인하시구려.	容我小*烏巾*.

*궁경(躬耕) : 몸소 전지(田地)를 경작하다.

*고재(高齋) : ‘고아(高雅)한 서재’란 뜻으로, 타인의 사옥(舍屋)에 대한 경칭(敬稱)으로 쓴다.

*도경(陶逕) : ‘사금파리 깔린 오솔길’이란 뜻인데, 전(轉)하여, ‘은사(隱士)의 거처’를 가리키는 말로 쓴다.

*사산(謝山) : 도미동 정사(道味洞精舍)가 위치한 산 이름으로 보이나, 역지는 그 산의 위치를 확인한 자료를 찾을 수 없었다.

*오(鑒) : 소각(燒却)하다. 불태워 없애다. 불태워 없애다.

*진념(塵念) : 속된 생각.

*분(分) : 정의(情誼) : 정분(情分)(을 나누다).

*일반(一半) : 한 조각. 본 인용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절반(折半).

*당(倘) : 만약(만일. 혹시) ~라 한다면.

*오건(烏巾) : 조문(弔問)할 때 머리에 쓰던 흑색 두건.

*소(小) : 잠시.

*김용(金涌 : 1557~1620) : 조선 선조·광해군 때의 문신. 본관은 의성. 자는 도원(道源), 호는 운천(雲川). 찰방 수일(守一)의 아들이며, 김성일(金誠一)의 조카이다. 1590년(선조 23) 증광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승문원권지정자(承文院權知正字)를 거쳐 예문관검열로 옮겼다가 천연두가 발병하여 사직하였다. 1592년(선조 25)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향리인 안동에서 의병을 일으켜

안동수성장(安東守城將)에 추대되었고, 이듬해 예문관의 검열·봉교, 성균관의 전직 등을 지냈다. 이어 정언·한납·부수찬·지평을 거쳐 이조정랑에 올랐다. 1597년 정유재란(丁酉再亂)이 일어나자 제도도체찰사(諸道都體察使) 이원익(李元翼)의 종사관으로 수행하여 많은 활약을 하였으며, 교리에 재임중 독운어사(督運御史)로 나가 군량미 조달에 큰 공을 세웠다. 그러나 조정에서 동서분당(東西分黨)이 이루어져 후원하던 영의정 류성룡(柳成龍)이 서인에 의해 축출되자, 탄핵을 받아 선산부사(善山府使)로 체직(遞職)되었다. 이때 금오서원(金烏書院)을 이관하고 향교를 중수하는 등 문교에 힘썼다. 이후 계속되는 대간의 탄핵을 받으며 경직(京職)과 외직(外職)을 전전하였는데, 일시 제용감정·필선(弼善)·집의 등 경직에 머물다가 예천군수·상주목사·홍주목사 등의 외직을 지내면서 오직 보민(保民)과 흥학(興學)에 힘썼다. 1609년 봉상시정(奉常寺正)으로 춘추관편수관을 겸하여 『선조실록(宣祖實錄)』의 편찬에 참여했으며, 그 공으로 통정대부에 올라 병조참의를 지내고, 1616년에 여주목사(驪州牧使)로 나갔는데, 이때 나이 이미 60세였다. 조정의 당쟁이 날로 심해지므로 만인들의 죽음을 구실로 향리로 돌아왔다가 4년뒤에 죽었다. 안동 덕봉서원(德峯書院)·묵계서원(默溪書院) 등에 제향되었다. 저서로는 『운천집(雲川集)』·『운천호종일기(雲川扈從日記)』(보물 제484호) 등이 있다. (참고 문헌: 선조실록, 광해군일기, 국조인물고(國朝人物考), 연려실기술(燃藜室記述), 국조방목(國朝榜目). 장동익張東翼 글 참조)

****역지주석:** 정사신(鄭士信)의 선대(先代)가 도촌(道村: 안동시 북후면北後面에 소재함)에 별사(別墅)가 있었으나 외가(外家: 안동 권씨)가 세거(世居)하게 되었고, 정씨(鄭氏)들은 와룡면 도천리(道川里: 도내리)에 세거(世居)하고 있다.

2) 지인 소문구(地詔召文舊: 이곳은 <신라 초기> 소문국召文國의 옛 땅이라 알고 있는데):

① 지(地): 여기서 ‘지(地)’란, 도미동(道味洞) 정사(精舍)가 들어선 이 지역의 땅에 대한 역사적 근거를 제시하기 위한 것으로, 이 땅은 바로, 신라초기에 소문국(召文國)이란 소국(小國)이 존재했던 지역임을 본 시구(詩句)의 하반구(下半句)에서 ‘소문(召文)’이란 명칭으로 가리키고 있다.

② 소문구(召文舊):

☆소문(召文): 소문국(召文國)을 가리킨다. 소문국이란, 신라초기에 복속된 주변에 있던 소국(小國). 지금의 경상북도 의성군(義城郡) 금성면(金城面)에 있었다.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의 의성현(義城縣) 건치 연혁조(建治沿革條)에 의하면, 의성은 본래 소문국이었던 것을 신라가 이를 멸망시켰다고 한다. 또 『삼국사기(三國史記)』 신라본기(新羅本紀) 벌휴이사금(伐休尼師今) 2년(185)조에는 파진찬(波珍瀾) 구도(仇道)와 일길찬(一吉瀾) 구수해(仇須兮)를 좌우군주(左右軍主)로 삼아 소문국을 공벌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러므로 소문국은 성읍국가(城邑國家)로 발전해오다가 벌휴이사금 때 신라에 병합되었다.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의 성현 고적조(古蹟條)에는 소문국의 고기(古基)와 어정(御井)이 현의 남쪽 25리에 있다고 하였는데, 현재 금성면에는 삼국시대의 고분군(古墳群)이 남아 있어서 당시의 배경을 추측하게 한다.

다.(다음백과 참조)

☆구(舊): 바로 도미동(道味洞) 정사(精舍)가 자리한 이 땅[地]은 오래된 역사를 가진 곳임을 표현한 시어(詩語)이다.

3) 거증 도미신(居從道味新: <정공鄭公이> 정사精舍를 짓고 나니 <추구하는> 도도의 경지 새롭겠네):

① 거증(居從): 정사신(鄭士信)이 머물렀던 거주지를 이르는 말이다.

☆거(居): 거주하다. 차지하다. (휴식)하다.

☆증(從): ‘어떤 것이 남긴 표시나 자리로, 정사신이 수축한 ‘도미동 정사’가 위치한 곳을 가리킨다.

② 도미신(道味新): ‘도(道)의 경계에 이르게 될 맛을 음미하니 새로운 느낌이 든다’는 것으로, 신라초기와 조선 중기라는 시간의 벽을 건너뛰었다는 감회가 ‘도학(道學)’에 대한 새로운 화두(話頭)가 되는 신선함을 표현하고 있는 듯하다.

4) 재성 수연옥(纔成數椽屋: 마침내 몇 칸의 정사精舍 완공되고 나니):

① 재성(纔成):

☆바야흐로 정사(精舍)를 완공하다. 본 시에서는 이 뜻을 쓰였다. 방금 집을 다 짓다.

☆이제 겨우 (집을) 다 짓다.

② 수연(數椽): 몇 칸(間).

☆연(椽):

a. 양사(量詞)로서, 집의 칸 수를 가리킨다.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b. 서까래.

c. 목제(木梯: 나무사다리).

5) 점(占): (어떤 지위나 모종의 상황에) 처하다. 차지하다. 본 시에서는 ‘(봄이) 오다. 또는 (봄이) 한창이거나 뚜렷한 상황임’을 의미하는 것으로 쓰였다.

6) 야광 의다서(野曠宜多黍: 들판 넓으니 응당 기장수확 풍성하겠고):

① 야광(野曠): 황야(荒野)가 광활하다. 벌판이 넓다.

② 서(黍):

☆기장. 본 시에서는 서민의 식량으로 쓰는 이 뜻으로 쓰였다.

☆참쌀.

7) 민순 가복린(民淳可卜隣: 민풍民風 순박하여 이웃도 선택할 만 했겠네):

① 민순(民淳): 민풍 또는 민심이 순박하다.

② 복린(卜隣): 이웃집을 선택하다. 살만한 곳을 정하기 위해 이웃의 선악을 점치다. 전(轉)하여, 살기 좋은 곳을 가려 이사하다는 뜻으로 쓴다.

☆복(卜): 선택하다.

8) 거래 진자득(去來眞自得: 떠나갔다 다시 와도 정말로 상쾌하여):

① 거래(去來):

☆떠나갔다가 다시 돌아옴을 가리킨다.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왕래하다. 오가다. 왕복하다.

② 자득(自得): (일이 뜻대로 이루어져서 스스로) 만족함이나 쾌적함을 느낀다. 득의(得意: 뜻대로 됨. 마음에 꼭 들. 매우 만족스러움)하거나 상쾌함(편안함. 쾌적함)을 느끼다.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9) 시부 인륜건(時復岸綸巾: 자주 윤건綸巾을 뒤로 젖혀 쓰고 다니겠네):

- ① 시부(時復): 시상(時常)과 같은 말로서, ‘늘. 항상. 자주’의 뜻이다.
- ② 안(岸): 관모(官帽: 모자)를 뒤로 젖혀 써서 이마가 드러나게 함을 이르는 말이다. 북송의 문인 소식(蘇軾: 1036~1101)의 시, 「정토사淨土寺에서 공신사功臣寺까지 걸어가면서(自淨土寺步至功臣寺)」에, “해가 지고 있길래 갈건(葛巾: 갈포葛布, 즉 칩 섬유로 짠 베로 만든 두건)을 뒤로 젖혀 썼더니, 저물녘에 부는 바람 우선(羽扇: 새의 깃으로 만든 부채)으로 부치는 듯 시원하네(落日岸葛巾, 晚風吹羽扇).”라고 읊은 구절이 있다.
- ③ 윤건(綸巾): 관명(冠名: 모자 이름). 옛날에 선비들이 쓰던 청사(靑絲: 청색사靑色絲)로 만든 두건(頭巾). 일설(一說)에 의하면, 청색의 실을 단 두건이라고도 한다. 전하는 바에 의하면, 중국의 삼국시대 촉(蜀)나라의 재상(宰相) 제갈량(諸葛亮: 제갈공명<諸葛孔明: 181~234>)이 군중(軍中)에서 이 두건을 썼다고 한 까닭에, ‘제갈건(諸葛巾)’이라고도 칭한다.

시60. 효릉孝陵으로 가는 도중에 느낀 바 있어서

詩60. 孝陵¹⁾道中有感

효릉 도중 유감

계사년(癸巳年: 1593년: 선조 26: 임진왜란이 발생한 그 이듬해임. 서애 52세) 10월에, 어가御駕가 환도還都한 후에, 나는 다시 영상領相[영의정]이 되었다. 갑오년(甲午年: 1594년: 선조 27, 서애 53세) 7월에, 어명御命을 받들고 효릉孝陵에 참배하러 가는데, 서문西門을 나서서 한강을 바라보니, 전란이 발생한 후인지라, 교외의 사방이 텅텅 비어 있고, 시력이 미치는 한 끝없이 바라봐도 사람 사는 기미機微가 보이지 않았다.

癸巳十月, 車駕²⁾還都, 余復相. 甲午七月, 奉命謁³⁾孝陵,
계사시월 거가 환도 여부상 갑오칠월 봉명알 효릉
出西門望漢江, 兵火⁴⁾之後, 四郊⁵⁾空虛, 極目無復人烟.⁶⁾
출서문망한강 병화지후 사교공허 극목무부인연

落日秋風動白蘋⁷⁾,
낙일추풍동백빈

석양 무렵 추풍 일자 강에 부평초 떠도는데,

江頭行客淚沾巾⁸⁾.
강두행객루점건

강변의 나그네 눈물 흘러 수건을 적시네.

雲山極目空圍國⁹⁾,
운산극목공위국

멀리 구름이며 산마다
오로지 도성都城을 둘러쌌고,

野樹連天¹⁰⁾不見人。
야수연천불견인

벌판의 수목도 무성한데
사람 자취 보이지 않네.

天啓兩京方佑漢¹¹⁾,
천계양경방우한

하늘의 계시로 양경兩京 중 한양이
신령의 도움 받았으니,



楚餘三戶可亡秦¹²⁾。
조 여 삼 호 가 망 진

‘초楚에 세 인가人家만 남아 있어도
진秦을 멸할 나라는 초나라리라는 심정일세.

書生白首¹³⁾眞無用,
서 생 백 수 진 무 용

(나는) 유생儒生 출신 늙은이라
실로 쓸모없지만,

匣裏龍泉會有神¹⁴⁾。
갑 리 용 천 회 유 신

필갑筆匣에 지략智略 들었으니
신의 도움 있으리라.

- 1) 효릉(孝陵) : 조선조 제12대왕 인종(仁宗 : 1515~1545)과 비(妃) 인성왕후 박씨(仁聖王后朴氏)의 능이다. 사적 제200호. 경기도 고양군(高陽郡) 원당읍(元堂邑) 원당리(元堂里)에 있다. 이 능은 왕릉과 왕비릉을 난간으로 연결한 쌍릉(雙陵)의 제도(制度)로 썼으며 왕릉에는 양우석(兩隅石)에 운채(雲彩)와 면석(面石)에 십이지신상(十二支神像 : 자(子 : 쥐) · 축(丑 : 소) · 인(寅 : 범) · 묘(卯 : 토끼) · 진(辰 : 용) · 사(巳 : 뱀) · 오(午 : 말) · 미(未 : 양) · 신(申 : 원숭이) · 유(酉 : 닭) · 술(戌 : 개) · 해(亥 : 돼지))의 십이지(十二支)를 상징하며, 각각 방향과 시간을 맡아 지키고 보호하는 열두 가지 동물의 상像. 수호신의 역할을 함)이 새겨진 병석(屏石)을 돌리고 있다. 1577년(선조 10)에 능의 개수(改修)를 명하여 병석 등 석물을 다시 고쳤다. 영(寧 : 침묘寢廟을 수호하던 관청인 종묘서宗廟署의 종5품 관직) 1인과 참봉(參奉 : 종9품 관직) 1인을 두어 관리하게 하였다. 이곳에는 효릉 외에 희릉(禧陵 : 조선 11대 왕 중종中宗의 계비繼妃 장경왕후章敬王后 윤씨의 능) · 예릉(睿陵 : 조선 25대 왕 철종哲宗과 철인왕후哲仁王后 김씨의 능)이 있어 서삼릉(西三陵)의 칭호를 얻게 되었다.

- 2) 거가(車駕) : 임금의 수레. 어가(御駕).

- 3) 알(謁) : 참배(參拜)하다.

- 4) 병화(兵火) :

- ① 전쟁, 전란.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본 시에서의 ‘전란’은 임진왜란(壬辰倭亂)을 가리킨다. 이 전란은 선조 25년(1592)부터 선조 31년(1598)까지 2차에 걸쳐 우리나라를 침입한 일본과의 싸움이였다. 해상에서의 이순신(李舜臣 : 1545~1598)의 활약에도 불구하고 육상에서의 이일(李鎰 : 1538~1601)과 신립(申砬 : 1546~1592) 등이 계속 패배함으로써 선조는 의주(義州)로 파천(播遷 : 임금이 도성을 떠나 타지역으로 피난하던 일)하였으며, 뒤에 명나라의 원병(援兵)과 권율(權慄 : 1537~1599) 등의 반격으로 일단 화의(和議)가 시작되었으나 일군(日軍)은 선조 30년(1597)에 재침하여 31년(1598)에 물러갔다. 이 재침한 전란이 ‘정유재란(丁酉再亂 : 임진왜란 휴전 교섭이 결렬된 뒤 선조 30년(1597)에 왜장倭將 가토기요마사加藤清正 등이 14만 대군을 이끌고 다시 쳐들어와 일으킨 전쟁)’이다.

- ② 전쟁으로 인한 화재.

- 5) 사교(四郊) :

- ① 일반적으로 ‘교외(郊外)’를 가리킨다.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 ② 도성(都城) 사망 주변의 지역.
- 6) 극목무부인연(極目無復人烟: 시력이 미치는 한 끝없이 바라봐도 사람 사는 기미機微가 보이지 않다):
- ① 극목(極目):
- ☆시력이 미치는 데까지 바라보다. 눈으로 볼 수 있는 한계까지 한없이 본다.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 ☆만목(滿目). 시야에 충만하다. 눈에 보이는 것 모두.
- ② 무부(無復):
- ☆이미(다시) 더 ...가 아니다. 다시 ...하지 않다. 재차...하지 않다.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 ☆‘무복(無復)’으로 읽어서, ‘이행(履行: 실행, 실천)하지 않는다.’는 뜻으로도 쓴다.
- ☆‘무복(無復)’으로 읽어서, ‘회복할 수 없다’는 뜻으로도 쓴다.
- ③ 인연(人烟): 인연(人煙)으로도 쓴다. 인가(人家)에서 불을 때는 연기(煙氣). 전(轉)하여, ‘인가(人家)’ 또는 ‘인연(人烟: 사람이 사는 기微)’을 가리키며, 번역에서는 ‘사람이 사는 기미(機微)’라고 표현하였다.
- 7) 낙일추풍 동백빈(落日秋風動白蘋: 석양 무렵 추풍 일자 강에 부평초가 떠드는데):
- ① 낙일(落日): 지는 해. 석양.
- ② 백빈(白蘋): 백萍(白萍)으로도 쓴다. 본 시에서는 ‘부평초’로 번역하였다. 자세한 것은 아래의 주석을 참조바람.
- ☆빈(蘋): 네 가래. 네 가래과의 여러해살이 수초(水草)로서, 줄기 높이가 7~20cm 이며, 네 쪽의 작은 잎이 흡사 네 잎 클러버처럼 ‘전(田)’자 모양으로 생겼다고 해서 중국에서는 ‘전자초(田字草)’라고도 하고, 한 줄기에 네 쪽의 잎이 사방(四方)으로 돌아나는 채소라는 뜻에서 ‘사엽채(四葉菜)’라고도 한다. 여름과 가을에 조그마한 백화(白花)가 핀다. 옛사람들은 찌거나 삶아서 먹는 식용식물로 애용했다. 또한 전초(全草)를 약용으로 쓰는데, 맛은 달고 성질은 차며, 열을 내리고 소변이 잘 나오게 하며 해독하고 출혈을 멎게 한다. 돼지 사료로도 쓴다. 『시경(詩經)·소남(召南)·채빈(采蘋)』에, “어디에서 빈채를 채취할꼬? 남산 계곡의 시냇물 물가일세(于以采蘋? 南澗之濱.)”라고 읊은 구절이 있다. 위 인용시에서의 ‘우이(于以)’는 ‘우하(于何)’와 같은 말로서, ‘어디에서(在何處)’라는 뜻이다. 이 시에 대해서, 『모전(毛傳: 모시고훈전毛詩故訓傳)의 약칭』에서 주석하기를, “빈(蘋)은 부평초이다(蘋, 大萍也)”고 하였다. (‘부평초’라는 뜻의 ‘평萍’은 ‘평萍’과 같은 자임) 또한 명말(明末)의 약학자(藥學者) 이시진(李時珍: 1518~1593)이 저술한 본초학(本草學)의 연구서 『본초강목(本草綱目)·수평(水萍)』에 의하면, “수평(水萍: 부평초, 즉 개구리밥의 별칭)에는 3가지가 있는데, 큰 것은 빈(蘋: 네 가래)이라 하고, 중간 것은 행채(荇菜: 노랑어리연꽃)라고 하며, 작은 것은 부평(浮萍: 부평초)이라 한다.”고 하였다. 원래 백빈(白蘋: 네 가래)과 부평(浮萍: 부평초)은 수초(水草)라는 공통점을 제외하고는 확연히 다르지만 옛 사람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따로 구분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현대의 우리나라 국어사전에는 ‘백빈(白蘋)’을 ‘흰 마름꽃’이라고 풀이하였다. 이 ‘마름(경상도·충청도·강원도에서는 말뚝이라고 칭하는 수초)은 또 다른 수초(水

草)이지만, 역시 명백한 구분이 없었다. 따라서 역자는 본 시에 나오는 ‘백빈(白蘋)’을 시구(詩句)의 조화에 맞추어 ‘부평초(浮萍草)’로 번역한다.

8) 강두행객 루점건(江頭行客淚沾巾 : 강변의 나그네 눈물 흘려 수건을 적시네) :

① 강두행객(江頭行客) : 강변의 나그네. 여기서의 ‘강’은 ‘한강’을 가리킨다.

☆강두(江頭) : 강변(江邊). 강안(江岸 : 강기슭).

☆행객(行客) : 나그네. 객객(過客). 지나가는 나그네.

② 점건(沾巾) : 수건을 적시다(눈물을 많이 흘리는 것을 형용한 말임).

9) 운산극목 공위국(雲山極目空圍國 : 멀리 구름이며 산마다 오로지 도성都城을 둘러쌌고) :

① 운산극목(雲山極目) : 하늘 멀리 낀 구름이며 산마다.

☆운산(雲山) : 구름 낀 먼 산. 구름이 걸친 산. 『시32』 주석7)의 ② ‘운산(雲山)’ 조항을 참조바람.

☆극목(極目) : 본시의 주석6)의 ① ‘극목(極目)’조항을 참조바람.

② 공위국(空圍國) : 구름과 산이 오로지 도성(都城)을 둘러싸고 있다.

☆공(空) : 부사로서 ‘오로지, 단지’의 뜻으로 쓰였다.

10) 연천(連天) :

① 하늘에 맞닿아 있는 듯하다.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으며, ‘수목이 무성한 것’을 형용한 말이다.

② 온 하늘. 만천(滿天).

③ 연일(連日), 며칠을 계속해서, 이때의 ‘천(天)’은 ‘일(日 : 하루·날·일)’의 뜻이다.

④ 부단히 연이어지거나 강렬함을 표시하는 말. 끊이지 않다. 계속하다.

11) 천계양경 방우한(天啓兩京方佑漢 : 하늘의 계시로 양경兩京 중 한양이 신령의 도움 받았으니) :

① 천계양경(天啓兩京) : 하늘의 계시(啓示)로 양경(兩京 : 두 곳의 경성京城) 중에.

☆천계(天啓) : 하늘의 계시(啓示 : 사람의 지혜로서는 알 수 없는 진리를 신이 가르쳐 알게 함). 『좌전(左傳)·민공원년(閔公元年)』조항에, “복언(卜僂 : 생물년 미상 : 춘추시대 진प्나라 사람. 성은 괵郭이고, ‘복卜’은 ‘거북의 등껍데기를 불에 그슬려서 그 갈라진 금으로 나라의 길흉화복을 점치던 대부大夫 작위에 해당하는 벼슬 명칭’임)이 말하기를(卜僂) : ‘필만(畢萬 : 생물년 미상 : 진प् 현공獻公을 섬겼으며, 위魏 땅에 봉해져 대부大夫의 작위를 받았음)의 후손은 반드시 번창할 것이다(畢萬之後必大). 만萬은 괵 찬 수數이고, 위魏는 크다는 뜻을 지닌 말이다(萬, 盈數也, 魏大名也). 이곳(위魏 땅을 가리킴)에 시조가 되는 사람으로서 포상을 받은 것은, 하늘의 계시를 받은 것이다(以是始賞, 天啓之矣).’고 하였다”는 대목이 있다.

☆양경(兩京) : 두 곳의 경성(京城).

- a. 고려시대 개경(開京 : 지금의 개성시開城市)과 서경(西京 : 지금의 평양시平壤市)를 아울러 일컫던 말이다. 고려시대에는 나라의 중심으로 중요시하던 네 지역을 ‘사경(四京)’이라 하였는데, 남경(南京 : 지금의 서울에 해당하는 행정구역), 동경(東京 : 지금의 경주慶州에 해당하는 행정구역), 중경(中京 : 지금의 개성開城), 서경(西京 : 지금의 평양)이 그것이다.
- b. 조선시대 한양(漢陽 : 지금의 서울)과 개경(開京 : 지금의 개성)을 아울러 일컫던 말인데,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② 방우한(方佑漢): 마침내 한양(漢陽)이 신령의 보호를 받다.

☆방(方): 부사로써, ‘비로소 마침내’의 뜻으로 쓰였다.

☆우한(佑漢): 조선의 태조(太祖)가 한양으로 천도(遷都)한 취지를 담고 있다.

a. 우(佑): 신령의 보호를 받는 것을 가리킨다.

b. 한(漢): 한양(漢陽)의 약칭.

12) 초여삼호 가망진(楚餘三戶可亡秦: ‘초楚에 세 인가人家만 남아 있어도 진秦을 멸할 나라는 초나라리라’라는 심정일제):

① 초(楚): 전국시대(戰國時代) 진(秦)·초(楚)가 상쟁(相爭)할 때, 진2세 원년(秦二世 元年: BC 209년. 진나라 2세 황제. 성은 영贏, 이름은 호해<胡亥> BC 230~BC 207) 입)부터 한6년(漢六年: BC 201년)까지의 8년간에, 먼저 진승(陳勝: ?~BC 208)이 기현(蕲縣: 지금의 안휘성安徽省 숙주시宿州市)에서 기병(起兵)하여 진현(陳縣: 지금의 하남성河南省 회양현淮陽縣)에서 장초(張楚: ‘초나라를 크게 확장하려 한다는 뜻에서 취한 ‘진승’이 장악한 초나라의 정권 명칭임)를 건립하고, 초왕임을 자칭하였다. 그 뒤에 양강(襄彊: 생몰년 미상)과 경구(景駒: ?~BC 208)도 초왕을 자칭했으며, 웅심(熊心: ?~BC 205: 초희왕楚懷王)도 자립하여 초왕이 되었다. 또한 한원년(漢元年: BC 206)에는 항우(項羽: BC 232~BC 202)가 자립하여 서초(西楚)의 패왕(霸王)이 되면서, 하비(下邳: 지금의 강소성江蘇省 수녕현睢寧縣 서북부)로 도읍했으나, 한6년(漢六年: BC 201)에 나라가 제거됐다. 본 시에서 읊은 초(楚)나라는 초희왕(楚懷王)이 건립한 초나라를 가리킨다. 본 시에서의 초나라는 조선(朝鮮)을 은유(隱喻)한 말로 쓰였다.

② 진(秦): BC 221년 진왕(秦王) 정(政: BC 259~BC 210: 시황제始皇帝의 이름, 성姓은 영贏임)이 중원(中原)을 통일하고 시황제(재위기간: BC 221~BC 210)라고 자칭하면서, 한양(咸陽: 지금의 섬서성陝西省 한양시咸陽市 동북 20리)에 건도(建都)하였다. BC 206년 한(漢)나라에 멸망됐다. 2세에게 황위(皇位)를 물려 주었으나 건국 이후 15년 만에 멸망했다. 2세의 재위기간은 BC 209~BC 207년이다. 본 시에서의 진(秦)은 왜국(倭國: 일본)을 은유한 말로 쓰였다.

③ 초여삼호 가망진(楚餘三戶可亡秦)의 역사적 사실: 『사기(史記)·항우본기(項羽本記)』에, “희왕(懷王: 초희왕楚懷王)이 진(秦)나라에 가서 돌아오시지 못한 이후부터(BC 299년, 초희왕은 폐임에 빠져 진나라에 입국했다가 진소왕秦昭王의 볼모가 되었으며, 진나라에서 객사하였음), 초나라 사람들은 지금까지 희왕을 가련하게 여기고 있습니다(自懷王入秦不返, 楚人憐之至今). 그런 까닭에 초남공(楚南公: 전국시대 초나라 음양가陰陽家. 성명은 미상)이 말하기를(故楚南公曰): ‘초나라에 설령 세 가구의 인가밖에 남아있지 않다고 할지라도, 진나라를 멸망시킬 나라는 반드시 초나라이리라(楚雖三戶, 亡秦必楚也).’고 하였습니다.”라고 한 구절이 있다. 여기에 나오는 “초삼호(楚三戶)”라는 말은 당시 한때 유행했던 말이고, ‘심신을 다 바쳐 국가에 보답하려는 결심’을 표현한 말이다. 본 시에서 이 내용을 서애(西厓)가 읊은 것도 초남공(楚南公)의 말이 곧 자신의 심정과 다를 바 없음을 표현한 것이라 하겠다.

13) 서생백수(書生白首): 유생(儒生) 출신의 연로(年老)한 사람.

① 서생(書生):

☆공부하는 사람. 선비, 학자, 서생. 옛날에는 주로 유생(儒生: 유학을 공부

하는 사람)을 가리켰다.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글만 읽어 세상일에 서투른 선비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세상물정에 어두운 사람.

② 백수(白首) : 백발. 연로(年老)함을 타나내는 말.

14) 갸리용천 회유신(匣裏龍泉會有神 : 필갑筆匣에 지략智略 들었으니 신의 도움 있으리라) :

① 갸리용천(匣裏龍泉) : 필갑(筆匣) 속에 지략이 들어있다.

☆갑(匣) : 물건을 넣어두기 위하여 나무나 대나무로 만든 네모난 그릇인데, 큰 것은 '상(箱 : 상자)'이라 하고, 작은 것은 '갑(匣 : 작은 상자)'이라 한다. 뚜껑이 있다. 본 시에서는 필갑(筆匣)을 가리키는 뜻으로 쓰였다.

☆용천(龍泉) :

- a. 보검의 명칭으로 '용연(龍淵)'의 별칭이다.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으며, '지략(智略)'을 은유하는 말로 쓰였다.
- b. 과단성 있게 조치하는 것을 비유한 말.
- c. 분천(噴泉). 비천(飛泉). 폭포를 가리킨다.

시61. 화석정^{花石亭}을 시제^{詩題}로 하여 쓰다.

율곡정^{栗谷亭}으로도 부른다

詩61. 題^제花石亭¹⁾ 栗谷亭²⁾名^명



山形背立本同根³⁾,
산 형 배 립 본 동 근

산 형세 마주보고 솟았어도
본래 그 산맥은 같고,

江水分流亦一源⁴⁾.
강 수 분 류 역 일 원

강물줄기 갈라져 흘러도
원류^{源流}는 동일하네.

花石古亭人不見,
화 석 고 정 인 불 견

화석정 옛 정자에
그 분[율곡]은 보이지 않는데,

夕陽歸去重銷魂⁵⁾.
석 양 귀 기 중 소 혼

석양마저 넘어가니
거듭 뉘 놓고 멍하니 있네.

1) 제화석정(題花石亭 : 화석정을 시제詩題로 하여 쓰다) : 본 시제는 당시 동인(東人)에 속했던 서예선생이 정치적으로는 입장을 달리했지만, 인간적으로는 그의 위인됨을 인정하였던 서인(西人)의 핵심인사였던 율곡(栗谷) 이이(李珣 : 1536~1584) 선생의 정자[화석정(花石亭 : 평소에 제자들과 함께 시를 짓고 학문을 논했던 장소임)]에 들어서, 그를 추모하며 지은 시이다.

① 화석정(花石亭) : 경기도 파주시(坡州市) 파평면(坡平面) 율곡리(栗谷里) 임진강가 벼랑 위에 자리잡고 있는 조선시대의 누정(樓亭)이다. 1974년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61호로 지정되었으며, 정면 3칸, 측면 2칸의 팔작지붕 건물이다. 이곳

은 원래 고려 말기의 문신 길재(吉再 : 1353~1419)의 유지(遺址)였던 자리로서, 세종 25년(1443) 율곡 이이의 5대 조부인 이명신(李明晨 : 1368~1435)이 세운 것을 성종 9년(1478) 율곡의 증조부 이의석(李宜碩 : 생몰년 미상)이 보수하고 이숙함(李叔瑱 : 1429~?) : 이후백李後白의 증조부曾祖父)이 화석정(花石亭)이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한다. 그 이후 다시 율곡이 증수하여 퇴관(退官) 후 여생을 이곳에서 작시(作詩)하며 학문을 논하고 이(理 : 이법理法 : 이치)를 연구하니 중국의 칙사(勅使) 황홍헌(黃洪憲)이 정자를 찾아와 음시(吟詩), 청유(淸遊)하였다고 한다. 정자는 파주시(坡州市) 임진강변(臨津江邊) 남안(南岸)에 위치하였는데 바로 밑을 흐르는 임진강을 굽어 볼 수 있고, 난간에 기대어 바라보면 서울의 삼각산과 개성의 오관산(五冠山)이 아득하게 보인다. 이숙함의 정기(亭記)에 의하면 당나라 때 재상 이덕유(李德裕 : 787~850)의 별서(別墅)인 평천장(平泉莊 : 지금의 하남성河南省 이천현伊川縣 양촌구梁存溝에 있음)의 기문(記文) 중에 보이는 ‘화석(花石)’을 따서 정자 이름으로 삼았다고 한다. 임진왜란 때 불타 그 뒤 증건하였다고 하나 이 시를 보면, 임진년에는 아직 남아 있었으니 그 뒤 전란에서 소실되었다가 6·25동란 때 다시 소실된 것을 1966년에 유림(儒林)이 다시 복원해놓았다.

2) 율곡정(栗谷亭) : ‘율곡(栗谷)’은 이이(李珣)의 호로써 정자(亭子)의 명칭으로 차용하였다.

- ① 이이(李珣 : 1536~1584) : 본관은 덕수(德水), 자는 숙헌(叔獻), 호는 율곡(栗谷)·석담(石潭)·우재(愚齋)이다. 1536년(중종 31) 음력 12월 26일에 사헌부 감찰을 지낸 이원수(李元秀)와 사임당(師任堂) 신씨(申氏)의 셋째 아들로 외가가 있던 강원도 강릉에서 태어났다. 1548년(명종 3) 진사시(進士試)에 13세의 나이로 합격했으며, 조광조(趙光祖 : 1482~1519)의 문인인 휴암(休菴) 백인결(白仁傑 : 1497~1579)에게 학문을 배웠다. 1554년 금강산(摩訶衍)으로 가서 불교를 공부했으나, 이듬해 하산하여 외가인 강릉으로 들어와 자경문(自警文)을 짓고 다시 성리학에 전념하였다. 자경문은 입지(立志)·과언(寡言) 등 11개의 조항으로 되어 있는데, 스스로를 경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세운 것이다. 22세(1557년)에 성주목사(星州牧使) 노경린(盧慶麟)의 딸과 혼인하였고, 이듬해 예안(禮安)에 낙향해 있던 이황(李滉)을 찾아가 성리학에 관한 논변을 나누었다. 1558년(명종 13) 별시(別試)에서 천문·기상의 순행과 이변 등에 대해 논한 천도책(天道策)을 지어 장원으로 급제했으며, 1564년(명종 19)에 실시된 대과(大科)에서 문과(文科)의 초시(初試)·복시(覆試)·전시(殿試)에 모두 장원으로 합격하여 삼장장원(三場壯元)으로 불렸다. 생원시(生員試)·진사시(進士試)를 포함해 응시한 아홉 차례의 과거에 모두 장원으로 합격하여 사람들에게 구도장원공(九度壯元公)이라고 불리기도 했다. 대과에 급제한 1564년에 정6품 호조(戶曹) 좌랑(佐郎)으로 관직에 나신 뒤에 예조(禮曹)와 이조(吏曹)의 좌랑을 거쳐 왕에 대한 간쟁과 논박을 담당하였던 사간원(司諫院) 정언(正言)과 사헌부(司憲府) 지평(持平) 등의 대간(臺諫)의 직위에 있었다. 1568년(선조 1)에는 천추사(千秋使)의 서장관(書狀官)으로 명(明)나라에 다녀왔으며, 1569년 홍문관(弘文館) 부교리(副校理)로서 역사의 기록과 편찬을 담당하던 춘추관(春秋館) 기사관(記事官)을 겸하여 『명종실록(明宗實錄)』의 편찬에 참여하였다. 또한

- 정철(鄭澈: 1536~1593)과 함께 경세제민(經世濟民)의 사회개혁안에 대해 논한 「동호문답(東湖問答)」을 써서 선조에게 바쳤다. 1570년(선조 3)에는 관직에서 물러나 황해도 해주(海州)에서 학문에 전념했다. 1571년 청주목사(淸州牧使)로 다시 관직에 올랐으나 이듬해 관직에서 물러나 해주로 낙향했다가 파주 읍곡촌(栗谷村)으로 거처를 옮겼다. 1573년(선조 6) 다시 조정의 부름을 받아 승정원(承政院)의 동부승지(同副承旨)·우부승지(右副承旨)를 역임했으며, 1574년(선조 7) 당시의 사회문제들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논한 「만언봉사(萬言封事)」를 써서 선조에게 바쳤다. 그해 사간원 대사간(大司諫)으로 임명되었으나 이를 사양하고 낙향하였다. 하지만 다시 황해도 관찰사가 되어 관직에 올랐고, 그 뒤 대사헌(大司憲), 홍문관 부제학(副提學) 등을 역임했다. 홍문관 부제학으로 있던 1575(선조 8) 선조에게 제왕학(帝王學)의 지침서인 「성학집요(聖學輯要)」를 저술하여 제출하였고, 1577년(선조 10)에는 관직에서 물러나 해주로 낙향하여 어린 이 교육을 위해 『격몽요결(擊蒙要訣)』을 편찬했으며, 1580년에는 『기사실기(箕子實記)』를 저술했다. 이 무렵 해주 석담(石潭)에 은병정사(隱屏精舍)를 건립하여 학문연구와 후진 양성에 힘썼으며 향약(鄉約: 조선시대에 착한 것은 서로 권勵하고, 악한 것은 징계하며, 예의禮儀로 서로 사귀고, 서로 도우며 산다는 뜻으로 마련한 시골 동네의 자치규약)과 사창(社倉: 조선시대 환곡還穀을 저장해 두던 각 고을의 창고)을 실시하기도 했다. 1581년 대사헌과 예문관(藝文館) 제학(提學)을 겸임하며 다시 관직에 올라,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를 거쳐 홍문관과 예문관의 대제학(大提學)을 지냈다. 1582년(선조 15, 임오년壬午年) 12월에 명나라 사신을 맞이하는 원접사(遠接使) 일을 마치고 복명하자 병조판서(兵曹判書)를 제수 받았다. 그 이듬해 2월에 선조에게 「시무육조(時務六條)」를 써서 개진하였다. 9월에 이조판서(吏曹判書)와 판돈녕부사(判敦寧府事) 등에 임명되었다. 1584년 음력 1월 16일에 49세의 나이로 서울 대사동(大寺洞)에서 죽었다. 죽은 뒤에는 파주 자운산(紫雲山)의 선영에 묻혔으며, 1624년(인조 2)에 문성공(文成公)이라는 시호를 받았다. 파주의 자운서원(紫雲書院), 강릉의 송담서원(松潭書院), 풍덕의 구암서원(龜巖書院), 황주의 백록동서원(白鹿洞書院) 등 20여 개 서원에 배향되었으며, 1682년(숙종 8)에는 성혼(成渾)과 함께 공자를 섬기는 문묘(文廟)에 우리나라의 명현(名賢)으로 배향되었다. 저술로는 「성학집요(聖學輯要)」·「동호문답(東湖問答)」·『경연일기(經筵日記)』·「천도책(天道策)」·「역수책(易數策)」·「문식책(文式策)」·『격몽요결(擊蒙要訣)』·「만언봉사(萬言封事)」·『학교모범(學校模範)』·「육조계(六條啓)」·「시폐칠조책(時弊七條策)」·「답성호원서(答成浩原書)」 등이 있으며, 「고산구곡가(高山九曲歌)」 등의 문학작품도 전해진다. 그의 저술들은 1611년(광해군 3) 박여룡(朴汝龍)과 성혼(成渾) 등이 간행한 『율곡문집(栗谷文集)』과 1742년(영조 18)에 이재(李穡)와 이진오(李鎭五) 등이 편찬한 『율곡전서(栗谷全書)』에 실려 전해진다.(이상은 두산백과 참조)
- 3) 산형배립 본동근(山形背立本同根: 산 형세 마주 보며 솟아어도 본래 그 산맥은 같고):
- ① 산형배립(山形背立): 산의 형세가 마주 보며 솟았다.
 - ☆산형(山形): 산의 형세나 형태[山勢].
 - ☆배립(背立): 직역은 ‘사람이 타인을 피해서 등을 돌리고 서 있는 것’을 뜻하나,

본 시에서는 ‘산세(山勢)가 외따로 떨어진 곳에 우뚝 솟아 있음. 또는 마주 보는 방향에서 우뚝 솟아 있음’을 가리키는 말로 쓰였다.

a. 배(背):

④ 상반되는 방향으로 향하다. 떠나다.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⑤ 등지다. 등 뒤에 두다.

- ② 본동근(本同根): 본래 산의 근본은 같다. 본 시에서는 당시 정치적인 입장에서 동서봉당(東西朋黨)으로 갈라졌으나 그 학맥의 근원(공맹孔孟의 도학道學)은 같다는 것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본(本): 부사로 쓰였으며, ‘본시. 본래’의 뜻이다.

☆동근(同根):

a. 본 시에서는 같은 산맥(산줄기)이어서 산맥의 근원은 동일한 곳에서 비롯되었음을 가리키는 뜻으로 쓰였다.

b. ‘형제’를 비유한 말. ‘형제의 별칭’

- 4) 강수분류 역일원(江水分流亦一源: 강 물줄기 갈라져 흘러도 원류原流는 동일하네):

① 강수(江水): 강물. 본 시에서는 ‘강물의 물줄기’를 가리키는 말로 쓰였다.

② 일원(一源): 동일한 원류(源流). 하나의 본 줄기.

- 5) 석양뒤거 중소훈(夕陽歸去重銷魂: 석양마저 넘어가니 거듭 났 놓고 멍하니 있네): 또는 ‘석양마저 넘어가니 거듭하여 났조차 놓겠네’라고도 번역할 수 있다.

① 귀거(歸去):

☆돌아가다.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으며, ‘해가 지는 것’을 표현한 말이다.

☆사망을 이르는 말.

- ② 소훈(銷魂): 영혼이 육체를 떠남을 이른다. 지극한 슬픔을 형용할 때나, 아주 즐거운 것을 형용할 때, 또는 극도의 놀라움이나 공포를 형용할 때, ‘뉘(을) 놓다, 뉘(을) 잃다, 뉘(이) 나가다(빠지다)’는 말로 표현하는 말이다.

☆소(銷): 없애다. 제거하다. 흩어져 없어지다.

시62. 명나라 장수의 시를 차운次韻하여

詩62. 次天將韻¹⁾ 차 천 장 운

훌륭한 시를 받고나서, 삼가 차운하여 올리는데,
거칠고 졸렬하여 웃음거리가 될 수도 있겠다.

伏蒙辱示盛什²⁾ 謹次奉呈³⁾ 荒拙可笑⁴⁾
복 몽 욕 시 성 십 근 차 봉 청 황 졸 가 소



英名從此動夷華⁵⁾,
영 명 종 차 동 이 화

걸출한 명성이 이때부터
조朝・명명 양국에 진동하나니,

許國誠深⁶⁾不顧家。
허 국 성 심 불 고 가

나라에 바치는 정성 깊어
가정도 돌보지 못하셨겠네.

辦得奇功⁷⁾歸去日,
판 득 기 공 귀 기 일

(조선에서) 특별한 공훈 세우고
귀국하는 날인데,

鴨江春樹正飛花⁸⁾。
압 강 춘 수 정 비 화

압록 강변 봄철 나무에
꽃잎이 한창 흩날리네.

1) 차천장운(次天將韻 : 명나라 장수의 시운을 차운하여) :

① 차운(次韻) : 차운은 바로 시를 지어 화답하는 방식의 일종으로, 보운(步韻)이라고도 칭한다. 본 시는 시를 지어 화답함에 있어, 오로지 시(詩)나 사(詞)로 응답하는 ‘화시(和詩)’의 일종이다. 그리하여, 굳이 시의 원운(原韻)을 차운할 필요가 없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시20」 주석1)의 ② ‘차운(次韻)’ 조항을 참조바람. 「서애연보」에 의하면, 1592년(선조 25, 임진년壬辰年 51세), 12월에 명명의 제독

提督 이여송(李如松* : 1549~1598)과 안주安州에서 회견할 때, 선생은 소매에서 평양지도를 꺼내어 전쟁의 형세와 군사들의 진입로를 지시指示하자, 제독이 붉은붓으로 표시하며, “적이 내 눈에 환하게 보인다”라고 말함에, 평양탈환을 협의하였다. 선생이 물러간 후 제독은 부채에다 7언을 써서 보내왔다. 그 시문(詩文)을 보면 아래와 같다:

군사를 이끌고 밤사이 압록강 건너 것은,	提兵星夜渡江干,
조선이 불안하다고 알려왔기 때문이네.	爲說三韓國未安。
명철한 황제께서 날마다 승첩보 기다리시니,	明主日懸旌節報,
미친한 신하는 밤마다 즐기던 술도 끊어버렸네.	微臣夜釋*酒杯歡。
봄인데도 살기殺氣가 돌지만 마음은 되레 장쾌하니,	春來殺氣心猶壯,
이번 길에 요귀들 아주 뺏속까지 서늘하게 해주리라.	此去妖氛骨已寒。
웃으며 장담하노니 감히 승산 없다 하겠는가,	談笑敢言非勝算,
꿈에서도 언제나 출정만을 생각하네.	夢中常憶跨征鞍。

(이상은 류명희·안유호 역주 감수 『국역 류성룡 시 II』의 「서애연보」 조항 참조)

서애는 위의 시에서 ‘화·가·화(華家花)’의 운(韻)으로 화답하고 있다.

***이여송李如松**(?~1598) : 명(明)나라 요동(遼東 : 지금의 요녕성遼寧省) 철령위鐵嶺衛 : 지금의 심양시沈陽市 동남 봉집보泰集堡) 사람. 자는 자무(子茂)이고, 호는 양성(仰城)이다. 27년 동안 만주 방위에 큰 공을 세워 영원백(寧遠伯)에 봉해진 이성량(李成梁 : 1526~1615)의 맏아들이다. 부음(父蔭 : 부친 관직官職의 은택으로 아들이 관직을 받는 것을 이룸)으로 도지휘동지(都指揮同知 : 종2품)가 되고 영원백훈위(寧遠伯勳衛)에 충원되었다. 젊을 때부터 아버지를 따라 병법을 배워 능했고, 전투에도 익숙했다. 만력년간에 산서(山西)와 선부(宣府 : 지금의 허북성河北省 선화현宣化縣지방. 몽고를 방어하기 위해 설립한 군주둔지였음)의 총병(總兵)을 지냈다. 20년(1592) 영하(寧夏)에 몽골족인 발배(哮拜 : 생몰년 미상)의 반란이 일어났을 때 제독으로서 평정했다. 같은 해 조선에서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동생 이여백(李如栢 : 생몰년 미상) · 이여매(李如梅 : 생몰년 미상)와 함께 제2차 원군으로 4만의 군사를 이끌고 조선에 들어와 구원했다. 다음 해 1월 평양성에서 고니시 유키나가[소서행장]의 왜군을 격파하여 전세를 역전시키는 데 큰 공을 세웠다. 이후 개성(開城)을 수복했지만, 적을 앞보고 덤벼들다 벽제관(碧蹄館)에서 패했다. 이후 한양(漢陽)을 수복하고 귀국했다. 25년(1597) 요동총병관(總兵官)이 되었는데, 이듬해 토번(吐蕃 : 중국 당나라 · 송나라 때에 ‘티베트’쪽을 이르던 말)의 침범을 받아 반격 중 매복에 걸려 군영에서 전사했다.

② 천장(天將) :

☆천상(天上)의 신장(神將). 조선시대에는 중국을 사대(事大)하였던 관계로 명나라의 장군을 천장(天將)이라고 칭하였다. 또한 중국의 황제를 천제(天帝)로 칭하고, 조정은 천조(天朝)라고 일컬었다. 여기서는 아마도 이여송(李如松) 장군을 암묵적으로 칭하는 듯하다.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대장의 미칭(美稱).

2) 북몽옥시성집(伏蒙辱示盛什 : 훌륭한 시편을 삼가 받다) :

- ① 복몽욕(伏蒙辱) : 삼가 받잡다.
 ☆복(伏) : 경사(敬詞)로서, ‘삼가(겸손하고 조심하는 마음으로 정중하게)’의 뜻으로 쓰였다.
 ☆몽욕(蒙辱) : 받잡다(‘받다’의 높임말).
 a. 몽(蒙) : 받다. 났다.
 b. 욕(辱) : 겸사(謙詞)로서 ‘승몽(承蒙 : 은혜 따위를) 입다. (혜택 따위를) 받다’의 뜻이다.
- ② 시성집(示盛什) : 명나라 장군이 서예선생에게 시(詩)를 보여주다.
 ☆시(示) : 보여주다.
 ☆성집(盛什) : 훌륭한 시(詩).
 a. 성(盛) : 아름답다. 장하게 여기다. 높다.
 b. 집(什) : 『시경(詩經)』에서, 「아(雅)」와 「송(頌)」부분에, 대략 시 10편을 한 조(組)로 해놓고 이것을 ‘집(什)’이라고 하였다. 예를 들면, 「녹명지집(鹿鳴之什)」과 「청묘지집(淸廟之什)」 등이 그것이다. 그래서 ‘집(什)’은 ‘시(詩)’ 또는 ‘시편(詩篇)’을 이르게 되었다. 본 시에서는 ‘시(詩)’라는 뜻으로 쓰였다.
- 3) 근차봉정(謹次奉呈) : 삼가 차운(次韻)하여 올린다.
 ① 근차(謹次) : 삼가 차운(次韻)하다.
 ☆근(謹) : 삼가다(몸가짐이나 언행을 조심하다)
 ☆차(次) : 여기서 ‘차(次)’자는 ‘차운(次韻)’의 ‘차(次)’자 이다.
 ② 봉정(奉呈) :
 ☆받잡아 올린다. 삼가 바치다. 본 시에서는 천장(天將)이 지은 시의 운자(韻字)를 따서 서애가 시를 지어 보여드리다는 뜻으로 쓰였다.
 ☆봉승(奉承)하다. 명(命)을 받들다(받다).
- 4) 황졸가소(荒拙可笑) : 서애가 자신이 지은 시를 ‘거칠고 졸려하다(荒拙)’고 여겨서 웃음이 터져 나올 만큼 격조(格調)가 없더라는 겸어(謙語)로, 표현한 것이다.
- 5) 영명증차 동이화(英名從此動夷華 : 걸출한 명성 이때부터 조·명 양국에 진동하는데) :
 ① 영명(英名) : 걸출한 명성. 미명(美名 : 명예로운 명성).
 ☆영(英) : 재덕(才德)이 탁월한 사람.
 ☆명(名) : 명성.
 ② 증차(從此) : 이때부터 조·명 양국의 군대가 왜군(倭軍)으로부터 평양을 수복한 때부터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③ 동(動) : 진동하다.
 ④ 이화(夷華) : 조선과 명나라 양국을 이르는 말로 쓰였다.
 ☆이(夷) : 고대 중국에서 중원(中原) 지역의 하화족(夏華族 : 한족漢族)이 동부 각 민족에 대해 일컬었던 명칭으로, 이는 중원 이외의 각 민족을 낮추어 칭하는 말로 썼다. 본 시에서는 ‘조선’을 칭하는 말이다.
 ☆화(華) : 원래는 ‘고대 중국의 중원지역에 사는 하화족(夏華族)’을 일컫는 말이었는데, 그 하화족이 역대에 걸쳐 주로 황하(黃河) 남북에 걸쳐 건도(建都)하였으며, 그 땅이 사방의 중심이었던 까닭에, ‘중원지역에 하화족이 건국한 나라’라는 뜻에서, ‘중화(中華)’란 국명으로 썼고, ‘중국(中國)’으로 칭했다. 중화

(中華)를 약칭하여, ‘화(華)’라고도 썼는데, 본 시에서는 ‘명(明) 나라’를 가리키는 말로 쓰였다.

6) 허국성심(許國誠深): 나라에 바치는 정성이 깊다.

① 허국(許國): 일신(一身)을 국가에 봉헌(奉獻)하여 나라에 충성하는 것을 이른다.

☆허(許): 공헌하다. 주겠다고(바치겠다고) 허락하다.

② 성심(誠深): 성심(誠心)이 깊다.

☆성(誠): 심지(心志)가 한결 같다. 한결같은 심지(心志). 성실성. 진정(眞情).

7) 판득기공 귀거일(辦得奇功歸去日: <조선에서> 특별한 공훈 세우고 귀국하는 날인데):

① 판득기공(辦得奇功): (나라에) 별난 공훈을 세우다.

☆판득(辦得):

a. 취득하다. 달성하다. 성공하다. 본 시에서는 전(轉)하여 ‘(공훈을) 세우다’는 뜻으로 쓰였다.

b. 할 수 있다. 이루어 낼 수 있다.

c. 변통(變通)하여 언다.

☆기공(奇功): 남달리 특별하게 세운 공로. 공훈.

② 귀거일(歸去日): 돌아가는 날. 귀국하는 날. 본 시에서는 명(明)나라 제독 이여송(李如松)이 명나라로 돌아가는 날을 가리키는 말로 쓰였다. 서애(西厓) 류성룡(柳成龍)의 저서 『진사록(辰巳錄)』에 의하면, 명군이 퇴군하기를 결정한 것은 계사년(癸巳年: 1593년) 2월이었고, 이여송 제독이 연서역(延曙驛: 영서역迎曙驛: 조선시대 한양 모화관慕華館에서 의주로 가는 서발(西撥: 서쪽 방면으로 파발을 보내는 통신망)의 첫 번째 역사驛舍로, 지금의 서울특별시 은평구殿平區 대조동大叢洞에 위치했던 역임. 자세한 것은 『류성룡 시 I』의 「시5」의 주석3)의 ‘연서촌延曙村’ 조항을 참조바람)에서 명마(名馬)를 가지고 귀국했다고 보고된 것이 계사년(癸巳年: 1593년) 4월이었다. 따라서 본 시의 작시(作詩) 년대도 1593년 4월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8) 압강춘수 정비화(鴨江春樹正飛花: 압록 강변 봄철 나무에 꽃잎이 한창 흩날리네):

① 압강(鴨江): 압록강(鴨綠江).

② 정비화(正飛花): 꽃잎이 한창 흩날리다.

☆정(正): 부사로 쓰여, ‘한창’의 뜻으로 쓰였다.

☆비화(飛花): 꽃잎이 바람을 타고 날아다니다.

시63. 파사성_{婆娑城}에 묵으며 금강루_{襟江樓}에 올라서

詩63. 宿_숙婆娑城_{파사성} 登_등襟江樓_{금강루}¹⁾



客_객子_자登_등臨_림情_정浩_호浩_호²⁾,

나그네는 망루_{望樓}에 오르면서
정신이 호호탕탕해져,

高_고歌_가一_일聲_성山_산石_석裂_열³⁾。

목청껏 부른 노래 소리에
바위마저 갈라지겠네.

長_장風_풍吹_취上_상東_동峯_봉月_월⁴⁾,

멀리서 바람 불어오고
동산 봉우리에 달뜨는데,

萬_만里_리天_천容_용一_일攄_양碧_벽⁵⁾。

만리 높은 곳의 하늘은
한결같이 푸르네.

我_아生_생於_어世_세眞_진悠_유悠_유⁶⁾,

이 세상에서 내 삶은
참으로 다사다난하여,

北_북去_거南_남來_래成_성白_백髮_발。

남북을 오가다가 어느덧 백발이 되었네.

風_풍塵_진天_천地_지⁷⁾老_로病_병催_최,

천하는 전란에 시달리고
노병_{老病}은 잦아지는데,

宇宙歸來空嘆息⁸⁾。 조정으로 돌아가자니 공연히 탄식이 터지네.
우주귀래공탄식

1) 속파사성 등금강루(宿婆娑城登襟江樓 : 파사성에 묵으며 금강루에 올라서) :

- ① 파사성(婆娑城) : 경기도(京畿道) 여주군(驪州郡) 대신면(大神面) 천서리(川西里)에 있는 삼국시대의 산성. 둘레 약 1,800m, 높이 6.25m. 사적 제251호. 한강 중류의 여주군 이포(梨浦)에서 2km쯤 내려가면 강 건너 동쪽으로 해발 230.5m의 파사산(婆娑山)이 위치하고 있다. 파사성은 바로 이 산의 정상을 중심으로 능선을 따라 축성한 야산의 산성으로 성벽이 비교적 많이 남아 있다. 현지의 전설에 의하면 신라 파사왕(破娑王 : 파사이사금婆娑尼師今 : 신라 제5대왕, 생몰년은 ?~112, 재위기간은 80~112년이었음)때에 축성하여 파사성이라는 명칭이 생겼으며, 산도 파사산이라 이름하게 되었다는데 문헌적 근거는 없다. 한편, 고대 파사국(婆娑國)의 옛터로 구전되어오고 있으나 역시 근거는 없으며 성(城)의 초창 상황도 알 수 없다. 「대동여지도(大東輿地圖)」에는 파사성이라 기록되어 있어 조선 후기 문헌에 보임을 알 수 있다. 또, 조선시대의 역사적 사실이라고 전해지는 것은 제14대 선조 25년(1592)에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류성룡(柳成龍 : 1542~1607)의 발의에 따라 승군총섭(僧軍總攝) 의암(義巖 : 생몰년 미상. 속명은 곽수언 郭秀彦으로 조선 중기의 승려이며 의병장임)이 승군을 동원하여, 둘레 1,100보의 성첩(城堞 : 성 위에 낮게 쌓은 담)을 수축하였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사실을 뒷받침하듯이 현재의 성벽을 보면, 초창기의 성벽과 그 뒤 여러 차례에 걸쳐 수리한 때의 성벽을 구별할 수 있다. 성벽 중 가장 높은 곳은 6.25m이고, 낮은 곳은 1.4m이다. 이곳에는 출입문 자리가 남아 있는 데 천서리(川西里)를 면한 곳에 동문지(東門址)가 있고, 양평군(楊平郡) 개군면(介軍面) 상자포리(上紫浦里)를 면한 곳에 남문지(南門址)가 남아 있다. 동문지에는 웅성문지(甕城門址)가 있고 남문지에는 문루(門樓)를 세웠던 고주형초석(高柱形礎石) 2개와 평주초석(平柱礎石) 등이 남아 있다. 성곽의 일부는 한강연안예까지 돌출되어 있어 상류·하류를 한눈에 감시할 수 있는 요충지라 하겠다. 파사산과 이 산성은 마치 원추형을 연상시킨다. 그것은 이 산에 따른 다른 산봉이 없이 우뚝 자리한 산이어서 이 산정에 오르면 눈 아래에 사방이 굽어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한강 상류·하류를 감시하며 상대방을 제압할 수 있는 천연적 요새라 하겠는데, 이렇듯 낮은 산에서도 멀리 용문산이 바라보인다. 파사성 정상부 서북쪽 바로 밑에는 축성의 주인공인 옛 장군의 초상석각이라 일컫는 조각이 있는데 이것은 고려시대의 마애여래상(磨崖如來像 : 암석이 노출한 곳에 부처님의 입상立像을 새긴 것을 마애석불磨崖石佛이라 하고, 그것이 석가여래釋迦如來의 불상佛像일 때, ‘마애여래상’이라고 함)이다. 거대한 암벽에 음각한 것으로 상호와 동체의 균형이 잘 맞아 당시의 마애불로서는 주목되는 불상이다. 이 마애불의 부근에는 평평한 대지가 있어 기와편이 수습되는데 이곳 파사성과 관계있는 사찰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참고문헌 : 문화재안내문안집(文化財案内文案集)2 - 인천직할시(仁川直轄市) · 경기도(京畿道) - (문화재연구소文化財研究所, 1986). 정영호(鄭永鎬).

- ② 금강루(襟江樓) : 이 금강루는 류명희·안유호 역주 감수 『국역 류성룡시 I』에 수록된 「시68」의 서문(序文)에 보인다. 그 본문을 보면, “... 몇 년이 지나서 성(城)의 축조가 완성되고 망루(望樓: 역자 주: 금강루襟江樓)와 병장기 등도 모두 완비됨으로써, 뚜렷하게 하나의 요새가 완성되었다(數年而城成, 樓櫓及軍器皆備, 儼然成一關防矣).”라는 기록 속에 망루[樓櫓]가 곧 ‘금강루’이다.
- 2) 객지등림 정호호(客子登臨情浩浩: 나그네 망루望樓에 오르면서 정신이 호호탕탕해져) :
- ① 객자(客子) :
- ☆나그네, 집을 떠나서 타향에 머무는 사람.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유세객(遊說客). 세객(說客).
 ☆고용인부.
- ② 등림(登臨) :
- ☆높은 곳에 올라서 멀리 바라보다.
 ☆산에서 물을 멀리 바라보거나 혹은 높은 곳에 올라가서 내려다보다. 넓게는 산수를 유람하는 것을 가리킨다.
- ③ 정(情) : 정신(精神). 본 시에서는 전(轉)하여 ‘정신기세’의 뜻으로 쓰였다.
- ④ 호호(浩浩) :
- ☆마음(가슴)이 탁 트여 거리낌이 없음을 이른다. 호기롭고 걸걸한 모양. 기세 있고 힘찬 모양. 본 시에서는 ‘호호탕탕(浩浩蕩蕩)’으로 번역하였다.
 ☆광대무변한 모양. ‘아득아득하다’로 표현한다.
 ☆큰물이 진 모양. 홍수가 난 모양. ‘넘실넘실’로 표현한다.
 ☆바람이 세차게 부는 모양. ‘썰썰’ 또는 ‘쨍쨍’으로 표현한다.
 ☆소리가 큰 모양. (강물이) ‘출렁출렁’, ‘궁궁’(신음하다), ‘좌좌’(부는 바람소리), ‘시끌시끌’(떠드는 소리), (개가 놀라서 미친 듯이) ‘경경’ 짓다. 등등이 그 예이다.
- 3) 고가일성 산석열(高歌一聲山石裂: 목청껏 부른 노래 소리에 바위마저 갈라지겠네) :
- ① 고가(高歌) :
- ☆목청껏 부르는 노래, 또는 그런 노랫소리.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고성(高聲)으로 노래하고 시를 읊조리다.
- ② 열(裂) : 갈라지다, 쪼개지다.
- 4) 장풍취상 동봉월(長風吹上東峯月: 멀리서 바람 불어오고 동산 봉우리에 달뜨는 데) :
- ① 장풍(長風) :
- ☆멀리서 불어오는 (맑고 깨끗한) 바람.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강풍(強風). 대풍(大風). 폭풍(暴風).
- ② 취상(吹上) :
- ☆불어오다. 이때의 ‘상(上)’은 동사 뒤에 보어로 쓰여, 동사의 동작이나 행위가 대상물에 미치기 시작하여 지속됨을 나타낸다. 즉, ‘(바람이) 계속 불어오다’는 것을 표현하는 말이다. 이때의 ‘상(上)’자는 생략하여도 의미의 변화는 없다.
- ③ 동봉월(東峯月) : 동쪽 봉우리에 달이 뜨다.
- 5) 만리천용 일양벽(萬里天容一樣碧: 만리 높은 곳의 하늘은 한결같이 푸르네) :

- ① 만리(萬里) : 아주 멀거나 높은 것을 표현한 말.
- ② 천용(天容) :
 ☆하늘의 모습(현상, 광경). 하늘 빛(색).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천로(天老)와 용성(容成)을 아울러 이르는 말. 두 사람 다 전하는 바에 의하면 황제(黃帝)시대의 술사(術士)라고 한다.
- ③ 일양벽(一樣碧) : 한결같이 푸르다.
 ☆일반(一般) : 한 모양. 같은 모양. 본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으며, ‘한결같이’로 번역하였다.
 ☆상동(相同). 상사(相似).
 ☆일양(一樣) : 하나의 종류.
- 6) 아생어세 진유유(我生於世眞悠悠) : 이 세상에서의 내 삶은 참으로 다사다난하여) :
 ① 아생어세(我生於世) : 이 세상에서의 나의 삶.
 ☆아생(我生) : 나의 삶.
 ☆어세(於世) : 이 세상에서.
 ☆생어세(生於世) :
 a. (이) 세상에서 살다.
 b. 신세(身世)와 같은 말.
 c. 한평생. 일생(一生).
- ② 진유유(眞悠悠) : 참으로 다사다난하다.
 ☆유유(悠悠) : (사람이나 사물이) 많은 모양.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음. ‘일’과 ‘어려움’이 많은 모양을 표현한 뜻으로 쓰여서, ‘다사다난(多事多難 : 일도 많고 탈도 많다)’으로 번역하였다. 이외의 뜻은 앞의 「시32」의 주석6)의 ② ‘유유(悠悠)’조항을 참조바람.
- 7) 풍진천지(風塵天地) : 천하가 전란에 시달리다.
 ① 풍진(風塵) :
 ☆전란에 비유한 말.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바람에 날리는 진토(塵土 : 흙먼지).
 ☆진세(塵世 : 티끌세상 : 속세 : 이 세상). 혼란스러운 현실생활의 경계(境界).
 ☆벼슬길. 관도(官途). 관계(官界). 정계(政界).
 ☆진사(塵事). 세속적인 일. 평범한 세속사.
 ☆여행길의 지치고 피곤함을 이르는 말.
 ☆품격이 청정(清正)하고 고상한 것을 비유한 말.
 ☆유언비어(流言蜚語).
 ☆기녀(妓女)를 가리키는 말.
 ☆사창굴(私娼窟).
- ② 천지(天地) :
 a. 천하(天下)와 같은 말.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b. 하늘과 땅.
 c. 천지신령.
 d. 경지(境地). 경계(境界).
- 8) 우주귀래 공탄식(宇宙歸來空嘆息) : 조정으로 돌아가자니 공연히 탄식이 터지네) :

① 우주귀래(宇宙歸來): 조정으로 돌아가다.

☆우주(宇宙): ‘우(宇)’는 ‘무한 공간’을 ‘주(宙)’는 ‘무한 시간’을 나타내는 개념이나, 이를 하나의 ‘우주’라는 용어로 쓸 경우 아래와 같은 뜻을 파생한다.

- a. 천하·국가와 같은 말로서, 본 시에서는 ‘조정(朝廷)’으로 번역하였다.
- b. 일체의 물질과 그 존재 형식의 총체(總體). 만물을 포용하고 있는 공간. 공간과 시간.
- c. 천지(天地).
- d. 처마와栋梁(棟梁: 기둥과 들보).

☆귀래(歸來): 여기서 ‘귀래(歸來)’의 ‘래(來)’자는 단순히 어조(語調)를 고르게 하기 위하여 쓰인 어조사(語助詞)이다.

- a. 돌아가다.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전국책 제4(戰國策第四)·풍환이 맹상군에게 식객 대우를 받다(馮諼*客孟嘗君*)』는 조항에, “제齊나라에 풍환이란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너무 곤궁해서 자립하며 생활해나갈 수 없었던 까닭에, 부득이 남을 시켜서 맹상군에게 부탁하게 하여, 원했던 대로 그 문하에 식객이 되었다(齊人有馮諼者, 貧乏不能自存, 使人屬孟嘗君, 願寄食門下).……얼마간의 시간이 지난 뒤에, 풍환은 기둥에 기대어 장검長劍을 두드리면서, 노랫소리로 말하기를: 장검아 돌아가자! 식사에 생선 반찬이 없구나(居有頃, 倚柱彈其劍, 歌曰: ‘長鋏歸來乎! 食無魚’)!”라고 한 대목이 있다.

*풍환(馮諼: 생몰년 미상): 전국시대(戰國時代) 제(齊)나라의 재상 맹상군(孟嘗君: ?~278)의 문객.

*맹상군(孟嘗君: ?~278): 성명은 전문(田文). 제나라의 공족(公族)으로, 전국시대 4공자(四公子) 중의 한 사람으로 제나라의 재상을 역임하였다.

- b. 돌아오다.



시64. 이여송李如松 제독提督을 송별하면서 증정한 두 수

詩64. 贈別李提督如松¹⁾ 二首
증 별 이 제 독 여 송 이 수

其一

[1]

濟世須憑盖世雄²⁾,
제 세 수 빙 개 세 용

세상 구하려면 필히 걸출한 영웅에게
의지해야 하는데,

三韓再造指揮中³⁾.
삼 한 재 조 지 휘 중

그 (영웅) 지휘아래 삼한三韓의 국운이
재건됐소.

驅除醜類還鯨窟⁴⁾,
구 제 추 류 환 경 굴

추악한 무리 몰아내어
고래 소굴로 물리쳤으니,

鋪敘皇靈盡海東⁵⁾.
포 서 황 령 진 해 동

(조선은) 황제께 (조명군朝明軍이)
해동海東에서 전력 다한 것을 상세히
아뢰었소.

漢府趨塵雲滿後⁶⁾,
한 부 추 진 운 만 후

한양에 전란 닥쳐 피난할 때는
먹구름 끼었었는데,

安興迎節⁷⁾雪飄空.
안 흥 영 절 설 표 공

안흥에서 (이제독李提督) 맞이할 때는
눈발이 날렸었소.

追陪一歲艱危地⁸⁾,
수 배 일 세 간 위 지

한 해 동안 전란지역을 동행하며
쫓아다녔기에,

戀德傷離意不窮⁹⁾。
연 덕 상 리 의 불 궁

그 덕이 아쉬운데 이별이라니
슬퍼 잊지 못하리다.

其二

[2]

天威震疊下箕城¹⁰⁾,
천 위 진 겹 하 기 성

황제의 위엄 진동하여
기성箕城[평양]에 서리니,

千里妖氛一半清¹¹⁾。
천 리 요 분 일 반 청

천리에 덮힌 요기妖氣 절반은 씻겨나갔네.

豈謂長驅無甲馬¹²⁾,
기 위 장 구 무 갑 마

어찌 계속하여 (왜적) 몰아칠
병마兵馬가 없다 하리오,

要須全勝罷屯營¹³⁾。
요 수 전 승 파 둔 영

반드시 완승하고자 군영軍營에 숨겨뒀었소

羌降每軫留兵議¹⁴⁾,
강 항 매 진 유 병 의

오랑캐에게 제압되어 매번 전황戰況
비껴어도 용병用兵논의에만 머무르니

歲暮仍難得虜情¹⁵⁾。
세 모 잉 난 득 로 정

세밑인데도 적정敵情 파악 여전히
어렵소이다.

除却鯨波期永息¹⁶⁾,
제 각 경 파 기 영 식

고래같이 거친 파도 잠재워 늘
잔잔해지기를 바랐는데,

不知何計報昇平¹⁷⁾。
부 지 하 계 보 승 평

무슨 대책으로 태평소식 보고할지 알
수 없소이다.

1) 이예송(李提督如松) : 이여송 제독 : 제독 이여송 : 이렇게 성씨 다음에 직함을 쓰고 이름을 뒤에 쓰는 것은 경칭(敬稱)의 한 예이다.

① 제독(提督) : 관명(官名). 명대(明代)에 설치했으며, 무관(武官)이다. 처음에는 내신(內臣 : 환관宦官을 가리킴)과 문신(文臣)으로 임명했으며, 직위는 총병관(總兵官 : 사령관에 상당함)의 상관이었으니, 감찰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영락년간(永樂年間 : 1403~1424 : 영락은 명대 성조成祖의 년호임)에 설치한 군영(軍營)에는 모두 환관으로 제독을 임명하였다. 정덕년간(正德年間 : 1506~1521 : 정덕正德은 명대 무종武宗의 연호임)에 황제가 자칭 군무총독(軍務總督)이라고 하면서 무신 강빈(江彬 : ?~1521)을 제독에 임명하였는데, 무신이 제독이 된 것이 이 때가 처음이다. 중엽 이후에는 순무사(巡撫使)가 대체로 제독을 겸했다. 만력년간(萬曆年間 : 1573~1620 : 만력萬曆은 명대 신종神宗의 연호임)에는 겸임하는 경우 없이 제독을 임명했으나 상설(常設)되지는 않았다. 또한 청대(清代)에 설치한 제독은 ‘제독군무 총병관(提督軍務總兵官)’의 약칭으로 썼다. 제독의 별칭으로 ‘제대(提臺)’라고도 했고 ‘군문(軍門)’이라고도 했으며, 녹영군(綠營軍 : 청대의 군제軍制로 청대에 원래 있던 여진족으로 편성된 팔기병八旗兵 이외에, 한족漢族으로 편성된 군대를 말함. 녹기綠旗를 사용했기에, ‘녹기병綠旗兵’ 또는 ‘녹영병綠營兵’이라고 했음)의 최고 사령관으로 종1품이며, 각 성(省)의 군정(軍政)을 총괄했다.

② 이여송(李如松 : ?~1598) : 「시62」의 주석1)의 ‘이여송(李如松)’ 조항을 참조 바람.

****역자주석 :** 계사년(癸巳年 : 1593년) 음력 9월에 이여송이 본국으로 돌아감.

2) 제세 수빙개세웅(濟世須憑蓋世雄 : 세상 구하려면 필히 걸출한 영웅에게 의지해야 하는데) :

① 제세(濟世) : 구세(救世). 세상을 잘 다스려 백성을 구제함. 세상을 구제함.

② 수빙개세웅(須憑蓋世雄) : 반드시 걸출한 영웅에게 의지해야 한다.

☆수빙(須憑) : 모름지기 의지(의존)해야 한다.

☆개세웅(蓋世雄) : 재능이나 성취가 당대(當代)에서 가장 뛰어난 인물.

a. 개세(蓋世) : ‘개세(蓋世)’로도 쓴다. 재능과 공적 등이 그 시대에 걸출한 것을 이르거나, 또는 기상이나 위력 그리고 재능 따위가 세상을 뒤덮거나, 기개(氣概)가 세상을 압도함을 이른다.

3) 삼한재조 지휘중(三韓再造指揮中 : 그 〈영웅〉 지휘아래 삼한三韓[조선]의 국운이 재건됐소) :

① 삼한재조(三韓再造) : 삼한의 국운을 다시 만든다.

☆삼한(三韓) : 삼국시대(三國時代 : 고구려·신라·백제) 이전에 우리나라 중남부에 있었던 세 나라로, 마한(馬韓 : 지금의 경기도·충청도·전라도 지방에 걸쳐있던 나라로 54개의 부족국가로 이뤄졌는데 후에 백제에 병합되었음)·진한(辰韓 : 지금의 경상북도를 중심으로 한 동북부에 있던 12개 부족국가로, 후에 신라에 병합됨)·변한(弁韓 : 경상도 서남방에 있던 10개의 부족국가였음)을 이르는 말이다. 정확하게는 조선 땅의 절반에 해당되나 본 시에서는 조선을 대칭(對稱)하는 말로 쓰였다.

☆재조(再造) :

a. 새로이(거듭, 재차) 창건하다. 나라나 집단을 다시 세우거나 이룩하다. 본 시

에서는 ‘재건하다’는 뜻으로 쓰였다.

b. 생명을 새로이(재차) 주다. 대체로 큰 은혜를 입었음에 감격한 것을 표현하는 말로 쓴다.

4) 구제추류 환경굴(驅除醜類還鯨窟 : 추악한 무리 몰아내어 고래[왜적] 소굴로 물리쳤으니) :

① 구제(驅除) :

☆몰아내다.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쫓겨난 사람이나 배제된 사물을 가리킴.

☆배제하다.

② 추류(醜類) :

☆악인(惡人). 나쁜 사람. 불순분자. 적에 대한 멸칭(蔑稱). 추악한 무리. 본 시에는 이 뜻으로 쓰였으며, 왜적(倭賊)을 가리킨다.

☆동류(同類).

③ 환경굴(還鯨窟) : 고래[왜적] 소굴로 물리치다.

☆환(還) : 후퇴(하다). 후퇴시키다. 본 시에서는 ‘물리치다’는 뜻으로 쓰였다.

☆경굴(鯨窟) : 해적의 소굴. 왜국(일본).

a. 경(鯨) : 즉, ‘고래’이다. 수컷을 ‘경(鯨)’이라 하고, 암컷을 ‘예(鯢)’라고 한다. 그래서 수컷 고래와 암컷 고래를 포괄하여 ‘경예(鯨鯢)’를 ‘고래’라고도 하고, ‘경예(鯨鯢)’를 아울러 이르는 말로 약칭하여 ‘경(鯨)’을 ‘고래’라고도 한다. 즉 ‘경(鯨)’과 ‘예(鯢)’는 ‘고래’란 말이다. 이 고래는 문학 작품 속에서는 ‘세계, 신체, 무덤’을 상징하며, 또한 사물을 내포하거나 은폐하는 기본적인 이미지로 간주된다. 그래서 일반속어에서는 고래를 ‘탐욕스러운 사람’에 비유하기도 한다. 본 시에서의 ‘경굴(鯨窟)’은 해적(海賊)의 소굴에 비유하여, 그것이 곧 왜적의 소굴임을 암시하고 있다. 청(淸)나라 황실 귀족인 소련(昭璉 : 1776~1833)의 저서 『소정잡록(嘯亭雜錄) · 이장렬전적(李壯烈戰迹)』에, “바다에 해적선이 창궐하면서, 해적이 나날이 번성하였다(海中盜艇猖獗, 鯨窟日盛).”고 한 구절이 있다.

b. 굴(窟) : 소굴(巢窟)이란 뜻이다. ‘소굴’은 나쁜 짓을 하는 도둑이나 악한 따위의 무리가 활동의 본거지로 삼고 있는 곳이다. 이는 당시 조선을 침략한 왜적의 소굴, 곧 ‘왜국(倭國 : 일본)’을 가리키는 말로 쓰였다.

5) 포서황령 진해동(鋪敘皇靈盡海東 : 〈조선은〉 황제께 〈조명군朝明軍이〉 해동海東에서 전력 다한 것을 상세히 아뢰었소) :

① 포서(鋪敘) : 포서(鋪叙)로도 쓴다.

☆진술하다. 서술하다. 상세히 밝히다.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조선의 사신이 당시 조선의 상황을 명 황제에게 상세히 아뢰었음을 가리키는 말로 쓰였다.

☆(화려한 수식을 가하지 않고) 진술하게 쓰다. 글이 평범하다.

② 황령(皇靈) :

☆황제를 가리키는 말.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조상, 선조(先祖)를 가리키는 말.

☆천제를 가리키는 말.

- ③ 진해동(盡海東) : 해동(海東 : 조선)에서 (이여송 제독이 지휘하는 명군明軍이) 조선에서 왜군을 상대하여 전력(全力)을 다하다.
 ☆진(盡) : 전력(全力)을 기울이다. 진력(盡力)하다. 전력(專力)하다.
 ☆해동(海東) : ‘발해(渤海)의 동쪽’이라는 뜻으로, 예전에 우리나라를 이르던 말이다.
- 6) 한부추진 운만후(漢府趨塵雲滿後 : 한양에 전란 닥쳐 피난할 때는 먹구름 겹쳤는데) :
- ① 한부(漢府) : 한양부(漢陽府)의 약칭으로 지금의 ‘서울’을 조선시대에 이르던 말이다. 지역적으로 반드시 지금의 서울과 같지는 않지만, 대략 서울을 중심으로 한 지역의 명칭 변경을 더듬어보면 다음과 같다. BC 18년(백제百濟 온조왕溫祚王 1)에는 위례성(慰禮城 : 당시 백제의 서울)이라 했고, BC 5년(온조왕 14)에는 하북위례성(河北慰禮城)이라 하였으며, 371년(근초고왕近肖古王 26) 이후에는 한산(漢山)·북한산(北漢山)·북한성(北漢城 : 백제의 서울) 등으로 칭했다. 475년(고구려 장수왕 63년, 백제 문자왕文周王 1년)에는 남평양(南平壤 : 고구려 때에 지금의 서울을 이르던 말)이라 했고, 554년(신라 진흥왕眞興王 15)에는 신주(新州)라고 했으며, 557년(진흥왕 18)에는 북한산주(北韓山州), 568년(진흥왕 29)에는 남천주(南川州), 604년(진평왕眞平王 26)에는 북한산주(北漢山州), 757년(경덕왕景德王 16)에는 한주(漢州), 904년(효공왕孝恭王 8)에는 양주(楊州)라고 하였다. 1067년(고려 문종文宗 21)에는 남경(南京)이라 하였고, 1308년(충렬왕忠烈王 34)에는 한양부(漢陽府)라고 하였으며, 1395년(조선 태조 4)에는 한성부(漢城府)라고 하였다. 1910년에는 경성부(京城府)라고 하였고, 1945년에 서울시라고 하였으며, 1946년에 서울특별시라고 하였다. 서울의 별칭으로는 경도(京都), 경사(京師), 경락(京洛), 도성(都城), 도읍(都邑), 장안(長安), 황성(皇城), 경조(京兆), 광릉(廣陵) 등이 있다.
- ② 추진(趨塵) : 전란으로 쫓기다. 본 시에서는 ‘피난하다’는 뜻으로 쓰였다. 이때는 신립(申稙 : 1546~1592)이 충주(忠州) 탄금대(彈琴臺)에서 대패한 소식이 한성(漢城)에 알려지고, 선조(宣祖)가 한성을 떠나 피란길에 올라 개성(開城)으로 파천(播遷)하던 4월(1592년 선조 25, 임진년壬辰年)로 보인다.
 ☆추(趨) : 여기서는 ‘달아날 추, 혹은 쫓길 추’로 발음하는 것이 타당하다. 즉 피난하다는 뜻으로 쓰였다. ‘추(趨)’자를 ‘촉(趨)’으로 발음하면, 다급하다. 촉박하다는 뜻으로 쓰인다.
 ☆진(塵) : 전사(戰事 : 전쟁과 관련된 일), 변란(變亂 : 사변이 일어나 세상이 어지러움), 전쟁 등을 비유한 말임.
- ③ 운만후(雲滿後) : 온통 구름이 하늘에 가득하였다. 여기서는 선조가 한성을 떠날 때의 일기를 표현한 것이다. 임진년(壬辰年 : 1592년) 4월을 가리킨다.
 ☆후(後) : ‘아(啊)’와 마찬가지로 문장 끝에 어기조사로 쓰였으며, 본 시에서는 한 구(句)가 끝나고 잠시 쉬는 곳에 쓰였으며, 열거하는 의미도 지니고 있다.
- 7) 안흥영절(安興迎節 : 안흥에서 이제독李提督을 맞이하다) :
- ① 안흥(安興) : 안흥군(安興郡) : 용천군(龍川郡) : 본래는 고려의 안흥군이었는데, 조선조 태종 4년(1404)에 용천군(龍川郡)으로 군명(郡名)을 바꾸었다. 용천군은 평안북도 서단(西端)에 위치한 군이다. 동남쪽은 철산군(鐵山郡), 동북쪽은 신의주

시(新義州市), 의주군(義州郡), 서북쪽은 압록강을 사이에 두고 중국의 안동현(安東縣: 지금의 단둥시丹東市)과 마주 보며, 서남쪽은 황해와 접하고 있다. 서울과의 거리는 1700리이다.

- ② 영절(迎節): 맞이할 때. 영접할 때. 본 시에서는 명(明)나라 제독 이여송(李如松)이 4만 대군을 거느리고 압록강을 건너 의주에 도착한 것을 서애 선생이 영접한 1592년(선조 25, 임진년壬辰年) 12월을 가리킨다.

☆절(節): 계절. 때. 시기.

- 8) 추배일세 간위지(追陪一歲艱危地: 한 해 동안 전란 지역을 동행하며 쫓아다녔기에):

- ① 추배(追陪):

☆동행하며 쫓아다니다. 이때의 ‘배(陪)’는 ‘동행하다’의 뜻으로 쓰였다.

☆수행하며 보좌하다.

☆붙쫓다.

- ② 일세(一歲): 1년.

- ③ 간위지(艱危地): (국가·민족이) 곤란하고 위태로운 지역. 곧 전란지역을 칭한 것이다.

- 9) 연덕상리 의불궁(戀德傷離意不窮: 그 덕이 아쉬운데 이별이라니 슬퍼 잊지 못하다):

- ① 연덕(戀德):

☆연(戀): 아쉽다. 아쉬워하다.

☆덕(德): 덕망. 은혜. 은덕(恩德).

- ② 상리(傷離): 이별을 슬퍼하다. 이별을 아쉬워하다.

- ③ 의불궁(意不窮): 끊임없이 생각나다. 이별의 정서가 끝없이 일어나다.

☆의(意): 기억(생각)나다. 기억(생각)하다. 정서. 정감. 마음

☆불궁(不窮):

a. 중지하지 않다. 끊임이 없다.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b. 곤경에 빠지지 않다.

c. 불초(不肖: 품행이 단정치 못함)한 사람을 멀리하거나 배척하다.

- 10) 천위진첩 하기성(天威塵疊下箕城: 하늘같은 위엄 진동하여 기성箕城[평양]에 서리다):

- ① 천위(天威):

☆하늘같은 위엄. 본 시에서는 황제의 위엄을 가리키는 말로 쓰였다.

☆하늘의 위엄. 하늘의 진노.

- ② 진첩(震疊): 진첩(震疊)으로도 씀.

☆진동(震動)하다.

- ③ 하기성(下箕城): (명나라 제왕의 위엄이) 평양성에 서리다.

☆하(下): 하강(下降)하다. 낙하하다. 발송하다(부치다. 보내다) 등의 뜻인데, 본 시에서는 전(轉)하여 ‘드리워지다’, ‘서려지다’는 뜻으로 쓰였다. 명군(明軍)이 지원군으로 평양에 당도한 것을 명황제의 위엄이 상징되는 것으로 간주한 표현이다.

☆기성(箕城): ‘평양(平壤)’의 옛 이름이다. 평양은 평안남도 서남부 대동강(大

同江) 하류에 위치한다. 대동군(大同郡)에 둘러싸여 있으며, 남쪽은 중화군(中和郡)에 접하고 있다. 4000년의 역사를 지닌 고도(古都)로서 단군왕검(檀君王儉: 단군은 우리 민족의 시조로 받드는 태초의 임금임. 단군신화에 따르면, 환웅桓雄과 웅녀熊女 사이에 태어나 BC 2333년에 아사달阿斯達에 도읍을 정하고 고조선을 약 2천년 동안 다스렸다고 함. 왕검王儉은 단군檀君의 다른 이름으로 정치적 군장인 임금의 뜻임)이 도읍한 이래 기자조선(箕子朝鮮: 은殷나라가 망한 후 전설상의 조선의 시조인 기자箕子가 고조선古朝鮮에 망명하여 세웠다고 하는 나라. 현재 학계에서는 그 실재를 부정하고 있음.), 위만조선(衛滿朝鮮: 대동강 유역에 있었던 고조선의 마지막 나라. BC 194년에 중국 연燕나라 관리로 망명한 위만衛滿이 준왕準王을 몰아내고 세운 나라인데, BC 108년 우거왕右渠王 때 한漢 나라의 무제武帝에게 망했음), 낙랑(樂浪: 낙랑군樂浪郡: 한사군漢四郡 가운데 청천강淸川江 이남 황해도黃海道 자비령慈悲嶺 이북 일대에 있던 행정구역. BC 108년에 설치되어 AD313년인 미천왕美川王 14년에 고구려에 병합되었음), 고구려(高句麗: 동명왕東明王 주몽朱蒙이 BC 37년에 세운 나라. 광개토대왕廣開土大王 때에는 한반도 남부에서 요동지방까지 영유하였으며, 668년에 나당羅唐 연합군에 멸망했음) 등의 도읍지였다. 지금의 ‘평양을 칭하는 옛 이름으로는 왕검성(王儉城), 기성(箕城), 낙랑(樂浪), 서경(西京: 고려시대에 사경四京 가운데 지금에 평양에 해당하는 지역을 이르던 말), 호경(鎬京: 『고려사(高麗史)』에 의하면, 서경西京을 호경鎬京이라고 개칭改稱하였다 했음), 유경(柳京: 고려시대의 문신인 최자崔滋의 저서 『삼도부(三都賦)』에서 평양을 유경柳京이라 했음) 등이다.

11) 천리요분 일반청(千里妖氛一半淸: 천리에 달힌 요기妖氣 절반은 씻겨나갔네):

① 요분(妖氛): 요분(妖霧)으로도 쓴다.

☆상서롭지 못한 운기(雲氣), 상서롭지 못한 기운, 불길한 재난이나 변란을 비유하는 말로 쓴다.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으며, 왜군에게 점령당한 전란지역을 가리키는 뜻으로 쓰였다.

☆요기(妖氣).

② 청(淸):

☆말끔하게 씻어낸다.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평화롭다. 태평하다. 청평(淸平: 세상이 잘 다스려져 태평함)하다.

12) 기위장구 무갑마(豈謂長驅無甲馬: 어찌 계속하여 <왜적> 몰아칠 병마兵馬가 없다 하리오):

① 장구(長驅): 장구(長駟)라고도 쓴다. 이는 장구직입(長驅直入)의 약어(略語)로 쓰였다. 이 용어는 원말 명초의 작가인 사내암(施耐庵: 1296?~1370?)이 쓴 무협소설, 『수호전(水滸傳)』 제107회에 보인다. 그 원문을 보면, “이때부터, 노준의 등은 뒤를 돌아볼 걱정도 하지 않고, 신속하게 병마兵馬를 몰아 목적지까지 진군進軍하여 들어갔다(自此, 盧俊義等無後顧之憂, 兵馬長驅直入)”라는 대목에 보인다.

② 갑마(甲馬): 병마(兵馬).

☆개갑(鎧甲: 갑옷)과 전마(戰馬). 일반적으로 ‘군비(軍備)와 전사(戰事)’를 가리키는 말로 쓴다. 본 시에는 이 뜻으로 쓰였다.

☆미신자(迷信者)들이 갑옷 입은 장수와 전투마를 그려 놓은 신부(神符: 신의 부

적符籍).

☆갑옷을 입힌 전마(戰馬).

13) 요수전승 파둔영(要須全勝罷屯營 : 반드시 완승하고자 군영軍營에 숨겨졌었소) :

① 요수전승(要須全勝) : 반드시 한 번도 지지 않고 완전하게 이기려고 한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는 것이다.

② 파둔영(罷屯營) : 완승(完勝)하기 위해서 병마(兵馬)를 군영에 숨겨두고 실체(實體)를 눈치 채지 못하게 하다.

☆파(罷) : (손에서) 놓다. 그만 두다. 정지(停止)하다. 전(轉)하여, 본 시에서는 ‘진행하던 일을 정지하고 잠시 표면적으로 행동을 드러내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하여, ‘숨겨두다’는 뜻으로 번역하였다.

☆둔영(屯營) : 군영(軍營).

14) 강항매진 류병의(羌降每軫留兵議 : 오랑캐에 제압되어 매번 전황戰況 바뀌어도 용병논의에만 머무르니) :

이 사구(詩句)는 이여송이 1592년 12월에 4만 대군을 이끌고 압록강을 건너와서, 해가 바뀐 1593년 1월에 평양성을 탈환하는 쾌거를 이루었으나, 이어서 동월(同月)에 뜻밖에도 벽제관(碧蹄館) 전투에서 왜군으로부터 대패를 하게 된다. 이여송은 이때부터 대외강화(對倭講和) 교섭과 일방적인 정전(停戰) 선언을 통해, 왜군을 한성에서 철수시키고 조명연합군(朝明聯合軍)은 서울을 수복하게 된다. 서애선생은 이 일련의 석연찮은 귀환과정을 두고 못마땅해 하는 내심을 본 사구에 드러내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① 강항매진(羌降每軫) : 오랑캐에게 제압되어 매번 전황(戰況)이 바뀐다.

☆강항(羌降) : 오랑캐[왜군]에게 제압되다. 여기서는 벽제관 전투에서 조명연합군이 왜군에 제압된 것을 표현한 것이다.

a. 강(羌) : 여기 본 시에서 ‘강(羌)’은 중국 고대민족의 하나인 강족(羌族 : 중국 소수민족의 하나로 주로 사천성四川省 일대에 분포되어 있음)을 차용하여 왜군(倭軍)을 대유(代喻)한 것으로 보인다.

b. 항(降) : 제압되다.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매진(每軫) : 매번 전황(戰況)이 달라짐을 나타낸 것이다.

a. 진(軫) :

④ 구르다. 전동(轉動)하다. 본시에서는 ‘이리저리 상황이 달라지다’는 뜻으로 쓰였다.

⑤ 가슴 아파하다. 슬퍼하다.

② 유병의(留兵議) : 조선 측의 주전(主戰) 주장을 도외시키고 용병(用兵) 논의에만 머무르는 것을 표현한 것이다. 이를테면, 선생의 『징비록(懲毖錄)』에는 명나라의 조승훈(趙承訓 : 생몰년 미상)을 중심으로 한 1차 파병의 평양성 수비가 실패로 돌아간 것, 2차 파병으로 이여송(李如松 : ?~1598)이 와서 조명연합군(朝明聯合軍)으로 평양성은 탈환했으나, 벽제관(碧蹄館) 싸움에서 대패하고 개성(開城)으로 물러난 일, 명나라 장수들과 군사들의 각종 부적절한 정황 등을 상세히 기술하고 있다.

☆유(留) : 지체하다. 뒤로 물러 놓다.

☆병의(兵議) : 의병(議兵). 용병(用兵 : 군사軍士를 부름)에 대한 논의. 『순자(荀

子)·의병(議兵)』을 참조바람.

15) 세모영난 득로정(歲暮仍難得虜情: 세밑인데도 적정파악은 여전히 어렵소이다):

① 세모(歲暮): 세밑. 선달 그믐께. 한 해가 끝날 무렵.

② 득로정(得虜情): 적정(敵情)을 알다.

☆득(得): 알다. 명백하다.

☆노정(虜情): 적정(敵情: 적군의 정황). ‘로(虜)’는 ‘적(敵), 적군’의 뜻이다.

16) 제각경파 기영식(除却鯨波期永息: 고래같이 거친 파도 잠재워 늘 잔잔해지기를 바랐는데):

① 제각경파(除却鯨波): 여기서 ‘왜적(倭敵)을 물리치다’는 것을 ‘고래의 물결[鯨波]을 잠재우는 것’에 비유하고 있다.

☆제각(除却): 제각(除卻)으로도 쓴다. 제거하다, 말한 것을 ‘인정하지 않다, ...로 치지 않다. 인정하지 않다’는 뜻도 포괄하여 표현한 말이다.

☆경파(鯨波): ‘경(鯨)’ 관련 의미는 본 시의 주석4)의 ② ‘경굴(鯨窟)’ 조항을 참조바람.

a. 고래처럼 거대한 거칠고 사나운 파도.

b. 격렬한 소동, 첨예한 투쟁, 매우 위험한 처지(고비), 강렬한 심리적 충동이 나 움직임 등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본 시에서는 흉악한 왜적의 침략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로 쓰였다.

② 기영식(期永息): 영원히 파도가 잠잠해지기를 바라다. 본 시에서는 왜군의 기세가 꺾여 다시는 재침 못하게 되기를 바라는 것을 은유한 말로 쓰였다.

☆기(期): 기대하다. 바라다.

☆영식(永息): 영원히(언제나) 안식(安息)하다. 파도가 잔잔해지듯이 왜군의 기세가 꺾이는 것을 표현한 말이다.

17) 승평(昇平): 태평(하다).

시65. 차운_{次韻}하여 지은 시를 송운대사_{松雲大師}
유정_{惟政}에게 증정하다

詩65. 次贈松雲師¹⁾
차 증 송 운 사



纔從關外至²⁾,
재 종 관 외 지

방금 경성京城 밖에서 돌아오는 참인데,

更向湖南歸。
경 향 호 남 귀

다시 방향 바꿔 호남으로 돌아가고 있소.

擊楫心猶壯³⁾,
격楫심유장

노를 들고 강물 치던
(조직祖逖처럼) 내 심정도 장렬해져,

還山夢亦稀⁴⁾.
환 산 몽 역 희

은퇴하려던 꿈 또한 희박해지고 있소.

秋風吹正急⁵⁾,
추 풍 취 정 급

가을바람 불지만 정사政事가 다급하기에,

征袂未應遲⁶⁾.
징 매 미 응 지

원행遠行하는 사람이라
지체할 수 없소 그려.

努力奇功⁷⁾建,
노 력 기 공 건

노력해야 별난 공훈 세울 수 있거늘,

何須惜暫違⁸⁾.
하 수 석 잠 위

어찌 잠시의 이별에
아쉬워할 필요 있겠소?

1) 차증송운사(次贈松雲師) : 차운次韻하여 지은 시를 송운대사松雲大師 유정惟政에게 증정하다) :

① 차증(次贈) : 차운하여 증정하다. 차운 관련 항목은 앞의 「시20」의 주석1)의 ② ‘차운(次韻)’ 조항을 참조바람.

② 송운사(松雲師) : 송운대사(松雲大師) : 사명대사(四溟大師) : 유정(惟政) :

☆유정(惟政 : 1544~1610) : 조선 선조 때의 고승(高僧). 속성(俗姓)은 임(任), 자는 이환(離幻), 호는 송운(松雲) · 사명(四溟). 시호는 자통홍제존자(慈通弘濟尊者). 수성(守成)의 아들. 13세에 조선 전기의 문신 황여헌(黃汝獻 : 1486~?)에게서 사사(師事)하다가 황악산 직지사(黃嶽山直指寺 : 경북 김천시 대항면 운수리에 있는 절로, 해인사의 말사임)에 들어가 신묵화상(信默和尚)에게 선(禪)을 받아 중이 되었고 거기에서 불교의 오의(奧義)를 깨달았다. 1561년(명종 16) 선과(禪科)에 급제하고 당시의 학자 · 대부 · 시인들인 박사암(朴思菴 : 생몰년 미상) · 허하곡(許荷谷 : 생몰년 미상) · 임백호(林白湖 : 생몰년 미상) 등과 교제하였다. 1575년(선조 8) 선종(禪宗)의 주지(住持)로 추대되었으나 사양하고 묘향산에 들어가 청허(淸虛 · 서산西山 : 휴정休靜 <1520~1604>) 대사에게 성종(性宗 : 상종相宗의 상대어로, 우주 및 인생을 탐구하는데 불변 · 평등 · 절대 · 진실의 본체나 그 도리를 과제의 중심으로 하여 실행하는 종지宗旨를 ‘성종性宗 또는 법상종法相宗’이라 함)을 강의 받고 크게 각성하였다. 금강산 보덕사(金剛山報德寺)에서 3년을 지내고, 다시 팔공산(八公山) · 청량산(淸涼山) · 태백산(太白山) 등을 유람했으며, 43세 때 옥천산(沃川山) 상동암(上東菴)에서 하룻밤 소나기로 뜨락에 떨어진 꽃을 보고 인생의 무상함을 깨닫고 문도(門徒)들을 해산시킨 다음 오랫동안 참선하였다. 46세에 오대산 영감란야(靈鑑蘭若)에 있다가 역옥(逆獄)에 죄 없이 걸렸으나 무죄 석방되어 금강산에서 3년 동안 지냈다. 1592년(선조 25) 임진왜란 때 의병을 모집하여 순안(順安)에 가서 청허대사의 휘하에서 활약하였고, 청허가 늙어서 물러난 뒤 승군(僧軍)을 통솔하고 체찰사(體察使) 류성룡(柳成龍 : 1542~1607)을 따라 명장(明將)과 협력하여 평양을 회복하고 도원수 권율(權慄 : 1537~1599)과 같이 영남 의령(宜寧)에 내려가 전공을 많이 세워 당상(堂上) : 정3품 이상의 품계에 해당되는 벼슬을 통틀어 이르는 말)에 올랐다. 1594년에 명나라 총병(總兵 : 중병總兵 : 명대明代 동수군統帥軍에 속한 장령將領으로 우리나라의 사령관에 상당함) 유정(劉綎 : ?~1619)과 의논하고 왜장 가토오(가등청정加藤清正 : 1582~1611)를 울산(蔚山) 진중으로 세 번 방문하며 왜군의 동정을 살폈으며 왕의 퇴속(退俗)의 권유를 거부하고 영남에 내려가 팔공(八公) · 용기(龍起) · 금오(金烏) 등의 산성을 쌓고 양식과 무기를 저축한 후 인신(印信)과 전마(戰馬)를 바치고 산으로 돌아가기를 청하였으나 허락을 얻지 못하였다. 1597년 정유재란(丁酉再亂)에 명장(明將) 마귀(麻貴 : 생몰년 미상)를 따라 울산의 도산(島山)에 쳐들어갔었으며, 이듬해 명장 유정(劉綎)을 따라 순천(順天)의 예교(曳橋)에 이르러 공을 세워 가선동지중추부사(嘉善同知中樞府使)에 오르고 1604년(선조 37) 국서(國書)를 받들고 일본에 가서 도쿠가와 이에야스(덕친가강德川家康 : 1543~1616)를 만나 강화를 맺고 포로 되어 갔던 사람, 3,500명을 데리고 이듬해에 돌아와 가의(嘉義 : 가의대부嘉義大夫 : 종2품

문관의 품계)의 직위와 어마(御馬) 등을 하사 받았다. 그때는 청허가 입적한 이듬해로 묘향산에 가서 스승의 영탑(影塔)에 예하고 치악산(雉岳山)에 들어갔다. 선조의 부보(訃報)를 듣고 서울로 달려와 배곡한 후 병을 얻어 광해군의 서번을 지키게 하려 하였으나 응하지 못하고 가야산(伽倻山)에 들어가 조처하다가 사망하였다. 해인사에 홍제존자비(弘濟尊者碑)가 있다. 승려의 몸으로 국가의 위기에 몸소 뛰어나와 분연히 의승(義僧)을 이끌고 전공을 세웠으며, 전후의 대일강화(對日講和)[외교] 등 눈부신 활약을 했다. 후세 국민이 민족의식을 발현하는데 유정(劉綎)을 내세워 신비화시켜서 존경의 표적으로 숭앙되기까지 했다. 번역·감수 이재호 『국역 서애전서II-1·잡저(雜著)·송운대사(松雲大師)』 참조바람.

- 2) 재증 관외지(纔從關外至 : 방금 경성京城 밖에서 돌아오는 참인데) :
 - ① 재(纔) : 이제. 방금. 막. 마침. 본 시에서는 ‘방금’의 뜻으로 쓰였다.
 - ② 관외(關外) : 경성(京城) 밖의 지역.
- 3) 격즙 심유장(擊楫心猶壯 : 노를 들고 강물 치던 〈조적祖逖처럼〉 내 심정도 장렬해져) :
 - ① 격즙(擊楫) : 격즙(擊楫)으로도 쓴다. 서진(西晉)의 말엽에, 번왕(藩王 : 변방 제후국의 왕)들의 권력 쟁탈로 상호 투쟁하는 사이에 국방이 소홀해진 틈을 타고 읍적(戎狄)이 침입하여 중원(中原)의 국토가 상실됐다. 국난이 현실화되면서 경사(京師)가 크게 어지러워지자 조적(祖逖 : 266~321)은 백여 가구의 친당(親黨)을 이끌고 남쪽으로 내려왔다. 평소에 사직(社稷)을 바로 잡고 실지(失地)를 회복해야겠다는 의지가 강했던 조적(祖逖)은 북벌(北伐)을 강력히 주장했다. 황제[元帝]는 이를 가상히 여겨 그에게 분위장군(奮威將軍)과 예주자사(豫州刺史)라는 직함을 주고, 동시에 1천명분의 구호미와 피륙 3천 필을 지원하면서 북벌을 독려했다. 갑옷과 병장기의 지급은 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적(祖逖)은 마침내 백여 가구의 무리를 이끌고 북벌하기 위해 도강(渡江)을 시작했다. “강 한 가운데 이르러 노를 잡고 강물을 치면서 맹세하기를: ‘조적이 이번에 중원 땅을 회복할 수 없다면 다시 이 강을 건널 것이니, 이 장강(長江 : 양자강揚子江)의 흐름과 같으리라(중단하지 않으리라)’(中流擊楫而誓曰: ‘祖逖不能清中原而復濟者, 有如大江!’)” 그의 말과 기색의 장렬(壯烈)함에 모두들 감탄하였다. 그 후에, 그는 용구(雍丘 : 지금의 하남성河南省 기현杞縣)에 주둔하면서 황하 이남을 모두 진(晉)나라의 영토로 만들었다. (위의 내용은 『진서(晉書)·조적전(祖逖傳)』에 보임) 위의 고사(故事)에서 후세에 뜻이 비슷한 3가지 용어가 생겼으니 아래와 같다. 첫째, 격즙(擊楫) : 이 말의 직역은 ‘노를 들고 (강물을) 치다’는 뜻이다. 위의 고사를 가장 농도 짙게 축약(縮約)한 표현으로 보면 되겠다. 실지(失地)를 회복하고 국가를 통일하려는 장지(壯志)를 찬양하는 표준으로 사용할 때 이 말을 쓴다. 본 시에서 서애(西厓)가 이 말을 쓴 것도 왜적을 몰아내고 국권(國權)을 회복하려는 장지(壯志)를 표현한 것이다. 둘째, 격즙중류(擊楫中流) : 직역하면, ‘강 한가운데서 노를 들고 강물을 치다’는 말인데, 위의 고사에서 보듯이, ‘중원(中原)의 실지(失地)를 회복하지 못하면, 실지회복을 위한 노력을 중단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말이다. 이 말은 실지를 회복하기 위해 나라에 충정을 다하는 장렬한 생각과 기개 넘치는 지절(志節)

- 을 청송할 때 이 말을 쓴다. 셋째, 격증서(擊楫誓): 직역하면, ‘노를 들고 (강물
을) 치면서, 실지회복을 위한 맹서’라는 말인데, 뜻은 위의 ‘격증종류’와 같다.
- ② 심(心): 마음. 심정. 본 시에서는 ‘작가 자신의 심정’을 가리킨다.
- 4) 환산 몽역희(還山夢亦稀: 은퇴하려던 꿈 또한 희박해지고 있소):
- ① 환산(還山): 사직(辭職)하다. 은퇴하다.
- ② 몽역희(夢亦稀): ~하려는 희망 또한 희박해지다.
☆몽(夢): 실현하고 싶은 희망이나 이상.
☆희(稀): 희박하다. 본 시에서는 희망이나 이상이 점점 희박해지고 멀어지고 약
해지는 것을 가리키는 말로 쓰였다.
- 5) 정급(正急): 정사(政事)가 다급하다.
- ① 정(正): ‘정(政)’과 통하며, ‘정치(政治)·정사(政事)’의 뜻이다. 『전국책(戰國策)·
진책3(秦策三)』에, 위(魏)나라 세객(說客) 범수(范雎: ?~BC 253)가 진(秦)나라
사신 왕계(王稽: ?~BC 255)를 따라 진(秦)나라에 입국하여 진소왕(秦昭王: 진소
양왕秦昭襄王: BC 324~BC 251)을 알현하고 말하기를, “신이 알기로는 현명한 군
주는 조정에서 정사政事를 행함에 있어서, 공로가 있는 신하에게는 반드시 상을
주려하고, 능력이 있는 신하는 반드시 중용하려 한다고 하였습니다(臣聞明主莅
正, 有功者不得不賞, 有能者不得不官).”고 한 대목이 있다.
- ② 급(急): 긴급하다. 긴박하다. 위급하다. 화급(火急)하다.
- 6) 정매 미응지(征袂未應遲: 원행遠行하는 사람이라 지체할 수 없소 그러):
- ① 정매(征袂): ‘원행(遠行)하는 사람의 의복’이라는 뜻이나, 본 시에서는 전(轉)하
여 ‘원행하는 사람’의 뜻으로 쓰였다.
☆정(征): 원행(遠行)하다.
☆매(袂): 원래는 소매 아래쪽에 주머니같이 늘어진 부분을 말하는 것이나, 전
(轉)하여 소매 또는 의복, 상의(上衣)라는 뜻으로도 쓰는데, 본 시에서는 ‘원행
하는 의복을 입은 사람’의 뜻으로 쓰였다.
- ② 미응(未應): 마땅히 ...하지 않아야 한다.
- 7) 기공(奇功): 남달리 특별하게 세운 공로나 공훈.
- 8) 하수 석잠위(何須惜暫違: 어찌 잠시의 이별에 아쉬워할 필요 있겠소?):
- ① 하수(何須): 반어(反語)의 어기(語氣)로 쓰이고 있다.
☆하필, 혹은 구태여 ...할 필요가 있겠는가? 즉, ...할 필요가 없다.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무슨 소용이 있는가? 소용없다.
- ② 석잠위(惜暫違): 잠시의 이별을 두고 애석해 하다.
☆석(惜):
a. 애석하게 여기다. 아쉬워하다.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b. 아끼다. 소중히 여기다.
c. 불쌍하게 여기다. 가엾게 생각하다. 동정하다.
☆잠(暫): 잠시. 잠깐. 단시간.
☆위(違):
a. 이별(하다). 헤어지다.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b. 어기다. 지키지 않다. 따르지 않다. 위배하다. 위반하다.

- c. 피하다. 회피하다. 도망하다. 떠나다.
- d. 멀다. 서로 거리를 두다. 소원하다.



시66. 옥산^{玉山}에서 밤에 음주하면서 극기^{克己}
정호인^{鄭好仁}에게 써서 주다

詩66. 玉山夜飲¹⁾ 贈鄭克己好仁²⁾
옥 산 야 음 증 정 극 기 호 인

天地猶³⁾南北,
천 지 유 남 북

하늘과 땅이 남북의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것이라면,

關河更弟兄⁴⁾。
관 하 경 제 형

산과 강은 오히려 형제처럼
서로 이어져 있다네.

浮生饒別恨⁵⁾,
부 생 요 별 한

인생이란 이별의 한이 많은 것이라지만,

歲暮獨遐征⁶⁾。
세 모 독 하 정

한 해가 저무는데 홀로 원행 길에 오르네.

燭淚天將曙⁷⁾,
촉 루 천 장 서

촛농이 눈물같이 흘러내리는 사이
먼동이 트는데,

霜華夜轉明⁸⁾。
상 화 야 전 명

서릿발 같은 백발은
밤에 더 선명하네그려.

相看不能寐,
상 간 불 능 매

서로 바라보며 잠을 이루지 못하다가,

危涕自縱橫⁹⁾。
위 체 자 종 횡

이별이 슬퍼 눈물이 절로 줄줄 흘러내리네.

1) 옥산아음(玉山夜飲 : 옥산에서 밤에 음주하면서) :

- ① 옥산(玉山) : 안동의 향토지인 『영가지 권2(永嘉誌卷之二) · 산천(山川)』 조항에, “옥산은 두 곳이 있는데, 그 하나는 안동부 북쪽 30리에 위치한 도기촌에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임하현 북쪽 2리에 있다(玉山二, 一在府北三十里道岐村, 一在臨河縣北二里).”고 하였다. 관련 자료가 미약하여 본 시에서 읊고 있는 옥산이 어느 쪽의 옥산인지 확인할 길이 없다. 다만 서애가 정호인을 만난 것이 아래 ②의 항목에 의하면, 경기도의 남양부(南陽府)에서 만난 자료가 보이나, 이것으로 ‘옥산’에 대한 정확한 단서를 찾기는 어렵다.

2) 증정극기 호인(贈鄭克己 好仁 : 극기 정호인에게 써서 주다) :

- ① 정극기 호인(鄭克己 好仁) : 극기(克己) 정호인(鄭好仁 : 생몰년 미상). 극기는 정호인의 자나 호이며, 호인(好仁)은 이름이다. 이렇게 이름 앞에 자나 호 또는 직함을 쓰는 것은 경칭(敬稱)의 한 예이다. 이재호 번역·감수 『서애전서·잡저·의변노설·무제(無題) 출가장본초(出家藏本草 : 종가에 간직된 초고본草稿本에서 나온다)』에 의하면, 서애가 경기도의 남양부(南陽府)에서 정극기(鄭克己)를 만나 그에게 들은 이야기를 적은 것이다. 제목에서 보다시피 위의 글은 풍산류씨(豊山柳氏) 종가에서 소장된 선생의 초고본에 보이는 글로, 여해(汝諧) 이순신의 가족사(家族事)가 정극기의 입을 통해 일부 소개되고 있다. 역지는 『풍산류씨족보(豊山柳氏族譜)』에서 정호인(鄭好仁)은 서애(西厓) 류성룡(柳成龍)의 매부(妹夫)라는 것과, “본관은 진주(晋州)이고(晋陽人), 군수를 역임한 부친은 부사府使로서, 성명은 정원상鄭元祥이며(郡守父府使元祥), 청백리淸白吏인 정성근(鄭誠謹 : ?~1504)의 후예이다(淸白吏誠謹後).”라는 내용이 보인다. 기타 정호인의 이력과 관련된 자료는 찾지 못했다.

3) 유(猶) : 예를 들어 ...이라면.

4) 관하 강제형(關河更弟兄 : 산과 강은 오히려 형제처럼 서로 이어져 있다네) :

① 관하(關河) :

☆요새. 보루. 성채. 일반적으로 ‘관하(關河)’는 산하(山河)를 가리킨다. 본 시에 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함곡관(函谷關)과 황하(黃河)를 칭한다.

- a. 함곡관(函谷關) : 원래의 함곡관은 전국시대(戰國時代)에 진(秦) 나라가 설치한 것으로, 지금의 하남성(河南省) 영보현(靈寶縣) 경계에 위치하였다. 그 곳의 길[道]은 계곡 안에 있어서 깊고 험난하여, 그 지형이 흡사 함(函 : 상자 모양의 통)과 같았던 까닭에 붙여진 이름이다. 한(漢)나라 원정 3년(元鼎三年 : BC 114)에 지금의 하남성 신안현(新安縣) 경계로 옮겨 설치했는데, 옛 관문과의 거리가 3백리나 떨어진 곳이다.
- b. 황하(黃河) : 중국 제2의 대하(大河)이다. 황하의 원류 카르취(Kariku : 가일곡卡日曲)는 청해성(青海省) 중남부에 위치한 바옌커라 산맥(Ba Yan Ka La mountains : 파안객랍산맥(巴顏喀拉山脈)의 거즈거야산(Ge Zi Ge Ya mountain : 각자각아산各峯各雅山) 북쪽 산기슭에서 발원한다. 해발 4830m의 산에서 솟아나는 몇 곳의 샘물이 모여 카르취라는 이름의 시냇물을 형성하는데, 이것이 황하의 수원(水源)인 것이다. 이 시냇물이 성숙해(星宿海)로 흘러들

었다가 동쪽으로 흘러 사천(四川), 감숙(甘肅), 영하(寧夏), 내몽고(內蒙古), 섬서(陝西), 산서(山西), 하남(河南) 등 여러 성(省)들을 거쳐, 산둥성(山東省) 북부에서 발해(渤海)로 흘러든다. 전체 길이는 5,464km, 유역면적은 75만 2천 4백km²이다.

☆어려움이 많은 여도(旅途).

- ② 경제형(更弟兄): 산과 강[關河]은 오히려 형제처럼 서로 이어져 있는 상태임을 서술하고 있다.

☆경(更): 연속되다. 접속되다.

- 5) 부생 요별한(浮生饒別恨: 인생이란 이별의 한이 많은 것이라지만):

- ① 부생(浮生): 이 말의 어원은 『장자(莊子)·각의(刻意)』편에, “살아 있을 때 물 위에 떠다니듯 세상을 가볍게 보고, 죽을 때 휴식을 취하듯이 정적(靜寂)에 잠긴다(其生若浮, 其死若休).”라고 한 대목이 있다. 사람은 세상에 살면서 부질없이 일정하지 않게 세상을 돌아 다녀야 하는 까닭에, ‘인생’을 “부생(浮生)”이라고 하는 것이다.

- ② 요별한(饒別恨): 이별의 한이 많다.

☆요(饒):

- a. 많다.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 b. 풍부(부유. 풍족)하다.
- c. 포만(飽滿)하다.
- d. (토자가) 비옥하다.

- 6) 세모 독하정(歲暮獨遐征: 한 해가 저무는데 홀로 원행 길에 오른다네):

- ① 세모(歲暮): 세밑. 한 해가 끝날 무렵. 선달그믐께.
② 하정(遐征): 원행(遠行)하다. 원유(遠遊)하다. 원도출정(遠道出征)이나 장도행군(長道行軍).

- 7) 측루 천장서(燭淚天將曙: 촛농이 눈물같이 흘러내리는 사이 먼동이 트는데):

- ① 측루(燭淚): ‘촛루(燭淚)’라고도 쓴다. 이는 ‘촛농(燭膿), 촛농’이다. 초가 탈 때 녹아서 흘러 떨어지는 기름이다.
② 천장서(天將曙): 날이 곧 밝아오다. 먼 동이 트다.
☆천(天): ‘일(日: 날)’의 뜻으로 쓰였다.
☆장(將): 부사로 쓰여, ‘장차(곧, 바로)’ …하려 한다.
☆서(曙): 날이 밝다.

- 8) 상화 아전명(霜華夜轉明: 서리꽃 같은 백발은 밤에 더 선명하네그려):

- ① 상화(霜華): 상화(霜花)로도 쓴다.
☆‘꽃같이 고운 서릿발’이란 뜻으로, 희어진 백발과 수염을 비유하는 말로 쓴다.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서리.

☆밝고 맑은 달빛, 교결(皎潔)한 월광(月光).

☆서릿발 같이 번뜩이는 칼날. 칼날에 번뜩이는 차가운(섬뜩한) 빛.

- ② 아전명(夜轉明): 밤에 더 선명하다.

☆전명(轉明): (더) 선명해지다.

- a. (방향·위치·형세·정황 등이) 달라지다. 바뀌다.

9) 위체 자증횡(危涕自縱橫 : 이별이 슬퍼 눈물이 절로 줄줄 흘러내리네) :

① 위체(危涕) : (이별이) 슬퍼서 눈물을 흘리는 것을 이르는 말이다.

☆위(危) : 불안하다. 근심하고 슬퍼하다. 근심으로 괴로워하다.

☆체(涕) : 눈물을 흘리며 울다.

② 자증횡(自縱橫) : (눈물이) 절로 줄줄 흘러내리다.

☆자(自) : 절로. 저절로.

☆증횡(縱橫) :

a. (사람이 많거나, 낚싯밥이 많거나, 눈물을 많이 흘리거나 하는 등의) 많은 모양. 본 시에서는 ‘눈물을 많이 흘리는 모양’을 표현하였기에, 역자는 눈물이 ‘줄줄 흐르다’로 번역하였다.

b. 분산하는 모양, 사방으로 흩어지는 모양.

c. 많은 모양.

d. 교착하는 모양. 교차하여 엇갈리는 모양.

e. 합종연횡(合縱連橫)의 약어(略語).

㉠ 합종(合縱) : 합종설(合從說). 전국시대(戰國時代)에 동주(東周) 출신의 유세가(遊說家) 소진(蘇秦 : ?~284)이 열국(列國)의 군주에게 주장한 외교정책으로, 서쪽의 강국 진(秦)나라에 대항하기 위해 함곡관(函谷關) 동쪽에서 남·북으로 위치한 한(韓)·위(魏)·조(趙)·초(楚)·연(燕)·제(齊) 6국이 동맹할 것을 (즉 합종合縱할 것을) 설득하여 성공했다.

㉡ 연횡(連橫) : 연횡설(連橫說). 전국시대에 위(魏)나라 출신의 진(秦)나라 유세가 장의(張儀 : ?~BC 310)가 주장한 외교정책으로, 소진(蘇秦)의 합종설에 맞서서 진(秦)나라가 이들 6개국과 횡(橫 : 동·서)으로 각각 동맹을 맺어 (즉 연횡連橫하여) 화친할 것을 주장하였다.

f. 가로와 세로[횡수橫豎] 또는 정(正)과 부정(不正)을 종횡이라고도 한다.



시67. 황강역^{黃江驛} 역전에 도착하여, 잠시
쉬려고 개천가의 바위에 앉아 있는데,
(그때) 얼음장 아래서 계곡물 흘러가는
소리가 꿀꿀 들리면서, 홀연히 마음속에
깨우침이 일어, 홀연히 노정^{路程}의
어려움도 잊고, 우연히 시 한 수 읊는다.

이때는 무술년(戊戌年 : 1598년, 선조 31, 서애 57세) 겨울,
관직에서 파직되어 남으로 귀환하는 중이었다.

詩67. 到黃江驛¹⁾前²⁾ 少憊³⁾ 坐溪邊石上⁴⁾ 聽水泉咽咽⁵⁾
도 황 강 역 전 소 게 좌 계 변 석 상 청 빙 천 열 열
欣然意會³⁾ 忽忘道途⁴⁾ 之艱 偶作⁵⁾ 時戊戌冬⁶⁾
혼 연 의 회 홀 망 도 도 지 간 우 작 시 무 술 동
罷官南還⁷⁾
파 관 남 환

久坐斷巖石,
구 좌 단 암 석

바위가 갈라질 듯 오랫동안 앉아서,

靜聽水澗聲⁸⁾.
정 청 빙 간 성

얼음장 아래서 들려오는
계곡물소리 조용히 듣네.

泠泠去相續⁹⁾,
영 영 거 상 속

졸졸 청량한 소리 사라졌다 이어지고,

汨汨來無停¹⁰⁾.
골 골 래 무 정

출출 강한 소리
다가와서 멈추지 않네.

自有天機妙¹¹⁾,
자 유 천 기 묘

본시 하늘의 조화는 오묘함이 있나니,

非關世俗情¹²⁾。
비 관 세 속 정

세속의 실정實情과는 관계가 없다네.

吾衰未聞道¹³⁾,
오 쇠 미 문 도

내 늙어서도 아직 도리를 깨닫지
못한지라,

恨作醉夢生¹⁴⁾。
한 작 취 몽 생

몽상에 취한 듯 산 생애가 한스럽네.

- 1) 황강역(黃江驛) : 황강도(黃江道) : 지금의 충북(忠北) 제천시(堤川市) 한수면(寒水面) 역리(驛里)에 있었던 역(驛)이다. (‘황강도’라고 할 때의 ‘도(道)’는 ‘역도(驛道)’의 약어이고, ‘역로(驛路)’의 뜻임). 이 역은 충주댐이 건설되면서 수몰지역에 해당되어 그 유적지가 지금은 수몰되었다. 황강역(黃江驛 : 지금의 청풍淸風)은 고려시대에 평구도(平丘道 : 고려시대 22개 역도驛道 중의 하나로, 중심 역은 평구역이었으며, 경기도 양주楊州, 지금의 의정부시에 있었던 역임)에 속했던 역으로, 관할역은 6개소였으며, 경기도에서 충청도를 통하여 경상도로 이어지는 관문 역할을 하는 중요 역으로 발전하다가, 성종(成宗 : 1457~1494 : 조선 제9대 왕) 이후에 충청도의 교통의 중심지가 된 충주(忠州)의 연원도(連原道 : 지금의 충주에 있었던 역도驛道の 명칭. 종6품 벼슬인 찰방察訪이 주재했음)에 병합되었다. 역승(驛丞 : 역을 관장하던 종9품의 벼슬)이 소재하였다. 『세종실록지리지(世宗實錄地理志) · 충청도(忠淸道) · 충주목(忠州牧) · 청풍군(淸風郡)』 조항에, “청풍군에 역이 셋이 있으니, 황강(黃江 : 지금의 청풍淸風), 수산(壽山 : 수산水山 : 지금의 청풍), 안음(安陰 : 지금의 청풍)이다”라고 기록하였으며, 같은 책 충청도 조항에는 “황강도(黃江道)의 관할 역이 여섯이니, 수산(水山 : 수산壽山 : 지금의 청풍) · 장림(長林 : 지금의 단양丹陽) · 영천(令泉 : 지금의 단양) · 천남(泉南 : 지금의 제천堤川) · 안음(安陰 : 지금의 청풍) · 의풍(義豐 : 속칭 오사吾賜 : 지금의 영춘永春)이다.”라고 기록되어 있다.(이상은 디지털 제천문화대전: 역리驛里 황강역 더 참조) 황강역[황강도]은 충청도의 교통의 중심지인 연원도(連原道 : 연원역連原驛 : 지금의 충주)에 소속되었기에, 연원역은 황강역과 연관된 중요한 역이므로, 아래에 연원역의 기록을 소개한다.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권14 · 충주목(忠州牧) · 역원(譯院)』 조항에, “연원역은 고을 북쪽 5리에 있다(連原驛在州北五里). 본도本道 관할의 소속된 역이 14개 역인데(察訪本道屬驛十四), 단월(丹月 : 지금의 충주), 인산(仁山 : 지금의 괴산槐山), 감원(坎原 : 지금의 음성陰城), 신평(新風 : 지금의 연풍延風), 안부(安富 : 지금의 연풍), 가흥(嘉興 : 가흥可興 : 지금의 충주), 용안(用安 : 지금의 충주), 황강(黃江 : 지금의 청풍), 장림(長林 : 지금의 단양丹陽), 영천(靈泉 : 영천永泉 : 지금의 단양), 오사(吾賜 : 지금의 영춘永春), 천남(泉南 : 지금의 제천堤川), 안음(安陰 : 지금의 청풍)이다(丹月, 仁山, 坎原, 新風, 安富, 嘉興, 用安, 黃江, 壽山, 長林, 靈泉, 吾賜, 泉南,

- 安陰)。”고 하였다. 연원역의 관할범위는 충주를 중심으로 해서 북쪽으로는 여주(驪州), 남쪽으로는 문경(聞慶), 연풍(延豐), 음성(陰城), 괴산(槐山), 동쪽으로는 제천(堤川), 동남쪽으로 청풍·단양에 이어지는 교통의 요지이다.
- 2) 청빙천열열(聽氷泉咽咽 : 얼음장 아래서 계곡물 흘러가는 소리가 꼰꼰 들리다) :
- ① 빙천(氷泉) :
- ☆얼음이 언 하천. 본시에서는 빙천(氷川)의 뜻으로 쓰였다. 천(泉)은 ‘지하수’의 뜻이 있는데, 본 시에서는 전(轉)하여, 천(川 : 하천)의 뜻으로 쓰였으며, 얼음 밑의 하천수를 가리킨다.
- ☆얼음이 언 언뚫. 원래 ‘빙연(氷淵)’으로 썼는데, 당대(唐代)에 당태조(唐太祖) 이연(李淵 : 566~635)의 ‘연(淵)’자를 기휘(忌諱 : 예의상 군왕이나 부모의 휘자諱字 쓰기를 꺼리고 싫어함)하여, ‘천(泉)’자로 쓴 용어이다. ‘빙연(氷淵)’은 ‘처지(입장·환경)가 위험한 것’을 비유하는 말로도 쓴다.
- ☆청천(淸泉 : 맑고 찬 샘물) : 이 말은 금성(琴聲 : 거문고 소리)을 형용할 때 상용(常用)한다.
- ② 연연(咽咽 : 인인·열열) : 본 시에서는 얼음장 아래서 하천수가 흘러가는 소리를 형용한 말로 쓰였다. ‘꼰꼰’ 또는 ‘꼰락꼰락’ 혹은 ‘졸졸’로 표현할 수 있으며, ‘물 따위가 가는 줄기 또는 좁은 구멍으로 흘러가며 내는 소리’를 형용한 말이다.
- ☆복소리[연연 : 인인] : 울동적으로 리드미컬하게 치는 복소리를 형용하는 말. ‘둥둥 둥둥 둥’, ‘덩더꿍덩더꿍’, ‘둥당둥당’ 같은 식으로 표현된다. 『시경詩經·노송(魯頌)·유필(有駟)』에, “복소리 둥둥 울리거늘, 취하여 춤을 추니, 모두들 즐거워하도다(鼓咽咽, 醉言舞. 于胥樂兮).”
- ☆열열(咽咽) :
- a. 목멘 소리로 내는 애절한 소리.
- b. 목이 잠긴(목이 쉼) 소리를 이르는 말.
- 3) 흥연의회(欣然意會 : 흥연히 마음속에 깨우침이 일다) :
- ① 흥연(欣然) :
- ☆기꺼이. 흔쾌히.
- ☆희열하는(즐거워하는, 기뻐하는) 모양. 기쁘거나 반가워서 기분이 좋은 모양.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 ② 의회(意會) : 내심을 깨닫다(이해하다. 파악하다. 알다).
- 4) 도도(道途) : 도도(道塗)라고도 쓰고, 도도(道涂)라고도 쓴다. 길. 도로. 이정(里程). 본 시에서는 노정(路程)의 뜻으로 쓰였다.
- 5) 우작(偶作) : 우연히 짓다. 시사(詩詞)의 제목에 많이 쓰는 말인데, 시를 짓기 위해 의도적으로 고심하지 않고, 언뜻 떠오른 순간적인 시상(詩想)을 그대로 표현하는 것을 이르는 말이다.
- 6) 시무술동(時戊戌冬 : 때는 무술년(戊戌年 : 1598년, 선조 31, 서애 57세) 겨울이다) : 「서애연보」에 의하면, 이 시기는 선조 31년 서애 57세인 1598년 겨울로, 정유재란(丁酉再亂 : 임진왜란 뒤의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화의和議 조건 말살로 인하여 조선 14대 선조宣祖 30년(1597) 정월正月에 한 번 패한 왜군 카토오 키요마사 군의 14만 대군(大軍)이 병력을 이끌고 다시 쳐들어온 난리)이 발발한 다음 해[1598년] 겨울을 가리킨다.
- 7) 파관남환(罷官南還 : 관직에서 파직되어 남으로 귀환하는 중이다) :

「서애연보」에 의하면, 사직을 청하고 귀향할 수밖에 없는 사유가 있었다. 여기에 개괄하면 아래와 같다. 9월, 명(明의) 주사(主事), 정응태(丁應泰)는 경리(經理) 양호(楊鎬)가 울산전투에서 패배하고도 사실대로 보고하지 않았고, 본국[조선 조정]도 양호와 함작하여 이를 은폐했으며, 왜인파도 통모한다고 탄핵하였다. 이에 선조가 분개하여 동궁(東宮)에게 결재를 받게 하고 정사(政事)를 돌보지 않았다. 서애는 정2품 이상의 관리를 인솔하여 복함(伏閣)하였다. 이때, 형군문(邢軍門)의 차인(差人)이 과도관(科道官)을 보내와서 군량미 운반을 청했는데, 선조가 답을 하지 않았다. 마침 이때 선생은 대궐 뜰에서 선조가 정사(政事) 보기를 주청(奏請)하고 있었는데, 이조판서 홍진(洪進)이 관안(官案)을 가지고 선생 앞에 다가와서 차출하여 보낼만한 자를 묻자, 황급한 터라, 전한(典翰) 김신국(金愼國)·집의(執義) 황정철(黃廷詰)·병조정랑(兵曹正郎) 윤홍(尹弘)·지평(持平) 이이첨(李爾瞻) 등 네 사람을 낙점하고 서류를 갖추어 아뢰었다. 이때 이이첨이 격노하여 혼자 계(啓)를 올려 선생이 자청해서 가지 않은 것을 탄핵하였고, 이에 윤홍의 소(疏)가 이어지자, 선조는 이이첨 대신 송석경(宋錫경)으로 대신하였다. 선생이 탄핵을 받았으나, 국사가 시급해서 회피할 수 없어, 한편으로는 선조가 정사(政事) 보기를 계청(啓請)하였고 다른 한편으로는 서과도(徐科道)에게 위의 사실에 대해 해명하는 글을 올렸다. 선조는 여전히 정사를 보지 않았고, 선생을 미워하는 자들은 별때같이 공박과 배척의 상소를 올렸다. 이에, 자신을 탄핵하는 차자(劾刺)를 올리고 사직을 주청하였으나 윤허 받지 못하였다. 27일, 명나라 정응태의 무주(誣奏) 사건에 대한 진주사(陳奏使)를 고사(固辭)하였다. 그러나 선조는 여전히 이를 윤허하지 않아, 29일 동성(東城) 밖에 나가 왕명을 기다렸다. 사직서를 올렸으나 윤허하지 않았다.(이상은 류명회·안유호 번역 갑주 『개정판 국역 류성룡시』 1, II의 「서애연보」 무술년 57세 조항 참조) 같은 책, 동일조항의 주석57)에 기재한 명나라 정응태의 무주사건(誣奏事件)에 대한 진주사(陳奏使)를 고사(固辭)한 서애의 상소문도 참조바람.

8) 빙간성(氷澗聲) : 얼음장 아래서 새어 나오는 계곡물이 흘러가는 소리.

① 빙간(氷澗) :

☆얼음장 아래서 흘러나오는 물소리.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얼음 골짜기.

9) 영영 거상속(冷冷去相續) : 줄줄 청량한 소리 사라졌다 이어지고) :

① 영령(冷冷) :

☆물소리, 바람소리, 거문고 소리, 목소리 따위가 맑고 시원한 것을 표현한 말이다. 그 소리가 청월(淸越 : 소리가 맑고 가락이 높음)하고 유양(悠揚 : 은은함)한 것을 형용한 말이다. 본 시에서는 얼음장 아래서 줄줄 흘러가는 물소리를 형용한 것이다.

☆청량한 모양. 상쾌한(시원한) 모양. 쓸쓸(쓸렁·적막·적적)한 모양.

☆청백(淸白 : 청렴결백, 깨끗)한 모양. 결백한 모양. 청렴결백한 모양.

② 거상속(去相續) : (얼음의 틈 사이로 흘러가는 물소리가) 점점 약해지다가 다시 이어지는 상태를 묘사한 것이다. 이는 시적화자의 현재 상태가 고요 속에서 자연과 친화하는 경계임을 시사하고 있다.

☆거(去) : 구체적인 동사 대신에 쓰인 동사로서 주어의 동작이 주어로부터 멀어지는 뜻을 지닌다. 본 시에서는 얼음의 갈라진 틈 사이로 ‘줄줄[冷冷]’ 흘러가

는 물소리가 화자의 귓전에서 사라져가는 상태를 표현한 것이다.

a. 사라지다.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b. (멀리) 떠나다.

c. 없다. 상실하다.

10) 골골 래무정(汨汨來無停 : 출출 강한 소리 다가와서 멈추지 않네) :

- ① 골골(汨汨) : ‘골(汨)’자는 ‘삼수[汨]’변에 ‘가로 왓(曰)’자이다. 이 자를 ‘을(汨)’자로도 읽는데, 현대 중국인은 이 ‘을(汨 : yù)’자를 ‘골(汨gǔ)’로 발음한다. ‘골(汨)’자를 중첩해서 쓸 때와 ‘을(汨)’자를 중첩해서 쓸 때, 차이가 있기에 여기에 정리해놓는다. 특별히 유의해야 할 점은 ‘삼수[汨]’변에 ‘날일(日)’을 쓰면, ‘물 이름 먹(汨)’자가 된다. 이것을 혼동하지 말고 구별해야 한다. 이는 ‘먹라수(汨羅水)’라고 할 때의 ‘먹(汨)’자인데, 중국 호남성(湖南省)을 흐르는 먹수(汨水)와 나수(羅水)가 합쳐진다고 해서 합칭하여 먹라수(汨羅水)라고 하는데, 전국시대(戰國時代) 초(楚)나라의 정치가이자 문인인 굴원(屈原 : 약 BC 339~약 BC 278)이 투신했다고 하는 강이다.

☆의성어(擬聲語)로서, 파도나 물결의 소리를 형용할 때 쓴다. ‘철썩철썩, 출렁출렁’ 등이 그 예이다.

☆얼음의 갈라진 틈사이로 시청(視聽)되는 물이 출출 흐르는 모양.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성(盛)한 모양. 선행(善行)을 많이 쌓거나 악행을 되풀이 할 때의 표현으로 쓴다. ‘거듭거듭’으로 해석할 수 있다.

☆침몰하다. 몰락하다.

*울울(汨汨) : 의성어(擬聲語).

a. 급류가 흐르는 모양. ‘찰찰, 쿵쿵’ 등으로 형용할 수 있다.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b. 작문의 구상이 끊임없이 계속 떠오르거나, 말하는 것이 청산유수처럼 끊임없이 이어지는 것을 비유한 뜻으로 쓴다.

c. 불안한 모양, 범죄를 짓고 도주 중이거나 안정되지 못한 환경에서 현실생활을 해나가는 심리를 형용한 말로 쓰는데, ‘조마조마’로 표현할 수 있다.

- ② 래무정(來無停) : 얼음장 아래서 흘러가는 물소리가 시적화자(詩的話者)의 귓전에 점점 커져가는 상태로 중단 없이 다가오는 것을 묘사한 것이다. 이는 시적화자의 현재 상태가 고요 속에서 자연과 친화하는 경계임을 시사하고 있다.

☆래(來) : 구체적인 동사 대신에 쓰인 동사로서 얼음의 틈사이로 ‘찰찰(汨汨)’ 흘러가는 물소리가 화자(話者)의 귓전에 점점 크게 접근되는 상황을 표현한 것이다.

11) 자유 천기묘(自有天機妙 : 본시 하늘의 기밀機密에는 오묘함이 있나니) :

- ① 자유(自有) : 본시 있다.

☆자(自) : 본시. 본래.

- ② 천기묘(天機妙) : 하늘의 조화는 오묘하다.

☆천기(天機) :

a. 천의(天意). 하늘의 기밀(機密 : 조화, 신비).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b. 천천적으로 타고난 기지(機智). 천부적인 영기(靈機).

c. 임금의 밀지(密旨). 국가의 기밀.

12) 비관 세속정(非關世俗情 : 세속의 실정實情과는 관계가 없다네) :

① 비관(非關) :

☆무관(無關)하다. 본 시에는 이 뜻으로 쓰였다.

☆...때문이 아니다.

② 세속정(世俗情) : 이는 세속의 인정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세속의 실정(實情)을 뜻한다.

☆세속(世俗) :

a. 세간(世間). 속세(俗世).

b. 사회상에 유전(流傳)되는 풍속습관.

c. 세인(世人). 범인(凡人).

☆정(情) :

a. 실정(實情).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b. 인정(人情).

13) 오쇠 미문도(吾衰未聞道 : 내 늙어서도 아직 도리를 깨닫지 못한지라) :

① 쇠(衰) : 사람이 늙었을 때 빈발(鬢髮 : 살쨍과 머리털)이 빠지고 백발이 되는 것을 이르는 말.

② 문도(聞道) :

☆모종(某種)의 도리를 깨닫다.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라고 들었다. 듣자니 ...라고 한다.

14) 한작 취몽생(恨作醉夢生 : 몽상에 취한 듯 산 생애가 한스럽네) :

① 한작(恨作) : 한으로 만들다. 한으로 맺히다.

② 취몽생(醉夢生) : 꿈에 취하여 산 생애(살다). 환상에 취해서 산 생애(살다).



시68. 운암객관¹⁾雲巖客館에 숙박하면서

詩68. 宿雲巖¹⁾
숙운암

關心百慮夢難成²⁾, 이 생각 저 생각하다 잠을 이루지 못하면서,
관심백려몽난성

臥聽庭松打雪聲³⁾. 누워있는데 뜰 앞 소나무에
와청정송타설성
눈 내리는 소리 들리네.

風起鴈驚雲欲散⁴⁾, 바람 불자 기러기 울고 구름마저 걷히더니,
풍기안경운욕산

一簾殘月曉仍明⁵⁾. 발 밖의 저가는 달은 먼동 터도 밝으네.
일림잔월효영명

- 1) 운암(雲巖) : 원래는 충북(忠北) 단양군(丹陽郡) 대강면(大岡面) 장림리(長林里)에 서 남쪽으로 6~7리 지점에 위치한 강변 지역의 지명이다. 본 시에서는 그 지역에 있는 객관(客官)을 의미하는 뜻으로 쓰였다. 조선시대에는 주요가도(主要街道)를 따라서 도성(都城)과 지방간의 교통이나 통신이 국가운영상 긴요하게 되어 그 역할을 담당하는 역제(驛制)와 숙박에 관한 원제(院制)가 발달했다. 사람과 물자의 경유지에 설치된 필요시설을 역원(驛院)이라 하였다. 이곳에는 역무에 종사하는 관리 및 이에 종사하는 거주민의 주택이 역 주변에 위치하였는데 이것을 역취락(驛聚落)이라 하고, 역과 근접한 거리에 위치한 숙박을 전문으로 하는 객사(客舍) 중심의 취락을 원취락(院聚落)이라 하였다. 당시의 객사는 객사의 명칭 뒤에 ‘원(院)’자를 써서 표시하였다. ‘○○院’하는 식이다. 본 시에서의 ‘운암(雲巖)’은 그 뒤에 ‘원(院)’을 붙이지는 않았지만, 거주민이 운영하는 숙박시설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운암(雲巖)’이 지명으로 쓰인 예는 앞의 류명희·안유호 역주·감수의 『국역 류성룡 시 I』의 「시84」의 서문과 주석1)의 운암(雲巖) 조항에도 보인다. 또한 「서애연보」 무술(戊

戊: 1598년: 선생 57세) 2월 조항도 참조바람.

2) 관심백려 몽난성(關心百慮夢難成 : 이 생각 저 생각하다 잠을 이루지 못하면서) :

① 관심백려(關心百慮) : 이 생각 저 생각하다.

☆관심(關心) :

a. (사람 또는 사물에 대해) 마음을 쓰다. 관심을 갖다.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b. 관심을 가지고 보살피다. 걱정하다.

c. 주의하다. 유의하다.

☆백려(百慮) : 각종 사려(思慮). 많은(잡다한. 허다한) 생각(견해. 의견).

② 몽난성(夢難成) : 꿈나라에 들기 어렵다. 즉 잠을 이루기가 쉽지 않다.

3) 타설성(打雪聲 : 눈 내리는 소리) :

① 타(打) :

☆구체적인 동사 대신에 쓰인 동사로, 본 시에서는 ‘하설(下雪 : 눈이 오다)’의 ‘하(下 : 내리다, 오다)’ 대신에 쓰인 것이다. ‘타(打)’는 이 밖에도 ‘타초(打草 : 풀을 베어 모으다)’, ‘타수(打水 : 물을 건다)’, ‘타반(打飯 : 밥을 짓다. 밥을 푸다)’…… 등등의 예와 같이 매우 여러 가지 동사 대신에 쓰이는 동사이다. 고로 ‘타설성(打雪聲)’은 눈이 내리는 소리라고 번역할 수 있다.

② 설성(雪聲) : 눈이 내리는 소리.

4) 풍기안경 운육산(風起鴈驚雲欲散 : 바람 불자 기러기 울고 구름마저 갈히더니) :

① 풍기안경(風起鴈驚) : 바람이 불자 놀란 기러기가 울다.

② 운육산(雲欲散) : 구름이 흩어지려고 하다.

5) 일렘잔월 효잉명(一簾殘月曉仍明 : 발 밖의 저가는 달은 먼동 터도 밝으네) :

① 일렘잔월(一簾殘月) : 발 밖의 저가는 달.

☆일렘(一簾) : 발 가득히. 발전체.

a. 일(一) : ‘일(一)’은 수량사(數量詞)로 사용되었다기 보다는 뒤의 ‘렘(簾)’을 수식하는 관형사적 성격이 강하다. 즉 ‘전체의 혹은 가득한’의 의미로 쓰였다.

☆잔월(殘月) :

a. 새벽달. 날이 밝을 때까지 남아 있는 달. 새벽녘까지 지지 아니하고 희미하게 남아 있는 달.

b. 곧 지려고 하는 달을 이르는 말. 거의 다 저가는 달. 본 시에서는 a. b. 어느 것으로 번역해도 무리가 없다.

② 효잉명(曉仍明) : 먼동이 트는 데도 여전히 밝다.



시69. 선달 그믐날 밤에 각화사^{覺華寺}
동암^{東庵}에서 우연히 쓰다

詩69. 除夕在^在覺華寺^{覺華寺}東庵^{東庵}偶題^{偶題}¹⁾
체 석 재 각 화 사 동 암 우 제

繞壁沿溪細逕斜²⁾,
요 벽 연 계 세 경 사

담벼락 두른 듯한 산에 계곡 따라
오솔길 구불구불 이어졌고,

雲林深護梵王家³⁾.
운 립 심 호 범 왕 가

구름 걸친 숲이 묘하게
절을 감싸고 있네.

一窓霽色明殘雪⁴⁾,
일 창 제 색 명 잔 설

창밖은 날이 맑아 잔설^{殘雪}이 선명하고,

千里遙岑散暮霞⁵⁾.
천 리 요 감 산 모 하

아득히 먼 산봉^{山峰}에는 저녁놀 흩어지네.

塵世去來如夢幻⁶⁾,
진 세 기 래 여 몽 환

이 세상은 왔다 가는 것이
덧없는 몽환^{夢幻} 같고,

人生離合似風沙。
인 생 리 합 사 풍 사

사람 살다 헤어짐과 모임이
바람에 날리는 모래와 흡사하네.

若爲學得安心法⁷⁾,
약 위 학 득 안 심 법

만약 안심법^{安心法}을 배워
깨우칠 수만 있다면,

羽化登仙不足誇⁸⁾。
우 화 등 선 부 족 과

날개 돋은 신선이 됐다 해도
과장한다 할 수 없으리.

- 1) 제석 재각화사동암우제(除夕 在覺華寺東庵偶題 : 설날 그믐날 밤에 각화사 동암
東庵에서 우연히 쓰다) :

① 제석(除夕) :

☆1597(정유丁酉)년 설날 그믐날을 가리키는 것임 : 이 시기는 정유재란(丁酉再亂)이 발발했던 시기로 군 지휘관을 통솔하던 자로서 동분서주하였던 때이다. 마침 11월에 명군(明軍)의 경리(經理 : 총사령관) 양호(楊鎬 : ?~1629)와 도독(都督 : 명나라의 주州·군郡 등 지방군이나 해외파병군 사령관. 현재 한국의 사단장과 유사한 등급의 군관임) 마귀(麻貴 : 생몰년 미상)가 왜군과 격전하는 남부지방에 내려가게 되자 선조는 서애에게 이르기를, 명군(明軍)이 주둔할 현장에 명군보다 먼저 도착하여, 군량미를 확보하라고 명했다. 이에 남쪽으로 내려오는 길에 난을 피해 태백산 아래의 도심촌(道心村)에서 피난 중에 계사는 어머니를 12월에 문안하고, 인근 각화사(覺華寺) 부속 암자에서 위의 시를 쓴 것이다. 「서애 연보」 정유(丁酉 : 1597. 서애 56세)년 조항과 아래의 주석1)의 ②를 참조바람.
☆설날 그믐날 밤. 묵은해가 이 날 밤으로 제거되고, 이튿날이면 새해가 되는 까닭에 이르는 말이다.

- ② 각화사(覺華寺) : 경상북도 봉화군(奉化郡) 춘양면(春陽面) 석현리(石峴里) 태백산에 있는 사찰. 대한불교조계종(大韓佛教曹溪宗 : 우리나라 선종禪宗의 총칭) 제16교구 본사(本寺)인 고운사(孤雲寺)의 말사(末寺 : 본사의 지배아래 있는 절)이다. 676년에 원효(元曉 : 신라 후기의 승려로, 성명은 설서당薛誓幢 · 설신당薛新幢 · 설총薛聰의 부친)가 창건하였으며, 1101년에 국사 무애(無礙 : 생몰년 미상)가 중건하였다. 그 뒤 여러 차례의 중건 및 중수를 거쳐, 1777년에는 삼재불입지(三災不入地 : 수재水災 · 화재火災 · 병재兵災가 없는 곳) 중의 하나인 이곳에 태백산사고(太白山史庫)를 건립하여 왕조실록을 수호하게 한 뒤 8백여 명의 승려가 수도하여 국내 3대사찰의 하나가 되었다. 1910년에 도적들이 사고와 절을 불태웠으며, 1926년에 달현(達玄 : 생몰년 미상)이 법당을 비롯한 다섯 동의 건물을 중건하였고, 1970년에 금오(金烏 : 1895~1968 : 성명은 정태광鄭太光 : 법명은 태전太田, 금오는 법호임)가 요사채(寮舍寨 : 절에 있는 승려들이 거처하는 집)를 중건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현존하는 당우(堂宇 : 정당正堂과 옥우루宇라는 뜻으로, 큰 집과 작은 집을 아울러 이르는 말)로는 대웅전(大雄殿)을 비롯하여 2층의 누각인 범종각(梵鍾閣)과 산신각(山神閣) · 요사채 등이 있다. 중요문화재로는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189호로 지정된 귀부(龜趺)와 삼층석탑이 있다. 이 중 귀부는 가로 2m, 세로 1.85m의 방형석(方形石) 위에 놓인 길이 1.75m의 것으로서, 시대나 유래 등은 알 수 없으며, 비신(碑身)은 없으나 복원되어 있다. 삼층석탑은 완전히 도괴(倒壞)된 것을 다시 모아 조성한 것으로, 높이는 약 3m이며 체감률이 낮고 상륜부가 없다. 이 절이 있는 석현리와 인접한 서동리의 춘양중합고등학교 부지에는 각

화사의 전신인 남화사지(覽華寺址)가 있다. 원효는 이 절을 이간하여 각화사를 창건한 뒤, 옛 절인 남화사를 생각한다고 하여 각화사라 하였다는 설이 전한다. 이 남화사지에는 보물 제52호로 지정된 봉화 서동리 삼층석탑 2기가 있으며, 2기 가운데 동탑에서 사리병과 99기의 소형 토탑(土塔)이 둘러 있는 사리장치가 발견되었다. 참고문헌: 문화유적총람(文化遺蹟總覽)(문화재관리국, 1977), 봉화군지(奉化郡誌)(봉화군, 1977). 김위석(金渭錫).

- ③ 동암(東庵): 금봉암(金鳳庵): 각화산(覺花山: 산의 높이가 1,177m로 태백산맥에서 소백산맥으로 갈라지는 기점을 이루고 있음) 중턱에 있는 암자로 각화사의 부속암자이다. 이 암자는 각화사에서 30분 정도 소요되며 고승들이 고행을 하며 수도하는 곳이다.
 - ④ 우제(偶題): 우연히 쓰다(갓다). 한시(漢詩)의 시제(詩題)에 많이 보이는 용어이다.
- 2) 요벽연계(繞壁沿溪細逕斜: 담벼락 두른 듯한 산에 계곡 따라 오솔길이 구불구불 이어졌고):
- ① 요벽연계(繞壁沿溪): 담벼락을 두른 듯한 산 계곡을 따라서.
 ☆요벽(繞壁): 담벼락을 두르다(돌러싸다).
 ☆연계(沿溪): 계곡을 따라.
 a. 연(沿): 전치사로서, ‘...을 따라’라는 뜻이다.
 b. 계(溪): 계곡.
 - ② 세경사(細逕斜: 오솔길이 구불구불하다.
 ☆세경(細逕): 오솔길. 좁은 길. 세로(細路).
 ☆사(斜):
 a. 굽다. 굴곡(屈曲)을 이루다.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b. 기울다.
 c. 비끼다. 비스듬하다.
- 3) 윤림심호 범왕가(雲林深護梵王家: 구름 걸친 숲이 묘하게 절을 감싸고 있네):
- ① 윤림심호(雲林深護): 구름 걸친 숲이 묘하게 ~을 감싸고 있다.
 ☆윤림(雲林): 구름이 걸쳐 있는 숲. 구름이 드리운 숲.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전(轉)하여, ‘은거처(隱居處)’의 뜻으로도 쓰인다.
 ☆심호(深護): 심오하게(묘하게) 감싸고 있다. .
 a. 심(深): 형용사로, ‘심오하다’는 뜻이나, 본 시에서는 부사로 쓰여, ‘아주 잘’의 뜻을 지닌다. 그래서 이를 전(轉)하여, ‘묘하게도’로 번역하였다.
 b. 호(護): 감싸주다. 비호(庇護)하다.
 - ② 범왕가(梵王家): 범왕택(梵王宅): 범왕궁(梵王宮): 이는 모두 불사(佛寺)를 가리키는 말이다.
 ☆범왕(梵王): 색계(色界)*의 초선천(初禪天)*의 대범천왕(大梵天王)*을 가리켜 범왕이라 한다. 선정(禪定)을 통하여 인간의 본능적인 욕망을 벗어난 승려를 높여 이르는 말로 보면 되겠다. 그러나 불교용어인 이 말이 어렵기 때문에 아래에 범왕(梵王)을 풀이한 용어들을 주석(註釋)한다.
 *색계(色界): 불교의 세계관에 ‘삼계(三界)’란 것이 있는데, 이 삼계는 중생(衆生)이 왕래하고 거주하는 세계이다. 중생이 태어나서 죽어 윤회하는 영역으로

서 세 가지 세계, 즉 욕계(欲界)·색계·무색계(無色界)를 아울러 일컬어 삼계라고 한다. 물질적인 세계 안에서 본능적인 욕망이 강력하게 남아있는 곳을 ‘욕계’라 하고, 욕계의 상급단계로서 인간의 추악한 욕망은 다 끊었지만 신심(身心)은 존재하는 천계(天界)로서 물질적인 것이 모두 청정한 세계로 이루어진 곳을 ‘색계(色界)’라고 하며, 불교 세계관 중에서 최상급 영역으로 물질적 존재가치가 전혀 없는 공간에 마음이 조용히 통일되어 안정 상태에 들어있는 삼매(三昧)의 경지를 ‘무색계(無色界)’라고 한다.

*초선천(初禪天): 선정(禪定: 차분한 마음으로 명상하여 번뇌를 가라앉힘)을 통하여 도달할 수 있는 색계의 4가지 영역 중의 첫 번째 선천(禪天: 선정禪定을 통해 도달하는 천상의 경지)을 말한다. 선천(禪天)에는 초선천(初禪天) 외에도 범중천(梵衆天)·범보천(梵輔天)·대범천(大梵天)의 영역이 있는데, 이 4가지 영역을 아울러 일컬어 사중천(四重天)이라 한다.

*대범천왕(大梵天王): 초선천(初禪天)의 왕을 대범천왕이라 한다. 사바세계(娑婆世界: 인간계·세속계·인간이 사는 이 세상)를 지배한다고 한다.

4) 일창제색 명잔설(一窓霽色明殘雪: 창밖은 날이 맑아 잔설殘雪이 선명하고):

① 일창(一窓): 창문에 가득하다.

☆일(一): 형용사 술어로 쓰여, ‘전부. 가득하다’의 뜻으로 해석된다. 그리하여, 본 시에서의 ‘일창(一窓)’은 술+보(述補)구문으로 해석하여, ‘(햇볕이) 창에 가득하다.’로 번역하였다.

② 제색(霽色):

☆청량한 (상쾌한. 시원한) 하늘빛. 날씨가 맑은 것을 형용한 말이다.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a. 제(霽): (눈이나 비가 그치고) 날이 맑다. 쾌청하다. 청량(晴朗)하다.

☆온화한 안색(顔色: 얼굴빛). 표정. 기색(氣色).

a. 제(霽): 노여움이 풀리다(가시다).

③ 잔설(殘雪): 녹다가 남은 눈.

5) 천리요잠 산모하(千里遙岑散暮霞: 아득히 먼 산봉山峰에는 저녁놀 흩어지네):

① 천리요잠(千里遙岑): 아주 멀게 보이는 산봉우리.

☆천리(千里): 천리. 길이 아주 멀거나 면적이 아주 넓은 것을 형용한 말이다.

☆요잠(遙岑): 멀리 보이는 산봉우리.

a. 잠(岑): 산봉(山峰). 산봉우리.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b. 작으면서도 높은 산. 벼랑. 산애(山崖). 애안(崖岸).

② 모하(暮霞): 저녁 놀.

6) 진세거래 여몽환(塵世去來如夢幻: 이 세상은 왔다 가는 것이 덧없는 몽환夢幻 같고):

① 진세거래(塵世去來: 이 세상에 왔다가 떠나가다):

☆진세(塵世): 속세. 이 세상. 인간세상.

☆거래(去來): 왔다가 떠나가다.

**서애주석: 작가 서애(西厓)는 “이 세상은 오는 것이나 가는 것이나 똑 같다(塵世去來如)”는 말을 ‘세상사란 변천하는 것이 진리이다(진실이다)’는 말로도 쓸 수 있다(一作, 世事變遷眞).”고 하였다.

- ② **몽환(夢幻)**: 꿈과 환상이란 뜻으로, 몽환경(夢幻境: 공상, 도취 따위에 의하여 마음 속에서나 그려지는 환상의 세계)을 가리키는 말이다. 인생은 잠시 왔다 떠나기 때문에 한비당의 몽환(夢幻)으로 표현한 것이다.
- 7) **약위학득 안심법(若爲學得安心法)**: 만약 안심법을 배워 깨우칠 수만 있다면:
- ① **약위학득(若爲學得)**: 만약 안심법(安心法)을 배울 수 있다면
 ☆약위(若爲): 반문(反問)을 표시하는 사어(詞語)로, 다음의 여러 가지 뜻으로 해석된다.
- a. 가정을 나타낼 때: ‘만약(만일·가령) ~한다면’의 뜻으로 쓴다.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 b. 성질·상황·방식 등을 묻거나 가리키면서 형용하는 것을 표시할 때: ‘어떠하다. 어떻게 하다. 어떤 것이냐’ 등으로 해석한다.
 - c. 회의(懷疑), 즉 의심을 표시할 때: ‘...할 수 있을까? ...한다면’의 뜻으로 해석한다.
 - d. 추측을 나타낼 때: ‘어찌...할 수 있을까?’라는 뜻으로 해석한다.
- ☆학득(學得): 배워서 깨우치다.
- ② **안심법(安心法)**: 역대 유학자들은 학문의 목표를 성인(聖人)이 되는 것에 두었고, 도학자(道學者)들은 성인군자가 되기 위해 ‘안심법’을 평소의 화두(話頭)로 마음에 새기며, 심성(心性)을 닦는 일에 주력하였다. 바로 이러한 관심은 『중용장구(中庸章句)』에 보인다. 여기에서, 자사(子思: BC 492~BC 431)는 도통(道統)이 실전될 것을 우려하여, 『서경(書經)·대우모(大禹謨)』의 16자법(字法)을 근거로 요(堯) 임금의 순(舜) 임금에게 전수해주었다는 “진실로 그 중정(中正)의 도道を 잡으라(允執厥中).”는 말과, 순임금이 여기에 새로운 세 마디, 즉 “인심은 위태롭고 도심은 은미하기 때문에, 오로지 (인심과 도심을) 세심하게 분별하고, 오직 도심만을 한결같이 간직해야 한다(人心惟危, 道心惟微, 惟精惟一).”는 말을 덧붙여서, 우(禹) 임금에게 총 16자(人心惟危, 道心惟微, 惟精惟一, 允執厥中.)의 심법(心法)을 전해주었다. 송대에 와서 주희(朱熹: 1130~1200)는 이 심법(心法)을 근간으로 “마음은 몸의 주체다(心者, 身之主也).”라고 했고, 또한 “마음은 성과 정을 통솔한다(心統性情).”라는 심성론(心性論)의 요체를 제시하여, 거경궁리(居敬窮理)로써 마음을 닦을 것을 주장하였다.
- 불교용어에서는 이 ‘안심법’을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방법’이라고 한다.
- 앞의 「시54」의 주석8)의 ‘정일(精一)’ 조항을 참조바람.
- 8) **우화등선 부족과(羽化登仙不足誇)**: 날개 돋은 신선이 된다 해도 과장한다 할 수 없으리):
- ① **우화(羽化)**: 날아가는(날개가 돋은) 신선이 되다. 날개가 생겨 하늘을 나는 신선이 되다.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 ☆도교에서는 교도(教徒)들의 ‘사망’에 대한 완곡한 말로 쓴다.
- ☆곤충이 애벌레 또는 번데기에서 성충(成蟲)으로 자라는 과정을 이르는 말.
- ② **등선(登仙)**: 등선(登僊)으로도 쓴다.
- ☆신선이 되다.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 ☆명성이 급격히 높아지거나 갑자기 지위 높은 벼슬을 하게 된 것을 비유하는 말.
- ☆지난(至難): 지극히 어려운 것을 비유한 말.

③ 부족(不足):

☆불가(不可)하다. ...할 수 없다.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부족하다.

☆...할 가치(필요)가 없다. ...라고 하기에 부족하다.

☆어렵지 않다.

☆부진(不盡: 다하지 못함. 끝내지 못함. 완전하지 못함)과 같은 말로 쓴다.

****역자해설:** 본 시의 결어이구(結語二句): 본 시의 주제를 표현하고 있다. 본 시의 시적배경은 정유재란(丁酉再亂)이 발발했던 시기로 이미 국사를 총지휘한지 오래된 데다가 선생의 올곧은 성품으로 인해, 여기저기서 백가지 계책으로 선생을 모함하였다. 선생은 이러한 와중에서 안심법(安心法)을 통한 '무우(無憂)'의 경계를 얼마나 간절하게 소망했는지를 드러내고 있다. 「서애연보」 정유(丁酉: 1597년: 서애 56세)년 조항에서 당시에 선생의 고충을 헤아릴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들을 참조바람.



시70. 승려 태운에게 써 주다

詩70. 贈太雲¹⁾ 증 태 운

승려 태운(太雲)은 나를 위해서 옥연정사를 근 10년 동안 관리해왔다. 지난 겨울, 내가 산중에서 타항살이 하며, 친지와도 왕래를 끊고 있을 때, 태운이 하회에서 와서, (나를) 동반해주며 돌아가지 않았다. 어느 날 그가 시축(詩軸)을 내놓았는데, 그 두루마리에는 내가 신사년(辛巳年: 1581년 서애 40세) 봄에 지은 시가 있었으니, 그 시는

僧太雲, 爲余看護玉淵精舍²⁾, 殆³⁾十年. 前冬, 余羈寓⁴⁾山中,
증 태 운, 위 여 간 호 옥 연 정 사, 태 십 년 전 동, 여 기 우 산 중,
親知斷絕, 雲自河上來⁵⁾, 相隨⁶⁾不去. 一日⁷⁾, 出詩軸⁸⁾,
친 지 단 절, 운 자 하 상 래, 상 수 불 거 일 일, 출 시 축,
有余辛巳春所題云:
유 여 신 사 춘 소 제 문

“낙동강 강변에 새싹이 갓 돌아나니, 細草初生洛水湄⁹⁾,
역참 남쪽 매화가지도 곧 꽃망을 터뜨리겠네. 梅花又發驛南枝.
황혼녘에 팔짱 끼고 처마 앞 거닐며 흥겨운데, 斜陽獨抱巡簷興¹⁰⁾,
우연히 승려가 펼친 두루마리에 시 한 수 써줬네. 偶寫山僧軸裏¹¹⁾詩.¹²⁾”

라고 읊었던 것이었다. (그 후) 잠깐 동안이었건만, 이미 19년이나 지났다. 내가 노쇠하여 생기는 병이 이와 같으니, 다시 지난날의 정취를 회복할 수 없어, 재차 그 시의 운자(韻字)를 써서 여기에 한 수 읊는다.

俯仰之間¹³⁾, 已十九年矣. 而衰病如許¹⁴⁾, 無復¹⁵⁾舊日情致, 再和其韻¹⁶⁾.
부 앙 지 간 이 십 구 년 의 이 쇠 병 여 허 무 복 구 일 정 지 재 화 기 운

春風又到曲江湄¹⁷⁾, 春풍이 굽이도는 강기슭에
춘 풍 우 도 곡 강 미
거듭 불어오니,

紅入桃花更幾枝¹⁸⁾
홍 입 도 화 경 기 지

붉게 물든 복사꽃이 몇 가지에
연이어 피네.

桑田海水眞朝暮¹⁹⁾
상 천 해 수 진 조 모

뽕밭이 바다 되 듯
세상사 실로 조석으로 변하는데

舊物²⁰⁾唯存一首詩。
구 물 유 존 일 수 시

예전 물건 보존된 게 이 시 한 수뿐일세.

-
- 1) 태운(太雲): 모(某) 승려의 법명(法名). 이력은 미상. 류명희·안유호 역주·감수 『국역 류성룡 시 I』 「시94」의 서문을 참조바람.
 - 2) 위여간호옥연정사(爲余看護玉淵精舍: 나를 위해 옥연정사를 관리하다):
 - ① 위여간호(爲余看護): 나를 위해 …을 보호관리 하다.
 - ② 옥연정사(玉淵精舍): 앞의 「시47」의 주석1) ‘옥연정사(玉淵精舍)’ 조항을 참조바람.
 - 3) 태(殆): 부사로 쓰였으며, ‘거의. 근(近: 수량을 나타내는 말 앞에 쓰여, 그 수량에 거의 가까움을 표시하는 말)’의 뜻으로 쓰였다.
 - 4) 기우(羈寓): 기우(羈寓)라고도 쓰며, ‘기거(寄居)하다, 여거(旅居: 객지에 머물다)하다’는 뜻으로 쓰였다.
 - ① 기(羈): 객지에 머물다. 타관살이하다.
 - 5) 운자하상래(雲自河上來: 승려 태운이 하에서 오다):
 - ① 운(雲): 승려 태운(太雲)을 약칭한 말.
 - ② 자(自): 개사(介詞: 전치사)로 ‘…부터, …에서’의 뜻으로 쓰였으며, 장소의 출발점을 나타낸다.
 - ③ 하상(河上): 강변. 본 시에서는 ‘낙동강 강변’을 가리키며, 이는 곧 지금의 ‘하회(河回) 마을’을 가리키는 말로 쓰였다. 역대로 일컬어진 ‘하회마을의 명칭’을 보면, 곡강(曲江)·강촌(江村)·하외(河隈)·하곡(河曲) 등이다. 마을의 이름을 ‘하회(河回)’라고 한 것은 낙동강이 하회마을을 굽이돌아 흘러 풍수 지리적으로 태극형(太極形)·연화부수형(蓮花浮水形)·행주형(行舟形)으로 일컬어지는데서 근거한다. 고로, 마을의 주산(主山)은 화산(花山)이라 부르고 부용대 앞을 흐르는 낙동강은 화천(花川)이라고 이름을 붙였다. 낙동강의 상류인 화천은 동(東)에서 서(西)로 흘러와서 다시 동쪽으로 역류하다가 서쪽으로 굽이쳐서 흘러가게 된다. 그래서 화천이 마을을 돌아간다고 하여, ‘물돌이 마을, 곧 하회’라는 이름을 얻게 된 것이다.
☆상(上): ‘상(上)’은 명사 뒤에 쓰여서 ‘물체의 표면, 강변, 일정한 장소나 범위, 모종(某種)의 연고(緣故)’ 등을 나타내는데, 본 시에서는 ‘강변이자 장소’를 표시하는 뜻으로 쓰였다.
 - 6) 상수(相隨): 상수(相隨)로도 쓰며, 상호 의존함을 이른다. 본 시에서는 ‘동반하다,

- 수반하다.’의 의미로 쓰였다.
- 7) 일일(一日): 어느 날. 모일(某日).
- 8) 시축(詩軸): 시를 적어 놓은 두루마리(권축卷軸).
- ① 축(軸): 서화(書畵) 같은 것을 포장하여 두루마리 할 때 쓰는 축. 또는 두루마리 그 자체를 이르는 말. ‘두루마리’는 가로로 길게 이어 돌돌 등글게 만 종이로, 글을 쓸 때 쓴다.
- 9) 세초초생 낙수미(細草初生洛水湄: 낙동강 강변에 새싹이 갓 돌아나니):
- ① 초생(初生): 갓 돌아나다.
- ② 낙수미(洛水湄): 낙동강 강변.
☆낙수(洛水): 낙동강.
☆미(湄): 물가. 강변.
- 10) 사양독포 순침흥(斜陽獨抱巡簷興: 황혼녘에 팔짱끼고 처마 앞 거닐며 흥겨운데):
- ① 독포(獨抱): 팔짱을 끼다.
☆포(抱): 껴안다.
- ② 순침흥(巡簷興): 처마 앞 거닐며 흥겹다.
☆순침(巡簷): 처마 앞을 거닐다.
☆흥(興): 흥겹다.
- 11) 축리(軸裏): 두루마리에.
- ① 리(裏): 명사 뒤에 붙어서 장소나 시간 또는 범위를 나타내는데, 본 시에서는 두루마리의 지면(紙面)을 가리킨다.
- 12) **역자주석: 본 서문에서의 이 시의 시제(詩題)는 「원지정사遠志精舍에 매화가 피기 시작함에, 매화나무 주변을 거닐면서 시를 읊는데, 마침 시 한 수를 요구하는 승려가 있어, 창졸간에 한 수 지어서 증장하다(精舍, 梅花始開, 方繞樹行吟, 適有求詩造次寫贈)」이다. 이 시는 류명희·안유호 역주·감수의 앞의 책 권1의 「시17」에 수록된 시인데, 역자가 이번 번역에서 일부를 수정하였다.
- 13) 부양지간(俯仰之間: 잠깐 동안):
- ① 부양(俯仰): 짧은 시간 동안을 비유한 말.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 ② 지간(之間): ...의 사이(틈).
- 14) 쇠병여허(衰病如許: 노쇠하여 생기는 병이 이와 같다):
- ① 쇠병(衰病): 쇠약해져서(노쇠하여) 생기는 병.
- ② 여허(如許):
☆이와 같다. 본 서문에서는 이와 같이 쓰였다.
☆이만큼. 이렇게 많은 것.
- 15) 무복(無復): 회복할 수 없다.
- 16) 화운(和韻): 남이 지은 시의 운자를 써서 답시를 짓는 것을 말한다. 본 시에서는 서애자신의 시(류명희·안유호 역주 감수한 앞의 책 권1의 「시17」)의 운자(韻字)에 화운한 것이다. 앞의 「시20」의 주석1)의 ② ‘차운(次韻)’ 조항을 참조바람.
- 17) 곡강미(曲江湄): 굽이도는 강기슭. 여기서는 하회마을의 강변에 봄이 도래한 것을 언급하였다.
- ① 곡강(曲江): 굽이도는 강. 여기서는 서애선생의 고향인 하회(河回) 마을을 칭한 것으로 보인다. 자세한 것은 본시의 주석5)의 ③ ‘하상(河上)’ 항목을 참조바람.

- ② 미(湄) : 강변. 물가.
- 18) 홍입도화 갱기지(紅入桃花更幾枝 : 붉게 물든 복사꽃이 몇 가지에 더 피겠네) :
- ① 홍입도화(紅入桃花) : 붉게 물들여진 도화(桃花).
- ☆홍입(紅入) : 붉은 색이 스며들다(배어들다. 삼입滲入하다)
- ② 갱기지(更幾枝) : 다시 몇 가지에 연이어 피다.
- ☆갱(更) : 접속하다. 잇다. 계속하다. 연속하다.
- ☆기지(幾枝) : 몇 개 가지.
- 19) 상전해수 진조모(桑田海水眞朝暮 : 뽕밭이 바다 되듯 세상사 실로 조석으로 변하는데) :
- ① 상전해수(桑田海水) : 상전벽해(桑田碧海) : 상전창해(桑田滄海) : 뽕나무 밭이 변하여 푸른 바다가 된다는 뜻으로, 세상일의 변천이 심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 ② 진조모(眞朝暮) : 실로 조석으로 변하다.
- ☆진(眞) : 부사로써, ‘실로 참으로 정말로’ 등의 뜻으로 쓰였다.
- ☆조모(朝暮) : 조모(朝莫)로도 쓰며, 조석(朝夕)의 뜻이다.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 a. 조만간에. 머지않아. 곧.
- b. 시시(時時)로. 시각마다. 항상. 언제나. 늘.
- 20) 구물(舊物) :
- ① 오래된(예전의) 물건.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 ② ‘옛날의 전장제도(典章制度 : 규범과 규칙, 법률과 제도)’를 가리킨다.
- ③ 선인(先人)의 유물(遺物).



시71. (기해년己亥年: 1599년) 2월에, 나는 도심촌道心村을 떠나 하회리河回里 집으로 왔다. 전前 경산현령慶山縣令 이준李浚은 회재晦齋 이언적李彦迪 선생의 손자인데, 경주에서 나를 보러 오셨기에, (공손이) 떠날 즈음에 시 한 수를 써서 증정한다.

詩71. 二月¹⁾ 余自道心出河庄²⁾ 前慶山縣令李浚³⁾
 이 월 여 자 도 심 출 하 장 전 경 산 현 령 이 준
 晦齋先生⁴⁾之孫也 從慶州來訪 臨去⁵⁾以詩爲贈
 회 재 선 생 지 손 야 종 경 주 래 방 임 기 이 시 위 증

此去桃花洞⁶⁾,
 차 거 도 화 동

이번에 (공께서) 돌아가시는
 도화동桃花洞은

迢迢七舍餘⁷⁾.
 초 초 칠 사 여

멀고멀어 이백 여리나 되지요.

獨來殘雪後⁸⁾,
 독 래 잔 설 후

(저도) 잔설殘雪만 녹고 나면,

遙訪故人居⁹⁾.
 요 방 고 인 거

회재晦齋 선생의 은거지를
 답방答訪하리다.

舊義今猶在¹⁰⁾,
 구 의 금 유 재

(공께서는) 지난날의 의리義理를
 지금도 여전히 증시하고 있으니,

交情病未疎¹¹⁾。
교 정 병 미 소

우정은 괴롭고 힘들어도
소원해지지 않는구려.

春風一相別¹²⁾，
춘 풍 일 상 별

춘풍이 부는데 우리는 서로 이별해야
하다니,

危涕各漣如¹³⁾。
위 체 각 련 여

슬피 울며 두 사람 모두 줄줄 눈물
흘리네요.

1) 이월(二月): 「서애연보(西厓年譜)」에 의하면, 무술년(戊戌年: 1598년) 12월에 도심촌(道心村)에 계신 모친을 찾아뵙고, 기해년(己亥年: 1599년) 2월에 하회로 돌아왔다고 했으니, 여기서의 '2월'은 '1599년(기해년己亥年, 서애 58세) 2월'이다.

2) 여자도심출하장(余自道心出河庄: 나는 도심촌에서 하회리 집으로 오다):

① 도심(道心): 도심촌(道心村): 지금의 경북 봉화군(奉化郡) 춘양면(春陽面) 도심1리(道心一里)이다.

봉화군 춘양면의 '우리 고장 소개'에서 '도심1리에 대한 지명유래'를 보면, 관련 자료가 다음과 같이 보인다.

☆감나무 모태·구렁마: 임진왜란 당시 류성룡의 백씨 겸암 류운룡이 지금의 감동골에 움막을 짓고 부모님을 모시고 피난을 하면서 뒤 곁에 감나무를 심었는데 큰 나무가 되어 감나무 모태(모퉁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한다.

☆감동골·현동(玄洞): 산이 현(玄)자 모양으로 이리저리 틀며 내려왔다고 하여 현동이라 부르게 되었다고도 하며, 감을 현(玄)자를 쓰고 있어 농사가 가물어 짓지 못했던 곳이었으나 겸암선생의 공부터에 작은 돌을 세우고 기우제를 지내면 효험이 있다고 해서 이후부터 감동곡(感動谷)이라 했는데 이는 하늘이 감동하여 붙여진 고을명이라고 전한다.

☆겸암공부터: 임진왜란 때 감동골 후미지고 외딴 곳에 피난하여 움막을 짓고 돌로 단을 쌓아 역학을 하면서 공부에 열중하고 축지법을 연마하였다 석단이 있는 곳은 구국일념으로 치성을 올렸던 곳이며, 또 기우제를 지내기 시작한 곳이기도 하다.

☆도심곡(道心谷: 道深谷): 부족국가시대에 고구려국의 왕성이 있었던 도심리는 강원도 영월군으로 넘어가는 도력현(道力峴: 도래기재)과 태백산, 황지, 삼척으로 연결되는 고직령 옛길과 가뭇재를 넘어 봉성과 봉화로 가는 길과 춘양시장이 있었던 장동(獐洞)을 거쳐 소천 삼동으로 통하는 교통요지로서 삼국시대부터 도심역이 있었고 규모는 중마·소마 합해서 10필 내외였으나 역원은 60명 정도로 전해지고 있다. 도심은 골이 깊어 도심(道深)이라 했는데 그 후 인심이 좋다하여 도심(道心)이라 부르게 되었다. 본래는 안동군 춘양면의 한 지역이었는데 고종 10년 봉화군에 편입되었고 1914년 행정구역 조정에 따라

도심이라 부르게 되었으며 그 후 1, 2, 3리로 행정구역이 조정되었으며 현재는 새터, 죽터, 황터로도 많은 사람들이 부르고 있다.

② 출하장(出河庄: 하회마을로 오다):

☆출(出):

- a. ...로 들어간다.
- b. ...를 향해 나아가다.

☆하장(河庄): 하회(河回)의 집.

- a. 하(河): '하회(河回)'의 약칭으로 쓰였다. 이외에, 하상(河上)·하회(河回)·물돌이동·곡강(曲江)·강촌(江村)·하외(河隈) 등으로도 불리어졌다. 지금의 경북 안동시 풍천면 하회리(河回里)의 옛 마을 이름이다. 앞의 「시70」의 주석5)의 ③ '하상(河上)'항목을 참조바람.
- b. 장(庄): '장(莊)'의 속자(俗字)로서, 촌장(村莊: 촌집: 촌가村家), 교외에 있는 주택, 별서(別墅: 별장)의 뜻이다. 본 시에서는 '촌집, 촌가(村家)'의 뜻으로 '하회에 있는 선생의 본가'를 가리킨다.

3) 전경산현령 이준(前慶山縣令 李浚: 전前 慶山縣令 李浚李浚):

① 이준(李浚: 1540~1623): 조선 중기의 무신. 본관은 여주(驪州). 자는 청원(淸源), 호는 구암(求庵). 증조부는 숙한(叔翰) 이번(李蕃: 1463~1500)이고, 조부는 영의정으로 추증된 회재(晦齋) 이언적(李彦迪)이며, 부친은 예빈시정(禮賓寺正: 예빈시禮賓寺의 정正(예빈시의 장관): '예빈사'는 조선시대에 외국빈객의 연향宴享과 왕실중전 가운데 으뜸인 대군이나 왕자군들의 식생활을 관리하던 관청이고, '정正'은 '예빈사'의 장관임)으로 추증된 잠계(潛溪) 이진인(李全仁: 1516~1568)이다. 여러 명현(明賢)의 문하에서 수학하고 효성이 지극했다. 조부인 회재의 문집 서문을 받아 출간하고, 옥산서원(玉山書院: 경북 경주시慶州市 안강읍安康邑 옥산리玉山里에 있는 서원으로 사적 제154호 1572년 경주부윤 이제민李齊民과 도내 유림들의 공의로 이언적의 덕행과 학문을 추모하기 위해서 건립했음)을 건립했다. 제례(祭禮)를 겸하여 많은 토지를 헌납하고 영구히 받들어 지킬 도(道)를 닦았다. 1593년(선조 26) 임진왜란 때 평안북도 영변군(寧邊郡)에 미곡(米穀)을 헌납하여 군사들의 식량을 도왔다. 또한 화왕산(火旺山: 경남 창녕군昌寧郡 창녕읍과 고암면高巖面 경계에 있는 산. 높이는 757m) 회맹(會盟: 의병장 곽재우(郭再祐)가 군사상 요충지인 화왕산에서 의거義擧한 모임에서의 맹세)에 동참하여 수어(守禦)에 대비하였고, 권유로 무과에 합격했다. 관직은 경산현령(慶山縣令)을 거쳐 군기시첨정(軍器寺僉正)·만경현령(萬頃縣令)·청도군수(淸道郡守)가 되었고 품계는 통정대부(通政大夫)에 이르렀다. 재임 때는 가는 곳마다 청렴(淸廉)·근신(謹愼)하고 백성을 애휼(愛恤)하는 등 선정을 베풀었다. 저서로 『구암유고(求庵遺稿)』 1책 2권이 있다.

4) 회재선생(晦齋先生): 회재(晦齋) 이언적(李彦迪):

① 이언적(李彦迪: 1491~1553): 조선 중기의 성리학자. 본관은 여주(驪州). 자는 복고(復古), 호는 회재(晦齋)·자계옹(紫溪翁)이고, 참군 수회(壽會)의 손자로, 생원 번(蕃)의 아들이며, 어머니는 경주 손씨(慶州孫氏)로 계천군 소(鷄川君昭)의 딸이다. 초명은 적(迪)이었으나 중종의 명으로 언(彦)자를 더하였다. 24세에 문과에 급제하여 벼슬길에 나섰다. 이조정랑·사헌부장령 밀양부사를 거쳐 1530년(중종 25) 사간이 되었다. 이때 김안로(金安老: 1481~1537)의 등용을 반대하

다가 관직에서 쫓겨나 경주의 자옥산(紫玉山)에 들어가서 성리학연구에 전념하였다. 1537년 김안로 일당이 몰락한 뒤에 종부시첨정(宗府寺僉正)으로 불려나와 홍문관교리(弘文館校理)·응교(應敎)·직제학(直提學)이 되었고 전주부윤(全州府尹)에 나가 선정을 베풀어서 송덕비가 세워졌다. 이때 조정에 「일강십목소(一綱十目疏)」를 올려 정치의 도리를 논하였다. 이조·예조·형조의 판서를 거쳐 1545년(명종 즉위년)에 좌찬성(左贊成 : 의정부의 종1품 관직)이 되었다. 이때 윤원형(尹元衡 : ?~1565) 등이 선비를 축출하는 을사사화(乙巳士禍)를 일으켰을 때 추관(推官)이 되어 선비들을 심문하는 일을 맡았지만 자신도 관직에서 물러났다. 1547년 윤원형 일당이 조작한 양재역 벽서사건(良才驛壁書事件)에 무고하게 연루되어 평안도 강계(江界)로 유배되었고 그곳에서 많은 저술을 남겼으나 63세로 죽었다. 이언적은 조선조 유학, 곧 성리학의 정립에 선구적인 인물로서 유학의 방향과 성격을 밝히는 데 중요한 구실을 하였다. 그것은 주희(朱熹 : 1130~1200)의 주리론적(主理論的) 입장을 정통으로 확립하는 것이다. 그는 스승으로부터 뚜렷하게 계승받은 것이 아니고, 독자적으로 학문을 수렵하였다. 다만 그의 호를 회재라 한 것은 회암(晦庵 : 주희의 호)의 학문을 따른다는 견해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는 27세 때 당시 영남지방의 선배학자인 손숙돈(孫叔墩 : 생몰년 미상)과 조한보(曹漢輔 : 생몰년 미상) 사이에 토론되었던 성리학의 기본쟁점인 무극태극논쟁(無極太極論爭)에 뛰어들어 주희의 주리론적 견해에서 손숙돈과 조한보의 견해를 모두 비판하여 자신의 학문적 견해를 밝혔다. 물론 이언적은 이 논쟁에서 이기론(理氣論)의 주리론적 견해로서 이선기후설(理先氣後說)과 이기불상잡설(理氣不相雜說)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이우위설(理優位說)의 견해는 이황(李滉 : 1501~1570)에게로 계승되는 영남학파의 성리설에 선구가 된다. 그가 여기에서 벌인 태극의 개념에 관한 논쟁은 조선조 성리학사에서 최초의 본격적인 개념논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는 사화(士禍)가 거듭되는 사림(士林 : 유림儒林)의 시련기에 살았던 선비로서 을사사화 때는 그 자신이 좌찬성·판의금부사(判義禁府事 : 의금부의 으뜸벼슬, 종1품)의 중요한 직책으로 사람과 권력층 간인 사이에서 억울한 사람의 희생을 막으려고 노력하다가 마침내 자신이 사화의 희생물이 되고 말았다. 이이(李珣 : 1536~1584)는 그가 을사사화 때 끝은 말로 항거하여 절개를 지키지 못하였다고 비판하였다. 그러나 그는 불의와 타협하지 않으면서도 온건한 해결책을 추구하였던 인물이다. 그는 만년에 유배생활을 하는 동안 큰 업적이 되는 중요한 저술들을 여럿 남겼다. 곧 『구인록(求仁錄)』(1550), 『대학장구보유(大學章句補遺)』(1549), 『중용구경연의(中庸九經衍義)』(1553), 『봉선잡의(奉先雜儀)』(1550) 등이다. 『구인록』(4권)은 유교경전의 핵심개념으로서 인(仁)에 대한 그의 집중한 관심을 보여주고 있다. 그는 유교의 여러 경전과 송대 도학자들의 설(說)에 인(仁)의 본체와 실현방법에 관한 유학의 근본정신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대학장구보유(大學章句補遺)』(1권)와 『속대학혹문(續大學或問)』(1권)은 주희의 『대학장구(大學章句)』나 『대학혹문(大學或問)』의 범위를 넘어서는 그의 독자적인 학문세계를 제시하고 있다. 이 점에서 그는 뒤따르는 도학자들보다 훨씬 자율적인 학문태도를 가졌다. 곧 주희가 『대학장구(大學章句)』에서 제시한 체계를 개편하였다. 특히 주희가 역점을 두었던 격물치지 보망장(格物致知補亡章)을 그는 인정하지 않고, 『대학장구(大學章句)』의 경(經) 1장에 들

어있는 두 구절을 격물치지 장으로 읊기는 계획을 하였으며, 이런 개편에 대해서 주희가 다시 나오더라도 이것을 따를 것이라는 확신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그의 태도는 주희의 한 글자 한 구절을 금과옥조로 삼아 존송하는 후기의 학문태도에 비하여 매우 창의적인 학문정신을 보여준다. 『중용구경언의(中庸九經衍義)』(29권)는 그의 미완성 절필이다. 이 저술도 주희의 『중용장구』나 『중용혹문』의 체계를 훨씬 벗어나서 천하국가를 통치하는 방법의 9경(九經:修身·尊賢·親親·敬大臣·體群臣·子庶民·來百工·柔遠人·懷諸侯)을 중심으로 중용정신을 밝히려는 독창적인 저술이다. 이 저술은 진덕수(眞德秀)의 『대학연의』가 대학체계를 통치원리의 구체적 실현방법에 응용하였던 것에 상응한 저술이요, 뒷날 이현일(李玄逸: 1627~1704)이 『홍범연의(洪範衍義)』를 저술한 것에 선행한다고 할 수 있다. 그는 주희가 『대학』과 『중용』을 표출시킨 의도를 계승하면서도 『대학』과 『중용』의 정신을 수기(修己)와 치인(治人)의 양면으로 파악함으로써 도학의 통치원리를 선명하게 제시하는 창의적 견해를 가졌다고 하겠다. 『봉선잡의(奉先雜儀)』(2권)는 도학의 실천적 규범인 예서를 제시한 것으로서 조선조 후기 예학파의 선구가 되고 있다. 주희의 『가례(家禮)』가 조선조 사회에 미친 영향을 주목한다면, 이언적의 예학저술은 그의 학문적 관심이 얼마나 광범하였던가를 보게 한다. 그가 임금에게 올렸던 상소문으로서 『일강십목소(一綱十目疏)』와 『진수팔규(進修八規)』는 군주사회의 통치원리를 제시한 것이다. 하늘의 도리, 곧 천도에 순응하고 백성의 마음, 곧 인심을 바로 잡으며 나라의 근본을 배양하여야 한다는 왕도정치의 기본이념을 추구하였으며, 도학적 경세론의 압축된 체계를 제시하고 있다. 『일강십목소(一綱十目疏)』에서 근본의 일강령은 ‘임금의 마음씀(인주(人主之心術))으로 규정하고, 10조목으로는 가정법도의 엄숙, 국가근본의 배양, 조정기강의 정대, 인재취사의 신중, 하늘도리에 순응, 언론을 넓힘, 사치욕심의 경계, 군자의 길을 닦음, 일의 기미를 살핌을 도모하도록 요구하고, 27세에 지은 「오잠(五箴)」에서도 하늘을 두려워함(畏天), 마음을 배양함(養心), 공경하는 마음(敬心), 허물을 고침(改過), 의지를 독실하게 함(篤志)을 들고 있다. 그는 하늘[天道·天心]과 백성[人心]에 순응하며, 마음을 다스리는 수양(養心·敬心)에 힘쓸 것을 중요시하는 도학덕 수양론을 경세의 근본으로 삼고 있다. 그는 조선조 도학의 학문과 실천에 모범이 되는 우뚝한 봉우리였다. 1610년(광해군 2) 문묘에 종사되었고, 경주의 옥산서원(玉山書院) 등에 배향되고 있다. 시호는 문원(文元)이다.

5) 임거(臨去): 돌아갈 때, 돌아갈 즈음.

① 임(臨): 개사(介詞)로서, 동사 ‘거(去)’ 앞에 쓰여, ‘…할 때, …할 즈음’의 뜻으로 쓰였다.

6) 도화동(桃花洞): 도화원(桃花源)*을 가리키며, 전(轉)하여 ‘은거지’를 가리키기도 하는데,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곧 이준(李濬)이 은거하는 곳으로 지금의 양동마을*(화재 이언적 선생이 은거했던 곳)을 뜻하는 말로 쓰였다.

*도화원(桃花源): 중국 동진(東晉)의 문인 도잠(陶潛: 도연명陶淵明: 365~427)의 산문 「도화원기(桃花源記)」에서, 무릉(武陵) 지방의 어떤 어부가 도화원에서 길을 잃어 해마다가 산속에 있는 작은 동굴에 들어갔는데, 그곳에 진(秦)나라 시대 피란자들의 후예가 살고 있는 것을 봤는데, “토지는 평탄하고 넓었으며, 가옥이 가지런

하게 늘어서 있고, 비옥한 밭과 아름다운 못이며 뽕나무 대나무 같은 것들도 있었다(土地平曠, 屋舍儼然, 有良田美池桑竹之屬). 밭 사이의 길은 사방으로 통하고, 닭과 개소리가 곳곳에서 들렸다(阡陌交通, 雞犬相聞). 그 가운데에서 사람들이 왕래하며 밭을 갈고 있었는데, 남녀의 옷차림이, 모두 바깥세상의 사람들과 같았다(其中往來種作, 男女衣著, 悉如外人). 노인과 어린이, 모두가 기쁜 듯이 저마다 즐거워하고 있었다(黃髮垂髫, 並怡然自樂).”고 한 구절이 있다. 어부가 동굴을 나왔다가, 다시 그 동굴을 찾아 나섰지만 끝내 길을 잃고, 그곳에 가는 길을 찾지 못했다. 후에, 사람들이 이 글 속에 나오는 도화원이란 곳을 ‘피세(避世)하여 은거하는 곳’이란 뜻으로 썼고, ‘이상적인 경지’란 뜻으로도 썼다. 도원경(桃源境: 이 세상이 아닌 무릉도원의 아름다운 경지)이란 말도 여기에서 나왔고, 도원향(桃園鄉: 이상향 理想鄉: 유토피아Utopia)이란 말도 여기에서 나왔다. 본 시에서는 ‘은거자’를 뜻하는 말로 쓰였다.

*유신(劉晨: 생몰년 미상): 이는 동한(東漢) 시대 회계(會稽)의 섬계(剡溪), 지금의 절강성(浙江省) 승현(嵊縣) 사람이다. 전하는 바에 의하면, 그는 명제(明帝) 시대 수평 15년(水平十五年: 72년)에 밋 완조(阮肇: 생몰년 미상)와 함께 천태산(天台山)에 들어가 약초를 캐다가 길을 잃었다. 그래서 몇 리를 더 가다가 우연히 두 여인을 만났는데, 그 여인들이 유신(劉晨)과 완조(阮肇)를 데리고 그녀들 집인 동굴로 데리고 가서 참깨 밥을 먹이고 잠을 재웠다. 그들은 그녀들 집에 머물면서 부부가 되었다. 산중에 머문 지 반년이 지나서 유신과 완조는 돌아가고 싶다고 말하자, 두 여인은 귀로(歸路)를 가르쳐 주었다. 돌아와서 보니 친구들은 모두 죽고 아는 사람이 없었다. 탐문해보니 친구들의 7세손(七世孫)이 살고 있었다. 세월이 이렇게 지나갔기에 그들은 다시 산중의 그 여인들을 찾아가고 싶어 나섰지만 길을 찾을 수 없었다고 한다.(이 내용은 『태평광기(太平廣記)』 권61에서 『신선전(神仙傳)』을 인용하여 수록하였다) 훗날 사람들은 이 ‘도화동(桃花洞)’을 ‘선경(仙境)’을 가리키는 말로 썼다.

*양동마을: 이 마을은 경상북도(慶尙北道) 경주시(慶州市) 강동면(江東面) 양동리(良洞里)에 있는 민속마을로, 500여 년의 전통을 가진 역사마을이며, 하회마을과 함께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어 있다. 이 마을은 경주[월성(月城)] 손씨(孫氏)와 여강(驪江) 이씨(李氏)의 양가문에 의해 형성된 동성(同姓) 마을로 조선 중기(中期)의 문신 손증돈(孫仲墩: 1463~1529)과 이언적(李彦迪: 1491~1553)이 살았던 곳이다. 양동마을 주변명소로는 이언적이 거주했던 독락당(獨樂堂)과 사후에 그를 배향한 옥산서원(玉山書院)도 있다. 위의 서예시의 객체인 이준(李濬)은 이언적의 손자로 이곳 양동(良洞) 마을에서 은거하였다. 앞의 주석3)의 ‘이준(李濬)’ 조항을 참조바람.

7) 초초 칠사여(迢迢七舍餘: 멀고멀어 이백 여려나 되지요):

① 초초(迢迢):

☆길이 매우 먼 모양. ‘멀디멀다. 멀리멀리’ 등으로 표현할 수 있다.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높은 모양. ‘높디높다. 고고(高高)하다. 높직높직하다. 우뚝우뚝하다’로 표현할 수 있다.

☆깊은 모양. ‘깊디깊다. 깊이깊이’ 등으로 표현할 수 있다.

☆시간이 긴 모양. ‘길디길다. 긴긴’ 등으로 표현할 수 있다.

☆흔들리는 모양. ‘흔들흔들. 한들한들’ 등으로 표현할 수 있다.

② 칠사여(七舍餘): 이백여리.

☆사(舍): 중국고대에는 행군(行軍)을 할 때 30리를 일사(一舍)로 하였다. 본 시문에서 ‘칠사여(七舍餘)’라고 하였으니, 200리가 넘는 거리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좌전(左傳)·회공 28년(僖公二十八年)』 조항에, “초나라 군주의 혜택이 없었더라면, 우리 군주께서 오늘 날 군주로 계시지 못했을 것이요(微楚之惠, 不及此). 우리 군사가 90리를 후퇴해서 초나라 군대를 피한 것은, 옛날에 베푼 은혜를 갚는 것이오(退三舍避之, 所以報也).”라고 한 대목이 있다.

☆여(餘): 부사로 쓰여, ‘…여(餘). …남짓’으로 번역하였다.

8) 독래 잔설후(獨來殘雪後: 〈저도〉 잔설殘雪만 녹고 나면):

① 독래(獨來): 오직, 오로지.

☆독(獨): 부사로써, ‘다만. 오직’의 뜻이며, 본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래(來): 조사(助詞)로서 시가(詩歌)나 속어에서 의미 없이 쓰여, 어조를 고르게 하는 뜻으로 쓰인다.

② 잔설후(殘雪後): 잔설이 녹은 후에.

☆잔설(殘雪): 녹다 남은 눈.

9) 요방 고인거(遙訪故人居: 회재晦齋 선생의 은거지를 답방答訪하리다):

① 요방(遙訪):

☆멀리서 찾아가다. 본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으며, ‘답방(答訪)’으로 번역하였다.

☆멀리서 내방(來訪)하다. 멀리서 만나기 위해서 찾아오다.

② 고인거(故人居: 고인故人之 은거지):

☆고인(故人):

a. 이미 유명(幽明)을 달리한 사람, 곧 고인(古人), 사자(死者), 죽은 사람을 칭한다. 본 시에서는 회재(晦齋) 선생을 가리킨다.

b. 구교(舊交). 노우(老友). 옛친구. 사귄지 오래 된 친구.

☆거(居):

a. 은거지. 본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b. 함께 지나다.

10) 구의 금유재(舊義今猶在: 〈공께서는〉 지난날의 의리義理를 지금도 여전히 중시하고 있으니):

① 구의(舊義): 지난날의 의리.

② 유재(猶在):

☆유(猶): 똑같이. 모두 전부. 여전히.

☆재(在): 중시하다.

11) 교정 병미스(交情病未疎: 우정은 괴롭고 힘들어도 소원해지지 않는구려):

① 교정(交情): 우정. 사귄 정.

☆서로 사귀는 정분(情分).

☆사귄 정의(情誼).

② 병(病): 간난곤고(艱難困苦: 힘들고 고생스러움)하다. 간고(艱苦: 처지가 어렵고 힘들)하다.

③ 소(疎): 소원(疎遠)하다. 친하지 않다.

12) 춘풍 일상별(春風一相別 : 춘풍이 부는데 우리는 서로 이별해야 하다니) :

① 일상별(一相別) :

☆일(一) : 부사로 쓰여, ‘모두, 전부’의 뜻을 나타낸다. 전(轉)하여, ‘우리’라는 의미로 번역하였다.

☆상별(相別) :

a. 피차 이별하다.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b. 의견이 맞지 않다. 사이가 틀어지다. 알력이 생기다.

13) 위체 각련여(危涕各漣如 : 슬피 울며 두 사람 모두 줄줄 눈물 흘리네요) :

① 위체(危涕) : 슬피서(애통해서) 눈물을 흘리며 우는 것을 이르는 말.

☆위(危) : 걱정하다. 불안하다. 전(轉)하여 본 시에서는 ‘슬퍼하다’는 뜻으로 쓰였다.

☆체(涕) : 눈물.

② 연여(漣如) : 연여(漣汝)로도 쓰며, 뜻은 ‘눈물을 흘리는 모양’이다. ‘글썽글썽, 줄줄’ 등으로 형용할 수 있겠다.

☆련(漣) :

a. 눈물 흘리는 모양. 눈물이 줄줄 흐른다.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b. 잔 물결. 잔잔한 물결. 미파(微波).



시72. 봄날의 수심

詩72. 春愁¹⁾
춘수

楚天空闊楚山碧²⁾,
초 천 공 활 초 산 벽

남방 하늘은 광활하고
남방 산도 푸르는데,

楚水無情盡日流³⁾.
초 수 무 정 진 일 류

남방 강물 무정하게
종일 쉬지 않고 흘러가네.

江南綠盡王孫草⁴⁾,
강 남 녹 진 왕 손 초

강남의 왕손초王孫草
온통 녹색으로 푸르건만,

燕子⁵⁾不來人自愁。
연 자 불 래 인 자 수

제비가 돌아오지 않아
내 마음 절로 수심에 젖네.

-
- 1) 춘수(春愁): 춘일(春日: 봄날)의 근심스러운 마음. 봄철에 공연히 일어나는 뒤숭숭한 마음을 이룸.
 - 2) 초천공활 초산벽(楚天空闊楚山碧: 남방 하늘은 광활하고 남방 산도 푸르는데):
 - ① 초천(楚天): 남방 초(楚)나라 땅의 하늘. 옛날 중국의 초나라는 남방에 위치하여 따뜻했으므로 ‘춘(春)’을 은유하여 표현하였다. 본 시에서 초천(楚天)은 ‘조선의 봄 하늘’을 대칭하고 있다.
 - ② 초산(楚山): 남방 초나라 땅의 산. 이 ‘초산’ 역시 ‘조선 땅의 봄 산’을 대칭하고 있다.
 - 3) 초수무정 진일류(楚水無情盡日流: 남방 강물 무정하게 종일 쉬지 않고 흘러가네):

- ① 초수(楚水) : 남방 초(楚)나라 땅의 강하(江河)와 호택(湖澤)이란 뜻이나, ‘춘수(春水)’와 같은 의미로 보면 되겠다.
- ② 진일(盡日) : 종일.
- 4) 강남녹진 왕손초(江南綠盡王孫草) : 강남의 왕손초王孫草 온통 녹색으로 푸르건만 :
- ① 강남녹진(江南綠盡) : 강남에 봄이 와서 강남 전역에 봄풀이 돌아서 일대가 녹색으로 물들여진 풍광을 묘사한 말이다.
- ☆강남(江南) : 포괄적인 의미에서 볼 때, ‘강의 남쪽 지역’을 ‘강남(江南)’이라고 한다. 중국에서는 각 시대에 따라 함의(含義)가 다르지만, 대체로 장강(長江 : 양자강揚子江)이남 지역을 강남이라 하고, 우리나라에서는 한강(漢江) 이남 지역을 강남이라 한다. 본 시에서는 서애(西厓)의 본가가 있는 하회마을 앞의 낙동강 남쪽지역을 가리킨 것으로 보인다.
- ② 왕손초(王孫草) : 야생초인 궁궁이[芎藭 : 芣草 · 芣蒿 · 川芎 : 궁궁이의 뿌리. 성질이 따뜻하고 신맛이 있으며, 혈액 순환을 돕는 약재로 순혈 · 청혈제로 쓰임]의 별칭으로, 멀리 떠난 사람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할 때 쓰는 말이다. 이는 한대(漢代)의 회남소산(淮南小山 : 이 인물은 사적事蹟이 분명치 않으나 회남왕淮南王 유안劉安(BC 179~BC 122)의 문객으로 추정된다. 그는 회남왕 유안을 사모하여 따르던 은사隱士이며, 당시 유안의 문하에는 그의 문객들의 문체를 대산大山 · 소산小山으로 분류하였으나, 나중에는 산을 읊을 때의 표현으로도 곧잘 사용하게 되었다. 이들이 지은 초은사招隱辭는 주로 산중에 숨어사는 선비더러 세상에 나오라고 부르는 것이다)의 작품으로 『초사(楚辭) · 초은사(招隱士)』에서 처음으로 보인다. “왕손이 심산深山을 유람하며 돌아오지 않으니, (정원에) 봄풀[川芎 : 왕손초]이 돌아나 무성하게 우거졌구나(王孫游兮不歸, 春草生兮萋萋)!……왕손이여 하루 속히 돌아오라, 산속에서는 오래 머무를 수 없도다(王孫兮歸來, 山中兮不可以久留)!”라고 한 대목이 보인다. 이 시(詩)에서의, ‘춘초(春草)’, 곧 왕손초(王孫草)는 훗날에 와서는 사람을 이별의 슬픔에 잠기도록 하는 경색(景色)을 띄우는 데에 비유적으로 썼다.
- 5) 연자(燕子) : 제비. 현자(賢者)를 은유한 것으로 보인다.



시73. 위소주韋蘇州의 시를 읽고 나서

詩73. 讀韋蘇州詩¹⁾ 독 위 소 주 시

萬物自生聽²⁾,
만 물 자 생 청

만물은 스스로 소리를 내지만,

太空恒寂寥³⁾。
태 공 항 적 요

하늘은 언제나 고요하네.

此意無人識,
차 의 무 인 식

이 말뜻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없으면서,

喧啾昏復朝⁴⁾。
원 추 혼 부 조

왁자지껄하다 날 저물고
다시 아침이 되지.

韋公晚聞道⁵⁾,
위 공 만 문 도

위공韋公도 만년에야
이 도리를 깨달았나니,

一言眞妙訣。
일 언 진 묘 결

한 마디로 진정 신묘한 비결이라 했네.

悟來無一事⁶⁾,
오 래 무 일 사

깨닫고 나면 약간의 사사私事로운 일도
염두에 두지 않아,

淨室自生白⁷⁾。
정 실 자 생 백

청정淸靜한 방에서 자신의 마음
밝아진다네.

若欲強解說，
약 욱 강 해 설

만약 굳이 그 뜻을 설명하려 한다면,

踏地皆藤葛⁸⁾。
답 지 개 등 갈

땅을 디디는 곳마다
참님쿨에 뒤엉키는 듯하리.

更懷濂溪翁⁹⁾，
경 회 렴 계 웅

또한 엄계옹濂溪翁을 그리워하며,

胸藏一無極¹⁰⁾。
흉 장 일 무 극

가슴에는 하나의 무극無極에 관한
이치를 품었네.

耿耿一片心¹¹⁾，
경 경 일 편 심

한 조각 깨끗한 마음 끊임없이
보존할 수 있다면,

千年猶可覲¹²⁾。
천 년 유 가 적

천년이란 긴 세월도 능히 살펴볼 수
있으리!

憐我坐衰病¹³⁾，
연 아 좌 쇠 병

가련하게도 내가 노쇠하여
병을 앓고 있어선지,

說夢還自迷。
설 몽 환 자 미

꿈속에서 얘기 하듯
나는 아직 환상에 미혹 되어있네.

夜來獨沈吟¹⁴⁾，
야 래 독 침 음

간밤에 홀로 시문詩文을 읊조리다 보니,

一窓殘月低¹⁵⁾。
일 창 잔 월 저

창 가득 새벽달만 나직하게 떠 있네.

1) 위소주(韋蘇州): 위응물(韋應物): 위강주(韋江州): 위좌사(韋左司):

‘위응물(韋應物)’은 당대(唐代) 시인으로 ‘실제 성명’이고, 위소주(韋蘇州)를 비롯한 그 나머지는 성씨인 ‘위(韋)’자 뒤에 관명(官名) 또는 약칭(略稱)으로 쓰인 지명(地名)을 붙여 당시 세상 사람들이 ‘위응물’의 별호처럼 일컫는 세칭(世稱)이다.

☆위응물(韋應物: 737~792 혹은 793): 당대(唐代)의 시인. 경조부(京兆府) 만년현(萬年縣), 지금의 섬서성(陝西省) 서안시(西安市) 사람이다. 천보 10년(天寶十年: 751)부터 천보 말년(755)까지 삼위랑(三衛郎: 황제 시위侍衛의 책임자로서 중4품

임)으로 현종(玄宗)의 신변에서 경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늘 궁궐을 출입했으며, 황제를 수행하여 자주 궁 밖으로 유람을 하기도하였다. 안사의 난(安史亂: 당 현종 말엽인 755년에 안녹산安祿山과 사사명史思明이 일으킨 반란)이 일어나고, 현종이 촉(蜀: 지금의 사천성四川省 성도成都일대) 지방으로 도망을 치자, 그는 불운하게도 황제와 동행하지 못하고 실직하였다. 그 때부터 그는 뜻을 세우고 학문에 정진하였다. 광덕2년(廣德二年: 764) 전후에 낙양승(洛陽丞: 낙양현승洛陽縣丞: 낙양현령의 보좌관)을 역임했다. 후에 불법적으로 군리(軍吏)를 징계하였다 하여 관아(官衙)에 소송(訴訟)을 당하자 분김에 사직하고, 동성(東城) 동덕현(同德縣, 지금의 청해성(青海省) 마심현(瑪心縣) 동북에 위치한 정사(精舍)에서 한거(閑居)하였다. 대력10년(大歷十年: 775)에 경조부(京兆府: 지금의 섬서성陝西省 서안시西安市의 최고 관청)의 공조참군(功曹參軍: 공조功曹의 장·고과高課·제사·예악·학교·녹식祿食·의약·점술·상례喪禮 등 업무를 주관하는 정7품직임)을 역임했다. 대력 13년(778)에 학현(鄂縣: 지금의 호북성湖北省 약주시鄂州市 서남)의 현령(縣令)을 역임했다. 건중 2년(建中二年: 781)에 비부(比部: 상서성尙書省 소속의 업무기관 중의 하나)의 원외랑(員外郎: 호부戶部·예부禮部·병부兵部·형부刑部·공부工部 등 6부 기관에 각기 설치된 차관. 장관인 시랑侍郎의 업무를 보좌함. 종6품상)에 발탁되어 장안(長安: 지금의 섬서성陝西省 서안시西安市)에서 유태진(劉太真: 생몰년 미상), 이담(李儋: 생몰년 미상), 김중부(吉中孚: 생몰년 미상), 창당(暢當: 생몰년 미상) 등 벗들과 교류하였다. 이듬해에 저주자사(滁州刺史: 저주滁州의 장관·저주滁州은 지금의 안휘성安徽省 저주시滁州市임)가 되어 나갔다. 흥원 원년(興元 元年: 784) 겨울에 파직되고 빈곤함으로 인하여 장안(長安)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잠시 저주(滁州)의 서간(西間: 일명 상마하上馬河. 지금의 안휘성 저주시滁州市 서부)에서 거주하였다. 정원 원년(貞元 元年: 785) 강주자사(江州刺史: 강주江州의 장관. 강주江州은 지금의 강서성江西省, 구강시九江市, 덕안현德安縣, 팽택현彭澤縣, 호구현湖口縣, 도창현都昌縣을 포괄한 지역을 이룸)을 역임했다. 정원 3년(787) 조정(朝廷)에 들어와 좌사나중(左司郎中: 상서좌승尙書左丞의 보좌관으로 상서도성尙書都省의 사무를 보조, 관장하는 정5품 상·벼슬로, 정원은 1명. 이부吏部, 호부戶部, 예부禮部의 정무政務를 감독, 관리함)을 역임했다. 이듬해 소주자사(蘇州刺史: 소주蘇州의 장관. 소주蘇州은 지금의 강소성江蘇省 소주시蘇州市임)로 나가서, 고향(顧況: 생몰년 미상), 진계(秦系: 생몰년 미상), 맹교(孟郊: 751~814), 구단(丘丹: 생몰년 미상), 호연(皓然: 생몰년 미상) 등 벗들과 시사(詩詞)를 화답(和答)하면서 왕래하였다. 정원 7년(貞元七年: 791)에 퇴직하고 소주(蘇州)에 있는 영정사(永定寺)에 기거하였다. 위응물(韋應物)을 세칭(世稱) ‘위강주(韋江州)’라고도 하고, ‘위좌사(韋左司)’라고도 하며 ‘위소주(韋蘇州)’라고도 하였다. 위응물의 시 중에서 가장 사람들에게 많이 전승(傳誦)된 것은, 그의 산수 전원시(山水田園詩)였다. 훗날 사람들은 그의 시가 전원산림(田園山林)의 고요한 정취를 소재로 한 작품이 많다 하여, 그를 동진(東晉)의 시인 도연명(陶淵明: 365~427)과 병칭(并稱)하여 ‘도·위(陶韋)’라고도 하고, 당나라의 자연파 시인의 대표적 인물인 왕유(王維: 701~761), 맹호연(孟浩然: 689년 혹은 691~대략 740), 유종원(柳宗元: 773~819) 등과 병칭하여 ‘왕·맹·위·류(王孟韋柳)’라고도 하여 그를 산수전원시파(山水田園詩派)로 분류하였다. 위응물의 시는 각종 시체(詩體)에서 모두 능했지만, 그의 시에서 성취도가 가장 높았던 것은 오언고시(五言古

詩)였으니, 용어가 간결 소박하고, 풍격(風格)이 고요하고 의연하였다. 백거이(白居易: 772~846)가 「원구(元九: 779~831: 원진元眞의 별칭)에게 보내는 글(與元九書)」에서 이르기를, “그의 오언시는 고상하고 속되지 않아서, 스스로 일가를 이룬 만한 체재體裁이다(其五言詩, 又高雅閑淡, 自成一家之體).”고 하였다. 현재 전하는 그의 시집으로 『사부총간(四部叢刊)』에 사진판으로 보관된 것이 명(明)나라 때 출간된 『위강주집(韋江州集)』과 청(淸)나라 때 출간된 『위소주시집(韋蘇州詩集)』, 그리고 중화민국 시대 때 사진본인 『위소주집(韋蘇州集)』 등이 있다.

2) 만물 자생청(萬物自生聽: 만물은 스스로 소리를 내지만):

“만물은 스스로 소리를 내지만(萬物自生聽), 하늘은 언제나 고요하네(太空恒寂寥).”라는 이 두 사구는 위응물이 쓴 5언 절구(絕句)의 「영성(咏聲)」이란 시의 기승2구(起承二句)이다. 출구(出句)에서는 ‘만물은 제각기 하나의 생명체이므로 스스로 자신의 소리[聽]를 낸다는 것’을 읊어, 형이하학적(形而下學的)인 현상세계의 특징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대구(對句)에서는 하늘[太空]의 고요함[無聲], 곧 하늘은 만물의 본체인 까닭에 감각이 불가능한 형이상학적인 천리(天理)라는 세계를 대응시켰다. 이어지는 전결2구(轉結二句)는 “그러나 만물은 고요 속에서 생성하면서 도(還從靜中起), 오히려 고요 속을 향해 소멸하네(卻向靜中消).”라고 읊고 있다. 위응물은 중당(中唐) 시기, 산수와 계절에 속하는 인물로 산수경치에 대한 사유(思惟)가 서정(抒情)을 넘어서 자못 우주만물의 존재에 대한 근원적 접근을 보여주고 있다. 아직 이 시기는 신유학(新儒學)이 태동하기 이전 시기이나, 이미 산유학적 사유의 맥락이 깔려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① 만물(萬物): 성리학(性理學)에서는 만물은 이기(二氣: 음양陰陽의 두 기운)의 응집으로 그 생명체가 탄생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불교학에서는 만물은 인연 따라 생기고 인연이 흩어지면 소멸하는 것으로 보아, 만물의 현상은 임시적인 존재에 불과하다고 보아, 실체(實體)가 없다는 의미에서 ‘공(空)’으로 표현한다.

② 자생청(自生聽): 성리학에서는 만물은 이기(二氣)와 오행(五行)에 의해 생명체가 완성되는 관계로, 만물은 각자 자기의 특성에 맞는 개체의 소리를 가지게 된다고 보고 있다. 물론 여기의 “자생청(自生聽)”은 위응물이 그의 절구시 『영성(咏聲)』에서 읊은 일부이나, 시적사유(詩的思惟)가 성리학적 사유에 부합되고 있다.

☆자생(自生): 스스로 낳다. 곧 스스로 (자신의 소리)를 낸다.

☆청(聽): 여기서는 동사가 아닌 명사로 쓰여, ‘만물 각자의 소리’라는 뜻을 지닌다.

3) 태공 항적요(太空恒寂寥: 하늘은 언제나 고요하네):

주석2)에서도 밝혔지만, 본 구절은 위응물의 「영성(咏聲)」의 대구(對句)로, 만물의 본원(本原)인 태공(太空)을 읊었다.

① 태공(太空): 대공(太宏)으로도 쓴다.

☆성리학에서 칭하는 태공(太空) 곧 허공[太空]이란, 오감(五感)으로 감지(感知)해낼 수 없는 이치(理致)로만 가득 차 있는 무한공간으로 보고 있다. 본 시에 서는 ‘하늘’로 번역하였다.

☆불교학에서 칭하는 ‘태공(太空)’이란, 만물이 본래부터 실체성(實體性)이 결여되어 있어서 ‘공(空)’하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만물이란, 인연을 따라 모여

서 임시적으로 가유(假有: 가짜 존재)로 존재하다가, 인연이 흩어지면 이것 또한 다시 소멸된다고 보아, 일체(一切)의 만물은 모두 ‘공(空)’하다는 것이다. 고로 ‘태공은 언제나 고요하다(太空恒寂寥)’고 말하는 것이다. 불교의 이와 같은 우주론이 신유학의 우주론 형성에 영향을 주었기 때문에, 성리학자였던 서애는 위응물이 이 시구(詩句)에 영감을 받은 것을 서애 역시 본사에서 차용한 것으로 보인다.

- ② 적요(寂寥): 정적(靜寂: 고요함)의 상태를 뜻하는 것으로 아무 소리도 없음을 의미한다.
- 4) 흰추 혼부조(喧啾昏復朝: 왁자지껄하다 날 저물고 다시 아침이 되지):
- ① 흰추(喧啾):
- ☆왁자지껄하다. 시끌벅적하다.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 ☆기세나 권세가 대단한 것을 형용한 말. ‘흰赫(烜赫)’과 같은 말이다.
- ② 혼부조(昏復朝): ‘날이 저물었다가 다시 아침이 되다’는 말인데, 이는 ‘혼조(昏朝)’와 같은 말로서 아래의 두 가지 뜻이 있다.
- ☆혼조(昏朝):
 - a. 세월, 곧 광음(光陰)을 가리키는 말로 쓴다.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 b. 조석(朝夕)과 같은 말로서, 시간이 짧다는 뜻으로도 쓴다.
- 5) 위공 만문도(韋公晚聞道: 위공韋公도 만년에야 이 도리를 깨달았나니):
- ① 위공(韋公): 위소주공(蘇州公): 위응물공(韋應物公). 자세한 것은 본시의 주석1)의 ‘위응물(韋應物)’조항을 참조바람.
- ☆공(公): 경칭(敬稱)으로 쓰인 것이다. 이 경칭은 동년배 사이에서도 쓰고, 윗사람이 아랫사람에 대한 경칭으로도 쓰며, 존장(尊長)에 대한 경칭으로도 쓰며, 일반인에 대한 경칭으로도 쓴다. 성명이나 자(字)나 호(號) 또는 성씨 뒤에 붙여 높임을 나타낸다.
- ② 문도(聞道):
- ☆도를 깨우치다. 『논어(論語) · 이인(里仁)』에서, 공자가 말하기를: “아침에 도를 깨우치면, 저녁에 죽어도 여한이 없다(子曰: 朝聞道, 夕死可矣).”라고 했다. 본 시에서는 모종(某種)의 도리를 깨닫는다는 뜻으로 쓰였다.
 - a. 문(聞): 깨우치다.
 - b. 도(道): 이치, 도리.
 - ☆지식과 학문을 추구하다.
- 6) 오래 무일사(悟來無一事: 깨닫고 나면 약간의 사사私事로운 일도 염두에 두지 않아): 왜냐하면, 만물의 생명을 끊임없이 태어나게 하고 동시에 존재하게 하는 작용의 구심점이 ‘도(道)’이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그 ‘도’의 본성이란 바로 ‘만물이 각자 생명활동을 끊임없이 이어나가도록 하는 것’이므로, 누구나 ‘도’를 깨우치게 되면, 개체만을 생각하는 사리사욕(私利私慾)은 또 다른 개체의 생명활동에는 위협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도’를 깨우치고 나면, 자연히 만물개개의 생명활동을 도와주는 홍익(弘益)하는 생각만을 염두에 두기 때문에 사사로운 생각이 마음속에 내재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을 피력한 것으로 보인다.
- ① 오래(悟來): 깨닫고 나면.
- ☆오(悟): 깨닫다.

☆래(來): ‘오래(悟來)’에서, ‘래(來)’의 사용은 삽입어의 기능을 하는 것으로, 어떤 일에 착안하거나 계산함을 뜻한다. ‘깨닫고 나면’의 뜻으로 쓰였다.

- ② 무일사(無一事): 약간의 사스러운 일도 염두에 두지 않게 된다):

☆일사(一事): 약간의 사스러운 일.

a. 일(一): 한가지의. 약간의.

b. 사(事): 사적(私的)인 일거리. 개인적인 감정이 내포된 일거리.

- 7) 정실 자생백(淨室自生白: 청정(淸靜)한 방에서 자신의 마음 밝아진다네):

‘청정한 방안에는 절로 밝은 빛이 서린다네’ 라고도 해석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는 마음이 본성을 회복함으로써 그의 심경(心境)이 외물(外物)에 좌우되지 않고 그가 처한 장소가 어디이든 밝은 본성을 유지할 수 있음을 피력한 것이다.

- ① 정실(淨室): 정실(淨室)로도 쓰며, ‘조용하고(고요하고) 깨끗한 방’이란 뜻이다. 주로 절이나 사원(寺院)의 휴식을 취하는 방을 가리키는데, 본 시에서는 서재(書齋)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 ② 자생백(自生白): 자신의 마음이 환하게 밝아지다. 본 시에서는 깨달은 후에는 마음이 밝아지는 것을 비유하여 표현하였다. 절로 밝은 빛이 서리다(감돌다).

☆자(自):

a. 자기. 자신.

b. 절로. 저절로.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생백(生白): 환하게 밝아지다. 밝은 빛이 서리다(감돌다). ‘생(生)’은 생기다, 발생하다는 뜻이고,

b. 생(生): 생기다. 서리다. 감돌다.

a. 백(白): ‘광명. 밝음’의 뜻이다.

- 8) 답지 개등갈(踏地皆藤葛: 땅을 디디는 곳마다 칙넝쿨에 뒤엉키는 듯 하리):

- ① 답지(踏地): 답지(踏地)로도 쓰고, 답지(躑地)로도 쓴다.

☆지면을 밟다(다디다).

- ② 개등갈(皆藤葛): 모두 칙넝쿨이다. 본 시에서는 ‘모든 곳이 칙넝쿨에 뒤엉키는 것 같다.’는 뜻으로 쓰였다.

☆개(皆): 모두. 다 함께.

☆등갈(藤葛):

a. 사물이 뒤엉켜서 분명하지 않거나, 문장이 군더더기가 많고 번잡한 것, 또는 말하는 것이 군소리가 많고 시끄러운 것을 비유한다.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b. 등나무나 칙 같은 덩굴진 식물을 아울러 이르는 말. 주로 ‘칙덩굴’로 표현한다.

c. 감돌과 분란, 불화 또는 간사한 것을 비유하기도 한다.

- 9) 염계옹(濂溪翁):

- ① 염계(濂溪): 북송의 유학자 주돈이(周敦頤)의 호이다. 염계(濂溪)는 원래 중국 호남성(湖南省) 도현(道縣)에 있는 시냇물 명칭인데, 송(宋)의 유학자인 주돈이(周敦頤: 1017~1073)가 대대로 이 냇가에서 살았다. 주돈이는 만년(晩年)에 강서성(江西省) 북부에 위치한 여산(廬山)의 연화봉(蓮花峰) 아래로 이주(移住)하였는데, 그 연화봉 앞에도 한줄기 시냇물이 흐르고 있었다. 주돈이는 시냇물의 명칭을 옛날에 살던 곳의 냇물 ‘염계(濂溪)’라는 이름을 따서 그대로 부르는 등

시에, 이 냇물명칭을 자신의 호(號)로 삼았기에, 그를 세칭(世稱) 염계 선생(濂溪先生)이라 불렀다.

☆주돈이(周敦頤: 1017~1073): 중국 북송의 유학자. 자는 무숙(茂叔), 호는 염계(濂溪). 도주(道州: 호남성湖南省 도영현道營縣) 출생. 지방관으로서 각지에서 공적을 세운 후 만년에는 여산(廬山) 기슭의 염계서당(濂溪書堂)에 은퇴하였기 때문에 문인들이 염계 선생이라 불렀다. 북송의 사마광(司馬光: 1019~1086)·왕안석(王安石: 1021~1086)과 동시대의 인물이다. 그는 도가사상(道家思想)의 영향을 받고 새로운 유교이론을 창시하였다. 즉, 우주의 근원인 태극(太極: 무극無極)으로부터 만물이 생성하는 과정을 도해(圖解)하여 ‘태극도(太極圖)’를 그리고, 태극이 운동하여 음양(陰陽)의 이기(二氣)를 낳고, 음양이 기가 변하고 합하여, 금(金)·목(木)·수(水)·화(火)·토(土)의 오행(五行)을 낳고, 이 오기(五氣)가 순리롭게 펼쳐지면서, 사계절이 운행되고, 이에 만물이 생성한다는 순서로 세계가 구성되었다고 논하고 있다. 다만 이렇게 생성된 만물 중에 인간만이 가장 우수한 존재이기 때문에, 중정(中正)과 인의(仁義)의 도를 지키고 마음을 성실하게 하여 성인(聖人)이 되어야 한다는 도덕과 윤리를 강조하여, 우주생성의 원리와 인간의 도덕원리는 본래 하나라는 이론을 제시하였다. 저서에 『태극도설(太極圖說)』·『통서(通書)』 등이 있는데, 이 책은 남송의 주희(朱熹: 1130~1200)에 의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남송의 주희는 염계(濂溪)가 정호(程顥: 1032~1085)·정이(程頤: 1033~1107) 형제를 가르쳤다고 하여, 도학(道學: 송대의 신유교新儒敎)의 개조(開祖)라고 칭하였다. 황정견(黃庭堅)은 『예장집(豫章集)·염계시서(濂溪詩序)』에서, 주돈이의 인품을 평하여 말하기를: “용릉春陵의 주무숙周茂叔은, 사람됨이 매우 고결하고, 가슴속이 맑고 깨끗하기가, 눈비 갠 뒤의 맑은 바람이나 맑은 달과 같다네(春陵周茂叔, 人品甚高, 胸懷灑落, 如光風霽月)”라고 하였다.

- ② 응(翁):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나이가 많은 남자의 성씨이나 성명, 또는 호號 뒤에 쓰여) 그 사람에 대한 존칭으로 쓰는 말.

10) 일무극(一無極): 하나의 무극(無極). 본 시에는 이 뜻으로 쓰였다.

- ① 일(一): 수사(數詞)로, ‘하나’의 뜻으로 쓰였다.
- ② 무극(無極): 『관자(管子)·내업편(內業篇)』에 무극의 관념이 나타나지만 무극이라는 말로써 표현된 것은 『노자(老子)』이다.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이나 『장자(莊子)』·『열자(列子)』 등에도 이 말이 보인다. 무극이 중국 사상의 중요 명제(命題)로 대두된 것은 주돈이(周敦頤)가 「태극도설(太極圖說)」에서 태극과 관련지어 ‘무극이태극(無極而太極)’이라고 한 데서부터이다. 주희(朱熹)는 무극을 끝없는 궁극자, 태극을 태(太)인 궁극자로 해석하여 무극과 태극을 동실이명(同實異名)으로 보고, 주돈이의 무극을 형상 없는 무한정자로 이해하였다. 그래서 주희는 ‘무극이태극(無極而太極)’을 ‘무형이유리(無形而有理)’로 파악하였다. 이에 육구연(陸九淵)은 뜻을 달리하여 논쟁을 벌였다. 주희는 주돈이의 「태극도설」 중의 ‘무극이태극’이라는 명제가 ‘태극본무극(太極本無極)’이라는 명제와 서로 일치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무극이 태극을 낳은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하였다. 주희는 육구연이 『송사(宋史)·염계전(濂溪傳)』에 ‘자(自)·위(爲)’ 두 글자가 있는 것을 근거로 하여 태극이 무극에 근원한 것이라는 해석에

반대하였다. 반면에 주희는 주돈이가 무극을 말한 까닭은 바로 방소(方所)에 무형상(無形狀)한 것을 말한 것이라 해석하였다. 주희는 육구연이 태극 밖에 무극이 따로 없다고 한 것에는 동의했지만, 논리를 전개하는 데는 의견을 달리하였다. 주희는 태극만을 말하고 무극을 말하지 않으면 태극이 마치 하나의 물건처럼 되어버려 본원(本源)과 멀어지고, 또한 무극만 말하고 태극을 말하지 않는다면 무극은 공적(空寂)에 빠져 주체 구실을 못한다고 하였다. 주희는 ‘무극이태극(無極而太極)’은 단지 ‘무형이유리(無形而有理)’를 말한 것이라고 보아 무극과 태극을 동일이명의 관계로 보고, 노자나 장자가 말하는 무극의 개념과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하였다. 주희는 무극과 태극의 관계를 유가적 입장(儒家的立場)에서 풀이하였다. 즉 “상천(上天)의 일은 무성무취(無聲無臭)하지만, 실로 조화(造化)의 주紐(樞紐)요 품휘(品彙)의 근저(根柢)이다. 그렇기 때문에 무극이면서 태극이라 한 것이며, 태극 밖에 무극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천명하였다. 그는 “태극은 다만 무극이기 때문에 다시 갈 곳이 없다. 지고(至高) · 지묘(至妙) · 지신(至神) · 지정(至精)한 것이다. 주돈이는 사람들이 태극에 형상이 있다고 말할까 두려워서 ‘무극이태극’이라고 말한 것이다. 무(無) 가운데 지극한 이(理)가 있다.”고 하였다. 조선조의 장현광(張顯光)은 무극과 태극의 관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선유(先儒)가 이(理)를 말하기를 ‘무극이태극’이라고 했는데, 태극은 이(理)로써 천지만물의 원두(元頭)가 되는 지고한 것이다. 즉, 무극은 이(理)로써 전후에 걸쳐 궁진(窮盡)할 바가 없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무극과 태극의 의미는 동일하지만 다만 두 가지 이름으로 표현되었다는 것을 더욱 분명히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무릇 다시 더할 수 없는 바와 궁진할 바가 없다는 것은 다른 뜻이 아니다. 스스로 다시 더할 것이 없기 때문에 궁진할 바가 없는 것이요, 능히 궁진할 바가 없기 때문에 드디어 다시 더할 것이 없는 것이다. 무극이 바로 태극이라는 것은 이 때문이다.” 그리고 태극과 무극, 무극과 태극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파악하였다. “무극도 역시 두 가지 뜻이 있다. 그 하나는 형상이 없음이요, 다른 하나는 궁진함이 없음이다. 기(氣)에 속하는 것에는 반드시 청탁(淸濁)이 있고, 형(形)에 속하는 것에는 반드시 방원(方圓)이 있다. 그러나 이(理)인 경우 청탁으로 말할 수가 없고 방원으로도 말할 수가 없다. 이것은 곧 모상(模像)이 없기 때문이다. 또, 기(氣)에 속하는 것은 반드시 소장(消長)이 있고, 형(形)에 속하는 것은 반드시 취산(聚散)이 있다. 그러나 이(理)인 경우 소장과 취산이 있지 않다. 이것은 궁진함이 없기 때문이다. 이(理)가 모상이 없고 궁진함이 없음은 곧 극(極)이며 무(無)인 것을 말한다.”

11) 경경 일편심(耿耿一片心 : 한 조각 깨끗한 마음 끊임없이 보존할 수 있다면) :

① 경경(耿耿) :

☆충성스러운 모양. 성실한 모양.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으며, ‘마음’을 표현하기에 ‘끗끗하다’로 형용하였다.

☆수면(水面)이나 불빛 · 별빛 · 등불의 빛 · 별빛 등이 반짝거리는 모양. 반짝반짝 번쩍번쩍 깜빡깜빡 등으로 형용할 수 있다.

☆(초조하고) 불안하다. 걱정거리가 쌓여 있다.(시름을 거듭하다)

☆선명하다. 현저하다.

☆초범(超凡 : 범상함을 넘어서서 뛰어남)한 모양.

☆상승(上升)하는 모양.

☆고원(高遠)한 모양.

- ② 일편심(一片心): 한 조각의 마음이란 뜻으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굳은 마음을 이르는 말이다.

12) 유가적(猶可觀): 아직도 능히 관찰할 수 있다.

- ① 유가(猶可):

☆아직도 능히 ...할 수 있다.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아직도 ...할 가치가 있다.

☆모두(다. 여전히. 아직) 괜찮다(좋다)는 뜻으로 쓰인다.

- ② 적(觀):

☆관찰하다. 살펴보다.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드러내 보이다. 과시하다. 나타나다. 드러나다.

13) 연아 좌쇠병(憐我坐衰病: 가련하게도 내가 노쇠하여 병을 앓고 있어선지):

- ① 연(憐): 가엾다.

- ② 좌쇠병(坐衰病): 때마침 노쇠한 병에 걸리다.

☆좌(坐): 부사로 쓰여, ‘때마침, 마침(한창. 바야흐로. 막) ...하고 있다’의 뜻으로 쓰였다.

☆쇠병(衰病): 노쇠하여 장기간 병에 시달리다.

14) 아래 독침음(夜來獨沈吟: 간밤에 홀로 시문詩文을 읊조리다 보니):

- ① 아래(夜來):

☆지난 밤. 간밤.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아간. 밤새.

- ② 침음(沈吟): 침음(沉吟)으로도 쓴다.

☆나직한 소리로 시문(詩文)을 음미(吟味)하다.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심사(深思)하다. 몹시 그리워하다.

☆주저하다. 머뭇거리다. 망설이다.

☆나직한 소리로 하는 혼잣말.

☆(병이나 죄 따위가) 심각하다, 중대하다.

15) 일창 잔월저(一窓殘月低: 창 가득 새벽달만 나직하게 떠 있네):

- ① 일창(一窓): 창에 가득하다. 온 창에.

☆일(一):

a. 온. 전(全).

b. 가득하다.

c. 온통. 전부.

- ② 잔월저(殘月低): 잔월이 나직하게 떠있다.

☆잔월(殘月):

a. 새벽달. 날이 밝을 때까지 남아있는 달.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b. 거의 다 저가는 달.



시74. 비온 뒤, 앞산에 진달래가 만발하여,
 홀연 (지난) 경오년(庚午年: 1570년) 봄이
 상기^想起되었다. 서장관^{書狀官}으로 연경에
 갔다가, 3월에 (요동遼東의) 봉황산 기슭에
 돌아 왔었는데, (그때) 온 산에 모두 이
 꽃이 활짝 피었었다. 요동 사람들은 이
 꽃을 만산홍^{滿山紅}이라고 했는데, 지금에
 이르기까지 이미 30년이란 세월이
 흘렀다. (지금 앞산의) 경물^{景物}을 바라보니
 지난날의 정취에 감응되어 여기에 시
 한 수를 읊는다.

詩74. 雨後前山杜鵑¹⁾盛開 忽憶庚午²⁾春 以書狀赴燕³⁾
 우 후 전 산 두 견 성 개 홀憶 경 오 춘 이 서 장 부 연
 三月還到鳳凰山⁴⁾下 滿山皆此花 遼人謂之滿山紅⁵⁾
 삼 월 환 도 봉 황 산 하 만 산 개 자 화 요 인 위 지 만 산 홍
 今已三十年矣 覽物⁶⁾不能無感舊之意⁷⁾ 賦此云
 금 이 삼 십 년 의 랴 물 불 능 무 감 구 지 의 부 차 운

使節當時最少年⁸⁾,
 사 절 당 시 최 소 년

사절로 갔을 당시에는
 가장 젊은 나이였었고,

還程正值艷陽天⁹⁾.
 환 정 정 지 염 양 천

귀국하는 노정^{路程}도
 마침 풍광 좋은 봄날이었네.

鳳凰山下花如錦，
봉 황 산 하 화 여 금

봉황산 산기슭에 핀 꽃은 비단 같았고,

鴨綠江頭柳似烟。
압 록 강 두 류 사 연

압록 강변에 늘어선 버들은
운무雲霧와 흡사했네.

帝里和風飄客袂¹⁰⁾，
제 리 화 풍 표 객 메

연경燕京의 춘풍에
나그네 옷소매 펄럭이는데,

鄉關歸興屬吟鞭¹¹⁾。
향 관 귀 흥 속 음 편

귀향흥취에 젖은 시인은
애국충정 다지며 시를 읊었네

如今卧病南河曲¹²⁾，
여 금 와 병 남 하 곡

지금은 영남嶺南 하회마을에서
와병하고 있으니,

白首看花只黯然¹³⁾。
백 수 간 화 지 암 연

백발노인 꽃을 봐도
슬프고 침울하기만 하네.

1) 두견(杜鵑):

① 화명(花名): 진달래라고도 하고, 두견화(杜鵑花)라고도 하며, 두견화의 별명으로, ‘영산홍(映山紅)’이라고도 한다. 1123년에 송(宋)나라 문인 완열(阮閱: 생몰년 미상)이 편찬한 시화집 『시화총귀(詩話總龜)』 권21에서 당대(唐代)의 문인 이기(李頎: 690?~751)의 『고금시화(古今詩話)』를 인용하여, “영산홍은 산기슭 비탈진 곳에 자라는데, 높이가 5~7자를 넘지 않으며, 꽃은 번잡하게 피면서 붉은 꽃이 피는데, 꽃이 산림을 빛내며, 꽃이 피기 시작할 때 두견새가 울기 시작하는 까닭에, ‘두견화’라고도 한다(映山紅生於山坡欹側之地, 高不過五七尺, 花繁而紅, 輝映山林, 開時杜鵑始啼, 又名杜鵑花).”고 하였다.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② 조명(鳥名): 우리말로는 ‘두견이’라고 하고, 두견이의 사투리로 ‘점동새’라고도 하며 두우(杜宇)라고도 하며, 두견새의 별명으로 자규(子規)라고도 한다. 전하는 바에 의하면, 중국 촉(蜀)나라 왕 두우(杜宇)의 혼백(魂魄)이 변화하여 된 새라고 한다. 늦봄 초여름에 자주 밤새도록 우는데, 그 소리가 애절(哀切)하다. ‘두우(杜宇)’는 전설상의 고대 촉나라 국왕이다. 청대(清代)의 경학가(經學家)이며 고증학자인 홍이훤(洪頤煊: 1765~1837)이 집록한 『경전집림(經典集林)』 권14에서, 전한(前漢)의 학자이자 문인인 양웅(揚雄: BC 53~AD 18)의 『촉왕본기(蜀王本紀)』를 인용하여 말하기를, “형주(荊州: 춘추시대 ‘초국(楚國)’의 옛명칭)에 이

툼이 별령(魃靈 : 별령魃令 : 별령魃令 : 별령魃令)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죽고 나서 그의 시신이 없어졌는데, 형주 사람들은 그의 시신을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었다(荊有一人名魃靈, 其尸亡去, 刑人求之不得). 별령의 시신은 장강(長江 : 양자강揚子江)을 따라 떠내려 가다가 비성(郢城 : 지금의 사천성四川省 관내에 위치한 성城)에 이르러, 마침내 다시 살아나서, 망제와 만났다(魃靈尸隨江水上至郢, 與皇帝相見). ‘망제’는 ‘별령’을 재상으로 삼았다(皇帝以魃靈爲相)……‘망제’ 자신은 덕이 박하여, ‘별령’만 못한 것으로 여기고, 마침내 나라를 그에게 물려주고 떠나갔으니, 마치 요임금이 순임금에게 선양한 것과 같다(……自以德薄不如魃靈, 乃委國授之而去, 如堯之禪舜). ‘별령’은 즉위하여, 호를 개명제(開明帝)라 하였다(魃靈卽位, 號曰開明帝).”고 한 대목이 있다. 『태평광기(太平廣記)』 권29에 인용된 『성도기(成都記 : 당송唐宋시기 성도(成都 : 사천성四川省의 수도) 사회의 정황을 묘술한 것임)』의 기록에 의하면, 두우(杜宇)는 두주(杜主)라고도 하는데, 하늘에서 내려왔으며, 망제(望帝)라고 칭했는데, 농사짓기를 좋아했으며 비성(郢城)을 다스렸다. 망제가 죽고 난 후에, 그 혼백이 새로 변하였으니 사람들은 그 새를 ‘두견(杜鵑)’이라고 불렀다고 하였다. 이후, 사람들은 ‘두견새’를 두고 ‘두우(杜宇)’의 혼이 변한 새’ 라는 뜻에서, ‘두백(杜魄)’이라고도 했고, ‘두우(杜宇)’의 이름을 그대로 따라 ‘두우’라고도 불렀으며, ‘두우’의 혼이 변한 새라는 뜻에서, ‘두혼(杜魂)’이라고도 불렀다. ‘두우’의 호(號)인 ‘망제(望帝)’를 본따서, ‘망제’라고도 불렀다. 그런가 하면, ‘촉왕(蜀王)’의 혼이 변한 새라는 뜻에서 ‘촉백(蜀魄)’이라고도 불렀고, 같은 뜻에서 연유하여, ‘촉조(蜀鳥)’ 또는 ‘촉혼(蜀魂)’ 또는 ‘촉혼조(蜀魂鳥)’라고도 하였다. 두견새를 ‘불여귀(不如歸)’라고도 한다. 고대 중국 사람들은 두견새의 울음소리가 사람들에게 ‘불여귀(不如歸[bù rú guī] : 불여귀거不如歸去[bù rú guī qù] : 돌아가는 것만 못하다 : 돌아가는 것이 더 낫다)’ 하다고 말하는 것과 매우 흡사하다고 생각한 까닭에, 사람들에게 ‘귀가(歸家)할 것을 독촉하는 말로 썼다. 『촉왕본기(蜀王本紀)』에, “촉왕 망제는 그의 신하 별령魃靈의 처에게 음심淫心을 갖고 대하였음에, 마침내 선위하고 도주했는데, 그때 이 두견새가 마침 울었던 까닭에, 촉나라 사람들은 그 두견새의 울음소리는 망제를 슬퍼한 것이라고 생각했으며, ‘그 울음소리는 돌아가는 것만 못함을 이른 것’이라고 여겼다.(蜀望帝淫其臣魃靈之妻, 乃禪位而逃, 時此鳥適鳴, 故蜀人以杜鵑鳴爲悲望帝, 其鳴爲不如歸去云).” 라는 대목이 있다.

두견새의 편 날개의 길이는 15~17cm, 꽂지는 12~15cm, 부리는 2cm 정도이며, 몸무게가 54~74g이다. 두견이는 암수의 색채가 비슷하고 크기도 비슷하다. 수컷의 머리·뒷목·등·허리는 석판 잿빛이고, 턱밑·목·윗가슴은 잿빛으로 중앙은 다소 옅은 색이다. 깃털 끝은 황갈색을 때며 아랫 가슴과 배는 흰색으로 드문드문 검은 갈색의 가로띠가 있다. 암컷은 수컷과 비슷하나 배면의 잿빛은 다소 옅은 색이고, 목과 가슴은 붉은 갈색을 띤다. 우리나라에서는 5월경 동남아시아에서 날아와 9월경에 남하하는 여름철새로, 단독으로 생활하며 니못가지에 앉아 있을 때가 많은데, 산중턱과 우거진 숲속에서 노출되지 않고 있어 자취를 보기 힘들다. 산란기는 6월 상순에서 8월 하순 까지 인데, 직접 둥지를 틀지 않고 휘파람새나 굴뚝새 또는 산 술새 등의 둥지에 알을 위탁시켜 포란(抱卵 : 부화하기 위해 암새가 알을 품어 따뜻하게 하는 일)과 육추(育雛 : 알에서 깬 새끼를 키움)를

시킨다. 알은 주로 위탁하려는 새의 알과 비슷한 색이며 자기 알보다 작은 알을 낳은 새에게 위탁한다. 이렇게 다른 새의 집에 알을 낳을 때는 그 집의 어미 새가 집을 떠났을 때 재빨리 낳으며 1개만 낳는다. 알은 9~10일이 되면 부화되는데, 이것은 가짜 어미 새가 낳은 알보다 3~4일 일찍 부화되는 것이다. 부화 직후의 새끼는 나체 그대로 초생우(初生羽)는 없다. 새끼는 부화 직후 2~3일 사이에 가짜 어미 새의 알이나 새끼를 등지 밖으로 밀어 떨어뜨리고 등지를 독점해서 자기 혼자 먹이를 받아먹고 자란다. 곤충류를 주식(主食)으로 하여, 나비·벌·파리·딱정벌레·메뚜기 등의 유충과 성충 및 알을 먹으며, 그 밖의 다족류(多足類)도 먹는다. 두건이는 대체로 그 울음소리가 구슬퍼서 한(恨)이나 슬픔의 정서를 표출시키는 시가문학의 소재로 자주 등장하였다.

- 2) 경오(庚午) : 경오년(庚午年)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 해는 공원(公元)으로는 1570년이고, 선조(宣祖)가 등극한 지 3년째 되는 해이며, 서애의 연령은 29세가 되던 때이다. 서애는 지난 해(기사년己巳年 : 1569년, 28세) 10월에 사헌부 감찰이 되어 성절사(聖節使)의 서장관(書狀官)으로 연경(燕京)에 갔다가 이듬해, 즉 경오년(庚午年 : 1570년) 3월에 귀국길에 오른 것이다. 아래의 주석8)의 ‘사절당시’의 조항을 참조 바람.

- 3) 이서장부연(以書狀赴燕 : 서장관書狀官으로 연경燕京에 가다) :

- ① 이서장(以書狀) : 서장관(書狀官)으로

☆이(以) : 개사(介詞)로서 ‘…로써’의 뜻이며, 자격 또는 신분을 나타내는 말로 쓰였다.

☆서장(書狀) : 서장관(書狀官). 사헌부(司憲府 : 감찰행정을 맡은 관청) 소속의 기록관(記錄官)을 말한다. 중국에 보내던 연행사(燕行使)의 일행으로, 정사(正使)·부사(副使)·서장관이 있었다. 서장관은 외국에 파견하는 사신에게 팔려 보내는 임시벼슬이다. 이는 정사·부사와 아울러 삼사(三使)의 하나에 드는데, 정사·부사 보다 지위는 낮지만 행대어사(行臺御使 : 대관臺官 즉 사헌부司憲府의 관리로서 일행을 감찰하고 인마人馬와 복태〈복태 : 짐바리〉를 점검하는 일도 겸함. 서장관, 즉 기록관)를 겸하였다.

- ② 부연(赴燕) : 연경(燕京)에 가다.

☆부(赴) : (…로) 가다. 향하다.

☆연(燕) : 본 시에서는 ‘연경(燕京)’의 약칭으로 쓰였으며, 연경은 당시 명(明)나라의 도성으로 지금의 북경시의 별칭이다. 북경시의 구역이 춘추전국시대에는 연(燕)나라의 국도(國都)였던 까닭에 얻어진 명칭이다.

- 4) 봉황산(鳳凰山) :

- ① 본 시에서 말하는 ‘봉황산’은 고구려 시대에 ‘오골산(烏骨山)’이라 불리던 곳이다. 이곳은 고구려 시대에 고구려의 영토로서, 지금의 ‘봉황산 산음성(山蔭城)’은 고구려 시대의 ‘오골산 오골성(烏骨城)’이었으며, 산꼭대기에 돌을 축조하여 만든 군사적 목적의 산성(山城)으로, 압록강을 방어하는 고구려의 국방 요충지였다. 고구려는 이곳에서 수(隋)나라와 당(唐)나라 군의 침략을 물리쳤다. 오골성은 고구려 광개토대왕(廣開土大王 : 374~413 : 고구려 19대왕으로 이름은 담덕談德. 재위기간은 391~413년임)이 요동(遼東)을 차지한 후 이 성을 축조하였다. 오골성은 중국 남북조시기에 웅산성(雄山城)으로 불렸고, 요(遼)나라 때는 산음성(山蔭城)이

라고도 불렀다. 당(唐)나라 때 봉황산 산성(山城)이라 개칭한 이 산성은 현재 단둥시(丹東市)에서 서북쪽으로 60k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다.

- ② 봉황산은 그 주봉(主峰)의 모양이 ‘봉황새가 머리를 쳐든 듯하고 양쪽의 봉우리(제2의 고봉高峰인 해발 822m의 전안봉箭眼峰과 제3의 고봉인 해발 814m인 산마봉神馬峰을 가리킴)가 날개를 펼친 것 같다’ 하여 이루어진 명칭이다. 봉황산은 지금의 요령성(遼寧省) 봉성시(鳳城市) 동남 5리에 위치한다. 다시 말하면, 압록강 건너편의 단둥시(丹東市)에서 서북쪽 30분 거리의 봉성(鳳城) 외곽에 위치해 있다. 봉황산은 저명한 명승지로, 주봉(主峰)은 찬운봉(鑽雲峰)으로 해발 836.4m이며, 주봉의 면적은 약 120여 km²이다(봉황산 전체면적은 216km²임). ‘산봉우리가 마치 뽕죽한 칼끝을 구름위의 하늘에 꽂은 듯한 모습’이라 하여, 찬운봉이라 한다고 한다. 찬운봉 정상에서 동쪽으로 멀리 바라보면, 한·중(韓中) 국경인 압록강이 승천하러는 백룡(白龍)이 꿈틀거리듯 굽이치며 흐른다. 봉황산의 산음성(山蔭城)은 조선과 명·청(明清) 국경에 책문(柵門 : 목재나 석재 또는 철재로 난간을 설치해놓은 문을 말하는 것으로, 출입국과 관세에 관한 업무를 보던 국경 관문임)이 있던 곳으로, 요동의 봉황성(鳳凰城 : 지금의 요령성遼寧省 봉성시鳳城市로서, 명나라 성화 17년(成化十七年 : 1481년)에 축성築城했으며, 조선의 조공朝貢을 받아들이기 위한 도로 건설을 목적으로 건축하였음)과 구련성(九連城 : 지금의 요령성 단둥시 북쪽 구련성진九連城鎮으로, 『금사(金史)·알로전(斡魯傳)』에 의하면, 고려가 이곳의 갈라전묘欄甸에 9성九城을 건축하자 원·태조元太祖 징기스칸(成吉思汗 : 1206~1227)의 손자인 알로斡魯도 이곳에 9성九成을 건축하여 고려와 항쟁했다고 기록된 곳임) 중간에 위치한다. ‘책문(柵門)’은 조선과 명·청 사신들이 필히 거쳐 가야 하는 국경관문이기도 하고, 조선과 명나라 사이에, 후세에 와서 조선과 청나라 사이에 밀무역이 성행했던 곳이기도 하다.

- 5) 만산홍(滿山紅) : 화명(花名)처럼 쓰였으나, 꽃 이름 이라기보다는 ‘운 산에 붉게 피었다’는 의미를 이르는 말이다.

- 6) 남물(覽物) : (앞산의) 경물을 바라보다.

- 7) 불능무감 구지의(不能無感舊之意 : 지난날의 정취에 감응되지 않을 수 없다) :

- ① 불능무감(不能無感) : 감응되지 않을 수 없다.

☆그리워하지 않을 수 없다.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정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a. 불능(不能) : …할 수 없다.

b. 무감(無感) : 그리움이 없다. 감동이 없다. 감응이 없다.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④ 감(感) : 그리워하다. 사념(思念)하다. 감응하다. 느낌이 통하다.

- ② 구지의(舊之意) : 옛적의 정취.

☆의(意) : 정취(情趣).

- 8) 시절당시 최소년(使節當時最少年 : 시절로 갔을 당시는 가장 젊은 나이였었고) :

- ① 시절당시(使節當時) : 「서애연보」에 의하면, 서애는 1569년(기사년己巳年, 서애 28세) 10월에, ‘성절사 서장관(聖節使書狀官 : 명나라에 황제 또는 황후 생일날에 축하하러 가던 사신使臣 중의 기록관記錄官)’ 겸 사헌부 감찰(司憲府監察 : 감찰행정을 맡은 관청인 사헌부 소속의 정6품 관직)로 연경(燕京)에 갔다고 하였다.

☆사절(使節):

- a. 어느 한 나라에 상주(常駐)하는 타국의 외교관, 혹은 임금의 명으로 (현대에
는 나라를 대표하여 일정한 사명을 띠고), 타국에 임시로 파견되어 외교적 업무
를 처리하는 대표를 가리킨다.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 b. 고대에 경대부(卿大夫)가 천자(天子)나 제후(諸侯)에게 초빙되어 갈 때 지
니고 있던 부신(符信: 부절符節: 목편木片 또는 죽편竹片에 글을 쓰고 증인證印
을 찍은 후에 두 조각으로 쪼개어, 한 조각은 상대자에게 주고 다른 한 조각은 자기
가 보관하였다가 후일에 서로 맞추어 증거로 삼는 것).
- c. 사자(使者: 명령이나 부탁을 받고 심부름하는 사람). 어느 한 부서에 파견된 관
원을 이르는 말로도 쓴다.

② 최소년(最少年): 위의 ①의 주석(사절 당시)에서 살펴 본 바에 의하면, 당시 사에
의 나이는 28세로, 성절사 사절단 중에 나이가 가장 젊었다는 것을 표현한 시어
(詩語)로 보인다.

☆최(最): 부사로 쓰여, '가장. 최고로'의 뜻이다.

☆소년(少年): '젊다. 젊은 나이다'의 뜻이다.

9) 환정정치 염양천(還正正値艷陽天: 귀국하는 노정路程도 마침 풍광 좋은 봄날이었
네):

① 환정(還程): 돌아오는 길. 귀국하는 길.

☆환(還): 돌아오다.

☆정(程): 길. 이정(里程). 노정(路程).

② 정치(正値): 때마침 만나.

☆정(正): 부사로서, '때마침. 마침'의 뜻이다.

☆치(値): ...에 부딪치다. ...를 만나. 마주치다. 맞이다.

③ 염양천(艷陽天): 염양천(豔陽天) 혹은 염양천(豔陽天)으로도 쓴다. 화창한 풍
광의 봄날을 의미한다.

☆염양(艷陽):

- a. 만춘의 계절.
- b. 화창한 풍광.
- c. 화창하고 따뜻한 봄 날씨.

☆천(天): 계절. 날씨.

10) 제리화풍 표객매(帝里和風飄客袂: 연경燕京의 춘풍에 나그네 옷소매 필력하는데):

① 제리화풍(帝里和風): 연경의 춘풍.

☆제리(帝里): 제도(帝都: 제왕이 계신 서울). 경도(京都: 서울, 도성都城)과 같은
말이다. 본 시에서는 연경(燕京)을 가리키는 말로 쓰였다.

☆화풍(和風): 따뜻한 바람. 춘풍을 가리키는 말로 많이 쓴다.

② 객매(客袂): 나그네의 소매.

☆매(袂): 원래는 소매 밑의 주머니같이 늘어진 부분을 말하는 것이나, 전(轉)하
여, '소매란 뜻으로 쓴다.

11) 향관귀흥 축음편(鄉關歸興屬吟鞭: 귀향흥취에 젖은 시인은 애국충정 다지며 시를
 읊었네):

① 향관귀흥(鄉關歸興): 귀향흥취에 젖다.

☆향관(鄉關): ‘고향. 향리(鄉里)’와 같은 말.

☆귀흥(歸興): 귀사(歸思: 귀심歸心: 고향에 돌아가고 싶은 생각). 회향(回鄉)의 흥취.

② 축음편(屬吟鞭): 애국충정 다지며 시를 읊다.

☆축(屬): 시나 문장을 짓다(읊다).

☆음편(吟鞭): 말이나 나귀 등에 탄 시인의 말채찍을 말한다. 이는 애국충정을 내포한 시어(詩語)로 다음과 같은 전고(典故)에서 유래하지 않았나 생각된다. 서진(西晉)의 문인이요, 정치·군사·음악 등에까지 전문성을 보였던 유곤(劉琨: 271~318)이 젊은 날에 동진(東晉)의 무인(武人)으로 명성을 지닌 조적(祖逖: 266~321)과 친구로서 위기의 조국을 구하고자 애국충정을 함께 발휘했던 일단의 고사(故事)를 소개한 것에서 비롯된 것이다. 『진서·유곤전(晉書劉琨傳)』에 의하면, 유곤은 젊은 날에, 나라의 위기를 구하기 위해, 조적과 전투를 명일(明日)로 앞두고 야전막사에서 함께 잠을 청하는데, 조적은 내일의 전투를 생각하며 의기에 차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유곤은 자신도 모르 게 잠이 들었는데, 칼을 옆에 놓고 날 밝기를 기다리던 조적은 닭 울음소리에 먼저 일어나서 유곤을 깨웠다고 한다. 훗날 조적이 높은 지위에 소임을 맡아서 나아갔다는 소식을 듣고 유곤은 전날의 태도를 상기하면서 그의 친구들에게 “내가 늘 조적이 나보다 앞서서 채찍을 치고 나아갈 것이라 생각하여 왔다. 그의 적극적인 기개가 그렇게 기약하고 있었다(常恐祖生先吾著鞭, 其意氣相期如此).”라고 하는 기록이 보인다. 위의 서에 시에서 제기한 ‘음편(吟鞭)’은 이른바 ‘시인의 말채찍’으로, 그 내포는 다름 아닌, 유곤이 찬미한 조적(祖逖)의 애국충의 자세를 서에는 이미 그의 젊은 날에 가슴에 새겼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2) 여금와병 남하곡(如今臥病南河曲: 지금은 영남嶺南 하회마을에서 와병하고 있으니):

① 여금(如今): (비교적 먼 과거에 대비하여) 지금. 이제. 오늘 날. (‘현재’라는 말은 극히 짧은 시간도 가리키지만, ‘여금(如今)’은 상당히 긴 시간을 가리키는 경우에만 쓰인다)

② 남하곡(南河曲): 영남의 하회마을.

☆남(南): 영남(嶺南) 지역을 칭한 것으로 보인다.

☆하곡(河曲): 서예선생의 고향인 하회(河回) 마을을 칭한 것으로 보인다. ‘하회의 명창’은 다양하다. 앞의 「시70」의 주석5)의 ③ ‘하상(河上)’ 항목을 참조 바람.

13) 백수간화 지암연(白首看花只黯然: 백발노인 꽃을 봐도 슬프고 침울하기만 하네):

① 백수(白首): 백발. 연로함을 표시하는 말이다.

② 암연(黯然):

☆슬프고 침울한 모양. 실망하여(감상感傷에 젖어) 풀이 죽은 모양(암담暗澹한 모양).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검은 모양. 어두운 모양.(깜깜하다)



시75. 삼월 그믐날, 홀로 옥연서당玉淵書堂에
 나왔다가, 잠시 능파대凌波臺에 앉아서,
 벽도화碧桃花가 때마침 피고 있는 것을
 보고, 너무 사랑스러워서 완상玩賞하다가
 홀연 ‘이 경물景物이 나와 어떤 일로
 연관이 되고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었다.
 반드시 산천山川이며 바람과 꽃 등
 자연의 실상實相에 순응해야하는데,
 여태까지 (이 실상에) 전념하지 못했다.
 이제 겨우 자연의 궁극적 진상真相을
 깨우쳐, 한 수의 절구시絶句詩로 써서
 남창에 붙여놓고, 스스로를 경계警戒
 하며 조심하는 마음으로 읊어 본다.

詩75. 三月晦¹⁾ 獨來玉淵書堂²⁾ 少坐凌波臺³⁾ 見碧桃正開⁴⁾
 삼 월 회¹⁾ 독 래 옥 연 서 당²⁾ 소 좌 릉 파 대³⁾ 건 벽 도 정 개⁴⁾
 殊可愛玩⁵⁾ 忽念此物關我何事 要須從山水風花⁶⁾
 수 가 애 완⁵⁾ 홀 념 차 물 관 아 하 사 요 수 종 산 수 풍 화⁶⁾
 都不着心⁷⁾ 方是究竟法⁸⁾ 因書一絕于南窓⁹⁾
 도 불 착 심⁷⁾ 방 시 구 경 법⁸⁾ 인 서 일 절 우 남 창⁹⁾
 以自警¹⁰⁾ 云¹⁰⁾
 이 자 경¹⁰⁾ 운¹⁰⁾

一步移來便墮塵¹¹⁾, 한 걸음만 밟나가도 곧바로 세속화되는데,
 일 보 이 래 편 타 진

看山看水亦迷眞¹²⁾
 간 산 간 수 역 미 진

산천을 관상觀賞하면서도
 그 진상眞相 잃고 헤매네.

還知逐物皆成癖¹³⁾
 환 지 죽 물 개 성

대도大道 벗어난 사물 추구는 다 나쁜
 습관 됨을 겨우 알았나니,

雪月風花解誤人¹⁴⁾
 설 월 풍 화 해 오 인

설월풍화雪月風花같은 자연감상도
 사람 해칠 수 있다네.

1) 회(晦): 음력 매월 그믐날.

2) 옥연서당(玉淵書堂): 앞의 「시47」의 주석1)의 ① ‘북애정사(北厓精舍)’조항을 참조 바람.

3) 능파대(凌波臺): 경북 안동시(安東市) 풍천면(豐川面) 광덕리(廣德里)에 위치한 조선시대의 암각서(巖刻書)이다.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건립경위: 하회마을을 감싸고 흐르는 낙동강 강물이 범람하여 파도를 쳐도 이 바 위에는 미치지 못하므로 ‘물결을 능멸한다’는 뜻에서 새긴 글씨이다.

② 위치: 이는 풍천면 광덕리 부용대 동쪽에 자리한 하회 옥연정사에서 남쪽으로 25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다. 이곳은 하회마을을 감싸고 흐르는 낙동강가로 암각서가 새겨진 바위는 계선암(繫船巖)에서 옥연정사로 이르는 부용대 석벽으로 하상(河床)에 위치하고 있다.

③ 형태: 자연 바윗면을 가로 109cm, 세로 46cm 정도로 다듬은 뒤 ‘능파대’라는 글자를 가로 방향으로 새겼다. 한 글자의 크기는 약 30cm이다.(출처: 한국중앙연구원)

4) 건벽도정개(見碧桃正開: 벽도화가 때마침 피고 있는 것을 보다):

① 벽도(碧桃): 벽도나무. 복숭아나무의 일종. 흰 꽃잎이 여러 겹으로 피고, 열매는 맺지 못하며, 관상용과 약용으로 쓴다. 일명 ‘천엽도(千葉桃)’라고도 한다.

5) 수가애완(殊可愛玩: 너무 사랑스러워서 완상하다):

① 수(殊): 부사로서, ‘매우. 극히’의 뜻으로 쓰였다.

② 가애완(可愛玩): 사랑스러워서 관상(완상玩賞)할만하다.

6) 요수종산수풍화(要須從山水風花: 반드시 산천山川이며 바람과 꽃 등 자연계의 실상實相에 순응해야 한다):

① 요수종(要須從): 반드시 순응해야한다.

☆요수(要須): 반드시 …해야 한다.

☆종(從): 따르다. 순종하다. 순응하다.

② 산수풍화(山水風花): 사대(四大) 자연경물(自然景物), 곧 산·물·바람·꽃 등의 자연계의 실상(實相)을 가리키는 말이다.

7) 도불착심(都不着心: 여태까지 〈이 자연의 실상에〉 전념하지 못하다):

① 도불(都不) : 여태까지 …하지 못하다.

② 착심(着心) : 어떤 일에 마음을 붙이다.

☆용심(用心) : 전심전력(全心全力하다). 집중하다.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주자어류(朱子語類)』 권101 p.2595 : “오봉의 학생들은 문구文句를 전심전력으로 살피지 않고(五峰 諸子不著心看文字), 그들의 총명함에만 의지하여(恃其明敏), 지금까지 마음을 비워 자신의 뜻을 낮추지 못하고(都不虚心下意), 바로 자기과시만 하려 했다(便要做大).”

☆어떤 일에 마음을 붙이다.

☆관심을 가지다.

8) 방시구경법(方是究竟法 : 이제 겨우 궁극적 자연의 진상真相을 …하다) :

① 방시(方是) : 이제 겨우. 간신히.

② 구경법(九竟法 : 빠라마타paramattha) : 이는 불교용어이며, 팔리어(巴利語 : 팔리Pali, 성전어聖典語인 산스크리트어에 건주어 속어俗語, 또는 지역어라고 불리는 프라크리트의 하나로 중기中期 인도 아리아어에 속하는 언어)로, ‘빠라마타paramattha’라고 한다. 이는 ‘진실법(眞實法 : 실재하는 법)’ 혹은 ‘승의법(勝義法 : 자성自性이 선함과 상주불변常住不變하며 실재實體가 있는 것임)’이라고도 칭한다. 말하자면, 이것은 각자의 자성(自性 : 본성)에 바탕을 두고 존재하는 법이므로, 직접 체험하고 현장에서 분석하여 알게 되는 진실법(眞實法)이라는 것이다. 고로 이 명칭은 발리어의 ‘빠라마parama[구경究竟 : 최상最上 혹은 최종]’와 ‘아타attha[진실법眞實法 : 사물事物]’의 합성어에서 왔다고 한다. 이를 본체학적(本體學的) 측면에서 보면, 최종적으로 진실이 존재하는 실질(實質)이며, 지리학적(智理學的) 측면에서는, 정지(正智)를 최종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구경법은 대단히 은미(隱微)하고 심오하여, 수심(修心)이 결핍된 사람은 이를 깨우칠 수 없다는 것이다. 게다가, 세속의 현상적인 개념, 이를테면, 인습(因襲) 내지는 습癖(習癖)에 방치된 자신을 마음으로 잡도리[여리작의如理作意] 하지 않으면 세속적인 개념을 초월할 수 없다는 것이다.(이상은 상좌부불교백과上座部佛教百科를 참조함) 본 시에서, 서에는 눈앞에 실재하는 진실법, 곧 구경법[궁극적인 진리의 세계]을 항상 접(接)하면서도 평소에 이것을 향한 마음의 잡도리(잘못되지 않도록 엄하게 단속하는 수심修心하는 노력)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견할 수 없었다는 것을 깨우치며, 본 시를 읊고 있다.

9) 인서일절우남창(因書一絕于南窓 : 그래서 한 수의 절구시를 써서 남창에 붙여놓다) :

① 인(因) : 접속사로 쓰여, ‘그래서 · 그러므로 · 이 때문에 · 이러한 까닭으로’의 뜻이다.

② 서(書) : 쓰다.

③ 일절(一絕) : 한 수의 절구시(絕句詩).

☆절(絶) : 절구시(絶句詩)의 약어(略語)로 쓰였다. ‘절구’는 한시(漢詩)의 근체시(近體詩)의 형식의 하나이다. 기·승·전결(起承轉結)의 네 구(句)로 이루어졌는데, 한 구가 다섯 구로 된 것을 오언절구(五言絶句), 일곱 자로 된 것을 칠언절구(七言絶句)라고 한다.

10) 자경(自警) : 스스로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경계하여 조심하다.

- 11) 일보이래 편타진(一步移來便墮塵 : 한 걸음만 밟나가도 곧바로 세속화되는데) :
- ① 이래(移來) : 밟나가다.
 - ☆이(移) : 기울다. 비뚤어지다. 벗어나다는 뜻이다.
 - ☆래(來) : 다른 동사의 앞이나 혹은 뒤에 쓰여, 어떤 일을 하려함을 나타냄. ‘래(來)’가 없어도 뜻의 변화는 없다.
 - ② 편타진(便墮塵 : 바로 세속으로 떨어지다. 세속적인 인습의 그물로 떨어지다) :
 - ☆편(便) : 부사로서, ‘곧. 바로 즉시’의 뜻으로 쓰였다.
 - ☆타(墮) : 떨어지다. 낙하하다.
 - ☆진(塵) : 세속. 종교에서는 속세라 칭하고, 은자는 벼슬길(仕途)을 ‘진(塵)’이라고 했다. 불교에서는 감각(感官)과 마음에 지각되고 있는 사물, 곧 대상이나 번뇌, 오점, 결함 등을 ‘진(塵)’이라 했고, 도교(道教)에서는 일세(一世)를 ‘일진(一塵 : 유가에서는 일세一世, 불가에서는 일겁一劫이라고 칭함)’이라고 칭했다.
- 12) 간산간수 역미진(看山看水亦迷眞 : 산천을 관상觀賞하면서도 그 진상眞相 잃고 헤매네) :
- ① 간산간수(看山看水) : 산천을 관상(觀賞)하다.
 - ② 미진(迷眞) : 진성(眞性 : 천성天性 : 본성本性)을 잃다는 뜻이나, 본 시에서는 전(轉)하여, ‘진상(眞相 : 실상實相)을 잃다’는 뜻으로 쓰였다. 즉, 자연을 관상하면서 도 자연의 ‘참모습을 못 보거나 진상眞相을 깨닫지 못하다’는 말이다.
 - ☆미(迷) : 잃다. 놓치다. 헤매다.
 - ☆진(眞) : 실상(實相). 진상(眞相).
- 13) 환지 축물개성벽(還知逐物皆成癖 : 대도大道 벗어난 사물 추구는 다 나쁜 습관 됨을 겨우 알았나니) :
- ① 환지(還知) : 이제 겨우 알게 되다.
 - ☆환(還) : 부사로, ‘이제 겨우. 간신히’의 뜻으로 쓰였다.
 - ☆지(知) : 알게 되다. 이해하다.
 - ② 축물개성벽(逐物皆成癖 : 〈명리名利 같은〉 사물 추구 다 나쁜 습관됨을 겨우 알았나니) :
 - ☆축물(逐物) : 대도(大道 : 정도正道 : 상리常理. 최고의 치세治世원칙을 가리키며 삼강오륜三綱五倫의 윤리를 포괄함)를 벗어난 사물추구를 가리킨다. 곧, 정도(正道)를 벗어난 물욕(物欲) · 부귀 · 명리(名利) 등을 추구함을 이른다. 『장자(莊子) * 천하편(天下篇)』에, “애석하도다(惜乎)! 헤시는 자신의 재능이 있었음에도(惠施*之才), 〈자제하지 않고〉 방탕한 괴변의 언사言辭를 펼치며 다니느라 〈정도正道를〉 행할 수 없었고(駘蕩*而不得*), 〈현실적〉 만물만을 추구하다가 결국 대도大道에 귀착할 수 없었다(逐萬物而不反).”고 한 대목이 있다.
 - *장자(莊子: BC 369~BC 286 혹은 BC 368~BC 268) : 전국시대(戰國時代) 송(宋)나라 몽현(蒙縣)사람. 제자백가(諸子百家) 가운데 도가(道家)의 대표자로 성은 장씨(莊氏)이고 이름은 주(周)이다. 맹자(孟子)와 비슷한 시대에 활약한 것으로 전해진다. 일찍이 관영(官營)인 칠원리(漆園吏)로 일했지만, 이 후 평생 벼슬길에 들지 않고 집에서 살면서 저술에 전념했다. 집안이 가난해 일찍이 감하후(監侯侯)에게 곡식을 빌린 적이 있다. 초위왕(楚威王)이 그의 재능을 듣고 두 차례 사람을 보내 폐백(幣帛)을 후하게 갖추고 초빙했지만 우연

(寓言)으로 비유를 들면서 사상을 했다. 아내가 죽자 동이를 두드리면서 노래를 불렀다(鼓盆之痛). 혜시(惠施)가 양상(梁相)이 되었을 때, 재상(宰相)의 자리를 썩은 쥐와 같다고 보았다. 여러 차례 혜시와 논쟁을 했다. 학문은 노자(老子)를 근원으로 하고 도법자연(道法自然)의 이론을 발전시켰으며, 물아(物我)가 동등하며 시세(時勢)에 안주(安住)하고 순리에 처할 것을 주장했다. 저서 『장자(莊子)』는 원래 52편이었다고 하는데, 현존하는 것은 진(晉)나라 괄상(郭象)이 정리한 33편(내편7, 외편15, 잡편11임)이다. 그 중에 내편이 그의 저작이고 나머지는 후세학자들의 저작이라고 전해진다.

*혜시(惠施 : BC 370?~BC 310?) : 혜자(惠子) : 전국시대(戰國時代) 송(宋)나라 학자로 명가(名家)의 대표적 인물이다. 일찍이 위혜왕(魏惠王 : BC 400~BC 334)을 섬겨 재상을 역임했다. 그는 제(齊)·초(楚) 양국이 연합해서 전란을 종식시킬 것을 주장하면서, ‘합중(合縱)’의 책략을 수립한 사람이다. 후에 그는 위(魏)나라 정치가 장의(張儀 : ?~BC 310)에게 배척당해서 초나라와 송(宋)나라를 유랑했다. 변설에 능했으며, 사상이 장주(莊周 : 장자莊子 : BC 369~BC 286 혹은 BC 368~BC 268년 : 송나라 사상가로 도가사상의 중심인물)와 절친했다. 장자가 말하기를, “혜시의 학술은 다방면에 걸쳐 해박하고, 그가 소장한 책은 다섯 수레나 될 정도이다(惠施多方, 其書五車).”라고 하였다. 그는 명가(名家 : 춘추전국시대春秋戰國時代에 제자백가諸子百家 가운데 명목名目과 실제實際가 일치해야 함을 주장한 학파. 이들은 세상이 혼란한 것은 명목과 실제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보았음)의 ‘모든 사물의 차별과 대립은 상대적인 것으로, 차이가 나는 것 중에 동일한 것이 있다’는 “합동이(合同異 : 동일한 것과 차이가 나는 것 중에 부합되는 것이 있음)”의 학설을 주장한 대표적인 인물로서, “태양은 방금 정오가 되면서부터 곧 기울기 시작하고, 만물은 갓 태어나서부터 곧 바로 사망을 향해 가기 시작한다(日方中方晡, 物方生方死).”고 하고, “대부분이 같고 약간만 다른 것을 ‘소동이小同異’라 하고(大同異與小同異), 사물의 전부가 같거나 전부가 다른 것을 ‘대동이大同異’라고 한다(萬物畢同, 畢異, 此之謂大同異).”고 하였다. 또한 “지극히 커서 그 이상의 것이 없는 것은(至大無外), 모든 것을 포괄한다는 뜻의 ‘대일대一’이라고 하며(謂之大一), 지극히 작아서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질점質點을 ‘소일小一’이라고 한다.(謂之小一).”고 하였다. 그런가 하면, “널리 만물을 애호하는 것은(汜愛萬物), 만물이 일체一體이기 때문이다(天地一體).”라고 한 것은 높은 식견(識見)이다. 그는 또한 자연과학에 대한 지식도 풍부하였다. 당시 남쪽 지방에 ‘황료(黃鵲)’라 불리는 기인倚人이 있었는데(南方有倚人焉, 曰黃鵲), 그가 혜시에게 “천지는 어찌하여 떨어지거나 함몰되지 않는가(問天地所以不墜不陷)?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벼락이 치고 번개가 치는 까닭이 무엇인가? 라고 물었을 때(風雨雷霆之故), 혜시는 〈예법상의〉 사양도 하지 않고 응답했으며(惠施不辭而應), 깊이 생각도 않고 대답하면서(不慮而對), 만물에 대한 이론을 세웠다(徧爲萬物說).”고 하였다. 저서로 『혜자(惠子)』가 있었으나 이미 실전(失傳)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장자(莊子)·잡편(雜篇)·천하(天下)·변자혜시론(辯者惠施論)』을 참조바람.

*태탕(駘蕩) : ~에 국한되지 않고 방탕하게 언사(言辭)를 펼치다. 여기서의

‘태(駭)’는 ‘~에 국한되는 바가 없다’는 뜻이고, ‘탕(蕩)’은 ‘방탕하다’는 뜻인데, ‘거침없이 연사를 펼치는 것’을 가리킨다.

*부득(不得): 얻지 못하다. 할 수 없다는 뜻인데, 본 예문에서는 ‘정도(正道) 혹은 대도(大道)를 행할 수 없다’는 것을 가리키는 뜻으로 쓰였다.

☆성벽(成癖): 나쁜 습관이 되다.

14) 설월풍화 해오인(雪月風花解誤人: 설월풍화雪月風花 같은 자연감상도 사람 해칠 수 있다네):

① 설월풍화(雪月風花): ‘눈 오고, 달 밝고, 바람 불고, 꽃 피다’ 뜻의 이 말은 ‘사시풍색(四時風色: 춘하추동 사계절의 풍경)’을 대칭(代稱)하는 말이다.

② 해오인(解誤人): 능히 사람을 해칠 수 있다.

☆해(解): 조동사(助動詞)로 쓰여, ‘능(能), 회(會), 득(得)’의 뜻을 나타낸다. 본 시에서는 ‘능(能)’의 뜻으로 쓰였다.

☆오인(誤人): 사람을 해치다.



시76. 귀뚜라미를 읊다

詩76. 吟蟋蟀¹⁾

음 설 술

蟋蟀鳴何急²⁾,
실 설 명 하 급

귀뚜라미 우는 소리 어찌나 절박한지,

聲聲如有情³⁾.
성 성 여 유 정

귀뚜라미 소리마다
애끓는 정을 품은 듯하네.

幽人半夜起⁴⁾,
유 인 반 야 기

은사隱士는 밤중에 잠자리서 일어났는데,

明月在西庭⁵⁾.
명 월 재 서 정

밝은 달은 서쪽 뜰
너머로 지고 있네.

1) 실설(蟋蟀) : 귀뚜라미.

2) 명하급(鳴何急) : 울음소리(우는 소리) 어찌나 절박한지.

① 명(鳴) : 울음소리.

② 하급(何急) :

☆하(何) : 의문부사로써, ‘어찌나. 얼마나’의 뜻이다.

☆급(急) : (소리가) 절박하다. 촉급하다. 긴박하다.

3) 성성 여유정(聲聲如有情 : 귀뚜라미 소리마다 애끓는 정을 품은 듯하네) :

① 성성(聲聲) : 귀뚜라미 (우는) 소리마다. ‘성(聲 : 소리)’은 본 시에서 ‘명사의 중첩’으로 쓰였다. 모든 명사가 다 중첩해서 쓰일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인(人), 가(家), 년(年), 천(天), 월(月) 등의 명사는 중첩된 후 주어나 부사어로 쓰일 수 있다. 중첩된 단음절 명사는 ‘...마다’란 뜻을 지닌다. 인인(人人) : 사람마다. 가가(家家) : 집집마다. 연년(年年) : 해마다. 천천(天天) : 날마다. 월월(月月) : 달마다.

② 유정(有情) :

☆정감이 있다.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교정(交情 : 사귀는 정)이 있다. 정의(情義 : 인정과 의리)가 있다.

☆정취(情趣).

☆불교어로서, 산스크리트어(고대 인도의 표준문장어)로 사트바[sattva]의 역어(譯語)로 ‘중생(衆生)’이란 뜻이다. ‘사람과 생명을 가지고 존재하는 일체의 동물’을 가리킨다.

4) 유인 반야기(幽人半夜起 : 은사隱士는 밤중에 잠자리서 일어났는데) :

① 유인(幽人) : 은사(隱士).

② 반야(半夜) :

☆밤 12시 좌우를 이른다.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오밤중. 한밤중. 야반(夜半). 심야(深夜).

☆하룻밤의 반.

5) 서정(西庭) : 서쪽 뜰(마당).

① 정(庭) : 뜰(마당).



시77. 명옥대 鳴玉臺

詩77. 鳴玉臺¹⁾

芳草生幽徑²⁾,
방 초 생 유 경

향기로운 풀은
그윽한 오솔길 길옆에서 자라고,

寒溪盡日哀³⁾。
한 계 진 일 애

골짜기의 차가운 계곡물은
종일 애절하게 흐르네.

春風無限意⁴⁾,
춘 풍 무 한 의

춘풍이 무한한 의취意趣를 자아내는데,

信馬獨歸來⁵⁾。
신 마 독 귀 래

말 가는대로 몸 맡긴 채 홀로 돌아오네.

- 1) 명옥대(鳴玉臺) : 1665년(현종 6) 사림(士林)에서 대학자 퇴계(退溪) 이황(李滉 : 1501~1570)이 후학들에게 학문을 강의하던 장소를 기념하기 위해 건립한 누각형 정자이다. 현재의 건물은 1920년 개축한 것이라고 한다. ‘경북 문화재 자료 제174호’의 기록에 의하면, 퇴계는 명옥대 인근에 있는 봉정사(鳳亭寺)에서 이수령(李壽苓), 권민익(權敏義), 강한(姜翰) 등과 함께 3개월 정도 독서했는데, 그 때 절 입구 계곡인 이곳에 와서 놀았다고 한다. 그 후 관직에서 사직하고 이곳에서 일시 은거했었다고 한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퇴계가 이곳에 머물면서 학문을 강의했다고 했으니, 퇴계 생존시에는 이곳이 서당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1667년, 퇴계가 별세한지 근 100년이 지나서이기도 하지만 처음 ‘창암정사(蒼巖精舍)’란 현판을 걸고 후세 사림(士林)에서 정사(精舍)를 지었던 취지를 봐서도 그곳이 서당이었던 곳임이 분명하다. 게다가, 퇴계의 문인이었던 서애(西厓) 류성룡(柳成龍 : 1542~1607)이 쓴 본 시의 내용을 놓고 볼 때도, 그 서당 가까운 곳에 서애 선생의 선친 입암(立

巖) 류중영(柳仲郢) 공(公)의 묘소가 있어서 서에는 그곳에 자주 갔었던 것으로 보인다. (입암공의 묘소 바로 위에는 안동권씨 시조인 태사太師 권행(權幸 : 생몰년 미상)의 묘소가 있음) 1667년 처음 창암정사로 세워질 때의 형태는 방 1칸, 누각 2칸의 3칸 건물이었다고 한다. 명옥대의 위치는 경북 안동시 서후면(西後面) 태장리(台庄里) 산 76번지에 있다. 이곳에 있는 봉정사(鳳亭寺) 어귀의 왼쪽 석간수(石澗水)가 흐르는 계곡의 건너편에 남향으로 자리 잡고 있다. 명옥대 맞은 편 바위에 ‘명옥대(鳴玉臺)’라 새긴 글씨가 남아 있다. 명옥대의 본래 명칭은 낙수대(落水臺)였으나, 중국 서진(西晉)의 시인 육기(陸機 : 261~303 : 자는 사형士衡)가 지은 시의 시제(詩題) 「초은시(招隱詩)」에서 읊은 시구(詩句) 중의 시어(詩語) 하나를 따와서 ‘명옥대(鳴玉臺)’라고 개칭(改稱)했다고 한다. 그 시구는 아래와 같다.

골짜기 냇물 암반에 쏟아지는 소리 어찌나 웅얼하던지, 山溜*何泠泠*,
반짝반짝 맑은 물보라 옥구슬을 튀기며 흐르네. 飛泉*漱*鳴玉.

*산류(山溜) : 산간수(山澗水), 시냇물, 골짜기 냇물.

*영령(泠泠) : 물소리, 바람소리, 거문고소리, 목소리 따위가 맑고 시원한 것을 형용한 말.

*비천(飛泉) : 폭포란 뜻이나 본 인용시에서는 ‘급속하게 흐르는 냇물’을 가리키는 말로 쓰였다.

*수(漱) : 수옥(漱玉)의 약어로 쓰였다. ‘수(漱)’는 원래 ‘세척(洗滌)하다, 말끔히 씻다’는 뜻인데, 본 인용시에서는 ‘수옥(漱玉)’의 뜻으로 쓰였다. 즉, ‘냇물이 산석(山石)을 씻으며 흐르는 소리가 흡사 옥구슬이 부딪치는 듯한 소리를 내며 흐른다는 것을 형용한 말’의 뜻으로 쓰였다.

- ① 명옥(鳴玉) : 옛 사람들이 허리에 차던 옥패(玉佩)인데, 이것을 차고 걸으면 땡그렁땡그렁 소리가 나는 까닭에 ‘명옥(鳴玉)’이라 칭했다. 본 인용시에서는 산계곡의 물이 흐르며 산석(山石)에 부딪쳐 나는 소리를 비유해서 표현한 말이다.
- ② 대(臺) : ‘대(臺)’는 원래 관찰이나 조망용(眺望用)으로 평지보다 높고도 평평하게 쌓아올린 방형(方形) 건축물을 가리키는 말이다. 그러나 자연적 지형이 우뚝 솟아 있으면서도 사방이 트여 주변의 경관을 감상하기 좋은 곳에도 이 ‘대(臺)’자를 붙여 그곳을 미화(美化)시키는 경우가 있다. 퇴계 생존시에 낙수대(落水臺)였던 곳을 명옥대(鳴玉臺)라고 개칭하면서 ‘대(臺)’자를 쓴 것도 후자(後者)의 것을 가리키는 ‘대(臺)’자의 뜻이라고 하겠다. 이렇게 볼 때, ‘명옥대’의 의미는 ‘골짜기의 냇물이 웅얼 흐르는 경관이 좋은 언덕’이라는 말이 되겠다.
- 2) 유경(幽徑) : ‘유경(幽逕)’으로도 쓰며, ‘그윽한 (오스한. 외지고 조용한) 오솔길’의 뜻이다.
- 3) 한계(寒溪) : 한계(寒溪) 晝日哀 : 골짜기의 차가운 계곡물은 종일 애절하게 흐르네) :
 - ① 한계(寒溪) : 차가운(한랭한) 골짜기의 시냇물(계류溪流 : 산골짜기를 흐르는 시냇물).
 - ② 진일(晝日) :
 - ☆중일. 진종일(晝終日).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 ☆그믐 날.
- 4) 무한의(無限意) : 무한한 의취(意趣 : 의지와 취향).
- 5) 신마(信馬) : 말이 가는데로 믿고 몸을 맡겨 타고 가면서 말을 단속하지 않는다.



시78. 독좌^{獨坐}

詩78. 獨坐^{독 좌}

空齋獨坐澹忘言¹⁾,
공 재 독 좌 담 망 언

빈 서재에 홀로 앉아
맘 고요히 말도 잊은 채 있는데,

竹裏風殘鳥不喧²⁾.
죽 리 풍 잔 조 불 환

대숲에 바람 잠잠해지고
새도 지저귀지 않네.

山後日沈紅半斂³⁾,
산 후 일 침 홍 반 령

서산 너머 해 지면서
붉은 노을도 반은 스러지고,

樹梢江遠翠平分⁴⁾.
수 초 강 원 취 평 분

저 멀리 강변의 수림이
비취색으로 어우러졌네.

心從有象多成妄⁵⁾,
심 종 유 상 다 성 망

맘은 형상 있는 사물事物 쫓다보니
대개 망령妄靈 들고,

道本無形易失源⁶⁾.
도 본 무 형 이 실 원

도는 형체 없는 이치를
근본으로 삼으니 근원 잃기 쉽다네.

嘆我白頭今尙爾⁷⁾,
탄 아 백 두 금 상 이

나의 백발 탄식은 지금도 여전할 따름인데,

世緣何翅一浮雲⁸⁾.
세 연 하 시 일 부 운

세상 인연을 어찌 뜬 구름 같다고만 하리!

- 1) 공재독좌 담망언(空齋獨坐澹忘言 : 빈 서재에 홀로 앉아 맘 고요히 말도 잊은 채 있는데) :
- ① 공재독좌(空齋獨坐) : 텅 빈 서재에 홀로 앉아 있다.
 ☆재(齋) : 본 시에서는 ‘서재(書齋)’의 뜻으로 쓰였다.
- ② 담망언(澹忘言) : 마음속에 잡다한 인욕(人欲)이 사라져서 마음과 정신이 편안하고 고요하여[澹] 자기표현의 욕구가 사라진 이른바 ‘말을 잊은 경지[忘言]’에 이르렀다.
 ☆담(澹) : 안정(安定 : 편안히 좌정함)하다. 안정(安靜 : 마음과 정신이 편안하고 고요함)하다.
 ☆망언(忘言) : 마음속으로 뜻을 깨달아 말로 설명할 필요가 없음을 이르는 말이다. 이 말은 본래 『장자(莊子)·외물편(外物篇)』에, “말은 뜻[심정]을 전하기 위한 도구이니, 뜻을 깨달았으면 말은 잊어버려도 된다(言者所以在意, 得意而忘言).”고 한 대목에 나온다.
 a. 할 말을 잊다. 말할 필요가 없다. 말을 하지 않다.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b. 언어라는 매개체를 쓰지 않고도 마음의 우의(友誼)를 서로 아는 것을 가리킨다.
- 2) 죽리풍잔 조불환(竹裏風殘鳥不喧 : 대숲에 바람 잠잠해지고 새도 지저귀지 않네) :
- ① 죽리풍잔(竹裏風殘) : 대숲에 바람이 잠잠해지다.
 ☆죽리(竹裏) : 대숲에
 a. 죽(竹) : 대나무. 본 시에서는 ‘대숲’을 가리키는 뜻으로 쓰였다.
 b. 리(裏) : 명사 뒤에 붙어 ‘장소·시간·범위’를 나타내는데, 본 시에서는 ‘장소’를 나타내는 뜻으로 쓰였다.
 ☆풍잔(風殘) : 바람이 잠잠해지다.
 a. 잔(殘) : 소멸되다. 전(轉)하여, ‘잠잠해지다’로 번역하였다.
- ② 불환(不喧) : (새들이) 지저귀지 않다.
 ☆환(喧) :
 a. 울다. 호느끼다. 본 시에서는 (새들이) 지저귀다 는 뜻으로 쓰였다.
 b. 시끄럽다.
 c. (산나개) 떠들썩거리다.
- 3) 홍반렴(紅半斂) : 붉은 노을이 절반은 스러지다.
 ① 반렴(半斂) : 절반은 줄어들다.
- 4) 수초강원 취평분(樹梢江遠翠平分 : 저 멀리 강변의 수림이 비취색으로 어우러졌네) :
- ① 수초강원(樹梢江遠) : 저 멀리 강변의 수림.
 ☆수초(樹梢) : 나무 꼭대기 혹은 나뭇가지의 꼭대기인데, 본 시에서는 ‘멀리 있는 숲을 가리키는 뜻으로 쓰였다.’
 a. 초(梢) : 우듬지(나무의 꼭대기 줄기)인데, 본 시에서는 ‘멀리 보이는 나무’를 가리키는 뜻으로 쓰였다.
 ☆강원(江遠) : 시야에 보이는 강 저 먼 곳.

② 취평분(翠平分): 비취색으로 어우러지다.

☆취(翠): 비취색.

☆평분(平分): ‘평균적으로 분배하다, 균분하다’는 뜻인데, 본 시에서는 ‘멀리서 보이는 나뭇가지가 고르게 늘어선 모습’을 가리키는 말로 쓰였다.

5) 심증유상 다성망(心從有象多成妄): 맘은 형상 있는 사물 쫓다보니 대개 망령 들고:

① 심증유상(心從有象): 마음은 ‘상(象)’이 있는 것을 쫓다. ‘천지간에 존재하는 각종 물체[현상]를 쫓는다’하여, 인간이 오감(五感)에 따라 드러내는 물욕(物欲)의 세계를 표현한 것이다. 아래의 ‘상(象)’항목의 주석을 참조바람.

☆심증(心從): 마음이 따른다. 혹은 쫓다.

☆유상(有象): <만물은> 상을 가지고 있다. 『역전(易傳): 경(經)과 전(傳)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經)’은 주(周)나라 초기의 점치는 관리들이 자신들의 역사적 경험과 생활상의 경험 등을 반영하여 편집한 집책이고, ‘전(傳)’은 전국시대戰國時代 후기 제(齊)나라 직하(稷下): 제나라 직문稷門아래에 있었던 학사촌의 유생들이 유가를 바탕으로 도가와 음양가 사상 등을 흡수하여 주(周)나라 초기의 ‘경(經)’을 철학적으로 해석한 것임』에 의하면, 『역(易)』이란 책은 우주의 여러 사물과 그 변화발전의 공식을 간명한 상징으로써 본떠서, 이를 사람이 본받기에 편하도록 만든 것이다. 『주역(周易)·계사(繫辭) 하(下)』에서, “역(易)은 상(象)으로 되어 있다. 상이란 <객관사물의> 형상이다(易者, 象也. 象也者, 像也).”라고 하였다.

a. 상(象): ‘유상(有象)’항목의 주석에서 언급했듯이 상(象)이란, 객관사물의 형상이다. 유가(儒家)에서 말하는 ‘상(象)’이란, 『주역(周易)·계사(繫辭) 상(上)』에 보면, “성인(聖人)이 객관사물의 변잡한 현상을 관찰하여, 그 형상을 모방하고, 사물의 본질을 본뜬 것이다. 그래서 상(象)이라고 했다(聖人有以見天下之赜, 而擬諸其形容, 象其物宜, 是故謂之象).”라고 하였다. 또한 같은 책 『계사(繫辭) 상(上)』에서 “<이치가> 나타난 것이 상(象)이고, 형체를 이룬 것이 기물(器物)이고, 만들어서 이를 표준으로 삼아 사용하는 것이 법이다(見乃謂之象, 形乃謂之器, 制而用之謂之法). 모든 행동에 이롭게 적용하여, 백성 모두가 이를 표준으로 삼아 쓸 수 있으므로, 이를 신묘하다고 한다(利用出入, 民咸用之, 謂之神).”라고 하였다. 이를 개괄하면, ‘상(象)’이란, 성인이 우주간의 온갖 사물의 시시각각의 변동 상태를 관찰해서 그 형상을 모방하고 동시에 그 사물의 본질을 본뜬 것이라는 말로 정의할 수 있겠다.

② 다성망(多成妄): 대개 인간이 물욕(物欲)을 추종하는 결과 망령(妄靈)된 행동이 많이 일어나게 되다.

☆다(多): 부사로 쓰여, ‘대체로’의 뜻을 나타낸다.

☆다성망(多成妄): 망령(妄靈)되다.

a. 성(成): …이 되다. …으로 변하다.

b. 망(妄): 망령(妄靈).

6) 도본무형 이실원(道本無形易失源): 도는 형체 없는 이치를 근본으로 삼으니 근원 잃기 쉽다네):

① 도본무형(道本無形): 도는 본래 형체가 없다.

☆도(道): 도는 우주 만물의 근원이자 본체(本體)이며, 만물생성과 활동의 원리

인 까닭에 형상(形象)도 없고 설명도 형용도 할 수 없다. 『역경(易經)·계사전(繫辭傳上)』에, “음기와 양기가 활동하게 되는 원인이 되는 원리를 도라고 창한다(一陰一陽*之謂道*).”라고 한 구절이 있다. 한대(漢代) 이래로 이 명제(命題)에 대하여, 중국의 각 시대를 대표하는 명가(名家)들은 상이(相異)한 해석을 해왔다. 총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일음일양(一陰一陽) : 음양(陰陽)이란, 햇별이 드는 곳[陽地]에서 해를 마주 하고 있는 것을 ‘양(陽)’이라 하고, 햇별을 등지고 있는 곳[陰地]을 ‘음(陰)’이라고 한다. 지세(地勢)가 햇별을 향하고 있는가의 여부에 따라 음양을 말하는데, 이것이 음양의 본 뜻이다. 그러나 이 두 종류의 날씨 형태가 상징되고 추상화된 동시에 간략화된 것이 ‘음양(陰陽)’이란 두 종류의 본질인데, 이 두 종류의 본질은 일반적으로 상호모순 된 본질로서 모든 사물에 작용되기에, 『주역(周易)』의 변동법칙을 설명하는데 쓰였을 뿐 아니라, 자연현상과 사회생활을 설명하는 데 까지도 인용되었다.

예를 들면, 양(陽)은 천(天)·일(日)·서(暑)·주(晝)·강(剛)·건(健)·명(明)·진(進)·귀(貴)·군(君)·군자(君子)…… 등이고, 음(陰)은 지(地)·월(月)·한(寒)·야(夜)·유(柔)·유(幽)·퇴(退)·천(賤)·녀(女)·신(臣)·소인(小人) 등등으로 천지간에 일체의 대립하는 모든 사물을 포함한다.

a. 음양(陰陽) : 음양은 기(氣 : 우주만물을 형성하는 가장 근본적인 물질실체)이다. 『노자42장(老子四十二章)』에, “만물이 모두 음을 구비하는 동시에 양을 내포하고 있는데, 이 음양이기陰陽二氣가 격동해서 신생生生의 화기(和氣 : 음양이 교환된 기氣)가 만들어진다(萬物負陰而抱陽, 沖氣以爲和).”고 한 대목이 있다. 그러므로 ‘충기(沖氣)’란 ‘음양이기가 서로 격동한 후에 조화된 기(氣)’이며, 음양으로써 기(氣)가 드러나게 됨에 이른다(陰陽이 기(氣)가 드러나게 됨에 이른다)는 것이다. 『장자(莊子)』에서는 ‘음양’으로써 ‘기’를 설명하는 것이 더욱 분명해진다. 『장자(莊子)·대종사편(大宗師篇)』에, “음양의 기에는 서로 <정질이 상반되어> 상해(傷害)를 입히는 게 있지만, <조화되어> 그게 오히려 마음을 편안무사하게 한다(陰陽之氣有沴, 則其心閒而事).”고 한 대목이 있다. 이 글에서 보듯이 음양이 기와 결합한 ‘음양의 기’를 제시한 것이다. 『장자(莊子)·추수편(秋水篇)』에, “나는 나의 형체가 천지로부터 왔음을 알고, 또 한 음양으로부터 ‘기’를 받았음도 알기 때문이다(自以比形於天地, 而受氣於陰陽).”고 한 대목이 있다. 또한 『장자(莊子)·칙양편(則陽篇)』에는, “음양의 기는 정기精氣 중의 가장 큰 것이다(陰陽者, 氣之大者也).”라고 하였으니, 모두 ‘음양’으로 ‘기’를 표현한 것으로, 음양은 ‘음기(陰氣)와 양기(陽氣)’의 약칭이며, 이때의 음양의 뜻은 본질은 아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역전(易傳 : 송대의 정이천程伊川이 역경을 주석한 책)』 중의 ‘계사편(繫辭篇)』 문구에서도 “양기가 잠복해 있다(陽氣潛藏).”는 구절이 보인다. 『계사편』의 주석문에서도, ‘음양’을 ‘이기(二氣)’로 봤다. 음양이기설(陰陽二氣說 : 음양은 음기와 양기라는 학설)이 음양속성설(陰陽屬性說 : 음양은 성질본질에 속한다는 학설)과는 모순되는 점이 있긴 하지만, 구체적으로 음양 속성은 ‘기(氣)’라고 실제적으로 드러난 까닭에, 음양이기설에서의 ‘음양’은 여전히 대립·소장(消長 : 증감·흥망) 등의 성질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b. ‘일(一)’자의 해석

‘일(一)’자를 해석하려면, 반드시 ‘음양’을 연접(連接)해서 봐야 한다. 즉 ‘일(一)’자는 음양에 한정되는 것이기에 필히 ‘일음(一陰)’, ‘일양(一陽)’ 혹은 ‘일음일양(一陰一陽)’식으로 묶어서 해석해야지 ‘일(一)’자 단독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첫째, ‘음양’은 ‘성질[본질]’이란 논리에서 볼 때, ‘음양’은 실체(實體)가 아니기에 ‘일(一)’이란 숫자로써 뒤에 오는 ‘음(陰)·양(陽)’자에 수식시키거나 관련시킬 수 없는 까닭에, ‘일음일양(一陰一陽)’은 ‘하나의 음(陰)·하나의 양(陽)’이란 말이 아니고, ‘음양’이란 두 종류의 속성 사이의 상호변화’를 가리킨다. 그러나 ‘음양의 변화’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대립·교감 혹은 대립과 교감을 겸하는 성능을 지닌 점에서 예외는 아니다. 둘째, ‘음양’은 기(氣)라는 논리에서 볼 때, 기(氣)가 실체(實體)이기는 하지만, 기(氣) 자체가 형체로 얹혀있지 않으므로, 역시 수사(數辭)로써 뒤에 오는 음·양 자(字)에 수식시키거나 관련시킬 수 없는 까닭에 일음일양(一陰一陽)의 ‘일(一)’ 또한 ‘기(氣)의 변화’를 뜻하며, 이때의 ‘일(一)’은 동사이다. 마지막으로, ‘일음일양(一陰一陽)’이란 말을 ‘끊임없이 음양이 기(氣)가 되어 움직인다’라는 말로 볼 때, 이 구절의 뜻은 동사이며, 이때의 ‘일(一)’은 부사로서 주희(朱熹)의 관점에서 해석한 ‘일(一)’자의 의미이다. 부사로 쓰인 ‘일(一)’자의 뜻에 대해서는 아래의 “*도(道)”의 주석에서 주희의 주석부문을 참조 바란다.

*지위도(之謂道):

a. 지위(之謂): …라고 칭하다. …이다.

‘위지(謂之): …라고 칭하다. …이다)’와 ‘지위(之謂)’는 해석상 뜻의 차이는 없으나, ‘위지(謂之)’는 일반적인 용법이고, ‘지위(之謂)’는 특수용법으로 쓰이는 말이다. 『역전(易傳)』이 저작된 시기만 해도 이 두 가지 용어는 혼용된 상황이었다. 본 예문 ‘일음일양지위도(一陰一陽之謂道)’의 문구에서 쓰인 ‘지위(之謂)’란 말은 일반적인 생활용어가 아니라 특수용법으로 쓰인 것이며, 뒤에 오는 명사, ‘도(道)’자를 강조하고, 그 ‘도(道)’자가 지닌 정의(定義): 말이나 사물의 뜻을 명백히 밝혀 규정함)를 강조하기 위해서 쓰인 말이다.

b. 도(道): 『설문해자주(說文解字注)』에 의하면, “‘도’는 사람이 걸어갈 수 있는 궤[도로]이다(道, 所行道也).”고 하였다. 도로는 확정된 방향이 정해져 있는 동시에,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는 법식이 되는 까닭에, 길의 ‘방향성’을 전(轉)하여, ‘규를·원칙’ 등으로 ‘도(道)’를 해석하였다. 동진(東晉)의 역학가(易學家) 한강백(韓康伯: 332~380)은 『역경』을 주석하면서 위의 예문 ‘일음일양지위도(一陰一陽之謂道)’의 문구에 대하여 말하기를, “‘도’라는 것이 무엇인가? ‘무(無)’라고 칭하는 것이다(道者何? 無之稱也). 통하지 않는 것이 없고, 경유(經由)하지 않는 곳이 없는 까닭에, 비유해서 ‘도’라고 한 것이다(無不通也, 無不由也, 況之曰道). <그 ‘도’는> 정적(靜寂) 상태에서 실체(實體)가 없고, ‘상상[형상]’이 형성될 수 없다……(寂然無體, 不可爲象……). 음양이 비록 특수하기는 하지만, ‘도’가 무無이기에

한결같이 음양이 대립한다(陰陽雖殊，無一以待之). 음陰에는 음陰이 없지만, 음기(陰氣)로써 음陰이 생겨나고, 양陽에는 양陽이 없지만, 양기(陽氣)로서 양陽이 성장한다(在陰爲無陰，陰以之生，在陽而爲無陽，陽以之成). 그러므로 이르기를: ‘음양이 변화[교감·대립]하여 음이 되고, 음양이 변화[교감·대립]하여 양이 된다’(故曰: ‘一陰一陽’). 고 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도’는 만물이 거쳐 가는 도로이고, 만물에 통하는 것이기에, ‘도’는 만물이 형성되고 활동하는 원리임을 알 수 있다. 또한 ‘도’의 성질은 형체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으며, 형용할 수도 없다. 한강백이 논한 ‘음양(陰陽)’은 무음(無陰)·무양(無陽)에서 음과 양이 생성한 것으로 음양이(陰陽二氣)를 가리킨다.

송나라의 유학자 주희(朱熹: 1130~1200)는 『주자어류(朱子語類)·권74(卷七十四)』에서 말하기를, “‘도’는 반드시 ‘이(理: 이치)’와 ‘기(氣: 물질)’를 합해서 봐야 한다(道，須是合理與氣看). ‘이理’는 공허한 것이므로, 거기에 기질(氣質)이 없다면, 이 ‘이理’가 안돈(安頓)할 곳이 없다(理是虛底物事，無那氣質，則此理無安頓處). 『주역(周易)·계사편(繫辭篇)·상(上)』에서, ‘끊임없이 음양이 왕래하며 순환하는 이치가 곧 도이다(一陰一陽之謂道)’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바로 이리와 기를 겸해서 한 말이다(這便兼理與氣而言). 음양 그 자체는 기氣이고, 음양이 왕래하며 끊임없이 순환하는 것이 바로 이리이다(陰陽，氣也，一陰一陽 則是理矣). (이 말은 역시 『주역·계사편·상』에서 말함) ‘굴신(屈伸: 팔·다리를 굽혔다 폈다 함)하면서 끊임없이 왕래하며 순환하는 것이 변화이다’라는 말과 같다(猶言‘一闔一闢之變’). 굴신하며 왕래하는 그 자체는 변화가 아니고, 굴신하며 끊임없이 왕래하며 순환하는 것이 바로 변화이다(闔闢，非變也，一闔一闢，則是變也). 대개 음양 그 자체는 ‘도’가 아니라, 음양을 생성하게 하는 것[이치: 원인]이 ‘도’이다(蓋陰陽非道，所以陰陽者道也).”고 하였다. 주희는 먼저 이기(理氣)의 관계를 말하고, ‘이(理)’는 공허해서 볼 수 없는 까닭에, 반드시 ‘기(氣)’를 통해서 ‘이(理)’를 봐야 ‘도(道)’가 드러난다고 했다. 그래서 ‘일음일양지위도(一陰一陽之謂道)’를 종합적으로 설명하는 것을 겸해서 이기(理氣)를 논했다. 이어서 ‘음양(陰陽)’은 ‘기(氣)’이지, ‘도(道)’가 아님을 명확히 설명했으나, 이와 같이 음양을 설명한 것으로 볼 때, ‘음양’은 ‘음기(陰氣)’와 ‘양기(陽氣)’의 약칭임이 분명하다. ‘음양’이 ‘기(氣)’라는 것은 ‘도(道)’가 활동하는 두 개의 방향이지, ‘도’ 그 자체는 아니다. 따라서 ‘일음일양(一陰一陽)’은 ‘기(氣)’의 활동변화이며, ‘기(氣)’가 변화하는 것을 통해서 도(道)를 볼 수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주희의 관점에서 ‘일음일양지위도(一陰一陽之謂道)’를 해석한 것에 의하면, ‘끊임없이 음양이 왕래하며 순환하는 이치가 도이다’는 뜻이니, 이 때의 ‘일(一)’은 부사로 해석해야 하며, ‘끊임없이’라는 뜻이 되겠다.

청초(淸初)의 학자 왕부지(王夫之: 1619~1692)는 『주역내전(周易內傳)·권5(卷五)』에서 말하기를, “‘일음일양지위도(一陰一陽之謂道)’란 말은 성(性: 만유萬有의 본체)의 관념이 유래된 곳에서 널리 확충된 말이다(‘一陰一陽之謂道’，推性之所自出而言之). ‘도’는 천도(天道: 자연변화의

규를)이다(道謂天道). 음양이란 것은 태극(太極 : 우주만물이 생긴 근원이라고 보는 본체. 하늘과 땅이 아직 나뉘기 전의 세상만물의 원시상태, 태초의 혼돈스러운 기氣. 태극운동에 의거하여 태극이 음양으로 분화되고, 음양의 조화에 의거하여 사계四季의 변화가 일어나고, 이어서 각종 자연현상이 나타나는데, 이것이 우주만물의 근원이라고 함)이 지니고 있는 실질實質이다(陰陽者, 太極所有之實也). 무릇 음양 사이에서 생긴 것이 형체이고 현상이며, 정령(精靈 : 영혼)이고 실체實體이며 · 청명淸明이고 혼탁混濁이니, 천둥 · 바람 · 물 · 불 · 산 · 호수에서부터, 장구벌레와 새싹같은 작은 것에 이르기 까지, 형체를 갖춘 것에서부터 아직 형체를 갖추지 못한 것에 이르기 까지, 음양이기陰陽二氣가 서로 교감하면서 물질로 대체되는 초기에, 만물에 음양이기陰陽二氣가 빈틈없이 꼭 차서 분명히 각각 하나의 물질이 되었어도……천지간에 충만한 것은 오로지 음양이기陰陽二氣 뿐이다(凡兩間之所有, 爲形, 爲象, 爲精, 爲氣, 爲清, 爲濁, 自雲, 風, 水, 火, 山, 澤, 以至蜎子, 萌芽之小, 自成形而上以至未有成形, 相與網緼代之初, 皆二者之充塞無間而判然各爲一物……盈天地之間, 惟陰陽而已矣). (‘일음일양지위도一陰一陽之謂道’라고 한 말에서의) ‘일일(一一)’이라고 하는 것은 음양이 상호교합하여 조절을 주재하는 것을 이르는 말이다(一一云者, 相合以成住持而分劑之謂也). 음만 있고 양이 없는 것은 없으며, 양만 있고 음이 없는 것은 없으니, 음양은 서로 의지하며 분리되지 않는다(無有陰而無陽, 無有陽而無陰, 兩相倚而不離也). 그 음양이 각자 보였다 안보였다 하면서도, 저것으로 조절되었다 이것으로 조절되었다 상호 왕래하는 것이니, ……이 태극이 원인이 되어 만물이 출생하고 만 가지 이치가 성립되어서 만사가 발생하는 것이니, 개시[발생]하면서 의지하고 성장하면서 의지하는 본체이기에, ‘도’라고 한다(隨其隱現, 一彼一此之互相往來……此太極之所以出生萬物成萬理而起萬事者也, 資始資生之本體也, 故謂之道).”고 하였다.

왕부지(王夫之 : 1619~1692)는 ‘일음일양지위도(一陰一陽之謂道)’라는 말을 ‘성(性)’의 유래에서 설명하려고 하였다. 왕부지는 그의 이론적 구조를 명확히 설명하지는 않았으나 존재론(存在論 : 존재 또는 존재의 근본적이고도 보편적인 모든 규정을 연구하는 학문)에 입각하여 말한 것으로 보이며, 우주론(宇宙論 : 우주의 본체 · 기원 · 구성 · 법칙 · 운동 따위에 관한 근본원리를 따지는 이론)의 관점에서도 말한 것으로 보인다. 왕부지가 말한 ‘성(性)’은 ‘본질’로 해석되는데, 이는 만물이 만물로 만들어진 원인을 설명한 것이다. 또한 ‘도(道)’를 ‘천도(天道)’라고 했는데, 이는 ‘천(天)’으로써 ‘도’를 말한 것으로, ‘도’는 만물체계 구조에서 그 지위가 가장 높은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또한 음양은 이기(二氣)라고 했다. 이 이기(二氣)는 천지에 충만하다고 했으니, 이는 형이상학(形而上學 : 사물의 본질, 존재의 근본원리를 사유나 직관에 의해 탐구하는 학문)과 형이하학(形而下學 : 형체를 구비하고 있는 사물을 연구하는 학문)을 관통하고 있다. 이기(二氣)는 태극에 내포되어 있는 것으로써 기(氣)를 떠나서는 태극이 존재할 수 없다. 기(氣)로써 만물이 생화(生化)되니 태극은 만물의 본체인 까닭에 ‘도(道)’라고 한 것이다. 또한 그는 ‘일음일양지위도(一陰一陽之謂道)’에서, 그 때의 ‘일(一)’자는 동사로 해석해

야 하며, 그 뜻은 ‘기(氣)가 흘러 변동하고 분합교감(分合交感)한다’는 것이다.

현대중국의 훈고학자인 고흥(高亨: 1900~1986)은 『주역대전금주(周易大傳今注)』에서, “일음일양(一陰一陽)이란 말은 음양이 모순·대립하고 상호전화(相互轉化) : 한 사물이 서로 변해서 다른 사물로 됨: 대립하는 음양이 서로 뒤바뀐다는 것으로, 이것은 규률이다(一陰一陽, 互相轉化, 是謂規律).”고 하였다. 고흥(高亨)의 음양에 대한 이와 같은 견해는 ‘음양은 양종(兩種)의 상이(相異)한 속성(屬性)’인데, 이 두 종류의 속성이 모순·대립하고 전화(轉化)되는 가운데 통일되는 규률이 바로 ‘도(道)’라는 것이다.

김경방(金景方: 1902~2001: 길림대학吉林大學 교수역임)도 『주역(周易)·역사전(易辭傳)·신편상해(新編詳解)』에서, “‘일음일양(一陰一陽)이란 말은 실제적으로 음양이 대립하는 것’을 말한 것이고, 통일되는 것을 말한 것이기도 하다(實際上既講對立, 又講統一). 『주역』에서 볼 때, 주요한 것은 건괘乾卦와 곤괘坤卦란 두 괘卦이다(從『易』經)上看, 主要是乾坤兩卦). ‘도’는 규률이다(‘道’是規律). 이 말의 뜻은 대립하다가 통일되는 것이 바로 규률이란 말이다(這句話的意思是說, 對立統一才是規律).”고 하였다. 고흥(高亨)과 김경방(金景方)의 음양에 대한 해석은 음양의 양자(兩者)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관계임을 밝히는데 중점을 두었다. ‘도(道)’가 규률이고 법칙이며 변동하는 이치[理]라고 하면서도, 그 본체에 대한 언급이 없어 주희(朱熹)가 말한 ‘도’와는 차이가 있다.

이상을 정리하면, ‘일음일양지위도(一陰一陽之謂道)’에 대한 해석은 다양하다. 그러나 이 말은 유가사상에는 부합되지만, 도가적(道家的) 해석이나 불가적(佛家的) 해석은 불가하다. 여기서 말하는 ‘도’는 두 가지로 귀결시킬 수 있는데, 하나는 ‘도’를 ‘이칙(理則)’ 또는 ‘규률’로 보는 것인데, 이때의 ‘도’는 형이상학적인 동시에 형이하학적인 두 가지의 의미를 모두 포괄하고 있다. 다른 하나는 ‘도(道)’를 형이상학적 본체로만 보는 것인데, 이것이 비교적 「계사편(繫辭篇)」의 원뜻에 더 부합된다. ‘도’를 위의 첫 번째 의미로 봤을 때도, 두 가지 뜻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이 때의 음양(陰陽)을 ‘특질 또는 속성(屬性)’으로 봤을 때인데, 이때의 ‘일음일양지위도(一陰一陽之謂道)’의 뜻은, ‘음양의 변화는 규률이다’고 해석하는 경우이고, 둘째는 음양을 ‘이기(二氣)’로 봤을 때인데, 이때의 ‘일음일양지위도(一陰一陽之謂道)’의 해석은 ‘음기(陰氣)와 양기(陽氣)가 변화하는 활동을 규률이라 칭한다’라고 한다. 또한 두 번째의 경우에서, 음양을 이기(二氣)로 봤을 때에도 두 가지 각도에서 해석할 수 있으니, 그 하나는 존재론(存在論)의 관점에서 봤을 때인데, 이때의 ‘일음일양지위도(一陰一陽之謂道)’는 ‘음기(陰氣)와 양기(陽氣)가 활동하는 원인이 되는 원리를 도(道)라고 칭한다’고 해석한다. 다른 하나는 존재론과 우주론이 혼합된 관점에서, ‘일음일양지위도(一陰一陽之謂道)’를 해석하는 경우인데, 이때는 그 해석을 ‘음기와 양기가 활동하는 원리가 바로 도(道)이다’라고 한다. (이상은 대만(臺灣) 보인대학교(輔仁大學校) 나자상(羅子翔)의 논문 「一陰一陽之謂道觀念釐析」(醒吾學報 제29期, 2005)을 축약 정리한 것임)

- 7) 탄이백두 금상이(嘆我白頭今尙爾 : 나의 백발 탄식은 지금도 여전할 따름인데) :
- ① 탄이백두(嘆我白頭) : 나의 백발을 탄식하다.
 - ② 금상이(今尙爾) : 지금도 여전할 따름이다.
 - ☆상이(尙爾) : 여전할 따름이다.
 - a. 상(尙) : 여전하다. 변함없다.
 - b. 이(爾) : 조사(助詞)로 쓰였으며, 구말(句末)에서 ‘제한’하는 성격을 띄운다.
본 시에서는 ‘…할 따름이다’라는 뜻으로 쓰였다.
- 8) 세연하시 일부운(世緣何翅一浮雲 : 세상 인연을 어찌 뜬 구름 같다고만 하리!) :
- ① 세연(世緣) :
 - ☆속연(俗緣). 이 세상의 인연.
 - ☆사람의 세간사(世間事).
 - ② 하시(何翅) : ‘하시(何嘗)’로도 쓰며, ‘어찌 …에 그치겠는가? 어찌 …뿐이랴!’의 뜻이다.
 - ☆시(翅) : ‘시(嘗)’와 같으며, ‘단지…이다. …뿐이다’의 뜻이다.
 - ③ 일부운(一浮雲) : 뜬 구름 같다.(본 시에서는 세상사가 덧없음을 비유적으로 표현하였음).
 - ☆일(一) : 같다. 동일하다.
 - ☆부운(浮雲) : 뜬 구름. 덧없는 세상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시79. 서천군西川君으로 봉해진 여인汝仁
 정곤수鄭崑壽 공公이 성주군星州郡에서
 경성京城으로 돌아가다가 하회에 있는
 나를 방문하셨기에, 술숯 우거진
 정자에서 간소한 주연酒宴을 베푼 후에,
 다시 배를 타고 북담北潭을 건너가
 능파대凌波臺에 올라갔다가, 날이 저물
 무렵이 돼서야 이별하였다. 여인汝仁
 공公은 평소에 소갈증消渴症을 앓고 있는
 지라, 이날 흥시 여러 접시를 드시고
 가셨다. 이미 작별은 했지만, 소동파
 蘇東坡의 시詩 「석전역石田驛」을 차운次韻하여
 여인汝仁 공公에게 부치려 한다.

詩79. 西川君鄭汝仁¹⁾自星州還京²⁾訪余河上³⁾小酌松亭⁴⁾
 서 천 군 정 여 인 자 성 주 환 경 방 여 하 상 소 작 송 정
 又舟渡北潭⁵⁾登凌波臺⁶⁾日暮相別 汝仁素患消渴⁷⁾
 우 주 도 북 담 등 능 파 대 일 모 상 별 여 인 소 환 소 갈
 是日多食紅柿數櫟⁸⁾而去 旣別 次東坡「石田驛」韻⁹⁾
 시 일 다 식 흥 시 수 접 이 거 기 별 차 동 파 석 전 역 음
 欲寄汝仁
 욕 기 여 인

茅屋三間松萬株,
 모 옥 삼 간 송 만 주

초가삼간은 만 그루 솔숲에 둘러싸였는데,

淡烟連村橫一抹¹⁰。
담 연 연 촌 횡 일 말

열은 연무烟霧 촌락에 잇닿아
일렬로 길게 깔렸네.

柴門¹¹今日爲君開,
시 문 금 일 위 군 개

사립문은 오늘 서천군西川君을 위해서
열어줬고,

紅柿清茶慰客渴¹²。
홍 시 청 다 위 객 갈

홍시와 녹차로 소갈증 앓는 손님을
위로했네.

日晚携手¹³步江沙,
일 만 휴 수 보 강 사

날 저무는데 손잡고 강변 백사장 거닐다가,

共上秋山山路滑¹⁴。
공 상 추 산 산 로 활

함께 가을 산을 올랐는데
산길이라 조심해서 걸었네.

酒醒人散忽怊悵¹⁵,
주 성 인 산 홀 초 창

술 깨고 벗도 돌아가니 홀연 섭섭하여,

獨向雲間望閭闔¹⁶。
독 향 운 간 망 창 합

홀로 먼 하늘 향해 궁궐 쪽을 바라보네.

-
- 1) 서천군 정여인(西川君鄭汝仁 : 서천군西川君으로 봉해진 여인汝仁 정곤수鄭崑壽) :
① 서천군 정여인(西川君鄭汝仁) : 서천군(西川君) 여인(汝仁) 정곤수(鄭崑壽).
☆서천군(西川君) : 정곤수(鄭崑壽)가 1587년에 흉년을 겪은 황해도에 관찰사로 임명되어 진휼사업에 큰 성과를 거둔 후에 받은 공훈의 칭호이다.
☆정여인(鄭汝仁) : 여인(汝仁) 정곤수(鄭崑壽). 이렇게 성씨 다음에 자(字)를 쓴 것은 경칭(敬稱)의 한 예이다.
a. 정곤수(鄭崑壽 : 1538~1602) : 조선 중기의 문신이다. 본관은 청주(淸州). 자는 여인(汝仁), 호는 백곡(栢谷)·경음(慶陰)·조은(朝隱)이다. 초명(初名)은 규(逵). 곤수는 선조의 하사명(下賜名)이다. 성주(星州)에 향촌적 기반을 두고 있었다. 아버지는 부사맹(副司猛 : 조선시대 5위에 있던 종8품 무관직) 사중(思中)이며, 어머니는 부사과(副司果 : 조선시대 5위에 있던 종6품 관직) 정희수(鄭希壽)의 딸이다. 큰아버지인 대호군 승문(承門)에게 양자로 들어갔다. 1565년(명종 20) 예안 도산정사(陶山精舍)로 이황(李滉 : 1501~1570)을 찾아가 『심경(心經)』을 전수받았다. 그 이후로도 관계를 지속하여, 1566년에는 김굉필(金宏弼 : 1454~1504)의 사적·시문과 그에 관한 다른 선비들의 글을 모아 이황에게 보내기도 했으며, 이황은 주로 그것

들을 바탕으로 『정현록(景賢錄)』을 편찬하였다. 1555년 별거초시(別舉初試)를 거쳐 1567년(선조 즉위년)에 진사시에 합격하였다. 1572년 성균관의 천거를 받아 의금부도사가 됨으로써 관료에 들어섰다. 그 이후 경령·전생서직장(典生署直長)·주부(主簿)·장례원사평(掌隸院司評)을 역임하였다. 1575년 중시문과(重試文科) : 문과 과거에 급제한 사람을 계속하여 격려하는 뜻으로 실시한 특별시험)에 갑과(甲科)로 급제하였고, 부사과(副司果)를 거쳐 1577년에 공주목사로 승진하였다가 곧 상주목사로 옮겼다. 1581년 사과(司果 : 오위五衛에 두었던 정6품의 군직軍職. 부사과의 위, 부사직副司直의 다음임. 현직에 있지 아니한 문관과 무관 및 음관(蔭官)으로 시켰음)·파주목사(坡州牧使), 1583년 부호군 겸 오위장(五衛長 : 오위의 으뜸관직으로 종2품관임)을 거쳐 강원도관찰사가 되었으며, 이 때 단종의 능인 영월의 노릉(魯陵)에 사묘(祠廟)를 세우고 위판(位版)을 봉안하였다. 1585년 첨지중추부사(僉知中樞府事)·동부승지(同副承旨)·우부승지(右副承旨), 1586년 상호군(上護軍)·호조참의(戶曹參議)·좌부승지(左副承旨)·우승지(右承旨)를 역임하고, 1587년에는 여러 해 흉년을 겪은 황해도와 관찰사로 특별히 임명되어 진휼사업에 큰 성과를 거두었다. 1588년 첨지중추부사가 되고 서천군(西川君)에 봉해졌다. 1589년 도총관(都摠管)을 겸하고 관찰사가 되었으며, 이듬해에는 충훈부(忠勳府) 공신등록을 편찬하고 동지돈녕부사(同知敦寧府事) 겸 오위장, 대사성(大司成 : 정3품)·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 : 종2품)를 역임하였다. 1591년 동지의금부사(同知義禁府事)·대사성·한성부좌윤(漢城府左尹) 등을 거쳐 1592년 병조참판(兵曹參判)이 되었다가 형조참판(刑曹參判)으로 옮겼으며, 그 때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의주(義州)로 선조를 호종하였다. 대사간(大司諫 : 정3품)이 되어서는 명나라에 원병을 청할 것을 건의하였으며, 청병진주사(請兵陳奏使)로 중국에 파견되었다. 1593년 원병을 얻어온 공로로 승정대부(崇政大夫)에 판돈녕부사(判敦寧府事)가 되었다. 이즈음 영위사(迎慰使)·접반사(接伴使)를 맡아 명나라 장수와의 교섭을 담당하였다. 같은 해 거듭 보국숭록대부(輔國崇祿大夫 : 정1품 양반에게 주는 칭호)에 오르는 상을 받고 판의금부사(判義禁府事 : 의금부의 으뜸벼슬)가 되었다. 1595년 도총관(都摠管)·예조판서(禮曹判書), 1596년 좌찬성(左贊成)을 역임하고, 1597년 판의금부사·도총관 등을 겸하고 사은 겸 변무진주사(謝恩兼辨誣陳奏使)로 명나라에 다녀왔다. 1601년 선조를 호종한 원훈(元勳)으로 이항복(李恒福 : 1556~1618)과 함께 녹훈(錄勳)되었다. 일찍이 수령을 지낼 때는 학문을 진흥시키고 사풍(士風)을 진작시키는 데에 힘썼으며, 임진왜란 당시의 대명외교(對明外交)에 큰 역할을 하였다. 죽은 뒤인 1604년 호성공신(扈聖功臣) 1등에 녹훈되었으며 서천부원군(西川府院君)에 추록되었다. 성주의 유계서원(柳溪書院)에 제향되었다. 저서로 『백곡집(栢谷集)』 4권 4책이 규장각도서에 전한다. 영의정에 추증되었으며, 시호는 충민(忠愍)이었는데 충익(忠翼)으로 바뀌었다.

2) 자성주환경(自星州還京 : 성주군에서 경성으로 돌아가다) :

- ① 성주(星州) : 지금의 경북 남서부에 위치한 성주군(星州郡)을 말한다. 본래 6가

야(六伽倻)의 하나인 성산가야(星山伽倻)로, 신라가 이를 정벌하여 본피현(本彼縣)을 두었다. 경덕왕 때 신안(新安)이라 고쳐 성산군의 영현(領縣)으로 하였다가, 후에 벽진군(碧珍郡)으로 고쳤다. 고려 태조 때 경산부(京山府)로 고쳤다가 경종 때 다시 광평군(廣平郡)으로 개칭하였다. 성종 때는 대주도단련사(垔州都團練使)를 두었으며, 현종 때 단련사를 폐하고 다시 경산부로 하였다. 충렬왕 때 흥안도호부(興安都護府)로 승격하였다가 성주로 고쳐 목(牧: 큰 고을에 두었던 지방행정단위. 으뜸벼슬은 牧使였음)으로 하였고, 충선왕 때 다시 경산부로 하였다. 조선 태종 때 목(牧)으로 고쳐졌고, 그 후 여러 번 변천을 거쳐 1895년(고종 32)에 군으로 되었다. 현재, 동쪽은 낙동강을 경계로 달성군(達城郡)·칠곡군(漆谷郡), 서쪽은 금릉군(金陵郡)과 경남 합천군(陝川郡), 남쪽은 고령군(高靈郡), 북쪽은 금릉군과 접하고 있다. 가야 문화권의 역사와 전통을 지닌 선비문화의 고장이며 아직까지 개발의 손길이 많이 닿지 않은 지역이다. 면적은 614.07km², 인구 46,509명(2014년 현재)이며, 1읍 9면 111개 리로 되어 있다. 군청 소재지는 성주읍(星州邑) 경산리(京山里)이다.

- 3) 방여하상(訪余河上): 하회에 있는 나를 방문하다: 여인(汝仁) 정곤수(鄭崑壽)가 하회에 있는 서애를 방문하다.
 - ① 하상(河上): 하회(河回) 마을의 별칭이다. 자세한 것은 앞의 「시70」 주석5)의 ③의 ‘하상(河上)’ 조항을 참조바람.
- 4) 소작송정(小酌松亭): 술술 우거진 정자에서 간소한 주연을 베풀다:
 - ① 소작(小酌):
 - ☆간소한 주연(酒宴).
 - ☆손님을 초청해놓고 베푼 주연에 대한 겸칭.
 - ② 송정(松亭): 술술 사이에 지은 정자. 본 시제(詩題)의 내용으로 볼 때, 하회마을 북촌의 화천(花川)과 부용대(芙蓉臺)를 모두 감상할 수 있도록 북쪽을 향하여 지은 정사(精舍), 곧 원지정사(遠志精舍: 서애 선생이 선조 9년(1576년, 35세)에 잠시 조정에서 물러나 있을 때 만송정이 한 눈에 들어오는 마을 북쪽에 원지정사를 짓고 학문을 했던 곳으로 은퇴한 후에는 정양하던 곳이기도 함)의 서쪽 누각인 연좌루(燕坐樓: 원지정사와 한 담 안에 지은 것으로 여기에 오르면 강가의 소나무 숲과 건너편 부용대의 옥연정사와 한 눈에 들어옴. 곡선이 제비를 닮았다하여 연좌루 라고 칭함)를 창하는 것으로 보인다. ‘연좌루(燕坐樓)’관련은 앞의 「시31」의 주석1)의 ② ‘연좌루(燕坐樓)’ 조항을 참조바람.
- 5) 북담(北潭): 풍산류씨(豐山柳氏) 후손이 전하는 바에 의하면, 하회마을의 강 건너편 북쪽에 위치하는 부용대(芙蓉臺) 앞을 흐르는 낙동강은 바로 부용대 앞에서 수심(水深)이 깊어지면서 소(沼)를 형성하는데, 이곳을 하회마을 사람들은 ‘북담’ 혹은 ‘옥연소(玉淵沼)’라 칭했다고 한다.
- 6) 능파대(凌波臺): 앞의 「시75」의 주석3)의 ‘능파대(凌波臺)’ 조항을 참조바람.
- 7) 소갈(消渴): 갈증으로 물을 많이 마시고 음식을 많이 먹으나 몸은 여윌고 오줌의 양이 많아지는 병. 소갈증(消渴症)이라고도 하고 조갈증(燥渴症)이라고도 한다.
- 8) 시일 다식홍시수접(是日多食紅柿數楮: 이날 홍시 여러 접시를 드셨다): 귀빈으로 내방(來訪)한 정여인(鄭汝仁)이 소갈증을 앓고 있다는 것을 알고 서애는 그에게 홍시를 여러 접시를 내놓고 자주 먹도록 하였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다. 이 병은 오늘

날의 당뇨환자들이 호소하는 3대 증상인 다음(多飲)·다식(多食)·다뇨(多尿)에 가까운 증상이다.

① 접(楫): 운두(그릇 따위의 높이)가 낮아 바닥이 얇고 평평하며, 쟁반보다 작다. 후 세에 와서는 주로 ‘접(碟: 접시)’자로 썼다.

9) 차등과 「석전역」운(次東坡石田驛韻: 소동파의 시 「석전역(石田驛)」을 차운하여):

① 차운(次韻): 앞의 「시20」 주석1)의 ② ‘차운(次韻)’ 조항을 참조바람.

② 등파(東坡): 소식(蘇軾)의 호(號).

☆소식(蘇軾: 1037~1101): 북송(北宋) 미주(眉州) 미산현(眉山縣) 사람이다.

자는 자첨(子瞻) 또는 화중(和中)이고 호는 동파거사(東坡居士) 또는 설당(雪堂), 단명(端明), 미산 적선객(眉山謫仙客), 소염경(笑髯卿), 적벽선(赤壁仙) 등을 썼으며, 애칭으로 파공(坡公) 또는 파선(坡仙)을 쓰기도 했다. 소순(蘇洵: 1009~1060)의 아들이고 소철(蘇轍)의 형으로 대소(大蘇)라고도 불렸다. 송나라 최고의 시인이며, 당송팔대가(唐宋八大家)의 한 사람이다. 인종(仁宗) 가우(嘉祐) 2년(1057) 진사에 급제하고, 다시 제과(制科)에 합격했다. 봉상부첨서관관(鳳翔府簽書判官)으로 있다가 소환되어 사관(史館)에 근무하면서 개봉부추관(開封府推官)을 지냈다. 구양수(歐陽脩: 1007~1072)에게 인정을 받아 문단에 등장했다. 왕안석(王安石: 1021~1086)의 신법(新法)이 실시되자 구법당(舊法黨)으로 신종(神宗) 화녕년간(熙寧年間: 1068~1077)에 그 불편함을 지적한 글을 올렸다가 항주통판(杭州通判)으로 전출되었다. 밀주(密州)와 서주(徐州), 호주(湖州)의 지주(知州)를 지냈다. 원풍년간(元豐年間: 1078~1085)에 “독서가 만권에 달해도 율은 읽지 않는다(讀書萬卷不讀律)”고 했다가 사상 초유의 필화사건을 일으켜 경사(京師)로 호송되어 어사대(御史臺)의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 나중에 호북성(湖北省) 황주단련사(黃州團練使)로 유배되었다. 철종(哲宗)이 즉위하면서 구법당이 득세하자 등주지주(登州知州)로 재기하고 중서사인(中書舍人)과 한림학사겸시독(翰林學士兼侍讀)에 올랐다. 용도각학사(龍圖閣學士)로 항주지주(杭州知州)가 되었는데, 크게 가물어 기근과 질병이 함께 창궐하자 공미(供米)를 올리는 것을 면제 받아 저렴한 가격으로 방출하여 많은 사람들을 구했다. 항주가 바다에 가까워 주민들이 샘물에 짠 맛이 들어 괴로워하자 하천을 준설하는 한편 서호(西湖) 주변에 30리의 제방을 증축하여 주민들의 편리를 도모했다. 원우6년(元祐六年: 1091)에 소환되어 한림승지(翰林承旨)가 되었지만, 얼마 뒤 참소(讒訴)를 당해 영주지주(潁州知州)로 나갔다가 양주(揚州)로 옮겼다. 나중에 단명전 한림시독 양학사(端明殿翰林侍讀兩學士)로 定州知州로 나갔는데, 혜주(惠州)로 폄적되었다. 소성년간(紹聖年間: 1094~1097)에 다시 경주별가(瓊州別駕)로 폄적되고, 창화(昌化)에 거주했다. 황태후의 죽음을 계기로 신법당이 다시 세력을 잡자 중국 최남단의 해남도(海南島)로 유배되었다. 그곳에서 7년 동안 있던 중, 휘종(徽宗)의 즉위와 함께 원무 3년(元符三年: 1101)에 사면(赦免)받고 석방되어 돌아오다가 강소성(江蘇省) 상주(常州)에서 죽었다. 당시(唐詩)가 서정적인 데 대하여 철학적 요소가 길었고 새로운 시경(詩境)을 개척했다. 대표작 「적벽부(赤壁賦)」는 불후의 명작으로 널리 애창되고 있다. 시·서·화(詩書畫)에 모두 뛰어났다. 저서에 『동파칠집(東坡七集)』과 『동파지림(東坡志林)』, 『동파약부』

(東坡樂府)』, 『구지필기(仇池筆記)』, 『논어설(論語說)』 등이 있다.

- ③ 석전역(石田驛) : 소동파(蘇東坡)가 지은 시의 시제(詩題)이다. 그가 지은 시의 원래 명칭은 「흥국현(興國縣 : 지금의 강서성江西省 흥국현)에서 군주(筠州 : 지금의 강서성江西省 고안현高安縣)에 갔다가, 석전역에서 25리 되는 곳에 있는 은사隱士의 집에 숙박하면서(自興國往筠, 宿石田驛二十五里野人舍)」라는 시이다. 서에는 동파가 지은 시의 제목이 너무 길어, 본 시제(詩題)에서는 원시제(原詩題)를 축약하여 표현한 것이다.
- 10) 담연연촌 횡일말(淡烟連村橫一抹 : 열은 연무烟霧 촌락에 잇닿아 일렬로 길게 깔렸네) :
- ① 담연(淡烟) : 열은 연무(烟霧).
- ② 연촌횡일말(連村橫一抹 : 촌락에 잇닿아 일렬로 길게 깔리다) :
- ☆연(連) : 동사로 쓰여, ‘닿다. 연결되다. 이어지다.’의 뜻으로 쓰였다.
- ☆횡일말(橫一抹) : 가로질러 일렬로 길게 깔리다.
- a. 횡(橫) : 가로 지르다.
- b. 일말(一抹) : 한 줄로 길게 깔리다. 한줄기 · 한 무더기의 뜻이나, 본 시에서는 연무(烟霧)가 일렬로 길게 깔리다는 뜻의 술어로 쓰였다.
- 11) 시문(柴門) : 사립문.
- 12) 홍시청차 위객갈(紅柿淸茶慰客渴 : 홍시와 녹차로 소갈증 앓는 손님을 위로했네) :
- ① 홍시청차(紅柿淸茶) : 홍시와 녹차.
- ② 위객갈(慰客渴) : 손님의 소갈증을 위로해 주다.
- ☆위(慰) : 위로하다.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다.
- ☆갈(渴) : 소갈증(消渴症). 한의학에서는 이 병의 증상은 갈증으로 물을 많이 마시고 음식을 많이 먹으나 몸은 아위고 오줌의 양이 많아지는 병이다. 오늘날의 당뇨병과에 유사하다.
- 13) 휴수(携手) : 손을 잡다.
- 14) 산로활(山路滑) : 산길이라 미끄러워서 조심하여 걷다.
- ① 산로(山路) : 산 길.
- ② 활(滑) : 미끄러워서 살금살금 걷다. 본 시에서는 산길이 가팔라서 미끄러지는 상황을 표현하였다.
- 15) 주성인산 홀초창(酒醒人散忽怱悵 : 술 깨고 벗도 돌아가니 홀연 섭섭하여) :
- ① 인산(人散) : 벗과 헤어지다.
- ☆인(人) : 본 시에서는 동료나 벗을 가리키는 뜻으로 쓰였다.
- ② 초창(怱悵) :
- ☆섭섭하다. 아쉬워하다.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 ☆실망하다, 실의에 차다.
- ☆슬퍼하는 모양.
- ☆실망하여 멍하니 있는 모양.
- ☆실망하거나 실의(失意)하여 슬퍼하고 괴로워하다.
- 16) 독향운간 망창합(獨向雲間望闔闔 : 홀로 먼 하늘 향해 궁궐 쪽을 바라보네) :
- ① 운간(雲間) :
- ☆‘하늘’을 가리키는 말.

☆이주 높고 먼 곳. 본 시에서는 한양(漢陽)을 가리키는 말로 쓰였다.

② 창합(閭闔):

☆궁전(宮殿)을 가리킨.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으며, 도성(都城)의 궁궐을 대칭(代稱)한 말로 쓰였다. 당나라 시인 두보(杜甫: 712~770)의 시로서, 팔애시(八哀詩) 중의 제6수, 「고故 비서소감秘書少監 경조부京兆府 무공현武功縣 사람 소원명蘇源明 공공(故秘書少監*武功*蘇公源明)」에, “아침부터 총망하게 입궁하여 업무수행 했는데, 현장근무 오래하자 발바닥에 굳은 살이 박혔다네(晨趨閭闔內, 足踏*宿昔*跣*).”라고 읊은 구절이 있다. 이 시구에 대하여, 청(淸) 나라의 학자 구조오(仇兆鰲: 생몰년 미상)는 『두시상주(杜詩詳注)』에서, “천상에 창합전(閭闔殿: 천제의 궁전)이 있는 까닭에, 인간세상에서도 제전(帝殿: 황제의 궁전)이 있는 것이니, 이 궁전의 명칭 역시 ‘창합’이라 한 것이다(天上有閭闔殿, 故人間帝殿, 亦名閭闔).”고 하였다.

*비서소감(秘書少監): 비서성(秘書省)의 차관. 종4품직이다.

*무공(武功): 경조부(京兆府) 무공현(武功縣): 지금의 섬서성(陝西省) 서안시(西安市).

*족답(足踏): 발로 밟다, 전(轉)하여, ‘현장근무하다’의 뜻으로 쓰였다.

*숙석(宿昔): 오랜 시간 경과하다.

*견(跣): 손이나 발바닥의 굳은 살.

☆전설상의 천문(天門: 천제天帝가 거처하는 궁궐의 문). 『초사(楚辭)·이소(離騷)』에, “내가 천제의 궁문 문지기에게 궁문을 열라고 했더니, 〈그는 오히려〉 궁문에 기대어서 나를 응시하였네(吾令帝閭開關兮, 倚閭闔而望予).”라고 읊은 구절이 있다.

a. 제훈(帝閭): 천제(天帝) 궁궐의 궁문 문지기.

b. 개관(開關): 궁문, 관문(關門), 성문(城門) 등의 문을 열다. 또는 그 문.

☆가옥(家屋: 사람이 사는 집: 가정집)의 문. 『설문(說文)·문부(門部)』에, “초나라 사람들은 가정집의 모든 문을 ‘창합(閭闔)’이라고 한다(楚人名門皆曰閭闔).”고 하였다.

☆궁문(宮門)이나 경도(京都)의 성문(城門)을 가리키는 말.



시80. 송정松亭에서 송운대사松雲大師 유정惟政을 송별하면서

詩80. 松亭別松雲¹⁾
송 정 별 송 운

西風松下一杯酒，
서 풍 송 하 일 배 주

서풍 부는 소나무 아래서 술 한 잔 하는데,

關海三年怨別心²⁾。
관 해 삼 년 원 별 심

(왜군에 납치된 백성들은) 바닷길에 막힌
삼년간 이산離散된 마음에 원망 많았으리.

白首相逢又分手，
백 수 상 봉 우 분 수

(우리도) 백발 되어 만났다가
또 헤어져야 하는데,

江潭落木秋雲深³⁾。
강 담 낙 목 추 운 심

북담北潭 강변에는 낙엽지고
가을 하늘 구름 짙으네.

1) 송정별송운(松亭別松雲 : 송정에서 송운대사 유정을 송별하다) :

송운대사[惟政 : 사명대사四溟大師]는 임난 중에 체찰사(體察使) 서애 류성룡의 휘하에서 승군(僮軍)을 통솔하여 명장(明將)과 협력하여 평양을 수복했다. 본 시의 시제(詩題)는 이재호 번역·감수 『국역 서애전서II-1 · 잡저(雜著) · 송운(松雲)』에서 시재(詩材)를 취하여, 시제(詩題)로 만든 것으로 보인다.

① 송정(松亭) : 여기의 송정(松亭)은 「시79」 주석4)의 ②의 ‘송정(松亭)’ 조항을 참조바람. 본 시에서 송정은 원지정사(遠志精舍)와 한 담 안에 위치한 연좌루(燕坐樓)를 칭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연좌루 관련 자료는 역시 앞의 「시31」의 주석1)의 ‘연좌루(燕坐樓)’ 조항을 참조바람.

- ② 송운(松雲) : 송운대사(松雲大師), 유정(惟政)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앞의 「시65」의 주석1)의 ‘송운사(松雲師)’ 조항을 참조바람. 또한 이재호 번역·감수의 같은 책도 참조바람.
- 2) 관해삼년 원별심(關海三年怨別心) : <왜군에 납치된 백성들은> 바닷길에 막힌 삼년간 이산離散된 마음에 원망 많았으리) :
- 임진·정유양란(壬辰丁酉兩亂) 중에 왜국(倭國)으로 끌려간 조선백성들의 생이별의 한(恨)을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 ① 관해삼년(關海三年) : 바닷길에 막힌 삼년간.
- ☆관해(關海) : 바다의 길[海路]에 막히다(막다).
- a. 바다에 막히다. 이는 일본의 임진(壬辰)·정유(丁酉) 양란(兩亂)의 내침(來侵)으로 왜군에게 납치된 사람들이 해로(海路)에 막힌 것을 표현한 말이다.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 b. 국경 최전선의 바다.
- ④ 관(關) : 단다. 잡그다.
- ⑤ 해(海) : 바다. 바닷길[海路]. 본 시에서는 바닷길로 번역하였다.
- ☆삼년(三年) : 허수(虛數)로 쓰였다. 본 시문(詩文)의 내용으로 볼 때, 작시(作詩) 년대는 최소한 서애가 하회에서 풍산 서미동(西美洞)으로 이거(移居)하는 을사년(乙巳年 : 1605년, 선조 38, 서애 64세) 9월 이전으로 보인다. 이 ‘9월’은 음력을 칭한 것임으로 양력의 10월에 해당하니, 마땅히 추계(秋季)의 절후로 보아야 한다.(앞의 「시43」의 주석5)의 ‘절서節序’ 조항을 참조바람) 본 시의 시적 배경 역시 시종(始終) 원지정사(遠志精舍)와 한 담 안에 있는 연좌루(燕坐樓 : 송정松亭)와 북담(北潭 : 강담江潭)의 가을[秋]을 묘사하고 있으니 이에 부합이 된다고 본다. 또한 서애의 잡저(雜著)에서 서애가 찬미하고 있는 송운대사(松雲大師 : 유정惟政 사명대사四溟大師)와 관련되는 내용을 보면, 위의 시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본 시의 시제(詩題)가 ‘송정(松亭)에서 송운대사를 송별한다(松亭別松雲)’라고 되어있어, 다른 기타 자료에서는 사명대사를 하회에서 만났다는 기록이 보이지 않아, 이 자료를 연계하여, 관련 내용을 파악해 보았다. 서애는 그의 글에서, 송운대사의 애국심을 당시의 상황을 통해 구체적으로 적시(摘示)하였다. 본 잡문(「송운(松雲)」)을 이재호의 역문(譯文)으로 옮기면 아래와 같다. “을사년(乙巳年 : 선조 38 : 1605년, 서애 64세) 5월에 승군(僧軍)의 장수(將帥) 송운(松雲 : 이재호의 주석에 의하면, 송운은 1544~1610까지 생존했으며, 그는 선조 25년 임진왜란 때 승병을 모집하여 휴정休靜의 휘하에 들어갔으나, 이듬 해 그의 뒤를 이어 승군도총섭僧軍都總攝이 되어 명군明軍과 협력하여 평양을 수복했다)이 일본에 갔다가 돌아왔는데, 사로 잡혀간 사람들 1,000여 명을 되찾아 돌아오면서, (이들을) 4, 50척의 배에 나누어 싣고 왜인(倭人) 굴지정(橋智正)과 함께 우리나라로 돌아왔다. …… 임진년(壬辰年 : 선조 25 : 1592)에 금강산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왜병들이 함부로 쳐들어오니 절의 중들이 도망쳐서 숨어버렸다. 송운은 혼자 단정하게 앉아서 움직이지 않으니, 왜병이 이를 이상히 여겨서 빙 둘러서서, 두 손바닥을 마주 합쳐서 절하여[合掌] 경의를 나타내고는 가버렸다. 그 해 가을에 나는 평안도 안주(安州)에 있으면서 여러 도(道)에 공문을 보내어, 승려와 속인(俗人)을 논할 것 없이 군사를 일으켜 나

라 일에 힘을 다하라고 하였다. 이 공문이 금강산에 이르니, 송운은 불탑(佛榻 : 불당에 있는 길다란 평상平床) 위에 공문을 펴놓고는 그의 무리를 거느리고서 눈물을 흘렸다. 마침내 승병 1,000여 명을 거두어 모으고 평양으로 들어와서, 임원역(林原驛)에서 진영(陣營)을 결성하여 잇달아 왜적과 싸웠으며, 이로부터 오랜 동안 군중(軍中)에 있게 되었다. 그가 또한 일찍이 적장 청정(淸正 : 가등 청정加藤淸正)의 진영 속으로 두 번이나 들어가서 서로 의견을 말할 적에는 의지와 기개가 몹시 맹렬하여 조금도 두려워하는 기색이 없었다. 지난 해 갑진년(甲辰年 : 선조 37, 1604년)에 조정에서 그에게 명하여, 일본으로 가서 산천(山川)을 유람한다는 핑계로 적중(賊中)의 소식을 탐지하도록 하니, 사람들은 모두 이를 위태롭게 여겼으나, 송운은 마음이 편안하여 어렵게 여기는 기색이 없었다. 이때에 이르러 마침내 무사히 돌아오게 되었다.” 이상의 자료를 통해 볼 때, “바닷길 막힌지 삼년(關海三年)”이란, 이 ‘3년’은 실수(實數)는 아닌 것 같다. 실제로 해상교통이 두절 된 기간은 임진년(壬辰年 : 1592년)에서 정유재란(丁酉再亂 : 1598년)이 종식되기까지이니, 장장 7년이라는 세월이 소요되었는데 본 시에서는 3년이라고 하였다. 이는 시적기교로 보아야 할 것이다.

- ② 원별심(怨別心) : 당시 생이별을 강요당한 그들의 심정이 위정자들을 향해 얼마나 원망이 깊었을까를 상상하여 표현한 시어(詩語)이다.

☆원(怨) : 원망하다. 불만을 품다.

☆별심(別心) : 이별하는 심정. 이별의 심정.

- 3) 강담낙목 추운심(江潭落木秋雲深 : 북담北潭 강변에는 낙엽지고 가을 하늘 구름 짙으네) :

- ① 강담(江潭) : 강변 옥연소(玉淵沼). 옥연정사 앞 북담(北潭)을 가리키는 듯하다. 풍산 류씨 후손이 전하는 바에 의하면, 하회마을의 강 건너 북쪽에 위치하는 부용대 앞을 흐르는 낙동강[花川]은 바로 부용대 앞에서 수심(水心)이 깊어지면서 소(沼)를 형성하는데, 이곳을 하회마을 사람들은 ‘북담’ 혹은 ‘옥연소(玉淵沼)’라 칭했다고 한다.

- ② 추운(秋雲) : 가을 하늘의 구름.

☆심(深) : 색채가 짙다.

시81. 두보杜甫의 시 「구일九日」을 차운次韻하여

詩81. 次老杜九日韻¹⁾
차 노 두 구 일 윤



高眺乾坤眼界寬²⁾,
고 조 건 곤 안 계 관

높은 곳에 올라 강산을 조망하니
시야가 탁 트였는데,

一杯相屬³⁾未成歡。
일 배 상 속 미 성 환

한 잔의 술 서로 권해 봐도 즐겁지 않았네.

黃花向客偏多意⁴⁾,
황 화 향 객 편 다 의

손님 향해 핀 국화는 유달리 정감이 도라워,

白髮乘酣盡山冠⁵⁾。
백 발 승 함 진 산 관

늙은이도 얼근히 취한 사이
주흥酒興이 무르익었네.

長浦鴈聲秋色遠⁶⁾,
장 포 안 성 추 색 원

먼 강변 기러기 소리에
추색秋色이 완연한데,

亂峯楓葉夕陽寒⁷⁾。
난 봉 풍 엽 석 양 한

산봉山峯마다 단풍들고 석양이 차갑네.

龍山勝會⁸⁾年年事,
용 산 승 회 년 년 사

용산촌龍山村 낭만적 승회勝會는
해마다 열리는 행사라,

莫把茱萸更細看⁹⁾。
막 파 수 유 경 세 관

수유茱萸의 나뭇가지 잡지도 않은 채
거듭 유심히 살펴봤네.

1) 차노두구일운(次老杜九日韻: 두보의 시 「구일」을 차운하여):

- ① 차운(次韻): 앞의 「시20」의 주석1)의 ‘차운(次韻)’ 조항을 참조바람.
- ② 노두(老杜): 두보(杜甫: 712~770): ‘노두(老杜)’는 당대(唐代)의 시인 두보를 가리킨다. 이는 당대 말기의 시인 두목(杜牧: 803~852)과 구별하기 위해서 쓴 것인데, 두목은 ‘소두(小杜)’라고 칭한다. 중국 사람들은 한 글자로 된 성씨 앞에 ‘로(老)’를 써서 호칭으로 친근감을 나타내기도 하고, 형제·자매간의 서열을 나타내기 위해서 만이는 ‘노대(老大)’라고 해놓고, 둘째는 ‘노이(老二)’, 셋째는 ‘노삼(老三)’…… 식으로 표현한다. ‘소(小)’자 역시 성명이나 형제의 순서를 나타내는 수사(數詞) 앞에 붙여 호칭어로 쓴다. 이군(李君)이라는 뜻으로 ‘소이(小二)’하는 식으로 쓴다. 두보를 ‘노두(老杜)’라고 쓰고, 두목(杜牧)을 ‘소두(小杜)’라고 써서 근 100년이나 세대 차이가 나는 ‘두(杜)’씨 성을 지닌 두 시인을 구별한 것이며, 이 때 쓰는 ‘로(老)’자와 ‘소(小)’자는 그 본 뜻과는 상관이 없다. 두보는 당나라가 가장 번성했던 시기의 시인으로 자는 자미(子美)이고, 호는 소릉(少陵)이다. 세칭(世稱), 두보(杜甫)를 시성(詩聖), 이백(李白)을 시선(詩仙)이라 칭한다. 이백(李白)과 병칭하여 이·두(李杜)라고도 일컫는다. 그의 본적은 호북성(湖北省) 양양현(襄陽縣)이지만, 출생지는 하남성(河南省) 공현(鞏縣)의 소호족(小豪族) 출신이다. 소년시절부터 시를 잘 지었으나 과거에는 급제하지 못하였고, 각지를 방랑하다가 장안(長安)으로 왔으나, 여전히 불우하였다. 44세 때 안록산(安祿山)의 난으로 적군의 포로가 되어 장안에 연금된 지 1년 만에 탈출하여 새로 즉위한 숙종(肅宗)의 행재소(行在所)에 달려갔으므로 그 공로로 좌승유(左拾遺)의 관직에 오르게 되었다. 그 후로도 관운이 순탄치 못하였다. 48세 때 대기근을 만나 식량을 구하려고 감숙성(甘肅省)을 거쳐 사천성(四川省) 성도(成都)에 정착하게 됐다. 그는 이곳 교외에 완화초당(浣花草堂)을 세우고, 당시 이곳의 절도사(節度使)였던 엄무(嚴武)의 막료가 되어 공부원의랑(工部員外郎)의 관직을 지냈으므로 ‘두공부(杜工部)’라고도 불렸다. 이후 귀향하려고 방랑을 계속하다가 호남성(湖南省) 동정호(洞庭湖)에서 59세를 일기로 병사하였다. 그의 시는 인간에 대한 성실(誠實)을 핵심으로 하면서, 인간의 우수(憂愁)도 깊이 표현하여, 그의 시적 제재(題材)는 시종 인간의 사실, 인간의 심리, 자연의 사실을 떠나지 않았던 관계로 지금까지 시에서 발견하지 못했던 새로운 시적경계를 열었다. 특히 장편의 고체시(古體詩)는 주로 사회성을 다룬 관계로 세상에서는 그의 시를 ‘시사(詩史)’라고 칭하기도 하였다. 또한 당대(唐代)에 와서 새롭게 시의 전형을 이룬 근체시(近體詩)는 두보에 의해 완성되었다고 해도 좋을 만큼, 그의 율시(律詩)는 규칙을 조금도 범하지 않으면서도 내용을 자유자재로 구사하여, 그의 시에는 사상과 내용이 충만할 뿐만 아니라 형식과 기교에서 오는 예술성도 탁월하여, 후학들에게는 그의 율체시(律體詩)가 교과서처럼 존중받고 있다. 이처럼 그의 시는 육조시(六朝詩)와 초당시(初唐詩)에서 크게 결핍되어 있던 시적 정신도 일으켜 세웠고, 고체시에서 간과했던 형식적 측면도 강화하여 그의 시는 고체시와 근체시 모두 시의 전형(典型)을 이루었다. 대표작으로는 「북정(北征)」·「추흥(秋興)」·「삼리삼별(三吏三別)」·「병거행(兵車行)」·「려인행(麗人行)」·「춘망(春望)」·「월야(月夜)」·「영회고적(詠懷古跡)」·「등악양루(登岳陽樓)」 등이 있다.

- ③ 구일(九日) : 음력 9월 9일로서 ‘중양절(重陽節)’을 말하는데, 본 시제(詩題)에서 쓰인 이 ‘9일(九日)’은 두보가 쓴 시의 시제를 축약하여 표현한 말이다. 두보가 쓴 시의 원래 시제는 「9월 9일 남전현藍田縣(지금의 섬서성陝西省 남전현)에 있는 최씨(최계중<崔季重> 왕유王維의 손위 차남임)」의 별장에서(九日藍田崔氏莊)」이다.
- 2) 고조건곤 안계관(高眺乾坤眼界寬 : 높은 곳에 올라 강산을 조망하니 시야가 트였는데) :
- ① 고조(高眺) : 높은 곳에 올라가서 조망하다.
☆조(眺) : 먼 곳을 향해 바라보다. 조망(眺望)하다.
- ② 건곤(乾坤) : 본 시에서는 ‘강산’이라는 뜻으로 쓰였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앞의 「시56」 주석7)의 ‘건곤(乾坤)’ 조항을 참조바람.
- ③ 안계(眼界) :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범위. 시야(視野)와 유사한 뜻으로 쓰였다.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 3) 상촉(相屬) :
- ① 서로 권주(勸酒)하다.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촉(屬) :
- a. 술잔에 술을 따르다.
b. 술을 권하다. 당(唐)나라의 문인이자 정치가인 한유(韓愈 : 768~824)의 시, 「팔월 보름 밤에 공조참군사功曹參軍事 장서(張署 : ?~약 816)에게 화답하다(八月十五夜贈張功曹*)」에, “모래톱 평탄하고 물결 잔잔한데다 인적 조차 끊겼는데, 한 잔의 술 권하노니 그대는 노래 한 곡조 부르게나(沙平水息聲影絕, 一杯相屬君當歌).”라고 읊은 구절이 있다.
- *장공조(張功曹) : 공조참군사(功曹參軍事) 장서(張署). 장서는 한유의 절친한 친구이다. 공조(功曹)는 공조참군사(功曹參軍事)의 약어이며, 당시 강릉부(江陵府 : 지금의 호북성湖北省 강릉현)에서 문서정리와 인사(人事)를 관리하던 정7품 관직이었음.
- ② 관련되다. 관계하다. 서로 비슷하다. 닮다.
③ 연이어. 잇달아. 연거푸. 계속해서. 연속하다.
④ 사람들과 시사(詩詞)를 화답하다.
⑤ ‘상속(相屬)’으로 읽어서, 간지(干支)로 나이를 나타낼 때, ‘~때이다, ~년생이다’ 식으로 표현하는 말이다. 원말(元末)에 문인이자 학자인 도종의(陶宗儀 : 1321~1407)가 진한시대(秦漢時代)부터 송원(宋元) 시대에 이르기까지 백가잡기(百家雜記)·필기(筆記)·시화(詩話) 등을 수집하여 편집한 저서 『설부(說郛)』에서, 송나라 문인 홍손(洪巽 : 생몰년 미상)의 저서 『양곡만록(陽谷漫錄)』을 인용하여 말하기를, “자생(子生 : 자년子年에 태어난 사람)은 ‘쥐띠’라고 하고, 축생(丑生 : 축년丑年에 태어난 사람)은 ‘소 띠’라고 하며, 인생(寅生 : 인년寅年에 태어난 사람)은 ‘호랑이 띠’라고 하며, 묘생(卯生 : 묘년卯年에 태어난 사람)은 ‘토끼 띠’라고 하며, 진생(辰生 : 진년辰年에 태어난 사람)은 ‘용 띠’라고 하며, 사생(巳生 : 사년巳年에 태어난 사람)은 ‘뱀 띠’라고 하며, 오생(午生 : 오년午年에 태어난 사람)은 ‘말 띠’라고 하며, 미생(未生 : 미년未年에 태어난 사람)은 ‘양띠’라고 하며, 신생(申生 : 신년申年에 태어난 사람)은 ‘원숭이 띠’라고 하며, 유생(酉生 : 유년酉年에 태어난 사람)은 ‘닭 띠’라고 하며, 술생(戌生 : 술년戌年에 태어난 사람)은 ‘개 띠’라고 하며, 해생(亥生

: 해년(亥年)에 태어난 사람)은 ‘돼지 띠’라고 하는 것이 ‘십이상속(十二相屬)’이다(子鼠, 畜牛, 寅虎, 卯兔, 辰龍, 巳蛇, 午馬, 未羊, 申猴, 酉鷄, 戌犬, 亥猪爲十二相屬).”고 하였다.

4) 황화(黃花) 편다의(黃花向客偏多意 : 손님 향해 편 국화는 유달리 정감이 도타워) :

① 황화(黃花) : 황화(黃華)로도 쓴다.

☆국화(菊花)를 가리킨다.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으며, 황국(黃菊)을 가리키는 뜻으로 쓰였다.

☆황색의 꽃.

☆채화(菜花 : 유채油菜* : 유채꽃)를 가리킨다.

*유채(油菜) : 십자화과의 두 해살이 풀. 높이는 1cm 정도이며, 뿌리 잎은 잎자루가 길고 갈라지는 것도 있으나 윗부분의 잎은 밑이 귀처럼 처져서 줄기를 감싸며 갈라지지 않는다. 4월에 노란 꽃이 피고 열매는 원기둥 모양의 각과(角果)를 맺으며 씨는 작고 검은 갈색이다. 잎과 줄기는 먹고 종자로는 기름을 쥔다.

☆금침채(金針菜 : 원추리 꽃* : 흰초菴草)를 가리킨다.

*원추리 : 백합과의 여러 해살이. 잎은 뿌리에서 모여 나고 좁고 길다. 여름에 잎 사이에서 나온 1m 정도의 긴 꽃줄기 끝에 백합 비슷한 등황색 꽃이 핀다. 어린잎과 꽃은 식용하고 뿌리는 약용한다.

☆고속곡명(古俗曲名). 즉 「황화(皇華)」이다.

② 편다의(偏多意 : 유달리 정감이 도답다) :

☆다의(多意) : 술어로 쓰여, 정감이 도답다.

a. 다(多) : 도답다.

b. 의(意) : 정의(情意). 정감(情感).

5) 백발승함 진산관(白髮乘酣盡山冠 : 늙은이도 얼근히 취한 사이 주흥이 무르익었네) :

① 승함(乘酣) : 얼근하게 취한 틈을 타다.

☆승(乘) : (기회 등을) 이용하다. (틈을) 타다.

☆함(酣) : 술을 마시고 얼근하게 취하다. 술을 거나하게 마셔 주흥(酒興)이 한창 일어나다.

② 진상관(盡上冠) : 절정에 달하다, 최고조에 이르다는 뜻인데, ‘무르익다’는 말로 순화한다.

☆진(盡) : 극한에 달하다. 절정에 이르다.

☆상관(上冠) : 꼭대기에. 정상(頂上)에. 상관(上冠)은 ‘관상(冠上)’이 도치된 말이다. ‘관(冠)’은 ‘물체의 꼭대기, 정상(頂上)’의 뜻이다.

6) 장포안성 추색원(長浦鴈聲秋色遠 : 먼 강변 기러기 소리에 추색秋色이 완연한데) :

① 장포(長浦) : 먼 강변. 긴 강가.

☆장(長) : ‘나로부터 먼 지점을 가리키는 관형사로 ‘요원(遙遠)’의 뜻으로 쓰였다.

☆포(浦) :

a. 강가. 물가. 강어귀.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b. 개(강이나 내에 조수가 드나드는 곳).

② 추색원(秋色遠) : 가을의 풍광이 완연하게 드러나는 것을 표현한 것이다.

☆추색(秋色): 가을의 경색(景色: 풍광, 경치, 풍경).

☆원(遠):

a. 심원하다. 심오하다.

b. 완연하다. 뚜렷하다.

7) 난봉풍엽 석양한(亂峯楓葉夕陽寒: 산봉마다 단풍들고 석양이 차갑네):

① 난봉(亂峯): 높이나 모양새가 고르지 아니하게 여기저기 어지러이 솟은 산봉우리. 난산(亂山).

② 풍엽(楓葉): 단풍 나뭇잎을 가리키나, 일반적으로 붉게 물든 기타 나뭇잎도 가리킨다. 시문(詩文) 중의 ‘풍엽(楓葉)’은 추색(秋色: 가을 경치)을 형용하는 말로 상용(常用)한다.

③ 한(寒): 차갑다. 시리다.

8) 용산승회(龍山勝會: 용산촌의 낭만적 승회勝會):

① 용산(龍山): 지명으로 용산촌(龍山村)을 가리킨다. 안동의 지방지이자 향토지인 『영가지(永嘉誌) 권1 · 각현연혁(各縣沿革)』에, “용산촌의 속명俗名은 진산辰山이며, 안동부安東府의 서쪽 15리에 있다(龍山村, 俗名辰山, 在府西十五里).”고 하였다. 지금의 경북 안동시 용산동(龍山洞) 일대이다.

② 승회(勝會): 음악과 시와 술이 있는 성대한 모임이다. 남송(南宋)의 관료출신 문인 계유공(計有功: 생몰년 미상)이 당나라 시인들의 작품을 모으고 시화(詩話) 및 평어(評語)를 기록한 저서 『당시기사(唐詩紀事) · 장갈편(章鵲篇)』에, “계묘년(癸卯年: 1243년)에 비릉현(毗陵縣: 지금의 강소성江蘇省 상주시常州市)의 산언덕에 올라서 이르기를: 영락하여 타향을 떠돌면서 늘 탄식한 게 승회勝會가 잘 개최되지 않는다는 것이었으니, 옛 사람들은 국화가 피는 무렵 함께 만나면, 생황과 피리를 불면서 여러 차례 술잔을 돌리고, 단풍나무와 상록수 우거진 산에서 한없이 시를 읊었기 때문일세(癸卯歲毗陵登高韻: 流落常嗟勝會稀, 故人相遇菊花時, 鳳笙龍笛數巡酒, 紅樹碧山無限詩).”라고 한 구절이 있다. 이처럼 승회는 음악이 있고 술이 있는 성대한 낭만적인 모임이었다. 『한어대사전(漢語大詞典)』과 『사원(辭源)』 같은 중국사전에는 ‘승회’를 ‘성회(盛會)’라고 풀이하고 있다. 군신간의 즐거운 향연(饗宴)은 연회(宴會) 또는 연취(宴聚)라고 하였으며, 풍류를 즐기거나 시문(詩文)을 짓기 위한 모임으로 ‘아회(雅會: 우아하고 고상한 모임)’라고 하는 것이 있다. 역자가 생각하기에 승회(勝會)는 아회(雅會)와 같은 성격을 지닌 모임이었으나, 승회의 모임은 우연히 몇 사람이 만나서가 아니라, 주선하는 사람들이 모임의 날짜를 정해서 모일 뿐만 아니라 회원도 정해진 것이 아닌가 한다. 승회의 ‘승(勝)’자가 ‘성(盛)’과 통한다는 것으로 보아 승회의 회원은 몇 사람이 아니라 꽤 많았을 것으로 보이며, 거기에 음악이 있고 시가 있고 술이 있어 ‘승회’는 ‘성대한 모임’으로 해석함도 타당한 것으로 본다(이상은 송희경 저 『조선후기 아회도(雅會圖)』를 참조함).

9) 막피수유 경세간(莫把茱萸更細看: 수유茱萸의 나뭇가지 잡지도 않은 채 거들 유심히 살펴왔네):

① 막피(莫把): (손으로) 잡지 않다(못하다).

☆막(莫): 부정부사로서 ‘못하다, 않다’의 뜻이다.

☆피(把): (손으로) 잡다.

② 수유(茱萸) : 수유나무: 쉬나무 :

윤향과(芸香科)에 속하는 낙엽교목으로 높이는 7m 정도이며 잎은 마주나고 깃 모양 겹잎이다. 8월에 흰 꽃이 뺨뺨이 피고 열매는 둥근 모양의 삭과(蒴果 : 익으면 과피果皮가 말라 쪼개지면서 씨를 퍼뜨리는 여러 개의 씨방으로 된 열매)이다. 향기가 짙으며, 종자는 제유용(製油用), 해충구제용 또는 새의 먹이로 쓴다. 옛날 풍속에 의하면, 음력 9월 9일 중양절(重陽節)에 수유나무 가지를 머리에 꽂거나 몸에 차면 사기(邪氣)를 물리친다고 전해진다. 서한(西漢)의 문인이자 목록학자인 유흠(劉歆 : BC 53?~AD 23)이 짓고, 동진(東晉)의 문인이자 도교이론가이며 의학자인 갈홍(葛洪 : 284~364)이 편집한 서한시대의 잡사(雜事)를 기록한 저서 『서경잡기(西京雜記)』 권3에, “9월 9일에, 수유가지를 꺾고, 쑥떡을 먹으면서, 국화주를 마시면, 장수하게 된다(九月九日, 佩茱萸, 食蓬餌, 飲菊華酒, 令人長壽).” 고 하였다. 당나라 시인이자 화가인 왕유(王維 : 701~761)의 시 「9월 9일 중양절重陽節에 산둥山東에 있는 형제를 회상하면서(九月九日憶山東兄弟)」에, “멀리서도 알겠네 우리 형제들 높은 산에 올라서, 수유가지 두루 꽂아주다가 오직 한 사람 빠졌다는 사실을! 높은 곳에 올라 간 형제들 먼 곳에 있는 (내) 상황 알지니, 몸에 수유가지 두루 꽂다가 한 사람 빠졌다는 것을(遙知兄弟登高處, 遍插茱萸少一人)!”이라고 읊은 구절이 있다. 이런 풍속 아래, 중국에서는 ‘중양절’을 ‘수유절(茱萸節)’이라고도 했고, 중양절에 수유가지를 몸에 지니고 등산하여 연음(宴飲 : 잔치)을 한 것을 ‘수유회(茱萸會)’라 칭했으며, 사기(邪氣)를 물리치기 위해서 중양절에 수유가지를 꺾어 향주머니에 넣고 허리에 차는 향낭(香囊)을 ‘수유낭(茱萸囊)’이라고도 하였다.

③ 갯세간(更細看) : (수유나무 가지를) 거듭 유심히 살펴보다. 본 시에서 작가가 수유나무 가지를 유심히 살펴본 이유는 ‘중양절(重陽節)에는 가족이 모두 높은 곳에 올라가서 사기(邪氣)를 물리쳐 주는 수유나무가지를 몸에 지녀야한다’는 속설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서애가 속설에 얽매여서가 아니라, 이 나무가 어떤 특성이 있기에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하는 생각에 나뭇가지를 잡지도 않고 거듭 이 나무를 자세히 살펴본 것이 아닌가 한다.

☆갯(更) : 부사로 쓰여, ‘거듭’의 뜻을 나타낸다.

☆세간(細看) : 자세히 보다. 유심히 살펴보다. 세심하게 살펴보다.

시82. 희지^{希之} 김대현^{金大賢}의 시
「유의암^{留衣庵}」을 차운^{次韻} 하여

詩82. 次金希之大賢 留衣庵韻¹⁾
차 김 희 지 대 현 유 의 암 운



依舊山前夕照明²⁾,
의 구 산 전 석 조 명

옛날과 다름없이 산 앞쪽은
석양빛 받아 선명한데,

留衣人去只留名³⁾.
유 의 인 거 지 유 명

유의인^{留衣人}은 별세하고
(유의암^{留衣庵}이란) 그 명칭만 남았네.

想應宴坐觀空日⁴⁾,
상 응 연 좌 관 공 일

좌선^{坐禪}에 응할 생각하며
지는 해 관조^{觀照}하는데

贏得飛花滿太清⁵⁾.
영 득 비 화 만 태 청

허공에는 온통 낙화만 바람에 날리네.

1) 차김희지 대현 유의암운(次金希之大賢留衣庵韻 : 희지^{希之} 김대현^{金大賢}의 시 유의암^{留衣庵}을 차운^{次韻}하여) :

① 차…운(次…韻) : 앞의 「시20」의 주석1)의 ② ‘차운(次韻)’ 조항을 참조바람.
② 김희지 대현(金希之大賢) : 김(金)은 성씨이고, 희지(希之)는 자(字)이며, 대현(大賢)은 이름이다. 이처럼 성씨 다음에 자(字)나 호(號) 또는 관명(官名)을 쓰고 이름을 그 뒤에 쓰는 것은 경칭(敬稱)의 한 예이다.

☆김대현(金大賢 : 1553~1602) : 조선 중기의 학자. 본관은 풍산. 자는 희지(希之), 호는 유연당(悠然堂). 경상북도 영주출신. 아버지는 장예원사의(掌隸院司議 : 조선시대 노예문서와 결송^{決訟}을 취급하던 관청인 장예원^{掌隸院}의 정5품 벼슬) 농

중(農中 : 생물년 미상)이며, 어머니는 군자감점정(軍資監僉正 : 조선 초기 군수품의 저장과 출납을 맡아보던 관청인 군자감의 종4품 벼슬) 권일(權鎰 : 생물년 미상)의 딸이다. 성혼(成渾 : 1535~1598)의 문인이며, 1582년 사마시에 합격하여 생원이 되었다. 이덕형(李德馨 : 1561~1613)과 김복(金功 : 1540~1616)의 추천으로 1595년 성현도찰방(省峴道察訪 : 성현도省峴道는 조선시대 경상도 역도驛道の 명칭이며 중심역은 성현역<省峴驛 : 지금의 청도淸道>이다. 공문서를 전달하고 공무를 여행하는 관리들의 편리를 도모하는 기관인 이곳의 찰방은 종6품 벼슬임)이 되고 뒤이어 상의원직장(尙衣院直長 : 궁중에서 소요되는 일용품·보화寶貨 등을 공급하던 관청인 상의원의 종7품 벼슬)이 되었는데, 이 때 명나라 장수 형개(邢玠 : 1540~1612)의 접대낭청(接待郎廳)에 선발되었으며, 곧 예빈시주부(禮賓寺主簿 : 빈객賓客·연향宴享을 맡아보던 관청인 예빈시禮賓寺의 종6품 벼슬)에 승진되었으나 물러나 영주에서 이산원(伊山院 : 이산서원伊山書院 : 퇴계 이황을 봉안했으며 지금의 경북 영풍군榮豊동 이산면伊山面 내림리內林里에 위치함) 원장에 피선되었다. 1601년에 산청현감에 제수되어 선정을 베풀었다. 그는 임진왜란 때 고향에서 항병을 모아 안집사(安集使) 김복(金功)의 휘하에 들어가서 민심수습에 공헌하고 난이 끝난 뒤에는 기민구제에 전력을 기울였다. 그는 이황(李滉 : 1501~1570)을 해동공자로 부를 만큼 존숭하였으며, 이로써 그의 학문과 사상 경향을 엿볼 수 있다. 또한 도잠(陶潛 : 365~427)을 매우 좋아해 스스로 당호를 '유연당'이라 하였다. 저서로는 『유연당선생문집』 4권 2책이 있다. 경북영주의 구호서원(鵠湖書院)에 위패가 봉안되었다.(참고문헌: 선조실록宣祖實錄, 유연당선생문집愼堂先生文集 영남인물고嶺南人物考. 권永大 글)

- ③ 유의암(留衣庵) : 이는 희지(希之) 김대현(金大賢)이 쓴 시의 시제(詩題)임. 그의 시에 나오는 유의암은 대지산(大枝山 : 지금의 경북 예천군醴泉郡 호명면虎鳴面 직산리稷山里에 위치하는 광석산廣石山임)에 있다. 대지산의 주봉(主峯)은 성주봉(聖住峯)이다. 이곳에 신라의 승려 원효(元曉 : 617~686)와 의상(義湘 : 625~702)이 산상의 암자에 와서 수도하다가 떠날 때 가사(袈裟 : 중이 장삼위에, 원쪽 어깨에서 오른쪽 겨드랑이 밑으로 걸쳐 입는 법의法衣)를 걸어두었다고 전해지는 소나무 두 그루가 있었는데, 바로 그 자리에 후세 불교신도들이 그 두 분 스님을 사모하는 뜻에서 선유암(仙遊庵)과 유의암(留衣庵)을 창건했었다고 전해진다. 대지산 동쪽 약 200m 지점에 있었던 선유암은 지금은 소실되어 절터만 남아 있다. (박정혜의 논문 「그림으로 기록한 가문의 역사- 조선시대 『풍산김씨전서화첩(豊山金氏傳書畫帖)』 연구-」의 '허백당虛白堂 김양진<金楊震 : 1467~1535>과 팔련오계八蓮五桂'조항을 참조함)

『김대현의 시 「유의암(留衣庵)」』 :

낙동강과 화산花山이 눈앞에 흰히 뵈는데,	洛水*花山*眼底*明,
옛 승려의 의발衣鉢을 여기 암자 명칭으로 보존했네.	昔人衣鉢*此留名.
지금 산상에 흰 수염 늘어뜨린 노인 있는데,	祇今*巖上*蒼髯老*,
달은 성근 나뭇가지에 걸렸고 주지의 거실은 적막하네.	月卦疎枝*丈*淸*.

*낙수(洛水) : 낙동강.

*화산(花山) : 하회마을 동쪽에 위치하는 산. 이 화산의 동남쪽 경사지에는 남

향으로 풍악서당(豐岳書堂)의 전신인 병산서원(屏山書院)이 소재한다. 화산의 현재 주소지는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豐川面) 병산리(屏山里)이다.

*안저(眼底): 눈앞에. 안중(眼中)에. 안전(眼前)에.

*의발(衣鉢): 가사(袈裟)와 발우(鉢盂: 승려가 사용하는 식기)를 아울러 이르는 말이다.

*지금(祇今): 지금. 이제. 오늘 날.

*암상(巖上): 산봉우리에. 높고 험준한 낭떠러지 주변.

a. 암(巖): 산봉우리. 낭떠러지.

b. 상(上): 명사 뒤에 써서 일정한 장소 혹은 범위를 나타냄.

*창염로(蒼髯老): 흰 수염 늘어뜨린 노인.

a. 창(蒼): 회백색.

b. 염(髯): 본래는 ‘구레나룻’의 뜻이나, 일반적으로 수염을 가리키는 뜻으로 쓴다.

*소지(疎枝): 소지(疎枝): 성근 가지.

*장실(丈室): 두실(斗室: 네모반듯한 ‘모말’, 즉 ‘방두方斗’의 모양의 작은 방이나 집): 매우 협소한 방이나 집을 이르는 말. 불교용어로서, 선원(禪院)의 주지(住持)의 거실(居室)을 가리킨다. 방두(方斗) 모양의 사방 1장(一丈: 3.33m) 되는 좁은 방이란 뜻에서 ‘방장(方丈)’이라고도 한다. 본 인용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전하는 바에 의하면, 고대 인도의 비아리성(毗耶離城: Vaiśālī: 毘舍離國: 고대 인도의 중부에 위치한 상업도시)에 살고 있던 유마거사(維摩居士: 유마힐維摩詰: Vimalakīrti: 유마維摩)는 석가모니(釋迦牟尼: Śākya-muni: BC 566~BC 486)의 속제자(俗弟子)였는데, 유마거사가 병중(病中)에 있을 때, 문수보살(文殊菩薩: Manjuśrī: 보현보살普賢菩薩과 짝하여 석가모니의 보처補處로서 왼쪽에 위치하며 지혜를 맡음)이 여러 성문(聲聞: 가르침을 받는 수행승)과 보살(菩薩: 위로는 보리菩提 즉 부처님의 정각正覺의 지혜를 추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교화하려는 사람)들을 데리고 문병하러 왔다. 그 때 유마거사는 여러 가지神通력을 보여 불가사의한 해탈상을 나타내고 서로 문답하여, 일체제법(一切諸法: 일체의 사물. 모든 현상)은 모두 인연에 의해 생기며, 실체(實體)가 없고 일법(一法: 하나의 일, 하나의 사물)으로서 머무는 일이 없으며, 머무른다고 하는 것은 체(體) 하나에 있는 것인 까닭에 머무르는 곳이 없다는 것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유마힐은 입을 다물고 잠자코 있으면서 말을 하지 않는 것, 즉 불가언 불가설(不可言 不可說)의 방법으로 뜻을 표현하여 문수보살을 감탄하게 하였다. 당(唐)나라 현경년간(顯慶年間: 656~660)에 우위수부(右衛率府: 태자호위군으로써 군사장비, 출입경비, 국경순찰, 칙후斥候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관청)의 장사(長史: 종5품관으로 지금의 참모장에 상당함)인 왕현책(王玄策: 생몰년 미상)이 칙명을 받고 인도에 갔다가 유마힐의 고택(古宅)을 지나가게 됐을 때, 그 집을 수판(手板: 효봉: 천자이하 공경사대부公卿士大夫가 조복朝服을 입었을 경우 허리에 끼고 다니는 상자나 나무패쪽)으로 종횡(縱橫: 가로 세로)을 재어보았더니, 종횡이 겨우 각 10홀(十笏: 1홀의 길이가 2척6촌二尺六寸이었으니, 한 번의 길이가 10홀이면 2장6척二丈六尺이 되고, 이를 미터법으로 환산하면 약 7.33m가 됨. 따라서 그 집의 넓이는 7.33m2였음)이었던 까닭에, 이런 협소한 집을 방장(方丈

: 사방 1장—丈되는 집이나 방, 1장은 10척으로 3.33m임)이라고도 하고 장실(丈室)이라고도 하게 되었다. 전(轉)하여, 주지(住持)의 방을 장실(丈室)이라고도 한다.

*청(淸): 고요하다. 적막하다. 조용하다.

- 2) 의구산전 석조명(依舊山前夕照明: 옛날과 다름없이 산 앞쪽은 석양빛 받아 선명한데):

① 의구(依舊): 옛날과 다름이 없다.

② 석조(夕照):

☆해 질 무렵의 햇빛이 비치다.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석양.

☆만년(晩年)을 비유한 말.

- 3) 유의인거 자유명(留衣人去只留名: 유의인留衣人은 별세하고 <유의암留衣庵이란> 그 명칭만 남았네):

① 유의인거(留衣人去): 유의인(留衣人)은 별세하다. 옷을 남겨둔 사람은 이 세상을 떠나다.

☆유의인(留衣人): 옷을 남겨둔 사람.

a. 류(留): 남겨두다.

b. 의(衣): 옷. 본 시에서는 원효대사와 의상대사가 산위의 소나무에 걸여뒀다는 가사(袈裟)를 가리킨다.

c. 인(人): 본 시에서는 원효대사와 의상대사를 가리킨다.

d. 거(去): 별세하다. 타계하다.

② 유명(留名): 이름을 남기다. 본 시에서는 ‘유의암(留衣庵)’이라는 암자 명칭을 남긴 것을 가리키는 말로 쓰였다.

- 4) 상응연좌 관공일(相應宴坐觀空日: 좌선坐禪에 응할 생각하며 지는 해 觀照하는데):

① 상응(相應): (...에. ...하는 말에) 응할 생각을 하다.

② 연좌(宴坐):

☆한좌(閑坐: 한가롭게 앉음)하다. 안좌(安坐: 편안하게 앉음)하다.

☆불교용어로 좌선(坐禪: 고요히 앉아 바른 선禪을 수행하는 것. 양 발을 합쳐 양 발바닥이 위를 향하도록 하여 앉는 결가부좌結跏趺坐의 자세로 정신을 집중하고 생각을 집중시켜 무념무상의 경지로 들어가는 것)하다. 본 시에서는 이 뜻에 가깝게 쓰였다.

③ 관공일(觀空日): 하늘의 지는 해를 관조(觀照)하다

☆관(觀):

a. 감상(感想)하다.

b. 관조(觀照: 지혜로써 사물의 진리를 비추어 봄. 고요한 마음으로 사물이나 현상을 관찰하거나 비추어 봄)하다.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공일(空日):

a. 공(空): 하늘. 공중.

b. 일(日): 석양. 지는 해. 본 시의 제1구에서 ‘석조명(夕照明)’이라 했으니, 여기서의 ‘일(日)’은 석양(夕陽)을 가리킨다.

- 5) 영득비화 만태청(贏得飛花滿太淸: 허공에는 온통 낙화만 바람에 날리네):

- ① 영득비화(贏得飛花): 이는 바로 위의 시구에서, 좌선하여 ‘지는 해를 관조’하고 자 하는데, 도리어 마음이 ‘나뭇가지에서 떨어진 꽃잎이 땅으로 내려오지 못하고 공중에서 어지럽게 휘날리는 것 같은 매우 불안정한 상태에 있음’을 형상적으로 묘사한 것이다.

☆영득(贏得):

- a. (나쁜) 결과가 되다. ...를 초래하다. ...가 되고 말다.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 b. 이득을 보다. 소득을 얻다(획득하다).
- c. (명성·지위·호감·신임·칭찬 등을) 널리 받다.

☆비화(飛花): 이는 공중에서 이리저리 날리어 돌아다니는 낙화(落花)를 칭하는 것으로, 시적화자의 마음이 안정되지 못한 상태를 비유적으로 묘사한 것이다.

- a. 낙화(落花)가 날리다. 낙화하다.
- b. 날려가는 낙화.
- c. 날려 떨어지는 눈송이를 비유한 말.

- ② 만태청(滿太淸): 낙화(落花)가 태청[공중]에 가득한 상태를 말한다.

☆태청(太淸):

- a. 하늘. 공중(하공).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 b. 천도(天道: 자연계의 변화규율. 자연).
- c. 옛사람이 가리키는 원기(元氣: 정기精氣. 정신)가 맑은 것.
- d. 삼청(三淸: 신선이 산다는 세 곳으로 옥청玉淸·태청太淸·상청上淸) 중의 하나로 신선이 산다는 곳. 도교에서는 원시천존(原始天尊: 도교에서 신봉하는 최고의 천신(天神: 옥화상제))이 도덕천존(道德天尊: 신의 이름, 신격화된 노자老子)으로 생신(生身)하여 머무는 곳을 이르는 것으로, 그 경지는 옥청(玉淸)과 상청(上淸)의 위에 있으며, 오직 신선이 되어야만 이곳에 오를 수 있는 까닭에, 일반적으로 ‘선경(仙境)’을 가리킨다.



시83. 구월 열이렛날 조카 기_禱가 낭천현_{狼川縣}
임지로 가는데, 송별하면서 증여한
두 수

詩83. 九月十七日¹⁾ 猶子禱赴狼川任所²⁾ 贈別³⁾ 二首
구 월 십 칠 일 유 자 기 부 낭 천 임 소 증 별 이 수

其一

[1]

搖落⁴⁾江村暮,
요 락 강 촌 모

낙엽 지는 강가의 마을에 날 저무는데,

分携⁵⁾淚眼昏。
분 휴 루 안 혼

이별하며 눈물 어려 눈앞이 흐릿하구나.

國恩⁶⁾吾未報,
국 은 오 미 보

나라의 은혜 입고도
나는 아직 보답 못했지만,

民事汝須勤⁷⁾。
민 사 여 수 근

백성 위한 일에
너는 반드시 정성을 다 해야 한다.

約已常持戒⁸⁾,
약 기 상 지 계

스스로에게 다짐하여 항상 규율을 지키고

閒時可學文⁹⁾。
한 시 가 학 문

틈나면 응당 육예_{六藝}를 익혀야한다.

男兒自有志,
남 아 자 유 지

대장부는 당연히 뜻한 바 있어야 하거니와,

餘外總紛紛¹⁰⁾
여 외 총 분 분

이 밖에도 (수련내용) 총괄하면
많고도 많구나.

其二

[2]

去歲楊村別¹¹⁾
거 세 양 촌 별

지난 해 양촌楊村에서 서로 헤어졌으니,

流離道路中¹²⁾
유 리 도 로 중

(전랑으로 인해) 길거리서 유랑하다가
이산離散되었구나.

自知成永隔¹³⁾
자 지 성 영 격

내 자신이 영원히 헤어질 것이라
여겼는데,

誰謂更相逢。
수 위 경 상 봉

누가 다시 상봉한다 말할 수
있었겠느냐?

天地洪恩重¹⁴⁾
천 지 홍 은 중

천지신령이 베푸는
홍은洪恩은 무겁고 크거늘,

門闌喜氣濃¹⁵⁾
문 란 희 기 농

(우리) 가문에 상서로운 기운 짙게
서리리라.

歸期¹⁶⁾在何日,
귀 기 재 하 일

돌아올 시기 언제쯤일꼬?

慎莫負春風¹⁷⁾
신 막 부 춘 풍

삼가 춘풍의 은혜를 저버리지 말거라.

1) 구월십칠일(九月十七日): 『풍산류씨족보(豊山柳氏族譜)』에, 기禧가 을미년(乙未年: 1595)에 낭천현감(狼川縣監)으로 갔다는 기록이 보인다.

**역자주석: 주석1)에 의거하면, 본 시의 작시(作詩) 연도는 1595년이고, 선생의 나이 54세 때이다.

2) 유자기 부낭천임소(猶子禧赴浪川任所: 조카 기禧가 낭천현狼川縣 임지로 가다):

① 유자기(猶子倚): 조카 기(倚).

☆유자(猶子):

- a. 형제의 아들. 조카.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예기(禮記)·단궁(檀弓)·상(上)』편에, “상복을 입는데 있어서, 형제의 아들에게도 아들과 같이 한 것은, 대체로 (조카의 촌수(數)를 끌어당겨서) 가깝게 한 것이다(喪服, 兄弟之子, 猶子也, 蓋引而進之也).”고 한 대목이 있다. 이 말에 따라서, 후세에 ‘형제지자(兄弟之子: 형제의 아들)’를 ‘유자(猶子: 아들과 같음)’라고 한 것이다.
- b. 질녀(姪女).
- c. 후배의 자칭(自稱).

☆기(倚): 류기(柳倚: 1561~1613): 조선 중기의 현감(縣監)으로, 자는 여장(汝章), 호는 부휴산인(浮休散人)이다. 겸암(謙巖) 류운룡(柳雲龍: 1539~1601)의 이자(二子)로 서애(西厓) 류성룡(柳成龍: 1542~1607)의 조카이다. 을미년(乙未年: 1595)에 음보(蔭補: 조상의 덕으로 벼슬을 얻음)로 익위사(翊衛司: 세자익위사(世子翊衛司: 왕세자의 시위侍衛를 맡아보던 관아)의 주부(主簿: 정6품의 낭관郎官)로 있다가 광국호성 원종공신(光國扈聖原從功臣: 퇴직 후 공신 직함의 하나)에 녹훈(錄勳)되고 승의랑(承議郎: 조선 시대 문관, 동반東班의 벼슬 등급의 하나로, 초기에는 정6품의 문관에게만 주었으나 말기에는 중진이나 의빈(儀賓: 왕족이 아니면서 왕족과 통혼한 사람)도 이 관계官階를 사용했음)으로 낭천현감(狼川縣監: 낭천은 지금의 강원도 화천華川)을 역임하였다.(이재호 번역·감수 『국역 서예전서 II-2·국역 서(書)』에, 낭천현감에게 보낸 서신에 보임)

② 낭천(浪川): 낭천현(狼川縣): 강원도 화천군(華川郡)에 있었던 옛 현 이름이다. 본래 고구려의 생천현(牲川縣: 일명 아시매也尸買)인데, 신라 경덕왕이 낭천으로 고치고, 군으로 하여 삭주도독부(朔州都督府)에 예속시켰다. 고려초에 춘주(春州)에 속하였으나 1413년(태종 13)에 현감을 두어 낭천현으로 하였다. 1644년(인조 23)에 금화(金化)에 예속시켰다가 1653년(효종 4)에 다시 현으로 하였다. 1895년(고종 32)에는 낭천군이 되었고, 1902년(광무 6)에 명칭을 화천(華川)으로 바꾸었다. 광복과 더불어 38도선 이북지역에 속하였다가 1950년에 수복되었다. 현재의 강원도 화천군의 대부분 지역이 과거의 낭천현이었다. 낭천현은 철원진관(鐵原鎭管)에 속하여 약 3백여 명의 군병이 배치되어 있었다. 고적으로는 용화산성(龍華山城)과 생산성(牲山城)이 있다.

③ 임소(任所): 지방관원이 근무하는 직장 소재지.

- 3) 증별(贈別): (떠나는 사람에게) 정표로 사나 노래 따위를 지어주면서 작별함.
- 4) 요락(搖落): 늦가을에 나뭇잎이 떨어지다. (꽃잎이) 말라 떨어지다. 시들어 쇠잔하다.
- 5) 분휴(分携): 분휴(分攜)로도 쓰며, ‘이별(하다). 헤어지다’는 뜻이다.

① 분(分): 나누어지다. 갈라지다.

② 휴(携): 휴(攜)와 동자(同字)임.

☆(손을) 잡다.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휴대하다.

- 6) 국은(國恩): 봉건시대에 백성이 왕조나 군주로부터 받은 은혜를 가리킨다.
- 7) 민사 여수근(民事汝須勤: 백성 위한 일에 너는 반드시 정성을 다해야 한다):

- ① 민사(民事): 정사(政事). 백성을 위한 일. 백성에 관한 일.
 ② 여수근(汝須勤): 조카 류기(柳倚)가 백성을 위해 온 힘을 다해야 한다는 것을
 피력하고 있다.

☆여(汝): 너. 자네. 동년배나 후배에게 쓰는 2인칭 대명사이다.

☆수근(須勤):

a. 수(須): 부사로, ‘반드시’의 뜻으로 쓰였다.

b. 근(勤): 온 힘을 다하다. 돕다. …에 대하여 힘쓰다.

8) 약기 상지계(約己常持戒: 스스로에게 다짐하여 항상 규율을 지키고):

- ① 약기(約己): 자기 자신에게 약속하다. 스스로에게 다짐하다.
 ② 지계(持戒): ‘지계(持戒): 계율을 지키는 것, 생활을 정돈하는 것, 규칙을 지키는 것’은
 원래 불교용어이다. 석가모니가 열반에 든 후, 600년경에 증인도 마갈타국의 사
 람 아수바고사(Asvaghosa: 마명馬鳴: 마명보살馬鳴菩薩)가 대승불교의 근본 뜻을
 이론과 실천의 양면에서 언급한 저서 『대승기신론(大乘起信論)·수행신심분(修
 行信心分)』에서, “지계의 법문(法門: 중생을 열반에 들게 하는 문이라는 뜻으로, 부처
 의 교법을 말함)을 어떻게 수행할 것이냐(云何修行戒門)? 이른바 살생하지 않고
 도적질 하지 아니하며, 음란한 언행을 하지 않고, 양설(兩舌: 이간어離間語: 험
 담·비난·허풍·괴담의 관계를 이간시키는 말)을 하지 않으며, 악구(惡口: 추악한
 말·조악粗惡한 말·사람을 고민하게 하는 말)하지 않으며, 망언(妄言: 이치나 사리에
 맞지 않는 망령된 말)하지 않으며, 꾸미는 말을 하지 않고, 탐내거나 질투하거나 사
 기치고 속이고 간사하고 상내거나 샅된(보기에 하는 행동이 바르지 못하고 나쁜) 소
 견을 갖는 것을 멀리하는 것이다(所謂不殺, 不盜, 不淫, 不兩舌, 不惡口, 不妄
 言, 不綺語, 遠離貪嫉欺詐諂曲瞋恚邪見).”고 하였다. 본 시에서 쓰인 ‘지계(持
 戒)’란 용어는 유가적인 입장에서의 규율을 지켜야 한다는 것으로 보인다. 유가
 에서는 구체적으로 계율을 적시한 것은 없으나 유가(儒家)가 추구한 덕목(德目)
 이 바로 본 시에서 표현한 계율이 아닌가 한다. 예를 들면, 인(仁: 남을 사랑하고
 어질게 행동하는 일)·의(義: 사람으로서 지키고 행하여야 할 바른 도리)·예(禮: 예법:
 예절)·지(智: 지혜·지식)·신(信: 신의信義·성실)·충(忠: 충성)·효(孝: 효
 도)·경(敬: 공경·근신)·성(誠: 공평무사하고, 순일한 진심)·제(悌: 형과 존장을 공
 손히 잘 섬김)·자(慈: 은애함·애육愛育함) 등이다.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9) 한시 가학문(閒時可學文: 틈나면 웅당 육예六藝를 익혀야 한다):

본 시구에서, 틈이 나면 곧 ‘문(文)’을 익히라고 한 것은 사리(事理)를 전달하는 성
 현의 글·말씀[文: 경문經文·육예六藝]의 공부(公부)를 통해, 본성함양공부가 이루어져
 야, 이에 근거하여 격물치지(格物致知)의 『대학(大學)』 공부(公부)가 또한 성취될 수 있
 기 때문이다.

① 한시(閒時): 틈이 날 때.

② 가학문(可學文): 웅당 육예(六藝)를 익혀야 한다.

☆가(可):

a. 조동사로서, ‘…할 필요(가치)가 있다. 웅당…해야 한다.’의 뜻을 지닌다.

b. 부사로서, ‘당장 지체 없이, 즉시 곧바로’ 등의 의미를 지닌다. 본 시에서

a·b 양자(兩者) 모두 의미상에서 통순(通順)이 된다. 어법구조에서도 양
 자(兩者) 모두 사용이 가능하다.

☆학문(學文):

- a. 『논어(論語)·학이편(學而篇)』에, “공자가 말하기를: 나이 어린 청소년은 집안에 들어와서는 부모에게 효도하고, 밖에 나가서는 연장자에게 공손해야 한다. (언행을) 근엄하고 성실하게 하고, 모든 사람들을 사랑해야 하며, 인덕(仁德)이 있는 사람을 친근하게 모시고 섬겨야 한다(子曰: 弟子入則孝, 出則弟. 謹而信, 汎愛衆, 而親仁). ‘(이와 같은 덕행과 자기수양을) 행하고도 여력이 있으면, 성현의 글이나 문물제도를 배워야 한다(行有餘力, 則以學文)’”고 한 대목이 있다. 이 문장의 ‘문(文)’에 대해서, 남송(南宋)의 유학자, 주희(朱熹: 1130~1200)가 후한(後漢)의 학자 정현(鄭玄: 127~200)의 말을 인용하여 말하였는데, ‘문(文)’은 『시경(詩經)』과 『서경(書經)』 및 육예(六藝: 여섯 과목의 기예技藝)라고 하였다. 육예(六藝)는 주대(周代) 귀족의 교육과목이었던 예(禮: 예의)·악(樂: 음악)·사(射: 궁술弓術)·어(御: 마술馬術)·서(書: 글씨)·수(數: 수학數學)이다. 여기서 ‘학문(學文)’의 ‘문(文)’이란, ‘육예(六藝: 禮·樂·射·御·書·數)’를 두고 하는 말이다.
- b. 주희(朱熹)의 『주자어류(朱子語類)』 34: 165를 보면, “문·행·충·신에서 가르침을 문(文)으로 하지 않으면, 지나갈 수가 없다. 사리事理를 말해 주는 부류가 곧 문(文)이다. 소학의 육예六藝가 모두 문(文)이다(文行忠信, 教不以文, 無由入. 說與事理之類, 便是文. 小學六藝, 皆文也).”라고 하였다. 또한 같은 책 34: 163에서, “문·행·충·신은 어버이 섬김은 이와 같이 하고 형을 섬김은 이와 같이 한다고 말하는 것이니, 비록 행(行)의 일이지만 또한 단지 말로 한다. 반드시 자신이 이를 체험으로 행해야 행(行)이고, 마음속에 깊이 쌓이두어 하나도 성실하지 않음이 없어야 충·信이다. 전달할 수 있는 것은 단지 이 문(文)이다(文行忠信, 如說事親是如此, 雖是行之事, 也只是說話在. 須是自家體此而行之, 方是行; 蘊之於心無一毫不實處, 方是忠信. 可傳者只是這文).”라고 하였다.

10) 여외 총분분(餘外總紛紛: 이외에도 <수련내용> 총괄하면 많고도 많구나):

① 여외(餘外): 이 밖에도.

② 분분(紛紛):

☆매우 많은 모양.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어지러운 모양. 뒤섞인 모양.

☆바빠서 두서가 없다(엉망이다). 번망(繁忙)하다. 번거롭고 바쁘다. 번잡한 모양.

11) 거세 양촌별(去歲楊村別: 지난 해 양촌楊村에서 서로 헤어졌으니):

① 거세(去歲): 거년(去年): 작년. 지난 해.

② 양촌(楊村): 지금의 어디인지 미상(未詳).

12) 유리 도로중(流離道路中: <전란으로 인해> 길거리서 유랑하다가 이산離散되었구나):

① 유리(流離): 유리표박(流離漂泊)의 준말. 흉년이나 전란으로 인해 이곳저곳(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다가 이산(離散)되다. 유랑(流浪)하다.

② 도로중(道路中): 길거리에서.

☆중(中): 본 시에서는 장소를 나타낸 것으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앞의 「시2」의 주석6)의 ‘중(中)’ 조항을 참조바람.

13) 영격(永隔): 영별(永別): 영원히 헤어지다(이별하다).

- 14) 천지 홍은중(天地洪恩重 : 천지신령이 베푸는 홍은洪恩은 무겁고도 크거늘) :
- ① 천지(天地) :
- ☆천지신령을 가리키는 말.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 ☆하늘과 땅[天地].
- ☆천하(天下)와 같은 말.
- ② 홍은중(洪恩重) : 천지신령이 베푸는 은혜는 무겁고 크다.
- ☆홍은(洪恩) : 대은(大恩). 큰 은혜. (하늘이 베푼) 큰 은혜.
- ☆중(重) :
- a. 무겁다. 중대하다.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 b. 중복하다. 거듭되다.
- 15) 문란 희기농(門闌喜氣濃 : 〈우리〉 가문에 상서로운 기운 짙게 서리리라) :
- ① 문란(門闌) : 문란(門欄)으로도 쓴다.
- ☆가문(家門). 문호(門戶). 집안 등의 뜻으로 쓰는 말.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 ☆사문(師門 : 선생님 댁). 권문(權門 : 권臣의 집. 권세를 잡은 신하의 집안).
- ② 희기(喜氣) :
- ☆상서로운 기운.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 ☆유쾌한(즐거운) 안색(표정).
- ③ 농(濃) :
- ☆(농도가) 진하다, 짙다.
- ☆(정도가) 깊다, 두텁다.
- 16) 귀기(歸期) : 돌아올 시기. 여기서는 조가 류기(柳倚)가 임소에서 귀향할 시기를 언급한 것이다.
- 17) 신막 부춘풍(愼莫負春風 : 삼가 춘풍의 은혜를 저버리지 말거라) :
- 본 시구는 조가 류기(柳倚)에게 당부하는 말이다.
- ① 신막(愼莫) : 삼가(겸손하고 조심하는 마음으로) …하지 말라.
- ② 부춘풍(負春風) : 천지만물을 소생하게 하는 춘풍의 뜻[인자함]을 저버리다.
- ☆부(負) : 저버리다. 은혜를 잇다.
- ☆춘풍(春風) : 봄바람. 본 시에서는 춘풍의 은혜로 번역하였다.



시84. 옥연정 玉淵亭 옆의 절벽을 읊다

詩84. 詠玉淵石壁¹⁾ 영 옥 연 석 벽

上接碧天色,
상 접 벽 천 색

쳐다보면 푸른 하늘에 잇달아 있고,

俯壓千丈灘²⁾.
부 압 천 장 탄

굽어보면 일천 장차 긴 강이 압도하고 있네.

狂流任蕩擊³⁾,
광 류 임 탕 격

(강물의) 세찬 물결 부딪치며 흘러도
감내하며,

高處不容干⁴⁾.
고 처 불 용 간

높직하게 머물면서 (물결에) 힘쓸리는
것을 허용치 않네.

1) 옥연석벽(玉淵石壁) : 옥연정사를 품고 있는 석벽(石壁), 곧 부용대(芙蓉臺)를 가리키는 것이다.

① 옥연(玉淵) : 옥연정사(玉淵精舍) : 앞의 「시47」의 주석1)의 ‘북애정사(北厓精舍)’와 ‘옥연서당기(玉淵書堂記)’를 참조바람.

② 석벽(石壁) : 바람벽같이 깎아지른 듯한 돌로 된 절벽(絶壁). 본 시에서는 하회(河回) 부용대(芙蓉臺)를 가리킨다. 이 부용대는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소재이다. 이 석벽은 태백산맥의 맨 끝부분에 해당하며 정상에서 하회마을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높이 64m의 절벽이다. 부용대는 ‘부용(芙蓉)’을 내려다보는 언덕이라는 뜻이다. 부용은 연꽃을 뜻하며 하회마을의 또 다른 이름이기도 하다. 여기에서 내려다보면, 하회마을이 마치 물 위에 떠 있는 한 송이 연꽃처럼 보여, 마을의 모양을 연화부수형(蓮花浮水形)이라 한다. 부용대의 허리 부분에는 류운룡과 류성룡 형제의 두 정사(精舍)를 가로로 연결하는 충 길이나 있는데, 이 길로 형

제가 왕래하며 우애를 다졌다고 한다. 류원지(柳元之)는 부용대에서 바라본 하회
의 아름다운 경치를 읊어 ‘하회16경’이라 하였다. 부용대에서 만송정 술술까지
하회마을의 옛 선비들이 선유(船遊)와 줄불놀이를 하였던 곳이기도 하다.(이상은
하회마을 전경 안내판을 참조함)

2) 부압 천장탄(俯壓千丈灘 : 굽어보면 일천 장丈 긴 강이 압도하고 있네) :

- ① 부(俯) : 굽어보다.
- ② 압(壓) : 압도하다.
- ③ 천장(千丈) : 대단히 길거나, 대단히 높은 것을 이르는 말이다.
- ④ 탄(灘) :
☆여울. 이는 강이나 바다의 바닥이 얇거나 폭이 좁아 물살이 세게 흐르는 곳을
뜻하는데, 본 시에서는 부용대 앞의 낙동강을 가리킨다.
☆모래톱(모래사장).

3) 광류 임탕격(狂流任蕩擊 : 〈강물의〉 세찬 물결 부딪치며 흘러도 감내하며) :

- ① 광류(狂流) :
☆세찬 물결.
☆용솟음치며 (솟아나) 흐른다.
- ② 임(任) : 감내하다. 건디다. 감당하다. 이겨내다.
- ③ 탕격(蕩擊) : 물이 흐르며 압반을 세차게 치다.
☆탕(蕩) : 물이 흐르다. 물을 흘러가게 하다.
☆격(擊) : 치다. 부딪치다.

4) 고처 불용간(高處不容干 : 높직하게 머물면서 〈물결에〉 휩쓸리는 것을 허용치 않
네) :

- ① 고처(高處) : 높직하게 머물다.
☆고(高) : 본 시에서는 부사로 쓰여, ‘높직이. 높직하게’의 뜻으로 쓰였다.
☆처(處) : 머물다. 자거(自居 : 스스로 차지하여 앓음)하다. 정지하다.
- ② 불용(不容) : 허용하지 않다.
- ③ 간(干) : 강물이 세차게 격돌(激突)하다. (홍수 따위가) 휩쓸다.



시85. 삼월에 서리가 내려서

詩85. 三月下霜¹⁾
삼 월 하 상

正月繁霜事可哀²⁾,
정 월 번 상 사 가 애

정월에 서리 많이 내려도 애달플 일일 텐데,

誰將天道問栽培³⁾.
수 장 천 도 문 재 배

어찌 천도天道를 좌우하여
작물재배에 참견할 수 있으리!

幸從南畝憂無麥⁴⁾,
행 종 남 묘 우 무 맥

마침 남쪽 밭두렁 걷다보니
보리이삭 패지 않아 걱정인데,

不向公庭賀臘雷⁵⁾.
불 향 공 정 하 략 뇌

사직辭職하고 어찌 뇌공雷公 달랠
제사 지낼 수 있으리!

1) 하상(下霜) : 서리가 내리다. ‘하(下)’는 동사로서, (눈, 비 등이) 오다. 내리다.

2) 정월번상 사가애(正月繁霜事可哀 : 정월에 서리 많이 내려도 애달플 일일 텐데) :

① 정월(正月) :

☆세수(歲首) 1월을 정월(正月)로 칭하는 경우 : ‘정월’이란, 원래 중국의 고력(古曆 : 이에는 하력夏曆 · 은력殷曆 · 주력周歷이 있음)으로 한 해의 첫째 달을 정월이라 하였다.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고력(古曆)에 의하면, 그 정월이 각기 달랐다. 왜냐하면, 고대중국의 천문학자들은 북두칠성(北斗七星)의 두 병(斗柄 : 북두칠성의 자루 쪽에 있는 세별)이 가리키는 곳을 ‘건(建)’이라고 하고, 일 년 중 두병이 회전하면서 순차적으로 12진(十二辰 : 매달에 해당하는 간지干支)을 가리킨다고 보아, 매달의 앞에 이 ‘건(建)’ 자(字)를 접두어로 붙였다. 그래서 하력(夏曆 : 태음력太陰曆 : 음력陰曆 : 달이 차고 이지러짐을 기초로 하여 만든

책력(冊曆: 천체를 측정하여 해와 달의 돌아다님과 절기節氣를 적은 책)의 매달 구분은 이 ‘건(建)’이 가리키는 방향과 간지(干支)를 결합하여 다음과 같이 명칭하였다: 정월(正月)을 건인(建寅), 2월을 건묘(建卯), 3월을 건진(建辰), 4월을 건사(建巳), 5월을 건오(建午), 6월을 건미(建未), 7월을 건신(建申), 8월을 건유(建酉), 9월을 건술(建戌), 10월을 건해(建亥), 11월을 건자(建子), 12월을 건축(建丑)이라 한 것이 바로 그것이다. 이러한 기준에 의거하여, 하력은 ‘건인(建寅: 1월)’의 달을 정월로 하였고, 은력은 ‘건축(建丑: 12월)’의 달을 정월로 하였으며, 주력은 ‘건자(建子: 11월)’의 달을 정월로 하였다. 『사기(史記)·역서(曆書)』에 의거하면, “하(夏)나라의 정월正月은 1월로, 은(殷)나라의 정월은 12월로, 주(周)나라의 정월은 11월로 하였다(夏正以正月, 殷正以十二月, 周正以十一月).”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한(漢)나라 이후에는 모두 하력(夏曆)에 의거하여, ‘1월’을 1년 중의 정월(正月)로 정하여 사용해 오고 있다.

☆음력 4월을 정월(正月)로 칭하는 경우: 이는 1년 12개월을 『주역(周易)』의 괘(卦)에 맞추어 산출(算出)한 것이다. 주역의 12소식괘(消息卦)에 의하면, 4월은 상하괘(上下卦)가 모두 양효(陽爻)로 이루어져 있어서, 이를 ‘순양지월(純陽之月)’이라고 하였다. 『주역(周易)』에서는 이를 다른 말로 특별히 ‘정양지월(正陽之月)’이라고 하여, 약어(略語)로 ‘정월(正月)’이라고 칭했다. 『시경(詩經)·소아(小雅)·정월(正月)』에, “정월에 서리가 많이 내리니, 내 마음 서글퍼지네(正月繁霜, 我心憂傷).”라고 하는 ‘정월’은 곧 ‘4월’을 가리키는 것이다 (모형毛亨의 『모전(毛傳)』에서 “정월正月은 하력夏曆의 4월이다(正月, 夏之四月).”라고 하였다).

위의 서애 시는 바로 이 『시경』에서 읊은 ‘정양지월(正陽之月)’의 ‘정월’이 아니고, 하력(夏曆)에서 ‘1월’을 세수(歲首)로 하는 그 ‘정월(正月)’로 이해하면 되겠다. 조선시대에 사용했던 역법(曆法)은 대통력(大統曆)으로 이는 명나라 때의 역법인데, 원(元)나라의 천문학자 관수경(郭守敬: 1231~1316)이 만든 수시력(授時曆: 농민에게 사시四時·팔절八節·이십사절기二十四節氣 따위를 가르치기 위한 것으로 만들어졌음)을 고려후기에 받아들이면서 자연히 조선시대에서도 이를 사용하게 되었다.

② 번상(繁霜): 번상(緋霜)으로도 쓴다. 이는 ‘서리가 많이 내리다’ 또는 ‘많이 내린 서리’의 뜻이다.

③ 사가애(事可哀): 일인즉슨 참으로 애달파할만하다,

☆가애(可哀): 참으로 애달프다.

a. 가(可): 부사로 쓰여, 어기를 강조함.

3) 수장천도 문제배(誰將天道問栽培: 어찌 천도天道를 좌우하여 작물재배에 참견할 수 있으리):

① 수장천도(誰將天道): 시적화지는 ‘농작물의 성장은 천도(天道: 하늘의 이치)의 작용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반어의 사어(詞語)인 ‘수(誰)’를 통해, 인간으로서는 미칠 수 없는 영역임을 강조하고 있다.

☆수(誰): 의문대명사로, ‘어찌 …하겠는가’ 혹은 ‘누가 …하겠는가’

☆장(將):

a. (인간이 주체가 되어) 지휘하다. 통솔하다. 이끌다. 좌우하다.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b. 명령하다, 지시하다.

☆천도(天道):

a. 천리(天理), 곧 천리의 작용.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b. 날씨. 기후.

c. 자연계의 변화 규율.

d. 징조를 나타내는 하늘의 현상을 가리킴.

e. 시간, 세월.

f. 국세(局勢), 형세.

g. 불교에서 말하는 육도(六道: 중생이 업에 의해 생사를 반복하는 6가지의 세계) 중의 하나.

② 문재배(問栽培): 작물재배를 간섭하다. 작물재배에 참견하다.

☆문(問): 참견하다. 간섭하다. 따져 묻다.

4) 행종남묘 우무맥(行從南畝憂無麥: 마침 남쪽 밭두렁 건너보니 보리이삭 패지 않아 걱정인데):

① 행(行): 부사로서, ‘때마침. 요행히’ 등의 뜻으로 쓰였다.

② 종(從): …을 따라 가다.

③ 남묘(南畝): 남쪽 밭두렁.

☆묘(畝): 무(畝):

a. 밭(논)두렁.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b. 토지, 면적의 단위. 일묘(一畝)는 30평으로, 99.17m²이다. 또한 1단(段)의 10분의 1이며, 1경(頃)의 100분의 1이다. 60평방 장(丈)이 1묘(畝)이다. 「시118」의 주석3)③☆의 ‘묘(畝)’ 조항을 참조바람.

④ 무맥(無麥): 보리 이삭이 패지 않다.

☆맥(麥): ‘보리’란 뜻이나, 본 시에서는 전(轉)하여, ‘보리이삭’을 가리키는 뜻으로 쓰였다.

5) 불향공정 하랍뇌(不向公庭賀臘雷: 사직辭職하고 어찌 뇌공雷公을 달랠 제사 지낼 수 있으리):

**역지주석: 고대에 국가적 행사로 천지 신에게 제사 지내는 봉선제(封禪祭)나 기우제(祈雨祭)를 지낼 때는 제왕이 그 행사를 주관했고 제신(諸臣)들이 제관(祭官)으로 수행하였다. 개별적으로 천지의 신에게 제사 지내고 기우제를 지내는 것은 예외이지만, 공적인 행사로서 천지 신에게 지내는 제사를 이미 퇴직한 관료로서는 참가할 수 없음을 이르는 말이다.

① 불향공정(不向公庭): 조정에 나가지 않다. 본 시에서는 ‘사직(辭職)하다’로 번역하였다.

☆향(向): ‘거(去)’의 뜻으로 쓰였다.

☆공정(公庭):

a. 조정(朝廷).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b. 관가의 뜰.

c. 법정(法政).

d. 고대군주 종묘의 대청.

② 하납뇌(賀臘雷) : 납일臘日에 뇌신雷神에게 제사를 올린다) :

☆하(賀) :

- a. 위로하다.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 b. 표창하다.

☆납뢰(臘雷) : 납일(臘日) : 납향臘享하는 날. 동지冬至 뒤의 셋째 술일戌日. 조선시대 태조 이후에는 동지 뒤 셋째 미일未日로 했음)에 뇌신(雷神)에게 제사를 올린다.

a. 납(臘) :

- ㉔ 선달. 세말(歲末). ‘사제(蜡祭)’에서 유래된 말로 통상적으로 12월 혹은 동월(冬月 : 음력으로 시월 · 동짓달 · 선달과 같은 겨울철의 달)을 가리킨다.
- ㉕ 제명(祭名). 고대에 백신(百神)에게 제사 지내는 것을 ‘사(蜡)’라고 하였고, 조상신에게 제사지내는 것을 ‘납(臘)’이라고 하였는데, 진한(秦漢) 이후에는 통칭 ‘납(臘)’이라고 하였다. 본 시에서는 납일(臘日)*에 뇌신(雷神 : 뇌공雷公)*에게 제사 지내는 것을 뜻한다.

*납일(臘日) : 동지 뒤의 셋째 술일(戌日)로, 조선 태조 이후에는 동지 뒤 셋째 미일(未日)로 하였다. 납일은 납평(臘平) · 가평(嘉平) · 가평절(嘉平節) · 납향일(臘享日)이라고도 한다. 납일이 되면, 대개 음력으로 12월 연말이므로 지난 일 년을 돌아보고 조상에게 제사를 지낸다. 한 해 동안의 농사 형편이나 그 밖의 일을 고하는 제사를 묘사(廟社)에서 지내는데, 조정에서는 종묘와 사직에 제사를 지내며 나라형편에 대하여 고했다. 또 사직에서는 농사 형편을 아뢰고 제사를 지냈다. 이것을 종묘대제(宗廟大祭)와 사직대제(社稷大祭)라고 한다. 본시에서 ‘납뢰(臘雷)’는 납일에 뇌신(雷神)에게 지내는 제사를 이른다.

*뇌신(雷神) : 고대인들은 동 · 서양을 막론하고 천둥 · 번개라든지, 비 · 바람 같은 기상현상을 신의 조화라고 생각하였다. 실제로 조선왕조실록에 하늘에서 천둥과 번개를 다스리는 신, 곧 뇌신이 사용했다는 도끼를 당시 사람들은 ‘나쁜 기운을 물리치는 신묘한 약효를 지닌 만병통치약’이라고 여겨 임금님께 진상품으로 올리기도 했다. 실제로 이와 관련된 기록이 세종 23년(1441), 광해군 14년(1622) 등 180여 년 동안 7번 나타났다는 기록이 있다.



시86. 칠현금七絃琴을 시제詩題로 하여 쓰다

詩86. 題七絃琴¹⁾ 제 칠 현 금

五絃琴作七絃琴²⁾, 오현금을 만든 후에 칠현금도 제작됐건만,
오 현 금 작 칠 현 금

薰風一去無回音³⁾. 훈풍이 한결같이 불어도
훈 풍 일 거 무 회 음
(칠현금의) 메아리는 울리지 않네.

高山流水古今同⁴⁾, 고산高山과 유수流水는
고 산 유 수 고 금 동
고금古今이 동일한데,

世上無人知我心。 세상에 는 내 마음 알아주는
세 상 무 인 지 아 심
사람이 없네.

- 1) 칠현금(七絃琴): 칠현금(七弦琴): 고대 중국에서 사용하던 거문고의 일종으로, 일곱 줄을 매어 엮어 만든 현악기의 하나이다. 『송사(宋史)·악지(樂志)·사(四)』에, “거문고의 줄을 엮어 만든 종류에는 다섯 가지가 있으니: 일현금(一弦琴)이라 하는 것과 삼현금(三弦琴)이라 하는 것과 오현금(五弦琴)이라 하는 것과 칠현금(七弦琴)이라 하는 것과 구현금(九弦琴)이라 하는 것이다(絲部有五: 曰一弦琴, 曰三弦琴, 曰五弦琴, 曰七弦琴, 曰九弦琴).”고 한 대목이 보인다. 명대(明代) 말엽의 문인 풍몽룡(馮夢龍: 1574~1646)이 수집·간행한 의화본(擬話本) 소설집 『경세통언 제1권(警世通言第一卷)』·(춘추시대 초나라의 거문고명인) 유백아俞伯牙가 (진정 자신의 거문고 소리를 이해해 주던 종자기鍾子期가 죽자, 그가 없는 이 세상에는 더 이상 자신의 음악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음을 슬퍼하여) 거문고를 깨부수고 자신의 음악을 알아주던 사람과 이별하다(俞伯牙摔琴謝知音)』는 글에, “최초에는 궁·상·각·치·우 등 5현

(五絃)이 있었는데, 후에 두 현(二絃)을 추가하였으니, (주周나라 문왕文王이 현 하나를 더 첨가했는데 이것을 ‘문현文絃’이라 하고 그 뒤 무왕武王이 다시 현 하나를 더 첨가해서 이것을 ‘무현武絃’이라 함) 이것을 문무칠현금이라 한다(先是宮, 商, 角, 徵, 羽五絃, 後加二絃, 稱爲文武七絃琴).”고 한 대목이 있다.

2) 오현금작 칠현금(五絃琴作七絃琴 : 오현금을 만든 후에 칠현금도 제작됐건만) :

① 오현금(五絃琴) : 五絃 : 五弦 : 다섯줄로 된 옛날 거문고의 하나. 칠현금의 전신(前身)이다. 전국시대 말기 한(韓) 나라의 법가(法家) 한비(韓非 : BC 280?~BC 233)의 저서 『한비자(韓非子)』·외자설 좌상(外儲說左上 : ‘외자설’은 군주에게 진언을 하기 위해서 많은 사례를 모아 놓은 자료집이고, ‘좌상’은 자료집 전체를 편의상 좌·우 두 부분로 가르고 이것을 다시 상·하로 나눈 네 편 중의 제1편이라는 뜻임)』에, “옛날에 순임금은 다섯 현의 거문고를 타고, 「남풍(南風)」의 시를 지어 노래 부르면서도 천하를 다스렸다(昔者舜鼓五絃, 歌南風之詩而天下治).”고 한 대목이 있다.

② 작칠현금(作七絃琴) : 칠현금을 만들다.

☆작(作) :

- a. 만들다. 제작하다.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 b. 연주하다.
- c. (소리·음향 등을) 내다, 보내다.

3) 훈풍일거 무회음(薰風一去無回音 : 훈풍이 한결같이 불어도 <칠현금의> 메아리는 울리지 않네) :

① 훈풍(薰風) : 훈훈한 바람. 따뜻한(온화한) 바람. 초여름의 동남풍을 말한다.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전하는 바에 의하면, 순임금이 지어서 노래했다는 「남풍가(南風歌)」에, “남풍이 훈훈하게 불어오니, 우리 백성들의 노기(怒氣)가 풀릴 수 있겠네(南風之薰兮, 可以解吾民之愠兮).”라고 읊은 구절이 『공자가어 제8권(孔子家語第八卷)·변악해(辯樂解)』편에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후세에 이 ‘훈풍(薰風)’이라는 말을 ‘남풍가(南風歌)’를 가리키는 말로 썼다.

② 무회음(無回音) : 메아리가 울리지 않다.

☆회음(回音) : 회성(回聲) : 메아리.

4) 고산유수 고금동(古山流水古今同 : 고산高山과 유수流水는 고금古今이 동일한데) : 여기의 ‘고산유수(高山流水)’는 거문고 탄주의 명인(名人), 백아(伯牙)와 그의 음악의 지음(知音)인 종자기(鍾子期) 사이에 있었던 일단(一段)의 전고(典故)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 전고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열자(列子)·탕문편(湯問篇)』에 이르기를 : “백아(伯牙는 거문고[琴]를 아주 잘 탔고, 종자기(鍾子期)는 그 소리를 경청하는데 능숙하였다. 백아가 거문고를 연주함에, 뜻이 높은 산에 오르는데 있으면, 종자기가 말하기를 : “절묘하네, 높고 웅대한 것이 태산과 같구나!”라고 하고, 생각이 흐르는 물에 있으면, 종자기가 말하기를 : “절묘하네, 성대하게 도도히 흐르는 모양이 장강·황하와 같네!”라고 하여, 백아의 생각하는 바를 종자기가 반드시 알아냈다(伯牙善鼓琴, 鍾子期善聽. 伯牙鼓琴, 志在登高山, 鍾子期曰 : “善哉, 峩峩兮若泰山!” 志在流水, 鍾子期曰 : “善哉, 洋洋兮若江河!” 伯牙所念, 鍾子期必得之). 또 한 번은 백아가 태산 북쪽에 유람을 갔다가, 갑자기 소나기를 만나, 바위 아래 머물게 되었다(伯牙游於泰山之陰, 卒逢暴雨, 止於巖下). 마음속에 서글픈 생각이 들어서, 거문고를 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장맛비[霖雨]의 곡조」를 타고, 그 다음에

는 「붕괴되는 산[崩山]의 곡조를 탔다. 곡조를 연주할 때마다, 종자기는 번번이 거문고 곡조의 정취를 알아냈다. 백아는 마침내 거문고를 내려놓고 탄식하여 말하기를 : “홀륭하네, 홀륭하네! 그대는 내 마음의 소리를 들을 수 있으며, 상상하는 것도 내 마음과 같으네. 내가 어떻게 탄들 거문고 음곡이 그대의 청력聽力을 벗어날 수 있겠는가(心悲, 乃援琴而鼓之。初爲霖雨之操, 更造崩山之音, 曲每奏, 鍾子期輒窮其趣。伯牙乃舍琴而嘆曰: “善哉, 善哉, 子之聽夫志, 想象猶吾心也。吾於何逃聲哉?)”라고 하였다. 그러나 시적화자가 처한 현재의 조선시대 현실에서는 그러한知音(知音)을 만날 수가 없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

시87. 경자년更子年(1600년) 정월 초하룻날 밤에,
방옹放翁육유陸游가 지은 시 「갑자년(1204년) 정월
초하룻날(甲子元日)」을 차운하여

詩87. 庚子元日¹⁾夜 次陸放翁甲子元日韻²⁾
경 자 원 일 야 차 육 방 옹 갑 자 원 일 운



舊歲³⁾爲新歲,
구 세 위 신 세

묵은 해 지나가고 새해가 됐는데도,

寒村一病翁⁴⁾。
한 촌 일 병 옹

궁벽한 촌락에서 줄곧 외병하는 늙은이.

光陰瞥眼過⁵⁾,
광 음 별 안 과

세월은 순식간에 지나가는데,

生事與時窮⁶⁾。
생 사 여 시 궁

생계生計는 수시로 곤궁해지네.

萬計歸虛牝⁷⁾,
만 계 귀 허 빈

온갖 궁리 끝에 산골마을로 귀향했으니,

今年願小豐。
금 년 원 소 풍

금년에는 조금이라도 풍성해지기 바라네.

松明替殘燭⁸⁾,
송 명 체 잔 촉

꺼져가는 촛불 대신에 관솔불 켜니

叫噪任兒童⁹⁾。
규 조 임 아 동

아이들은 신이 나서
왁자지껄 환호하며 떠드네.

- 1) 경자원일(庚子元日 : 경자년(1600년) 정월 초하룻날) :
 - ① 경자년(庚子年) : 1600년으로 서에 나이 59세가 되는 해이다.
 - ② 원일(元日) : 설날. 정월초하룻날.
- 2) 차육방옹 갑자원일운(次陸放翁 甲子元日韻 : 방옹放翁 육유陸游가 지은 시 「갑자년 정월 초하룻날(甲子元日)」을 차운하여) :
 - ① 차·운(次·韻) : 앞의 「시20」의 주석1)의 ② ‘차운(次韻)’ 조항을 참조바람.
 - ② 육방옹(陸放翁) : 방옹(放翁) 육유(陸游). 육(陸)은 성씨이고 방옹은 육유의 호이다. 이렇게 성씨 다음에 자(字)나 호(號)를 쓰는 것은 경칭(敬稱)의 한 예이다. 성씨 다음에 직함을 쓰기도 한다. 자나 호 또는 직함 다음에 이름은 쓰기도 하고 쓰지 않기도 한다.

☆육유(陸游) : 1125~1210) : 남송 월주(越州) 산음(山陰) 사람이다. 자는 무관(務觀)이고, 호는 방옹(放翁)이다. 젊었을 때부터 문명(文名)이 있었다. 고종(高宗) 소흥 24년(紹興二十四年 : 1154) 예부시(禮部試)에 응해 상위권에 올랐지만, 국위를 회복하자는 논의를 전개하다 간신 진회(秦檜 : 1090~1155)에 의해 퇴출되었다. 효종(孝宗)이 즉위하자 추밀원편수관(樞密院編修官)으로 승진하고, 진사출신으로 인정받았다. 건도 6년(乾道六年 : 1170) 기주통판(夔州通判)이 되었다. 나중에 사천(四川)으로 들어가 선무(宣撫 : 지방이나 점령지의 주민에게 조정의 본의本意를 전하여 민심을 안정시키는 일)하다가 사천 제치사참의관(四川制置使司參議官)에 임명되었다. 순희 7년(淳熙七年 : 1180) 강서(江西)에서 다염(茶鹽)에 관한 일을 맡아 처리하면서 관청의 창고에서 곡식을 꺼내어 이재민을 구했다가 탄핵을 받아 쫓겨났다. 16년(1189) 예부낭중(禮部郎中 : 예부의 3품 상·하 벼슬)이 되었다가 파직되고, 이후 10여 년 동안 한거했다. 영종(寧宗) 가태 2년(嘉泰二年 : 1202)에 소환되어 효종과 광종(光宗)의 실록을 편찬했다. 보모각대제(寶謨閣待制)로 제왕의 시문(詩文)과 서화(書畫) 및 악곡(樂曲)을 보관하던 보모각(寶謨閣 : 보장각寶章閣)의 대제(待制 : 종 4품 벼슬 명칭)를 마지막으로 사직(辭職)했다. 시(詩)와 사(詞), 산문에 능했고, 사학(史學)에 조예가 깊었다. 금나라에 대해 철저한 항전을 주장한 격렬한 기질의 소유자였다. 작품에는 호탕한 기개와 함께 좌절하여 침울한 심정이 잘 드러나 있다. 우무(尤袤 : 1127~1194), 양만리(楊萬里 : 1127~1206), 범성대(范成大 : 1126~1193)와 함께 ‘남도후사대가(南渡後四大家)’로 불린다. 32살부터 85살까지 50년 동안 1만수에 달하는 시를 남겨 최다작의 시인으로 꼽힌다. 저서에 『검남시고(劍南詩稿)』 85권과 『渭南文集(渭南文集)』, 『남당서(南唐書)』, 『노학암필기(老學庵筆記)』 등이 있다.
- ③ 갑자원일(甲子元日) : ‘갑자년(甲子年 : 1204) 정월 초하룻날’이라는 뜻으로, 육유(陸游)가 지은 시의 시제(詩題)이다. 본 시의 육유의 시제는 원시제(原詩題)를 축약한 것이다. 원시제는 「갑자년 정월 초하룻날(甲子歲元日)」이다.
- 3) 구세(舊歲) : 지난 해. 묵은 해.
- 4) 한촌 일병옹(寒村一病翁 : 궁벽한 촌락에서 줄곧 와병하는 늙은이) :
 - ① 한촌(寒村) : 가난한 마을. 쓸쓸한 마을. 궁벽하고(외지고) 조용한 촌락.
 - ② 일병옹(一病翁) : 줄곧 와병하는 늙은이.

☆일(一): 줄곧. 시종(始終). 부사로 쓰였다.

5) 광음 별안과(光陰瞥眼過: 세월은 순식간에 지나가는데):

① 광음(光陰): 시간. 세월.

② 별안(瞥眼): 별안간(瞥眼間: 갑작스럽고 아주 짧은 동안). 눈 깜짝할 사이. 순식간에. 잠깐 사이.

6) 생사 여시궁(生事與時窮: 생계生計는 수시로 곤궁해지네):

① 생사(生事):

☆생계(生計)와 같은 말. 동진(東晉)의 사학가(史學家) 상거(常璩: 약 219~약 361)가 저술한 한중군(漢中郡: 지금의 섬서성陝西省 한중시漢中市 일대의 지역)과 사천(四川) 지방의 가장 오래된 지방사(地方史)인 『화양국지(華陽國志)·촉지편(蜀志篇)』에, “산이 원래 비옥한데다,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이점이 있어서, ……; 토지는 생계를 쉽게 해주었다(山原肥沃, 有澤漁之利……; 土地易爲生事).”고 한 대목이 있다.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고대에 초상(初喪)이 난 초기에 행하던 제례(祭禮). 사람이 죽고 나서 장례를 치르기 전까지는 산 사람의 예로써 모시던 것을 이른다. 이 때의 ‘생사(生事)’의 뜻은 ‘산사람처럼 모시다’는 뜻이다.

☆부모가 생존해 있을 때 모시는 일을 이르는 말.

☆독단적으로 행사하는 것을 이르는 말.

☆사단(事端)을 일으키다. 사변(事變)이 발생하다.

☆세사(世事: 세상사)와 같은 말.

② 여시(與時): 수시(隨時)로 언제나 정해놓은 때 없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사기(史記)·중니제자열전(仲尼弟子列傳)』에, “자공은 장사하기를 좋아하였으니, 수시로 가격이 내리면 매입하고 오르면 판매한다(子貢好廢舉*, 與時轉貨貴*.)”고 한 대목이 있다.

*폐거(廢舉): 폐거(廢居): 매매(賣買)하다. 물건을 팔고[廢] 사다[舉].

*전화자(轉貨貲): ‘상품과 화폐를 바꾸다’는 말로 값이 싸면 사들이고 비싸지면 파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다.

7) 만계 귀허빈(萬計歸虛牝: 온갖 궁리 끝에 산골마을로 귀향했으니):

① 만계(萬計): 온갖 계획(궁리).

② 허빈(虛牝):

☆공곡(空谷: 인적 없는 산골짜기). 전(轉)하여, 본 시에서는 벽촌(僻村: 외파로 떨어져 있는 궁벽한 마을) 하회(河回)를 가리키는 뜻으로 쓰였다. 『서애연보』에 의하면, 서애는 1598년(무술년戊戌年, 서애 57세) 11월에 파직된 뒤, 1599년 2월에 하회로 돌아와서 손님 방문을 사절하고 은거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쓸모없는 땅을 비유한 말로도 쓴다.

8) 송명 체잔촉(松明替殘燭: 꺼져가는 촛불 대신에 관솔불 켜니):

① 송명(松明): 관솔불. 소나무와 잣나무에서 분비되는 끈끈한 액체를 송진(松津)이라 하는데, 이 송진은 독특한 향기가 있으며 완전히 굳으면 황갈색의 딱딱한 덩어리가 되는데, 이것을 가늘게 쪼개서 불을 붙이면 ‘조명(昭明)’할 수 있는 까닭에 ‘송명(松明)’이라고 한다.

② 체잔촉(替殘燭): 꺼져가는 촛불을 대신하다.

☆체(替):…를 대신하다.

☆잔촉(殘燭): 다 타서 거의 꺼져가는 촛불.

9) 규조 임아등(叫噪任兒童: 아이들은 신이 나서 왁자지껄 환호하며 떠드네):

① 규조(叫噪): 규조(叫譟)로도 쓴다. 큰소리로 떠들다. 왁자지껄하다. 본 시에서는 ‘왁자지껄 환호하며 떠들다’는 뜻으로 쓰였다.

② 임(任): 부사로 쓰여, ‘제멋대로 마음대로’의 뜻을 나타내었다.

시88. 경자년庚子年(1600년) 정월 초이렛날
고적高適의 시를 차운次韻하여

詩88. 庚子人日¹⁾ 次高適韻²⁾
경 자 인 일 차 고 적 윤



不分江湖與廟堂³⁾,
불 분 강 호 여 묘 당

사방 각지와 조정을 불문하고,

此心安處卽吾鄉⁴⁾.
차 심 안 처 즉 오 향

이 마음 편케 하는 곳은 내 고향뿐일세.

平生行世無長物⁵⁾,
평 생 행 세 무 장 물

평소에 처세하며 여분의
물건을 쌓아 둔 것도 없고,

只有忠肝與義腸⁶⁾.
지 유 충 간 여 의 장

겨우 지녔단 게 충성심과
의리심 뿐일세.

聖言不憂兼不懼⁷⁾,
성 언 불 우 겸 불 구

성현의 어록에 '(군자는) 걱정하지도
두려워하지도 않는다' 했고,

易說何思又何慮⁸⁾.
역 설 하 사 우 하 려

『역설』에선 '(천하사를) 어찌 꼭 생각해야
하고 걱정해야 한단 말인가?'라고 했다네.

行年六十未聞道⁹⁾,
행 년 육 십 미 문 도

나이 예순에도 아직 (그) 도리를
깨닫지 못하여,

亂雲飄飄無定處¹⁰⁾。
난운표표무정처

떠도는 구름 등실등실 흘러가듯 정처 없네.

今年今日復明年，
금년금일부명년

올해의 오늘이 지나가면
다시明年的 오늘이 되겠지만,

俯仰¹¹⁾天地多風塵。
부양천지다풍진

세상천지 두루 살펴보면
시련이 얼마나 많은가.

當時賣藥韓康伯¹²⁾，
당시매약한강백

후한後漢 당시에 약을 판매하던
한강韓康 공公은,

願爲無聞無識人¹³⁾。
원위무원무식인

명성도 자기를 알아보는
사람도 없기를 바랐다네.

1) 경자인일(庚子人日: 경자년庚子年 정월 초이렛날):

① 경자(庚子): 경자년(1600년: 선조 33. 서예 59세).

② 인일(人日): 옛 풍속에 음력 정월 초이렛날을 ‘인일(人日)’이라고 했다.

☆한국의 인일(人日): 이날에는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관습이 전해왔다. 정초에는 남의 집에 가서 유숙하지 않도록 되어 있지만, 특히 인일에는 밖에서 잠을 자지 않았다. 충청북도에서는 이날 객이 와서 묵고 가면 그 해는 연중 불운이 든다고 한다. 그래서 부득이 객이 와서 묵게 될 때는 주인과 객이 머리를 반대로 두고 거꾸로 자야만 액운을 막을 수가 있다고 한다.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의 인일에 대한 기록에 의하면, 작고 등근 거울모양에 자루가 달리고 뒤에 신선이 새겨져있는 동인승(銅人勝)을 각신(閣臣)들에게 나누어 주었으며, 또 과거를 실시하였다고 한다. 이 과거를 인일제(人日製)라 하여, 태학(太學)의 식당(食堂)에 참석한 지 30일이 되어 원점(圓點)을 얻은 유생들에게 시험을 보도록 하였다고 한다. 성균관과 문묘에서 시행하기도 하고, 대궐 안에서 임금의 친히 시행하기도 하였으며, 지방의 유생도 불러 함께 보이기도 하였다. 『열양세시기(洙陽歲時記)』에도 비슷한 기록이 있다. 이 인일의 관습은 중국의 세시기(歲時記)에도 보이는 것으로, 그 유래가 오랜 것이다. 한편, 전라북도 지방에서는 간지(干支)가 신(申)인 날을 원승이 날이라고 부르지 않고 보통 사람 날이라고 하여 쉬었다고 한다. 즉, “오늘은 사람날이니까”하며 일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특별한 행사나 금기는 별로 남아 있지 않다. 경상북도 지방에서의 인일은 사람의 탄생을 축하하는 날이며 질병을 예방하고 친목을 도모하는 날이다. 전라남도 지방에서는 정월 상인일(上寅日)에 일을 하지 않고 노는데, 이 날을 사람 날이라고도 한다. ‘인(寅)’과 ‘인(人)’은 그 음이 같기 때문이다.

또한 옛날부터 인(寅) 날에 일을 하면 호랑이가 나타난다고 하였다고 한다. 경상남도지방에서는 칠인팔곡(七人八穀)이라 하여, 정월 초이렛날은 사람 날이라고 하고 초여드렛날은 곡식(穀食)날이라 한다. 이 지방에서도 인일에는 일하지 않고 놀며, ‘바느질 하면 생손 앓는다.’, ‘갈질 (혹은 연장질) 하면 다친다’는 금기가 전해오고 있다.

☆중국의 인일(人日): 송대(宋代)에 이방(李昉: 925~996) 등이 황명(皇命)에 따라 편집한 백과사전 『태평어람(太平御覽)』 제976권에는 남조(南朝)시대의 양(梁)나라 학자 종림(宗懷: 502~565)이 편찬한 『형초세시기(荆楚歲時記: 호북성湖北省과 호남성湖南省 일대의 민속행사와 풍물기록)』를 인용하여 말하기를, “정월 초이렛날은 ‘인일(人日)’이다(正月七日爲人日). 이날은 일곱 종류의 채소로 국을 끓여 먹고(以七種菜爲羹), 오색비단을 가지고 사람모양으로 오리거나 금박지에 사람모양을 새겨서(剪綵爲人或鏤金箔爲人), 병풍에 붙이거나, 두발에 달기도 한다(以貼屏風, 亦戴之頭鬢). 또한 (부녀자들은) 머리에 꽂는 꽃모양의 리본을 만들어서 서로 보내기도 하고, (남자들은) 산에 올라가 시를 지어 읊기도 한다(又造華勝以相遺, 登高賦詩).”고 하였다. 송나라 문인 고승(高承: 생몰년 미상)은 그의 저서 『사물기원(事物紀原)·천생지식편(天生地植篇)·인일장(人日章)』에서: “동방삭(東方朔: BC 154~BC 93: 서한西漢의 문인: 속설에 의하면 그는 서왕모西王母의 복숭아를 훔쳐 먹고 장수했기에, 삼천갑자 동방삭(三千甲子東方朔)이라 전해짐)의 저서, 『점서(占書)』에서 말하기를(東方朔『占書』曰): 정월 초하룻날은 닭을 관찰해서 길흉을 예측하고(歲正月一日占雞), 초이튿날은 개를 보고 길흉을 예측하며(二日占狗), 초사흘날은 양을 보고 길흉을 예측하며(三日占羊), 초나흘날은 돼지를 보고 길흉을 예측하며(四日占猪), 초닷새날은 소를 보고 길흉을 예측하며(五日占牛), 초엿새날은 말을 보고 길흉을 예측하고(六日占馬), 초이렛날은 사람을 보고 길흉을 예측하며(七日占人), 초여드렛날은 곡식을 가지고 길흉을 예측한다(八日占穀). 이렇게 점진 모든 날씨가 청명하고 온화하면(皆晴明溫和), 번식이 잘 되고 평안할 것이라는 징후이고(爲蕃息安泰之候), 흐리고 추운 게 혹독하면(陰寒慘烈), 질병이 발생하고 체질이 쇠약해진다는 징후이다(爲疾病衰耗).”라고 하였다.” 근대 청(淸)나라의 만주족 문인 부찰둔송(富察敦崇: 1855~?)의 저서, 『연경세시기(燕京歲時記)·인일편(人日篇)』에서는 “초이렛날을 ‘인일(人日)’이라고 한다(初七日謂之人日). 이 날 날씨가 청명하면 자손이 번성한다(是日天氣清明者則人生繁衍).”고 하였다.

2) 차고적운(次高適韻): 고적의 시에 차운하다.

- ① 차·운(次·韻): 앞의 「시20」의 주석1)의 ② ‘차운(次韻)’ 조항을 참조바람.
- ② 고적(高適: 700?~765): 당(唐)나라 발해(渤海) 수현(蓀縣: 지금의 하북성河北省 경현景縣) 사람이다. 자는 달부(達夫) 또는 중부(仲父)다. 젊었을 때 빈한하여 장안(長安)에 왔다가 실망하고 돌아갔는데, 생업에 종사하지 않고 산둥(山東)과 하북 지방을 방랑하며 이백(李白: 701~762), 두보(杜甫: 712~770) 등과 사귀었다. 나중에 하서(河西)로 들어가 투르크족의 무장 가서한(哥舒翰: ?~756)의 막부에서 서기(書記)가 되었다.淮南(淮南)과 서천(西川)의 절도사를 지내고, 산기상시(散騎常侍)까지 올랐으며, 발해현후(渤海縣侯)에 봉해졌다. 보통 고상시(高

常侍)라 불린다. 일찍이 세 번 변방으로 나가 잡삼(岑參 : 715~770)과 이름을 나란히 해, ‘고·잡(高岑)’으로 불렸다. 시호는 충(忠)이다. 시는 호쾌하면서도 침통한데, 특히 변경에서의 외로움과 전쟁, 이별의 비참함을 읊은 변새시(邊塞詩)가 뛰어나다. 저서에 『고상시집(高常侍集)』이 그가 지은 『중간흥기집(中間興氣集)』과 함께 전한다.

3) 불분 강호여묘당(不分江湖與廟堂 : 사방 각지와 조정을 불문하고) :

① 불분(不分) : 구분(구별)하지 않다. 가리지 않다.

② 강호(江湖) :

☆사방각지를 가리키는 말로 쓴다.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강과 호수. 강하(江河)와 호해(湖海 : 호수와 해양).

☆은사(隱士)의 거처.

☆사방을 유랑하다.

③ 묘당(廟堂) :

☆조정(朝廷).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태묘(太廟 : 태조의 종묘)의 전당(殿堂 : 궁전 : 웅장한 당옥堂屋).

☆태묘와 명당(明堂 : 제왕이 정교政教를 선포宣明하던 곳).

☆묘우(廟宇 : 사당祠堂).

4) 즉오향(卽吾鄉) : 곧 바로 내 고향이다.

① 즉(卽) : 부사로 ‘그것은 바로’의 뜻을 지닌다.

② 오향(吾鄉) : 명사형 술어로, ‘나의 고향이다’의 뜻으로 쓰였다.

5) 평생행세 무장물(平生行世無長物 : 평소에 처세하며 여분의 물건을 쌓아 둔 것도 없고) :

① 평생(平生) : 평소에. 늘. 항상.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② 행세(行世) :

☆처세하다.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처세에 유행되다. 혹은 (저작물 등이) 출판되다. 발표되다.

③ 무장물(無長物) : 평소에 생활이 검박(儉朴)하여 별로 이렇다 할 여분(餘分)의 물건을 두지 않는다는 뜻이다. 남조시기(南朝時期) : 420~581)의 송(宋)나라 유의경(劉義慶 : 403~444)의 『세설신어(世說新語) · 덕행(德行)』에, 동진(東晉)의 중신(重臣) 왕공(王恭)이 평소에 생활이 검박하여, 별도로 물질적 풍요를 누리는 것을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과 관련한 전고(典故)가 보인다. 한 번은 그가 부친을 따라 회계(會稽 : 지금의 절강성浙江省 소흥시紹興市)에서 당시의 도성(都城)인 건강(建康 : 지금의 강소성江蘇省 남경시南京市)으로 왔는데, 그의 동족(同族) 종숙(從叔)인 왕대(王大 : 王忱 : 어릴 적부터 왕공과는 서로 친했으며 명성을 나란히 했다)가 그를 보러 왔을 때, 그가 6척의 대자리를 깔고 앉아 있었다. 왕대는 그것을 보자 왕공에게 말하기를, “그대는 동쪽에서 왔기 때문에 응당 이 물건이 많을 것이니 하나만 나에게 줄 수 있겠는가(卿東來, 故應有此物, 可以一領及我)?”라고 하자, 왕공은 말없이 있다가 왕대가 간 후에 즉시 앉아 있던 것을 거두어서 그에게 보내주었다. 그리고는 남은 자리가 없어서 자기는 짚자리 위에 앉았다. 나중에 왕대가 이 사실 이야기를 듣고, 매우 놀라며 말하기를, “나는 그대에게 많이 있는 줄로 알았기 때문에, 달라고 했던 것인데(吾本謂卿多, 故求耳).”라고 하자,

왕공이 대답하기를, “어르신은 저를 잘 알지 못하시는군요. 저라는 사람은 쓸모 없는 여분의 물건은 두지 않습니다(丈人不悉恭, 恭作人無長物).”라고 했다.

6) 지유 충간여의장(只有忠肝與義腸: 겨우 지녔단 게 충성심과 의리심 뿐일세):

① 지유(只有): 가까스로 겨우 …밖에 없다.

② 충간(忠肝): 충성스러운 마음. 충성심. 충의지심(忠義之心).

☆간(肝): 간장(肝臟: 肝)이라는 뜻이지만, 여기서는 ‘내심(內心)’을 비유한 말로 쓰였다.

③ 의장(義腸): 의리심(義理心).

☆장(腸): ‘창자’의 뜻이나, 전(轉)하여, ‘마음. 마음씨’의 뜻으로 쓰였다.

7) 성인 불우겸불구(聖言不憂兼不懼: 성현의 어록에 〈군자는〉 ‘걱정하지도 두려워하지도 않는다’ 했고): 이 말의 출처는 『논어(論語)·안연(顏淵)』에 보인다. 사마우(司馬牛)가 군자에 대하여 묻자(司馬牛問君子), 공자께서 “군자는 걱정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는다고 말씀하셨다(子曰: 君子不憂不懼).” 사마우가 여쭙었다. “걱정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으면, 군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曰: 不憂不懼, 斯謂之君子已乎)?” 공자가 말씀하셨다. “안으로 반성해서 잘못이 없다면, 무엇을 걱정하고 무엇을 두려워하겠느냐(子曰: 內省不疚, 夫何憂何懼)?”

① 성인(聲言): 성현의 어록(語錄).

② 불우(不憂): 근심하지 않다(부담스러워 하지 않는다는 뜻임).

③ 불구(不懼): 두려워하지 않다.

8) 역설 하사우려려(易說何思又何慮: 『역설(易說)』에선 ‘〈천하사를〉 어찌 꼭 생각해야 하고 걱정해야 한단 말인가라고 했다네):

① 역설(『易說』): 『주역』을 주석(注釋)하거나 해설한 책을 말한다.

② 하사 우려려(何思又何慮: 어찌 반드시 생각해야 하고 어찌 꼭 걱정해야 하는가): 본사에서 제시한 ‘어찌 반드시 생각을 해야 하고 어찌 꼭 걱정을 해야 하는가’라는 말은 『주역(周易)·계사(繫辭) 하(下)』에 보이는 것으로 이는 공자가 『주역』 함괘咸卦 구사九四의 효사爻辭를 인용하여, 천하 만물의 성심(誠心)만이 상호감응이라는 생명작용을 일으키게 하여, 만물을 상호공존하게 한다는 것을 일깨워 주고 있는 것이다. 그 원문을 보면, “『주역』 함괘咸卦 구사九四의 효사爻辭에서 해설하기를(『易』曰): ‘성심誠心으로 왕래하면, 벗이 〈결국은〉 너의 생각대로 좇으리라(憧憧往來, 朋從爾思).’고 했다. 공자는 이에 대해 해석하여 말씀하시기를(子曰): ‘천하사天下事를 어찌 꼭 생각을 해야 하고, 어찌 반드시 걱정을 해야 하겠는가(天下何思何慮)! 천하의 모든 일들은 〈절로 각자의 감응에 따라 능히〉 서로 다른 길에서 나아간다고 해도 결국 돌아가는 곳은 모두 동일하게 된다(天下同歸而殊塗). 〈이와 같이〉 온갖 사려들이 하나의 관념으로 통일되는데, 천하사를 어찌 꼭 생각해야하고 걱정해야 한단 말인가(一致而百慮, 天下何思何慮)! 〈예를 들면〉 해가 지면 달이 뜨고, 달이 지면 해가 뜨니(日往則月來, 月往則日來), 해와 달이 서로 옮겨가거나 변해가서 밝음이 생기며(日月相推而明生焉), 추위가 가면 더위가 오고, 더위가 가면 추위가 오니(寒往則暑來, 暑往則寒來), 추위와 더위가 서로 옮겨가거나 변해가서 일 년이 이루어진다(寒暑相推而歲成焉). 가는 것은 굽히는 것이고, 오는 것은 펴는 것이니(往者屈也, 來者信也), 굽히고 펴이 서로 감응하여 이로움이 생기는 것이다(屈信相感而而生

焉).”고 하였다. 공자의 위의 말씀은 역(易)의 함괘(咸卦)의 구사(九四)의 효사(爻辭)를 인용하여 해석한 것이다. 요약하면, 본체의 세계에 있어서는 본래 이치가 하나이지만, 현상계에 있어서는 여러 갈래로 그 발전하는 노선이 다르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도 자연이나 다를 바가 없는데 굳이 어떤 명제에 사로잡혀서 개별적인 생각과 걱정으로 보편성의 핵심인 ‘성실함[誠]’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외물(外物)과의 상호감응을 일으킬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생명의 공존이란, 오로지 해와 달이 서로 번갈아서 이 세상에 광명을 가져다주는 것과 같이 또한 추위와 더위의 오고 감이 번갈아드는 사이에 한 해가 다시 그 다음해로 연속되는 것과 같이 본래 이와 같이 왔다 가고 갔다 오는 이른바 서로 굴신(屈伸: 굴신屈伸)함으로써 상호 감응이라는 일체(一體)의 경계에 도달하여 ‘공존(共存)’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게 된다는 것이다.

9) 행년육십 미문도(行年六十未聞道: 나이 예순에도 아직 <그> 도리를 깨닫지 못하여):

① 행년(行年):

☆세상을 경험한 햇수. 당시 연령을 가리킨다.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장차 다가올 연령(내 나이 일흔이 된다면 ...할 것이다’라고 할 때의 ‘일흔 살을 가리키는 말임).
 ☆한 해 동안의 운세. ‘소운(小運)’이라고도 하는데, 역술가들이 말하는 해당 년간에 행해지는 운수(運數)를 말한다.

② 문도(聞道):

☆모종(某種)의 도리를 깨닫다.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논어(論語)·이인(里仁)』에, “아침에 도를 깨우칠 수 있다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朝聞道, 夕死可矣).”고 하였다.
 ☆(...라고) 들었다.

10) 난운표표 무정처(亂雲飄飄無定處: 떠도는 구름처럼 등실등실 흘러가듯 정처 없네):

① 난운표표(亂雲飄飄): 이리저리 떠도는 구름에 대한 묘사.

☆난운(亂雲):

- 이리저리 (뒤섞여서) 떠도는 구름.
- 비구름.
- 여자의 헝클어진 두 발을 비유한 말.

☆표표(飄飄):

- 구름이 흘러가는 모양(등실등실)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 바람에 나부끼는 모양(팔랑팔랑).
- 높이 오르는 모양.
- 공중을 비상(飛翔: 공중을 날아다님)하는 모양.
- 바람이 부는 모양(좌좌, 좌좌).
- 유연하고도 마음의 여유가 있어 초진탈속(超塵脫俗: 세속을 초탈함)한 모양.
- 동란상태로 불안한 것을 형용한 말.
- 유랑(방황)하는 모양.
- 신속(급속)한 모양.

j. 사상이나 품은 뜻이 심원한 것을 형용한 말.

k. 아득히 멀고 아주 오래 된 것을 형용한 말.

- 11) 부양(俯仰): 고개를 숙임과 쳐들. 쳐다보고 굽어보다, 즉 천지사방을 두루두루 살피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기타 자세한 뜻은 앞의 「시 8」의 주석9) ①의 ‘부양(俯仰)’ 조항을 참조바람.

- 12) 당시매약 한강백(當時賣藥韓康伯: 후한後漢 당시에 약을 판매했던 한강韓康 공公은):

① 당시(當時): 본 시에서의 ‘당시(當時)’는 한강(韓康)이 생존했을 당시인 후한시대의 당시를 가리킨다.

② 한강백(韓康伯): 한강(韓康) 공(公).

☆한강(韓康: 생몰년 미상): 후한 경조(京兆) 패릉(霸陵), 지금의 섬서성(陝西省) 서안시(西安市) 패하(霸河) 남부 사람이다. 일명 염휴(恬休)이고, 자는 백휴(伯休)이다. 집안이 대대로 저명했다. 명성을 피해 장안(長安)에서 30년 동안 약을 팔았는데, 값을 깎아주는 일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이름이 세상에 알려지자 이를 한탄하며 패릉 산속으로 들어가 은둔했다. 박사공거(博士公車)가 연이어 불려도 나가지 않았다. 환제(桓帝)가 안거(安車)를 보내 부르자 부득이하여 안거를 사양하고 스스로 시거(柴車)에 탄 채 먼저 출발했다. 그리고는 도중에 숨어버렸다. 그리하여 은둔하는 고사(高士) 또는 약재를 캐거나 파는 사람을 일컫는 말로도 통하게 되었다.

☆백(伯): 고대에 남성 장자(長者)에 대한 존칭으로 ‘공(公)’과 같은 뜻으로 쓰였다.

- 13) 원위 무문무식인(願爲無聞無識人: 명성도 자기를 알아보는 사람도 없기를 바랐다네):

① 무문(無聞): 명성(名聲)이 없다.

☆문(聞): 유명(有名)하다.

② 무식인(無識人):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를 알지 못하게 하다.

☆무식(無識):

a. ...를 알지 못하게 하다.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b. 배우지 못하여 식견이 없다.



시89. 강변 마을에서 새벽에 일어나 눈앞의 풍경을 읊다

詩89. 江村曉起卽事¹⁾
강 촌 효 기 즉 사

江壁歸雲濕²⁾,
강 벽 귀 운 습

강변 절벽 위로 흘러가는 구름
더디기만 한데,

園林宿霧輕³⁾.
원 립 숙 무 경

주변 숲에는 간밤에 머물던
안개 가벼이 피어오르네.

孤村經夜雨⁴⁾,
고 촌 경 야 우

외딴 촌락에 밤새 비가 내렸으니,

幽逕草齊生⁵⁾.
유 경 초 제 생

호젓한 오솔길 길옆에
풀이 가지런히 돋았겠네.

-
- 1) 강촌효기즉사(江村曉起卽事) : 강변 마을에서 새벽에 일어나 눈앞의 풍경을 읊다) :
 ① 강촌(江村) : 강가에 있는 마을.
 ② 즉사(卽事) : 눈앞에 직면한 사물을 제재(題材)로 시를 짓다. 기타 자세한 뜻은 앞의 「시19」 주석1)의 ② ‘즉사(卽事)’ 항목을 참조바람.
- 2) 강벽 귀운습(江壁歸雲濕) : 강변 절벽 위로 흘러가는 구름 더디기만 한데) :
 ① 강벽(江壁) : 강변의 절벽.
 ② 귀운습(歸雲濕) : 흘러가는 구름이 더디다.
 ☆귀운(歸雲) : 행운(行雲). 흘러가는 구름.
 ☆습(濕) :

a. 더디고 느즈러지다.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b. 축축하다. 적시다.

3) 원림 숙무경(園林宿霧輕: 주변 숲에는 간밤에 머물던 안개 가벼이 피어오르네):

① 원림(園林):

☆집터에 딸린 숲.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정원이나 공원의 숲.

☆‘고향’을 가리키는 말.

② 숙무경(宿霧輕): 간밤에 머물던 안개가 가벼이 피어오르다.

☆숙무(宿霧): 야무(夜霧). 지난밤부터 낀 안개.

☆경(輕): 가볍다.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으며, ‘안개가 가볍게 피어오르는 것’을 형용한 말로 쓰였다.

4) 고촌 경야우(孤村經夜雨: 외딴 촌락에 밤새 비가 내렸으니):

① 고촌(孤村): 외딴 마을.

② 경야우(經夜雨): 밤비가 지나가다.

☆경(經): 지나가다. 거치다.

☆야우(夜雨): 밤비.

5) 유경 초제생(幽逕草齊生: 호젓한 오솔길 길옆에 풀이 가지런히 돋았네):

① 유경(幽逕): 유경(幽徑)으로도 쓴다. 외진 곳의(궁벽한 곳의) 오솔길. 호젓한 오솔길.

② 초제생(草齊生): 풀이 가지런하게 돋다.

☆제생(齊生): 일제히(다같이. 동시에) 돋다.



시90. 조趙서방 직稷이 연안延安으로 돌아가는
것을 전송하면서 지은 시 두 수

詩90. 送趙甥稷還延安¹⁾二首
송 조 생 직 환 연 안 이 수

其一

[1]

千里來尋十日留²⁾,
천 리 래 십 십 일 유

천리 먼 길 찾아와서
(겨우) 열흘 머물렀는데,

那堪此別更悠悠³⁾.
나 감 차 별 경 유 유

이번 이별 더욱 섭섭하니 어찌 견딜꼬!

欲知別後相思處⁴⁾,
욕 지 별 후 상 사 처

작별후면 그리운 이 곳
기억하고 싶을 터인데

花滿江村月滿樓⁵⁾.
화 만 강 촌 월 만 루

아마도 강촌에 만발했던 꽃이며
연좌루에 가득 찼던 달빛이었지?

其二

[2]

歸袂飄然不少留⁶⁾,
귀 메 표 연 불 소 유

돌아가는 (사위) 소매 자락 바람에
펼럭이나 좀 더 붙잡지 못하고,

白頭離思謾悠悠⁷⁾.
백 두 리 사 만 유 유

늙은이는 헤어진다 생각에
부질없이 섭섭한 마음만 가득하네.

天涯芳草無窮恨⁸⁾,
천 에 방 초 무 궁 한

하늘 끝의 방초라서
(보내려니) 한스럽기 그지없는데,

日暮烟波獨倚樓⁹⁾.
일 모 연 파 독 의 루

해 저물자 강에 연무 끼는데
홀로 누각 난간에 기대네.

- 1) 송조생직 환연안(送趙甥稷還延安 : 조서방 직稷이 연안延安으로 돌아가는 것을 전송하다) :

- ① 송·환(送…還) : …로 되돌아가는 것을 전송하다.
② 조생직(趙甥稷) : 조서방(趙書房) 직(稷) : 서에 류성룡의 둘째 사위 조직(趙稷). ☆조직(趙稷 : 생몰년 미상) : 본관은 순창(淳昌)조씨(趙氏)로서, 정랑(正郎 : 조선시대 때 육조六曹의 정5품 벼슬. 관아官衙의 개편에 따라 낭중(郎中) · 직랑(直郎) 등으로 바뀌었음)을 지냈으며, 이조참판(吏曹參判)에 증직되었다. 부친은 사직(司直 : 조선시대 오위五衛에 속하던 정5품의 벼슬) 정현(廷顯)이다. 정랑은 3남을 두었으며, 조수익(趙壽益)은 대사헌(大司憲), 조수백(趙壽白)은 사부(師傅)이며, 그리고 조수이(趙壽頤)가 있다.

☆생(甥) :

- a. 여서(女婿 : 사위).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b. 생질(甥姪 : 자매姊妹의 아들).

- ③ 환연안(還延安) : 연안으로 되돌아가다.

☆환(還) : 되돌아가다,

☆연안(延安) : 황해도(黃海道) 연백군(延白郡)에 있었던 조선시대의 도호부(都護府). 조선시대에는 동쪽으로 배천군(白川郡 : ‘백白’을 ‘배’로 발음하는 것은, 현지에서 ‘음’이 달라진 한자’로 쓰기 때문임. 예를 들면, ‘十月’을 ‘시월’로 발음하는 경우와 같음), 서쪽과 북쪽으로 평산군(平山郡), 남쪽으로 황해도 접하고 있었던 지역이다. 이 지역은 본래 고구려시대에 동음홀(冬音忽) 또는 동삼홀(冬三忽) · 시염성(豉鹽城)이라 하였는데, 신라 경덕왕 때 해고군(海高郡)으로 고쳤다. 고려 초에는 염주(鹽州)라 하였으며, 995년(성종 14) 해주에 귀속시켰다. 그 뒤 영응현(永膺縣) · 복주(復州) · 석주(碩州) · 온주목(溫州牧) 등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1310년(충선왕 2)에 행정구역개편에 의해 목(牧)에서 부(府)로 강등되었고, 명칭도 연안으로 바뀌었다. 조선시대에 들어와 1413년(태종 13)에 연안도호부가 되었고, 경기도에서 황해도로 이속되었다. 1895년(고종 32)에 연안군이 되었고, 1914년 배천군과 합하여 연백군이 되었다. 해서지방의 대표적인 곡창지대로 주위가 10여리나 되는 큰 저수지인 남대지(南大池 : 일명 와룡지)

龍池)와 여기에서 동쪽으로 60리까지 관개수로가 있었다. 당시에는 개성과 해주를 연결하는 교통의 요지였고, 한강과 예성강 하구를 방어하는 군사적 요충지였다. 그리하여 심동역(深洞驛)·심동원(心洞院)·독산원(禿山院)·각산원(角山院)·신원(新院)을 비롯하여 해안에는 신포(新浦)·나진포(那津浦)·소초포(所草浦) 등의 포구가 있었다. 군 시설로는 정산봉수(定山烽燧)·백석산봉수(白石山烽燧)·주지곶봉수(走之串烽燧)·간월산봉수(看月山烽燧)·각산봉수(角山烽燧) 등이 해안지대에 설치되어 개성을 통해 서울로 연결되었다. 임진왜란 당시 수비를 하였던 봉세산성(鳳勢山城)이 있으며, 토산물로 곤쟁이·쌀새우·홍어·송어·붕어·굴·대합·소금·게 등이 유명하였다.

- 2) 천리래심 십일유(千里來尋十日留: 천리 먼 길 찾아와서 <거우> 열흘 머물렀는데): 황해도(黃海道) 연안(延安)에서 경북 안동 하회[江村]까지 왔기 때문에, 천리 먼 길을 찾아왔다고 표현한 것이다.

- 3) 나감차별 갱유유(那堪此別更悠悠: 이번 이별 더욱 섭섭하니 어찌 견딜꼬):

- ① 나감(那堪):

☆어찌 참을 수 있나. 어찌 견딜 수 있나!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하물며, 더군다나.

☆겸하여, 동시에.

- ② 유유(悠悠): 그리워하는 모양. 근심걱정 하는 모양. 본 시에서는 ‘섭섭하다’로 번역했다. 기타 자세한 예(例)는 앞의 「시32」 주석6)의 ② ‘유유(悠悠)’ 조항을 참조바람.

- 4) 욕지별후 상사처(欲知別後相思處: 작별후면 그리운 이 곳 기억하고 싶을 터인데):

- ① 욕지(欲知): 기억하고 싶다.

☆지(知): 기억하다. 떠올리다. 『논어(論語)·이인편(里仁篇)』에, “부모의 연세는, 기억하지 않으면 안된다(父母之年, 不可不知也).”라고 한 구절이 있다. 송나라 유학자 주희(朱熹: 1130~1200)는 이 말에 집주(集注)하기를, “‘지’는 ‘기억하다’는 말과 같다(知, 猶記憶也).”고 하였다.

- ② 상사처(相思處): 그리워할 장소. 여기서 ‘그리워할 장소’란, 서애의 사위인 조직(趙稷)이 본가로 돌아가게 되면, 그의 녀리에 처가인 하회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을 떠올리려 할 것이라는 예상을 장인인 서애가 표현하고 있는 말이다.

- 5) 화만강촌 월만루(花滿江村月滿樓: 아마도 강촌에 만발했던 꽃이며 연좌루에 가득 찼던 달빛이겠지?):

- ① 화만강촌(花滿江村): 하회마을에는 유독 배꽃이 많았다고 한다. 지금은 작고(作故)한 충효당 종부 박씨 부인의 일기에 보면, “3월 23일: 춘춘(仲春)이 넘고 보니 꽃은 거지만 만개하다. 아침에 일어나니 앞뒤에 이화(梨花)가 서울 창경원 벚꽃을 능가하고도 남음이 있다. 복잡한 마음 불쾌한 기분도 이 꽃의 아름다움에야 어찌 위로되지 않으리. 날마다 이 꽃은 나의 유일한 벗이 되고 희망의 등대가 되다.”라고 기록되어 있다.(박필순 구술·조규순趙桂順 정리 『명가名家的 內函內訓』 참조)

☆강촌(江村): 하회마을을 가리킴. 앞의 「시70」 주석4)의 ③ ‘하상(河上)’ 조항을 참조바람.

- ② 월만루(月滿樓): 여기서 ‘누(樓)’는 원지정사(遠志精舍)와 한 담 안에 있는 ‘연

좌루(燕坐樓)를 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앞의 「시27」의 제3구 “서루에 가서 달 뜨기를 기다리고 싶은데, 걱정스런 점은 밤 되면 비바람 한결 거세지는 것일세(欲向西樓待明月, 只愁風雨夜深多).”라는 시구(詩句)가 보이는데 이는 서애(西厓)가 서루(西樓: 연좌루燕坐樓)에서의 달 감상이 일상이 된 것임을 보여주는 ‘예(例)’라 할 것이다.

- 6) 귀메표연 불소류(歸袂飄然不少留: 돌아가는 〈사위〉 소매 자락 바람에 펄럭이나 좀 더 붙잡지 못하고):

① 귀메(歸袂): 돌아가는 사람의 옷소매.

② 표연(飄然):

☆‘폴락폴락’ 또는 ‘폴폴’로 해석되며,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유랑(방황)하는 모양. 타향살이하다가 흩어지는 모양.

☆경쾌한(날쌔, 날렵한, 재빠른) 모양.

☆바람에 가볍게 날리는 모양.

☆마음이 흥가분하고 한적한 모양.

☆(낙엽, 꽃잎 등) 우수수 떨어지는 모양.

③ 불소류(不少留): 좀 더 만류하지 못하다. 좀 더 붙잡지 못하다.

☆불소(不少): ‘호무(毫無: 조금도 없다. 조금도 …않다)’의 뜻인데, 본 시에서는 전(轉)하여, ‘좀더 …하지 못하다’는 뜻으로 쓰였다.

☆류(留): 만류(挽留)하다. 떠나지 못하게 말리다. 붙잡다.

- 7) 백두이사 만유유(白頭離思謾悠悠: 늙은이는 헤어진단 생각에 섭섭한 마음만 가득 하네):

① 백두이사(白頭離思): 늙은이의 이별의 정서.

② 만유유(謾悠悠): 섭섭한 마음만 가득하다(만연하다. 퍼지다. 연장되다).

☆만(謾): 만(漫)과 통하여, 여기서는 ‘만연(曼然: 널리 퍼짐)하다. 연장(延長)되다’의 뜻으로 쓰였다.

☆유유(悠悠): ‘그리워하는 모양. 근심걱정 하는 모양’의 뜻으로 쓰였으며, 본 시에서는 ‘섭섭하다’로 번역하였다. ‘유유(悠悠)’에 관한 기타 상세한 뜻은 앞의 「시32」 주석6)의 ② ‘유유(悠悠)’ 조항을 참조바람.

- 8) 천애방초 무궁한(天涯芳草無窮恨: 하늘 끝의 방초라서 〈보내려니〉 한스럽기 그지 없는데):

① 천애(天涯):

☆하늘가. 까마득하게 먼 곳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천애’는 ‘세상 끝’을 비유한 것으로, ‘세상 끝’이란 세상의 곳곳, 미치지 않는 곳이 없는 것임을 뜻하는 표현이다.

② 방초(芳草):

☆군자의 미덕을 비유한 말. 본 시에서는 서애자신의 사위를 은유한 것으로 보인다. 앞의 「시7」 주석7)의 ②‘방초(芳草)’ 조항을 참조바람.

☆향초.

☆충성스럽고 올곧거나 어질고 덕이 있는 사람을 비유한 말.

- ③ 무궁한(無窮恨): 술어로 쓰일 경우에는 ‘몹시 원통하다. 한스럽다. 한스럽기 그지없다’

☆무궁(無窮) : 부사로 쓰여, ‘끝없이’. ‘한없이’.

☆한(恨) : 여기서는 명사로 쓰인 것이 아니라, 동사로 쓰여, ‘원통하다. 한스럽다.’로 해석된다.

9) 일모연파 독의루(日暮烟波獨倚樓 : 해 저물자 강에 연무 끼는데 홀로 누각 난간에 기대네) :

① 연파(烟波) :

☆연무(烟霧)가 아득한 (뿌얇게 낀) 수면(水面)을 가리킨다. 본 시에서는 강변이며 강에 연무(烟霧)가 낀 것을 가리키는 뜻으로 쓰였다.

☆시문(詩文)의 문장의 기복(起伏)의 변화가 두드러지게 뛰어난 것을 비유한 말.

② 의루(倚樓) : 누각 난간에 기대다. 본 시에서의 ‘루(樓)’는 위의 시 [1]의 결구(結句)의 “월만루(月滿樓)”의 ‘루(樓 : 연좌루燕坐樓)’와 동일한 것으로 보인다.

시91. 한식 전날, 선영 先塋에 가서
성묘 省墓하려고 출발했으나, 진눈개비가
내려서 (작업을) 중지하면서

詩91. 寒食前一日¹⁾ 將出掃先塋²⁾ 以雨雪止³⁾
한 식 전 일 일 장 출 소 선 영 이 우 설 지



春寒猶料峭⁴⁾,
춘 한 유 료 초

봄날 추위 매섭게 차가운 듯 하더니,

寒食不見花。
한 식 불 견 화

한식寒食이 됐는데도 피는 꽃 보이잖네.

凍雨⁵⁾全成雪,
동 우 전 성 설

찬비가 온통 눈으로 바뀌어 내리더니

青泥半沒車⁶⁾
청 니 반 몰 차

푸릿한 진흙 속으로 수레바퀴 절반이
빠져드네.

衰遲筋力減⁷⁾,
쇠 지 근 력 감

노쇠한 만년晩年이라 근력이 부쳐서,

香火歲時賒⁸⁾。
향 화 세 시 사

선영先塋에 성묘省墓하는
이맘때면 막연해진다네.

丘墓經年隔⁹⁾,
구 묘 경 년 격

묘소에 오는 것도
해가 지날수록 뜸해지는데,

孤懷¹⁰⁾欲如何。
고 회 욕 여 하

고독한 이 정회情懷는 어찌해야 할꼬?

1) 한식전일일(寒食前一日 : 한식 전날) :

- ① 한식(寒食) : 동지로부터 105일째 되는 날. 설날·단오·추석과 함께 4대명절의 하나로, 음력 2월 또는 3월에 든다. 2월에 한식이 드는 해는 철이 이르고, 3월에 드는 해는 철이 늦다. 그래서 '2월 한식에는 꽃이 피어도 3월 한식에는 꽃이 피지 않는다.'는 말이 전한다. 24절기 속에 들어 있지는 않으나 습속으로 전해 내려오며, 다음과 같은 유래가 있다. 고대의 종교적 의미로 매년 봄에 나라에서 새 불[新火]을 만들어 쓸 때, 그에 앞서 어느 기간 동안 묵은 불[舊火]을 일절 금단 하던 예속(禮俗)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기도 하고, 중국의 옛 풍속으로 이날은 풍우가 심하여 불을 금하고 찬밥을 먹는 습관에서 그 유래를 찾기도 한다. 또한 개자추전설(介子推傳說)이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국 진(晉)나라의 문공(文公)이 국란을 당하여 개자추 등 여러 산하를 데리고 국외로 탈출하여 방랑할 때, 배가 고파서 거의 죽게 된 문공을 개자추가 자기 넓적다리 살을 베어 구워먹여 살린 일이 있었다. 뒤에 왕위에 오른 문공이 개자추의 은덕을 생각하여 높은 벼슬을 시키려 하였으나, 개자추는 그를 마다하고 면산(縣山)에 숨어 (혹은 19년을 섬겼는데 녹봉[俸祿]을 주지 않으므로 숨었다고도 전한다.) 아무리 불러도 나오지 않으므로 개자추를 나오게 할 목적으로 면산에 불을 질렀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나오지 않고 흠어머니와 함께 버드나무 밑에서 불에 타죽고 말았다. 그 뒤 그를 애도하는 뜻에서, 또 타죽은 사람에게 다운밥을 주는 것은 도의에 어긋난다 하여 불을 금하고 찬 음식을 먹는 풍속이 생겼다고도 한다. 중국에서는 이날 문에 버드나무를 꽂기도 하고 들에서 잡신제(雜神祭)인 아제(野祭)를 지내 그 영혼을 위로하기도 한다. 한식은 어느 해나 청명절(淸明節) 바로 다음 날이거나 같은 날에 든다. 이때는 양력 4월 5, 6일 쯤으로 나무심기에 알맞은 시기이다. 우리나라에서 4월 5일을 식목일로 정하여 나무를 심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특히, 개자추의 넋을 위로하기 위하여 비가 내리는 한식을 '물한식'이라고 하며, 한식날 비가 오면 그해에는 풍년이 든다는 속설이 있다. 이날 나라에서는 종묘와 각 능원(陵園)에 제향하고, 민간에서는 술·과일·포·식혜·떡·국수·탕·적 등의 음식으로 제사지낸다. 이를 명절제사, 곧 절사(節祀)라 한다. 또한 여러 가지 주과(酒果)를 마련하여 성묘하고, 조상의 묘가 헐었으면 봉분을 개수하고 주위에 식수도 하고 사초(莎草)도 한다. 만일 조상의 묘가 멀 때에는 묘지기가 대리로 제향을 올려준다. 이날 성묘하는 습속은 당대로부터 시작되었다 하며, 우리나라에 전해진 것은 신라 때로 알려져 있다. 고려시대에는 한식이 대표적 명절의 하나로 중요시되어 관리에게 성묘를 허락하고 죄수의 금형(禁刑)을 실시하였다. 조선시대 내병조(內兵曹)에서는 버드나무를 뿔어 불을 만들어 임금에게 올리면 임금은 그 불씨를 궁전 안에 있는 모든 관청과 대신들 집에 나누어 주었다. 한식날부터 농가에서는 채소 씨를 뿌리는 등 본격적인 농사철로 접어든다. 흔히 이날 천둥이 치면 흉년이 들 뿐만 아니라 국가에 불상사가 일어난다고 믿어 매우 꺼린다.

2) 장출소선영(將出掃先塋 : 선영에 가서 제사 지내고 사토(沙土)하려고 출발하다) :

- ① 소(掃) : 제소(祭掃 : 묘 앞에 가서 제사 지내고 소제掃除하는 일)하다. 곧 제사 지내고 사초(莎草 : 무덤에 때를 입혀 잘 다듬는 일)하는 것을 이르는 말이다.
- ② 선영(先塋) : 선묘(先墓) : 선산(先山) : 조상의 무덤. 본 시에서는 선친 입암공(立

巖公)의 묘(墓)를 가리킴. 「시92」 참조바람.

☆선(先): 조상. 선세(先世). 조선(祖先).

☆영(塋): 무덤. 묘(墓).

3) 이우설지(以雨雪止: 진눈개비가 내려서 작업을 중지하다):

① 이우설(以雨雪): 진눈개비가 내려서.

☆이(以): 접속사로, 이유·원인을 나타낸다.

☆우설(雨雪):

a. 진눈개비가 내리다.

b. 눈비가 오다. 본 시에서는 비 오다가 눈이 내렸으니, ‘우설(雨雪)’은 동사로 쓰였다.

c. 비와 눈.

② 지(止): 벌초(伐草) 작업을 중지하다.

4) 춘한 유료초(春寒猶料峭: 봄날 추위 매섭게 차가운 듯 하더니):

① 춘한(春寒): 봄추위.

② 요초(料峭):

☆약간 추운 것을 형용한 말. 바람이 한랭하고 매서운 것을 형용한 말로도 쓴다.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배를 타고) 왕복하는데 요동을 치는 모양(진동하는 모양, 흔들거리는 모양).

5) 동우(凍雨):

① 한우(寒雨). 냉우(冷雨). 찬비.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② 겨울에 내리는 비.

③ 동우(凍雨: 폭우暴雨: 소나기). ‘동(凍)’자와 ‘동(凍)’자는 동자(同字)이다. 후한(後漢)때의 학자 허신(許愼: 30~124)이 편찬한 사전 『설문해자(說文解字)』에서는 본래 ‘동(凍: 얼음이 얼다)’자와 ‘동(凍: 소나기)’을 구분하여, 두 글자로 풀이했다. ‘폭우(暴雨)’라고 할 때는 마땅히 ‘동(凍)’자로 써야 하지만, 자형(字形)과 뜻이 근사하여 고적간행본(古籍刊行本)에서 왕왕 ‘동(凍)’을 ‘동(凍)’으로 썼다.

6) 청니 반몰차(淸泥半沒車: 푸릿한 진흙 속으로 수레바퀴 절반이 빠져드네):

① 청니(靑泥):

☆유기물과 황화철 때문에 청색을 띤 육원성(陸源性) 퇴적물로 본 시에서는 푸른색을 띤 진흙을 말하는 것이다.

☆고대에 문서를 봉합할 때나 도자기를 만들 때 쓰는 청색 점토(粘土).

☆전하는 바에 의하면, 신선이 복식(服食)했다고 하는 일종의 진흙탕(물). 진흙(점토).

② 반몰거(半沒車): 수레절반이 청니(靑泥)에 빠져든 것을 표현한 것이다.

☆몰(沒): ...에 빠지다(잠기다). 본 시에서는 수레바퀴의 절반이 푸릿한 진흙 속으로 빠져든 상태를 표현한 것이다.

☆거(車): 수레. 본 시에서는 ‘거륜(車輪)’의 약어(略語)로 쓰였다.

7) 쇠지 근력감(衰遲筋力減: 노쇠한 만년이라 근력이 부쳐서):

① 쇠지(衰遲): 노쇠한 만년(晩年). 연로(年老)함을 이르는 말이다.

☆지(遲): 만년(晩年).

② 근력(筋力): 체력과 같은 말이다.

③ 감(減): (근력이) 부처다. 쇠약해지다. 부족하다.

8) 향화 세시사(香火歲時辭 : 선영에 성묘하는 이맘때면 막연해진다네) :

① 향화(香火) :

☆자손이 조상께 제사지내는 것을 가리킨다.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전(轉)하여 후사(後嗣)를 가리키기도 한다.

☆향촉(香燭 : 제사나 불공을 드릴 때 쓰는) 향과 초로, 전(轉)하여 신불(神佛)을 봉공(奉公) 하는 곳.

☆향(香)을 사르는(피우는) 것을 이르는 말로, 향불을 피우다.

☆피우고 있는(사르고 있는, 태우고 있는, 불을 붙인) 향.

☆결맹(結盟)을 약속할 때의 향불. ‘결맹지교(結盟之交)’를 가리킬 때도 이 말을 쓴다.

☆불법(佛法)을 신봉하는 것을 이르는 말. ‘향화인연(香火因緣)’이라 하여, 법당의 부처님께 향을 사르는 신도임을 가리키는 말이다.

② 세시사(歲時辭) : 매년 선영(先塋)에 성묘(省墓)를 하는 시기가 되면 변화난측한 절후 탓으로 게다가 이제는 노쇠해진 체력 때문에 더욱 성묘하기가 힘들어졌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

☆세시(歲時) :

a. 매년 일정한 계절이나 시간.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b. 일년. 사계(四季).

c. 세월.

d. 수확. 작황(作況).

☆사(賒) :

a. 아득하다, 막연하다, 회소하다, 드물다.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b. 외상으로 사거나 팔다.

c. 거리가 멀다, 전(轉)하여, ‘관계가 소원해지는 것’을 가리키기도 한다.

d. 광활하다.

e. 높다[高]. 전(轉)하여 정서가 간절하고 고조되는 것을 가리키는 말로도 쓴다.

f. 지연되다, 완만하다.

g. 많다.

h. 시간이 장구(長久)하다.

i. 넓적하다, 느슨하다, 전(轉)하여, ‘관대하다’는 뜻으로도 쓴다.

j. 쇠감(衰減)하다, 소실(消失)하다.

k. 휘배하다, 착오(失手)하다.

l. ‘사(奢 : 사치하다)’와 통한다.

9) 구묘 경년격(丘墓經年隔 : 묘소에 오는 것도 해 지날수록 뜸해지는데) :

① 구묘(丘墓) : 분묘(墳墓), 무덤.

② 경년격(經年隔) : 해가 지날수록 뜸해지다.

☆경년(經年) : 해를 보내다.

☆격(隔) : 격조(隔阻)하다.

10) 고회(孤懷) :

① 쓸쓸하고 외로운 생각이나 마음. 고독한 정회(情懷).

② 독특한 견식(見識).

시92. 한식이 되자 비가 그치고 날씨가
맑아졌기에, 금계재사金溪齋寺에서
출발하여, 풍산현豐山縣으로 오는 도중에
마상馬上에서 읊다

詩92. 寒食雨晴¹⁾ 始出金溪²⁾ 在豐山³⁾道中 馬上口占⁴⁾
한 식 우 청 시 출 금 계 재 풍 산 도 중 마 상 구 점



雨後寒風動客衣，
우 후 한 풍 동 객 의

비온 뒤 찬바람에 나그네 옷자락
펼럭이는데,

水村山郭散朝暉⁵⁾。
수 촌 산 곽 산 조 휘

수촌水村의 산등성이에 아침 햇살이
퍼지네.

江中亂鴨眞乘勢⁶⁾，
강 중 난 압 진 승 세

강의 오리 떼 참으로 (물 만난) 형세
타고 노니는데,

天際頑雲未解圍⁷⁾。
천 제 완 운 미 해 위

하늘 가 먹구름은 아직도 걸히지 않네.

世事百迴今日是⁸⁾，
세 사 백 회 금 일 시

세상사는 백 번 꺾고도 금일 다시
꺾어야 하고,

山河一望昔人非⁹⁾。
산 하 일 망 석 인 비

산천은 언제 봐도 볼 수 있는데
옛사람은 보이지 않네.

閒愁欲說知誰是¹⁰⁾,
한 수 욕 설 지 수 시

괜한 시름이지만 말하고자 한들 누가
이를 알아주랴!

信馬春郊獨自歸¹¹⁾.
신 마 춘 교 독 자 귀

봄날 교외에서 말 가는대로 몸 맡긴 채
홀로 돌아오네.

- 1) 한식우청(寒食雨晴) : 한식이 되자 비가 그치고 날씨가 맑아졌기에) :
 - ① 한식(寒食) : 앞의 「시91」의 주석1)의 ① ‘한식(寒食)’조항을 참조바람.
 - ② 우청(雨晴) : 비가 그치고 날씨가 개다.
- 2) 금계(金溪) : 금계재사(金溪齋寺) : ‘재사(齋寺)’란, 처음에는 능침(陵寢)을 수호하기 위한 곳으로서의 기능을 위해 능(陵) 주변에 세운 원당(願堂 : 죽은 사람의 명복을 빌던 법당)을 재사(齋寺)라고 하였다. 조선 후기에 오면서 재사(齋寺)가 재사(齋舍 : 서재로도 쓰이고 학사學舍나 향교의 기숙사로도 쓰이던 곳)로 바뀌면서 재사(齋寺)는 능 주변에서 탈피하여 원지(遠地 : 전국의 명산대찰名山大刹)에까지 이르렀다. 본 명칭은 이전까지는 ‘숭실재(崇室齋)’라고 칭했으나, 경상북도 문화재과에서 2011년 11월 16일자로 다시 ‘안동 풍산류씨(安東 豊山柳氏) 금계재사’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곳은 풍산부원군(豊山府院君) 류중영(柳仲郢 : 1515~1573) 선생의 묘제(墓祭)를 위한 재사(齋舍)로 몸체인 숭실재(崇室齋)는 영모루(永慕樓)와 부속사로 연이어져 장방형의 ‘ㄷ’자형 집을 이루고 있다. 몸체는 1987년 보수 때 발견된 영조(英祖) 12년(1736)의 상량문(上樑文)에 의하면, 본래 능효사(陵孝寺)의 한 전각(殿閣)이었는데, 풍산(豊山) 류씨의 재사(齋舍)로 인수하여 명종(明宗) 13년(1558)에 중수(重修)하고, 광해군(光海君) 14년(1622)에 보수(補修)하였다고 한다. 몸체의 건축양식은 전면에서는 내외일출목(内外一出目)의 양설(仰舌)로 된 이익공식(二翼工式)이고 후면에는 초익공식(初翼工式)인데, 그 양식이 고격(古格)을 가지고 있어 주목된다. (1994년과 1995년에 보수했음.) 이는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146호로 소유지는 풍산 류씨 문중이고, 소재지는 안동시 서후면 성곡리 886이다.(이상은 안동시 문화예술과에서 확인하고 인터넷상의 ‘서후면 문화재 소개’ 코너에서 참조하였음)
- 3) 풍산(豊山) : 풍산현(豊山縣) : 안동(安東)의 향토지인 『영가지(永嘉誌)』에, “풍산현은 안동부의 서쪽 35리에 있는데, 동·서가 30리요, 남·북이 45리이다(豊山縣在府西三十五里, 東西三十里, 南北四十五里).”고 하였다. 지금의 경북 안동시 풍산읍(豊山邑)이다. 면적 96,64km², 인구 7,166명(2015년 현재)이며, 읍소재지는 안교리(安郊里)이다.
- 4) 구점(口占) :
 - ① 시문(詩文)을 짓는데, 초고(草稿)를 작성할 상황이 못 되어, 입에서 나오는 대로 읊는 것을 이른다.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 ② 말로 사(辭)를 전수(傳受)함을 이른다. 구전(口傳)함을 이르는 말이다.
- 5) 수촌산막 산조휘(水村山郭散朝暉 : 수촌水村의 산등성이에 햇살이 퍼지네) :
 - ① 수촌(水村) : 지금의 경북 안동시 풍산읍의 수리(水里)이다. 위의 시제(詩題)에

서, “금계재사에서 출발하여, 풍산현으로 오는 도중에(始出金溪, 在豐山道中)”라고 한 말에서 보듯이, 수촌(水村)은 금계재사가 있는 서후면(西後面) 성곡리(城谷里 : 옛지명은 능동陵洞)와 풍산현의 중간 지점에 있다. 단 풍산으로 오는 길에 수촌을 거쳐 오는 것이 아니다. 풍산으로 오는 길은 오른 쪽에 있고 수촌은 풍산행도로의 몇 리 왼쪽에 위치한다. 그러나 오는 길에서 왼쪽을 보면 수동의 뒷산 산등성이가 보인다.

② 산곽(山郭) : 산성(山城). 산촌(山村). 전(轉)하여 본 시에서는 ‘산등성이’의 뜻으로 쓰였다.

③ 조휘(朝暉) : 이른 아침의 양광(陽光).

☆휘(暉) : 햇빛. 햇살.

6) 강중난압 진승세(江中亂鴨眞乘勢 : 강의 오리 떼 참으로 <물 만난> 형세 타고 노니는데) :

① 강중난압(江中亂鴨) : 강의 오리 떼.

☆강중(江中) : 강물 위의 가운데. 강변과 대칭(對稱)되는 말.

☆난압(亂鴨) : 질서 없이 뒤섞여서 북적거리는 오리 떼.

② 진승세(眞乘勢) : 이리저리 어지럽게 물길을 내며 산나개 지나가는 오리 떼를 형용한 것이다.

☆진(眞) : 정도부사로 쓰였다.

☆승세(乘勢) :

a. 유리한 형세나 기회를 타다.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b. 여세를 이용하다.

c. 유리한 국면을 활용하다.

7) 천제원운 미해위(天際頑雲未解圍 : 하늘가 먹구름은 아직도 감하지 않네) :

① 원운(頑雲) : (질게 덮혀서 흩어지지 않는) 먹구름.

☆원(頑) : (색이) 질다. (농도가) 진하다.

② 해위(解圍) : 포위망을 풀다.

8) 세사백회 금일시(世事百迴今日是 : 세상사는 백 번 겪고도 금일 다시 겪어야 하고) :

① 세사(世事) :

☆세상사(世上事 :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 시사(時事).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사·농·공·상(士農工商) 방면에, 각자가 구비하고 있는 재능을 가리키는 말.

☆대대로 전해주는 전문 직업을 가리키는 말로, 무술(巫術)·의술(醫術) 등을 가리킨다.

☆세속적인 일. 세무(世務). 진속지사(塵俗之事).

☆사교(社交)와 세상물정 및 인정을 가리키는 말.

☆대세(大勢).

☆국면(局面).

② 백회(百迴) : 백회. 백 번. 백 번을 거듭한다는 뜻으로, 본시에서는 ‘백 번을 거듭 겪다’는 뜻으로 쓰였다.

③ 금일(今日) : 오늘 날.

- ④ 시(是):
 ☆시(試)와 같으며, ‘겪다. 경험하다. 실행하다. 시행하다’의 뜻으로 쓰였다.
 ☆존재하다. 본 시에서는 이러한 세상사에 대한 경험이 영원히 반복해서 실재(實在)함을 가리키는 뜻으로 쓰였다.
- 9) 산하일망 석인비(山河一望昔人非 : 산천은 언제 봐도 볼 수 있는데 옛 사람은 보이지 않네):
- ① 산하(山河):
 ☆산과 강. 대자연을 칭하는 것이다.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강산(江山), 국토를 가리키는 말.
- ② 일망(一望): 언제나 바라볼 수 있다.
 ☆일(一): 부사로 쓰여, ‘늘. 항상. 시종(始終)’ 등의 뜻으로 쓰였다.
- ③ 석인비(昔人非): 옛사람은 오늘에 존재하지 않는다.
 ☆석인(昔人): 고인(古人). 옛사람. 종전의 사람.
 ☆비(非):
 a. 없다. ‘무(無: 없다)’의 뜻인데, 전(轉)하여, 존재하지 않다.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 10) 한수욕설 지수시(閒愁欲說知誰是 : 괜한 시름이지만 말하고자 한들 누가 이를 알아주려):
- ① 한수(閒愁): 실없이(쓸데없이) 하는 걱정. 괜한 걱정. 의미 없는(가치 없는) 걱정.
 「시13」의 주석2)의 ② ‘한수(閒愁)’ 조항을 참조바람.
- ② 욕설(欲說): …라고 말하고 싶다. …라고 말하고자 한다.
- ③ 지수시(知誰是): 누가 이를 알아주겠는가.
 ☆지(知): 알려주다. 알아주다.
 ☆시(是): 지시대명사로 ‘이것’의 뜻으로 쓰였다.
- 11) 신마춘교 독지귀(信馬春郊獨自歸 : 봄날교외에서 말 가는데로 몸 맡긴 채 홀로 돌아오네):
- ① 신마(信馬): 말이 가는데로 내버려 두고 제약을 가하지 않다. 고삐를 잡아당기지 않고 말이 가는데로 몸을 맡겨둔 채 마음대로 가도록 내버려 두다.
- ② 춘교(春郊): 봄날의 교외.
- ③ 독지귀(獨自歸): 나 홀로 돌아오다.

시93. 달밤에 아들과 조카를 데리고 매화나무
아래를 거닐다가, 소동파蘇東坡의 시
「살구꽃 나무 아래서 술을 마시다
(飲酒杏花下)」를 차운하여



詩93. 月夜與子姪¹⁾步梅花下 次東坡飲酒杏花下韻²⁾
월 야 여 자 질 보 매 화 하 차 동 파 음 주 행 화 하 운

江邊物色艷暮春³⁾,
강 변 물 색 염 모 춘

강변의 경치는 춘삼월에 아름답지만,

月中花影尤宜人⁴⁾.
월 중 화 영 우 의 인

달빛 아래 꽃 그림자가 더욱
마음에 드네.

蘇仙⁵⁾佳句至今傳,
소 선 가 구 지 금 전

소동파의 아름다운 시구詩句에
지금까지 전해지듯이,

絕勝流水涵青蘋⁶⁾.
절 승 유 수 함 청 빈

절경 이루며 흘러가는 강물에
부평초 떠 있네.

南枝北枝俱爛熳⁷⁾,
남 지 북 지 구 난 만

남쪽 북쪽 가지마다
매화꽃 만발했는데,

風來萬點飄香雪。
풍 래 만 점 표 향 설

바람 불자 수많은 꽃잎이
향기로운 눈 되어 날리네.

沈吟花下繞百匝⁸⁾,
침 음 화 하 요 백匝

매화나무 아래서 생각에 잠겨
거닐다 보니 백 바퀴인데,

不覺西峯已殘月。
불 각 서 봉 이 잔 월

어느 덧 서산 산봉에
달이 다 져가고 있었네.

人間得喪等浮雲⁹⁾,
인 간 득 상 등 부 운

인간세상의 득실은 뜬 구름과 같을지니,

一醉花間萬事空¹⁰⁾.
일 취 화 간 만 사 공

매화나무 아래서 심취한 동안
만사에 얽매이지 않았네.

莫笑白髮被花惱¹¹⁾,
막 소 백 발 피 화 뇌

늙은이가 꽃을 보고
감상感傷에 젖으면서,

且爲衰顏得酒紅¹²⁾.
차 위 쇠 안 득 주 홍

노쇠한 얼굴 술기운에 붉어졌다
웃지 말게나.

1) 자질(子姪): 아들과 조카.

2) 차동파 음주행화하운(次東坡飲酒杏花下韻): 동파의 시 「살구꽃 나무 아래서 술을 마시다」를 차운하여):

① 차…운(次…韻): 앞의 「시20」의 주석1)의 ② ‘차운(次韻)’ 조항을 참조바람.

② 동파 음주행화하(東坡飲酒杏花下): 동파東坡가 지은 시 「살구꽃 나무 아래서 술을 마시다(飲酒杏花下)」.

☆동파(東坡): 소동파(蘇東坡): 북송(北宋)의 정치가이자 문인(文人)인 소식(蘇軾)의 호(號).

a. 소식(蘇軾: 1037~1101): 앞의 「시79」의 주석9)의 ② ‘소식(蘇軾)’ 조항을 참조바람.

☆음주행화하(飲酒杏花下): 살구꽃 나무 아래서 술을 마시다.

a. 해제(解題): 이것은 소식이 지은 시제(詩題)를 축약하여 쓴 것이다. 소식이 지은 시의 원시제(原詩題)는 「달밤에 손님과 살구꽃 나무 아래서 술을 마시다(月夜與客飲杏花下)」이다. 역자는 청대의 문인 왕문고(王文誥: 1764~?)와 풍응류(馮應榴: 생몰년 미상)가 김주(輯注)하고 학해출판사(學海出版社)에서 간행한 『소식시집(蘇軾詩集)』을 참조했는데 판본에 따라, “여객음(與客飲)”다음에 ‘주(酒)’자가 있는 것도 있다고 하였다.

b. 원시(原詩): 「달밤에 손님과 살구꽃 나무 아래서 술을 마시다(月夜與客

飲行花下)」:

살구꽃이 발안으로 날아 드나들며 남은 봄철 사라지는데,	杏花飛簾散餘春,
밝은 달빛 방안에 비취며 은거인을 찾아드네.	明月入戶尋幽人.
바지 걷고 달빛 아래 거니니 꽃 그림자 밟히는데,	褰衣步月踏花影,
흘러가는 강물처럼 반짝이는 게 푸른 부평초일세.	炯如流水涵青蘋.
낙화사에서 술잔 놓자 맑은 향이 풍기는데,	花間置酒清香發,
앞 다 튀긴 나뭇가지 잡아당기니 향기로운 눈이 내리네.	爭挽長條落香雪!
산성山城의 술맛 담백하여 마시기에 내키잖더라도,	山城酒薄不堪飲,
그대에게 권하노니 술 잔 속의 달을 마셔보게나.	勸君且吸杯中月.
골짜기의 통소소리 끊기고 달빛만 휘영청 밝은데.	洞簫聲斷月明中,
단지 걱정스런 것은 달도 지고 술잔도 비는 것일세.	惟憂月落酒杯空.
내일 아침 봄바람 거세게 대지 휩쓸고 지나가면,	明朝卷地春風惡,
보는 것이라곤 나뭇잎과 지다 남은 꽃잎뿐이겠지.	但見綠葉棲殘紅.

3) 강변물색 염모춘(江邊物色艷暮春: 강변의 경치는 춘삼월에 아름답지만):

① 물색(物色):

☆경색(景色). 경상(景象). 풍경. 경치.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물체의 빛깔. 형상(形狀).

☆물품. 용품.

☆물성(物性).

☆제사를 지내기 위해 잡을 가축의 모색(毛色).

☆어떤 기준으로 거기에 알맞은 사람이나 물건 또는 장소를 고르는 일, 또는 그 것을 찾아내다. 고르다. 탐방하여 구하다.

☆분별(식별)하다. 자세히 보다.

☆표지(標識). 지표(指標). 상징.

② 모춘(暮春): 늦봄. 만춘. 음력 3월의 별칭.

4) 월중화영 우의인(月中花影尤宜人: 달빛 아래 꽃 그림자가 더욱 마음에 드네):

① 월중(月中):

☆달빛. 달빛아래.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달 속. (전설상의) 월궁(月宮: 달 속의 궁전).

☆중순(中旬).

② 화영(花影):

☆꽃이 비친 그림자. 꽃의 그림자.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꽃의 영상(映像).

③ 의인(宜人):

☆사람의 마음에 부합되다. 마음에 들다.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a. 의(宜): 적합하다. 적당하다.

5) 소선(蘇仙): 소식(蘇軾)을 미화하여 표현한 말이다.

6) 절승유수 함청빈(絶勝流水涵青蘋: 절경 이루며 흘러가는 강물에 부평초 떠 있네):

① 절승유수(絶勝流水): 절경을 이루며 흘러가는 강물.

② 함청빈(涵青蘋): 흐르는 물에 푸른색을 띄운 부평초가 떠 있다.

☆함(涵): 물에 담그다. 물에 젖어들다. 본 시에서는 (강물에) 부평초(浮萍草)가 떠 있는 것을 가리키는 뜻으로 쓰였다.

☆청빈(靑蘋): 푸른 부평초. 『하회본 서애집』에는 청빈(靑蘋)이 아닌 ‘청빈(靑蘋)’으로 표기되어 있다. 이는 판각할 때의 오류로 보고, 여기에서는 ‘청(靑)’자로 바로 잡는다.

7) 난만(爛漫): 난만(爛漫) 또는 난만(爛漫)으로도 쓴다.

- ① 초목이 무성한 것을 형용한 말. 꽃이 만발한 모양.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 ② 색택(色澤: 색깔과 광택)이 눈부시게 아름답다(화려하다).
- ③ 광채가 사방으로 발산하는 것을 형용한 말.
- ④ 난잡하고 번다(繁多)한 모양.
- ⑤ 홀륭하고 걸출하다.
- ⑥ 쇠락하다, 기강(紀綱)이 피폐하고 해이하다.
- ⑦ (물이) 가없이 넓고 크다, 장대하다, 호탕(浩蕩)하다.
- ⑧ 방탕하며 형적(形迹)에 구애받지 않다. 호방하고 구속받지 않음을 이르는 말.
- ⑨ 음탕하다.
- ⑩ 산란(散亂)하다, 분산(分散)하다.
- ⑪ 만연(蔓延)하다, 미만(彌漫: 연기나 안개등이 자욱함), 물건이 충만하여 넘치는 모양.
- ⑫ 소산(消散: 연기, 열 등이 흩어짐, 결핍, 사라짐)하다.
- ⑬ 정감이 진지(眞摯)하고 탄술(坦率)하다.
- ⑭ ‘감(酣: 폭, 마음껏, 통쾌하게)’, ‘숙(熟: 잠이 깊어 들, 숙수熟睡)’와 같은 말, 잘 자는 모양.
- ⑮ 생각(마음)대로 하다. 자기 뜻에 맡기다, 제멋대로(하다), 임의대로(하다).
- ⑯ 취한 모양, 통쾌하게 술을 마시는 모양.

8) 침음화하 요백잡(沈吟花下繞百匝: 매화나무 아래서 생각에 잠겨 거닐다보니 백 바퀴인데):

- ① 침음(沈吟): 침음(沈吟)으로도 쓴다.
☆깊이 생각하다. 심사(深思)하다.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주저하다. 머뭇거리다. 망설이다. 예비(준비)하다.
☆낮은 목소리로 음미(吟味)하다. 낮은 목소리로 혼잣말하다.
- ② 요백잡(繞百匝): 생각에 잠겨서 거닐다보니 백 바퀴이다.
☆요(繞): (주위를) 빙빙 돌다. 본 시에서는 ‘거닐다’는 뜻으로 쓰였다.
☆잡(匝):
a. 양사(量詞)로서, ‘바퀴’의 뜻이다.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b. 명사로 쓰면, ‘주위·둘레’의 뜻이 된다.
c. 형용사로 쓰면, ‘빹빹하다. 꼭 차다’의 뜻이 된다.

9) 인간득상 등부운(人間得喪等浮雲: 인간세상의 득실은 뜬 구름과 같을지니):

- ① 득상(得喪):
☆득실(得失)과 같은 말이다.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편향(偏向)된 뜻으로, ‘실(失: 명리名利를 잃음)’만을 가리키기도 한다.
- ② 등(等): 같다. 차이가 없다.

- 10) 일취화간 만사공(一醉花間萬事空 : 매화나무 아래서 심취한 동안 만사에 얽매이지 않았네) :
- ① 일취(一醉) : 흠뻑 취하다. 이때의 ‘일취(一醉)’는 ‘일취해천수(一醉解千愁 : 술 또는 경치 등에 취해서 각종 번뇌를 풀어버림)’의 심장이다.
☆일(一) : 부사로 ‘심히, 매우, 께, 흠뻑’ 등의 뜻으로 쓰였다.
 - ② 화간(花間) :
☆화(花) : 본 시에서는 ‘매화(梅花)’를 가리킨다.
☆간(間) : ‘일정한 공간이나 시간 안’의 뜻이다. 본 시에서는 ‘(매화나무) 아래’를 가리킨다.
 - ③ 만사공(萬事空) : 만사에 얽매이지 않다(마음을 비우다).
☆공(空) : 마음을 명정(明淨)하게 가져 얽매이지 않게 하거나 그런 상태를 가리킨다. 당(唐)나라 시인 상건(常建 : 생몰년 미상)의 시 「파산사破山寺 뒤에 있는 선원禪院에서 쓰다(題破山寺後禪院)」에, “산의 풍경은 새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山光悅鳥性), 호수에 비친 그림자는 사람의 마음을 맑게 하네(潭影空人心).”라고 읊은 구절이 있다.
- 11) 피화뇌(被花惱) : 꽃 때문에 감상(感傷)에 젖게 되다.
- ① 피(被) : 전치사[介詞]로, 명사 앞에 쓰여 동작을 받거나 입는 뜻을 지닌다.
 - ② 화뇌(花惱) : 시적화자가 매화[花] 때문에 마음이 상하게 되었다[惱]는 것이다. 여기서, ‘뇌(惱)’는 ‘번민하다. 고민하다’의 뜻인데, 본 시에서는 ‘감상에 젖다’는 뜻으로 번역하였다.
- 12) 주홍(酒紅) : 술을 마신 뒤에 주기(酒氣)가 돌아 얼굴이 벌겋게 되거나 눈에 충혈이 오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다.



시94. 칠월 초닷새날, 바람기가 좀 잠잠해
지기에, 아들과 조카 그리고 그 또래
아이들 몇 명을 데리고, 북림^{北林}과
불탑^{佛塔}에 놀러간 김에, 종으로 하여금
잡초를 베게 해서, 그것을 태워버리도록
했는데, 때마침 바람이 불어와서 불길이
세어져 잠깐 사이에 그 잡초들을
남김없이 태워버렸다. (그렇게 하고 나니)
나무숲의 그림자가 어른어른 거리고
거닐 수 있게 되었다. 이튿날 소동파의
시 「삼진날에 외출하여 유람하다
(上巳出遊)」를 차운하여 이 시를 짓는다.

詩94. 七月五日 風氣颯然¹⁾ 與子姪數輩²⁾ 遊北林佛塔³⁾
칠 월 오 일 풍 기 샷 연 여 자 질 수 배 유 북 림 불 탑
令奴芟去荒穢 以火焚之⁴⁾ 時風急火盛 須臾淨盡⁵⁾
영 노 삼 거 황 태 이 화 번 지 시 풍 급 화 성 수 유 청 진
林影婆娑⁶⁾ 可以逍遙⁷⁾ 明日次東坡上已出遊韻⁸⁾
임 영 파 사 가 이 소 요 명 일 차 동 파 상 이 출 유 운

秋風蕭蕭⁹⁾輕雨飛, 가을바람이 솔솔 불며 가랑비 날리는데,
秋 風 蕭 蕭 경 우 비

微涼早入前村塢¹⁰⁾。 좀 서늘했지만 아침에
미 랑 조 입 전 촌 오 앞마을 산촌山村에 갔네.

興來幽尋不辭遠¹¹⁾，
흥 레 유 심 불 사 원

그윽한 경치 탐색에 흥이 일어
먼 곳도 사양 않고 가는데,

牧豎農夫相戲侮¹²⁾。
목 수 농 부 상 회 모

목동과 농부는 서로 농지거리 주고받네.

古寺遺基石塔橫¹³⁾，
고 사 유 기 석 탑 횡

옛 절터에 석탑 한 기きが
측면에 있었는데,

細逕穿林日亭午¹⁴⁾。
세 경 천 름 일 정 오

오솔길 통해 숲을 지나오니
시간은 정오가 됐네.

林深境邃俗塵隔¹⁵⁾，
림 심 경 수 속 진 격

수림 무성하고 경관 심원하여
속세와 격리됐기에,

欲呼魚鳥相爾汝¹⁶⁾。
욕 호 어 조 상 이 여

물고기와 새들을 불러
친하게 사귀고 싶었네.

長松萬株遶江曲¹⁷⁾，
장 송 만 주 요 강 곡

큰 소나무 일만 그루 굽이도는
강 따라 우거지고,

碧蘿千丈蛟龍舞¹⁸⁾。
벽 라 천 장 교 룡 n

여라女蘿 덩굴 일천 장丈 얹혀
교룡蛟龍이 춤추겠네.

年深荊棘翳佳木¹⁹⁾，
년 심 형 극 예 가 목

해묵은 가시나무가
보기 좋은 나무 덮어서 가리길래,

剪剔寧論²⁰⁾疲僕苦。
전 척 영 론 피 복 고

베 내라고 말하면서 종을 피곤하게 하였네.

嘗聞古人烈山澤²¹⁾，
상 문 고 인 열 산 택

일찍이 옛사람이 산야를 태웠다는
소리 들었는데,

一炬燒荒吾亦主²²⁾。
일 거 소 황 오 역 주

횃불 하나로 황폐한 것 태웠으니
나 역시 그 당사자일세.

清陰生地石苔斑²³⁾
청 음 생 지 석 태 반

서늘한 음지의 바위에는
이끼 끼어 얼룩졌고,

野草閒花相媚嫵²⁴⁾
야 초 한 화 상 미 무

야생초와 들꽃은
서로에게 한들한들 아양 떠네.

冠童三四共盤桓²⁵⁾
관 동 삼 사 공 반 환

어른과 아이들 서넛이 함께 배회하다가,

坐久忘歸同藉土²⁶⁾
좌 구 망 귀 동 자 토

한참 앉아 귀가 생각도 잊은 채
제방에 자리 깔고 같이 있었네.

還思十載走風塵²⁷⁾
환 사 십 재 주 풍 진

귀향 생각한지 십 여 년 만에
벼슬길 떠나서,

老去始學樊須圃²⁸⁾
로 거 시 학 번 수 포

늙어서 배우기 시작한 게 농원경영일세.

三年澤國困漁父²⁹⁾
삼 년 택 국 곤 어 부

강변 마을에 삼년 사는 동안
이 늙은 어부 곤궁했지만,

一夢鈞天曾帝所³⁰⁾
일 몽 균 천 중 제 소

한 번은 꿈에 천궁天宮에서
천상天上의 음악도 들었었네.

悲歡已付泡影中³¹⁾
비 환 이 부 포 영 중

애환은 이미 물거품 속으로 보내버렸으니,

杜門澄心看姹女³²⁾
두 문 경 심 간 차 여

두문불출하며 마음 청정淸靜하게 하는 걸
연단煉丹 하듯 하네

平生學道妄有意³³⁾
평 생 학 도 망 유 의

평생 도학을 배웠으나 망령되이
(벼슬길로 나아가는) 의지만을 지녔기에,

上下鳶魚窮仰俯³⁴⁾
상 하 연 어 궁 양 부

하늘과 땅에는 술개와 물고기도
자유자재 하건만 (나는) 어디에서도
안거安居하지 못하네.

邇來多病百無爲³⁵⁾,
이 래 다 병 백 무 위

근래에 병이 잦아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白石³⁶⁾携歸親自煮。
백 석 휴 귀 친 자 자

백석白石 갖고 돌아와
친히 우려내어 마시려 했네.

鼎缺爐寒不成丹³⁷⁾,
정 결 노 한 불 성 단

약탕기는 깨졌고 화롯불은 꺼져
연단煉丹도 못 만들고,

一篇遠遊徒虛語³⁸⁾。
일 편 원 유 투 허 어

멀리 유람하며 시 한 수 읊는단 것도
절극 빈말됐네.

時時率意輒孤往³⁹⁾,
시 시 술 의 첩 고 왕

(근처에는) 언제나 내 맘대로
즉시 갈 수 있나니,

不論隣家與僧宇⁴⁰⁾。
불 론 인 가 여 승 우

이웃집과 사원寺院은 말할 것도 없다네.

行歌白雪帶月歸⁴¹⁾,
행 가 백 설 대 월 귀

백운白雲을 노래하며 갔다가
달빛아래 돌아오는데,

絕勝東華候朝鼓⁴²⁾。
절 승 동 화 후 조 고

절경絶景에 심취한 신선 동화東華가
등청登廳 북소리 기다릴까!

人生所貴在適意⁴³⁾,
인 생 소 귀 재 적 의

사람이 살면서 귀한 것은
마음 넓게 가지는데 있나니,

坎止流行只如許⁴⁴⁾。
감 지 유 행 지 어 허

위험 닥쳐 멈춰 섰다 갈 때도
이 같아야 할 뿐일세.

從知賞心⁴⁵⁾不在遙,
종 지 상 심 부 재 요

심지心志 즐겁게 하는 걸 알고 보니
먼 곳에 있잖았는데.

伐木何須凌險阻⁴⁶⁾。
벌 목 하 수 능 험 조

험지까지 올라가 벌목할 필요 있겠는가?

無官身輕是實語，
무관신경시실어

관직 없어 몸 가뻔해졌단 것이
참말인데,

客來賀我何須吊。
객래하아하수조

손님 와서 내게 축하하는 걸
애통해 할 필요 있겠는가?

1) 풍기삽연(風氣颯然 : 바람기가 잠잠해지다):

① 풍기(風氣):

☆풍기와 공기의 유동으로 인한 바람을 가리킨다. 본 시에서는 ‘바람기<바람이 부는 기운>’의 뜻으로 쓰였다.

☆기후.

☆풍조[기풍]와 습속.

☆풍채[풍모]와 기개, 인품.

☆시문(詩文)이나 서화(書畵)의 풍격이나 기품(氣品 : 의경意境).

☆고대의 천상변화를 보고 인사(人事)에 부회(附會)시켜 길흉을 예언하는 것을 가리킨다.

☆풍각(風角 : 고대에 짐치는 방법 중의 하나인데, 오음五音으로 사방의 바람을 짐쳐서 길흉을 판정함).

☆중풍(中風 : 뇌혈관의 장애로 갑자기 정신을 잃고 넘어져서 구안와사口眼喎斜, 반신불수半身不隨, 언어장애 따위의 후유증을 남기는 병).

② 삽연(颯然):

☆생기(활기)없이 쓸쓸한 모양. 본 시에서는 ‘(바람이) 잠잠하다’는 뜻으로 쓰였다.

☆풍우(風雨)의 소리를 형용하는 말.

☆신속한 모양. 별안간(돌연 갑자기. 어느 덧). …한 상황이 일어나는 모양.

☆(신체나 정신 등이) 쇠약해진 모양.

☆매우 많은 모양.

2) 여지질수배(與子姪數輩 : 아들과 조카 그리고 그 또래 아이들 몇 명과 더불어):

① 여(與) : 전치사로 ‘…와 함께’라는 뜻이다.

② 자질(子姪) : 아들과 조카. 앞의 「시93」 주석1) 참조바람.

③ 수배(數輩) : 또래 아이들 몇 명.

3) 유북림불탑(遊北林佛塔 : 북림과 불탑에 놀러가다) :

〈하회마을 역사와 관련된 개략적 내용〉

북림(北林)과 불탑(佛塔)에 대한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회마을의 역사에 대한 개략적 내용을 이해해야 한다. 경북 안동시(安東市) 풍천면(豐川面) 하회리(河回里)는 풍산류씨(豐山柳氏)가 600여 년 동안 세거(世居)해 온 동족 마을이다. 풍산 류씨는 고려 때 수주(樹州 : 지금의 경기도 부천시와 서울특별시 구로구 일대의 지역)의 호장(戶長)을 지낸 류절(柳節 : 생몰년 미상)을 시조로 세계(世系)를 잇고 있다. 그의 7세손 류종혜(柳從惠 : 생몰년 미상 : 서에 류성룡의 6대조)가 조선 태조 때 공조(工曹)

의 전서(典書: 정3품 벼슬)를 역임한 뒤 하회에 입향(入鄕)했다. 당시 이 마을에는 김해(金海) 허씨(許氏)가 먼저 입촌(入村)하여 화산(花山: 해발 271m) 남쪽자락(거목실골)에 정착했고, 이어서 광주(廣州) 안씨(安氏)가 화산의 북쪽 자락(행개골: 향교골)에 정착해있던 터라, 전서공(典書公: 위에서 말한 서에 6대조인 류종혜가 공조工曹의 전서典書を 역임했던 관계로, 류종혜를 존칭하여 이르는 칭호임)은 부득불 화산(花山)의 산자락이 맛있게 화천까지 내려와 마무리된 하안(河岸)에 터를 잡고 정착하지 않을 수 없었다. 전서공이 터를 잡아 지은 그 집이 바로 지금의 양진당(養眞堂) 사랑채 일부라고 전해지며, 이곳이 류씨들의 세거지(世居地)의 중심이 되었다고 한다.

① 북림불탑(北林佛塔: 북림과 불탑):

☆북림(北林): 이 말의 뜻은 ‘북쪽 수림(樹林)’이란 말인데, 이 수림은 전서공이 집터를 마련하고 자리 잡은 곳의 북쪽 숲을 가리키며 그 방향은 부용대(芙蓉臺) 쪽이다. 하회마을 동쪽에는 화산(花山)이 있고, 서쪽에는 원지산(遠志山)이 있으며, 남쪽에는 남산(南山)이 있고, 북쪽에는 부용대가 있다. 이와 같이 하회마을은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으나 겨울이 되면 북쪽으로 부용대와 서쪽으로 원지산 사이가 낮아 북서풍이 매서웠기도 하고, 풍수설(風水說)에 입각한 부용대의 강한 지기(地氣)를 막기도 하는 동시에 홍수를 막는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겸암(謙菴) 류운룡(柳雲龍)이 마을 북쪽에 일만 그루의 소나무를 심은 솔숲을 조성하였다고 한다. 이 솔숲을 지나가면 백사장이 나오고 하회 사람들이 북담(北潭)이라 부르는 낙동강이 흐르고, 강 건너편이 부용대이다. ‘북림(北林)’이란 말은 서애가 쓴 「원지정사기(遠志精舍記)」의 첫머리에도 나온다. “북림北林에 정사精舍: 원지정사를 가리킴)를 지었으니 모두 다섯 칸이다(築精舍于北林, 凡五間). 동쪽은 마루요, 서쪽은 서재이다(東爲堂, 西爲齋). 서재에서 북쪽으로 나가다가, 돌아서 서쪽으로 높게 누각을 만들었으니 강물을 굽어보기 위해서이다(由齋北出, 又轉而西, 高爲樓以俯江水).”고 한 대목이 있다.

☆불탑(佛塔):

- a. ‘연사(硯寺)’의 불탑: 위의 ‘하회마을사’에서 언급했듯이, 김해 허씨와 광주 안씨가 각각 화산(花山) 자락의 남쪽과 북쪽 기슭을 선점(先占)한 이후에, 입촌(入村)하게 된 풍산류씨는 이 두 곳을 피하여, 현재의 하회마을의 중앙 지점에 해당하는 곳에 위치한 연사(硯寺)라는 절 옆에 택지(宅地)를 정하여 집을 건축하였다. 지금의 양진당(養眞堂) 사랑채의 일부에 해당하는 규모였다고 한다. 당시에 이곳은 울창한 숲이 있었고, 바로 신라 때부터 내려오는 ‘연사(硯寺)’라는 절이 있었으나, 이미 서에 생존 당시에, 폐절(廢絶)이 된 곳이었다. 전하는 바에 의하면, 이 사찰은 호환(虎患)이 잦아 스님이 절을 버리고 떠난 이후로 그 자리에는 탑들이 무너져 남은 기단석만 남아있었다고 한다. 이곳에는 풍산류씨의 입향조(入鄕祖)인 전서공(典書公) 류종혜(柳從惠)가 심은 것으로 전해오는 600년이 넘는 느티나무가 서 있어, 하회마을을 지켜주는 신성한 공간인 삼신당(參神堂)으로서의 위상을 누리고 있다.
- b. ‘장안사(長安寺)’의 불탑: 이는 화산(花山) 자락에 허씨들의 거목실골과 안씨들의 행개골[향교골] 사이에 장안사가 있었는데, 이곳의 불탑을 가리킨다. 이 역시 전하는 바에 의하면, 신라 때부터 있었던 절로, 서에 당시에는 이미 절터와 불탑만 있었다고 한다. 지금은 그 자리에 일제 압박으로부터

해방이 된 후에 ‘연화사(蓮花寺)’라는 절이 들어섰다. ‘본 연화사가 자리 잡은 이 터’에도 바로 이전부터 탑이 한 기(基) 전해 내려왔다고 한다.(이상은 글 임재해·사진 김수남. 『안동하화마을』, 대원사. 2003. 서수용. 『안동하화마을』, 안동문화원, 2000. 이세동. 『충효당 높은 마루. 안동 서에 류성룡 종가』, 경상북도·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2001. 등을 참조함)

이상의 a. b. 항목에 주석(注釋)한 ‘불탑’은 모두 서애가 생존한 당시에 존재했던 것으로, 본 시의 시제(詩題)에 언급한 ‘불탑’이 양자(兩者) 중 어느 것인지 확실하게 알 수는 없다. 그러나 시의 본문에 시작하는 1, 2, 3련(聯)에 표현된 시의(詩意)를 미루어 볼 때, 하화마을 안에 있는 연사(硯寺)의 불탑이 아니라, 화산(花山) 자락의 속칭 탑 골에 있는 ‘장안사의 불탑’으로 보여진다.

4) 영노삼거황예 이화분지(令奴芟去荒穢以火焚之 : 종으로 하여금 잡초를 베게 해서, 그것을 태워버리도록 하다) :

① 삼거(芟去) : 잡초를 베다.

☆삼(芟) : (잡초를) 베다.

☆거(去) : 동사인 ‘삼(芟)’ 뒤에서 보어로 쓰여, 동사의 동작이 원래의 위치에서 멀어지는 것을 나타낸다. 이는 방향을 향하는 것임과 동시에 결과보어의 기능을 겸하고 있다.

② 황예(荒穢) : 황예(荒蕪)로도 쓴다.

☆황무(荒蕪) : 우거진 잡초·잡초가 우거지다)와 같은 말이다.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황폐(荒廢)와 같은 말.

☆오예(汚穢) : 몹시 거칠고 더러운 것, 불결한 것)와 같은 말.

③ 이화분지(以火焚之) : 불로써 그것을 태우다.

☆이화(以火) : 여기서 ‘이(以)’는 전치사로 쓰여, 사물에 대한 처치, 곧 ‘...로써, ...을 가지고’라는 뜻으로 번역하고, ‘화(火)’는 전치사 ‘이(以)’의 목적어로 쓰여, ‘불로써’라고 번역된다.

☆분지(焚之) : 그것을 태우다. 여기서 ‘지(之)’는 지시대명사로 ‘분(焚)’의 목적어이다.

5) 수유정진(須臾淨盡 : 잠깐사이에 〈그 잡초들을〉 남김없이 태워버리다)

① 수유(須臾) : 잠시(동안). 잠깐(사이).

② 정진(淨盡) : 말끔하게 하다. 곧 남김없이 깨끗하게 하다. 본 시에서는 잡초를 남김없이 깔끔하게 다 태워버린 것을 표현한 말이다.

6) 임영파사(林影婆娑 : 나무숲의 그림자가 어른어른 거리다) :

① 파사(婆娑) :

☆그림자가 움직이는 모양(일렁일렁. 어른어른).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천천히) 돌다. 흔들리다. 빙빙 돌다.

☆춤추는 모양(너울너울). 옷자락이 펄럭이는 모양.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모양(비틀비틀).

☆머물다. 체류하다.

☆소요(逍遙)하다. 배회하는 모양. 한가(한거)하고 편안하다.

☆분주하다. 바쁘게(약작같이) 일하다.

☆(가지와 잎이) 무성하다. (나뭇가지가) 어지럽게 퍼지다.

☆소리가 멀리서 아득하게 들려오는 것을 형용한 말(은은하다). (말이) 완곡한 것을 형용한 말.

☆눈물을 흘리다. 물방울이 떨어지다.

☆쇠약해진 모양.

☆불교어로서, '사파(娑婆 : 산스크리트어 Sahā : 인계계界 : 고뇌를 참고 견뎌야 하는 현실의 세계)'를 가리킨다.

☆흠어져 어지러운 모양. 산란한 모양.

☆댓잎 같은 것에 바람이 부딪치는 소리.

7) 가이소요(可以逍遙 : 거닐 수 있게 되다) :

① 가이(可以) : ...할 수 있게 되다.

② 소요(逍遙) : 소요(逍搖)로도 쓴다.

☆이리저리 거닐다. 바람을 쐬다.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유유자득(優遊自得 : 유유자적悠悠自適 : 안한자재安閑自在 : 속세를 떠나 아무 속박 없이 조용하고 편안하게 삶)하다.

☆한가로이 거니는 모양. 상양(徜徉 : 천천히 여기저기를 거닐)하다.

☆방황(彷徨)하다. 배회하며 앞으로 나아가지 않다.

☆집착(斟酌)하다. 헤아리다, 깊이 새겨보다(음미하다). (뜻을) 잘 생각해 보다.

8) 명일 차동파 상사출유운(明日次東坡上巳出遊韻 : 이튿날 소동파의 시 「삼월날에 외출하여 유람하다(上巳出遊)」를 차운하여 이 시를 짓다) :

① 동파(東坡) : 소동파(蘇東坡) : 북송의 문인 소식(蘇軾 : 1037~1101)의 호(號). 자세한 것은 앞의 「시79」 주석9)의 ② ‘동파(東坡)’조항을 참조바람.

② 차·운(次·韻) : 앞의 「시20」의 주석1)의 ② ‘차운(次韻)’ 조항을 참조바람.

③ 「상사출유(上巳出遊)」 : 「삼월 삼진날 외출해서 유람하다(上巳出遊)」는 소동파가 지은 시의 시제(詩題)이다. 그러나 서애가 차운(次韻)한 소동파의 원시제(原詩題)가 좀 길어서 이를 이와 같이 축약하여 본 시제에 쓴 것이다. 소동파가 지은 시의 원시제는 「삼월 삼진날, 몇 사람과 술병을 지니고 외출하여 유람하면서, 만나는 곳에 따라 그 즉시 몇 수의 시를 지어, 이튿날 이들을 모아 시로 완성한 것이다. 고로 시어詩語에 조리가 없다(上巳日, 與二三子*攜酒出遊*, 隨所見輒*作數句, 明日集之爲詩, 故辭無倫次*)」이다.

*이삼자(二三子) : 몇 사람.

*첩(輒) : 곧. 즉시.

*윤차(倫次) : (말이나 문장 등의) 조리. 순서. 질서.

☆상사(上巳) : 상사일(上巳日) : 옛날의 명절 명칭으로, ‘삼월 삼진날(음력 3월 3일)’이다. 한대(漢代) 이전에는 음력 삼월 상순(上旬)의 사일(巳日 : 지지地支가 사巳로 된 날 : 뱀날)을 ‘상사(上巳)’라고 했는데, 위진(魏晉) 이후에는 ‘상사(上巳)’를 ‘삼월 삼일(三月三日)’로 정하면서, 꼭 ‘사일(巳日 : 뱀날)’로 규정하지는 않았다. 즉 ‘음력 삼월 삼일’이 ‘뱀날’이 아닐 수도 있었다는 것이다. 『후한서(後漢書) · 예의지(禮儀志) · 상(上)』에, “이 달 (즉 삼월) 상사일上巳日이 되면, 관 · 민이 모두 동쪽으로 흘러가는 강가에 모여, 세탁을 하고 신에게 빌어 채액

災厄을 떨어버리기도 하며, 몸의 때도 벗기고, 열병도 제거하는 것을 ‘대결(大槩)’이라고 한다(是月上巳, 官民皆槩於東流水上, 曰洗濯、除去宿垢灰爲大槩).”고 하였다. 또한 『송서(宋書)·예지(禮志)·2(二)』에서는 『한시(韓詩)·한대(漢代) 초기에 연궤 나라 사람 한영(韓嬰)이 전수한 시경(詩經)』을 인용하여 말하기를, “정(鄭) 나라 사람들의 풍속에, 삼월 삼짇날이 되면, 진수(溱水: 지금의 하남성河南省 신밀시新密市 진하(溱河)나 유수(洧水: 지금의 하남성 쌍가하(雙洎河) 강변에 가서, 혼백을 불러내어, 난초를 들고 흔들면서 상서롭지 못한 기운을 털어낸다(鄭國之俗, 三月上巳, 之溱洧兩水之上, 招魂續魄, 拂不祥).”고 하였다.

☆출유(出遊):

- a. 외출하여 돌아다니며 거닐다.
- b. 외출하여 유람하다.
- c. 고향을 떠나 타지(他地)에 가서 놀다.

9) 소소(蕭蕭):

① 의성어로서, ‘말이 우는 소리·비바람이 부는 소리(후드득 후드득·사룩사룩·보슬보슬·부슬부슬·추적추적) 물이 흐르는 소리·초목이 바람에 흔들거리거나·낙엽이 떨어지는 소리·악기 소리’ 등등이다. 본 시에서는 ‘(가을바람이) 술술 불다’는 뜻으로 쓰였다.

- ② 적막하다. 쓸쓸하다. 스산하다.
- ③ 처량하다. 한랭(寒冷)하다.
- ④ 희소(稀疏)하다. 드문드문 하다.
- ⑤ (가옥·설비 등이) 초라하다. 빈약하다. 누추하다.
- ⑥ (풍모가) 말쑥하고 (갈끔하고) 멋스러운 모양.

10) 전촌오(前村塢: 앞마을 산촌: 여기서 ‘앞마을 산촌(前村塢)’이란, 당시 광주(廣州) 안씨(安氏)가 입촌하여 정착했던 마을로 풍산 류씨가 정착한 강변(河岸) 마을 쪽에서 보면, 이 앞마을 산촌은 하회마을 입구[큰 고개]에 들어서면, 진행방향 왼쪽으로 화산(花山)의 서북쪽 자락의 도로를 따라 이어가는 일대를 말한다. 앞의 본 시의 주석3)의 ① ‘북림(北林)’과 ‘불탑(佛塔)’ 조항을 참조바람.

① 촌오(村塢): 촌오(村陽)라고도 쓰며, 촌장(村莊: 마을, 촌락, 부락)의 뜻이다. 여기서 산촌(山村)을 가리킨다.

11) 흥래유심 불사원(興來幽尋不辭遠: 그윽한 경치 탐색에 흥이 일어 먼 곳도 사양 않고 가는데):

- ① 유심(幽尋): 그윽하고 아름다운 경치를 탐색하다.
- ② 불사(不辭): 사양하지 않다.

12) 목수농부 상희모(牧豎農夫相戲侮: 목동과 농부는 서로 농지거리 주고받네):

- ① 목수(牧豎): 목수(牧豎)로도 쓰며, ‘목동(牧童)’의 뜻이다.
- ② 희모(戲侮): 희모(戲侮)로도 쓴다. 희롱하고 경멸하다(업신여가다). 본 시에서는 농지거리(점잖지 아니하게 함부로 하는 장난으로 농담을 낮잡아 이르는 말)의 뜻으로 쓰였다.

13) 고시유기 석탑횡(古寺遺基石塔橫: 옛 절터에 석탑 한 기둥이 측면에 있었는데):

- ① 유기(遺基): 유지(遺址): 유적지(遺跡地).
- ② 횡(橫): 측면. 앞.

- 14) 세경천림 일정오(細逕穿林日亭午 : 오솔길 통해 숲을 지나오니 시간은 정오가 됐네) :
- ① 세경(細逕) : 세경(細徑)으로도 쓴다. 이는 오솔길, 세로(細路), 소로(小路) 등으로 칭한다.
 - ② 일정오(日亭午) : 시간이 정오이다.
 - ☆일(日) : 시간.
 - ☆정오(亭午) : 정오(正午) · 중오(申午), 곧 낮 12시.
 - a. 정(亭) : 이르다. 어느 시각에 이름.
 - b. 오(午) : 낮 11시에서 1시까지의 시각을 가리킨다.
- 15) 임심경수 속진격(林深境邃俗塵隔 : 수림 무성하고 경관 심원하여 속세와 격리됐기에) :
- ① 임심경수(林深境邃) : 수림(樹林 · 초목)이 무성하여 경관이 심원하다.
 - ☆임심(林深) : 수림[초목]이 무성하다.
 - ☆경수(境邃) : 색경(色境 : 시각視覺)의 대상인 경관(景觀)이 심오(深奧) · 심원(深遠)하다. 본 시에서는 경관이 아주 심원한 것을 가리키는 말로 썼다.
 - a. 경(境) : 경관(景觀).
 - b. 수(邃) : 심원하다. 심오하다.
 - ② 속진(俗塵) :
 - ☆세속인의 종적(踪跡).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 ☆세속의 편견을 비유한 말.
- 16) 상이여(相爾汝 : 서로 친하게 사귀고 싶다) : 친구 사이에는 인사치레로 말을 하지 않고 서로 ‘나’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허물없이 말하는 사이를 ‘이여지교(爾汝之交)’라고 한다.
- ① 상(相) : 상호 · 서로의 뜻으로 쓰였다.
 - ② 이여(爾汝) :
 - ☆피차 친밀하여 허물없이 지내는 사이. ‘너나들이’하는 사이. 본 시에서는 ‘친해지다’는 뜻으로 쓰였다.
 - ☆고대에 존장(尊長)이 아랫사람에 대한 호칭으로 쓰인 말이다. 자네 · 너 · 너희들 등이다. 전(轉)하여 업신여기는 칭호로도 쓴다. 본 시에서는 ‘물고기와 새들’을 가리키는 까닭에, ‘그것들’이란 뜻으로 쓰였다.
- 17) 장송만주 요강곡(長松萬株遶江曲 : 큰 소나무 일만 그루 굽이도는 강 따라 우거지고) :
- ① 장송만주(長松萬株) : 소나무 일만 그루. 자세한 것은 앞의 주석3)의 ① ‘북림(北林)’ 조항을 참조바람.
- 18) 벽리천장 교룡무(碧蘿千丈蛟龍舞 : 여라女蘿 덩굴 일천 장치 얹혀 교룡이 춤추겠네) :
- ① 벽리(碧蘿) : 본 시에서 향초(香草)로 쓰여, 은사의 거주지에 비유되고 있다.
 - ☆청송(青松)을 타고 올라가서 기생(寄生)하는 녹색식물. 전(轉)하여, 은사(隱士)의 거주지를 비유하는 말로도 쓴다.
 - ☆여라(女蘿) : 여라의(女蘿衣) : 녹색의 기생반원(寄生攀援 : 他物을 휘어잡고 의지하거나 기어 올라가며 성장하는)식물의 일종. 선대식물에 속하는 이끼의 하나이

다. 암수 짝 그루이며, 나무 위에서 나는데 광택이 있다. 줄기는 실과 같이 가늘고 길며 잎은 퍼침모양이고 홀씨주머니는 달걀모양이다. 여라의(女蘿衣)라고도 한다.

- ② 천장(千丈): 매우 길거나 높거나 깊은 것을 형용하는 말이다.

☆장(丈): 길이의 단위로서, 1장(丈)은 10척(尺)으로, 3.33m이다.

- ③ 교룡무(蛟龍舞): 교룡이 춤을 추다. 이는 천 길이나 되는 벽라(碧蘿)의 모양을 교룡이 춤을 추는 것과 같다는 것으로 비유한 것이다.

☆교룡(蛟龍): 고대 전설상의 두 종류 동물로서, 모두 물속에 살았다고 한다. 전 해지는 바에 의하면, ‘교(蛟: 이무기)’는 홍수를 나게 할 수 있고, ‘용(龍)’은 운우(雲雨: 구름과 비)를 몰고 올 수 있다고 한다. 『예기(禮記)·중용(中庸)·26장 9절』에, “지금 (보이는) 저 물도 한 국자의 물이 많이 모인 것인데, 그 물이 (하해河海처럼) 헤아릴 수 없이 많이 모이면, 원타(鼃鼃: 자라와 악어)와 교룡(交龍: 이무기와 용) 및 어별(魚鼈: 물고기와 자라) 등이 살아 번식하며, 갖가지 보화재물이 불어난다(今夫水一勺之多, 及其不測, 鼃鼃蛟龍魚鼈生焉, 貨財殖焉).”고 한 대목이 있다. 『순자(荀子)·권학편(勸學篇)』에, “흙이 쌓이면 산을 이루고, 〈산이 이루어지면〉 바람과 비가 일어난다. 물이 고이면 연못이 되고, 〈연못이 있으면〉 교룡이 살게 된다(積土成山, 風雨興焉. 積水成淵, 蛟龍生焉).”고 한 대목이 있다.

- 19) 연심형극 예가목(年深荊棘翳佳木: 해묵은 가시나무가 보기 좋은 나무를 덮어서 가리길래):

- ① 연심형극(年深荊棘): 해 묵은 가시나무.

☆연심(年深): 시간(세월)이 오래되다. 해묵다.

- 년(年): 시간. 세월.
- 심(深): 시간이 경과하다(걸리다).

☆형극(荊棘):

- 대체로 산야에서 군생(群生)하는 가시나무를 가리킨다.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 간사하여 아첨을 잘하는 소인을 비유한 말.
- 분란(紛亂)을 비유한 말.
- 불만·웅어리·맏힌 마음. (서로 의심하거나 싫어서 생긴 감정의) 골·틈·악감정·혐오감.

- ② 예가목(翳佳木): 보기 좋은 나무를 덮어 가리다.

☆예(翳):

- (덮어) 가리다.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 숨기다.
- 운무(雲霧)를 가리킴.
- 새의 깃으로 만든 일산(日傘).
- 안대(眼帶).

☆가목(佳木): 보기 좋은 나무. 가수(嘉樹). 미목(美木).

- 20) 전척영론(剪棘寧論: 〈잡초를〉 베어 내라고 마침내 말을 하다):

- ① 전척(剪棘): (초목을) 베다(자르다). (말갈가를) 자르다. 초목을 베거나(자르거나),

또는 나무줄기에서 깎아 내거나 도려내다.

☆전(剪): 베다. 자르다. 제거하다.

☆척(剔): 깎다. 도려내다. 후벼 파다.

② 영론(寧論): 마침내 말하다.

☆영(寧): 부사로서, ‘결국. 끝내. 마침내’의 뜻으로 쓰였다.

☆론(論): 말하다.

21) 열산택(烈山澤: 산야를 태우다):

① 열(烈): 태우다.

② 산택(山澤):

☆산림과 천택(川澤).

☆일반적으로 ‘산야(山野)’를 가리킨다.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22) 일거소황 오역주(一炬燒荒 吾亦主: 햇불 하나로 황폐한 것 태웠으니 나 역시 그 당사자일세):

① 일거(一炬): 하나의 햇불.

☆거(炬): 햇불.

② 소황(燒荒):

☆황폐한 것. 폐기물을 태우다. 황폐한 잡목들을 태우다.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황야(荒野)를 태우다.’는 뜻으로, 중국의 고대 북방 유목민이 적군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한 하나의 조치이다. 북방의 변방수비군은 가을철이 되면 야초(野草)를 태워서 침입한 기병(騎兵)들이 물과 말먹이감이 부족하도록 해서 전투력을 약화시켰다.

☆개간하기 전에 황무지를 태우는 ‘화전농(火田農)’ 생활방식을 가리킨다.

③ 주(主): 주인. 당사자(當事者).

23) 청음생지 석태반(淸陰生地石苔斑: 서늘한 음지의 바위에는 이끼 끼어 얼룩졌고):

① 청음(淸陰):

☆상쾌하다. 시원하다. 서늘하다.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은택(恩澤)을 비유한 말.

☆날씨가 서늘한 것을 이르는 말.

② 생지(生地):

☆개간하지 않은 땅. 본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으며, ‘음지(陰地)’를 가리키는 말로 쓰였다.

☆생명을 보전하는 땅. 안전한 땅을 이르는 말.

☆자질(資質). 천부적 자질.

☆새로이 도읍할 땅.

③ 석태반(石苔斑): 돌에 끼는 이끼 얼룩(반점). 돌에 이끼가 끼다.

☆석태(石苔): 이끼.

☆반(斑): 반점. 얼룩(자다).

24) 야초한화 삼미무(野草閒花 相媚嫵: 야생초와 들꽃은 서로에게 한들한들 야양 떠네):

① 한화(閒花): 한화(閑花)로도 쓴다.

☆야생화[들꽃]를 가리킨다.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유아(幽雅 : 그윽하고 품위 있는)한 꽃. 우아한 꽃. 이 때의 ‘한(間)’은 ‘한(嫺 : 우아함)’과 통한다.

② 미무(媚嫵) :

☆교태를 부리며 이양을 떨다.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으며, ‘바람에 한들거리는 들풀과 들꽃’을 의인화한 뜻으로 쓰였다.

☆(서로) 환심을 사다. 영합하다. 쓰다듬고 어루만지며 좋아하다(사랑하다).

☆아름다워서 사랑스럽다.

25) 관동삼사 공반환(冠童三四共盤桓 : 어른과 아이들 서넛이 함께 배회하다가) :

① 관동(冠童) : 관례(冠禮)를 행한 사람과 관례를 행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뜻으로, 남자 어른과 남자 아이를 아울러 이르는 말이다. ‘관례’라는 것은 사내 아이가 나이 스무 살이 되었을 때, 처음으로 갓을 쓰고 어른이 되는 예식을 치르는 것을 말한다. 사내아이 나이 스무살이 되어 관례를 행하는 나이를 ‘관세(冠歲)’라고 한다.

② 반환(盤桓) :

☆배회(徘徊)하다. 머물다.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함께 놀다(있다).

☆광대한 모양.

☆멍멍 돌다. 선회하다.

26) 동지토(同藉土 : 제방에 자리 깔고 같이 앉다.) :

① 자(藉) : 깔개(자리: 앉을 때 밑에 까는 것). 깔개[자리]를 깔다.

② 토(土) : ‘제(堤 : 제방堤坊)’의 뜻으로 쓰였다.

27) 주풍진(走風塵 : 벼슬길에서 물러나다) :

① 주(走) : 떠나다. 물러나다.

② 풍진(風塵) : 벼슬길.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앞의 「시63」 주석7)의 ‘풍진(風塵)’조항을 참조바람.

28) 노거시학 번수포(老去始學樊須圃 : 늙어서 배우기 시작한 게 농원경영일세) : 이 시구의 내용은 『논어(論語) · 자로편(子路篇)』에 보이는 것으로, 공자가 그의 제자 번지(樊遲)가 농사짓는 법(請學稼)과 채소 재배하는 법(請學爲圃)을 가르쳐달라는 것에 대해, 독서인[君子]이 추구해야할 것은 대도(大道)의 전파를 자기 책임으로 여겨야지 어떻게 자기 자신만을 위한 것에 마음을 두고 있는지, 그의 질문이 자못 합당하지 못함을 다음과 같이 시사하고 있다: “공자가 말했다: ‘번수는 참으로 소인이구나. 윗사람이 예를 좋아하면 백성들도 경건하지 않을 수 없고, 윗사람이 도의를 잘 지키면 백성들도 복종하지 않을 수 없고, 윗사람이 신의를 잘 지키면 백성들도 성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되면, 사방에 있는 이웃나라 백성들이 제 자식을 포대기에 싸 업고 찾아올 것이다. 어찌 군자가 농사를 배우고자 하는가!’(子曰 小人哉樊須也 上好禮 則民莫敢不敬 上好義 則民莫敢不服 上好信 則民莫敢不用情 夫如是 則四方之民 襁負其子而至矣 焉用稼)”라고 하는 대목이 있다. 서에는 본 시구에서 공인(公人)으로 살아온 사도(仕途)의 인생여정을 회고하면서, 오히려 현재의 은둔자의 생애에서 번지(樊遲)의 공자에게 질문했던 ‘청학가(請學稼)’와 ‘청학위포(請學爲圃)’의 이기(利己) 의식을 ‘본성회복(本性回復)’이라는 별도의 경계로 수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① 노거시학(老去始學): 늙어서 ...을 배우기 시작하다.

☆거(去): 동사인 ‘로(老)’의 방향보어로 쓰였다.

② 번수포(樊須圃): 번수樊須의 채전菜田.

☆번수(樊須): 번지(樊遲: BC 515~미상): 춘추 시대 노(魯)나라 사람. 제(齊)나라 사람이라고도 한다. 공자의 제자로 이름은 수(須)이고, 자는 자지(子遲)다. 공자보다 36살 연하로, 비교적 공자의 측근으로 일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공자의 문하생으로 들어오기 전에 계씨(季氏)에게서 벼슬을 했던 적이 있다. 공자가 계씨를 비롯한 삼환씨(三桓氏) 세력을 타도하려다가 실패하고 한 무리의 제자들과 함께 고국을 떠난 이후(BC 497년),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다가 14년 만인 기원전 484년에 노(魯)나라로 돌아왔다. 이 때 공자의 나이 68세였다. 번지는 공자가 노나라로 돌아온 이후 그의 학생이 되었다. 공자의 수레를 몰았다는 기록이 『논어(論語)·위정편(爲政篇)』에 보인다. 번지의 취향은 광범하며, 도덕·문장을 배웠으며, 또한 ‘학가(學稼)’와 ‘학위포(學爲圃)’에 대하여 공자에게 관심을 보이다가 질책을 받은 적도 있으나, 공문제자로서 손색이 없는 인물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포(圃): 이는 ‘번수의 채전(菜田)’이라는 의미로, 그가 공자에게 ‘채소 재배하는 법(請學爲圃)’을 가르쳐달라는 것에서 유래한 것이다.

29) 삼년택국 곤어부(三年澤國困漁父: 강변 마을에 삼년 사는 동안 이 늙은 어부 곤궁했지만):

① 삼년(三年): 시제(詩題)에 의하면, 이 해수를 실수(實數)로 봐야할 듯하나, 「서애연보」에서 확정되는 바를 찾지 못하여 근거를 제시하기 조심스럽다.

② 택국(澤國):

☆수향(水鄉: 물가의 마을). 본 시에서는 강변마을, 곧 하회마을을 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경내(境內)에 소택(沼澤)이 많은 나라.

③ 어부(漁父): 어부. 본 시에서는 서애 자신을 은유한 것으로 보인다.

30) 일몽균천 증제소(一夢鈞天曾帝所: 한 번은 꿈에 천궁天宮에서 천상天上의 음악도 들었었네):

① 일몽균천(一夢鈞天): 한 바탕 꿈속에서 균천광악(鈞天廣樂: 천상의 음악)*을 듣는 것을 이르는 말. ‘균천몽(鈞天夢)’과 같은 말이다.

☆균천(鈞天): 하늘의 중앙. 고대 신화 전설에 ‘천제가 거주하던 곳’을 이르는 말이다. 전(轉)하여, ‘제왕’이라는 뜻으로도 쓴다. 『여씨춘추(呂氏春秋)·유시편(有始篇)』에, “(하늘의) 중앙을 균천이라고 한다(中央曰鈞天).”는 대목이 있다. 후한(後漢)의 학자 고유(高誘: 생몰년 미상)가 이 문장에 주석하기를, “‘균’은 ‘다스린다’는 뜻이다(鈞平也). 사방을 주재하는 까닭에 균천이라고 한다(爲四方主, 故曰鈞天).” 고 하였다.

*균천광악(鈞天廣樂): 『사기(史記)·조세가(趙世家)』에, “조간자(趙簡子: 생몰년 미상: 조양趙鞅으로도 불림)가 병이 나서, 5일동안 인사불성되자……, 이틀하고도 한나절이 지나서야, 간자가 깨어났다(趙簡子疾, 五日不知人……, 居二日半, 簡子寤). 그리고는 대부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상제가 있는 곳에 갔는데 아주 즐거웠소(語大夫曰, 我之帝所甚樂)’. 여러 신들과 하늘의 중앙을 유

람하였으며, 그곳에서는 신들이 연주를 반복하면서 너풀너풀 춤을 추었는데, 하·은·주 3대의 음악과는 달랐으나, 그 소리가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켰소(與百神游於鈞天, 廣樂九奏萬舞, 不類三代之樂, 其聲動人心).”라고 하는 대목이 있다. 후에 사람들은 이 글에 나오는 ‘균천광악’이라는 말을 ‘천상의 음악이요 선악(仙樂)’이라고 여겼다.

② 제(帝): 상제(上帝). 옥황상제(玉皇上帝: 도가에서 말하는 ‘하느님’임).

31) 비환이부 포영중(悲歡已付泡影中: 애환은 이미 물거품 속으로 보내버렸으니):

① 비환(悲歡): 슬픔과 기쁨. 애환.

② 포영중(泡影中): 물거품 속.

☆중(中): ‘장소’를 나타내는 뜻으로 쓰였다. 이때의 해석은 ‘…안, …속, …내, …중, …에서’로 하면 되겠다. 명사 뒤에 쓰이는 ‘중(中)’은 이 밖에도 시간이나 장소 또는 상황이나 상태 등을 나타내기도 한다.

32) 두문정심 간채녀(杜門澄心看姪女: 두문불출하며 마음 청정淸靜하게 하는 걸 연단煉丹 하듯 하네):

① 두문(杜門): 폐문(閉門): 폐호(閉戶): 엄문(掩門): 문을 닫음: 두문불출(杜門不出)의 약어(略語)이며, 집에서 은거하면서 관직에 나가지 않거나 사회의 일을 하지 아니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② 정심(澄心): 마음을 청정(淸靜)하게 하다.

☆징(澄): (마음을) 맑게 하다.

③ 채녀(姪女):

☆소녀. 미녀.

☆도가(道家)에서의 연단(煉丹):

a. 신선이 되기 위해 필요한 신약(神藥: 즉 단약을 만드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도가에서는 ‘수은(水銀: 단약丹藥을 만드는 기본적인 물질이 수은과 황금임. 수은을 유황硫黃과 화합하면 단사丹砂가 되고 황금은 불변·불후不朽하기 때문임)’을 차녀(姪女)라고 칭한다. 차녀(姪女)로도 쓴다.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도가(道家)의 경전(經典)인 『참동계(參同契)·하권(下卷)』에, “(서한西漢 시대의 도사道士) 하상공河上公이 만든 연단煉丹은 영묘하고 신비하여, 불에 달구면 비산飛散하여, 티끌도 보이지 않는다(증발하여 흔적이 없어진다)(河上姪女, 靈而最神, 得火則飛, 不見埃塵).”고 한 구절이 있다.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b. 몸의 기운을 단전(丹田)에 모아 몸과 마음을 수련하는 일.

33) 평생학도 망유의(平生學道妄有意: 평생 도학道學을 배웠으나 망령되어 〈벼슬길로 나아가는〉 의지만을 지녔기에):

① 도(道): 도학(道學)을 뜻하며, 본 시에서는 유가(儒家)의 도덕학문을 가리키는 뜻으로 쓰였다.

② 망유의(妄有意): (벼슬이란) 망상(妄想)을 지향하다. 망령된 것에 뜻을 두다.

☆유의(有意):

a. 의도한 바 있다. 바라는 바 있다.

b. 지향(志向)한 바 있다. …을 지향하다.

34) 상하언어 궁양부(上下鳶魚窮仰俯: 하늘과 땅에 술개와 물고기도 〈자유자재로〉 노

닐건만 <나는> 어디에서도 안거安居하지 못하네):

- ① 상하연어(上下鳶魚): 이는 연비어약(鳶飛魚躍)을 활용한 성어(成語)로, 하늘에는 술개 날고 땅위의 물속에는 물고기 노닐 듯이 만물이 각자 안거(安居)할 위치를 찾는다는 것을 이르는 말이다. 자세한 것은 아래의 주석을 참조바람.

☆상하(上下):

- a. 천지를 가리킴.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 b. 높은 곳과 낮은 곳. 위와 아래.
- c. 천신(天神)과 인물(人物)을 가리킴.
- d. 지위의 높고 낮은 것을 가리키는 말로서, 그 예로, 군신(君臣), 존비(尊卑), 장유(長幼) 등과 같은 것들이 있다.
- e. 상등(上等) 중의 하등(下等)을 가리키는 말로서, 곧 삼등(三等)을 가리킨다.
- f. 고저(高低). 우열(優劣). 승부(勝負).
- g. 머리꼭지부터 발끝까지를 이르는 말.
- h. 전후(前後)와 같은 말로 씀.
- i. 좌우(左右)와 같은 말로 씀.
- j. 앙부(仰俯: 쳐다보고 굽어봄)과 같은 말로 씀.
- k. 풍흙(豐欠: 풍족함과 모자람).
- l. 승강(升降).
- m. 증감(增減): 변경(變更).

☆연어(鳶魚): ‘연비어약(鳶飛魚躍: 술개는 하늘을 날고 물고기는 연못에서 뛰다)’의 약어(略語)로 쓰였다. 『시경(詩經)·대아(大雅)·한록(旱麓)』에 보면, 『시경(詩經)·대아(大雅)·한록(旱麓)』에 보면, “술개는 하늘을 날고, 물고기는 연못에서 뛰고 있네(鳶飛戾天, 魚躍於淵).” 당나라의 학자 공영달(孔穎達: 574~648)은 소(疏)를 달아 말하기를, “위로는 술개를 비롯한 새들이 하늘에 이르러 날아다니며 노닐고, 아래로는 모든 물고기들이 연못에서 꿈틀거려다 뛰어오르며 즐거워하는데, 이런 방법으로 하늘을 날거나 물속에 잠기는 것은 만물이 안거(安居)할 적합한 장소를 얻은 것으로, 이는 천도의 이치대로 <그들이 하늘에서는> 날고 <물속에서는> 잠기니, 만물이 제각기 적소(適所)를 만나면, 자신을 <그와 같이>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주(周)나라 임금들이> 명찰한 까닭이다. <이는> 만물이 그 자신이 처한 환경을 따라 만물의 환경변화를 명찰(明察)한 까닭이다(其上則鳶鳥得飛至於天以遊翔, 其下則魚皆跳躍於淵中而喜樂, 是道被飛潛, 萬物得所, 化之明察故也).”고 하였다. 후에 사람들은 이 ‘연비어약(鳶飛魚躍)’이란 말을 ‘만물이 각자 안거(安居)할 적합한 장소를 얻는 것(萬物各得其所)’을 이르는 말로 썼다.

- ② 궁양부(窮仰俯): 경치를 관상(觀賞)하는 것도 마음대로 되지 않다. 천문(天文)을 관찰하고 지리(地理)를 살피는 것도 마음대로 되지 않다. 아래의 주석을 참조바람.

☆궁(窮): 부득의(不得意)하다. 마음대로 되지 않다. 막하다.

☆양부(仰俯):

- a. (머리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고, (고개를 숙여) 땅을 내려다 보다. 이 말은 ‘경색(景色: 경치. 풍경)을 관상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다. 본 시에서는 이 뜻

으로 쓰였다.

b. 고개를 뒤로 젖혔다가 숙이다.

c. ‘궁양부(窮仰俯)’는 상반부의 ‘상하연어(上下鳶魚)’에 상반되는 의미를 보인다. 이의 출처는 『주역(周易)·계사전(繫辭傳)·하편 2장(下篇二章)』에 보인다. “옛날에 포희씨가 천하를 다스렸다. 하늘을 우러러 상象(하늘의 기상氣象)을 관찰하고, 땅을 굽어보며 법칙을 관찰했다. 금수禽獸의 아름다움과 땅에서 자라는 식물들의 마땅함을 관찰하면서 가까이로는 자기 몸에서, 멀리는 만물에서 이치를 찾아냈다. 이리하여, 처음으로 팔괘를 만들어 신명의 덕에 통하게 하고 만물과 같은 마음이 되게 하였다(古者包犧氏之王天下也, 仰則觀象於天, 俯則觀法於地, 觀鳥獸之文, 與地之宜, 近取諸身, 遠取諸物, 於是始作八卦, 以通神明之德, 以類萬物之情).”고 하였다. 말하자면, 태호(太昊) 복희씨(伏羲氏)가 천하에서 임금노릇을 할 때는 위를 우러러 천문을 관찰하고서는 하늘의 기상을 보았고, 아래를 굽어 지리를 관찰하고서는 땅의 법칙을 살폈다는 것이다. 그러나 서에는 옛 성인(聖人)들의 이러한 ‘격물(格物: 사물을 궁구(窮究)함)’하는 정신과 자세를 따르지 못하고 있음을 ‘궁(窮)’자로 표현하여, 자신의 현재 상태를 드러내 보이고 있다.

35) 이래다(邇來 백무위(邇來多病百無爲: 근래에 병이 찾아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① 이래(邇來): 요사이. 근래.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이(邇): 가깝다. 접근하다.

② 백무위(百無爲):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백(百): 일절(一切). 완전히. 전혀.

☆무위(無爲): 할 수 없다.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36) 백석(白石):

① 백석(白石): 전설상의 신선이 우러내어 마신다는 양식이다. 백석은 도가(道家)에서 외단(外丹)으로 쓰는 약물(藥物)의 재료이다. 외단(外丹)은 도교의 수련술(修煉術)의 하나로서, 화로(火爐)를 가지고 약물을 소련(燒煉)하여 장생불사의 선단(仙丹)을 제조하는 것을 말한다. (내단內丹은 정·기·신(精氣神)을 수련하는 것) 백석은 도가에서 양기석(陽起石)이라고도 하는데, 무수규산(無水硅酸: 이산화규소: 석영·수정·마노 따위에 있는 규소의 산화물임)과 고토(苦土: 산화마그네슘: 마그네슘의 산화물)를 주성분으로 한 돌이다. 백석은 흥분성 강장제(強壯劑)로 쓰인다. 서한(西漢)의 학자 유향(劉向: BC 77?~BC 6)의 저서 『열선전(列仙傳)·백석생장(白石生章)』에, “백석생(白石生: 전설상의 선인)은 중황장인(中黃丈人: 전설상의 선인仙人)의 제자인데, 팽조(彭祖: 생몰년 미상. 중국 상고시대 사람으로 중국 전설상의 황제인 오제五帝 중의 한 사람인 전옥顓頊의 고손자高孫子라고 함) 때에 나이가 이미 2천여 세였는데, …… 일찍이 백석을 우러내어 마시는 것을 양식으로 삼았다(白石生, 中黃丈人弟子, 彭祖時已二千餘歲……, 嘗煮白石爲糧).”고 한 구절이 있다.

② 백석생(白石生): 역시 위의 『열선전』에서 말하기를, 백석생은 “날아다니기를 좋아하지는 않았지만, 장수長壽를 귀하게 여기며 양생했다……(不愛飛昇, 但以長生爲貴……). 백석산白石山에 거주했던 까닭에, 백석생이라고 불렸다(因就白石山居, 號白石生).”는 구절이 있다. (‘백석생’에 관한 기록은 동진東晉의 연단가煉丹家 갈홍(葛洪: 284~364)의 저서 『신선전(神仙傳)』에서도 유향劉向의 『열선전』과 유사한

기록을 보이고 있다.)

- 37) 정결로한 불성단(鼎缺爐寒不成丹 : 약탕기는 깨졌고 화롯불은 꺼져 연단煉丹도 못 만들고) :

① 정결(鼎缺) : 연단용(煉丹用) 약탕기(藥湯器)가 파손되다.

② 불성단(不成丹) : 단약을 만들지 못하다.

☆불성(不成) : 만들 수 없다.

☆단(丹) : 단약(丹藥).

- 38) 일편원유 도허어(一篇遠遊徒虛語 : 멀리 유람하며 시 한 수 읊는단 것도 결국 빈 말 됐네) :

① 일편(一篇) :

☆본 시에서는 ‘시문(詩文) 한 수(首)’의 뜻으로 쓰였다. 이 때의 ‘편(篇)’은 시가(詩歌)나 사부(辭賦)를 세는 단위이다.

☆고대에는 문장을 모두 죽간(竹簡)에 저술한 다음, 소가죽 끈으로 꿰어 묶어서 한 권의 책처럼 만든 것을 ‘일편(一篇)’이라고 하였으며, 이렇게 만든 책을 간책(簡冊 : 죽간으로 만든 책)이라 하였다. 이 때의 ‘편(篇)’은 ‘죽간’이란 뜻이다. 후에, 전후(前後)가 완전하게 정리된 한 단락의 글을 일편(一篇)이라고 칭하였다.

☆전편(全篇 : 여러 부분의 단락을 종합 정리해 놓은 작품), 곧 한 권의 책을 가리키기도 한다.

② 원유(遠遊) : 멀리 가서 유력(遊歷 : 여러 곳을 두루 돌아다님)하다.

③ 도(徒) : 부사로, ‘공연히, 헛되이, 결국, 마침내, 비로소, 단지, 다만’ 등의 뜻으로 쓰이는데, 본 시에서는 ‘경(竟 : 결국)’의 뜻으로 쓰였다.

④ 허어(虛語) : 허언(虛言) : 빈말. 거짓말.

- 39) 시시술의 첩고왕(時時率意輒孤往 : <근처에는> 언제나 내 맘대로 즉시 갈 수 있나니) :

① 시시(時時) : 항상. 흔히. 종종. 언제나.

② 술의(率意) :

☆제멋대로. 아무 거리낌 없이.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전심전력하다. 온 마음을 다 하다.

☆생각대로(마음대로) 하다. 경솔하다.

☆직설적이다. 솔직하다.

③ 첩고왕(輒孤往) : 즉시 갈 수 있다.

☆첩(輒) :

a. 곧. 즉시.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b. 늘. 언제나. 항상.

☆고왕(孤往) : 고왕(孤往) : 혼자가다.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귀은(歸隱)을 비유한 말로도 쓴다.

a. 왕(往) : 왕(往)의 속자(俗字)로서, ‘가다’의 뜻이다.

- 40) 불론리가 여승우(不論隣家與僧宇 : 이웃집과 사원寺院은 말할 것도 없다네) :

① 불론(不論) :

☆동사로, 논하지 않다. 따지지 않다. 문제 삼지 않다. 고찰하지 않다. 평론하지 않다, 담론하지 않다. 본 시에서는 ‘…는 말할 것도 없다’는 뜻으로 쓰였다.

☆접속사로, ‘…뿐만 아니라. …이다. …은 아니다. …을 막론하고. …든지’의 뜻으로 쓰였다.

☆조건이나 정황(情況)이 달라도 결과는 불변함을 나타내는 말.

☆설사 …하더라도.

② 승우(僧宇) : 사원(寺院). 사찰(寺刹). 절.

41) 행가백운 대월귀(行歌白雲帶月歸 : 백운白雲을 노래하며 갔다가 달빛 아래 돌아오는 데) :

① 행가(行歌) : 걸어가면서 노래 부른다.

② 백운(白雲) : 곡조명칭.

③ 대월귀(帶月歸) : 달빛을 받으며 돌아가다.

☆대월(帶月) : 달빛을 받다.

a. 대(帶) : ‘빛을 받다. 머리에 쓰다. 몸에 착용하다’의 뜻으로 쓰였다.

42) 절승동화 후조고(絶勝東華候朝鼓 : 절경에 심취한 신선 동화東華가 등청登廳 북소리 기다릴까!) :

① 절승(絶勝) : 절묘한 경치. 절경(絶景).

② 동화(東華) : 전설상의 선인(仙人) 동왕공(東王公)을 가리키는데, 동화제군(東華帝君)이라고도 칭하고, 동화진인(東華真人)이라고도 칭하며, 약칭 동화(東華)라고 한다. 서한(西漢)의 문인 동방삭(東方朔 : BC 154~BC 93)의 저서 『신이경(神異經)』의 「동황경장(東荒經章)」과 「중황경장(中荒經章)」에서 말하기를, 동왕공은 동왕보(東王父)라고도 하고 목공(木公)이라고도 한다 하였다. 전하는 바에 의하면, 그는 상고시대의 신이며, 동황산(東荒山 : 전설상의 산)의 대석실(大石室)에서 거주했다고 하였다. 그는 키가 1장(一丈 : 3.33m)이며, 두 발은 백발인데다가, 얼굴은 조형(鳥形 : 새 모양의 얼굴)이고, 엉덩이에는 호미(虎尾 : 호랑이 꼬리)가 달려 있으며, 흑곰 한 마리를 몰고 다니면서, 좌우를 계속 살핀다고 하였다. 또한 늘 한 명의 선녀와 투호(投壺 : 두 사람이 일정한 거리에서 화살을 던져 병 속에 많이 넣는 수효로 승부를 가리는 놀이)를 하는데, 매번 1천 2백교(千二百矯 : 1200회를 다시 던짐)를 하였다고 한다(교矯 : 고대에 투호를 하면서 던진 화살이 병에 맞고 튀어나오는 것을 건네받아 다시 던지는 것을 ‘교矯’라고 함). 또 전하는 말에 의하면, 곤륜산(崑崙山 : 중국 전설상의 높은 산)에는 천주(天柱 : 하늘이 무너지지 않도록 괴고 있다는 상상의 기둥)가 있고, 그 천주 위에는 대조(大鳥 : 전설상의 큰 새)가 있는데, 왼쪽 날개를 펴서는 동왕공을 덮어 가리워 주고, 오른 쪽 날개를 펴서는 서왕모(西王母 : 중국 신화에 나오는 신녀神女의 이름)를 덮어 가리워 준다고 하였다.

③ 후조고(候朝鼓) : 등청(登廳 : 관청에 출근함)하라는 북소리를 기다리다.

☆후(候) : 기다리다.

☆조고(朝鼓) : 옛날에 군신(君臣)이 아침조회에 참석할 때에 울리던 북소리.

43) 적의(適意) :

① 마음을 넓게(편히) 가지다. 쾌적하다. 편안하다.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② 마음에 들다. 흡족하다. 뜻에 맞다.

44) 감지유행 지여허(坎止流行只如許 : 위험 닥쳐 멈춰 섰다 갈 때도 이와 같아야 할 뿐일세) :

① 감지유행(坎止流行) : 위험에 부닥치면 멈추어 섰다가 (주변 환경을 살피고 나서)

순조롭게 이동해야 한다. 이 말은 역경(逆境)에 처했을 경우, 상황을 봐가면서 진퇴를 확정해서 행보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을 비유한 말이다.

☆감지(坎止): 위험에 부닥치다. ‘감(坎)’은 ‘구덩이, 위험’의 뜻이다. 이 말의 어원은 『한서(漢書)·가의전(賈誼傳)』의 “수양이 심원한 경지에 이르면, 정신은 대도(大道)와 더불어 비상(飛翔)한다(寥廓忽荒*, 與道翱翔)”. 강물은 물길 따라 흘러가다가, 모래섬을 만나면 흐름을 멎는다(乘流則逝, 得坎則止).”고 한 구절이 있는데, 당나라의 학자 안사고(顏師古: 581~645)가 이 글에 주석하기를, “맹강(孟康: 생몰년 미상: 삼국시대 위나라 사람으로 『한서(漢書)』를 주석하였음)이 말한 바, 『역경(易經)』에서의 감괘(坎卦)는 험난함을 상징했듯이, 험난한 경우에 처하면 멈추어 서야 한다는 말이다(孟康曰, 『易』坎爲險, 遇險難而止也).”고 하였고, 장안(張晏: 생몰년 미상: 삼국시대 위나라 사람. 저서에 『한서음역(漢書音譯)』이 있음)은 말하기를, ‘평정(平正: 공평무사함)하면 벼슬하고, 험난하면 은거하라는 말이다(張晏曰, 謂夷易*則仕, 險難則隱也).’고 하였다.

*요확홀황(寥廓忽荒): 요확(寥廓)은 끝없이 넓다는 의미의 ‘공활(空闊)하다’는 뜻이고, 홀황(忽荒)은 ‘요원하다’는 뜻으로, ‘사람의 수양이 고원(高遠)한 경지에 이름’을 비유한 말이다.

*고상(翱翔): 날개질 하는 것을 ‘고(翱)’라 하고, 날개를 움직이지 않는 것을 ‘상(翔)’이라 한다. ‘고상(翱翔)’은 ‘새가 하늘에서 비상하다, 날아오르다’는 뜻이다.

*이이(夷易): ‘이(夷)’와 ‘이(易)’는 모두 ‘공평하다’는 뜻이고, 이이(夷易)는 ‘공평무사한 것’을 가리키는 말이다.

☆유행(流行): (상황을 보고나서) 이동하다.

② 지여허(只如許): 다만 이와 같아야 할 뿐이다.

☆여허(如許):

a. 이와 같다.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b. 꽤 많은. 상당수의. 이렇게 많이. 이렇게 허다하게.

45) 종지상심(從知賞心: 심지心志 즐겁게 하는 걸 알고 나니):

① 종지(從知): 곧 알다.

☆종(從): 부사로, ‘곧, 즉시’의 뜻으로 쓰였다.

② 상심(賞心):

☆의지(意志: 심지心志)를 즐겁게 하다.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마음이 즐겁다. 즐겁고 기쁜 마음.

☆경치를 완상(玩賞)하는 마음.

46) 별목하수 능험조(伐木何須凌險阻: 험지까지 올라가 벌목할 필요 있겠는가):

① 하수(何須): 구태여(하필) ...할 필요가 있는가. ...할 필요가 없다.

② 능험조(凌險阻): 험지까지 올라가다.

☆능(凌): 오르다. 올라가다.

☆험조(險阻):

a. (지세가) 험준하며 (왕래가) 두절된 곳. 장애(물). 위험한 길.

b. (지세가) 험준하다.

c. 간난신고(艱難辛苦: 고생스러움)하다. (일이) 어렵다. 힘들다.



시95. 금년에는 정사精舍의 국화가 늦게
 피었다. 시월 초순初旬이 되자 바야흐로
 국화가 만개滿開하면서, 창려昌黎
 한유韓愈의 시에서, “곶디곶더니만 서리
 맛은 국화여鮮鮮霜中菊, 이미 철이
 늦었으니 어찌하면
 좋을꼬既晚何用好?”라고 읊은 구절이
 회상되기에, 느낀 바 있어서

詩95. 今年書舍¹⁾ 菊花晚開 至十月旬²⁾ 方盛
 금 년 서 서 국 화 만 개 지 시 월 순 방 성
 因憶昌黎詩“鮮鮮霜中菊, 既晚何用好”³⁾ 有感
 인 억 창 려 시 선 선 상 중 국 기 만 하 용 호 유 감

數枝疎冷不勝霜⁴⁾, 몇 줄기는 영락零落하며 서리를 못 견뎠지만
 수 지 소 령 불 승 상

尙得開花滿院香⁵⁾. 아직도 피는 꽃이 있어 온 뜰이
 상 득 개 화 만 원 향 향기롭네.

歲暮地偏車馬少⁶⁾, 세밑이나 외진 곳이라
 세 모 지 편 차 마 소 거마車馬도 적게 다니는데

掇英三嗅倚斜陽⁷⁾. 낙화 주워 몇 번이고
 철 영 삼 후 의 사 양 향기 말는데 석양이 기우네.

- 1) 서사(書舍) : 서실(書室) · 서재(書齋) · 서방(書房). 일반적으로 서재(書齋)라고 하면, ‘집안에 책을 쌓아두고 독서하면서 글을 쓰는 방’이란 뜻인데, 본 시에서는 ‘원지정사(遠志精舍)’가 아니면 ‘옥연정사(玉淵精舍)’를 가리키는 말로 쓰였다. 본 시에서의 ‘서사(書舍)’는 ‘서재가 있는 집’의 뜻으로 쓰인 것으로 봐야 한다.
- 2) 시월순(十月旬) : ‘순(旬)’은 10일 · 10개월 · 10년 등의 뜻으로 쓰이는데, ‘시월(十月)’이란 말 뒤에, ‘순(旬)’이 왔기에 이 때의 순(旬)은 ‘10일’에 해당하는 뜻으로 쓰였다. 또한 순(旬)이 ‘순(旬)’을 초순(初旬)으로 번역하여, ‘시월순(十月旬)’을 ‘시월초순’으로 번역한다.
- 3) 창려시(昌黎詩) : “곱디곱더니만 서리 맞은 국화여(鮮鮮霜中菊), 이미 철이 늦었으니 어찌하면 좋을꼬(既晚何用好)” :

- ① 창려(昌黎) : 당(唐)나라의 문인이자 정치가인 한유(韓愈)*는 누대에 걸쳐 영천군(潁川郡 : 지금의 하남성河南省 허창시許昌市)에 거주해 왔는데, 그는 선대(先代)의 관직(貫籍 : 본적지)을 경모(敬慕)하여 늘 하남(河南)으로 자신의 본적을 기록하였을 뿐 아니라, 자칭 ‘창려인(昌黎人 : 창려군昌黎郡의 사람. 창려군은 지금의 하북성河北省 창려현昌黎縣임)’이라고 하였다. 송신종(宋神宗) 희녕7년(熙寧七年 : 1174)에 조서(詔書)를 내려 그를 ‘창려백(昌黎伯 : ‘백伯’은 문장이나 도의상으로 저명해진 동시에, 타인의 본보기가 되는 사람에 대한 존칭임)’에 봉했고, 후세에는 그를 존칭하여 ‘창려 선생’이라고 하였다.

*한유(韓愈 : 768~824) : 당(唐)나라 시대의 하남성(河南省) 하양현(河陽縣 : 지금의 하남성 맹현孟縣) 사람이다. 자는 퇴지(退之)고, 창려 선생으로도 불린다. 덕종(德宗) 정원 8년(貞元八年 : 792)에 진사가 되었다. 어릴 때 고아가 되어 형수의 손에 길러졌다. 장성해서 『육경(六經)』을 암송하고 백가(百家)의 학문을 배웠다. 시문(詩文)에 뛰어나 일가를 이루었다. 그의 손길을 거친 사람은 모두 한문제자(韓門弟子)로 불렸다. 동평장사(同平章事)로서 선무절도부대사(宣武節度副大使) 겸 변주자사(汴州刺史)가 된 선무군(宣武軍 : 지방의 군진軍鎭) 명칭 : 지금의 하남성 상구현商丘縣에 있었음)에 있을 때 불려 순관(巡官)이 되었다. 변군(汴軍)이 어지러울 때 대책을 말하면서 전혀 거리낌이 없었다. 사문박사(四門博士)를 거쳐 19년(803) 감찰어사(監察御使)가 되었다. 이 때 수도의 장관을 탄핵했다가 덕종(德宗)의 노여움을 사 양산령(陽山令)으로 좌천되었다. 국자박사(國子博士)와 중서사인(中書舍人)을 거쳐 원화 12년(元和十二年 : 817) 오원제(吳元濟)의 반란 평정에 공을 세워 형부시랑(刑部侍郎)이 되었지만, 14년(819) 헌종(憲宗)이 불골(佛骨)을 모신 것을 간하다가 조주자사(潮州刺史)로 좌천되었다. 원주(袁州)로 옮기고, 이듬해 소환되어 국자궐주(國子祭酒)에 임명되고, 병부시랑(兵符侍郎)을 거쳐 나중에 이부시랑(吏部侍郎)과 경조윤(京兆尹)까지 올랐다. 시호가 문(文)이라, 한문공(韓文公)으로 불린다. 유가의 사상을 존중하고 도교와 불교를 배격했으며, 송나라 이후의 도학(道學)의 선구자가 되었다. 저서에 『창려선생집(昌黎先生集)』 40권과 『외집(外集)』 10권, 『유문(遺文)』 1권 등이 있다. 당송팔대가(唐宋八大家) 가운데 한 사람이다.

- ② “선선 상중국(鮮鮮霜中菊 : 곱디곱더니만 서리 맞은 국화여), 기만 하용호(既晚何用好 : 이미 철이 늦었으니 어찌하면 좋을꼬)” :

이 두 구의 시는 한유(韓愈)가 읊은 시 「가을철의 회포를 읊은 시의 총11수(秋懷詩之十一首)」 중의 제11수의 제1,2구이다.

☆선선 상중국(鮮鮮霜中菊), 기만 하용호(既晚何用好):

a. 선선 상중국(鮮鮮霜中菊): 곱디곱디니만 서리 맞은 국화여):

④ 선선(鮮鮮): 선선(蠟蠟)으로도 쓴다. 이는 선명염려(鮮明艷麗: 광채가 곱고 선명하며 아름다움)의 뜻이다. 곱디곱다로 번역한다.

b. 기만 하용호(既晚何用好: 이미 철이 늦었으니 어찌하면 좋을꼬):

④ 하용(何用):

○...에 의존(의거·근거)하느냐. 무엇에 쓰느냐? 본 인용시에서는 전(轉)하여 ‘어찌하면(무엇에 의존하면)’이라고 번역하였다.

○무엇 때문에. 왜. 어째서.

○반문(反問)의 어기(語氣)를 지니고, ‘불용(不用: ...할 필요가 없다)’의 뜻을 나타낸다. ‘어찌...할 필요가 있겠는가?’의 뜻이다.

4) 수지소령 불승상(數枝疎冷不勝霜: 몇 줄기는 영락零落하며 서리를 못 견뎌지만):

① 수지(數枝): 몇 포기. 몇 줄기.

☆수(數): 수사(數詞)로서, 양사(量詞) 앞에 쓰여, ‘부정(不定)의 소수(少數)’를 나타낸다. 뜻은 ‘기(幾)’와 같으며, ‘몇’으로 해석된다.

☆지(枝): 본 시에서는 양사(量詞)로 쓰였다. ‘가늘고 긴 물건을 세는 단위’이며, ‘자루·대·정·개·가닥·줄기·포기’ 등의 뜻으로 쓰인다.

② 소령(疎冷): 거칠어져서 시들다.

☆소(疎): 흩어지다. 분산하다.

☆령(冷): ‘령(零)’과 통하며, ‘시들어서 떨어지다. 쇠잔하다. 영락(零落: 축목의 잎이나 꽃이 시들어 떨어짐)하다’.

③ 불승상(不勝霜): 서리를 이기지 못하다.

☆불승(不勝): ...을 참을 수 없다. 견디지 못하다. 버티지 못하다.

5) 상득개화 만원향(尙得開花滿院香: 아직도 피는 꽃이 있어 온 뜰이 향기롭네):

① 상득(尙得): 아직도 살아있다.

☆상(尙): 부사로서, ‘아직도’의 뜻으로 쓰였다.

☆득(得): ‘유(有)’의 뜻으로 ‘존재함’을 나타내는 말로 쓰였기에, ‘있다’로 해석한다.

② 만원향(滿院香): 뜰에 가득할 정도로 향기가 감돌다(풍기다).

☆만원(滿院): 뜰에 가득하다.

☆향(香): 국화의 향기가 풍기다.

6) 세모지편 차마소(歲暮地偏車馬少: 세밑이나 외진 곳이라 거마車馬도 적게 다니는 데):

① 세모지편(歲暮地偏): 선달그믐[세밑] 무렵, 외진 지역의 쓸쓸한 송구영신(送舊迎新)의 정황을 표현한 것이다.

☆세모(歲暮): 선달그믐께. 세밑.

☆지편(地偏): 지역이 외진 곳.

② 거마소(車馬少): 거마(車馬)가 적게 다니다.

☆거마(車馬): 수레와 말을 아울러 이르는 말.

7) 철영삼후 의사양(掇英三嗅倚斜陽 : 낙화 주위 몇 번이고 향기 맡는데 석양이 기울네) :

① 철영삼후(掇英三嗅) : 뜰에 떨어진 꽃잎을 주어 여러 차례 향기를 맡다.

☆삼후(三嗅) : 몇 번이고(여러 번. 재삼再三) 냄새를 맡다.

a. 삼(三) : 여러 차례. 재삼(再三). 몇 번이고

b. 후(嗅) : 냄새(를 맡다).



시96. 누각에 올라보니 느끼는 바 있어서

詩96. 登樓有感
등루유감

獨上江樓有所思,
독상강루유소사

홀로 강변 누각에 오르니
생각나는 게 있어서,

闌干倚遍夕陽遲¹⁾.
난간 의편석양지

난간 여기저기 기대보는데
석양이 서서히 넘어가네.

乾坤岳瀆高低裏²⁾,
건곤악독고저리

천지와 산천은 높거나 낮을 따름이지만,

雪月風花品題時³⁾.
설월풍화품제시

눈과 달이며 바람과 꽃은
계절 따라 감상하네.

大道祇今歸罔象⁴⁾,
대도지금귀망상

오늘 날 대도大道는
물귀신 망상罔象에게 귀속되었고,

名言從古易支離⁵⁾.
명언종고이지리

명언名言은 옛 부터 경시되어
지리멸렬 해졌네

欲知上下鳶魚妙⁶⁾,
욕지상하연어묘

하늘의 솔개며 연못의 물고기가
안거安居하는 이치 알고 싶은 데,

高處從來只在卑⁷⁾.
고처종래지제비

높은 곳에 이르는 길은 원래 낮은 곳에 있다네.

- 1) 난간의편 석양지(蘭干倚遍夕陽遲 : 난간 여기저기 기대 보는데 석양이 서서히 넘어가네) :
- ① 난간(蘭干) : 난간(欄杆)으로도 쓴다. ‘난간’이란, 층계, 다리, 마루 따위의 가장자리에 일정한 높이로 막아 세운 구조물이다. 본 시에서는 누각 마루 가장자리에 세운 구조물을 의미하는 뜻으로 쓰였다.
- ② 의편(倚遍) : (누각 난간의) 여기저기를 기대다.
 ☆의(倚) : 기대다.
 ☆편(遍) : 본 시에서는 ‘여기저기. 두루두루’의 뜻으로 쓰였다.
- 2) 건곤악독 고저리(乾坤岳瀆高低裏 : 천지와 산천은 높거나 낮을 따름이지만) :
- ① 건곤(乾坤) : 천지(天地)를 칭하는 말. 기타 자세한 뜻은 앞의 「시56」의 주석7)의 ‘건곤(乾坤)’ 조항을 참조바람.
- ② 악독(岳瀆) : 오악(五岳)과 사독(四瀆)을 아울러 이르는 말.
 ☆악(岳) : 오악(五岳) : 오악(五嶽) : 중국 5대 명산의 총칭이다. 본 시에서는 ‘산(山)’을 총칭하는 말로 쓰였다. 중국 고서(古書)에 기술된 내용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 첫째, 동악(東岳 : 동쪽의 명산) 태산(泰山), 남악(南岳 : 남쪽의 명산) 형산(衡山), 서악(西岳 : 서쪽의 명산) 화산(華山), 북악(北岳 : 북쪽 명산) 향산(恒山), 중악(中岳 : 중부의 명산) 숭산(嵩山)을 가리킨다. 현재 중국에서 말하는 오악(五岳)이라고 하면, 이것을 가리킨다. 둘째, 동악(東岳) 태산(泰山), 남악(南岳) 관산(霍山), 서악(西岳) 화산(華山), 북악(北岳) 향산(恒産), 중악(中岳) 숭산(嵩山)을 가리킨다. 셋째, 태산(泰山), 형산(衡山), 화산(華山), 악산(岳山), 향산(恒山)을 가리킨다.
 ☆독(瀆) : 사독(四瀆) : 중국의 4대 강(江)을 합칭한 말로, 본 시에서는 ‘강(江)’을 총칭하는 말로 쓰였다. 장강(長江 : 양자강揚子江), 황하(黃河), 회하(淮河), 제수(濟水)를 가리킨다. 독(瀆)은 큰 강을 가리킨다.
- ③ 고저(高低) :
 ☆높고 낮음. 높거나 낮거나. 높이.
 ☆존귀(尊貴)함과 비천(卑賤)함.
 ☆우열(優劣). 승부. 정도.
 ☆다소(多少).
 ☆이해득실.
 ☆내막. 진상. 경위.
 ☆좋은 것과 나쁜 것.
 ☆어쨌든. 어차피. 여하튼.
 ☆마침내. 결국. 도대체.
- ④ 리(裏) : 조사(助詞)로서, ‘리(哩)’나 ‘니(呢)’에 상당하며, 서술문의 문말(文末)에 쓰여 확인 또는 강조하는 의미를 지닌다.
- 3) 설월풍화 품제시(雪月風花品題時 : 눈과 달이며 바람과 꽃은 계절 따라 감상하네) :
- ① 설월풍화(雪月風花) : 눈과 달과 바람과 꽃이라는 뜻으로 사계절의 대표적 경색(景色)을 대칭(代稱)하여 적시(摘示)한 것이다.
- ② 품제(品題) :

☆관상(觀賞)하다. 완상(玩賞)하다.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품평(品評)하는 화제(話題)와 내용.

☆시문(詩文)과 서화(書畵)에 대한 평론.

- 4) 대도지금 귀망상(太道秖今歸罔象 : 오늘날 대도大道는 물귀신 망상罔象에게 귀속되었고) :

① 대도(太道) :

☆정도(正道). 상리(常理 : 통상적인 도리, 일반적인 규율). 최고의 치세원칙으로 삼강오상(三綱五常 : 유교도덕의 바탕이 되는 3가지 강령<군위신강君爲臣綱 : 임금과 신하, 부위부강夫爲婦綱 : 남편과 아내, 부위자강父爲子綱 : 부모와 아들이 지켜야 할 떳떳한 도리>과 5가지 떳떳한 도리<인仁 · 의義 · 예禮 · 지智 · 신信, 또는 부의父義 · 모자母慈 · 형우兄友 · 제공弟恭 · 자효子孝>) 등을 포괄한다.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자연법칙을 가리키는 말.

☆성신지도(成仙之道 : 신선이 되는 방법 또는 도술道術)를 이르는 말.

② 지금(秖今) : 현재. 지금.

③ 귀망상(歸罔象) : 물귀신 망상罔象에게 귀속되다.

☆귀(歸) :

a. 귀속되다.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b. 의탁하다.

☆망상(罔象) : 망상(罔像)으로도 쓰며, 고대 전설상의 수괴(水怪 : 물속의 괴물, 곧 물귀신을 이룸)이다. 수석(水石 : 물과 돌, 물과 돌의 귀신)의 괴물이라고도 한다. 『국어(國語) · 노어(魯語) · 하(下) · 계환자 천정획양(季桓子穿井獲羊)』에, “물에 있는 괴물을 용과 물귀신이라고 한다(水之怪曰龍、罔象).”고 하였다. 삼국시대 오(吳)나라의 학자 위소(韋昭 : 204~273)가 주석(注釋)하기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물귀신은 사람을 잡아먹는다고 하며, 일명 목종沐腫이라고 한다(或曰罔象食人, 一名沐腫).”고 하였다. 또한 『장자(莊子) · 달생편(達生篇)』에도, “물속에 물귀신이 있다(水有罔象).”고 하였다. 당(唐)나라 학자 육덕명(陸德明 : 550?~630)은 이 말에 대한 석문(釋文)에서 이르기를, “(서진西晉의 학자) 사마표(司馬彪 : ?~306?)의 주석본에는 (망상罔象을) ‘무상無傷’이라고 하였다(司馬本作‘無傷’)고 하면서, 말하기를(云) : 그 모습은 어린 아이와 같은데, 피부가 적흑색이고, 손톱은 적색이며, 귀가 크고, 팔이 길다. 일설에 의하면 수신水神의 이름이라고 한다(一云 : 水神名).”고 하였다.

****역주주석 :** 본 시에서는 말로만 대도(太道)를 외치고 악행을 서슴지 않는 소인배와 세도를 믿고 비행(非行)을 일삼는 저속한 사람을 은유한 말로 쓰였다.

- 5) 이지리(易支離 : 경시되어 지리멸렬(支離滅裂 해지다) :

① 이(易) : 경시(輕視)하다.

② 지리(支離) :

☆분산되다. 이리저리 흩어지다. 분열되다. 본 시에서는 ‘지리멸렬(支離滅裂 : 이리저리 흩어지고 찢겨어 갈피를 잡을 수 없음)’이 악어화(略語化)된 뜻으로 쓰였다.

☆(문장이나 말 따위가) 너더분하다. 장황하다. 번거롭다.

☆괴이하다. 기이하다. 허망(虛妄)하다.

☆(재해나 전란으로)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다. 유랑하다.

☆불완전하여 쓸모없다.

☆(얼굴이나 몸이) 초췌하다. 쇠약해져 병이 나다.

☆얼버무리다. 말끝을 흐리다. 조리가 없다. 횡설수설하다. 떠들거리다. 애매모호하다.

- 6) 욱지 상하연어묘(欲知上下鰲魚妙 : 하늘의 솔개며 연못의 물고기가 안거安居하는 이치 알고 싶으네) :

① 상하연어(上下鰲魚) : 하늘에는 솔개 날고 땅위의 물속에는 물고기 노닐 듯이, 만물이 각자 안거(安居)할 위치를 찾는다는 것을 이르는 말이다. 앞의 「시94」의 주석34)의 ‘상하연어(上下鰲魚)’ 조항을 참조바람.

- 7) 고처 종래지재비(高處從來只在卑 : 높은 곳에 이르는 길은 원래 낮은 곳에 있다네) :

① 고처(高處) : 높은 곳. 고소(高所).

② 종래지재비(從來只在卑) : 원래 낮은 곳에 있다.

☆종래(從來) : 원래.

☆지재비(只在卑) : 오로지 낮은 곳에 있다.

a. 지(只) : 단지. 오로지.

b. 재비(在卑) : 낮은 곳에 있다. 즉 낮은 곳에서 시작해야 한다는 의미를 지닌다.

④ 비(卑) : (위치가) 낮다. 본 시에서는 표면적으로 이 뜻으로 쓰였으나, 겸양하다. 겸손하다는 뜻을 은유한 뜻으로 쓰인다.



시97. 쾌청한 날 새벽에 뜰을 거닐다가
우연히 지은 시를 벽에 써 붙이다.

詩97. 晴曉¹⁾獨行庭中 偶書壁上
청 호 독 행 정 중 우 서 벽 상

靑山繞屋如相護²⁾, 청산은 집을 둘러싸고 보호해주는 듯한데,
청 산 요 옥 여 상 호

白髮侵人苦未饒³⁾. 백발은 사람을 침습하면서
백 발 침 인 고 미 요 조금도 관용을 베풀지 않네.

人世都無容足地⁴⁾, 집 밖의 세상에는 어디에도
인 세 도 무 용 족 지 머물 곳이 없는 터라,

一庭晴晝且逍遙⁵⁾. 쾌청한 날 낮임에도 홀로 뜰에서 배회하네.
일 정 청 주 차 소 요

1) 청호(晴曉) : 쾌청한 날 새벽에.

① 청(晴) : (날씨가) 맑다. 화창하다. 쾌청하다.

② 호(曉) : 새벽.

2) 상호(相護) : 서로 비호(庇護)하다. 보호하다. 상대가 되는 쪽을 비호하거나 보호하다. 여기서는 산이 마을을 감싸주는 것으로 번역하였다.

① 상(相) :

☆부사로, ‘한 쪽이 다른 한 쪽을 향해 베푸는 것’이 있음을 표시한다. 본 시에서 는 이 뜻으로 쓰였다.

☆기타, 대칭(對稱) · 자칭(自稱) · 타칭(他稱) 등의 뜻 외에, 가장 일반적으로 사 용되는 것으로는 ‘상호, 공동으로’등의 뜻을 지닌 것이 있다.

- 3) 백발침인 고미요(白髮侵人苦未饒 : 백발은 사람을 침습하면서 조금도 관용을 베풀지 않네) :
- ① 침인(侵人) : 사람을 침습하다.
☆침(侵) : 침습(侵襲)하다.
- ② 고미요(苦未饒) : 조금도 관용을 베풀지 않다.
☆조금도 관용을 베풀지 않다.
- a. 고(苦) : 정도부사로, ‘몹시. 매우’의 뜻인데, 본 시에서는 ‘조금도 전혀’의 뜻으로 번역하였다.
- b. 요(饒) : 관용(寬容)을 베풀다. 너그럽다.
☆몹시 편안하지 않다.
- a. 요(饒) : ‘일(逸)’의 뜻으로, 안락(安樂)하다. 편안하다.
☆조금도 은혜를 베풀지 않다.
- a. 요(饒) : 후혜(厚惠 : 두터운 은혜. 은혜)(를 베풀다).
- 4) 인세도무 용족지(人世都無容足地 : 집 밖의 세상에는 어디에도 머물 곳이 없는 터라) :
- ① 인세(人世) :
☆인간세상. 세상. 본 시에서는 ‘집 밖의 세상’을 가리키는 뜻으로 쓰였다.
☆인생.
- ② 도(都) : 이때의 ‘도(都)’는 부사로 뒤에 오는 구문의 전체를 부정하는 기능을 한다.
- ③ 무용족지(無容足地) : ‘발을 들여놓을 만한 땅도 없다’는 뜻인데, 이 말은 ‘거주 할(머물) 땅(곳이 없겠)’을 가리킨다. 이 말은 ‘무용신지(無容身之地)’와 같은 말이다.
- 5) 일정청주 차소요(一庭晴晝且逍遙 : 쾌청한 날 낮임에도 홀로 뜰에서 배회하네) :
- ① 일정(一庭) : 홀로 정원(뜰)에서. 홀로 뜰 안에서.
☆일(一) :
- a. 홀로.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당나라의 시인 두보(杜甫 : 712~770)의 시, 「진주잡시(秦州雜詩)」 제7수에, “연무와 먼지 자욱한 하늘 홀로 바라보자니, 노쇠한 늙은이 얼굴에 온통 수심이 가득하네(煙塵*一長望, 衰頰*正摧顏*).”라고 읊은 구절이 있다.
*연진(煙塵) : 연무(煙霧)와 먼지.
*쇠삭(衰頰) : 노쇠하다, 또는 그런 사람.
*최인(摧顏) : 만면(滿面)에 수심이 가득하다.
- b. 줄곧.
- c. 한차례.
- ② 청주(晴晝) : 쾌청한 날 낮에.
- ③ 차(且) :
☆한참동안.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잠시.
- ④ 소요(逍遙) : 소요(逍搖)로도 쓴다.
☆배회(徘徊)하다. 기타 자세한 뜻은 앞의 「시94」 주석7)의 ‘소요(逍遙)’조항을 참조바람.



시98. 간죽문^{看竹門}을 시제^{詩題}로 쓰다

詩98. 題^{看竹門}¹⁾ 제 간 죽 문

細雨春江上²⁾,
세 우 춘 강 상

봄 날 강변에 가랑비가 내리는데,

前山淡將夕³⁾.
전 산 담 장 석

앞산이 어렴풋해지니 곧 날이 저물겠네.

不見意中人⁴⁾,
불 현 의 중 인

마음속에 그리는 사람 나타나지 않는데,

梅花自開落⁵⁾.
매 화 자 개 락

매화꽃은 스스로 피었다 떨어지네.

1) 제간죽문(題看竹門: 간죽문을 시제詩題로 쓰다):

- ① 간죽문(看竹門): 옥연정사(玉淵精舍: 경북 안동시 광덕동廣德洞에 위치한 부용대芙蓉臺 오른 쪽에 있는 정사精舍)의 서쪽 정문이다. 하회마을 선착장에서 배를 타고 강을 건너 다음, 돌계단을 올라 간죽문을 통해서 옥연정사로 들어갈 수 있다. 이 문 밖을 나서서 서쪽으로 난 오솔길을 통해, 겸암정사(謙庵精舍)로 들어갈 수 있다. 간죽문 밖에는 바로 대나무 숲이 있다. 그래서 ‘간죽문(看竹門)’이라고 칭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간죽문을 나서면 남쪽으로 멀지 않은 곳에 ‘삼인석(三人石)’이란, 바위가 있는데, 이곳은 400여 년 전에 서애(西厓) 류성룡(柳成龍: 1542~1607), 약포(藥圃) 정탁(鄭琢: 1526~1605), 소재(蘇齋) 노수신(盧守愼: 1515~1590) 등 3인의 영의정을 지낸 분들이 만나서 바둑도 뜨고 약주도 들며 시문(詩文)도 짓던 곳이다.

2) 세우 춘강상(細雨春江上: 봄 날 강변에 가랑비가 내리는데):

- ① 세우(細雨): 가랑비(가늘게 내리는 비로소, 이슬비 보다는 좀 굵다).
☆보슬비: 바람이 없는 날 가늘고 성기게 조용히 내리는 비.

☆부슬비: 부슬부슬 내리는 비.

☆이슬비: 아주 가늘게 내리는 비로서 가랑비보다는 가늘고 눈개(안개비 보다는 조금 굵고 이슬비보다는 가는 비) 보다는 굵다.

****역지주석:** 한문에서는 이슬비와 보슬비(부슬비)를 ‘모모우(毛毛雨)’ 또는 ‘모모세우(毛毛細雨)’라고 하며, 가늘게 내리는 비 모두를 ‘세우(細雨)’라고도 칭한다.

② 춘강상(春江上): 봄날 강변에.

☆춘강(春江): 봄날의 강.

☆상(上): 명사 뒤에 쓰여 여러 가지 뜻을 나타낸다. 앞의 「시39」의 주석1)의 ③ ‘상(上)’ 조항을 참조바람. 본 시에서는 ‘강변’을 나타낸 뜻으로 번역하였다.

3) 전산 담장석(前山淡將夕: 앞산이 어렴풋해지니 곧 날이 저물겠네):

① 담(淡): (색이) 옅다, 연하다. 본 시에서는 (물체가) 또렷하게 보이지 않고 흐릿하다, 곧 ‘어렴풋하다’는 뜻으로 쓰였다.

② 장(將): 부사로서, ‘장차·곧·바로’이 뜻으로 쓰였다.

4) 불현 의중인(不見意中人: 마음속에 그리는 사람 나타나지 않는데):

① 불현(不見): 나타나지 않다. 출현하지 않다.

☆현(見): 현(現)의 고자(古字)로 보아, ‘나타나다. 출현하다.’로 번역하였다.

② 의중인(意中人): 마음속에 두고 있는 사람.

5) 자개락(自開落: 스스로 피고 지다):

① 자(自): 저 혼자서. 스스로

② 개락(開落):

☆(꽃이) 피고지다.

☆(물건을) 펼쳤다가 (진열했다가) 거두어들이는 것을 이르는 말.

☆‘제명(除名)’과 같은 뜻으로도 쓴다.



시99. 누각에서 느낀 가을철의 처량한 정서

詩99. 樓中秋思¹⁾
 누 중 추 사

青楓在江壁²⁾,
 청 풍 재 강 벽

청록색 단풍나무 강변 절벽에 있는데,

寒雨打蕭蕭³⁾.
 한 우 타 소 소

찬비가 추적추적 내리네.

終日樓中客,
 종 일 누 중 객

종일 누각에 머무르고 있는 나그네,

心懷不自聊⁴⁾.
 심 회 부 자 료

가슴이 막힌 듯 갑갑하네.

1) 누중추사(樓中秋思: 누각에서 느낀 가을철의 처량한 정서):

- ① 누중(樓中): 누각에서. 여기서 ‘중(中)’은 ‘안에라는 뜻의 ‘내(內)’로 쓰였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앞의 「시2」의 주석6)의 ‘중(中)’조항을 참조바람.
- ② 추사(秋思): 가을철의 적막하고 처량한 정서, 혹은 가을철에 느끼는 쓸쓸한 생각을 표현한 것이다.

2) 청풍 재강벽(靑楓在江壁: 청록색 단풍나무 강변 절벽에 있는데):

- ① 청풍(靑楓): 청록색의 단풍나무. 검푸른 단풍나무.
 ☆청(靑): 청색. 청록색. 본 시에서는 아직 단풍이 들지 않아 청록색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가리킨다.
- ☆풍(楓): 단풍나무. 풍수(楓樹).

- ② 강벽(江壁) : 강변의 절벽.
- 3) 한우 타소소(寒雨打蕭蕭) : 찬비가 추적추적 내리네) :
- ① 한우(寒雨) : 찬비. 가을이나 겨울에 내리는 비.
- ② 타소소(打蕭蕭) : 비가 추적추적 내리다.
- ☆타(打) : 비가 오다. ‘타(打)’는 구체적인 동작을 나타내는 동사 대신에 쓰인 것이다. 예를 들면, ‘물을 건다(打水)’ 혹은 ‘짚신을 엮다(打草鞋)’는 등의 어구(語句)에서 쓰인 ‘타(打)’자가 이와 같다. 본 시에서는 ‘비가 오다((下雨)’는 뜻의 ‘내리다. 오다’는 뜻의 ‘하(下)’ 대신에 ‘타(打)’를 쓴 것이다.
- ☆소소(蕭蕭) : 의성어 혹은 의태어로 쓰인다.
- a. 비가 오는 소리(후드득 후드득 · 사룩사룩 · 보슬보슬 · 부슬부슬 · 추적추적). 본 시에서는 의성어로 쓰였으며, ‘추적추적’으로 번역하였다. 기타 자세한 뜻은 앞의 「시94」 주석9)의 ‘소소(蕭蕭)’ 조항을 참조바람.
- 4) 심회 부자료(心懷不自聊) : 가슴이 막힌 듯 갑갑하네) :
- ① 심회(心懷) :
- ☆정회(情懷) · 심사(心思) · 감흥 · 감정 · 심경(心境) · 심정(心情).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 ☆생각. 속마음.
- ☆가슴(속).
- ☆의사(意思). 의향.
- ☆포부. (큰 뜻을) 가슴에 품다.
- ② 부자료(不自聊) : ‘무료(無聊)하다’와 같은 말이다.



시100. 형님 댁 문 밖의 작은 연못에 연꽃을
심었는데, 금년에 활짝 피었기에

詩100. 伯氏宅¹⁾門外小池種蓮 今年盛開
백 씨 댁 문 외 소 지 종 연 금 년 성 개

杖藜立柴門²⁾,
장 리 립 시 문

명아주 지팡이 짚고 사립문 밖에 서있자니,

草露沾我衣³⁾.
초 로 접 아 의

풀잎에 맺힌 이슬에 내 옷이 젖었네.

蓮花嬌⁴⁾欲語,
연 화 교 욕 어

연꽃이 아름다워 말 걸어보고 싶어서,

相對却忘歸⁵⁾.
상 대 각 망 귀

마주섰다 귀가하는 것도 그만 잊었네.

1) 백씨댁(伯氏宅): 형님 댁. 백씨는 만형을 높여서 이르는 말로, 겸암(謙菴) 류운룡(柳雲龍)을 가리킨다.

① 류운룡(柳雲龍: 1539~1601): 조선 중기의 문신(文臣). 본관은 풍산(豐山), 자(字)는 응현(應見), 호는 겸암(謙菴). 부친은 중영(仲郢), 모친은 안동 김씨(安東金氏)로 진사(進士) 광수(光粹: 1468~1563)의 딸이다. 성룡(成龍: 1542~1607)의 백형으로 퇴계(退溪) 이황(李滉: 1501~1570)의 문하에서 수학하였다. 어릴 때부터 총명하여 모든 경사(經史) 서적을 통독함으로써 사문(師門)의 촉망을 받았다. 1572년 친명(親命: 부모의 명령)으로 음사(蔭仕)를 받아 전함사 별좌(典樞司別坐)*가 된 뒤, 이듬해 의금부 도사(義禁府都事)*로 추배되었으나 사퇴하였다. 다시 사포서 별제(司圃署別提)*가 된 뒤 풍저창 직장(豐儲倉直長)*등을 역임하면서 청렴하고 철저한 임무 수행 능력을 인정받아 내자시 주부(內資寺主簿)*로 승진하여 진보현감(眞寶縣監) 등을 지냈다. 그러나 어머니의 신병 때문에

사퇴하였다가 다시 인동현감(仁東縣監)으로 추배되었다. 김재(吉再 : 1353~1419 : 고려 말 조선전기의 성리학자)의 묘역을 정화하고 사우(祠宇)와 서원을 지어 유학(儒學)의 진흥책을 도모하여 그를 칭송하는 송덕비가 세워지기도 하였다. 광흥창주부(廣興倉注簿)*, 한성부 판관(漢城府判官)*, 평시서 서령(平市署書令)*, 사복시 첨정(司僕寺僉正)* 등을 두루 역임하였다.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동생인 영의정 성룡이 선조에게 그를 해직시켜 모친을 구출하도록 읍소(泣訴)하니, 이 건의가 받아들여져 그는 모친을 비롯한 온 가족이 모두 무사하도록 하여 모두가 그의 효심을 칭찬하였다. 그 해 풍기가군수(豊基假郡守)가 되었으며, 전란의 어려움이 있음에도 조공을 평시와 같이 함으로써 얼마 뒤 다시 정군수(正郡守)가 되어 왜적들의 위협을 받고 있는 백성들의 생업을 보호하는데 힘썼다. 그 뒤 원주목사(原州牧使)로 승진되었으나 어버이의 노쇠함을 핑계하여 사퇴하였다. 후에 이조판서(吏曹判書)에 추증되었고, 문경(文敬)의 시호를 받았으며, 화천서원(花川書院)에 주벽(主壁)으로 모셔졌다. 군국기무(軍國機務)에 관한 소(疏) : 임금에게 올린 글)를 올려 선조(宣祖)로부터 인정을 받아 조의(朝議)에서 화제가 되기도 했다. 학문에 있어서는 이기설(理氣說)이나 사칠논변(四七論辨)은 이황의 이기이원론(理氣二元論)에 근거를 두고 변증을 시도하려 하였다. 사후(死後) 이조참판(吏曹參判)에 증직(贈職)되고, 다시 이조판서(吏曹判書)에 추증(追贈)되었으며 시호(諡號)는 문경(文敬)이다. 풍기(豊基)의 우곡서원(愚谷書院)과 안동의 화천서원(花川書院)에 배향(配享)되었다. 저서로는 『겸암집(謙菴集)』이 있다.

*전함사 별좌(典艦司別坐) : 전함사는 선박을 만들거나 관리하고 물자를 수송하던 일을 맡아 보던 관아의 5품 벼슬이다.

*의금부 도사(義禁府都事) : 임금의 명을 받들어 중죄인을 심문하던 일을 맡아 하던 사법기관에 소속된 중육품의 벼슬이다.

*풍저창 직장(豊儲倉直長) : 궁궐에서 소요되는 쌀, 콩, 종이류 등을 담당하는 관청인 풍저창의 종7품 벼슬이다.

*사포서 별제(司圃署別提) : 궁중의 원포(園圃)에서 채소 따위의 일을 맡아보던 6품의 벼슬이다.

*내자시 주부(內資寺主簿) : 호조(戶曹)에 속하여 대궐에 쓰는 여러 가지 식품 · 직조(織造) · 내연(內宴)에 관한 일을 맡아보던 관아의 종6품 벼슬이다.

*광흥창 주부(廣興倉注簿) : 광흥창은 조선시대 백관의 녹봉을 관장하던 관서 및 그 관할하의 창고에서 아문(衙門)의 문서와 부적(符籍)을 주관하던 종6품의 벼슬이다.

*한성부 판관(漢城府判官) : 조선시대 서울의 행정 · 사법을 맡아보던 관아에 소속된 정5품의 벼슬이다.

*평시서 서령(平市署書令) : 조선시대 시전(市廛 : 시장의 가게)에서 자 · 말 · 저울 따위의 물건 값을 검사하는 일을 맡아보던 관아에서 문부(文簿)를 맡아보던 벼슬이다.

*사복시 첨정(司僕寺僉正) : 사복시는 조선시대에 궁중의 가마나 말에 관한 일을 맡아보던 관아에서 낭청(郎廳)에서 실무를 맡아보던 당하관 벼슬이다.

2) 장려 립시문(杖藜立柴門 : 명아주 지팡이 짚고 사립문 밖에 서있자나) :

- ① 장려(杖藜) : 지팡이를 짚고 걷는 것을 이르는 말.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 ☆장(杖) : 지팡이를 짚다.
- ☆려(藜) :
- 본 시에서는 ‘명아줏대로 만든 지팡이[藜杖]’의 뜻으로 쓰였다.
 - 려(藜) : 명아주 : 명아줏과의 한 해 살이 풀이다. 줄기는 높이가 1m, 지름이 3cm 정도이며, 녹색 줄이 있다. 잎은 어긋나고 세모꼴의 달걀모양이다. 여름에 누린 녹색 꽃이 이삭 모양으로 줄기 끝이나 잎겨드랑이에서 피고 열매는 포과(胞果 : 얇고 마른 껍질 속에 씨가 들어 있는 것)이다. 어린잎과 씨는 식용하고 줄기는 지팡이를 만든다. 들이나 길가에 저절로 나는데 한국 · 일본 · 만주 등지에 분포한다.
- ② 시문(柴門) :
- ☆사립문.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쇠[빨나무]으로 만든 문인데, (가옥 · 설비 등이) 초라하다. 빈약하고 누추하다는 것을 이르는 말로 쓴다.
- ☆빈한(貧寒)한 집을 대칭(代稱)하여 이르는 말. 누실(陋室)을 이르는 말.
- ☆‘두문(杜門 : 외부와의 접촉을 끊으려고 문을 닫아 막음)’의 뜻으로도 쓰는 말.
- 3) 초로 점아의(草露沾我衣 : 풀잎에 맺힌 이슬에 내 옷이 젖었네) :
- 초로(草露) : 풀잎에 맺힌 이슬.
 - 점(沾) : (이슬에, 물에) 젖다. 적시다.
- 4) 교(嬌) : (여자 · 어린이 · 꽃 등이) 아름답다. 사랑스럽다. 예쁘고 귀엽다.
- 5) 상대 각망귀(相對却忘歸 : 마주 섰다 귀가하는 것도 그만 잊었네) :
- 상대(相對) : 서로 마주 보다(마주 대하다). 상대하다.
 - 각(却) : 부사로서, ‘그만. 오히려. 도리어’의 뜻으로 쓰였다.
 - 망귀(忘歸) : 귀가하는 것을 잊다.

시101. 어락정^{魚樂亭}을 시제^{詩題}로 하여

-(경자년庚子年:1600) 팔월 열나흘 날 형님과 함께
정자에 오르다-

詩101. 題魚樂亭¹⁾ 八月十四日與伯氏同登²⁾

정자는 화산^{花山} 동쪽 산기슭의 낙동강 강변에 있는데, 정자 주인
은 김세상 공^公으로 그는 비록 무인^{武人}이었으나, 부모에 대한 효
성과 형제간의 우애가 남달라서, 향리의 사람들이 모두 그를 칭
송하였다. 만년에 그는 이곳에 정자를 짓고, 낚시질하여 물고기
잡는 것을 일삼아 지내기에, 내 일찍이 그 정자 명칭을 ‘어락정^{魚樂亭}’이라 지어주었다. 지금 내가 그 정자를 지나가건만, 김 공^公
은 이미 타계^{他界} 한 사람이 되었고, 정자는 황폐해져, 뜰 안에
잡초가 우거진 채, 몇 포기의 산국화만 피어, 추풍에 흔들거리고
있을 따름이었다. 나는 슬픈 감정을 이기지 못하여, 시 한 수를
써서 벽에 붙여 두고 간다.

金世商亭在花山³⁾東麓, 下臨洛水⁴⁾, 亭主金君世商⁵⁾ 雖武人,
정재화산 동쪽 하임낙수 정주김군세상 수무인
而孝友絶人⁶⁾, 鄉里稱之。晩年築亭於此, 以漁釣爲事,
이효우절인 향리칭지 만년축정여차 이어조위사
余嘗名其亭曰魚樂。今過亭下, 而金君已作古人⁷⁾, 亭蕪廢⁸⁾,
여상명기정왓어락 금과정하 이김군이작고인 정무폐
雜草滿庭, 唯數叢山菊開花, 動搖秋風而已。余不勝⁹⁾ 悲感,
잡초만정 유수종산국개화 동요추풍이이 여불승비감
書一詩於壁上而去¹⁰⁾。
시일시어벽상이거

孤亭猶在主人亡¹¹⁾,
고정유재주인망

외판 정자 아직 있는데
주인은 이 세상에 없으니,



雲物蒼茫歲月荒¹²⁾
운 물 창 망 세 월 황

구름이 분주히 흘러간 듯 살았던
세월 공허하네.

秋草滿庭行逕沒¹³⁾
추 초 만 정 행 경 물

온 뜰에 가을 풀 우거져 오솔길이 묻혔는데,

一叢山菊爲誰香。
일 종 산 국 위 수 향

한 떨기 산국화는
누굴 위해 향기 풍기는고?

1) 제어락정(題魚樂亭: 어락정魚樂亭을 시제詩題로 하다) :

- ① 어락정(題魚樂亭) : 안동의 지방지(地方誌)인 『영가지(永嘉誌) · 제3권(卷之三) · 누정편(樓亭篇)』에, “어락정은 풍산현 남쪽에 위치한 화산花山 동쪽 기슭의 곡강曲江 강변에 있는데, 효자 김세상(金世商)이 건축한 것이다(魚樂亭在豐山縣南花山東麓曲江上, 孝子金世商所構).”고 하였다. 어락정은 지금의 경북 안동시 풍천면(豐川面) 병산리(屏山里) 정자골[亭子谷]에 있다. 하회마을 입구에서 병산서원을 가하면 세 곳의 마을이 있는데, 그 첫 번째 마을이 효부골[孝婦谷]이고, 두 번째 마을이 정자골[亭子谷]이며, 세 번째 마을이 병산서원이 있는 곳의 원래 병산 마을이다. 이 3개 마을을 합칭하여 병산리(屏山里)라고 한다. 위 인용문에서 ‘곡강상(曲江上)’에 어락정(魚樂亭)이 있다고 한 말 중에, ‘곡강(曲江)’은 강 명칭이 아니다. 그곳의 강 역시 낙동강이다. 정자골 마을의 위치가 화산(花山)의 계곡이 우뚝하게 들어간 곳에 위치해서 낙동강이 그곳에서 굽이돌아 흐르기에 ‘곡강(曲江)’이라 한 것이고, ‘상(上)’자는 명사 뒤에 붙어서 ‘강변’이라는 뜻을 나타낸다. 따라서 ‘곡강상(曲江上)’은 ‘강물이 굽이돌아 흐르는 강의 강변’이라는 뜻이 된다. 어락정의 원래 건물은 허물어져 없어지고, 약 200년 전에 안동 김씨(安東金氏)가 다시 건립하였으나 역시 허물어져 없어져서 근년에 새로이 건립하였다. 정자는 정자골 입구에 동향(東向)으로 지었으며, 건물은 정면 3칸 측면 1칸의 겹처마 팔작지붕으로, 중앙에 1칸의 마루를 두고 좌우에 각 1칸의 온돌방을 배치하였다. 전면에는 반칸의 퇴를 내어 마루로 꾸미고 난간을 달았다.(안동민속박물관에서 2004년에 간행한 『안동의 현판(懸板) · 어락정(魚樂亭)』 참조)

2) 팔월십사일 여백씨동등(八月十四日與伯氏同登: 8월 14일에 백씨와 함께 오르다) :

- ① 팔월십사일(八月十四日) : 경자년(庚子年: 1600년, 선조 33년, 서예 59세, 겸암 62세) 8월 14일을 가리킨다. 『겸암연보(謙菴年譜) · 경자년(庚子年) 8월(八月)』 조항에, “어락정을 탐방하다(訪魚樂亭). 정자는 화산花山의 동쪽기슭 아래에 있는데, 무인武人인 김세상이 지었다(亭在花山東麓下, 武人金世商所構). 김씨는 효행이 지극하였지만, 이미 작고하였다(金有孝行, 已歿). 선생은 동생인 문충공 文忠公 류성룡柳成龍과 함께 두루 감상하였다(先生與文忠公歷賞).”고 하였다.

3) 화산(花山) : 안동시 풍천면에 자리 잡은 화산은 하회마을의 주산(主山: 해발 271m)

이며 태백산을 종산(宗山)으로 하고 있는 산이다. 화산은 하회마을 뒤쪽에 위치하여 마을의 동북쪽을 수호하고 있다. 또한 남쪽은 낙동강[花川]을 사이에 두고 영양의 일월산(日月山)에서 그 맥이 흘러온 남산을 마주하고, 서쪽으로는 같은 일월산의 지맥인 원지산(遠志山)이 위치한다. 북쪽에는 강 건너 절벽처럼 우뚝 서서 하회마을을 내려다 보는 부용대(芙蓉臺)가 있다. 말하자면, 긴 타원 지형에 자리 잡은 마을을 낙동강이 감싸며 흘러가기 때문에 풍수지리학상에서는 태극형 자리 또는 산태극수태극(山太極水太極)이라고 한다. 이렇게 해서 물이 돌아나간다고 하여, ‘물돌이동’, 곧 ‘하회(河回)’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4) 낙수(洛水) : 낙동강(洛東江).

5) 김군세상(金君世商) : 김세상(金世商) 공(公).

① 김세상(金世商 : 1520~?) : 본관은 안동, 자는 열경(列卿), 호는 어락정(魚樂亭)이다. 그는 대사간(大司諫 : 사간원司諫院의 정3품 벼슬)을 역임한 김계행(金係行 : 1431~1517)의 손자로서, 이름난 효자였다고 한다. 그는 모친 타계후에 3년 동안 시묘(侍墓)하여 고을 사람들이 모두 그를 효자라고 칭송하였다 한다. 만년(晩年)에 안동부(安東府) 풍산현(豊山縣) 사지리(筭池里), 지금의 안동시 풍산읍 소산리(素山里)에 거처하였다. 그는 화산(花山)에 어락정을 지어놓고 낚시질하여 물고기 잡는 것을 일삼아 생활하고 유유자적하며 자내다가,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무인(武人)이었던 그는 구국일념으로 왜적 토벌에 동분서주하다가 행방불명이 되었다고 한다.

선생의 무덤이 전해오지 않아 정자에서 유생들이 모여 토론하여 결정하기를 제단을 마련하고 해마다 한 번씩 가을제사를 드리고 이어서 지금의 어락정 맞은편 산 남방에 제단을 마련하였다. 부인은 영천(永川) 이씨(李氏)이고, 부친은 훈도를 하신 수경(壽慶)이다.(안동김씨 세보世譜 수편首編 267쪽 참조)

② 군(君) : 고대 중국에서는 상대방에 대한 존칭으로 성씨나 성명 다음에 써서 존경을 표시하는데 썼다. 그러나 조선시대에는 친한 경우에는 주로 ‘자(字)’를 불렀고, 조금 소원한 경우에는 ‘군(君)’이라 호칭하였다. 다만, 현재 우리나라에서 쓰는 ‘군(君)’에 대한 호칭은 친구나 아랫사람을 친근하게 부르거나 이르는 말로 쓴다. 따라서 역자는 이 점을 고려하여, 본 시에서의 ‘군(郡)’을 존칭 ‘공(公)’으로 번역한다.

6) 절인(絶人) : (남을) 능가하다. (남보다) 뛰어나다. 남다르다.

7) 고인(古人) : ‘작고(作故)’

① 작고(作故) : 사람의 죽음을 높여 이르는 말)한 사람. 타계(他界)한 사람.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② 옛날 사람. 고대(古代) 사람.

8) 무폐(蕪廢) : 황폐하다.

① 무(蕪) : 잡초가 무성하다. 황폐하다.

9) 불승(不勝) : …을 참을 수 없다. 견디지 못하다.

10) 「겸암연보(謙菴年譜)」에도 겸암선생 62세, 경자년(庚子年 : 선조 33년, 1600년) 8월에, 서애선생과 함께 위의 ‘어락정(魚樂亭)’에 구경 갔다는 기록이 보인다.

11) 고정유재 주인망(孤亭猶在主人亡 : 외딴 정자 아직 있는데 주인은 이 세상에 없으니) :

- ① 고정(孤亭) : 외따로 서 있는 정자.
- ② 유(猶) : 부사로서, ‘아직도 여전하’의 뜻으로 쓰였다.
- 12) 운물창망 세월황(雲物蒼茫歲月荒) : 구름이 분주히 흘러간 듯 살았던 세월 공허하네) :
- ① 운물(雲物) :
 ☆운기(雲氣). 구름.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경물(景物 : 풍경). 경색(景色 : 경치).
 ☆구름의 색채.
- ② 창망(蒼茫) : ‘총망(惘忙)’
 ☆총망(惘忙 : 분주함, 황망함) : 본 시에서는 ‘구름이 총망하게 흘러가 자취 없음을 표현한 말로 쓰였다.
 ☆넓고 멀어서 푸르고 아득한 모양. 광활무변(廣闊無邊)한 모양.
 ☆모호불청(模糊不清)한 모양. 모호하여 명확하지 않는 모양. 흐릿하여 분명하지 않는 모양.
- ③ 세월(歲月) :
 ☆살아가는 세상(세월).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으며 ‘살았던 세상’을 가리키는 뜻으로 쓰였다.
 ☆흘러가는 시간. 세화(歲華). 연광(年光). 연화(年華).
 ☆지내는 형편이나 사정. 또는 그 재미.
- ④ 황(荒) : 공허하다. 헛되다.
- 13) 행경몰(行逕沒) : 통행하는 오솔길이 초목에 묻히다.
- ① 행경(行逕) : ‘행경(行徑)’으로도 쓴다. 통행하는 소로(小路).
- ② 몰(沒) : 몰(沒) : 소실(消失)되다. 사라지다. 없어지다. 은몰(隱沒)하다. 매몰(埋沒)하다.

시102. (어락정魚樂亭에서 돌아오던) 도중에 읊시 한
수를 또 읊다

詩102. 道中又吟一律¹⁾
도 중 우 음 일 율



巖亭一望盡南東²⁾,
엄 정 일 망 진 남 동

바위 옆 정자에서
잠시 남동쪽을 바라보다가,

試整危襟溯北風³⁾.
시 정 위 금 소 북 풍

우선 옷깃 여미고 북풍을
맞이하러 바람을 씌웠네.

高鳥暮雲秋色裏⁴⁾,
고 조 모 운 추 색 리

하늘 나는 새와 해질녘 구름에
추색秋色이 서렸고,

亂山紅樹夕陽中⁵⁾.
난 산 홍 수 석 양 중

이산 저산의 단풍나무 석양아래
을긋볼긋하네.

江流袞袞來無盡⁶⁾,
강 류 곤 곤 래 무 진

강물은 도도히 흘러와도 끝임이 없고,

世事茫茫去不窮⁷⁾.
세 사 망 망 거 불 궁

세상사는 망망하여 지나가도 끝이 없네.

何處牧童橫晚笛⁸⁾,
하 처 목 동 횡 만 적

어디선가 목동이 저물녘에
횡적橫笛을 부는데,

一聲寥亮散晴空⁹⁾。
일 성 요 량 산 청 공

한 가닥 청량한 음률이 창공에 흩어지네.

1) 일률(一律 : 율시 한 수) : 이는 한시(漢詩)의 시체(詩體)의 하나로, 본 시에서는 7언8구로 된 율시(律詩)이다.

① 일(一) : 한 수(首).

② 룰(律) : 율시(律詩) : 이는 중국 당(唐)나라 시대의 시체(詩體)로, ‘근체시(近體詩)’라고 칭하는데, 한 구(句)가 5언인 것은 5언율시(五言律詩), 7언인 것은 7언율시(七言律詩)라고 이름 한다.

2) 암정일망 진남동(巖亭一望盡南東 : 바위 옆 정자에서 잠시 동남쪽을 바라보다가) :

① 일망(一望) :

☆잠시 조망하다. 잠시 바라보다.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시력이 닿는 곳까지의 거리를 가리키는 말. 비교적 가까운 거리를 가리키기도 한다.

② 진남동(盡南東) : (시력이 미치는 곳까지의) 남동쪽 맨 끝.

☆진(盡) : ‘극(極 : 끝, 절정)’의 뜻으로 쓰였다.

3) 시정위금 소북풍(試整危襟遡北風 : 우선 옷깃 여미고 북풍 맞이하여 바람을 쐬었네) :

① 시정위금(試整危襟) : 우선 옷깃을 바로 잡는다.

☆시(試) : 부사로서, ‘우선. 잠시’의 뜻으로 쓰였다.

☆정위(整危) : 단정히 하다, (옷깃을) 바로 잡다.

a. 정(整) : 단정하게 하다.

b. 위(韋) : 바르게 하다. 단정히 하다.

☆금(襟) : 옷깃.

② 소북풍(遡北風) : 북풍의 맞바람을 쐬다. 북풍을 맞이하다.

☆소(遡) :

a. 마주하다. 향하다.

b. 맞이하다. (바람을) 쐬이다.

4) 고조모운 추색리(高鳥暮雲秋色裏 : 하늘을 나는 새와 해질녘 구름에 추색秋色이 서렸고) :

① 고조모운(高鳥暮雲) : 하늘을 나는 새와 해질녘의 구름.

☆고조(高鳥) : 하늘 높이 나는 새.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사신(使臣)을 비유한 말임.

☆모운(暮雲) : 저물녘의 구름.

② 추색(秋色) :

☆가을철의 경치. 기상(氣象).

☆오행(五行 : 우주나 인간의 모든 현상이 음陰과 양陽의 확장·소멸에 따라 결정된다고 생각한 사상)의 속성(屬性)에서 가을의 색채인 백색을 가리키는 말로도 쓰는데, 오행의 속성으로 보는 방위와 계절 및 색채는 아래와 같다:

	화(火)	수(水)	목(木)	금(金)	토(土)
방위	남쪽	북쪽	동쪽	서쪽	중앙
계절	여름	겨울	봄	가을	4계절
색채	적색赤色	흑색黑色	청색靑色	백색白色	황색黃色

③ 리(裏) :

☆일정한 구간·경계 안 쪽. 안. 속. 가운데. …내. 내부 등을 가리킨다.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조사(助詞)로서 구말(句末)에 쓰여 약간의 과장과 확인을 나타내며, ‘니(呢)’와 같은 뜻으로 쓰였다.

5) 난산홍수 석양중(亂山紅樹夕陽中 : 이산 저산의 단풍나무 석양아래 울긋불긋 하네)

① 난산(亂山) : 산줄기를 이루지 않고 높낮이가 고르지 아니하게 여기저기 어지러이 솟은 산. 난봉(亂峯)과 같은 말이다.

② 홍수(紅樹) :

☆가을에 단풍이 지는 나무.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시9」의 주석10)의

① ‘홍수(紅樹)’ 항목을 참조바람.

③ 중(中) : ‘…아래(속)’이라는 방위를 나타낸다. 자세한 것은 앞의 「시2」의 주석6) ‘중(中)’ 조항을 참조바람.

6) 강류 곤곤(江流 袞袞 : 강물이 도도하게 흐르다) :

① 강류(江流) :

☆강물.

☆강의 물살.

☆강류(江流).

☆하류(下流).

② 곤곤(袞袞) : 곤곤(滾滾) : 곤곤(滾滾) :

☆큰물이 (강물이) 세차게 흐르는 모양. 강물이 도도(滔滔) : 물이 그득 퍼져 흐르는 모양이 막힘이 없고 기운 참)히 흐른다.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곤의(袞衣 : 곤룡포(袞龍袍 : 옛날에 천자 입던 옷))에 수놓은 용이 꿈틀거리는 모양.

☆빙빙 돌면서 나뒹구는 모양.

☆청산유수처럼 막힘없이 말을 잘하다. 말이 술술 나오다.

☆끊임없이 이어지는 모양.

☆변잡하고 많은 모양.

☆진토(塵土)와 연무(煙霧)가 빈번하게 끼는 모양.

7) 세사망망 거불곤(世事茫茫去不窮 : 세상사는 망망하여 지나가도 끝이 없네) :

① 세사(世事) : 세상사, 시사(時事). 기타 자세한 뜻은 앞의 「시92」 주석8)의 ‘세사(世事)’ 조항을 참조바람.

② 망망(茫茫) :

☆변잡하다. 많다. 번잡하고 많다.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아득히 넓고 멀다. 광대하고 요활(寥闊 : 아득히 넓)하다.

☆모호하여 분명하지 않다. 묘망(渺茫)하다. 아득하다. 까맣다. 감감하다. 막

막(막연)하다.

☆무성(茂盛)하다.

③ 거불궁(去不窮): 지나가도 끝이 없다.

☆거(去):

a. 지나가다. 흘러가다.

☆불궁(不窮):

a. 끝이 없다. 다함이 없다. 최후가 없다. 최종이 없다.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b. 곤경에 빠지지 않다.

c. 정지하지 않다.

d. 불초(不肖)한 사람을 배척하거나 소원하게 대하다.

8) 횡만적(橫晩笛: 자물넉에 횡적橫笛을 불다):

① 횡적(橫笛): 가로로 불게 되어있는 피리. 7공(七孔)의 가로로 불게 되어 있는 피리를 말하는 것으로, 세로로 불게 되어 있는 피리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가로로 불게 되어 있는 관악기를 통틀어 ‘저’라고 하며, 이것을 상관(象管: 적笛: 피리), 적, 횡적 등으로도 일컫는다.

9) 일성요량 산청공(一聲寥亮散晴空: 한 가락 청량한 음률이 창공에 흩어지네):

① 일성(一聲):

☆한 가락의 소리.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한 마디의 말.

② 요량(寥亮): 높은 음성이 명량하게 울리는 모양.

시103. 청산 백운가

詩103. 靑山白雲歌¹⁾
 청 산 백 운 가



靑山都在白雲中²⁾,
 청 산 도 제 백 운 중

청산은 전체가 백운 속에 싸여 있다가,

白雲盡沒靑山顛³⁾。
 백 운 진 물 청 산颠

백운이 걷히면서
 청산의 정상頂上이 드러나네.

風吹不止雲卷舒⁴⁾,
 풍 취 부 지 운 권 서

바람이 멈추지 않으니
 구름은 말렸다 퍼졌다 하면서,

半在山頭半在天。
 반 제 산 두 반 제 천

절반은 산 정상에 걸쳐있고
 절반은 하늘에 떠 있네.

雲多變態山無語,
 운 다 변 태 산 무 어

구름은 모양을 자주 바꾸지만
 산은 말이 없는데,

相離未久還相連。
 상 리 미 구 환 상 연

(그 구름) 헤어진 지 오래지 않아
 다시 만나 서로 이어지네.

幽人無事⁵⁾不出門,
 유 인 무 사 불 출 문

은거인은 하는 일 없어
 문밖도 나가지 않고,

坐看雲山一喟然⁶⁾。
 좌 간 운 산 일 위 연

앉아서 구름과 산을 보면서

줄곧 한숨만 쉬네.

須臾日暮山色黑⁷⁾,
수 유 일 모 산 색 흑

어느덧 날 저물어 산색山色은 어두워지고,

綠樹雲深啼杜鵑⁸⁾.
녹 수 운 심 제 두 건

푸른 숲에 짙은 구름 끼니
두견새도 슬피 우네.

- 1) 청산백운가(靑山白雲歌) : 악부체의 편명인 ‘가(歌)’를 붙인 7언 악부시. 관련은 앞의 「시46」의 주석1)을 참조바람.
- 2) 백운중(白雲中) : ‘중(中)’자에 관련된 이해는 앞의 「시2」의 주석6)의 ‘중(中)’ 조항을 참조바람.
- 3) 청산전(靑山顛) : 청산의 정상(頂上). 본 시에서는 서술형으로 번역하였다.
① 전(顛) : 동명사(動名詞)로 쓰여, ‘꼭대기, 끝, 정상(頂上)’을 드러내다로 번역하였다.
- 4) 권서(卷舒) : 서권(舒卷) :
① (구름이나 연기 따위가) 모이고 흩어지다. 말렸다 퍼졌다.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전(轉)하여, ‘인사(人事)의 진퇴(進退)’를 가리키는 뜻으로도 쓴다.
② 출문(出門) : 외출하다. 문밖에 나간다.
- 5) 유인무사(幽人無事) : 은거자는 특별히 일을 만들어서 하는 일이 없다.
① 유인(幽人) : 은사(隱士). 은거하는 사람.
② 무사(無事) :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다. 아무 일도 하지 않다.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변고가 없다. 무사하다. 주로 전란이나 재난이 없는 것을 가리키는 말로 쓴다.
☆‘무위(無爲)’를 가리킨다. 도가(道家)에서, 자연에 순응하면서 인위적으로 다스리지 말 것을 주장하는 말이다.
☆…할 필요가 없다. 필요로 하지 않다.
☆무단(無端)히. 연고(緣故)가 없다.
- 6) 일위연(一喟然) : 줄곧 탄식하다. 줄곧 한숨 쉬다.
① 일(一) : 줄곧. 시종(始終). 연속해서. 끊임없이. 내내.
② 위연(喟然) : 한숨을 쉬다. 탄식하다.
- 7) 수유일모 산색흑(須臾日暮山色黑 : 어느덧 날 저물어 산색山色은 어두워지고) :
① 수유(須臾) :
☆어느덧. 어느 사이 인지도 모르는 동안에.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우유자득(優遊自得) : 우유자재優遊自在 : 속세를 떠나 아무 속박 없이 조용하고 편안하게 삶하다.
☆중용(從容)하다. 구연(荀延 : 구차하게 생명을 연장시킴)하다.
☆잠시. 잠깐사이. 단시간.
② 흑(黑) : 어둡다.
- 8) 녹수운심 제두건(綠樹雲深啼杜鵑 : 푸른 숲에 짙은 구름 끼니 두견새도 슬피 우네) :

- ① 녹수(綠樹) : 푸른 잎이 우거진 나무. 벽수(碧樹).
- ② 두견(杜鵑) : 두견새, 두견이. 두견과의 생. 편 날개의 길이는 15~17cm, 꽂지는 12~15cm, 부리는 2cm 정도이다. 등은 회갈색이고 배는 어두운 푸른빛이 나는 흰색에 검은 가로줄 무늬가 있다. 여름 새로 스스로 집을 짓지 않고 회파람새의 등지에 알을 낳아 회파람새가 새끼를 키우게 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앞의 「시 43」 주석7)의 ‘두견(杜鵑)’ 조항을 참조바람.



시104. 서극부徐克夫의 『명암록(鳴巖錄)』을 읽고 농 삼아 쓰다

詩104. 讀徐克夫鳴巖錄¹⁾ 戲書
독 서 극 부 명 암 록 희 서

幽居聞在萬山中²⁾, 은거한다는 소식 첩첩산중에서 들었는데,
유 거 문 제 만 산 중
滿壁圖書³⁾樂未窮。 벽 가득 쌓인 책 읽느라 즐거움 끝없겠네.
만 벽 도 서 락 미 궁
五斗興闌松菊老⁴⁾, 쌀 닷 말 녹봉의 관직에
오 두 흥 란 송 국 로
흥 가신 송국노인松菊老人,
只留猿鶴怨春風⁵⁾. 단지 원학猿鶴을 머물게 하고 싶어
지 유 원 학 원 춘 풍
춘풍을 원망했겠네.

1) 독 서극부 명암록(讀徐克夫鳴巖錄 : 서극부徐克夫의 명암록鳴巖錄을 읽다) :

① 서극부(徐克夫) : 극부(克夫) 서인원(徐仁元 : 1544~1604) : ‘극부(克夫)’는 서인원의 자(字)이다. 성씨 다음에 자나 호(號) 또는 직함을 쓰는 것은 경칭(敬稱)의 한 예이다.

☆서인원(徐仁元 : 1544~1604) : 이름은 인원(仁元), 자(字)는 극부(克夫), 호(號)는 명암(鳴巖). 본관은 이천(利川)이다. 단양(丹陽)·금화(金化)·부여(扶餘)·춘천(春川) 등지에 군현부목(郡縣府牧)을 두루 역임했으며 갑자사마시(甲子司馬試)에 급제하여 학행(學行)으로 이름이 났다. 임인년(壬寅年 : 1602년, 선조 35년)에 호조참의가 되고 원주부사를 거쳐서 그 이듬해인 계묘년(癸卯年 : 1603년)에 강원도 관찰사를 역임했다. 갑진년(甲辰年 : 1604년)에 벼슬을

그만두고 명암촌(鳴巖村)으로 퇴거하니 지금의 봉명면(鳳鳴面) 및 조양리(朝陽里)이다. 일찍이 춘천에 있을 때, 명암의 수석(水石)의 아름다움을 취하여 조그마한 정사(精舍)를 짓고 전약재(傳約齋)라고 현관을 부치고 학문을 깊이 연구하고 성리학(性理學)을 깨우치는 근원을 만들었다. 관직 생활 중에 청렴했으며 평소엔 인의(仁義)에 힘썼다고 한다.

- ② 『명암록(鳴巖錄)』: 연릉군(延陵君) 이호민(李好閔: 1553~1634)이 찬(撰)한 명암공(鳴巖公) 묘지(墓誌: 명암집鳴巖集에는 관찰사부군묘지觀察使府君墓誌로 되어있다. 이는 명암공에 대한 유일한 기록임)에 보이나 상세한 자료는 찾지 못했다. 연릉군 이호민은 입암(立巖) 류중영(柳仲郢)의 외종제(外從弟)이다. 관련 자료는 「시 135」의 주석1)의 ① 이호민 조항을 참조바람.

2) 유거문재 만산중(幽居間在萬山中: 은거한다는 소식 첩첩산중에서 들었는데):

① 유거(幽居):

- ☆은거(隱居)하면서 벼슬길로 나아가지 않다. 본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 ☆심거(深居): 집안에 있으면서 외부와 접촉을 하지 않음)하다.
- ☆외지고 조용한 곳의 거처.
- ☆묘실(墓室).

② 만산중(萬山中): 첩첩이 둘러싸인 깊은 산속. 첩첩산중.

- ☆만(萬): 극단적으로 ‘많은 것’을 표현한 말이다.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3) 도서(圖書):

- ① 서적(書籍).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 ② 도적(圖籍). 강역판도(疆域版圖)와 호적 등 장부(帳簿)를 가리킨다.
- ③ 하도낙서(河圖洛書)를 가리킨다. ‘하도(河圖)’는 복희씨(伏羲氏)때 황하(黃河)에서 길이 8척(尺)이 넘는 용마(龍馬)가 등에 지고 나왔다는 그림으로 주역(周易)의 팔괘(八卦)의 근원이 된 것이고, ‘낙서(洛書)’는 하우씨(夏禹氏)의 9년 치수(九年治水)때 낙수 강에서 나온 신귀(神龜)의 등에 있었다는 글로, 서경(書經) 중의 홍범구주(洪範九疇)의 기원이 된 것이다.
- ④ ‘도참(圖讖)’과 같은 말이다. 이것은 고대 방사(方士)나 유생(儒生) 등이 편집한 것으로, 제왕의 명에 부합하는 징험(徵驗)을 기록한 책인데, 은어(隱語)와 예언(預言)이 많아, 앞날의 길흉을 예언하는 술법으로 사용되었다. 진대(秦代)에 시작되어 동한(東漢) 시대에 많이 이용되었다.
- ⑤ 화책(畫冊): 화첩(畫帖).
- ⑥ 도장(圖章): 인장(印章).

4) 오두흥란 송국로(五斗興蘭松菊老: 쌀 닷 말 녹봉의 관직에 흥 가신 송국노인松菊老人):

- ① 오두(五斗): 오두미(五斗米): 『진서(晉書)·은일전(隱逸傳)·도잠편(陶潛篇)』에, “군수郡守가 독우(督郵: 감찰관. 송사訟事와 도망자 체포관한도 가졌음)를 파견하여 현縣에 이르게 되면서, 하급관리[縣令]는 공연히 속대(束帶: 관복官服: 감찰관을 가리킴)를 입은 상관을 응대하면서 찾아뵈어야 하게 되자, 도잠[陶潛: 도연명陶淵明: 365 혹은 376~427: 당시 팽택현彭澤縣의 현령이었음]은 탄식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쌀 닷 말을 위해서 허리를 굽혀가며, 성실진지하게 향리의 소인배를 모실 수는 없다’고 하고는, 의희 2년(義熙二年: 406년), 사직하고 현을 떠나갔다(郡

遣督郵至縣，吏白應東帶見之，陶潛曰：‘吾不能爲五斗米折腰，拳拳事鄉里小人邪’，解印去縣。”고 한 대목이 있다. 후에 사람들은 이 ‘오두미(五斗米：쌀 다섯 말)’란 말을 ‘박봉(薄俸)의 관봉(官俸：관원의 월급)’이란 뜻으로 사용하였다.

- ② 흥란(興闌)：흥진(興盡)：흥이 다하다(사라지다).

☆란(闌)：다하다, 끝나다.

- ③ 송국로(松菊老)：송국노인(松菊老人)：소나무와 국화처럼 지조가 굳은 늙은이. 본 시에서는 명암(鳴巖) 서인원(徐仁元)을 은유한 말로 쓰였다.

☆송국(松菊)：‘소나무와 국화’라는 뜻인데, 소나무와 국화는 서리가 내리고 추워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까닭에, ‘지조가 굳거나 지조가 굳은 사람’을 비유하는 말로 쓴다. 동진(東晉)의 시인 도잠(陶潛：도연명陶淵明)의 ‘귀거래사(歸去來兮辭：돌아가자)’에, “뜰 안의 세 갈래 오솔길은 황폐해졌으나, 소나무와 국화는 아직껏 남아있네(三逕就荒，松菊有存).”라고 읊은 구절이 있다. 또한 위 인용문에서 언급된 ‘송국(松菊)’이란 말과 연계하여, ‘소나무와 국화의 주인’이란 뜻의 ‘송국주인(松菊主人)’이란 말은 ‘은자(隱者)’를 비유한 말로 쓰고, ‘송국松菊과 연분을 맺다’는 의미의 ‘송국연(松菊緣)’이란 말은 ‘은거생활’을 가리키는 말로 쓴다.

- 5) 지류원학 원춘풍(只留猿鶴怨春風：단지 원학猿鶴을 머물게 하고 싶어 춘풍을 원망했겠네)：

- ① 지류원학(只留猿鶴)：원학(猿鶴)만 머물게 하다. 오로지 원숭이와 학만 곁에 두다

☆지(只)：단지. 다만. 오직.

☆류(留)：만류하다. 가까이 두다.

☆원학(猿鶴)：원숭이와 학(鶴). 『송사(宋史)·석양휴전(石揚休傳)』에 보면, “석양휴(石揚休：995~1057)는 일없이 한가하게 자내는 것을 좋아하였고, 평상시에는 원숭이와 학을 기르면서, 도서圖書를 감상하거나 시문詩文을 읊으며 자유롭게 지냈다(揚休 喜閑放，平居養猿鶴，玩圖書，吟詠自適).”라는 기록이 보인다. 이 말은 전(轉)하여, ‘은일지사(隱逸之士：벼슬하지 아니하고 은거하는 선비)’를 가리키는 말로도 쓴다.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 ② 원춘풍(怨春風)：춘풍을 원망하다.

※역주주석：원학(猿鶴)이 은사(隱士)를 비유한 말임은 앞의 주석에서 밝혔다. 또한 편 생각해보면, 학은 겨울철새이다. 봄이 오면 북으로 떠난다. 봄바람이 불면 학이 떠나기에, 춘풍을 원망하는 것이다. 즉 은사를 머물게 하고 싶은데, ‘춘풍’이란 ‘은택’이 주어지면, 은사가 떠나기에 그 은택을 원망한다는 말로 보인다. ‘춘풍’ 곧 사환(仕宦)의 길에 거리를 두는 것을 비유한 것으로 보인다.

☆원(怨)：원망하다. 전(轉)하여, 본 시에서, ‘싫어하다. 거리를 두다.’는 뜻으로 번역하였다.

☆춘풍(春風)：은택(澤)에 비유한 것으로, 본 시에서는 전(轉)하여, 입세(入世) 혹은 사환(仕宦)의 길을 내포한다.

시105. 가을 날 뜰에서 거닐며

詩105. 秋日步庭中¹⁾
추 일 보 정 중



葛屨²⁾行庭踏曉霜,
갈 구 행 정 답 효 상

춰 신 신고 뜰에 나가
 아침 서리 밟고 거닐자니,

竹籬茅舍日荒涼³⁾。
죽 리 모 사 일 황 량

대울타리 친 모옥茅屋 비추는
 해가 쓸쓸하네.

西林葉落寒聲盡⁴⁾,
서 림 엽 락 한 성 진

서림西林의 낙엽이 처량한
 소리 내며 지는데,

北岳雲橫晚勢長⁵⁾。
북 악 운 횡 만 세 장

북악北岳에 걸친 구름은 날 저물자
 길게 펼쳐지네.

吾道固然寧自怨⁶⁾,
오 도 고 연 영 자 원

내 도학道學이 본래 그렇거늘
 어찌 내 자신을 책망할 것이며

世紛如許爲誰忙⁷⁾。
세 분 여 허 위 수 망

세상사 분란紛亂 이와 같은데
 뭘 위해 서두를꼬?

閒來試欲歌商頌⁸⁾,
한 래 시 욱 가 상 송

평소에 『시경詩經·상송편商頌篇』을
 노래하고 싶었지만

金石遺音已杳茫⁹⁾
금 석 유 음 이 묘 망

그 시를 노래한 악곡은
이미 사라져서 막연하네.

1) 정중(庭中): 뜰 안. 뜰에서. 정원에서.

① 중(中): 앞의 「시2」의 주석6)의 ① ‘중(中)’조항을 참조바람.

2) 갈구(葛屨): 짚의 섬유로 만든 신으로 주로 여름에 신는다. ‘짚 신’으로 번역한다. ‘갈구이상(葛屨履霜: 서리 내리는 겨울에 신다)’이란 말이 있다. 짚 신은 값이 싸기 때문에 서리가 내리는 겨울에도 신는데, 이는 검소함이 지나쳐 인색한 일이라고 헐뜯는 말이다. 본 시에서 쓰인 ‘갈구(葛屨)’란 말은 검소함 그 자체를 표현한 말이라고 봐야한다.

① 갈(葛): 짚. 콩과에 속하는 낙엽만목(落葉蔓木)이다. 산야에 절로 나며, 줄기의 섬유는 갈포(葛布), 또는 노(실, 삼, 종이 따위를 가늘게 비벼거나 꼬아 만든 줄)의 원료가 되며 뿌리의 전분은 갈분(葛粉)이라 하여 식용한다.

② 구(屨): 신.

3) 죽리모사 일황량(竹籬茅舍日荒涼: 대울타리 친 모옥茅屋 비추는 해가 쓸쓸하네):

① 죽리모사(竹籬茅舍): 대울타리 친 모옥(茅屋).

☆죽리(竹籬): 죽책(竹柵). 대울타리(굵은 대나무를 쪼개서 걸어 만들거나, 대를 심어 이루어진 울타리). ‘대울’이라고도 한다.

☆모사(茅舍): 모옥(茅屋: 떠나 이영 따위로 자분을 인 초라한 집). 자기 집에 대한 겸칭으로도 쓴다.

② 일황량(日荒涼): 모옥을 비추는 해가 쓸쓸하다.

☆황량(荒涼):

a. 처량하다. 쓸쓸하다.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b. 황폐하다. 인가가 드물다.

4) 서림엽락 한성진(西林葉落寒聲盡: 서림西林의 낙엽이 처량한 소리 내며 지는데):

① 서림(西林): 하회마을 서쪽의 강 건너 원지산(遠志山) 산기슭의 수림(樹林)을 가리킨다.

② 한성진(寒聲盡): 처량한 소리 내며 (낙엽이) 지다.

☆한성(寒聲): 추운 겨울에 나는 소리로, 바람소리, 비소리, 새소리 등이 있다.

a. 한(寒): 추운 겨울에 나는 바람소리, 비소리, 새소리 등은 모두 처량한 분위기를 자아내므로, ‘처량한 소리[寒聲]’라고 한다.

☆진(盡): (낙엽이) 지다. 끝나다. 죽다.

5) 북악운횡 만세장(北岳雲橫晚勢長: 북악北岳에 걸친 구름은 날 저물자 길게 펼쳐 지네):

① 북악(北岳): 곧 하회마을의 북쪽 산정(山頂)으로 부용대(芙蓉臺)을 가리킨다.

② 세장(勢長): 구름의 형세가 길게 펼쳐지다.

☆장(長): 연장(延長)되다. 길어지다. 많다.

6) 오도고연 영자원(吾道固然寧自怨: 내 도학道學이 본래 그렇거늘 어찌 내 자신을

책망할 것이며) :

① 오도(吾道) :

☆나의 도학(道學). 본 시에서는 학설, 곧 도학(道學)의 뜻으로 쓰였다.

☆자기 행동이 의거하는 바.

☆성인(聖人)의 도(道), 곧 유학의 도를 이르는 말.

② 고연(固然) :

☆본래 그러하다.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사물의 자연형태를 가리킨다.

☆당연하다. 물론이다. 당연히 이와 같아야 한다.

☆부사로 쓸 때, ‘물론(당연히)…하겠지만. 비록 (설령) …일지라도’ 등의 뜻으로 쓴다.

③ 영자원(寧自怨) : 어떻게 자신을 책망(원망)할 수 있겠는가?

☆녕(寧) : 영…호(寧…乎) : 어찌 …하리오!

☆자원(自怨) : 자신을 책망하다.

7) 세분여허 위수망(世紛如許爲誰忙 : 세상사 분란紛亂 이와 같은데 뭘 위해 서두를 쪼?) :

① 세분(世紛) : 인간세상(세간世間)의 분란(紛亂 : 어수선하고 소란스러운). 세상의 어지러움.

② 여허(如許) :

☆이와 같다.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이와 같이 많은. 그렇게 많은.

☆알마나. 이런.

③ 위수망(爲誰忙) : 무엇을 향해 바빠 서두르겠는가? 누구를 위해 서두르겠는가?

☆위수(爲誰) :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a. 위(爲) :

④ 개사(介詞)로서, ‘…을 위하여’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⑤ 개사로서, ‘…을 향하여(에게)’.

b. 수(誰) : 무엇, 누구.

☆망(忙) : 바빠 서두르다. 급속하게 처리하다.

8) 한래시목 가상송(閒來試欲歌商頌 : 평소에 『시경(詩經) · 상송편(商頌篇)』을 노래하고 싶었지만) :

① 한래(閒來) : 한래(閒來)로도 쓰며, ‘평시(平時), 평소, 평상시’의 뜻이다.

② 상송(商頌) : 이는 상(商)의 노래가 아니고, 상(商)의 후예를 송(宋)에 봉(封)하였던 까닭에, 송나라 사람이 정리해낸 상조(商朝)의 송가(頌歌)로, 사실은 송의 제례가(祭禮歌)이다. 상송에는 탕왕(湯王) · 중종(中宗) · 고종(高宗)을 제사 지낸 4편의 시가 수록되어있다. 송나라는 지금의 하동군(河東郡) 및 강소(江蘇) 서북 일대에 위치했다.

☆상(商 : BC 1600~BC 1046) : 중국 고대의 왕조이다. 상(商)은 탕(湯)이 하(夏)를 멸하고 세운 나라로, 반경(盤庚)이 박(亳)에 도읍하여 국호를 은(殷)으로 고침. 고로 문헌에 따라 은(殷)이라는 명칭도 나타나서 한때는 국가의 명칭을 은(殷)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하지만 은은 상왕조의 마지막 수도일 뿐이며, 은

(殷)이라는 명칭은 상 왕조가 멸망한 뒤 주(周)에서 상의 주민들을 낮게 호칭하던 것에서 비롯된 것이다. 따라서 정확한 명칭은 상(商)이다.

하(夏)·상(商)·주(周) 3대의 왕조가 잇달아 중국 본토를 지배하였다고 하나, 전승되는 중국 최초의 왕조인 하왕조는 그 존재 자체가 아직 고고학적으로 입증되지 못했다. 다행히 상왕조는 20세기에 들어서 그 수도에 해당하는 은허(殷墟)의 발굴이 진행됨에 따라 적어도 그 후기에는 당시의 문화세계였던 화북(華北)에 군림하였던 실재(實在)의 왕조였음이 판명되었다. 따라서 상은 고고학적 연대를 확인할 수 있는 중국의 가장 오랜 국가이다. 상나라 전기는 기원전 1600년부터 1300년까지이고, 도읍을 은으로 바꾼 상나라 후기는 1300년부터 1046년까지이다.

☆**송(頌)**: 이는 주로 종묘(宗廟)와 관련된 내용을 다룬 천자(天子)의 예악(禮樂)으로, 선왕(先王)의 덕을 칭송하고 왕의 공업(功業)을 조상에 고하는 신곡(神曲) 내지는 전례악(典禮樂)이다.

****역주석**: 『장자(莊子)·양왕(讓王: 제왕의 자리를 사양한다는 뜻임)·치도망심지설(致道忘心之說)』에, “증자는 위衛나라에 살고 있었는데, 흰 솜을 넣은 낡은 옷을 입고 있었으며 그 거죽은 완전히 헤어져 너털너털했다(曾子*居衛, 緇袍無表. ……) (그러나 증자는 그런 것에 조금도 마음 쓰지 않고) 떨어진 신을 끌고 다니면서 고대의 찬가讚歌 ‘상송상頌’을 불렀다. 그 소리는 널리 천지에 충만하여, 마치 쇠붙이나 돌에서 나오는 듯 맑고 깨끗했다(絃絃而歌商頌. 聲滿天地, 若出金石). <이런 사람들은> 천자도 신하로 삼을 수가 없고, 제후도 벗으로 삼을 수가 없다(天子不得臣, 諸侯不得友). 왜냐하면, 뜻을 함양하는 사람은 그 신체의 안락함을 잊고, 신체를 평안히 유지하려는 사람은 물물의 이익을 잊기 때문이다(故養志者忘形, 養形者忘利). 도道を 연구하는 사람은 세속적인 욕망을 잊고 있는 것이다(致道者忘心矣).”라는 대목이 보인다. 증자의 이러한 우직함과 성실함을 공자도 『논어(論語)·선진(先進)』에서 평가하고 있다. 서애선생이 본 시에서 상송(商頌)을 노래하고 싶은 것도 증자의 이러한 경지와 교감된 것은 아닐까 생각된다.

***증자(曾子)**: 공자의 고제(高弟)로, 이름은 삼(參: BC 506~BC 436)이고, 자는 자여(子輿)이며, 산둥성(山東省)에서 출생하였다. 증점(曾點: 공자의 제자)의 아들이다. 그는 효심이 두텁고 내성궁행(內省躬行)에 힘썼으며, 노(魯)나라 지방에서 제자들의 교육에 주력하였다. 공자가 제자들을 모아 놓고 “나의 도는 하나로써 일관한다(吾道一以貫之).”고 말했을 때, 다른 제자들은 그 말의 참뜻을 몰랐으나, 증자는 ‘스승님의 도는 충서(忠恕)뿐입니다.’라고 해설하여 다른 제자들을 놀라게 하였다. 증자의 사상은 『증자(曾子)』 18편 가운데 10편이 『대대예기(大戴禮記)』에 남아 전하는데, 효(孝)와 신(信)을 도덕행위의 근본으로 한다. 그는 공자의 도를 계승하였으며, 그의 가르침은 공자의 손자 자사(子思)를 거쳐 맹자(孟子)에게 전해져 유교사상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공자·안자(顔子)·자사·맹자와 함께 동양 5성(五聖)으로 꼽힌다.

- 9) 금석유음 이묘망(金石遺音已杳茫: 그 시를 노래한 악곡은 이미 사라져서 막연하네):

① 금석(金石):

☆종경(鐘磬: 종과 경. ‘장’은 옥이나 돌로 만든 타악기의 한 종류) 같은 악기를 가리킨다. 종경을 울려서 나는 악성(樂聲)을 가리키기도 한다. 본 시에서는 악곡을 가리키는 뜻으로 쓰였다.

☆금[金: 쇠]과 미석(美石: 아름다운 돌). 사물의 견고함이나 강성(剛性), 또는 사람의 심지(心志)의 굳음과 충정(忠貞) 등을 비유하는 말로 자주 쓰인다.

☆고대에 금석(金石)에 새긴 문자, 즉 금석문(金石文)이나, 사적(史跡)을 후세에 전하기 위해 공덕(功德)의 기사를 새겨놓은 종(鐘)·정(鼎: 솥)·비(碑: 빗돌의 윗머리에 지붕모양을 만들어 얹은 것)·갈(碣: 비석의 머리 부분에 지붕모양을 얹지 않고 그냥 둥그스름하게 만든 비석) 같은 것을 가리키는 말.

☆고대에 금속이나 돌로 만든 병장기를 가리킨다.

☆고대의 단약(丹藥: 장생불사長生不死의 약)을 가리킨다.

② 유음(遺音):

☆끊어지지 않는 여음(餘音)을 이른다. 음악이나 시가(詩歌)가 극히 아름다운 것을 형용하는 말로 쓴다. 본 시에서는 시가를 가리키는 뜻으로 쓰였다.

☆남겨진 (남긴) 소리. 새가 지저귀고 갔거나 옥구슬이 부딪친 소리같이 여음이 남아있는 것은 아니지만 생각 속에 그 소리가 울리는 듯한 음향을 이른다.

☆전대(前代)에 전해 내려온 음악.

☆유언(遺言).

☆남겨놓은 편지나 소식 또는 기별을 이르는 말.

③ 묘망(杳茫):

☆묘망(渺茫). 아득하다. 까마득하다. 막연하다. 막막하다. 본 시에서 이 뜻으로 쓰였다.

☆미망(迷茫). 망망하다.



시106. 초봄에

詩106. 早春¹⁾
조 춘

春雲陰陰²⁾春雪飛, 봄에 구름 침침하게 끼면서 눈발이 날리니,
춘 운 음 음 춘 설 비

春寒惻惻春衫薄³⁾. 봄추위 오싹오싹 봄에 입는 홀옷이 얇으네.
춘 한 측 측 춘 삼 박

終朝無語守空堂⁴⁾, 진종일 말없이 적막한 서재에 머무는데,
종 조 무 어 수 공 당

所思天南又天北⁵⁾. 그리운 봄이 남에서 북으로 또 찾아 왔네.
소 사 천 남 우 천 북

山高水深千萬里, 산 높고 물 깊은 천만리 먼 길이건만,
산 고 수 심 천 만 리

一夜池塘⁶⁾春草碧. 하룻밤 새 연못 주변에는 봄풀이 푸르렀네.
일 야 지 당 춘 초 벽

1) 조춘(早春): 초봄. 이른 봄. 초춘.

2) 음음(陰陰):

① 덮어 가리다 또는 그런 모양.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으며, 하늘에 구름이 덮여 가려 흐린 모양을 형용한 말로 쓰였다.

② 유암(幽暗): 깊숙하고 어두침침한 모양.

③ (궁궐이) 심수(深邃: 깊숙하고 조용함)한 모양.

④ 은은(隱隱)하다. 은은(殷殷)하다. 미약하게 아픈 모양(예를 들면, ‘배가 살살 아프다(腹部隱隱作痛)’고 할 때의 ‘살살’로 형용하는 말을 가리킴)

3) 춘한측측 춘삼박(春寒惻惻春衫薄 : 봄추위 오싹오싹 봄에 입는 홑옷이 얇으네) :

① 측측(惻惻) :

☆한랭한 모양. 오싹오싹하다. 오슬오슬하다.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비통하다. 처량하다. 또는 그런 모양.

☆(태도·말씨가) 간절(간곡)하다.

② 춘삼박(春衫薄) : 봄에 입는 홑옷의 두께를 표현하였다.

☆춘삼(春衫) : 봄에 입는 홑옷.

☆박(薄) : 옷의 두께가 얇은 것을 표현하였다.

4) 종조무어 수공당(終朝無語守空堂 : 진종일 말없이 적막한 서재에 머무는데) :

① 종조(終朝) :

☆종일. 온종일. 진종일.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당나라 시인 두보(杜甫 : 712~770)의 시 「겨울날 이백李白을 그리워하며(冬日有懷李白)」에서, “적막한 서재에 앉아서, 진종일 홀로 그대를 생각하네(寂寞書齋裏, 終朝獨爾思).”라고 읊은 구절이 있다.

a. 조(朝) : ‘일(日)’과 같은 뜻으로 쓰였다.

☆새벽부터 조반을 먹을 때까지. 이른 아침. 아침동안.

② 수공당(守空堂) : 텅 비어 적막한 대청에 머물다.

☆수(守) : 머물다. 정류(停留)하다.

☆공당(空堂) : 텅 비어 적막한 대청.

5) 소사 천남우천북(所思天南又天北 : 그리운 봄이 남에서 북으로 또 찾아왔네) :

① 소사(所思) :

☆그리워하는 사람. 여기서는 봄을 대상으로 하여 그리워한다고 표현한 것이다. 중국 양(梁) 나라의 소명태자(昭明太子) 소통(蕭統: 501~531)이 엮은 시문집 『문선(文選)』에 수록된 고시19수(古詩十九首) 제6수(第六首), 「섬강채부용(涉江采芙蓉)」에, “난초 따다 누구에게 전해줄까, 그리운 사람은 먼 곳에 있다네(采之欲遺誰, 所思在遠道).”라는 표현이 보인다.

☆여러 가지 일에 관해 깊이 생각하고 근심하는 것.

☆생각하고 궁리하는 것.

② 천남우천북(天南又天北) : 봄이 남쪽에서 또 북쪽으로 찾아온다는 것을 서술한 것이다.

☆천남(天南) : 남방(南方).

☆천북(天北) : 북방(北方).

6) 지당(池塘) : 넓고 오목한 땅에 물이 괴어 있는 곳.



시107. 가을벌레가 모여드는 것을 시제詩題로 하여 쓰다

詩107. 題秋蟲集¹⁾
제 추 충 집

天地逢秋序²⁾,
천 지 봉 추 서

천지강산에 가을이 오고 나니,

微蟲亦有情³⁾.
미 충 역 유 정

미세한 벌레들도 정감을 자아내네.

自悲還自語⁴⁾,
자 비 환 자 어

저 스스로 슬피 울거나 그 자체의 말이지,

非爲動人聲。
비 위 동 인 성

사람을 감동시키기 위한 소리는 아닐세.

1) 제추충집(題秋蟲集): 가을벌레가 모여드는 것을 시제詩題로 하여 쓰다):

① 제(題): 제시(題詩): 일사(一事) 일물(一物)을 취하여 느낀 바를 토로하여 시구(詩句)로 써서 읊다.

② 추충집(秋蟲集): 가을벌레가 모여들다.

☆추충(秋蟲): 가을벌레. 가을철의 곤충.

☆집(集): 본의(本意)는 ‘모여들다’의 뜻이나, 본 시에서는 ‘모여서 읊다’는 뜻으로 쓰였다.

2) 봉추서(逢秋序): 가을철을 만나다. 가을이 되다.

① 봉(逢): 만나다. 영합하다. ...때가 되다.

② 추서(秋序): 가을철[秋季].

☆서(序): 계절.

3) 미충 역유정(微蟲亦有情: 미세한 벌레들도 정감을 자아내네):

① 미충(微蟲) : 미세한 곤충. 작은 벌레.

② 역유정(亦有情) : 또한 정(情)이 있다.

☆유정(有情) :

a. 정감을 불러일으키다(자아내다).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b. 정감이 있다.

c. 정의(情義 : 우정)가 있다.

d. 정취(情趣)가 있다.

e. 불교용어로서 범어(梵語) ‘사트바[sattva]’의 음역(音譯)이며, 옛날에는 ‘중생’이라 번역했다. 당(唐)나라 승려 현장(玄奘 : 602~664) 이후 새로운 해석으로 ‘유정(有情)’이라 한역(漢譯)했는데,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동물, 감정과 의식을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란 뜻이다.

4) 자비 환자어(自悲還自語 : 저 스스로 슬피 울거나 그 자체의 말이지) :

① 자비(自悲) : 스스로 슬피 울다.

☆자(自) : 부사로 쓰여, ‘직접. 자기 혼자 스스로’의 뜻을 지닌다.

② 환(還) :

☆접속사로, ‘아니면’이라는 뜻으로 쓰였다.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부사로, ‘아직도. 여전히. 더욱. 또’ 등의 뜻으로 쓰인다.

③ 자어(自語) : 곤충 자체의 말을 가리키는 것이다.



시108. 가을바람 앞의 국화

詩108. 風菊¹⁾
풍 국

養得數叢²⁾菊,
양 득 수 총 국

몇 무더기 국화를 심어 가꿨는데,

寒花³⁾晚欲開。
한 화 만 욕 개

한랭한 철에 피는 꽃이라
느지막이 피려하네.

狂風一夜急⁴⁾,
광 풍 일 야 급

어느 날 밤 세찬 바람 몰아치더니,

顛倒半蒼苔⁵⁾。
전 도 반 창 태

절반이 이끼를 덮치고 쓰러졌네.

1) 풍국(風菊 : 가을바람 앞의 국화) :

씨늘한 추풍(秋風)을 맞고도 꽃을 피우는 국화를 의미한다.

2) 수총(數叢) : 몇 무더기.

① 총(叢) : 아주 많이 모여 있는 상태를 형용하는 것으로 이를 일반적으로 ‘무더기’라고 칭한다.

3) 한화(寒花) : ‘한화(寒華)’라고도 쓴다.

① 한랭한 시절에 피는 꽃. 주로 국화를 가리킨다.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② 나뭇가지에 쌓인 눈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4) 광풍 일야급(狂風一夜急 : 어느 날 밤 세찬 바람 몰아치더니) :

① 광풍(狂風) : 세찬 바람. 맹렬한 바람.

② 일야급(一夜急) : 어느 날 밤에 바람이 거세게 불다.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일야(一夜) : 하룻밤. 어느 날 밤. 이렇게 해석할 때의 ‘일(一)’은 ‘어느, 어떤’

의 뜻이다.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급(急): 맹렬하다. 급박(질박)하다. (바람이) 거세게 불다.

5) 전도 반창태(顛倒半蒼苔: 절반이 이끼를 덮치고 쓰러졌네):

① 전도(顛倒):

☆엎어져서 넘어지다. (물체가) 쓰러지다.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상하·전후 또는 순서가 도치되다.

☆여러 차례 중복하다. (잠들지 못하고) 이리저리 뒤척이다. 엎치락뒤치락하다.

☆패망(敗亡)하다.

☆기울다. 경사지다.

☆(애모와 존경으로) 매혹되거나 정신이 팔린 것(반한 것)을 형용한 말.

☆착란(錯亂)하다. 혼란(昏亂)하다. 뒤섞여 어수선하다.

☆부사로, ‘오히려. 도리어’의 뜻으로 쓴다.

☆결말. 내막. 진상. 경위.

☆운명이 좋지 않음을 이르는 말.

② 반창태(半蒼苔): 절반이 푸른 이끼를 덮치다.

☆반(半): 절반(折半). 하나를 반으로 가른 것, 또는 그렇게 가른 반을 칭한다.

☆창태(蒼苔): 푸른 이끼. ‘태(苔)’는 이끼 혹은 선태(蘚苔: 관다발 조직이 발달되지 않은 식물을 통틀어 이르는 말)라고 칭한다.



시109. (세객說客) 우경虞卿을 읊다

詩109. 詠虞卿¹⁾

우경虞卿은 아마도 협객으로서의 의리를 아는 자였던 듯한데, (위魏나라 재상) 위제魏齊의 불행한 사변으로 인해서, (조趙나라) 재상의 인장까지 버리고 결국 곤경에 처했으니, 슬프구나!

虞卿 盖俠士²⁾ 之知義者 以魏齊之故³⁾ 棄相印⁴⁾ 卒以窮困 哀哉!
우 경 개 협 사 지 지 의 자 이 위 제 지 고 기 상 인 졸 이 궁 곤 애 재

白壁一雙如糞土⁵⁾,
백 벽 일 쌍 어 분 토

백옥 기락지 한 쌍은 썩은 흙과 마찬가지로,

黃金百鎰同瓦礫⁶⁾。
황 흙 백 일 동 와 렝

황금 이천 냥도 기와 조각이나
조각돌 같으네.

平生握手魏公子⁷⁾,
평 생 악 수 위 공 자

평소에 신분구별 않고
악수하며 사귀던 위공자魏公子라,

四海同心重膠漆⁸⁾。
사 해 동 심 중 교 칠

사방 각지서 한맘으로 모여
아교칠 같이 밀착됐다네.

人生榮辱亦偶然,
인 생 영 욱 역 우 인

인생의 영욕 또한 우연히 교차하니,

百年契分神明知⁹⁾。
백 년 계 분 신 명 지

평생 사귄 벗과의 교분交分은
천지신령만 안다네.

誰人置我俠士論¹⁰⁾, 누가 나를 두고 협객이라고 말하겠는가!
 수 인 지 아 협 사 론

勢利之交寧不悲¹¹⁾, 세력과 이득을 위한 교제가
 세 리 지 교 영 불 비 어찌 슬프지 않겠는가!

君不見¹²⁾, 그대는 들어보지 못했던가?
 군 불 견

孟嘗門中相印回¹³⁾, 맹상군孟嘗君 문중에서 재상 인장印章
 맹 상 문 중 상 인 회 회수해온 (맹상군열전孟嘗君列傳) 이야기를!

薛下游士多如簇¹⁴⁾, (맹상군孟嘗君의 봉읍封邑인) 설성薛城에는
 설 하 유 사 다 여 족 세객說客이 화살촉만큼 많았다네.

翩翩信陵非長者¹⁵⁾, 펄펄 날던 신릉군信陵君인데
 편 편 신 능 비 장 자 (백정白丁) 선배도 아니건만,

枉向屠門驚世目¹⁶⁾, 몸을 낮추어 푸줏간에 (함께) 가자
 왕 향 도 문 경 세 목 세인世人은 깜짝 놀랐다네.

1) 우경(虞卿: 생물년 미상): 우경(虞慶)이라고도 하고 오경(吳慶)이라고도 한다. 전국 시대(戰國時代) 사람으로 성은 우(虞)씨이고 이름은 실전(失傳)되었다. 유세(遊說: 전국시대에 책사策士들이 각국을 주유周遊하면서 통치자에게 해당국가 형세를 진술하고 정치·군사·외교방면의 주장을 제시하여 고관후록高官厚祿을 취득하였음)하는 선비였다. 조(趙)나라 효성왕(孝成王: ?~BC 245)을 유세하여 상경(上卿: 주나라 때의 관제官制로 재상宰相에 상당하는 벼슬 명칭)에 봉해진 까닭에 그를 우경(虞卿)이라 불렀다. 그는 조(趙)나라를 위주로 하여 각국이 합종(合縱)하여 진(秦)나라에 대항할 것을 주장하였다. 후에 위(魏)나라의 재상 위제(魏齊: ?~BC 265)를 구하기 위해서 재상의 인(印)을 버리고 위제와 함께 도망하였다가 대량(大梁: 전국시대 위나라 도읍지로, 지금의 하남성河南省 개봉시開封市 서북쪽임)에서 곤경에 처했다. 위제가 자진(自盡)하자 우경은 고통스러워하며 저서에 몰두하여 『우씨춘추(虞氏春秋)』를 남겼으나 지금은 실전되었다.(자세한 것은 『사기(史記)·평원군 우경열전(平原君虞卿列傳)』을 참조바람.)

2) 협사(俠士): 협객(俠客: 의협심이 있는 선비).

3) 이위제지고(以魏齊之故: <위나라 재상> 위제魏齊의 불행한 사변으로 인해서):

① 위제(魏齊: ?~BC 265): 전국시대(戰國時代) 위(魏)나라 공자(公子)로, 그는 위 소왕(魏昭王: ?~BC 277) 시대에 재상을 역임했던 인물이다. 위제는 당시에

위소왕의 명으로 제(齊)나라에 사신으로 갔던 중대부(中大夫) 수고(須賈: 생몰년 미상)라는 자의 보고 — 즉 그의 수행원이었던 범수(范雎: ?~약 BC 255)가 제나라의 양왕(襄王: ?~BC 265)으로부터 특별한 환대를 받았다는 것—을 듣고, 이에 크게 분노하여 범수를 홀대하였다가, 마침내 범수의 보복으로 재상의 직위마저 버리고 도망자 신세가 되어 자진하게 되는 인물이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서술해보면 다음과 같다. 이때 제나라 사신으로 갔던 수고는 제나라로부터 외교적인 회답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수개월을 머물렀었다. 그런데, 그의 수행원으로 갔던 범수는 오히려, 제 양왕(齊襄王: ?~BC 265)으로부터 환대를 받았다는 소문, 즉 제양왕이 범수가 언변이 뛰어나다는 소리를 듣고 그에게 황금 10근과 술과 쇠고기를 선물로 보냈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범수는 이를 거절하고 받지 않았는데, 수고(須賈)는 ‘범수가 위나라의 기밀을 제나라에 제공했기에 이런 예물을 받았으리라’고 추측하고 대노하였다. 범수를 미워하고 있던 수고(須賈)는 위나라에 돌아온 이후, 이 사실을 당시 재상이던 위제(魏齊)에게 보고하였다. 위제는 즉시 사인(舍人: 왕이나 공자公子 및 귀인貴人들의 잡무를 수행하던 벼슬)을 시켜 범수를 고문하여 갈비뼈와 이빨을 부러뜨렸다. 범수가 죽은 척하자 대자리로 말아 변소에 버려두었다. 취객들로 하여금 차례로 그에게 수변을 보게 하였다. 고의로 그를 모욕하여 후에 사람들로 하여금 경계시키기 위함이었다. 범수는 간수의 도움을 받아 범수가 죽었다고 보고를 하도록 한 뒤, 대자리에 싸인 상태에서 밖으로 빠져나와 변성명하고 숨어 있다가, 때마침 위나라에 온 진(秦)나라의 사신 왕계(王稽: ?~BC 255)의 도움을 받아 진(秦)나라로 도망칠 수 있었다. 그 후, 범수는 왕계의 추천을 받아 진소왕(秦昭王: 진소양왕秦昭襄王: BC 324~BC 251)에게 유세하여 진나라 재상이 되었다. 재상이 된 범수는 진나라의 강함을 믿고 위(魏)나라를 향하여 위제(魏齊)의 신병인도를 요청하였다. 이에 위제(魏齊)는 두려워하면서 조(趙)나라로 도망가서 평원군(平原君: 조승趙勝: ?~약 BC 251년: 조나라의 정치가. 조나라의 춘신군春申君 위(魏)나라의 신릉군信陵君 제(齊)나라의 맹상군孟嘗君과 더불어 전국시대 말기의 4공자로 불렸음)의 집에 숨어 있었다. 이에 진나라 왕이 또 조나라 왕에게 위제의 신병인도를 요구하자 조나라 왕이 두려워하여 평원군의 집을 포위하고 위제를 사로잡으려고 하였다. 그러자, 위제는 다시 도망가서 조(趙)나라 재상인 우경(虞卿)을 찾아가 몸을 의탁하고자 청했다. 우경은 조나라 왕이 끝까지 진나라를 설득하지 못할 것으로 알고 차라리 재상의 인장(印章)도 버리고 위제와 함께 도망을 쳐 위(魏)나라의 공자인 신릉군(信陵君: 성명은 무기無忌: ?~BC 244년)의 집으로 갔다. 신릉군의 도움을 받아 조나라로 도망치려 하였으나, 신릉군이 그들을 만나주지 않자, 위제는 수치스러워하면서 자살하였고, 조나라는 그의 수급(首級)을 진나라에 바쳤다. 우경도 이로 인하여 대량(大梁: 전국시대 위(魏)나라 도읍지. 지금의 하남성河南省 개봉시開封市 서북쪽)에서 고생하였다.(자세한 것은 『사기(史記)·범수채택열전(范雎蔡澤列傳)』을 참조바람)

- ② 고(故: 의외意外的의 불행한 사변(事變)): 위나라 중대부인 수고(須賈)가 위(魏)나라 재상이었던 위제(魏齊)에게 당시 제(齊)나라에서의 범수(范雎)의 환대(歡待)를 위(魏)나라 기밀을 알려준 대가라는 식으로 보고하자, 사인(舍人)을 시켜 그를 고문함으로써, 죽음을 가장하여 당시 위나라에 사신으로 온 왕계(王稽)의 도움을 받아 진(秦)나라로 도망갔다. 범수는 왕계의 추천으로 진왕을 유세하여 진

나라에서 재상의 인장을 차게 되자, 범수는 진나라의 강함을 믿고 진왕에게 위제의 신병을 진나라로 인도하도록 요청하여, 이에 압박을 받은 위제는 결국 조나라 공자 평원군의 집에 숨어 지내다가 조왕이 군사를 풀어 그를 사로잡으려고 하자, 조나라 재상이었던 우경에게 찾아가 몸을 의탁하고자 청하였다. 당시 우경은 조나라가 진나라를 설득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위제와 함께 조나라를 도망쳐서 위나라 신릉군을 찾아가 그를 통해 초나라로 도피하고자 했으나 신릉군의 거절로 위제는 자결을 하였던 변고가 발생하였다. 이에 우경은 재상의 인장을 포기하고 곤경에 처하게 되었다. 위의 시제(詩題)에서 말하는 변고[以魏齊之故]는 바로 이를 두고 하는 말이다. 말하자면, 범수(范雎)의 위제(魏齊)를 향한 반격(反擊)이 우경(虞卿)까지 곤경에 처하도록 한 사건을 가리킨다.

4) 기상인(棄相印 : 재상의 인장을 버리다) :

조(趙)나라의 상경(上卿)인 우경(虞卿)이 당시 조(趙)나라의 재상의 자리에 있으면서, 위(魏)나라의 재상이었던 위제(魏齊)의 신병(身柄)을 진(秦)나라로 넘기라는 압박을 받고, 조(趙)나라에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간파하자, 마침내 도망자 위제와 함께 행동을 같이 하고자 그의 재상의 인장을 버리게 된 것을 말하는 것이다. 우경은 이 사태로 인해 곤경에 처하게 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위의 주석3)의 ‘위제(魏齊)’ 조항을 참조바람.

① 기(棄) : 버리다. 포기하다.

② 상인(相印) : 재상의 인장.

5) 백벽일쌍 여분토(白壁一雙如糞土 : 백옥 가락지 한 쌍은 썩은 흙과 마찬가지로) :

① 백벽(白壁) : (옛날의 엽전처럼) 평원형(平圓形 : 둥글고 납작한 모양)이면서 중간에 구멍이 뚫린 백옥(白玉). 전(轉)하여 귀중한 물건에 비유하기도 한다. 본 시에서는 백옥 가락지를 가리키는 뜻으로 쓰였다.

② 분토(糞土) :

☆썩은 흙, 더러운 흙.

☆비열하고 초라한 사물에 비유하는 말.

☆열악한 환경을 형용하는 말로 감옥을 가리킨다.

6) 황금백일 동외력(黃金百鎰同瓦礫 : 황금 이 천 냥도 기와조각이나 조각돌 같으니) :

① 백일(百鎰) : 백일(百溢)로도 쓴다. 백일은 이전 냥으로 화폐가 극히 많음을 형용한 말이다.

☆일(鎰) : 일(溢) : 고대에 황금의 무게를 다는 중량단위로서, 스무 냥[兩] 혹은 스물 냥을 1일(一鎰)이라고 했다.

② 외력(瓦礫) : 깨진 기와조각과 조각돌. 전(轉)하여 쓸모없는 물건을 형용한 말이다.

☆와(瓦) : 기와. ‘외력(瓦礫)’이란 용어에서는 ‘깨진 기와조각’을 가리키는 말로 쓰인다.

☆력(礫) : 조각돌. 자갈.

7) 평생악수 위공자(平生握手魏公子 : 평소에 신분구별 않고 악수하며 사귀던 위공자(魏公子)라) :

① 평생악수(平生握手) : 평소에 신분에 차별을 두지 않고 사귀다.

☆평생(平生) : 평소.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악수(握手): 손을 잡다. 악수하다. 고대에는 이별하거나 만날 때, 혹은 어떤 일을 부탁할 때, 손을 맞잡고 친근감이나 신임을 표시했다. 지금은 인사·감사·친애·화해·위문·축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 두 사람이 각자 한 손을 마주 내어 잡는다. 본 시에서는 ‘신분 구별 없이 사귀는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쓰였다.

② 위공자(魏公子): 신릉군(信陵君) 무기(無忌)를 가리킨다.

☆신릉군(信陵君): 위(魏)나라의 공자 무기(無忌: ?~BC 244)는 위 소왕(魏昭王: ?~BC 277)의 막내아들이며, 위안희왕(魏安釐王: ?~BC 242)의 이복동생이다. 소왕이 죽고 안희왕(安釐王)이 즉위하자, 공자를 봉하여 신릉군(信陵君)이라고 하였다. 그는 사람됨이 어질어 선비를 존중했고, 식객(食客)이 3000명이었다. 대량(大梁: 전국시대(戰國時代) 위(魏)나라 도성(都城)으로 지금의 하남성(河南省) 개봉시(開封市) 서북쪽에 위치함) 이문(夷門: 대량성大梁城에 20개의 성문이 있는데 그 중 동문東門을 이문夷門이라고 하였음)의 문지기 후영(侯嬴: ?~BC 257: 위나라의 은사隱士)은 늙었지만 현명하였다. 위공자는 후영이 홀룡하다는 소문을 듣고 그를 초빙하려고 후한 재물을 보내려 하였으나, 후영은 그것을 받지 않았다. 그래서 공자는 술자리를 크게 베풀고 빈객들을 모았다. 자리가 정해지자 신릉군은 몸소 수레를 몰고 가서 왼쪽 자리를 비워둔 채(고대에 수레를 탈 때는 왼쪽 자리를 귀하게 여겼음. 신릉군은 존경의 뜻을 표시하기 위해 자신은 오른쪽에 앉아 말을 끌고, 왼쪽 자리는 후영을 위해서 비워두었던 것임) 스스로 이문(夷門)의 후생(侯生: 후영侯嬴을 가리킴. ‘생(生)’은 ‘선생先生’의 약칭임. 당시에 ‘생(生)’은 선비에 대한 통칭이었음)을 모시러 갔다. 후생이 다 떨어진 의관을 정제하고 바로 수레에 올라 공자보다 상석에 앉으면서도 사양하지 않은 것은 공자를 살펴보고자 함이었다. 공자는 말고삐를 잡고 더욱 공손하게 대하였다. 후생이 또 공자에게 말하기를, ‘신에게는 시장 푸줏간에 백정(白丁) 친구 하나가 있는데 수레를 끌고 그곳을 지나갔으면 합니다’라고 하였다. 공자가 수레를 끌고 시장으로 들어가니, 후생이 수레에서 내려 그의 친구 주해(朱亥: ?~BC 257: 은사隱士로서 백정으로 생계를 유지하다가 훗날 진나라가 조나라를 침략하자 조나라는 위공자에게 구원을 요청했는데, 위왕이 거절하자 왕의 총회와 결탁하여 인부印符를 훔쳐 위공자를 도와 조나라를 구원하였음)를 만나 일부러 오랫동안 서서 그와 이야기 하다가 결노질해가며 가만히 공자를 관찰했다. 공자의 안색은 더욱 온화하였다. 이때 집에서는 빈객들이 위공자를 기다리고 있었다. 후생은 공자의 안색이 끝까지 변하지 않는 것을 보고 친구와 이별하고 수레에 올랐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후생을 상석(上席)에 앉혔다. 그리고 후생을 빈객들에게 소개하니 빈객들이 모두 놀랐다. 위(魏) 안희왕(魏安釐王) 20년(BC 256년) 진(秦) 나라가 군대를 진격시켜 조(趙)나라의 도성 한단(邯鄲: 지금의 하북성河北省 한단시邯鄲市)을 포위하자, 조나라는 위나라에 구원을 요청하였다. 신릉군은 후영의 계책을 따라서 왕의 총애를 받고 있던 여희(如姬)로 하여금 병부(兵符: 군사상 사용하는 부절符節. 뒷면에는 글이 새겨져 있으며 두 쪽으로 나누어 오른쪽 절반을 조정에서 보관하고 신하에게 주었음. 군대를 일으킬 때는 반드시 사신으로 하여금 부절을 합치게 한 연후에야 비로소 그 효력을 발령할 수 있었음)를 훔치게 하여 장군 진비(晉鄙: ?~BC 257)를 격살하고 병권(兵權)을 탈취하여 진군(秦軍)을 물리치고 조나라를 구하였다. 후에

신릉군은 조나라에 10년을 머물러 있다가 위나라에 귀국한 뒤, 5국(五國)의 군대를 거느리고 진군(秦軍)을 격파한 다음, 함곡관(函谷關: 지금의 하남성河南省 보현縣縣境에 위치했음)까지 진격하였다. 그 뒤, 진나라의 공작으로 위나라 왕에게 신릉군을 참언한 결과 위왕(魏王)에게 버림받은 무기(無忌)는 청병하고 조정에 나가지 않았다.(자세한 내용은 『사기(史記)·위공자열전(魏公子列傳)』 참조바람)

8) 사해동심 중교칠(四海同心重膠漆: 사방각지서 한맘으로 모여 아교칠 같이 밀착됐네):

① 사해동심(四海同心: 사방 각지에서 한마음으로 모이다):

☆사해(四海): 고대의 중국 사람들은 중국의 사방경계는 바다로 둘러싸였다고 생각해서, 방위별로 동해·서해·남해 및 북해로 불렀지만, 시대에 따라 이 ‘사해(四海)’에 대한 견해가 일치하지 않았다. 『서경(書經)·익직편(益稷篇)』에서는 “내가(우임금 자신을 가리키는 말) 구주九州의 산천 상황을 판단하여 하천수가 사해로 흘러들어가도록 하리라(予決九州, 距四海).”고 한 대목이 있는데, 이는 중국의 사방에 바다가 있다는 생각에서 한 말이다. 『맹자(孟子)고자장구(告子章句)』에서는 “우임금의 수해(水害)를 다스리는 방법은 물의 본성에 따라 행한 것이다(禹之治水, 水之道也). 그래서 우임금은 물을 사해로 흘러들어가도록 했던 것이다(是故禹以四海爲壑).”고 한 대목이 있다. 여기서의 학(壑)은 본래 ‘굴짜기, 계곡, 즉 구학(溝壑)’의 뜻이다. 그러나 여기서는 그 뜻을 확대해석해야 하는 까닭에 주희(朱熹: 1130~1200)도 집주(集註)에서 “‘학(壑)’은 물을 받아드릴 수 있는 곳이란 뜻이다(壑, 受水處也).”고 했던 것이다. 따라서 『맹자』에서 쓰인 ‘사해(四海)’는 ‘강물의 흐름을 받아들일 수 있는 곳’이지, ‘중국 사방에 위치하는 바다’가 아닌 것이다. 또한 서한(西漢)의 회남왕(淮南王) 유안(劉安: BC 179~BC 122)이 편찬한 철학서 『회남왕(淮南王)·속진훈편(叔眞訓篇: 우주태초의 혼돈속의 질박하면서도 아름다운 상태, 즉 도道의 진면목을 논한 이론편)』에, “그들의(성인聖人과 현인賢人을 가리킴) 신령이 여산驪山과 태행산太行山을 지나가도 가로 막히지 않고, 사해[바다]와 구강九江[강] 물속에 날아들어 가도 물에 젖지 않는다(神經於驪山太行而不能難, 入於四海九江而不能濡).”고 한 대목이 있다. 이 글에서의 ‘사해(四海)’는 특정한 사방의 바다가 아닌 보통명사의 ‘바다’란 뜻으로 쓰였고, ‘구강(九江)’은 ‘모든 강’을 가리킨다.

a. ‘천하·사방각지·전국각처’와 같은 말.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서경(書經)·대우모편(大禹謨篇)』에, “문덕(文德: 예악禮樂의 교화·학문의 덕)과 교명(敎命: 교령敎令)을 사해(四海: 전국·천하)에 베풀었다고 할 것이니, 요순임금에게 경건히 이어받으셨다(文命敷于四海, 祗承于帝).”고 한 대목이 있다.

b. 중국의 사방에 인접한 국가의 각 민족이 거주하는 지역을 가리키는 말.

c. 사람의 기백이 대담하고 성정(性情)이 호쾌하여 교류가 광범한 것을 비유한 말.

☆동심(同心): 마음을 함께 하다.

② 중교칠(重膠漆: 천하가 모두 한 마음에서 나온 듯하여 그 끈끈한 친밀함이 마

치 아교(阿膠)와 칠(漆) 같은 것으로 접착시킨 것과 같다.

☆중(重): 무엇이 겹쳤거나 둘이 합쳤음을 뜻한다. 전(轉)하여, 양물(兩物)이 밀착된 상태를 형용하는 뜻으로 쓰였다.

☆교칠(膠漆): 아교(阿膠)와 칠(漆). 두 가지 다 물건을 접착시키는 것이다.

a. 사물의 견고한 결합을 비유한 말이다.

b. 정의(情誼)가 아주 깊고 대단히 친밀한 사이임을 비유한 말.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9) 백년계분 신명지(百年契分神明知: 평생 사귀 벗과의 교분은 천지신명만 안다네):

① 백년(百年): 일생. 종신.

② 계분(契分):

☆우정. 우의. 정분(情分). 교분(交分).

☆연분과 같은 말.

③ 신명(神明):

☆천지간의 일체 신령(神靈)의 총칭.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현명하기가 신과 같다.

☆사람의 정신을 이르는 말.

☆신성(神聖)하다. 성스럽다. (인격이) 고결하다. 고상하다. 출중하다.

☆한무제(漢武帝)가 건축한 대(臺)의 명칭. 건장궁(建章宮)내에 있는데, 선인(仙人)에게 제사를 지내는 곳이다.

10) 수인치아 협사론(誰人置我俠士論: 누가 나를 놓고 협객이라고 말하겠는가):

① 수인(誰人): 어떤 사람. 누가. 하인(何人).

② 치아협사론(置我俠士論): 나를 협사의 입장에 두고 말하다.

☆치(置): 두다. 놓다.

☆론(論): 말하다. 서설(敍說)하다.

11) 세리지고 영불비(勢利之交寧不悲: 세력과 이득을 위한 교제 어찌 슬프지 않겠는가!):

① 세리지고(勢利之交): 권세와 재리(財利)를 목적으로 하거나 이용하여 행하는 교제.

☆세리(勢利):

a. 권세와 재리(財利).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b. 형세가 유리함을 이르는 말.

c. 지위나 재산 등을 기준으로 사람을 대하는 나쁜 언동이나 풍조

② 영불(寧不): 어찌 ...하지 않겠는가?

12) 군불견(君不見: 그대는 들어보지 못했는가? 그대는 읽어 보지 못했는가?):

주로 약부시의 첫머리에 반문구(反問句)로 잘 쓰이는 상투어로, 불특정 다수를 향해, 반문하는 것으로 듣는 이의 건문, 경험, 지식 등을 환기시키는 반어적인 어투이다. 본 시에서는 절어구를 환기시켜 본 시의 주제(主題)를 응집시키는 작용을 하고 있다. 본 시에서는 『사기(史記)·맹상군열전(孟嘗君列傳)』을 읽어보거나 그 이야기를 들어보지 못했는가? 를 반문하는 뜻으로 쓰였다. 관련된 내용은 아래의 주석13)의 ① ‘맹상문중(孟嘗門中)’ 조항을 참조바람.

① 군(君): 경사(敬詞)로서 상대방에 대한 존칭으로 쓰는 말이다. ‘당신. 그대’의 뜻

으로 성씨나 이름 뒤에 쓰기도 한다.

② 불견(不見):

☆들어보지 못했던가?

a. 견(見): 듣다.

☆읽어보지 못했던가?

a. 견(見): (책이나 글을) 읽어보다.

본 시에서는 위의 두 가지 뜻 중에 그 어느 뜻을 취하여 해석하더라도 의미가 통순 된다.

- 13) 맹상문중 상인회(孟嘗門中相印回: 맹상군孟嘗君 문중에서 재상 인장인印章 회수해 온 <맹상군열전孟嘗君列傳> 이야기들!):

① 맹상문중(孟嘗門中): 맹상군 문중의 세객 풍환(馮驩)의 활약:

제(齊)나라의 민왕(閔王: ?~BC 284)은 진(秦)나라와 초(楚)나라가 산포한 유언 비어에 현혹되어 맹상군의 명성이 자기의 명성보다 높고 제나라의 권력을 제 마 음대로 휘두른다고 여기고 마침내 맹상군을 파면시켰다. 빈객들도 모두 떠나갔다. 이때 빈객 중의 한 사람인 풍환(馮驩: 생몰년 미상)이 말하기를, ‘저에게 진(秦)나라에 타고 들어갈 수 있는 수레 한 대를 주시면 반드시 선생께서 제(齊)나라에 중용(重用)되게 하고 선생의 봉읍(封邑)이 더욱 넓어지도록 하겠습니까.’고 하였다. 맹상군이 수레와 여비를 준비하여 보냈더니, 풍환은 마침내 서쪽으로 가서 진나라 왕에게 유세하였다. ‘제나라로 가는 모든 세객(說客)들은 제나라를 천하제일의 강국으로 만들려고, 진나라로 향하는 천하의 세객들은 모두 진나라를 천하제일의 강국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진(秦)·제(齊) 양대 강국은 필히 자웅을 겨루어야 할 입장에 처했고, 그 중 승자가 천하를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고 하는 내용으로 말하니, 진왕(秦王)이 ‘어떻게 하면 승자가 되겠소?’라고 물었다. 풍환이 ‘지금 제나라가 맹상군을 파면시킨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라고 되묻자 진왕은 알고 있다고 했다. 그러자 풍환이 말했다. ‘천하에서 제나라를 각국으로부터 가장 중시 받게 한 사람은 맹상군입니다. 그런데도 제나라가 그를 파면시켰으니 그는 마음속에 원한을 갖고 있을 것이며 제나라를 버릴 것입니다. 이런 맹상군을 진나라가 받아들인다면 모든 제나라의 실정(實情)을 알아서 파악하게 되니 승자가 될 것입니다. 왕께서는 빨리 예를 갖추어 맹상군을 맞이하시고 시기를 놓치지 마십시오.’라는 뜻을 고하니, 진왕은 크게 기뻐하며 수레 열대를 비롯해서 황금 100일(鎰)까지 보내 맹상군을 맞이하게 하였다. 풍환은 진왕과 하직하고 진나라의 사자보다 먼저 제나라에 도착하여 제나라의 민왕(閔王)에게 유세하였다. ‘수레를 몰고 동쪽으로 와서 제나라에 입국하는 모든 세객들은 하나같이 제나라를 진나라보다 강한 나라로 만들려고 합니다. 양대 강국이 자웅을 다투는 지금의 입장에서, 만약 진나라가 강해지면 제나라는 약하게 되니 승패는 분명해집니다. 지금 제가 들으니 진나라에서 사자를 보내 수레 10대에 황금 100일(鎰)을 싣고 맹상군을 맞이하게 하였다고 합니다. 만약 맹상군이 진 나라로 간다면 제 나라는 패자(敗者)가 될 것이 분명한즉, 왕께서는 진나라의 사자가 도착하기 전에 맹상군을 재 등용하시고 봉읍을 더 넓혀 주어서 그에게 사과하신다면 맹상군은 받아들일 것입니다.’는 뜻으로 고하니, 제의 민왕은 그 말에 동의하고, 아랫사람을 시켜 국경에 가서 진나라 사자 일행의 정황을 확인하게 하였다. 진나라 사자의 수

제가 제나라에 입국하려 하자, 민왕이 보낸 사자가 급히 돌아와서 보고하니, 제 민왕은 맹상군을 불러 재상의 지위를 회복시켰고, 옛 봉읍을 돌려주는 동시에 천호(千戶)를 더 하였다. 진나라의 사자는 맹상군이 다시 제나라의 재상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수레를 되돌려 돌아갔다. 이상의 줄거리가 본 시에서 읊은 ‘맹상군 문중의 세객이 재상의 인장을 회수해오다(孟嘗君門中相印回)’는 역사적 내용이다.(자세한 내용은 『사기(史記)·맹상군열전(孟嘗君列傳)』을 참조바람)

☆맹상군(孟嘗君 : ?~약 BC 279) : 성명은 전문(田文), 전국시대(戰國時代) 제(齊)나라의 공족(公族)이다. 전영(田嬰 : 약 BC 376~BC 309)의 아들이고, 부친의 봉작(封爵)을 이어받아 설공(薛公)으로 불리며, 제나라의 재상을 역임했다. 그는 봉지(封地) 설(薛 : 지금의 산둥성山東省 등현滕縣 동남 50리에 설성薛城의 옛터가 있음)땅에서 천하의 선비들을 초치(招致)하여 식객(食客)이 항상 수 천 명이었으며, 제후들에게 명성을 떨쳐 전국시대 말기의 4공자(四公子) 중의 한 사람이 되었으며, 위로는 군왕의 전적인 신임을 받고 아래로는 국정(國政)의 전권(專權)을 행사했다. 진소왕(秦昭王 : BC 324~BC 251)이 맹상군이 어질다는 소문을 듣고 먼저 경양군(涇陽君 : 진소왕의 동생)을 제나라에 인질로 보내놓고 맹상군을 초청하였다. 맹상군을 재상으로 삼으려고 했다. 그러자 신하들은 ‘맹상군이 어질다고는 하나 제나라의 왕족인데, 그는 반드시 제나라를 먼저 생각하고 진나라를 나중에 생각할 것이니, 그렇게 되면 진나라는 위태로워질 것이다’는 진언에 진소왕도 마음을 바꾸어 맹상군을 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모의했다. 맹상군은 동행한 식객을 시켜 소왕(昭王)이 총애하는 첩을 만나서 풀어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 애첩은 담례로 흰여우 가죽으로 만든 옷을 요구했다. 천금이나 되는 그 귀한 옷은 이미 소왕에게 바쳤던 터였다. 그 때 맹상군의 식객 중에 도적 출신의 인사가 있어 궁중창고에 숨어들어가 그 옷을 훔쳐낸 다음, 애첩에게 몰래 바치고 맹상군은 풀려날 수 있었다. 그리하여, 밤새 말을 몰아 함곡관(函谷關)에 도착했으나, 관법(關法)으로 새벽닭이 울어야 통행이 가능했다. 추격군이 쫓아오는데 당혹스러웠던 차에, 식객 중에 닭 울음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이 있어, 그의 도움으로 관을 빠져 나왔다. 추격군이 당도했으나 맹상군의 일행은 이미 관을 탈출한 뒤였다. 제의 민왕은 맹상군의 세력이 두려워 그를 제거하려고 했다. 이에 맹상군은 위(魏)나라로 피신했고, 마침내 위나라의 재상이 되었다. 민왕 7년(BC 294년)에, 위나라는 진(秦)·조(趙)·연(燕)과 연합하여 제 나라를 격파하였다. 제(齊)의 양왕(襄王 : ?~BC 265 : 성명은 전법장田法章 : 제민왕의 아들)이 새로 즉위하자, 맹상군은 그와 화친하고 봉지(封地) 설(薛) 땅에 머물며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였다. 맹상군이 죽은 후, 그 아들들이 서로 다투는 사이, 제나라와 위나라가 설(薛)을 멸망시켰다. 맹상군은 후사(後嗣)가 없어져 후대가 끊겼다.

② 상인회(相印回 : 재상의 인장을 회수해 오다) :

위의 맹상문중(孟嘗門中) 조항을 참조바람.

14) 설하유사 다여족(薛下游士多如族 : <맹상군孟嘗君의 봉읍封邑인> 설성薛城에는 세객說客이 화살촉만큼 많았다네) :

① 설하(薛下) : 설성(薛城)에.

☆설(薛) : 원래는 주(周)나라 초기에 분봉(分封)한 제후국 중의 하나였으나, 전

국시대에는 제(齊)나라의 영지(領地)가 되었다. 지금의 산둥성(山東省) 등현(滕縣) 동남 50리에 설성(薛城)의 옛터가 있다. 맹상군의 봉지(封地)임. 위의 주석13)의 ‘맹상문중(孟嘗門中)’ 조항을 참조바람.

☆하(下): 명사 뒤에 써서 일정한 장소나 범위 또는 시간을 표시한다.

② 유사(游士): 전국시대의 세객(說客).

③ 다여죽(多如簇): 화살촉처럼 많다.

☆족(簇): ‘죽(鐵: 화살촉)’과 같은 뜻으로 쓰였다.

15) 편편신릉 비장자(翩翩信陵非長者: 펄펄 날던 신릉군信陵君인데 <백정(白丁)이 선배도 아니건만):

① 편편신릉(翩翩信陵: 펄펄 날던 신릉군信陵君):

☆편편(翩翩):

a. 새나 나비 등 날아가는 모양. 훨훨, 펄펄, 나폴나폴 등으로 표현된다.

b. (기쁨에 차서) 웃는 모양, 싱글벙글, 방실방실 등으로 표현된다.

c. (깃발이) 나부끼는 모양, (사물이) 흔들거리는(요동치는) 모양, 펄럭펄럭, 흔들 흔들, 일렁일렁 등으로 표현된다.

d. 왕래하는 모양, 오락가락 등으로 표현된다.

☆신릉(信陵): 신릉군(信陵君): 위(魏) 나라 공자(公子). 자세한 내용은 앞의 주석7)의 ② ‘위공자(魏公子) 신릉군(信陵君)’조항을 참조바람.

② 비장자(非長者): 선배가 아니다.

☆장자(長子):

a. 나이가 많거나 항렬이 높거나 선배 되는 사람을 가리킨다.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b. 현귀(顯貴: 지위가 높고 귀함)한 사람을 가리키는 말.

c. 덕성과 명망이 높은 사람.

d. 용감하고 의협심이 있는 사람.

e. 옛날에 남자에 대한 존칭으로 일컫던 말.

f. 부호(富豪), 부자(富者).

16) 왕향도문 경세목(枉向屠門驚世目: 몸을 낮추어 푸줏간에 <함께> 가자 세인世人은 깜짝 놀랐다네):

① 왕향(枉向): 몹시 공손하게 (자신을 낮추어서) ...에 가다.

☆왕(枉): 겸사(謙詞)로서, 상대방에게 자신을 낮추어 따름을 이르는 말이다. 환언하면, ‘미땅하지 않은 질책이나 대우를 받아서 난감한 상황이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이르는 말이다. 본 시에서 이 ‘왕(枉)’이란 자를 쓴 까닭은 위공자(魏公子)와 직책이 문지기인 후영(候嬴)의 친구 주해(朱亥)의 신분에서 비롯된 말이다. 위공자가 후영을 초빙하려고 찾아가자 후영은 자기 친구인 백정(白丁) 주해(朱亥)를 방문하고 가자고 했다. 당시에는 신분의 구별이 엄격했던 시절인데, 공자이자 재상인 위공자가 천민중의 천민인 백정이 경영하는 도살장 근처까지 가서 후영이 그의 친구인 백정을 만나고 나올 때 까지 기다리라고 하는 후영의 말에도 위공자는 시종일관 공손한 자세를 유지하면서 기다렸다는 것이다. 후영은 이 과정을 통해서 위공자가 진실로 어질고 선비를 존중한다는 것을 시험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위의 주석7)의 ② ‘신릉군(信陵君)’ 조항을 참조

바람.

☆향(向) : 접근하다, (앞으로, ...를 향해서) 가다.

② 도문(屠門) : 푸줏간.

③ 경세목(驚世目) : ‘경세해목(驚世駭目 : 세상 사람들이 보고 깜짝 놀람)’의 약어(略語)로 쓰였으며, 경목(驚目 :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람)과 같은 말로 쓰였다.

시110. 무제 無題

詩110. 無題¹⁾
무 제



北風吹動小微雲²⁾,
북 풍 취 동 소 미 운

북풍에 날려 얇은 구름송이
두둥실 떠가는데,

星月分離各異門³⁾.
성 월 분 리 각 이 문

별과 달은 떨어져서
각자 제 모습으로 빛나고 있네.

蘭葉蕙花愁欲老⁴⁾,
난 엽 혜 화 수 욕 로

난초 잎과 혜초 꽃이 시들려 해서
걱정스러운데,

楚江烟雨正黃昏⁵⁾.
조 강 연 우 정 황 혼

낙동강에 가랑비 내리는
지금은 황혼녘일세.

-
- 1) 무제(無題): ‘제목이 없다는 의미로 쓴 것’ 이라기보다, 시제(詩題)의 제목으로 간주 하여 붙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2) 북풍취동 소미운(北風吹動小微雲: 북풍에 날려 얇은 구름송이 두둥실 떠가는데):
 - ① 취동(吹動): 바람에 날리다. 바람이 불다.
 - ② 소미운(小微雲): 작고 얇은 구름송이.
☆소(小): 작다.
☆미운(微雲): 얇은 구름. 얇은 구름.
 - 3) 이문(異門):
 - ① 종류가 달라서 구별되다. 본 시에서는 각자 제 모양을 띠고 떠있는(빛나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

☆문(門): 유별(類別). 종류.

4) 난엽혜화 수욕로(蘭葉蕙花愁欲老: 난초 잎과 혜초 꽃이 시들려 해서 걱정스러운 데):

- ① 난엽혜화(蘭葉蕙花): 난초와 혜초는 모두 향초(香草)로, 현자(賢者)를 비유하는 시어(詩語)로 쓰였다. 앞의 「시7」의 주석7) ② ‘방초(芳草)’ 조항을 참조바람.

☆난엽(蘭葉): 난(蘭): 요초(瑤草)임. 『좌전(左傳)』 선공宣公 3년에 기재를 보면(『左傳』 宣公三年), “정문공鄭文公에게는 연고燕姑라고 하는 천첩이 있었는데(鄭文公有賤妾曰燕姑), <어느 날 밤에 그녀는> 천사天使가 자기에게 난초를 주는 꿈을 꾸었다. 천사는 꿈에서 말하기를(夢天使與己蘭, 曰), ‘나는 백숙伯儵이라고 하는데, 바로 너의 조상이다(余爲伯儵, 余而祖也). 이것[난초]으로써 너의 보배로 삼거라(以是爲而子). 난초에게는 나라 안에서 제일가는 향기가 있으니(以蘭有國香), 네가 <이들> 몸에 지니게 되면 이와 같이 아름답게 될 것이다(人服媚之如是)’. 꿈을 꾸고 난 뒤에, 문공을 만났는데(既而文公見之), <문공은 그의 천첩인> 연고燕姑에게 그 난초를 주고 그것을 몸에 장식하도록 했다(與之蘭而御之). ‘사람들은 그녀를 아름답다고 탄복했다(人服媚之).’”라고 기록되어 있다.

☆혜초(蕙草): 향초명(香草名)으로, 훈초(薰草): 영릉향(零陵香): 속명(俗名)으로 패란(佩蘭: 향등골나물): 콩과의 두 해 살이 풀. 줄기는 높이가 70cm 정도이며, 잎은 어긋 나와서 작은 나비 모양의 꽃이 피며 약재로 씀. 그루터기 전체가 방향(芳香)을 지니고 있으며 능히 악취를 제거하고 몸에 지니고 있으면 향기가 발산한다. 그 형상이 층층으로 되어 있는 고층탑 모양을 하고 있어서 ‘구층탑(九層塔)’이라 칭하기도 한다. 고대에는 이를 제례용(祭禮用: 채역災厄을 떨어 버리기 위해 지내는 제사 ‘발제拔除’에서 사용하였음)으로 쓰기도 했으며, 침상 깔개나 방석 등을 만들 때 쓰기도 했다.

- ② 수욕로(愁欲老: <꽃이> 시들려 하여 근심하다):

☆로(老): (잎이나 꽃이) 시들다. 지다. 생기를 잃다.

5) 초강연우 정황혼(楚江烟雨正黃昏: 낙동강에 가랑비 내리는 지금은 황혼녘일세):

- ① 초강(楚江): 초(楚)나라 경내(境內)의 강. 이 초나라는 남방, 곧 현 호북성(湖北省) 서부 쪽에 위치하였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남방국가로 통칭하였고, 여기서 ‘초강(楚江)’이라 함은 또한 남방에 위치한 강이란 의미로 쓴 것이다. 본 시에서는 낙동강(洛東江)의 대칭으로 쓰였다.

- ② 연우(烟雨): 연우(煙雨)로도 쓴다. 안개처럼 뿌옇게 내리는 세우(細雨: 가랑비)로 ‘안개비’라고 칭한다.

- ③ 정황혼(正黃昏): 한창 황혼이 몰드는 (지는) 시각이다.

☆정(正): 부사로서, ‘한창. 바야흐로. 마침’등의 뜻이다.

시111. 정사잡영 精舍雜詠

詩111. 精舍雜詠¹⁾
정 사 잡 영



南河一曲是菟裘²⁾,
남 하 일 곡 시 토 구

남부의 강 굽이도는 곳에
(내) 은거처 있는데,

碧水丹崖近小樓³⁾.
백 수 단 애 근 소 루

푸른 강물 붉은 절벽이
작은 누각 근처에 있네.

莫向江南問⁴⁾漁父,
막 향 강 남 문 어 부

강남에 가거들랑 어부에게
참견하지 말게나,

烟波⁵⁾日暮使人愁.
연 파 일 모 사 인 수

연무 낀 강에 날 저문 터라
수심에 젖게 하네.

1) 정사잡영(精舍雜詠): ‘정사(精舍)에서 여러 가지 사물을 읊은 시가(詩歌)’로, 근체(近體) 악부절구시(樂府絕句詩)이다. 자세한 것은 앞의 「시46」의 주석1)을 참조 바람.

① 정사(精舍): 정사(精舍)는 학문을 닦기 위해 만든 집이며, 정신수양을 하는 곳인데, 본 시의 제1구의 내용과 제2구에서 ‘루(樓: 누각)’가 언급된 것으로 보아 원지정사(遠志精舍)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② 잡영(雜詠): 잡영(雜詠)으로도 쓴다. 이는 여러 가지 사물을 읊은 시가(詩歌)를 뜻하며, 시제(詩題)로 상용(常用)한다.

2) 남하일곡 시토구(南河一曲是菟裘: 남부의 강 굽이도는 곳에 〈내〉 은거처 있는데):

① 일곡(一曲):

☆수류(水流)가 굽이도는 곳.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한 모퉁이.

☆한가지 일. 일반적인(단편적인, 일부분의) 일. 이 때의 ‘곡(曲)’은 국부(局部 : 일부분), 편면(片面 : 단편, 한쪽, 일방)의 뜻이다.

☆한 줄기(가닥).

☆한 수(首)의 악곡(樂曲).

- ② 토구(菟裘) : 지명(地名)이다. 지금의 산둥성(山東省) 사수현(泗水縣)에 있다. 『좌전(左傳)·은공11년(隱公十一年)』 조항에, “우보(羽父 : 노은공魯隱公의 공자公子 휘로는 휘揮로도 씀: 그는 부친 은공을 죽였음)가 환공(桓公 : ?~BC 694)을 죽이기를 요청했었으니, 그것은 장차 그 공으로 대제(大帝 : 태제太宰 : 백관百官의 우두머리로 왕가王家의 내외 업무를 총괄하였음)의 벼슬을 요구하고자 하는 생각에서였다(羽父請殺桓公, 將以求大宰). 은공(隱公 : ?~BC 712)이 말하기를: ‘내가 군주의 자리를 지키게 된 것은 조카(환공桓公)가 어려서 였는데, 이제는 곧 그에게 왕좌를 곧 물려주려 한다(公曰: 爲其少故也, 吾將授之矣).’ 그런 후에 토구菟裘 땅에 집을 짓고 그곳에서 노년을 보낼 생각이다(使營菟裘, 吾將老焉).”고 한 대목이 있다. 훗날 사람들이 ‘토구(菟裘)’라는 지명을 ‘노후에 은퇴해서 거처하는 곳’이란 뜻으로 쓰게 된 근거가 이 글에 있다. 본 시에서는 ‘하회(河回)’를 가리키는 말로 쓰였다.
- 3) 벽수단에 근소루(碧水丹崖近小樓 : 푸른 강물 붉은 절벽이 작은 누각근처에 있네) :
- ① 벽수(碧水) : 길푸른 빛이 나도록 맑고 깊은 강물. 본 시에서는 하회마을 앞의 낙동강을 가리킨다.
- ② 단애(丹崖) : 붉은 암벽. 아름다운 (경관이 좋은) 암벽. 기려(綺麗)한 암벽. 본 시에서는 하회마을 앞에 있는 부용대(芙蓉臺)를 가리키는 말로 쓰였다.
- ③ 소루(小樓) : 작은 누각. 본 시에서는 원지정사(遠志精舍)를 가리키는 말로 쓰였다.
- 4) 문(問) : 참견하다. 따져 묻다. 간섭하다. 관심을 가지다.
- 5) 연파(烟波) : 연파(煙波)로도 쓴다.
- ① 연무(烟霧)가 창망(蒼茫 : 넓고 멀어서 아득함. 망망함)한 수면(水面). 수면에 연무가 아득하게 끼다.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 ② 시문(詩文) 문장의 기복이자 변화를 비유한 말.

시112. 우음^{偶吟}

詩112. 偶吟¹⁾
우 음



孤舟日暮艤江沙²⁾,
고 주 일 모 의 강 사

저물녘에 외로운 배 한 척
강변 백사장에 대고,

步出靑林訪道家³⁾.
보 출 청 립 방 도 가

걸어서 푸른 숲을 지나
사원寺院을 방문하였네.

脩竹滿園苔逕合⁴⁾,
수 죽 만 원 태 경 합

뜰 가득 대숲 우거지고
오솔길은 이끼로 덮혔는데,

一庭春雨落殘花⁵⁾.
일 정 춘 우 락 잔 화

봄비 맞은 온 뜰에는
남은 꽃잎마저 다 졌네.

1) 우음(偶吟): ‘얼핏 떠오른 생각을 읊다’는 뜻으로 본 시는 근체(近體) 악부절구시(樂府絶句詩)이다. 자세한 것은 앞의 「시46」의 주석1)을 참조바람.

2) 고주일모 의강사(孤舟日暮艤江沙: 저물녘에 외로운 배 한 척 강변 모래사장에 대고):

① 고주(孤舟):

☆한 척의 배.

a. 고(孤): 관형사(冠形詞)로, ‘단독의. 고독한’의 뜻으로 쓰였다.

☆외로이 떠 있는 배.

② 의강사(艤江沙): 강변 모래사장에 배를 대다.

☆의(艤): 배를 (강변에) 대다.

☆강사(江沙): 강변 모래사장(모래별관. 모래강변. 모래둑). 강 가운데 모래섬.

3) 보출청림 방도가(步出靑林訪道家: 걸어서 푸른 숲을 지나 사원寺院을 방문하였네):

① 보출(步出): 걸어서 ...를 지나가다.

☆출(出): 지나가다. 경과(經過)하다. 관통하다.

② 도가(道家):

☆불교를 가리킴. 본 시에서는 전(轉)하여, 사원(寺院)을 가리키는 말로 쓰인 것으로 보인다. 자세한 것은 「시94」 주석3)의 ‘북림(北林)과 불탑(佛塔)’ 조항을 참조바람.

☆고대중국의 사상분파(思想分派)의 하나로서, 노자(老子: 생몰년 미상)와 장자(莊子: BC 369~BC 286 혹은 BC 368~BC 268)를 대표로 한다. 도가(道家)의 사상은 자연을 숭상하며, ‘변증법적(辨證法的)인 요소’와 무신론적(無神論的)인 경향이 있기는 하지만, 청정무위(淸靜無爲: 마음을 비워 청정淸靜하게 건지하면서 자연에 순응하는 것)를 주장하여 투쟁을 반대했다.

*변증법(辨證法): 위에서 ‘도가(道家)의 사상에 변증법적(辨證法的)인 요소가 있다는 말이 약간 난해하기에, 여기서 몇 마디 보충하려고 한다. 독일의 철학자 헤겔(Hegel: 1770~1831)은 독일관념론의 완성자로서 자연·역사·정신의 모든 세계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발전하여 가는 과정이며, 이들을 정·반·합(正反合)을 기본운동으로 하는 관념의 변증법적 전개원리로 설명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정·반·합 곧, 하나의 주장인 ‘정’에 대하여, 다른 주장인 ‘반’이 나오고, 이것은 다시 더 높은 단계의 종합적인 주장인 ‘합’에 통합되는 과정을 거친다는 것이다. 『노자(老子)·42장』의 “만물이 화생(化生: 변화, 생성함)하는 원리인 도道는 하나의 기氣를 낳고, 여기서 생성된 기氣는 분화하여 화기(和氣: 음양2기가 결합하여 생성된 기氣 그것을 ‘삼3’으로 표현하였음)를 낳고, 이 화기는 부단히 교합하여 만물이 번성한다(道生一, 二生三, 三生萬物).”고 하였다. 위에서 보듯이 노자는 우주의 근원인 ‘도(道)’에서 ‘일(一)’이라는 ‘하나의 원기(元氣)’가 발생하였다고 했다. 이어서 이 ‘하나’에서 다시 ‘둘’ 곧 음양(陰陽)이라는 ‘이(二)’가 생성되어 나왔다고 한다. 그런데 이 음양(陰陽)이라는 둘에서 만물의 전개는 끝나지 않고, 다시 ‘셋’이라는 ‘삼(三)’으로서의 음양합일의 ‘화(和)’가 발생하였고, 그 화합으로서의 ‘삼(三)’에서 만물이 생성되어 나왔다고 말한다. 한마디로 ‘도’에서 비롯되는 만물의 우주전개 과정을 변증법적으로 잘 설명해주고 있다. 이에 비해서 헤겔의 논리에서의 ‘정(正)’은 ‘세계의 본원(本原)이며 역사의 출발점’이다. 이것이 반(反)과 합(合)의 과정을 거친다고 논리적으로 설명한다. 노자는 ‘일(一) → 이(二) → 삼(三) → 만물’로 이어지는 세계의 변증법적 운행현실이 도(道)의 운행과 그 결과라고 보았는데, 이는 헤겔이 세계를 정(正) → 반(反) → 합(合)의 변증법적 발전 과정으로 이해했던 바와 부분적으로 상통하는 바가 있다는 말이다.

☆연단(煉丹)을 복용하고 수도(修道)하여 신선이 되려고 하는 선비를 이르는 말.

☆도교(道敎)를 가리킴.

4) 수죽만원 태경합(脩竹滿園苔逕合: 뜰 가득 대숲 우거지고 오솔길은 이끼로 덮혔는데):

- ① 수죽(脩竹) : 수죽(修竹)으로도 쓴다. 수(脩)와 수(修)는 통한다.
 ☆후리후리하게 키가 큰 긴 대죽. 긴 대나무. 밋밋하게 다 자란 긴 대나무.
 a. 수(脩) : 길이가 길다(‘장(長)’의 뜻임).
- ② 원(園) : 사원(寺院)을 가리킴.
- ③ 태경합(苔逕合) : 오솔길에 이끼가 끼다. 이끼가 오솔길을 덮다.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태(苔) : 이끼.
 ☆경(逕) : 오솔길. 소릿길.
 ☆합(合) : 가리다, 덮다.
- 5) 일정춘우 낙잔화(一庭春雨落殘花 : 봄비 맞은 온 뜰에는 남은 꽃잎마저 다 떨어졌네) :
- ① 일정(一庭) : 온 뜰.
 ☆일(一) : 관형사로 ‘온. 전부. 가득한’의 뜻으로 쓰였다.
- ② 잔화(殘花) :
 ☆쇠잔한 꽃. 빛바랜 꽃.
 ☆지다 남은 꽃.



시113. 호수에 비친 달

詩113. 湖月¹⁾
호 월

朝望平湖水²⁾,
조 망 평 호 수

아침에는 잔잔한 호수의 수면을
바라보고,

夕弄平湖月³⁾.
석 농 평 호 월

저녁에는 잔잔한 호수에 비친
달을 완상^{완상}하네.

平湖水闊石壁⁴⁾高,
평 호 수 활 석 벽 고

잔잔한 호수는 넓고
물가의 석벽은 높은데,

月色烟光相點綴⁵⁾.
월 색 연 광 상 점 철

밝은 달빛과 뿌연 안개가
서로 잇달아 있네.

有懷凌波仙⁶⁾,
유 회 능 파 선

(달을 보니) 물결 맑고 사뿐히 걷는다는
능파선녀 그리운데,

不見生塵襪⁷⁾.
불 견 생 진 말

(낙수여신洛水女神의) 흙 묻은 버선발에
이는 물보라는 보이지 않네.

采菱不覺歸來晚⁸⁾,
채 릉 불 각 귀 래 만

(사람들은) 마름 캐다 귀가 시간
늦은 것도 못 느끼고 있는데,

腸斷湖山青一髮⁹⁾。
장 단 호 산 청 일 발

호수 건너 먼 산 능선이

한 올 머리칼같이 희미하여 애달프네.

1) 호월(湖月) : 호수에 비친 달.

① 호(湖) : 호수. 본 시에서의 호수는 하회 부용대 앞의 ‘북담(北潭 : 옥연소玉淵沼)’이라 칭하는 낙동강을 대칭(代稱)한 것으로 보인다.

2) 조망 평호수(朝望平湖水 : 아침에는 잔잔한 호수의 수면을 바라보고) :

① 평호수(平湖水) : ‘평(平)’은 ‘호수(湖水)’의 관형사로 쓰였다.

☆평(平) : (환경, 마음 따위가) 평온하다. 잠잠하다. 고저(高低)가 없는 평평한 모양을 형용한 것으로, 여기서는 호수(湖水)에 바람이나 물결 따위가 가라앉아 파도가 없는 상태를 묘사한 것이다.

3) 석농 평호월(夕弄平湖月 : 저녁에는 잔잔한 호수에 비친 달을 완상하네) :

① 석농(夕弄) : 저녁에는 완상(玩賞)하다.

☆농(弄) : 완상(玩賞) : 즐겨 구경함. 관상(觀賞)하다.

② 평호월(平湖月) : 잔잔한 호수에 비친 달.

4) 석벽(石壁) :

① 험준하고 가파르게 직립(直立)한 암석(巖石).

② 돌벽.

5) 월색연광 상점철(月色烟光相點綴 : 밝은 달빛과 뿌연 안개가 서로 잇닿아 있네) :

① 월색연광(月色烟光) : ‘월(月)’과 ‘연(烟)’은 ‘색(色)’과 ‘광(光)’의 관형사로 쓰였다. 달의 색과 안개의 빛, 전(轉)하여, ‘밝은 달빛과 뿌연 안개’로 번역하였다.

☆월색(月色) : 밝은 달빛.

☆연광(烟光) : 연광(煙光)으로도 쓴다.

a. 안개의 빛. 본 시에서는 ‘뿌연 안개’로 번역하였다.

b. 봄날의 풍광.

② 점철(點綴) :

☆호트러진 여러 점이 서로 이어지다 또는 그것들을 잇다. ‘얼룩지다. 이어지다’는 뜻이다.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잇닿다. 연닿다’로 번역할 수 있겠다.

☆꾸미다. 장식하다. 아름답다. 장식을(꾸밈을) 첨가하여 원래 사물보다 더 아름답게 하다.

☆그림의 밑그림과 색칠(着色).

☆충원하다. 수를 충분히 채우다. 상황에 따라(경우에 따라) 행동하다.

☆뇌물을 주다.

6) 유희 능파선(有懷凌波仙 : 〈달을 보니〉 물결을 밟고 사뿐히 걸어간다는 능파선녀凌波仙女 그리운데) :

① 유희(有懷) : 사념(思念)에 잠기다. 그리움을 품다(그리움에 잠기다).

☆회(懷) : 생각하다. 그리워하다. (생각 등을) 품다.

② 능파선(凌波仙) : 능파선자(凌波仙子) :

☆낙수(洛水)의 여신(女神)을 칭한다: 본 시에서는 본 시의 시제(詩題)인 ‘호수에 비친 달[호월(湖月)]’을 능파선인에 은유하여 읊은 것이다.

능파선자(凌波仙子)는 낙수(洛水 : 하남성河南省 서부의 강으로, 이는 섬서성陝西省의 동부 진령산맥秦嶺山脈에서 발원하여 동류東流하여 하남성을 지나 황하로 유입됨)의 여신(女神) 복비(宓妃)를 가리킨다. 중국의 신화(神話)에 의하면, 이 여신은 복희씨(伏羲氏)의 딸이고, 하백(河伯 : 황하의 수신)의 아내이며, 후에(后羿 : 하늘의 태양 9개를 쏘아서 당시의 백성들을 구했다는 전설의 영웅 궁수弓手)의 정인(情人)이다. 그녀는 빼어난 미모를 지녔으나, 그녀의 남편인 하백이 풍류를 즐기는 미남자여서 그의 풍류행각으로 인해, 그녀는 황하를 버리고 낙수에서만 머물렀다. 그때 예쁜 아내[달의 여신인 항아[姮娥]를 둔 후에 또한 늘 아내에게 시달려서 세상을 떠들다가 그와 입장이 비슷한 복비를 낙수강변에서 만나 서로 사랑하는 사이가 되었다. 훗날 천제(天帝)는 이 둘의 사랑을 표창(表彰)하여, 후에는 나쁜 귀신을 쫓는 종포신(宗布神)에, 복비는 낙수(洛水)의 여신(女神)에 봉했다고 한다.

중국 삼국시대(三國時代) 위(魏)나라의 조식(曹植 : 192~232)이 쓴 「낙신부(洛神賦)」는 바로 신화 속의 복비(宓妃)의 고사를 기초로 하여, 낙신(洛神)이라는 미녀를 창조하여 읊은 것이다. 미녀의 거동을 묘사한 구절에서, “물결 맑고 경쾌하게 걸어가는데(凌波微步), 비단 버선발에 먼지 일 듯 물보라가 일고 있네(羅襪生塵).”라고 읊고 있다.

☆수선화(水仙花)의 별칭이다: 황정건이 ‘수선화’를 능파선인(凌波仙人)에 은유하여 읊은 것이다.

북송의 시인 황정건(黃庭堅 : 1045~1105)의 시, 「왕충도王充道가 수선화 오십 포기를 보내왔기에, 흔쾌히 받아들고 보니 그 꽃이 참으로 마음에 들어, 이 시를 짓는다(王充道送水仙花五十枝, 欣然會心, 爲之作咏)」에서는 조식(曹植)의 「낙신부(洛神賦)」에서 읊은 “물결 맑고 경쾌하게 걸어가는데(凌波微步), 비단 버선발에 먼지 일 듯 물보라가 일고 있네(羅襪生塵)”라는 구절을 차용하여, 그가 영물(詠物)한 수선화(水仙花)를 의인화(擬人化)하여, ‘수선화를 달빛 아래 물위를 걸어가는 낙수洛水의 여신女神으로 묘사했다.’ 그의 시를 보면, “능파선자가 진흙 묻은 버선발(화분에 재배된 수선화를 표현한 말임)을 물에 적시며(凌波仙子生塵襪), 물위에서 경쾌하게 초승달 아래 거니는 것 같으네(水上輕盈步微月).”라고 읊었다.

*왕충도(王充道 : 생졸년 미상): 당시 형주(荊州 : 지금의 요령성遼寧省 경계지역)의 관료였으며, 황정건의 벗이었다.

*나말(羅襪 : 비단버선) : 미월(微月)의 형상이다.

☆수선화(水仙花) : 습지에서 잘 자라는 꽃으로, 아름답고 순결하며 고상함을 상징하며, 대부분의 꽃들이 시들어진 늦겨울에 피어나 봄이 멀지 않았음을 알리는 꽃임). 이 꽃의 특징을 보면, 수선화과의 여러해살이풀이다. 줄기는 높이가 20~40cm이며, 잎은 모여 나고 비스듬히 선 모양이다. 1~2월에 달걀모양의 비늘줄기에서 나오는 꽃줄기 끝에서 5~6개의 노란색 또는 흰색 꽃이 피는데 열매는 맺지 못한다. 관상용이고 비늘줄기는 약재로 쓴다.

7) 불견 생진말(不見生塵襪 : 〈낙수여신洛水女神의〉 흙 문은 버선발에 이는 물보라를 보이지 않네) : 본시의 주석6)의 ‘능파선(凌波仙)’ 조항을 참조바람.

① 불견(不見) : 보이지 않다.

② 생진말(生塵襪) : 흙 문은 버선발아래 물보라가 일다.

☆생(生) : 일다. 발생하다.

☆진말(塵襪) : 흙 문은 버선발.

8) 채릉 불각귀래만(采菱不覺歸來晚 : 〈사람들은〉 마음 कै다 돌아갈 시각 늦은 것도 못 깨닫고 있는데) :

① 채릉(采菱) : 마음을 कै다. 채릉(採菱)으로도 쓴다.

☆릉(菱) : 마름과의 한해살이 풀. 진흙 속에 뿌리를 박고, 즐기는 물속에서 가늘고 길게 자라 물 위로 나오며 깃털 모양의 물 속 뿌리가 있음. 잎은 줄기 꼭대기에 뭉쳐나고 삼각형이며, 잎자루에 공기가 들어있는 볼록한 부낭(浮囊)이 있어서 물 위에 뜬다. 여름에 흰 꽃이 피고 열매는 딱딱하고 도삼각형(倒三角形)이며 양 끝에 꽃받침 조각이 변한 가시가 있고 중앙부가 두드러진 핵과(核果)로 식용한다. 경상도와 강원도 및 충북의 사투리로는 ‘말밤’이라고 칭한다. 경상도에서는 이 말밤을 가지고 주로 목을 해먹었고, 찌서 떡도 해먹었다. 어린 이들은 이 말밤의 껍질을 가서 생으로 먹기도 하고, 찌서 먹기도 했다. 그러나 이 마름의 잎과 줄기는 먹지 않는다.

9) 장단 호산청일발(腸斷湖山靑一髮 : 호수 건너 먼 산 능선 한 올 머리칼같이 희미해 애달프네) :

① 장단(腸斷) : 창자가 끊어지는듯하다 는 뜻으로, 몹시 비통함을 형용한 말이다.

☆장(腸) : 창자.

☆단(斷) : 끊어지다. 절단되다. 본 시에서는 ‘끊어지는듯하다’는 뜻으로 쓰였다.

② 호산(湖山) :

☆호수 건너 멀리 보이는 산.

☆호수와 산봉. 호수와 연산(連山). 호수와 봉만(峯巒) : 연봉連峯 : 능선이 연결된 산).

☆산수(山水) 혹은 강산(江山)을 가리키기도 한다.

③ 청일발(靑一髮) : 청산일발(靑山一髮) : 청산을 멀리 바라보면 그 윤곽이 마치 한 올의 머리카락 같다는 말인데, 이는 자극히 먼 것을 표현한 말이다.

☆청(靑) : 청산(靑山).

☆일발(一髮) :

a. 한 올의 머리카락. 이는 청산(靑山)의 윤곽이 저 멀리 아득하게 한 올의 머리카락처럼 가늘고 길게 이어져 보이는 것을 형용한 것이다.

북송(北宋)의 문인이며 정치가였던, 소식(蘇軾 : 1036~1101)의 시, 「장매역의 통조각(澄邁驛*通潮閣*)」(제2수)에 바로 이 ‘청산일발(靑山一髮)’의 표현이 보인다. 여기에서 소식은 당시 중원으로부터 수만리를 떨어진 유배지 [해남도(海南島 : 중국 광둥성廣東省 남부에 있는 중국 제2의 큰 섬)]에서 이 시를 썼기 때문에, 그는 시(詩) 속에서 중원(中原 : 당시 북송의 수도 변경汴京이 위치한 곳을 가리키는 것임. 중국인이 말하는 중원지역은 바로 중국문명의 발상지인 황하 중류 양안兩岸 지역을 말한다. 그들은 또한 변경邊境에 대하여 천하의 중앙을

이르는 말로도 쓴다)을 ‘청산일발(靑山一髮)’로 표현하였다.

그의 시를 보면, “여생을 해남도海南島 마을에서 마치려했으나, 천제께서 무양巫陽을 보내어 내 혼을 부른다하네(余生欲老南海村, 帝遣巫陽召我魂). 저 멀리 낮게 드리워진 하늘 끝으로 송골매 사라지는 곳, 청산이 한 올 머리칼처럼 윤곽을 드러낸 저기가 중원이라네(杳杳天低鵲沒處, 靑山一髮是中原).”라고 하였다.

*징매역(澄邁驛): 해남도(海南島)의 북쪽 강변, 곧 대안(對岸: 건너편에 있는 언덕)에서 중국본토를 바라보는 징매현(澄邁縣)의 숙역(宿驛: 나그네를 묵게 하기 위하여 세운 숙소)을 칭하는 것이다.

*통조각(通潮閣): 징매역에 있던 건물이름.

서에는 당시 소동파가 유배지인 해남도(海南島)에서 중원(中原)을 그리며 읊었던 이 시를 차용하여, 서애선생 시의 결구(結句)에서 활용하고 있다. 고로 서애 역시 낙동강의 북담에 비친 달을 완상하면서, 멀리 주군(主君)이 있는 경성(京城)을 그리워하고 있음을 이에 기탁한 것이다.

- b. 미세한 사물이나 견해를 비유한 말.
- c. 미세(微細)한 사물이나 견해를 비유한 말.
- d. 위기나 위험을 극단적으로 비유한 말.



시114. 비를 무릅쓰고 홀로 옥연정사^{玉淵精舍}에
와서, 승려로 하여금 대나무를 쪼개서
(죽관竹管을 만들어) 산골짜クの 웅달샘 물을
끌어와 돌 위에 떨어지게 하니 돌
위에 떨어지는 소리가 ‘졸졸’하는 게
사람들이 좋아 할만 했다. 한 잠 자고
일어나서 절구^{絶句} 한 수 짓는다.

詩114. 冒雨獨來玉淵¹⁾ 令僧²⁾ 剖竹引山泉墮石上³⁾
모 우 독 래 옥 연 영 승 부 죽 인 산 천 라 석 상
其聲琮琤可愛⁴⁾ 睡起成一絕⁵⁾
기 성 종 쟁 가 애 수 기 성 일 절

山澗泠泠落小塘⁶⁾, 산골짜クの 냇물이 졸졸 연못에 흘러들고,
산 간 영 영 낙 소 당

新荷點水動微香⁷⁾. 갓 핀 연꽃은 물방울 머금고
신 하 점 수 동 미 향
그윽한 향기 풍기네.

幽居漸覺塵緣少⁸⁾, 은거하자 세속 인연
유 거 점 각 진 연 소
점점 줄어들음을 느끼는데,

只有清風共晚堂。 청풍만은 저녁에도 대청에서 함께 있네.
지 유 청 풍 공 만 당

1) 모우 독래옥연(冒雨獨來玉淵 : 비를 무릅쓰고 혼자 옥연정사玉淵精舍에 나오다) :

- ① 모(冒): (위험이나 악조건을) 개의치 않다. 무릅쓰다. 대개 이 ‘모(冒)’는 풍(風)·우(雨)·설(雪)·위험(危險) 등을 목적으로 가진다.
- ② 옥연(玉淵): 옥연정사(玉淵精舍): 앞의 「시47」의 주석1)의 ‘북애정사(北厓精舍)’ 조항을 참조바람.
- 2) 승(僧): 승려 탄홍(誕弘: 생몰년 미상): 『서애전서(西厓全書)·옥연서당기(玉淵書堂記)』에, “조그만 집을 지어서, 만년에 조용히 거처하는 곳으로 삼고자 했으나, 집안이 궁색한 것을 돌아보니 도무지 계획을 세울 수 없었다(於是余心樂之, 欲作小宇, 爲靜居終老之所, 顧家貧無計). 그때 마침 승려 탄홍誕弘이란 자가, 그 건축을 주관하고, 곡식과 피륙으로 물자를 대겠다고 자원自願하였다……(有山僧誕弘者, 自薦幹其役, 資以粟帛……). 또 북쪽에 있는 재(齋: 집)는 세 칸 넓이의 집인데, 이곳을 지키기 승려를 위해, 선가禪家의 말을 취하여, 완적재(玩寂齋: 적멸寂滅 곧 열반의 경지를 관상하는 집이란 뜻으로 지금의 ‘안채라고 부르는 집’)라 이름을 지었다(又齋在北者三間, 以舍守僧取禪家說, 名曰玩寂).”고 한 대목이 있다. 이렇게 볼 때 승려 탄홍은 서애(西厓)와는 각별한 인연이 있는 사람이고, 옥연정사를 짓는데 공사를 주관하면서 주도적인 도움을 준 사람이며, 정사(精舍) 내의 완적재(玩寂齋)에서 거처하며 정사(精舍)를 관리했던 사람이다.
- 3) 인산천타석상(引山泉墮石上: 산골짜기의 웅달샘 물을 끌어와 돌 위에 떨어지게 하다):
- ① 인산천(引山泉): 산골짜기의 웅달샘 물을 끌어오다.
☆산천(山泉):
- a. 산중(山中)의 샘물. 본 시에서는 ‘산골짜기의 웅달샘 물’이란 뜻으로 쓰였다.
b. ‘산수(山水)’와 같은 말로서 산수풍경을 가리킨다.
- ② 타석상(墮石上): 돌 위에 떨어지게 하다.
☆타(墮):
- a. 떨어지게 하다.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b. 떨어지다.
☆석상(石上): 돌 위에.
- 4) 기성종쟁가애(其聲琮琤可愛): 그 물 떨어지는 소리가 ‘줄줄’하는 것이 사람들이 좋아할 만 했다.
- ① 종쟁(琮琤): 의성어(擬聲語)로서, (옥석이나 기타 사물이 부딪치거나 물이 흐르는 소리 등의 소리)로 ‘찰찰·줄줄·쟁쟁·톡닥톡닥’ 등으로 표현할 수 있다. 본 시에서는 대나무 통 수로(水路)를 지나 물이 돌 위에 ‘줄줄 떨어지는 소리’를 형용한 것이다.
- ② 가애(可愛): 사람들이 좋아할 만하다.
- 5) 일절(一絕): 절구시(絕句詩) 한 수(首). 절구시(絕句詩)는 한시(漢詩)의 시체(詩體) 중의 하나로 근체시(近體詩) 형식에 속한다. 기·승·전·결(起承轉結)의 네 구(句)로 이루어졌는데, 한 구가 5자(字)로 된 것은 오언절구(五言絕句)라 하고, 7자로 된 것은 칠언절구(七言絕句)라고 한다.
- 6) 산간영령 낙소당(山澗冷淒落小塘: 산골짜기의 냇물이 줄줄 연못에 흘러들고):
- ① 산간영령(山澗冷淒): 산골짜기의 냇물이 줄줄 흐른다.
☆산간(山澗): 산간(山峴)이라고도 쓰며, 산골짜기의 냇물, 산간(山間: 산골)의

개울물이란 뜻이다.

a. 간(澗): 개울물. 산골짜기의 물.

② 영령(泠泠): 물소리·바람소리·거문고소리·목소리 따위가 맑고 시원함을 형용한 말. 기타 자세한 뜻은 앞의 「시14」의 주석3) ‘영령(泠泠)’ 조항을 참조바람.

③ 소당(小塘): 작은 저수지.

☆당(塘): 못. 지당(池塘). 본 시에서는 ‘연못’을 가리키는 뜻으로 쓰였다.

7) 신하점수 동미향(新荷點水動微香): 갓 핀 연꽃은 물방울 머금고 그윽한 향기 풍기네): 앞의 「시7」의 주석7) ② ‘방초(芳草)’ 조항을 참조바람.

① 신하(新荷): 갓 피어난 연꽃.

② 점수(點水):

☆소량의 물방울.

☆처마에서 떨어지는 낙숫물.

a. 점(點): 물방울. 본 시에서는 빗방울로 쓰였다.

③ 미향(微香): 미방(微芳): 그윽한 향기. 간신히 말할 수 있는 그윽한 방향(芳香).

8) 유거점자 진연소(幽居漸覺塵緣少: 은거하자 세속 인연 점점 줄어들을 느끼는데):

① 유거(幽居): 은거(隱居)하면서 벼슬길로 나아가지 않다.

☆집안에 있으면서 외출하지 않다.

☆묘실. 무덤.

② 진연(塵緣): 불교와 도교에서 말하는 진세(塵世)와의 인연. 티끌세상과의 인연이란 뜻으로 속세와의 번거로운 인연을 이르는 말.



시115. 영증추부사^{領中樞府事} 심결^{沈決} 공公의
시를 차운^{次韻}하여

詩115. 次沈領府事韻¹⁾
차 심 영 부 사 운

柴扉寥落掩荒村²⁾,
시 비 요 락 엄 황 촌

외딴 촌락에 사립문
쓸쓸하게 닫혔지만 하니,

過客爭傳是相門³⁾.
과 객 쟁 전 시 상 문

과객이 어찌 (이곳이) 재상가라고
외부에 전할 수 있으리!

烟雨暮山寒食路⁴⁾,
연 우 모 산 한 식 로

저물녘 산에 안개 자욱했으나 한식날
벌초^{伐草}하러 가는 길에는,

桃花春水武陵源⁵⁾.
도 화 춘 수 무 룡 원

복사꽃 피고 봄날 냇물 흐르니
(여기가) 무릉원^{武陵源}일세.

行藏有道神常泰⁶⁾,
행 장 유 도 신 상 태

출사^{出仕}하나 은퇴하나 도학^{道學} 지녀
마음이 늘 편하고,

趨舍無心⁷⁾德益尊.
추 사 무 심 덕 익 존

행동거지에 사심^{私心} 없어
덕성은 더 높아지네.

聖代不應遺故老⁸⁾,
성 대 불 용 유 고 로

성군^{聖君}의 시대에는 전조^{前朝}의
원로^{元老} 말씀 잊은 적이 없었나니,

廟堂經濟待公論⁹⁾.
묘 당 경 제 대 공 론

조정에서 경세제민經世濟民 논의는
공론이 필요하기 때문일세.

- 1) 차심영부사운(次沈領府事韻) : 영중추부사(領中樞府事) 심결沈決 공공의 시를 차운하여) :

- ① 차…운(次…韻) : 앞의 「시20」의 주석1)의 ‘차운(次韻)’ 조항을 참조바람.
② 심영부사(沈領府事) : 심결(沈決) 영중추부사(領中樞府事).

☆심결(沈決 : 1419~1470) : 조선전기의 문신. 본관은 청송(靑松). 자는 통지(通之). 영의정 온(溫)의 아들이며, 소헌왕후(昭憲王后 : 세종의 비)의 동생이다. 아버지가 죄를 얻어 사형되었기 때문에 오랫동안 벼슬길에 막혔다가, 1450년(문종 즉위년)에 비로소 돈녕부 주부(敦寧府主簿 : 조선시대 왕실에 가까운 친척간의 친선을 도모하기 위한 사무를 처리하던 관청의 종6품 벼슬)에 서용(敍用)되었고, 이어서 첨지돈녕부사(僉知敦寧府事 : 돈녕부의 정3품 관직)에 올랐다. 세조가 즉위하자 첨지중추원사(僉知中樞院事 : 조선전기 궁궐을 수비하고 군사기밀을 전하며 그 밖의 군사업무를 관장하던 관청의 정3품 벼슬)에 발탁되었고, 세조 즉위에 참여한 공로로 원종공신(原從功臣 : 조선시대 공신의 시상施賞에 있어서 각 등급의 주장이 되는 정공신正功臣 이외에 작은 공을 세운 사람에게 준 공신의 칭호로, 공신의 자제 및 사위 또는 그 수종지隨從者에 대한 시상임) 2등에 책록되었다. 그 뒤 동지중추원사(同知中樞院事 : 중추부의 종2품 벼슬) · 인순부윤(仁順府尹) · 중추원사(中樞院事)를 역임하고, 1461년 (세조 7) 공조판서에 올랐다. 이어서 판중추원사(判中樞院事 : 중추부의 종2품 벼슬) · 판돈녕부사(判敦寧府事 : 중추부의 종1품)를 역임, 관품이 정1품의 대광보국숭록대부 행판중추부사(大匡輔國崇祿大夫行判中樞府事)에 이르렀다. 성품이 온순하고 단정하였다. 시호는 정이(靖夷)이다.

본 시제(詩題)에 쓰인 ‘심(沈)’이란 성씨의 인물을 역자는 ‘심결(沈決)’이라고 주석하였는데, 그 까닭은 영부사(領府事 : 영중추부사(領中樞府事))를 역임한 ‘심(沈)’씨는 심결(沈決) 뿐이기 때문이었다. 시제에 자(字)나 호(號)를 쓰지 않아 조금 모호하지만 역자가 가진 자료에 의거하여 ‘심결(沈決)’로 인정하였다. 동시에 심결의 문집을 구하지 못해서 심결이 지은 시의 시제를 확인하지 못했음도 밝힌다.

☆영부사(領府事) : 영중추부사(領中樞府事) : 조선시대 중추부(中樞府 : 조선 초기 중앙관청의 하나로 병기兵器 · 군정軍政 · 숙위〈宿衛〉: 숙직하면서 지킴) · 경비警備 · 차섭〈差攝〉: 사무담당임事務擔任) 등의 업무를 맡아보던 관청)의 우두머리 관직으로, 정1품 벼슬이다. 약칭 영중추(領中樞) 또는 영부사(領府事)라고 한다.

- 2) 사비요락 엄황촌(柴扉寥落掩荒村 : 외딴 촌락에 사립문 쓸쓸하게 닫혀있지만 하나) :

- ① 사비(柴扉) : 사립문. 사립짝. 나뭇가지를 엮어서 만든 문짝을 ‘사립짝’이라고 하는데, 그 문짝을 달아서 만든 문을 ‘사립문’이라 한다.
② 요락(寥落) :

☆쓸쓸하다. 적막하다.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희소하다. 드물다.

☆쇠퇴하다. 쇠패(衰敗)하다.

- ③ 엄(掩) : (문을) 닫다.
- ④ 황촌(荒村) : 황촌(荒邨)으로도 쓰며, ‘외저서 황량(荒涼)하고 인적이 드문 촌락’의 뜻이다.
- 3) 과객쟁전 시상문(過客爭傳是相門) : 과객이 어찌 〈이곳이〉 재상가라고 외부에 전할 수 있으리! :
 - ① 쟁(爭) : 부사로 ‘어찌, 어떻게’의 뜻으로 쓰였다.
 - ② 전(傳) : 전달하다. 알리다.
 - ③ 상문(相門) : 재상가(宰相家). 재상의 집. 재상의 가문.
- 4) 연우모산 한식로(烟雨暮山寒食路) : 저물녘 산에 안개 자욱했으나 한식날 벌초伐草하러 가는 길에는 :
 - ① 연우(烟雨) : 연우(煙雨)로도 쓴다. 가랑비 · 이슬비 · 안개처럼 뿌연게 내리는 비.
 - ② 모산(暮山) : 저물녘의 산.
 - ③ 한식로(寒食路) : 한식날 사초(莎草 : 무덤에 때를 입히고 다듬음)하러 가는 길 주변을 이른 말이다.

☆한식(寒食) : 동지(冬至)로부터 105일째 되는 날로서 4월 5일이나 6일쯤 되며 (청명淸明 하루 이틀 전임), 우리나라 민간에서는 이날 조상의 산소를 찾아 제사를 지내고 사초(莎草)하는 등 묘를 돌아본다. ‘한식의 유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앞의 「사91」 주석1)의 ‘한식(寒食)’ 조항을 참조바람.
- 5) 도화춘수 무릉원(桃花春水武陵源) : 복사꽃 피고 봄날 냇물 흐르니 〈여기가〉 무릉원일세) :
 - ① 도화춘수(桃花春水) : 이러한 경계는 역대로 퇴사은거(退仕隱居)하는 문인들의 시작(詩作)이나 민간설화에서 흔히 보이는 것으로, 이는 속세와 시공(時空)을 달리한 별유천지(別有天地)로 묘사되고 있다. 이를테면, 중국 동진(東晉)의 도잠(陶潛)이 쓴 「도원기(桃源記)」에 나오는 무릉도원(武陵桃源)이 바로 이러한 세계이다. 우리나라에도 유사한 경계로 묘사된 전북 남원지방의 청학동설화(靑鶴洞說話) · 경북 상주지방의 오복동설화(五福洞說話) 등은 모두 별유천지를 제시하고 있다. 중국인의 시작(詩作) 중에, 인구에 회자하는 작품으로 당(唐)나라 숙종시기의 은자(隱者)인 장지화(張志和)의 「어가자(漁歌子)」(1)에, “서새산 앞에 해오라기 날고, 복사꽃 떠가는 강물에 쏘가리 살찐다(西塞山前白鷺飛, 桃花流水鱖魚肥).”라는 세계가 묘사되고 있다.
 - ② 무릉원(武陵源) :

☆‘무릉도원(武陵桃源)’을 칭한 것이다. 도잠의 「도화원기(桃花源記)」에 의하면, ‘동진(東晉) 태원년간(太元年間 : 진효무제晉孝武帝의 연호로 376~396년간임)에 무릉(武陵) 지방의 어부가 길을 잘못 들어가 배를 타고 계류(溪流)를 거슬러 올라가 복숭아나무 숲이 있는 데를 지나 굴이 있는 무릉원(武陵源)에 들어갔는데, 그곳은 토지가 평탄하고 넓었으며 가옥이 가지런하게 늘어서 있었으며, 비옥한 전답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길은 사방으로 통하도록 나있었으며, 남녀 노소가 모두 기쁜 듯이 즐겁게 웃고 있었다고 했다. 그 촌락 사람들은 스스로 말하기를 자신들의 선조가 진(秦)나라의 난리를 피하여 처자식과 마을 사람들

을 이끌고 이곳에 와서 외부와 단절한 채 이곳에서 산다고 했다. 훗날 그 어부가 다시 그곳을 찾아가려 하였으나 길을 잃고 찾아갈 수 없었다.’는 이야기를 썼다. 훗날 사람들은 이 글에 나오는 “무릉원(武陵源)”이란 말을 전(轉)하여, ‘별천지 또는 선경(仙境)’의 뜻으로도 쓰고 ‘세상을 피하여 은거하는 곳’을 가리키는 뜻으로도 썼다.

☆무릉계(武陵溪)라는 뜻으로도 쓴다. 전하는 바에 의하면, 한명제(漢明帝) 영평 15년(永平十五年: 72년)에, 동한(東漢) 회계군(會稽郡) 섬계현(剡溪縣), 지금의 절강성(浙江省) 승현(嵊縣) 사람 유신(劉晨: 생몰년 미상)과 완조(阮肇: 생몰년 미상)는 천태산(天台山)에 들어가 약초를 캐다가 길을 잃었다. 몇 리를 헤매다가 개울가에서 우연히 두 여인을 만나서 함께 그들을 집으로 가서 깨밥을 먹고 잠을 자고 계속 그들 집에 머물게 되면서 두 사람은 그 두 여인과 각각 부부의 인연을 맺게 되었다. 산중에 머문 지 반 년이 지나, 두 사람은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나서, 두 여인에게 귀로(歸路)를 가르쳐 달라고 해서 산을 내려왔다. 그들이 고향에 돌아왔으나 친구들은 이미 다 타계하고 얼굴을 알아볼 사람이 없었다. 동네 사람들에게 탐문해 보니 이미 세월이 흘러 친구들의 7세 손(七世孫)이 살고 있었다. 그래서 다시 그 여인들이 있는 산으로 돌아가고 싶었으나 그 길을 찾을 수 없었다.(이 고사故事는 송태종宋太宗 태평흥국 2년(太平興國二年: 977년)에 이방(李昉: 925~996) 등 12명이 황제의 명을 받아 편집한 중국설화집 『태평광기(太平廣記)』 권6에서, 『신선전(神仙傳)』을 인용하여 수록하고 있음)

6) 행장유도 신상태(行藏有道神常泰: 출사出仕하나 은퇴隱退하나 도학道學 지녀 마음이 늘 편하고):

① 행장(行藏): 출사(出仕)와 은퇴(隱退) 혹은 행동거지, 즉 언행(言行)과 정지(停止)를 가리킨다. 환언하면, 실행과 은둔(隱遁), 혹은 나서서 일을 행함과 세상을 피해 들어가 숨는 일을 가리킨다고 표현할 수 있다.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논어(論語)·술이편(述而篇)』에, “선발해서 임용하면 곧 실행하고, 포기하고 버려두면 곧 은둔한다(用之則行, 舍之則藏).”는 구절이 있다.

☆행장은 전(轉)하여, 공수(攻守)·출몰(出沒)의 뜻으로 쓴다.

☆행적(行迹)·내력·(사람이나 사건 등의) 속사정(내막·경위·진상)을 이르는 말로도 쓴다.

② 유도(有道):

☆도덕이 몸에 배어 있음. 또는 그런 사람.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도에 부합되다.

☆천하가 잘 다스려지고 있음을 이르는 말로서 곧 정치가 청명(淸明)하고 공명정대함을 이르는 말이다.

☆방법(순단)이 있다.

☆재능과 기예가 있다.

③ 신상태(神常泰): 정신이 늘 태평하다. 마음이 늘 평안하다.

☆신(神): 정신. 심신(心神). 마음.

☆태(泰): 편안하다. 태평하다. 여유롭다. 융통성이 있다.

7) 추사무심(趨舍無心: 취하고 버림에 사심이 작용하지 않다):

① 추사(趨舍): 추사(趨捨)로도 쓴다.

☆진퇴(進退). 행동과 정지(靜止).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취사(取舍: 취사선택)의 뜻이다. 전(轉)하여 호오(好惡: 좋아하고 미워함: 애증愛憎)의 뜻으로도 쓴다.

② 무심(無心):

☆사심(私心)·사욕(私慾)이 없다.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불교어로서, 사념(邪念)에서 벗어난 진심을 가리키는 말.

☆무의(無意: ...할 생각이 없음. ...할 마음이 없음)와 같은 말.

☆선입관이 없다. 고의(故意)가 아니다.

8) 성대불응 유고로(聖代不應遺故老: 성군聖君의 시대에는 전조前朝의 원로元老 말 씀 잊은 적이 없었나니):

① 성대(聖代):

☆성세(聖世: 성군聖君이 다스리는 세상).

☆옛날에 당대(當代)에 대한 유칭(諛稱: 아첨하는 칭호).

② 불응(不應): ...한 적이 없다. 일찍이 ...한 적이 없다.

③ 유(遺):

☆잊다. 망각하다.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버리다. 유기(遺棄)하다.

☆떠나다. 이탈하다.

☆단념하다.

☆폐지하다.

④ 고로(故老):

☆연로하고 건식이 풍부한 사람.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원로(元老). 구신(舊臣: 예전부터 섬기는 신하).

☆선제(先帝) 또는 전조(前朝)의 유신(遺臣).

☆옛날 인습에 젖은 늙은이.

9) 묘당경제 대공론(廟堂經濟待公論: 조정에서 경세제민經世濟民 논의는 공론이 필요하기 때문일세):

① 묘당(廟堂):

☆조정(朝廷).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태묘(太廟: 태조의 종묘)의 전당(殿堂).

☆태묘와 명당(明堂: 고대제왕의 정교政敎를 선명宣明하던 곳).

☆사당(祠堂).

② 경제(經濟):

☆경세제민(經世濟民: 세상을 다스리고 백성을 구제함).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치국(治國)의 재간을 가리키는 말.

☆소비가 적고 수익이 많음을 이르는 말. 돈이나 시간, 노력을 적게 들이는 일.

☆재력(財力).

☆인간의 생활에 필요한 재화나 용역을 생산·분배·소비하는 모든 활동. 또는 그것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사회적 관계.

③ 대(待): ...할 필요가 있다.

시116. 문하생 제군^{諸君}이 올린 시를 읽고
차운^{次韻}하여

詩116. 次韻奉諸君¹⁾
차 운 봉 제 군



其一

[1]

庸學微言混魯魚²⁾,
용 학 미 언 혼 노 어

정확한 언사^{言辭}의 심원한 뜻 배우면서
어찌 ‘로^魯’자와 ‘어^魚’자를 혼동하는가?

諸君辨說已無餘³⁾.
제 군 변 설 이 무 여

제군의 변설^{辨說}에는 (조리^{條理} 갖추에)
너무 여유가 없었네!

欲知妙處同條貫⁴⁾,
욕 지 묘 처 동 조 관

오묘한 것 알고 싶으면 조리에 맞고
맥락 이어져야 하는데,

功⁵⁾在心中不在書。
공 제 심 중 부 재 서

그 성과는 심중^{心中}에 달렸지
책에 있는 것이 아닐세.

其二

[2]

非魚安得便知魚⁶⁾,
비 어 안 득 변 지 어

(제군이) 물고기가 아닌데 어찌 물고기가
바로 (제군을) 알아보겠는가?

目擊忘言意有餘⁷⁾。
목 격 망 언 의 유 여

직관直觀하면 말이 필요 없는데
뜻이 충분히 통해서일세.

功力自憐無分寸⁸⁾，
공 력 자 련 무 분 촌

공 들였다고 애석하게 여겨
분수 안 지키면,

向來空讀五車書⁹⁾。
향 래 공 독 오 거 서

여태껏 읽은 다섯 수레
책도 다 헛것이 되고 만다네.

其三

[3]

快挾天風百尺臺¹⁰⁾，
쾌 협 천 풍 백 척 대

백 척 높은 누대에서 상쾌한 바람 씌니,

高攀¹¹⁾明月共徘徊。
고 반 명 월 공 배 회

높이 뜬 달나라에 올라가 제군과
함께 거닐고 싶네.

西樓獨宿空相憶¹²⁾，
서 루 독 숙 공 상憶

서루西樓에 홀로 머물다보니
공연히 제군이 그리워

清夢時時繞水隈¹³⁾。
청 몽 시 시 요 수 외

단꿈 꿀 때면 때때로 물굽이를
배회한다네.

1) 차운봉제군(次韻奉諸君 : 문하생 제군의 시를 받고 차운하여) :

① 차운(次韻) : 앞의 「시20」 주석1)의 ‘차운(次韻)’ 조항을 참조바람.

② 봉제군(奉諸君) : 정중하게 제군의 시를 받다.

☆봉(奉) : 정중하게 …를 받다.

☆제군(諸君) :

a. 경사(敬辭)로서, ‘자네들. 여러분’의 뜻. 통솔자나 지도자가 여러 명의 아랫 사람을 문어적으로 조금 높여 이르는 2인칭 대명사이다.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b. 연로(年老)한 사람을 가리키는 말.

2) 옹학미언 혼노어(庸學微言混魯魚 : 정확한 언사言辭의 심원한 뜻 배우면서 어찌

‘로魯’자와 ‘어魚’자를 혼동하는가? :

① 옹(庸) : 반문(反問)의 뜻을 나타내는 의문부사로 ‘어찌. 어떻게’의 뜻으로 쓰였다.

② 미언(微言) :

☆말과 글의 사용이 정확하고 적절하며, 내포한 의미가 심원한 것을 뜻한다.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이 용어는 서한(西漢) 말엽의 학자 유흠(劉歆 : BC 53?~BC 23)의 『태상박사를 질책하는 서신을 보내어(移書讓太常博士)』에, “공자가 세상을 떠나고 나서 미언微言의 필법은 단절되었고, 공자의 제자 70인이 죽고 나서 경학經學의 대의大義는 어긋났다(及夫子歿而微言絕, 七十子卒而大義乖).”에 보인다. 이는 바로 공자가 노(魯)나라의 역사책인 『춘추(春秋)』를 저술할 때, 스스로 세운 원칙으로 명분을 바로 잡음과 공(功)과 과(過)를 분명하게 기록하는 방법을 말한 것이다. 말하자면, 개인의 사사로운 이해나 감정에 의하지 않고,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기술하는 저술방법을 가리킨다. 여기서, ‘미언(微言)’이란, 말·글의 사용이 정확하고 적절하며, 내포한 의미가 심원한 것을 뜻한다. 또한 ‘대의(大義)’란, 처음에는 경서(經書)의 요의(要義)를 가리켰고, 후에는 대도리(大道理)를 가리켰는데, 여기에는 정미(精微)한 언어 속에 심각(深刻)한 도리를 내포하고 있다. 이 ‘미언대의’는 『한서예문지(漢書藝文志)』에도, “옛날에 공자가 죽으니 ‘미언微言’이 끊어졌고(昔仲尼沒而微言絕), 공자의 70인 제자가 세상을 떠난 뒤에는 대의大義가 어그러졌다(七十子喪而大義乖).”라고 하는 대목이 보인다.

☆정심미묘(精深微妙 : 조예가 깊고 미묘함)한 언사(言辭). 심오한 뜻을 함축한 미묘한 언사.

☆은미불현(隱微不顯 : 속이 깊어 드러나지 않음)하면서 완곡하게 풍간(諷諫)하는 언사. 수수께끼. 은어(隱語).

☆밀모(密謀 : 몰래 논의하여 일을 꾸밈). 암중진언(暗中進言 : 암암리에 뒷사람에게 말함).

☆사람이 발출(發出)하는 미세한 언성(言聲)을 가리키는 말.

③ 혼노어(混魯語) : ‘로(魯)’자와 ‘어(魚)’자를 혼동하다.

3) 제군변설(諸君辨說)이 무여(諸君辨說已無餘 : 제군의 변설辨說에는 〈조리條理 갖추에〉 너무 여유가 없었네!) :

① 변설(辨說) : 논변(論辯 : 변론辯論 : 논의하여 사리를 밝힘)하다. ‘변(辨)’은 ‘변(辯)’과 통한다.

② 이(已) : 부사로 쓰여, ‘너무. 지나치게’의 뜻으로 쓰였다.

③ 무여(無餘) : 남는 것이나 잔류(殘留)하는 것이 없다. 본 시에서는 전(轉)하여, ‘마음에 여유가 없다’는 뜻으로 쓰였다.

4) 욕지묘처 동조관(欲知妙處同條貫 : 오묘한 것 알고 싶으면 조리에 맞고 맥락 이어져야 하는데) :

① 묘처(妙處) : 오묘한 것(곳. 점).

② 동조관(同條貫) : 동조공관(同條共貫). 사물에는 동일한 조리와 계통이 있고 맥락도 연관되어있다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다. 이는 『한서(漢書)·동중서전(董仲舒傳)』에 “제왕의 도도에 어찌 동일한 조리와 계통이 없겠으며, 맥락이 연관되어

있지 않겠는가(帝王之道，豈不同條共貫歟)!”라고 한 말에서 나온 것이다. 고로 이는, 사리(事理)에 상통(相通)하고 맥락이 연관되어야 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다.

5) 공(功):

- ① 성과. 업적.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 ② 효과. 효력.
- ③ 공로. 공적. 공훈.

6) 비어안득 변지어(非魚安得便知魚 : <제군이> 물고기가 아닌데 어찌 물고기가 바로 <제군을> 알아보겠는가?) :

① 안득(安得):

☆어찌(어떻게) ...일 수 있겠는가?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어디에서 ...을 얻겠는가?

☆어떻게 얻을 수 있겠는가?

② 변(便): 부사로서, ‘곧. 바로’의 뜻으로 쓰였다.

본 시구(詩句)는 『장자(莊子) · 외편(外篇) · 추수편(秋水篇) · 혜자 · 장자논쟁(惠子 莊子論爭)』에 보인다. 장자(莊子)*와 혜자(惠子)*가 호량(濠梁)* 근처에서 풍경을 구경하다가 혜자가 말하기를: “자네가 물고기가 아닌데, 어찌 물고기의 즐거움을 아는가(子非魚，安知魚之樂)?”라고 하였다. 혜자(惠子)의 이 논리를 추상화(抽象化)하면, ‘그 사물이 아니면 그 사물이 지니고 있는 감정을 알 수 없다’는 논리인데, 장자는 혜자의 논법을 역이용하여 반박하기를 “자네는 내가 아니면 서, 어떻게 내가 물고기의 즐거움을 아는지 모르는지 안단 말인가(子非我，安知我不知魚之樂)?”라고 하였다. 이와 같은 장자의 논리는 다름 아닌 만물에 대한 관찰은 우리의 직관(直觀)으로써 가능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장자는 혜자에게 “자네가 어떻게 물고기의 즐거움을 안단 말인가(女安知魚樂)?”라고 하는 것은 “자네는 이미 내가 무엇을 알고 있는지를 알고, 내게 <그와 같이> 물은 것이 아니겠는가(既已知吾知之，而問我)? <자네가 내 마음을 그렇게 알았듯이> 나는 호수(濠水) 다리 근처에서 물고기의 즐거움을 알았던 것이네(我知之濠上也).”라고 말하였던 것이다. 이 우화(寓話)는 장자의 만물에 대한 관찰은 직관(直觀)으로써 관물(觀物)해야 한다는 것을 제시한 것으로 이의 사상적 근거는 그의 ‘제물론(齊物論 : 만물은 동일한 이치[理]에서 나오는 것이므로, 우열 · 귀천 · 선악의 차이가 없음으로, 만물과 나는 일체一體이다(而萬物與我爲一).’라는 주장을 제기한 사상임’에서 비롯된 것이다.

서애(西厓)는 본 시에서, 지금 혜자와의 논쟁에서 주고받은 만물제동(萬物齊同) 사상에 근거한 호량우화(濠梁寓話)의 일단락을 그의 문하생[諸君]에게 제시하고 있다. 이는 곧 ‘만물과 나의 근원’이 일치하는 까닭에 만물은 직관(直觀)으로 체득(體得)할 수 있다는 논리이다.

*장자(莊子) : 성명은 장주(莊周 : 전국시대戰國時代, 송(宋) 나라 사상가: 약 BC 369 ~ BC 286). 자세한 내용은 앞의 「시75」 주석13)의 ② ‘장자(莊子)’ 조항을 참조 바람.

*혜자(惠子) : 혜시(惠施 : 약 BC 370 ~ BC 310): 전국시대(戰國時代) 송(宋)나라 학자로 명가(名家)의 대표적인 인물이다. 자세한 내용은 앞의 「시75」 주석13)

의 ② ‘혜시(惠施)’ 조항을 참조바람.

*호량(濠梁): ‘호(濠)’는 ‘하천(河川)’의 명칭으로, 지금의 안휘성(安徽省) 봉양현(鳳陽縣)의 동북쪽을 흘러 회하(淮河)와 합류하는 강이다. ‘량(梁)’에는 ‘나루다’라는 뜻과 ‘내[川]에 징검돌을 놓아 건너갈 수 있도록 한 곳’이라는 뜻이 있다. 어느 것을 가리키는 지는 확실하지 않다. 성현영(成玄英)의 설에 의하면, 이 부근에는 장자의 묘가 있고, 또한 장자와 혜자가 놀던 곳이 있다고 한다.(이상은 박일봉朴一峰 번역의 『장자(莊子)』 내편·외편 참조함)

- 7) 목격망언 의유여(目擊忘言意有餘: 직관하면 말이 필요 없는데 뜻이 충분히 통해 서일세): 자세한 뜻은 본 시의 주석6)의 ‘장자와 혜자의 논쟁’을 참조바람.

- ① 목격망언(目擊忘言: 목격하는 즉시 바로 대상이 파악되어 그것을 설명하고자 했던 말이 필요가 없어 말을 잊게 된다):

이 섹구는 ‘인간의 진실은 그 사람의 언어나 행위에 의해서 보다, 목격자의 직관(直觀)에 의해 간파할 수 있다는 것을 제기하고 있다. 『장자(莊子)·외편(外篇)·전자방(田子方)·온백설자·공자지회면(溫伯雪子·孔子之會面)』에서, ‘목격도존우화(目擊道存寓話)’를 보면, 인간의 진실은 그 사람의 언어나 행위에 의해서 보다 판단자의 직관(直觀)에 의해 알 수 있다는 것을 논하고 있다. 원문을 보면, “자로子路가 물기를, ‘선생님께서 온백설자를 만나고 싶어 하신 것은 오래 전부터였습니다. 그런데도 모처럼 만나셨는데 아무 말씀도 하지 않고 돌아오심은 무슨 까닭입니까(子路曰: ‘吾(夫)子欲見溫伯雪子久矣. 見之而不言, 何邪?’) 공자가 대답했다. ‘그러한 분이 도道を 갖추고 있다는 것은 한 눈에 알 수 있다. 구태여 말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仲尼曰: 若夫人者, 目擊而道存矣. 亦不可以容聲矣?’)라고 대답했다.(이상은 박일봉朴一峰 역저譯著 『莊子(外篇)』 참조)

☆목격(目擊): 눈으로 직접 보다. 목격하다. 목도(目睹)하다. 여기서 ‘목격’이라는 시어(詩語)는 ‘직관(直觀: 직각直覺: 일반적으로, 판단·추리推理 따위 작용에 의하지 않고, 사물의 본질이나 또는 알고자하는 대상 등을 직접 파악하는 일, 또는 그 작용을 말함)’을 가리킨다.

☆망언(忘言): 득의망언(得意忘言): 뜻을 알고 나면 말로 설명할 필요가 없다. 원의(原意)는 언사(言詞: 말)는 뜻을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뜻을 통하고 나면, 다시는 언사(言詞: 말)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후에는 피차간의 심리를 아는 것에 비유하는 말로 사용되었다. 『장자(莊子)·외물(外物)』에, “통발은 물고기를 잡는 데 있으니, 물고기를 잡고나면 통발은 잊는다(筌者所以在魚, 得意忘筌). 올가미는 토끼를 잡는 데 있으니, 토끼를 잡고나면 올가미는 잊는다(蹄者所以在兔, 得兔而忘蹄). 말은 뜻을 전하는 데 있으니, 뜻이 통하고 나면 말은 잊는다(言者所以在意, 得意忘言).”라고 하였다.

a. 망(忘): 잊다. 잊어버리다.

b. 언(言): 말. 언어(言語).

- ② 의유여(意有餘): 뜻이 통하면 말로서 설명할 필요가 없는 여유가 생긴다.

☆의(意): 뜻(이 통하다).

☆유여(有餘): 여유가 있다.

a. 유(有): 많다. 풍부하다.

b. 여(餘):

- ㉔ 가없는. 끝없는. 무한한. 전(轉)하여, 본 시에서는 ‘끝없는 운치[어운餘韻]·무한한 맛[어미餘味]’ 등의 뜻으로 쓰였다.
- ㉕ 그 밖의. 기타의.
- ㉖ 또 하나의. 둘째의.
- ㉗ 잔여(殘餘)의. 잔존(殘存)의.

8) 공력자련 무분촌(功力自憐無分寸 : 공 들였다고 애석하게 여겨 분수 안 지키면) :

- ① 공력(功力) :
 - ☆일을 하느라 (독서하느라) 소비한 시간과 역량.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 ☆공로. 공훈과 업적.
 - ☆‘고용인부’를 가리키는 말.
 - ☆기예(技藝 : 솜씨)가 있거나 학술상의 조예가 깊은 것을 가리키는 말.
- ② 자련(自憐) :
 - ☆자기 자신이 들인 공력(功力)을 애석해하다(아까워하다).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 a. 려(憐) :
 - ㉔ 애석해하다. 아까워하다.
 - ㉕ 불행을 가엾게 여긴다.

- ③ 분촌(分寸) :
 - ☆(일할 때나 말할 때의) 적당한 범위를 가리키는 말로서, 전(轉)하여 분별·한계·한도·분수 의 뜻으로 쓰인다.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 ☆한 푼 한 치(一分一寸). 미소(微小 : 조금·약간·근소)한 것을 비유한 말이다.
 - ☆짧은 시간.

9) 향래공독 오거서(向來空讀五車書 : 여태껏 읽은 다섯 수레 책도 다 헛것이 되고 만다네) :

- ① 향래(向來) :
 - ☆지금까지. 여태껏.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 ☆근래. 근간. 요즘.
 - ☆즉각. 즉시.
 - ☆방금.
 - ☆이전에. 종전에. 과거에.
- ② 오거서(五車書) :
 - ☆본 용어는 『장자(莊子)·잡편(雜篇)·천하(天下)·변자혜시론(辯者惠施論)』에, “혜시(惠施)의 학술은 다방면에 걸쳐있고, 그가 소장한 책은 다섯 수레나 될 정도이다(惠施多方, 其書五車). 그러나 그가 주장하는 도道는 복잡하며 조리가 없고, 그가 말하는 이론은 사물事物의 이치에 부합되지 않는다(其道舛駁, 其言也不中).”라고 하는 대목이 보인다. 후에 사람들은 ‘오거서(五車書)’라는 말을 ‘독서한 것이 많아서 학문이 해박하다’는 것을 형용하는 말로 썼다. 기타 내용은 「시75」의 주석13)의 ②에서 ‘혜시(惠施)’ 조항을 참조바람.

10) 쾌협천풍 백척대(快挾天風百尺臺 : 백 척 높은 누대에서 상쾌한 바람 쐬니) :

- ① 쾌협(快挾) : 상쾌하게 부는 바람을 쐬다.
- ☆쾌(快) : 상쾌하다.

- ☆협(挾): 등에 얹다. 몸에 지나다. 본 시에서는 전(轉)하여, ‘바람을 쇄다’는 뜻으로 쓰였다.
- ② 천풍(天風): 바람. 바람이 하늘 혹은 공중에서 불어오는 까닭에 일컬어진 말이다.
- ③ 백척대(百尺臺): 백 자나 되는 높은 곳에 있는 누대(樓臺). 본 시에서는 ‘높직한 누각’을 가리키는 말로 쓰였다.
 ☆백척(百尺): 10장(十丈: 33m). 대단히 높거나 긴 것을 비유한 말이다.
 ☆대(臺): (먼 곳을 전망하는) 높고 평평한 건축물. 본 시에서는 ‘누각, 정자’를 가리키는 말로 쓰였다.
- 11) 고반(高攀): 반고(攀高): 높은 곳에 기어오르다.
 ① 반(攀): (무엇을 잡고) 기어오르다.
- 12) 서루독숙 공상억(西樓獨宿空相憶: 서루西樓에 홀로 머물다보니 공연히 제군이 그리워):
 ① 서루(西樓): 서재(西齋): 서쪽 서재(書齋). 본 시에서는 원지정사(遠志精舍)의 서재(西齋)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원지정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앞의 「시 11」의 주석2)의 ‘원지정사’ 조항과 「시48」의 주석1)의 ‘원지정(遠志亭)’ 조항을 참조바람.
- ② 독숙(獨宿):
 ☆혼자 자다. 한 사람이 숙박하다.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내외가 살다가 어느 한 쪽이 먼저 타계하고 독거(獨居)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 혼자 살다. 독처(獨處)와 같은 말.
- ③ 상억(相憶): 그리워하다. 사모하다. 생각하다.
- 13) 청몽시시 요수외(淸夢時時饒水隈: 단꿈 꿀 때면 때때로 물굽이를 배회한다네):
 ① 청몽(淸夢): 미몽(美夢: 단꿈. 아름다운 꿈)과 같은 말. 감몽(酣夢).
 ② 시시(時時): 때때로 가끔씩.
 ☆요(饒): 돌아가다, 우회하다, 감돌다의 뜻인데, 전(轉)하여 본 시에서는 ‘산보하다. 배회하다’의 뜻으로 쓰였다.
 ☆수외(水隈): 물굽이(강물이나 바닷물이 굽이지어 흐르는 곳).



시117. 천지생물의 기상氣象을 관조하면서

詩117. 觀天地生物氣象¹⁾
관 천 지 생 물 기 상

默坐澄心鏡²⁾,
묵 좌 정 심 경

묵묵히 앉아 마음을 청정하게 안정하고,

冥觀造物情³⁾.
명 관 조 물 정

조물주가 만든 사물 정황
세심하게 살펴보네.

鳶魚自飛躍⁴⁾,
연 어 자 비 약

솔개는 하늘 날고
물고기가 물에서 뛰어오르듯이,

動息各生成。
동 식 각 생 성

만물은 활동하고 휴식하며
각자 태어나고 자라네.

草綠溪翁室⁵⁾,
초 록 계 웅 실

초록색 개울가엔 이 늙은이의 집이 있고,

花明處士庭⁶⁾.
화 명 처 사 정

꽃 피어 환한 곳은 처사네 집 뜰일세.

阿誰參至理⁷⁾,
아 수 참 지 리

누가 이 근원적인 이치
깨달을 수 있을꼬!

妙契入無聲⁸⁾.
묘 계 입 무 성

신묘한 자연에 부합하여 말없이 상념하는
경지에 진입하네.

1) 관천지생물기상(觀天地生物氣象 : 천지생물의 기상氣象을 관조하면서) :

① 관(觀) :

☆고요한 마음으로 사물을 관찰하거나 음미하다. 관조하다.

☆직감에 의해 구상적으로 직접 인식하다.

☆지혜로 사리(事理)를 비추어 보다.

☆완상(玩賞 : 즐겨 구경함. 취미로 구경함). 관상(觀賞)하다.

② 기상(氣象) :

☆천지간에 존재하는 모든 생물들이 발현(發現)하는 물리적(物理的)인 현상들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정경(情景). 정황(情況).

☆경상(景象), 곧 경치·상태·광경·모양·모습,

☆대기(大氣)의 상태와 현상.

2) 묵좌 징심경(默坐澄心鏡 : 묵묵히 앉아 마음을 청정하게 안정하고) :

① 묵좌(默坐) : 생각을 배제(排除)하고 눈을 감고 안좌(安坐)하다.

② 징심경(澄心鏡) : 마음의 거울을 맑고 깨끗하게 하다, 즉 마음을 청정하게 안정하다.

☆징(澄) :

a. 맑고 깨끗하게[淸淨]하게 하다.

b. 청명하게 하다. 안정하다.

☆심경(心鏡) : 마음의 거울, 곧 청정(淸淨)한 마음을 가리킨다.

a. 불교용어로서, 청정(淸淨)한 마음을 가리킨다. 마음이 명경(明鏡)같이 청정해야 만상(萬象)을 비춰볼 수 있기 때문에 이르는 말이다.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b. 심리통찰(心裏洞察 : 마음속에서 통찰함)하다.

3) 명관 조물정(冥觀造物情 : 조물주가 만든 사물정황 세심하게 살펴보네) :

① 명관(冥觀) : 현묘(玄妙 : 심오하고 미묘함)하게 체찰(體察 : 체험하고 관찰함. 상세히 살펴)하다. 관조(觀照)하다.

☆명(冥) : 침착하고 신중하다. 본시에서는 부사로 쓰여, ‘세심하게’로 번역한다.

☆관(觀) :

a. 관찰하다. 살펴다.

b. 관조(觀照)하다.

c. 완상(玩賞)하다. 관상(觀賞)하다.

② 조물정(造物情) : 조물주가 만든 사물의 정황.

☆조물(造物) : 조물주가 만든 만물.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4) 연어 자비약(鰲魚自飛躍 : 솔개는 하늘 날고 물고기가 물에서 뛰어오르듯이) :

① 연어(鰲魚) : 연비어약(鰲飛魚躍) : 앞의 「시94」 주석34)의 ‘상하연어(上下鰲魚)’ 조항을 참조바람.

5) 웅실(翁室) : 이 늙은이의 집. 나의 집.

① 웅(翁) : 노인(늙은 사람)의 자칭.

6) 화명 처사정(花明處士庭 : 꽃 피어 환한 곳은 처사네 집 뜰일세) :

- ① 화명(花明) : 꽃이 피어 환하다.
- ② 처사(處士) : 벼슬을 하지 아니하고 초야에 묻혀 살던 선비.
- 7) 아수 참치리(阿誰參至理) : 누가 이 근원적인 이치 깨달을 수 있을까? :
- ① 아수(阿誰) : 의문대명사로서, ‘누가…인가? 어떤 사람이 …하는가?’의 뜻이다. ‘수(誰), 하인(何人)’과 같은 말이다.
- ② 참(參) : 깨닫다.
- ③ 지리(至理) :
- ☆가장 정확하고도 가장 근원적인 이치.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 ☆참된 도리. 정상적인(지극히 당연한) 도리.
- ☆가장 정심(精深)한 도리.
- ☆가장 훌륭한 치리(治理).
- 8) 묘계 입무성(妙契入無聲) : 신묘한 자연에 부합하여 말없이 상념하는 경지에 진입하네)
- ① 묘계(妙契) :
- ☆신묘하게 (마음에) 일치(부합)하다. 묘하게 서로 맞다.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으며, 그것이 가리키는 바는 ‘천지생물의 자연환경에 은거하는 자신의 심신을 부합시키려는 뜻’으로 쓰였다.
- a. 묘(妙) : 오묘하다. 신묘하다. 본 시에서는 부사로 쓰여 ‘신묘하게’로 번역한다.
- b. 계(契) : (심신에) 들어맞다. (심신에) 부합하다. 뜻이 통하다. 마음이 통하다. 투합하다.
- ☆의기투합하다.
- ② 입무성(入無聲) : 말없이 상념(想念)하는 경지에 진입하다.
- ☆입(入) : 진입(進入)하다.
- ☆무성(無聲) :
- a. 말을 하지 않다.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으며, ‘묵좌(默坐)’의 의미를 내포함을 가리킨다.
- b. 소리가 없다. 본 ‘무성(無聲)’이라는 시어(詩語)는 『중용』 제33장에 보이는 ‘무성무취(無聲無臭)’에서 절취하여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 33장 6절은 『시경(詩經) · 대아(大雅) · 황의편(皇矣篇)』을 인용하여 『중용』의 종지(宗旨)를 마무리하고 있다. 원문을 보면, “하늘은 만물을 낳고 키우는 일을 하면서도 소리도 없고 냄새도 없다(上天之載, 無聲無臭)”. <또 공자가 말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지극한 경지이다(至矣).”라고 하였다. 이는 다름 아닌, 하늘이 부여한 ‘명덕(明德)’의 소재를 마음에 새겨서, ‘성색(聲色)’을 가지고 백성을 교화하는 것은 지양(止揚)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b’항목의 주석에 의거한 번역도 가능하다. 이의 번역은 “(심신이) 천지자연에 신묘하게 부합符合하고자 소리 없는 천도天道의 경지에 진입해보네.”라고 하였다.

시118. 경자년庚子年 초가을에 생각나는 네 가지

詩118. 庚子初秋念四¹⁾
경 자 초 추 엽 사



新晴嵐翠滿西東²⁾,
신 청 남 취 만 서 동

날 개이자 아내가 사방에 깔렸는데,

負手行吟一畝中³⁾.
부 수 행 읊 일 묘 중

뒷집 지고 서른 평 공간을
시 읊으며 거니네.

浮世百年餘短髮⁴⁾,
부 세 백 년 여 단 발

덧없는 인생 백 년에
성성한 모발만 남았는데,

北窓千古有清風⁵⁾.
북 창 천 고 유 청 풍

북창으로 천고千古의 세월 지닌
청풍淸風이 불어오네.

纏痾苦憶安心法⁶⁾,
전 아 고 억 안 심 법

병마에 시달린 탓에 안심법이
간절하게 생각나는데,

向老難忘戀主衷⁷⁾.
향 로 난 망 연 주 충

늙으니 주군主君에 대한
그리움도 잊기 어렵네.

欲上危樓揩望眼⁸⁾,
욕 상 위 루 개 망 안

높은 누樓에 올라서 눈 닦고
(궁궐 쪽) 바라보고 싶어,

五雲何處是天宮⁹⁾.
오 운 하 처 시 천 궁

오색채운이 어디 있나 했더니

천궁天宮에 있었네.

- 1) 경자초추엽사(庚子初秋念四 : 경자년 초가을에 생각나는 네 가지) :
 - ① 경자(庚子) : 경자년(庚子年) : 1600년(선조 33년, 서애 59세).
 - ② 엽사(念四) : 생각나는 4가지. 본 시의 내용으로 보면, 남취(嵐翠 : 아내) · 청풍(淸風 : 맑은 바람) · 연주중(戀主衷 : 군주에 대한 그리움) · 오운(五雲 : 오색의 상서로운 구름색깔)을 가리킨다.
- 2) 신청남취 만서동(新晴嵐翠滿西東 : 날 개이자 아내가 사방에 깔렸는데) :
 - ① 신청(新晴) : (비 온 후에) 날씨가 맑게 개다. 맑게 갠 날씨.
 - ② 남취(嵐翠) :
 - ☆해질 무렵 산에 끼인 청록색(비취색)의 안개.
 - ☆푸르스름한 남기(嵐氣).
 - a. 남(嵐) : 남기(嵐氣) : 아내 : 산 같은데 떠오르는 푸르스름하고 흐릿한 기운이나 안개.
 - b. 취(翠) : 비취색(зелен 푸른색).
 - ③ 서동(西東) :
 - ☆일반적으로 사방을 가리키며, 정한 방향이 없다.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마치 해 질 무렵에 멀리보이는 푸르스름하고 흐릿한 아내의 기운이 어느 한 방향을 정해놓고 내려앉는 것이 아니 것과 같다. 본 시를 지을 때 작가 서애는 귀향하여 하회(河回)에 은거하고 있을 때였다. 하회는 사방이 멀리 혹은 가깝게 산으로 둘러싸인 마을이다. 따라서 역자는 “서동(西東)”이란 시어(詩語)의 방향을 어느 일방만을 지칭하여 쓰인 말이 아니라고 보고 ‘사방(四方)’의 뜻으로 번역한다. 『사기(史記) · 굴원가생열전(屈原賈生列傳)』에, “명리에 유혹되고 빈천에 압박받는 무리여, 동분서주하며 권세에 빌붙어 사욕을 취하려 하는구나(怵迫之徒兮, 惑趨西東).”라고 한 구절이 있다. 이 문장에 대하여, 남조(南朝)의 송(宋)나라 학자 배인(裴駰 : 420~479)은 집해(集解)에서, 삼국시대 위(魏)나라의 학자 맹강(孟康 : 생몰년 미상)이 한 말을 인용하여 말하기를, “‘출怵’은 명리에 유혹되다는 뜻이고, ‘박迫’은 빈천하여 압박을 받아, 동분서주하며, 권세에 빌붙어 사욕을 취하려 하는구나 라는 뜻이다(怵, 爲利所誘怵也, 迫, 迫貪賤, 東西趨利也).”고 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동분서주(東奔西走)’한다는 말은 ‘동쪽으로 뛰고 서쪽으로 뛰다’는 뜻으로, ‘사방으로(이리저리, 여기저기) 바쁘게 돌아다남을 이르는 말’이다.
 - ☆동쪽과 서쪽. 편향(偏向)된 뜻으로 쓰이는 복합사(複合詞)로서 서쪽만을 가리키기도 한다.
 - ☆술잔을 가리키는 말.
- 3) 부수행음 일묘중(負手行吟一畝中 : 뒷짐 지고 서든 평 공간을 시 읊으며 거니네) :
 - ① 부수(負手) : 뒷짐 지다(짚다). 두 손을 등 뒤로 젖혀 마주 잡은 것.
 - ☆부(負) : (짐 따위를) 짊어지다. 메다.
 - ② 행음(行吟) : ‘걸으면서(거닐면서) 시를 읊다’는 뜻이다.

③ 일묘중(一畝中) : 30평의 공간. 넓지 않은 마당을 가리키는 뜻으로 쓰인 것으로 보인다.

☆묘(畝) : ‘무(畝)’로도 읽는다. 지적(地積) 단위이다. 토지 면적의 단위로, 1묘는 30평(약 99.174㎡)이다. 또한 1단(段)의 10분의 1이며, 1경(頃)의 100분의 1이다. 60평방 장(丈)이 1묘(畝)이다. 조선시대의 도량형 제도를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조선 초기의 도량형(度量衡) 제도〉

고려 말에서 사용했던 도량형 제도를 그대로 답습하였다. 고려말에서 사용했던 도량형은 주척(周尺 : 『주례(周禮)에 규정된 자[尺]』)을 사용했다. 이후 이 제도는 조세법(租稅法)을 시행하는 과정과 연계되어 조정되는 과정에서 세종 18년(1436년)에 제정된 경묘법(頃畝法 : 토지를 측량할 때 쓰던 면적단위법)에 의하면, 표준척(標準尺)은 역시 주척(周尺 : 20.81cm)을 사용했다.

- a. 1묘의 길이 : 5척(五尺) : 104.05cm.
- b. 1보(一步)의 넓이 : 25척²(二十五尺)² : 10.826m² : 3.275평(坪).
- c. 1묘의 넓이 : 240척² : 주척으로 6,000척² : 259.8336m² : 78.6평.
- d. 1경(頃) : 100묘 : 주척으로 600,000척² : 25,983m² : 7860평.

〈세종 26년(1444년)의 양전산계법(量田算計法) 개량〉

- a. 표준척 : 주척(周尺)으로 20.81cm이고, 이는 포백척(布帛尺)으로 46.73cm로 정했다.
- b. 1등 양전척(一等量田尺) : 주척(周尺)으로 4.755척 : 포백척으로 2.126척이며, 이는 99.36cm이다.
- c. 각 등전(等田)의 넓이를 양전(量田)하는 단위인 결(結) · 부(負) · 속(束) · 파(把)를 면적비례에 따라 환산한 단위는 다음과 같다 :
 - ㉠ 주척(周尺) ‘4.755척’을 1척²으로 하고, 이것을 ‘1파(一把)’로 정했음.
 - ㉡ 10파는 1속(一束)이며 이는 10m²임.
 - ㉢ 10속은 1부(一負)이며 이는 100m²임.
 - ㉣ 100부는 1결(一結)이며 이는 10,000m²임.

〈인조 12년(仁祖十二年 : 1634년) 이후의 양전척(量田尺)〉

임진왜란으로 인하여 양전제도(量田制度)가 문란해지고, 양전척도(量田尺度)의 표준까지도 모조리 분실하여 옛 양전척을 알 수 없게 되었다. 그래서 인조 12년(仁祖十二年 : 갑술년(甲戌年) 1634년)에 양전척을 개량하였다. 이것을 ‘갑술양전척(甲戌量田尺)’이라고 한다. 이 갑술양전척의 길이는 세종 때 포백척(布帛尺)의 길이로 2.226척이었으므로 이 길이를 주척(周尺) 4.775척이 되는 새로운 주척이 만들어졌다.

- a. 갑술양전척(甲戌量田尺) : 포백척(布帛尺) 2.226척 : (46.73 × 2.226)cm : 104.021cm.
- b. 갑술양전용주척(甲戌量田用周尺) : (104.021 ÷ 4.775)cm : 21.7845cm : 약 21.79cm로 계산된다.
- c. 따라서 세종 26년(1444년)의 1등전척(一等田尺)의 길이와 1등전(一等田)을 측량한 1결(一結)의 넓이 및 인조 12년(1634년) 이후의 1등전 1결의 넓이는 아래와 같다.

㉔ 준수척(遵守尺) : 주척(周尺) 4.775척 : 포백척(布帛尺) 2.216척 : 99.36cm.

㉕ 세종 1등전(一等田) 1결(一結)의 넓이 : $0.9936\text{m}^2 \times 10,000\text{파(把)}$: $9,872.4\text{m}^2$: 2986.4평(坪).

(100묘(畝)가 1결이므로 1묘는 약 30평에 해당함)

㉖ 갑술(甲戌) 1등전 1결의 넓이 : $0.0402\text{m}^2 \times 10,000\text{파}$: $10,820.2\text{m}^2$ = 3273.1평과 같이 되어 약 10%씩 지적(地積)이 증가되었다.

(이상의 자료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한 『서울六百年史』 권2 제5장 제7절 「도량형(度量衡)」 조항을 참조하였음)

☆증(中) : 명사 + ‘중(中)’의 형태로 쓰여, 장소를 나타낸다. 기타 내용은 앞의 「시 2」의 주석6)의 ‘중(中)’ 조항 참조바람.

4) 부세백년 여단발(浮世百年餘短髮) : 덧없는 인생 백년에 성성한 모발만 남았는데) :

① 부세(浮世) : 덧없는 세상이란 뜻으로 인간 혹은 인간세상을 가리킨다. 옛사람들은 인간세상이 부침(浮沈 : 세력 따위가 성하고 쇠함)하고 집산(集散 : 모였다 흩어졌다 함)하며 부정(不定 : 안정되지 않음)하다고 생각한 까닭에 일컬어진 말이다.

② 백년(百年) : 일생. 종신. 평생. 유한한 인생을 시사한 것임.

③ 여단발(餘短髮) : 연로함만 남다.

☆단발(短髮) :

a. 머리술이 빠져서 드문드문 난 머리털. 연로(年老)함을 가리키는 말이다.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b. 짧은 머리털.

c. 단발(斷髮 : 머리털을 짧게 깎음)

5) 북창천고 유청풍(北窓千古有清風 : 북창으로 천고의 세월 지닌 청풍이 불어오네) :

① 북창(北窓) : 여기서 ‘북창(北窓)’은 북극성의 ‘북향(北向)’과 군왕(君王)의 북쪽에 서서 남쪽을 바라보는 제왕(帝王)의 ‘남면상’에 내포된 ‘북향상’을 시사하고 있다. 이를테면, 『논어(論語) · 위정편(爲政篇)』에서, “스승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정치를 덕으로써 하는 것은 비유하면 북극성이 그 자리에 있으면 못별들이 그것을 끼고 도는 것과 같다.’고 하셨다(子曰 : 爲政以德 譬如北辰居其所而衆星共之).”고 하였다. 또한 『논어(論語) · 용야(雍也)』에서는 “용은 임금이 되게 할 만하다(子曰 : 雍也可使南面).”고 하였다. 말하자면, ‘북극성’과 ‘남면’은 모두 임금을 상징하는 것으로, 이는 ‘방향’과 관련되어 있다. ‘북극성’은 북쪽 하늘에 떠 있는 별이며, 이는 하늘의 중추(中樞)로 안거(安居)하고 있기 때문에, 못별들이 그 별의 주위를 돌고 있다. 임금 또한 북극성과 마찬가지로 ‘등’을 북쪽으로 보이고 서서 정면은 남쪽을 향하는 이른바 ‘남면(南面)’의 자리에 위치해 백성들을 다스린다는 것으로 이는 ‘북극성’이 지닌 천리(天理)의 현상화를 관념화한 것이다.

② 천고(千古) :

☆아주 오랜 세월동안. 본시에서는 ‘천고(千古)의 세월을 지나다’는 뜻으로 쓰였다.

☆북극성의 운행법칙이 지닌 불변성에 조선왕조의 사직(社稷)을 은유하여 현재의 사직(社稷)도 여전히 ‘청풍의 비호’로 계속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아주 먼 옛적. 아주 오래 전의 시대.

☆‘역사지식’을 가리키는 말.

- ③ 유청풍(有淸風) : 여기서 ‘청풍’은 ‘맑고 시원한 바람’으로, 위정자의 ‘덕성(德性)’을 은유하고 있다.
- 6) 전아고역 안심법(纏痾苦憶安心法 : 병마에 시달린 탓에 안심법이 간절하게 생각나는데) :
- ① 전아(纏痾) : 전질(纏疾)과 같은 말로서, ‘질병이 달라붙어 오랫동안 낫지 않음’의 뜻이다.
 ☆전(纏) : 달라붙다. 귀찮게 굴다. 싸매다. 감다.
 ☆아(痾) : 숙병(宿病 : 오래 가지고 있는 병).
- ② 고역(苦憶) : 간절하게 생각한다.
- ③ 안심법(安心法) : 심성(心性)을 닦는 방법을 뜻하는 것으로 이는 『중용장구(中庸章句)』에 보인다. 앞의 「시69」 주석7)의 ② ‘안심법’ 조항과 앞의 시 「시54」 주석8)의 ① ‘정일(精一)’조항을 참조바람.
- 7) 향로난망 연주충(向老難忘戀主衷 : 늙으니 주군主君에 대한 그리움도 잊기 어렵네) :
- ① 향로(向老) : 늙어가면서. 늙음에 이르러. 늙어서.
 ☆향(向) : 접근하다. 근접하다.
- ② 연주충(戀主衷) : 군주를 그리워하는 마음.
 ☆연주(戀主) : 군주를 그리워하다.
 ☆충(衷) : 속마음. 진심.
- 8) 욕상위루 개망안(欲上危樓揩望眼 : 높은 누에 올라서 눈 닦고 <궁궐 쪽> 바라보고 싶어) :
- ① 위루(危樓) : 고루(高樓 : 높은 누각).
- ② 개망안(揩望眼) : 눈을 닦고 멀리 바라보다. 간절히 바라보는 눈.
- 9) 오운하처 시천궁(五雲何處是天宮 : 오색채운이 어디 있나 했더니 천궁에 있었네) :
- ① 오운(五雲) :
 ☆오색서운(五色瑞雲 : 오색의 상서로운 구름색깔)을 가리키는 말로서, 길상(吉祥)의 징조로 여겼다.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황제의 소재지를 가리키는 말. 본 시에서는 이 뜻을 내포하기도 한다.
 ☆정·백·적·흑·황(靑白赤黑黃)의 다섯 종류의 운색(雲色). 고인(古人)은 운색을 보고 길흉과 풍검(豐歉 : 풍흉豊凶 : 풍년과 흉년)을 점쳤다.
 ☆운영(雲英), 운주(雲珠), 운모(雲母), 운액(雲液), 운사(雲沙) 등의 다섯 종류의 운모(雲母 : 돌비늘)를 가리키는 말로서, 다섯 계절로 나누어 이것을 복용하면 장수하다가 신선이 된다고 하는 도가(道家)의 선약(仙藥).
 ☆오운체(五雲體 : 오타체五朶體)를 가리키는 말로서, 당나라 서예가 위척(韋陟 : 696~760)이 초서(草書)로 서명(署名)하던 서체 명칭.
- ② 천궁(天宮) :
 ☆천제(天帝)나 신선이 거주하는 궁전. 천상의 궁전.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동양의 천문학에서 나누는 별자리의 세 구획(星垣)으로, 북극 부근의 자미원(紫微垣), 사자자리 부근의 태미원(太微垣), 뱀자리 부근의 천시원(天市垣)을 이룬다.



시119. 김회중²⁾金晦仲 형제에게 써 주다

詩119. 贈金晦仲兄弟¹⁾
 증 김 회 중 형 제

强起²⁾三年病,
 강 기 삼 년 병

삼년 동안 병 앓다가 겨우 일어났는데,

欣逢二妙來³⁾.
 흔 봉 이 묘 래

두 청년이 방문하여 반가이 맞이했네.

扁舟載逸興⁴⁾,
 편 주 재 일 흥

조그만 배에 세속 벗어난
 흥취 싣고 왔다가,

夜渡水雲隈⁵⁾.
 야 도 수 운 외

밤에 구름 낀 강 물굽이를 건너가네.

1) 김회중형제(金晦中兄弟 : 김회중 형제) :

① 김회중(金晦仲) : 자 회중(晦仲), 이름은 김혜(金惠 : 1566?~?). 부친은 김수길(金綏吉). 본관은 상산(商山 : 경상북도 서쪽에 위치하는 상주尙州 지역의 옛 지명임)이다. 사헌부감찰(司憲府監察)과 군수(郡守)를 지냈다.

② 형제(兄弟) : 류명희·안유호 역주 『국역 류성룡 시』 권1 「시57」의 시제(詩題)에, “김미백(金美伯) 군과 김회중(金晦仲) 군, 권손행(權巽行) 등이 찾아 왔길래, 얼핏 떠오르는 생각을 시로 읊어 써 주다(金美伯、晦仲及權生巽行來訪 偶吟書贈).”에서, “두 청년은 자주 방문했는데, 이번엔 권군 또한 나란히 말을 타고 왔네(二妙勤相訪, 權君又並驂).”라고 읊고 있다. 이 시문에 의거하면, 김회중은 본 시에서 김미백과 서애선생을 방문한 것으로 보이며, 이 두 사람은 형제간으로 추측된다.

2) 강기(强起) : 강기(彊起)로도 쓴다.

① 간신히(가까스로 무리하게) 기상(起牀)하다.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 ② 기용(起用)을 강행하다.
- 3) 흥봉 이묘래(欣逢二妙來 : 두 청년이 방문하여 반가이 맞이했네) :
- ① 흥봉(欣逢) : 즐겁게(기쁘게) 맞이하다.
 ☆흥(欣) : 즐겁다. 기쁘다.
 ☆봉(逢) : 만나다.
- ② 이묘(二妙) : 두 젊은이. 두 청년. 여기서는 김화중 형제를 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의 이 ‘이묘(二妙)’는 바로 주석 1)에 소개한 김미백(金美伯)과 김화중(金晦仲) 두 청년인 것으로 보인다.
 ☆묘(妙) : 연소(年少)하다.
- 4) 편주 재일흥(扁舟載逸興 : 조그만 배에 세속 벗어난 흥취 싣고 왔다가) :
- ① 편주(扁舟) :
 ☆편(扁)은 ‘협소한 모양’의 뜻이고, ‘주(舟)’는 ‘배’라는 뜻으로, ‘소선(小船)’ 곧 ‘일엽편주(一葉片舟)’를 가리킨다.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배 여러 척을 한데 묶어서 연결시켜 나란히 한 척으로 만든 것을 ‘편주(扁舟)’라고 한다. 방주(方舟 : 두 척의 배를 엮어 한 척으로 병렬시킨 배), 유주(維舟 : 네 척의 배를 묶어 한 척으로 연결시켜 흔들리지 않도록 한 배)와 같은 말이다.
- ② 일흥(逸興) : 세속을 벗어난 (고상한) 흥취(흥미).
 ☆일(逸) : 세속을 벗어나다(초일超逸).
- 5) 수운외(水雲隈 : 구름이 낀 물굽이) :
- ① 수운(水雲) :
 ☆물 위쪽의 구름.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물과 구름.
- ② 외(隈) : 물가의(산의) 굽어 들어간 곳.



시120. 두보杜甫의 시를 차운하여 (지은 시를)
승려가 가져 온 두루마리에 써 주다

詩120. 次老杜韻題僧軸¹⁾
차 노 두 윤 제 승 축

病起尋江舍²⁾,
병 기 심 강 사

병 앓다가 일어나
강변 정사精舍 둘러보는데,

僧來過竹坡³⁾.
승 래 과 죽 파

승려가 와서 대숲언덕을 같이 가봤네.

蕭條荒店小⁴⁾,
소 조 황 점 소

외진 곳의 객사 작아 적막하고 쓸쓸한데,

隱約暮山多⁵⁾.
은 약 모 산 다

저물녘에 산은 많아
(사방이) 어슴푸레하네.

歲晚悲芳草⁶⁾,
세 만 비 방 초

(나는) 세월에 향초 보고
슬픔에 잠기는데,

人愁怨碧蘿⁷⁾.
인 수 원 벽 라

사람들은 벽라碧蘿 원망하는 것을
걱정하네.

水雲無定跡,
수 운 무 정 적

물과 구름은 흘러간 행적을 남기지
않는데,

臨別意如何⁸⁾.
 림 별 의 어 하

이별에 즈음하여 그대 생각은 어떠하신고?

- 1) 차로두운 제승축(次老杜韻題僧軸 : 두보의 시를 차운하여 승려가 가져온 두루마리에 써 주다):
 - ① 차노두운(次老杜韻): 두보의 시를 차운(次韻)하다.
 ☆차…운(次…韻): 원시(原詩)의 운(韻)과 운각(韻脚)의 순서에 따라 시에 화답(和答)하는 것으로, 기타 내용은 앞의 「시20」 주석1)의 ② ‘차운(次韻)’ 조항을 참조바람.
 ☆노두(老杜): 앞의 「시81」의 주석1)의 ② ‘노두(老杜)’ 조항을 참조바람.
 - ② 제(題): 시를 쓰다.
 - ③ 승축(僧軸):
 ☆승려가 펼친 두루마리.
 ☆승려가 가져온 두루마리.
 a. 축(軸): 두루마리. 가로로 길게 이어 둘둘 등글게 만 종이로, 편지나 그 밖의 글을 쓸 때 쓴다.
- 2) 심강사(尋江舍): 강변의 정사(精舍)를 둘러보다.
 - ① 심(尋): 찾아가다. 방문하다. 둘러보다.
 - ② 강사(江舍): 강변의 정사(精舍). 본 시에서는 옥연정사(玉淵精舍)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 3) 과죽파(過竹坡): 대숲이 우거진 언덕에 가다. 대숲이 우거진 언덕을 지나가다.
 - ① 과(過): 도달하다. 가다. 지나가다.
 - ② 죽파(竹坡): 대숲이 우거진 언덕.
- 4) 소조 황점소(蕭條荒店小: 외진 곳의 객사 작아 적막하고 쓸쓸한데):
 - ① 소조(蕭條): 적막하다. 스산하다. 쓸쓸하다. 생기가 없다.
 - ② 황(荒): 편벽(偏僻)하다. 외지다. 황량하다.
 - ③ 점(店): 객사(客舍). 객점(客店).
 - ④ 소(小): 작다. 자그마하다.
- 5) 은약 모산다(隱約暮山多: 저물녘에 산은 많아 〈사팡이〉 어슴푸레하네):
 - ① 은약(隱約):
 ☆확실히 보이지 않는 모양. ‘은은하다. 희미하다. 어슴푸레 하다’로 표현할 수 있다.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곤란하다. 궁하다. 검약(儉約)하다.
 ☆말은 간단하나 뜻이 깊은 것을 이르는 말.
 - ② 모산(暮山): 저물녘 산.
 - ③ 다(多): 많다.
- 6) 세만 비방초(歲晚悲芳草: (나는) 세밑에 향초 보고 슬픔에 잠기는데):
 - ① 세만(歲晚): 세밑. 세모(歲暮).
 - ② 방초(芳草): 꽃다운 풀, 향기가 좋은 풀, 향초.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으며,

이는 충정(忠情)과 현덕(賢德)을 지닌 군자에 비유한 것이다. 자세한 뜻은 앞의 「시7」 주석7)의 ② ‘방초(芳草)’ 조항을 참조바람.

7) 인수 원벽라(人愁怨碧蘿 : 사람들은 벽라碧蘿 원망하는 것을 걱정하제) :

① 인(人) : 사람들.

② 수(愁) : 걱정하다.

② 벽라(碧蘿) :

☆청송(青松)을 타고 올라가서 기생(寄生)하는 녹색식물. 전(轉)하여, 은사(隱士)의 거주지를 비유하는 말로 쓴다. 본 시에서는 ‘은자’를 은유하는 말로 쓰였다. 앞의 「시94」의 주석18)의 ① ‘벽라(碧蘿)’ 조항을 참조바람.

☆여라(女蘿) : 여라의(女蘿衣) : 전(轉)하여, 은사(隱士)의 거주지를 비유하는 말로도 쓴다. 선태식물(蘚苔植物)에 속하는 이끼의 하나이다. 암수딴그루이며 나무 위에서 나는데 광택이 있다. 줄기는 실과 같이 가늘고 길며 얇은 피침 모양이고 흘씨주머니는 달걀모양이다.

8) 임별 의여하(臨別意如何 : 이별에 즈음하여 그대 생각은 어떠하신고?) :

① 임별(臨別) : 이별에 임하다. 막 헤어지려고 하다.

② 여하(如何) : 의문대명사로, ‘어떠냐? 어떠한가?’의 뜻으로 쓰였다.

시121. 서재西齋에서 밤에 즉흥卽興으로 읊다

詩121. 齋夜卽事¹⁾
재 야 즉 사



松聲滿院小堂靜²⁾,
송 성 만 원 소 당 정

솔바람 소리 뜰 안에 가득하나
방안은 정적靜寂이 감도는데,

竹影橫庭寒月明³⁾.
죽 영 횡 정 한 월 명

뜰에는 대 그림자 흔들리고
차가운 달빛 밝으네.

老人不寐窓間卧⁴⁾,
노 인 불 메 창 간 와

늙은이 잠 못 이뤄
잠시 창 앞에 누웠다가,

默數香燭到五更⁵⁾.
묵 수 향 반 도 오 경

향반香燭에 놓인 향을 속으로 세어보니
오경五更이 됐겠네.

1) 재야즉사(齋夜卽事 : 서재西齋에서 밤에 즉흥卽興으로 읊다) :

① 재(齋) : 서재(書齋). 기타 자세한 뜻은 앞의 「시4」 주석1)의 ①을 참조바람.

② 즉사(卽事) : 눈앞에 직면한 사물을 제재(題材)로 하여 즉흥적으로 쓴 시이다. 시제(詩題)로도 자주 쓰는 말이다. 기타 자세한 뜻은 앞의 「시19」 주석1)의 ②항목을 참조바람.

2) 송성만원 소당정(松聲滿院小堂靜 : 솔바람 소리 뜰 안에 가득하나 방안은 정적靜寂이 감도는데) :

① 송성(頌聲) : 솔바람 소리.

② 소당(小堂) : 작은 방.

☆당(堂) : 거주하는 방. 방.

- a. 본래는 비어 있는 집안의 모양을 본 뜬 형성문자(形聲文字)이다. 흙을 높이 쌓아 돌운 위에 세운 높고 큰 집의 뜻을 나타냈다. 일반 집보다 높아서 신령에 제사를 올리거나 풍년을 기구(祈求)할 때 사용했다.
 - b. 청대(清代) 문자 학자, 단옥재(段玉裁 : 1735~1815)가 동한(東漢)의 허신(許慎 : 30~124)이 쓴 『설문해자(說文解字)』에 주서(注書)하기를, “고대에는 ‘당(堂)’이라 하였고, 한 대漢代 이후에는 ‘전(殿)’이라 칭했다. 고대에는 전·후기에 걸쳐 모두 ‘당(堂)’이라 칭했고, 한대에서는 전·후에 걸쳐 모두 ‘전(殿)’이라 일컬었다. 당대唐代 이후에는 공직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전殿’이라고 칭하는 자가 없었다(古曰堂, 漢以後曰殿. 古上下皆稱堂, 漢上下皆稱殿. 至唐以後, 人臣無有稱殿者矣).”라고 한 대목이 보인다.
 - c. 후대에는 가옥의 정청(正廳)을 범칭(泛稱)했다.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으며, 문맥을 고려하여, ‘작은 방’으로 번역하였다.
 - d. 구시대(舊時代)에는 관부(官府)에서 정사(政事)를 논의하고 안건을 심리(審理)하는 곳을 ‘당’으로 칭했다.
 - e. 타인의 모친을 존칭할 때 사용하였다.
 - f. 산상(山上)의 넓고 평평한 곳을 칭했다.
 - g. 불당(佛堂).
- 3) 죽영횡정 한월명(竹影橫庭寒月明 : 뜰에는 대 그림자 흔들리고 차가운 달빛 밝은데) :
- ① 죽영횡정(竹影橫庭) : 뜰에 바람이 불자 대나무 그림자가 좌우·중횡으로 흔들리는 것을 말한다.
 ☆죽영(竹影) : 대나무 그림자.
 ☆횡(橫) :
 a. 중횡으로. 본 시에서는 ‘이리저리’의 뜻으로 쓰였다.
 b. 가로 놓이다.
 c. 가로 지르다.
 d. 뒤엎히다. 가로세로로 얹힘.
 - ② 한월(寒月) :
 ☆맑고 차가운 달빛.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적막한(쓸쓸한 쓸령한) 달. 또는 그러한 달빛을 가리키기도 한다.
 ☆한랭한 월령(月令)이란 뜻으로 ‘겨울’을 가리키는 말이다.
- 4) 노인불매 창간와(老人不寐窓間臥 : 늙은이 잠 못 이루 잠시 창 앞에 누웠다가) :
- ① 불매(不寐) : 잠을 자지 않다. 잠을 이루지 못하다.
 ☆매(寐) : 잠을 자다. 잠이 오다.
 - ② 창간와(窓間臥) : 창 앞에 잠시 눕다.
 ☆간(間) : 잠시. 경각(頃刻).
 ☆와(臥) : 눕다.
- 5) 묵수향반 도오경(默數香槃到五更 : 향반香槃에 놓인 향을 속으로 세어보니 오경五更이 됐겠네) :
- ① 묵수(默數) : 속으로 세다.

☆묵(默) : 부사로, ‘속으로 말없이. 입 다물고’ 등의 의미로 쓰였다.

② 향반(香槃) :

☆향(香) : 향내를 풍기는 나무 조각이나 그 껍질로 제조한 것으로 범어(梵語)로는 간다(gandha)이며 건타(乾陀)는 음역이다. 향을 태우면 나쁜 냄새를 없애고 마음을 청결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향이 신성(神聖)에 정성이 통한다고 하여 예부터 불전(佛前)과 제례(祭禮)에 필수품으로 써왔다. 조선시대에는 민간에 까지 널리 보급되었고, 특히 선비들은 큰 행사가 있을 때뿐만 아니라 평상시 방안에서도 마음을 맑게 하고 몸을 안정시킨다는 품덕(品德)을 지녔다는 이 향을 늘 피웠다. 여인들은 향낭(香囊)이 있어 차고 다니며 향을 풍기고 귀신도 물리친다는 주술적 의미도 지니고 있었다. 시대에 따라, 종교계와 민간의 취향에 따라 향을 쓰는 방법과 종류 및 도구가 매우 다양하다.

☆향반(香槃) : 향반은 분향(焚香 : 향을 태워서 쏘아대는 뜻으로 소향燒香 또는 훈향薰香의 뜻과 같음)할 때 쓰는 도구이다. 향로를 안치하는 대(臺)이기도 하고, 분향할 향을 담은 쟁반을 가리키기도 한다. 보통 가정에서는 향로를 안치한 쟁반에 분향할 향을 얹어 둔다. 이것이 ‘향반’이다. 다만, 본 시에서 보듯이 향의 양을 보고 시간을 측정한 것은 향전(香篆)*을 사용한 것이기에 본 주석에서 ‘향전’을 주석한다. 동시에 서예가 어떤 종류의 향전을 써서 시간을 측정할 수 있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아래의 주석을 참조 바란다. 역자는 서예가 분향하기 전에 미리 준비해둔 일정한 길이의 향을 세어보고 시간을 측정한 것으로 보고 해석한다.

*향전(香篆) :

- a. 향을 피워서 시간을 측정하는 장치인데, 그 도형(圖形)이 전서체(篆書體)라서 일컬어진 말이다. 하나의 예를 들어서 ‘향전’을 설명하자면, 크기가 일정하지는 않지만 대략 지름 10cm 가량이고 두께는 약 5mm 정도인 판자(청동으로 된 것도 있음)에 각자의 취향에 따라 전자체(篆字體)로 글자나 도형을 새기고 파내서 뚫는다. 그런 다음 그 판자의 중앙부에 손잡이를 단다. 이것이 향전(香篆)이다. 그 도형이 전자체이기에 일컬어진 말이다. 향로 안에 남아있는 향의 재를 평회기(平灰器 : 재를 평평하게 다지는 도구)로 다진 다음, 향전(香篆)을 놓고 향시(香匙 : 향분香粉, 즉 향가루를 떠 담는 커피 스푼보다 작은 숟가락)로 향분을 떠서 향전(香篆) 위에 떠 넣는다. 그런 다음 향산(香鑪 : 향분을 고르게 향전의 글자나 도형에 잘 들어가도록 밀어 넣는 아주 작은 끝부분이 ‘일-’ 자형으로 된 도구)으로 향전의 모형에 잘 들어가도록 밀어 넣고 다진 다음에 향전을 들어 올리면 향로 안에는 전자체의 향분(香粉) 모형이 입체적으로 드러난다. 그런 다음 분향하면 된다. 이것이 중국식 향전이다. 복송(歙宗) 정강년간(靖康年間 : 1126)에 간의대부(諫議大夫)를 역임한 홍취(洪취 : 생몰년 미상)의 저서 『향보(香譜)·향전편(香篆篇)』에, “향전(香篆)은 나무판을 새겨 뚫어서 만드는데(鑿木以爲之), 그것으로 향분香粉을 전자체 모형으로 만들어서(以范香塵爲篆文), 음연식객宴席이나 불상 앞에 피우는데(然於炊席或佛像前), 왕왕 그 지름이 두세 자되는 것도 있다(往往有至二三尺徑者).” 한 대목이 있다. 또 같은 책 「백각향편(百刻香篇)」에는 “근래에 와서 기호가속好家들은 향전香篆을 만들면서(近世尙奇者作香篆),

그 향전에 십이진十二辰의 표준을 따른 색채를 교작交錯하여(其文準十二辰), 일백각一百刻으로 분류한 다음(分一百刻), 일주야一晝夜에 그 향을 다 사르게 하였다(凡燃一晝夜已).”고 한 대목이 있다.

- b. 분향할 때 피어나는 연기를 가리키는 말이다. 분향할 때 피어나는 연기가 전서체(篆書體)와 흡사하게 꼬불꼬불하다고 해서 일컬어진 말이다. 이때의 향전(香篆) 역시 향을 피워 시간을 측정하는 장치로서 향시계라고도 한다. 향은 보통 분향(粉香)이나 선향(線香 : 향료가루를 가늘고 긴 선 모양으로 만들어 풀로 굳힌 향)이 쓰이는데, 후자의 경우에는 시간측정이 용이하다. 우리나라의 큰 절에는 노전(爐殿)이 대웅전과 함께 있는데, 노전스님이 선향을 피우고 지키며, 또 시간을 측정하는 일을 맡고 있다. 향시계가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활발히 사용되었는지는 분명하지 않으나, 불당에서는 조선말까지 시간측정에 쓰였다고 한다. 지금도 사찰에서는 30분향, 한시간향 등으로 불리는 만수향이 쓰이고 있다. 노승(老僧)의 말에 의하면, 참나무 버섯을 잣물에 삶아서 그늘에 말려 고운 가루로 향을 만들어서 돌에 불가(佛家)의 자형(字形)을 파서 만든 향반(香槃)에 넣고 한쪽 끝에 붙여서 시간을 측정한다고 한다. 조선후기의 문신인 남병철(南秉哲 : 1817~1863)의 『의기집설(儀器輯說)』에는 향전이 시간측정에 사용되었다는 기록이 있다.

③ 오경(五更) :

☆새벽 3시부터 5시 사이를 오경이라 하였으며, 잔경(殘更) 또는 심경(深更)이라고도 한다. 옛날에는 일몰부터 일출까지 하룻밤을 5등분으로 나누어 부르는 시간의 이름을 ‘경(更)’이라 하였다. 밤 7시부터 시작하여, 2시간씩을 한 단위로 묶어서, 초경(初更 : 일경一更이라고도 하고, 초야初夜라고도 함), 이경(二更), 삼경(三更), 사경(四更), 오경(五更)으로 하였다. 이때의 오경(五更)을 오야(五夜)로 말하며, 초경을 갑야(甲夜), 이경을 을야(乙夜), 삼경을 병야(丙夜), 사경을 정야(丁夜), 오경을 무야(戊夜)라고도 한다.

☆하룻밤을 다섯으로 나눈 시각을 통틀어 이르는 말.

시122. 백운白雲

詩122. 白雲
백운



白雲亦有心，
백운역유심

백운白雲도 마음을 지니고 있나니,

卷舒依時節¹⁾。
권서의시절

펼차라 말았다 펼쳤다 하네.

朝從天際去²⁾，
조종천제거

아침에는 하늘가로 흘러갔다,

夜向³⁾巖邊宿。
야향암변숙

밤이 되면 암벽 주변에 돌아와 머무르네.

回風⁴⁾一吹散，
회풍일취산

회오리바람 한 번 불었다하면 흩어졌다,

陰薄不成澤⁵⁾。
음박불성택

저울 되면 얇아져 비이슬도 못 만드네.

飄飄不自持⁶⁾，
표표부자지

등실등실 떠다니다 자제自制하지 못하고,

蕩蕩⁷⁾空中滅。
탕탕공중멸

넓디넓은 구름장이 공중에서 소멸되네.

天寒歲云暮⁸⁾，
천한세운모

날씨가 차가워지고 세밀이 됐는데도

獨伴⁹⁾山中客。
독반산중객

백운만이 저 홀로 산중의 나그네를

동반해주네.

非無贈君意¹⁰⁾,
비 무 증 군 의

그대에게 전할 정이 없는 것은 아니기에,

畢竟還自悅¹¹⁾.
벌 경 환 자 열

마침내 환향還鄉하니 내 자신이 기쁘다네.

長歌白雲謠¹²⁾,
장 가 백 운 요

(즐거워서) 서왕모西王母의 「백운요」를
소리 높여 부르다가,

聊當紫芝曲¹³⁾.
요 당 자 지 곡

부족하지만 사호四皓의 자지곡紫芝曲에
견뎌볼까 하네.

1) 권서 의시절(卷舒依時節 : 철 따라 말았다 펼쳤다 하네) :

① 권서(卷舒) :

☆구름이 자신의 몸을 말았다 펼쳤다 하다. 말고 펼칠.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진퇴(進退) 또는 은현(隱現 : 숨었다 나타났다 함)과 같은 말.

② 시절(時節) : 계절 · 철 · 절기 · 시절.

2) 조종 천제거(朝從天際去 : 아침에는 하늘가로 흘러갔다) :

① 종(從) : 전차사로, ‘(으)로’의 뜻이며, 경유하는 노선이나 장소를 나타낸다.

② 천제(天際) : 하늘가.

☆제(際) : 끝. 가.

3) 향(向) : 접근하다. 근접하다.

4) 회풍(回風) : 선풍(旋風) : 회오리바람. 돌풍.

5) 음박 불성택(陰薄不成澤 : 겨울 되면 얇아져 비이슬도 못 만드네) :

① 음박(陰薄) : (가을과) 겨울절에는 구름두께가 얇아지다.

☆음(陰) :

- a. 추동(秋冬) 계절. 『공자가어(孔子家語) · 본명편(本命篇)』에, “모든 생물이 겨울에 드러내지 않고 감추는 것은, 〈자연의 이치로〉 변화 생육하는 시작이 되기 때문이다(群生閉藏乎陰, 而爲化育之始).”고 한 구절이 있다. 이 문장에 대하여, 삼국시대 위(魏)나라의 왕숙(王肅 : 195~256)이 주석하기를, “음陰’은 겨울이란 뜻이다(陰爲冬也).”고 하였다. 또한 『문선(文選)』에 수록된 서진(西晉)의 문인 반악(潘岳 : 247~300)의 「한거부(閑居賦)」에, “그 밖에, 겨울이 지나가고 봄이 오면(若乃背*冬涉*春), 음陰이 쇠하고 양陽이 나타난다(陰謝*陽施*).”고 한 구절이 있다. 당(唐)나라의 학자 이선(李善 : 630~689)이 이 글을 주석하면서, “『신농본초(神農本草)』를 인용하여 말하

기를(神農本草曰): ‘춘계春季와 하계夏季는 양陽이고(春夏爲陽), 추계秋季와 동계冬季는 음陰이다(秋冬爲陰).’고 하였다.

*약내(若乃): ‘그 밖에. 심지어. … 때문에. …로 하여. …에 이르러. …의 정도에 달하면. …의 때가 되면’ 등의 뜻으로, 문두(文頭)에 써서 어떤 일이 달리 (별도로) 일어나는 것을 표시하는 말이다.

*배(背): 지나가다.

*섭(涉): 이르다. 오다.

*사(謝): 쇠하다.

*시(施): 드러나다. 나타나다.

b. 운괴(雲塊: 구름몽치).

☆박(薄): 얇다. 얕다. 적다.

② 불성택(不成澤): (구름의 두께가 얇아) 우로(雨露: 비와 이슬: 비이슬)를 만들 수 없다. 비와 이슬을 내리게 할 수 없다.

☆불성(不成): …할 수 없다. 성취(성공)할 수 없다.

☆택(澤): 우로(雨露). 비와 이슬.

6) 표표 부지(飄飄不自持: 둥실둥실 떠다니다 자제自制하지 못하고):

① 표표(飄飄): 하늘에 날려가는 모양. ‘둥실둥실 떠다니다’로 표현된다. 기타 자제한 뜻은 앞의 「시88」의 주석10)의 ‘표표(飄飄)’조항을 참조바람.

② 자지(自持): 자제(自制)하다.

7) 탕탕(蕩蕩):

① 왕도(王道)나 대해(大海) 등이 광대(廣大)한 모양. 박대(博大)한 모양.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으며, ‘넓디넓은 구름장(넓게 퍼진 두꺼운 구름덩이)’의 뜻으로 쓰였다.

② 사람의 도량(度量: 사물을 너그럽게 용납하여 처리할 수 있는 넓은 마음과 깊은 생각)이 넓은 모양.

③ 물이 용솟음치며 세차게 흐르는 모양으로, ‘꺅꺅 흐르다’로 표현된다.

④ 방중 하는 모양. 아무런 제약도 받지 않는 모양. 법도가 퇴폐한 모양.

⑤ 떠다니는 모양. 나부끼는 모양. 펄럭이는 모양. 바람에 흔들리는 모양. 팔랑팔랑 · 펄럭펄럭 · 흔들흔들 · 일렁일렁 · 동동 등으로 표현된다.

⑥ 밝고 맑게 빛나는 모양으로 ‘반짝반짝’ 등으로 표현된다.

⑦ 아무것도 지닌 것이 없는 모양으로, ‘머리를 뽁뽁 깎다’라고 할 때의 ‘뽁뽁’, ‘텅텅 비어 있다’고 할 때의 ‘텅텅’ 등으로 표현된다.

8) 천한 세운모(天寒歲云暮: 날씨가 차가워지고 세밀이 됐는데도):

① 천한(天寒): 날씨가 차가워지다.

② 세운모(歲云暮): 세밀(연말)이 되다. 세모(歲暮)가 되다. 사람이 만년(晩年)이 됐음을 비유한 말로도 쓴다. 본 시에서는 오로지 시절의 변화를 묘사한 것이다.

☆세(歲): 년(年).

☆운(云):

a. 어조사이다.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b. 이다. 되다. ‘위(爲)’, ‘시(是)’의 뜻이다.

☆모(暮): 해질 무렵. 저물녘. 노년(老年)을 비유한 말로도 쓴다. ‘세모(歲暮)’와

같은 말이다.

9) 독반(獨伴): 홀로 동반하다.

① 독(獨):

☆부사로, ‘여전히, 전과 다름없이, 의연하게’의 뜻으로 쓰였다.

☆백운 저 홀로 본 시에서는 ‘백운(白雲)’을 개체로 보아 ‘독(獨)’으로 표현한 것이다.

② 반(伴):

☆동반(同伴)하다.

☆상대해준다. 상대가 되어준다.

10) 비무 증군의(非無贈君意: 그대에게 전할 정이 없는 것은 아니기에):

① 비무(非無): 없는 것이 아니다.

② 증군의(贈君意): (구름) 그대에게 줄 마음.

☆증(贈): 주다.

☆군(君): 상대방에 대한 존칭으로, 본 시에서는 구름을 가리키는 말로 쓰였다.

☆의(意): 정. 마음. 생각.

11) 필경 환자열(畢竟還自悅: 마침내 환향還鄉하니 내 자신이 기쁘다네):

① 필경(畢竟): 결국. 마침내. 필경.

② 환자열(還自悅): 환향하니 내 자신이 기쁘다.

☆환(還): 다시 돌아오다. 본시에서는 귀향하다는 뜻으로 쓰였다.

☆자열(自悅):

a. 스스로 기뻐하다. 스스로를 기쁘게 하다. 스스로 기쁘게 여기다. 내 자신이 기쁘다.

b. 스스로 순종하다.

12) 장가 백운요(長歌白雲謠: 〈즐거워서〉 서왕모西王母의 「백운요(白雲謠)」를 소리 높여 부르다가):

① 장가(長歌):

☆소리 높여 노래 부르다. 소리 높여 부르는 노래.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편폭(篇幅)이 비교적 긴 시가(詩歌).

② 백운요(白雲謠): 중국고대 신화 중에서 주목왕(周穆王: 생몰년 미상 서주西周의 국군國君)이 곤륜산(崑崙山)에 가서 선녀인 서왕모(西王母: 선진先秦 이래 광범하게 전해진 신화적 인물로, 그 형상은 반인반수半人半獸로, 동굴에 거처하며, 하늘의 재앙과 오형五刑을 관장하는 신神임. 자세한 것은 류명회·안유호 역주 『국역 류성통시』 권2의 「시 12」 주석15)의 ①을 참조바람)와 요지(瑤池: 고대 중국전설에 곤륜산 산상山上에 있었다고 하는 지명池名으로, 서왕모의 거주지였다고 함)에서 주연을 베풀고 헤어질 때, 서왕모가 주목왕을 위해서 부른 노래로, 『목천자전(穆天子傳)』 권3에, “서왕모가 천자를 위해 노래를 부르기를(西王母爲天子謠): ‘흰 구름 하늘에 머무는데, 산과 언덕은 절로 솟아올랐네(白雲在天, 山陵自出). 갈 길은 아득히 멀기만 한데, 그 사이사이 산천이 허다하네(道里悠遠, 山川間之). 그대 가는 길에 죽지 않고, 의연히 다시 돌아올 수 있겠는가(將子無死, 尙能復來)?’”라고 불렀다. “천자가 이에 답하여 노래하기를(天子答之曰): ‘내가 중국에 돌아가면, 중원의 각 제후국을 평화롭게 통치하겠소(予歸東土*, 和治諸夏). 만민이 골고루 잘 살게 한 연후

에, 내 다시 돌아와 그대를 만날 것이오(萬民平均, 吾願見汝). 3년만 기다리면, 이곳 변방에 다시 와서 그대를 만날 것이오(比及*三年, 將復而*野*)."라고 하였다.

*동토(東土): 고대에 중국이 서방(西方)에 대하여, '중국(中國)'을 지칭한 말이다.

*비급(比及): '…의 때가 되면, 기다리면'의 뜻으로 쓰였다.

*이(而): 이(것). 저(것). 동진(東晉)의 학자 곽박(郭璞: 276~324)이 『묵천자전(穆天子傳)』을 주석하면서 말하기를, “장부이야(將復而野)란 말은 ‘다시 이 들관(변방을 가리키는 말)에 와서 그대를 만나겠다(復返此野而見汝也)’는 뜻이라고 하였다.”

*야(野): ‘변경(邊境)’의 뜻이다.

13) 요당 자지곡(聊當紫芝曲: 부족하지만 사호四皓의 자지곡紫芝曲에 견줄까 하노라):

① 요당(聊當): 부족한대로 …에 건준다.

☆료(聊): 부사로 ‘억지로 부족한 대로 겨우. 애오라지’ 등의 뜻으로 쓰였다.

☆당(當): 대신하다. 충당하다. 전(轉)하여, 건준다.

② 자지곡(紫芝曲):

☆‘자지(紫芝)’, 즉 ‘영지(靈芝) 버섯’을 채취하여 허기진 배를 채우면서 은일피세(隱逸避世)하던 은사(隱士)의 노래이다. 이는 『악부시집(樂府詩集)·금곡가사2(琴曲歌辭 二)』에, 「채지조(採芝操)」란 제명(題名)으로 수록 되어 있다. 이의 가사를 보면, 다음과 같다: “하늘이여 아아 높고 넓은데, 깊은 산속 으스스한 골짜기 구불구불 이어졌네(皓天嗟嗟*, 深谷逶迤*). 수목이 뻘뻘하게 우거졌는데, 고산은 높은데다 험준하네(樹木莫莫*, 高山崔嵬). 바위 위나 동굴 속에 거처하면서도, 휘장치고 돛자리 간 방에 사는 것으로 여기네(巖居穴處, 以爲幄茵*). 반들반들 윤기 나는 영지버섯은, 허기진 배를 채워줄 수 있다네(曄曄紫芝*, 可以療飢). 요순임금도 이미 별세했거늘, 우리가 어찌 돌아갈 생각하겠는가(唐虞*往矣, 吾當安歸)!”

작가는 진(秦)나라 말기의 은사(隱士) 동원공(東園公: 생물년 미상: 성은 유庾, 자는 선명宣明) · 기리계(綺里季: 생물년 미상) · 하황공(夏黃公: 생물년 미상) · 녹리선생(角里先生: 생물년 미상) 등 세칭(世稱) ‘상산사호(商山四皓)’라 일컫던 4명의 은사이다. 이들 은사는 모두 나이 80을 넘어 수명과 눈썹이 흰데다 상산(商山: 지금의 섬서성陝西省 단봉현丹鳳縣 서상진西商鎮 남방 1리에 위치함)에 은거하였기에 이들을 ‘상산사호(商山四皓)’라고 불렀다.

또한 이 「자지곡(紫芝曲)」을 『악부시집(樂府詩集)·금곡가사2(금곡가사(琴曲歌辭 二))』에서는 「사호가(四皓歌)」란 제목으로 「채지조(採芝操)」에 이어서 수록하고 있다. 명(明)나라 문인 풍유눌(馮惟訥: 1513~1572)이 편찬한 시집 『시기(詩紀)』 제2권에서는 「사호가(四皓歌)」를 「자지가(紫芝歌)」란 제명(題名)으로 수록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호가」 역시 「자지곡」인 것이다. 작가는 당(唐)나라 문인 최홍(崔鴻)으로 수록되어 있다. 원문을 보면 다음과 같다: “뻘뻘이 수목 우거진 상현商縣과 상락현上洛縣이라, 깊은 산속 으스스한 골짜기 구불구불 이어졌네(漠漠商洛*, 深谷威夷*). 반들반들 윤기 나는 영지버섯은 허기진 배를 채워줄 수 있다네(曄曄紫芝, 可以療飢). 황제 신농씨神農氏 이 세상 떠나 요원한 곳에 있으니, 우리 장차 어디로 돌아갈꼬(皇農邈遠*, 余將安歸)! 네 필 말이 끄는 높직한 수레 타는 고관대작이여, 그들은 근심 또한 알

마나 많겠는가(駟馬高蓋*, 其憂甚大)! 부귀해서 사람들을 두려워며 사는 것 보다는 빈천해도 내 뜻대로 사는 것만 못하리(富貴而畏人, 不如貧賤而輕世*)!” 라고 읊었다.

*차차(嗟嗟):

- 감탄사로서 감개(感慨)·감탄을 표시하는 말로 쓰는데, 예를 들면, ‘아! 오오!’ 등이며, 본 인용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 감탄사로서, 찬미·찬탄을 표시하는 말로 쓰며, 아! 오오! 등으로 표현할 수 있다.
- 부르는 것을 표시하는 말로 씀. 예를 들면, ‘어어어·이봐요이봐요·야야’ 등이다.
- 의성어로 쓰여 물이 흘러가는 모양을 표시한다. 졸졸·팔팔 등으로 표현할 수 있다.

*심곡위이(深谷逶迤: 깊은 산 속 으스스한 골짜기 구불구불 이어졌네):

- 심곡(深谷): 심산유곡(深山幽谷: 깊은 산속의 으스스한 골짜기).
- 위이(逶迤): 구불구불한 모양. 구불구불 가는 모양.
 - ④ 위(逶): 구불구불하다.
 - ⑤ 이(迤): 물이 굽이쳐 흐르다. 지세(地勢)가 경사져서 뻗어나가다.

*막막(莫莫):

- 수목이 우거진 모양. 뻘뻘하대로 표현할 수 있으며, 본 인용문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 안개(연기·구름·먼지 등이)가 자욱한 모양, 깨끗한 모양. 묵묵(默默)과 같은 말로 쓴다. 공경하고 삼가는 모양.
- 최외(崔嵬): 높고 가파르다. ‘최(崔)’는 높고 크다. ‘외(嵬)’는 높고 험준하다.

*악인(幄茵): 휘장 치고(휘장 친 방에) 자리 깔다.

- 악(幄): 휘장.
- 인(茵): 돛자리.

*엽엽자지(曄曄紫芝: 반들반들 윤기 나는 영지버섯):

- 엽엽(曄曄):
 - ④ 윤기가 나는 모양. 반들반들로 표현할 수 있으며, 본 인용시에 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 ⑤ 빛나는 모양. 반짝반짝으로 표현할 수 있다.
 - ⑥ 홀륭하고 장한 모양.
 - ⑦ 재주(재능)가 밖으로 드러나는 것을 가리키는 말로 쓴다.
- 자지(紫芝): 영지(靈芝) 버섯.

*당우(唐虞): 당요(唐堯: 요堯임금)와 우순(虞舜: 순舜임금)을 아울러 이르는 말이다.

- 당(唐): 당요(唐堯: 도당陶唐: 도당씨陶唐氏: 제요帝堯: 요 임금: 요 임금은 중국 상고시대 오제(五帝: 황제黃帝·전욱顓頊·제곡帝嚳·제요帝堯·제순帝舜)중의 한 사람이다. 그는 제곡(帝嚳)의 아들이고 성은 이기(伊祁)이고 이름은 방훈(放勳)이다. 처음에 도(陶: 상고시대의 국명) 땅에 봉해지고

나중에 당(唐 : 상고시대의 국명) 땅에 봉해졌기에 붙여진 이름이다. 당노(唐堯)를 도당씨라고도 하는데, 도당씨는 원래 ‘전설상의 상고시대 씨족 부락의 명칭’이다. 당요가 이곳을 다스렸으며, 그 위치는 평양(平陽)으로, 지금의 산서성(山西省) 임분현(臨汾縣) 서남이었으며, 요가 그 곳의 영수였다. 후손들이 도당씨를 요의 호(號)로 삼았다. 도당씨라고 할 때의 씨(氏)자는 중국 상고시대 전설상의 인물이나 국명에 모두 씨(氏)자를 칭호로 붙인 것이다. 신농씨(神農氏)가 그 예이다.

- b. 우(虞) : 우순(虞舜) : 유우씨(有虞氏) : 제순(帝舜) : 순임금 : 순임금 역시 오제(五帝) 중의 한 사람으로 성은 요(姚), 이름은 중화(重華)이다. 그의 선조나라가 우(虞)이고 순(舜)은 시호(諡號)이기에 우순(虞舜)이라 칭한 것이다. 우순을 유우씨라고도 칭하는데, 유우씨는 원래, ‘상고시대 부락명칭’이었다. 그 곳의 수령인 순이 요에게 선양을 받았다. 도읍지는 포판(蒲阪), 지금의 산서성(山西省) 영제현(永濟縣) 동남이다. 유(有)자는 접두사로서 뜻이 없으며, 씨(氏)자는 상고시대 국명에 붙여 쓰던 칭호이다. 명(明)나라의 문인 왕오(王鏊 : 1450~1524)의 수필집 『진택장어(震澤長語)』 제2권에, “순이 유우씨이다(舜爲有虞氏)”고 쓴 내용이 있는 것으로 보아, 상고시대 부락명칭이던 유우씨를 후손들이 우순(虞舜)의 호로 삼은 것으로 보인다.

*막막상락(漠漠商洛 : 뻑뻑이 수목 우거진 상현商縣과 상락현上洛縣이라) :

a. 막막(漠漠) :

- ㉠ 밀포(密布)한 모양. 뻑뻑하게 들어찬 모양. 본 인용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 ㉡ 정적이 감돌아 소리가 없는 모양.
- ㉢ 광활한 모양.
- ㉣ 냉담 · 무관심한 모양.
- ㉤ (초목이) 무성하거나 (향기가) 짙게 풍기는 모양.
- ㉥ (어두워서) 분명하게 보이지 않는 모양, 어두운 모양.

- b. 상락(商洛) : 상현(商縣 : 지금의 단봉현丹鳳縣 서쪽 5리의 고성古城)과 상락현(上洛縣 : 지금의 섬서성陝西省 상주시常州市)을 아울러 이르는 말이며, 사호(四皓)가 이곳에서 은거하였다.

*위이(威夷) :

- a. 언덕이 점점 평평해진다는 뜻으로 사물이 쇠퇴해짐을 이르는 말이다.

- ㉠ 위(威) : 능(陵 : 언덕)의 뜻으로 쓰였다.
- ㉡ 이(夷) : 평탄하다.

앞의 시 「채지조(採芝操)」에 쓰인 ‘위이(逶迤)’와 같은 뜻으로 구불구불 지세(地勢)가 경사져서 뻗어나가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다. 우원(迂遠 : 길이 돌아 뻗. 멀리 우회함.)하는 모양. 본 인용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황농막원(皇農邇遠 : 황제 신농씨神農氏 이 세상 떠나 요원한 곳에 있으니)

- a. 황농(皇農) : 황제 신농씨(神農氏 : 전설상의 상고시대 제왕 이름. 삼황三皇의 한 사람으로, 농업 · 의료 · 약사樂師의 신이고, 주조鑄造와 양조醱造의 신이며 역易의 신이라고 전해짐).

- b. 막원(邈遠): 요원하다. 본 인용시에서는 세상과 멀리 떨어져 있음을 가리키는 말로 쓰였다.

*사마고개(駟馬高蓋: 네 필의 말이 끄는 높직한 수레):

- a. 사마(駟馬): 한 채의 수레에 네 필의 말이 끄는 수레로, 고관대작(高官大爵)을 가리킨다.
- b. 고개(高蓋):

④ 수레위에 높이 세우는 대가 긴 일산(日傘)을 장치한 수레. 높은 수레. 전(轉)하여, 고관대작을 가리키는 말로 쓴다. 본 인용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⑤ 타인의 수레에 대한 경칭(敬稱)으로 쓴다.

*불여빈천 이경세(不如貧賤而輕世: 빈천해도 내 뜻대로 사는 것만 못하리):

- a. 불여(不如): ...만 못하다. ...하는 편이 낫다.
- b. 경세(輕世): 세속(世俗)을 경시하다(얕보다. 업신여기다). 전(轉)하여, 세상의 이목에 신경을 쓰지 않고 자신의 의지대로 자유롭게 산다는 의미를 나타낸다.

위의 시가에서 이른바 사호(四皓)의 피세(避世)와 관련한 고사(故事)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즉, 한고조(漢高祖: 유방劉邦: BC 256~BC 195년. 제위는 BC 202~BC 195년)가 태자(太子: 훗날의 한혜제漢惠帝: BC 210~BC 188: 고조의 장자長子: 성명은 유영劉盈)를 폐하고 척부인(戚夫人)의 아들 조왕(趙王) 여의(如意)를 태자로 봉하려하자, 여후(呂后: BC 241~BC 180: 한고조의 황후: 제락이 있어 항상 고조를 도와 대업을 완성하였음. 한신韓信과 팽월彭越 등 이성異姓 왕들을 살해하는데 배후에서 조종하였음. 아들 혜제가 즉위하자 척부인의 수족을 자르고 변소에 가두었다가 죽이고 조왕 여의如意를 독살하였음. 유방의 옛 신하를 배척하고 친정동족同族을 중용하면서 전횡하다가 집정 8년만에 죽었음)가 공포에 떨며 어찌할 바를 몰라 걱정하다가 장량(張良: ?~BC 186: 자는 자방子房, 한나라의 재상을 역임함)의 계책을 빌어 이 ‘상산사호(商山四皓)’를 초빙하여 태자를 보좌하게 하였다. 한고조가 어느 날 연회를 베풀 때 태자가 황제를 모시게 되었는데, 그 때 태자를 따르는 네 사람의 온사를 보고 이상히 여겨 누구냐고 물으니, 평소 자신이 존경했던 ‘상산사호’라고 하였다. 황제는 크게 놀라며, “짐이 공(公)들을 가까이 하고자 한 것이 몇 년이나 되었는데, 공들은 짐을 피해 도망가더니, 이제 어찌 태자를 따라 다니는가?”라고 하였다. 그 네 사람은 “폐하께서는 선비를 업신여기고 잘 꾸짖으시므로 신들의 의(義)에 욕되지 않을까 싶어 숨었습니다. 그러나 듣건대 태자께서는 어질고 효성스러운데다가 선비를 사랑하심에 신들이 옷 것입니다.”고 했다. 황제는 이에 이르기를 “번거로우시겠지만 공들께서 끝까지 태자를 잘 돌봐주시기 바라오.”라고 하면서, 태자를 바꾸고자 하던 생각을 바꾸어 없던 일로 처리했다. 척부인은 흐느껴 울었다. 이에 대한 상세한 사실은 『사기(史記)·유후세가(留侯世家)』와 『한서(漢書)·장량전(張良傳)』을 참조 바란다.



시123. 무자년 戊子年 여름에, 사순 士純
 김성일 金誠一 형을 비롯한 벗들이
 병산 屏山에서 모였다.
 퇴계선생문집 退溪先生文集의 편집을
 시작한지 지금 13년이란 세월이
 흘렀는지라, 여러분이 다시 서원에
 모여, 연보의 편집을 시작한 지난날을
 회상하며 감동에 젖어서, 율시 律詩 한
 수를 읊어 필사 筆寫해 드리니,
 다행히도 각자가 시로 화답 和答을
 하여서 당시의 정황 情況을 기록한다.

詩123. 戊子夏 與士純諸友 會屏山¹⁾ 編退溪先生文集
 무 자 하 여 사 순 제 우 회 병 산 편 퇴 계 선 생 문 집
 今十三年 而諸君復會院中²⁾ 輯年譜 感舊興懷³⁾
 금 십 삼 년 이 제 군 부 회 원 중 집 년 보 감 구 흥 회
 吟一律錄呈⁴⁾ 幸各和之⁵⁾ 以記一時之事⁶⁾
 읊 일 율 록 정 행 각 화 지 이 기 일 시 지 사

文會當年盛⁷⁾,
 문 회 당 년 성

(우리) 문회 文會 당년에 성대했는데,

編摩⁸⁾此日同。
 편 마 차 일 동

편집 시작하고 이날까지 여전하네요.

干戈頭白後⁹⁾,
 간 과 두 백 후

병장기 다루던 병사도 백발이 된 후라면,

山水眼青中¹⁰⁾。
산 수 안 청 중

산수풍경은 내심 눈 번쩍 뜨고 볼 것ियो

亦足看天意¹¹⁾，
역 족 간 천 의

자연스레 결성된 (회원의) 의취意趣 보고
이미 만족했거늘,

何須怨化工¹²⁾。
하 수 원 화 공

어찌 (여러분의) 천부적인 재주를
원망할 수 있겠소!

斯文還一脈¹³⁾，
사 문 환 일 맥

유학을 닦는 선비들이 여전히
하나의 맥을 이어가니,

吾道未應窮¹⁴⁾。
오 도 미 응 궁

우리의 도학道學이 아직 끝난 것은
아니지요.

- 1) 무자하 여사순제우 회병산(戊子夏與士純諸友會屏山 : 무자년 여름에 사순 김성일을 비롯한 벗들이 병산에 모였다) :

① 무자(戊子) : 무자년(戊子年) : 1588년, 선조 21년, 서애 47세.

② 사순(士純) : 조선 중기의 문신 김성일(金誠一 : 1538~1593)의 자가 사순(士純)이다.
☆김성일(金誠一 : 1538~1593) : 앞의 「시34」 주석2)의 ‘김학봉(金鶴峯)’ 조항을 참조바람.

③ 병산(屏山) : 병산서당(屏山書堂) : 앞의 「시34」 주석1)의 ‘병산서원’ 조항을 참조바람.

- 2) 이제군부회원중(而諸君復會院中 : 제군이 다시 병산서원에 모여서) :

① 제군(諸君) : 경칭(敬稱)으로 제위(諸位)와 같은 말이며 ‘여러분’의 뜻으로 쓰였다.

② 부회(復會) : 다시 모이다.

③ 원중(院中) : 자의(字意)로 보면, ‘병산서원에’라고 번역해야 하나, 사실 서애가 생존당시에는 ‘병산서당(屏山書堂)’이라고 칭하였다.

****역자해설 :** 서애 생존시에는 ‘병산서당(屏山書堂)’이라고 칭했다. 왜냐하면, 서애가 당시 인근의 지방관을 역임하던 시절인 선조5년(1572)에 “읍내 도로변은 공부하기에 적당하지 않다”는 이유로 풍산읍(豊山邑)에 소재하던 풍악서당(豊岳書堂)을 지금의 안동시 풍천면(豊川面) 병산리(屏山里)의 경승지(景勝地)인 현재의 위치로 직접 장소를 정해 이전하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곳은 임진왜란으로 불타버렸고, 서애가 세상을 뜬 직후인 1607년에 다시 중건되었으며, 광해군(光海君) 6년(1614)에 서애의 수제자인 우복 정경세(愚伏 鄭經世 : 1563~1633)가 스승의 학덕을 추모하기위하여 유림(儒林)과 뜻을 모아 이곳에 사당(祠堂)인 존덕사(尊德祠)를 창건하여 서애를 배향(配享)하면서 서원(書院)으로

위상이 바뀌게 되었다.(자세한 사항은 앞의 「시34」 주석1) 병산서원 조항을 참조바람)

☆원(院): 병산서원 곧 병산서당을 가리키는 것임.

☆중(中): 명사 뒤에서 장소를 나타내는 뜻으로 쓰였다. 앞의 「시2」의 주석6)의 ‘중(中)’ 항목을 참조바람.

3) 감구흥회(感舊興懷): 지난날을 회상하며 감동하다.

① 감구(感舊): 지난날을 회상하여 감동하다.

② 흥회(興懷): 감동(감명·감개)하다.

4) 음일률록정(吟一律錄呈: 읊시 한 수를 읊어 필사筆寫하여 드리다):

① 일률(一律): 읊시(律詩) 한 수.

☆율시(律詩): 여덟 구로 되어 있는 한시체(漢詩體). 한 구가 5언으로 되어 있는 것을 오언율시(五言律詩)라 하고, 7언으로 되어 있는 것을 칠언율시(七言律詩)라고 한다.

② 녹정(錄呈): 필사(筆寫: 베껴 쓰다)하여 봉정(奉呈)하다.

5) 행각화지(幸各和之: 다행히도 각자 시로 화답을 하여서):

① 화(和): 화시(和詩)로, 이는 시를 지어 화답함에 오로지 시(詩)나 사(詞)로 응답하는 것이다. 시의 원운(原韻)을 차운(次韻)할 필요가 없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앞의 「시20」의 주석1)의 ‘차운(次韻)’ 항목을 참조바람.

6) 이기일시지사(以記一時之事: 이로써 그 당시의 정황을 기록한다):

① 일시(一時): 그 당시.

② 사(事): 정황(情況).

7) 문회 당년성(文會當年盛: (우리) 문화文會 당년에 성대했는데):

① 문회(文會): 문사(文士)들이 음주하면서 시가(詩歌)를 짓거나 절차탁마(切磋琢磨: 옥돌을 자르고 줄로 쓸고 끝로 쪼고 갈아 빛을 낸다는 뜻으로 학문이나 인격을 갈고 닦음을 말함)하는 집회를 이르는 말.

② 당년(當年):

☆일이 있는 바로 그 해·그 때.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올해. 금년.

8) 편마(編摩): 편집(編集)과 같은 말.

① 마(摩): 절차(切磋: <연구>하다). 연구하는 것.

9) 간과 두백후(干戈頭白後: 병장기 다루던 병사도 백발이 된 후라면):

① 간과(干戈):

☆병사(兵士), 병장기를 다루는 사병(士兵).

☆방패와 창. ‘간과(干戈)’는 고대의 상용 무기인 까닭에 ‘병장기(兵仗器)’를 칭하는 말로 두루 쓰인다.

☆전(轉)하여, ‘전쟁’을 가리키는 말로 쓴다.

☆고대의 무무(武舞).

② 두백(頭白): 머리가 희어지다.

10) 산수 안청중(山水眼靑中: 산수풍경은 내심 눈 번쩍 뜨고 볼일일세):

① 산수(山水):

☆산과 물. 일반적으로 산이 있고 물도 있는 풍경을 가리키는 말로 쓴다. 곧 산

천과 같은 말.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② 안청(眼靑) :

☆눈을 크게 뜨다. 정신적으로 흥분된 것을 형용하는 말.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청안(靑眼)과 같은 말로서, 눈을 바로 뜨고 보아 중시함을 표시하는 말이다. 정식(正視)하다는 뜻이다.

③ 중(中) : 내심. 심중을 가리킨다.

11) 역족 간천의(亦足看天意 : 또한 자연스레 결성된 〈회원의〉 의취意趣 보고 이미 만족했기늘) :

① 역족(亦足) : 또한 만족하다.

☆족(足) : 만족하다.

② 간천의(看天意) : (여러분의) 천부적인 재주를 보다.

☆간(看) : 보다.

☆천의(天意) :

a. 자연스레 결성된 (회원의) 의취(意趣 : 의지와 취향).

****역자주석 :** 위의 시구(詩句)를 ‘진실로 대자연의 의취는 감상할 만한 것이니 (亦足看天意)’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 이때의 ‘역족(亦足)’은 ‘진실로 …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뜻이고, ‘천의(天意)’는 ‘대자연의 의취’로 해석한 경우이다.

12) 하수 원화공(何須怨化工 : 어찌 〈여러분의〉 천부적인 재주를 원망할 수 있겠소) :

① 하수(何須) : 반문(反問)의 어기(語氣)를 사용하여 ‘불필요함’을 표시하는 시어(詞語)로, ‘어찌 …할 필요가 있겠는가?’의 뜻으로 쓰였다.

② 화공(化工) : 자연적으로 형성된 정교함. 조화(造化)의 묘(妙). 화공(化工). 본 시에서는 천부적인 재주를 가리키는 말로 쓰였다.

****역자주석 :** 위의 시구(詩句)를 “어찌 조물주의 조화를 원망할 수 있으리오(何須怨化工).”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 이때의 ‘화공(化工)’은 ‘조물주의 조화’란 뜻으로 해석한 경우이다.

13) 사문 환일맥(斯文還一脈 : 유학을 닦는 선비들이 여전히 하나의 맥을 이어가니) :

① 사문(斯文) :

☆유사(儒士 : 유학을 닦는 선비). 문인(文人).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예악교화(禮樂教化), 전장제도(典章制度)를 가리킨다.

☆차문(此文 : 이 문장, 글). 차시(此詩 : 이 시詩).

☆문아(文雅 : 언행이 고상하고 우아함. 점잖음)하다.

② 일맥(一脈) :

☆사고방식 · 상태 · 성질 · 학설 · 행위 따위가 상통하거나 계승관계에 있는 것에 한 줄기 또는 같은 줄기의 뜻으로 많이 쓰는 말.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하류(河流)나 산맥의 한 줄기.

☆친족 · 사제(師弟) · 시문 등에 전후상승(前後相承)하는 계통.

14) 오도 미응궁(吾道未應窮 : 우리의 도학道學이 아직 끝난 것은 아니지요) :

① 오도(吾道) :

☆우리 유가(儒家)의 도덕학문. 신유가(新儒家)의 성리학(性理學).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나의 학설이나 주장.

a. 도(道) :

④ 도학(道學) : 신유가(新儒家)의 성리학(性理學).

⑤ 도덕학문.

② 미응(未應) :

☆아직 …않다. 일찍이 …않다.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할 필요 없다.

☆…로 치지 않다. …이 아니다.

☆마땅하…하지 않아야 한다.



시124. 군서君瑞 홍이상洪履祥 부사府使가
경성京城으로 돌아가는 것을 송별하며

詩124. 送洪府使君瑞還京¹⁾
송 홍 부 사 군 서 환 경

衰病一如此²⁾,
쇠 병 일 여 차

노쇠하여 병나면 모두 이와 같을지니,

餘生已可知。
여 생 이 가 지

남은 생애 이미 알 만하네.

那堪垂老日³⁾,
나 감 수 로 일

노년에 근접하는 나날을 어찌 견뎌낼꼬?

重賦別知詩⁴⁾。
중 적 별 지 시

마음 통하는 벗 이별하며 지은 시를
거듭 읊는다네.

碧樹蟬聲滿⁵⁾,
벽 수 선 성 만

푸른 수목에는 매미 소리 요란한데,

黃雲嶺路危⁶⁾。
황 운 영 로 위

황색 구름 날리는 고갯길은 높기만 하네.

秋來多北鴈,
추 래 다 북 안

가을 되면 북에서 기러기 많이 날아올지니,

唯幸寄相思⁷⁾。
유 행 기 상 사

유일한 행복은 (기러기 편에) 그리움
부치는 것일세.

- 1) 송홍부사군서환경(送洪府使君瑞還京 : 군서 홍이상 부사가 경성으로 돌아가는 것을 송별하면서) :

① 송(送) : 송별(送別) : 떠나는 사람을 이별하여 보내다.

② 홍부사(洪府使) 군서(君瑞) : 군서(君瑞) 홍이상(洪履祥) 부사(府使) : ‘홍(洪)’은 성씨, ‘부사(府使)’는 관명(官名), ‘군서(君瑞)’는 홍이상의 자(字)이다. 이렇게 성씨 다음에 관명을 쓰고, 이름을 안 쓴 채 자(字)나 호(號)를 그 뒤에 쓴 것은 경칭(敬稱)의 한 예이다.

☆홍이상(洪履祥 : 1549~1615) : 조선 중기의 문신. 본관은 풍산(豐山). 자(字)는 군서(君瑞) · 원례(元禮). 호는 모당(慕堂). 초명은 인상(麟祥). 부사직(副司直 : 조선시대 오위5衛의 종5품 관직) 수(修)의 아들이다. 1573년(선조 6) 사마시(司馬試 : 일명 생진과生進科로, 진사進士와 생원生員을 뽑는 소과小科를 말함)를 거쳐 1579년 식년문과(式年文科 : 자·묘·유·을 등의 간지干支가 들어 있는 해, 즉 식년式年마다 보던 문과과거)에 갑과(甲科)로 장원급제하였다. 그 뒤 예조와 호조의 좌랑(佐郎 : 6조六曹에 예속되어 있던 종5품 벼슬)을 거쳐, 정언(正言 : 사간원司諫院에 속한 정6품 벼슬) · 수찬(修撰 : 홍문관弘文館의 정6품 벼슬) · 지제교(知製敎 : 왕의 교서敎書를 기초하였음) · 병조정랑(兵曹正郎 : 병조의 정5품 벼슬) 등을 두루 지낸 뒤 사기독서(賜暇讀書)하였다. 뒤이어 이조정랑을 거쳐, 호당(湖堂)에 있을 때 왕이 유신(儒臣)들을 선발하여 경서(經書)를 교정(校正)할 때는 꼭 참여하였다. 그 뒤 집의(執義) · 응교(應敎 : 홍문관과 예문관藝文館 소속의 정4품 벼슬)를 역임하고, 태복시정(太僕寺正 : 사복시정司僕寺正 : 궁중의 승여乘輿 · 마필馬匹 · 목장牧場 등을 맡아보던 관청의 정3품 벼슬)이 되었다가 사간(司諫 : 사간원司諫院에서 임금의 잘못을 간하고 논박하던 일을 맡아보던 종3품 벼슬)과 사인(舍人 : 의정부議政府 소속의 정4품 벼슬) 등을 거쳐, 황해도안무사(黃海道安撫使)가 되었다. 1591년 직제학(直提學)을 거쳐 동부승지(同副承旨)가 되고, 다시 이조참의(吏曹參議)가 되었다. 1592년 임진왜란 때는 예조참의로 옮겨 왕을 호가(扈駕)하여 서행(西行)하였고, 곧 부제학(副提學)이 되었다가 성천(成川 : 지금의 평안남도 동남부에 위치한 성천군成川郡)에 도착하여 병조참의에 전임하였다. 1593년 정주(定州 : 지금의 평안북도 남서쪽에 위치한 정주군定州郡)에서 대사간에 임명되었고, 이듬해 성절사(聖節使)가 되어 명나라에 다녀왔다. 다시 좌승지(左承旨)가 되었다가 곧 경상도관찰사가 되었다. 비변사(備邊司)와 긴밀하게 연락하여 일본의 장군 고니시 유키나가[小西行長 : ?~1600]와 가토 기요마사[加藤清正 : 1562~1611] 사이의 이간을 계획, 추진하기도 하였다. 1596년 형조참관을 거쳐 대사성(大司成 : 성균관의 으뜸벼슬로 정3품임)이 되었으나, 영남의 유생 문경호(文景虎 : ?~1620) 등이 성혼(成渾 : 1535~1598)을 배척하는 상소를 반박하고 성혼을 두둔하다가 안동부사로 좌천되었다. 1607년 청주목사(淸州牧使)가 되고, 1609년(광해군 1) 대사헌(大司憲)이 되었다가 1612년에 이이첨(李爾瞻 : 1560~1623) · 정인홍(鄭仁弘 : 1535~1623)의 일파에 몰려나서 개성유후사유후(開城留後司留後)로 좌천되어 그곳에서 죽었다. 저서로는 『모당유고(慕堂遺稿)』가 있다.

- 2) 쇠병 일여차(衰病一如此 : 노쇠하여 병나면 모두 이와 같을지나) :

- ① 쇠병(衰病) : 노쇠하여 생긴 병. 노쇠하여 병이 나다(생기다).
- ② 일(一) : 부사로써, ‘모두, 전부, 모조리, 다’의 뜻으로 쓰였다.
- 3) 나감 수로일(那堪垂老日 : 노년에 근접하는 나날을 어찌 견디랴) :
- ① 나감(那堪) : 어찌 견디겠는가(참겠는가)?
 ☆나(那) : 의문대명사로, ‘어떻게 …하랴’의 뜻이다.
 ☆감(堪) : 견디다. 참다.
- ② 수로(垂老) : 거의 노인이 되다.
 ☆수(垂) : 거의…에 가깝다.
- 4) 중부 별지시(重賦別知詩 : 마음 통하는 벗 이별하며 지은 시를 거듭 읊는다네) :
- ① 중부(重賦) : 거듭 시를 지어 읊다.
 ☆중(重) : 부사로, ‘거듭, 중복’의 뜻으로 쓰였다.
 ☆부(賦) : 시사(詩詞)를 짓다(읊다). 창작 시가(詩歌)를 음송(吟誦)하다.
- ② 별지시(別知詩) : 마음이 통하는 벗을 이별할 때 지은 시. 본 시에서 작가는 이 별에 즈음하여 그의 지심자우(知心之友)인 홍부사(洪府使) 군서(君瑞)를 송별하면서, 이 ‘별지시(別知詩)’를 지어 석별의 정을 달래는 마음을 표현하였다. 이 ‘별지시(別知詩)’는 일찍이 당(唐)나라의 대 문장가이며 사상가인 한유(韓愈 : 768~824)가 양산령(陽山令)으로 폄직되었을 때, 양의지(楊儀之)가 호남지사(湖南支使)로 와서 이곳을 순찰하였는데, 한유는 그때, 그의 인품과 학식에 반하여 그를 매우 좋아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와 헤어질 때 그에게 「별지부(別知賦)」라는 별리(別離)의 시를 써서 송별하였다. 서애가 생존했던 당시 조선에는 그의 「별지부」에 차운한 시들이 상당히 회자했던 것으로 보인다. 박팽년(朴彭年) 유고(遺稿)에 「별지부에 차운하여 이고부를 전송한 부」가 보이고, 허균(許筠)의 「별지부를 차운하여 적괘(詆詈)·석주(石洲) 두 벗에게 주다」는 것도 보인다.
- 5) 벽수 선성만(碧樹蟬聲滿 : 푸른 수목樹木에는 매미 소리 요란한데) :
- ① 벽수(碧樹) : 푸른 수목(樹木).
- ② 선성(蟬聲) : 매미우는 소리.
 ☆선(蟬) : 매미.
- a. 매미의 생태적 이해 : 매미과에 속하는 곤충의 총칭이며 대표적인 여름곤충이다. 2쌍의 날개는 투명하고, 날개맥이 굵다. 매미의 수컷은 특수한 발음기를 가지고 있어서 높은 소리를 낸다. 암컷은 소리를 내지 않아 병어리매 미라고도 한다. 매미는 보통 앞날개가 뒷날개보다 크며, 머리의 양쪽에는 겹눈이 있고, 중앙에는 3개의 홑눈이 있다. 입은 가늘고 단단한 대롱 모양이며, 이것을 나무에 박고 진을 빨아먹는다. 암컷에는 단단한 산란관이 있어 나무껍질을 뚫고 알을 낳는다. 45일~10개월 또는 그 이상이 걸려 부화된 애벌레는 땅 속으로 들어가 나무뿌리의 진을 빨아먹고 자라다가 2~3년 만에 밖으로 나와 허물을 벗고 매미가 된다. 매미 가운데서 애벌레 시기가 잘 알려진 것은 유지매미와 참매미이다. 두 매미 모두 알이 부화되고 나서 6년째에 성충 매미가 되므로, 알을 낳은 해부터 치면 7년째에 성충이 된다. 털 매미는 4년째에 성충이 된다. 또한 북아메리카의 17년 매미는 애벌레 기간이 17년과 13년 되는 것도 있다. 매미는 성충이 될 때 허물을 벗는다. 성충은 1~3주 동안 살고 죽는다. 매미는 불완전 변태를 하므로 번데기 시

기가 없다. 또 애벌레는 나무의 뿌리에서 수액을 빨아먹고, 성충(매미)은 햇가지 속에 알을 낳아 나무를 말라 죽게 하므로 식물에 많은 피해를 준다. 매미가 사는 곳은 대체로 200m 아래 평지에서부터 700~1,000m의 높은 산 숲 등 다양하다. 매미가 우는 시간은 종류에 따라 다르나 말매미·참매미는 오전에 울고, 유지매미나 애매미는 오후에 울며, 털 매미는 하루 종일 운다. 수매미는 뱃살 안쪽에 브이(V)자 모양의 소리를 내는 발음기가 있어서 가느다란 소리로 운다. 울 때 힘살을 죄었다 늦추었다 하면 양쪽의 막이 소리를 내어 뱃속의 울림통에서 공명시켜 크게 한다. 매미의 울음소리 또한 종류에 따라 다르다. 매미는 전 세계에 3,000여 종이 알려져 있고, 유럽·아프리카·아시아 등지에 분포한다. 우리나라에는 참매미·유지매미·털매미 등 20여종이 있다. 참깽깽매미·말매미·봄매미·소요산매미·두눈박이좀매미는 우리나라 고유종이다.(천재학습백과)(『한국동식도감』 제23권 동물편(이창인, 문교부, 1979))

- b. 매미의 오덕(五德): 매미의 오덕(五德)은 중국 서진(西晉) 시대 문인 육운(陸雲*: 262~303)의 『육청하집(陸淸河集)』에 처음 보인다. 조선시대 왕이 평상복으로 정사(政事)를 볼 때 익선관(益蟬冠)을 썼다. 뿐만 아니라, 조정의 백관들도 머리에 관모(冠帽)를 썼다. 이렇게 왕과 신하들이 머리에 쓰는 관모의 상징으로 매미의 날개를 선택한데는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어서이다. 이는 서진(西晉)의 文人, 육운(陸雲)이 쓴 「한선부(寒蟬賦)·서(序)」에 처음으로 보인다: “머리 부분은 꽃무늬가 있는데 그것은 문체文采를 가지고 있다는 구체적인 표현이니, 문덕文德을 갖춘 모습이다. 무기霧氣를 머금고 이슬을 마시며 사니, 그것은 청고淸高함의 구체적인 표현이니 청덕淸德을 갖춘 것이다; 농부들이 가꾼 곡식을 먹지 않으니, 그것은 청렴淸廉함의 구체적인 표현이니 엄덕廉德을 갖춘 것이다. 곤충·새·짐승 등이 사는 등자나 동굴을 만들어 거처하지 않으니, 그것은 절약과 검소함을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검덕儉德을 갖춘 것이다; 절후에 맞추어 철저히 절조節操를 지키니, 이것은 신의信義를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신덕信德을 갖춘 것이다. 〈이는 모두〉 아름답다든가 칭찬하는 것들을 초월하여 있는 ‘오덕五德’이니, 어찌 ‘훼손음’을 치는 수탉 홀로만 누릴 수 있는 것이겠는가(夫头上有綬, 則其文也. 含气饮露, 則其淸也; 黍稷不享, 則其廉也. 处不巢居, 則其儉也; 应候守常, 則其信也; 加以冠冕, 取其容也)?”라고 하였다.

*육운(陸雲: 262~303): 서진(西晉) 오군(吳郡) 오현(吳縣) 사람이다. 서진(西晉) 시기의 관리이자 문학가이다. 육손(陸遜: 183~245)의 손자이자 육항(陸抗: 226~274)의 다섯째 아들이다. 그 형 육기(陸機: 261~303)와 더불어 ‘이육(二陸)’으로 일컬어진다. 청하내사(淸河內史)를 지냈기 때문에 육청하(陸淸河)라고도 일컬어진다. 벼슬은 낭중령(郎中丞), 상서랑(尙書郎), 시어사(侍禦史), 태자중사인(太子中舍人), 중서시랑(中書侍郎), 청하내사(淸河內史) 등을 역임했다. 형 육기가 팔왕(八王의 난: 중국 진나라 때의 내란으로, 황족皇族 8명의 왕이 관여했기 때문에 이렇게 부른다)에 연루되어 심판을 받게 되자, 육운도 연좌되어 죽임을 당했다. 저서로 『육운집(陸雲

集)』 곧 『육청하집(陸清河集)』이 있다.

6) 황운 영로위(黃雲嶺路危) : 황색구름 날리는 고갯길은 높기만 한데) :

- ① 황운(黃雲) : 황색의 운기(雲氣 : 얹게 흐르는 구름). ‘황색의 구름’에는 아래의 몇 가지 뜻으로 쓴다. 첫째, 상서롭게 여겨지는 구름 색깔.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둘째, 천자기(天子氣)로, 이는 천자의 기상이 보이는 황색 구름이다. 셋째, 눈 오는 날의 구름. 눈 오는 날의 구름은 평상시 보다 더 누런 까닭에 이르는 말이다. 넷째, 황사(黃沙). 다섯째, 변방의 구름. 중국 북방 몽고 지역에는 황사가 많아 구름 색깔이 누런 까닭에 이르는 말. 여섯째, 넓은 들판에 벼가 누렇게 익은 모습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② 영로위(嶺路危) : 고갯길이 높다.

☆영로(嶺路) : 영도(嶺道). 산봉우리에 있는 길. 산마루로 통하는 고갯길. 고갯길.

☆위(危) : 높고 험준하다. 높다. 높이 솟아 있다.

7) 상사(相思) : 서로 그리워하다. 본 시에서는 명사로 쓰여, ‘그리움’이란 뜻을 나타낸다.

시125. 달빛 아래서 홀로 뜰 안을 거닐다가 감흥이 일어 우연히 읊다

詩125. 月下獨步庭中 偶吟遣懷¹⁾
월 하 독 보 정 중 우 음 전 회



於世百無用²⁾,
어 세 백 무 용

세상에 백사百事가 다 소용所用이
없었는데,

還家苦不早³⁾.
환 가 고 부 조

귀향을 앞당기지 못한 것은 괴로웠네.

晚收廊廟跡⁴⁾,
만 수 낭 묘 적

늘그막에야 조정에 나갔던 행적 거둬들이고

歸作田中老。
귀 작 전 중 노

귀향하여 밭에서 일하는 늙은이 되었네.

田中無所有⁵⁾,
전 중 무 소 유

(그러나) 밭에는 거둬들일 수확물이
별로 없고,

繞屋只桑棗⁶⁾.
서 옥 지 상 조

집을 에워싼 것은 뽕나무와
대추나무뿐일세.

地偏⁷⁾車馬少,
지 편 차 마 소

사는 곳이 외져서
거마車馬의 내왕이 드물고,

親知跡如掃⁸⁾.
친 지 적 여 소

친지親知 다너간 자취도 빗자루로

環堵數畝餘⁹⁾,
환 도 수 묘 여

掩關事幽討¹⁰⁾。
엄 관 사 유 토

行庭¹¹⁾愛明月,
행 정 애 명 월

坐階憐芳草¹²⁾。
좌 계 려 방 초

月既解人意¹³⁾,
월 기 해 인 의

相隨永爲好¹⁴⁾。
상 수 영 위 호

草亦不世情¹⁵⁾,
초 역 불 세 정

一般同懷抱¹⁶⁾。
일 반 동 회 포

無情勝¹⁷⁾有情,
무 정 승 유 정

邂逅還傾倒¹⁸⁾。
해 후 환 경 도

聖言曲肱樂¹⁹⁾,
성 언 곡 껑 락

詩歌稼穡²⁰⁾寶。
시 가 가 색 보

吾生卽此足²¹⁾,
오 생 즉 차 족

쓸어낸 듯 행하네.

담장 안은 협소해도 백여 평은 되나니,

사람문 닫고 뜰 안 경물景物
유심히 살펴보네.

뜰을 거닐다보니 밝은 달 사랑스럽고,

섬돌에 앉아보니 꽃다운 풀들 어여쁘네.

달은 진작부터 이 사람의 심정 헤아렸으니,

서로 의존하는 것이 영원하면 좋겠네.

풀 또한 세속의 정감이야 통하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품고 있는
성정性情은 동일하리라.

무정無情한 것보다는 유정有情한 것이
더 좋아서

우연한 만남에도 마음이 쏠리어 반갑다네.

성인聖人은 팔베개하고 잠을 자도
(도道를) 즐긴다 하였고,

시경詩經에서는 농사짓는
소중함을 노래했네.

나의 생애는 이제 이만하면 족하나니,

笑傲窮涼燠²²⁾。
소 오 궁 랑 옥

궁핍한 생활 따위는
너털웃음으로 희롱하리라.

- 1) 우음견회(偶吟遣懷 : 감흥이 일어 우연히 읊다) :
 - ① 우음(偶吟) : 알핏 떠오르는 생각을 시가로 읊다.
 - ② 견회(遣懷) : 견흥(遣興) :
 - ☆감흥이 일다.
 - ☆감흥을 돋우다.
 - ☆흥겨워하다.
- 2) 백무용(百無用) : 온갖 것이 다 소용(所用 : 아무런 쓸모나 득이 될 것이 없음)이 없다.
 - ① 백(百) : 일체. 완전히. 모든 것. 대체로.
 - ② 무용(無用) :
 - ☆소용(所用) 없다.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 ☆무능하다. 재간이 없다.
 - ☆...할 방법이 없다.
- 3) 환가 고부조(還家苦不早 : 귀향을 앞당기지 못한 것은 괴로웠네) :
 - ① 환가(還家) :
 - ☆집으로 돌아가다(돌아오다). 본 시에서는 귀향하다는 뜻으로 쓰였다.
 - ☆귀성(歸省 : 부모를 뵙기 위해 객지에서 고향으로 돌아가거나 돌아옴)하다.
 - ☆귀농(歸農)하다.
 - ② 고부조(苦不早) : (귀향시기를) 진작 일찍이 앞당기지 못한 것이 괴롭다.
 - ☆고(苦) : 술어(述語)로, ‘괴롭다. 고통스럽다’의 뜻으로 쓰였다.
 - ☆부조(不早) :
 - a. 일찍이 앞(前)으로 당기지 못하였다.
 - b. 이르지 못하다. 늦다.
- 4) 만수 랑묘적(晩收廊廟跡 : 늘그막에야 조정에 나갔던 행적 거뒀들이고) :
 - ① 만수(晩收) : 너무 늦게 사직(辭職)하다.
 - ☆만(晩) : 노년(老年). 만년(晩年).
 - ☆수(收) : 정지하다. 종결(종료)하다. 철회(撤回)하다는 뜻으로, 본 시에서는 전(轉)하여 ‘사직(辭職)하다’는 뜻으로 쓰였다.
 - ② 낭묘적(廊廟跡) : ‘조정에 나가 벼슬한 행적’을 말한 것이다.
 - ☆낭묘(廊廟) : 왕의 궁전과 태묘(太廟 : 태조의 종묘宗廟)라는 뜻인데, 여기서는 ‘조정(朝廷)’을 칭하는 뜻으로 쓰였다. 『후한서(後漢書) · 신도강전(申屠剛傳)』에, “조정의 계책이, 미리 세워지지 않았던데다, 군대를 동원하고 만중을 발동하는 것도, 정확하게 예측하지 못했다(廊廟之計, 既不豫定, 動軍發衆, 又不深料).”고 한 구절이 있다. 당고종(唐高宗 : 628~683. 재위 649~683)의 열셋째 아들이었고, 측천무후(則天武后 : 624?~705)의 소생(所生)이었던 태자 이현(李賢 : 651 혹은 653~684 : 권력을 장악한 생모 측천무후의 압박에 의해 자살하였음)이

생전에 유생(儒生)들을 초치하여, 『후한서(後漢書)』를 주석하면서, 위 인용문에 대하여 말하기를, “‘랑廊’은 전하殿下の 집이고, ‘묘廟’는 태묘太廟이다. 국사國事가 반드시 먼저 낭묘(廊廟: 조정)에서 논의되는 곳이다(廊, 殿下屋也, 廟, 太廟也. 國事必先謀於廊廟之所也).”고 하였다.

☆적(跡): 행적(行迹): 여기서는 조정에서 벼슬한 이력(履歷)을 말한 것이다.

5) 무소유(無所有): 가진 것이 없다. 여기서는 농사를 지어서 거둬들인 수확물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6) 상조(桑棗): 뽕나무와 대추나무.

7) 지편(地偏): ‘지역이 외지다’는 뜻으로, 외진 곳, 곧 벽지(僻地)를 가리키는 말로 쓰였다.

8) 친지 적여스(親知跡如掃: 친지親知 다녀간 자취도 빗자루로 쓸어낸 듯 행하네):

① 친지(親知): 친척과 친구. 친척과 지기(知己).

☆지(知): 지기자(知己者: 자기의 진심과 정서를 잘 알아주는 사람). 지교(知交: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는 친구)

② 적여스(跡如掃): 집 대문 앞에 친척과 지기(知己)가 다녀간 발자취를 마치 빗자루로 쓸어낸 듯 친지(親知)의 방문이 거의 없음을 표현하였다.

☆적(跡): 발자취.

☆소(掃): 쓸다.

9) 환도 수묘여(環堵數畝餘: 담장 안은 협소해도 백여 평은 되나니):

① 환도(環堵):

☆사방 1장(一丈: 3.33m)으로 둘러쳐진 담장. 협소하고 초라한 거실을 형용한 말이다. 본 시에서는 전(轉)하여, ‘협소한 딸’을 가리키는 말로 쓰였다. 서한(西漢)의 학자 유안(劉安: ?~BC 123)이 편찬한 철학서 『淮南자(淮南子)·원도훈편(原道訓篇)』에, “누추한 집에 거주하는데, 그 띠 집의 지붕은 아직 마르지도 않은 싱싱한 띠를 엮어 이었으며, 쭈으로 엮어 만든 문을 달아놓고, 깨진 항아리 주둥이로 만든 창을 냈으며, 뽕나무 가지를 휘어서 문의 지도리(도쩌귀: 문짝을 문설주에 달아 여닫는데 문짝이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만들어 쓰는 상·하 두 개의 고리)를 만들어 썼다(環堵之室, 茨之以生茅*, 蓬戶甕牖*, 揉桑爲樞*).”는 구절이 있다. 동한(東漢)의 학자 고유(高誘: 생몰년 미상)는 『淮南자주(淮南子注)』에서 위 인용문에 대하여 말하기를, “도(堵: 양사量詞)는 길이가 1장(一丈: 3.33m)이며, 높이도 1장(一丈)인 것이다(堵丈一丈, 高一丈). 그런 까닭에, ‘환도環堵’라고 하며, 그 뜻은 ‘협소하다’는 말이다(故曰環堵, 言其小也).”라고 하였다.

*자지이생모(茨之以生茅): 띠 집의 지붕은 싱싱한 띠로 엮어서 있다.

a. 자(茨): 띠로 이은 지붕.

b. 생모(生茅): 방금 베어서 아직 싱싱한 모초(茅草: 지붕을 이을 때 쓰는 띠).

*봉호옹유(蓬戶甕牖): 쭈으로 엮어 만든 문을 달아놓고 깨진 항아리 주둥이로 만든 창을 내다.

a. 봉호(蓬戶): 쭈으로 엮어 만든 문.

b. 옹유(甕牖): 깨진 항아리 주둥이로 만든 창.

*유상위추(揉桑爲樞): 뽕나무 가지를 휘어서 문의 지도리를 만든다.

a. 유(揉): 휘다.

b. 추(樞): 문의 지도리(둘째귀: 문짝을 문설주에 달아 여닫는데 문짝이 떨어지거나 지 않도록 만들어 쓰는 상·하 두 개의 고리).

☆곤궁한 사람의 집을 가리키는 말: 청나라의 실학자 당견(唐甄: 1630~1704)의 철학과 정치관을 논한 저서 『잠서(潛書)·거노편(去奴篇: 환관제도의 개혁을 논한 편임)』에, “곤궁한 집안의 자식들은 명문거족의 당연한 도리를 변통할 수 없었으며, 하찮은 선비들은 궁중에서 발생한 사건을 자기 마음대로 생각할 수 없었다(環堵之子, 不可以權*巨室*之宜, 草莽之士, 不可以妄意*宮中之事).”고 한 구절이 있다.

*권(權): 동사로써, 변통하다. 일시적으로 (임가응변으로) 처리하다. 는 뜻이다.

*거실(巨室): 명문거족(名門巨族).

*망의(妄意):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다.

② 수묘여(數畝餘): ‘몇 묘 남짓하다’는 말인데, 몇 묘(畝) 남짓하게 여겨지다. 백여 평 남짓하게 여겨지다는 뜻이다. ‘묘(畝)’는 지적(地積)의 단위로서, ‘무(畝)’로도 읽으며, 한 단(一段)의 1/10, 곧 30평(坪)으로, 약 99.174m²에 해당된다. 본 시에서는 개략수를 말하므로 ‘수묘(數畝)’를 ‘백여 평’으로 번역한다. ‘묘(畝)’에 대한 자세한 주석은 아래와 같다. ‘묘(畝)’에 대한 주석은 앞의 「시118」의 주석3)의 ‘묘(畝)’조항을 참조바람.

10) 엄관 시유토(掩關事幽討: 사립문 닫고 뜰 안 경물景物 유심히 살펴보네):

① 엄관(掩關): 문을 단단하게 닫다.

☆엄(掩): 문을 닫다.

☆관(關): 빗장(문을 닫고 가로질러 잠그는 막대기 쇠장대).

② 시유토(事幽討): 그윽한 경물(景物: 풍경, 풍물)을 조용히 탐방하다. 뜰 후미진 곳에 있는 경물(景物)들을 구석구석 일삼아 마음을 내어 살펴보는 것을 뜻한다.

☆사(事):

a. 일삼아 전념하다.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b. 경물(景物). 경치.

☆유토(幽討): 평소에 눈길이 닿지 않았던 곳의 경물(景物)들을 찾아서 자세히 관찰하다.

a. 유(幽): ‘그윽하다’는 뜻으로 평소에 눈길이 닿지 않는 곳에 있던 뜰 안의 경물(景物)들을 말하는 것이다.

b. 토(討): 탐구하다. 연구하다. 본 시에서는 ‘살펴보다’는 뜻으로 쓰였다.

11) 행정(行庭): 뜰(정원)을 거닐다.

12) 좌계 연방초(坐階憐芳草: 섬돌에 앉아보니 꽃다운 풀들 어여쁘네):

① 좌계(坐階): 섬돌에 앉다.

② 린(憐): 어여쁘다. 귀엽다.

③ 방초(芳草):

☆향초. 꽃다운 풀.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앞의 「시7」 주석7)의 ② ‘방초(芳草)’ 조항을 참조바람.

☆충절(忠節)하거나 현덕(賢德)한 사람을 비유하는 말. 앞의 「시7」 주석7)의 ② ‘방초(芳草)’ 조항을 참조바람.

- 13) 월기 해인의(月既解人意 : 달은 진작부터 이 사람의 심정 헤아렸으니) :
 ① 기(既) : 진작부터(벌써, 이미) ...하다.
 ② 인의(人意) : 여기서 ‘인(人)’은 시적화자(詩的話者) 자신을 칭하는 것임.
- 14) 상수 영위호(相隨永爲好 : 서로 의존하는 것이 영원하면 좋겠네) :
 ① 상수(相隨) : 상수(相隨)로도 쓴다.
 ☆서로 의존함을 이르는 말이다.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동반하다. 수반하다. 따르다.
 ② 영위호(永爲好) : 영원히 누리면 좋겠다.
 ☆영위(永爲) : 영원히 누리다.
 ☆호(好) : 좋다.
- 15) 세정(世情) :
 ① 세태(世態) : 사람들의 일상생활이나 풍습 따위에서 보이는 세상의 형태나 형편)와 인정(人情).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② 세속의 정감.
 ③ 시대의 풍기(風氣).
 ④ 세리(勢利) : 세력과 이익.
 ⑤ 세인(世人 : 세간世間의 사람), 일반인. 시인(時人 : 당시의 사람).
- 16) 일반 동회포(一般同懷抱 : 일반적으로 품고 있는 성정性情은 동일하리라) :
 ① 일반(一般) : 부사로,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의 뜻으로 쓰였다.
 ② 동회포(同懷抱) : 품고 있는 성정(性情)이 동일하다.
 ☆동(同) : 차이가 없다. 동일하다.
 ☆회포(懷抱) :
 a. 마음속에 품은 본성. 마음속에 품은 성정(性情).
 b. 마음속에 품은 생각이나 정.
- 17) 승(勝) : ...보다 우월하다(낫다).
- 18) 해후 환경도(邂逅還傾倒 : 우연한 만남에도 마음이 쏠리어 반갑다네) :
 ① 해후(邂逅) : 해후하다. 오랫동안 헤어졌다가 뜻밖에 다시 만나다.
 ② 경도(傾倒) :
 ☆감복(탄복)하다. 마음을 기울여 그리워하다.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가을어) 넘어지다. 무너지다.
 ☆사람으로 하여금 마음이 기울게 하다. 마음에 꼭 들다. 애모하다(반하다)
- 19) 성언 곡굉락(聖言曲肱樂 : 성인聖人은 팔베개 하고 잠을 자도 <도道를> 즐긴다 하였고) :
 ① 성언(聖言) : 성인(聖人)은 말씀하시다. 본 시에서는 공자(孔子)를 가리키는 말로 쓰였다.
 ② 곡굉락(曲肱樂) : 『논어(論語) · 술이편(述而篇)』에, “공자*가 말하기를(子曰) : ‘거친 음식 먹고 냉수 마시며, 팔을 굽혀 베개 삼고 잠자도, 즐거움은 역시 그 가운데 있다(飯蔬食*飮水, 曲肱*而枕之, 樂*亦在其中矣).’”고 한 구절이 있다.
 *반소사(飯蔬食) : 거친 밥을 먹다.
 a. 반(飯) : 동사로, ‘먹다’는 뜻이다.
 b. 소사(蔬食) : 거친 음식. ‘사(食)’는 명사로서 ‘밥. 식사. 음식’이란 뜻이다.

*곡굉(曲肱): ‘곡(曲)’은 ‘굽혀 베다’는 뜻이고, ‘굉(肱)’은 ‘팔’이란 뜻이다. 곧 ‘팔을 베개 삼아 굽혀 베다’는 이 말은 청빈하고 한적한 생활을 비유한 말이다.

*락(樂): 즐거움. 거친 음식을 먹고 냉수 마시며 사는 것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런 빈곤에 처한 생활을 하면서도, 그 가난에 구애받지 않고, 평안하게 도(道)를 즐기는 마음으로 살아감을 말하는 것이다. 본 시에 쓰인 ‘곡굉락(曲肱樂)’이란 말은 바로 이른바 ‘안빈낙도(安貧樂道)’를 시사하는 말로 이해하면 될 것이다.

*공자(孔子: BC 551~BC 479): 춘추시대(春秋時代) 노(魯)나라 추읍(陬邑: 지금의 산둥성山東省 곡부시曲阜市 동남 40여리) 사람. 이름은 구(丘)이고, 자는 중니(仲尼)다. 조상은 송(宋)나라의 귀족이었다. 아버지는 숙량홍(叔梁紇: ?~BC 548: 성은 공孔, 숙량叔梁 자字, 홍紇은 이름임)이고, 어머니는 안징재(顏徵在)이다. 춘추 시대 말기의 대사상가로, 유가(儒家)의 개조로 추앙받고 있다. 아버지를 일찍 잃어 어릴 때는 빈천했다. 일찍이 위리(委吏: 양곡창고지기로 하급관리임)와 승전(乘田: 축목畜牧을 주관하는 작은 관리), 중도재(中都宰: 중등도성中等都城의 행정장관) 등을 역임했고, 노정공(魯定公: ?~BC 495) 때는 사구(司寇: 국군國君을 보좌하는 중요 대신大臣 중의 하나로, 경卿, 대부大夫의 작위爵位에 상당함)에 올랐다고 한다. 노나라의 권력을 계환자(季桓子: ?~BC 492)가 독점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노나라를 떠나 위(衛)나라와 송나라, 진(陳)나라, 채(蔡)나라, 초(楚)나라 등을 주유하면서 학생들을 모아 가르쳤다. 한 때 제자가 3천 명에 이르렀다고 하는데, 이름이 전하는 제자만도 70여 명에 이른다. 전하는 말로 일찍이 『시(詩)』와 『서(書)』 등 고대의 문헌을 정리하고, 노나라의 역사인 『춘추(春秋)』를 산정(刪定)하여 중국 최초의 편년체 역사서를 만들었다. 어질(仁)을 궁극의 정치적, 생활적 목표로 삼아 이를 실천하기 위해 각지를 다니며 군왕(君王)들을 설득했다. 말년인 68살 때 고향 노(魯)나라로 돌아와 교육을 통해 자신의 뜻이 후대에 실현되도록 노력했다. 많은 책을 정리하여 교육의 자료로 썼으며, 이 가운데 상당수는 지금도 정경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는 유가학파의 창시자이며, 그의 학설은 ‘인(仁)’을 핵심으로 하고, ‘예(禮)’를 규범으로 삼았다. 한대(漢代) 이후 유가의 학설은 2천여 년 동안 문화의 정통이었다. 공자는 성인(聖人)으로 받들어졌으며, 역대(歷代)에 걸쳐 그를 ‘대성지성문선왕(大聖至聖文宣王) · 지성선사(至聖先師) · 대성지성문선사(大成至聖文宣先師)’ 등의 칭호로 받들었다. 제자들이 언행을 모아 기록한 『논어(論語)』는 지금도 사상학설을 연구하는 자료로 많이 활용되고 있다.

- 20) 가색(稼穡): 경작(耕作)하고 수확하다. 전(轉)하여, ‘농사’를 가리키는 말로 쓴다.
 - ① 가(稼): 경작(耕作)하다. 파종하다.
 - ② 색(穡): 수확하다.
- 21) 즉차족(卽此足): 이제 이만하면 만족하다.
 - ① 즉(卽): 부사로서 ‘이제’의 뜻으로 쓰였다.
 - ② 차족(此足): 이만하면 만족하다. ‘차족(此足)’은 구문상 술어부에 해당한다.
- 22) 소오 구량옥(笑窮窮涼燠: 궁핍한 생활 따위는 너털웃음으로 희롱하리라):
 - ① 소오(笑窮): 소오(笑傲)로도 쓰며, ‘거리낌 없이 농담하다’는 뜻이다. 본 시에서

는 바로 이 뜻으로 ‘어느 것에도 구속받지 않고 자유롭게 행동하다’는 뜻으로 쓰였다. 청(淸)나라 학자 왕선겸(王先謙 : 1842~1917)의 『시삼가의집소(詩三家義集疏)』에 의하면, “소(笑)는 웃지 않을 수 없어 웃는 것이고, 오(敖)는 방종放縱하다는 뜻이다(笑非不可笑, 而敖則縱).”고 하였다. 『시경(詩經)·패풍(北風)·종풍(終風)』에, “〈그가〉 짓궂게 희롱하며 거침없이 농담하니, 〈내〉 마음은 비참해지네(諛浪笑敖, 中心是悼).”라고 읊은 구절이 있다.

② 궁량옥(窮涼燠) : 궁핍한 생활(세월).

☆궁(窮) :

- a. 궁핍하다.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 b. 다하다. 없어지다. 두절되다. 본 시에서는 전(轉)하여, ‘못 느끼겠다’는 뜻으로 쓰였다.
- c. 간파하다. 꿰뚫어 보다. 식파(識破)하다.

☆양옥(涼燠) : 한서(寒暑 : 추위와 더위) · 냉난(冷暖 : 차가움과 따뜻함) · 냉열(冷熱 : 차가움과 뜨거움)이란 뜻으로, ‘세월’을 비유한 말로 쓴다.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역자는 본 시에서 ‘생활’이란 말로 표현한다.

- a. 양(涼) : 서늘하다. 춥다.
- b. 옥(燠) : 따뜻하다. 뜨겁다. 덥다.

시126. 고적^{孤寂}한 심정

詩126. 閒情¹⁾
한 정



半壁青燈翳復明²⁾, 벽 중간에 걸어 둔 청등은 가물가물 하는데,
반 벽 청 등 예 부 명

夜深寒雨滿空庭³⁾. 심야에 내리는 찬 비 빈 뜰을
야 심 한 우 만 공 정
가득히 채우네.

秋風無限相思意⁴⁾, 추풍이 끊임없이 불어
추 풍 무 한 상 사 의
그리운 정취 자아내는데,

何處吹殘玉笛聲⁵⁾. 어디선가 들릴 듯 말 듯
하 처 취 잔 옥 적 성
옥피리 소리 들려오네.

1) 한정(閒情) : 한정(閑情)으로도 쓴다.

- ① 한산한 심정. 쓸쓸한 심정. 고적(孤寂)한 심정.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 ② 남녀 간의 정.

2) 반벽청등 예부명(半壁青燈翳復明 : 벽 중간에 걸어 둔 청등은 가물가물 하는데) :

- ① 반벽(半壁) : 방안의 사면 벽의 절반을 언급하고 있는 것임.
☆반쪽. 절반. 한 부분. 전(轉)하여, ‘벽의 중간’을 가리키는 뜻으로 쓰였다.
- ② 청등(靑燈) : 청등(靑燈)으로도 쓰며, ‘푸른빛을 내는 유등(油燈 : 기름불)’이다. 전(轉)하여, 고적(孤寂), 청빈한 생활을 가리키는 말로도 쓴다.
- ③ 예부명(翳復明) : 청등의 불빛이 명멸(明滅 : 밝았다 흐려졌다 하는 곧 가물가물 거리는 상태를 말함)하는 상태를 표현한 것이다.
☆예(翳) : 불빛이 거의 꺼져가는 상태를 표현한 것이다.

☆부명(復明): 다시 밝아져 오는 상태를 표현한 것이다.

3) 야심한우 만공정(夜深寒雨滿空庭: 심야에 내리는 찬 비 빈 뜰을 가득히 채우네):

① 야심(夜深): 심야(深夜)와 같은 말이다.

② 만공정(滿空庭): 빈 뜰을 가득 채우다. 빈 뜰에 가득하다.

☆공정(空庭): 텅 빈 뜰.

4) 추풍무한 상사의(秋風無限相思意: 추풍이 끊임없이 불어 그리운 정취 자아내는 데)

① 무한(無限):

☆끊임없이.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무한히.

☆무수히.

② 상사의(相思意): 그리워하는 마음.

☆상사(相思): 그리워하다. 사모하다.

☆의(意): 의미(意味). 정취(情趣). 사람이나 사물이 드러내는 정태(情態). 생각. 기분.

5) 하처취잔 옥적성(何處吹殘玉笛聲: 어디선가 들릴 듯 말 듯 옥피리 소리 들라네):

① 취잔(吹殘): 들릴 듯 말듯하다. 역자가 이렇게 번역하는 것은 의역(意譯)을 한 것이다. ‘취(吹)’는 ‘관악기의 소리 또는 그 악기를 불다’는 뜻이고 ‘잔(殘)’은 ‘소멸하다, (불완전한 상태로) 남아 있다.’는 뜻이다. 본 시에서의 ‘취잔(吹殘)’이 뜻하는 피리소리가 ‘불다 끊기고 불다 끊기면서 여음(餘音)이 남는 것’으로 보아 그렇게 번역하였다.



시127. 입춘이 지나 금계재사^{金溪齋寺}에
 갔다가, 멀리 풍산^{豐山} 역마을을
 바라보자니, 버들잎이 연녹색을 띠고
 있는지라, 시절의 변화에 감회^{感懷}가
 일어, 처량하고 슬픈 마음에 눈물을
 흘리며

詩127. 立春後出金溪¹⁾ 望見豐山驛里²⁾ 柳色微黃³⁾
 입춘 후 출 금계 망견 풍산역리 유색미황
 感時興懷⁴⁾ 悽然泣下⁵⁾
 감시흥회 처연읍하

荒郊匹馬⁶⁾已斜陽,^{황교필마이사양,} 황야에 홀로 말 타고 오는데 해는 지고,

景物無端惱客腸⁷⁾.^{경물무단뇌객창.} 풍경은 무단히 나그네 마음 괴롭히네.

野渡寒波生晚碧⁸⁾,^{야도한파생만벽,} 들판 나루터 찬 물결은
 저물녘이라 질푸르고,

驛亭疎柳上微黃⁹⁾.^{역정소류상미황.} 역참 정자 옆에 늘어선 버들은
 연두색 물들었네.

思來忽覺幽明隔¹⁰⁾,^{사래홀각유명격,} (선친) 그리다가 홀연 깨우친 게 이승과
 저승 멀단 것인데,

別後仍驚歲月忙。
별 후 영 경 세 월 망

영별永別 후 여전히 놀라운 게
이승 세월 빠르단 것일세.

欲說心懷憑短句¹¹⁾,
욕 설 심 회 병 단 구

짧은 시구詩句로 (그간의) 회포를
플고자 하는데,

淚交殘墨不成章¹²⁾。
누 교 잔 묵 불 성 장

먹물에 눈물 떨어져 시 한 수도
다 지을 수 없네.

- 1) 금계(金溪) : 금계재사(金溪齋寺) : 본 명칭은 최근까지는 ‘숭실재(崇室齋)’라고 칭했으나, 경상북도 문화재과에서 2011년 11월 16일자로 다시 ‘안동풍산류씨(安東豐山柳氏) 금계재사(金溪齋舍)’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곳은 풍산부원군(豐山府院君) 류중영(柳仲郢 : 1515~1573) 선생의 묘제(墓祭)를 위한 재사(齋舍)로서 몸체인 숭실재(崇室齋), 영모루(永慕樓)와 부속사가 연이어져 장방형의 ‘ㄱ’자형 집을 이루고 있다. 몸체는 1987년 보수 때 발견된 영조(英祖) 12년(1736)의 상량문(上樑文)에 의하면, 본래 능효사(陵孝寺)의 한 전각(殿閣)이었는데, 풍산(豐山) 류씨(柳氏)의 재사(齋舍)로 인수하여 명종(明宗) 13년(1558)에 중수(重修)하고, 광해군(光海君) 14년(1622)에 보수(補修)하였다고 한다. 몸체의 건축양식은 전면에서는 내외일출목(内外一出目)의 양설(仰舌)로 된 이익공식(二翼工式)이고 후면에서는 초익공식(初翼工式)인데, 그 양식이 고격(古格)을 지지고 있어 주목된다. 1994년과 1995년에 보수했다. 이는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146호로 소유자는 풍산류씨문중(豐山柳氏門中)이고, 소재지는 안동시 서후면 성곡리 886임(이상은 안동시 문화예술과에서 확인하고 인터넷상의 ‘서후면 문화재 소개’ 코너에서 참조하였음).

- 2) 망견풍산역리(望見豐山驛里 : 멀리 풍산 역마음을 바라보다) :

- ① 망견(望見) :

☆높은 곳에서 멀리 바라보다.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알현(謁見 : 지체가 높고 귀한 사람을 찾아가 뵈)’과 같은 말.

- ② 풍산(豐山) : 지금의 경북 안동시 풍산읍豐山邑.

- ③ 역리(驛里) : 역동驛洞 : 역참(驛站)이 있는 마을. 안동 사람들은 이곳을 ‘역마알’이라 불렀음. 지금의 풍산읍 안교3리(安郊三里)이다.

- 3) 유색미황(柳色微黃) : 버들잎의 색깔이 연한 초록색을 띄우다.

- 4) 감시흥회(感時興懷) : 시절의 변화에 감회(感懷)가 일다.

- ① 감시(感時) : 계절의 변화에 감동하다.

- ② 흥회(興懷) : 감회(感懷 : 지난 일을 돌이켜 볼 때 느껴지는 회포)를 불러일으키다.

- 5) 처연읍하(懷然泣下 : 마음이 처량해져 눈물을 흘리다) :

- ① 처연(懷然) : 애달프고 구슬픈 모양. 처량하고 슬픈 모양.

- ② 읍하(泣下) : 눈물을 흘리다.

☆읍(泣):

a. 눈물.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b. 적은 소리로 울다.

6) 황교필마(荒郊匹馬: 황량한 들판에 홀로 말을 타고 오다):

① 황교(荒郊): 쓸쓸한 들판(촌락, 시골). 외지고 황량하여 인적이 드문 교외. 황야(荒野).

☆교(郊): 교외(郊外). 촌락. 들판.

② 필마(匹馬):

☆수행원 없이 홀로 말 타고 가다(오다).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한 필의 말. 단신(單身)을 가리키는 말로도 쓴다.

7) 경물무단 뇌객장(景物無端惱客腸: 풍경은 무단히 나그네 마음 괴롭히네):

① 경물(景物): 풍경. 풍물. 경물.

② 무단(無端):

☆이유 없이 발생하다. 무단히.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기점(起點)도 없고 종점(終點)도 없다.

☆경계선이 없다. 두서(頭緒)가 없다.

☆근거 없이 씌운 죄명을 가리킨다.

☆무심(無心). 무의(無意).

☆무고(無故)하게 잔학한 해를 입는 것을 이르는 말.

☆어찌할 수 없다. 어떤 일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거나 방법이 없음을 이르는 말이다.

☆무지(無知)와 같은 말.

③ 뇌객장(惱客腸): 나그네 마음을 괴롭히다.

☆뇌(惱): 고민하다. 번민하다. 괴롭다. 괴롭히다. 번민하게 하다.

☆장(腸): 마음.

8) 야도한파 생만벽(野渡寒波生晚碧: 들판 나루터 찬 물결은 저물녘이라 질푸르고):

① 야도(夜渡): 황촌(荒村: 황폐한 촌락)이나 촌야(村野: 시골 들판)의 나루터.

② 한파(寒波): (겨울에) 기온이 갑자기 내려서 심한 한기가 오는 현상.

③ 생만벽(生晚碧): 날 저물자 (물색이) 질푸르다.

☆생(生): 발생하다.

☆벽(碧): 질푸르다.

9) 역정소류 상미황(驛亭疎柳上微黃: 역참 정자 옆에 늘어선 버들은 연두색 물들었네):

① 역정(驛亭): 역참(驛站)에 마련되어 있는 정자를 이르는 말.

② 소류(疎柳): 드문드문 서 있는 버드나무.

③ 상미황(上微黃): 연두색이 되다. 본 시에서는 ‘연두색으로 물들다’라고 번역하였다.

☆상(上): 일이나 현상이 모 방향으로 발전하여 도달한 정도를 가리킨다. ‘…하게 되다. …이 되다. …에 이르다. …에 달하다’ 등의 뜻이 된다.

☆미황(微黃): 약간 누렇다. 본 시에서는 ‘연두색’을 가리킨 말로 쓰였다.

10) 사라홀각 유명격(思來忽覺幽明隔: <천천> 그리다가 홀연 깨우친 게 이승과 저승 멀단 것인데):

- ① 사래(思來) : 그리워하다가. 그리워하다보니.
 ☆래(來) : 이때 ‘래(來)’는 ‘사(思)’ 뒤에 쓰여 삽입어의 기능을 하였다. 어떤 일에 착안하거나 계산함을 나타낸다.
- ② 유명(幽明) :
 ☆생사나 저승과 이승 또는 내세(來世)와 현세(現世)를 가리킨다. 본 시에서는 저승과 이승을 가리키는 말로 쓰였다.
 ☆유형(有形)과 무형(無形)의 사물을 가리킨다.
 ☆사람과 귀신을 가리킨다.
 ☆주야와 음양을 가리킨다.
 ☆선악·현우(賢愚) 등을 가리킨다.
 ☆암컷과 수컷을 가리킨다.
 ☆숨음과 나타남을 가리킨다.
- ③ 격(隔) : 떨어져 있다. 떨어져 있는 거리. 본 시에서는 저승에 있는 작가 류성룡의 선친(先親) 류중영(柳仲郢 : 1515~1573) 선생과 이승에 있는 류성룡 자신이 서로 떨어져 있는 것을 가리키는 말로 쓰인 것으로 보인다.
- 11) 욕설심회 빙단구(欲說心懷憑短句) : 짧은 시구詩句로 〈그간의〉 회포를 풀고자 하는데) :
 ① 욕설(欲說) : 말하고자 하다.
 ② 심회(心懷) :
 ☆심사. 기분. 감흥. 감정. 심경(心境). 심정.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마음속에 품고 있는 생각.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심리.
 ☆포부. 도량.
 ☆의향.
- ③ 빙단구(憑短句) : 짧은 시구(詩句)에 의존하여. 짧은 시구로.
 ☆빙(憑) : 기대다. 의존하다.
 ☆단구(短句) : 단시(短詩 : 짧게 쓴 시. 짧은 형식의 시)를 가리킨다.
- 12) 누교잔묵 불성장(淚交殘墨不成章) : 먹물에 눈물 떨어져 시 한 수도 다 지을 수 없네) :
 ① 누교(淚交) : 눈물이 떨어져서 먹물과 섞이다. 눈물이 떨어지다.
 ② 잔묵(殘墨) : 남은 먹물.
 ☆잔(殘) : 남다, 잔류하다. 관형사(冠形詞)로, ‘남은’의 뜻으로 쓰였다.
 ☆묵(墨) : 먹. 먹물.
- ③ 불성장(不成章) : 시의 단락을 맺을 수 없다. 시의 단락, 즉 완성된 1장(一章)의 시편(詩篇)을 지을 수 없다.
 ☆불성(不成) : …할 수 없다. 완성할 수 없다.
 ☆장(章) : 시가(詩歌)나 악곡(樂曲)의 단락(段落)이나 장(章)을 칭하는 용어. 본 시에서는 ‘수(首 : 시를 세는 양사)’의 뜻으로 이해하여도 무방하다.

시128. 마당정 馬塘井을 지나가면서

詩128. 過馬塘¹⁾ 과 마 당

천등산 서쪽에 오래된 샘이 하나 있다.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지기를, 옛날에 어떤 관리가 그 샘 부근에 거주했는데, 그 샘에서 출현한 용마龍馬를 포획하여 타고 조석朝夕으로 경주慶州를 왕복하면서도 관청에 출근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 말이 매우 황당하였다. 그러나 지금도 가물면 그 곳에서 기우제祈雨祭를 지낸다고 한다.

天燈山²⁾西有古井. 俗傳³⁾昔有吏居其傍 得龍馬⁴⁾於井中
천 등 산 서 유 고 정 속 전 석 유 리 거 기 방 득 용 마 어 정 중

騎之朝夕往來東京⁵⁾ 不廢參衙⁶⁾ 其言甚誕⁷⁾. 然至今天旱
기 지 조 석 왕 래 동 경 불 폐 참 위 기 언 심 탄 연 지 금 천 한

則祈雨其處.
칙 기 우 기 처



鶴駕山頭春日西⁸⁾,
학 가 산 두 춘 일 서

학가산 정상에 봄날 석양이 저물어 가는데,

小村微雨鳥空啼⁹⁾.
소 촌 미 우 조 공 제

작은 마을에 가람비 내리고
새는 공중에서 지저귀네.

不見當時龍馬跡,
불 견 당 시 용 마 적

당시 용마龍馬 출현했던 흔적은 보이지 않고

野塘無主草萋萋¹⁰⁾.
야 당 무 주 초 지 지

들판 못 득에는 주인 없는
초목만 무성하네.

1) 마당(馬塘) : 마당정(馬塘井) : 용마샘 : 용샘 : 천등산(天燈山) 서쪽에 있는 샘인데, 서애(西厓) 류성룡(柳成龍)의 시에 용마(龍馬 : 전설상의 용두龍頭 마신馬身의 신령스런 짐승)가 출현했다고 하는 전설이 전해진다.

2) 천등산(天燈山) : 경북 안동시의 진산(鎭山 : 도읍지나 각 고을에서 그 곳을 진호鎭護하는 주산主山으로 정하여 산신제山神祭를 지내던 산)인 학가산(鶴駕山 : 870m)의 맞은편에 있는 산으로, 해발 574m이고 안동시 서북 16km 지점에 위치한다. 그곳은 행정구역상 경북 안동시 서후면(西後面) 태정2리(台庄二里)이다. 천등산을 옛날에는 대망산(大望山)이라 불렀는데, 신라 문무왕(文武王 : ?~681 : 신라 제30대 왕으로 성명은 김법민金法民이며, 재위기간은 661~681년임) 때 천상(天上)의 신녀가 바위굴에서 도를 닦고 있던 능인대사(能仁大師 : 생몰년 미상. 의상대사義湘大師의 10대 제자 중의 한 사람임)의 도력(道力)에 감복하여 하늘에서 등불을 내려 동굴안을 환하게 밝혀주었다는 전설에 연유하여 천등산으로 개칭(改稱)하였다고 한다. 산 정상에서 보면 서쪽으로 학가산이 있고, 북쪽으로는 소백산(小白山)의 연봉(年峯)이 보이고, 남동쪽으로는 낙동강이 보인다. 남쪽 기슭에는 의상대사(義湘大師)가 창건한 봉정사(鳳停寺)가 있다. 천등산은 또한 개목산(開目山)이라고도 불렀는데, 그 까닭은 조선 전기의 재상 맹사성(孟思誠 : 1360~1438)이 안동에 소경[盲人]이 많이 나는 연유는 천등산 때문이라면서 산 이름을 개목산으로 하고, 산 동쪽에 있던 흥국사(興國寺)의 절 이름을 개목사(開目寺)로 고쳐 부르게 한 뒤, 소경이 없어졌다는 전설이 전해지기도 한다.(이상은 『두산백과』 참조)

****역주주석 :** 이 산중에는 안동 권씨 시조(始祖), 태사(太師) 권행(권행(權幸)의 묘(墓)와 서애의 선친(先親) 입암(立巖) 류중영(柳仲郢)의 묘가 있다.

3) 속전(俗傳) :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지다.

① 속(俗) : 세인(世人). 일반사람.

4) 득용마(得龍馬) : 용마를 포획하다.

① 득(得) : 포획하다.

② 용마(龍馬) : 전설상의 용두마신(龍頭馬身)의 신수(神獸)이다.

5) 동경(東京) : 고려시대에 나라의 중심지로 중요시하던 사경(四京) 중의 하나로, 지금의 경주(慶州)를 말한다. 사경(四京)에 해당하는 도시로는 이외에도 남경(南京 : 지금의 서울), 중경(中京 : 지금의 개성開城), 서경(西京 : 지금의 평양)이 있다.

6) 불폐참아(不廢參衙) : 관청에 출근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다 : 결근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① 불폐(不廢) : 포기하지 않다. 그만 두지 않다.

② 참아(參衙) : 관청에 출근하다. ‘참(參)’은 참여하다. ‘아(衙)’는 관청의 뜻이다.

7) 탄(誕) : 황당하다. 터무니없다.

8) 학가산두 춘일서(鶴駕山頭春日西 : 학가산 정상에는 봄날 저녁 해가 서쪽으로 기울는데) :

① 학가산두(鶴駕山頭) : 학가산의 꼭대기.

☆학가산(鶴駕山) : 안동의 지방지(地方誌)인 『영가지(永嘉誌) · 산천편(山川篇)』에, “학가산은 안동부(安東府 : 지금의 안동시安東市) 서쪽 30리 지점에 있으며, 하가산下柯山이라고도 한다(鶴駕山在府西三十里, 或云下柯山). 안동 · 예

천·영천(榮川: 지금의 영주榮州) 등 세 고을이 이 산을 둘러싸고 있으며, 그 산 아래로는 규모가 큰 사찰과 작은 암자가 산허리에 펼쳐져 있다(安東、醴泉、榮州三邑環抱, 其下巨刹小庵羅列山腰登). 이곳에 올라 조망하면 시력이 미치는 저 끝에는 여러 산 들이 낮은 언덕처럼 펼쳐졌고, 소백산과 대치하여 세인에게 전해지기를, ‘산 형상이 나르는 학과 같다’하여 학가산이라고 한다 하였다(眺眼力有窮諸山如丘垤, 與小白對峙俗傳, ‘形如飛鶴故焉’)……산의 동쪽 모퉁이에는 능인굴이 있다(山之東角有能仁窟).”고 하였다. 이 산의 행정구역상 위치는 예천군(醴泉郡) 보문면(普門面) 산성리(山城里)와 안동시 북후면(北後面), 서후면(西後面) 사이에 걸쳐 있다. 이 산은 산세가 험준하여 바위가 드러나 있다. 산에는 신라가 고구려의 침략을 막기 위해 쌓았던 학가산성이 있다. (고려 공민왕恭愍王이 홍건적紅巾賊의 난을 피해 몽진蒙塵 왔을 때 쌓은 것이라고도 함) 성벽의 길이는 약 1.5km나 된다. 최고봉은 국사봉(國嗣峯)이며 해발 882m이다.

- ② 춘일서(春日西): 봄날의 저녁 해가 서쪽으로 기울다.

☆춘일(春日): 봄날의 저녁 해.

☆서(西): 동사(動詞)로, ‘서쪽으로 기울다’의 뜻으로 쓰였다.

- 9) 소촌미우 조공제(小村微雨鳥空啼: 작은 마을에는 가랑비 내리고 새는 공중에서 지저귀네):

- ① 소촌미우(小村微雨): 작은 마을에는 가랑비가 내리다.

☆미우(微雨): ‘가랑비가 내리다’는 동사(動詞)로 쓰였다.

- 10) 야당무주 초처처(夜塘無主草萋萋: 들판 못 독에는 주인 없는 초목만 싱싱하네):

- ① 야당(野塘): 야외의 지당(池塘: 못)이나 호박(湖泊: 호수의 총칭).

☆당(塘):

- a. 못. 저수지. 저습지. 본 시에서는 야외 저수지의 제방이나 저습지의 독을 칭한 것으로 보인다.

- b. 제방. 독.

- ② 처처(萋萋):

☆초목이 무성하게 우거진 모양. 본시에서는 ‘싱싱하다’로 표현되었다. 본 시에서 이 뜻으로 쓰였다.

☆(웃이나 문장 등이) 화려한 모양(아름다운 모양)

☆(가을에 나뭇잎이나 풀잎이) 쇠잔한 모양.



시129. 호종훈^{扈從勳}에 등록된다고 소환하는
교지^{敎旨}가 있어, 8월에 상소하여
(훈직勳籍에서 삭제해달라고) 사양한 후에
(이 시를) 짓다

詩129. 八月¹⁾ 錄扈從功 有旨召²⁾ 上疏辭後作³⁾
팔 월 록 호 종 공 유 지 소 상 소 사 후 작

未死殘魂在⁴⁾,
미 사 잔 혼 재

아직 죽지 않고 여생이 남아 있어서,

重聞聖旨溫⁵⁾.
중 문 성 지 온

온후溫厚한 전하의 뜻을 거듭 들었네.

雖叨三錫命⁶⁾,
수 도 삼 석 명

세 번이나 소환교지 받은 은혜 입고도,

愧未一酬恩⁷⁾.
괴 미 일 수 은

부끄럽게 한 번도 은혜에 보답하지 못했네.

澧浦愁雲結⁸⁾,
예 포 수 운 결

낙동강 강변에는 수심에 찬
구름이 엉기는데,

周京望眼昏⁹⁾.
주 경 망 안 혼

경성京城 쪽을 바라보니 눈앞이
침침해지네.

披肝¹⁰⁾數百字,
피 간 수 백 자

진실로 마음 터놓고 만나자는 수
백자數百字 교지敎旨 받잡고,

幾日抵丹靄¹¹⁾。
기 일 저 단 혼

(마음은) 며칠 동안 단청한 궁문 앞에
가 있었네.

- 1) 8월(八月): 이 '8월'은 1604년(갑진년甲辰年: 선조 37, 서애 63세)의 8월이다. 선생은 이 해 8월에 하회(河回)에서 조정으로부터 '호종훈(扈從勳)에 등록되었다'는 교지를 받고 이를 사양하는 상소문을 올렸다. 「서애연보(西厓年譜)」의하면, “〈1604년〉 7월에 호종훈扈從勳 2등에 등록되고(七月錄扈從勳二等), 충근정량 효절협책 호성공신(忠勤貞亮孝節協策憲聖功臣)의 호를 받았다.”고 하였다. 이어서 “〈같은 달〉 24일[癸酉]에 교지로 왕의 소환이 있었다(癸酉旨宣召).”고 하였다. 그리하여, 선생은 “8월 6일[甲申]에 상소하여 소명을 사퇴하고(八月甲申上疏辭召命), 훈록도 삭제해 줄 것을 청했으나 윤허하지 않았다(並乞鐫免勳錄, 不允).”고 하였다.

- 2) 록호종공 유지소(錄扈從功 有旨召: 호종훈扈從勳에 등록된다고 소환하는 교지가 있어):

- ① 록호종공(錄扈從功): 호종훈(扈從勳)에 등록되다.

☆호종공(扈從功): '호종(扈從)'이란, 임난 때 선조의 어가(御駕)를 호위하며 수행한 것을 의미하고, '공(功)'이란, 이 때에 세운 공훈을 뜻한다. 선조는 1601년(선조 34) 3월에 임진왜란 중에 활약했던 문무 신료들의 행적을 살펴 논공행상의 기준을 마련하라고 지시하였다. 선조의 지시를 받은 신료들은 왜란 시기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한 임시 기구로 녹훈도감(錄勳都監)을 설치하고, 여기에서 포상해야 할 대상을 3종, 곧 호종공신(扈從功臣: 선조가 의주義州까지 파천播遷하는 동안 수행하거나 명명에 사절로 가서 명군明軍을 요청하는데 공을 세운 신료), 선무공신(宣武功臣: 주로 무장들로서 일본군과 직접 전투를 벌여 공을 세운 인물들), 청난공신(淸難功臣: 1596년 충청도에서 발생한 이몽학李夢鶴의 반란을 진압하는데 공을 세운 신료들)으로 분류하여 선정했다. 서애선생은 이 세 가지 대상 중, 호종공신(扈從功臣)에 분류되어 조정으로부터 소환교지를 받은 것이다. 「서애연보」에 의거하면, 1604년(갑진년甲辰年, 선조 37) 서애선생 63세 7월에 조정으로부터 호종훈(扈從勳) 2등에 등록하고 충근정량 효절협책 호성공신(忠勤貞亮孝節協策憲聖功臣)의 호(號)를 하사받았다.

- ② 유지소(有旨召): 소환하는 교지가 있다.

☆지(旨): 교지(教旨): 조선시대 때 임금의 문무관 4품 이상의 관리에게 주던 사령(辭令). 4대 세종 7년(1425)에 왕지(王旨)를 개칭(改稱)한 것이다.

☆소(召): 소환(召喚)하다. 부름.

- 3) 상소사후작(上疏辭後作: (8월에) 상소를 올려 〈훈적勳籍에서 삭제해달라고〉 사양한 후에 〈이 시를〉 짓다):

- ① 상소(上疏): 신하가 제왕에게 상주문(上奏文)을 올린다.

☆상(上): 올린다. 드린다.

☆소(疏): 상주문(上奏文: 임금에게 아뢰는 글).

- ② 사후작(辭後作): 사양한 후에 〈이 시를〉 짓다.

☆사(辭): 사양하다.

☆후작(後作): (사양한) 후에 위의 시를 짓다.

4) 미사 진혼재(未死 殯魂在: 아직 죽지 않고 여생이 남아 있어서):

① 미사(未死): 아직 육신이 죽지 않다.

② 잔혼재(殯魂在): 여생이 남아있다.

☆여생(餘生)이 남아 있다.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a. 잔혼(殯魂): 잔생(殯生). 여생(餘生).

b. 재(在): 존재하다.

☆쇠잔한 넋이 살아 있다.

a. 잔혼(殯魂): 쇠잔한 영혼(넋).

b. 재(在): 존재하다. 살아있다.

5) 중문 성지온(重聞聖旨溫: 온후한 전하의 뜻을 거듭 들었네):

① 중문(重聞): 거듭하여 듣다.

② 성지온(聖旨溫: 임금의 뜻):

☆성지(聖旨): 임금의 뜻. 임금의 명령.

☆온(溫): 온후(溫厚)하다. 열성적이다.

6) 수도삼석명(雖叨三錫命: 세 번이나 소환교지 받은 은혜 입고도):

① 도(叨): 은혜를 입다. 덕을 입다.

② 석명(錫命): 제왕에게 받은 소명(詔命: 조서詔書: 칙명勅命: 임금이 내린 명령: 임금의 명령을 일반에서 알릴 목적으로 적은 문서).

7) 괴미 일수은(愧未一酬恩: 부끄럽게 한 번도 은혜를 보답하지 못했네):

① 괴(愧): 부끄럽다.

② 수은(酬恩): 은혜에 보답하다.

☆수(酬): 보답하다.

8) 예포 수운결(澧浦愁雲結: 낙동강 강변에는 수심에 찬 구름이 엉기는데):

●역자해설: ‘예포(澧浦)강변’에 구름이 엉기면 상군(湘君)의 강림(降臨)을 바라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본 시에서는 선조에 대한 그리움을 굴원(屈原)의 『초사(楚辭)·구가(九歌)·상군(湘君)』의 시적경계에 빗대어 본 시의 시의(詩意)를 시사하였다. 본 시에서의 예포(澧浦)는 낙동강의 대칭(代稱)으로 쓰였다. 아래의 주석 ①의 ‘예포(澧浦)’조항을 참조바람.

① 예포(澧浦): 예수(澧水)의 강변. ‘예수’는 지금의 호남성(湖南省) 상식현(桑植縣)에서 발원하여 예현(澧縣)을 거쳐 잠수(涪水)를 받아드린 다음 동정호(洞庭湖)로 유입(流入)되는 강물이다. 본 시에서 ‘예수(澧水)’라는 시어(詩語)를 사용한 이유는 시적화자가 선조에 대한 그리움을 기탁(寄託)하고자 『초사(楚辭)·구가(九歌)』의 편명의 하나인 「상군(湘君)」과 「상부인(湘夫人)」의 작품 속에 나오는 ‘강변’ 명칭을 차용(借用)한 것이다. ‘상군과 상부인’은 모두 상수(湘水: 광서성廣西省에서 발원하여 호남성湖南省으로 유입되는 호남성 최대의 강으로 이 역시 동정호洞庭湖로 흘러들어감)의 신(神)이다. 그러나 중국역대학자들의 상군·상부인에 대한 견해가 불일치하고 있다. 말하자면, 왕일(王逸: 897~158)은 『초사장구(楚辭章句)』에서, 상군을 수신(水神)이라 하고, 상부인은 순(舜)의 두 비(妃)라고 한다. 『사기(史記)·진시황본기(秦始皇本紀)』와 유향(劉向: BC 77?~BC 6)이 쓴

『열여전(列女傳)』에서는 상군은 요(堯)의 딸이고, 순(舜)의 처로, 아황(娥皇)과 여영(女英)을 가리킨다. 남송(南宋)의 학자, 홍흥조(洪興祖: 1090~1155)는 상군(湘君)은 아황이고, 상부인은 여영이라고 한다. 뒷날에 와서 주희(朱熹: 1130~1200)는 이 견해를 따랐다. 왕부지(王夫之: 1619~1692)는 『초사통석(楚辭通釋)』에서 “대개 상군은 상수의 신이고, 상부인은 그의 배필이다(蓋湘君者湘水之神, 而夫人其配也).”고 하였다. 진본예(陳本禮: 1739~1818)의 『굴사정의(屈辭精義)』에서는 “상군일편(湘君一篇)은 곧 상군이 부인을 부르는 것이고, 상부인 일편은 상군에게 답하는 것이다(湘君一篇即湘君召夫人者也. 夫人一篇, 則夫人答湘君者也).”라고 하였다.(이상은 부석임傳錫王 역주譯註 『新譯 초사독본(楚辭讀本)』의 「상군」·「상부인」 참조) 이상을 요약하면, 상군과 상부인의 관계가 ‘자매와 부부’라는 두 가지 경우로 대별(大別)된다. 그러나 이 양자(兩者)가 모두 ‘서로 그리워하나 만나지 못하여 애태우는 마음’은 공통적이다. 위의 서애시에 나오는 ‘예포(澧浦)’는 바로, 이 두 작품의 마지막 절어부분에 장치된 시적배경(詩的背景)이다. 양자의 주인공이 되는 상군(湘君)과 상부인(湘夫人)은 각각 주제(主祭)인 여무(女巫)가 상군의 강림(降臨)을 간절히 기다리다가 그가 강림하지 않자, 이를 슬퍼하며 안타까워하다가 “옥폐는 강물 속에 던지고, 패식(佩飾: 패옥佩玉)은 예수(澧水 강변[澧浦]에 남겨두었네(捐余玦兮江中, 遺余佩兮澧浦).”라고 읊으며, 상군을 영접할 희망을 끝내 포기하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인다. 「상부인」에서도 동일 장면이 연출되어, 이들 두 애신의 상면이 비극으로 끝남을 보여준다. 서애는 바로 이러한 ‘상군’과 ‘상부인’의 주제의식(意)에다가 당시 서애의 선조에 대한 그리움을 기탁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그리하여, 서애가 거주하는 화희마을의 낙동 강변을 ‘예포(澧浦)’의 시적(詩的) 상황에 기탁하여, 주군(主君)인 선조(宣祖)에 대한 신하(臣下)로서의 충정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9) 주경 망안혼(周京望眼昏: 경성京城 쪽을 바라보니 눈앞이 침침해지네):

- ① 주경(周京): ‘주(周)나라의 경성(京城)’이란 뜻으로, ‘호경(鎬京)’을 가리킨다.
☆호경(鎬京): 지금의 섬서성(陝西省) 장안현(長安縣) 서북의 호경촌(鎬京村) 부근인데, 전(轉)하여, 본 시에서는 조선의 경성(京城)인 한양(漢陽: 지금의 서울)을 대칭하는 말로 쓰였다. ‘주(周)’나라의 수도였던 ‘호경(鎬京)’은 중국의 문물제도의 전반이 최초로 정비되었던 중심지였으며, 정치적으로도 태평성대를 구가했던 시기의 수도였기 때문에, 본시의 작가는 조선의 서울인 경성(京城)을 이에 기탁하여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10) 피간(披肝): 피간담(披肝膽): 진심을 털어놓고 거짓 없이 행동할 수 있는 참된 정성을 들여서 만나는 것을 나타낸 말이다.

- ① 피(披): 열어젖히다. 가르다. 펼치다. 속에 있는 것을 드러내다.
- ② 간담(肝膽): 간장(肝臟): 사람의 소화기관 중의 하나인데, ‘내심(內心: 속마음)’을 비유한 말로 쓰인다. 간담은 간과 쓸개를 아울러 이르는 말인데, ‘진심성의(真心誠意)’를 비유하는 말로 쓴다.

11) 저단혼(抵丹闥): 직역하면, ‘단청을 한 궁문 앞에 가다’는 말인데, 이것은 ‘마음이 대궐에 가 있다’는 말을 비유한 뜻으로 표현한 말이다.

- ① 저(抵): 도달하다. 이르다.
- ② 단혼(丹闥): 단청한 궁문(宮門).



시130. 다시 오라고 하는 소환성지^{召喚聖旨}가
있었으나 와병^{臥病}중이라 가지
못하면서

詩130. 再蒙召旨¹⁾ 又以病不赴
재 몽 소 지 우 이 병 불 부

殘衲心情病鶴容²⁾,
잔 남 심 정 병 학 용

심정은 해진 장삼 걸친 중이요
물결은 병든 학이라,

難將白髮犯秋風³⁾.
난 장 백 발 범 추 풍

백발 늙은이는 추풍을 씌기도
쉽지 않네.

空慚聖主推恩厚⁴⁾,
공 참 성 주 추 은 후

성군^{聖君}께 괜히 송구한 것은 베푸신
은혜 두터워서지만,

未信孤臣賦命窮⁵⁾.
미 신 고 신 부 명 궁

이 고루한 신하 아직 천명
다 했다고 믿진 않네.

天末有雲長向北⁶⁾,
천 말 유 운 장 향 북

하늘에는 멀리 북으로 흘러가는 구름도
있지만,

世間無水不流東⁷⁾.
세 간 무 수 불 류 동

지상에는 동쪽이라고 흘러가지 못하는
강물이 없다네.

神京正在千峯外⁸⁾,
신 경 정 재 천 봉 외

경성^{京城}은 바로 수많은 산봉우리

밖에 있는데,

碧水丹霞望眼中⁹⁾.
벽수단하망안중

푸른 강물 붉은 노을은
한 눈 안에 들어오네.

- 1) 재몽소지(再蒙召旨 : 다시 소환성지(召喚聖旨)를 받다) :

「서애연보」에 의하면, 1604년(갑진년甲辰年 : 선조 37, 서애 64세) 7월에 1차 소환교지를 받았고, 9월에 다시 제차 소명(召命)이 있었으나 사퇴하고 충훈부(忠勳府)에 보낸 화사(畫師)도 사절하여 보냈다는 기록이 보인다. 앞의 「시129」의 주석1) · 2) 조항을 참조바람.

① 몽(蒙) : 받다.

② 소지(召旨) : 소환교지(召喚敎旨) : 소환성지(召喚聖旨).

- 2) 잔납심정 병학옹(殘納心情病鶴容 : 심정은 해진 장삼 걸친 중이요 물골은 병든 학이라) :

① 잔납심정(殘納心情 : 해진 장삼을 입은 승려의 심정) :

☆잔납(殘納) : 남아 해어진 장삼(長衫). 혜심(慧諱)*이 지은 「소요산 골짜기에서(逍遙谷)」에, “봉새는 바람타고 몇 만 리를 날아가지만, 뱀새의 숲속 등지는 가지 하나면 족하네(大鵬風翼幾萬里, 斥鷃*林巢足一枝). 정황은 다르지만 모두 다 자적自適하니, 마른 대지팡이 해어진 장삼 또한 제격일세(長短雖殊俱自適, 瘦筇殘衲*也相宜*).”라는 시가 보인다.

*혜심(慧諱 : 1178~1234) : 고려후기의 승려. 속성(俗姓)은 최(崔), 자는 영을(永乙), 호는 무의자(無衣子)이다. 신종 4년(1201)에 태학(太學)에 들어갔으며, 보조국사(普照國師) 밑에서 출가하였다. 지눌(知訥)의 뒤를 이어 수선사(修禪社)의 제2세 사주(社主)가 되어, 간화선(看話禪)을 강조하면서 수선사의 교세를 확장하였다. 시호는 진각국사(眞覺國師)이다. 저서에 『선문강요(禪門綱要)』, 『선문념송집(禪門拈頌集)』 등이 있다.

*척안(斥鷃) : 뱀새.

*수공(瘦筇) : 마른 대나무 지팡이.

*잔납(殘衲) : 해어진 장삼.

*상의(相宜) : 적합하다. 적당하다. 전(轉)하여, 그 지닌 바의 정도나 신분에 알맞은 격식을 지녔다는 뜻에서 ‘제격[適格]’으로 번역하였다.

- ② 병학옹(病鶴容) : 병든 학 같은 기력이 없는 물골을 한 자태를 묘사한 말이다.

☆학(鶴) :

a. 두루미 · 백학(白鶴) · 선학(仙鶴) · 선금(仙禽) · 노금(露禽) · 태금(胎禽) 및 단정학(丹頂鶴)이라고도 한다. 몸의 길이는 1.4m, 부리는 15~17cm이며, 몸은 흰색이고 이마목다리와 날개 끝은 검은 색이다. 머리위에 살이 붙게 드러나 있으며, 부리는 녹색이다. 풀밭에 주로 살며 겨울철새로 한국·일본·중국 등지에서 겨울을 보내고 시베리아에서 번식한다. 천연기념물 제202호

이다.

- b. 학의 상징적 의미를 보면, 흰색의 몸통과 검은 색 머리 때문에 고고한 인품을 지닌 선비의 상징으로 많이 사용되어, 일반적으로 깨끗하고 고귀한 것을 상상하게 한다. 그래서 우리 민족이 숭상하는 선비의 이상적 성품이 이 학에 함축되어 있다 할 것이다. 학명지사(鶴鳴志士: 몸을 닦고 마음을 실현하는 선비), 학명지탄(鶴鳴之歎: 선비가 은거하며 도를 닦지 못함을 탄식함), 학고(鶴孤: 선비들의 외롭고 쓸쓸함), 학창의(鶴鶯衣: 조선시대 지체 높은 선비들이나 벼슬아치가 즐겨 입던 옷으로 학의 모습을 본떠 소매가 넓고 술기가 학의 날개처럼 갈라진 흰 창의(鶯衣) 등의 용어가 그 예이다. 또한 학은 장수를 상징하는 대표적 존재로 인식되어서, 사람들은 그림이나 시의 소재로 학을 즐겨 채택하였고, 복식이나 여러 공예품에서도 학을 소재로 많이 표현하였다.

3) 난장백발(難將白髮: 백발 늙어가는 추풍을 쫓기도 쉽지 않네):

- ① 난장백발(難將白髮): 백발노인은 …하기가 어렵다.

☆난장(難將): …로써는 …하기 어렵다.

a. 난(難): 형용사로, ‘…하기 어렵다’는 의미로 쓰였다.

b. 장(將): 개사(介詞)로, ‘…로는, …로써’의 뜻으로 쓰였다.

- ② 범추풍(犯秋風): 추풍을 접촉하다. 추풍을 쫓다.

☆범(犯): 접촉하다. 본 시에서는 ‘바람을 쫓다’는 뜻으로 쓰였다.

4) 공침성주 추은후(空慚聖主推恩厚: 성군聖君께 괜히 송구한 것은 베푸신 은혜 두터워서지만):

- ① 성주(聖主): 성군(聖君).

☆당대(當代) 황제에 대한 존칭. 어질고 덕이 뛰어난 임금. 본 시에서는 선조(宣祖)를 가리키는 말로 쓰였다.

☆일반적으로 ‘영명(英明)’한 천자를 가리킨다.

- ② 추은후(推恩厚): 베푸신 은혜가 두텁다.

☆추은(推恩):

a. 인자함을 베푼다. 은혜를 베푼다. 본 시에서는 전자(前者)의 뜻으로 쓰였다.

b. 조선 시대 때 임금이 신하의 부모에게 관작을 내리던 일. 시종(侍從)이나 병사(兵使)·수사(水使) 등의 아버지로서 70세가 넘는 사람에게 품계를 주었다.

☆후(厚): 두텁다.

5) 미신고신 부명궁(未信孤臣賦命窮: 이 고루한 신하 아직 천명 다 했다고 믿진 않네):

- ① 고신(孤臣):

☆고루하고 무지한 신하. 임금에 대한 신하 자신의 겸칭이다.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고립무원(孤立無援)하거나 중용(重用)되지 못한 임금과 소원한 신하.

- ② 부명(賦命): 타고난 운명. 천명(天命).

☆부(賦): 천부(天賦): 하늘이 주다.

☆명(命): 운명, 생명.

- ③ 궁(窮): 끝나다. 다하다. 없어지다.

6) 천말유운 장향북(天末有雲長向北 : 하늘에는 멀리 북으로 흘러가는 구름도 있지 만) :

① 천말(天末) : 하늘 끝. 하늘가.

② 장향북(長向北) : 멀리 북쪽으로 흘러가다.

☆장(長) :

a. 멀리. 아득하게.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b. 언제나. 항상.

☆향북(向北) : 북쪽으로 향하여 흘러가다.

a. 향(向) : 동사로, ‘다가가다. 접근하다.’의 뜻으로 쓰였다. 본 시에서는 ‘떠가다. 흘러가다’의 뜻으로 쓰였다.

7) 세간무수 부류동(世間無水不流東 : 지상에는 동쪽이라고 흘러가지 못하는 강물이 없다네) :

① 세간(世間) : 세상. 인간세상. 본 시에는 ‘지상(地上)’을 가리키는 말로 쓰였다.

② 무수 불류동(無水不流東 : 동쪽이라고 흘러가지 못하는 강물은 없다네) :

****역자해설 :**

a. 본 시구(詩句)에서의 ‘수(水 : 강물)’는 서에 자신의 처지와 의도하는 바를 비유하여 표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강중에 대표적으로 두만강이 동해로 흘러들고, 함경남도의 성천강과 용흥강, 그리고 강원도의 남강 등이 동해로 흘러든다. 그 이외의 강은 대부분 남해나 서해로 흘러든다. 본 시구에서의 표현처럼 “동쪽이라고 흘러가지 않는 강물은 없다”. 물은 낮은 곳으로 흘러갈 뿐, 방향을 정해놓고 흐르는 법은 없다. 자연의 순리에 따르듯 서에는 은거를 택한 것이다.

b. 본 시구(詩句)는 명대(明代)의 이동계몽서적의 하나인 『증광현문(增廣賢文)』 상집(上集)에 보이기도 한다. 원문을 보면, “하늘에는 못별들이 모두 북극성을 중심으로 돌고, 세상의 모든 강물은 동쪽을 향해 흘러가지 않는 것이 없다(天上衆星皆拱北, 世間無水不朝東).”라고 하여, 못별들의 북극성을 중심으로 하는 운행과 지상의 크고 작은 강물이 동쪽으로 흘러드는 대자연의 섭리를 부각시키고 있다. 실제로 중국지형은 서고동저(西高東低)의 계단식 지형으로 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유라시아대륙의 지면이 태평양 쪽으로 비스듬히 기울어지는 경사면에 위치하고 있어, 대체적으로 서쪽이 높고 동쪽이 낮은 형태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중국의 가장 대표적인 강인 황하(黃河)와 장강(長江)은 서부의 청장고원(靑藏高原 : 칭하이티벳 고원 : 지구상에서 가장 높은 고원)에서 발원하여 동쪽으로 흐르고 있으며, 이외의 대부분의 강물흐름도 서에서 동으로 향하고 있다. 그리하여, 중국 고전시가에는 이 ‘서고동저(西高東低)’의 강물 흐름으로써 자연의 섭리에 순응해야하는 의미를 비유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를테면, 인구에 회자하는 이백(李白)의 「장진주(將進酒)」나 소동파(蘇東坡)의 「연노교(念奴嬌)」- 적벽회고(赤壁懷古) - 등에도 황하(黃河)와 장강(長江)의 동류(東流)를 읊고 있다. 이는 중국인의 입장에서 읊은 것이다.

8) 신경정재 천봉외(神京正在千峯外 : 경성京城은 바로 수많은 산봉우리 밖에 있는데) :

① 신경(神京):

☆제왕이 있는 도시. 수도. 본 시에서는 한양(漢陽)을 가리키는 말로 쓰였다.

☆선경(仙京). 선도(仙都). 신선세계의 도성(都城).

9) 벽수단하 망안중(碧水丹霞望眼中: 푸른 강물 붉은 노을은 한 눈 안에 들어 오네):

- ① 벽□단하(碧□丹霞): 두 번째 시어(詩語)가 꺾자(關字)인데, 아마도 판각(板刻)하는 과정에서 탈자(脫字)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시의(詩意)로 보나, 성률(聲律)로 보나, 이 두 번째 글자는 물수의 ‘수(水)’자가 아닌 가 생각된다. 왜냐 하면, 본시는 측기격(仄起格) 7언율시로, 위의 출구(出句)인 제7구는 “신경정재 천봉외(神京正任千峯外)”로서, ‘평평측측평평측’의 성율(聲律)을 지니고 있어 대구(對句)인 “벽□단하 망안중(碧□丹霞望眼中)”의 성률은 마땅히 ‘측측평평측측평’으로 맞추어져야 한다. 그래서 대구인 제2지는 반드시 측성(仄聲)자인 ‘수(水)’자가 와야 만이 범률(犯律)이 되지 않고, 수평선 쪽의 강물 색[水色]과 노을 색[丹霞]이 또한 구중대우(句中對偶)를 이루는 시적경계도 부각시키게 된다. 하여서, 역자는 ‘벽꺾’자 뒤의 꺾자(關字)를 ‘수(水)’자로 넣어, “벽수단하(碧水丹霞)”로 번역하였다.



시131. 이득^{而得} 김윤사^{金允思}가 최근에 강변에
택지^{宅地}를 선택하여 거처를 마련하고
나서, 그 집을 송음^{松陰}이라고 이름을
지었다가, 다시 추월당^{秋月堂}이라
부르기로 했다기에, 두 수의
율시^{律詩}를 지어 부친다

詩131. 金而得新¹⁾卜江¹⁾舍¹⁾ 名以松陰²⁾ 又號秋月堂³⁾
김 이 득 신 복 강 사 명 이 송 음 우 호 추 월 당
寄二律韻⁴⁾
기 이 율 운

其一
기 일

[1]

松陰與秋月⁵⁾,
송 음 여 추 월

소나무의 그늘이며 가을밤의 달빛이,

都在此中間⁶⁾.
도 제 차 중 간

모두 이 (강변의 정사精舍) 집 안에
머물고 있네.

異境知誰借⁷⁾,
이 경 지 수 차

기묘한 이 정경情景 누가 빌려 오는지
아는가?

幽盟肯自寒⁸⁾.
유 맹 긍 자 한

남몰래 다짐하여 빈천도
수증하는 (자기) 자신일세.

怡情雲半壑⁹⁾,
이 정 운 반 학

심정 즐겁게 해주는 것은
구름이 중턱에 걸친 골짜기고,

護屋竹千竿¹⁰⁾。
호 옥 죽 천 간

집을 호위하는 것은
일천 그루의 대 숲일세

料量平生事¹¹⁾,
요 량 평 생 사

(내) 평생의 관직생활 평해보건대,

無如一日閒¹²⁾。
무 여 일 일 한

하루 동안의 한가함만도 못했다 하겠네!

其二
기 이

[2]

茅屋三椽足¹³⁾,
모 옥 삼 연 족

초가삼간이면 그것으로 충분하고,

苔庭數畝多¹⁴⁾。
태 경 수 묘 다

이끼 낀 뜰 백여 평이면 많은 것일세.

風流滿江月¹⁵⁾,
풍 류 만 강 월

운치韻致 있는 풍경은 강물에 비친
월영月影에 가득하고,

富貴一園花¹⁶⁾。
부 귀 일 원 화

부귀는 정원에 핀 꽃송이 속에 가득하네.

遠樹連還斷,
원 수 연 환 단

멀리 보이는 수림樹林은 이어졌는가
하면 다시 끊어지고,

遙山直復斜。
요 산 직 부 사

아득한 산 능선은 곧게 뻗는가 하면
다시 기울어지네.

興來隨杖屨¹⁷⁾,
흥 래 수 장 구

흥이 나면 즉시 지팡이 짚고
천천히 걷는데,

無處不吟哦¹⁸⁾。
 무 처 불 읊 아

시를 읊으며 다니지 않은 곳이 없다네.

- 1) 김이득신복강사(金而得新卜江舍 : 이득而得 <김윤사金允思가> 최근에 강변에택지를 선택하여 집을 마련하고 나서):
 - ① 김이득(金而得): 김윤사(金允思: 1552~1622): ‘이득(而得)’은 김윤사의 자(字)이다. 성씨 다음에 자를 쓴 것은 경칭(敬稱)의 한 예이다. 본관은 순천(順天), 부친은 현감(縣監) 박(博)이며, 거주지는 지금의 경북 안동시 풍천면(豐川面) 구담리(九潭里)이다. 1588년(무자년戊子年: 선조 21)의 식년시(式年試: 자자·오午·묘卯·유酉 등의 간지干支가 들어 있는 해에 실시하던 과거)에 응시하여 진사(進士)에 합격했다. 동생 김윤안(金允安: 1562~1620: 호는 동리東籬 자는 이정而靜)과 함께 서애(西厓) 류성룡(柳成龍)의 문인이며,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영남의 의병장 김해(金垓: 1555~1593)의 휘하에서 형 윤명(允明)과 함께 안동에서 활동하였다고 김윤안(金允安)의 『동리문집(東籬文集)』에 전한다. 김윤안은 안동 화천(花川)서원에 배향됨.
 - ② 신복(新卜): 새로 혹은 최근에 거처를 정하다.
 ☆신(新): 부사로, ‘새롭게 혹은 최근에’라는 의미로 쓰였다.
 ☆복(卜):
 a. 거주지를 집을 처서 정하다.
 b. 살 곳을 집을 처서 선택하다.
- 2) 명이송음(名以松陰: 송음이라고 이름을 지었다가):
 - ① 송음(松陰): 김윤사(金允思)가 강변에 지은 집의 명칭.
- 3) 우호추월당(又號秋月堂: 다시 추월당이라 부르기로 하다):
 - ① 추월당(秋月堂): 김윤사가 강변에 집을 짓고 ‘송음(松陰)’이라 명칭한 후, 또 하나의 명칭으로 정한 것이 ‘추월당(秋月堂)’이다.
- 4) 기이율운(寄二律韻: 두 수의 율시律詩를 지어 부치다):
 - ① 이률(二律): 두 수의 율시(律詩).
 - ② 운(韻): 운시(韻詩: 각운脚韻을 장치한 시).
- 5) 송음 여추월(松陰與秋月: 소나무의 그늘이며 가을밤의 달빛이):
 - ① 송음(松陰): 송음(松蔭)이라고도 쓴다. ‘소나무 그늘’이란 뜻으로, ‘유정(幽靜: 그윽하고 조용함)한 곳’을 가리키는 말로 많이 쓰인다.
 - ② 추월(秋月): 가을밤의 달(달빛).
- 6) 차중간(此中間: 이 <옥연정사玉淵精舍> 집 안에):
 - ① 차(此): 지시 대명사로 ‘이곳’의 뜻으로 쓰였으며, 여기서 가리키는 ‘이곳’은 ‘옥연정사(玉淵精舍)’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본 시제(詩題)에서 쓴 “두 수의 율시를 지어부친다(寄二律韻).”라는 말을 놓고 미루어 짐작컨대, 작시(作詩)할 때 서애(西厓)는 옥연정사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 ② 중간(中間): …의 안에. …의 가운데. 본 시에서는 ‘집 안’을 가리키는 뜻으로 쓰였다.

- 7) 이경 지수차(異境知誰借: 기묘한 이 정경情景 누가 빌려오는지 아는가):
- ① 이경(異境):
- ☆기묘한 경계(境界: 境地경지).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 a. 경(境): 경황(境況). 정경(情景).
- ☆이역(異域: 타향他鄉), 타국(他國)과 같은 말.
- ② 지수차(知誰借): 누가 빌려오는지 아는가?
- ☆수(誰): 누구.
- ☆차(借): 빌리다.
- 8) 유명 금자한(幽盟肯自寒: 남몰래 다짐하여 빈천도 수궁하는 <자기> 자신일세):
- ① 유명(幽盟): 남몰래 다짐하다 혹은 다짐하는 맹서.
- ☆유(幽): 본 시에서는 부사적으로 쓰여, ‘남몰래. 마음속 깊이’의 뜻을 지닌다.
- ☆맹(盟): 맹세하다. 전(轉)하여, 본 시에서는 ‘(스스로에게) 다짐하다’는 뜻으로 쓰였다.
- ② 금자한(肯自寒): 자신이 한미(寒微: 빈천함)한 것을 기꺼이 수궁하다(인정하다). 또는 ‘빈천한 것을 수궁하는 자신’의 뜻이다.
- ☆금(肯):
- a. 동의(수궁·인정)하다.
- b. 기꺼이 …하다.
- c. 만족하다.
- ☆자(自): 자기 자신.
- ☆한(寒):
- a. 한미(寒微)하다.
- b. 어렵다.
- c. 힘들다.
- 9) 이정 운반학(怡情雲半壑: 심정 즐겁게 해주는 것은 구름이 중턱에 걸친 골짜기 고):
- ① 이정(怡情):
- ☆마음을 즐겁게 하다.
- ☆즐거워하는 (기뻐하는) 심정. 심정이 즐겁다.
- ② 운반학(雲半壑): 구름이 중턱에 걸친 산골짜기.
- ☆반학(半壑): 골짜기 중턱.
- 10) 죽천간(竹千竿: 뽕뽕이 우거진 대숲): 직역하면, ‘일천그루의 대숲’이란 뜻이다.
- 11) 요량 평생사(料量平生事: <내> 평생의 관직생활 평해 보건대):
- ① 요량(料量):
- ☆헤아리다. 짐작하다. 추측하다. 예측하다. 평가하다. 추정(推定: 추측하여 관정)하다. 요량(料量: 짐작함. 추측함)하다. 본 시에서는 ‘평가하다’ 또는 ‘추정(推定)하다’는 뜻으로 쓰였다.
- ② 사(事):
- ☆관직. 직업.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 ☆공업(功業). 사업.
- 12) 무여 일일한(無如一日閒: 하루 동안의 한가함만도 못했다 하겠네):

- ① 무여(無如) :
 ☆…만 못하다.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어찌할 도리가 없다.
 ☆귀의(歸依: 의탁)할 곳이 없다.
- ② 한(閒) : 한가하다. 유한(悠閑)하다.
- 13) 모옥 삼연족(茅屋三椽足 : 초가 삼 칸이면 그것으로 충분하고) :
 ① 모옥(茅屋) : 땃집. 떠나 이영 따위로 자봉을 인 초라한 집. 자기 집의 검침으로도 쓴다.
 ② 삼연(三椽) : (땃집이나 초가) 삼 칸.
 ☆연(椽) :
 a. 집의 칸 수를 가리키는 양사(量詞)처럼 쓰는 말.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b. 서까래.
 c. 나무 사다리. 목제(木梯).
- 14) 태정 수무대(苔庭數畝多 : 이끼 낀 뜰 백여 평이면 많은 걸세) :
 ① 태정(苔庭) : 이끼 낀 뜰.
 ☆태(苔) : 이끼.
 ☆정(庭) : 뜰.
 ② 수묘(數畝) : 백여 평.
 ☆묘(畝) : 지적(地積) 단위로서 ‘한 단(段)’의 10분의 1, 곧 30평으로, 약 99.174m²에 해당된다고 환산한다. 자세한 것은 앞의 「시118」의 주석3)의 ‘묘(畝)’ 조항을 참조바람.
- 15) 풍류 만강월(風流滿江月 : 운치 있는 풍경은 강물에 비친 월영月影에 가득하고) :
 ① 풍류(風流) :
 ☆재능이 있고 예법에 구속 받지 않는 기세(태도) 풍치(風致) 있고 멋진 기세. 본 시에서는 ‘풍경이 운치(韻致)가 있고 멋지다’ 는 뜻으로 쓰였다.
 ☆바람이 불거나 사라지다.
 ☆유전(遺傳)하다. 세상에 전해지다. 유행하다. 성행하다.
 ☆풍습 · 기풍 · 풍격.
 ☆유풍(遺風) · 유습(遺習).
 ☆고상하고 소탈하다.
 ☆문학작품이 세속을 벗어나고(속되지 않음) 아름다운(훌륭한) 것을 형용한 말.
 ☆걸출하고 비범하다. 뛰어나다. 특출하거나 그러한 인물을 가리키기도 한다. 영준(英俊)하다.
 ☆풍도(風度). 의표(儀表 : 의용(儀容) : 몸을 가지는 태, 차린 모습.)
 ☆풍조(風操). 품격.
 ☆군왕의 은총을 가리키는 말.
 ☆우아한 자태로 사람을 감동시키는 것을 이르는 말(주로 여자에게 쓰이는 말임).
 ☆단정하지 못하고 방정맞다(경박하다)
 ☆남녀 간의 애정사(愛情事).
- ② 만강월(滿江月 : 강물에 비친 달그림자에 가득하다) :

☆만(滿): 가득하다. 넘치다. 풍만(豐滿)하다. 풍성(豐盛)하다.

☆강월(江月):

a. 강물에 비친 달그림자(월영月影).

b. 강상(江上)에 뜬 달.

16) 일원화(一園花: 정원의 꽃송이 속에 가득하다):

① 일(一):

☆형용사 술어로, ‘가득하다. 전부이다.’의 뜻으로 쓰였다.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② 원화(園花):

☆뜰 안의 꽃들.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화원(花園).

17) 수장구(隨杖屨: 죽시 지팡이 짚고 〈신발 신고〉 천천히 걷다):

① 수(隨): 죽시. 곧.

② 장구(杖屨): 지팡이와 신.

☆장(杖): 지팡이.

☆구(屨): 가죽신. 일설(一說)에는 짚신 또는 미투리라고도 한다. 다만 본 시의 작가인 서예(西厓) 류성룡(柳成龍)은 ‘흑혜(黑鞋: 검은 색 신발)’라고 하는 가죽 신을 신었다. 이 신은 하회마을 충효당(忠孝堂)에서 소장하고 있으며 보물 제 460호로 지정되었다.

a. 지팡이 짚고 천천히 걷다.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b. 노인이나 존장(尊長)에 대한 경칭(敬稱).

18) 음아(吟哦):

① 율동적으로 시사(詩詞)를 읊다. 낭독하다.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② 시구(詩句)를 퇴고(推敲*: 시문詩文의 자구字句를 여러 번 생각하여 고침)하다.

*퇴고(推敲): 후촉(後蜀)의 문인 하광원(何光遠: 생몰년 미상)의 필기소설집(筆記小說集)인 『감계록(鑑戒錄)·가오지(賈忤旨: 가도오지賈島忤旨: 가도賈島의 임금의 뜻을 거역함)』편에, “(당나라 시인 가도賈島: 779~843 가) 어느 날 당나귀를 타고 가다가 홀연 전에 읊었던 (한 련聯의) 시 생각이 났는데(忽一日於驢上吟得): ‘새는 연못 가 나무에서 잠지는데, 승려가 달빛 아래서 산문山門을 두드리네(鳥宿池邊樹, 僧敲月下門).’라고 읊은 시구詩句에서, 처음에는 ‘〈문을〉 밀다’는 뜻의 ‘퇴(推)’자를 쓰고 싶어 했다가, 다음에는 ‘〈문을〉 두드리다’는 뜻의 ‘고(敲)’자를 쓰고 싶어 했다가, 애써 그 시구詩句를 가다듬어도 결정하지 못하고, 마침내 당나귀 잔등에서 손짓으로 ‘퇴推’자를 썼다가, ‘고敲’자를 썼다가 하는 동작을 거듭하였다(初欲著‘推’字, 或欲著‘敲’字, 煉之未定, 遂于驢上作‘推’字手勢, 又作‘敲’字手勢). 그러다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경성京城의 민간 거주지의 중심지에 들어섰다(不覺行半坊). 보는 사람들은 가도賈島의 그 동작을 의아하게 여겼지만, 가도는 못 본척했다(觀者訝之, 島似不見). 당시 한유(韓愈: 768~824: 당나라 시인)는 경성京城 지방의 장관직을 임시 대리하고 있었는데, 의기意氣가 청렴하고 엄숙했으며, 그 위세를 조정은 물론 경성의 골목까지 떨치고 있었다(時韓吏部愈權京尹, 意氣清嚴, 威振紫陌). (한유는 그 때 마침 마차를 타고 순시巡視를 하고 있던 중이었는데) 한유 의장대儀仗隊의 제3대열이 지나가

면서 (‘길을 비켜라 경윤京尹의 행차이시다’ 하고) 경윤京尹의 행차를 고향치면서 알렸지만, (가도는 그것도 모르고 의장대 제3대열 앞으로 직진하며 ‘퇴推’자를 쓰는 게 좋으나 ‘고敲’자를 쓰는 게 좋으나만 생각하면서) 허공에 두 글자를 쓰는 손동작을 멈추지 않았다(經第三對呵唱, 島但手勢未已). 가도는 순식간에 호위관들에 의해 당나귀에서 끌려 내려와서, 웅위된 채 경윤京尹의 면전에 서게 되자, 가도는 비로소 사태를 깨달았다(俄爲官者推下驢, 擁至尹前, 島方覺悟). 경윤은 가도를 돌아보고 물으면서 꾸짖으려고 했다(顧問欲責之). 그래서 가도는 자세히 대답하기를(島具對): ‘〈제가〉 우연히 한 련聯의 시가 생각났는데, 읊다가 그 중 한자를 어찌해야할지 아직 확정하지 못한 채, 시심詩心에 정신이 나가, 고관행차에 뛰어들어 부딪쳤으니, (행차를 피해서) 그러지 않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감히 죄를 지었사옵니다(偶得一聯, 吟安一字未定, 神遊時府, 致衝大官, 非敢取尤). 바라옵건대 높은 식별능력을 내려주십시오(希垂至鑒)’라고 했다. 한유는 거마車馬를 멈추고 한참 생각하다가, 가도에게 말하기를: ‘고敲’자를 쓰는 것이 좋겠소(韓立馬良久思之, 謂島曰: ‘作敲字佳矣’)”라고 한 대목이 있다. 이러한 까닭으로 후에 사람들은 이 ‘퇴고推敲’란 말을 가지고, 시사(詩詞)의 자구(字句)를 숙고하는 것을 가리키는 뜻으로 썼다. 또한 어떤 일에 대해서 반복하여 숙고하는 뜻으로도 썼다.



시132. 류종직柳宗直 훈도訓導에게 써서
보여주다

詩132. 書示柳訓導宗直¹⁾
서 시 유 훈 도 종 직

勝日逢東魯²⁾,
승 일 봉 동 노

벗들이 모이는 날 동쪽
강학소講學所에서 만나려고,

吟筇出北林³⁾.
음 공 출 북 림

시인의 대지팡이 짚고
북림北林으로 나갔네.

同穿荒逕澁⁴⁾,
동 천 황 경 삼

(벗과) 함께 지나가도 험한
오솔길 힘들었는데,

仍過暮江深。
영 과 모 강 심

저물녘에 강물이 깊었지만 다시 또
건너갔네.

腰老嫌圍帶⁵⁾,
요 로 혐 위 대

허리가 쇠약하여 허리띠 조이기 달갑잖고

頭童懶着簪⁶⁾.
두 동 라 착 잠

대머리라 머리카락을 채우기가 싫으네.

閒身⁷⁾幸無事,
한 신 행 무 사

관직 없는 몸인데다 다행히
별난 일도 없어,

雲水好追尋⁸⁾
운수호추심

자연풍광 찾아다니는 걸 좋아한다네.

1) 서시류훈도종직(書示柳訓導宗直 : 류종직 훈도에게 써서 보여주다) :

① 서시(書示) : 써서 보여주다.

☆시(示) : 보여주다.

② 류훈도종직(柳訓導宗直) : 훈도(訓導) 류종직(柳宗直). 성씨 다음에 직함을 쓰고 이름을 그 뒤에 쓰는 것은 경칭(敬稱)의 한 예이다.

☆훈도(訓導) : 조선시대 한양(漢陽)의 사학(四學 : 사부학당四部學堂의 준말: 학당學堂 : 오늘 날의 학교)과 지방의 향교(鄉校)에서 교육을 담당한 교관(敎官)이다. 본래 훈도관(訓導官)이라 칭하던 것을 1466년(세조 12)에 훈도라 개칭하였다. 사학의 훈도는 성균관의 관원들이 겸임하도록 하여 성균관 관원 중 종6품(從六品) 2명을 사학의 교수로 하고 7품 이하 5명을 훈도로 겸임 발령하였다. 경관직(京官職)은 정9품(正九品)이고 지방의 외관직(外官職)은 종9품(從九品)이다. 서애(西厓)와 지방에서 만나는 것으로 보아 류종직은 외관직으로 보이나 명확한 자료는 찾지 못했다.

☆류종직(柳宗直 : 1548~1619) : 류종직은 본관이 풍산(豐山)으로, 부친이 유빈(柳賓 : 자字 미숙美叔 호號 고산관옹孤山僊翁으로 관옹파翁翁派의 개문開門 시조임)이며, 유빈의 제2자(子)로, 종직의 자는 경백(敬伯), 호군(護軍)이며, 서애선생과는 삼종三從 곧 8촌간이다. 묘지는 봉화(奉化) 태자산(太子山)에 있다. 참고로 종직의 아우인 의병장 종개(宗介 : 1558~1592)의 경력을 약기(略記)하면 다음과 같다. 종직(宗直)의 아우이며, 자는 계유季裕이다. 1579년(선조 12)에 진사가 되고, 훈도로서 1585년 식년문과에 병과로 급제, 경직經籍 인쇄와 향축齎祝을 담당하던 관청인 교서관(校書館)의 정자(正字 : 정9품)가 된 뒤 전직(典籍 : 성균관의 정6품 벼슬)을 역임하고 향리로 돌아와 있던 중 임진왜란을 당하였다. 이 때 사족(士族)들이 적에게 대항하려 하지 않고 피난하자, 홀로 향병 수 백 명을 모아 고을을 보전하다 함경도 지역에서 태백산맥을 타고 퇴각하던 왜적을 맞아 싸우다가 소천(小川)에서 전사하였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향리의 사족들이 서로 들고 일어나 왜적과 싸워 영남일대의 왜적을 격퇴하였다. 참의(參議)에 추증되고, 봉화(奉化)의 경현사우(景賢祠宇)에 제향(祭享)되었다. 『국조문과방목(國朝文科榜目)』(규장각한국학연구원[奎 106])에 보임. 문수홍 기록참조.) 『풍산류씨세보(豐山柳氏世譜)』에는 류종직의 행적이 기록되어 있지 않았다.

2) 승일 봉동로(勝日逢東魯 : 벗들이 모이는 날 동쪽 강학소講學所에서 만나려고) :

① 승일(勝日) :

☆친구들이 함께 모이거나 풍광(風光)이 아름다운 날을 가리키는 말이다. 본 시에서는 ‘벗들이 모이는 날’의 뜻으로 쓰였다.

a. 승(勝) : 사물이 우월하고 이름답거나 왕성하다는 뜻이다.

☆음양오행설(陰陽五行說)에서 목극토(木克土 : 나무가 흙을 이긴다는 말로서, 나무

와 흙은 서로 어울리지 못한다는 말), 토극수(土克水: 토수가 수를 이긴다는 말로 서, 흙과 물은 잘 어울리지 않는다는 말), 화극금(火克金: 화씨가 금을 이긴다는 뜻으로, 불과 쇠는 잘 어울리지 않는다는 말), 금극목(金克木: 쇠가 나무를 이긴다는 뜻으로, 쇠와 나무는 잘 어울리지 않는다는 말)처럼 목·금·토·수화의 오행이 상극(相克)하는 날을 승일(勝日)이라고 한다.

a. 승(勝): 억제하다.

② 동로(東魯):

☆동쪽의 공자전당(孔子殿堂). 동쪽의 강학처소(講學處所). 본 시에서는 옥연정사(玉淵精舍)를 대칭(代稱)한 말로 쓰였다. 옥연정사는 하회마을의 북쪽에 위치하며 부용대의 동쪽에 위치한다.

☆원래는 춘추시대(春秋時代) 노(魯) 나라를 가리키는 말이었으나, 후에는 노(魯)나라의 땅을 가리키는 말로 썼다.

☆공자(孔子)를 가리킨다. 공자가 춘추시대 노나라 사람이기에 일컬어진 말이다.

a. 로(魯): 본 시에서는 노당(魯堂)의 약어(略語)로 쓰였다.

④ 노당(魯堂): ‘공자의 전당(殿堂)’이란 뜻이었으나, 후에 ‘유가(儒家)의 강학처소’를 칭하는 말로 쓰였다.

3) 음공 출범림(吟筇出北林: 시인의 대지팡이 짚고 북림北林으로 나갔네):

① 음공(吟筇): 시인의 지팡이. 읊조리는 지팡이. 시를 읊조리며 지팡이를 짚고 가는 사람.

☆음(吟): 시를 읊거나 읊는 사람. 곧 시인을 가리키는 말로 쓰였다.

☆공(筇): 대지팡이. 지팡이. ‘공(筇)’은 대나무 이름인데, 속이 차고 마디가 높아 지팡이를 만드는데 쓴다.

② 북림(北林): 하회마을을 중심으로 볼 때, 동쪽에는 화산(花山)이 위치하고, 서쪽에는 원지산(遠志山)이 위치하며, 남쪽에는 남산이 위치하고, 북쪽에는 부용대가 위치한다. 하회마을과 부용대 사이에는 하회마을 사람들이 북담(北潭)이라 칭하는 낙동강이 흐르고 있다. 여기서 ‘북림(北林)’이라고 하는 것은 하회마을과 북담 사이에 있는 수림(樹林)을 가리킨다. 하회마을에서 북림을 지나 북담을 건너면 곧 부용대가 있고, 그 부용대 동쪽에 옥연정사(玉淵精舍)가 있다. 자세한 것은 「시94」의 주석1)의 ‘북림(北林)’ 조항을 참조바람.

4) 동천 황경삽(同穿荒逕窳: 〈벗과〉 함께 지나가도 험한 오솔길 힘들었는데):

① 동천(同穿): 함께 지나가다.

☆천(穿): …을 뚫고 지나가다. 통과하다.

② 황경삽(荒逕窳): 험한 오솔길 (걸기) 힘들었다.

☆황경(荒逕): 황량한 오솔길. 거친 오솔길.

☆삽(窳): 길이 험하여 지나가기 힘들다.(막하다)

5) 요로 험위대(腰老嫌圍帶: 허리가 쇠약하여 허리띠 조이기 달갑잖고):

① 요로(腰老): 허리가 쇠약하다.

☆요(腰): 허리.

☆로(老): 노쇠하다.

② 험위대(嫌圍帶): 허리띠 두르기가 달갑잖다.

☆혐(嫌): 싫어하다. 꺼리다. 달갑잖다.

☆위대(圍帶) : 허리띠를 두르다(조이다. 졸라매다).

6) 두동 리착잡(頭童懶着簪) : 대머리라 머리꽃개를 채우기가 싫으네) :

① 두동(頭童) : 두발(頭髮)이 빠지다. (그래서 남은 머리털이 홀라내리다) 대머리란 연로함을 가리키는 말이다.

☆동(童) : (갓난 아이처럼) 머리털이 없다. (늙어서) 머리털이 빠지다.

② 나착잡(懶着簪) : 관(冠)의 머리꽃개를 꽂기가 싫다.

☆라(懶) : ...하기 싫어하다.

☆착잡(着簪) : 관(冠)의 머리꽃개를 꽂다(찌르다).

a. 착(着) : 착용하다. 본 시에서는 전(轉)하여 ‘꽂다’는 뜻으로 쓰였다.

b. 잡(簪) :簪子(簪子) : 머리 꽃개. 비녀. 본 시에서는 벼슬아치들이 관(冠)이 벗겨지지 않도록 채우던 ‘머리꽃개’를 칭하는 용어이다.

7) 한신(閒身) : 한신(閑身)으로도 쓴다. 관직이 없는 몸을 가리키는 말이다.

8) 운수 호추심(雲水好追尋) : 자연풍광 찾아다니는 걸 좋아 한다네) :

① 운수(雲水) : 행운(行雲)과 유수(流水)로, 일반적인 자연풍광을 대표하여 지칭한 것이다.

☆구름과 물(강·호수·바다를 통칭함).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자유롭게 노닐다. 기분 나는 대로 노닐다. 행운(行雲)과 유수(流水)가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것 같이 돌아다니며 노니는 까닭에 일컬어진 말이다.

☆승려와 도사를 가리키는 말이다. 승려와 도사가 사방을 돌아다니는 것이 행운 유수(行雲流水) 같기에 일컬어진 말이다.

② 호추심(好追尋) : 찾아다니기를 좋아하다.

☆추심(追尋) :

a. 추종하다. 뒤쫓아 따르다. 뒤따르다. 본 시에서는 ‘찾아다니다’로 쓰였다.

b. 추억하다. 회상하다.

c. 미행(추적)하면서 (뒤쫓아 가면서) 찾다.



시133. 오월 열 다섯날 밤에 비가 내렸는데,
이른 아침에 일어나 벽에 쓰다

詩133. 五月十五日夜雨 曉起書壁
오 월 십 오 일 야 우 효 기 서 벽

夜聞山雨下¹⁾,
야 문 산 우 하

간밤에 산에서 비오는 소리 들으며,

西窓人獨宿²⁾.
서 창 인 독 숙

서쪽으로 창을 낸 방에서
이 사람 홀로 묵었네.

朝起眄庭簷³⁾,
조 기 먼 정 황

아침에 일어나 뜰 앞 대숲 바라보자니,

數叢⁴⁾添新碧.
수 총 첨 신 벽

대숲 여러 무더기 한층 더 파래졌네.

1) 야문 산우하(夜聞山雨下 : 간밤에 산에 비오는 소리 들으며) :

- ① 야문(夜聞) : 간밤(지난 밤)에 듣다.
- ② 산우(山雨) : 산비. 산에 내리는 비.

2) 서창 인독숙(西窓人獨宿 : 서쪽으로 창을 낸 방에서 이 사람 홀로 묵었네) :

- ① 서창(西窓) : 서쪽으로 창이 난 방(房)을 창하는 것이다.
- ② 인독숙(人獨宿) : 이 사람 홀로 ~에 묵다.

☆인(人) : 모인(某人). 이와 같은 용어는 종종 말하는 사람 자신을 가리킨다. 본
시에서는 서에 자신을 창하는 것이다. ‘이 사람’으로 번역하였다.

☆독숙(獨宿) : 홀로 묵다.

3) 먼정황(眄庭簷) : 뜰 앞의 대숲을 바라보다.

- ① 먼(眄) : 바라보다.

② 정황(庭簞) : 뜰 앞의 대숲.

☆정(庭) : 뜰. 정원.

☆황(簞) : 대숲. 대나무 숲.

4) 수층(數叢) : 몇(여러) 무더기.

① 층(叢) : (사람. 사물)의 무더기. 떼.



시134. 섬돌 옆의 모란을 시제詩題로 쓰다

詩134. 題階上牡丹¹⁾
제 계 상 목 단

數尺牧丹叢,
수 척 목 단 총

몇 척이나 훌쩍 자란 모란 무더기,

托根連雲石²⁾。
탁 근 연 운 석

금직한 바위 곁에
그 줄기를 의탁하고 있네.

葉剪青羅帶³⁾,
엽 전 청 라 대

(푸른) 잎은 잘라 청색 허리띠를 만들고,

花張紅錦幄⁴⁾。
화 장 홍 금 악

꽃잎은 퍼서 휘장에
붉은 꽃무늬로 장식하네.

偏⁵⁾含雨露恩,
편 함 우 로 은

오로지 비와 이슬의 은택만을 머금더니,

更得清和節⁶⁾。
갱 득 청 화 절

다시 청명하고 화창한
절후節候까지 만났구나.

富貴良足誇⁷⁾,
부 귀 양 족 과

(너는) 부귀를 과시하기에 아주
족하나니,

花王擅奇絕⁸⁾。
화 왕 천 기 절

화왕花王인 너는 비할 데 없이 기묘한
모습 지녔구나.

寒梅獨何事⁹⁾,
한 메 독 하 사

설한雪寒속에 꽃 피우는 매화는
되레 무슨 사연 있어,

辛苦當風雪¹⁰⁾。
신 고 당 풍 설

고생을 감내堪耐하며 풍설風雪에 맞서는고?

1) 제계상목단(題階上牡丹 : 섬돌 옆의 모란을 읊다) :

① 제(題) : 짓다. 쓰다. 읊다.

② 계상(啓上) : 섬돌(집채의 앞뒤에 오르내릴 수 있게 놓은 돌층계) 옆.

☆계(階) : 계단. 섬돌.

☆상(上) : 명사 뒤에 써서 '일정한 장소나 범위'를 나타내는 말로 쓰였다. 본 시에서는 '옆'이라 번역하였다. '상(上)'에 대한 기타 자세한 뜻은 앞의 「시39」 주석1)의 '상(上)' 조항을 참조바람.

③ 목단(牡丹) : 목단(牡丹) : 모란(牡丹) :

☆목단(牡丹) : 작약과의 낙엽활엽 관목이다. 높이는 1m 정도이고 가지는 굵고 털이 없으며, 잎은 크고 두 번 깃 모양 겹잎이다. 늦봄에 붉고 큰 꽃이 피는데, 꽃빛은 보통 붉으나 개량 품종에 따라 흰색·붉은 보라색·검은 자주색·누런 색·복숭아빛을 띤 흰색 따위의 여러 가지가 있다. 뿌리껍질은 두통·요통에 쓰는 약이나 건위제(健胃劑)·지혈제(止血劑)·진통제(鎮痛劑) 등의 약재로 쓴다. 추위에는 강하나 더위에는 약하며 연평균 섭씨 15도 이상의 따뜻한 지방에서는 발육이 불량하다. 인가(人家)나 화원에서 관상용으로 재배한다. 중국이 원산지이며, 우리나라에는 신라 진평왕(眞平王 : 신라 제26대왕 : ?~632 : 성은 김 金 이름은 백정白淨) 때, 들어왔다고 알려져 있다.

☆모란(牡丹) : 모란이란 이름은 꽃색이 붉기 때문에, '란(丹)'이라 하였고, 종자를 생산하지만 굵은 뿌리 위에서 새싹이 돌아나므로 숫컷의 형상이라고 '모(牡)'자를 붙였다고 한다. 『서예전서(西厓全書)』에는 '목단(牡丹)'이라 기록하고 있으나, 이는 '모란(牡丹)'과 같다. 모란은 예로부터 부귀의 상징으로 여겨왔다. 설총(薛聰 : 생물년 미상)의 「화왕계(花王戒)」에서도 모란은 꽃들의 왕으로 등장하고 있다. 세종때의 문신 강희안(姜希顔 : 1419~1464)의 저서 『양화소록(養花小錄)』에서 꽃을 9품으로 나누고 모란을 2품으로 두었다. 이와 같은 상징성으로 인해 신부의 예복에 모란을 수놓았고, 선비들은 소망의 뜻을 담은 모란을 시사(詩詞)로 읊거나 자주 그렸으며, 가정의 병풍에도 모란의 그림은 빠지지 않았다. 미인을 평함에도 복스럽고 덕 있는 미인을 활짝 핀 모란꽃과 같다고 하였다. 중국의 경우를 보면, '모란(牡丹)'이란 명칭이 없었고, 통칭 작약(芍藥)이라고 했으며, 후세에 와서는 모란(牡丹)을 '목작약(木芍藥)'이라고 불렀다. 일반적으로 '모란(牡丹)'이란 칭호는 당(唐) 이후에 불리졌지만, 당 이전에도 기록에는 이미 보인다. 모란은 모든 꽃 중에서 제일이기에 '화왕(花王 : 꽃 중의 왕)'이라고 불렸으며, 작약(芍藥)이 그 다음이기에 '화상(花相 : 꽃 중의 제상)'이라 불렀다고 한다. 모란의 생긴 모양이 부귀함을 상징한다고 하여,

‘부귀화(富貴花)’라고도 부르고, 귀한 손님과 같다하여, ‘귀객(貴客)’이라고도 불렀으며, ‘나라 안에서 으뜸가는 미인 같고 향기롭다’ 하여, ‘국색천향(國色天香)’이라고도 불렀다. 모란에 관한 역대의 저술은 당나라 문인 위순(韋綯: 생물년 미상)의 『유빈객가화록(劉賓客嘉話錄)]과 송나라 학자 고승(高承: 생물년 미상)의 『사물기원(事物紀原)·초목화과(草木花果)·모란(牡丹)] 및 남송(南宋)의 시인 육유(陸游: 1125~1210)의 『천팽모란보(天彭牡丹譜)·화품서(花品序)], 그리고 명말(明末)의 박물학자이자 약학자인 이시진(李時珍: 1518~1593)의 『본초강목(本草綱目)·초삼(草三)·모란(牡丹)] 등이 있다.

2) 탁근 연운석(托根連雲石: 큼직한 바위 곁에 그 줄기를 의탁하고 있네):

① 탁근(托根): 기신(寄身: 탁산托身: 몸을 의탁함)과 같은 말이다.

☆탁(托): 탁(託: 의탁함)과 동자(同字)이다.

☆근(根): ‘사물의 본원·근거’이며, 본 시에서는 ‘줄기’를 가리키는 뜻으로 쓰였다.

② 연운석(連雲石): (모란의 몸체를) 구름 덮힌 바위에 붙이다.

☆연(連): ‘있다. 붙이다.’는 뜻인데, 옆을 가리키는 말로 쓰였다. 여기서는 ‘붙이다’는 뜻으로 쓰였다.

☆운석(雲石): 구름을 뚫고 치솟은 대석(大石). 구름에 덮힌 바위. 본 시에서는 ‘큼직한 바위’의 뜻으로 쓰였다.

3) 청라대(靑羅帶: 청색의 허리띠. 푸른 색 띠우며 길게 흘러가는 강하(江河)를 비유하는 말로도 쓴다.

4) 홍금악(紅錦幄):

① 붉은 색 비단으로 짠 휘장. 화려한 장막(帳幕)을 가리키는 뜻으로도 쓴다. 본 시에서는 ‘휘장에 붉은 색 꽃잎 무늬로 장식하다’는 뜻으로 쓰였다.

② 번화(繁花: 활짝 핀 꽃. 백화百花)를 비유한 말로도 쓴다.

5) 편(偏): 부사로서 ‘오로지. 단지’의 뜻으로 쓰였다.

6) 갱득 청화절(更得淸和節: 다시 청명하고 화창한 절후節候까지 만났구나):

① 갱득(更得):

☆갱(更): 게다가. 다시.

☆득(得): 만나다.

② 청화절(淸和節): 하늘이 맑고 날씨가 화창한 시기. 청명하고 따뜻한 절기(節氣).

☆청화(淸和):

a. 날씨가 청명하고 따뜻하다. 하늘이 맑고 날씨가 화창하다.

b. (기상氣象이나 사람의 성정性情이) 청정(淸靜)하고 평화롭다.

c. (소리가) 맑고 잘 어울린다. (가락이) 잘 어울린다. 조화롭다.

d. (시문詩文이) 청신(淸新)하고 조화롭다.

e. 음력 4월의 속칭.

☆절(節):

a. 절기(節氣). 절후(節候).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b. 시기.

c. 시령(時令).

7) 부귀 랑족과(富貴良足誇: <너는> 부귀를 과시하기에 아주 족하나니):

- ① 부귀(富貴) : 모란의 모양에 의거하여, ‘모란을 상징하는 말’이다.
- ② 양족과(良足誇) : 자랑하기에 아주 충분하다. 과시하기에 아주 족하다.
 ☆양족(良足) : 아주 충분하다. 아주 족하다.
 ☆과(誇) :
 a. 과시하다. 자랑하다. 과장하다.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b. 우쭐대다. 잘난 척하다.
- 8) 화왕 천기절(花王擅奇絶) : 화왕花王인 너는 비할 데 없이 기묘한 모습 지녔구나):
 ① 화왕(花王) : 모란(牡丹)의 별칭.
 ② 천기절(擅奇絶) : 비할 데 없이 기묘함을 지니다.
 ☆천(擅) :
 a. 점유하다. 점거하다. 본 시에서는 전(轉)하여 ‘지니다’의 뜻으로 쓰였다.
 b. 특히 뛰어나다. 독특하다.
 ☆기절(奇絶) : 비할 데 없이 기묘하다. 아주 기이하다. 매우 신기하고 기이하다.
- 9) 한매 독하사(寒梅獨何事) : 설한雪寒속에 꽃 피우는 매화는 되레 무슨 사연 있어):
 ① 한매(寒梅) : 매화(梅花). 추위를 이기고 꽃을 피우는 까닭에 일컬어진 말이다.
 매화는 추위가 덜 가신 초봄에 꽃이 피기 시작한다.
 ② 독(獨) : 부사로 쓰여, ‘도리어. 오히려’의 뜻으로 쓰였다.
- 10) 신고 당풍설(辛苦當風雪) : 고생을 감내堪耐하며 풍설에 맞서는고?):
 ① 신고(辛苦) : 고생하다. 수고하다. 고생을 감내하다.
 ② 당(當) : 감당하다. 대적(對敵)하다. 맞서다.



시135. 오봉^{五峯} 이호민^{李好閔}의 시를
차운^{次韻}하여 이별하는 독락당^{獨樂堂}
주인 경산현령^{慶山縣令} 이준^{李浚} 공^公에게
증정^{證正}하다

詩135. 次李五峯好閔¹⁾ 贈別獨樂堂主人李慶山浚²⁾ 韻
차 이 오 봉 호 민 증 별 독 락 당 주 인 이 경 산 준 윤

李君信厚士³⁾,
이 군 신 후 사

이공^{李公}은 성실하고 후덕한 선비라서,

憐我老多奇⁴⁾.
련 아 노 다 기

노년 운세 무척 나쁘다며
나를 가엾게 여기셨지.

春風一見過⁵⁾,
춘 풍 일 건 과

춘풍 불 때 한 번 다녀가신 적이 있는데.

秋日復來斯。
추 일 부 래 사

가을철에 다시 이곳을 찾아오셨네.

行藏久已定⁶⁾,
행 장 구 이 정

(나는) 출사^{出仕} 중에 일찌감치
이미 은퇴 결심했거늘,

世事安足悲⁷⁾.
세 사 안 족 비

세상사를 어찌 상심^{傷心}으로만
채울 수 있겠소?

且盡一杯歡⁸⁾,
차 진 일 배 환

잠시 한 잔의 술로 마음껏 즐기려고 하니,

莫遣雙淚垂⁹⁾。
막 건 쌍 루 수

눈물 흘리며 공소를 보내게 하지는
마시구려.

清風與明月，
청 풍 어 명 월

맑은 바람이며 맑은 달도

此時又相隨¹⁰⁾。
차 시 우 상 수

이 시각에 다시 우리와 함께 하는데요.

1) 이오봉 호민(李五峯好閔) : 오봉(五峯) 이호민(李好閔). 오봉은 이호민의 호(號)이다. 이렇게 성씨 다음에 호나 자(字) 또는 직함을 쓰고 이름을 그 뒤에 쓰는 것은 경칭(敬稱)의 한 예이다.

① 이호민(李好閔) : 1553~1634) : 조선 중기의 문신. 본관은 연안(延安). 자는 효언(孝彦), 호는 오봉(五峯)·남곽(南郭)·수와(睡窩). 연안군(延安君) 숙기(淑琦 : 1429~1489)의 증손이다. 1579년(선조 12)에 진사가 되고, 1584년에 별시문과에 을과로 급제하였다. 1585년 사관(史官)으로 발탁되고 계속해서 응교(應敎 : 홍문관弘文館 또는 예문관藝文館에 소속된 정4품 벼슬)·전한(典翰 : 홍문관 종3품 벼슬)을 역임하였으며, 집의(執義 : 사헌부司憲府 소속의 종3품 벼슬)·응교를 겸하였다. 1592년 이조좌랑으로 임진왜란을 만나 의주(義州)까지 왕을 호종(扈從)하였다가 요양(遼陽)으로 가서 명나라에 지원을 요청, 이여송(李如松 : ?~1598)이 이끄는 명나라의 군대를 끌어들이는 데 크게 공헌하였다. 상호군(上護軍)·행사직(行司直)을 거쳐, 1595년 부제학(副提學 : 홍문관 정3품 벼슬)으로 명나라와의 회교문서를 전담하여 초안하였다. 1596년 참찬관(參贊官)을 거쳐 1599년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 : 중추부中樞府의 종2품 벼슬)가 되어 사은사(謝恩使)로서 명나라에 다녀왔다. 1601년 예조판서로 인성왕후(仁聖王后)의 지문(誌文 : 죽은 사람의 이름과 생년월일 및 죽은 날짜, 무덤의 처소, 좌향 등을 적은 글)을 다시 썼고, 대제학(大提學)·좌찬성(左贊成)을 지냈다. 1604년 호성공신(扈聖功臣) 2등으로 연릉군(延陵君)에 봉해졌다. 그 뒤 대광보국숭록대부(大匡輔國崇祿大夫)가 되고, 부원군(府院君)에 진봉되었다. 1608년 선조가 죽자 영창대군(永昌大君)의 즉위를 반대하고 적서(嫡庶)의 구별 없이 장자를 옹립해야 된다는 입장론을 주장하였다. 광해군(光海君)이 즉위하자 고부청시승습사(告訃請謚承襲使)로 명나라에 가서 입장론을 내세웠다. 공을 세운 데 대하여 포상하려 하자 「고부시공로사차(告訃時功勞辭筭)」를 올려 이를 사양하였다. 1612년 김직재(金直哉 : ?~1612)의 옥사에 연루되었고, 1614년 정온(鄭蘊 : 1569~1641) 등이 영창대군 살해에 대한 항의를 하다가 귀양을 가게 되자, 「청환수정온보외차(請還收鄭蘊輔外筭)」를 올려 이들의 방면을 요구하기도 했다. 1615년(광해군 7) 정인홍(鄭仁弘 : 1535~1623) 등의 원찬론(遠竄論 : 멀리 귀양보내자는 논리. 원배론遠配論)에 봉착, 7년간 교외에서 대죄(待罪)하였다. 인조반정(仁祖反正) 후 구신(舊臣)으로 우대를 받았고, 죽은 뒤 청백리(清白吏)에 올랐다. 문장에 뛰어나 임진왜란 때 왕명

으로 각종 글을 많이 작성하였으며, 그가 지은 교서(敎書)의 내용이 간절하여 보는 이의 감동을 자아냈다고 한다. 그러나 문장보다는 시에 뛰어나다는 평을 들었다. 의주에 있을 때 적의 수중에 있는 서울을 삼도(三道)의 군사가 공격한다는 소식을 듣고 지은 시「용만행재문 하삼도병 진공한성(龍灣行在聞下三道兵進攻漢城)」은 절창으로 널리 애송되었다. 지례(知禮)의 도동향사(道東鄉祠)에 제향되었다. 저서로는 『오봉집(五峯集)』 16권이 있다. 시호(諡號)는 문희(文僖)이다.
****역자주석:** 이호민(李好閔)은 서애의 선친(先親)인 입암(立巖) 류중영(柳仲郢)의 외사촌이다.

〈서애 선생이 차운(次韻)한 오봉(五峯) 이호민(李好閔)의 원시(原詩)〉

예전에 자옥산을 지나갈 적에는,	昔過紫玉山,
(그곳의) 샘물과 암석의 기이함을 살펴보지 못했었지.	不見泉石奇.
샘물과 암석이야 못 봐도 상관없지만,	泉石不可見,
도학道學을 통하는 맥이 바로 이곳에 있었다네.	道脈*實在斯.
이 사람이 다시 남쪽으로 귀향했다하니,	斯人又南歸,
나로 하여금 슬픔을 더하게 하네그려.	使我增長悲.
봉황대엔 누런 국화 피어 있을 테고	鳳臺黃菊開,
개울가엔 붉은 단풍이 물들었으니.	河岸丹楓垂.
내 도학도 아직 늦지는 않았으니,	吾道*亦未晚,
이 한 몸 지금부터라도 그를 따름이 온당하리라.	匹馬*今當隨.

(출처: 『동경잡기(東京雜記)』 권1 고려시대의 경주읍지慶州邑誌)

*도맥(道脈): 도통(道統): 유학의 계통.

*오도(吾道): 나의 학설이나 주장. 본 예시(例詩)에서의 ‘도(道)’는 유학(儒學: 성리학)의 학설을 가리키는 말로 쓰였다.

*필마(匹馬): 한 필의 말. 단신(單身: 자기 한 몸)을 가리키는 말로 자주 쓰였다.

2) 독락당주인 이경산 준(獨樂堂主人李慶山浚):

- ① 독락당(獨樂堂): 경상북도 월성군(月城郡) 안강면(安康面) 옥산리(玉山里)에 있는 조선시대 중기의 양반집 사랑채. 보물 제413호. 이 사랑채는 이언적(李彦迪: 1491~1553)을 봉사(奉祀)하고 있는 옥산서원(玉山書院)의 안쪽 계곡에 자리잡고 있는 이언적의 고택 사랑채이다. 정면 4칸, 측면 2칸의 단층팔작(單層八作) 집으로 서쪽에 정면 1칸, 측면 2칸의 온돌방을 두고 그 동쪽의 정면 3칸, 측면 2칸에는 전부 우물마루를 깔아 사랑대청으로 하였다. 대청의 마루 가운데는 온돌방의 중앙기둥처럼 방주(方柱)가 서 있고 주원(柱礎)이 있는 것으로 미루어 원래는 이곳도 서쪽의 온돌방처럼 벽체를 만들고 방으로 꾸민던 것으로 추측된다. 막돌허튼층쌓기의 기단 위에 막돌초석을 놓고 두리기둥을 세웠으며, 기둥 위에는 주두(柱頭)를 얹고 쇠서[牛舌] 하나를 내어 초익공(初翼工) 구조를 이루고 있다. 간살은 오량(五樑)으로 앞뒤의 평주(平柱) 위에 대들보(大樑)를 걸고 그 위에 양봉형(樑奉形)의 대공(臺工)에 소로[小果: 小路: 小槽: 小露]를 짜 넣어 종보[宗樑]를 받치고 있다. 종보위에는 다시 양봉형의 동자기둥[童子柱]을 세워 종도리(宗道里: 용마루 밑에 서까래가 걸리게 된 도리)를 받치는데, 측면

벽체 위에서는 단순한 동자기둥으로 대공을 만들어 종도리를 받치면 직선재로 된 소슬합장을 두었음이 아산맹씨행단(牙山孟氏杏壇 : 사적 제109호)에서의 모습과 흡사하다. 온돌방에는 띠살창호를 달았으나, 대청에는 정면 3칸을 창호없이 모두 개방하였고, 뒷면과 측면에는 띠살 창호를 달았다. 처마는 홑처마이고 지붕은 팔작지붕이다.(주남철朱南哲)

② 이경산 준(李慶山 浚) : 경산현령(慶山縣令) 이준(李浚).

☆이준(李浚 : 1540~1623) : 조선 중기의 무신. 본관은 여주(驪州). 자는 청원(淸源), 호는 구암(求庵). 증조부는 이빈(李蕃)이고, 조부는 영의정으로 추증된 회재(晦齋) 이언적(李彦迪)이며, 부친은 예빈시정(禮賓寺正)으로 추증된 잠계(潛溪) 이진인(李全仁)이다. 여러 명현(明賢)의 문하에서 수학하고 효성이 지극했다. 조부인 회재의 문집 서문을 받아 출간하고 옥산서원을 건립했다. 향의를 겸하여 많은 토지를 헌납하고 영구히 봉수(奉守)의 도(道)를 닦았다. 1593년(선조 26) 임진왜란 때 영변에 미곡(米穀)을 헌납하여 군사들의 식량을 도왔다. 또 화왕산(火旺山) 회맹(會盟)에 동참하여 수어(守禦)에 대비하였고, 권유로 무과에 합격했다. 관직은 경산현령(慶山縣令)을 거쳐 군기시첨정(軍器寺僉正)·만경현령(萬頃縣令)·청도군수(淸道郡守)가 되었고 품계는 통정대부(通政大夫)에 이르렀다. 재임 때는 가는 곳마다 청렴·근신(謹愼)하고 백성을 애휼(愛恤)하는 등 선정(善政)을 베풀었다. 저서로 『구암유고(求庵遺稿)』 1책 2권이 있다. 또한 정극후(鄭克後)가 찬(撰)한, 그의 「묘갈명(墓碣銘)」에 의하면, 공은 임란을 당해서 의병을 일으켜 공적이 많았으므로 경산현령이 되었다가 군기시첨정(軍器寺僉正)으로 옮겨졌고, 또 만경현령(萬頃縣令)으로서 통정(通政)에 승직(陞秩)되어 청도군수(淸道郡守)가 되었다. 가는 곳마다 청렴·근신하고 백성을 애휼하므로 저명했으나 위(位)가 덕(德)에 맞지 못하였음이 애석하다. 공은 효성이 지극했으며 접빈객(接賓客)에 성의를 다해 환대했고 홀궁(恤窮)에 많은 은혜를 베풀었다고 하였다.

(이상은 www.shinjongwoo.co.kr/name/ah/azh/duwn/du-200.htm 를 참조함)

3) 이군 신후사(李君信厚士 : 이 공公 성실하고 후덕한 선비라서) :

① 이군(李君) : 경산현령(慶山縣令) 이준(李浚) 선생을 칭함.

☆군(君) : 어진이. 현자 혹은 타인에 대한 존칭으로 쓰였다.

② 신후사(信厚士) : 성실하고 후덕한 선비.

☆신후(信厚) : 성실하고 돈후(敦厚)하다.

4) 연아 노다기(憐我老多奇 : 노년 운세 무척 나쁘다며 나를 가엾게 여기셨지) :

**역주주석 : 본 시구(詩句)의 ‘기(奇)’를 ‘출중하다’는 뜻으로 보아, ‘노년에도 출중하다며 나를 좋아하셨네’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다.

① 연(憐) :

☆가엾게 여기다.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사랑하다.

☆좋아하다. 어여빠 여기다.

② 노다기(老多奇) : 노년에 운세가 무척 나쁘다.

☆로(老) : 노년(老年).

☆다기(多奇) :

- a. 노년에 운세가 너무 기박하다. 노년에 명운(命運)이 무척 나쁘다.
b. 노년에도 무척 출중(出衆)하다.
- ④ 대(多):
○ 정도부사로 쓰여, ‘너무. 지나치게’ 등의 뜻으로 쓰였다.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 많다.
- ⑤ 기(奇):
○ (운세運勢)가 기박하다. (운수運數)가 사납다.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 출중하다. 특출하다. 신기하다.
- 5) 춘풍 일견과(春風一見過: 춘풍 불 때 한 번 다녀가신 적이 있는데):
① 춘풍(春風): 명사 술어로, ‘봄바람 불 때’라는 의미로 쓰였다.
② 일견과(一見過): 한 번 만난 적이 있다.
☆일견(一見): 한 번 만나다.
☆과(過): 위의 ‘견(見)’의 결과보어로 쓰여, ‘만난 적이 있다.’
- 6) 행장 구이정(行藏久已定: <나는> 출사出仕 중에 일찌감치 이미 은퇴 결심했거늘):
① 행장(行藏):
☆출사(出仕: 벼슬자리에 나아감)와 은퇴(隱退: 물러나 집에 있음), 혹은 행동거지 즉 언행(言行)과 정지(停止)를 가리킨다. 환언하면, 실행과 은둔(隱遁), 혹은 나서서 일을 행함과 세상을 피해 숨는 일을 가리킨다고 표현할 수 있다. 본 시에서는 ‘출사(出仕)와 은퇴(隱退)’의 뜻으로 쓰였다. 『논어(論語)·술이편(述而篇)』에, “선발選拔해서 임용하면 곧 실행하고, 포기하고 버려두면 곧 은둔한다(用之則行, 舍之則藏).”는 구절이 보인다.
☆행장(行藏)은 전(轉)하여, 공수(攻守) 또는 출몰(出沒)의 뜻으로도 쓴다.
☆행적(行迹). 내력. (사람이나 사건 등의) 속사정(내막. 경위. 전상)을 이르는 말로도 쓴다.
- ② 구이정(久已定): 일찌감치 이미 (은퇴를) 결정했다
☆구이(久已): 아주 오래전에 벌써. 일찌감치 벌써.
- 7) 세사 안족비(世事安足悲: 세상사를 어찌 어찌 상심傷心으로만 채울 수 있겠소):
① 세사(世事): 세상사. 시사(時事). 기타 자세한 뜻은 앞의 「시92」 주석8)의 ‘세사(世事)’ 조항을 참조바람.
② 안족(安足): 어찌 ...로 채울 수 있겠는가?
☆안(安): 반문(反問)을 나타내는 의문부사로 쓰여, ‘어떻게(어찌) ...하겠는가?’의 뜻으로 쓰였다.
☆족(足): 충만하다.
- ③ 비(悲):
☆상심(傷心)하다.
☆비장(悲壯)하다. 슬프다. 슬피하다.
- 8) 차진 일배환(且盡一杯歡: 잠시 한 잔의 술로 마음껏 즐기려고 하니):
① 차(且): 부사로, ‘잠시. 잠깐. 당분간. 일단.’ 등의 의미로 쓰였다.
② 진일배환(盡一杯歡): 한 잔의 술로 기쁨을 마음껏 누린다.

☆진(盡): 다 하다. 극치에 달하다. 최고에 달하다.

9) 막견 쌍루수(莫遣雙淚垂: 눈물 흘리며 공공을 보내게 하지는 마시구려):

① 막견(莫遣): ...로 하여금 ...하게 하지 말라. 나로 하여금 그대를 눈물을 흘리면서 보내게 하지는 말아라.

☆막(莫): 타일터 깨우침을 표시하는 부정 부사로, ‘불요(不要): 불가(不可): 불가능(不能)’의 뜻을 나타낸다.

☆견(遣): 보내다. 사동(使動)의 의미를 지닌다.

10) 차시 우상수(此時又相隨: 이 시각에 다시 우리와 함께 하는데요):

① 상수(相隨): 서로 따르다. 본 시에서는 청풍(淸風)과 명월(明月)이 함께 하고 있음을 표현한 것이다.



시136. 산승^{山僧}에게 증정^{증정하다}하다

詩136. 贈山人¹⁾
증 산 인

何年結社坐遠峯²⁾,
하 년 결 사 좌 원 봉

언제 단체 결성하여
먼 산정^{山頂}에 머물게 됐는지,

夜夜焚香達曉鐘³⁾.
야 야 분 향 달 효 종

밤마다 분향을 하다보면
새벽종소리 들려오네.

欲問閒中眞意味⁴⁾,
욕 문 한 중 진 의 미

한거^{閒居}중에 체득하는
참된 경지 묻고자하는데,

石壇春雨杏花紅⁵⁾.
석 단 춘 우 행 화 홍

석단^{石壇}에 봄비 내리고 살구꽃 피어
붉으네.

1) 산인(山人): 산승(山僧). 자세한 것은 앞의 「시52」 주석1)의 ① 산인(山人) 항목을 참조바람.

2) 하년결사 좌원봉(何年結社坐遠峯: 언제 단체 결성하여 먼 산봉/산정山頂에 머물게 됐는지):

① 하년(何年): 어느 해. 본 시에서는 ‘언제’의 뜻으로 쓰였다.

② 결사(結社): 단체를 조직하다.(결성하다)

☆불교 내부의 잘못을 혁신하려는 운동은 시대마다 있었으나 특히 고려 때 태동한 운동을 이르는 말이다. 불교를 국교로 삼은 고려시대에는 왕실과 결탁하여 세속의 명예를 얻는 승려가 많이 나타났다. 자기 수행을 통해 중생을 구제한다는 부처의 가르침을 잊고 선종(禪宗)과 교종(敎宗)의 명분을 지키는 데에만 급

급하였으며, 세속적인 이익만 구하려는 이들이 많아져 몇몇 뜻있는 승려들이 모여 혁신운동을 시작한 것이 유래이다.

그 중에서도 보조국사 지눌의 정혜결사(定慧結社)와 요세(了世)의 천태종 백련결사(白蓮結社)가 유명하다. 지눌(知訥: 1158~1210)은 수선사(修禪社: 지금의 송광사)에서 『정혜결사문(定慧結社文)』을 쓰고 세속화된 호국·기복·미신 불교를 타파하고, 타락한 형식불교를 척결하며 정법불교(正法佛教)와 수행 불교(修行佛教)를 주창하였다. 이 혁신운동은 무신들에 의해 정치가 혼란해지고 부패한 승려들에 의해 교단이 타락해갈 때 일어난 운동이었다. 지눌은 개경 보제사에서 담선법회(談禪法會)를 열고 동지들을 규합하여 결사를 맹약하였으나 실천하지 못하고 남방으로 내려갔다.(두산백과 참조)

☆많은 사람이 공동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상설단체를 결성함. 특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이 모여 조직을 결성하고 신명을 다하여 활동을 다짐하는 일. 종교의 경우 형식화된 제도를 개선하여 새로운 교단으로 거듭나고자 할 때, 또는 깨달음을 얻도록까지 정진할 것을 맹세할 때 결사 의식을 행함.(원불교대사전)

③ 좌원봉(坐遠峯): 먼 산봉에서 머물다.

☆좌(坐): 거류(居留: 머물러 쉼)하다.

☆원봉(遠峯): 먼 곳에 있는 산봉. 멀리 보이는 산봉.

3) 야야분향 달효종(夜夜焚香達曉鐘: 밤마다 분향을 하다보면 새벽종소리 들려오네):

① 야야(夜夜): 밤마다. 인(人)·가(家)·천(天)·월(月)·년(年) 등의 명사를 중첩하여 ‘...마다’의 뜻을 갖는다. 인인(人人: 사람마다)·가가(家家: 집집마다)·천천(天天: 날마다)·월월(月月: 달마다)·년년(年年: 해마다) 등이 그 예이다.

② 분향(焚香): 향을 피우다. 심신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나, 제불(祭佛) 의식 따위에서, 향로에 불을 붙인 향을 넣고 향기로운 연기를 피우는 일을 이른다.

③ 달(達): 전달하다. 송달(送達)하다. 본 시에서는 전(轉)하여 ‘울리다’는 뜻으로 쓰였다.

④ 효종(曉鐘): 새벽을 알리는 종소리.

4) 욕문 한중진의미(欲問閑中眞意味: 한거間居 중에 체득하는 참된 경지 묻고자하는 데):

① 한중 진의미(閑中眞意味): 명리(名利)를 멀리하고 무욕(無慾)의 담박한 마음상태로 조용하게 지낼 때만이 만물의 실상(實相)을 파악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한중(閑中): 한거중(間居中)을 가리키는 말로, 이는 명리(名利)를 멀리하고 무욕(無慾)의 담박한 마음상태를 유지하면서 조용하게 사는 것을 말한다.

☆진의미(眞意味): 실상(實相)에 대한 구체적인 체득(體得)으로 인해 획득하게 된 경지(境地), 혹은 경계(境界)를 말한다.

5) 석단춘우 행화홍(石壇春雨杏花紅: 석단石壇에 봄비 내리고 살구꽃 피어 붉으네):

① 석단(石壇): 돌로 만든 단(壇: 위를 평평하게 만든 터. 장소). 혹은 돌로 축을 쌓고 안으로는 흙을 채워 만든 단(壇).

☆단(壇):

a. 승가(僧家)나 도가(道家)에서 종교활동을 하거나 행사를 거행하기 위해 둘

로 쌓거나, 돌로 축을 쌓고 안쪽에는 흙을 채워 단(壇)을 만들기도 한다.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b. 고대(高臺). 고대에 천지(天地)나 제왕 또는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기 위해
높이 건축한 대(臺 : 사방을 바라볼 수 있게 만든 곳)를 이른다.

c. 강단(講壇).

② 행화(杏花) : 살구꽃.

시137. 어떤 사람의 시운詩韻을 차운하여

詩137. 次人韻
차 인 윤



今人難見古人風¹⁾,
금 인 난 견 고 인 풍

요즘 사람에겐 옛 사람의 풍도風度
보기 어렵나니,

軒鶴雞羣自不同²⁾.
현 학 계 군 자 부 동

대부大夫 수레 탄 학은 닭 무리와
본래 (품행이) 달라서일세.

愧我畫蛇終作累³⁾,
괴 아 화 사 종 작 누

나는 뱀 그린다고 나섰다가
실수한 게 부끄러운데,

憐君失馬坐成翁⁴⁾.
연 군 실 마 좌 성 웅

그대는 준마 잃었다고
죄인 됐으니 가련하네.

窮村歲暮無來客⁵⁾,
궁 촌 세 모 무 래 객

궁촌이라 세밑인데도
찾아오는 손님 없는데,

落日天長有怨鴻⁶⁾.
낙 일 천 장 유 원 홍

해질녘 먼 하늘에 울며 날아오는
기러기는 있네.

耕讀晚來差可樂⁷⁾,
경 독 만 래 차 가 락

밭 갈고 독서하다 보면 날 저물고
그런대로 즐길만하나니,

卜居須問瀼西東⁸⁾。
북 거 수 문 남 서 동

택지 선정에 꼭 살필 것은
사방에 제곡물의 유무有無일세.

1) 금인난견 고인풍(今人難見古人風 : 요즘 사람에겐 옛 사람의 풍도風度 보기 어렵나니) :

① 난견(難見) : 알기 어렵다. 보기 어렵다.

☆견(見) :

a. 발견하다. 찾다. 보다.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b. 알다. 깨닫다.

② 고인풍(古人風) : 옛사람의 풍도(風度).

☆풍(風) : 풍도(風度 : 기개氣概 · 언행과 태도). 풍조(風操 : 높은 지조).

2) 한학계군 자부동(軒鶴雞羣自不同 : 대부 수레 탄 학은 닭 무리와 본래 <품행이> 달라서일세) :

① 한학(軒鶴) : ‘대부가 타는 수레를 한학(軒鶴)’이라고 한다. 이 말의 출전은 『좌전(左傳) · 민공 2년(閔公二年)』 조항의 ‘위衛나라 군주 의공懿公이 학을 좋아함에, 학 중에는 대부가 타는 수레를 타는 것도 있었다(衛懿公好鶴, 鶴有乘軒者).’고 한 대목에 보인다.

☆헌(軒) : 유막(帷幕 : 휘장과 막)을 설치한 수레를 말하는데, ‘유(帷)’는 ‘사방을 둘러 친 것’이고, ‘막(幕)’은 ‘위를 가린 것’이다. 이 수레는 대부 이상의 직급에 서만 탈 수 있었다.

☆한학(軒鶴)’이란 말은 두 가지의 뜻을 비유하는 말로 쓰였다. 첫째, ‘총애하는 사람’을 비유한 말이다. 당나라 시인 백거이(白居易 : 772~846)의 시, 「속세 떠나 외딴 곳에 살면서 초가을에 한적한 심정으로 읊다(幽居早秋閑吟)」에, “대부의 수레를 탄 학을 남겨둔들 무슨 소용 있는가(총애하는 사람을 측근에 둔들 무슨 소용 있는가)(軒鶴留何用)? 연못에 <학의 먹이 감인> 물고기는 방류放流하여 돌아오지 않는데(대의 비밀은 폭로하면 거두어들일 수 없는데. 본 인용시의 ‘천어泉魚’는 ‘은밀한 일’을 비유한 말이고, ‘천어泉魚’는 원래 ‘연어淵魚’였으나, 당고조唐高祖의 휘자諱字가 이연李淵이었기에 기회忌諱하여 ‘천어泉魚’라 쓴 것임)(泉魚放不還). 어떤 사람이 이 말의 맛[의미]을 알 것인가(誰人知此味)? 노년에 접어들지 10년이나 되었네(臨老十年間).”라고 읊은 시구가 있다. 둘째, ‘평범하지 않는 작품을 써서 우뚝 솟은 사람’을 비유한 말로 쓴다. 당나라 시인 한유(韓愈 : 768~824)의 시, 「취해서 <지는 시를> 장비서에 게 드리다(醉贈張秘書)」에, “장적(張籍 : 약 767~약 830 : 당나라 시인)은 고풍古風 지닌 소박한 시풍詩風 배워서, 대부의 수레 타는 학이<고결한 시풍 지닌 사람이> 닭의 무리 <내용 없이 화려한 문체만 추구하는 보통시인>를 피하는 것 같으네(張籍學古淡, 軒鶴避雞群).”라고 읊은 구절이 있다. 이 시에 대해서 현대 중국의 시인이자 학자인 전중련(錢仲聯 : 1908~2003)은 집석(集釋 : 여러 학자들이 회집匯集하여 어느 한 고적古籍을 해설하면서 자신의 견해를 표명하는 것)하

면서, 송나라의 유학자 주희(朱熹: 1130~1200)의 저서 『원본한문고이』(原本韓文考異) 중의 말을 인용하여 말하기를, “이 말은 장적張籍이 고풍古風 지닌 소박한 시풍詩風을 배운데다 화려한 문체만 추구하는 풍조를 좇지 않아서, 대부의 수레 타는 학이 닭의 무리를 좇지 않는 것과 같다(此言張籍學古淡而不驚於綺靡, 如以乘軒之鶴而反避雞群也).”고 하였다.

- ② 계군(鷄羣): 계군(鷄群)이라고도 쓴다. ‘닭의 무리’란 뜻인데, 평범한 무리(보통사람)를 비유한 말이다.
- ③ 자부동(自不同): 자연히 절로 구별되다(다르다).
- 3) 괴아화사 종작누(愧我畫蛇終作累: 나는 뱀 그린다고 나섰다가 실수한 게 부끄러운데):

① 화사(畫蛇):

☆‘뱀의 형상을 그린다’는 뜻으로, ‘화사첨족(畫蛇添足: 뱀을 다 그리고 나서 있지도 아닌 발까지 덧붙여 그려넣음)’과 같은 말이다. 『전국책(戰國策)·제책2(齊策二)』에, “초나라에 조상제사를 지낸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사인(舍人: 전국시대와 한초漢初의 왕공귀족의 가신家臣)들에게 한 치(扚: 고대의 술을 담는 그릇. ‘잔’으로 번역되며 상하지름이 같은 큰 컵 모양임)의 술을 보내주었다(楚有祠者, 賜其舍人扚酒). 사인[문객]들은 서로 상의여 말하기를(舍人相謂曰): ‘몇 사람이 마시기에는 술이 부족하고, 한 사람이 마시기에는 넉넉할 것 같다(數人飲之不足, 一人飲之有餘). 그러니 땅바닥에 뱀을 그려서, 먼저 다 그리는 사람이 이 술을 마시도록 하자(請畫地爲蛇, 先成者飲酒).’고 하였다. (이때) 어떤 사람이 뱀을 먼저 다 그리고 나서, 술잔을 끌어 당겨 마시려고 하면서, 그는 왼손으로는 술잔을 들고, 오른 손으로는 뱀을 그리면서, 말하기를: ‘나는 뱀의 발까지 그릴 수 있어’라고 하며, (뱀의 발을 그리는데) 그 그림이 채 완성되기도 전에, 또 어떤 사람이 뱀의 그림을 완성하고 나서, 그의 술잔을 빼앗으면서 말하기를, ‘뱀은 본래 발이 없는데, 그대는 어떻게 뱀의 발을 그릴 수 있느냐는 말인가!’라고 하면서, 즉시 그 술을 마셔버렸다(一人蛇先成, 引酒且飲之, 乃左手持扚, 右手畫蛇, 曰: ‘吾能爲之足’, 未成, 一人之蛇成, 奪其扚曰: ‘蛇固無足, 子安能爲之足!’, 遂飲其酒). 뱀의 발을 그렸던 사람은, 결국 그의 술을 잃어버렸다(爲蛇足者, 終亡其酒).”고 한 대목이 있다. 이 말은 쓸데없는 군것질을 하여 도리어 잘못되게 함을 비유한 말이다. 이 내용은 『사기(史記)·초세가(楚世家)』에도 기록되어 있다.

☆담장에 조각한 활의 모양이 술잔에 비쳐 뱀 같은 그림자로 보인 것을 말한다. 그 형상이 뱀과 흡사한 까닭에 일컬어진 말이다. 이 말은 무신(武臣)이 와병(臥病)하거나 관직을 그만 두고 한거(閒居)하는 전고(典故)로 쓰는 말이다. 이 말의 고사(故事)는 ‘배궁사영(杯弓蛇影)’에서 유래한다. 후한(後漢)의 문인 응소(應劭: 생물년 미상)의 저서 『풍속통의(風俗通義)·괴신(怪神)·세간(世間)』에 괴인 것을 보고 놀라서 슬픔에 젖는 자가 많음(世間多有見怪驚怖以自傷者)의 기록에 의하면, ‘두선(杜宣)이란 사람이 하룻날에 술을 마시러 갔는데, 술잔 속에 뱀같은 그림자가 보였지만, 마시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그 술을 마신 후에 가슴과 배에 심한 통증이 와서, 여러 의원을 찾았지만 치유하지 못했다. 나중에야 사람들로부터 전해 듣고 알게 된 사실이지만 술잔 속에 비친

뱀의 그림자는 벽에 걸린 적노(赤弩 : 붉은 색의 쇠뇌 : 쇠뇌는 여러 개의 화살을 연달아 쏠 수 있는 활임)의 그림자였다는 것이다. 쇠뇌의 그림자가 술잔 속에 비쳤던 것임을 알고 나자, 병은 절로 곧 치유되었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후에 사람들은 '술잔 속에 비친 뱀의 그림자는 벽에 걸린 활의 그림자였다'는 뜻의 '배궁사영(杯弓蛇影)'이란 말을 '아무것도 아닌 일을 함부로 이것저것 의심하여 스스로 괴로워하고 불안해하는 것을 비유하는 말'로 썼다. 이 '배궁사영(杯弓蛇影)'이란 말과 같은 뜻으로 '배중사영(杯中蛇影)'이란 말이 있다. 청나라의 학자 원매(袁枚 : 1716~1797)는 그의 저서 『수원수필(隨園隨筆)·고서(古書) 기재의 상이相異 함(古書所載不同)』에서 말하기를, “‘배중사영(杯中蛇影)’이란 말을(杯中蛇影), 『세설신어(世說新語 : 육조시대六朝時代 유의경劉義慶 : 403~444 : 이 편찬한 일화집)』에서는 악광(樂廣 : ?~304 : 서진西晉의 명사名士)의 경험이라고 생각했고(『世說』以爲樂廣事), 『풍속통의(風俗通義)』에서는 주부(主簿) 두선(杜宣 : 생몰년 미상)의 경험이라고 생각했다(『風俗通義』以爲主簿杜宣事).”고 하였다.

② 종작누(終作累) : 마침내 실수하다.

☆종(終) : 부사로, '결국. 마침내'의 뜻으로 쓰였다.

☆작누(作累) : 실수하다.

a. 루(累) : 과실(過失), 실수, 잘못.

4) 연군실마 좌성옹(隣君失馬坐成翁 : 그대는 준마 잃었다고 좌인 됐으니 가련하네) :

① 실마(失馬) :

☆말을 잃어버리다.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새옹실마(塞翁失馬 : 새옹지마塞翁之馬)의 약어(略語).

a. 새옹실마(塞翁失馬) : 새옹지마(塞翁之馬) : 나쁜 일도 일정한 조건하에서는 좋은 일로 변할 수 있다거나, 인생의吉凶禍福은 변화가 많아서 예측하기 어렵다는 것을 비유한 말이다. 『회남자(淮南子)·인간훈(人間訓)』에, “무릇 화禍와 복福은 상호전환되거나, 상생相生하여, 그 변화를 분명하게 알 수 없다(夫禍福之轉而相生, 其變難見也). 북방변경 근처의 어떤 사람 중에, 술수術數(수술數術 : 자연현상을 관찰하여 인간의 운명을 추측하는 점술)에 능한 노인이 있었는데, 그 집의 말이 아무 까닭 없이 오랑캐 땅으로 달아났다(近塞上之人, 有善術者, 馬無故亡而入胡). 이웃 사람들 모두가 그 노인을 위로하였다(人皆吊之). (그러자) 노인은 말하기를(其父曰) : ‘이 일이 어찌(오히려) 복이 되지 않겠는가(此何遽不爲福乎)?’라고 하였다. (과연) 몇 달이 지나자, (달아났던) 그 말이 오랑캐의 준마駿馬를 데리고 돌아왔다(居數月, 其馬將胡駿馬而歸). 이웃 사람들이 모두 와서 축하하자, 그 노인이 말하기를(人皆賀之, 其父曰) : ‘이 일이 어찌 화禍가 되지 않을 수 있겠는가(此何遽不能爲禍乎)?’라고 하였다. 집안이 부유해진데다 좋은 말이 생겼으매, 그의 아들이 말 타기를 좋아하다가, 말에서 떨어져 넓적다리를 부러뜨리니, 이웃사람들이 또 와서 그를 위로하자, 그 노인은 또 말하기를 : ‘이 일이 어찌 (오히려) 복이 되지 않겠는가(家富良馬, 其子好騎, 墜而折其脛, 人皆吊之, 其父曰 : 此何遽不爲福乎)?’라고 하였다. 일년이 지나서, 북방 오랑캐가 변방을 대거 침입하니, 장정남자들은 모두 무기를 들

고 전쟁에 임하였다(居一年, 胡人大入塞, 丁壯者引弦而戰). 그래서 변경 근처의 사람으로서, 전사한 자가 열에 아홉이나 되었지만, 그 노인의 아들만은 질투받이었던 까닭에, 그들 부자는 모두 목숨을 보존할 수 있었다(近塞之人, 死者十九, 此獨以跛之故, 父子相保). 화가 복이 되면서, 그 (과정의) 변화가 끝이 없어, 심원하기가 측량할 수 없다(故福之爲禍, 禍之爲福, 化不可極, 深不可測).”고 한 대목이 있다.

- ② 좌성옹(坐成翁) : 소송사건에서 죄가 확정된 사람(늙은이). 본 시에서는 ‘죄인이 되다’는 뜻으로 쓰였다.

☆좌성(坐成) : 소송사건에서 유죄(有罪)가 성립되다. 즉 범죄가 확정되다.

a. 좌(坐) :

① 범죄(를 저지르다).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② 문죄(問罪)(당하다).

③ 처벌(받다).

④ 판죄(判罪 : 죄인을 판결함)하다.

b. 성(成) : 확정하다. 완성하다.

- c. 옹(翁) : (남자) 노인. 늙은이. 남자에 대한 존칭.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춘추시대 노(魯)나라 사관(史官) 좌구명(左丘明)이 지은 역사책, 『국어(國語)·제어(齊語)』편에, “〈경변죄는 벌금을 물어야 혐의를 벗을 수 있다〉 소송을 제기한 것이(索*訟者), 3일의 구금형拘禁刑에 해당되는데도 그 소장訴狀에 변화가 없다면(三禁*而不可上下*), 〈쌍방은〉 한 묶음(12개)의 화살을 관청에 납부해야 그 사건의 審理를 받을 수 있다(坐成以束矢).”고 한 대목이 있다.

*색(索) : 요구하다. 제기(提起)하다. 이는 소송을 요구한 사람의 마음이다.

*삼금(三禁) : 구금(拘禁) 3일. 재삼 자제(自制)하다는 뜻으로 해석한 학자도 있다.

*불가상하(不可上下) : 소장(訴狀)에 변화가 없다. 소장을 확정하고 변경하지 않음을 이른 말이다.

*속시(束矢) : 일속(一束 : 12개로 되어있는 한 묶음)의 화살. ‘속(束)’은 양사(量詞)임.

- 5) 궁촌세모 무래객(窮村歲暮無來客 : 궁촌이라 세밑인데도 찾아오는 손님 없는데) :

① 궁촌(窮村) : 가난한 촌락. 외딴 마을.

② 세모(歲暮) : 선달그믐께. 세밑. 세말(歲末). 연말(年末).

- 6) 낙일천장 유원홍(落日天長有怨鴻 : 해질녘 먼 하늘에 울며 날아오는 기러기는 있네) :

① 낙일천장(落日天長) : 해질녘의 먼 하늘.

☆낙일(落日) : 석양. 지는 해.

☆천장(天長) : 하늘 멀리서.

a. 장(長) : 멀다. ‘원(遠)’의 뜻으로 쓰였다.

- ② 유원홍(有怨鴻) : 원망스레 울며 날아오는 기러기가 있다.

☆원홍(怨鴻) : 원망스레 울며 날아가는 기러기.

- 7) 경독만래 차기락(耕讀晩來差可樂 : 밭 갈고 독서하다 보면 날 저물고 그런대로 즐

갈만하나니):

① 경독(耕讀): 농사지으며 틈틈이 글을 읽다. 경전(耕田)과 독서.

② 만래(晩來): 날이 저물다.

③ 차가락(差可樂): 대체로 그런대로 즐길 만 하다.

☆차가(差可):

a. 그런대로(대체로) ...를 할만하다.

b. 가까스로(간신히) ...를 할만하다.

8) 복거수문 양서동(卜居須問瀼西東: 택지 선정에 꼭 살필 것은 사방에 계곡물의 유무有無일세):

① 복거수문(卜居須問): 택지를 선정할 때는 반드시 살펴야 한다.

☆복거(卜居): 복지(卜地): 복택(卜宅): 택지(擇地)하여 거주하다. 살만한 곳을 가려서 정하다. 점을 쳐서 살 만한 곳을 택하다. 살만한 곳을 점치다.

☆수문(須問): 필히 살펴다.

a. 문(問): 고찰(考察)하다. 살펴다.

② 양서동(瀼西東): 사방에 계곡물이 흐른다.

☆양(瀼):

a. 하천으로 흘러드는 계곡물.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b. 이슬이 많이 흘러내린 모양.

c. ‘낭(瀼)’으로 읽을 때는 ‘물이 흘러가는 모양’이란 뜻이 된다.

☆서동(西東):

a. 정한 방향 없이 사방(四方)을 가리키는 말로도 쓴다.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b. 서방과 동방. 한 쪽 뜻만으로 해석하는 복합사(複合詞)로서, ‘서방(西方)’을 가리키기도 한다.

c. 술잔을 가리킨다.

시138. 추련곡 秋蓮曲

詩138. 秋蓮曲¹⁾
추련곡



蓮花紅灼灼²⁾,
연 화 홍 작 작

연꽃은 붉게 물들어 불긋불긋하고,

蓮葉青田田³⁾.
연 엽 청 전 전

연잎은 푸르게 물위에 뽁뽁이 펼쳐졌네.

生成苦不早⁴⁾,
생 성 고 부 조

자라는 게 빠르지 않아 맘 괴로웠는데,

獨秀⁵⁾秋江邊。
독 수 추 강 변

(지금은) 가을 강변에서
(그 모습) 유독 아름답네.

涼風日夕起⁶⁾,
양 풍 일 석 기

가을바람이 조석朝夕으로 불어오니,

白露墮重玄⁷⁾.
백 로 타 중 현

맑은 이슬이 하늘에서 내리네.

弱蔓不自保,
약 만 부 자 보

유약한 (뿌리) 덩굴 스스로를
보전하지 못하다가,

霜雪還相纏⁸⁾.
상 설 환 상 전

눈서리 내려 한랭하면 더욱 서로 얹힌다네.

花凋葉枯誰惜之,
화 조 엽 고 수 석 지

꽃 지고 잎 시들면 누가 애석하게 여길꼬?

中心尙有千絲連⁹⁾。
중심 상 유 천 사 연

연근蓮根 속은 아직도 천 가닥 실이
이어져있거늘.

我願美人意¹⁰⁾，
아 원 미 인 의

나도 품덕品德 높은 사람의 뜻 지녀서,

化作藕中絲¹¹⁾。
화 작 우 중 사

연근 속의 끊어지지 않는 실처럼
덕성 이어가고 싶으네.

但令相思情不斷¹²⁾，
단 영 상 사 정 부 단

서로 그리워만 한다면
그 정은 끊어지지 않을지니,

不恨天涯長別離¹³⁾。
불 한 천 야 장 별 리

하늘 끝에서 긴 세월 이별해도
한탄하지 않으리.

1) 추련곡(秋蓮曲) : 5·7언이 섞인 악부시체(樂府詩體). 앞의 「시46」의 주석1)을 참
조바람.

2) 작작(灼灼) :

- ① 꽃이 화려하고 찬란하게 핀 모양.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 ② 밝은 모양. 환한 모양. 빛나는 모양.
- ③ 선명한 모양.
- ④ 명백한 모양.
- ⑤ 현저(顯著)한 모양. 뚜렷한 (분명한) 모양.
- ⑥ 업적이 상대한 모양.
- ⑦ 활활 타는 모양. 치열한 모양.
- ⑧ 그리움이 간절한 모양. 열렬한 모양.
- ⑨ 촉(蜀)나라 미녀의 이름.

3) 전전(田田) :

- ① 연잎이 무성하여 조밀(稠密)하게 펼쳐진 모양.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으며,
뽁뽁하다로 표현한다.
- ② 의성어로서 가슴이 뛰는 소리로, ‘쿵덩쿵덩·두근두근’으로 표현할 수 있다.
- ③ (들판이) 선명하게 푸른 모양.
- ④ (향기가) 짙은 것을 형용한 말.

4) 생성 고부조(生成苦不早 : 자라는 게 빠르지 않아 맘 괴로웠는데) :

- ① 생성(生成) : 자라다. 성장하다. 장성(長成)하다.
- ② 고(苦) :
☆형용사로, ‘괴롭다’의 뜻으로 쓰여, 서술어의 기능을 하였다.

☆부사로, ‘진실로’의 뜻으로 쓰여, 정도를 나타내기도 한다.

③ 부조(不 早):

☆빠르지 않다.

☆오래 걸리다. 시간이 지체되다.

a. 조(早):

④ (시간이) 앞서거나 빠르다.

⑤ 이의 반대어로는 시간이 지체되거나[지遲] 늦다[만晩].

5) 독수(獨 秀): 유독 아름다워졌네. 홀로 빼어나다.

① 독(獨):

☆부사로 쓰이는 경우: a. 유독(唯獨). b. 단일(單一).

② 수(秀):

☆형용사로 쓰이는 경우: a. 아름답다. b. 빼어나다.

6) 양풍 일석기(涼風日夕起: 가을바람이 조석朝夕으로 불어오니):

① 양풍(涼風): 양풍(涼風)으로도 쓴다.

☆추풍(秋風). 가을바람.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시원하고 상쾌한 바람. 서늘한 바람. 선들바람.

☆서남풍.

☆중국의 고대 전설상의 선산(仙山) 명칭.

② 일석(日夕):

☆조석(朝夕)으로. 아침저녁으로. 밤낮으로.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해질 무렵.

7) 백로 타중현(白露墮重玄: 맑은 이슬이 하늘에서 내리네):

① 백로(白 露):

☆가을철의 이슬.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이십사절기(二十四節氣) 중의 하나로, 처서(處暑)와 추분(秋分)의 사이로 양력 9월 8일경이다.

☆진술토로하다.

a. 백(白): 말하다. 진술하다.

b. 로(露): 드러내다. 표현하다. 선포하다.

② 타중현(墮重玄): 하늘에서 (이슬이) 내리다.

☆타(墮): 낙하하다. 전(轉)하여, 본 시에서는 ‘내리다’는 뜻으로 쓰였다.

☆중현(重玄):

a. 하늘. 공중.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b. 지극히 심원(深遠: 현묘玄妙)한 철리(哲理)를 가리킨다. 당나라 시인 이백(李白: 701~762)의 시인 「아미산 달을 노래하며 장안長安에 가는 촉蜀나라 승려 안룽을 보내며(月歌送蜀僧旻入中京)」에, “황금빛 사자는 높은 자리에 오르고, 백옥자루가 달린 진미(麈尾) 떨이로써 번뇌를 털며 현묘한 이치 말하네(黃金師子乘高座, 白玉麈尾談重玄).”라고 읊은 구절이 있다. 이 시구(詩句)에 대해서 청나라의 학자 왕기(王琦: 생몰년 미상, 자는 탁애琢崖)는 『이태백시집주(李太白詩集注)』에서 주석하기를, “‘중현重玄’이란 말은, 『노자(老子)』 제1장에 나오는 ‘현묘(玄妙: 심원深遠)하고도 현묘한 이

차라는 뜻이다(重玄, 卽『노자(老子)』‘玄之又玄’之義)”고 하였다.

- 8) 상설 환상전(霜雪還相纏: 눈서리 내려 한랭하면 더욱 서로 얹한다네):

“역지해설: 연뿌리와 연꽃줄기가 서로 얹혀져 있는 것은 형제애를, 연꽃 열매와 씨앗은 자식을 많이 가지기를 소망하는 유교적인 관념과 관련이 되어 조선시대에 길상문양으로 널리 사용되었다.(Google 사이트 도구 우리문양의 아름다움 참조)

- ① 상설(霜雪):

☆한랭한 (열악한) 환경이나 혹독한 처지를 당하는 것을 비유한 말. 본 시에서는 ‘눈 서리가 내려 날씨가 한랭해지다’는 것을 가리키는 뜻으로 쓰였다.

☆서리와 눈. 눈서리. 눈서리가 내리다.

☆고결한 정조(情操)를 비유한 말.

☆서릿발 같은 검광(劍光)을 비유한 말.

☆백발을 비유한 말.

☆냉담(준엄·냉혹·무정)한 표정을 비유한 말.

- ② 환(還): 아직도. 또한. 더욱. 도리어.

- ③ 상전(相纏): 서로 얹혀 있다.

☆전(纏): 얹히다.

- 9) 중심상유 천사련(中心尙有千絲連: 연근 속은 아직도 천 가닥 실이 이어져 있거늘):

- ① 중심(中心):

☆핵심(核心). 사물의 주요부분.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으며, 전(轉)하여 ‘연꽃의 중심축인 연근(蓮根)’을 가리키는 뜻으로 쓰였다.

☆충심(衷心):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참된 마음. 진심.

☆정 중앙. 사물의 한 가운데.

☆심중(心中). 마음속.

☆모 방면에 중요한 지위를 갖고 주도적인 작용을 하는 기본이 되는 부분을 가리키는 말.

- ② 천사련(千絲連): 천 가닥 실이 이어져 있다. 본 시에서는 연근을 자르면 그 육질(肉質) 속의 명주실 같은 가닥이 수없이 이어져 있음을 형용한 말로 쓰였다.

☆천사(千絲): 천 가닥의 실오라기. ‘사(絲)’는 양사(量詞)로 쓰였으며, ‘가닥’으로 칭한다.

☆연(連): 이어지다. 잇닿다. 연결되다.

- 10) 미인의(美人意): 재덕이 뛰어난 사람의 마음. 품행과 덕성이 뛰어난 사람의 뜻.

- ① 미인(美人): 품덕(品德: 품행과 덕성)이 뛰어난 사람. 앞의 「시52」의 주석6)의 ① ‘미인(美人)’조항을 참조바람.

- ② 의(意): 뜻. 마음.

- 11) 화작 우중사(化作藕中絲: 연근 속의 끊어지지 않는 실처럼 덕성 이어가고 싶네):

- ① 화작(化作): 만물이 변화생성하다.

☆...모습으로 자라다(만들어 내다). 본 시에서는 ‘...와 같은 모습으로 이어가고 싶다’는 뜻으로 쓰였다.

☆...로 변하다. 바뀌어 ...이 되다.

- ② 우중사(藕中絲: 연근 속의 실): 이때의 ‘우(藕)’는 ‘연근(蓮根)’이란 뜻이다. 연근

은 잘라도 연근 속에는 명주실 같은 가는 실이 나오는데 이것을 중국에서는 ‘연근은 끊어져도 실은 여전히 이어져 있다(藕斷絲連)’고 표현한 말로 쓴다. 이 말은 ‘표면상으로는 관계는 단절됐지만 실제로는 여전히 이어져 있음을 비유한 말’이다. 중국에서는 ‘우단사련(藕斷絲連)’이란 말을 ‘남녀간의 정의(情意)는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가리키는 말로 썼다. 그 예로, 당나라의 시인 맹교(孟郊: 751~814)의 시 「거부(去婦: 쫓겨난 부인)」에, “첩의 마음은 연근 속의 실과 같아(妾心藕中絲), 끊어져도 여전히 이어져 있답니다(雖斷猶牽連).”고 읊은 구절이 보인다. 본 시에서 서애(西厓)가 당나라 시인 맹교가 읊은 것과 같은 ‘우중사(藕中絲: 연근속의 실과 같다)’란 말을 쓴 뜻은 ‘표면상으로는 즉 시대적인 면에서는 옛 성현과의 관계가 단절됐지만 그 현인(賢人)들의 덕성은 끊어지지 않는 것이니, 자신이 이어가기를 바라는 뜻을 비유한 말’로 쓰였다.

- 12) 단영상사 정부단(但令相思情不斷: 서로 그리워만 한다면 그 정은 끊어지지 않을 지니):
 - ① 령(令): 접속사로 쓰여 ‘만일 …한다면’의 뜻이다.
 - ② 상사(相思): 서로 그리워하다.
- 13) 불한천애 장별리(不恨天涯長別離: 하늘 끝에서 긴 세월 이별해도 한탄하지 않으리):
 - ① 불한(不恨): 원망하지 않다.
☆한(恨): 원망하다. 미워하다. 한탄하다.
 - ② 천애(天涯): 하늘의 끝. 아주 먼 것을 가리키는 말이다.



시139. 창원 昌遠 김홍미 金弘微가 강릉부 江陵府로 가는 것을 송별하면서

詩139. 送金昌遠赴江陵¹⁾ 송금창원부강릉

일평생 사는 동안 젊은 시절에는,
이별해도 앞으로 만날 시간 기약하기 쉬웠지.
이제는 함께 늙어가는 처지이니,
(쉽게) 이별하던 젊은 시절로 돌아갈 수 없네.
겨우 한 잔의 술이라고 말하진 말게나,
내일이면 이런 술잔 다시 들기 어려울 걸세.
꿈속에서 만날 비결조차 알지 못하였는데,
무슨 방법으로 그리움을 달랠 수 있을까?

平生少年日²⁾, 分手易前期³⁾.
평생 소년 일, 분수 역전기

及此同衰暮⁴⁾, 非復別離時⁵⁾.
급차 동쇠모, 비복별리시

莫言一樽酒⁶⁾, 明日難重持⁷⁾.
막언 일준주, 명일 난중지

夢中不識路⁷⁾, 何以慰相思⁸⁾?
몽중 불식로, 하미 위상사

이 시는 은후 隱侯 심약 沈約이 읊은 시인데, 영지사 靈芝寺에서 벼꾼 전별연 錢別宴에서 주희 선생이 이 시를 읊으며 말을 건네자, (주자의 제자) 계장 季章 이벽 李壁이 말하기를, “저 같은 사람도 이 시를 압니다”라고 하자, (주자가 말하기를) “계장 이벽은 (젊어서) 아직 이별하는 심정을 알지 못한다” 고 하면서, 또 말하기를, “이별하는 때가, 사람이 만년 晩年이 되어서라면, (전별연의) 좌석이 가득 찬 것이 매우 보기 좋지만 즐겁지 만은 않을 것이다”고 하였다. 아마도 이때 주희 선생의 연세가 거의 70이 되었던 까닭에 그렇게 말했던 것으로 보인다. 내 나이 금년에 예순 셋이고, 창원의 나이 이제 마흔 여덟인즉, 지금은, 은후 심약이 지은 시를 이해한다고 할 수 있는 나이지만, (아무래도) 나만큼은 이해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네. 아래에 몇 구의 시가 비록 우열이야 동등하지는 않지만, 역시 각자의 심정을 읊은 것이니, 관동지방에서 극부 克夫 서인원 徐仁元을 만난다면, 이 시를 보여주게나.

此沈隱侯語⁹⁾，靈芝餞席¹⁰⁾，朱先生¹¹⁾舉以語，李季章云¹²⁾，
 此沈隱侯語⁹⁾，靈芝餞席¹⁰⁾，朱先生¹¹⁾舉以語，李季章云¹²⁾，
 “如僕知此¹³⁾” “季章尚未也¹⁴⁾” 又云，“解携之際¹⁵⁾，一人衰暮¹⁶⁾，
 足令滿座不樂¹⁷⁾” 蓋其時先生年幾七十¹⁸⁾ 故云然。余今年六十三，
 昌遠才¹⁹⁾ 四十八，然則今日²⁰⁾ 之知隱侯詩者，
 昌遠才¹⁹⁾ 四十八，然則今日²⁰⁾ 之知隱侯詩者，
 莫余若也²¹⁾。後有數句，雖工拙²²⁾ 不同，亦各言其志也，
 關東如見徐克夫²³⁾，亦以此示之。

江陵去河曲²⁴⁾，
 강릉 거 하곡

강릉은 꾸불꾸불한 하천을
 돌아가야 하는 곳이니,

里數踰半千²⁵⁾。
 리수유반천

이수里數로는 오백리가 넘는다네.

此別同遲暮²⁶⁾，
 차별동지모

이번 이별은 같이 늙어가는
 시절의 이별이나,

前期又杳然²⁷⁾。
 전기우요연

젊은 시절에는 (이별) 거듭해도
 유연했었네.

芳草秦京道²⁸⁾，
 방초진경도

방초는 한양의 길옆에서 자라고,

晴雲洛水邊²⁹⁾。
 청운낙수변

맑은 날 뜬 구름은 낙동강 강변에 머무네.

平生知制淚³⁰⁾，
 평생지제루

평생 눈물을 흘리지 않으려 했는데,

今日自漣漣³¹⁾.
금 일 자 련 연

오늘은 절로 눈물이 줄줄 흐르네그려.

1) 송김창원부강릉(送金昌遠赴江陵 : 창원 김홍미가 강릉부로 가는 것을 송별하면서) :

① 송(送) : 송별(送別)을 가리킨다. ‘송별’은 ‘떠나는 사람을 이별하여 보내다’는 뜻이고, ‘유별(留別 : 유별流別)’은 ‘떠나는 사람이 남아있는 사람에게 작별하다’는 뜻이니, 구별해야한다.

② 김창원(金昌遠) : 창원(昌遠) 김홍미(金弘微). ‘창원’은 김홍미의 자이다. 이렇게 성씨 다음에 자나 호 또는 직함을 쓰는 것은 경칭(敬稱)의 한 예이다.

☆김홍미(金弘微 : 1557~1604) : 조선 중기의 문신, 본관은 상주(尙州), 호는 성극당(省克堂). 조식(曹植)과 류성룡(柳成龍)의 문인(門人)이다. 김홍미는 또한 서에 자신의 질서(姪壻), 즉 백씨(伯氏)인 겸암(謙菴) 류운룡(柳雲龍)의 만사위이다. 1585년(선조 18) 문과에 급제하여 이조좌랑(吏曹佐郎)으로 정여립(鄭汝立)의 모반 사건에 관련되어 한때 파직되었다가 고리 등을 거쳐 사간(司諫), 사성(司成) 등을 역임하였다. 1597년 우부승지(右副承旨)로 있을 때, 이순신(李舜臣)을 탄핵하여 파면케 하고, 원균(元均)을 통제사로 삼게 하는데 가담하였다. 1598년 형조참의(刑曹參議)를 거쳐, 1605년 강릉부사(江陵府使)때 병고로 면직되었다.

③ 부강릉(赴江陵 : 강릉으로 가다) : 「서애연보」에 의하면, 서애와 김창원의 송별 장소는 지금의 경북 안동시 풍천면 광덕리(廣德里)의 옥연정(玉淵亭)이었으며, 때는 갑진년(甲辰年 : 1604년 : 선조 37년. 서애 63세)이었다. 김홍미는 1604년 1월에 강릉부사(江陵府使)로 부임하여, 1605년에 병고로 면직되었으니까 해수로 2년을 재직했다.

☆부(赴) : ...로 가다.

☆강릉(江陵) : 강릉부(江陵府). 지금의 강원도 강릉시이다. 당시 조선의 강릉은 고려말의 강릉대도호부(江陵大都護府)가 그대로 지속되었으며, 속현으로 연곡현(連谷縣)·우계현(羽溪縣)을 진관(鎭管)으로 삼척(三陟)·양양(襄陽)의 2부(二府)와 평해(平海)·간성(杆城)·고성(高城)·통천(通川)의 4군, 울진(蔚珍)·흡곡(歙谷)의 2현을 관할하였다.

2) 평생 소년일(平生少年日 : 일평생 사는 동안 젊은 시절에는) :

① 평생(平生) :

☆일생. 일평생. 금생(今生 : 현세現世).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옛 친구. 오랜 친구.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평소. 평상시.

☆평소의 흥취. 정의(情誼). 업적 등을 가리키는 말.

② 소년일(少年日) : 젊은 시절.

3) 분수 이전기(分手易前期 : 이별해도 앞으로 만날 시간 기약하기 쉬웠지) :

① 분수(分手) : 이별하다.

② 이전기(易前期) : 앞날을 기약하기가 쉽다. 왜냐하면, 젊으니까 남은 시간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다.

☆이(易): 형용사 술어로 ‘…하기 쉽다. …하기 쉽게 여기다.’의 뜻으로 쓰였다.

☆전기(前期): 만날 앞날을 기약하다.

a. 전(前): 명사로 ‘앞날, 미래’의 뜻으로 쓰였다.

b. 기(期): 동사로 ‘기약하다. 약속하다’의 뜻으로 쓰였다.

4) 급차 동쇠모(及此同衰暮: 이제는 함께 늙어가는 처지이니):

① 급차(及此): 지금에 이르러. 이제는.

☆급(及): 이르다(어떤 장소나 시간에 달다).

☆차(此): 차시(此時). 이때. 이 시기. 젊은 시절에서 몇 십 년이 지나 만년(晩年)이 된 시기를 가리킨다.

② 동쇠모(同衰暮): 함께 늙어간다.

☆동(同): 부사로, ‘함께. 공동으로’의 뜻으로 쓰였다.

☆쇠모(衰暮): 쇠모(衰莫)로도 쓴다.

a. 황혼. 만년(晩年)을 비유하는 말로도 쓴다. 인생의 만년이 된 시기. 이 시기에는 인생의 풍상고초(風霜苦楚)를 다 겪고 난 시기. 평범한 대화에서도 인생의 경험과 깊은 의미가 내포된 말을 하는 시기. 이 때의 이별은 연이어 세상을 떠나는 벗들의 슬픈 심정이 녹아난 간절한 정서가 담긴 이별이다. 그런 시기이다.

5) 비복 별리시(非復別離時: <쉽게> 이별하던 젊은 시절로 돌아갈 수 없네):

① 비복(非復):

☆돌아갈 수 없다(않다).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a. 비(非): 동사로서, ‘없다’의 뜻으로 경험을 부정하는 뜻으로 쓰였다.

b. 복(復): 돌아가다. 회복하다.

② 비부(非復):

☆다시는 …하지 않다. 거듭해서 …하지 않다.

a. 비(非): 부정부사로서, ‘…이 아니다. …않다. 못하다.’의 뜻으로 쓰인다.

b. 부(復): 부사로서, ‘다시. 거듭. 재차’의 뜻으로 쓰인다.

③ 별리시(別離時): 이별의 시기(때). 이별하던 시기. 이별하면서도 다시 만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었던 젊은 시절.

6) 막언 일준주(莫言一樽酒: 겨우 한 잔의 술이나고 말하지 말게나):

① 막언(莫言): 말하지 말라.

② 일준주(一樽酒): 한 통의 술. 본 시에서는 ‘한 잔의 술’로 번역하였다.

☆준(樽): 본의(本意)는 술을 담는 용기(容器). 이를테면, 술을 담아두는 큰 통으로 전해오고 있으나, 본 시에서는 앞뒤의 문맥을 살펴서 ‘술잔’으로 번역하였다.

7) 몽중 불식로(夢中不識路: 꿈속에서 만날 비결조차 알지 못하였는데): ‘꿈속에서도 그대에게 가는 길 찾지 못하면’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다.

① 불식로(不識路): 길을 알아보지 못하거나, 식별해내지 못하는 것으로, 이는 길을 잃어버렸다는 뜻을 나타낸 것이다. 꿈속은 비현실이니까 벗에게 가는 길을 쉽게 찾을 수 있을 텐데 여의치 못하다는 것으로 미루어 늦게 되면 꿈의 영통(靈通)함조차 믿을 수 없다는 것을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식로(識路):

- a. 요령(수단·경로·비결·방법)을 알다.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 b. 길을 식별하다(알아보다).

8) 하이 위상사(何以慰相思: 무슨 방법으로 그리움을 달랠 수 있을꼬):

- ① 하이(何以): 어떻게. 무엇으로. 무슨 방법으로.
- ② 상사(相思): 그리워하다.

9) 차심은후어(此沈隱侯語: 이 시는 은후隱侯 심약沈約이 읊은 시이다): 이 시는 은후(隱侯) 심약(沈約)이 읊은 시이다. 본 시의 서문에서 인용한 위의 시는 은후(隱侯) 심약(沈約)이 지은 시 「안성安成 범수范岫*를 송별하면서(別范安成)」이다.

*범수(范岫: 440~514): 남조 양(梁) 나라 제양(濟陽) 고성(考城) 사람. 자는 무빈(懋賓)이다. 어려서 고아가 되었다. 박학하고 여러 방면에 정통했는데, 특히 위진(魏晉) 이래 길흉(吉凶)과 관련된 전고에 밝아 심약과 범운(范雲)의 칭송을 들었다. 송나라 때 봉조청(奉朝請)으로 발탁되었다. 제(齊)나라에 들어 태자카령(太子家令)으로 올랐다. 제무제(齊武帝) 영명(永明) 연간에 위나라에서 사신 오자 사변(詞辯)이 있다 하여 계수(界首)에서 사신을 맞이했다. 양나라에 들어 탁지상서(度支尚書)와 진릉태수(晉陵太守), 사부상서(祠部尚書)를 지내고, 금紫光록대부(金紫光祿大夫)에 올랐다. 재직 중 청렴결백했다. 저서에 『예론(禮論)』과 『잡의(雜議)』가 있다.

- ① 심은후(沈隱侯): 은후(隱侯) 심약(沈約): 이렇게 성씨 다음에 시호(諡號)를 쓴 것은 경칭(敬稱)의 한 예이다.

☆심약(沈約: 441~513): 남조시대(南朝時代: 동진東晉이 망한 후 420~589년까지 화남華南에 한족漢族이 세운 송宋·제齊·양梁·진陳 네 나라를 통틀어 이르는 말)의 양(梁)나라 오흥군(吳興郡) 무강현(武康縣), 지금의 절강성(浙江省) 덕청현(德清縣) 사람이다. 자는 휴문(休文)이고 시호(諡號)는 은(隱)이며, 심박(沈璞)의 아들이다. 어려서부터 빈곤 속에서도 면학(勉學)에 힘써 시문(詩文)으로 당대에 이름을 떨쳤다. 송나라 때는 안서외병참군(安西外兵參軍)을 역임했고, 제(齊)나라 때는 국자궐주(國子祭酒)와 사도좌장사를 지냈다. 그 후 양나라 시대에 들어와서 소연(蕭衍: 양무제梁武帝: 464~549)을 제나라의 황제로 옹립하는데 공을 세워 상서복야(尙書僕射)와 상서령(尙書令) 및 좌광록대부(左光祿大夫)를 역임했다. 세 왕조에 걸쳐 벼슬하면서 재능으로 자부했고, 영리(榮利)에는 관심을 두지 않은 채 청담(淸談)을 즐겼다. 여러 차례 무제의 노여움을 사 견책을 받다가 근심속에 513년 73세로 세상을 떠날 때 까지 귀현(貴顯)의 자리를 차지했다. 은(隱)이라는 시호를 받은 탓으로 ‘심은후(沈隱侯)’라고도 하며, 제나라 때 동양태수(東陽太守)를 지냈다 하여, ‘심동양(沈東陽)’이라고도 일컬어진다. 그는 정치가로서 보다도 문인으로 뛰어나, 문학사(文學士)를 좋아했던 제나라의 문혜태자(文惠太子)와 그 아우인 경릉왕(竟陵王) 소자량(蕭子良)의 사랑을 받아 문단의 중견이 되었고, 양(梁)나라에 들어가서도 그 재능과 세력을 유지하였다. 당시 임방(任昉: 460~508)의 문장, 심약의 시를 으뜸으로 꼽았는데, 그의 시는 세밀한 염정(艷情)을 노래하는데 뛰어나 ‘궁체시(宮體詩: 일종의 궁중 생활을 묘사한 시체詩體, 작가로서는 서리(徐摛: 507~583)·서풍(徐陵: 507~583)·유신(庾信: 513~581) 등이다. 작품 내용은 궁정생활과 남녀의 정실

情實이며, 문사文詞가 화려하고 부실不實함'의 선구가 되었다. 그는 또 불교에 능통하고 음운(音韻)에도 밝아, 비로소 사성(四聲)의 구별을 명백히 하고 시의 팔병설(八病說*: 사성팔병설 〈四聲八病說: 시를 짓는데 성물상聲律上 옹당 기피해야 할 8가지의 악습. 자세한 것은 아래의 주석을 참조바람〉)을 제창했다. 그의 음운설(音韻說)은 영명체(永明體: 남조南朝 제무제齊武帝 영명년간 〈永明年間: 483~493〉)에 형성된 시체詩體로, 그 특징은 성물聲律을 강조한 것이며, 근체시近體詩의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음의 성립과 깊은 관계가 있을 뿐 아니라 근체시의 성립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 『사성보(四聲譜)』·『진서(晉書)』·『송서(宋書)』·『제기(齊記)』·『송세문장지(宋世文章志)』 등 저술이 많았으나 『송서(宋書)』만 전해지고 있다. 100권이나 되는 문집도 현재는 『한위육조 일백삼가집(漢魏六朝一百三家集)』에 실린 『심은후집(沈隱侯集)』 2권·『한위육조 일백삼가집』에 수록된 『심후문집(沈休文集)』(9권) 등이 남아있을 뿐이다.

*사성팔병설(四聲八病說): 중국 남조(南朝) 양(梁)나라 문인 심약(沈約: 441~513)이 주장한 시의 음률상 법칙. 중국어에 평·상·거·입(平上去入)의 4성조(聲調)가 있다는 것은 경험을 통해 이미 알려졌으나, 제·양(齊梁) 무렵에 심약(沈約)·주옹(周顒: 생몰년 미상) 등이 이를 명확히 논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시의 한 구 안에서의 조화를 꾀하는 방법이 의식적으로 안출되었다. 심약은 팔병설을 내세워, 작시(作詩)상 피해야 할 점들을 지적하였다. 팔병(八病)이란 평두(平頭: 한련聯 가운데 출구出句의 첫 두자와 대구對句의 첫 두자가 같은 성조聲調가 되는 것을 칭함)·상미(上尾: 같은 출구의 끝자와 대구의 끝자가 같은 성조가 되는 것을 칭함)·봉요(蜂腰: 5언구의 2번째 글자와 5번째 글자가 같은 성조가 되는 것을 칭함)·학슬(鶴膝: 압운押韻하지 않아도 되는 제1구와 제3구의 끝자가 같은 성조인 것을 칭함)·대운(大韻: 운자韻字를 제외한 두 구의 다른 9자 중에 운자와 같은 운의 글자를 한 자 이상 쓰는 것을 칭함)·소운(小韻: 운자韻字를 제외한 다른 자 중에 한 자 이상 같은 운의 글자를 쓰는 것을 칭함)·정紐(正紐: 5언 시의 두 구 중에 성조는 다르면서 독음讀音은 같은 글자를 또 쓰는 것을 칭함)·방紐(旁紐: 한 구 가운데 쌍성雙聲을 이루는 글자를 사용하는 것을 칭함. 연속해서 쌍성을 이루는 것은 무방하나 글자를 띄어서 쌍성을 이루는 것은 금한다)를 말한다. 제1구와 제2구의 첫머리가 평성[평두]이 되고, 1구 5자 중에서 제2자와 제5자가 동성(同聲: 봉요蜂腰)이 되는 것 등은 시율(詩律) 상으로 중요한 부분의 동성조(同聲調) 중복이며, 이를 피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법칙은 전적으로 실천되지는 않았으나, 이것으로 말미암아 더욱 시가 세련돼 갔으며, 당대(唐代)에 들어 근체시(近體詩)가 탄생하기에 이르렀다.

10) 영지전석(靈芝餞席): 영지사靈芝寺에서 베푼 전별연석錢別宴席):

- ① 영지(靈芝): 영지사(靈芝寺): 영지사는 오대십국(五代十國: 당나라가 멸망한 뒤부터 송나라가 통일할 때까지 흥망한 10개 왕조 또는 그 시대. 중원中原을 중심으로 후량後梁·후당後唐·후진後晉·후한後漢·후주後周의 5개 왕조와 중원 이외 지방의 전촉前蜀·오촉·남한南漢·형남荊南·오월吳越·조楚·민궤·남당南唐·후촉後蜀·북한北漢의 10개 국을 이룸)시기에 오월국(吳越國)의 창건자 전류(錢鏐: 852~932)의 고원(故苑: 옛동산)에 있던 절이었다. 이곳에서 영지(靈芝)가 많이 생산되었기에 절 이름을 영지사(靈芝寺)라고 불렀다고 한다. 송대에 이르러 건축 규모가 넓어지고

호수도 건설하여 고종(高宗)과 효종(孝宗) 양대 황제는 네 차례나 행차하였다고 한다. 경내(境內)에 부벽헌(浮碧軒)과 의광당(依光堂)이 있어 신진 선비들이 많이 찾은 명소(名所)가 되었다고 한다. 원말(元末)에 훼손되었는데, 명왕조(明王朝) 영락년간(永樂年間: 1403~1424)에 승려 측원(측源)이 재건했으며, 만력 22년(萬曆二十二年: 1594)에 중수(重修)하였다고 한다. 위치는 지금의 절강성(浙江省) 항주시내(杭州市內)에 있었다.

- ② 전석(錢席): 전별(錢別): 술상을 차려놓고 연회를 베풀며 송별함)하는 연회석, 송별의 연회성.

☆전(錢): 주석(酒席)을 마련해 놓고 송별하다. 주식(酒食)을 베풀면서 송별하다. 이는 고대로부터 전해오는 예의의 일종이다.

- 11) 주선생거어(朱先生舉以語: 주희朱熹선생이 이 시를 읊으며 말을 건네자):

- ① 주선생(朱先生): 송나라 유학자 주희(朱熹)를 가리킨다. 주선생이라 칭함은 주희에 대한 경칭(敬稱)이다.

☆주희(朱熹: 1130~1200): 송나라 휘주(徽州) 무원(婺源: 지금의 강서성江西省婺源縣) 사람. 자는 원희(元晦) 또는 중희(仲晦)고 호는 회암(晦庵)과 회옹(晦翁), 운곡산인(雲谷山人), 창주병수(滄洲病叟), 둔옹(澣翁) 등을 썼다. 존칭하여 주자(朱子)라 한다. 주송(朱松: 1097~1143)의 아들이다. 선조는 대대로 휘주 무원의 호족(豪族)으로 아버지는 관직에 있다가 당시의 재상 진희(秦檜: 1090~1155)와의 의견충돌로 퇴직하고 우계(牛溪: 지금의 사천성四川省 강언시江堰市 서북)에 우거했다. 이곳에서 14살 때 아버지가 죽자 유언에 따라 호적계(胡籍溪)와 유백수(劉白水), 유병산(劉屏山)에게 사사(師事)했다. 불교와 노자의 학문에도 흥미를 가졌지만, 24살 때 이통(李侗: 1093~1163)을 만나 사숙(私淑)하면서 유학에 복귀하여 그의 정통을 계승하게 되었다. 고종(高宗) 소흥(紹興) 18년(1148) 진사시험에 급제하여 동안주부(同安主簿)가 되었다. 효종(孝宗) 순희년간(淳熙年間: 1174~1189)에 남강군(南康軍)을 맡았고, 제거절동다염공사(提舉浙東茶鹽公事)로 옮겼다. 당시 절동에 큰 기근이 들자 수레를 타고 관내를 다니면서 구조하는 한편 폐단을 혁파했다. 광종(光宗) 때 장주지주(漳州知州)를 거쳐 비각수찬(秘閣修撰) 등을 지냈다. 영종(寧宗) 초에 환장각대제(煥章閣待制)로 남경(南京) 홍경궁(鴻慶宮)을 관리했다. 경원(慶元) 2년(1196) 낙직(落職)하고 귀향했다. 정호(程顥: 1032~1085)와정이(程頤: 1033~1107)의 학문을 계승하고 주돈이(周敦頤: 1017~1073)와 장재(張載: 1020~1077) 등의 학설을 차용하여 복송이라 이학(理學)을 집대성했다. 백록동서원(白鹿洞書院)과 악록서원(岳麓書院)에서 50여 년 동안 강학(講學)했는데, 제자가 아주 많았다. 그 학파를 일러 민학(閩學) 또는 고정학파(考亭學派), 정주학파(程朱學派)라 부른다. 한 때 한탁주(韓侂胄: 1152~1207)에 의해 위학(僞學)이라 하여 금지 처분을 받기도 했다. 71살에 생애를 마칠 때까지 여러 관직을 거쳤지만, 9년 정도만 현직에 근무했을 뿐 나머지 관직은 학자에 대한 일종의 예우로 반드시 현직에 부임할 필요가 없는 명목상의 관직이었기 때문에 학문에 전념할 수 있었다. 방대한 저술을 남기고 있다. 저서에 일찍이 『사서장구집주(四書章句集注)』와 『이락연원록(伊洛淵源錄)』, 『명신언행록(名臣言行錄)』, 『자치통감강목(資治通鑑綱目)』, 『시집전(詩集傳)』, 『초사집

주(楚辭集注)』 등이 있다. 후세 학자들이 편찬한 『주자어류(朱子語類)』와 『주문공문집(朱文公文集)』 등이 있다.

주희가 집대성한 송대 유학은 ‘우주만물은 이(理)와 기(氣)의 두 요소로 이루어졌다’고 설명하는 성리학(性理學)의 이론이다. 이는 우주(宇宙)의 생성(生成)과 구조(構造), 인간 심성(心性)의 구조, 사회에서의 인간의 자세(姿勢) 등에 관하여 깊이 사색함으로써 한당(漢唐)의 훈고학이 다루지 못하였던 형이상학적(形而上學的)·내성적(內省的)·실천철학적인 여러 분야에서 새로운 유학사상을 수립하였다. 중심 사상은 태극설(太極說)·이기설(理氣說)·심성론(心性論)으로 구별할 수 있다.

<주희의 중심사상>

- a. 태극설(太極說): 이것은 주돈이(周敦頤: 1017~1073)의 태극도설(太極圖說)을 계승·발전시킨 것으로 천리(天理)를 통해, 우주의 생성과 구조를 논한 이론이다. 주희가 말하는 ‘태극(太極)’이란, 천지만물의 총화이기 때문에 태극 안에는 ‘모든 이(理: 만리萬里: 온갖 이치)’가 다 구비되어 있다. 그래서 “태극에는 음양과 오행의 이리가 다 들어있으니, 텅 빈 것이 아니다(太極是五行陰陽之理皆有, 不是空的物事).”고 하였다. 고로, 각 사물에는 그 사물이 그러한 까닭으로서의 이(理)가 구비되어 있을 뿐 아니라, 태극의 전체도 구비되어 있다. 이로써 보면, 모든 사물은 그것 자신이 그러한 까닭으로서의 이(理) 이외에 또 태극(太極), 즉 모든 이(理)의 전체를 구비하고 있다. 그러므로 ‘태극은 모든 사물 안에 존재하지만 조각조각 분할되는 것이 아니고, 마치 달빛이 모든 강에 드리워지는 경우와 비슷하다(不是割成片去, 只如月印萬川相似).’라고 하여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 b. 이기설(理氣說): 이것은정이(程頤: 1033~1107)가 주장하였고 주희가 완성한 이론이다. 이(理)와 기(氣)에 대한 관념의 규정을 “천지 사이에는, 이(理: 이치)도 있고, 기(氣: 기운)도 있다(天地間, 有理有氣). 이치란 것은, 형이상학적 도이며, 만물이 생성하는 근본이다(理也者, 形而上之道也, 生物之本也). 기운은, 형이하학적 도구이며, 만물을 생성하는 기구이다(氣也者, 形而下之器也, 生物之具也).”라고 하였다. 또한 이 이(理)와 기(氣)의 전개순서에 대해서도 “아직 사물이 없을 때에도, 이치는 이미 갖추어져 있었다(未有事物之時, 此理已具).”고 하여, ‘이치’가 ‘사물’에 우선함을 설파하였다. 동시에 이러한 ‘이치’와 ‘기운’의 관계에 대한 존재성에도 이 “이리와 기기는 나누어져서 둘로 되지 않을 수 없다(不能不分爲二)”고 하였다. 운행 상에서 보면, 이기理氣의 관계는 분리할 수 없는 관계(畢竟理却只在這裏)라고 말하고 있다. 그리하여, 그것은 마치 사람이 말을 타는 것과 비슷하다(如人騎馬相似)고 하여, ‘이치’의 ‘운행’은 반드시 ‘기운’에 의거하고 있음과 동시에 운행 중에는 서로 분리될 수 없음을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이기설은 원래 인간의 불편적 본질인 성(性)을 인식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개된 것이어서, 만물의 변화는 요소인 현상태를 대변하는 기(氣)와 불변하는 요소인 본질태를 대변하는 이(理)를 이원적(二元的)으로 파악한 것으로, 학계에서는 주희가

완성한 이기론을 이기이원론(理氣二元論)이라고 칭한다.

- c. 심성론(心性論): 이것은 심성의 관계를 다루어, 마음의 능력에 대한 이해를 밝히고 있다. 그는 마음[心] 자체는 기(氣)에 속하여 이(理: 성性)에 합치될 수도 있고, 합치되지 않을 수도 있으나, 만약 마음의 활동이 이치에 합치되면, 선(善)이 되고 이치에 합치되지 않으면 악이 된다는 것이다. 인간은 마음의 작용에 따라서 이치를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이 있으므로, 마음의 기능은 곧 마땅히 이(理)를 지각(知覺)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보아, 이를 성정함양(性情涵養)의 문제로 제기하고 있다. 여기에서 인성의 두 가지 측면이 제시되면서 이에 대한 실천이론을 제기하고 있다.

<인성(人性) 두 측면>

- a. 본연지성(本然之性): 이것은 『중용(中庸)』의 “천명지위성(天命之謂性)”과 내용을 같이 하고 있는 초월적 의미의 성(性)인 것으로 구체적인 인간 이전에 이미 정해진 성(性)이며 또한 개체인 인간이 마땅히 따라야 할 인생의 목표이며, 그리고 어떤 점에서는 그 성(性)은 결코 모두다 실현할 수 없는 의미의 성(性)인 것이다. 그러므로 주자는 이러한 성(性)을 특별히 본연지성(本然之性)이라 하여 태극(太極)과 동일시하였다.
- b. 기질지성(氣質之性): 이는 기(氣)에서 발생함으로 ‘통합과 막힘, 치우침과 바름의 차별’이 생긴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는 바로 음양오행의 상호작용에서 생기는 편차이므로 여기에는 ‘본연지성’도 갖추어져 있다. 고로 ‘기질지성’에서, ‘본연지성’을 확충하여, ‘그 바르지 못한(不正)’ 혹은 ‘이치에 따르지 않는 것’을 없앤다는 ‘멸인욕(滅人欲)’을 통해, 명덕(明德)을 밝히는 소위 ‘심(心)·성(性)·정(情)과 덕(德)을 이루고자 본래의 양심을 잃지 않도록 착한 성품을 함양하는 것’이 제시되었으며, 이의 실천과정으로 거경(居敬)·궁리(窮理)·격물(格物)·치지(致知) 등의 설법이 제기되고 있다.

<실천이론>

이것은 성인(聖人)의 경지에 이르기 위한 당위성의 문제로 제기하는 실천이론이다.

- a. 거경(居敬): ‘거경(居敬)’의 ‘경’은 의지(意志)의 일면인 본디의 양심을 잃지 않도록 그 착한 성품을 함양하는 관념으로, “경敬지는 움직임[작용]과 고요함[본체]을 관통한다(敬字通貫動靜). 그러나 아직 발동되지 않았을 때, 한데 뒤섞여 있는 이것이 경敬의 본체이다(但未發時, 渾然是敬之體). 그것이 아직 발동되지 않았음을 알면, 경敬의 의지를 함양 하라는 것이 아니다(非是知其未發, 方下敬底工夫). 이미 발동한 뒤라면 일에 따라서 반성하고 살펴보게 되는데, 경敬의 작용이 거기서 행해진다(既發則隨事省察, 而敬之用行焉).”라는 것이다. 이리하여 경(敬)은 만리 밖을 관통하는 실천의 이론이 되었다. 그리하여 이는 또한 격물치지(格物致知)의 동력조건이 되기도 한다.
- b. 궁리(窮理)·격물(格物)·치지(致知): “이론바 치지致知가 격물格物에 있다는 것은, 나의 앎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사물[物]에 임하여 그 이

치를 캐물어 가는 데 있음을 말한다(所謂致知在格物者, 言欲致吾之知, 在即物而窮其理也).”라고 하여, 격물치지(格物致知)의 문제 상에 ‘궁리(窮理)’도 포괄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즉 ‘나의 앎을 넓힌다(致吾之知)’는 말로서 ‘치지(致知)’를 해석하고 그 다음은 ‘사물에 임하여 그 이치를 캐본다(即物而窮其理)’는 말로서 ‘격물(格物)’을 해석하여, 치지와 격물이 궁리(窮理)와 별개가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 그 결과 양자(兩者)는 안과 밖이 서로 응하며, 다시 한 걸음 나아가 궁리(窮理)와 치지(致知)는 동시에 완성된다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은연중 ‘개별적인 이치(秀別之理)’에서 ‘공동적인 이치(共同之理)’에 이르는 진로를 가리키는 것으로, 격물(格物)의 뜻은 역시 궁리(窮理)를 통하여 말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고로 여기서, 격물궁리(格物窮理)의 목적이란, 안으로는 ‘내 마음의 본체와 큰 작용(吾心之全體大用)’의 밝음(明)을 달성하려는 데 있고, 밖으로는 ‘관통된 이치(貫通之理)’를 파악하는데 있다. 또한 내 마음의 큰 작용이 밝혀지면, 안으로 그 덕을 완성할 수 있고(誠正), 밖으로는 문화를 이룰 수 있으니, 이른바 내성외왕(內聖外王)의 길이 이것이다. 이 가운데 수신(修身)은 또 다른 하나의 관건이 된다. (이상의 내용은 노사광勞思光 저著, 정인재鄭仁在 역譯 『중국철학사(中國哲學史)』(송명편宋明篇)과 풍우란馮友蘭 저著 박성규朴星奎 옮김, 『중국철학사』(하) 참조)

12) 이계장문(李季章云: 〈주자의 제자〉 이계장이 말하기를):

- ① 이계장(李季章: 1159~1222): 계장(季章) 이벽(李壁). 자는 계장, 호는 석림(石林)·안호거사(雁湖居士)이며, 시호(諡號)는 문의(文懿)이다. 예부상서(禮部尙書)·참지정사(參知政事)·동지추밀원사(同知樞密院事)·단명전학사(端明殿學士)·사자정전학사(賜資政殿學士) 등을 역임했다. 어릴 때 총명하여, 매일 일만여 언(一萬餘言)을 외었으며, 문사(文詞)도 대단히 정련(精練)하였고, 문채(文采)는 의기(義氣)가 넘쳤다. 당시의 재상(宰相) 주필대(周必大: 1126~1206)는 그의 문장을 보고 크게 감탄하여, “적선(謫仙) 이백(李白)의 재능을 지녔다(謫仙李白之才也).”고 칭찬하며, 즉시 비서성 정자(秘書省正字)로 기용하였다.

13) 여복지자(如僕知此: 저 같은 사람도 이 시를 압니다):

- ① 여복(如僕): 저 같은 사람.
☆여(如): ...와 같다.
☆복(僕): 대명사로 쓰였으며, ‘저, 소인.’의 뜻이다. (남자가 자기 자신을 낮추어 이르는 말이다.)
② 차(此): ‘이것’이란 뜻인데, 본 서문에서는 위에서 인용한 심약(沈約)의 시를 가리키는 말로 쓰였다. ‘이 시’로 번역한다.

14) 계장상미야(季章尙未也: 〈주자가 말하기를〉 계장季章 〈이벽李壁은 젊어서〉 아직 이별하는 심정을 알지 못합니다):

15) 해휴지제(解携之際: 헤어질 즈음):

- ① 해(解): 이산(離散)하다. 헤어지다.
② 휴(携): 이산(離散)하다 분리하다

16) 일인쇠모(一人衰暮: 사람이 만년이 되어서라면):

- ① 일인(一人): 어떤 사람. 누구이든.
 ② 쇠모(衰暮): 해질녘. 만년.
- 17) 족령만좌불락(足令滿座不樂: <전별연의> 좌석이 가득 찬 것이 매우 보기 좋지만 즐겁지만은 않을 것이다):
 ① 족(足): 아주. 매우. 충분히. 많이. 족히 …할만하다.
 ② 령(令): 동사로서, ‘좋다. 행복하다. 아름답다’의 뜻으로 쓰였다. 본 시의 서문에 서는 ‘보기 좋다’는 뜻으로 쓰였다.
- **역자해설:** 영지사(靈芝寺)에서 주자(朱子)가 사원(史院)의 동료들과 전별연을 하는데, 누군가 심약(沈約)이 지은 시 「안성(安成) 범수(范岫)를 송별하면서(別范安成)」를 읊자, 주자의 제자인 이계장(李季章)이 “저 같은 사람도 이 시를 압니다.”고 말하자, 훗날 주자가 이 계장에게 편지를 보내어, “나는 그 시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지만 자네는 아직 그 심정을 모른다(알 시기가 아니다)”고 하였다. 서애(西厓)가 쓴 본 시의 서문 내용은 『회암집(晦庵集)』 권29, 「이계장에게 보낸 서신(與李季章書)」에서 발췌한 것이다.
- 서애는 본 시의 서문에서 주희가 영지사(靈芝寺)에서 사원(寺院)의 동료들과 전별연을 할 때 있었던 실재상황을 훗날 그의 제자 이계장에게 보낸 편지에서 되새기는 것을 다시 발췌하여 사용함으로써, 그의 송별의 애뜻함을 크게 부각시켰다. 주희가 인용한 심약(沈約)의 시는 『문선(文選)』 10권에 보이고, 주희가 그의 제자 이계장(李季章)에게 제자를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쓴 편지는 『주자대전(朱子大傳)』 권29(卷二十九)·여이계장서(與李季章書)에 보인다. 서애는 그의 문인(門人)이며 동시에 질서(姪壻)가 되기도 하는 창원(昌遠) 김홍미(金弘微)와의 송별연에서 장차 그리워질 그에 대한 애뜻한 정감을 이와 같이 전고(典故)가 있는 발췌문을 삽입하여 표현함으로써 심분 별리(別離)의 정서를 현실감 있게 살리고 있다.
- 18) 기칠십(幾七十: 거의 칠십이 되다):
 ① 기(幾): 거의 …에 가깝다.
- 19) 재(才): 겨우.
- 20) 금일(今日):
 ① 현재. 목전(目前)에. 본 서문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② 오늘.
- 21) 막여약(莫余若): 나만큼은 …하다고 할 수 없다.
 ① 막약(莫若): 막여(莫如): …하는 것만 못하다.
- 22) 공졸(工拙): 우열(優劣)과 같은 말이다.
- 23) 관동여견서극부(關東如見徐克夫: 관동지방에서 극부(克夫) 서인원(徐仁元)을 만난다면):
 ① 관동(關東): 태백산지를 횡단하는 길목인 대관령(大關嶺)의 동쪽, 요즈음은 영동지방(嶺東地方)이라고도 한다.
 ② 여(如): 접속사로, ‘만약 …한다면’의 뜻으로 쓰였다.
 ③ 서극부(徐克夫): 극부 서인원(徐仁元):
 ☆서인원(徐仁元: 1544~1604): 이름은 인원(仁元), 자(字)는 극부(克夫), 호(號)는 명암(鳴巖). 본관은 이천(利川)이다. 단양(丹陽)·금화(金化)·부여(扶

餘)·춘천(春川) 등지에 군현부목(郡縣府牧)을 두루 역임했으며 갑자사마시(甲子司馬試)에 급제하여 학행(學行)으로 이름이 났다. 임인년(壬寅年: 1602년, 선조 35년)에 호조참의가 되고 원주부사를 거쳐서 그 이듬해인 계묘년(癸卯年: 1603년)에 강원도 관찰사를 역임했다. 갑진년(甲辰年: 1604년)에 벼슬을 그만두고 명암촌(鳴巖村)으로 퇴거하니 지금의 봉명(鳳鳴) 및 조양리(朝陽里)이다. 일찍이 춘천에 있을 때, 명암의 수석(水石)이 아름다움을 취하여 조그마한 정사(精舍: 집)를 짓고 전약재(傳約齋)라고 현판을 부치고 학문을 깊이 연구하고 성리학(性理學)을 깨우치는 근원을 만들었다. 관직 생활 중에 청렴했으며 평소에 인의(仁義)에 힘썼다고 한다.

- 24) 하곡(河曲): 하류(河流)가 꾸불꾸불 돌아 흐르는 곳.
- 25) 이수 유반천(里數踰半千: 이수리數로는 오백 리가 넘는다네):
- ① 이수(里數): ‘거리’를 ‘리(里)’의 단위로 나타낸 수.
 - ② 유반천(踰半千): 오백리를 넘다. 오백리 남짓하다.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강릉대도호부(江陵大都護府)』에, “강릉대도호부는 서울과의 거리가 6백리이다(江陵大都護府, 距京都六百里).”고 하였다.
 - ☆유(踰): (예정·제한을) 초과하다. 넘다(일정한 수치에서 벗어나 지나다).
 - ☆반천(半千): 천리의 절반으로 ‘오백리’를 표현한 말이다.
- 26) 지모(遲暮): 지모(遲莫) 또는 지모(遲暮) 또는 지모(遲暮)로도 쓴다.
- ① 만년(晩年)을 비유한 말이다. 본 시에서는 시절의 이별이란 뜻으로 쓰였다.
 - ☆지(遲): 점차. 완만히. 더디게.
 - ☆모(暮): 모(莫): 날이 저물다. 연로(年老)하다.
 - ② 해질 무렵. 저녁 무렵. 황혼.
- 27) 묘연(杳然):
- ① (심정이) 유연(悠然: 한가하고 침착하고 여유가 있음)하다.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 ② 요원한 모양.
 - ③ 유심(幽深)하다. 유적(幽寂: 쓸쓸하고 적막함)하다.
 - ④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으며 종적도 없는 것을 형용한 말이다.
 - ⑤ 그윽하고 먼 모양.
 - ⑥ 오래되어 기억이 알쏭달쏭한 모양.
- 28) 방초 진경도(芳草秦京道: 방초는 한양의 길설에서 자라고):
- ① 방초(芳草): 향기롭고 꽃다운 풀. 향초(香草). 기타 자세한 뜻은 「시7」 주석7)
 - ② ‘방초(芳草)’항목을 참조바람.
 - ② 진경도(秦京道): 한양(漢陽)의 길설.
 - ☆진경(秦京): 진(秦)나라의 도성(都城) 함양(咸陽)을 가리킨다. 본 시에서는 조선의 도성(都城) 한양(漢陽)을 대칭(代稱)하였다.
- 29) 청운 낙수변(晴雲洛水邊: 맑은 날 뜬 구름은 낙동강 강변에 머무네):
- ① 청운(晴雲): 맑은 하늘에 뜬 구름.
 - ② 낙수변(洛水邊): 낙동강 강변.
 - ☆낙수(洛水): 낙동강. 본 시에서는 하회마을 앞의 낙동강을 가리킨다. 하회마을 사람들은 하회마을 맞은편의 부용대 사이를 흐르는 강물을 ‘화천(花川)’이라고

부른다.

30) 지제루(知制淚) : 눈물 흘리지 않으려 한다.

① 지(知) : ...하기를 바라다. 욕구하다.

② 제(制) : 억제하다.

③ 루(淚) : 눈물.

31) 연련(漣漣) : 눈물을 줄줄 흘리다. 눈물이 줄줄 흐르다. 눈물이 흐르는 모양(‘줄줄’로 표현된다).

① 연(漣) : 눈물이 흐르다.

시140. 앞의 시에서 정감^{情感}을 다 표현하지 못하여 다시 지어 주다

詩140. 前言情不盡再贈¹⁾
전 언 정 부 진 재 증



貧別²⁾雖云苦,
빈 별 수 운 고

구말 많은 이별될까 말하기 괴롭지만,

難同老別情³⁾。
난 동 노 별 정

만년에 이별하는 심사 어찌
(젊을 때와) 같겠는가?

百年看落日⁴⁾,
백 년 간 낙 일

장시간 석양을 바라보고 있노라니,

萬事欲沾纓⁵⁾。
만 사 욕 첨 영

만사가 눈물에 갇꾼이 젖도록 울고 싶으네.

莫愛逢場⁶⁾飲,
막 애 봉 장 음

(서인원徐仁元을) 만나거든
음주만 즐기지 말고,

須傳臥閣聲⁷⁾。
수 전 와 합 성

은거처에서 읊은 이 시를 꼭 전하게나.

政成⁸⁾應不遠,
정 성 응 불 원

직무완성은 응당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霖雨濟蒼生⁹⁾。
림 우 제 창 생

단비처럼 백성을 구제하는 것일세.

- 1) 전언정부진재증(前言情不盡再贈 : 앞의 시에 정감을 다 표현하지 못하여 다시 지어 주다) :
- ① 전언(前言) : 앞에서 한 말. 본 시에서는 ‘앞에서 읊은 시’란 뜻으로 쓰였다. 곧, 「시139」의 시제(詩題) : 창원 김홍미가 강릉부로 가는 것을 송별하면서(送金昌遠赴江陵)의 시제(詩題)에서 읊은 시를 가리킨다.
- ② 정부진(情不盡) : 정을 다 표현하지 못하다.
 ☆정(情) : 정. 마음. 인정.
 ☆부진(不盡) : 다하지 못하다. 끝내지 못하다.
- 2) 빈별(貧別) : 군소리가 (군말이) 많아 장황한 이별이 되다.
 ① 빈(貧) : 군소리가 많아 장황하다. 번거롭다.
 ② 별(別) : 이별(하다).
- 3) 난동 로별정(難同老別情 : 만년에 이별하는 심사 어찌 <젊을 때와> 같겠는가) :
- ① 난(難) : 의문부사로, ‘어찌…할 수 있겠는가?’의 뜻으로 쓰였다.
 ② 별정(別情) :
 ☆이별의 심사(心思 : 심정. 감정. 정).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또 다른 이유(원인)
- 4) 백년 간낙일(百年看落日 : 장시간 석양을 바라보면서) :
- ① 백년(百年) :
 ☆시간이 장구(長久 : 오래 됨)함을 이르는 말. 장시간.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사람의 수명이 백세까지 살 수 있다는 말.
 ☆백세 되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
 ☆일생. 종신(終身).
 ☆‘죽음’을 완곡하게 이르는 말.
- ② 낙일(落日) : 석양.
- 5) 첨영(沾纓) : 눈물이 흘러 갓끈을 적시다. 통곡하여 몹시 슬퍼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다.
 ① 첨(沾) : 적시다. 젖다.
 ② 영(纓) : 갓끈.
- 6) 봉장(逢場) :
 ① 만나게 되다.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② 상봉하는 장소. 김홍미(金弘微)가 극부(克夫) 서인원(徐仁元)*을 찾아가서 만나는 장소를 가리킨다.
 *서인원(徐仁元 : 1544~1604) : 이름은 인원(仁元), 자(字)는 극부(克夫), 호(號)는 명암(鳴巖). 본관은 이천(利川)이다. 자세한 것은 앞의 「시139」의 주석23)의 ③ ‘서극부(徐克夫)’ 조항을 참조바람.
- 7) 와합성(臥閣聲 : 은거처에서 읊은 시가(詩歌) :
 본 시에서는 퇴직이후 화하마을에서 읊은 시가(詩歌)를 이렇게 ‘와합성(臥閣聲)’으로 표현한 것 같다. 사실 이 ‘와합(臥閣)’이란 용어는 서한(西漢)의 정치가 급암(汲黯)의 동해태수(東海太守) 시절의 실화(實話)에서 비롯되었다.

- ① **와합(臥閤)**: 와치(臥治): 이는 유위(有爲: 작위作爲)로써, 무리수(無理數)의 인치(人治)를 하는 것이 아니라, ‘무위(無爲)’로써 사람이 힘들어 하지 않고도 정치를 잘 한다는 뜻이다. 이는 『사기(史記) 권120 급암열전(汲黯列傳)』에 의거하면, 서한(西漢)의 급암(汲黯)*이 동해태수(東海太守)가 되었을 때, 병이 들어 합문(閤門) 안에 누워 정사를 오랫동안 돌보지 못했음에도 동해(東海)가 잘 다스려졌다고 하는데서 유래된 말이다. 본 시에서는 급암의 위정(爲政) 원칙 “자기가 직접 일을 처리하지 않고, 하급관리가 자신을 대신하여 일을 처리하게 만드는 이른바 상무위이하유위(上無爲而下有爲)”의 황로정치식(黃老政致式) 통치에 깃든 애민의식(愛民意識)을 염두에 두고 있음을 시사한듯하다.

***급암(汲黯):** ?~BC 112?: 서한(西漢) 복양(濮陽) 사람. 자는 장유(長孺)다. 경제(景帝)때 음보(蔭補)로 태자세마(太子洗馬)가 되었다. 무제(武帝) 초에 알자(謁者)가 되어 하남(河南) 지역의 화재(火災)를 시찰했는데, 제문(制文: 황제의 명령서)을 고쳐 창고를 열어 이재민을 구휼했다. 외직으로 나가 동해태수(東海太守)가 되었는데, 형벌을 경감하고 정치를 간소하게 집행하면서 가혹하거나 지나치게 상제한 처결을 하지 않아 치적을 올렸다. 불러 주작도위(主爵都尉)에 올라 구경(九卿)의 한 사람이 되었다. 사람 됨됨이가 충간을 좋아하고 정쟁(廷爭)을 거침없이 제기했는데, 무제가 속으로는 욕심이 많았지만 겉으로 인의(仁義)를 많이 베푼 것도 그의 힘이 컸다. 무제가 그를 두고 ‘사직(社稷)을 지탱하는 신하라 칭송했다. 또 흉노와의 화친을 주장하고 전쟁은 반대했다. 승상 장탕(張湯)과 어사대부(御史大夫) 공손홍(公孫弘) 등을 문서로 장난을 쳐 법을 농간하는 법률 만능주의자요 천자에 아첨하는 영교지도(佞巧之徒)라 비난했다. 황로지도(黃老之道)와 무위(無爲)의 정치를 주장하며 왕에게 간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러한 직언으로 인해 면직되어 몇 년 동안 전원에서 지내기도 했으나, 다시 불러 회양태수(淮陽太守)가 되고, 재직 중에 죽었다. 이처럼 급암의 일생은 황로의 도(道)와 무위의 정치에 입각하여, 시종 황제는 물론이고 당시의 고관대작들에게도 정도(正道)를 벗어나면 면전에서 직언하는 원칙주의자로 살았던 사람이다.

☆와(臥): 은거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다.

☆합(閤): 협실(夾室: 곁방). 서예자신의 거처지를 표현한 말이다.

- ② **성(聲):**

☆시가(詩歌)를 읊다. 또는 읊은 시가.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언어.

- 8) **정성(政成):** 직무를 실현하다. 직무실현.

- ① **정(政):** 직무(職務). 『국어(國語)·진어1(晉語一)』에, “직무를 포기하고 전투를 하는 것은, 당신의 임무가 아니다(棄政而役, 非其任也).”

- ② **성(成):** 완성(하다). 실현(하다).

- 9) **임우 제창생(霖雨濟蒼生):** 단비처럼 백성을 구제하는 것일세):

- ① **임우(霖雨):**

☆단비[甘雨]. 시우(時雨: 적절한 시기에 맞추어 내리는 비). 본 시에서 쓰인 용어는 이 뜻이지만 아래의 주석 ‘제세택민(濟世澤民)’을 가리키는 뜻으로 쓰였다.

☆제세택민(濟世澤民 : 세상을 구제하고 백성에게 은혜를 베풀)을 비유하는 말.
☆장맛비. 연일 계속하여 내리는 비.

시141. 이백李白의 시를 차운次韻하여, (창원昌遠
김홍미金弘微가) 강릉부江陵府로 가는 것을
거듭 송별하면서

詩141. 次李白韻¹⁾ 重別²⁾江陵之行
차 이 백 윤 중 별 강 능 지 행



客從鄉國出³⁾,
객 종 향 국 출

김서방이 고향에서 출발하여,

遙向溟州⁴⁾去。
요 향 명 주 거

멀리 명주溟州를 향해 가는 길이라네.

關山⁵⁾一千里,
관 산 일 천 리

향리鄉里에서 노정路程이 천리나 되는데,

迢遞隔烟樹⁶⁾。
조 제 격 연 수

먼먼 곳까지 운무雲霧 덮인
수림으로 가려졌네.

老年⁷⁾不再少,
노 년 부 제 소

노인이 되면 다시 젊어지지 않나니,

一別難相遇⁸⁾。
일 별 난 상 우

한 번 이별하면 (다시) 서로 만나기 어려우리.

行塵望易斷⁹⁾,
행 진 망 이 단

(자네) 떠난 길에 먼지 일어
시야 흐려도 바라보자니,

淚眼昏如霧。
누 안 혼 여 무

눈에 눈물 맺혀 안개 낀 듯 침침해지네.

1) 차이백운(次李白韻 : 이백의 시를 차운하다) :

- ① 차…운(次…韻) : 앞의 「시20」 주석1)의 ‘차운(次韻)’ 조항 참조바람.
- ② 이백(李白 : 701~762) : 그의 호적지는 당(唐)나라 농서군(隴西郡) 성기현(成紀縣), 즉 지금의 감숙성(甘肅省) 천수현(天水縣)이나, 출생지는 그의 선조가 수(隋) 말엽에 서역(西域)을 떠돌아다녔던 까닭에, 안서도호부(安西都護府)의 채엽성(碎葉省), 즉 지금의 중앙아시아 바이칼호(Baikal湖) 서쪽이다. 후에, 지금의 사천성(四川省)으로 이사하였다가 다시 산둥(山東)으로 이사를 하였기에, 그를 산둥인(山東人)으로도 칭한다. 그의 자는 태백(太白), 호는 청련거사(靑蓮居士)이다. 시성(詩聖) 두보(杜甫)와 함께 ‘이·두(李杜)’로 병칭되는 중국 최고의 시인이며 시선(詩仙)이라 불린다. 그는 맹호연(孟浩然), 원단구(元丹邱), 두보(杜甫), 고적(高適) 등 많은 시인과 교류하면서, 각 지역을 유력(遊歷)했다. 43세 즈음에 현종(玄宗)의 부름으로 장안(長安)에 들어가 한림공봉(翰林供奉)이 되었던 1~2년이 관직생활의 전부였다. 그러나 결국 현종의 충신 고역사(高力士)의 마음을 받아 궁에서 쫓겨났다. 그 뒤 각 지역을 유력하다가 안록산(安祿山)의 난 때 촉(蜀) 땅으로 피난한 현종의 아들, 영왕(永王) 인(璘)의 막료가 되었으나, 역시 현종의 아들인 형(亨 : 훗날의 숙종肅宗)에게 패하여 유배가게 된다. 곽자의(郭子儀)의 도움으로 사면(赦免)되었으나, 이미 그의 나이 59세였다. 노쇠한 탓에 지금의 안휘성(安徽省) 회원현(懷遠縣)에 사는 친척, 이양빙(李陽氷)에게 위탁 생활을 하던 중 병사했다. 이백의 생애는 방랑으로 일관했다. 청소년 시절에는 독서와 검술에 정진하고 유협(游俠)들과 어울리기도 하였고, 민산(岷山)에서 선술(仙術)을 닦기도 하였다. 그의 방랑은 정신적 자유를 찾는 꿈의 비상(飛翔)이었다. 그에게도 현실에 대한 관심이 컸고 인생의 우수(憂愁)와 적막에 대한 절절한 관조(觀照)가 있었으나 세상사에 관심을 가지는 방식과 관조(觀照)의 양태가 두보와는 크게 달랐다. 두보가 언제나 인간중심의 고뇌를 시의 제재(題材)로 했다면, 이백은 오히려 인간을 초월하고 인간의 자유를 구가(謳歌)하였다. 인생의 고통과 비수(悲愁)까지도 혼돈화하여 그곳으로부터 비상하려 하였다. 술은 그가 그렇게 비상하는 하나의 수단이었으며, 그의 시를 지탱하고 있는 것은 협기(俠氣)와 신선(神仙)과 술이었다. 두보가 오언율시에 뛰어났다면, 이백은 악부와 칠언절구를 장기로 하였다. 현존하는 최고(最古)의 시문집은 송대에 편찬된 것이며, 약 1,100여 편의 작품이 전해진다. 청대의 학자 왕기(王琦)가 편찬한 『이태백시집주(李太白詩集注)』가 있다.

2) 중별(重別) : 중송(重送) : 거듭 이별하다. 거듭 송별하다. 창원(昌遠) 김홍미(金弘微 : 1557~1604)는 서애(西厓) 류성룡(柳成龍 : 1542~1607)의 문인(門人)이자 절서(姪婿 : 겸암謙菴 류운룡柳雲龍(1539~1601)의 사위인)인 까닭에, 강릉행을 앞두고, 스승덕과 처가가 있는 하회(河回)에 와서 며칠 머문 것으로 보이며, 이때 김홍미는 하회에 도착해서 강릉행을 말씀드리고 떠날 때 작별인사를 올림으로서, 서애의 입장에 서는 거듭하여 이별 인사를 받는 것이 되며 이때마다 시문을 주고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3) 객중향국출(客從鄉國出 : 김서방이 고향에서 출발하여) :

- ① 객(客) : 문객(門客). 백년손님. 사위. 일반적으로 경북 안동지방에서는 집안의 사

위를 존칭하여 ‘문객’이라고 부른다. 또한 사위를 ‘백년손님’이라고 하기 때문에, ‘손 객(客)자’를 붙여서 ‘취객(聚客)’이라고도 칭한다. 이를 문중(門中)으로 확대 해서 볼 때는 취객을 ‘문객(門客)’이라고 칭한다. 본 시에서의 ‘객’은 문객의 약칭으로 쓰였으며, 창원(昌遠) 김홍미(金弘微)가 서애(姪壻)이기에 이와 같이 칭한 것이다. 그래서 본시에서는 ‘객(客)’을 ‘김서방’이라고 번역한다.

② 향국(鄉國):

☆고향. 가향(家鄉).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고국(故國).

a. 국(國): 고향. 가향(家鄉). 당나라의 시인 노선(盧僊: ?~708)의 시 「누대에서 남녘을 바라보며(南望樓)」에서, “고향 떠나 삼파삼바 땅 먼 곳까지 와서, 누각에 올라보니 온 천지가 봄일세(去國三巴*遠, 登樓萬里春).”라고 읊은 사구(詩句)가 있다.

*삼파(三巴): 남조(南朝) 송(宋)나라 시대에 지명으로 지금의 사천성(四川省) 봉절현(奉節縣) 일대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지금의 중경시(重慶市: 중국 서남부 사천분지(四川盆地) 동남부에 위치함)와 호북성(湖北省)에 걸쳐 있는 삼협(三峽) 부근의 파군(巴郡)·파동(巴東)·파서(巴西)의 삼파(三巴)라고 칭한다.

4) 명주(溟州): 신라 9주(九州)의 하나이다. 선덕왕(善德王) 때 소경(小京)을 두었다가 658년(태종무열왕 4)에 경(京)을 파하고 주(州)를 두고, 757년(경덕왕景德王 6)에 명주(溟州)로 고쳤다. 지금의 강릉(江陵)이다.

5) 관산(關山):

① 고향. 향리(鄉里).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② 관문(요새, 요충지)이 있는 산령(山嶺). 난관(難關)을 비유한 말로도 쓴다.

③ 고향에 있는 산.

6) 초체 격연수(迢遞隔烟樹: 먼먼 곳까지 운무雲霧 덮힌 수림으로 가려졌네):

① 초체(迢遞): 초체(迢遞): 초체(迢遞)로도 쓰고, 초체(迢遞)로도 쓰며, 초체(迢遞)로도 쓴다. 앞의 「시58」 주석7)의 ‘초체(迢遞)’ 조항 참조바람.

② 연수(烟樹): 연수(煙樹)로도 쓰며, 아지랑이나 안개가 끼어 흐릿하게 보이는 나무나 숲을 이르는 말이다.

7) 노년(老年): 노년. 노령(老齡). 노인.

8) 상우(相遇): 서로 만나다. 상봉(相逢)하다.

9) 행진 망이단(行塵望易斷: 〈자네〉 떠난 길에 먼지 일어 시야 쉬이 흐려져도 바라보자니):

① 행진(行塵): (말 타고) 갈 때 일어나는 먼지. 여행객이 가는 길에 이는 먼지. 원행자(遠行者: 먼 길 가는 사람)를 형용하는 말로 자주 쓰는 말이다.

② 망이단(望易斷): (먼지가 일어) 안보이기 쉬워도 바라보다.



시142. 창원 昌遠 김홍미 金弘微의 시를 차운하여 지은 시를 또 주다

詩142. 次昌遠韻又贈¹⁾
차 창 원 운 우 증

難將弱柳繫行舟²⁾,
난 장 약 유 계 행 주

가는 버들가지로 떼내려가는
배 묶어 매기도 어려운데,

日暮烟波³⁾無限愁。
일 모 연 파 무 한 수

날 저물고 수면에 연무 끼어
몹시 걱정스럽네.

山窓⁴⁾別後梅花發,
산 창 별 후 매 화 발

산 쪽으로 난 창 앞에 이별 후
매화가 피었는데,

折取瓊枝不自由⁵⁾。
절 취 경 지 부 자 유

아름다운 매화가지 꺾고 싶지만
몸이 불편하네.

1) 차창원운우증(次昌遠韻又贈: 창원 김홍미의 시를 차운하여 지은 시를 또 주다):

① 차·운(次·韻): 「시20」 주석1)의 ‘차운(次韻)’ 조항을 참조바람.

② 창원(昌遠): 창원 김홍미(金弘微). 앞의 「시139」 주석1)의 ‘김창원(金昌遠)’ 조항을 참조바람.

2) 난장약유 계행주(難將弱柳繫行舟: 가는 버들가지로 떼내려가는 배 묶어 매기도 어려운데):

① 난장약유(難將弱柳: 약한 버들가지로 ...하기 어렵다):

☆난(難): 형용사 술어로 ‘...하기 어렵다’의 뜻으로 쓰였다.

☆장약유(將弱柳) : 연약한(가느다란) 버들가지로써.

a. 장(將) : 개사(介詞)로 쓰여, ‘…로써’의 뜻으로 쓰였다.

b. 약유(弱柳) : 위의 개사의 목적어로, ‘연약한(가느다란) 버들가지’의 뜻으로 쓰였다.

② 계행주(繫行舟) : (연약한 버들가지로써) 가는 배를 붙들어 매다.

☆계(繫) : (붙들어) 매다.

3) 연파(煙波) : 연파(煙波)로도 쓴다.

① 연무(煙霧)가 뿌연게(아득히. 망망하게) 낀 수면을 가리키는 말이다.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② 시문(詩文)의 기복(起伏)이나 변화를 비유한 말.

4) 산창(山窓) :

① 산 쪽으로 난 창.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② 산중에 있는 집의 창.

5) 절취경지 부자유(折取瓊枝不自由 : 아름다운 매화가 지 꺾고 싶지만 몸이 불편하네) :

① 절취(折取) : 꺾어 가지다.

② 경지(瓊枝) : ‘옥과 같이 아름다운 나뭇가지’란 말인데, 이는 ‘이화(梨花)나 매화(梅花) 같은 아름다운 나뭇가지를 비유적으로 쓰는 말’이다. 본 시에서는 매화나 무가지를 가리키는 말로 쓰였다.

☆경(瓊) : 아름다운 홍옥(紅玉)의 일종인데, 전(轉)하여, 사물에 대한 미칭(美稱)으로 쓰인다.

a. 전설상의 옥수(玉樹 : 신선 나무의 명칭). 전국시대 초(楚)나라 정치가이자 시인인 굴원(屈原 : 약 BC 339~약 BC 278)의 『초사(楚辭)·이소(離騷)』에, “총망하게 나는 이 춘산궁春神宮에 놀러가서, 옥수 몇 가지를 꺾어 허리에 찼네(謠*吾遊此春宮*兮, 折瓊枝*以繼佩).”라고 읊은 구절이 있다.

*합(謠) : 분주히. 총망하게. 황급히.

*춘궁(春宮) : 춘신(春神 : 봄의 신). 동방청제(東方靑帝)가 거처하는 곳.

*경지(瓊枝) : 옥수(玉樹)의 가지.

b. 현재(賢才)를 비유하는 말.

c. 미녀를 비유하는 말.

d. 촛불을 비유하는 말.

e. 목면수(木棉樹)의 별칭.

③ 부자유(不自由) : 자유롭지 못하다. 본 시에서는 와병중이라 몸을 맘대로 움직일 수 없어 불편하다는 뜻으로 쓰였다.



시143. 서원부원군西原府院君 정탁鄭琢 공公의
타계를 애도하면서

詩143. 輓西原府院君鄭琢¹⁾
만 서 원 부 원 군 정 탁

麟閣奇勳黃閣老²⁾,
린 각 기 훈 황 각 로

기린각麒麟閣에 공훈 기록된 재상
타계하고 보니,

人間壽福獨能全。
인 간 수 복 독 능 전

(공공께서는) 인간의 은수복壽福을
특별하게 모두 보존하셨네요.

忠深轡勒忘身日³⁾,
충 심 기 적 망 신 일

충심 깊어 어가御駕 호종扈從 때는
일신一身의 안위安危 잊으셨고,

寵極園田謝事年⁴⁾.
寵 극 원 전 사 사 년

주군主君 총애 깊어도 사직 청해
전원田園에서 세월 보내셨지요.

遺業會看良史錄⁵⁾,
유 업 회 간 양 사 록

불후의 업적은 양사록良史錄에서
볼 수 있고.

懸車留與子孫傳⁶⁾.
현 거 유 여 자 손 전

안거安車는 담벼락에 걸어놓고
자손에게 전하게 됐네요.

傷心耆舊無多在⁷⁾,
상 심 기 구 무 다 재

연로한 훈구신료勳舊臣僚 중에
생존한 분 많지 않아 상심되는데,

鄉社春歸倍愴然⁸⁾。
향사춘귀배창연

(정공鄭公 안 계신) 향리에 봄이 오면
가슴이 곱절로 아플 것이되다.

- 1) 만서원부원군정탁(輓西原府院君鄭琢: 서원부원군 정탁의 타계를 애도하면서):

- ① 만(輓) : 사자(死者)를 애도하다.

- ② 서원부원군(西原府院君) 정탁(鄭琢):

☆서원부원군(西原府院君): 정탁(鄭琢)이 정1품 공신으로서 받은 칭호

정탁(鄭琢: 1526~1695): 조선 중기의문신. 본관은 청주(淸州). 자는 자정(子精). 호는 약포(藥圃)·백곡(栢谷). 예천 출신. 현감·원로(元老)의 증손으로 이충(以忠)의 둘째 아들이며, 이항(李滉: 1501~1570)의 문인이다. 1552년(명종 7) 성균관 생원시를 거쳐 1558년 식년문과(式年文科: 자자·오유·묘묘·유酉 등의 간지干支가 들어있는 해에 실시하던 문과과거시험)에 병과(丙科: 성적에 따라 나눈 등급의 하나로, 갑과甲科는 3명, 을과乙科는 7명, 병과丙科는 23명이었으며, 병과에 합격하는 자는 정9품의 품계를 주었음)고 급제하였다. 1565년 정언(正言: 조선 시대 사간원司諫院의 정6품 관직)을 거쳐 예조정랑(禮曹正郎: 예조의 정5품 벼슬)·헌납(獻納: 사간원의 정5품 벼슬) 등을 지냈다. 1568년 춘추관기주관(春秋官記注官: 춘추관의 정5품 벼슬)을 겸직하고 『명종실록(明宗實錄)』 편찬에 참여하였다. 1572년(선조 5) 이조좌랑(吏曹佐郎: 이조의 정5품 벼슬)이 되고, 이어 도승지(都承旨: 승정원承政院의 정3품 벼슬)·대사성(大司成: 성균관의 정3품 관직)·강원도관찰사 등을 역임하고 1581년 대사헌(大司憲: 사헌부司憲府의 종2품 관직)에 올랐으나, 장령(掌令) 정인홍(鄭仁弘: 1535~1623), 지평(持平) 박광옥(朴光玉: ?~1593)과 의견이 맞지 않아 사간원의 제청(啓請)으로 이조참판(吏曹參判)에 진임되었다. 1582년 진하사(進賀使)로 명나라에 갔다가 이듬해 돌아와서 다시 대사헌에 재임되었다. 그 뒤 예조(禮曹)·형조(刑曹)·이조(吏曹)의 판서(判書: 정2품 벼슬)를 역임하고, 1589년 사은사(謝恩使)로 명나라에 다시 다녀왔다.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좌찬성(左贊成)으로 왕을 의주(義州)까지 호종(扈從)하였다. 경사(經史)는 물론 천문·지리·상수(象數)·병가(兵家) 등에 이르기까지 정통하였다. 1594년에는 곽재우(郭再祐: 1552~1617)·김덕령(金德齡: 1567~1596) 등의 명장을 천거하여 전란 중에 공을 세우게 하였으며, 이듬해 우의정(右議政)이 되었다. 1597년 정유재란(丁酉再亂: 임진왜란 뒤의 풍신수길(豐臣秀吉: 1536~1598: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화의和議 조건 탈사로 인하여 조선 14대 선조宣祖 30년(1597년) 정월에 한 번 패한 왜군 가등청정(加藤清正: 1562~1611: 가토요 키요마사 군의 14대 대군이 병력을 이끌고 다시 쳐들어온 난리)이 일어나자 72세의 노령으로 스스로 전장에 나가서 군사들의 사기를 앙양시키려고 하였으나 왕이 연로함을 들어 만류하였다. 특히, 이해 3월에는 옥중의 이순신(李舜臣: 1545~1598)을 구력 신구(伸救)하여 죽음을 면하게 하였으며, 수륙병진협공책(水陸併進挾攻策)을 건의하였다. 1599년 병으로 일시 귀향하였다가 이듬해 좌의정(左議政: 의정부議政府의 정1품)에 승진되고 판중추부사(判中樞府事: 중추부의 정3품 벼슬)를 거쳐, 1603년 영중추부사(領中樞府事:

樞府事 : 중추부에 두었던 정1품 관직)에 오르고, 이듬해 호종공신(扈從功臣) 3등에 녹훈되었으며, 서원부원군(西原府院君)에 봉하여졌다. 경성북도 예천(醴泉)의 도정서원(道正書院)에 제향(祭享)되었다. 저서로는 『약포집(藥圃集)』·『용만문견록(龍灣聞見錄)』 등이 있다. 시호는 정간(正簡)이다.

2) 인각기훈 황각로(麟閣奇勳黃閣老) : 기린각(麒麟閣)에 공훈 기록된 재상 타계하고 보니) :

① 인각기훈(麟閣奇勳) : 기린각에 탁월한 공적(功績)을 남기다.

☆인각(麟閣) : 인각(麟閣)으로도 쓰며, ‘기린각(麒麟閣)’의 약칭이다. ‘기린각’은 한대(漢代)의 누각명칭이다. 미양궁(未央宮) 궁내(宮內)에 있었는데, 한선제(漢宣帝 : BC 91~BC 49) 당시에 무장 광광(霍光 : ?~BC 68) 등 11명의 공신(功臣)들 초상을 그려 누각에 모시고, 그들의 공적을 표양(表揚)하였다. 이후 많은 공신과 현재(賢才)의 초상을 이 기린각에 그려서 걸어두고 그들의 탁월한 공훈을 표시하였으며, 그것을 최고의 영예로 여겼다. ‘기린(麒麟)’은 전설로 전해오는 상상의 동물로서, 안면 모습은 사슴을 닮았고, 머리에 뿔이 돋았으며, 전신의 피부는 비늘로 덮였고, 꼬리는 소, 발굽은 말발굽을 닮았다. 고대 사람들은 이 짐승을 인수(仁獸 : 어진 짐승)인 동시에 서수(瑞獸 : 상서로운 짐승)라고 여겨서, 상서로움을 상징할 때, 이 동물의 이름을 썼다. 수컷을 기(麒), 암컷을 린(麟)이라 하였다. 본 시에서는 ‘공신(功臣)의 이름을 기록하는 공신록(功臣錄)’을 가리키는 말로 쓰였다.

☆기훈(奇勳) : 기훈(奇勳)이라고도 쓰며, 탁월한 공훈(功勳) 혹은 탁월한 공적이라는 뜻이다.

② 황각로(黃閣老) : 재상이 타계하다.

☆황각(黃閣) :

a. 황합(黃閣)으로도 쓴다. 황각은 재상의 집무실이다. 한대(漢代)의 승상(丞相)·태위(太尉 : 무장武將 최고위직 칭호 중의 하나)와 한(漢)나라 이후의 3공관서(三公官署)는 주문(朱門 : 붉은 칠을 한 문門)을 피하고 관청문을 황색으로 칠해서 천자와 구별하였다. 이러한 까닭에 훗날 ‘황각(黃閣)’을 ‘재상관서(宰相官署)’를 가리키는 뜻으로 썼다. 당(唐)나라 시대에는 문하성(門下省 : 황제의 근친 시종으로 구성된 관원으로 조직된 관청으로 시작하여, 시대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광범위하게 국정에 관여하였고, 으뜸 벼슬을 시종侍中이라 하였으며, 특히 황제 정령政令의 최고 심의기관으로 중서성中書省·상서성尚書省과 병칭하여 삼성三省이라 하였으며 군국정무軍國政務를 공동 관리하였음)을 황각(黃閣)이라고도 칭했다.

b. 재상(宰相)을 가리키는 말로도 썼다.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명나라 화곡작가 장사유(張四維 : 1526~1586)가 편집한 전기집(傳奇集 : ‘전기傳奇’란 명칭은 문학의 한 장르로 이는 기이奇異한 사실事實을 제재題材로 한 소설이나 희곡戲曲을 말하는 것임. 당대唐代의 문언소설文言小說과 명대明代의 희곡戲曲을 학계學界에서는 ‘전기(傳奇)’라고 칭함. 특히 명대의 희곡戲曲을 ‘전기傳奇’라고 칭함은 희곡의 제재題材를 대부분 전기傳奇에서 취해 왔기 때문임)인 『쌍열기(雙烈記)·변원장(辨冤章)』에, “무슨 말을 하더라도 재상의 경륜은 전국 각지를 인도(引導)한다(說甚麼黃閣經綸肅萬方).”고 한 구절이 있다.

☆로(老):

- a. ‘사망(死亡)’을 완곡하게 표현하는 말. ‘타계(他界)하다. 별세(別世)하다’로 되풀이 된다.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원(元)나라 회족(回族) 출신의 문인 살도랄(薩都刺: 1272~1340)의 「여몽곡(如夢曲)·연장군을 애도하면서(哀燕將軍)」에, “부용화는 누구를 위해서 아름다운고? 침실에서는 어젯 밤 연장군이 돌아가셨네(芙蓉花, 爲誰好? 洞房昨夜將軍老).”라고 읊은 구절이 있다.
- b. 관리(官吏) 혹은 신료(臣僚)에 대한 존칭 혹은 존자(尊者) 혹은 수장(首長).

- 3) 충심기적 망신일(忠深機執忘身日: 충심 깊어 어가御駕 호종 때는 일신一身 안위安危 잊으셨고):

****역지주석:** 「정탁연보(鄭琢年譜)」에 의거하면, 임진왜란이 발발하자 정탁이 평안도로 몽진 갈 것을 강력하게 주장했으며, 약방 부제조(藥房副提調)로서 윤두수(尹斗壽: 1533~1601)와 함께 선조의 진찰을 청하였다. 또한 세자이사(世子貳師: 세자시강원世子侍講院의 종1품 벼슬)로서 분조(分朝: 임진왜란 때 선조가 본조정本朝廷과 별도로 임시로 설치한 조정. 선조가 의주義州 방면으로 피난하면서 세자 광해군을 따로 함경도로 피란시킬 때, 선조가 있던 의주의 행재소行在所와 구분하여 세자가 있던 곳을 이르던 말임)를 이끌기도 하였다.

- ① 충심(忠深): 충성심이 확고하다.

☆심(深): 확고하다. 견고하다.

- ② 기적(機執): 기양(機輓)과 같은 말로, ‘말고삐’란 뜻이다. ‘구속(억제. 속박)을 받는 것’을 비유한 말로도 쓴다. 본시에서는 ‘어가를 호종하다’의 뜻으로 쓰였다.

****역지주석:** 『약포집(藥圃集)』 제7권 「부록: 동궁치제문(東宮致祭文)」에, “고생스레 어가를 호위하며, 홀로 충정을 다 바쳤네(間關*機執*, 獨也忠貞).”라는 구절이 보인다.

*간관(間關): 길이 울퉁불퉁하여 걷기 곤란한 상태.

*기적(機執): 말고삐를 잡아끌다. 전(轉)하여, 어가(御駕)를 호종하다.

☆기(機): 굴레(말고삐 중의 입언저리에 있는 부분).

☆적(執): 고삐의 한 끝을 말의 재갈에 잡아매어 끄는 줄. ‘양(輓)’은 ‘가슴걸이’임.

- ③ 망신일(忘身日): 타계하는 날. 일신의 안위(安危)를 염두에 두지 않는 나날들이었다.

☆망신(忘身):

- a. 일신의 고통과 괴로움을 완전히 잊은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④ 망(忘): 잊다. 잊어버리다.

- b. 육신이 없어지다. 곧 ‘사망’을 가리킨다.

④ 망(忘): ‘망(亡: 없어지다. 없다)’과 통한다.

- 4) 충극 원전사사년(寵極園田謝事年: 주군 충에 깊어도 사직 청해 전원田園에서 세월 보내셨네):

****역지주석:** 「약포연보」에 의거하면, 1595년 우의정에 오르고, 1600년에 좌의정에

제수된 이후 두 번에 걸친 상소를 통해, 사임을 허락받은 후, 귀향하여 예천 고평에 터를 잡고 고평동계(高坪洞契: 鄉約)를 만들어 주민을 교도하고 고평들을 개간하여 복지 증진에도 힘썼다. 본 시구는 평측률을 범하지 않기 위해, 시문(詩文)의 구조보다는 시의 성률(聲律)에 맞추어 놓았다. 본 시는 측기격(仄起格) 7언율시로 제4구(頷聯)인 본 시구는 ‘측측평평측측평’의 성률을 지닌다. 그래서 본시구의 표현을 시의(詩意)에 준하여 표현하면, ‘총극사사 전원년(龍極謝事田園年)’로 써야하나, 이렇게 쓰면, ‘평측측측평평평’이 되어 완전히 犯律이 되므로, ‘총극원전 사사년(龍極園田謝事年)’으로 표현한 것이다.

- ① 총극(龍極): 은총(恩寵: 총애寵愛)이 지극하다.
- ② 원전 사사년(園田謝事年): 전원에서 세속사 피해 세월 보내다.
 ☆원전(園田): 전원(田園). 원포(園圃: 과일나무와 채소 따위를 심어 가꾸는 뒤란이나 밭)와 전지(田地: 논과 밭을 아울러 이르는 말).
 ☆사사년(謝事年): 세속사(世俗事)를 피하는 세월.
 a. 사사(謝事): 사직(辭職)하다.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b. 년(年): 세월(을 보내다).

5) 유업 회간양사록(遺業會看良史錄: 불후의 업적은 양사록良史錄에서 볼 수 있고):

- ① 유업(遺業):
 ☆후대(後代)에 전해주는 불후의 사업.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선대(先代)로부터 전해오는 사업.
 ☆선대가 남긴 산업, 곧 유산(遺産)을 말한다.
- ② 회간양사록(會看良史錄): 양사록에서 볼 수 있다.
 ☆양사록(良史錄): 우수한 사관(史官)이 기록한 역사기록. 있는 사실 그대로 공명정대하게 기록한 역사책을 가리킨다.
 a. 양사(良史): 우수한 사관(史官). 직필(直筆)할 수 있고 기사(記事)에 신뢰할 수 있고 검증을 거친 사관(史官)을 가리킨다.

6) 현거유어 자손전(懸車留與子孫傳: 안거安車는 집 앞에 걸어놓고 자손에게 전하게 됐네요):

- ① 현거(懸車):
 ☆이는 서한(西漢) 원제(元帝: BC 75~BC 33: 재위기간은 BC 49~BC 33) 때의 설광덕(薛廣德: 생몰년 미상)이 관직을 사퇴하고 은거할 때 원제가 그에게 하사한 안거(安車)와 관련된 고사(故事)에서 유래된 용어이다. 『한서(漢書)·설광덕전(薛廣德傳)』에 의하면, 그는 조정에 나와 여러 벼슬을 거치면서 어사대부(御史大夫)에 이르렀다. 그는 사람됨이 온아하고 침착했는데, 삼공(三公)에 올라서도 직언으로 간쟁(諫爭)하다가 결국 사직하게 되었다. 『설광덕전(薛廣德傳)』에서 이르기를, “승상丞相 정국(定國: 생몰년 미상)과 거기장군車騎將軍 사고(史高: 생몰년 미상)와 함께 원제元帝에게 사직을 주청하자, 이에 원제는 〈그 동안의 노고를 치하하면서〉 세 사람에게 각각 안거安車와 사마駟馬 및 황금 60근을 하사하고, 그들의 관직을 거두어 들였다. 그러나 설광덕은 어사대부로서 면직처리가 10개월이나 늦추어졌다. 〈마침내 설광덕은 벼슬을 그만두고〉 고향인 패沛로 돌아오게 되자, 태수는 현縣의 경계선까지 나와 마중을 했다. 고향 사람들은 자기네 고장의 영광이라 하여, 설광덕이 천차로부터 하사받은 안거를

그의 집의 담벼락에 매달아 놓고 같이 자손에게 전하기로 했다.(與丞相定國、大司馬車騎將軍史高俱乞骸骨，皆賜安車駟馬、黃金六十斤，罷。廣德爲御史大夫，凡十月免。東歸沛，太守迎之界上。沛以爲榮，縣其安車傳子孫.)” 여기서 ‘현거(懸車)’라는 말이 나왔으며, 늙어서 관직을 그만두는 것을 비유하여 이르는 말이 되었다. ‘안거(安車)’는 노인이나 여자들이 타는 수레이다. 옛날의 수레는 모두 서서 타기 때문에 앉아서 타는 수레는 편안하게 탄다는 뜻에서 ‘안거’라고 했던 것이다. 본 시에서의 ‘현거(懸車)’의 ‘거(車)’는 바로 ‘안거’를 칭한 것이다.

☆사직(辭職)하다’는 뜻으로도 쓴다. 옛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나이 70이 되면 사직하고 집에 머물면서 폐거(廢車 : 수레를 없앴)하고 사용하지 않는 까닭에 이르는 말이다. 이 때의 ‘현(懸)’은 ‘걸어두고 사용하지 않는다’는 말로, 전(轉)하여, ‘폐기하다’는 뜻으로 쓰인 것이다. 후한(後漢) 초기의 역사가이자 문인인 반고(班固 : 32~92)가 편찬한 경서(經書) 『백호통의(白虎通義) · 치사편(致仕篇)』에, “신토는 나이 칠십에 사직하려는 사람으로, 신은 종종걸음 치면서 정무政務를 수행하는 것을 직무로 여기면서, 일흔 살이 되도록 정사政事を 수행함에 진력하다보니, 정력과 시력이 나빠져서 분명치 않아지고, 걷는 것이 절뚝거리며 불편한 부류가 되었으니, 늙었음에 퇴직하고 재능 있는 사람에게 직위를 물려주려합니다(臣年七十懸車致仕者，臣以執事*趨走*爲職，七十陽道*極，耳目不聰明，跛踦*之屬，是以退老去避賢者). …… (이에), 수레를 매달아 놓고 (사직하고),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려 합니다(懸車，示不用也).”라고 한 대목이 있다.

*집사(執事) : 사무를 보다.

*추주(趨走) : 종종 걸음으로 달린다.

*양도(陽道) : 대외적인 일. 정사(政事)를 가리킨다. 이때의 ‘양(陽)’은 ‘외부’의 뜻으로 쓰였으며, 전(轉)하여 ‘대외적인 일’을 가리키는 말로 쓰였다.

*기거(跛踦) : 절뚝거리며 걸어서 걷는 것이 불편하다.

a. 기(跛) : 발.

b. 기(踦) : 절름발이.

☆힘준한 것을 형용한 말이다. 직역하면, ‘수레에 갈고리를 단단히 걸어 당기다’는 뜻의 ‘현거(懸車)’라는 말은 ‘수레에 갈고리를 단단히 걸어 당기고 말고삐를 꼭 잡다’는 뜻의 ‘현거속마(懸車束馬)’의 약어(略語)이다. ‘현거속마’의 자세로 가는 길은 ‘수레가 가기에 힘준한 길’이기에, ‘현거(懸車)’라는 말을 ‘힘준한 것(길)’을 형용한 말로 쓴 것이다. 이때의 ‘현(懸)’은 ‘위험하다’는 뜻으로 쓰였다. 『국어(國語) · 제어(齊語)』에, “수레에 갈고리를 단단히 걸어 당기고 말고삐를 꼭 잡은 채, 태행산(太行山)과 벽이산(辟耳山)을 넘고 두 산간의 구하(拘夏) 계곡을 지나가다(懸車束馬，踰太行與辟耳之谿拘夏).”고 한 구절이 있다.

☆고대에 시간을 기록한 명칭으로, ‘황혼 직전 한동안의 시간’을 가리킨다. 삼국 시대 위(魏)나라 문인 무습(繆襲 : 186~245)의 시 「만가(挽歌)」에, “서산에 해 기울어 우연(虞淵)에 잠기려 하면, 황혼 직전 수레에서 내려 말을 쉬게 하네(白日入虞淵，懸車息駟馬).”라고 읊은 시구가 있다.

a. 우연(虞淵) : 전설상의 해가 지는 곳.

b. 사마(驪馬) : 네 필의 말이 끄는 수레. 또는 그 말.
 ☆은거하면서 벼슬길에 오르지 않다는 것을 가리키는 말로 쓴다.
 ☆본 시에서는 ‘매달아 둔 수레’란 뜻으로 쓰였으며, 고인(故人)이 평소애 쓰던
 유품(遺品)을 가리킨다.

- ② 유여(留與) : 남겨주다.
 ☆유(留) : 남겨두다. 보존하다.
 ☆여(與) : 주다.

7) 상심 기구무다재(傷心耆舊無多在 : 연로한 훈구신료勳舊臣僚 중에 생존한 분 많
 지 않아 상심되는데) :

- ① 상심(傷心) :
 ☆마음에 상처를 입다, 상심하다, 애태우다는 뜻으로, 지극히 비통함을 형용한 말
 이다.
 ☆극심하다는 말로서, ‘극히. 매우. 대단히’의 뜻이다.
 ② 기구무다재(耆舊無多在) : 생존한 훈구신료勳舊臣僚가 많지 않음을 표현한 것
 이다.

☆기구(耆舊) :
 a. 나이 많은 친구. 본 시에서는 조정에서 함께 정부(政務)에 참여했던 동료
 훈구신료들을 칭하는 것으로 쓰였다.
 ④ 기(耆) : 옛날에는 60세를 ‘기(耆)’라고 칭했다.
 ⑤ 구(舊) : 오래 사귄 벗.
 b. 연세 많고 명망(名望)이 높다.
 ④ 구(舊) : 덕고망중(德高望重 : 덕을 많이 쌓아 명망이 높음)한 노신(老臣)을
 가리킨다.

☆재(在) : 생존하다. 살아있다.

8) 향사춘귀 배창연(鄉社春歸倍愴然 : 〈정공鄭公 안 계신〉 향리에 봄이 오면 가슴이
 곱절로 아플 것이외다) :

- ① 향사(鄉社) :
 ☆향리(鄉里)나 고향과 같은 말이다.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동향(同鄉)의 선비들과 모여서 시문(詩文)을 쓰며 즐기려고 결성한 단체. 본
 시에는 이 뜻으로 쓰였으며, ‘동향문인회’라 번역한다.
 ☆마을 자치단체[鄉約契].
 ② 춘귀(春歸) :
 ☆봄이 오다. 봄이 되다.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봄이 지나가다. 봄이 끝나다.
 ☆봄에 돌아오다.
 ③ 창연(愴然) : 비상(悲傷 : 슬퍼 마음이 아픔)한 모양. 슬퍼 상심하는 모양.

시144. 월천月川 조목趙穆 공公의 별세를
애도하면서

詩144. 輓趙月川¹⁾
만 조 월 천



病中垂淚強題輓²⁾,
병 중 수 루 강 제 만

병중에 눈물 흘리며 겨우
이 만가輓歌를 지으니,

只爲相從四十春³⁾.
지 위 상 종 사 십 춘

즐곧 상종相從한지 어언 사십년이 됐소이다.

鐘鼓早知非鳥樂⁴⁾,
종 고 조 지 비 조 락

(세속의) 음악이 새소리와 다른 것을
일찍부터 아셨거늘,

林泉豈合墮風塵⁵⁾.
임 천 기 합 타 풍 진

산천에서의 은거 어찌 벼슬살이와
부합 할 수 있었으리까?

百年托契傷今日⁶⁾,
백 년 탁 계 상 금 일

평생을 의기투합하던 교분이
오늘로 이지러졌으니,

四海論交⁷⁾有幾人.
사 해 논 교 유 기 인

세상에 이런 친교親交 맺은 사람
몇이나 있으리이까?

遙想芙蓉山下路⁸⁾,
요 상 부 용 산 하 로

오래전 함께 거닐었던 부용산 앞길을
아득히 회상하는데,

不堪吹笛夕陽隣⁹⁾。
불 감 취 적 석 양 린

석양 무렵 이웃에서 부는 피리소리
차마 들을 수 없네요.

1) 만조월천(輓趙月川 : 월천 조목의 별세를 애도하면서) :

① 만(輓) : 사자(死者)를 애도하다.

② 조월천(趙月川) : 월천(月川) 조목(趙穆). 월천은 조목의 호이다. 이렇게 성씨 다음에 호를 쓰는 것은 경칭(敬稱)의 한 예이다.

☆조목(趙穆 : 1524~1606) : 조선 중기의 문신이자 학자이다. 본관은 횡성(橫城). 자는 사경(士敬), 호는 월천(月川)이다. 아버지는 참찬 대춘(大椿)이며, 어머니는 안동 권씨로 수익(受益)의 딸이다. 기타 자세한 이력은 앞의 「시56」 주석1)의 ①☆조목(趙穆) 조항을 참조바람.

2) 강제만(強題輓) : 겨우 만가(輓歌)를 짓다. 본 시에서는 시적화자가 외병중이라서 만가를 쓸 상황이 못됨을 표현한 것이다.

① 강제(強題) : 겨우 쓰다(짓다).

☆강(強) : 면강(勉強) : 힘이 부족한데 혹은 형편이 되지 않는데 겨우 하다.

☆제(題) : 짓다. 쓰다.

3) 지위상종 사십춘(只爲相從四十春 : 줄곧 상종한지 어언 사십년이 됐소이다) :

① 지위상종(只爲相從) : 줄곧 상종해오다.

☆지위(只爲) : 줄곧. 오로지. 뒤의 ‘위(爲)’는 뜻이 없는 어기조사(語氣助詞)이다.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상종(相從) :

a. 서로 따르며 친하게 지내다. 서로 왕래하다.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b. 동행하다. 함께 있다.

② 사십춘(四十春) : 40년 세월.

☆춘(春) : 년(年). 세(歲).

4) 종고 조기조악(鐘鼓早知非鳥樂 : <세속의> 음악이 새소리와 다른 것을 일찍부터 아셨거늘) :

**역주주석 : 본 시에서 “종고(鐘鼓)”의 시어(詩語)는 마땅히 ‘종소리와 북소리’로 번역해야 하나 자수(字數)가 많아져서 ‘음악’으로 표현하였다.

① 종고(鐘鼓) :

☆종과 북. 고대의 예악기(禮樂器)를 가리킨다. 본 시에서는 종소리와 북소리를 가리키며, 전하여 ‘음악’을 가리킨다. 춘추시대 말엽 월왕(越王) 구천(句踐 : ?~BC 465)은 구천 원년에 오(吳)나라와 휴리(携李)에서 싸워 이기고, 오왕(吳王) 합려(閭閻 : ?~BC 496)는 부상으로 죽었다. 그러나 합려의 아들 부차(夫差 : ?~BC 473)에게 부초(夫椒)에서 패했다. 이에 월왕 구천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 오나라에 화의를 청하고 그의 모신(謀臣) 범려(范蠡)와 함께 오나라에 신하로 들어갔다. 그 후 2년 뒤에 술수를 써서 간신히 목숨만 건져 귀국한 구천은 근 20년 동안 와신상담(臥薪嘗膽 : 늪기 거북한 쉼에 몸을 눕히고 쓸개를 달아놓고 할

아 쓴 맛을 되새기며 원수를 갚고자 마음먹은 바를 실현하기 위해 심신의 괴로움을 참음) 하면서 부국강병을 꾀하며 절치부심(切齒腐心 : 분하여 이를 갈며 속을 썩임)했다. 그 과정의 일단이 아래의 예문이다. 『여씨춘추(呂氏春秋)·순민편(順民篇)』에, “몸에 편한 베개와 돛자리를 사용하지 않았고(身不安枕席*), 입으로 맛있는 음식 먹기를 원하지 않았으며(口不甘*厚味*), 눈으로는 아름다운 것을 보지 않았으며(目不視靡曼*), 귀로는 음악을 듣지 않았다(耳不聽鐘鼓*).” 라고 한 구절이 있다. (구천 15년 오왕 부차가 황지黃池로 북상해 진畔나라와 싸우는 틈을 타 오나라 도성으로 공격해 들어가 오나라를 멸망시켰다.)

*침석(枕席) : 베개와 돛자리.

*불감(不甘) : …을 원하지 않다.

*후미(厚味) : 맛있는 것.

*미만(靡曼) : 화려한 것. 아름다운 것.

*종고(鐘鼓) : 음악.

☆옛날에 시가를 알리며 올리던 기구.

- ② 조락(鳥樂) : 새가 즐거워하다. 본 시에서는 ‘새의 지저귀임’으로 번역하였다.

☆락(樂) : 즐기다. 좋아하다. (새가) 즐거워하다, 지저귀다.

- 5) 임천 기합타풍진(林泉豈合墮風塵 : 산천에서의 은거 어찌 벼슬살이와 부합할 수 있었으리까) :

- ① 임천(林泉) : 삼림(森林)과 산수(山水). 전원(田園) 생활 곧 ‘은거생활’의 뜻을 함축하고 있다.

☆천(泉) : ‘샘’이란 뜻이나 전(轉)하여 산수(山水)란 뜻으로 쓴다.

- ② 기합(豈合) : 어찌 부합되었는가? ‘합(合)’은 ‘부합되다’는 뜻으로 쓰였다.

- ③ 타풍진(墮風塵) : 풍진세상[벼슬길]에 떨어지다.

☆타(墮) : 떨어지다. 빠지다.

☆풍진(風塵) : 앞의 「시63」 주석7)의 ‘풍진(風塵)’ 조항을 참조바람.

- 6) 백년타계 상금일(百年托契傷今日 : 평생을 의기투합하던 교분이 오늘로 이지러졌으니) :

- ① 백년(百年) :

☆일생. 종신(終身).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기타 자세한 뜻의 앞의 「시 140」의 주석4)의 ‘백년’ 조항을 참조바람.

- ② 타계(托契) : 피차 신뢰하고 투합(投合 : 마음이 맞아 잘 어울림)하다. 본 시에서는 피차 두터운 교분관계를 유지해왔음을 표현한 것이다.

☆탁(托) : 위탁하다. 의탁하다. 받들다.

☆계(契) : 투합(投合)하다. 마음에 맞다.

- ③ 상금일(傷今日) : 오늘 날짜로 어긋나다. 오늘 애도하다.

☆상(傷) :

a. 이지러지다. 본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b. 애도(哀悼)하다. 이 뜻으로도 쓸 수 있다.

c. 상제(喪祭)를 지내다.

d. 다치다. 해치다.

☆금일(今日) : 오늘.

7) 사해논교(四海論交 : 사해四海에 친교를 논하다) :

① 사해(四海) :

☆친하. 전국각처. 세계. 만국(萬國). 세상.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고대 중국 사람들은 중국의 사방국경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다고 생각해서, 방위에 따라 동해·남해·서해·북해라고 불렀으나, 시대에 따라 그 경계의 견해가 일치하지는 않았다. 후세에는 각국이 자국(自國)을 중심으로 해서 방위에 따라 사방의 바다를 사해(四海)라 불렀다.

② 논교(論交) : 지교(至交)를 논하다. 지교(至交)를 나누다.

☆벗과 사귀다. 친교를 맺다. 교제하다.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a. 논(論) : 말하다. 의논하다.

b. 교(交) : 사귀다. 왕래하다. 봉우(朋友 : 벗). 지교(至交).

☆논쟁과 잡담.

a. 교(交) : 교담(交談 : 이야기. 잡담)하다.

8) 요상부용산하로(遙想芙蓉山下路 : 오래 전 함께 거닐었던 부용산 앞길을 아득히 회상하는데) :

① 요상(遙想) : 유원(悠遠)한 것(아주 오래전의 것)을 사색하거나 상상하다. 회상(回想)하다.

② 부용산하로(芙蓉山下路) :

☆부용산(芙蓉山) : 예안읍지(禮安邑誌)인 『선성지(宣城誌)·산천편(山川篇)』에, “부용산은 현(縣)의 동쪽 7리에 위치한다(芙蓉山在縣東七里). 조목趙穆이 그 산 아래 살았다(趙穆居其下).”라고 기록 되어 있다.

예안향교(禮安鄕校)의 전교(典敎 : 향교의 대표) 권오진(權五璣) 선생의 전언(傳言)에 의하면, ‘부용산’의 현황은 아래와 같다. 부용산의 위치는 지금의 ‘안동시 도산면(陶山面) 동부리(東部里) 월천갈’이다. 이 산은 태백산의 줄기에서 갈려나온 중악(中岳)이 낙동강까지 뻗어 나온 산줄기의 끝에 위치한다. 이 산은 월천(月川) 마을의 북쪽에 위치하며, 수몰(水沒) 전에는 도산서원(陶山書院)으로부터 직선거리로 10 리였으나, 수몰이 되면서 직진이 불가능하게 되자 우회로로 15리 거리가 되었다. 부용산의 높이는 해발 약 250m이다. 또한 부용산을 끼고 있는 낙동강 뱃나루는 영양(英陽)과 동해로 통하는 길목이며, 토양도 좋아서 웅기를 굽기도 했다고 한다. 이 월천마을은 수몰 전에는 수십 호가 살았는데 지금은 세 가구만 남아있다고 한다. 현재 부용산 앞쪽을 ‘세계 유교문화 공원’으로 조성 중이라고 한다. 그리하여, 부용산 안에 있는 묘소들은 모두 이장(移葬)을 하였으나, 월천 조목(趙穆) 선생의 직계묘소는 그대로 두었다고 한다. 부용산에는 본래 ‘부용정자’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월천정사’라는 편액이 걸려 있으며 이의 글씨는 퇴계선생이 썼다고 한다. 미루어 볼 때, 부용정자는 이미 월천 당시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하로(下路) :

a. 앞길. 전방(前方)에 나 있는 길.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b. 길썰.

9) 불가취적 석양민(不堪吹笛夕陽隣 : 석양 무렵 이웃에서 들려오는 피리소리 차마 들을 수 없네요) :

① 불가(不堪) :

☆차마 ...을 가누지 못하다.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참을 수 없다.

☆차마 ...을 견디지 못하다.

② 취적석양린(吹笛夕陽隣 : 석양 무렵 이웃에서 피리 부는 소리가 들려오다) :

☆취적(吹笛) : ‘피리를 불다’는 뜻이나, 본 시에서는 ‘피리를 부는 소리’란 뜻으로 쓰였다.

☆석양린(夕陽隣) : 석양 무렵의 이웃마을.



시145. 불도佛道 수행에 능력 있는 어느
승려의 두루마리[軸]에 써 주다

詩145. 書法器軸¹⁾
서 법 기 축

老病不出門,
노 병 불 출 문

노병老病이 들어서 문밖을 못나갔더니,

門前草一膝。
문 전 초 일 슬

문 앞에 잡초가 무릎에 닿도록 우거졌네.

沈吟月臨五²⁾,
침 음 월 임 오

병세病勢가 깊어지는 동안에
오월이 되었는데,

邂逅³⁾僧來一。
해 후 승 래 일

뜻밖에 어느 승려 찾아온 게
초하룻날이었네.

雨餘宿霧卷⁴⁾,
우 여 숙 무 권

비 온 뒤에 밤안개 서서히 걷히면서,

川原散雲日⁵⁾。
천 원 산 운 일

낮이 되자 강변이며 들판에
구름이 사라졌네.

梵音⁶⁾已可喜,
공 음 이 가 희

저벅저벅 발걸음 소리만 들어도
이미 반갑거늘,

不待求詩筆⁷⁾。
부 대 구 시 필

시를 쓸 붓은 찾을 필요도 없다네.

- 1) 서법기축(書法器軸 : 불도佛道 수행에 능력 있는 어느 승려의 두루마리에 써주다) :
- ① 법기(法器) : 불법(佛法)에 상응하는 능력 있는 자. 불법을 수용하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
 ☆불법(佛法)을 학습하고(출가出家한 승려를 가리킴) 선행을 하며 불도(佛道)를 널리 전수해 줄 수 있는 사람. 불제자(佛弟子)가 될 만한 기량(器量)이 있는 사람. 불도(佛道)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 본시에서는 법기(法器)가 큰 어떤 승려를 가리킨다.
 ☆법도(法道) · 제도(制度)를 가리키는 말.
 ☆승려나 도사가 종교의식을 거행할 때 사용하는 종(鐘) · 고(鼓 : 북) · 뇨(鐃 : 악기의 일종. 위에는 손잡이가 있고 아래에는 흔들 수 있는 종 모양의 악기임) · 발(鉢 : 동발 : 타악기의 일종) · 인경(引磬 : 불교의 법회 때 대중의 주의를 끌기위해서 올리는 경(磬) 쇠) · 목어(木魚) 등 악기와 병(瓶 : 점토로 만든 물병) · 발(鉢 : 식기) · 장(杖 : 법장法杖 : 좌선할 때 사용하는 지팡이) 등의 기물을 말한다.
- ② 축(軸) : 두루말이(가로로 길게 이어 돌돌 등글게 만 종이).
- 2) 침음 월림오(沈吟月臨五 : 병세病勢가 심각해지는 동안에 오월이 되었는데) :
- ① 침음(沈吟) : 침음(沈吟)으로도 쓴다.
 ☆(병 · 죄 따위가) 심각하다. 중대하다.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a. 침(沈) : 정도가 심하다.
 b. 음(吟) : 신음(呻吟)하다. 탄식하다.
 ☆깊이 생각하다. 심사(深思)하다. 전(轉)하여 ‘몹시 그리워하다’는 뜻으로도 쓴다.
 ☆주저하다. 머뭇거리다. 망설이다. 유예(猶豫)하다.
 ☆나지막한 소리로 (저음低音으로) 음미(吟味)하다. 나지막한 소리로 혼잣말하다.
- ② 월림오(月臨五) : 오월이 되다.
 ☆림(臨) : 도달하다. 이르다.
- 3) 해후(邂逅) : 해구(邂逅)로도 쓰고, 해구(邂逅)로도 쓴다.
 ① 의외로 뜻밖에.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② 우연히 만나다.
 ☆해(邂) : 우연히 만나다.
 ☆후(逅) : 만나다.
 ③ 기쁜 모양. 즐거운 모양.
 ④ 우연히. 요행히.
 ⑤ 창졸간에. 돌연히.
- 4) 우여 숙무권(雨餘宿霧卷 : 비 온 뒤에 밤안개 서서히 걷히면서) :
- ① 우여(雨餘) : 비 온 후에.
 ☆여(餘) : …한 후에. 이후에.
 ② 숙무(宿霧) : 야무(夜霧). 밤안개. 밤에 끼는 안개.
 ③ 권(卷) : 걷히다.
- 5) 천원 산운일(川原散雲日 : 낮이 되자 강변이며 들만에 구름이 사라졌네) :
- ① 천원(川原) :
 ☆강과 평원. 강변과 들판.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강의 원류.

☆강'만을 가리키는 뜻으로 쓰기도 한다.

☆원야(原野)를 가리키는 말.

- ② 산운일(散雲日): 낮이 되면서 구름이 흩어지는 상태를 표현한 것이다.

☆산운(散雲): 구름이 흩어지다.

☆일(日): 낮. 낮에. 낮이 되면서.

- 6) 공음(鵲音): 발걸음 소리: 쿵쿵·터벅터벅·뚜벅뚜벅·저벅저벅.

- ① 공(鵲): 발자국 소리.

- 7) 부대 구시필(不待求詩筆: 시를 쓸 붓은 찾을 필요도 없다네):

- ① 부대(不待):

☆소용되지 않다. 필요치 않다.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할 생각이 없다. ...하고 싶지 않다.

- ② 구시필(求詩筆): 시를 쓰는 붓을 찾다.

☆구(求): 찾다.

☆시필(詩筆):

a. 시를 쓰는 붓.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b. 시와 산문.

시146. 추월담 秋月潭

詩146. 秋月潭¹⁾
추 월 담



步出疎林踏細沙²⁾,
보출소림답세사

걸어서 나무 성긴 숲을 지나
백사장에 들어서면,

隔雲依竹有仙家³⁾.
격운의죽유선가

구름에 가리고 대숲 우거진 곳에
선가仙家가 있네.

已覺江湖秋色老⁴⁾,
이각강호추색로

강변과 추월담에 이미 추색秋色이
완연하게 느껴지고,

滿山紅葉似蒸霞⁵⁾.
만산홍엽사증하

온 산에 울긋불긋 단풍잎 붉게 물든
노을 같으네.

- 1) 추월담(秋月潭): 옥연십영(玉淵十詠)의 하나로, 이것의 위치는 계선암(繫船巖)에서 옥연정사(玉淵精舍)로 이르는 부용대(芙蓉臺) 석벽에 위치하고 있다. 옥연십영 10개 경물은 완심재(玩心齋)·간죽문(看竹門)·겸암사(謙庵舍) 이외 달관대(達觀臺)·쌍송애(雙松厓)·도화천(桃花遷)은 옥연정사에서 겸암정사(謙庵精舍)에 이르는 층길 상에 설정되어 있으며, 나머지 추월담·능파대(凌波臺)·계선암·지주암(砥柱巖) 등 4개 경물은 부용대 하식애(河蝕崖) 아래 절벽과 모래톱 상에 설정되어 있다. 옥연정사를 중심으로 살펴볼 때, 쌍송애와 능파대는 50m, 달관대는 100m, 추월담·도화천·계선암·지주암은 200m 권역 내에 분포하고, 겸암사는 430m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이상은 노재현·오현경·신상섭, 『하회마을 부용대의 경관 해석 및 보존방안』 - 옥연서당기(玉淵書堂記)와 옥연십영(玉淵十詠)을 중심으로 - 『韓國傳統造景學會誌』 Vol.

31. No.1(2013年 3月) 참조) 류명희·안유호 역주·감수, 『국역·류성룡시II』 개정판 「시54」 주석2)의 ‘추월담(秋月潭)’ 조항을 참조바람.
- 2) 보출소림 답세사(步出疎林踏細沙 : 걸어서 나무 성긴 숲을 지나 백사장에 들어서면) : 이 구(句)의 상황은 작가가 하회마을에서 강변 숲을 지나 백사장에서 옥연정(玉淵亭)을 바라보는 정경이다.
- ① 보출소림(步出疎林) : 나무 성긴 숲을 지나오다.
 ☆보출(步出) : 걸어 지나오다.
 ☆소림(疎林) : 나무가 듥성듬성 서 있는 수림(樹林).
 a. 소(疎) : 성기다. 희박하다. 듥성하다.
- ② 세사(細沙) : 잔모래. 고운 모래. 본 시에서는 모래사장(모래벌판 : 모래톱 : 백사장)을 가리키는 뜻으로 쓰였다.
- 3) 격운의죽 유선가(隔雲依竹有仙家 : 구름에 가리고 대숲 우거진 곳에 선가仙가가 있네) :
- ① 격운의죽(隔雲依竹) : 구름에 가리고 대숲에 인접隣接하다.
 ☆격운(隔雲) : 구름에 가리다.
 a. 격(隔) : 막히다. 가리다.
 ☆의죽(依竹) :
 a. 의(依) :
 ④ 우거지다. 수목이 우거진 모양.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번역하였다.
 ⑤ 인접(隣接)하다. 가깝다.
- ② 선가(仙家) :
 ☆신선(神仙)이 사는 집.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옥연정(玉淵亭)의 대칭(代稱)으로 쓰였다.
 ☆선도(仙道)를 체득한 사람.
 ☆선도(仙道)를 닦는 사람.
- 4) 이각강호 추색로(已覺江湖秋色老 : 강변과 추월담에 이미 추색秋色이 완연하게 느껴지고) :
- ① 이각(已覺) : 이미(벌써) 느껴지다.
 ☆이(已) : 이미. 벌써.
 ☆각(覺) : 느껴지다. 감지(感知)되다.
- ② 강호(江湖) : 낙동강과 추월담을 가리킨다.
 ☆조정에 대하여 시골을 이르는 말로서, 은사(隱士)의 거처를 가리킨다.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동진(東晉)의 시인 도잠(陶潛 : 365~427 : 자자는 연명淵明)의 시「진안군에서 벼슬한 은철殷鐵과 작별하면서(與殷晉安別)」에, “훌륭한 인재는 세상에서 숨을 수 없고, 은사가 거처하는 곳에는 빈천한 사람이 많은데(良才不隱世, 江湖多賤食).”라고 읊은 시구가 있다.
 ☆강과 호수, 강하(江河)와 호해(湖海).
 ☆일반적으로 사방각지를 가리킨다.
 ☆사방으로 유람하면서 기예(技藝)와 의약 그리고 점복(占卜) 등에 의거하여 생계를 도모하는 사람들. 또는 이러한 사람들이 종사하는 직업을 가리킨다.
 ☆자연. 넓은 세상.

③ 추색로(秋色老): 가을의 경색(景色)이 짙다. 가을의 경색이 완연(宛然: 뚜렷함)하다.

☆추색(秋色): 경색(景色: 풍광風光: 경치). 가을의 경색(景色) 혹은 풍광(風光).

☆로(老): 색깔이 짙은 것을 형용한 말이다.

5) 만산홍엽 시증하(滿山紅葉似蒸霞: 온 산에 울긋불긋 단풍잎 붉게 물든 노을 같으네):

① 만산(滿山): 산 전체, 즉 온 산.

② 홍엽(紅葉): 붉은 단풍잎.

③ 시증하(似蒸霞): 붉게 물든 노을 같다.

☆사(似): ...와 같다.

☆증(蒸): 찌다. 열을 받다. 본 시에서는 익어서 붉게 물든 것을 가리키는 말로 쓰였다.

☆하(霞): 노을.



시147. 우중_{雨中}에 홀로 앉아있으니
감회가 일어

詩147. 雨中獨坐有懷¹⁾
우 중 독 좌 유 회

老夫不語坐支頤²⁾, 늙은이가 말없이 턱 괴고 앉아있노라니,
노 부 불 어 좌 지 이

江北江南有所思³⁾. 강북 강남의 그리운 사람들 생각나네.
강 북 강 남 유 소 사

日暮孤舟何處喚⁴⁾, 날은 저무는데 배 한 척을 어디서 불러 오네!
일 모 고 주 하 처 환

滿江寒雨碧絲絲⁵⁾. 강에는 온통 찬비가 푸릿하게
만 강 한 우 벉 사 사
부슬부슬 내리는데.

1) 우중독좌유회(雨中獨坐有懷 : 우중_{雨中}에 홀로 앉아 있으니 감회가 일어) :

① 우중(雨中) : 비가 올 때, 또는 비가 내리는 가운데.

☆중(中) : 명사 다음에 와서 상황이나 상태 또는 시간을 나타낸다.

② 유회(有懷) : 감회가 일어나다.

☆유(有) : 발생하다. 일어나다. 생기다.

☆회(懷) : 감회(感懷).

2) 노부불어 좌지이(老夫不語坐支頤 : 늙은이가 말없이 턱 괴고 앉아있노라니) :

① 노부(老夫) :

☆연로(年老)한 남자.

☆연로한 남자의 자칭(自稱). (이) 늙은이. 나(는). 내(가).

② 지이(支頤) : 손으로 턱을 괴다.

☆지(支): 과다.

☆이(頤): 턱.

3) 강북강남 유소사(江北江南有所思: 강북 강남의 그리운 사람들 생각나네):

① 강북강남(江北江南):

☆강의 북쪽지역과 강의 남쪽지역. 본 시에 쓰인 ‘강(江)’은 ‘한강(漢江)’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강북 쪽은 조정의 신료(臣僚)들, 강남 쪽으로는 함께 동문수학(同門修學)했던 동학들이나 선후배들을 비롯해서 당시 정관계(政官界)의 서에 본인과 관계있던 인사들을 시사하는 것 같다.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해석한다.

☆‘강남강북에서 겪었던 일’을 가리키는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② 유소사(有所思): 그리워하는 이 또는 사모하는 이가 생각나다.

☆유(有): 발생하다. 나타나다. 일어나다. 생기다. 전(轉)하여, ‘생각하다. 생각나다’로 번역하였다.

☆소사(所思):

a. 그리운 사람. 사모하는 사람.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해석하였다.

b. 생각나다. 생각하다. 이 뜻으로 본 시구(詩句)를 해석할 수도 있다. 따라서 본 시구를 ‘강남 강북에서 겪었던 일이 생각나네(江北江南有所思)’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다.

c. 생각나는 일. 생각하는 것.

4) 일모고주 하처환(日暮孤舟何處喚: 날 저무는데 <강 건널> 배 한 척은 어디서 불러오나):

① 일모(日暮): 날이 저물다.

② 고주(孤舟): 배 한 척.

☆고(孤): 외로이 떠 있는 배. 고독한 배. 본 시에서는 ‘강 건널 배 한 척’의 뜻으로 쓰였다.

a. 단독(單獨). 홀로, 하나, 외따로.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b. 외롭다. 의지할 데가 없다.

c. 늙어 자식이 없는 사람.

d. 나, 왕후(王侯)의 겸칭.

5) 만강한우 벽사사(滿江寒雨碧絲絲: 강에는 온통 찬비가 푸릿하게 부슬부슬 내리는 데):

① 한우(寒雨): 찬비. 한랭한 비. 추동절(秋冬節)에 내리는 비.

② 벽사사(碧絲絲): 푸른빛을 띄우며 부슬부슬 내리다.

☆벽(碧): 푸른빛을 띄우다. 푸른 옥빛을 띄우다.

☆사사(絲絲):

a. 의성어로 쓰여, 보슬비(가랑비·이슬비)가 ‘소록소록(보슬보슬)·부슬부슬’ 내리다 등으로 표현된다.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b. 실처럼 가는 사물을 형용한 말. 한 가닥 한 가닥, 한 올 한 올 등으로 표현된다.

c. 미세한 느낌을 형용한 말. ‘조금도, 털끝만큼도, 추호도’ 등으로 표현된다.



시148. 자탄^{自嘆}하면서

詩148. 自嘆¹⁾
자 탄

眼昏懶讀書²⁾,
안 혼 라 독 서

눈이 침침하여 독서하기 싫어지고,

脚劣倦登臨³⁾。
각 열 권 등 림

다리 근력 약해져서
언덕 오르기도 힘이 드네.

多病不飲酒,
다 병 불 음 주

병이 잦아 술도 마시지 못하고,

却掃⁴⁾無人尋。
각 소 무 인 심

손님 사절했더니 찾는 사람도 없어졌네.

思量百千事⁵⁾,
사 량 백 천 사

백가지 천 가지 상황 떠올리며
생각해봐도,

無可慰幽襟⁶⁾。
무 가 위 유 금

심중의 깊은 회포를 풀어낼 방법이
없네.

唯堪一室中,
유 감 일 실 중

오직 견딜 수 있는 곳은 한 칸 방 안
뿐이니,

收拾散亂心。
수 습 산 난 심

(여기서) 산란해진 마음을 수습하고 있네.

亦恨歲月晚⁷⁾,
역 한 세 월 만

시기가 너무 늦어버린 것도 한스러운데,

蹉過好光陰⁸⁾.
차 과 호 광 음

좋은 세월 다 허비해버리고 말았네.

病起⁹⁾西窓下,
병 기 서 창 하

병든 몸이지만 일어나
서쪽 창 아래 앉았는데,

清風動竹林。
청 풍 동 죽 립

맑은 바람이 불어와 대숲이 일렁이네.

-
- 1) 자탄(自嘆): 자탄(自歎)으로도 쓴다. 자기 자신의 일에 관하여 탄식하다. 자기 자신을 탄식하다.
- 2) 안혼 리독서(眼昏懶讀書: 눈이 침침하여 독서하기 싫어지고):
- ① 안혼(眼昏): 눈이 침침해지다.
☆혼(昏): 잘 보이지 않다. 눈앞이 흐릿하다.
- ② 라(懶): ...하기 싫어하다. 게으르다.
- 3) 각렬 권등림(脚劣倦登臨: 다리 근력 약해져서 언덕 오르기도 힘이 드네):
- ① 각렬(脚劣): 각근력(脚筋力: 다리 근육의 힘)이 약하다.
☆열(劣): 약해지다(약하다).
- ② 권등림(倦登臨): 유람하기도 (언덕을 오르기도) 힘들다.
☆권(倦): 피곤하여 (나른하여) 힘들다.
☆등림(登臨): 등산임수(登山臨水: 산에 오르고 물가에 감)하다. 유람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다. 본 시에서는 ‘언덕에 오르다’로 번역하였다.
- 4) 각소(却掃): 각소(却掃)로도 쓰고, 각소(卻掃)로도 쓴다. ‘다시는 오솔길을 쓸어 손님을 영접하지 않다’는 뜻으로, ‘폐문(閉門)하고 빈객(賓客)을 사절(謝絶)함’을 이르는 말이다.
- ① 각(却): 거절하다. 정지하다.
- ② 소(掃): 소제하다. (빗자루로) 길을 쓸다.
- 5) 사랑 백천사(思量百千事: 백가지 천 가지 상황 떠올리며 생각해봐도):
- ① 사랑(思量):
☆심사(心思). 생각(하다). 생각하여 헤아리다.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지취(志趣: 지향(志向): 흥취)와 기량(器量).
☆고려(考慮)하다. 짐작하다.
☆상의하다. 의논하다.
☆그리워하다. 생각하다.
- ② 백천사(百千事): ‘각종 사무·사건·만사’의 뜻이다. ‘백가지 천 가지 경우의 상황이나 정황’을 의미한다.

☆백천(百千): ‘수가 백이 되고 천에 이른다’는 말로, 전(轉)하여, ‘수효가 대단히 많음’을 이르는 말이다.

☆사(事):

a. 상황. 정황.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b. 일. 사업.

6) 무가 위유금(無可慰幽襟: 심중의 깊은 회포를 풀어낼 방법이 없네):

① 무가(無可):

☆…할 방법이(도리가) 없다. …할 수 없다.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무가 무불가(無可無不可: ‘가可’함도 없고 ‘불가不可’함도 없거나, 옳은 것도 없고 그른 것도 없음을 이르는 말로, 어떤 일에 대해 선입견先入見 없이 그 때와 사정에 따라 적절한 태도를 취함을 이르는 말임).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② 위(慰): 안위하다. 달래다.

③ 유금(幽襟): 심중의 깊은 회포. 본 시에서는 ‘깊은 시름’으로 번역하였다.

☆유(幽): 그윽하다. 고요하다. 은폐하다.

☆금(襟): 가슴속. 심중(心中). 생각.

7) 세월만(歲月晩): 시기가 너무 늦다.

① 세월(歲月):

☆년월(年月, 일반적으로 흘러가는 ‘시간’을 가리킨다. 본 시에서는 ‘시기(時期)’를 가리키는 뜻으로 쓰였다.

☆단시간(短時間)을 가리키는 말.

☆살아가는 세상.

② 만(晩): (시기가) 늦다.

8) 차과 호광음(蹉過好光陰: 좋은 세월 다 허비해버렸네):

① 차과(蹉過):

☆(시거나 시간을) 놓치다. 허비하다. 스치고 지나가다. (시간을 지체하다가) 일을 그르치다.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실수하다. 실책을 범하다. 잘못되다.

② 호광음(好光陰): 좋은 세월.

☆호(好): 관형사(冠形詞)로 광음(光陰)을 수식하는 편정구조(偏正構造)의 구문이다.

☆광음(光陰):

a. 시간. 세월.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b. 경치(광경. 모습).

9) 병기(病起):

① 병이 낫다.

② 병든 몸을 일으키다,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으며, 여기서는 단순히 ‘누운 자리에서 일어나 앓다’는 뜻으로 쓰였다.

☆기(起):

a. 일어나다.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b. 병이 낫다. 치유(治愈)되다.

시149. 정회情懷에 기탁하여 읊다

詩149. 寓懷吟¹⁾
우 회 읊



白鶴飛上天²⁾,
백 학 비 상 천

백학이 하늘로 날아오르더니,

高風送六翮³⁾.
고 풍 송 육 혁

날개를 치면서 추풍秋風을 보내주네.

逍遙好境界⁴⁾,
소 요 호 경 계

정경情景 멋진 하늘에서 유유자적하니,

萬里闊無極⁵⁾.
만 리 활 무 극

드넓은 만 리 하늘 끝도 없이
광활하겠지.

不知一身高⁶⁾,
부 지 일 신 고

(학은) 저 한 몸이 얼마나 존귀한지는
모르지만,

但覺雙眼豁⁷⁾.
단 각 쌍 안 활

두 눈에 사방이 탁 트였다는 것만은
알리라.

黃河⁸⁾細如絲,
황 하 세 여 사

황하黃河가 실처럼 가늘게 보이고,

泰山秋毫末⁹⁾.
태 산 추 호 말

태산泰山이 털끝처럼 미세하게 보이리라.

圖南亦多事¹⁰⁾,
도 남 역 다 사

사람은 포부가 크면 번거로운 일도 많지만,

適意無南北¹¹⁾。
적 의 무 남 북

마음을 넓게 가지면
남북을 따지지 않는다네.

-
- 1) 우회음(寓懷吟: 정회에 기탁하여 읊다): 악부(樂府)의 편명인 ‘음(吟)’을 붙인 5언 악부시이다.
- ① 우회(寓懷): 정회(情懷)에 기탁(寄託)하다.
☆우(寓): 기탁하다.
☆회(懷): 심경(心境). 심사(心思). 감흥.
- ② 음(吟): 악부시(樂府詩)의 편명이다. 자세한 것은 앞의 「시46」의 주석1)의 ‘우영(偶詠)’ 조항을 참조바람.
- 2) 백학 비상천(白鶴飛上天: 깃털 흰 학이 하늘로 날아오르더니):
- ① 백학(白鶴): 두루미. 학(鶴):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시130」 주석2)의 ② ‘학(鶴)’ 조항을 참조바람.
- ② 비상천(飛上天): 하늘로 날아 올라가다.
- 3) 고풍 송육해(高風送六翮: 날개를 치면서 추풍秋風을 보내주네):
- ① 고풍(高風):
☆추풍(秋風)을 가리키는 말이다.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새찬 바람’이란 뜻이다.
☆강풍(強風)을 맞는 것을 가리키는 말로 쓴다.
☆‘고상한 풍조(風操)’란 뜻으로도 쓴다.
☆‘고아한 예술풍격’이란 뜻이다.
☆‘훌륭한 풍속교화(風俗敎化)와 정치적 업적’을 이르는 말이다.
- ② 송육해(送六翮):
☆송(送): 전송(傳送: 전하여 보냄)하다.
☆육해(六翮):
a. 조류(鳥類)의 머리·목·몸통·꽂지·다리·날개 등 여섯 곳의 깃털을 이르는 뜻인데, 새의 양익(兩翼: 양쪽 날개)을 가리키는 말로 쓴다. 본 시에서는 ‘날아가며 치는 날개질’을 가리키는 뜻으로 쓰였다.
b. 새를 가리키는 말로도 쓴다.
- 4) 소요 호경계(逍遙好境界: 정경情景 멋진 하늘에서 유유자적하니):
- ① 소요(逍遙): 소요(逍搖)라고도 쓴다.
☆유유자득(優遊自得: 유유자적悠悠自適: 안한자재安閑自在: 속세를 떠나 아무 속박 없이 조용하고 편안하게 삶)하다.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기타 자세한 뜻은 앞의 「시94」 주석7)의 ‘소요(逍遙)’조항을 참조바람.
- ② 경계(境界):
☆정경(情景: 풍경).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일정한 표준아래서, 사물이 도달하는 정도나 표현된 정황(情況)을 가리킨다.
☆학문·예술·인품 따위에서 일정한 특성과 체계를 갖춘 독자적인 범주나 부분.

☆강계(疆界). 토지가 구분되는 한계.

5) 무극(無極) :

① 끝이 없음. 무한(無限)함.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② 중국의 고대철학에서 ‘우주만물을 형성하는 본원(本原)’이라고 인식된 것이다. 그것은 형상도 없고, 성색(聲色 : 소리와 색깔)도 없으며, 시종(始終 : 처음과 끝)도 없고, 무엇이라고 명칭 할 수도 없는 까닭에 ‘무극(無極)’이라 하였다. ‘무극’이란 말은 『노자(老子)』 28장에, “세상의 본보기가 됨으로, 영원한 덕에서 어긋나지 않고, 무극의 상태로 돌아가게 된다(爲天下式*, 尙德*不忒*, 復歸於無極*).”고 한 대목에서 처음 보인다. 또한 ‘태극(太極 : 모든 것의 대근원大根原으로 이는 우주 사이에 충만해 있는 原氣임)’이란 말은 『주역(周易) · 계사전(繫辭傳) 상(上)』에 “천지만물이 변하여 바뀌는[변역變易] 가운데는 태극이 있으니, 이것이 양의[음기陰氣 · 양기陽氣]를 낳고, 양의는 사상[태음太陰 · 태양太陽 · 소음少陰 · 소양少陽]을 낳고, 사상은 팔괘[건乾 · 곤坤 · 이離 · 감坎 · 진震 · 손巽 · 간艮 · 대兌]를 낳는다(易有太極, 是生兩儀, 兩儀生四象, 四象生八卦).”에서 처음 보인다.

*식(式) : 모칙(模則) : 표준.

*특(忒) : 착오. 과실(過失).

*무극(無極) : 원시(元始)의 경계(境界)를 가리키는 말로서, ‘도(道)’가 끝없이 광대함을 이르는 말이다.(이상은 중국 국립 무한대학교武漢大學校 중문과 교수를 역임한 풍달보(馮達甫 : 1909~1997)가 찬편하고 상해고적출판사上海古籍出版社에서 간행한 『노자역주(老子譯注)』 참조)

③ 북송의 유학자 주돈이(周敦頤 : 1017~1073)의 「태극도설(太極圖說)」에 와서는, “무극無極이면서 태극太極이다(無極而太極). 태극은 운동하여 양陽을 생성하고(動極而靜), 운동이 극에 달하면 정지상태에 이르게 되고(動極而靜), 정지 상태에 이르게 되면 음陰이 생성된다(靜而生陰). (이렇게) 운동했다 정지했다 하면서(一動一靜), 서로가 각각의 근원이 되며(互爲其根), 음으로 분화分化되고 양으로 분화되어(分陰分陽), (천지간에는 비로소) ‘음양’이란 두 종류의 상반되는 기운이 성립하게 된 것이다(兩儀立焉). (그런 다음에 다시) 양이 변동하고 음이 결합됨으로 말미암아 수水 · 화火 · 목木 · 금金 · 토土 등 오행五行의 기(氣)를 생산하고(陽變陰合而生水火木金土), 이 오기五氣가 순조롭게 펼쳐지면서(五氣順布), 사계절이 운행된다(四時行焉). 오행은 음양에 근원을 두고(五行一陰陽也), 음양은 태극에 근원을 두며(陰陽一太極也), 태극은 본래 무극이다(太極本無極也).”라고 했다. 또한 송대 유학을 집대성한 남송의 유학자 주희(朱熹 : 1130~1200)의 『태극도설해(太極圖說解)』에서는 이 무극(無極)에 대하여 해석하기를, “하늘의 일은 소리도 없고 냄새도 없지만, 실제로는 조화의 중심축이고 만물의 뿌리이다. 그러므로 ‘무극이면서 태극이다’라고 말했으나, 태극밖에 다시 별도의 무극이 있는 것은 아니다(上天之載, 無聲無臭, 而實造化之樞紐, 品彙之根柢也. 故曰無極而太極, 非太極之外復有無極也).”라고 했다. 주희는 또 “무극을 말하지 않으면 태극은 하나의 사물과 같아져서 온갖 조화의 근원이 되기에 부족하며, 태극을 말하지 않으면 무극은 공허하고 적막함에 빠져 만물의 근원이 될 수 없다. ‘무극’이면서 ‘태극’이다라는 이 한 구절이야말로 그 표현이 정밀하고 미묘하여 무궁함을 보여준다. 그리하여 그 아래에서 말한 많은 도리가 논리와 맥락이 질서정연하

다. 이 구절이 지금 우리 앞에 있으니 예로부터 지금까지 어떠한 경우에도 깨뜨릴 수 없다(不言無極, 則太極同於一物, 而不足爲萬花之根, 不言太極, 則無極淪於空寂, 而不能爲萬物之根, 只此一句, 便見其下語精密微妙無窮. 而向下所說許多道理, 條貫脈絡, 井井不亂. 只今便在目前, 而亘古亘今顛撲不破).”라고 하였다.

- 6) 부지 일신고(不知一身高: 〈학은〉 저 한 몸이 얼마나 존귀한지는 모르지만):
- ① 일신(一身): 자기 한 몸. 본 시에서는 백학(白鶴)은 자신을 가리키는 말로 쓰였다.
 - ② 고(高): 존귀하다.
- 7) 단각 쌍안활(但覺雙眼豁: 두 눈에 사방이 탁 트였다는 것만은 알리라):
- ① 단각(但覺): 감지(感知)하다. 의식(意識)하다. 찰지(察知)하다. …만을 감지하다.
 - ② 쌍안(雙眼): 두 눈. 여기서는 학에 기탁한 화자의 두 눈을 칭한 것이다.
 - ③ 활(豁): ☆광활하다. 앞이 넓게 탁 트이다.
- 8) 황하(黃河): 황하강: 중국 서북에서 북부로 흐르는 강으로, 중국에서 두 번째로 큰 강이다. 최초에는 ‘하수(河水)’라고 칭했으며, ‘황하’라고 칭한 최초의 기록은 『한서(漢書)·고혜고후문공신표(高惠高后文功臣表)』에서 보인다. 황하는 지금의 청해성(青海省) 파안궤라산(바옌카라산巴顏喀喇山) 북쪽 기슭에서 발원한다. 전체 길이는 5494km이고, 유역면적은 7524만 km²이다. 황하는 흐르면서 황토와 뒤섞인 흙모래가 쉽게 쌓이고 강둑이 쉽게 무너지면서, 상류는 영하성(寧夏省)과 내몽고 하투평원(河套平原)에서, 중류는 산서성(山西省)과 섬서성(陝西省)의 용문현(龍門縣)과潼關縣(潼關縣) 사이에서, 하류는 하남성(河南省)의 무척현(武陟縣)과 형양현(滎陽縣) 이하에서 하도(河道)가 수시로 변천한다. 역사 기록의 통계에 의하면, 강둑이 무너지는 횟수가 대략 일천 오륙 백 여회에 이른다. 이렇게 여러 성(省)을 거쳐 물길이 수시로 바뀌면서 흐르다가 산둥성(山東省) 북부에서 발해(渤海)로 유입된다.
- 9) 태산 추호말(太山秋毫末: 태산이 털끝처럼 미세하게 보이리라):
- ① 태산(泰山): ☆산 이름.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산둥성(山東省) 중부인 태안시(泰安市)·제남시(濟南市)·치박시(淄博市) 등 3개 시(市) 사이에 위치한다. 총면적은 24,200 헥타아르(hectare)이며, 주봉(主峰)인 옥황정(玉皇頂)은 해발 1545m로서, 그 기세가 드높아서, ‘오악(五岳: 五嶽) 중의 으뜸’이라고 하여, ‘오악지수(五嶽之首)’ 또는 ‘오악지장(五嶽之長)’이라고도 하고, ‘천하제일 산(天下第一山)’이라고도 한다. 산세(山勢)의 풍경이 매우 아름답다. 옛날에는 동악(東岳)이라고 칭했으며, 대종(岱宗)·대산(岱山)·태대(泰岱) 등으로도 칭한다. 고대 제왕들은 항상 이곳에서 봉선(封禪: 흙으로 단壇을 만들어 하늘에 제사 지내고 땅을 정淨하게 하여, 산천에 제사 지내던 일)의 대전(大典: 나라의 성대하고 장중한 의식儀式)을 거행하였다.
 - ☆중대하거나 가치가 있는 사물을 비유하는 말로 쓴다.
 - ☆안정되고 견고한 것을 비유하는 말로 쓴다.
 - ☆믿고 의지할 사람(후원자. 배경)을 뜻하는 말로 쓴다.
 - ☆장인(丈人)의 별칭(別稱)으로 쓴다.

② 추호말(秋毫末) : 추호지말(秋毫之末) :

☆가을철에 조수(鳥獸)는 털갈이를 하면서 묵은 털이 빠지고 새털이 나는데, 그 때 새로 자란 털의 끝이라는 뜻으로, 지극히 미세한 것을 비유하는 말로 쓴다. ‘가을철의 새나 짐승의 새로 자란 털의 털끝’이란 말로 요약된다.

a. 추호(秋毫) : 추호(秋豪)로도 쓰며, 가을철에 조수(鳥獸)의 새로 자란 가는 털이다. 미세한 것을 비유하는 말로 쓴다.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b. ‘사물의 끝’이란 뜻인데, 본 시에서는 ‘털끝’을 가리키는 말로 쓰였다.

10) 도남 역다사(圖南亦多事 : 사람은 포부가 크면 번거로운 일도 많지만) :

① 도남(圖南) :

☆『장자(莊子) · 내편(內篇) · 소요유(逍遙遊)』에, “북쪽 끝의 바다에 물고기가 있는데, 그 물고기의 이름을 ‘곤(鯀)’이라고 한다(北冥有魚, 其名爲鯀). …… 그 물고기가 새로 변하니, 그 새 이름을 ‘봉(鵬)’이라고 한다(化而爲鳥, 其名爲鵬). …… 그 새가 남쪽 끝의 바다로 날아가는데, 날개로 수면水面 삼천리를 물결을 치고, 회오리바람을 일으켜서 구만리 상공에 날아오르는데, ……〈그렇게 해야〉 위로는 푸른 하늘을 등지고 앞으로는 아무런 장애물이 없어지게 되는데, 그런 다음에야 남쪽 끝을 향해 날아간다(鵬之徙於南冥也, 水擊三千里, 搏扶搖而上者九萬里……背負青天而莫之夭閼者, 而後乃今將圖南).”고 한 대목이 있다. 후세 사람들은 이 문장에 나오는 ‘도남(圖南)’이란 말을 ‘사람이 지향(志向)하는 바가 즉, 포부가 원대(遠大) 것’을 비유하는 말로 썼다.

② 다사(多事) :

☆성가신(번거로운. 귀찮은)일이 많다. 사고가 많다.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장자(莊子) · 외편(外篇) · 천지(天地)』에, “아들이 많으면, (형제 불화로 인해) 걱정이 많아지고, 부유하면 (그것을 지키기 위해 일하다보니) 번거로운 일을 많이 치르게 되며, 장수하다 보면 (이 세상의 곤욕을 많이 치르게 된다(多男子則多懼), 富則多事, 壽則多辱).”는 구절이 있다.

☆쓸데없는 일을 하다. 해서는 안될일을 하다. 『장자(莊子) · 잡편(雜篇) · 어부(漁夫)』에, “선생은 지금 위로는 군주나 후작의 권세도 없고, 아래로는 신료의 직책마저 없는데도, 멋대로 예악을 수정修整하고, 인륜을 제정하며, 평민을 교화하니, 지나치게 쓸데없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今子既上無君侯有司之勢, 而下無大臣職事之官, 而擅飾禮樂, 選人倫, 以化齊民, 不泰多事乎?)”라고 한 대목이 있다.

11) 적의 무남북(適意無南北 : 마음을 넓게 가지면 남북을 따지지 않는다네) :

① 적의(適意) :

☆마음을 넓게(편히) 가지다. 안심하다. 마음을 놓다. 쾌적하다. 편안하다.

☆마음에 들다. 흡족하다.

② 남북(南北) :

☆남과 북. 남방과 북방. 남쪽과 북쪽. 본 시에서는 전(轉)하여, ‘남북을 구별하다. 남북을 따지다’는 뜻으로 쓰였다.

☆남에서 북까지. 남북 사이(南北之間).

☆‘남방이거나 북방이거나(남방이든 북방이든. 남방이라고 했다가 북방이라고 했다가)’의 뜻으로, 한결같이 않거나 고정되지 않는 것을 비유한 말이다.

☆남북조시대(南北朝時代 : 220~589)의 경학(經學)을 남북양파(南北兩派)로 분리하여, ‘남북학(南北學)’이라 이르는데, 이것을 뜻한다. 남학(南學)은 왕숙(王肅 : 195~256) · 왕필(王弼 : 226~249) · 두예(杜預 : 222~284) 등이 중심이 되어 주로 문학과 예술을 중시하였고, 북학(北學)은 정현(鄭玄 : 127~200)과 복건(服虔 : 생몰년 미상) 등이 중심이 되어 경학을 중시했다.

시150. 회암晦庵 주희朱熹선생의 시 「매미소리를 듣고서(聞蟬)」를 차운次韻하여



詩150. 次晦庵聞蟬¹⁾ 차 회 암 문 선

高林滴餘雨²⁾,
고 립 적 여 우

산언덕 숲에 오던 비가 멎었는가 싶더니

西日照前扉³⁾.
서 일 조 전 비

저물녘에 석양빛이 사립문 앞을 비추네.

滿樹蟬聲起⁴⁾,
만 수 선 성 기

온 수림은 매미 소리로 요란해지는데,

村深人到稀⁵⁾.
촌 심 인 도 희

촌락이 외저선지 인적은 오히려 드무네.

- 1) 차회암문선(次晦庵聞蟬) : 회암晦庵 주희朱熹선생의 시 「매미소리를 듣고서(聞蟬)」를 차운次韻하여 :

- ① 차(次) : 앞의 「시20」의 주석1)의 ‘차운’ 조항을 참조바람.
② 회암문선(晦庵聞蟬) : 회암이 지은 시 「문선(聞蟬)」.

☆회암(晦庵) : 남송(南宋)의 유학자 주희(朱熹 : 1130~1200)가 건도년간(乾道年間 : 1165~1169)에 건립한 강학(講學) 장소이다. 장소는 지금의 복건성(福建省) 건양시(建陽市) 서북에 위치한 운곡산(雲谷山) 옆에 있다. 주희가 이곳에서 학문을 강의하였기에 후대의 사람들은 ‘회암선생(晦庵先生)’이라고 불렀다. 주희(朱熹) 관련 자료는 앞의 「시20」의 주석1)의 ‘주희(朱熹)’ 조항을 참조바람.

☆문선(聞蟬) : 본 인용 시제(詩題)는 남송 소흥(紹興) 24년(1154년)에 주희가 복건성(福建省) 천주부(泉州府) 동안현(同安縣) 주부(主簿)로 임직(任職)시에

지는 것이다. 서예선생은 원시(原詩)의 ‘비(飛)·희(稀)’운자(韻字)를 차운하여 위의 시를 지었다. 원시(原詩)는 아래와 같다: 살며시 산 외곽으로 어둠이 스며드니, 아마도 고향집에도 사립문 닫았겠지(悄悄山廓暗, 故園應掩扉)。매미소리 우겨진 나무숲에서 들려오는데, 수림밖엔 석양빛이 엷어져 가네(蟬聲深樹起, 林外夕陽稀)。

2) 고림 적여우(高林滴餘雨: 산언덕 숲에 비가 맺었는가 싶더니):

- ① 고림(高林): 산림(山林: 산에 있는 숲). 산상(山上)의 수림(樹林). 산언덕의 수림.
☆고(高): 높은 곳. 주로 산이나 산언덕을 가리킨다. 본 시에서도 이 뜻으로 쓰였다.
- ② 적여우(滴餘雨: 오던 비가 맺다): 큰 비가 지나간 뒤에 거의 끝나가는 상태의 비가 내리는 모양을 묘사한 것이다.
☆적(滴): 죽죽 내리던 큰 비가 점차 줄어들어서 가는 빗방울로 변하는 상태를 나타낸 것이다. 즉, ‘비가 거의 내리지 않는 상태’를 뜻하는 동사이다.
☆여우(餘雨): 큰 비의 뒷부분. 거의 멎어가는 상태의 비.

3) 서일 조전비(西日照前扉: 저물녘에 석양빛이 사립문 앞을 비추네):

- ① 서일(西日): 석양(夕陽). 본 시에서는 ‘저물녘의 햇빛’이란 뜻으로 쓰였다.
☆서(西): 시간부사로 쓰여, ‘저물녘에’의 뜻으로 쓰였다.
☆일(日): 석양 빛.
- ② 전비(前扉):
☆사립문 앞쪽. 본 시에서는 ‘서향하고 있는 집의 앞문을 가리키는 뜻으로 쓰였다.’
a. 비(扉):
④ 사립문.
⑤ 가옥. 거실. 옥사(屋舍).

4) 만수 선성기(滿樹蟬聲起: 온 수림은 매미 소리로 요란해지는데):

- ① 만수(滿樹): 온 수림.
☆수(樹): ‘나무’의 총칭으로, 본 시에서는 ‘수림(樹林)’을 가리키는 뜻으로 쓰였다.
- ② 선성기(蟬聲起): 매미가 울기 시작하다.
☆선성(蟬聲): 매미 우는 소리.
☆기(起):
a. ...하기 시작하다.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b. 터져 나오다. 울려 퍼지다.

5) 촌심 인도희(村深人到稀: 촌락이 외저선지 인적은 오히려 드무네):

- ① 촌심(村深): 촌락이 유심(幽深: 조용하고 깊숙함)하다. 한적하다. 외지다. 본 시에서는 ‘외지다’로 번역하였다. 촌락이 깊은 산골에 위치하다.
☆심(深): 깊은 산골짜기.
- ② 인도희(人到稀): 찾는 사람도 드물다. 사람들이 찾아오는 경우가 드물다.
☆인도(人到): 사람들이 오다.
a. 도(到): (어떤 장소나 시간에) 이르다(가다). 여기서는 전(轉)하여, ‘찾아오다’는 뜻으로 쓰였다.
☆희(稀): 드물다.

시151. 이정 而靜 김윤안 金允安에게 알리다

詩151. 示金而靜¹⁾
시 김 이 정



老人多病卧空廊²⁾,
노인 다 병 와 공 랑

늙은이 병이 잤아 텅 빈 사랑채에
누웠자니,

秋夜沈沈更漏長³⁾.
추 야 침 침 경 루 장

가을 밤 적적한데 밤은 길기도
하네그려.

往事入心多歷歷⁴⁾,
왕 사 입 심 다 역 역

지난 일에 깨달은바 아주 역력하거늘,

新愁上鬢更蒼蒼⁵⁾.
신 수 상 빈 경 창 창

새로운 수심이 살췌에 붙어 더
희끗희끗해졌네.

難尋變化風雲氣⁶⁾,
난 심 변 화 풍 운 기

천지만물의 변화상태 갈피 잡기
어려우나,

自有分明日月光⁷⁾.
자 유 분 명 일 월 광

일월의 밝은 빛은 본래부터 뚜렷하다네.

江上已驚聞落木⁸⁾,
강 상 이 경 문 낙 목

(내가) 강변에서 낙엽 지는 소리에
이미 놀랐거늘,

不須鵝鵝怨羣芳⁹⁾.
불 수 제 계 원 군 방

소쩍새가 (구태여) 향초香草 원망하며
을 필요는 없겠지.

1) 시김이정(示金而靜: 이정 김윤안에게 알리다):

① 시(示):

☆알리다. 말하다. 고지(告知)하다.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교도(教導)하다.

② 김이정(金而靜): 이정(而靜) 김윤안(金允安): ‘이정(而靜)’은 김윤안의 자(字)이다. 이렇게 성씨 다음에 자를 쓴 것은 경칭(敬稱)의 한 예이다. 자 대신에 호(號)를 쓰기도 하고 직함을 쓰기도 한다. 이름은 그 뒤에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다.

☆김윤안(金允安: 1562~1620):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순천이고 자는 이정(而靜)이며, 호는 동리(東籬)이다. 아버지는 현감 박(博)이다. 류성룡(柳成龍: 1542~1607)의 문인(門人)이다. 1588년(선조 21)에 생원시에 합격하였고 임진왜란 때 김해(金海: 1534~1593) 휘 하에서 형 윤명(允明)과 함께 의병을 일으켰다. 1604년 생원으로 상소를 올려 오현(五賢)을 문묘에 종사(從祀)할 것을 청하였으나, 선조가 이언적(李彦迪: 1491~1553)의 사적에 미심쩍음이 많다고 하여 부당하다는 전교를 내렸다. 1612년 증광문과(增廣文科)에 갑과(甲科)로 급제하여 대구부사(大邱府使)·대사간(大司諫: 사간원司諫院의 최고직으로, 임금에게 충간忠諫하는 일을 맡아보는 한편, 다른 사람의 언론을 왕에게 상주奏하는 일도 맡아 보았음. 정3품 벼슬임)을 역임하였다. 특히 대구부사로 있을 때, 백성을 관대하게 다스리고 권세 앞에서도 뜻을 굽히지 않았다. 그리고 정온(鄭蘊: 1569~1641)이 영창대군(永昌大君: 1606~1614) 피살의 부당함을 주장하다가 체주로 유배될 때에는 시를 지어 그를 위문하였다. 「시131」의 주석1)의 ① ‘김이득(金而得)’ 항목을 참조바람.

2) 노인다병 외공랑(老人多病臥空廊: 늙은이 병이 잦아 텅 빈 사랑채에 누웠자니):

① 다병(多病): 몸에 병이 많거나 잦다.

② 공랑(空廊): 텅 빈 사랑채.

☆랑(廊):

a. 사랑채(바깥채나 바깥쪽에 있는 사랑舍廊의 집채).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b. 결채(몸채 옆의 뜰 채).

3) 추아침침 경루장(秋夜沈沈更漏長: 가을 밤 적적한데 밤은 길기도 하네그려):

① 침침(沈沈): 침침(沉沉)으로도 쓴다.

☆(밤이 깊어) 적막한 모양과 고요한 모양을 이르는 말인데, ‘적적(寂寂)하다’로 표현할 수 있다.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성(盛)한 모양. 무성한 모양.

☆물이 깊은 모양. 비가 많이 오는 모양.

☆(정도가) 깊은 것을 형용한 말로서, 예를 들면, 잠이 깊이 든 모양인데, ‘쿨쿨 자다’로 표현할 수 있다.

☆심사(心事)가 침중(沈重: 무거움)한 것을 형용한 말.

☆정적(靜寂)이 감돌거나 소리가 멀리서 은은하게 들리는 것을 형용한 말.

☆소식(기별, 편집)이 감감한 것을 형용한 말. 종무소식을 형용한 말.

☆‘단단[沈沈]’으로 발음하며 (읽어서) ‘궁궐이 깊고 조용한 모양’이란 뜻으로 쓰는 말.

② 경루장(更漏長: 밤이 길다): 밤 시간이 지루함을 가리키는 말이다.

☆경루(更漏):

a. 야간(夜間)의 시간을 가리킨다.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b. 누각(漏刻) 또는 각루(刻漏)라고도 하며, ‘물시계’이다. 물의 증가 또는 감소로 시간을 측정하는 이 장치는 고대에 야간의 시간을 5등분한 오경(五更)을 구분하였던 까닭에 이렇게 일컬어진 말이다.

④ 경(更): 해질녘부터 새벽까지 5등분한 야간의 시간을 말하며, 일경(一更: 초경初更: 저녁 7시부터 9시 사이) · 이경(二更: 밤 9시부터 11시 사이) · 삼경(三更: 야경夜更: 야삼경夜三更: 밤 11부터 새벽 1시 사이) · 사경(四更: 새벽 1시에서 3시 사이) · 오경(五更: 오야五夜: 새벽 3시부터 5시 사이)이다.

⑤ 루(漏): 누수기(漏水機: 물이 가는 구멍으로 떨어지는 양량을 누호漏壺 속에 세운 누전漏箭의 눈금으로 읽어 시간을 재는 장치). 물시계.

☆장(長): (밤이) 길다. (밤 시간이) 더디 가다. (밤 시간이) 천천히 가다.

4) 왕사입심 다역력(往事入心多歷歷: 지난 일에 깨달은 바 아주 역력하게늘):

① 왕사입심(往事入心): 지나간 일. 지나간 일을 하나하나 파악하는 가운데 깨우치다.

☆왕사(往事): 지나간 일.

☆입심(入心):

a. 영오(領悟)하다. 깨닫다. 이해하다. 파악하다. 납득하다.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육조시대(六朝時代: 남조시대南朝時代: 후한後漢이 멸망한 뒤 수隋나라가 통일할 때까지 양자강揚子江 남쪽에 있었던 6개 왕조로, 오吳 · 동진東晉 · 송宋 · 제齊) · 양(梁) · 진陳을 이룸) 송나라 문인(文人) 유의경(劉義慶: 403~444: 송나라 종실宗室인)이 편찬한 일화집(逸話集) 『세설신어(世說新語) · 언어(言語)』에, “유윤(劉尹: 유담劉惔: 생물년 미상)이 환선무(桓宣武: 환온桓溫: 312~373)와 함께 『예기(禮記)』의 강론을 들었는데(劉尹與桓宣武共聽講『禮記』), 환선무가 말하기를(桓云): ‘가끔씩 깨달을 때가 있는데, 그러면 바로 높고 깊은 경지(궁극적인 경지: 고심高深한 경지: 현문玄門)에 접근한 것을 느낍니다(時有入心處, 便覺咫尺玄門).’라고 하자, 유윤이 답하기를(劉曰): ‘그 말은 아직 최고의 경지에 이르지 않았으며, 원래 유생들이 경전을 강론하면서 말하는 진부하고 상투적인 논조에 불과합니다(此未關至極, 自是*金華殿之語*).’라고 하였다.”

*자시(自是): 원래. 본래.

*금화전지어(金華殿之語): 유생들이 경전을 강론하면서 말하는 ‘진부하고 상투적인 논조(陳詞濫調)’를 가리킨다. 금화전은 서한(西漢)의 궁전 명칭인데, 성제(成帝) 시기에는 이곳에서 『상서(尚書)』와 『논어(論語)』 등의 경전을 강론했다.(본 주석은 광서사범대학廣西師範大學에서 출판하고 구회인丘希仁 · 황림도黃林濤가 편제한 『세설신어 역주(世說新語譯注)』를 참조하였음)

b. 회심(會心: 마음에 호뭇하게 들어맞음. 마음에 들). 한국어에서는 ‘회심의 미소’처럼 ‘회심의 형태’로 쓰인다.

- ② 다역력(多歷歷): 얼마나 역력하던지!
 ☆다(多): 부사로, '많이. 아주. 얼마나'의 뜻으로 쓰였다.
 ☆역력(歷歷):
 a. 또렷한(뚜렷한. 똑똑한. 분명한. 명석한) 모양으로, '역력하다'로 표현된다.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b. 하나하나. 일일이.
 c. 열을 짓다. 줄을 서다. 늘어서다. 또는 그런 모양.
 d. 문채(文彩: 문양과 색채)가 수려한 모양.
 e. 영락(零落)하는 모양
 f. 의성어로서, '닐리리'하는 노랫소리 또는 관악기 소리나 나뭇가지 끝에 바람이 '윙왕'하며 세차게 부는 소리 등을 형용한 말.
- 5) 신수상빈 경창창(新愁上鬢更蒼蒼: 새로운 수심이 살쨍에 붙어 더 희끗희끗해졌네):
 ① 상빈(上鬢): 살쨍에 달라붙다.
 ☆상(上): 더하다. 도달하다. 첨부하다. 부착하다. 칠하다. 바르다 는 뜻인데, 본 시에서는 전(轉)하여, '달라붙다'는 뜻으로 쓰였다.
 ☆빈(鬢): 살쨍. 귀밑머리. 관자놀이와 귀 사이에 난 머리털이다.
 ② 창창(蒼蒼):
 ☆회백색(灰白色). 희끗희끗하다.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심청색(深青色). 짙은 청색. 빛이 새파란 모양.
 ☆하늘을 가리키는 말. 하늘이 개어 밝은 모양.
 ☆무성하다. 많다.
 ☆아득히 넓어 끝이 보이지 않다.
 ☆망망하다. 아득하다. 미망(迷茫)하다.
- 6) 난심 변화풍운기(難尋變化風雲氣: 천지만물의 변화상태 감피 잡기 어려우나)
 ① 난심(難尋): 만물의 변화상태에 대한 실마리를 찾기가 어렵다. 이는 복잡다단한 인생사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② 변화풍운기(變化風雲氣): 변화가 무상(無常)한 풍운의 기세.
 ☆변화(變化): 풍운기(風雲氣: 풍운의 기세)에 대한 변화를 말함.
 ☆풍운기(風雲氣):
 a. 변화무상(變化無常: 수시로 변함. 변화가 심하여 종잡을 수 없음)한 형세 혹은 상황을 가리키는 말.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④ 풍운(風雲): 헤아릴 수 없이 변화하는 시세(時勢: 시대의 추세)를 비유한 말.
 ⑤ 기(氣): 기세(氣勢). 형세. 정세.
 b. 바람과 구름의 기상(氣象).
 ④ 풍운(風雲): 바람과 구름.
 ⑤ 기(氣): 기상(氣象).
 c. 영웅적인 기질.
 ④ 풍운(風雲): 영웅적인 지략이나 원지(遠志)를 비유한 말.
 ⑤ 기(氣): 기질. 정서(情緒).

- 7) 자유분명 일월광(自由分明日月光 : 일월의 밝은 빛은 본래부터 뚜렷하다네) :
- ① 자유분명(自有分明) : 만물은 본래부터 본성을 뚜렷하게 지니고 있다.
 ☆자유(自有) : 본래부터 지니고 있다.
 ☆분명(分明) :
 a. (빛이) 밝다. 환하다.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b. 명확하다. 분명하다. 확실하다.
 c. 변명하다. 사리(事理)를 분명히 밝히다.
 d. 명백히. 분명히. 현저하다. 명백하다.
 e. 공명정대하다. 정정당당하다. 떳떳하다.
- ② 일월광(日月光) : 햇빛과 달빛. 해와 달의 빛. 여기서는 사람이 천부적으로 지닌 밝은 본성[明德]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 8) 강상이경 문낙목(江上已驚聞落木 : 강변에서 낙엽 지는 소리에 이미 놀랐거늘) :
- ① 강상(江上) :
 ☆강변.
 a. 상(上) : 명사 뒤에 쓰여서, 물체의 표면을 표시하기도 하고, 강변을 표시하기도 하며, 일정한 장소나 범위를 표시하기도 하고, 모종(某種)의 연고(緣故)를 표시하기도 하며, 사물의 어떤 방향을 표시하기도 한다. 본 시에서는 ‘강변(江邊)’을 표시한 말로 쓰였다.
 ☆강물의 수면.
 ☆강물의 수중(水中 : 물속).
- ② 낙목(落木) : 낙엽.
 ☆목(木) : 수엽(樹葉). 나뭇잎.
- 9) 불수 제계원군방(不須鵝鵲怨羣芳 : 소쩍새가 <구태여> 향초 원망하며 울 필요는 없겠지) :
- **역주주석** : 본 시구(詩句)의 시의(詩意)는 굴원(屈原 : BC 340~BC 278)의 「이소(離騷)」에서 “소쩍새[두견이]가 먼저 울어, 온갖 향초들 향기 잃게 될까 두렵네(恐鵝鵲之先鳴兮, 使夫百草爲之不芳).”라고 하는데서 보인다. 여기서 굴원은 소쩍새에 의해, 충직한 현자[百草]가 위해(危害)를 당할까봐 두려워하는 시의(詩意)를 시사하고 있다. 왜냐하면, 소쩍새가 춘분(春分)전에 울면 초목이 시든다는 속설이 있기 때문이다. 굴원이 생각하기에 춘분이 아직은 봄이라고 생각하기에는 이르다는 뜻을 내포하여, 자연의 순리를 역행하는 것은 ‘선(善)’이 아니라는 것을 그의 「이소」에서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고로, 「이소」에서는 이 두견새를 충직한 인사를 모함하는 사람에 빗대어 읊고 있는 것이다. 위의 서예의 시는 본 시구(詩句)의 출구(出句)에서 “<내가> 강변에서 낙엽 지는 소리에 이미 놀랐거늘(江上已驚聞落木).”이라고 하여, 살상(殺傷)의 계절인 가을의 기운에서 이미 나무는 낙엽이 되는 비애를 겪고 있다. 그러므로 대구(對句 : 不須鵝鵲怨羣芳)에서는 ‘구태여 소쩍새까지 함세하여 ‘군방(羣芳 : 향초羣草, 못원자賢者들)’을 원망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화자의 내심을 들어내어, 서애가 처한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함축하고 있다. 「시7」의 주석7)의 ② ‘향초(芳草)’ 조항을 참조바람.
- ① 불수(不須) : …할 필요 없다.
- ② 제계원군방(鵝鵲怨羣芳 : 두견이 못 향초를 미워하다) :

☆제계(鵲鷓) : 소쩍새, 곧 두견새이다. 본 시에서는 김유안(金允安)을 비유한 말로 쓰였다. 굴원의 『초사(楚辭)·이소(離騷)』에, “두견이 먼저 울어, 온갖 향초들 향기 잃게 될까 두렵네(恐鵲鷓之先鳴兮, 使夫百草爲之不芳).”라고 읊고 있는데, 후한(後漢)의 문인(文人), 왕일(王逸 : 89?~158)은 그의 『초사장구(楚辭章句)』에서, 이 글귀에 주석(注釋)하기를, “두견은 … 항상 춘분에 운다(鵲鷓, …常以春分鳴也).”고 하였다. 또한 북송(北宋) 말엽의 학자 홍흥조(洪興祖 : 1090~1155)는 그의 『초사보주(楚辭補注)』에서, “『금경(禽經)』에, 강개(江介)는 또 말하기를 ‘제계鵲鷓가 울면 풀들이 시든다(按『禽經』云 : 江介又曰 : 鵲鷓鳴而草衰).’고 하였다. 앞의 「시43」 주석7)의 ‘견수(鵲愁)’ 조항을 참조바람.

☆원(怨) :

- a. 원망하다.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 b. 미워하다.

☆군방(羣芳) :

- a. ‘못 향초(香草)’라는 뜻인데, 여러 현사(賢士)나 미인을 비유한 말이다. 본 시에서는 ‘어진 선비들’을 비유한 말로 쓰였다.

시152. 와병 중에 주부主簿 김협金協이
구담九潭으로 돌아가는 것을 송별하면서
- 정미년(丁未年: 1607년) 2월에 -



詩152. 病中送金主簿協¹⁾ 還九潭 丁未二月²⁾
병 중 송 김 주 부 협 환 구 담 정 미 이 월

碧河同掩十里扉³⁾, 푸른 강이 십리나 되는 문짝 닫힌
벽 하 동 업 십 리 비 모양으로 흐르는데,

桃浪生時鰕魚肥⁴⁾。 도화수桃花水 물결 일며 흐를 때라
도 랑 생 시 쉼 어 비 쏘가리가 살찌겠네.

可笑生涯從此盡⁵⁾, (내) 생애가 여기서 끝나다니 싶어
가 소 생 애 종 차 진 가소롭지만,

一江明月屬君歸⁶⁾。 온 강에 달 밝은데
일 강 명 월 속 군 귀 자네 귀가하니 다행일세.

1) 병중송김주부협(病中送金主簿協) : 와병 중에 주부主簿 김협金協을 송별하다 :

① 김주부협(金主簿協) : 주부(主簿) 김협(金協) : ‘주부(主簿)’는 관명(官名)이고 ‘협(協)’은 이름이다. 이렇게 성씨 다음에 관명이나 자(字) 또는 호(號)를 쓰고 이름은 그 뒤에 쓰기도 하고 안 쓰기도 하는 것은 경칭(敬稱)의 한 예이다.

☆주부(主簿) : 조선시대의 관직이다. 돈녕부(敦寧府 : 왕실에 가까운 친척간의 친선을 도모하기 위한 사물을 처리하던 관청) 봉상시(奉常寺 : 국가의 제사와 시호諡號에 관한 사무를 맡아보던 관청), 종부시(宗簿寺 : 왕실의 계보인 선원보첩璿源譜牒을 편

집 기록하고 종실宗室의 잘못을 조사 규탄하던 일을 맡아보던 관청), 시옹원(司饔院 : 궁중의 음식을 맡아보던 관청), 내의원(內醫院), 군기시(軍器寺 : 병기兵器의 제구를 맡아보던 관청), 장악원(掌樂院), 관상감(觀象監 : 천문·지리학·역수(曆數 : 책력)·측후測候·각루刻漏 등의 사무를 맡아보던 관청), 전의감(典醫監 : 궁중에서 사용하는 의학의 공급을 맡아보던 관청), 혜민서(惠民署 : 일반 서민에 대한 치료를 맡아보던 관청), 전옥서(典獄署 : 구금된 죄수의 행형行刑의 사무를 맡아보던 관청), 오부(五部 : 한성漢城의 행정구역으로 당시 서울을 동부·서부·중부·남부·북부 등으로 나누어 소송·도로·방화防火·택지宅地 등의 사무를 맡아보던 관청), 훈련원(訓練院 : 군사의 시재(試才)·무예의 연습·병서兵書와 전진戰陣 등의 강습을 맡아보던 관청)…등에 두었던 중6품 낭관(郎官 : 6품관六品官) 벼슬이다.

☆김협(金協 : 생몰년 미상) : 본관은 순천(順天)이고 자는 길보(吉甫)이며 호는 충효당(忠孝堂)이다. 감찰(監察 : 사헌부司憲府의 정6품 관직) 김자원(金自願 : 생몰년 미상)의 아들이며 류성룡(柳成龍 : 1542~1607)의 문인(門人)이다. 1592년 임진왜란 때 체부(體府 : 체찰사體察使가 지방에 나가 없무를 수행하던 관아官衙인. ‘체찰사’는 군직軍職의 하나로 국가에 전란이 일어났을 때 임금을 대신하여 그 지방에 나가 일반 군무를 총괄總察하던 업무를 맡아보던 벼슬로, 봉동 재상이 겸임함)에 발탁되어 병기(兵器)를 연구하여 화전(火箭)을 개발하였다. 의학에도 뛰어나 선조의 시의(侍醫 : 임금에게 딸린 의사임)를 지냈으며, 만년에는 혜민서 주부에 임명되었으나 사퇴하였다.

2) 환구담 정미이월(還九潭, 丁未二月 : 정미년 2월에 구담으로 돌아가다) :

- ① 구담(九潭) : 지명(地名)으로 지금의 경북 안동시 풍천면(豐川面) 구담리(九潭里)이다.
- ② 정미이월(丁未二月) : 위의 시는 1607년 선조 35, 서예 66세 2월, 선생이 영면(永眠)하기 석 달 전에 쓴 것이다.

3) 벽하동엄 십리비(碧河同掩十里扉 : 푸른 강이 십리나 되는 문짝 닫힌 모양으로 흐르는데) : 본 시구는 하회에서 구담까지의 물길의 길이와 흘러가는 모양을 모두 표현한 것이다.

- ① 벽하동엄(碧河同掩) : 푸른 강이 ~모양으로 닫혀있다.
 ☆벽하(碧河) : 벽강(碧江) : 흐르는 물이 맑아서 푸르게 보이는 강을 말한다.
 ☆동엄(同掩) : 닫은 것 같다. 본 시에서는 ‘문짝이 닫힌 모양을 형용한 뜻으로 쓰였다.
 a. 동(同) : 본 시에서는 ‘…와 같다’는 뜻으로 쓰였다.
 b. 엄(掩) : ‘닫다’. 본 시에서는 ‘닫은 것’이란 뜻의 명사형으로 쓰였다.
- ② 십리비(十里扉) : ‘십리나 되는 넓은 문짝’이란 뜻으로, 하회(河回)에서 구담(九潭)까지의 거리가 대략 10리 인데, 이 두 지역에 걸쳐 흐르는 낙동강을 문짝에 비유하여 표현한 말이다.
 ☆비(扉) : 문짝. 문선(門扇).

4) 도랑생시 귤어비(桃浪生時鰕魚肥 : 도화수桃花水 물결 일며 흐를 때라 쏘가리가 살찌겠네) :

- ① 도랑생시(桃浪生時) : 도화수(桃花水)가 물결을 일으키며 한창 흐를 철이다.
 ☆도랑(桃浪) : 도화랑(桃花浪 : 복숭아꽃이 필 무렵 불어난 강물의 약칭.

a. 도화랑(桃花浪) : 도화수(桃花水 : 도화신桃花汛) : 춘신春汛) : 중춘(仲春 : 음력 2월)에 얼음이 녹고 비가 오면서 강하(江河)에 물이 불어나고 복숭아꽃이 한창 피는 까닭에 일컬어진 말이다.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중국에서 전해오는 이야기의 하나로, 강에서 도화랑(桃花浪 : 복숭아꽃이 필 무렵 강물이 불어날 때 일어나는 물결)이 일면, 강의 물고기는 모두 용문(龍門 : 황하黃河의 상류에 있는 산 이름인데, 여기서는 그 곳을 통과하는 여울목을 이름) 아래 모여서, 그곳의 여울목을 뛰어넘어야 용이 되는데, 만약 그 여울목을 뛰어넘지 못하면 대가리에 불이 붙고 아가미가 폭발한다고 한다. 이 전설은 동한(東漢) 사람 신씨(辛氏 : 성씨만 전해지고 이름과 생몰년 및 이력은 미상)가 편집한 한대(漢代) 장안(長安)의 지리환경 등을 연구한 지리자료인 『삼진기(三秦記)』에 수록되어 있다. 후에 이 ‘도화랑(桃花浪)’이란 말은 ‘춘위(春圍 : 당송시대의 예부시사禮部試士와 명청시대明清時代의 경성회시京城會試는 모두 봄철에 시행되었기에 이르던 명칭으로, ‘봄철에 치르던 과거 시험’을 이르던 말임)’를 비유한 말로 쓰였다.

☆생시(生時) : ‘살아있을 때. 살나는 시기’라는 뜻인데, 천지가 해동(解凍)이 되면서 ‘얼음이 녹고 물이 불어나 흐르는 때’를 가리키는 말로 쓰였다.

② 꺾어비(鰈魚肥) : 쏘가리가 살이 찌다.

☆꺾어(鰈魚) : 쏘가리.

a. 꺾(鰈) : 쏘가리. 꺾것과의 물고기로 몸의 길이는 40~50cm이고 옆으로 납작하며 보라색과 회색의 다각형 아롱무늬가 많다. 머리가 길고 입이 크다. 관상용으로도 기르며 우리나라 서남해에 흘러드는 여러 하천의 중·하류에 분포한다.

5) 가소생애 증차진(可笑生涯從此盡 : <내> 생애가 여기서 끝나다니 싶어 가소롭지만) :

① 생애(生涯) : 살아 있는 한평생의 기간. 본 시에서는 본 시의 작가 류성룡(柳成龍 : 1542~1607) 자신의 생애를 가리키는 뜻으로 쓰였다. 본 시에서는 서애 류성룡 자신의 생애가 끝나는 것을 가리킨다. 시제(詩題)에서 보듯이 본 시의 작시년대(作詩年代)가 정미년(丁未年 : 1607년, 서애 66세) 2월이다. 서애는 이해 5월 6일에 타계(他界)하였다.

② 증차진(從此盡) : 여기에서 끝이 나다.

☆증차(從此) : 여기부터. 여기에서. 지금부터.

☆진(盡) : 다하다. 끝나다. 죽다.

6) 일강명월 축군귀(一江明月屬君歸 : 온 강에 달 밝은데 자네 귀가하니 다행일세) :

**역주석 : 본 시구(詩句)는 “온 강을 비추는 달은 (의연하게) 자네 귀가를 동반해주네그려(一江明月屬君歸).”라는 번역도 가능하다. 이때의 ‘축(屬)’은 ‘동반하다’는 뜻으로 해석을 한 경우이다.

① 일강명월(一江明月) : 온 강을 비추는 밝은 달.

☆일강(一江) : 온 강. 즉 강 전체를 말함.

a. 일(一) : 형용사로 ‘전체의. 전부의’의 뜻으로 쓰였다.

② 축군귀(屬君歸 : 자네가 귀가하니 다행일세) :

☆축(屬) :

a. 만족하다. 본 시에서는 ‘다행이다’라고 번역하였다.

b. 따라가다. 뒤따르다. 전(轉)하여 동반하다.

☆군귀(君歸) :

a. 군(君) : 서애(西厓)의 문인(門人) 김협(金協)을 가리킨다.

b. 귀(歸) : 돌아가다. 본 시에서는 ‘귀가하다’는 뜻으로 쓰였다. 스승 류성룡을 찾아가 문병하고 귀가하는 것을 가리킨다. 하회(河回)에서 구담(九潭)을 가는 길은 강변을 따라 서쪽으로 대략 십리를 가면 된다.



「서애연보西厓年譜」 초록抄錄

하회본河回本 『서애전서西厓全書』 간본편刊本篇 본집本集 권1 · 2와 별집別集 권1에서

작시연도作詩年度가 명기明記된 작품은 병기併記함

1542(중종中宗 37. 임인壬寅)년

10월 1일 경상도 의성현義城縣 사촌리沙村里 외가에서 황해도관찰사黃海道觀察使 류중영柳仲郢의 둘째 아들로 태어나다.

1554(명종明宗 9. 갑인甲寅)년 13세

동학東學¹⁾에서 『중용中庸』 · 『대학大學』을 강독하다.

강관講官은 크게 칭찬하면서, “반드시 큰 학자가 될 것이다(必成大儒)”라고 하다.

1557(명종明宗 12. 정사丁巳)년 16세

향시鄉試에 합격하다.

1558(명종明宗 13. 무오戊午)년 17세

광평대군(廣平大君 : 세종대왕 아들) 5세손 이경李珔의 딸과 결혼하다.

1560(명종明宗 15. 경신庚申)년 19세

부친의 사택私宅에서 부친 관찰공을 모시고 있다가 가을에 서울로 돌아오다.
여러 친우들과 남계南溪에 놀러 가서 수석水石을 둘러보고, 시를 읊고 탄식하다.
“내가 성인聖人の 문하門下에서 놀게 되었다면(使我得遊聖門), 단목씨(역자주 : 단목씨段木氏 공자 제자인 자공子貢의 성씨)만큼은 배울 수 있었을 것이다(端木氏

1) 사학(四學) 중의 하나이다. 조선 중종 때 서울의 동서남북에 학교를 세워 사대부의 자제를 교육시키던 학교이다.

之徒可學而至)”라고 하였다.

10월, 관악산에 들어가서 『맹자孟子』를 읽다.

1561(명종明宗 16. 신유辛酉)년 20세

고향에 돌아와서 『춘추春秋』를 읽다.

1562(명종明宗 17. 임술壬戌)년 21세

안동安東 도산陶山에서 퇴계退溪 선생으로부터 『근사록近思錄』을 배움. 퇴계는 “이 젊은이는 하늘이 내린 사람이다(此人天所生也)”라고 하여 선생이 장차 대성할 인물임을 예언하다.

7월 기망(既望 : 음력 매달 16일)에 부친 관찰공이 소동파蘇東坡의 적벽강赤壁江 놀이를 주제로 시를 짓게 하자 선생은 즉시 근체시近體詩로 “달 밝고 바람 맑은 창공은 옛날부터 있어왔건만(月白風淸空萬古), 이름만 남겨 두고 사람이 떠나간 지 몇 천 년이나 되었는가(名留人去幾千年).”라고 짓다.

9월 도산陶山에 가서 퇴계선생을 뵙고, 수개월을 머물면서 『근사록近思錄』 등을 수업하다.

이때부터 성리학性理學에 전념하며 실천적인 것을 강구하여 성현으로 지표를 삼아, 퇴계의 칭찬을 받다.

금계金溪에 있는 학봉鶴峯 김성일金誠一을 찾아가다. 학봉은 선생에게, “우리 들은 퇴계 선생을 모신 지 오래되었으나, 한 말씀도 칭찬받은 일이 없었는데 공은 선생을 한 번 뵈었는데도 선생이 바로 ‘이 사람은 하늘이 낸 사람으로, 훗날 반드시 큰일을 할 것이다’라고 하셨으니, 공은 어떻게 스승에게서 이러한 칭찬을 받게 되었소?”라고 하다.

1563(명종明宗 18. 계해癸亥)년 22세

생원 生員 동당초시東堂初試에 합격하다.

1564(명종明宗 19. 갑자甲子)년 23세

생원生員 회시會試²⁾에 1등, 진사進士에 3등을 하다.

2) 초시에 급제한 자가 서울에 모여 다시 보는 시험이다.

퇴계선생이 남에게 준 편지에, “이현(而見 : 류성룡의 자字)은 빨리 달리는 수레로 앞에서 길을 인도하여 나가는 듯하니(而見逸駕啓途), 그 사람 형제의 지향志向하는 바가 매우 가상하다(其人兄弟趣向甚嘉).”라고 하다.

황해도에 있는 부친(관찰공)을 가서 뵈다.

1565(명종明宗 20. 을축乙丑)년 24세

대학太學에 들어가다. 문정왕후文定王后(중조中宗의 비妃)가 불심佛心이 깊어 보우普雨가 왕비를 위해 무차회無遮會³⁾를 한 달이 넘도록 열었는데, 왕후가 곧 죽게 되자 세간에서는 보우가 무리하게 여러 날 재齋를 올리길 요구한 때문에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다고 분개하다. 이때, 태학생들도 이에 공감하고 보우를 죽이자는 상소문을 올렸는데 선생의 손에서 나온 것이 많았다. 그러나 태학생들의 주소奏疏가 수용되지 않자, 그들은 “감히 학관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당적아세黨賊阿世⁴⁾하는 놈으로 지목한다.”고 약속하였는데 선생은 “우리가 임금에게 간하다가 받아 주지 않기 때문에 물러서는 건데, 다른 이름을 붙일 게 없어서 굳이 ‘당적아세’라고 하는가?”라고 하며 반대하다. 선생은 태학생들의 반발에도 굽히지 않고, 이를 ‘점신오명玷身汚名⁵⁾이란 낙자로 바꾸다.

1566(명종明宗 21. 병인丙寅)년 25세

문과에 응시, 병과丙科⁶⁾에 합격. 승문원承文院 권지부정자權知副正字로 임명되다.

봄에 정주定州 목사牧使로 부임하는 부친 관찰공觀察公을 모시고 갔다가 여름에 귀가하다.

-
- 3) 무차대회(無遮大會)라고도 한다. 이의 뜻은 성범(聖凡)·도속(道俗)·귀천·상하의 구별 없이 일체 평등으로 재시(財施)와 법시(法施)를 행하는 대법회를 말하는 것이다.
 - 4) 당적아세(黨賊阿世) : ‘적의 편이 되고 세태에 아부하다’는 뜻이다.
 - 5) 점신오명(玷身汚名) : ‘몸에 흠집을 내고 이름을 더럽히다’는 뜻이다.
 - 6) 병과(丙科) : 조선 시대에, 과거 합격자를 성적에 따라 나누던 세 등급 가운데 셋째 등급. 문과(文科)에서는 23명, 무과(武科)에서는 20명을 뽑아 정9품의 품계를 주었으며, 성균관·승문원·교서관의 임시직인 권지(權知)에 임명하였다. 고려 숙종 이후에 제술과(製述科)에 합격한 사람을 성적에 따라 나눈 등급의 둘째. 모두 7명을 뽑았다.

오는 길에 황강黃岡을 지나던 중, 그날 밤 꿈에 백씨伯氏 겸암公謙菴公이 병들어 누워 있는 모습을 보고 잠을 이루지 못하다. 이때 사실 겸암공이 병이 들어 고향에 머물러 있었다.

서에는 평소 관직에 뜻이 없었으나, 부친과 형님의 명으로 과거를 보아 급제를 하다. 그러나 관직을 맡기 전까지는 공부만 하고자 하다. 퇴계 선생이 그런 말을 듣고 겸암공에게 “그대의 아우는 처음으로 과거에 합격했건만(更憐賢季初攀桂), 얼마이게 될 세상일에서 벗어나려는 뜻이 더욱 가상하다네(萬事將纏欲脫纏)”라는 시를 보내오다.

이 시기에 5언고사古詩와 7언절구絶句의 시詩가 보임.7)

1567(명종明宗 22. 정묘丁卯 : 선조宣祖 즉위 해임)년 26세

봄에 정자正字로 승진되고, 휴가를 얻어 정주에 가서 부친 류중영柳仲郢 관찰공을 문안하다.

4월, 예문관藝文館 검열檢閱 겸 춘추관春秋館 기사관記事官을 임명받고 조정에 돌아오다.

6월, 명종 서거.

8월, 고향에 가는 퇴계 선생을 전송하기 위해 광진廣津까지 가서 송별시를 짓다. 자문점마畵文點馬⁸⁾로 의주義州에 가던 중에 정주定州에 들러 관찰공을 문안하다.

10월, 조정에 돌아오다.

1568(선조宣祖 1. 무진戊辰)년 27세

2월, 휴가를 얻어 정주定州에 가서 관찰공을 뵈다.

이때 정관재靜觀齋에서 7언절구絶句의 설리시說理詩 한 수를 지음.9)

7) 『서애전서西厓全書』 권1 간본편(刊本篇) 본집(本集) 권1(卷一)의 「시1」과 「시2」임. 이하에서는 ‘간본편(刊本篇) 본집(本集) 권1(卷一)’의 표기를 「권1·시1」과 「권1·시2」 식으로 약기(略記)한다. 『서애전서西厓全書』 권1, 간본편(刊本篇) 별집(別集) 권1(卷一)의 「시1」도 참조바람. 이하는 「권3·시1」로 약기(略記)함. 또한 본 주석에서 「권1」은 류명회·안유호 역주·감수 『국역 류성룡시 I』, 『권2』는 역시 류명회·안유호 역주·감수 『국역 류성룡시 II』를 가리킨다.

8) 자문점마(畵文點馬) : 자문이 왕래할 때 사용하는 말을 점검하는 책임자.

가을에 왕명을 받아 성주星州로 가서 포사(曝史 : 사책史冊을 벌에 쬔고 바람을 쏘이는 일)하다. 이때, 성주로 가는 길에 고향에 들러 하외(河隈 : 지금의 명청은 하회河回邑)에 있는 겸암公謙菴公을 찾아보다.

1569(선조宣祖 2. 기사己巳)년 28세

10월, 사헌부司憲府 감찰이 되어 성절사聖節使의 서장관(書狀官 : 정사正使는 이 후백李後白)으로서 명나라 연경燕京에 가다. 이때에 명의 태학생 수 백 명이 왕양명王陽明과 진백사陳白沙의 학문을 주장한데 대하여, 선생은 설문청辭文淸 설이 정통유학의 종주宗主임을 주장하여 감탄과 존경을 받다. 또한 궁중서열에서 유생儒生을 도사道士와 승도僧徒의 뒷줄에 세우는 잘못을 지적하여 즉석에서 시정正하게 함으로써, 명나라 조정을 놀라게 하다.

선생의 이러한 발언과 풍모에 감동한 신안新安 출신 관료, 오중주吳仲周가 옥하관玉河館으로 선생을 찾아와서 호의를 표하자, 선생은 퇴계 선생의 『성학십도聖學十圖』를 보여 주다. 선생이 돌아올 때 오공吳公이 서序를 곁들인 송별시送別詩를 지어준다.¹⁰⁾

또한 부채에다 두 사람이 헤어지는 그림을 그리고 팔분서체八分書體¹¹⁾로 ‘관산별의關山別意’란 네 글자를 써서 주자, 선생은 그 운자韻字를 달아서 화답하다.¹²⁾

1570(선조宣祖 3. 경오庚午)년 29세

3월, 연경燕京에서 돌아온 후, 병조좌랑兵曹佐郎 겸 홍문관弘文館 수찬修撰에 임명되다. 봉당의 징후를 아뢰는 전영의정前領議政 이준경李淩慶의 유차遺劄¹³⁾를 문제 삼아, 그의 관작官爵을 추탈追奪하지는 공론이 크게 일었으나, 선생이 그 부당함을 주장하여 이를 저지하다.

9) 설리시(說理詩)란, 사물의 규율이나 이치를 추구하거나 중시하여 읊은 시를 말하는 것이다. 「권1·시4」를 참조바람. 「권3·시1」과 「권3·시6」도 참조바람.

10) 「권1·시11」, 부록으로 첨부한 「중주원운仲周元韻」을 참조바람.

11) 팔분서체(八分書體) : 예서(禮書)와 전자(篆字)를 절충하여 만들어진 서체의 하나.

12) 「권1·시11」의 2수와 「권1·시99」를 참조바람.

13) 유차(遺劄) : 임종 직전 준경이 부르고 아들이 받아 적어, 선조에게 올린 네 가지 조목의 유차(遺劄)이다.

1571(선조宣祖 4. 신미辛未)년 30세

3월, 예안禮安에 가서 퇴계 선생 장례식에 참석하다.

조정에 돌아와 병조좌랑兵曹佐郎에 임명되다.

가을에 휴가를 얻어 안동에 계신 모친을 가서 뵈다.

낙동강洛東江 서쪽 언덕, 서애西厓에 서당을 지으려 하다가 터가 좁아서 결정
하지 못하고, 이로써 스스로 ‘서애’로 호를 삼다.

가을, 5언고시古詩, 「기몽記夢」¹⁴⁾을 짓다.

1573(선조宣祖 6. 계유癸酉)년 32세

4월, 아들 위樺가 태어나다.

7월, 부친 류중영柳仲郢[황해도 관찰사]의 상을 당하다.

11월, 천등산天燈山 금계金溪에 장사 지내고, 하외河隈¹⁵⁾로 와서 반곡返哭하다.
상례는 모두 주자朱子の 『가례家禮』를 따르다. 겸암공과 번갈아 산소 옆을 지
키고, 아침·저녁으로 성묘하였으며, 초하루·보름 때면 반드시 돌아와서 영
좌靈座에 전향을 올렸음.

1575(선조宣祖 8. 기해己亥)년 34세

9월에 상복을 벗다.

홍문관弘文館 부교리副校理에 임명되었으나 사양하고 부임하지 않다.

겨울에 이조정랑吏曹正郎에 임명되었으나 또다시 사양하고 부임하지 않다.

1576(선조宣祖 9. 병자丙子)년 35세

1월, 홍문관 교리校理에 임명되어 소명召命을 받고 부임하다가 도중에 사양하
고 돌아오다.

원지정사遠志精舍¹⁶⁾가 완성되다. 정사精舍는 마을 북쪽 강 언덕 위에 있으며
다섯 칸이며, 기문記文이 있다.

14) 「권1·시7」을 참조바람.

15) 하외(河隈) : 지금은 하회(河回 :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하회리)로 칭하고 있음.

16) 원지정사(遠志精舍) : 중요민속자료85호. 이 정사(精舍)는 서애(西厓)가 32세 때
(선조 6년, 1573년)에 부친상을 당하고, 낙향해서, 은거할 때에 지은 건축물. 소재지
는 경북 안동시 풍천면 하회리 712-1번지이다.

4월, 사간원헌납司諫院獻納에 임명되어 조정에 돌아오다.¹⁷⁾ 의정부검상議政府檢詳에 전임되었고, 또 홍문관전한弘文館典翰에 임명되었으나 사양했지만, 사헌부司憲府 장령掌令에 옮겨 임명되다. 휴가를 얻어 안동에 계신 어머니를 찾아 뵙다.

12월, 홍문관弘文館 부응교副應敎에 임명되었으나 상소하여, 충청도와 경상도 중에 조그마한 고을의 목민관이 되어 65세의 노모老母를 봉양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청하였으나, 윤허 받지 못하다.

1577(선조宣祖 10. 정축丁丑)년 36세

1월, 의정부議政府 검상檢詳에 임명되다. 휴가를 얻어 안동에 계신 모친을 가서 뵙다.

2월, 군위軍威의 선산先山을 찾아가 성묘하다.

여름에 사인舍人으로 승진하였으나 사양하고 부임하지 않다. 상소上疏로 노모의 봉양을 주청하였으나 윤허 받지 못하다.

여강서원廬江書院의 퇴계 선생 봉안문奉安文을 짓다.

구도求道에 대한 향심向心을 표현한 시가 보임.¹⁸⁾

1578(선조宣祖 11. 무인戊寅)년 37세

봄에 휴가를 얻어 안동의 노모를 뵙고 조정으로 돌아오다.

4월, 「원지정사기遠志精舍記」를 쓰다.

7월, 아들 여씨가 태어나다.

8월, 휴가를 얻어 안동에 계신 모친을 가서 뵙다. 또한 같은 달, 남행하는 길에 동호東湖에 위치한 몽외정夢賔亭에서 지인知人들과 하룻밤을 묵고 길을 나설 때 5언율시로, 유별시留別詩를 지어주다.¹⁹⁾

다시 조정으로 돌아와서 홍문관弘文館 응교應敎에 임명되다.

17) 선생은 이때 경성(京城)으로 돌아가는 도중에 비가 와서 풍기객사(豐基客舍)에 잠시 머문적이 있는데, 비가 그치면서 떠날 때, 풍기군수 배삼익(裴三益)에게 7언절구의 유별시(留別詩)를 써주었다. 「권3·시12」를 참조바람.

18) 「권1·시14」를 참조바람.

19) 「권1·시15」를 참조바람.

선생이 옥당玉堂에 있을 때, 그림 잘 그리는 사람을 불러 하외河隈의 산수도
를 그려 그것으로 아버이 생각과 고향 생각하는 뜻을 붙이다.

1579(선조宣祖 12. 기묘己卯)년 38세

봄에 홍문관 직제학直提學에 임명되다.

4월, 통정대부通政大夫, 승정원承政院 동부승지同副承旨 지제교知製敎 겸 경연經筵 참찬관參贊官 춘추관春秋館 수찬관修撰官에 임명되다. 과거에는 승정원에서 쓰는 종이가 넓고 두꺼워서 비용이 많이 들었으나, 선생이 건의하여, 한 달분의 양을 규정하여 남용하지 못하게 하고, 종이의 품질을 두껍지도 넓지도 않게 하자, 백성들이 그것을 편하게 여가다.

7월, 홍문관 부제학副提學에 임명되다. 휴가를 얻어 안동에 계신 노모를 가서 뵈다.

왕께서 본도本道에 음식물을 대접하라고 명하시다. 이번 길에 평중宏仲 이덕홍李德弘과 함께 배를 타고 「논학유감論學有感」이란 7언절구의 시 두 편을 짓다.²⁰⁾

겨울에 다시 승지承旨에 임명되다. 상소하여 노모의 봉양을 주청하였으나, 윤희 받지 못하다.

1580(선조宣祖 13. 경진庚辰)년 39세

20) 「논학유감(論學有感)」: 하회본 『서애전서(西厓全書)』 시부(詩部)에는 보이지 않고 「서애연보(西厓年譜)」에만 보인다.

제1수: 수많은 성인(聖人)이 전한 심법(心法)이니 탐구할만한 도이건만,

십 년이나 벼슬길에서 벗어나기 못했네

늦가을 강변에서 상봉하고 한없이 감탄했나니,

그대 따라 노를 저어 원류를 찾아 가고 싶네.

千聖傳心道可求，十年塵路未回頭。

相逢絕歎秋江晚，理棹從君欲溯流。

제2수: 대도(大道)는 본래 유일무이한 길이건만,

애답도다 후학(後學)들은 공론(空論)만 일삼네.

참된 실체를 명백히 드러내야 할지니,

물고기 물에 놀고 술개 하늘 나는 것은 다 동일한 근원이네.

大道由來不二門，堪憐末學逞空言。

居然漏泄眞消息，魚躍鸞飛摠一源!

선생은 노모를 봉양하고자 해마다 관직을 사양하였으므로, 선조宣祖는 이때에 마침 상주목사尙州牧使가 결원缺員이 되자 이조吏曹에 물어 상주에서 안동까지 하루에 갈 수 있는 거리임을 파악하고 선생을 상주목사尙州牧使로 특명하여, 노모를 모시도록 하다. 선조는 “그대에게 상주목사를 시킨 것은 이웃고를 관리들이 본받도록 하려고 한 것이다(以爾爲尙牧欲使隣官取法耳)”라고 하다.

선생은 임지에서 마을마다 초학자初學者를 교육시키는 교관과 향약鄕約²¹⁾을 실행하는 유사有司를 선출하여 글로써 깨우쳤는데 대략 오륜五倫을 철저하게 하는 것을 먼저 할 일로 삼다. 선생은 또한 몸소 향교의 명륜당에 나아가 그곳 서생書生들에게 글을 가르치기도 하였는데, 우복愚伏을 위시한 여러 제자들에게 의해 훗날 상주지역의 퇴계학맥과 서애학맥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다.

이임離任할 때는 이 고을 사람들이 비석을 세워서 선생의 공덕을 칭송하고 또한 생사당生祠堂을 세우려하자, 선생은 친한 이에게 글을 보내어 이를 저지시키다.

10월, 아들 단襁이 태어나다.

1581(선조宣祖 14. 신사辛巳)년 40세

다시 홍문관弘文館 부제학副提學에 임명되어 조정으로 돌아오다. 상소하여 벼슬을 그만두고 노모의 봉양을 주청하였으나, 윤허를 받지 못하다. 휴가를 얻어 안동에 계신 노모를 뵈고 가을에 조정으로 돌아오다.

고향에 있을 당시 마침 정사精舍에 매화가 피기 시작하여 그 주변을 거닐며 시를 읊는데 승려가 시 한 수를 요구함에 지어준다.²²⁾

선생은 고향에 다닐 때마다 반드시 민폐를 널리 조사하여, 조정에 돌아오면 언제나 이를 보고하다.

무빙차자無氷箭子 10조목을 올리다. 왕명으로 『대학연의大學衍義』를 지어 올리다.

21) 「권1·시16」, 주석2)의 ②번 ‘유규(遺規)’ 조항을 참조바람.

22) 「권1·시17」을 참조바람.

1582(선조宣祖 15. 임오壬午)년 41세

봄, 사간원司諫院 대사간大司諫에 임명되다. 이때 휴가를 얻어 고향에 있던 중에 소환을 받고 조정으로 돌아오다. 당시 대사간으로 소환되어 가는 길에 문경聞慶에 숙박하면서 7언을 시 한 수를 짓다.²³⁾

7월, 아들 진軫이 태어나다.

겨울에는 우부승지右副承旨에서 도승지都承旨로 특진되다. 명나라 사신에 대한 합리적이고도 예의와 법도에 준하는 처사로, 선조와 명의 사신 양쪽에 모두 찬사를 받다. 사신이 떠난 후, 선생은 가선대부嘉善大夫 사헌부司憲府 대사헌大司憲에 승진되다.

왕명으로 『황화집皇華集』 서문을 짓다.

1583(선조宣祖 16. 계미癸未)년 42세

1월 홍문관 부제학에 임명되다. 회재晦齋 이언적李彦迪의 『구경연의九經衍義』의 발문跋文을 짓다.

5월, 당론黨論이 격화되어 귀향하다.

가을, 정사精舍에서 번잡한 세상사를 우려하며 7언절구 한 수를 짓다.²⁴⁾

10월, 경상도 관찰사에 임명되다. 다시 상소로 사양했으나, 윤허 받지 못하다.

1584(선조宣祖 17. 갑신甲申)년 43세²⁵⁾

8월, 왕명으로 『문산집文山集』²⁶⁾ 서문을 짓다. 승진하여, 자헌대부資憲大夫에 조판서禮曹判書 겸 동지경연춘추관사同知經筵春秋館事, 홍문관제학弘文館提學에 임명되다. 각처에 향약鄉約²⁷⁾을 반포하여, 효제孝悌와 예양禮讓을 돈독히 하는 것으로 백성을 교화시키고 풍속을 바로잡는 기본으로 삼다.

23) 「권1·시18」을 참조바람.

24) 「권1·시22」를 참조바람.

25) 이 해에 경상도 관찰사로서 비안현(比安縣)에 도착하여, 벽에 적힌 시의 운(韻)을 차운하여 지은 시가 보임. 「권3·시36」을 참조바람.

26) 송(宋)의 충신 문천상(文天祥)의 문집(文集).

27) 권선징악을 위주로 한 향촌의 자치 규약으로서, 본디 중국 송(宋) 나라 때의 남전 여씨(藍田呂氏 여대균呂大鈞)의 향약을 본뜬 것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조선 중종 14년에 실시되었다.

성리학性理學的 ‘이설理說’을 세워 퇴계선생의 사상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던 회재晦齋 이언적李彦迪의 고택故宅을 바라보면서 그를 애도하는 7언절구絶句를 짓다.²⁸⁾

1585(선조宣祖 18. 을유乙酉)년 44세

3월, 왕명으로 『정충록精忠錄』 발문을 짓다.

4월, 만아들 위樟가 죽다.²⁹⁾

의주목사義州牧使 서익徐益이 “정여립鄭汝立³⁰⁾이 이이李珣에게 보낸 글에서 류성룡을 들어서 크게 간악한 자³¹⁾라는 지적을 하자, 선생은 스스로 자신을 탄핵하는 ‘물리나야할 5가지’이유를 써서 주청하였으나, 윤휴 받지 못하다. 휴가를 얻어 안동에 계신 노모를 가서 뵈다.

20년 전(24세), 선생이 태학생太學生이었을 당시에 보우普雨승려가 개최한 무차대회無遮大會가 문정왕후文定王后의 죽음을 초래했다는 성균관 유생들의 상소가 선조에게 받아드려지지 않아서 야기됐던 파문을 상기想起하며 7언절구를 짓다.³²⁾

포은圃隱 정몽주鄭夢周 선생의 문집을 교정校正하고 그 발문跋文을 짓다.

28) 「권1·시23」을 참조바람.

29) 「권3·시43」을 참조바람.

30) 조선 중기의 역신(逆臣)(1546~1589). 자는 인백(仁伯). 수찬(修撰)을 지냈다. 정권을 잡으려는 야심으로 대동계(大同契)를 조직하고 도참설을 퍼뜨려 모반을 꾀하려 단로 나자 도주하여 자살하였음.

31) 선생의 자기탄핵 상소에 의하면, 10년 전, 반란자 정여립(鄭汝立)이 자신의 견해(사마광司馬光의 사관史觀인 “천하는 공물公物이니 일정한 주인이 있을 수 없다”)를 주자의 성리학보다 낫다고 하여 좋게 보지 않았는데, 당시 그의 명망이 높아 모두들 그를 요직에 발탁하려하는데, 이경중(李敬中)만이 적극적으로 배척했음. 결과 외부의 의논이 ‘이경중이 훌륭한 사람을 질투한다.’고 떠들어서 이경중을 이조에서 추방하였음. 그러나 선생은 전일의 견해로 정여립의 사람됨을 좋게 여기지 않았고, 선생의 동료들도 이경중의 말을 긍정하여, 이에 정여립이 호남에 있을 때 서울 사람에게 보낸 글에서, 서애를 지적하여 ‘큰 간악[巨奸]’이라 함이, 서익(徐益)의 상소에 거론되었음.

32) 「권1·시25」를 참조바람.

1586(선조宣祖 19. 병술丙戌)년 45세

봄에 예조판서를 사임하고 귀향 중 문경聞慶에서 숙박을 한 후, 현감 허행원 許行遠의 전송을 받으면서 7언을시로 작별을 하다.³³⁾

3월, 휴가를 얻어 고향에 돌아와서 직명職名 취소를 주청奏請하다.

군위軍威의 선영 남쪽에 위치한 남계서당南溪書堂이 완성되다.³⁴⁾

남계에서 인동仁同으로 가서 노모를 뵈다. 이때 겸암공이 임지在地인 인동에서 대부인大夫人을 모시고 있었기 때문에, 선생은 하회에서 인동까지는 거리가 조금 먼 관계로 이와 가까운 남계南溪에 거처하면서, 날마다 시종들을 시켜서 문안을 드리게 하고, 자신은 10일마다 한 차례씩 문안을 드리다.

옥연서당玉淵書堂이 완성되다.³⁵⁾ 선생이 원지정사遠志精舍를 지은 뒤에 오히려 마을과 너무 가까운 것을 한탄하여 북담北潭에다 자그마한 집을 지어 거기에서 늙을 계획을 하다. 마침 탄홍誕弘이란 승려가 그 일을 담당하겠다고 자청하여, 곡식과 비단[帛]을 투자함. 그런 뒤 10년이 지나서 완성되었는데, 이름은 ‘옥연玉淵’이라 하다. 정사잡영精舍雜詠³⁶⁾과 기문記文³⁷⁾이 있다.

야은治隱 길재吉再선생 ‘지주 중류비砥柱中流碑’의 음기陰記³⁸⁾를 지음.

구백담具栢潭의 부고를 받다. 그의 죽음을 애도하는 7언율시律詩의 애도시哀悼詩가 있음.³⁹⁾ 제문과 만사挽詞도 있음.

33) 「권1·시28」을 참조바람.

34) 남계의 12 절경을 5언절구로 읊음. 이 시는 소서(小序)가 없어 작시(作詩) 년대는 알 수 없으나 독자의 이해를 돕고자 본 시집에 관련시가 있음을 알림. 즉 「권1·시52」를 참조바람. 또한 이 해에 남계정사 학생들에게 시 한 수 지어 부침. 「권1·시29」를 참조바람.

35) 옥연서당이 완성되고 나서 지은 시가 보인다. 「권3·시28」과 「권3·시47」을 참조바람.

36) 여기서 이 정사잡영(精舍雜詠)은 바로 「권2·시54」인 「옥연십영 효 이백 고숙십영(玉淵十詠效李白姑熟十詠)」을 가리킨다.

37) 여기서 ‘기문(記文)’은 ‘옥연서당기(玉淵書堂記)’를 가리킨다. 관련 내용은 류명희·안유호 역, 「권2·시54」의 주석1)의 ① ‘옥연(玉淵)’ 항목을 참조바람.

38) 음기(陰記) : 비갈(碑碣)의 등 뒤에 새긴 글.

39) 「권1·시34」를 참조바람.

1587(선조宣祖 20. 정해丁亥)년 46세⁴⁰⁾

3월, 입궐하라는 소환을 받고 가다가, 도중에서 사양하고 돌아오다. 또다시 수차 소환하였으나 부임하지 않다. 이때 7언절구로 「재거독역齋居讀易」을 짓다.⁴¹⁾

입궐하라는 명을 받고 용추龍湫 폭포에 이르러 5언절구를 짓다.⁴²⁾

퇴계 선생의 문집을 편차編次하다.

1588(선조宣祖 21. 무자戊子)년 47세

동경연同經筵으로 부름을 받고 가다가 도중에서 사양하고 돌아오다. 여러 번 소환하였으나 부임하지 않다.

5언절구시 「연좌루 추사燕坐樓秋思」를 짓다.⁴³⁾

선생이 하회河回에 있을 때, 학기學己가 찾아오다. 때마침 정사(玉澗精舍)에 국화가 활짝 피어 있어, 국화시를 지어서 그에게 보이다.⁴⁴⁾

10월, 형조판서刑曹判書 겸 예문관 제학藝文館提學을 겸하다. 선조를 인견하고 학문을 토론하는데, 선조가 왕양명王陽明의 ‘치양지致良知’와 ‘심즉리心即理’의 학설을 질문하면서 크게 잘못되지 않은 것같이 여기다. 이에, 선생이 상세하게 설명하니, 선조는 “학문은 마땅히 정자程子나 주자朱子를 종사宗師로 삼아야지 다른 데서 구할 필요가 없겠다”라고 하다.

홍문관弘文館 대제학大提學, 지경연知經筵 춘추관春秋館 · 성균관사成均館사를

40) 이 해 정월 초하룻날 지은 시가 보인다. 「권3 · 시38」을 참조바람. 늦봄에 지은 시도 있음. 「권3 · 시39」를 참조바람.

41) 「재거독역(齋居讀易)」: 하회본 『서애전서(西厓全書)』 시부(詩部)에는 보이지 않고, 「서애연보(西厓年譜)」에만 보인다.

초라한 서재에서 『주역』을 읽다가 나의 어리석음 탄식하며,

새벽에 일어나 공부하다보면 어느덧 서쪽으로 해가 지네.

복희와 문왕 소식이 멀다 하지 말라,

창박에 봄새가 여기저기서 지저귀거늘.

窮簷讀易歎吾迷, 晨起研劘至日西。

莫道義文消息遠, 隔窓春鳥數聲啼。

42) 「권1 · 시35」를 참조바람.

43) 「권1 · 시33」을 참조바람.

44) 「권1 · 시92」의 소서(小序)에 보인다.

겸하게 하여, 다시 사양의 상소를 올렸으나 윤험을 받지 못하다.

1589(선조宣祖 22. 기축己丑)년 48세

봄, 사헌부司憲府 대사헌大司憲에 병조판서兵曹判書 겸무의 임명을 받다.

6월, 왕명으로 『효경대의孝經大義』의 발문을 짓다.

휴가를 얻어 안동에 계신 노모를 가서 뵈다.

7월, 부인 이 씨가 세상을 뜨다.

9월, 안동으로 가는 부인의 상여를 전송하다. 이때 선생은 일본 사신使臣이 도성都城 아래에 와서 있었던 관계로, 통신사通信使를 물색하느라고 신천新川까지 상여만 전송하고 돌아오다.

또 예조판서에 임명되다.

10월, 정여립鄭汝立의 역모 옥사가 일어난다. 이로 인해, 여러 번 사직 상소를 올렸으나 윤험을 받지 못하다.⁴⁵⁾

- 45) 1. 연루된 이유 : 선생이 고향에 있으면서 여러 번 부름을 받고도 부임하지 않자, 백유양白惟讓이 조정에 나오도록 권하라는 뜻으로, 정여립에게 편지를 썼는데, 마침 이때, 정여립의 옥사가 일어나면서, 그 글이 조정에 입수되어 백유양의 진술에서 선생의 성명이 나옴. 이 때문에 선생은 체임(遞任)시켜 주기를 여러 번 청했으나 윤험 받지 못함. ‘44세의 연보’도 참조바람.

2. 선생이 스스로 죄인임을 탄핵한 상소 요점 :

첫째, 10년 전, 반란자 정여립이 자신의 견해(사마광司馬光의 사관史觀인 “천하는 공물(公物)이니 일정한 주인이 있을 수 없다”)를 주자의 성리학보다 낫다고 하여 좋게 보지 않았다. 당시 그는 명망이 높아 모두들 그를 요직에 발탁하려하였지만, 이경중(李敬中)만은 이를 적극적으로 배척했다. 결과 ‘이경중이 훌륭한 사람을 절투한다’는 소문이 돌자, 이경중은 이조에서 추방되었다. 그러나 선생은 전일(前日)의 견해로 정여립의 사람됨을 좋게 보지 않았고, 선생의 동료들도 이경중의 말을 긍정하여, 이에 정여립이 호남에 있을 때 서울 사람에게 보낸 글에서, 서애를 지적하여 ‘큰 간악[巨奸]’이라 함이, 서익(徐益)의 상소에 거론되기에 이르렀다.

둘째, 이를 계기로 서애는 농촌에 물러나 있게 되었다. 이제 보면 정여립의 간악한 죄상(대동계大同契를 조직해서, 매달 사회射會를 열어 세력을 확장한 관계로, 1587년〈선조 20〉 왜선이 전라도 손죽도損竹島를 침범했을 때, 전주부윤 남인경南彦經의 요청으로 대동계를 동원해서 왜구를 격퇴하였음. 이후 대동계 조직이 전국으로 확산되어, 마침내, 신립申瞭과 병조판서 살해로 병권장악에 이르게 됨. 정철鄭澈을 위관委官으로 이 사건을 조사처리하게 되자, 기축옥사己丑獄死로 이어졌음)을 미리 안 사람은 이경중(李敬中) 한 사람뿐이었다는 것. 선생은 그의 기미를 엿보면서도 간악한 진상을 드러내지 못했으나, 귀양 가게 되더라도 달게 받겠고, 만약 농촌으로 물러나 앉아 죄과를 반성하게 해

이때 위관^{委官}이었던 정철^{鄭澈}이 옥사를 공정하게 다스리지 못하여 선비들이 많이 연루되었는데, 선생의 상소로 오히려, 이경중의 관작은 올려 주었고 무고^{無故}를 당한 명사^{名士}들은 차츰 풀려나게 되다.

28세 때 성절사^{聖節使} 일행에서 서장관^{書狀官}의 임무를 띠고 북경에 갔을 때, 교우^{交友}하게 된 신안현^{新安縣} 출신 오중주^{吳仲周}라는 관료를 지금껏 20년이 지나도록 소식을 듣지 못하여, 당시의 추억을 떠올려 시를 짓다.⁴⁶⁾

1590(선조^{宣祖} 23. 경인^{庚寅})년 49세

3월, 황윤길^{黃允吉}, 김성일^{金誠一} 등을 통신사^{通信使}로 보내어 왜국^{倭國}의 정세를 살펴 오게 하다.

4월, 휴가를 얻어 노모를 가서 뵈다. 선조는 서애의 노모에게 내전(內殿 : 왕비)의 옷을 내리고, 또한 노모를 서울로 모셔와 봉양토록 하다.

5월, 우의정^{右議政}에 임명되고 이조판서를 겸하다. 명나라에 오기^{謄記}된 조선 왕조 종계^{宗系}를 바로 잡은 공로로 광국공신^{光國功臣}, 풍원부원군^{豐原府院君}으로 서훈^{敍勳}되다.

1591(선조^{宣祖} 24. 신묘^{辛卯})년 50세

2월, 좌의정^{佐議政}에 오르고, 여전히 이조판서를 겸무하다. 선생은 조정의 많은 반대를 물리치고 왜국의 침공^{侵攻} 조짐을 명나라에 통고하도록 하다.

7월, 왜란^{倭亂}에 대비해서 장수가 될 만한 인재를 천거하여 정읍현감^{井邑縣監} 이순신^{李舜臣}을 전라도 좌수사^{左水使}로, 형조정랑^{刑曹正郎} 권율^{權慄}을 의주목사^{義州牧使}로 임명토록 하다.

그년부터 써오던 진관제^{鎭管制}⁴⁷⁾를 다시 설치할 것을 건의하였으나, 반대론에 부딪쳐 실현시키지 못하다.

주면 다행으로 여기겠다는 것이다.

46) 「권1·시99」를 참조바람.

47) 자신의 지역은 자신이 책임지는 군대 철칙. 이전의 방위체제는 각 지역에 전략적 중요도에 따라 크고 작은 진을 설치해 지역단위로 방어하는 진관제(鎭管制)였다.

1592(선조宣祖 25. 임진壬辰)년 51세

3월, 『증손전수방략增損戰守方略』이란 병서兵書를 저술하여 이순신에게 보내어, 실전實戰에 활용토록 하다.

4월 13일, 임진왜란 발발. 좌의정佐議政으로서 특명으로 병조판서兵曹判書 겸임. 도체찰사都體察使로 임명되다. 광해군光海君을 왕세자로 책봉冊封하도록 계청啓請 하다. 「근왕애통고서勤王哀痛教書」를 널리 반포하고, 왕자들을 각도各道에 파견하여 근왕병勤王兵을 소집하도록 주청하다. 경상慶尙 우병사右兵使 김성일金誠一을 사면할 것을 주청하여 윤허를 받다.

5월, 왜병의 도성都城 침입이 임박하여, 왕을 모시고 개성開城에 이르자, 영의정領議政으로 임명되었으나, 개성 주민들의 항의(영의정을 파작하면서 함께 있던 좌의정[서애]를 문책하지 않음은 잘못이라고 자청하여 파직된 것임)로 자청하여 그 날(5월 2일)로 파직되다.⁴⁸⁾

동파역東坡驛에서 “만약 조선 8도가 모두 함락되면 명나라에 가서 하소연해야 한다(若八路俱陷便可赴懇王朝)”는 공론에 “선생은 안 된다고 하면서(公曰不可)”, “어가가 만약 이 강산을 한 걸음이라도 벗어난다면(大駕離東土一步地), 조선 땅은 우리의 소유가 아니다(朝鮮非我有也)”라고 극력 반대하여, 국내 항전 태세를 굳히다.

6월, 풍원 부원군豐原府院君으로 다시 서용敍用되다. 평양을 고수할 것을 주장하였으나 윤허를 얻지 못하다. 함경도로 거동하지는 공론公論을 극력 반대하여, 의주義州로 파천播遷토록 하다. 평양까지 침공한 왜군의 전방前方을 막고 후방을 차단하여, 포위하는 유격전遊擊戰을 지령하다.

9월, 군수물자의 보급과 명나라 장관將官들의 접대임무를 맡다. 건주위建州衛(청 태조 누루하치)가 구원병을 보내주겠다는 제의提議를 거절하도록 주청하다.

12월, 평안도平安道 도체찰사都體察使로 임명되다. 왜군의 간첩인 김순량金順良 등을 잡아 처단하여 군기누설을 예방하다. 명명의 제독提督 이여송李如松과 안

48) “신은 이산해와 더불어 정승 자리에 있으면서 국사를 이 지경까지 이르게 하였습니
다. 그런데 지금 이산해는 이미 파직되었는데 신만이 어찌 감히 스스로 무죄라고 해
서 정승으로 있겠습니까” 하며, 대죄를 청함.

주安州에서 회견할 때, 선생은 소매에서 평양지도를 꺼내어 형세와 군사들의 진입로를 지시하자, 제독이 붉은붓으로 표시하며, “적이 내 눈에 환하게 보인다”라고 말함에, 평양탈환을 협의하다. 선생이 물러간 후 제독은 부채에다 7언을시를 써서 보내오다.⁴⁹⁾

1593(선조宣祖 26. 계사癸巳)년 52세

1월, 명군明軍과 협력하여 평양성을 탈환하다. 호남에서 운송되어 온 곡식으로 기민饑民을 구제해줄 것을 주청하여 시행토록 하다.

3월, 임진강臨津江에 침으로 다리浮橋를 놓아 대군大軍을 건너게 하다. 충청·전라·경상 삼도三道 도체찰사都體察使로 임명되다.

4월, 선생은 이여송의 대왜對倭 강화講和 교섭에 항의했으나 명군明軍이 일방적으로 정전停戰하여, 왜군이 철수하자 명군과 함께 서울을 수복하다.

선생은 이여송의 의중을 파악한터라, “명나라를 믿을 수 없으니 자주적自主의으로 국방력을 강화하자”고 건의하여, 훈련도감訓練都監을 설치하고 장정壯丁을 모집했으며, 조총鳥銃과 대포 등의 화기火器도 증강增強하다.

6월, 왕명을 받고 영남에 내려가다가 안동에 계신 노모를 문안하다.⁵⁰⁾ 문안

49) 이여송(李如松 : ?~1598)의 시. 「서애연보」에 보인다.

군사를 이끌고 밤사이 압록강 건너 것은,
조선이 불안하다고 알려왔기 때문이네.
명철한 황제께서 날마다 승첩보 기다리시니,
미천한 신하는 밤마다 즐기던 술도 끊어버렸네.
봄인데도 살기가 돌지만 마음은 되레 장쾌하니,
이번 길에 요귀들 아주 뻗속까지 서늘하게 해주리라.
웃으며 장담하노니 감히 승산 없다 하겠는가,
꿈에서도 언제나 출정만을 생각하네.
提兵星夜渡江干，爲說三韓國未安。
明主日懸旌節報，微臣夜釋*酒杯歡。
春來殺氣心猶壯，此去妖氛骨已寒。
談笑敢言非勝算，夢中常憶跨征鞍。

*석(釋) : 빼기하다. 방치하다.

50) 처음에 겸암공(謙菴公)이 대부인을 모시고 난을 피하여 관동으로부터 전전하다 태백산 아래 이르렀는데, 이때 와서 처음으로 인편과 같이 통하여 선생이 찾아가 문안을 드림.

을 드리고 죽령竹嶺의 신림원新林院에 도달했을 때, 본도本道(역지주 : 원래 근무하던 도(道)란 뜻으로, 여기서는 ‘충청도’를 가리킴)에 체류하라는 명을 받고 여러 장수들을 단속해 놓은 다음, 신림원新林院에서 청풍현淸風縣으로 돌아온 후, 한벽루寒碧樓에서 업무로 인한 느낌을 7언율시로 표현하다⁵¹⁾.

7월, 『기효신서紀效新書』를 본 뜬 군병 훈련을 실시하도록 건의하다.

8월, 압록강 연안沿岸의 중강中江에서 우리나라의 소금·철·은·면포綿布·동銅 등과 중국의 양곡糧穀을 교역하도록 해서 식량을 확보하도록 하다.

9월, 왕명으로 다시 행재소行在所로 돌아오다.

10월, 선조를 모시고 환도還都하여, 훈련도감訓練都監의 설치를 주청하다. 훈련도감訓練都監 도제조都提調를 겸무하다. 계사啓辭를 올려, 변응성邊應星을 경기좌방어사京畿左防禦使로 임명하여 용진에 주둔시키기를 청하다.

다시 영의정에 임명되다.

윤월 11월, 조선을 더 이상 구원할 뜻이 없는 명명은 사신으로 사헌司憲을 파견하여 우리의 국정國情을 살피고, 명이 왜군을 물리쳐 줄 것만을 바라는 선조를 퇴위시켜, 직접 통치를 강요하는 국서國書를 보내 왔으나, 선생이 이를 극력 반대하여 물리치다. 선생의 충성심과 지략智略에 감탄한 사헌司憲은 선생이 “나라를 다시 일으킨 공(山河再造之功)이 있다”고 선조에게 극구 찬양하며 선생으로 하여금 국사國事를 전관專管토록 하라는 말까지 하다. 결과 선조 양위讓位 사건이 무마되다.

1594(선조宣祖 27. 갑오甲午)년 53세

3월, 진관법鑑管法을 다시 쓰기로 하여 국민군國民軍 제도를 확립시키다. 공물貢物을 미곡米穀으로 대신하여 바치도록 하고, 소금을 증산增産해서 이를 전매제專賣制로 하여 군량미를 확보토록 하다. 민심의 안정이 난국을 수습하는 기본임을 역설하여, 민생民生을 돌보는 안집도감安集都監을 설치하고 도제조都提調로 임명되다.

4월, 폐병을 앓아서 일을 보지 못하고 있는데, 마침 석상서石尙書⁵²⁾가 참장參

51) 「권1·시65」를 참조바람.

52) 석상서(石尙書) : 명나라 만력(萬曆) 연간에 병부 상서(兵部尙書)를 지낸 석성(石

將 호택湖澤을 보내어 차부箭付로 본국의 대신大臣을 유시諭示하자⁵³⁾,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한 선생은 병중病中에 차자箭刺를 올려 재상宰相을 보내 왜적의 정세를 진주陳奏할 것을 청하다.

5월, 지방관의 근무 실태를 조사하여 해이해진 관官의 기강을 쇄신하도록 건의하다.

6월, 대신을 명나라로 보내어 왜군의 동정動靜을 알리고 대책을 협의하도록 하다. 「군국기무십조軍國機務十條」를 올리다.

7월, 연병사무鍊兵事務를 병조兵曹에서 전담토록 하다. 문벌門閥·신분身分·출신지出身地의 차별 없이 총포銃砲·도검刀劍·기기器械·수학數學·광업鑛業·주철鑄鐵·화약火藥·제염製鹽 등에 유능한 인재를 널리 등용하도록 건의하다.

선생은 당시의 다사다난했던 시국時局의 구심점에서 시정가施政家로서 혹은 군략가軍略家로서 쉽지 않았던 자신의 처세를 잡언체의 시로 농 삼아 전하는 것이 보인다.⁵⁴⁾

1595(선조宣祖 28. 을미乙未)년 54세

1월, 한강 유역에 둔보屯堡⁵⁵⁾를 구축하고, 둔전병屯田兵 제도를 설치할 것을 건의하다.

소疏를 올려 기축년己丑年(1589) 정여립鄭汝立의 옥사獄事에 억울하게 죽은 이의 오명을 씻어줄 것을 건의하다.

10월, 휴가를 얻어 귀향하려고 여주驪州에 이르렀다가 소명을 받고 조정으로 돌아오면서, 노모가 계신 남쪽을 바라보고 눈물을 흘린다.

星)을 말함. 동명(東明) 태생으로 지는 공신(拱宸)이며, 임진왜란 당시 명나라 조정에 구원을 요청한 조선 정부를 적극 지원하였으나, 뒤에 황제의 노여움을 사서 하옥되어 죽었음.

53) 이때에 중국 조정은 왜적이 오래도록 물러가지 않는다고 천하의 병력을 다 동원할 수 없으니, 왜적의 요청에 따라 조공을 허락하고 군사를 해제할 것을 요청함. 석상서(石尙書)가 이 논의를 주장했으나 과도관(科道官)이 이를 공박하여 송경략(宋經略)은 이로 인하여 파직되어 돌아갔고, 시랑 고양겸(顧養謙)이 대신 왔었음.

54) 「권1·시66」을 참조바람. 「권3·시60」도 참조바람.

55) 둔보(屯堡) : 군대의 기능과 일반생활을 동시에 수행하는 마을.

경기·황해·평안·함경 사도四道 도체찰사都體察使로 임명되다. 사도순찰사
四道巡察使에게 군병軍兵의 교련을 유시諭示하다.

11월, 관영官營의 제철장製鐵場을 설치하여 대포와 조총을 제조하도록 하다.
남한산성南漢山城을 순시하고 승장僧將 사명대사四溟大師(惟政)에게 성책을 쌓
고 창고를 설치할 것을 지시하다.

과사성婆娑城에서 승병장僧兵將 의엄義嚴 장로에게 7언을시를 써 주다.⁵⁶⁾

1596(선조宣祖 29. 병신丙申)년 55세

1월, 군사를 훈련시키는 규칙을 제정하여 사도四道에 반포하다.

2월, 건주위建州衛⁵⁷⁾의 침입에 대비하여 북면北邊의 방위를 강화할 것을 평
안·함경 양도兩道 순변사巡邊使에게 지령하다.

3월, 청명淸明에 금계金溪의 선영을 참배하다.

5월, 조완도趙完堵라는 자가 상소하여, “선생이 그의 아버지 조헌趙憲이 당연
하게 얻을 군공을 업떼했다.”고 하자, 선생은 “신이 대신의 지위에 있으면서
남에게 모욕을 당하게 되어, 직접 이름을 들어 배척받았습니다. 이는 반드시
신이 평소에도 남에게 가볍게 보인 소치이니, 외람되나 신의 관직을 체면攄免
해 주소서.”라고 사직辭職을 주청했으나, 윤허 받지 못하다.

윤월 8월, 선조가 대신에게 명하여 동궁東宮에게 청정聽政하게 하자 선생이
백관을 거느리고 대궐문 앞에서 한 달 남짓 복합伏閣⁵⁸⁾하여, 윤허를 받아
내다.

9월, 이순신李舜臣에게 죄를 주자는 의견에 반대하여 사직상소辭職上疏를 올
리다.

11월, 청야책淸野策⁵⁹⁾을 채용하여 왜적의 재침再侵에 대비하도록 하다.

56) 「권1·시68」을 참조바람.

57) 건주위(建州衛) : 중국 명나라 성조(成祖)인 영락제(永樂帝) 때에, 남만주(南滿洲)
의 건주(建州) 지역에 사는 여진족(女真族)을 다스리기 위하여 설치한 군영. 이후
여진족의 부족장에게 지휘권을 넘겨주었으며, 건주좌위(建州左衛)와 건주우위(建州
右衛)가 새로 생겨남에 따라 건주 삼위(三衛)가 되었음.

58) 복합(伏閣) : 나라에 큰 일이 있을 때에 조신(朝臣) 또는 유생(儒生)이 대궐문(大
闕) 밖에 이르러 상소(上疏)하고 엎디어 청하던 일.

59) 들판을 완전히 비우고 성에 들어가 방어하는 책략.

전란 후 지방방어 상황순시를 위해 남행南行길에 오른 좌랑佐郎 정경임鄭景任에게 선생이 파사성婆娑城에서 5율로 된 시를 지어 주며, 내심(內心)을 보이다.⁶⁰⁾

선생이 명명나라 장수를 따라 남정南征할 때, 잠시 하회河回에 들렀는데, 학기學己가 시집詩集을 들고 찾아와서 화운和韻을 요구하여, 그 시집에 수록된 시운詩韻에 차운次韻해서 주다.⁶¹⁾

1597(선조宣祖 30. 정유丁酉)년 56세

3월, 이순신이 무함誣陷으로 파면될 때, 그 부당함을 극력 진언했으나, 윤휴를 받지 못하자, 그를 천거한 책임을 지고 5차례나 사직상소를 올린다.

8월, 왕명을 받고 경기京畿를 순찰하다. 이때, 적이 재차 준동하여 전라도와 충청도 지방이 모두 봉계되자, 선생이 왕명을 받아 곧바로 한강漢江에 나가 순찰하면서, 경기 우방어사右防禦使 유림柳濂에게는 무한산성無限山城을, 별장別將 조발趙撥에게는 독성禿城을, 좌방어사左防禦使 변응성邊應星에게는 파사성婆娑城을 각각 지키게 하고, 이로 인해, 강 연안 일대를 따라 왕래하면서 물살이 세고 얇은 곳을 잘 경비하도록 하다.

경기京畿를 순찰하고 조정으로 돌아오다. 이때 시국時局의 안정에 역량이 따라주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5언율시로 표현한 시가 보인다.⁶²⁾

9월, 어가를 호종하고 강가를 나가 순찰하다. 왕명을 받고 나가 경기와 충청도를 순찰하다. 왜적이 물러간 뒤 선조는 여러 대신을 각도에 보내어 그곳의 백성들을 위무하게 하다.

10월, 왕명으로 경기·충청 지방을 순시하여 민심을 안정시키고, 제장諸將들의 공과功過를 살피다.

11월, 왕명을 받고 남쪽에 내려가다. 이때 양경리楊經理·마도독麻都督이 곧 남쪽에 내려가게 되자, 선조는 선생에게 먼저 가서 군량을 조치하라고 명함.

12월, 봉화에 가서 노모를 찾아뵈다. 이때 대부인이 난을 피해 봉화에 있었다.

60) 「권1·시72」를 참조바람.

61) 「권1·시92」의 소서(小序) 안에 보인다.

62) 「권1·시82」를 참조바람.

경리經理에게 선생을 헐뜯는 자가 있어, 경리는 그 말을 믿고, “유모柳某는 군문軍門 형개邢玠에게 죄를 짓고 이쪽으로 도망 와서 군량을 운반하는 일 등을 전적으로 윤승훈尹承勳에게 맡겼다.”라고 하자, 선생은 장계를 올려 상황을 말하고 직명을 삭제해주길 청했으나, 윤허 받지 못하다.

1598(선조宣祖 31. 무술戊戌)년 57세

여러 번 사직상소를 올렸으나 윤허 받지 못하다.

1월, 왕의 소환을 받다. 다시 봉화로 가서 노모에게서 수일간 머물다.

2월, 조정에 돌아오다. 이때 운암雲巖을 지나게 되었는데, 여기에서 조신曹伸이 거처하던 조그마한 정자를 임금이 하사한 호피虎皮로 구입하여 머물러 쉴 뜻을 가졌으나, 관직에 얽매어 뜻을 이루지 못하다. 이때, 종사관 윤경립尹敬立과 더불어 노닐면서, 운암골짜기 바위 위에 5언을시를 남김.⁶³⁾ 선생을 공박하는 자가 이를 두고, “전원이 온 나라 안에 두루 펼쳐져 있다(田園遍一國)”라고 하다. 이에, 다시 사퇴서를 올렸으나 윤허 받지 못하다.

3월, 사직서를 올렸으나, 선조는 “국가가 위태롭고 급박하니 대신으로서 사퇴할 시기가 아니다”라고 하며 윤허하지 않다.

4월, 어가를 호종하고 서강西江에 가서 진법陳法을 연습하다.

7월, 왕명으로 벽제碧蹄에서 군문軍門 형개邢玠를 맞이하다.

9월, 명명의 주사主事, 정응태丁應泰는 경리經理 양호楊鎬가 울산전투에서 패배하고도 사실대로 보고하지 않았고, 본국[조선 조정]도 양호와 합작하여 은폐했으며, 왜인과도 통모한다고 탄핵하다. 이에 선조가 분개하여 동궁東宮에게 결재를 받게 하고 정사政事를 돌보지 않다. 서에는 정2품 이상의 관리를 인솔하여 복합伏閣하다.

이때, 형군문邢軍門의 차인差人이 과도관科道官을 보내와서 군량미 운반을 청했는데, 선조가 답을 하지 않다. 마침 이때 선생은 대궐 뜰에서 선조가 정사政事 보기를 주청奏請하고 있었는데, 이조 판서 홍진洪進이 관안官案을 가지고 선생 앞에 다가와서 차출하여 보낼만한 자를 묻자, 황급한 터라, 전한典翰 김

63) 「권1·시84」를 참조바람.

신국金蓋國 · 집의執義 황정철黃廷詰 · 병조정랑兵曹正郎 윤홍尹弘 · 지평持平 이이첨李爾瞻 등 네 사람을 낙점하고 서류를 갖추어 아뢰다. 이때 이이첨이 격노하여 혼자 계책을 올려 선생이 자청해서 가지 않은 것을 탄핵하였고, 이에 윤홍의 소疏가 이어지자, 선조는 이이첨 대신 송석경宋錫慶으로 대신하다.

선생이 탄핵을 받았으나, 국사가 시급해서 회피할 수 없어, 한편으로는 선조가 정사政事 보기를 계청啓請하였고 다른 한편으로는 서과도徐科道에게 위의 사실에 대해 해명하는 글을 올린다. 선조는 여전히 정사政事を 보지 않았고, 선생을 미워하는 자들은 벌떼같이 공박과 배척의 상소를 올린다. 이에, 자신을 탄핵하는 차자箴刺를 올리고 사직을 주청하였으나 윤허 받지 못하다.

27일, 명나라 정응태丁應泰의 무주誣奏 사건에 대한 진주사陳奏使를 고사固辭하다.⁶⁴⁾

그러나 선조는 여전히 이를 윤허하지 않아, 29일 동성東城 밖에 나가 왕명을 기다리다. 사직서를 올렸으나 윤허하지 않다. 당시 사면초가에 처해 있던 선생을 회지希之 김대현金大賢이 그의 선친의 시집을 들고 찾아와서 보여줌에 7언을시로써 그간의 심경과 우의를 표현하다.⁶⁵⁾

10월 6일, 마침내 진주사陳奏使를 체면遞免하다. 9일, 영의정領議政을 체면하

64) 명나라 정응태(丁應泰)의 무주(誣奏)한 사건에 대한 진주사(陳奏使)를 고사(固辭)한 내용 :

“신이 이미 중한 탄핵을 받았으므로 마땅히 물러가 엎드려 죄를 기다려야 하고 결코 조정에 얼굴을 내놓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시기가 위급함으로 말미암아 어제 공의(公議)에 거슬림을 무릅쓰고 재차 대궐에 나가 공무를 수행하며 공사(公事)를 아뢰었고, 또 신의 봉사(역자주 : 진주사陳奏使를 봉행하는 것) 등의 일을 아뢰었습니다. 그런데 승문원(承文院) 정자(正字) 유숙(柳瀟)이 또 소(疏)를 올려 신의 죄악을 극도로 열거했습니다. 소(疏)는 벌써 이전에 들어갔는데도, 신은 전연 내막을 알지 못하고 태연스럽게 공사(公事)를 아뢰었습니다. 신의 몰골이 외롭고 위태로운 것은 이 만해도 알 것입니다. 신이 이 지경이 되도록 논핵(論劾)을 당하였으니, 대신 자리에 함부로 있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진주사(陳奏使)의 봉행 문제는 곧 온 국가의 막대한 일입니다. 생각건대, 죄악이 많아 나라 안에서 가장 버림받은 자를 선발하여 보내면 무엇으로 황제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으며, 신은 또한 무슨 면목으로 중국 조정의 사대부들을 만나 시비곡직을 변론할 수 있겠습니까. 신이 지금 이 말을 하면 신을 죄주려는 자들은 또 반드시 사행(使行)을 회피한다는 죄목으로 돌릴 것입니다. 사리가 이와 같으니, 사생(死生)과 영육을 구차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65) 「권1 · 시86」을 참조바람.

다. 22일, 통제사 이순신李舜臣은 고금도古今島에서 선생이 논핵論劾되었다는 말을 듣고 크게 탄식하다.

11월, 19일에 파직되자, 바로 20일에 남쪽으로 하행下行하다. 22일에 용진龍津을 건너 양근楊根 대탄大灘에서 유숙하다. 이날 선생의 행차가 관직에서 파직되어 전원으로 돌아갈 때, 도미천渡迷遷에 이르러, 삼각산三角山이 보이자, 말에서 내려 네 번 절을 하고 이곳을 떠날 때의 감회를 7언절구絶句로 읊다.⁶⁶⁾

28일, 양근陽根에 사는 인척과 상사上舍 김언수金彦瑒가 각각 쌀 몇 말씩을 내서 노자로 주어, 길은 떠나게 되었으나, 가족家屬들은 다 도보로 따르다. 30일, 충주 금탄金灘에서 유숙하다. 12월1일, 덕산촌德山村에서 유숙하다. 산골길이 좁고 험한데 큰 눈이 몰아치고 날은 또 칙흑처럼 어두워서 지척을 분별할 수가 없었다. 선생은 하인에게 명하여 부싯돌을 쳐서 불을 붙이게 하여, 험한 길을 간신히 지나 덕산촌에 당도하자 밤이 벌써 깊었다.⁶⁷⁾

12월 5일, 태백산 아래 있는 도심촌道心村에 가서 노모를 찾아뵈다. 6일에는 모든 관작官爵이 삭탈되다.

1599(선조宣祖 32. 기해己亥)년 58세⁶⁸⁾

66) 「권1·시87」을 참조바람. 공교롭게도 선생이 파직된 이 날은 이순신이 명(明)나라 제독 진린(陳璘)과 연합하여 노량(露梁) 해전에서 대승을 거두고 나서, 도주하던 적선을 추격하다가 적의 유탄에 맞아 전사한 날이기도 함. 서에는 이순신의 전사를 애도한 시작(詩作)을 남기고 있다. 「권2·시36」을 참조바람.

67) 삭탈관직 된 이후, 귀향길에서 지은 시로 보임 : 「권2·시24」, 「권2·시25」, 「권3·시67」.

68) 「권1·시91」과 「권1·시94」의 작시(作詩) 배경 : 선생의 시작(詩作)에 작시(作詩) 년대가 기해(己亥)년으로 명기된 작품 1제(題 : 「권1·시91」)와 기해년으로 추정되는 1제(題 : 「권1·시94」)가 있다. 기해년이니 모두 서애가 58세 때의 작품으로, 이미 이때는 관직에서 파직된 이후의 시기에 속한다. 고로 마땅히 시의 배경이 ‘하회’가 되어야 할 것인데, 모두 태백산과 관련되어 있다. 전자인 「권1·시91」은 태백산 아래에 있는 ‘도심촌(道心村)’이란 민가(民家)이고, 후자인 「권1·시94」는 태백산을 마주하는 ‘서재(書齋)’이다. 「연보(年譜)」에 의거하면, 서애는 이미 지난 해(무술년戊戌年 : 1598), 11월에 관직에서 파직되어 가솔을 데리고 귀향길에 올랐고, 12월에 노모가 계시는 피난지인 ‘도심촌’에 들렀다. 그리고 금년(1599) 2월, 금계金溪에 가서 성묘하고 하회로 돌아왔다는 기록이 보인다.

2월, 16일. 금계金溪에 가서 성묘하고 돌아와서 하외河隈에 갔다.⁶⁹⁾

3월, 옥연서당玉淵書堂에 나가 있으면서 찾아오는 손님을 사절하다. 그들은 선생을 위해 소疏를 올려 억울함을 호소하려 하였으나, 선생은 급히 친한 사람에게 글을 보내 힘써 말리다. 이때 정사精舍에 복숭아꽃이 만발하여, 갑자기 ‘이 물건이 대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此物關我何事), 심체心體는 맑고 뚜렷해야하니 한쪽으로 치우쳐 집착해서는 안 되겠다(心體澄虛不可有偏著)’라고 생각하고, 이어서 절구시(絕句詩) 한 수를 짓다.⁷⁰⁾

4월, 노모가 도심촌道心村에서 돌아옴에, 노모를 위해 송정松亭에서 조출한 잔치를 베풀다. 대부인은 선생이 관직이 삭탈되었는데도 화염火焰이 여전하다는 말을 듣고 밤마다 첫닭이 울면 반드시 일어나서 의복을 정제한 다음 정화수를 떠 놓고 하늘에 빌었다.⁷¹⁾

6월 28일, 직첩職牒을 돌려주었다가 얼마 안 되어 직첩을 도로 회수해 가다.⁷²⁾

다시 연보를 보면, 서에는 (1599년) 3월부터 하회에서의 정착을 시작하였으며, 금년 4월에 노모가 도심촌에서 돌아왔고, 선생은 이를 축하드리는 조출한 잔치를 열었다고 되어있다. 그렇다면 최소한 지난 해(1598) 12월에서 금년(1599) 4월 이전까지는 노모의 거처지가 하회가 아닌 태백산 아래의 ‘도심촌’이 되겠다. 아마도 효성이 지극했던 선생은 당시 가솔들은 먼저 하회로 이동시키고 노모는 추운 겨울을 피해 금년 일기 화순한 4월에 하회로 모셔온 것으로 보인다. 그러자니 선생은 노모가 계시는 도심촌에 임시거처를 정해놓고 그곳에서 주로 겨울철을 머물렀던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위의 두 시작(詩作)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 두 편의 시작(詩作)을 참조바람.

69) 「권3·시71」 참조바람.

70) 「권3·시75」를 참조바람.

71) “내 아들은 집에서는 효자였고 나라에서는 충신이었습니다(吾子在家爲孝子, 在國爲忠臣)”라고 하는 기원을 수십 일동안 기구(祈求)하였음.

72) 선조가 하명하여 직첩(職牒)을 돌려주자 삼사(三司)가 그를 논핵하였음. 선조가 옥당(玉堂)이 올린 차자에 비답(批答)한 것을 보면 : “논핵한 일이 실정에 너무 지나치니, 그 사람이 복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곁에서 보는 사람도 역시 복종하지 않는다. ‘주화(主和)’ 두 글자로써 탈을 잡아 심지어 진회(秦檜)와 비교하였는데, 진회는 오랑캐의 뜻을 받아들여 처자를 보전하였으며 송(宋) 나라에 잠입하여 금인(金人)을 위해 화친을 도모하여 악비(岳飛) 등을 죽인 인물이다. 지금 류성룡도 왜적의 뜻을 받아들여 남몰래 음모를 통해 그의 처자들을 보전하고 화의를 주장했다는 것인가. 이런 말로써 인심을 승복시키고 국시(國是)를 안정시킬 수 있단 말인가. …… 그리고 중론을 물리치고 한밤중에 사신을 보냈다는 말은 더욱이 말이 안 된다. 그때는 조정의 의논을 널리 모아서 결정했고, 그 조정의 의논은 승정원에서 살펴볼 수

9월, 겸암공과 함께 배를 타고 옥연소玉淵沼에서 놀다.

10월, 노모에게 헌수獻壽하다.

성극省克 김홍미金弘微에게 글을 주어 학문을 논하다.⁷³⁾

하회에서 선달 그믐날 밤을 보내면서, 지난 해 그믐날 밤엔 태백산 아래 작은 불사佛寺에서 그믐밤을 보내던 정경을 떠올려, 다시明年的 선달 그믐날 밤은 어디에서 보낼 것인가를 생각하는 내용의 시가 보인다.⁷⁴⁾

1600(선조宣祖 33. 경자庚子)년 59세⁷⁵⁾

1월, 옥연정사玉淵精舍에 나가 보허대步虛臺에 소나무를 심다.⁷⁶⁾

2월에 봄을 맞이하면서 노경老境의 정취를 읊은 시 한 수가 보인다.⁷⁷⁾

3월, 노모를 모시고 옥연정사에 가서 꽃을 구경하다.

퇴계선생 연보退溪先生年譜를 편찬하다. 퇴계선생 연보를 편찬 중에 선생이 병중이라, 본 작업에 참여한 김이정金而靜·김사열金士悅을 만나지 못하게 되자, 월색이 아름다운 밤에 7언절구시 4수를 써서 그들에게 보내다.⁷⁸⁾

5월, 옥연서당에 나가 보허대步虛臺에 대나무를 심다.

8월 14일, 겸암謙菴과 함께 금계金溪에 가서 성묘하다. 18일, 보허대를 중축

있다. 과연 중론을 물리치고 독단으로 보냈다고 할 수 있는가. 하물며 파직된 자가 벌써 세월이 경과했는데 지금 어찌 관직을 복구할 수 없단 말인가.”

73) “지금 사람들은 옛사람이 학문을 논하던 경로에 대해, 견해도 없고 근거도 없으면서 거만하고 자신만만하게 정·주(程朱)를 앞잡아 보는데, 나는 일찍이 그러한 것에 대해 탄식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누구에게 말해 줄 사람도 없었지만, 말해 주더라도 받아들여서 생각하여 살피려고 하지 않는 데야 어찌겠는가.

도리만 환하게 눈앞에 있을 뿐이니, 아무리 상산(象山)이나 양명(陽明)이 지금 세상에 태어나더라도 내 또한 갑자기 행복을 하라는 깃발을 세우지는 못할 터이니, 하물며 지금 세상에 이른바 술지개미를 먹고 뭍은 술을 마시는(餽糟啜醢) 자들이야 말할 나위가 있겠는가. 그대가 보는 바와 같은 것은 다행히 사리에 어긋나거나 모나지 않으니, 천만번 더욱 힘써서 이설(異說)에 동요되지 않는다면 어찌 교유만이 다행스러울 뿐이겠는가.”

74) 「권1·시110」을 참조바람.

75) 작시(作詩) 연도(庚子年 : 1600년 : 59세)만 기재된 「권2·시10」의 시가 보인다.

76) 「권3·시87」, 「권3·시88」을 참조바람.

77) 「권1·시112」를 참조바람. 「권3·시74」도 참조바람.

78) 「권1·시115」을 참조바람.

하고 이름을 달관대達觀臺로 고치다.⁷⁹⁾

10월 29일, 『대학大學』을 읽고 느낀 점이 있어 7언절구 10수 「독대학유감
심수讀大學有感十首」를 쓰다.⁸⁰⁾

11월, 직첩職牒을 되돌려 받고 7언절구시를 남기다.⁸¹⁾

12월, 13일 서쪽으로 산릉山陵에 가다. 21일 의인왕후 관梧를 동성東城 밖 길
가에서 곡송哭送하고 그 날로 돌아오다.⁸²⁾

1601(선조宣祖 34. 신축辛丑)년 60세

3월에는 검암공이 별세하고, 8월에는 대부인이 별세하다.

12월, 서용敍用의 명이 내리다.

선생이 관직에서 축출되어 3년째 되는 해에 학기學己 승려가 찾아와서 시집
한 권을 보여주자, 불문佛門에 대해 부러워하는 마음이 생겨 장단구長短句 시
를 지어 그 시집 후면에 써 주다.⁸³⁾

79) 「권3 · 시101」을 참조바람. 「권3 · 시118」도 참조바람.

80) 「권2 · 시8(총 10수)」을 참조바람.

또한 성극(省克) 김홍미(金弘微)에게 준 글에도 관련내용이 보인다 : “지난 겨울에
『대학(大學)』의 격물설(格物說)을 생각하다가 보다 깊은 깨달음의 경계가 있는 것
같아서, 뜻하지 않게 7언절구 10수를 썼으니 바로잡아 주기를 바라며 지금 그대에
게 보낸다. 그 말편(末篇)에, ‘인심(人心)과 도심(道心)이 진실로 다 마음인데, 그것
이 인심인 줄 알고 그것이 도심인 줄 아는 그것이 어떤 물건인가? 이 물건이 어둡지
않으면 간명하게 마음을 하나로 집중시키는 공부가 곧 여기에 있다’ 하였는데, 요사
이 내가 이 뜻을 생각하여 분명하게 알았다.”

선생은 또 일찍이 말하기를 : “『대학』 한 책에서 요점은 ‘지(止)’ 자 하나에 있다.
뜻은 마땅히 성(誠)에서 멈추어야 하고, 마음은 마땅히 정(正)에서 멈추어야 하며,
몸은 마땅히 수(修)에서 멈추어서, 가정 · 국가 · 천하에 이르기까지 만사와 만물이
마땅히 멈추어야 할 곳에서 멈추어야 하는 것이다. 이른바 격물치지(格物致知)도
다만 멈추어야 할 곳을 알아서 (거기에서) 멈추려고 할 뿐이다”라고 하였다.

또 일찍이 ‘논설(論說)’을 지어, 회재 선생(晦齋先生)의 『대학장구보유(大學章句補
遺)』에서 경문(經文)의 오류를 검토해 고쳐야함을 언급했다.

81) 「권2 · 시21」과 「권2 · 시98」를 참조바람.

82) 의인왕후(懿仁王后)의 산릉(山陵)에 갔다가 용궁에 들러 생질 이돈(李焯) · 이찬(李
燦) 형제에게 읊어 보인 시로 「권2 · 시22」가 있다. 역시 같은 시기의 작품으로 보
이는 「권2 · 시23」도 있다.

83) 「권1 · 시92」의 소서(小序)에 있는 2수의 시운(詩韻)에 다시 차운(次韻)하여 지은
것이다.

1602(선조宣祖 35. 임인壬寅)년 61세

4월, 청백리淸白吏로 뽑혀 『엄근청백록嚴謹淸白錄』에 이름이 오르다.

『영도목永慕錄』을 찬술하다. 서序와 발跋이 있다. 겨울에는 『상례고증喪禮考證』을 수찬하다.

1603(선조宣祖 36. 계묘癸卯)년 62세

10월 삼년상을 마치다. 이때 선생의 나이는 육순이 넘었는데도 상을 당하여서 초상 때부터 장례葬禮와 제사祭祀에 이르기까지 크고 작은 일을 막론하고 모두 몸소 처리하고 일찍이 자제에게 대행시키지 않았다.

1604(선조宣祖 37. 갑진甲辰)년 63세⁸⁴⁾

3월, 옥연정사玉淵精舍에서 김성극金省克을 송별하다. 이때 김공이 강릉의 임소로 가게 되자, 선생이 옥연정사에서 그를 송별하면서 술을 두어 잔 마신 다음 일어났다. 김공이 갑자기 개연히 탄식하여,

“선생을 황야에 물러 나와 계시게 하니 시사時事가 말이 아닙니다.”라고 하자, 선생은 깜짝 놀라며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그대는 어째서 이런 말을 하는가? 늙은 내가 변변치 못하여 국사를 이 지경에 이르게 하였는데도 성은이 하늘과 같아서 내가 향촌에서 목숨을 연장하도록 해 주셨으니, 지금까지 7년 동안에 털끝만한 것도 다 하늘이 주신 것이네.”

이어 오랫동안 눈물을 흘리다가 5언율시 한 수를 지어 뜻을 붙이다.⁸⁵⁾

84) 갑진년(甲辰年 : 1604년 : 63세) 때의 시작(詩作)으로 보이는 것들 : 1월28일에 지은 「권2·시26」, 일자만 29일로 명기된 「권2·시28」, 시문에 직접 63세라고 밝힌 「권2·시41」, 아들 자남(子男)의 요절을 애도한 「권2·시53」, 역시 자남을 회고한 시로 시문에는 죽은 지 반년이나 지났다는 표현이 있는 것으로 보아 거의 비슷한 시기로 보아지는 「권2·시60」 등이 보인다.

85) 서애가 63세 되던 해에 성극당(省克堂) 김홍미(金弘微 : 1557~1605, 류성룡의 문인)가 옥연정사를 방문했을 때, 선조(宣祖)를 생각하며 읊은 시 : 「권2·시30의 제3수」에 보인다. (본 시는 총 3수임) 이외에도 「권3·시139」, 「권3·시140」, 「권3·시141」, 「권3·시142」 등을 참조바람.
성군(聖君)의 큰 은혜 한없이 중하거늘,
미천한 이 신하는 과오만 허다하네.

6월, 옥연정사玉淵精舍를 나가다.

7월, 『징비록懲毖錄』의 저술을 마치다. 다시 부원군府院君으로 서용敍用되고 호성공신扈聖功臣으로 서훈敍勳되다.

8월, 상소하여 소명召命을 사퇴하고 아울러 훈록勳錄을 삭제할 것을 요청했으나, 윤택하지 않았다.⁸⁶⁾

9월, 충훈부忠勳府에서 공신功臣인 선생의 초상화肖像畵를 그릴 화가를 보냈으나 나라에 공이 없다고 사양하여 그대로 돌려보내다.

『양명집陽明集』을 읽고 서序와 7언율시詩 2수를 짓다.⁸⁷⁾

한 마디도 나라에 보답하지 못하고,
만 가지 계책이 모두 어긋나고 말았네.
못 다한 효도 한탄하나 귀향은 너무 늦었고,
궁궐 쪽에 구름 끼어 북쪽이 아득하네.
단지 남은 몇 줄기 눈물이나마,
저 한강물에 부쳐 불까하네.

聖主洪恩重，微臣罪戾多。
一言無報效，萬計悉蹉跎。
風樹南來晚，宮雲北望賒。
惟殘數行淚，寄灑漢江波。

86) 「권3 · 시129」와 「권3 · 시130」을 참조바람.

87) 「권2 · 시44(총2수)」를 참조바람.

서(序)의 요약 : “양명과 주자의 학문이 다른 큰 요점은 다만 치지(致知)와 격물(格物) 네 글자에 대해 의견을 별도로 세우는 데에 있다. 주자는 ‘사람 마음의 신령함은 모르는 것이 없고, 천하의 사물은 이치가 없는 것이 없다.’고 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사물에 나아가 이치를 궁구해서 그 앎을 극진히 하게 하였다. 양명은 ‘이치는 내 마음에 있으니 밖에서 찾을 수 없다.’고 하니, 그의 학문을 논하는 것은 한결같이 양지(良知)를 위주로 한다.

「연보」상에 보면, 어떤 사람이 “양명의 본심설(本心說)이 가정(嘉定) 무렵 문의(文義)의 폐단을 구제할 수 있었습니까?”라고 묻자, 선생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옛 사람이, 불에 피로워하는 자를 보고 문득 그로 하여금 물에 뛰어들게 하였는데, 물과 불이 비록 다르긴 하지만 사람을 죽이기는 마찬가지이다. 양명이 송(宋) 나라 말엽 문의의 폐단을 바로잡으려고 오로지 본심설을 주장하였으나, 그 유폐가 도리어 문의의 폐단보다 더 심한 점이 있는 줄은 알지 못하였다.”라는 대목이 보인다. 서에 가 『양명집』을 읽고 느낀 바가 가 있어서 쓴 두 수의 시를 옮기면 다음과 같다 :

제1수(양명학설을 논박하다) :

양명은 논설마다 “마음이 곧 이치이다”고 하면서,
“이치는 내 마음에 있지 책에 있지 않다”고도 하였네.

1605(선조宣祖 38. 을사乙巳)년 64세

1월, 「지행설知行說」을 짓다. 「지행합일설知行合一說」을 짓다.

왕양명王陽明이 ‘지·행知行을 합해서 하나’라 하여, 주자朱子の 학설을 극력 반박하였는데, 선생이 이 설을 지어서 해명하다.

3월, 봉조하奉朝賀⁸⁸)의 녹봉을 사양하는 소疏를 올렸으나 윤택되지 않다.

4월 24일, 큰아들 여櫛가 죽다. 제문祭文과 행장行狀이 있다.

9월, 서미동西美洞(지금의 경북 안동시 풍산읍豐山邑 소재)으로 이사하다.

이때 하회마을이 홍수가 나서 수목樹木이 없어지고 바람이 거세어 요양하기에 불편하고 또한 손님의 방문도 번거로워서 선생은 하회를 떠나 이곳 학가

사람이 비록 입이 있어 맛을 알 수 있다고는 하지만,
곰발바닥과 생선 맛을 보고 구분해야 생소하지 않다네.
(사물의) 도는 만 갈래로 다르거늘 하나의 이치로 귀결시키다니,
영토가 호월(胡越)로 (남북으로) 나뉘었어도 다 내 집이란 격일세.
지금 천하는 홍수가 극심하여 산릉(山陵)까지 차 오르는데,
애닏다 누가 다시 메인 개울바닥 파내 물길 띄울꼬!
陽明每說心爲理，理在吾心不在書。
人雖有口能知味，味辨熊魚始不疎。
道有萬殊歸一法，地分胡越儘吾廬。
如今天下懷襄甚，惆悵何人更鑿疏。

제2수(세속적 학문을 바로 잡고 내 자신을 경계하다) :

가정년간(嘉定年間)에 세속적 학문의 폐단은,
지엽적인 문제에 너무 집착했음일세.
오직 주례(周禮)만이 천하를 공고히 한다면서,
정전(正殿)은 돌보지 않고 진종일 비워뒀다네.
깊은 곳 비추는 것은 한 치의 거울임을 잊지 말아야하며,
배를 갓 띄우려 할 땐 필히 반돛 바람 받아야지.
저 시골벽적인 세상 어두운 데를 살피려면,
한결같이 자성(自省)해야 효험을 보리라.
嘉定年間末學弊，尋枝摘葉儘無窮。
徒聞姬轍周天下，不顧明堂盡日空。
燭幽莫忘徑寸鑑，行船須倚半帆風。
看他擾擾昏昏地，一念回光便見功。

- 88) 봉조하(奉朝賀) : 전직 관원을 대우하여 종2품 이상의 관원에게 사임한 뒤에 특별히 준 벼슬. 실제 사무는 보지 않으며, 다만 의식이 있을 때에만 관청에 나가서 참여하고 종신토록 녹봉을 받음.

산鶴駕山 산속에 위치한 서미동으로 이사를 하다.⁸⁹⁾

김성극金省克의 부음을 듣고 곡하다. 김공이 문학에 조예가 있으므로 선생의 사랑을 받았다. 이때 강릉 임소에서 죽자, 그를 애도하며 7언절구 한 수를 짓다.⁹⁰⁾

『제왕기년록帝王紀年錄』을 짓다.

1606(선조宣祖 39. 병오丙午)년 65세

3월, 서미동西美洞에 초당草堂을 짓다. 초당은 겨우 3칸으로 구조도 매우 꾸밈이 없고 누추하였으나, 선생은 거기에 거처한 것을 기쁘게 생각하여 ‘농환弄丸’으로 이름을 붙인다.⁹¹⁾

선생의 차자次子인 단襦이 『심경心經』⁹²⁾을 배우기를 요청하자 선생이 기쁘게 생각해서 「조명설鈞名說」⁹³⁾을 짓다.

89) 『권2 시집』에는 하회에서 서미동(西美洞)으로 이사를 한 이후의 시가 적지 않게 보인다. 이를 테면, 「권2 · 시75」, 「권2 · 시79」, 「권2 · 시80」, 「권2 · 시82」, 「권2 · 90」, 「권2 · 시91」, 「권2 · 시101」 등이 있음.

90) 「권2 · 시76」 : 이외에도 「권2 · 시78」도 참조바람.

북풍이 노호(怒號)하며 서쪽 숲을 흔들더니,
천 리 밖의 서신 와서 슬픈 소식 전하네.
백발의 늙은이 나 홀로 남게 되었으니,
누구와 다시 흥금을 토로해야 할지 모르겠네.

朔風號怒動西林，千里書來報惡音。

白首人間惟我在，不知誰與更論心。

91) 서미동(西美洞)에 초당을 짓고 나서 자제를 훈계한 내용 :

일찍이 자제에게 이르기를 : “사람이 이욕에 빠져서 염치를 잃어버리게 되는 까닭은 다 자족함을 알지 못한 데에서 나온다. 이 집이 비록 협소하지만, 그래도 비바람을 가리고 추위와 더위를 넘기며 이곳에서 지낼 수 있으니, 이 이상 더 무엇을 바라겠느냐. 무릇 사람이 자기가 처한 곳에서 걱정하거나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다면 어느 곳인들 살지 못하겠느냐.”

92) 『심경(心經)』 : 중국 송대 진덕수(眞德秀)가 경전(經典)과 송대 도학자들의 저술에서 심성수양에 관한 격언을 모아 편집한 책으로 총 4권 중 권1, 2이다. 내용은 『서경』 1장, 『시경』 2장, 『역경』 5장, 『논어』 2장, 『중용』 2장, 『대학』 2장, 『예기·약기』 3장, 『맹자』 12장으로 총29장과 송대 도학자들의 글인 주돈이(周敦頤)의 「양심설(養心說)」과 「통서(通書)」, 「성가학장(聖可學章)」, 「정의」 등 7편이 실려 있다. 진덕수는 이 명문들에 송대 유학자들의 논의들을 주석으로 삼았으며, 자신의 「심경찬(心經贊)」 1편을 덧붙였다.

『성유록聖諭錄』 후면에 발문을 쓰다. 선생이 차례로 받은 비답批答과 교지敎旨를 한데 모아 한 책으로 만들어 ‘성유록’이라 이름하고, 그 뒷면에 발문을 짓다.⁹⁴⁾

12월 11일, 병을 무릅쓰고 망매亡妹 숙인淑人의 여친旅櫬(객지에 있는 관槨)을 신양리新陽里에 곡송哭送하고 돌아온 후 병이 악화되다. 그러나 오히려 새벽부터 일어나 관대冠帶를 하고 외당外堂에 나가 자제들과 함께 『퇴도선생문집退陶先生文集』을 교정하며 의리를 강론하다가 간혹 한밤중이 되기도 하다. 또는 문집의 편질이 방대하여 강구講究하기가 어려울까 하여 『주자서절요朱子書節要』의 예례를 모방하여 약간 절목節目을 덜어 별도로 한 질을 만들어 후학들이 읽기에 편리하도록 하려고 했으나, 병으로 이루지 못하다.

『퇴계선생문집退溪先生文集』을 교정하고 의리를 강론하다.

1607(선조宣祖 40. 정미丁未)년 66세

1월 29일, 허노재許魯齋 형衡의 시를 써서 자제들에게 보여 주며 종신토록 마음에 새기도록 당부하다.⁹⁵⁾

2월 12일 시 한 수를 지어서 자제들에게 보여 주다.⁹⁶⁾

93) 선조가 즉위하면서 유술(儒術)을 높이고 장려하여 『심경(心經)』·『근사록(近思錄)』 등이 유행했는데 발탁된 기로(耆老 : 60세 이상의 노인)들이 죽자 그런 풍조가 변하면서 『심경(心經)』과 『근사록(近思錄)』이 명예를 낚는 미끼라고 불리게 된 세태에 대하여, 느낀 바가 있어 정리한 논설이다.

94) 『성유록(聖諭錄)』의 발문(跋文) :
“소신이 변변치 못하는데도 성상의 끝없는 은혜만 입고 한 가지도 보답하지 못한 채, 끝에 와서 많은 죄과만 저질러 이토록 낭패하였는데도, 오히려 목숨을 보전하여 시골에서 생활하는 것은 성상의 넓고 큰 은혜가 아님이 없습니다. 그러나 소신의 개미 같이 미약한 정성을 끝내 바칠 날이 없기 때문에, 삼가 평일에 받았던 교지를 수록하여 한 책을 만들어 아침저녁으로 공경히 절하고 읽기를 바라니, 슬프고 또 감격해서 스스로 멈출 수가 없습니다.”

95) 서애가 훈계할 때 인용한 이 시구는 원(元)나라 주자학의 대가(大家) 허형(許衡 : 1209~1281 : 자字는 노재魯齋)의 시로 다음과 같음 :
만 가지로 보양하는 것은 다 허위이고,
조심하는 것만이 중요한 법이다.
萬般補養皆爲僞, 只有操心是要觀。

96) 서애가 자제들을 훈계한 시 : 『서애전서(西厓全書) 권3』 『관화록(觀化錄)』에 보인다.

3월, 선생의 병보病報에 접한 선조宣祖는 내의內醫를 보내어 병환을 살피게 하다.
하루는 아들 진철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다.

“죽고 사는 것은 당연한 이치인데 내가 어찌 죽음을 서러워하여 마음
이 동요되는 사람이겠느냐. 오직 나라를 향한 일념만이 죽을 때까지
잊기 어려울 뿐이다.”

형님의 아들 의綺에게 명하여 유계遺戒를 쓰게 하다.⁹⁷⁾

병중에 지은 시를 엮어 『관화록觀化錄』이라 명명命名하다.

5월 6일, 향리鄉里 농환재弄丸齋 초당에서 운명殞命하다.

부음이 서울에 전해지자 향곡巷哭이 일어났으며 1,000여 백성이 선생의 옛
집터에 모여 통곡하고 조정에서는 3일 동안 공휴公休를 선포하고 상민들은
자진하여 4일 동안 철시撤市하였다. 풍산현豐山縣 수동壽洞에 예장禮葬하다. 선
조가 예조좌랑禮曹佐郎 구혜具惠에게 치제致祭토록 하다.

선생은 일찍이 말하였다.

“내가 평생에 세 가지 한이 있다. 군친君親의 은혜를 보답하지 못한 것이 한
가지 한이고, 작위爵位가 너무 분에 넘치는 데도 일찍 물러서지 못한 것이 두
가지 한이며, 망령妄靈되게도 도道を 배울 뜻이 있으면서도 이루지 못한 것이

숲 속에 새 한 마리 쉬지 않고 우는데,
문밖에는 쩡쩡 장작 패는 소리 들리네.
만물의 원기(元氣) 모였다 흩어지는 것도 공교로우나,
단지 한스러운 것은 평생 부끄러운 일 많이 한 것일세.
권하노니 자손들이 꼭 삼가 하여라,
충효 밖에 달리 해야 할 일이 없는 것임을!
林間一鳥啼不息，門外丁丁聞伐木。
一氣聚散亦偶然，只恨平生多愧怍。
勉爾子孫須慎旃，忠孝之外無事業！

- 97) 서애의 유계(遺戒) : “너희들이 착한 일을 힘써 생각하고 힘써 행한다면 가세(家世)
를 대대로 보전할 수 있다. 나는 세상에 공덕이 없었으니 죽으면 마땅히 검소하게
장사 지내라. 남에게 청해서 비명(碑銘)을 짓지 말고 만장(輓章)도 스스로 만들어서
보내 준 것만 쓰도록 하라. 또한 가업을 지키는 데는 스스로 체통(體統)이 있어야하
니 문란하게 하지 마라. 효성(孝誠)과 화목은 곧 가업을 지켜 나가는 도리이고, 상
례(喪禮)와 제례(祭禮)는 오직 정성과 공경에 있으니 풍성하게 장만하는 것에 힘쓰
지 말라.”

세 가지 한이다.” 라고 말하다.

1610(광해군光海君 2, 경술庚戌)년 :

조선 선조 채위시의 명재상 서애西厓 류성룡(柳成龍 : 1542~1607)의 사후,
1610년에 이 풍악서원豐嶽書院의 서당을 바탕으로 하여 서원을 건립하고 류
성룡 선생을 향사享祀한 것이 지금의 병산서원屏山書院이다.

1614(광해군光海君 6, 갑인甲寅)년 :

병산서원屏山書院에 위판位版⁹⁸⁾을 봉안하였으며, 그 뒤에 남계서원南溪書院,
여강서원蘆江書院, 삼강서원三江書院, 도남서원道南書院, 빙산서원氷山書院 등에
도 위판이 봉안되다.

1627(인조仁祖 5, 정묘丁卯)년 :

문충공文忠公의 시호諡號가 하사下賜되다.

위의 「서애연보西厓年譜」초록은 하회본 『서애전서西厓全書』 간본편刊本篇 본집
本集 권1·2와 별집別集 권1을 저본底本으로 하였으며, 아래의 자료를 참조하
였음.

1. 류성룡 저, 민족문화추진회 편, 『국역 서애집 II』, 솔 출판사, 1977년.

98) 위판(位版)또는 위패(位牌)는 자식이나 후손들이 많을 때 목판에 관직성명을 써 놓
고 집에서 받드는 것이다.

가목(佳木)	482	감시(感時)	618
가산(嘉山)	28	감시흥회(感時興懷)	618
가색(稼穡)	613	감작(堪作)	296
가애(可哀)	435	감지(坎止)	491
가애(可愛)	179, 558	감지유행(坎止流行)	490
가애완(可愛玩)	387	감리용천(匣裏龍泉)	310
가이(可以)	479	갑마(甲馬)	330
가탄(嘉嘆)	209	갑신(甲申)	172
가학문(可學文)	429	갑자원일(甲子元日)	442
가희(可喜)	145	강(羌)	331
각렬(脚劣)	713	강기(强起)	580
각소(却啼)	713	강남(江南)	247, 369
각화사(覺華寺)	351	강남강북(江南江北)	246
간(干)	433	강남약(江南約)	12
간(間)	129	강담(江潭)	414
간과(干戈)	599	강대(江臺)	276
간관(間關)	695	강두(江頭)	308
간담[肝]	627	강두행객(江頭行客)	308
간모(間暮)	53	강루일석(江樓日夕)	234
간산간수(看山看水)	389	강류(江流)	515
간수과(間睡罷)	129	강릉(江陵)	672
간위지(艱危地)	329	강리(江離)	160
간죽문(看竹門)	502	강벽(江壁)	452, 505
갈구(葛屨)	524	강북(江北)	247
감(酣)	53	강북강남(江北江南)	711
감과(堪誇)	263	강빈(江濱)	170
감구(感舊)	599	강사(江沙)	550
감사(感事)	14	강사(江舍)	583

강상(江上)	193, 727	거(渠)	227
강수(江水)	314	거(詔)	93
강운흑(江雲黑)	159	거가(車駕)	306
강원(江遠)	397	거경(居敬)	678
강월(江月)	150, 638	거굴(遽屈)	223
강제(強題)	700	거래(去來)	353
강제만(強題輓)	700	거마(車馬)	494
강중(江中)	465	거불궁(去不窮)	516
강중난압(江中亂鴨)	465	거상속(去相續)	345
강촌(江村)	71, 452, 456	거세(去歲)	430
강파(江波)	241	거실(巨室)	611
강파횡예(江波橫曳)	241	거중(居從)	303
강포(江浦)	170	거주심(去住心)	58
강풍세불(江風細拂)	225	건(乾)	288
강항(羌降)	331	건곤(乾坤)	288, 417, 497
강항매진(羌降每軫)	331	걸가(乞暇)	119
강해(江海)	292	걸퇴(乞退)	49
강허(江墟)	226	격노형(隔老兄)	99
강호(江湖)	232, 448, 708	격운(隔雲)	708
개관(開關)	411	격운의죽(隔雲依竹)	708
개등갈(皆藤葛)	375	격죽(擊楫)	335
개락(開落)	503	격창(隔窓)	186
개망안(搭望眼)	579	격창춘조(隔窓春鳥)	186
개부(開府)	277	견(跣)	411
개세(蓋世)	326	견고(見告)	11
개세웅(蓋世雄)	326	견과(見過)	25
객(客)	688	견사(見事)	14
객매(客袂)	384	견수(鵑愁)	196
객사(客舍)	112	견회(遣懷)	609
객자(客子)	321	견흥(牽興)	169
객정(客程)	120	견흥(遣興)	609
객혼(客魂)	114	결사(結社)	656
강(更)	179	경(更)	340, 359
강가기(更可騎)	266	경(垌)	23
강득(更得)	648	경(鯨)	327
강세간(更細看)	420	경(瓊)	691
강차전운(更次前韻)	224	경(京)	77

경(傾)	81	계도(桂棹)	109
경경(耿耿)	377	계분(契分)	540
경계(境界)	716	계산흥(溪山興)	188
경굴(鯨窟)	327	계상(季常)	25
경기지(更幾枝)	359	계상(啓上)	647
경남(經男)	196	계산(溪仙)	250
경년(經年)	128, 462	계찰(季札)	79
경년격(經年隔)	462	계행주(繫行舟)	691
경년합(經年合)	128	고(苦)	666
경단(驚湍)	42	고가(高歌)	321
경도(傾倒)	612	고개(高蓋)	596
경독(耕讀)	664	고경사(古逕斜)	170
경락(京洛)	25	고대(高臺)	214
경락반(京洛伴)	25	고도(古道)	89
경루장(更漏長)	725	고로(故老)	564
경문(敬問)	208	고림(高林)	722
경물(景物)	619	고목(孤鶯)	30
경사(逕斜)	170	고미요(苦未饒)	501
경세(輕世)	596	고반(高攀)	571
경세목(驚世目)	544	고부조(苦不早)	609
경수(境遂)	481	고산(孤山)	109
경야우(經夜雨)	453	고상(翱翔)	491
경여비(更如飛)	196	고석(古石)	262
경오(庚午)	382	고선지(高仙芝)	277
경운(耕雲)	50	고신(孤臣)	630
경음(輕陰)	59	고심(苦心)	9
경자(庚子)	446, 576	고양(阜壤)	72
경자년(庚子年)	442	고양(高陽)	17
경제(經濟)	564	고양군(高陽郡)	17
경제형(更弟兄)	340	고양여(阜壤與)	72
경지(輕枝)	10	고억(苦憶)	579
경지(瓊枝)	691	고연(固然)	525
경측(傾側)	18	고왕(孤往)	489
경파(鯨波)	332	고의(高義)	81
계(界)	38	고인(孤引)	168
계군(鷄羣)	661	고인(故人)	366
계달(季達)	41	고인(古人)	511

고인정(古人情)	99	공보정숙(公父定叔)	23
고인풍(古人風)	660	공상로(空傷老)	114
고재(高齋)	301	공원(共遠)	15
고저(高低)	497	공위국(空圍國)	308
고적(高適)	447	공음(琯音)	145, 706
고절(高節)	263	공읍(拱揖)	224
고정(孤亭)	224, 512	공일(空日)	424
고정(孤艇)	266	공자(孔子)	613
고조(高眺)	417	공간소(共殘宵)	86
고조(高鳥)	514	공잔추(共殘秋)	161
고조모운(高鳥暮雲)	514	공재독좌(空齋獨坐)	397
고주(孤舟)	159, 253, 549, 711	공정(公庭)	436
고직사(庫直舍)	156	공진락(供眞樂)	266
고처(高處)	433, 499	공참(功慚)	278
고촌(孤村)	89, 170, 296, 453	공해(公廨)	2
고침(高枕)	232	과객(過客)	296
고파(鼓罷)	150	과고(過皐)	267
고풍(高風)	716	과산음(過山陰)	169
고해사야(固解事也)	224	관(觀)	123, 573
고회(孤懷)	462	관(關)	31
곡강(曲江)	358	관공일(觀空日)	424
곡강미(曲江湄)	358	관교촌(官橋村)	262
곡평(曲肱)	613	관교촌수(官橋村樹)	262
곡평락(曲肱樂)	612	관도(官道)	59
곡구(谷口)	137	관도직(官道直)	58
곤(坤)	288	관동(冠童)	484
곤곤(滾滾)	515	관동(關東)	680
곤곤(袞袞)	515	관로(關路)	31
골골(汨汨)	346	관산(關山)	689
공(空)	114, 120	관서도(關西道)	247
공(公)	78	관세대(盥洗臺)	156
공검지(恭檢池)	116500	관심백려(關心百慮)	349
공경안(空驚晏)	120	관외(關外)	335
공담(空潭)	252	관주(觀周)	80
공랑(空廊)	724	관찰사(觀察使)	172
공력(功力)	570	관창(觀漲)	123
공발유편(共撥遺編)	235	관하(關河)	339

관해(關海)	413	국(國)	689
관해삼년(關海三年)	413	국은(國恩)	428
광영지(光影池)	154	군(君)	159, 203, 511, 540
광음(光陰)	72, 97, 443, 714	군가(君家)	132
광풍(狂風)	532	군방(羣芳)	728
광흥창 주부(廣興倉注簿)	507	군불견(君不見)	540
교(交)	120	군산(君山)	254
교(校)	234	군산음(君山陰)	254
교관(教官)	173	군위(軍威)	200
교교(皎皎)	290	군자(君子)	188
교룡(蛟龍)	482	궁경(躬耕)	301
교룡무(蛟龍舞)	482	궁궁이[芎藭]	160
교리(校里)	295	궁리(窮理)	678
교정(交情)	366	궁리(窮理)·격물(格物)·치지(致知)	678
교칠(膠漆)	540	궁수(宮樹)	133
교평(郊平)	207	궁양부(窮仰俯)	487
구(九)	269	궁양옥(窮涼燠)	614
구(舊)	303	궁침(窮簷)	185
구경법(九竟法)	388	궁촌(窮村)	663
구담(九潭)	730	권(卷)	705
구묘(丘墓)	462	권(權)	611
구물(舊物)	359	권등림(倦登臨)	713
구삼경(舊三逕)	297	권서(卷舒)	518, 590
구세(舊歲)	442	권장중(權章仲)	136, 296
구시(舊時)	175	권호문(權好文)	136, 296
구시봉(舊時鋒)	175	귓(鰓)	731
구의(舊義)	366	귓어(鰓魚)	731
구이정(久已定)	654	귀(歸)	69
구일(九日)	417	귀거(歸去)	314
구저명(舊著名)	80	귀거일(歸去日)	318
구점(口占)	464	귀기(歸期)	431
구제(驅除)	327	귀래(歸來)	323
구지의(舊之意)	383	귀망상(歸罔象)	498
구치(驅馳)	287	귀매(歸袂)	457
구치호해(驅馳湖海)	287	귀안(歸鴈)	174
구학상수(龜鶴相隨)	264	귀운(歸雲)	53, 142, 452
구학정(龜鶴亭)	258	귀운습(歸雲濕)	452

귀흥(歸興)	385	기여(其如)	170
규조(叫噪)	444	기영식(期永息)	332
균천(鈞天)	485	기우(羈寓)	357
균천광악(鈞天廣樂)	485	기원(寄遠)	149
극기(克己) 정호인(鄭好仁)	339	기유(羈遊)	120
극목(極目)	35, 307	기유질서(羈遊節序)	120
극목창연(極目蒼然)	35	기이(既而)	57
근차(謹次)	317	기적(鞮鞢)	695
금(襟)	149	기절(奇絶)	649
금(金)	38	기정(歧亭)	116
금강루(襟江樓)	321	기질지성(氣質之性)	678
금계(金溪)	464, 618	기추(幾秋)	282
금계재사(金溪齋寺)	464, 618	기축옥사(己丑獄事)	202
금고(今古)	37	기칠십(幾七十)	680
금상이(今尙爾)	404	기합(豈合)	701
금석(金石)	527	기훈(奇勳)	694
금세(今世)	99	김군세상(金君世商)	511
금수(錦樹)	53	김륵(金玊)	259
금일(今日)	680	김복일(金復一)	96
금조(今朝)	50	김성일(金誠一)	156, 598
금화전지어(金華殿之語)	725	김세상(金世商)	511
급(急)	69, 204, 533	김용(金涌)	301
급암(汲黯)	685	김윤안(金允安)	724
급차(及此)	673	김이득(金而得)	635
금자한(肯自寒)	636	김이정(金而靜)	724
기(幾)	223, 282, 680	김자첨(金子瞻)	281
기(椅)	428	김주부협(金主簿協)	729
기(氣)	726	김창원(金昌遠)	672
기공(奇功)	318	김첨(金瞻)	281
기구(崎嶇)	206	김학봉(金鶴峯)	156
기구(耆舊)	698	김해(金澥)	85
기기(跂跂)	697	김협(金協)	730
기상(氣象)	573	김홍미(金弘微)	672
기상인(棄相印)	537	김회중(金晦仲)	580
기서(寄書)	284	김희지 대현(金希之大賢)	421
기서답거(寄書答去)	284		
기성(箕城)	329		

나 감(那堪) 232, 456, 604

나득(那得)	124	남묘(南畝)	436
나팔(羅襪)	554	남물(覽物)	383
나작잔(懶着簪)	643	남연록(南延祿)	167
낙목(落木)	727	남중수연록(南仲綏延祿)	167
낙목풍(落木風)	6	남취(嵐翠)	576
낙성(洛城)	287	남하곡(南河曲)	385
낙수(洛水)	142, 145, 230, 358, 422, 511, 681	납(臘)	437
낙수미(洛水湄)	358	납뢰(臘雷)	437
낙수변(洛水邊)	681	납일(臘日)	437
낙수청(洛水淸)	142	낭묘(廊廟)	609
낙월(落月)	133	낭묘적(廊廟跡)	609
낙일(落日)	174, 307, 663, 684	낭천(浪川)	428
낙일천장(落日天長)	663	낭천현(狼川縣)	428
난(難)	684	내방(來憑)	190
난간(闌干)	497	내삼문(內三門)	155
난감(難堪)	54, 168	내유맹(奈有盟)	50
난견(難見)	660	내자시 주부(內資寺主簿)	507
난만(爛漫)	168, 470	내하(奈…何)	117
난봉(亂峯)	241, 419	냉락(冷落)	282
난산(亂山)	515	노(露)	161
난선(亂蟬)	163	노(奴)	25
난심(難尋)	726	노거시학(老去始學)	485
난압(亂鴨)	465	노기(路歧)	165
난엽(蘭葉)	546	노년(老年)	689
난엽혜화(蘭葉蕙花)	546	노다기(老多奇)	653
난운(亂雲)	450	노두(老杜)	416, 583
난운표표(亂雲飄飄)	450	노부(老夫)	710
난장(難將)	630	노수지(老樹枝)	297
난장백발(難將白髮)	630	노일애(老一涯)	264
난장약유(難將弱柳)	690	노정(虜情)	332
난풍(暖風)	113	노탈(魯稅)	265
남계(南溪)	204	노향(露香)	161
남계정사(南溪精舍)	204	노형(老兄)	99
남귀(南歸)	119	녹수(綠樹)	519
남대(南臺)	22	녹정(錄呈)	599
남래(南來)	190	녹주(綠酒)	168
		논교(論交)	702

농선화(弄仙花)	109	달(達)	657
농연연(弄淵淵)	269	담래(談來)	175
농운(濃雲)	182	담망언(澹忘言)	397
뇌(惱)	619	담연(淡烟)	410
뇌객장(惱客腸)	619	답거(答去)	284
뇌신(雷神)	437	답월(踏月)	109
누교(淚交)	620	답지(踏地)	375
누대(樓對)	142	당(堂)	585
누적(淚滴)	277	당(唐)	594
누중(樓中)	504	당공(堂空)	5
눈(嫩)	10	당귀신(當歸信)	290
능파(凌波)	160	당우(唐處)	594
능파대(凌波臺)	387, 408	당재(堂齋)	223
능파선(凌波仙)	554	당채창호(堂齋窓戶)	223
능파선자(凌波仙子)	554	당함효(當函嶠)	122
능험조(凌險阻)	491	대(臺)	269, 395
다(多)	69	대강(大江)	39
다기(多奇)	653	대도(大道)	498
다병(多病)	724	대림(臺臨)	269
다사(多事)	719	대범천왕(大梵天王)	353
다성망(多成妄)	398	대업(大業)	104
다여족(多如簇)	543	대월(帶月)	490
다역력(多歷歷)	726	대월귀(帶月歸)	490
다연수(多烟樹)	247	도(悼)	195
다의(多意)	418	도(道)	398, 400, 486
단(鍛)	19	도(叨)	626
단(丹)	489	도(度)	87, 89, 232
단(壇)	657	도가(道家)	550
단거(端居)	10	도경(陶逕)	301
단란(團圓)	133	도경남(悼經男)	195
단발(短髮)	578	도남(圖南)	719
단벽(丹壁)	53	도당씨(陶唐氏)	129
단애(丹崖)	190, 548	도도(滔滔)	124
단애영대(丹崖縈帶)	190	도도(道途)	344
단충(丹忠)	81	도랑(桃浪)	730
단혼(丹閨)	627	도랑생시(桃浪生時)	730
		도로중(道路中)	430

도맥(道脈)	652
도문(屠門)	544
도미동(道味洞)	301
도미신(道味新)	303
도본무형(道本無形)	398
도불(都不)	388
도불착심(都不着心)	387
도상(道想)	208
도상(都傷)	58
도심(道心)	278, 361
도심촌(道心村)	361
도중(道中)	18
도화동(桃花洞)	364
도화랑(桃花浪)	731
도화원(桃花源)	364
도화춘수(桃花春水)	562
독(獨)	649, 667
독(讀)	497
독등루(獨登樓)	292
독락당(獨樂堂)	652
독래(獨來)	366
독반(獨伴)	592
독수(獨秀)	667
독역(讀易)	177, 184
독포(獨抱)	358
동(動)	102
동경(東京)	622
동구대(東龜臺)	261
동근(同根)	314
동로(東魯)	642
동류(東流)	194
동봉월(東峯月)	321
동쇠모(同衰暮)	673
동심(同心)	205
동엄(同掩)	730
동우(凍雨)	461
동자토(同藉土)	484

동재(東齋)와 서재(西齋)	155
동조관(同條貫)	567
동천(同穿)	642
동토(東土)	593
동파(東坡)	409, 468, 479
동향(桐鄉)	97
동화(東華)	490
동회포(同懷抱)	612
두(杜)	160
두견(杜鵑)	380, 519
두동(頭童)	643
두문(杜門)	10, 486
두백(頭白)	599
두보(杜甫)	416
두형(杜衡)	161
둔영(屯營)	331
득(得)	129
득로정(得虜情)	332
득상(得喪)	470
득의(得意)	11
득의망언(得意忘言)	569
등래(登萊)	35
등갈(藤葛)	375
등계달(際季達)	41
등루안(登樓眼)	277
등림(登臨)	321, 713
등선(登仙)	354
등조(登眺)	214
등주(登州)	35
라 (懶)	643, 713
락(洛)	160
락(樂)	613
란(亂)	19
람(嵐)	53
랑(廊)	724
래무정(來無停)	346

래상(來上)	52	만(謾)	457
래주(萊州)	35	만(輓)	96, 101, 693, 700
러(藜)	508	만강월(滿江月)	637
령(令)	36, 669, 680	만계(萬計)	443
로(老)	114, 695	만공정(滿空庭)	616
로(鱸)	225	만대루(晩對樓)	154
로(魯)	642	만래(晩來)	246, 664
료(遼)	87	만래비작(晩來飛作)	246
룡(龍)	174	만량(晩涼)	241
류경문(柳景文)	22	만리(萬里)	196, 322
류경문숙(柳景文叔)	22	만물(萬物)	373
류공작(柳公綽)	201	만봉(晩峯)	268
류기(柳倚)	428	만사공(萬事空)	471
류몽정(柳夢井)	201	만산중(萬山中)	521
류운룡(柳雲龍)	506	만산홍(滿山紅)	383
류종직(柳宗直)	641	만세(晩歲)	290
류중엄(柳仲淹)	22	만수(晩收)	609
류훈도종직(柳訓導宗直)	641	만수(滿樹)	722
률(律)	514	만유유(謾悠悠)	457
릉(菱)	109, 555	만조월천(輓趙月川)	700
리(裏)	113, 497	만지(滿池)	16
마 당(馬塘)	622	만천(滿天)	159
마당정(馬塘井)	622	만천(滿千)	270
마사(摩挲)	149	만태청(滿太淸)	425
막건(莫遣)	655	만학(晩壑)	170
막도희문(莫道義文)	185	만호후(萬戶侯)	292
막막(漠漠)	194, 595	말갈(靺鞨)	38
막막(莫莫)	594	말갈허(靺鞨墟)	38
막막상락(漠漠商洛)	595	망(望)	235
막사(莫使)	163	망견(望見)	618
막약(莫若)	680	망도심(望道心)	278
막여약(莫余若)	680	망망(茫茫)	114, 515
막원(邈遠)	596	망문장(望門牆)	235
막과(莫把)	419	망상(罔象)	498
만(蠻)	207	망신(忘身)	695
만(晩)	120	망신일(忘身日)	695
		망언(忘言)	397, 569

망유의(妄有意)	486	묘(畤)	436, 577, 637
망의(妄意)	611	묘(妙)	581
망이단(望易斷)	689	묘계(妙契)	574
망진천원(望盡川原)	121	묘당(廟堂)	448, 564
망호현(望湖軒)	182	묘망(杳茫)	527
매진(每軫)	331	묘묘(渺渺)	121
맥맥도상(脉脉都傷)	58	묘어(妙語)	94
맥묘제(麥苗齊)	207	묘연(杳然)	681
맥반일우(麥飯一盂)	193	묘정(廟庭)	102
맹상군(孟嘗君)	323, 542	무(無)	174
맹상문중(孟嘗門中)	541	무가(無可)	714
면상(免喪)	52	무감(無感)	383
면정황(昞庭皇)	644	무공(武功)	411
명관(冥觀)	573	무궁한(無窮恨)	457
명암록(鳴巖錄)	521	무극(無極)	376, 717
명옥(鳴玉)	395	무단(無端)	619
명옥대(鳴玉臺)	394	무릉원(武陵源)	562
명조(明朝)	247	무맥(無麥)	436
명조우향(明朝又向)	247	무문(無聞)	451
명주(溟州)	689	무복(無復)	358
명하급(鳴何急)	392	무부(無復)	307
매(袂)	336, 384	무사(無事)	190, 518
모강(暮江)	138	무상문(無相問)	61
모란(牡丹)	647	무성(無聲)	574
모사(茅舍)	524	무소유(無所有)	610
모옥(茅屋)	92, 637	무수 불류동(無水不流東)	631
모침(茅簷)	217	무식(無識)	451
목(鶯)	30	무식인(無識人)	451
목격망언(目擊忘言)	569	무심(無心)	564
목단(牡丹)	647	무여(無餘)	567
목수(牧豎)	480	무여(無如)	637
몽(蒙)	629	무역(無戮)	208
몽난성(夢難成)	143, 349	무용족지(無容足地)	501
몽역희(夢亦稀)	336	무위(無爲)	488
몽육(蒙辱)	317	무의(無依)	197
몽입양주(夢入楊州)	265	무일사(無一事)	375
몽환(夢幻)	354	무자(戊子)	598

무장물(無長物)	448
무제(無題)	545
무폐(無廢)	511
무한의(無限意)	395
무회음(無回音)	439
묵수(默數)	586
묵좌(默坐)	573
문(問)	436, 548
문도(聞道)	347, 374, 450
문란(門闌)	431
문림(門臨)	142
문산(文山)	238
문선(聞蟬)	721
문장(門牆)	236
문재배(問栽培)	436
문진(問津)	159
문천상(文天祥)	238
문치(文致)	57
문회(文會)	599
물색(物色)	469
물태(物態)	265
미(媚)	10
미귀안(迷歸鴈)	174
미록(麋鹿)	270
미만(靡曼)	701
미사(未死)	626
미선축(迷仙躅)	44
미언(微言)	567
미우(微雨)	207, 623
미운(微雲)	545
미월(微月)	138
미응(未應)	336, 601
미이포(未易拋)	120
미인(美人)	160, 174, 254, 668
미진(迷眞)	389
미진지의(未盡之意)	285
미충(微蟲)	531

미향(微香)	559
미황(微黃)	619
민순(民淳)	303
박	
박속(薄俗)	176
박속영론(薄俗寧論)	176
반(班)	208
반림(半簾)	2
반림(半斂)	397
반림소우(半簾疎雨)	2
반몰거(半沒車)	461
반벽(半壁)	615
반산(半山)	140
반소사(飯疏食)	612
반야(半夜)	393
반창태(半蒼苔)	533
반천(半千)	681
반학(半壑)	636
반형(班荊)	207
반환(盤桓)	484
발(撥)	235
발분(發憤)	223
발분영관(發憤營官)	223
발해(渤海)	38
방두(芳杜)	160
방시(方是)	388
방우환(方佑漢)	309
방절(芳節)	9
방초(芳草)	30, 113, 282, 457, 583, 611, 681
배(背)	591
배립(背立)	313
배삼익(裴三益)	56
배여우(裴汝友)	56
백(白)	25
백(伯)	451
백(百)	488

백관(百官)	236	법기(法器)	705
백년(百年)	540, 578, 684, 701	벽도(碧桃)	387
백두이사(白頭離思)	457	벽라(碧蘿)	481, 584
백려(百慮)	349	벽사사(碧絲絲)	711
백로(白露)	667	벽수(碧水)	53, 548
백무위(百無爲)	488	벽수(碧樹)	604
백발(白髮)	49	벽창(碧窓)	226
백벽(白壁)	537	벽창한(碧窓寒)	226
백빈(白蘋)	307	벽파명(碧波明)	190
백상루(百祥樓)	28	벽하(碧河)	730
백석(白石)	488	벽하동엄(碧河同掩)	730
백석생(白石生)	488	변설(辨說)	567
백세사(百世師)	296	변월(邊月)	86
백악(栢岳)	251	변증법(辨證法)	550
백운요(白雲謠)	592	변화(變化)	726
백운잠(白雲岑)	279	별(別)	684
백운중(白雲中)	518	별리(別離)	117
백일(白日)	170	별리시(別離時)	673
백일(百鎰)	537	별사(別思)	114
백종(百種)	192	별심(別心)	414
백척(百尺)	571	별안(瞥眼)	443
백척대(百尺臺)	571	별정(別情)	684
백천(百千)	714	별좌(典艦司別坐)	507
백천사(百千事)	713	별지시(別知詩)	604
백학(白鶴)	716	별혼(別魂)	163
백회(百迴)	465	병기(病起)	714
번상(繁霜)	435	병리(病裏)	72
번속(煩俗)	207	병산(屏山)	233, 598
번수(樊須)	485	병산서원(屏山書院)	152
번수포(樊須圃)	485	병암(屏巖)	142
벌단(伐檀)	210	병암축(屏巖蠹)	142
벌단곡(伐檀曲)	210	병여(病餘)	128
범경(帆輕)	49	병의(兵議)	331
범수(范岫)	674	병학용(病鶴容)	629
범왕(梵王)	352	병혹(病或)	183
범왕가(梵王家)	352	병화(兵火)	306
범추풍(犯秋風)	630	보출(步出)	550, 708

보출소림(步出疎林)	708	부세이지(浮世已知)	278
복(卜)	138	부소(扶蘇)	173
복거(卜居)	204, 664	부소(赴召)	246
복거수문(卜居須問)	664	부수(負手)	576
복례문(復禮門)	154	부암(俯巖)	206
복린(卜隣)	303	부앙(俯仰)	36, 358, 451
복몽육(伏蒙辱)	317	부앙지간(俯仰之間)	358
복희씨(伏羲氏)	289	부연(赴燕)	382
본동근(本同根)	314	부예(鳧鷖)	270
본연지성(本然之性)	678	부용산(芙蓉山)	702
봉(鋒)	175	부자료(不自聊)	505
봉(封)	176	부자유(不自由)	289, 691
봉기(奉寄)	167	부조(不早)	609, 667
봉만(峯巒)	207	부춘풍(負春風)	431
봉만열(峯巒列)	207	부회(復會)	598
봉별(奉別)	47, 156, 292	북거(北去)	293
봉장(逢場)	263, 684	북담(北潭)	408
봉정(奉呈)	317	북담정사(北潭精舍)	126
봉제군(奉諸君)	566	북림(北林)	477, 642
봉증(奉贈)	74	북림불탑(北林佛塔)	477
봉추서(逢秋序)	530	북악(北岳)	524
봉호(蓬戶)	610	북애정사(北厓精舍)	220
봉호옹유(蓬戶甕隔)	610	북창(北窓)	578
봉황산(鳳凰山)	382	분(分)	301
부(復)	70	분명(分明)	65, 727
부(扶)	104	분분(紛紛)	430
부(負)	11	분촌(分寸)	570
부(俯)	23	분토(糞土)	537
부(賦)	240	분향(焚香)	94, 657
부강릉(赴江陵)	672	분휴(分携)	428
부경(赴京)	77, 85	불가상하(不可上下)	663
부대(不待)	706	불각(不覺)	180
부독(不獨)	50	불감(不甘)	701
부명(復明)	616	불감(不堪)	703
부명(賦命)	630	불견(不見)	160, 255, 541
부생(浮生)	340	불경(不輕)	78
부세(浮世)	65, 175, 278, 578	불궁(不窮)	329, 516

불능무감(不能無感)	383
불매(不寐)	586
불분(不分)	448
불성(不成)	149, 489, 591, 620
불성단(不成丹)	489
불성음(不成音)	149
불성장(不成章)	620
불성택(不成澤)	591
불소류(不少留)	457
불수(不須)	727
불수낙경(不愁落景)	243
불승(不勝)	494, 511
불승상(不勝霜)	494
불식로(不識路)	673
불여(不如)	214, 596
불여빈천이경세(不如貧賤而輕世)	596
불염(不厭)	57
불용(不容)	433
불우(不偶)	263
불우(不憂)	449
불원사(不遠沙)	180
불탑(佛塔)	477
불폐(不廢)	622
불폐참아(不廢參衙)	622
불환(不恨)	669
불향공정(不向公庭)	436
불현(不見)	503
불원(不喧)	397
비(非)	466
비(扉)	722, 730
비궁(飛筇)	251
비관(非關)	347
비급(比及)	593
비량(悲涼)	297
비무(非無)	592
비복(非復)	673
비부(非復)	673

비상천(飛上天)	716
비서소감(秘書少監)	411
비안(比安)	172
비양(飛揚)	243
비옥(比屋)	176
비옥봉(比屋封)	176
비작(飛作)	246
비천(飛泉)	395
비화(飛花)	179, 318, 425
비환(悲歡)	486
빈(頻)	159
빈(蘋)	307
빈(貧)	684
빈발(鬢髮)	39
빈발소(鬢髮疎)	39
빈별(貧別)	684
빈시(頻嘶)	32
빙(憑)	57
빙간(氷澗)	345
빙간성(氷澗聲)	345
빙단구(憑短句)	620
빙천(氷泉)	344
빙허(憑虛)	214
사 (寫)	132
사(瀉)	205
사(舍)	366
사(謝)	591
사(除)	261, 462
사가에(事可哀)	435
사경(斜徑)	170
사경(思瓊)	250
사골(祀骨)	267
사교(四郊)	306
사래(思來)	620
사량(思量)	713
사림(士林)	101

사마(駟馬)	596, 698	산류(山溜)	395
사마고개(駟馬高蓋)	596	산수풍화(山水風花)	387
사문(斯文)	600	산승(山僧)	225
사백화(謝伯華)	239	산운(散雲)	706
사복시 첨정(司僕寺僉正)	507	산운일(散雲日)	706
사사(謝事)	696	산월(山月)	65
사사(絲絲)	711	산음(山陰)	169
사사년(謝事年)	696	산인(山人)	250, 656
사산(謝山)	301	산일(山日)	58
사상(使相)	27	산일향청(山日向晴)	58
사생(師生)	147	산중원기(山中遠寄)	290
사성(司成)	96	산창(山窓)	691
사성팔병설(四聲八病說)	675	산책(散策)	134
사순(士純)	598	산택(山澤)	483
사십구(四十九)	251	산하(山河)	466
사십춘(四十春)	700	산형(山形)	313
사애산(謝愛山)	239	산형배립(山形背立)	313
사야(四野)	182	살기(殺氣)	36
사양(斜陽)	180	삼거(芟去)	478
사우(土友)	204	삼경(三選)	297
사유금(寫幽襟)	132	삼금(三禁)	663
사유토(事幽討)	611	삼년(三年)	78, 137, 413, 485
사의의(思依依)	44	삼년복(三年卜)	137
사절(使節)	384	삼백육(三百六)	9
사제(四諦)	269	삼생(三生)	146
사증하(似蒸霞)	709	삼연(三椽)	637
사포서 별제(司圃署別提)	507	삼추(三秋)	98
사해(四海)	539, 702	삼춘(三春)	24, 142
사해동심(四海同心)	539	삼파(三巴)	689
사회(乍回)	266	삼한(三韓)	326
사후작(辭後作)	625	삼한재조(三韓再造)	326
삭(數)	179	삼후(三嗅)	495
삭운(朔雲)	86	삼연(颯然)	476
산간(山澗)	558	상(傷)	114
산간영령(山澗冷泠)	558	상(想)	137
산곽(山郭)	465	상(上)	185, 193, 503, 619
산로활(山路滑)	410	상(湘)	252

상(象)	398	상의(相宜)	15, 265, 629
상(商)	525	상이(尙爾)	404
상(相)	61, 69	상이여(相爾汝)	481
상간(相看)	244	상인(相印)	537
상강(湘江)	252	상인회(相印回)	542
상관(上冠)	418	상전(相纏)	668
상금일(傷今日)	701	상전해수(桑田海水)	359
상대(尙帶)	145	상조(尙阻)	170
상득(尙得)	494	상조(桑棗)	610
상락(商洛)	595	상종(相從)	226, 700
상로(尙露)	175	상죽(霜竹)	138
상리(傷離)	329	상죽향(霜竹響)	138
상문(相門)	562	상촉(相屬)	417
상문(相問)	61	상하(上下)	487
상미황(上微黃)	619	상하연어(上下鳶魚)	487, 499
상반(相伴)	179, 270	상호(相護)	500
상반한창(相伴寒窓)	179	상화(霜華)	340
상별(相別)	43, 367	상활(爽豁)	206
상빈(上鬢)	726	새옹실마(塞翁失馬)	662
상사(上巳)	479	새옹지마(塞翁之馬)	662
상사(相思)	81, 606, 669, 674	색(索)	663
상사의(相思意)	616	색계(色界)	352
상사일(上巳日)	479	생(甥)	455
상사처(相思處)	456	생만량(生晩淸)	241
상사출유(上巳出遊)	479	생만벽(生晩碧)	619
상설(霜雪)	101, 668	생만학(生晩壑)	170
상소(上疏)	625	생모(生茅)	610
상송(商頌)	525	생백(生白)	375
상송(相送)	69	생사(生事)	443
상수(相隨)	358, 612, 655	생성(生成)	666
상신(傷神)	159, 232	생시(生時)	731
상심(賞心)	491	생애(生涯)	214, 731
상안(湘岸)	252	생어세(生於世)	322
상양(徜徉)	234	생장인(生丈人)	246
상억(相憶)	174, 571	생지(生地)	483
상우(相遇)	689	생진말(生塵襪)	555
상응(相應)	424	서(緒)	235

서강(西江)	43, 246	선사문집(先師文集)	234
서구대(西龜臺)	260	선선(鮮鮮)	494
서권(舒卷)	518	선영(先塋)	460
서극부(徐克夫)	520, 680	선화(仙花)	109
서동(西東)	576, 664	선화(宣化)	176
서루(西樓)	124, 189, 571	설(薛)	542
서림(西林)	252, 524	설월풍화(雪月風花)	391, 497
서사(書舍)	493	설하(薛下)	542
서원부원군(西原府院君)	693	성(聲)	685
서인원(徐仁元)	520, 680, 684	성대(聖代)	564
서일(西日)	722	성망(成妄)	398
서장(書狀)	85, 382	성문(聲聞)	269
서장관(書狀官)	85	성벽(成癖)	391
서정(西庭)	393	성성(聲聲)	392
서주(徐州)	37	성심(誠深)	318
서창(西窓)	644	성언(聲言)	449, 612
서천군(西川君)	406	성은(聖恩)	49
서풍(西風)	71	성주(星州)	407
서풍작야(西風昨夜)	71	성주(聖主)	630
서행(西行)	78, 246	성중(城中)	6
석(錫)	265	성지(聖旨)	626
석농(夕弄)	553	성지온(聖旨溫)	626
석단(石壇)	657	성진(性眞)	145
석명(錫命)	626	성집(盛什)	317
석벽(石壁)	432, 553	세간(世間)	631
석양린(夕陽隣)	703	세경(細逕)	261, 352, 481
석인비(昔人非)	466	세경사(細逕斜)	352
석잠위(惜暫違)	336	세경사(細逕賒)	261
석장(錫杖)	146	세도(世道)	70
석전역(石田驛)	410	세리(勢利)	540
석태(石苔)	483	세리지교(勢利之交)	540
석태반(石苔斑)	483	세만(歲晩)	583
선(旋)	206	세만상종(歲晩相從)	226
선(蹀)	271	세모(歲暮)	85, 168, 332, 340, 494, 663
선(蟬)	89, 604	세모지편(歲暮地偏)	494
선가(仙家)	708	세분(世紛)	525
선몽대(仙夢臺)	212	세불(細拂)	225

세사(世事)	465, 515, 654	소일반(蔬一盤)	193
세수(歲首)	434	소작(小酌)	408
세시(歲時)	462	소정(小艇)	169
세시사(歲時賒)	462	소조(蕭條)	583
세연(世緣)	404	소지(疎枝)	423
세우(細雨)	217, 502	소지(召旨)	629
세운모(歲云暮)	591	소촌미우(小村微雨)	623
세월(歲月)	293, 512, 714	소축(小築)	128
세월만(歲月晩)	714	소헌(小軒)	217
세장(勢長)	524	소협(所愜)	206
소(小)	301	소혼(銷魂)	314
소(疎)	32, 39	소화(宵話)	170
소(掃)	460	소환교지(召喚敎旨)	629
소(遡)	514	소환성지(召喚聖旨)	629
소(梢)	120	소황(燒荒)	483
소갈(消渴)	408	소회(小會)	133
소년(少年)	384	소흥강화조약(紹興講和條約)	105
소년일(少年日)	672	소흥화의(紹興和議)	105
소령(疎冷)	494	속시(束矢)	663
소류(疎柳)	619	속자(俗子)	266
소림(疎林)	708	속전(俗傳)	622
소문(召文)	302	속진(俗塵)	481
소문구(召文舊)	302	속호(俗號)	191
소미운(小微雲)	545	솔의(率意)	489
소백산(小白山)	250	숫밤	295
소북풍(遡北風)	514	송(送)	69, 603, 672
소사(所思)	529, 711	송…환(送…還)	455
소선(蘇仙)	469	송국(松菊)	522
소소(蕭疎)	215	송국로(松菊老)	522
소소(蕭蕭)	217, 480, 505	송명(松明)	443
소식(消息)	185	송성(頌聲)	585
소식(蘇軾)	409, 468	송암(松巖)	295
소식원(消息遠)	185	송암이 있는 마을의 지리적 위치	295
소애(蕭艾)	30	송운(松雲)	413
소오(笑敖)	613	송운사(松雲師)	334
소요(逍遙)	479	송육해(送六翻)	716
소우(疎雨)	2	송음(松陰)	635

송정(松亭)	408, 412	수유(須臾)	478, 518
송현(松峴)	201	수은(酬恩)	626
송화(松火)	110	수음(樹陰)	170
쇠모(衰暮)	673, 680	수음사(樹陰除)	170
쇠병(衰病)	286, 358, 378, 604	수인(誰人)	540
쇠병침심(衰病侵尋)	286	수일(隨日)	8
쇠삼(衰颯)	501	수장천도(誰將天道)	435
쇠지(衰遲)	461	수죽(脩竹)	226, 551
수(壽)	270	수지(數枝)	494
수(漱)	395	수참(愁慘)	36
수(脩)	61, 551	수창망(水蒼茫)	128
수궁(瘦筇)	629	수처(隨處)	113
수공당(守空堂)	529	수초(樹杪)	241
수근(須勤)	429	수초(樹梢)	397
수년(隨年)	211	수초강원(樹梢江遠)	397
수랑(脩廊)	61	수촌(水村)	464
수로(垂老)	604	수층(數叢)	532, 645
수마(睡魔)	179	수축(袖軸)	137
수만천(壽滿千)	270	숙(夙)	205
수묘(數畝)	637	숙무(宿霧)	453, 705
수묘여(數畝餘)	611	숙무경(宿霧輕)	453
수문(須問)	664	숙석(宿昔)	411
수배(數輩)	476	숙소협(夙所愜)	205
수빙(須憑)	326	숙손무숙(叔孫武叔)	236
수사(愁思)	54	숙운(宿雲)	23, 92
수생(手生)	149	순(尊)	225
수선화(水仙花)	554	순로약(尊鱸約)	225
수성(數聲)	186	순침(巡簷)	358
수성제(數聲啼)	186	순침흥(巡簷興)	358
수연(數椽)	303	숭고(嵩高)	231
수열(畠列)	262	숭악(崇岳)	120
수열청소(畠列晴霄)	262	승(勝)	132, 641
수외병(酬臥病)	142	승려 탄홍(誕弘)	558
수외(水隈)	571	승명(承命)	49
수욕로(愁欲老)	546	승세(乘勢)	465
수운(水雲)	581	승우(僧宇)	490
수유(茱萸)	420	승운(乘雲)	296

승일(勝日)	641	신상태(神常泰)	563
승지(勝地)	263	신여기(身如寄)	65
승축(僧軸)	583	신원(申冤)	78
승평(昇平)	332	신조(晨朝)	86
승함(乘酣)	418	신청(新晴)	576
승회(勝會)	419	신하(新荷)	559
시(翅)	404	신후(信厚)	653
시고인(時孤引)	168	신후사(信厚士)	653
시권(詩卷)	251	실공(室空)	183
시기구(始崎嶇)	206	실마(失馬)	662
시로(詩老)	296	실솔(蟋蟀)	392
시문(柴門)	15, 410, 508	실천이론	678
시부(時復)	304	심(深)	89
시비(柴扉)	92, 561	심강사(尋江舍)	583
시성집(示盛什)	317	심결(沈決)	561
시시(時時)	489, 571	심경(心鏡)	573
시월순(十月旬)	493	심계(尋溪)	206
시절(時節)	590	심곡위이(深谷逶迤)	594
시정위금(試整危襟)	514	심기(心期)	93
시종정(詩從靜)	183	심상(尋常)	266
시진(時趁)	3	심성론(心性論)	678
시축(詩軸)	145, 358	심약(沈約)	674
시필(詩筆)	706	심영부사(沈領府事)	561
식로(識路)	674	심은후(沈隱侯)	674
식면희(識面稀)	44	심종유상(心從有象)	398
신(身)	65	심진(尋眞)	44
신경(神京)	632	심호(深護)	352
신고(辛苦)	649	심회(心懷)	505, 620
신로(愼老)	250	십리비(十里扉)	730
신릉(信陵)	543	십재(十載)	39, 142
신릉군(信陵君)	538, 543	쌍빈황(雙鬢黃)	244
신마(信馬)	395, 466	쌍안(雙眼)	718
신명(神明)	540		
신무제(神武帝)	175	아생(我生)	322
신복(新卜)	635	아수(阿誰)	574
신사(身辭)	265	악(岳)	497
신사노탈(身辭魯稅)	265	악독(岳讀)	497

악인(壼茵)	594	약위(若爲)	354
안(晏)	120	약위학득(若爲學得)	354
안(岸)	304	약유(弱柳)	691
안득(安得)	568	양(養)	664
안서행영(安西行營)	277	양경(兩京)	308
안심법(安心法)	354, 579	양관(楊綰)	102
안저(眼底)	423	양도(陽道)	697
안절(按節)	175	양동마을	365
안족(安足)	654	양명(陽明)	273
안진(鴈陣)	252	양사(良史)	696
안청(眼靑)	24, 600	양사록(良史錄)	696
안탕산(鴈蕩山)	42	양서동(瀼西東)	664
안혼(眼昏)	713	양안청(兩眼靑)	24
안흥(安興)	328	양옥(涼燠)	614
알옥(戛玉)	276	양월(良月)	24
알제(謁帝)	78	양재역(良才驛)	119
암(暗)	182	양재촌(良才村)	119
암상(巖上)	423	양족(良足)	649
암연(黯然)	385	양족과(良足誇)	649
암요(巖腰)	138	양주(楊朱)	163
압강(鴨江)	318	양주(楊州)	266
양부(仰俯)	487	양주읍로기(楊朱泣路歧)	164
애사(哀詞)	99	양초옥(鷗初旭)	10
앵화(鶯花)	69	양촌(楊村)	430
야(野)	593	양풍(涼風)	667
야광(野曠)	303	어락정(題魚樂亭)	510
야당(野塘)	623	어부(漁父)	485
야당화(野棠花)	19	어은정(漁隱亭)	187
야도(夜渡)	619	엄관(掩關)	611
야래(夜來)	378	엄수랑(掩脩廊)	61
야문(夜聞)	644	엄유(淹留)	287
야야(夜夜)	657	여(餘)	128
야연(野烟)	170	여기(如寄)	65
야전명(夜轉明)	340	여단발(餘短髮)	578
약(約)	225	여라(女蘿)	481, 584
약기(約己)	429	여룡(如龍)	146
약내(若乃)	591	여복(如僕)	679

여사생(汝師生)	146	연오독(憐吾獨)	196
여수근(汝須勤)	429	연우(烟雨)	546, 562
여시(與時)	276, 443	연우리(烟雨裏)	266
여외(餘外)	430	연우설(連雨雪)	14
여우(餘雨)	722	연운석(連雲石)	648
여일장(與日長)	128	연자(燕子)	369
여침(旅枕)	6	연좌(宴坐)	424
여침편경(旅枕偏驚)	6	연좌(燕坐)	140
여하(如何)	9, 70, 584	연좌(燕坐)에 대한 뜻	229
여허(如許)	358, 491, 525	연좌루(燕坐樓)	140
역(易)	184, 226	연주(戀主)	579
역동驛洞	618	연주점역(研朱點易)	226
역력(歷歷)	726	연주충(戀主衷)	579
역리(驛里)	618	연진(煙塵)	501
역설(易說)	449	연천(連天)	308
역정(驛亭)	32, 619	연춘당(延春堂)	5
역족(亦足)	600	연파(烟波)	458, 548, 691
연(椽)	637	연편(聯翩)	206
연계(沿溪)	261, 352	연하(烟霞)	145
연광(烟光)	553	연형(年兄)	173
연덕(戀德)	329	연화(烟花)	83
연독(延篤)	217	연횡(連橫)	341
연련(漣漣)	682	열산택(烈山澤)	483
연마(研磨)	185	염계(濂溪)	375
연사(硯寺)의 불탑	477	염계옹(濂溪翁)	375
연산(燕山)	86	염사(念四)	576
연소(沿汜)	137	염양(艷陽)	384
연소(連宵)	204	염양천(艷陽天)	384
연수(烟樹)	247, 689	염염(冉冉)	114
연심(年深)	482	염장동(簾旌動)	61
연심형극(年深荊棘)	482	엽엽(嘩嘩)	594
연안(延安)	455	엽엽자지(嘩嘩紫芝)	594
연어(鰲魚)	487, 573	영(寧)	176
연여(漣如)	367	영(映)	92
연연(淵淵)	269	영가지(永嘉誌)	109
연연(咽咽:인인.열열)	344, 352	영격(永隔)	430
연엽성소(蓮葉成巢)	270	영대(榮帶)	190

영득(贏得)	425	오만(烏蠻)	82
영득비화(贏得飛花)	425	오만야(五蠻夜)	81
영령(冷冷)	65, 345, 395, 559	오야(五夜)	43
영로(嶺路)	606	오여거(吾與渠)	227
영로위(嶺路危)	606	오운(五雲)	579
영론(寧論)	176, 483	오주(吳洲)	41
영명(英名)	317	오현금(五絃琴)	439
영부(寧復)	106, 235	옥결(玉玦)	205
영부사(領府事)	561	옥산(玉山)	339
영불(寧不)	540	옥연(玉淵)	275, 432, 558
영사협(寧辭險)	79	옥연서당(玉淵書堂)	126, 387
영시(迎時)	14	옥연서당기(玉淵書堂記)	220
영식(永息)	332	옥연석벽(玉淵石壁)	432
영영(盈盈)	58	옥연정사(玉淵精舍)	126, 357, 558
영용(寧容)	276	옹(翁)	663
영위(永爲)	612	옹난사(擁亂槎)	19
영위호(永爲好)	612	옹실(翁室)	573
영일(永日)	2	옹유(甕隅)	610
영자원(寧自怨)	525	와력(瓦礫)	537
영절(迎節)	329	와함(臥閤)	685
영지(靈芝)	675	와함성(臥閤聲)	684
영지사(靈芝寺)	675	완운(頑雲)	465
영판(營辦)	223	완월(玩月)	22
영희석(寧希錫)	265	완조(阮肇)	42
예(翳)	482, 615	왕(枉)	543
예가목(翳佳木)	482	왕사(王事)	31
예미(曳尾)	268	왕사입심(往事入心)	725
예미도중(曳尾塗中)	268	왕손초(王孫草)	369
예미현(曳尾賢)	267	왕수인(王守仁)	273
예부명(翳復明)	615	왕안석(王安石)	141
오(午)	113	왕준(王尊)	78
오거서(五車書)	570	왕충도(王充道)	554
오건(烏巾)	301	왕향(枉向)	543
오경(五更)	6, 588	요(饒)	571
오독(吾獨)	196	요곽(繞郭)	261
오두미(五斗米)	521	요곽연계(繞郭沿溪)	261
오래(悟來)	374	요관(繞館)	83

요당(聊當)	593	우연장(虞淵藏)	243
요락(寥落)	15, 561	우영(偶詠)	216
요락(搖落)	428	우우(遇雨)	5
요량(寥亮)	516	우음(偶吟)	128, 549, 609
요량(料量)	636	우의(羽衣)	267
요로(腰老)	642	우의신(羽衣仙)	267
요방(遙訪)	366	우저(牛渚)	43
요백잡(繞百匝)	470	우제(偶題)	2, 352
요벽(繞壁)	352	우제(雨霽)	246
요벽연계(繞壁沿溪)	352	우주(宇宙)	323
요별한(饒別恨)	340	우중사(藕中絲)	668
요분(妖氛)	330	우청(雨晴)	464
요상(遙想)	702	우한(佑漢)	309
요수전승(要須全勝)	331	우화(羽化)	354
요수종(要須從)	387	우회(寓懷)	716
요요(擾擾)	137	우회음(寓懷吟)	716
요잠(遙岑)	353	운간(雲間)	410
요초(料峭)	461	운림(雲林)	352
요혈(寥泝)	72	운물(雲物)	512
요화홀황(寥廓忽荒)	491	운반하(雲半壑)	636
용(慵)	2	운산(雲山)	146, 308
용(庸)	567	운산극목(雲山極目)	308
용궁(龍宮)	60	운석(雲石)	648
용궁관(龍宮館)	113	운소(雲消)	246
용금(鎔金)	276	운소우제(雲消雨霽)	246
용마(龍馬)	622	운수(雲水)	643
용산(龍山)	419	운수약(雲水約)	137
용천(龍泉)	310	운암(雲暗)	106
용추(龍湫)	280	운암(雲巖)	348
우(虞)	595	운예(雲霓)	242
우경(虞卿)	535	운욕산(雲欲散)	349
우당(虞唐)	129	운계(雲梯)	28
우만선(雨滿船)	188	운천(雲天)	269
우설(雨雪)	14, 86, 461	원(園)	551
우여(紆餘)	39	원림(園林)	453
우여(雨餘)	705	원별(遠別)	170
우연(虞淵)	244, 698	원별심(怨別心)	414

원부(遠赴)	225	위제(魏齊)	535
원사(遠思)	9	위좌사(韋左司)	371
원앙(袁盎)	53	위체(危涕)	341, 367
원일(元日)	8, 182, 442	유가(猶可)	270
원갑(遠岑)	89	유가적(猶可覿)	378
원전(園田)	696	유감(有感)	8, 52, 234
원정(園亭)	132	유거(幽居)	263, 276, 521, 559
원중(院中)	598	유거점승(幽居占勝)	263
원지(遠志)에 대한 두 가지 뜻	229	유경(幽徑)	395
원지정(遠志亭)	229	유경(幽逕)	453
원지정사(遠志精舍)	52	유광(流光)	9
원추리	418	유군몽정(柳君夢井)	201
원춘풍(怨春風)	522	유금(幽襟)	133, 714
원학(猿鶴)	522	유기(遊歧)	108
원홍(怨鴻)	663	유기(幽期)	128
원화(園花)	638	유기(遺基)	480
월륜(月輪)	72	유년(流年)	114
월림오(月臨五)	705	유도(有道)	563
월만루(月滿樓)	456	유독(幽獨)	10, 93
월색연광(月色烟光)	553	유리(流離)	430
위(渭)	19	유맹(幽盟)	636
위(違)	336	유명(留名)	424
위강주(韋江州)	371	유명(幽明)	620
위객갈(慰客渴)	410	유반천(踰半千)	681
위공(魏公)	104	유별(留別)	56, 67, 117
위공(韋公)	374	유병의(留兵議)	331
위공자(魏公子)	538	유사(幽思)	183
위교(危橋)	19	유사(游士)	543
위대(園帶)	643	유상(幽賞)	205
위도(危途)	121	유상(有象)	398
위란(危欄)	29, 159	유상위추(揉桑爲樞)	610
위루(危樓)	579	유색미황(柳色微黃)	618
위소주(韋蘇州)	371	유선(劉單)	276
위연(喟然)	518	유소(柳梢)	120
위응물(韋應物)	371	유소사(有所思)	711
위이(逶迤)	594	유신(有信)	12
위이(威夷)	595	유신(劉晨)	42, 365

유심(幽尋)	480	은현(隱現)	182
유여(唯餘)	297	음(陰)	254, 590
유여(留與)	698	음(吟)	89, 716
유우씨(有虞氏)	129	음공(吟筇)	642
유유(悠悠)	137, 146, 247, 281, 290, 293, 322, 456, 457	음박(陰薄)	590
유음(遺音)	527	음아(吟哦)	638
유의암(留衣庵)	422	음양(陰陽)	399
유의인(留衣人)	424	음운(陰雲)	36
유의인거(留衣人去)	424	음음(陰陰)	528
유인(幽人)	224, 393, 518	음편(吟鞭)	385
유인원부(幽人遠赴)	225	읍하(泣下)	619
유자(猶子)	428	응(應)	44, 137
유재(猶在)	366	의(儀)	549
유정(幽情)	265	의강사(儀江沙)	549
유정(惟政)	334	의구(依舊)	424
유정(有情)	393	의금부 도사(義禁府都事)	507
유정물태(幽情物態)	265	의루(倚樓)	281, 458
유제(留題)	282	의발(衣鉢)	423
유채(油菜)	418	의불궁(意不窮)	329
유청풍(有淸風)	578	의시(意是)	35
유토(幽討)	611	의옥(疑獄)	57
유편(遺編)	235	의유여(意有餘)	569
유행(流行)	491	의의(依依)	44
유혼(遺魂)	197	의인(宜人)	469
유회(有懷)	11, 553, 710	의장(義腸)	449
유회(幽懷)	5, 65	의장성(倚長城)	106
육방옹(陸放翁)	442	의주(義州)	4
육운(陸雲)	605	의주군(義州郡)	4
육유(陸游)	442	의주부(義州府)	4
육해(六翮)	716	의죽(依竹)	708
윤건(綸巾)	304	의중인(意中人)	168, 503
윤차(倫次)	479	의편(倚遍)	29, 497
율곡정(栗谷亭)	312	의회(意會)	344
율시(律詩)	599	이(夷)	317
율울(汨汨)	346	이(而)	593
은약(隱約)	583	이경산 준(李慶山 浚)	653
		이계 현우(李季獻瑀)	148

이계장(李季章)	679	이후백(李後白)	27, 74, 101
이기설(理氣說)	677	인(人)	410, 644
이도(移棹)	188	인각(麟閣)	694
이래(移來)	389	인각기훈(麟閣奇勳)	694
이래(邇來)	488	인산(人散)	410
이률(二律)	635	인산천(引山泉)	558
이리(離離)	297	인생(人生)	194, 247
이모(二毛)	72	인생쾌의(人生快意)	247
이묘(二妙)	581	인성(人性)의 두 측면	678
이문(異門)	545	인연(人烟)	307
이미수(李眉叟)	61	인일(人日)	446
이백(李白)	688	인현(仁賢)	209
이삼자(二三子)	206, 479	일(日)	481, 706
이수(里數)	681	일(溢)	537
이수(二豎)	98	일(鎰)	537
이언적(李彦迪)	362	일(一)	69, 89, 367, 404, 501, 518
이여(爾汝)	481	‘일(一)’자의 해석	400
이여송(李如松)	316, 326	일강명월(一江明月)	731
이여옥(李汝沃)	132	일강청벽(一江靑壁)	218
이열도(李閱道)	213	일경(一逕)	138
이오봉 호민(李五峯好閔)	651	일곡(一曲)	547
이완(二玩)	266	일구(一區)	270
이우(李瑀)	148	일림(一簾)	349
이은신(李殷臣)	132	일림잔월(一簾殘月)	349
이이(李珣)	312	일말(一抹)	410
이이(夷易)	491	일망(一望)	466, 514
이전기(易前期)	672	일맥(一脈)	600
이정(怡情)	636	일명(日暝)	107
이준(李浚)	362, 653	일몽경(一夢驚)	97
이지(異地)	263	일몽균천(一夢鈞天)	485
이지리(易支離)	498	일묘중(一畝中)	577
이지봉장(異地逢場)	263	일무극(一無極)	376
이청련(李靑蓮)	101	일반(一般)	150
이관서 후백(李判書後白)	74	일반(一半)	301
이호민(李好閔)	651	일발(一髮)	555
이화(夷華)	317	일벽청등(一壁靑燈)	43
이황(李滉)	47	일병옹(一病翁)	442

일상별(一相別)	367
일상송(一相松)	69
일석(一錫)	146
일석(日夕)	208, 234, 667
일심(一心)	289
일애(一涯)	265
일야(一夜)	532
일야급(一夜急)	532
일양벽(一樣碧)	322
일우(一雨)	18
일원(一源)	314
일원화(一園花)	638
일월광(日月光)	727
일위연(一喟然)	518
일음일양(一陰一陽)	399
일인쇠모(一人衰暮)	679
일일(一日)	81, 358
일장(日長)	128
일절(一絶)	388, 558
일정(一庭)	501, 551
일정오(日亭午)	481
일취(一醉)	471
일편(一片)	251
일편심(一片心)	378
일흥(逸興)	581
임고(林臯)	71
임박(林薄)	206
임별(臨別)	584
임분(臨分)	57
임상(臨觴)	115
임소(任所)	428
임술지맹(壬戌之盟)	105
임심(林深)	481
임심경수(林深境邃)	481
임우(霖雨)	685
임정(林亭)	52
임정만(林亭晩)	52

임천(林泉)	701
입교당(立教堂)	154
입립(立立)	268
입무성(入無聲)	574
입심(入心)	725
잉입제(剩入題)	114

자(自)	62, 65
자극(紫極)	251
자기(紫氣)	241
자기표묘(紫氣縹緲)	241
자득(自得)	303
자련(自憐)	570
자무의(自無依)	197
자부동(自不同)	661
자비(自悲)	531
자상양(态徜徉)	234
자생(自生)	373
자생백(自生白)	375
자생청(自生聽)	373
자시(自是)	725
자양(紫陽)	93
자어(自語)	531
자열(自悅)	11, 592
자유(自有)	163, 346, 727
자유분명(自有分明)	727
자종횡(自縱橫)	341
자지(自持)	591
자지(紫芝)	594
자지곡(紫芝曲)	593
자질(子姪)	468, 476
자향(自香)	62
작누(作累)	662
작야(昨夜)	71
작작(灼灼)	666
잔납(殘納)	629
잔납심정(殘納心情)	629

잔년(殘年)	66	장차(藏遮)	262
잔묵(殘墨)	620	장판각(藏板閣)	156
잔설(殘雪)	353, 366	장포(長浦)	418
잔소(殘宵)	86	장풍(長風)	321
잔월(殘月)	349, 378	장회(壯懷)	243
잔촉(殘燭)	444	재(纔)	335
잔추(殘秋)	161	재(齋)	14, 177, 397, 585
잔하(殘霞)	31	재거(齋居)	177
잔하광(殘霞光)	241	재몽소지(再蒙召旨)	629
잔혼재(殘魂在)	626	쟁(爭)	562
잔화(殘花)	551	저(低)	29, 133
잠홀(簪笏)	66	저(抵)	627
잡(匝)	470	저간(佇看)	104
잡영(雜詠)	547	적(滴)	722
장(藏)	244	적겸심(跡兼心)	14
장(庄)	362	적여소(跡如掃)	610
장(腸)	619	적여우(滴餘雨)	722
장(章)	620	적요(寂寥)	147, 374
장가(長歌)	592	적의(適意)	490, 719
장공조(張功曹)	417	적회(適會)	223
장구(長驅)	330	전(塵)	209
장구(杖屨)	638	전(錢)	676
장난만(將爛漫)	168	전거(塵居)	209
장단(腸斷)	555	전기(前期)	673
장도(長道)	31	전도(顛倒)	533
장려(杖藜)	508	전독(展讀)	94
장림(長林)	182	전명(轉明)	340
장서(張恕)	12	전문령(箭門嶺)	34
장성(長城)	106	전비(前扉)	722
장소(長嘯)	278	전사청(典祀廳)	156
장송만주(長松萬株)	481	전석(錢席)	676
장실(丈室)	423	전아(纏痾)	579
장안(長安)	142	전영(轉嬰)	66
‘장안사(長安寺)’의 불탑	477	전전(田田)	666
장인(丈人)	246	전척(剪剔)	482
장자(長子)	543	전촌오(前村塢)	480
장자(莊子)	568	전함사 별좌(典轄司別坐)	507

전화자(轉貨貨)	443	정시(正是)	34
절(絶)	388	정실(淨室)	375
절(節)	648	정여병(靜與病)	15
절부(節婦)	208	정여인(鄭汝仁)	67, 406
절부리(節婦里)	208	정오(亭午)	481
절서(節序)	120, 196	정요(正遙)	86
절승(絶勝)	490	정요대(庭燎臺)	156
절승유수(絶勝流水)	469	정월(正月)	434
절인(絶人)	511	정위(整危)	514
점건(沾巾)	308	정일(精一)	277
점수(點水)	559	정일공참(精一功慚)	277
점승(占勝)	263	정자부(鄭子孚)	300
점억(沾臆)	194	정장(正長)	31
점철(點綴)	553	정주(定州)	1, 22
점(標)	409	정주공해(定州公廨)	1
정(正)	10, 83, 297, 336	정중(庭中)	524
정(旌)	61	정진(淨盡)	478
정(政)	685	정치(正值)	384
정결(鼎缺)	489	정탁(鄭琢)	693
정곤수(鄭崑壽)	67, 406	정해(丁亥)	182, 184
정극기 호인(鄭克己 好仁)	339	정황(庭筐)	645
정급(正急)	336	제(題)	114, 145, 147, 530
정돈(整頓)	288	제각(除却)	332
정돈건곤(整頓乾坤)	288	제각경파(除却鯨波)	332
정동(丁東)	217	제경(霽景)	190
정리리(正離離)	297	제계(鵲鳩)	728
정명(正明)	83	제기(題寄)	99
정매(征袂)	336	제독(提督)	326
정미이월(丁未二月)	730	제루(制淚)	682
정부진(情不盡)	684	제리(帝里)	384
정비(正非)	99	제리화풍(帝里和風)	384
정비화(正飛花)	318	제사(祭祠)	194
정사(精舍)	547	제색(霽色)	353
정사룡(鄭士龍)	112	제생(齊生)	453
정사신(鄭士信)	300	제석(除夕)	351
정사잡영(精舍雜詠)	547	제세(濟世)	50, 326
정성(政成)	685	제연(諸緣)	137

제제(濟濟)	235	좌원봉(坐遠峯)	657
제훈(帝閭)	411	주(柱)	2
조(朝)	529	주경(周京)	627
조고(朝鼓)	490	주돈이(周敦頤)	376
조락(鳥樂)	701	주마(走馬)	113
조령(鳥嶺)	64	주모(誅茅)	210
조모(朝暮)	359	주배심(酒杯深)	57
조목(趙穆)	284, 700	주부(主簿)	729
조물정(造物情)	573	주선생(朱先生)	676
조변(趙抃)	263	주심(住心)	58
조사(詔使)	42	주점(朱點)	226
조생직(趙甥稷)	455	주풍진(走風塵)	484
조월천(趙月川)	284, 700	주향(炷香)	2
조의(朝議)	49	주홍(酒紅)	471
조조(晁錯)	53	주희(朱熹)	91, 676
조직(趙稷)	455	죽리(竹籬)	524
조천사(朝天使)	87	죽리모사(竹籬茅舍)	524
조천절(朝天節)	87	죽리풍잔(竹裏風殘)	397
조춘(早春)	528	죽영횡정(竹影橫庭)	586
조휘(朝暉)	465	죽오(竹塢)	276
족답(足踏)	411	죽천간(竹千竿)	636
존덕사(尊德祠)	155	죽파(竹坡)	583
종계(宗系)	75	준(樽)	673
종고(鐘鼓)	700, 701	중(中)	183, 218, 486, 515, 578
종작누(終作累)	662	중간(中間)	223, 635
종쟁(琮琤)	558	중교칠(重膠漆)	540
종정(從靜)	183	중리(重理)	235
종조(終朝)	529	중리서(重理緒)	235
종지(從知)	491	중문(重聞)	626
종하보(終何補)	287	중별(重別)	688
종횡(縱橫)	341	중부(重賦)	604
좌(坐)	378, 657, 663	중심(中心)	668
좌계(坐階)	611	중현(重玄)	667
좌독음(坐獨吟)	168	즉사(卽事)	88, 452, 585
좌성(坐成)	663	증군의(贈君意)	592
좌성옹(坐成翁)	663	증별(贈別)	428
좌쇠병(坐衰病)	378	증자(曾子)	526

지(志)	163	진사(塵事)	145, 276
지(知)	682	진상관(盡上冠)	418
지(地)	302	진세거래(塵世去來)	353
지개(志槩)	101	진승세(眞乘勢)	465
지계(持戒)	429	진연(塵緣)	559
지관(池館)	132	진유유(儘悠悠)	290
지금(祇今)	423	진의(振衣)	242
지금(秖今)	498	진의미(眞意味)	657
지류원학(只留猿鶴)	522	진일(盡日)	369, 395
지리(支離)	498	진일배환(盡一杯歡)	654
지리(至理)	574	진제사(陳祭祠)	193
지모(遲暮)	681	진조모(眞朝暮)	359
지여허(只如許)	491	진주사(陳奏使)	77
지위(只爲)	700	진중(珍重)	210
지위상중(只爲相從)	700	진첩(震疊)	329
지유(只有)	449	진해동(盡海東)	328
지음(知音)	133	진회(秦檜)	104
지이(支頤)	710	집(什)	317
지재비(只在卑)	499	집(集)	86
지척(咫尺)	121	집사(執事)	697
지편(地偏)	494, 610	징매역(澄邁驛)	556
직(直)	59	징심(澄心)	486
직궁(直窟)	29	징심경(澄心鏡)	573
직기(直氣)	99		
진(儘)	263, 290	차(且)	137
진(秦)	309	차(次)	721
진(眞)	44	차·운(次·韻)	140, 173, 421, 442, 447, 468, 479, 561, 583, 688, 690
진(軫)	49	차가(差可)	664
진(盡)	89, 731	차가락(差可樂)	664
진감파(儘堪誇)	263	차과(蹉過)	714
진경(眞輕)	292	차녀(姪女)	486
진경(秦京)	681	차생영부(此生寧復)	235
진경도(秦京道)	681	차운(次韻)	92, 113, 149, 182, 187, 238, 275, 281, 315, 409, 416, 566
진남동(盡南東)	514	차증(次贈)	334
진말(塵襪)	555	차차(嗟嗟)	594
진분(塵紛)	134		
진불우(眞不偶)	263		

착심(着心)	388	천리별(千里別)	232
착잡(着簪)	643	천리요잠(千里遙岑)	353
참(參)	574	천말(天末)	631
참아(參衙)	622	천북(天北)	529
창간와(窓間臥)	586	천사련(千絲連)	668
창량(蒼涼)	174	천애(天涯)	457, 669
창려(昌黎)	493	천용(天容)	322
창망(悵望)	159	천우상(天雨霜)	253
창망(蒼茫)	22, 85, 129, 512	천원(川原)	121, 705
창벽(蒼壁)	182	천위(天威)	329
창생(蒼生)	50	천의(天意)	600
창연(蒼然)	35	천인(千仞)	242
창연(愴然)	698	천장(天將)	316
창연로(蒼髯老)	423	천장(千丈)	433, 482
창원(昌遠)	690	천장(天長)	663
창창(蒼蒼)	726	천장서(天將曙)	340
창태(蒼苔)	533	천재(千載)	93
창합(閭閻)	411	천정(天庭)	81
창호(窓戶)	223	천제(天際)	59, 590
창환(蒼鬢)	250	천주(天柱)	101
채릉(採菱)	109	천지(天地)	232, 322, 431
채릉(采菱)	555	천태(天台)	42
채익(彩翼)	263	천태산(天台山)	42
처사(處士)	574	천풍(天風)	571
처연(淒然)	618	천한(天寒)	591
처처(萋萋)	623	철영삼후(掇英三嗅)	495
척번속(滌煩俗)	207	철적(鐵笛)	72
척안(斥鷃)	629	참사(簪絲)	10
천계(天啓)	308	첨영(沾纓)	684
천고(千古)	578	첨(輒)	57, 479, 489
천공(天公)	224	첨고왕(輒孤往)	489
천궁(天宮)	579	청(淸)	424
천기(天機)	346	청(聽)	373
천기절(擅奇絶)	649	청(靑)	555
천남(天南)	529	청니(靑泥)	461
천도(天道)	436	청등(靑燈)	615
천등산(天燈山)	622	청라대(靑羅帶)	648

청락(淸洛)	160	초선천(初禪天)	353
청몽(淸夢)	571	초수(楚水)	369
청벽(靑壁)	218	초여삼호 가망진(楚餘三戶可亡秦)	309
청빈(靑蘋)	470	초요(岨嶠)	37
청사(淸沙)	129, 170	초은편(招隱篇)	209
청산일발(靑山一髮)	555	초제생(草齊生)	453
청산전(靑山顚)	518	초창(招愼)	410
청상(淸霜)	53	초창십년(草創十年)	223
청서(靑徐)	37	초천(楚天)	72, 368
청서계(靑徐界)	37	초체(招遞)	297, 689
청소(淸霄)	263	초초(招迢)	58, 365
청수(淸修)	99	초초(悄悄)	64
청시(淸詩)	168	초혼(招魂)	193
청운(淸雲)	681	촉(屬)	385, 417
청음(淸陰)	483	촉군귀(屬君歸)	731
청일발(靑一髮)	555	촉루(燭淚)	340
청주(靑州)	37	촉음편(屬吟鞭)	385
청주(淸晝)	501	촌거(村居)	88
청천(淸川)	30	촌심(村深)	722
청풍(靑楓)	253	촌오(村塢)	480
청풍(淸風)	3, 133	촌점(村店)	64
청풍(靑楓)	253, 504	층(叢)	645
청헌(淸獻)	263	층극(龍極)	696
청화(淸和)	648	최소년(最少年)	384
청화절(淸和節)	648	최시(最是)	81
청효(淸曉)	500	최안(摧顏)	501
체(遞)	207	추(秋)	282
체남교(滯南郊)	120	추(樞)	611
체래(遞來)	207	추강허(秋江虛)	224
체래쇄(遞來灑)	207	추련곡(秋蓮曲)	666
초(楚)	309	추류(醜類)	327
초(悄)	61	추배(追陪)	329
초강(楚江)	546	추사(趨舍)	563
초무상문(悄無相問)	61	추사(秋思)	72, 504
초부득(招不得)	197	추사무심(趨舍無心)	563
초산(楚山)	368	추색로(秋色老)	709
초생(初生)	358	추색원(秋色遠)	418

추서(秋序)	530	취진(吹盡)	19
추심(追尋)	643	취평분(翠平分)	398
추월담(秋月潭)	707	측측(惻惻)	529
추월당(秋月堂)	635	친지(親知)	610
추은(推恩)	630	칠사여(七舍餘)	366
추은후(推恩厚)	630	칠현금(七絃琴)	438
추일(秋日)	194	침면(沈綿)	97
추일흑(秋日黑)	194	침심(侵尋)	168, 286
추주(趨走)	697	침음(沈吟)	209, 378, 470, 705
추진(趨塵)	328	침인(侵人)	501
추창(惆愴)	115	침침(沈沈)	724
추천막막(秋天漠漠)	194		
추충집(秋蟲集)	530	쾌 가(快閣)	190
추호말(秋毫末)	719	쾌각래빙(快閣來憑)	190
축(軸)	358, 583, 705	쾌의(快意)	247
축물(逐物)	389	쾌협(快挾)	570
축야(逐夜)	8		
춘교(春郊)	466	타 (打)	349, 505
춘궁(春宮)	691	타맥(打麥)	190
춘귀(春歸)	698	타맥성(打麥聲)	190
춘사(春事)	214	타석상(墮石上)	558
춘삼(春衫)	529	타설성(打雪聲)	349
춘삼박(春衫薄)	529	타소소(打蕭蕭)	505
춘일(春日)	623	타중현(墮重玄)	667
춘일서(春日西)	623	타풍진(墮風塵)	701
춘풍(春風)	522	탁(躅)	44
출옥(出屋)	117	탁계(托契)	701
출유(出遊)	480	탁근(托根)	648
충(衷)	579	탄아백두(嘆我白頭)	404
충간(忠肝)	449	탕격(蕩擊)	433
충근(忠勤)	102	탕장(蕩槳)	253
충심(忠深)	695	탕탕(蕩蕩)	591
취동(吹動)	545	태경합(苔逕合)	551
취몽생(醉夢生)	347	태공(太空)	373
취상(吹上)	321	태극설(太極說)	677
취잔(吹殘)	616	태산(泰山)	718
취적(吹笛)	703	태운(太雲)	357

태정(苔庭)	637
태청(太淸)	425
태침(苔侵)	262
태침고석(苔侵古石)	262
택(澤)	591
택국(澤國)	485
탱(撐)	70
토구(菟裘)	548
통조각(通潮閣)	556
퇴계선생(退溪先生)	47
퇴귀(退歸)	223
특(忒)	717
파 (罷)	129, 150
파관남환(罷官南還)	344
파둔영(罷屯營)	331
파사(婆娑)	478
파사성(婆娑城)	320
판득(辦得)	318
판작(辦作)	224
팔괘(八卦)	179, 288
8월(八月)	625
팔월풍(八月風)	217
편(偏)	271
편(偏)	648
편경(偏驚)	6
편다의(偏多意)	418
편마(編摩)	599
편선(編蹀)	271
편주(扁舟)	581
편타진(便墮塵)	389
편편(翩翩)	543
편편신릉(翩翩信陵)	543
평(平)	553
평론(平論)	296
평봉(萍蓬)	209
평봉적(萍蓬跡)	209

평분(平分)	398
평생(平生)	163, 448, 538, 672
평생악수(平生握手)	537
평시서 서령(平市署書令)	507
평호수(平湖水)	553
평호월(平湖月)	553
폐거(廢舉)	443
포(抱)	50, 61
포병(抱病)	10
포서(鋪敍)	327
포영중(泡影中)	486
표묘(縹緲)	28, 241
표연(飄然)	457
표표(飄飄)	450, 591
꽃말	58
품제(品題)	497
풍(風)	660
풍국(風菊)	532
풍기(風氣)	476
풍기(豐基)	56
풍기삼연(風氣颯然)	476
풍기안경(風起鴈驚)	349
풍류(風流)	637
풍산(豐山)	464, 618
풍산현(豐山縣)	464
풍상고(風霜苦)	293
풍엽(風葉)	161
풍엽(楓葉)	419
풍우(風雨)	69, 98
풍운(風雲)	242, 726
풍운기(風雲氣)	726
풍잔(風殘)	397
풍저창 직장(豐儲倉直長)	507
풍진(風塵)	322, 484, 701
풍환(馮媛)	323
피(披)	627
피간(披肝)	627

필마(匹馬)	619, 652	한부(漢府)	328
하(河)	362	한성(寒聲)	524
하곡(河曲)	385, 681	한성부 판관(漢城府判官)	507
하광(霞光)	241	한성진(寒聲盡)	524
하기성(下箕城)	329	한수(漢水)	162
하납뇌(賀臘雷)	437	한수(閑愁)	466
하로(下路)	702	한수(間愁)	61
하보(何補)	287	한식(寒食)	460, 464, 562
하상(河上)	357, 408	한식로(寒食路)	562
하서림(下西林)	252	한식우청(寒食雨晴)	464
하수(何須)	336, 491, 600	한신(間身)	643
하시(何翅)	404	한우(寒雨)	505, 711
하여(何如)	37, 267	한운(寒雲)	174, 297
하용(何用)	494	한운색(寒雲色)	297
하이(何以)	674	한월(寒月)	586
하장(河庄)	362	한유(韓愈)	493
하정(遐征)	340	한음(間吟)	134
하회(河回)	362	한음치(間吟處)	134
하회마을 역사와 관련된 개략적 내용	476	한정(間情)	615
학(鶴)	629	한중(間中)	657
학가산(鶴駕山)	622	한창(寒窓)	179
학가산두(鶴駕山頭)	622	한화(間花)	483
학금(學琴)	149	한화(寒花)	532
학득(學得)	354	함곡관(函谷關)	122, 339
학문(學文)	430	함녕(咸寧)	113
학봉(鶴峯)	234	함창(咸昌)	112
학봉형(鶴峯兄)	234	함효(函峭)	122
한(漢)	309	합(合)	128
한강(漢江)	162	합(湊)	691
한강(韓康)	451	합종(合縱)	341
한강백(韓康伯)	451	해(解)	391
한거(間居)	2, 15	해동(海東)	328
한거우제(間居偶題)	2	해문(海門)	29, 120
한덕재(韓德載)	292	해사(解事)	224
한래(間來)	183, 525	해역(海域)	81
한매(寒梅)	11, 649	해역인(海域人)	86
		해오인(解誤人)	391

해위(解圍)	465	헌상(軒裳)	120
해후(邂逅)	129, 133, 612, 705	헌학(軒鶴)	660
해휴지제(解携之際)	679	험조(險阻)	491
행가(行歌)	490	현(見)	205, 503
행객(行客)	308	현감(縣監)	201
행경(行逕)	512	현거(懸車)	696
행경몰(行逕沒)	512	현담(玄譚)	145
행년(行年)	450	현삼(絃澹)	149
행세(行世)	448	현의(玄衣)	262
행운(行雲)	89	형(迥)	15
행음(行吟)	576	형(荊)	208
행장(行藏)	276, 290, 563, 654	형극(荊棘)	482
행정(行庭)	611	형용(形容)	196
행진(行塵)	689	형제(兄弟)	580
행화(杏花)	658	형주(荊州)	292
향(香)	161, 183, 587	형주면(荊州面)	292
향(向)	58, 124	혜시(惠施)	390, 568
향관(鄉關)	385	혜심(慧諶)	629
향관귀흥(鄉關歸興)	384	혜자(惠子)	568
향국(鄉國)	689	혜초(蕙草)	546
향래(向來)	570	호(湖)	196, 553
향로(向老)	579	호(好)	87
향루세(香縷細)	183	호경(鎬京)	627
향반(香槃)	587	호광음(好光陰)	714
향북(向北)	631	호도료(好度遼)	87
향사(鄉社)	698	호량(濠梁)	569
향전(香篆)	587	호묘(浩渺)	39
향청(向淸)	58	호범월(湖泛月)	108
향화(香火)	462	호산(湖山)	555
허(墟)	38	호월(湖月)	553
허국(許國)	318	호음(湖陰)	112
허당(虛堂)	150	호종공(扈從功)	625
허빈(虛北)	443	호추심(好追尋)	643
허선화(虛宣化)	176	호해(湖海)	287
현(軒)	217, 268, 660	호호(浩浩)	321
헌납(獻納)	57	혹(或)	183
헌대만봉(軒對晩峯)	268	혼노어(混魯語)	567

훈부조(昏復朝)	374	환지(還知)	389
훈조(昏朝)	374	황(黃)	244
홀억서강(忽憶西江)	43	황각(黃閣)	694
홀현초(忽見招)	205	황각로(黃閣老)	694
홀홀(忽忽)	282	황강역(黃江驛)	343
홍금악(紅錦幄)	648	황경삼(荒逕澹)	642
홍반렴(紅半斂)	397	황농(皇農)	596
홍부사(洪府使) 군서(君瑞)	603	황농막원(皇農邈遠)	595
홍시청차(紅柿淸茶)	410	황령(皇靈)	327
홍이상(洪履祥)	603	황예(荒穢)	478
홍입도화(紅入桃花)	359	황운(黃雲)	606
홍진(紅塵)	225	황줄가소(荒拙可笑)	317
홍진거(紅塵裾)	225	황탁(黃濁)	124
화(華)	317	황하(黃河)	339, 718
화(和)	599	황화(黃花)	168, 418
화공(化工)	600	회(晦)	387
화뇌(花惱)	471	회묘묘(懷渺渺)	121
화만강촌(花滿江村)	456	회수(回首)	117, 232
화명(花明)	574	회암(晦庵)	91, 721
화사(畵蛇)	661	회암문선(晦庵聞蟬)	721
화산(花山)	423, 510	회풍(回風)	590
화서(禾黍)	89	황만적(橫晩笛)	516
화서심(禾黍深)	89	황예(橫曳)	241
화석정(花石亭)	311	황일말(橫一抹)	410
화왕(花王)	649	황적(橫笛)	516
화운(和韻)	358	효관(峣關)	122
화작(化作)	668	효릉(孝陵)	306
화풍(和風)	384	효벽(曉壁)	129
환(還)	11, 531, 668	효잉명(曉仍明)	349
환가(還家)	609	효종(曉鐘)	657
환경굴(還鯨窟)	327	후공(後工)	183
환도(環堵)	610	후미(厚味)	701
환산(還山)	336	후조고(候朝鼓)	490
환연안(還延安)	455	훈도(訓導)	641
환자열(還自悅)	592	훈풍(薰風)	439
환정(還程)	384	원추(喧啾)	374
환조(還朝)	158	휴수(携手)	410

흔봉(欣逢)	581	희기(喜氣)	431
흔연(欣然)	344	희모(戲侮)	480
흥란(興蘭)	522	희문(義文)	185
흥회(興懷)	599, 618	희서(戲書)	57
희경(義經)	179	희심(喜甚)	224



국역 및 감수



류명희(柳明熙)

本貫 豊山
臺灣 國立政治大 문학박사
부산대학교 명예교수

주요논저

李清照詩詞箋釋
蘇東坡詞所表現的
心路歷程研究
敦煌歌辭의 意境研究(1, 2) 외 다수

안유호(安維鎬)

本貫 順興
臺灣 國立師範大學 역사과 졸업
(前) 충북 충현고교 교사(한문·중국어)
학원강사(한문·중국어)

국역 서애전서 Ⅲ-3

국역 류성룡 시Ⅲ

2017년 5월 20일 초판 발행

발 행 인 류 진(柳 津)

발 행 처 사단법인(社團法人)

서애선생기념사업회(西厓先生紀念事業會)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23(풍산빌딩 16층)

전화 : 02)3406-5862, 5670

제작·공급처 한스북스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32길 24 예장빌딩 301호

전화 : 02)3273-1247

등록번호 제301-2011-205(2011. 11. 15)

비매품

ISBN 979-11-87317-03-6 04810

ISBN 978-89-967692-0-0 (세트)

